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집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에스라 성경 사전

편집자 / 정동수

1판 / 2006년 10월 1일

2판 / 2015년 5월 15일

3판 / 2024년 5월 24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40-1 03230

정가 : 25,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Ezra
Bible
Dictionary

—*Edited by D.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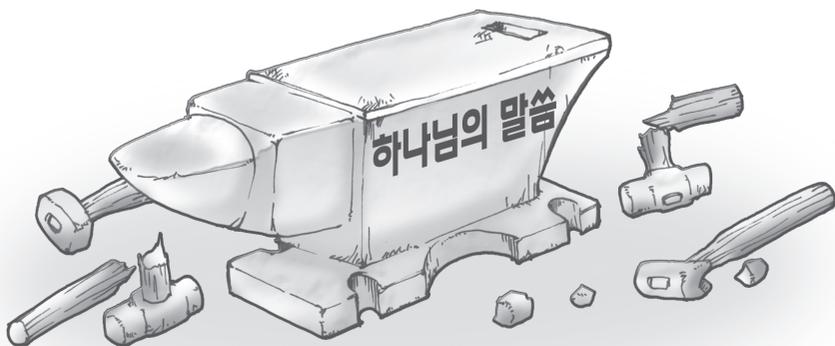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케스터 에디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존재하며
그 많은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목 차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	6
성경 책 이름과 약자	-----	8
성경 개관	-----	9
성경의 66권 책 소개	-----	12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	50
성경 교리 요약	-----	52
성경 암송 구절	-----	63
성경 해석법	-----	74
전도 가이드	-----	13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	139
성경 사전	-----	150
지도와 선도(148쪽)	-----	481
성경 연대기	----- (지도와 선도 내) -----	136
지도 색인	----- (지도와 선도 내) -----	140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의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 작자 미상



에스라 성경 사전을 출간하면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어떤 창조물도 그분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양심과 자연 세계라는 일반 계시를 주셨고(시19:1-6; 롬1:18-32)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객관적인 형태로 말을 사용하여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경의 모든 단어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으므로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딤후3:16). 자필 원본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시12:6-7; 사40:8; 마24:35).

주후 100년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역본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 14세기 이후로 영어 시대가 열리면서 1382년경에 최초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로 묶인 위클리프 성경이 출간되었고 그 뒤 230년이 지나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00여 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온 세상에 창조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햇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약 30년의 노력 끝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성경이 완역/출간되었습니다.

본 사전의 편집자는 35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접한 이후로 영미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연구를 위해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각종 관주/주석 성경 등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강하게 뿌리를 내려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도 여러 종류의 참조/관주 성경들이 나왔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보통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책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 이후에 성경을 알고자 하는 평범한 성도들의 선한 욕구를 채워 줄 성경을 제작할 것을 결심하였고 그 결과 성경의 매 페이지 중간에 세로로 관주를 넣고 뒷부분에 성경 사전과 컬러 지도와 선도를 넣은 스테디 바이블을 출간하였습니다. 다른 주석 성경과 달리 스테디 바이블 본문에는 문단이나 장의 제목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주석을 넣지 않았고 대신 부록에 사전을 넣어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 자체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편집자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선도와 지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대기, 지도, 지형 선도, 교리 이해 선도 등을 직접 제작하여 스테디 바이블에 넣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생기면(암8:11)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호4:6; 6:6).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죽은 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기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 주어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니라”(느8:8). ‘에스라 성경 사전’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본 사전을 읽는 분들이 스스로 읽은 것을 이해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본 사전 출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은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응답했습니다(행8:30-31). 본 사전은 빌립과 같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여 독자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풀어 주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예로 남겨 주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것들을 정리하여 풀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눅24:32).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일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해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이 많아도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롬10:2-3). 바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바른 구원과 교리와 실행이 나오고 바른 교회가 설립됩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스터디 바이블의 바른 본문과 본 사전의 성경 공부 도구들을 통해 독자들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 사전이 나오기까지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고 지도와 선도, 표지를 만들어 주며 글을 인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긴 작업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 에스라 성경 사전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스터디 바이블의 사전, 지도, 선도 등과 더불어 성경 개관, 성경 암송 구절, 성경 해석법 등 다양한 성경 공부 도구들이 들어 있음

성경 책 이름과 약자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창세기(창)	전도서(전)	마태복음(마)	베드로전서(벧전)
출애굽기(출)	솔로몬의 아가(아)	마가복음(막)	베드로후서(벧후)
레위기(레)	이사야서(사)	누가복음(눅)	요한일서(요일)
민수기(민)	예레미야서(렘)	요한복음(요)	요한이서(요이)
신명기(신)	예레미야 애가(애)	사도행전(행)	요한삼서(요삼)
여호수아기(수)	에스겔서(겔)	로마서(롬)	유다서(유)
사사기(삿)	다니엘서(단)	고린도전서(고전)	요한계시록(계)
룻기(룻)	호세아(호)	고린도후서(고후)	
사무엘기상(삼상)	요엘(욘)	갈라디아서(갈)	
사무엘기하(삼하)	아모스(암)	에베소서(엡)	
열왕기상(왕상)	오바다(옵)	빌립보서(빌)	
열왕기하(왕하)	요나(욘)	골로새서(골)	
역대기상(대상)	미가(미)	데살로니가전서(살전)	
역대기하(대하)	나훔(나)	데살로니가후서(살후)	
에스라(스)	하박국(합)	디모테전서(딤후)	
느헤미야기(느)	스바냐(습)	디모테후서(딤후)	
에스더기(에)	학개(학)	디도서(딤후)	
욥기(욥)	스가랴(슌)	빌레몬서(몬)	
시편(시)	말라기(말)	히브리서(히)	
잠언(잠)		야고보서(약)	

1. 본 사전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인명, 지명 및 성경 각 권의 제목 등은 기존의 것들과 거의 같으므로 다른 한글 성경을 사용하는 독자들도 특별한 문제없이 사전과 지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신성한 사문자 JHWH를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출20:7) 여호와로 표기하지 않고 전 세계 대다수 성경의 표현대로 주(LORD)로 표현했으므로 본 사전도 이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3.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구약에서 애굽, 바로, 앗수르, 바벨론을 각각 이집트, 파라오, 아시리아, 바빌론으로 신약에서 가이사, 아구스도, 요단을 각각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요르단으로 바꾸었습니다.

4.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구약에서 예언과 나라를 각각 대언과 왕국으로, 구약에서 소제, 전제, 속죄제, 속건제 등을 각각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등으로 그리고 신약에서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대비되는 사람의 아들로,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과 대비되는 하늘의 왕국으로 원어 및 영어에 있는 대로 알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성경 개관

● 성경의 정의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Bible'은 마1:1에서 '책'을 가리키는 그리스말 'Biblos'에서 유래하였으며 5세기 이후부터는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으로서 여러 책을 모은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His story)이며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 왕, 농부, 어부, 의사, 정치가, 학자 등 - 이 쓴 '한 책'(One book)이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성경기록'(마21:42; 벰후1:20), '거룩한 성경기록들'(롬1:2), '율법'(요12:34),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눅24:44),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마5:17), '옛 상속 언약'(고후3:14)이라 부른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으며 이때에 나온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니다.

●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거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히1:1 - 2).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인들이다(신6:17; 시119:89; 잠30:5 - 6; 렘23:29; 마5:17 - 19; 마22:29; 막13:31; 행17:11; 롬10:17; 딤후3:15 - 17; 벰전1:23 - 25; 벰후1:20 - 21; 계22:18 - 19).

● 성경의 구성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 성경으로 구분된다. 성경은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788,258개 영어 단어(구약 609,247개, 신약 179,0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과 절은 시편 119편과 에스더기 8장 9절이고 가장 짧은 장과 절은 시편 117편과 요한복음 11장 35절이다. 성경의 중간 장은 시편 117편이며 성경의 중간 절은 시편 103편 1, 2절인데 그 가운데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이다.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스4:8 - 6:18; 7:12 - 26; 렘10:11; 단2:4 - 7:28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율법: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2) 대언서: (a) 전기 대언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b) 후기 대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열두 개의 소 대언서)
- (3) 거룩한 기록들: (a) 진리(시편, 잠언, 욥기), (b) 다섯 개의 두루마리(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c)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신약 성경은 당시의 통용어이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 일을 담고 있는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성경에 지금과 같은 장과 절의 구별이 없었다. 고대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주후 9세기경에 절을 표시했다. 한편 주후 13세기경에 휴고 등은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누었고 주후 1551년에 스테파누스(스테판)는 신약 성경에 절을 붙였는데 그 뒤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 성경의 주제와 내용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시간' 이전의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4년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다.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요20:30·31; 요일5:20).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 준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 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실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며(롬3:4) 또한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책이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인간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한다. 사람은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편견 없이 이런 책을 지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끝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 주는 유일무이한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 있는 말씀'이다(요14:1·9).

● 성경기록의 계시, 영감과 보존, 그리고 번역과 해석

1.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 수 없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다. 성경의 계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a) 땅원경적인 측면: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준다. (b) 현미경적인 측면: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의 일 등을 자세히 보여 준다. (c)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 성경은 그 안의 모든 것이 어떠한 모습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2.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 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라는 말은 참으로 합당하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모든 성경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3:16).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를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단지 사상에만 주시지 않고 모든 단어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대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다(마4:4).

3. 보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성경기록을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말씀의 보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무의미하며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시12:6·7; 마24:35).

4.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신약 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다.

5.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

로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비주의적 해석이나 비유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한다.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하며 역사적 해석이란 기록된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 성경기록의 정경

원래 정경(Canon)은 측량 막대기로서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표준을 뜻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 잣대'인 정경으로 사용되었다. 유대교는 처음부터 줄곧 구약 성경의 39권만을, 기독교는 구약 성경의 39권과 신약 성경의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천주교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또한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다수 본문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왔다. 정경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하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공회 등의 기구를 통해 정경을 인정할 뿐이지 정경을 결정할 수 없다. 제사장들에 의해 정전 안에 사본들이 간수된 구약 성경의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완료되었다. 한편 신약 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를 얻었으며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

●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성경전서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82년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이다. 그 뒤 인쇄술이 발명되어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고 1535년에 커버데일은 최초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전서를 발간하였다. 그 이후 커버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교도인 매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 제네바에 거하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611년에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KJB)이 출간되어 지난 400여 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이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른 때에 당대의 석학 50여 명이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단 한 번의 수정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이겨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영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축자적으로 정교하게 번역하여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표현함으로써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이후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같은 현대 역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은 한결같이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수천 군데에 오류를 담고 있다. 특히 NIV는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의역)이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다.

● 성경의 영향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며 팔리고 영향을 미친 책이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은 없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인이라 불리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경전이 없다. 성경이 이러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숨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볼테르 같은 인본주의 불신자들이 성경 무용론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을 제공하는 생명 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이다(막9:42-50; 눅12:4-5; 요3:16; 5:24; 17:17; 20:30-31).



성경의 66권 책 소개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째 책

창 세 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2,315년(어서의 연대기)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롬15:4; 고전10:11)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처음에'(In The Beginning)라고 불렀다. 영어 책명 'Genesis'는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게네시스'에서 유래하여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기원'을 뜻한다. 따라서 창세기는 사람과 우주의 시작을 보여 주는 책이다.

주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

목적: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인류에게 보여 주는 것(3:15, 21; 22:8; 마20:28; 요1:29; 갈4:4-5)

내용: 창세기는 창조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 주는 책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희생 예물을 통해 잠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여자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창세기에는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발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족장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사,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진출 등도 들어 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자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뒤 죄가 은밀히 들어와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다. 창세기는 사람의 죽음과 만물의 쇠퇴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신약으로 연결되어 창세기의 말씀들은 신약 성경의 17권 책 속에서 60여 차례 인용되고 있다.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1:20-28) 사망으로 끝난다(50:26). 창세기는 50장, 1,533절, 38,26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창조), 12장(아브라함을 부르심)

핵심 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1:1)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타파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고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타당하지 않으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합당하지 않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핵심 단어: 처음(시작), 핵심 구: '처음에'(1:1)

창세기의 그리스도: 1. 여자의 씨(3:15; 마1:18-25; 갈4:4), 2. 아브라함의 씨(12:1-2; 갈3:29), 3. 우리의 화평이신 실로(49:10; 요16:33; 롬5:1), 4. 이스라엘의 돌이신 목자(49:24; 요10:11)

영적 교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눅1:37; 요15:5).

탈출이라 하는 모세의 둘째 책

출애굽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율법, 기간: 약 216년(어서)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탈출과 시내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 공식 출범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성도들(롬15:4; 고전10:11)

이름: 영어 책명 'Exodus'는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엑소더스'에서 유래하여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서 '탈출'을 뜻한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과 영적으로는 사람이 죄의 왕국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여 준다.

주제: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6:6-8; 19:4-8; 24:1-7; 25:8)

목적: 인간 구속의 당위성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온 인류에게 보여 주는 것(엡2:1-10)

내용: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요셉과 모세 사이의 시기는 1장 6-7절로 간략히 기술되고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절박한 상황이 묘사되기 시작한다. 한때 파라오와 요셉의 총애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속박의 집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나타나 히브리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만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구속하시기 위해 일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다음에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시어 이집트 탈출이라는 구속 사건을 일으키신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것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선민으로 삼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고난, 하나님의 공훈과 그것을 통한 해방, 광야에서의 성막 예배 규제 등은 출애굽기의 중요한 진리들이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마귀의 왕국인 영적 이집트를 떠나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며 승리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과 이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간접 체험하면서 풍성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직무 그리고 은혜 등을 가리키는 예표가 많이 있다. 출애굽기는 40장, 1,213절, 32,685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2장(유월절)

핵심 절: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한가운데를 지나가실 때에 문외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12:23), 핵심 단어: 구속(대속). 출애굽기는 기록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함을 보여 줌과 동시에 구속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핵심 문구: '너희를 넘어가리라'(12:13)

출애굽기의 그리스도: 1. 하나님(3:14, 요8:58 참조), 2.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12:5, 고전5:7 참조), 3. 만나(16:14-22, 요6:35 참조), 4. 반석(17:1-7, 고전10:4 참조)

영적 교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나오라.

레위 사람들에 관한 법이라 하는 모세의 셋째 책

레위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율법

수신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주께서 부르셨다'(The LORD called)라고 불렀다. 영어 책명 'Leviticus'는 레위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레위티콘'에서 유래하여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레위 사람들에 관한 책'을 뜻한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주로 레위의 제사장 체계, 제사장들의 섬김, 희생 율법 등을 다루기 때문이다.

주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록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보여 주는 것

목적: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고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 주는 것(엡1:7; 히10:19-22)

내용: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는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관계와 유사하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기록으로서 구속받은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들의 하나님께 가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경배하는 일의 초석을 제공한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의 기초 위에 섬김과 경배의 구체적인 일들을 쌓는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산에서 말씀하시지만 레위기에서는 자신이 친히 거하며 자신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막에서 말씀하신다. 레위기는 신정 정치하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법들을 전적으로 다루며 이 안에는 시민법, 의식법, 윤리법, 종교법, 정결례 등에 관한 법규들이 들어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의식법과 종교법에 주목한다. 레위기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희생과 명절 그리고 의식과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레위기의 설명서로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두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예표와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레위기는 27장, 859절, 24,541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6장(속죄일)

핵심 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19:2), 핵심 단어: 거룩함(94회)

핵심 문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11:44)

레위기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히4:14), 영적 교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백성의 수라 하는 모세의 넷째 책

민수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9년(어서)

수신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둘째 세대의 이스라엘

이름: 영어 책명 ‘Numbers’는 수(數)를 뜻하는 그리스어 책명 ‘아리스모이’에서 유래하여 라틴어 ‘누메리’를 거쳐서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많은 종류의 수를 보여 주는 책’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여러 종류의 수 -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의 통계(1:20-46), 레위의 특정 가족들의 수(3:14-51), 이스라엘 족장들의 통계(26:5-51), 여러 행사 때에 바친 희생 제물의 수(28:1-29:23), 미디안 사람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의 수(31:32, 52) 등 - 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우리말 책명 ‘민수기’는 이 책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책은 히브리 책명 ‘광야에서’가 의미하듯이 인구 조사가 주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걸려간 광야의 여정이 핵심이다. 주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목적: 사람이 믿음을 통해 시험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민수기는 모세의 이전 세 책과 더불어 성도의 경험을 완벽한 그림으로 제시한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출애굽기는 구속, 레위기는 경배와 교제, 그리고 민수기는 섬김의 여정을 보여 준다. 민수기는 이집트 탈출 이후 둘째 해 둘째 달부터(1:1; 10:11) 40년째 되는 해에 요르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22:1; 26:3; 33:1-36:13). 민수기에는 몇 장에 걸쳐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지만(1-4장, 26장) 책의 대부분은 율법과 규례와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경험을 다룬다.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인구 조사는 큰 중요성을 지닌다. 첫 번째 조사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며 시내 산에서 행해졌고 두 번째 조사는 약 40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요르단 강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의 인구 조사가 민수기를 양분한다. 1-21장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광야 시대를 다루며 26-36장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몇 달 전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이 두 시대의 분기점에 등장하는 거짓 대언자 발람의 이야기는 문학 및 예언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민수기는 36장, 1,288절, 32,89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4장(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신)
 핵심 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들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에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33:1), 핵심 단어: 여정
 핵심 문구: ‘여정이 이러하니라’(33:1), 민수기의 그리스도: 1. 반석(20:11; 고전10:4), 2. 별 - 통치자(24:17; 계22:16), 3. 홀 - 치리자(24:17; 담전6:14-15)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곳에서 있으라.

반복의 율법이라 하는 모세의 다섯째 책

신명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율법, 기간: 약 40년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말씀들’(The Words)이라고 불렀다. 영어 책명 ‘Deuteronomy’는 신명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듀테로노미온’에서 유래하여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두 번째 율법’을 뜻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율법을 받았음을 뜻하지 않으며 다만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여기서 다시 한 번 검토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주어짐을 뜻한다. 우리말 책명 ‘신명기’는 ‘명령들을 자세히 설명한 책’을 뜻하며 이것은 신명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회고, 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을 안내하기 위한 교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
 목적: 성도들이 겪는 믿음의 시련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고 아울러 현재에서의 삶의 원리와 미래의 소망을 알려 주는 것
 내용: 신명기는 시내 산에서 처음에 주어진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한 새 세대의 출현과 이들이 한 번도 밝아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유랑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면서 이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의 필요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다. 여기에서 모세는 새 세대에게 과거에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 번 복습시키고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떤 조건하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 준다. 머잖아 그들을 떠날 모세는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율법이야말로 그들이 지켜야 할 순종의 잣대요 행복의 열쇠였다. 그래서 모세는 구세대의 불순종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가나안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미리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꾀계를 물리치셨고(마4:1-11) 율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셨다(마22:37). 신약 성경의 27권 책 중에서 17권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다. 신명기는 34장, 959절, 28,35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9장(팔레스타인 언약)
 핵심 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6:5)
 핵심 단어: 1. 순종, 2. 기억하라, 핵심 문구: ‘지켜 행하라’(12:1)
 신명기의 그리스도: 대언자(18:15-19; 행3:22-23; 7:37), 영적 교훈: 멈추어 서서 기억하라.

여호수아기

기록자: 여호수아, 기록 시기: 주전 143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26년

수신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름: 영어 책명 'Joshua'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를 뜻한다.

주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배분하는 것

목적: 성도들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복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여호수아기는 모세 오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며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두 지파가 약속의 땅에 정착함으로써 생겨난 신정 국가를 보여 준다(11:23; 21:43-45).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책임을 맡았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국가가 정착되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서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 일은 친히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셔서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된다. 여호수아기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께서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심을 입증한다. '예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구원이다'를 뜻하며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들과 투쟁하여 승리와 복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보여 준다(엡1:3; 2:6; 6:12). 그러므로 여호수아기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에베소서와 신약 성도들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원수의 권능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의 예표로 이해될 수 있다. 여호수아기는 24장, 658절, 18,85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심), 핵심 절: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이루어졌더라."(21:45)

핵심 단어: 소유하라, 핵심 문구: "마음을 강하게 하라"(1:6, 7, 9, 18)

여호수아기의 그리스도: 구원의 대장(5:14; 히2:10), 영적 교훈: 네 소유물을 차지하라.

사사기

기록자: 사무엘(탈무드), 기록 시기: 주전 110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05년(어서)

수신자: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름: 영어 책명 'Judges'는 사사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크리타이'에서 나온 말로서 '재판관들'을 뜻한다. 우리말 책명 '사사기'는 고대 중국의 재판관을 가리키는 사사(士師)에서 유래하였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 사이에 이교도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 혹은 구원자를 뜻하는 '쇼페팀'(복수)에서 유래하였다.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은 영어나 우리말의 재판관이 지닌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한다. 고대 국가에서 이 단어는 문관(文官)이나 국가의 수뇌를 묘사할 때 사용되곤 하였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재판관이 등장하며 아비멜렉은 스스로 권력을 빼앗아서 재판관 노릇을 하였다. 주제: 하나님께서 추방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추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저들이 허리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목적: 성도가 누려야만 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 주며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다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내용: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의 죽음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제공한다. 사사기에는 재판관들의 생애와 직무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정 정치를 통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였다. (1) 이스라엘이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받아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2) 이스라엘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때; (3)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여 적군을 치게 할 때; (4) 공의를 수행할 때. 재판관들은 왕들과는 달랐으며 그래서 그들의 직무는 지속되거나 다음

세대로 이양되지 않았다. 이 책은 타협으로 시작하여 무정부 상태로 끝을 맺는다. 사사기는 21장, 618절, 18,96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이스라엘의 배도의 시작), 핵심 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21:25), 핵심 단어: 구출하다(28회)

핵심 구: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1:21, 27, 29, 30 등). 이 구는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을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지 않음으로써 부분적인 승리만 얻게 된 것을 보여 준다. 사사기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출자(3:9), 영적 교훈: 우리의 주변을 주의해서 살펴보라.

룻 기

기록자: 사무엘(탈무드), 기록 시기: 주전 107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10년(어서)

수신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름: 영어 책명 ‘Ruth’는 히브리어 책명 ‘루트’에서 유래하였다. 이 책의 주인공 즉 남편이 죽은 뒤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룻4:18-22)과 예수님(마1:1, 5)의 조상이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룻기와 에스더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책명이 지어진 책들이다.

주제: 메시아가 나올 가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백성의 삶에 간섭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

목적: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것(1:16; 요4:22)

내용: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파들 간의 쟁투와 이방 세력의 압제로 인해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약화되어 있었다. 이집트 탈출 당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특히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재판관 시대의 일반적인 생활상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 출신의 경건한 가정이 겪는 기쁨과 슬픔을 보며 또 사사기 18-20장에 드러난 극도의 배도와 불안 속에서도 보아스와 같이 여전히 주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방 여인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과 충절을 보여 주었다. 룻은 자기의 첫 남편을 잃은 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약 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가 나올 민족을 세우게 하셨는데 룻기에는 바로 이 민족 안에서 장차 메시아를 배출할 가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룻기는 4장, 85절, 2,57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룻의 결심), 핵심 절: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4:14)

핵심 단어: 친족(2:1), 핵심 구: ‘가까운 친족’(2:20)

룻기의 그리스도: 우리의 친족-구속자(2:1), 영적 교훈: 곡식을 수확하라(시126:6).

왕들에 관한 첫째 책이라고도 하는 사무엘의 첫째 책

사무엘기 상

기록자: 사무엘 등, 기록 시기: 주전 106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115년(어서)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이름: 사무엘기상·하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명칭은 사무엘기상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에서 유래하였다. 히브리어로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를 뜻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기상·하는 한 권으로 ‘사무엘의 책들’이라 불렸으며

사무엘의 일생과 그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후에 이 둘은 라틴어 성경에서 '왕들에 관한 첫째 책과 둘째 책'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결과 열왕기상·하는 '왕들에 관한 셋째 책과 넷째 책'으로 불리게 되었다.

주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으로 말미암은 왕정 통치 제도를 확립하신 것

목적: 대언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창22:17)

내용: 사무엘기상은 재판관 시대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자기를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음을 보여 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언자와 재판관으로 부름받은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발전에 전환점이 되었다. 사무엘은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과도기 즉 이집트 탈출 사건에 버금가는 일이 벌어지는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회와 종교를 통일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는 대언자 직분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그것을 제사장직과 왕권의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사무엘 시대 이후로 대언자들은 민족의 영적 생활을 지속시키고 백성을 각성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통치자와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및 분단 왕국의 혼돈 상태에 대한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사무엘기상에는 사무엘의 출생과 엘리의 교육,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비극적 생애와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의 고난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기상은 31장, 810절, 25,048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8장(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

핵심 절: "그때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에게 말한 뒤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10:25; 8:7-18 참조)

핵심 단어: 왕과 왕국, 핵심 문구: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나이다'(3:9)

사무엘기상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롬1:3-4)

영적 교훈: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타도록 하라(3:3; 마5:14-16).

왕들에 관한 둘째 책이라고도 하는 사무엘의 둘째 책

사무엘기하

기록자: 나단(전승) 등, 기록 시기: 주전 101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8년(사울의 사망으로부터 다윗의 통치가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이름: 사무엘기상 참조

주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

목적: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복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사무엘기하에는 다윗의 통치의 시작과 그의 타락과 그것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 상태로 회복되는 일, 그리고 그의 왕국의 후반부 상황 등이 담겨 있다. 사무엘기상은 엘리와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 사람의 실패를 부각해서 보여 준다. 반면에 사무엘 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시고 왕정 정치를 정착시키시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책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로(삼하5:6-12), 시온이 종교적 중심지로 확립되는 것을 보여 준다(삼하5:7; 6:1-17). 이렇게 질서가 확립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계통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다(삼하 7:8-17). 사무엘기하는 24장, 695절, 20,600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5장(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함)

핵심 절: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5:12)

핵심 단어: 왕, 핵심 구: '주 앞에'(6:17), 사무엘기하의 그리스도: 다윗의 주(7:4-17)

영적 교훈: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자를 부르라.

흔히 왕들에 관한 셋째 책이라 하는 왕들에 관한 첫째 책

열왕기상

기록자: 예레미야 혹은 에스라(전승), 기록 시기: 주전 58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118년(다윗의 통치가 끝나는 시점부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죽을 때까지)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이름: 열왕기상·하라는 이름은 ‘왕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라킴’에서 유래하였다. 히브리 성경에서 열왕기상·하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며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와 업적과 그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다(사무엘기상 참조).

주제: 하나님께서 대언자 엘리야 시대까지 솔로몬과 분단 왕국의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 목적: 왕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 주며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도들의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사 복을 누리게 하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열왕기상에는 다윗의 죽음,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와 우상 숭배와 죽음,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통일 왕국이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것, 성전의 건립과 극도의 우상 숭배, 대언자 엘리야와 사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대결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훈 및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의 준수 여부에서 왕국과 왕들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근본 원인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타락과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일, 바알 숭배에 극력 반대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적이 자세히 기록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편 이 책은 마태가 기록한 메시아의 족보를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은 22장, 816절, 24,513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2장(종교 통합 - 아합과 여호사밧), 핵심 절: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에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11:13)

핵심 단어: 왕권, 핵심 구: ‘자기 아버지 다윗’(2:12)

열왕기상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왕을 왕의 자리에 앉혀라.

흔히 왕들에 관한 넷째 책이라 하는 왕들에 관한 둘째 책

열왕기하

기록자: 예레미야 혹은 에스라(전승), 기록 시기: 주전 58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08년(아합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야긴의 마지막 날까지)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이름: 열왕기상 참조

주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배도의 절정과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목적: 성도들에게 배도의 원인과 방법과 결과를 보여 주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견도록 촉구하는 것

내용: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이어서 분열 왕국의 왕들의 생애와 업적을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일을 기록한다. 또한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의 사역 등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기간에는 여러 대언자들이 출현하여 이스라엘의 배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유다에서는 오바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이 활동했다. 열왕기상·하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열왕기상에는 다윗 왕의 죽기 전 분부와 임종, 솔로몬의 영화, 순종의 복, 성전 건축, 배도의 진행 과정이 들어 있다. 또한 왕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통치하

지 못하는 일이 드러나고 엘리야가 등장하며 주의 인내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반면에 열왕기 하에는 바빌론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 여호야긴의 수치스러운 종말, 불순종의 저주, 성전의 몰락과 배도의 결과가 드러난다. 또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 엘리사의 등장, 죄에 대한 주의 분명한 징계가 나타난다. 열왕기하는 25장, 719절, 23,517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권능)

핵심 절: “이제 너희는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하신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알라.”(10:10), 핵심 단어: 악하다, 핵심 구: ‘주의 말씀대로’(1:17),

열왕기하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성령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보다 두 배나 임하도록 기도하라(2:9).

첫째 연대기

역대기상

기록자: 에스라, 기록 시기: 주전 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41년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이름: 영어 책명 ‘Chronicles’는 기록한 역사 연대기를 뜻하는 라틴어 책명 ‘크로니코룸 리베르’에서 유래하였다. 역대기는 역사적 사실들을 연대별로 기록한 글로서 히브리말로는 ‘그 시대의 말씀들’을 뜻하는 ‘디브레하야뎀’이라 불렀다. 역대기상·하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 특히 유다 왕국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원래 역대기상·하는 한 권이었으나 후에 현재와 같이 두 권으로 나뉘었다. 또한 최초의 히브리어 정경 배열에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위치하였다(사무엘기상 참조).

주제: 아담부터 다윗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예배

목적: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새 세대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 즉 약속된 왕 메시아의 계보를 알려 주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재건을 준비하게 하는 것

내용: 열왕기상·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를 시대별로 번갈아 가며 보여 주지만 역대기상·하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긴 족보와 함께 주로 남 왕국 유다의 사건들을 보여 준다. 특별히 역대기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와 유다 왕국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또한 역대기상·하는 사무엘기상·하와 열왕기상·하의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설명서라 할 수 있다. 역대기상·하는 종교적이고 제사장과 성전 중심적이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치리하신다는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록한 반면에 사무엘기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왕족의 입장에서 왕의 일들을 다루어 왕좌 중심적이며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역대기상·하에는 다른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상은 29장, 942절, 20,365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1장(다윗이 왕이 됨)

핵심 절: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시라 하나님의 궤를 나르며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니라.”(15:2), 핵심 단어: 통치하다

핵심 문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29:16)

역대기상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왕가의 계보를 지켜라.

둘째 연대기

역대기하

기록자: 에스라, 기록 시기: 주전 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427년(어서)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이름: 역대기상 참조

주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느부갓네살의 성전 파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향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목적: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새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나 복을 주실 때나 언제든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시119:75; 히12:6-13)

내용: 역대기하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좌에 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책에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국이 분열되면서 북 왕국의 첫째 왕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것과 배도자 아합의 최후를 기록한 부분에서만 발견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유다 왕들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져서 유다가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와 성전을 건축한다는 암시가 들어 있다(스1:1-4 참조). 역대기하는 36장, 822절, 26,069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7장(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조건과 약속)

핵심 절: “너희가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15:2)

핵심 단어: 굳게 세우다

핵심 문구: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 즉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30:19)
역대기하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왕에게 존귀와 영예를 돌리라.

에 스 라

기록자: 에스라, 기록 시기: 주전 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80년(어서)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롭게 신정 국가를 확립해야 할 유다 백성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유다 백성의 개혁 운동 주도자이며 이 책의 기록자인 에스라에게서 유래하였는데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를 뜻한다.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간주했으나 라틴어 성경은 이 책을 ‘에스라의 첫째 책’이라 부르고 느헤미야를 ‘에스라의 둘째 책’이라고 불렀다. 주제: 성전과 성전 예배의 회복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교제와 복의 장소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히 12:6-13; 시119:75)

내용: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대인들이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 후에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보호와 도움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라와 같은 위대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의 인도를 통해 마침내 예루살렘에 둘째 성전이 완성되어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다. 에스라서 1-6장은 고레스 왕 통치 초기의 2, 3년과 다리오 왕 통치 6년 동안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7-10장은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초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6장은 성전의 완공과 함께 끝나며 7장은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뒤 에스라에게 일어난 일들의 서술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성전의 회복과 성전 예배의 부활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에스더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에스라서는 10장, 280절, 7,440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6장(성전 봉헌)

핵심 절: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자들과 함께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1:5)

핵심 단어: 건축하다, 핵심 구: ‘주의 말씀’(1:1)

에스라서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주, 영적 교훈: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라.

느헤미야기

기록자: 느헤미야, 기록 시기: 주전 430년경, 성격: 역사, 자서전, 기간: 약 12년(어서)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세 번째 귀환할 때 그들을 인도한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를 뜻한다(에스라서 참조). 주제: 바빌론에서의 세 번째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복구

목적: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

내용: 이 책은 스가라의 대언과 또 "고난의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단9:25)는 다니엘의 대언이 성취됨을 보여 준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에 느헤미야기는 성전 건축 이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에스라서는 포로들의 귀환과 함께 종교 영역의 회복을 보여 주며 느헤미야기는 정치 부문의 회복을 보여 준다. 이 책은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 백성의 원수가 누구이고 유다 백성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생생하게 드러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성도들에게 알려 준다. 느헤미야기는 13장, 406절, 10,480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유다 백성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

핵심 절: "간청하건대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법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1:8-9)

핵심 단어: 기도하다(1:4), 일하다(6:3), 핵심 문구: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2:20)

느헤미야기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주, 영적 교훈: 주를 위해 일할 마음을 품으라.

에스더기

기록자: 모르드개, 기록 시기: 주전 500년경, 성격: 역사, 자서전, 기간: 약 12년

수신자: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받은 페르시아 거주 유대인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 낸 에스더 왕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그녀의 히브리 이름과 페르시아 이름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하닷사'와 '에스테르'이다. 에스더의 그리스 이름은 '밝게 빛나는 별'을 뜻한다.

주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목적: 성도의 삶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이 책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린 이후에(스1:1-4)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은 특히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에스더기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책은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신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다른 어떤 책보다 더 잘 보여 준다. 이 책은 룻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의 이름에 근거한 책이다.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지만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 여인이었다. 에스더기는 10장, 167절, 5,633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6장(모르드개가 존귀한 자가 됨)

핵심 절: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4:14), 핵심 단어: 구출, 핵심 구: '이와 같은 때'(4:14)

에스더기의 그리스도: 우리의 모르드개 - 구출자, 영적 교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읍 기

기록자: 읍, 기록 시기: 주전 2200-2100년경, 성격: 지혜 문학, 기간: 약 1년

수신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라틴어 성경에서 나왔으며 읍은 '고난당하는 자' 혹은 '미움을 받는 자'를 뜻한다. 에스겔서 14장 14, 20절과 야고보서 5장 11절 등은 읍이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 준다.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읍을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율법이나 성막 혹은 예전의 족장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읍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간주된다.

주제: 읍이 당한 시험과 같은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목적: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고 성도의 삶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이 책은 아라비아 사막의 우스라는 곳에 거하던 경건한 사람 읍에게 일어난 고난과 그 고난을 둘러싼 읍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로 인한 문제 해결의 과정을 기록한다. 읍은 자식도 많고 재산도 풍부하여 동쪽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읍의 믿음을 시험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뒤 먼저 읍의 소유물과 가족을 빼앗고 이어서 독한 중기로 그의 전신을 쳐서 그를 괴롭혔다. 읍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와 전통적인 교리를 내세우며 읍이 악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읍은 이를 반박하였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젊은 사람 엘리후 역시 양쪽에 잘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분개하여 충고하고 중재를 시도하지만 그의 말도 불완전하므로 결말이 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읍에게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된다. 읍기는 42장, 1,070절, 18,098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8장(읍이 하나님을 의식함), 핵심 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23:10)

핵심 단어: 단련받다, 핵심 문구: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1:21)

읍기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영적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서 일하시게 하라.

시 편

기록자: 다윗, 아삽, 모세 등, 기록 시기: 주전 1450-500년경, 성격: 시

수신자: 구약 시대 선민이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름: 유대인들은 시편을 단순히 '찬양' 혹은 '찬송'으로 불렀다. Psalms는 시편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살모이'에서 유래하여 영어로 정착된 말로서 시를 뜻한다.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로서 '성경의 중심'으로 불렸고 그래서 루터는 이 책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다.

주제: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특히 율법하에서 태어나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

내용: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시편만큼 다양한 종교적 체험 - 흠모(欽慕), 참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기쁨, 믿음, 은혜, 사랑, 증언 등 - 을 담은 책은 없다. 이 책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믿음에 관한 많은 표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시편에는 개인들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공동생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이 책에는 보편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의 단계들과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영적 체험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될 때 이런 보편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겪는 모든 체험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으로써 응답하였다. 시편 중 많은 것들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性品) 즉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 긍휼, 진리, 전지전능하심, 불변하심 등을 노래한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며 성경의 중간에 놓인 장이다. 한편 103편 1, 2절은 성경의 한가운데 놓인 절로서 그 가운데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로 되어 있다. 시편은 150편, 2,461절, 42,68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19편(하나님의 말씀)

핵심 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29:2), 핵심 단어: 찬양하라(150회 이상), 핵심 문구: ‘주를 찬양하라’(7:17)

시편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영적 교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가 되라.

잠 언

기록자: 솔로몬, 아굴, 르무엘 등, 기록 시기: 주전 1000-700년경, 성격: 지혜 문학

수신자: 솔로몬의 아들과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책의 히브리어 책명은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여기서 ‘잠언’은 ‘다스리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책으로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잠언’이라는 우리말 책명은 중국어 성경에서 온 것으로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뜻한다. 주제: 경험으로 얻는 지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목적: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지혜를 주는 것, 내용: 잠언은 히브리 지혜 문학의 일부로서 지혜의 말들과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 잠언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덕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이다. 잠언에는 두 가지 주제 즉 이 세상의 도덕 체계와 도덕적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의무가 담겨 있다. 잠언에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기 의지대로 살려는 어리석음이 대조되어 있는데 전자는 번영과 행복의 근간이며 후자는 고난과 사망의 원인이다. 잠언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에 맞는 지혜와 함께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 분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 우정, 탐닉, 교만, 갈등, 절제, 말하는 것, 부와 재물 등. 잠언은 31장, 915절, 15,038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8장(잠언의 가치)

핵심 절: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4:23)

핵심 단어: 지혜와 명철, 핵심 구: ‘주를 두려워하는 것’(9:10)

잠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8:12, 22; 고전1:30), 영적 교훈: 하나님의 지혜로 걸으라.

선포자 혹은

전 도 서

기록자: 솔로몬, 기록 시기: 주전 970년경, 성격: 지혜 문학

수신자: 솔로몬의 백성과 신하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

이름: 이 책의 히브리어 책명은 ‘코헬레스’이며 영어 제목 Ecclesiastes는 전도서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에클레시아스테스’에서 유래하였다. 원래 히브리 책명의 뜻은 ‘백성을 모으는 사람’이다. 기록자 솔로몬은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묘사하고 있다. ‘전도서’라는 우리말 책명은 중국어 성경에서 왔으며 말씀 선포자인 솔로몬의 설교를 담은 글을 뜻한다.

주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시도해 본 뒤 결국 그런 것들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경험

목적: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 아래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의 욕망을 채워 주지 못함을 깨닫게 하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 내용: 전도서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요4:13)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해 설명서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의 바로 뒤에 ‘솔로몬의 아가’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전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온 세상을 소유한다 해도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보여 주며 또한 이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음을 지혜자의 체험을 통해 알려준다.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이 땅에 속한 지혜나 지식 혹은 재물, 또는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참된 의무임을 알려준다. 전도서는 12장, 222절, 5,579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2장(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충고)

핵심 절: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오?”(1:2-3)

핵심 단어: 헛된 것, 핵심 구: ‘해 아래에서’(1:3), ‘영을 괴롭게 하는 것’(1:14)

전도서의 그리스도: 1. 가난하나 지혜로운 사람(9:14-16; 고전1:30; 고후8:9), 2. 창조자(12:1, 요1:1-3), 영적 교훈: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소망을 추구하라.

솔로몬의 아가

기록자: 솔로몬, 기록 시기: 주전 960년경, 성격: 시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일반적으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 책명 ‘쉬르하쉬림’ 즉 ‘노래 중의 노래’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서 유래하였으며 ‘캔티클스’라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사랑의 노래로서 자연과 계절과 양 떼와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유대인들은 ‘메길로스’라 불리는 다섯 두루마리 즉 아가서, 룻기, 에스더기,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를 해마다 각각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낭독하였으며 그중 아가서는 유월절 명절의 여덟째 날에 낭독하였다.

주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연합

목적: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께 성도들이 신실해야 함을 보여 주는 것

내용: 가난한 가정의 술람미 처녀가 솔로몬 소유의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젊은 목자를 만나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그녀의 연인인 목자는 다시 온다는 약속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이 처녀는 자신의 연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낙담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신실함을 보인다. 어느 날 그녀는 들에서 일하다가 자기 마을을 방문한 솔로몬 왕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깜짝 놀란 그녀는 그 왕이 자기의 연인인 목자임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바로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아가서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책이다. 아가서는 8장, 117절, 2,658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신랑과 신부의 교제), 핵심 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 껌을 먹이시는도다.”(6:3)

핵심 단어: 사랑하는, 핵심 문구: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다’(2:16) 아가서의 그리스도: 1. 사론의 장미(2:1), 2. 꿀짜기의 백합(2:1), 3. 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 - 하늘의 신랑(5:10), 영적 교훈: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대언자 이사야의 책

이사야서

기록자: 이사야, 기록 시기: 주전 70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62년

수신자: 남 왕국 유다 백성, 이름: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를 뜻한다.

주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통해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

목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 주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

배경: 주전 8세기 후반에 예로보암 2세가 사망한 뒤 북 왕국 이스라엘은 과곡을 맞이하고 결국 수도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의해 함락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장기간 통치하고 성경적 신앙이 위축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었다. 당시 타락한 아하스 왕 치하에 있던 유다는 배교한 이스라엘의 본을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인 주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교도 국가인 아시리아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기대하였다. 이때에 대언자 이사야와 미가는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 준엄하게 책망하였으며 사악한 아하스의 아들로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우상 숭배 산당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성경 교육을 강화하였다. **내용:** 대언자 이사야의 메시지는 역사에 관한 것도 있지만 회개 촉구와 예언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의 메시지에는 특히 세 가지 주제 즉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진 것을 보여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바빌론 포로 생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땅에서 그분을 통해 왕국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같이 이 책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뉘듯이 이사야서는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나뉜다. 이사야서는 66장, 1,292절, 37,03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53장(고난당하는 메시아)

핵심 절: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53:5), **핵심 단어:** 구원(28회), **핵심 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1:4)

이사야서의 그리스도: 1. 임마누엘(7:14; 8:8), 2. 평화의 통치자(9:6), 3. 영존하시는 아버지(9:6)
영적 교훈: 메시아가 오신다.

대언자 예레미야의 책 예 레 미 야 서

기록자: 예레미야, **기록 시기:** 주전 590년경, **성격:** 역사, 대언, 자서전, **기간:** 약 41년
수신자: 남 왕국 유다 백성, **이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를 뜻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서 대언자들 가운데 읍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주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의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 그리고 재립 이후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 시대에 의로운 가치를 통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오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공휼을 통해 복이 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배경: 솔로몬의 죽음과 왕국 분열 이후에 유다 왕국의 역사는 여러 차례의 종교적 타락과 개혁으로 이어졌다.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선정을 베푼 왕이었으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마지막 개혁은 율법서의 발견이 그 동기가 되었다. 그 뒤의 유다 역사는 계속되는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역사이며 결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는데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런 퇴락의 시기에 활동하였다.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600년경에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된 뒤 붕괴되었고 바빌론이 그 당시 문명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두 계파가 다투었다. 이집트 지지자들은 이집트가 세계의 지배자로 재등장하고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이집트를 의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반면에 바빌론 지지자들은 민족의 생존을 위해 바빌론에 항복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였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 이후 5년째인 요시야의 통치 제13년에 활동을 시작하였고 바빌론 포로 초기까지 계속해서 사역하였으며 이집트에서 생을 마쳤다.

내용: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질문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예레미야서에는 욕기보다 더 많은 질문이 들어 있다. 또한 이 책은 30-33장이 보여 주듯이 재림 이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 회복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은 애통의 책이요 핍박과 학대의 책이다. 이 책에는 “주로부터 임한 말씀이다.”라는 대언자의 외침과 함께 151개의 대언의 말씀이 들어 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바빌론을 161회나 언급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바빌론이 언급되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횟수이다. 예레미야서는 52장, 1,364절, 42,65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

핵심 절: “그러므로 내가 주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안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말하노라.”(2:19)

핵심 단어: 배신, 돌아오라, 핵심 문구: ‘가서 외치라’(2:2)

예레미야서의 그리스도: 의로운 가지(23:5), 그들의 왕 다윗(30:9)

영적 교훈: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전10:12).

예 레 미 야 애 가

기록자: 예레미야, 기록 시기: 주전 588년경, 성격: 개인의 증언, 시

수신자: 멸망한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이름: 이 책의 히브리어 책명은 1, 2, 4장의 첫 단어인 ‘에카’로서 이것은 ‘아아! 정말 슬프다!’를 뜻한다. Lamentations는 애가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트레노이’ 즉 ‘애가들’에서 유래하였다. 우리말 책명은 기록자 예레미야를 살려서 보통 ‘예레미야 애가’라 한다.

주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

목적: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성도들이 그분과 교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내용: 애가서는 자기가 대언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대언자의 심정을 기술한다. 대언자는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거나 징계로 인해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고 외친다. 또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공휼을 베푸셔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리라는 위로의 소망도 암시한다. 애가와 예레미야서는 유다 민족이 동일한 이유로 비운에 빠졌음을 밝히 보여 주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거짓 대언자들과 미지근한 제사장들 그리고 온 민족의 우상 숭배 죄와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려는 헛된 확신 등이다. 또한 유사한 비유적 표현이 두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치녀’ 또는 ‘딸’이라는 말이 두 책에 각기 스무 번 정도 나온다. 대언자의 눈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때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같은 것이 두 책에 잘 나타난다. 이 책은 각 장에 한 편씩 모두 다섯 편의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네 편은 애가이고 다섯째 편은 기도 시라 볼 수 있다. 처음 네 편은 각 행의 배열 면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시는 이십이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순으로 시작된다. 5장도 역시 이십이 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 애가서는 5장, 154절, 3,411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께 나눔)

핵심 절: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1:1)

핵심 단어: 눈물, 핵심 구: ‘애곡과 애통’(2:5)

애가서의 그리스도: 나의 뉘(3:24)

영적 교훈: 너희 죄가 말소되도록 회개하라(3:25; 행3:19).

대언자 에스겔의 책

에스겔서

기록자: 에스겔, 기록 시기: 주전 560년경, 성격: 대언, 기간: 22년 이상

수신자: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

이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를 뜻한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93회나 그를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셨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키며 84회나 사용하신 귀한 명칭이다. 그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시니라."라는 표현과 함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였다.

주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주의 영광이 떠난 것과 재림 이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 때에 그분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

목적: 슬픔과 시련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성도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

배경: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바빌론 포로 시대 초기인 주전 590-560년경이었다.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유다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환상 계시를 보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유다 왕국의 최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느고의 군대는 주전 605년경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였으며 그 이후에 갈대아 사람들이 중동 지역의 지배자가 되어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다. 사악한 여호야김 왕은 대언자들을 박해하고 유다 민족의 영적 타락을 가져왔으며 폭정을 행하였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오기 전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은 석 달을 다스린 뒤 예루살렘을 포위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였다. 예루살렘을 약탈한 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수천 명의 상류층 사람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잡아갔는데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기 7년 전부터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적어도 22년 이상 사역을 수행했다.

내용: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대언하였는데 이것은 편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이집트가 바빌론의 멍에를 끊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결국 그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을 보여 주려 함이었다. 그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함을 강력히 대언하였다. 그 뒤에 그는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유다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 복을 받는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 그의 대언의 많은 부분은 상징으로 주어졌으며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것들의 성취를 보여 주었다. 에스겔서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에스겔서는 48장, 1,273절, 39,401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7장(마른 뼈 환상)

핵심 절: "한편 제삼십년 사월 곧 그달 오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1:1) 핵심 단어: 환상 계시

핵심 문구: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6:7), 이 표현은 60회나 나옴.

에스겔서의 그리스도: 1. 목자(34:23), 2. 다윗(34:23), 영적 교훈: 주의 성소를 회복하라.

다니엘서

기록자: 다니엘, 기록 시기: 주전 606-536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60년

수신자: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

주제: 느부갓네살부터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에 관한 예언과 역사,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목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궁창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을 보여 주는 것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를 뜻한다. 다니엘은 정치인이면서 대언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때까지 온 세상 왕국이 변천하는 것을 미리 보며 대언하였기에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내용: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 기간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대인들의 성전과 수도가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였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것은 주전 606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קים을 굴복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이루어졌으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에 붙잡혀 갔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와 그분의 지상 사역, 로마 제국의 붕괴 등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에 관한 '칠십 이레'의 예언이 들어 있다. 다니엘서는 12장, 357절, 11,60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핵심 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2:44), 핵심 단어: 왕국(57회), 핵심 구: '마지막 날들에'(2:28) 다니엘서의 그리스도: 1. 둘(2:35, 45), 2. 하나님의 아들(3:25), 3. 사람의 아들(7:13), 4. 메시아(9:25), 영적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져오신다.

호 세 아

기록자: 호세아, 기록 시기: 주전 72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60년

수신자: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 이름: 호세아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를 뜻한다. 호세아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남 왕국 유다를 향해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 대언자와 비슷한 사역을 수행했다. 주제: 이스라엘의 배교와 회복

목적: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권고를 가르쳐 주는 것

내용: 대언자 호세아는 사악한 정부(情夫)를 따르기 위해 신실한 남편에게 등을 돌린 아내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실제로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호세아 자신의 체험에서 나왔다. 호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간적 관점에서 비극적인 결혼을 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고귀한 소망을 지닌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그녀의 음란한 품성을 알게 되며 그래서 곧이어 별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세아의 사랑은 지속되었고 결국 그는 그녀와 다시 결합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과 유사하다. 주께 신실할 것을 맹세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리실 때까지 바알 신과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약속과 함께 마지막 때에 영적인 씨가 행복을 누릴 것을 보여 주셨다. 호세아서는 14장, 197절, 5,17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핵심 절: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 자신을 파멸시켰으나 네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네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13:9-10)

핵심 단어: 돌아오라(15회), 핵심 구: '마지막 날들에'(3:5)

호세아서의 그리스도: 다윗(3:5), 영적 교훈: 하나님께 돌아가라.

요 엘

기록자: 요엘, 기록 시기: 주전 81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남 왕국 유다 백성

이름: 요엘은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다'를 뜻한다. 참된 부흥이 회개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았던 요엘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쳤다. 요엘은 이 짧은 글에서

모세 오경을 25회나 언급하며 특별히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관련 있는 것을 대언했다.

주제: 주의 날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

목적: 진정한 복이 오기 전에 심판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유다 땅에는 유례없이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 모든 것을 먹어 치웠고 이로 인해 백성은 궁핍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심판은 유다의 죄들 때문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요엘은 이미 모세에 의해 예언된 적이 있는 이런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주의 날에 군대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올 것을 기술했다. 요엘은 또한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것을 예언했다(마25:31-46 참조). 요엘서는 3장, 73절, 2,033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주의 날), 핵심 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2:12)

핵심 단어: 회개하라, 핵심 구: '주의 날'(2:11; 2:31; 3:14)

요엘서의 그리스도: 주 너희 하나님(2:23), 영적 교훈: 심판의 경고를 울려라.

아 모 스

기록자: 아모스, 기록 시기: 주전 76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북 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백성들, 이름: 아모스는 '짐을 진 자'를 뜻한다. 대언자 아모스는 농부였으며 이런 이유로 그는 처음에 대언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는 남 왕국 유다의 시민이었으나 북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기 전에 북 왕국을 향해 대언했다.

주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

목적: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하는 죄들을 제거해야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백성들이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방탕과 사치와 불법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가 혼합되어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되었다. 제사장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송아지 숭배의 근원지인 벳엘로 가서 왕과 백성들에게 부정과 탐욕과 술 취함과 간음과 학대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했다.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는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의 약속을 주면서 경건한 사람들을 위로했다. 아모스서는 9장, 146절, 4,21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9장(이스라엘의 분산과 회복)

핵심 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 니이다, 하매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이후로는 그들 걸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7:8)

핵심 단어: 다림줄, 핵심 문구: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3:3)

아모스서의 그리스도: 군대들의 하나님(4:13)

영적 교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4:12).

오 바 다

기록자: 오바다, 기록 시기: 주전 585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에돔과 유다

이름: 오바다는 '종'을 뜻한다. 주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보호

목적: 성도들이 원수들을 이기고 하늘에서 승리의 삶을 누릴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원수 중 하나인 에돔에 대해 대언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의 약탈에 가담했던 이전 상황을 언급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은 이집트 탈출 때에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었고 아합스 시절에 유다가 베가와 르신의 공격을 받을 때에 유다에 침입해서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에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오바다는 전반부에서 야곱의 자손을 대적하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최종 회복을 예언한다.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1장, 21절, 669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왔도다. 네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되돌아가리라.”(15)

핵심 단어: 보응, 핵심 문구: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물을 소유하리라’(17)
오바다서의 그리스도: 왕국의 주(21), 영적 교훈: 네 소유를 차지하라.

요 나

기록자: 요나, 기록 시기: 주전 770년경, 성격: 대언, 개인 이야기

수신자: 선민이라는 자만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이름: 요나는 ‘비둘기’를 뜻한다. 대언자 요나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요나를 표적의 대언자로 부르셨다.

주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대언자를 다루시는 것과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목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 성도들이 몸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일을 완수하게 하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으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다. 그는 읍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심한 풍랑이 일어나자 선장은 그에게 와서 그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말했다. 풍랑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자 사람들은 승객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졌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라 그를 바다에 던졌으나 하나님께서는 큰 고래를 예비하시라 그를 세 낮과 세 밤 동안 고래 배 속에 있게 하시고 마침내 고래가 그를 육지로 토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니느웨로 가도록 명하셨으며 이때에 그는 말씀에 순종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금식까지 행하였으므로 도시는 멸망되지 않았다.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그는 자기가 선포한 것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자기의 생명을 취하실 것을 주께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덩쿨을 사용하셔서 회개한 도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율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 요나서는 4장, 48절, 1,320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요나의 기도), 핵심 절: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선포하게 한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니”(3:2)

핵심 단어: 선포, 핵심 문구: ‘일어나 가라’(1:2), 요나서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마12:39-41)
영적 교훈: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선포하라.

미 가

기록자: 미가, 기록 시기: 주전 70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40년

수신자: 남 왕국 유다의 백성과 지도자들, 이름: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를 뜻한다. 대언자 미가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심을 보여 준 사역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예고한 메시아의 전령이었다.

주제: 유다의 죄, 구원자이자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목적: 하나님께서 죄와 범법으로 죽은 자들을 찾아와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대언자 미가 시대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북부와 서부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나 함락하지는 못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이집트와 예루살렘을 제외한 근동의 대다수 국가들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아 매년 공물을 바치게 했다. 이때는 특히 농민들과 지방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과 시련의 시대였는데 그 이유는 군인들이 작은 마을들을 침략하여 거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관원들과 부자들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큰 도시들의 튼튼한 요새에서 안정을 누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였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자기 나라의 착취자들로부터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미가는 이렇게 억압받는 백성들의 사정을 변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다. 미가서는 7장, 105절, 3,15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7장(이스라엘의 고백과 중재), 핵심 절: “너희 모든 백성들이여, 들으라.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리라.”(1:2)

핵심 단어: 들으라, 핵심 문구: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6:2)

미가서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치리자(5:2), 영적 교훈: 눈을 들어 보고 살라.

나 훔

기록자: 나훔, 기록 시기: 주전 62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는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

이름: 나훔은 ‘위로자’를 뜻한다. 대언자 나훔은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정당한 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자를 벌주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선포한다. 주제: 하나님의 위엄의 계시, 니느웨의 멸망

목적: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죄와 불의를 벌로 심판하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메시지 이후 100여 년이 지나서 니느웨가 전성기를 누릴 때 그곳의 멸망을 선포하였다. 이 책이 니느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요나의 후속편이라고 하기도 한다.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기는 했지만 니느웨는 또다시 죄의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보이셨지만 나훔 당시의 니느웨는 죄가 극도로 성행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고칠 수 없다고 선포하셨다. 나훔서에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와 묘사 그리고 이유 등이 차례로 서술되어 있다. 나훔서는 3장, 47절, 1,28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니느웨에 대한 심판)

핵심 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니라.”(1:2)

핵심 단어: 질투하다, 핵심 구: ‘철저히 끝내시고’(1:8, 9), 나훔서의 그리스도: 요새(1:7)

영적 교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죄를 심판하심을 기억하라.

하 박 국

기록자: 하박국, 기록 시기: 주전 61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

이름: 하박국은 ‘꺼안다’를 뜻한다. 대언자 하박국은 읍과 더불어 질문의 대언자로 불리는데 읍은 주로 자신의 문제로 주께 질문했지만 하박국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질문했다.

주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는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목적: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므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행하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하박국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쳐옴으로 포위하기 직전에 대언을 했다. 이 대언서의 구조와 신학적 내용은 매우 독특하다. 처음 두 장에는 주 하나님과 대언자 사이의 대화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언자는 몇몇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아울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악을 참으실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주께 요구한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며 여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적을 성취하여 달라고 즉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해 달라고 주께 간구한다. 이 기도에 이어 그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시며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환상 계시를 받고 그 결과 경외와 확신에 싸이게 된다. 하박국은 3장, 56절, 1,475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하박국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

핵심 절: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2:4), 핵심 단어: 믿음

핵심 문구: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1:3)

하박국서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2:4; 갈2:16)

영적 교훈: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3:4).

스바냐

기록자: 스바냐, 기록 시기: 주전 63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과 전 세계 민족들, 이름: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 주시는 자’를 뜻한다. 그는 구약 시대에 ‘유황불 지옥’을 강하게 선포한 심판의 대언자였다.

주제: 유다와 세상을 향한 주의 날의 심판

목적: 자신의 아들의 형벌을 통해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진노의 심판에 성도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50년 이상 지속된 범국가적 배교는 사악한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요시야의 통치 초기에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그는 마지막 때의 7년 환난기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까지 이어지는 주의 날을 강조했으며 이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대언했다. 스바냐는 3장, 53절, 1,61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하나님의 구출)

핵심 절: “그때에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자기의 술 찌꺼기 찹전물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며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사람들을 벌하리니”(1:12), 핵심 단어: 찾다, 핵심 구: ‘주의 큰 날’(1:14)

스바냐서의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3:15)

영적 교훈: 주의 이름을 신뢰하라.

학개

기록자: 학개, 기록 시기: 주전 520년경, 성격: 대언, 역사, 수신자: 바빌론에서 1차로 귀환하였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자연재해로 인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던 유다 백성, 이름: 학개는 ‘나의 명절’을 뜻한다. 대언자 학개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가장 먼저 대언한 인물이며 특히 질문을 많이 던진 대언자이다.

주제: 소수의 남은 자들을 격려하여 주의 집을 짓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목적: 주의 집이 황폐하게 남지 않도록 백성을 독려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내용: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빌론 군대를 무너뜨린 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공사가 시작되자 그들을 대적하는 이웃 나라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간계를 꾸렸다.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로 작정하고 귀환한 오만여 명의 포로들은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좌에 오르기까지 무관심 속에서 십육 년 동안 성전을 방치하였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깨우쳐서 무기력에서 벗어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려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다. 학개의 메시지는 성전 건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지상 왕국, 사악한 세상 권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민족들을 위해 예비된 복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학개서는 2장, 38절, 1,130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보고 행동하라)

핵심 절: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주가 말하노라.”(1:8)

핵심 단어: 건축, 핵심 문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2:4)

학개서의 그리스도: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대상(2:7), 영적 교훈: 주의 일을 먼저 하라.

스 가 라

기록자: 스가라, 기록 시기: 주전 52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바빌론에서 1차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실망에 빠져 있던 유다 백성

이름: 스가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를 뜻한다. 대언자 스가라는 말세에 있을 최종적인 일들을 예언했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 산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을 대언했다.

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들 예루살렘에 베푸시는 불변의 은혜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약속과 은혜가 불변함을 보여 주고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온 땅을 다스리심을 알리는 것

내용: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든 사람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고 이에 약 오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포로들이 이 관대한 정책에 따라 자기들 땅에 다시 정착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복구하였다. 그러나 성전 재건 참여를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방해하였으므로 성전 재건 작업은 거의 십육 년 동안 중단되었다.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한 때에 대언자 학개와 스가라는 백성들을 일깨워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으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건 사역을 이끌어 나갔다. 이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편 총독 닷드내가 왕에게 올린 글로 인해 또다시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다리오는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때가 되자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변하였으며 그들은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학개와 스가라는 백성들의 무관심을 일깨우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 백성들이 이에 호응하여 성전은 다리오 왕의 통치 제육년에 완성되었다. 스가라서는 성전 재건과 더불어 그보다 훨씬 더 큰 주제인 메시아의 통치와 재림으로 이어지는 예언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스가라서는 14장, 211절, 6,443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4장(눈에 보이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핵심 절: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1:3)

핵심 단어: 돌아서다, 핵심 문구: ‘내가 질투하며’(1:14)

스가라서의 그리스도: 1. 가지 - 우리를 위한 종(3:8; 막10:45), 2. 제사장과 왕(6:13; 히7:25), 3. 샘 -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분(13:1; 요15:3)

영적 교훈: 주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1:17).

말 라 기

기록자: 말라기, 기록 시기: 주전 43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둘째 성전을 지은 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 백성

이름: 말라기는 ‘여호와와 사자’를 뜻한다. 대언자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언한 인물로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연결해 준다.

주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메시아 약속 목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위로받게 하는 것

내용: 바빌론에서 돌아온 지 100년쯤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집을 무시했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위선에 빠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관심 속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백성들은 죄와 결합함으로써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쉽게 아내를 버리는 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다. 말라기 대언자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되 위선자와 죄인에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회개를 촉구했다. 또한 말라기는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한다. 말라기서는 4장, 55절, 1,781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4장(주의 날)

핵심 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4:2)

핵심 단어: 어떤 점에서, 핵심 문구: ‘너희가 너희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말하기를’(2:17) 말라기서의 그리스도: 1. 언약의 사자(3:1), 2. 의의 해(4:2)

영적 교훈: 주의 재림이 확실하다.

성도 마태가 전한 복음

마태복음

기록자: 마태, 기록 시기: 주후 6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4년

수신자: 임마누엘(1:23), 골고다(27:33),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기도(27:46) 등이 해석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를 하는 유대인들이 주요 수신자들이었을 것이다. 또한 지혜자들의 방문(2:1-12), 이방인의 병 고침(8:5), 이방인들의 심판(12:18), 복음 전파 명령을 담은 대위임에 이방인들이 포함된 점(28:18-20) 등은 마태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호소하는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름: ‘마태복음’이라는 책명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마태는 갈릴리에 거하던 유대인으로 레위라고도 불렸다(막2:14; 눅5:27-29). 주제: 메시아의 오심과 하늘의 왕국의 도래

목적: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는 것

내용: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다룬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빈번히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강조한다(마2:2).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마귀들과 질병들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며 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등을 보여 주심으로 메시아 표적들을 이루신 사실을 훌륭하게 드러내면서 메시아 왕국의 본질과 영역, 활동 등을 강조한다(5-7장; 13장; 24-2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을 초월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려 하셨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이다!”라고 외치며 그분을 받아들일 재림의 때에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마23:37-39). 마태복음은 28장, 1,071절, 23,343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6장(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핵심 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1:1) 이 구절은 첫 아담의 세대를 말하는 창5:1과 대조를 이루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심을 보여 준다. 핵심 단어: 1. 왕(8회), 2. 왕국(56회), 3. 하늘의 왕국(33회)

핵심 문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1:22),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왕(2:2), 영적 교훈: 회개하라.

성도 마가가 전한 복음

마 가 복 음

기록자: 마가, 기록 시기: 주후 60년경, 성격: 역사, 기간: 3년 반

수신자: 군단, 백부장 등의 라틴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방인들 특히 핍박받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였으리라 추정된다. 로마 사람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마가는 메시아의 계보를 생략한다. 또한 그는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을 생략하고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요르단이 강이라는 것과(1:5) 올리브 산이 성전 맞은편에 있다는 것(13:3) 등을 설명한다.

이름: '마가복음'이라는 책명은 이 책을 기록한 성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망치'를 뜻하는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며(행12:12) 바나바의 생질이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다(벧전5:13). 그는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며 사도행전에 8회 언급된다.

주제: 주 하나님의 종의 사역

목적: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보여 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분처럼 섬겨야 함을 가르치는 것

내용: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언급하고는 곧바로 그분의 지상 사역을 기술 하면서 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낸다. 마가는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수난을 강조한다. 그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나 유대 풍습에 대한 묘사보다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부터 주의 사역의 끝부분까지를 간략하지만 힘 있게 전달한다. 기록의 단순함과 평범함 때문에 마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짧고 명쾌하며 놀랍고 만족스러운 역사 기록'이라는 평을 받는다. 마가복음은 16장, 678절, 14,949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0장(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

핵심 절: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10:45), 핵심 단어: 곧바로, 즉시(42회)

핵심 구: '즉시 그분께서'(1:20), 마가복음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운 종(사53:11)

영적 교훈: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그분을 증명한다.

성도 누가가 전한 복음

누 가 복 음

기록자: 누가,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4년

수신자: 테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 누가는 '완전한 사람'을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 완전한 사람이시며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시하였다.

이름: '누가복음'이라는 책명은 이 책을 기록한 성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빛'을 뜻하는 누가는 의사이었으며(골4:14) 고등 교육을 받고 문화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는 삶의 후반부를 바울과 함께하였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목적: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누가복음의 첫 네 절은 이 복음서의 요약이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 사건들을 포함한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다윗과 아담까지 이르는 마리아의 계보를 보여 주며 또한 그리스도의 기도하시는 삶(3:21; 5:12-16),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것(6:20-25; 12:16-21), 여인들의 위치를 높이는 것(1:24-58; 2:1-7, 36-38, 46-52), 음악(1-2장) 등을 담고 있다. 성도 누가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대 교회의 설립에 이르는 역사를 훌륭하게 정리해서 알려준다. 누가복음은 24장, 1,151절, 25,640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5장(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핵심 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19:10)

핵심 단어: 찾아 구원하다, 핵심 구: ‘사람의 아들’(5:24)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19:10)

영적 교훈: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성도 요한이 전한 복음

요한복음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역사와 교리, 기간: 영원 전 과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나타나심까지

수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20:31).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사상 즉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사상을 논박하였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들어 있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이름: ‘요한복음’이라는 책명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를 뜻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이며(13:23; 20:2) 신약 성경은 35회나 그의 이름을 언급한다. 그는 주후 50년경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고 그 뒤 소아시아에 감독으로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으며 밧모 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전 존재, 출생 후의 삶과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후의 나타나심 등을 기록한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이 아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으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증언과 가르침의 영적 교훈을 상술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어린양이시고(1:29)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이시며(4:14) 배고픈 자를 위한 빵이시고(6:35)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다(8:12). 또한 그분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시고(10:9) 길 잃은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시며(10:11)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시고(14:6) 영적 성장을 위한 참 포도나무이시다(15:1).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은 21장, 879절, 18,658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핵심 절: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20:31)

핵심 단어: 아버지(100회 이상), 믿다(98회 이상), 영원한 생명(35회)

핵심 구: ‘믿는 자는’(3:18, 36),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1:14, 18)

영적 교훈: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3년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데오빌로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사도행전’이라는 책명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글을 뜻하지만 실제로 이 책은 사도 베드로(1-12장)와 바울의 행적(13-28장)을 다루고 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3회 언급되고 야고보는 순교로 인해 등장하며 이들 외의 다른 사도들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책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행적이 사람이라는 도구에 의해 계속해서 진행됨을 보여 준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 성도들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가르치신 것
 목적: 은혜의 경륜 시대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권능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1-7장)과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것(8-28장)을 기록한다. 아울러 이 일을 위해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와 용기 등을 보여 준다. 사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삶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다. 행1:10-11은 요21:21-23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를 확증한다. 사도행전은 28장, 1,007절, 24,229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성령님의 강림)

핵심 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1:8)

핵심 단어: 증인(1:8, 22), 핵심 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1:4; 눅24:49)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승천하신 주(1:10-11), 영적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로 마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7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로마 교회에서 유래하였다(1:7).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바랐으며 그곳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 자기의 방문을 예비하기 원했다. 이 편지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종인 비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다(16:1-2).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바울 시대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고 네로가 황제로 있었다.

주제: 하나님의 의를 보여 주는 복음, 목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증하는 것

내용: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연의 빛이나 그 빛에 순종하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 교리를 가르친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는 인간의 죄악과 사악함 그리고 비참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그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또 그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화평과 기쁨(5장), 거룩한 삶(6장)을 보여 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있음을 알려 주며(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8장)을 제시한다. 또 그는 자신의 친족인 유대 이사를 향한 구원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9-11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12-16장)을 보여 준다. 로마서는 16장, 433절, 9,42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핵심 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 다.”(1:16)

핵심 단어: 의(66회), 믿음(62회), 칭의(17회), 인정(19회), 그리스도 안에(33회), 율법(78회), 죄(60회), 핵심 구: ‘하나님의 의’(1:17)

로마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주(10:4; 렘23:6)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고린도전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5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편지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서 유래하였다(1:2).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는데(행18:1-7)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었으며 유대인들도 있던 큰 교회였다. 고린도는 로마 사람들 통치하에 있던 항구 도시로서 죄와 방탕함과 사악함이 만연하였다.

주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의 지체들 간의 관계

목적: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돌보시듯 그분 몸의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을 돌보게 하는 것,

내용: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게 되었고 편지에서 먼저 이 교회를 책망한다. 그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지혜와 철학의 영향으로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는 교회의 분열(1-4장), 법정 소송, 이혼, 여인들의 옷차림, 주의 만찬 등과 관련된 도덕적 무질서(5-11장), 영적 선물(12-14장), 성도들의 부활(15장) 등에 대해 주의 말씀을 제시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언제나 발생하며 특히 영적 선물(은사) 문제는 기복 신앙이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서 쉽게 발견된다. 고린도전서는 16장, 437절, 9,46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3장(사랑), 15장(부활)

핵심 절: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2:7)

핵심 단어: 지혜, 핵심 문구: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14:40)

고린도전서의 그리스도: 죽은 자들의 첫 열매(15:20)

영적 교훈: 모든 선물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

고린도후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6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편지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고린도전서 참조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의 연합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목적: 그리스도인은 영적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대사이므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며 고린도를 방문할 의사를 보였는데 이것은 예베소에서 배를 타고 곧장 고린도로 가려던 이전의 계획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는 크게 근심하였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 진술하게 편지를 썼다. 이 서신에서는 그는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 영적 능력, 뜨거운 사랑, 상처받은 감정, 책망, 겸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열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보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성장을 위한 바람 등을 호소한다. 고린도후서는 13장, 257절, 6,04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5장(불멸의 약속)

핵심 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4:5)

핵심 단어: 사랑, 핵심 구: ‘사도의 표적’(12:12)

고린도후서의 그리스도: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주(9:8)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5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유래하였다(1:1-2). 바울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하고 디모데와 함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다(행 16:6).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번덕이 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은혜에 행위를 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였다.

주제: 성도의 삶의 능력이 되는 복음

내용: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교로 복귀시키려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와서 율법의 의식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으며(5:2; 6:12) 또 바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1:1-12). 이에 사도는 자신을 변호하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가르쳤다. 또한 그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묘사하여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관한 한 '율법에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 선언서 혹은 대헌장'이라 할 수 있다. 루터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고독한 싸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큰 영광과 위로를 받았다. 갈라디아서는 6장, 149절, 3,08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 오직 믿음만이 칭의와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됨을 보여 주는 것

핵심 장: 3장(믿음에 의한 칭의)

핵심 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2:16), 핵심 단어: 자유, 핵심 문구: '해방의 자유 안에 굳게 서라'(5:1)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1:4; 5:1)

영적 교훈: 자유와 권능을 얻기 위해 주께 오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에서 유래하였다(1:1).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동서 무역이 활발하여 유택했으며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행 19:21-41). 에베소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고 유대인들도 얼마쯤 있었다. 바울은 여기서 사역을 잘 완수하였으나(행 19; 20:17-38) 이교도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주제: 교회의 소명과 성도들의 합당한 행위

목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 유업의 영광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에베소서에는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으며 바울은 자신이 회심시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 면에서 굳건히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엄청난 규모의 다이애나 신전을 항상 접하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이 모퉁잇들이 되는 건물이 그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중요함을 보여 줄 필요를 느낀 사도는 건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것을 훌륭하게 묘사한다(2:19-22). 에베소서는 은혜, 영원한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화평과 용서, 효능이 넘치는 은혜의 능력에 의한 회심,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회의 신비, 성도들의 생활 등과 같은 중요한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에베소서는 6장, 155절, 3,02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핵심 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1:3)

핵심 단어: 충만함(3:19; 4:13; 5:18), 핵심 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2:6)

에베소서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1:22; 5:23)

영적 교훈: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라.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그리스도인의 삶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에서 유래하였다(1:1).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교회를 설립하였다(행16:11-40). 빌립보 교회는 대다수 성도들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었으며 유대인들도 얼마쯤 있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일에 다른 교회들보다 앞섰다. 사도는 후에 이곳을 두 번 더 방문하였다(행20:1-2, 6). 주제: 성도들의 생명, 본, 목표,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적: 성도의 기쁨은 외부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얻게 됨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빌립보 교회에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모은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로마에 왔다가 돌아갈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로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 편지에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한 사도의 애정과 로마 감옥에서의 그의 행적이 묘사되어 있다. 사도는 그들이 자기를 격려하고 지원한 것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인한 그들의 핍박을 보면서 소망을 준다. 또한 그는 모세와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접목하려 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한다. 빌립보서는 4장, 104절, 2,183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성도들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핵심 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2:5)

핵심 단어: 기쁨, 핵심 문구: ‘항상 주를 기뻐하라’(4:4)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신 주(4:13)

영적 교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보다 낮게 여기라.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에서 유래하였다(1:1-2). 골로새는 브루기아

의 평범한 도시였으나 에바브라가 이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인도를 받아 이곳의 교회는 믿음으로 유명하게 되었다(1:4-7). 이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한 결과 에바브라 등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1:19), 목적: 성도들의 믿음의 목적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사도는 골로새의 에바브라 형제의 방문을 통해 그곳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았고 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하여 글을 써야 했으므로 이 서신과 빌레몬서를 기록한 뒤 두기고를 통해 그곳으로 보내었다. 사도는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할례, 신비주의, 금욕을 통한 구원, 천사 숭배 등의 잘못된 풍습과 가르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증보자 되심과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궁극적으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심을 보여 주려 하였다(1:18). 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 충분하심, 우월성을 다루며 2장에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변증이 있고 3, 4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골로새서는 4장, 95절, 1,979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내주하시는 그리스도)

핵심 절: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2:9)

핵심 단어: 충만함, 핵심 구: ‘그리스도와 함께’(2:20)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

영적 교훈: 만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3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래하였다(1:1).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으며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산업체 종사자들이 많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설립하였다(행17:1-10). 이곳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선포함으로써 박해를 받았고 결국 거기서 쫓겨나 베레아로 갔다.

주제: 진노 전에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적: 성도들에게 주를 볼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을 주어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게 하는 것

내용: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피신한 뒤 디모테를 만난 바울은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테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고 죽은 성도들로 인한 염려가 있음을 알려 왔다. 이에 사도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변호한 뒤 박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성을 다할 것을 말하며 이미 가르친 적이 있는 진리를 확증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다. 이 서신은 책망할 것이 거의 없는 순전한 교회 즉 모델 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첫째 편지였다.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였다. 사도는 그들이 선택받은 것, 성령님의 사역, 확신, 삼위일체, 재림, 성화, 부활과 휴거, 주의 날, 사람의 삼위일체 등을 가르쳤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 89절, 1,837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4장(휴거)

핵심 절: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1:10)

핵심 단어: 그리스도의 오심,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4:16)

데살로니가전서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주,

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4년경, 성격: 교회를 위한 서신

수신자 및 이름: 데살로니가전서 참조

주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를 주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날 사이의 관계를 알려 주는 것,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 잘못 이해한 채 일도 하지 않으며 무질서하게 살고 있었다. 이에 사도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위로를 주고 주의 재림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면서 그는 무질서하게 걷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특히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때의 세상 풍조 등을 보여 준다. 데살로니가후서는 3장, 47절, 1,02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그리스도의 날과 죄의 사람)

핵심 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2:13), 핵심 단어: 기다리다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1:1), 데살로니가후서의 그리스도: 속히 다시 오시는 주

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일하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디모데전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목회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디모데이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서 유래하였다(1:2).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다(행14:5-6; 16:1).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주께로 회심하여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후에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왔다가 사역을 위해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

주제: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가르침

목적: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주어 바르게 교회를 이끌도록 하는 것
내용: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그를 사역자로 남겨 두고 떠났으며 후에 이 젊은 목사의 사역을 위해 조언할 필요가 있어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 사도는 그가 자기의 교리와 생활 방식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처신할 것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또한 사도는 교회의 유일한 두 직분인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 가르치며 과부를 돌보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목사가 될 것을 권면하였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도는 목사들을 위한 모델 편지로서 이것을 기록하여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또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지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다른 성도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디모데전서는 6장, 113절, 2,24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율법주의와 거짓 가르침을 책망함)

핵심 절: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3:15)

핵심 단어: 명하다,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2:7)

디모데전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영적 교훈: 복음을 수호하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

디 모 데 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목회 서신, 수신자 및 이름: 디모데전서 참조

주제: 말세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권위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여 주는 것

내용: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가지 못한 이유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 주고 디모데가 자기를 방문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사도는 디모데가 복음 사역자로서 신실하게 의무를 감당할 것을 촉구하며 복음을 위해 늘 고난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쳤다. 또한 사도는 말세에 있을 거짓 가르침과 교사들의 특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끝으로 디모데가 속히 로마에 와서 자기와 함께 있어 줄 것을 요청했다. 디모데후서는 사적인 성격의 서신으로서 25명의 인물이 언급된다. 편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도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어둡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로 인한 승리와(4:17) 죽음을 앞둔 사도 자신의 확신에 찬 소망이 밝게 드러난다(4:6-8). 디모데후서는 4장, 83절, 1,66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신자의 배도의 근원)

핵심 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2:15)

핵심 단어: 명하다, 핵심 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1:1)

디모데후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우신 심판자(4:1,8)

영적 교훈: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디 도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목회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디도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에게서 유래하였다(1:4). 디도는 바울이 선교 사역 초기에 회심시킨 사람으로서 공통의 믿음을 따라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인물이다.

디도는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 같은 크레타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다.

주제: 성도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

목적: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임을 가르쳐 주는 것

내용: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들이 자기들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행2:5, 11). 바울은 크레타 교회의 사정을 알리는 소식을 듣고 디도를 보내어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각 도시에 장로들 곧 목사들을 임명하게 하였다. 디도서에서 사도는 목사의 자격과 또 교회가 목사를 선임하고 임명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말해 준다. 또한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그들의 이단 교리를 타파하고 율법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피하라고 조언한다. 끝으로 사도는 크레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복음에 대해 말한다. 디도서는 3장, 46절, 89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교리와 행위를 위한 지침 사항)

핵심 절: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 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1:5)

핵심 단어: 유익한 것, 핵심 구: ‘맑은 정신’(1:8; 2:2, 4, 6)

디도서의 그리스도: 위대하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2:13; 3:4, 6)

영적 교훈: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교리에 합당하게 걸으라.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빌레몬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2년경, 성격: 개인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빌레몬이며 실제적으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서 유래하였다(1:1, 4). '사랑이 많은 자'를 뜻하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재산이 많았으며 압비아와 아킵보가 그의 아내와 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2).

주제: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의 구원과 회복, 목적: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

내용: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의 복음 선포에 의해 회심하였다.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그를 친절하게 대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의 삼분의 일 가량이 종이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 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자기의 협력자로 두고 싶었으나 먼저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도망친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도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그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빌레몬서는 1장, 25절, 430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한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겠느냐?"(16)

핵심 단어: 받아들이라,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8)

빌레몬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빛을 갠다 주시는 주

영적 교훈: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히브리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66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며 실제적으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유래하였다. 사실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다면 같은 저자가 기록한 히브리서는 동일한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하여 선포한다.

주제: 유대교의 인물이나 제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 주고 그분께 초점을 두게 하는 것

내용: 초기 기독교 전파 시기에는 여전히 유대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대인 교사들은 기독교로 돌아선 형제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유대교로 복귀시키려 하였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 교사들의 주장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의 제사장 체계와 그 안의 모든 희생물보다 뛰어나심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 사도는 율법의 신비를 아는 것과 그 안의 의식 법들이 제정된 목적과 용례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이 실체가 옴으로써 완전히 폐기된 것 등을 논리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사도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배도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도는 구약 시대 영웅들의 믿음 열전을 보여 주며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우리의 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지만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히브리서는 13장, 303절, 6,897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9, 11장(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핵심 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1:3)

핵심 단어: 더 나은(13회), 한 번(9회), 하늘(15회), 핵심 구: ‘더 나은 상속 언약’(7:22)

히브리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영적 교훈: 하나님의 왕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야고보의 일반 서신

야 고 보 서

기록자: 야고보, 기록 시기: 주후 45년경, 성격: 실제적인 교훈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며 실제적으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야고보 즉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한 사도 야고보나 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서 유래하였다(1:1). 주제: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과 구원의 열매인 선한 행위(2:14), 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믿음의 특성을 보여 주고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주는 것, 내용: 야고보는 초기 사도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실제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친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생활 지침서이다. 먼저 야고보는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 중에서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권면한다. 또한 그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바르게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교회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위선을 비판한다.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확증하므로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 불리기도 한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지만 야고보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야고보서는 5장, 108절, 2,30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믿음의 시험)

핵심 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2:26)

핵심 단어: 행위, 핵심 문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1:22)

야고보서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 영적 교훈: 삶에서 믿음을 입증하라.

베드로의 첫째 일반 서신

베 드 로 전 서

기록자: 베드로,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일반 서신

수신자: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베드로에게서 유래하였다(1:1).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며 베드로는 그의 성으로서 조그만 돌을 뜻한다(요1:42). 그는 충동적이고 쉽게 낙담하며 겁이 많았으나 부활하신 주를 만나 그분의 양들을 맡은 이후(요21:15-18)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주제: 순례자들이 통과하는 고난의 길, 목적: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것

내용: 로마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도처에 흩어져 불같은 시험을 당했다. 그때에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녔고 이에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베드로는 먼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의 은혜를 말하고 성도들이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등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다. 베드로의 삶과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베드로전서는 5장, 105절, 2,47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확신과 약속)

핵심 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1:6-7), 핵심 단어: 고난받다(15회)

핵심 구: “나그네와 순례자”(2:11),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어린양

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귀중하시다(2:7).

베드로의 둘째 일반 서신

베드로후서

기록자: 베드로, 기록 시기: 주후 66년경, 성격: 일반 서신, 수신자 및 이름: 베드로전서 참조,

주제: 마지막 일들 - 영원한 왕국, 재림, 사악한 자들의 심판, 주의 날

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지식 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3:18)

내용: 이 서신은 베드로의 유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그는 성도들이 은혜와 영적 지식 면에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거짓 대언자들에 대하여 경고한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뒤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성도들이 믿는 바를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권면한다. 베드로후서는 3장, 61절, 1,553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핵심 절: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움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3:1-2)

핵심 단어: 아는 것, 핵심 구: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1:2)

베드로후서의 그리스도: 영광의 주(3:18), 영적 교훈: 명령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성장하라.

요한의 첫째 일반 서신

요한일서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일반 서신

수신자: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이름: 요한복음 참조, 주제: 하나님의 가족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 줌으로써(1:3)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5:11-13)

내용: 만년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내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는 성도의 기쁨을 강조한다. 특히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영지주의가 널리 퍼졌으므로 그는 성도들이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교리적인 지침을 준다(4:1-2). 그는 성도들 안에 죄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사랑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의 논리를 반박한다(5:7). 요한일서는 5장, 105절, 2,517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5장(이기는 믿음)

핵심 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5:13)

핵심 단어: 교제, 핵심 구: ‘우리가 말하면’(1:8, 10)

요한일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5:20),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요한의 둘째 일반 서신

요한이서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가족 서신

수신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인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름: 요한복음 참조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목적: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내용: 요한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것을 권고한다. 요한이서는 1장, 13절, 298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6)

핵심 단어: 사랑하라, 핵심 구: ‘교리 안에 거하는 자’(9)

요한이서의 그리스도: 진리(1, 2), 영적 교훈: 진리를 보존하라.

요한의 셋째 일반 서신

요한삼서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개인적인 서신

수신자: 가이오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름: 요한복음 참조, 주제: 겸손

목적: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임을 보여 주고 그들이 주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

내용: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보내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사람을 지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를 조심할 것을 권고한다. 요한삼서는 1장, 14절, 294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4)

핵심 단어: 진리, 핵심 문구: ‘선한 것을 따르라’(11)

요한삼서의 그리스도: 합당한 이름을 지니신 주(7),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유다의 일반 서신

유다서

기록자: 유다, 기록 시기: 주후 67년경, 성격: 일반 서신, 수신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유다에게서 유래하였다(1).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주제: 배도의 때에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

목적: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하는 것

내용: 유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구원에 관하여 기록하려 했으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기 원하셨다. 그래서 유다는 주를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고 구약 시대 배도의 예를 보여 준다. 그는 이 짧은 서신에서 삼위일체, 구약 성경의 확실성, 천사들의 존재, 사탄의 존재와 그의 권능, 심판과 보복,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신성 등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제시한다. 유다서는 1장, 25절, 608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절: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하시실 수 있는 분”(24), 핵심 단어: 보존되다
 핵심 문구: ‘힘써 싸우라’(3), 유다서의 그리스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25)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요한 계시록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6년경, 성격: 예언

수신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아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었다.

주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요5:22, 27)

목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과 인류와 사탄의 최종 종착지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 상태를 보여 주는 것

내용: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미지근한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로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 이 책은 또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의 성취를 보여 주며 특히 창세기와 함께
 완벽하게 진리의 사이클을 구성한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면서(1:19) 그리스도의 환상(1장), 교회의 심판(2-3장),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7년 환난기(4-19장), 천년 왕국(20:1-6),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20:7-15),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21-22장)을 차례대로
 기록한다. 요한계시록은 22장, 404절, 11,95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9장(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핵심 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1:19)

핵심 단어: 이기다(2:7, 11, 17, 26; 3:5, 12, 21),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다(요일5:5), 핵심 문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2:7)

계시록의 그리스도: 살아 계셔서 승리하시는 주(1:18)

영적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라(1:3).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기는 바빌론에 거하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보여 주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실상을 알려 준다. 그러면 이때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하여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 사이의 약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요세푸스를 비롯한 여러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면에서 독립을 유지하였고 그리스가 메대/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주전 331년경에 경건한 대제사장 앳두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줄로 믿고 그를 영접하러 나갔다. 한편 이런 일에 대하여 꿈을 꾸었던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앳두아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죽게 되었고 그의 장군들이 그의 영토를 분할하였다. 그들 중에서 시리아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니카토르와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미 소테르는 가장 힘이 세어서 서로 경쟁자가 되었다. 이때에 소테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여러 사람을 붙잡아 이집트로 보냈다.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은 그곳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집트와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 종교와 말과 관습 등을 따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후에는 정통 유대교와 헬레니즘을 접목하여 타협적인 알렉산드리아화를 만들었다. 그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 신들을 숭배했으나 여전히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말3:16-18).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갔으나 새로운 대제사장 오니아스 2세는 주전 246년경 이집트의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 통치 때에 유대인들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백성들은 매해 공세를 내어야 했는데 오니아스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러나 유에르게테스는 지금까지 밀린 공세를 한 번에 낼 것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지 않으면 유대인 국가를 멸절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때에 오니아스의 조카인 요세은 세금을 도급받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이 재난을 피하고 유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에서는 여러 왕이 집권했으며 이 둘 사이에 긴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고 어느 쪽이 이기든지 유대인들은 피해를 보아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 유다 헤브라이즘의 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스의 헬레니즘도 추구하면서 이중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에 유대 지방에서는 두 그룹이 지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많은 것을 더했다. 다른 그룹은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로서 그리스 문화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흡수해야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 종교를 용인했다.

이때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은 자신을 에피파네스 즉 '빛을 받은 자'라고 칭하며 예루살렘을 습격하여 사흘 만에 사만 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 실로 그는 다니엘서 11장 21-35절에 이미 예고된 독재자였다. 그는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 거기에 우상 제단을 만들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웠다. 그리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남은 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수만은 없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었다. 이때에 하스모니아 계통의 노인인 마타티아스(혹은 맏다디아)가 일어나 잔인한 정복자들에게 반항하였다. 비록 그는 일 년 이상 살지 못했지만 자기의 다섯 아들들에게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었다.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는 '하나님의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혹은 마카베오)라 불렀고 다른 아들들 역시 마카비라 불렀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주의 도움을 받아 힘을 회복하여 적군의 큰 군대를 이기고 마침내 성전을 정결하게 한 뒤 새 제단을 세웠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유다 마카비의 형제인 엘르아살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유다는 그 당시 서방 세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떠오른 로마와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는 패하여 죽임을 당했고 그의 형제인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살인과 폭동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전 135년경에는 위대한 마타티아스의 유명한 아들들(마카비) 가운데 마지막 남은 아들인 시몬마저 죽게 되었다.

주전 134년부터 30년 동안 통치한 시몬 마카비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는 로마와의 동맹을 갱신하였으나 그의 시대는 소동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였다.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애니우스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약 성경과의 연결 고리가 등장한다. 알렉산더는 주전 76년경에 죽었는데 그의 통치 때에 여대언자 안나의 남편이 죽었다(눅2:36-37). 안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 영광을 얻었다. 알렉산더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그의 뒤를 이어 통치하였고 자기의 연약한 아들 히르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때에 이두매아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파테르 즉 이두매아의 총독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와 그의 대적들은 모두 로마 장군 폼페이에게 도움 받기를 바랐으며 이에 폼페이는 돈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냈다. 유대인 군사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빼앗아 갔다. 이후로 유대는 로마의 한 지방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다 마카비가 로마와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결과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하자 안티파테르는 로마의 자유 시민이 되어 유대의 총독이 되었고 자기의 두 아들 즉 파사엘과 헤롯을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치리자로 임명하였다. 그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피살되었으나 그의 친구인 안토니우스가 집권하며 파사엘을 갈릴리의 사분영주로, 헤롯을 유대의 사분영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많은 반대가 있어서 결국 파사엘은 자살했고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있는 로마로 도망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유대의 왕으로 만들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보냈다. 헤롯은 주전 37년에서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으나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 한편 그는 하스모니아(혹은 마카비) 계통 사람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계열의 사람을 다 죽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소망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마타티아스의 씨(마카비)를 통해 오게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창전 전에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작정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충만하게 차자 주전 4년경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갈4:4). 헤롯은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들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자기 아들들마저 살해하였다. 따라서 동방의 지배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나?”(마2:2)는 말을 들은 그는 두려움에 떨었고 베들레헴 근방의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로 만들 수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동안 헤롯은 죽었다.

비록 유대 땅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으로 오셨으나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눈이 멀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뿌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1:11-13).



성경 교리 요약

초대 사도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자신들의 믿음을 확고히 지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리를 정립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성경적인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져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핵심을 요약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신앙 진술문 형태로 성경의 교리를 요약하고자 한다.

1. 성경

1.1 영감과 무오류

우리는 성경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신구약 책들의 권위와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 성경은 무오하며(딤후3:16-17; 뱀후1:21; 살전2:13; 요17:17) 창조, 과학, 지리학, 연대기 및 역사적 측면에서 전혀 오류가 없다. 성경에 따르면 '영감 과정' 즉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은 인간 저자에게 있지 않고 그들이 손으로 적은 성경기록에 있다(딤후3:16-17; 고전2:13).

1.2 최종 권위

우리는 성경 내의 모든 기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및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맞추어져 있다고 믿는다.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자만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눅24:27, 44; 요5:39; 행17:2-3; 18:28; 26:22-23; 28:23). 또한 모든 성경기록은 우리 실생활의 지침이 되며(딤후3:16-17)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일에 중심점 역할을 하고(요17:17) 사람의 온갖 행실과 신조와 견해들을 시험할 최종적이며 유일한 표준이 된다(고후 5:10; 계20:12).

1.3 보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주신 자필 원본의 모든 말씀(단어)을 순수하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시12:6-7; 78:1-8; 119:89, 111, 152, 160; 사30:8; 40:6-8; 전3:14; 마4:4; 5:17-18; 24:35; 28:20; 요10:35; 뱀전1:23-25; 요이2 등).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지금까지 순수하게 지켜 주셨고 모든 세대에 전달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관한 한 우리는 17세기 침례교 및 장로교 선조들이 문서로 요약한 「런던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다.

1.4 바른 본문과 역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본문이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전통 공인 본문'이라고 믿으며 또한 이 두 본문을 가장 충실하고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바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이 두 개의 신실한 본문에서 번역되지 않았고 오히려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휩박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패된 바티칸 사본과 시대 사본에서 번역되었으며 그 결과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5 성경 해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 맞게 문법적으로 평범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 방법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이 같은 해석 방법을 신구약의 모든 구절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믿으며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미래의 모든 예언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같은 해석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성경에 여러 개의 시대적 구분 즉 경륜(세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경륜(세대)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신 일종의 책임 혹은 청지기직이라 할 수 있다. 누구라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두 개의 다른 경륜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경륜마다 달라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륜의 변화는 사람의 실패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기인한다. 성경의 모든 경륜은 하나님의 시명, 사람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로 되어 있다. 우리는 결코 경륜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며 은혜의 계약의 집행을 또 다른 방편도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엡3:11) 구원은 모든 경륜/세대에서 항상 '믿음을 통해 은혜로'(엡2:8-9)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에 달려 있다(엡1:7).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을 믿는다(히11:6).

2. 하나님

2.1 하나님에 관한 일반 지식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존재라고 믿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계시한다.

-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므로 어떤 육체도 소유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요4:24; 딤후1:9).
-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하나님은 지적이고 도덕적이시므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무의식적 원인, 세계의 보편적 원리, 우주의 포괄적 목적 혹은 에너지 등과 확연히 구별된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는 그분 자신의 인격적 계시이다(요14:9).
-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한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한하고 발전적이며 투쟁하고 고난당하며 사람과 같이 실패와 승리를 경험하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므로 이처럼 유한한 창조물의 속성과는 확연히 구별되신다(출15:11; 시147:5).
- 하나님은 단순성을 지닌 분이시다: 이 단순성은 하나님의 근본 특성 중 하나로서 그분의 존재와 속성이 영구히 동일함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사랑이시고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의 속성은 이질적 요소의 침범을 전혀 받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존된다.

2.2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 즉 신적 존재의 완전성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절대적) 속성과 공유적(보편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창조물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분 고유의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창조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이다.

2.2.1. 절대적 속성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과 창조물이 절대적으로 구별됨을 보여 주는 속성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하나님의 독립성 혹은 자존성: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가지며 사람과는 달리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덕과 행위 면에서 독립적이시므로 모든 창조물이 자신을 의존하게 하신다.

- b.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존재와 자신의 완전성 면에서 영원히 동일하시며 자신의 목적과 약속 면에서도 언제나 동일하시다.
- c.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이런 무한성에는 그분의 절대적 완전성, 영원성, 편재성 등이 포함된다.

2.2.2 보편적 속성

- a. 영적 속성: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된 존재이나(창2:7; 고전11:7; 약3:9)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 b. 지성적 속성: 사람은 한정된 지적 존재이나 하나님은 무한대의 의식적/지적 존재로서 모든 것을 아신다.

2.2.3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즉 거룩함, 의로움, 선하심은 그분의 다른 속성들보다 돋보인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서 무한한 위엄을 갖고 계신 거룩한 분이시며(출 15:11; 사57:15)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사5:16).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이 창조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는 '의'로서 표출되며(시99:4) 이 속성은 창조물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의'(사32:1)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이시며(막10:18) 따라서 모든 창조물을 선이라는 잣대로 대하신다.

2.2.4 주권적 속성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므로 모든 창조물을 자신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다스리며 치우하실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동 방향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능력이 '주권적 의지'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주권적 능력'이 있다. 이런 무한한 주권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무시한 채 한 그룹의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으로, 다른 한 그룹은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2.3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신성, 단일성, 동등성, 영원성을 믿는다(마28:18-19; 요1:14; 고후13:14; 히1:1-3; 요일5:7-8).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며 정확히 동일한 본성과 속성 그리고 완전성을 지닌다(막12:29; 행5:3-4; 계1:4-6).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은 유일하고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시요(출20:2-3; 고전8:6), 영원히 불변하고 무한한 권능과 지혜, 거룩함과 의, 경건함과 진리를 갖춘 분이시다(계4:11). 만물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존하신 분께서는 확연히 구분되는 세 인격체로 계시며 하나의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을 지닌다(창1:1; 요1:3; 골1:15-16).

3. 예수 그리스도

3.1 처녀 탄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선포하신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에 의해 수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음을 믿는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결코 있을 수도 없다(마1:18-25; 눅1:35).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과 무죄한 사람의 본성을 지니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아들 하나님이셨다.

3.2 인격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신성을 믿으며 또한 죄가 없고 실제적이며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세 인격체(삼위) 가운데 둘째 인격체로서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등한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요1:1-2). 완전하지만 구별된 두 가지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었으나 그 안에 어떤 개조나 혼합이나 혼란 등은 결코 없었다. 이 인격체는 곧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이지만 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한 중재자이다(빌2:5-8).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으나(눅2:40) 그분의 생애에는 결코 죄가 없었다. 또한 그분은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었다(고후5:21; 히4:15; 뱀전2:22; 요일3:5).

3.3 피와 속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교리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피가 단순히 그분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속죄를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분의 피가 흘러지고 적용되어야 한다(출12:6-7; 레16:6, 14-15). '혼을 속죄하는 것'(레17:11)은 피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려졌으며(마26:28)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행20:28).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므로 신성하다(행20:28).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대속하고(엡1:7; 골1:14; 뱀전1:18-19; 계5:9) 씻지 아니하며(뱀전1:18-19)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도모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롬5:9)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준다(엡2:13). 그 피는 또한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골1:20) 우리를 용서하며(엡1:7; 골1:14; 히9:22)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다(골1:20).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히9:14) 하늘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며(히9:23)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한다(요일1:7; 계1:5; 7:14).

3.4 부활, 승천, 재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몸으로 즉 살아생전의 그 몸이지만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마28:6-7; 막16:6; 눅24:2-6, 39-40; 요20:20; 행2:27-31; 5:30; 13:34-37; 고전15:4).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셨음을 믿는다(막16:19; 눅24:51; 요20:17; 행1:9-10).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현재 아버지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고 계심을 믿는다(막16:19; 딤후2:5; 히1:3; 2:17; 5:8-10; 8:1; 12:2; 요일2:1).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입었던 그 몸으로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모든 성경기록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다(행1:9-11).

4. 성령님

4.1 인격

우리는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의 두 인격체인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질과 존귀와 영광을 지닌 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임을 믿는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같이 거룩한 인격체이시며 다른 두 분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분이시다. 성령님은 창조의 역사에도 함께 하셨으며(창1:1-3)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은 모든 권능의 원천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경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다.

4.2 사역

우리는 현재의 경륜(세대)에서 성령님께서 뚜렷한 사역을 맡고 계심을 믿는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량만큼 세상의 악을 억제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꾸짖으신다(요16:7-11). 그분은 모든 믿는 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요3:6-7)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부으시며 그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마28:20; 요14:16-17; 행5:32; 롬8:9, 15,

23; 고전6:19; 요일2:20-27).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구속의 날까지 봉인하시고(엡1:13-14; 4:30) 그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막1:8; 요1:33; 행11:16; 고전12:13). 또한 그분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중재하시며(롬8:26-27) 성도들 중에서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인도, 증언, 가르침, 봉사 등의 일을 할 때에 권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신다(눅24:49; 요14:26; 행1:8; 4:8, 31; 롬8:14, 16; 엡5:18).

5. 사탄과 천사들

5.1 사탄과 마귀들의 창조와 타락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들 중 하나인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교만으로 죄를 지어 사탄이 되었다(사14:12-17; 겔28:11-19; 딤편3:6). 루시퍼가 타락할 때에 많은 천사의 무리가 그를 따랐으며 그들은 곧 대장 마귀의 밑에 있는 마귀들이다. 이 마귀들은 사탄의 대리자요, 조력자로서 그의 악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5.2 사탄의 영향

우리는 사탄이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온 장본인이라고 믿는다(창3:1-19). 그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교묘히 인류의 첫 부모를 범죄로 이끌어 타락하게 하였고 사람의 자손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하였다(고후4:3-4; 엡6:10-12).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살후2:4).

5.3 사탄의 심판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 심판에 대한 집행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골2:15). 사탄은 권력을 찬탈하여 현재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다(고후4:3-4).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사탄은 결박당하여 천 년 동안 무저갱 즉 바닥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된다(계20:1-3, 10). 그리고 천 년이 지난 뒤에 그는 잠시 풀려나지만(계20:7) 곧 불과 유황 호수에 들어가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계20:10).

5.4 거룩한 천사들

우리는 사탄이 반역했을 때 대다수 천사들이 자기를 본래의 거룩한 위치를 지켰고 현재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고 믿는다(눅15:10; 엡1:21; 계7:11-12). 하늘의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존재들이다(히1:14).

6. 우주의 창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 즉 실제 우주와 천사들과 사람들과 만물의 창조 기사를 문자 그대로 믿는다(창1-2장; 골1:16-17; 요1:3). 창세기 창조 기사는 결코 알레고리나 신화가 아니며 실제의 역사적인 창조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연주의자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어떤 진화의 과정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하루를 6일 동안 사용하셔서 문자적으로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직접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창1:5, 8, 13, 19, 23, 31).

7. 사람의 특별 창조와 타락

우리는 사람이 전에 있던 어떤 생명체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믿는다(창1:1-2, 26-27; 2:7). 모든 인류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다.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창2:17; 3:6)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영적인 생명과 무죄함을 잃어버리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게 되었다(창6:5;

시14:1-3; 51:5; 렘17:9; 엡2:1). 이로써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영적인 죽음 혹은 사람 본성의 전적인 타락은 전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으며 오직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타락에서 제외되었다. 아담의 자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의 은혜나 믿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롬 3:10-19; 8:6-7; 엡2:1-3).

8. 죄

우리는 하나님이 극도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는 분이심을 믿는다.

8.1 죄의 정의

구약 성경은 죄를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사람에게 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즉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요일3:4; 5:17).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특별한 악이며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며 한 사람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8.2 죄의 기원

선하신 하나님(요일3:5; 벰전2:22)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다(고 후5:21).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한다. 본래 이 죄는 교만한 천사들이 도덕적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생겨났고(유6) 후에 사람도 동일한 죄를 짓게 되었다(창3장).

8.3 죄의 결과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창3:17-19). 그 결과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연인은 성령님의 초청에 의지적으로 부응하여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까지는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창6:5; 렘17:9, 10).

8.4 죄의 형벌

하나님의 공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형벌을 요구한다. 죄의 독을 지닌 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고(엡2:1) 궁극적으로 육체적 사망(창 3:19; 롬5:12)을 겪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을 겪는다(마25:46; 막9:47-48; 살후 1:9).

9.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9.1 구원의 근거

우리는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이루어짐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정하심에 따라 자원하여 자신 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마18:11; 빌2:7-8; 히2:14-17).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셔서 친히 그분께 순종하셨고 이로써 명실상부한 구원자가 되셨다. 그분은 자신의 썩지 아니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레17:11; 벰전1:18-19)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갈3:13).

9.2 구원의 수단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는다. 구원에는 위로부터 주어진 새 본성 곧 성령님께서

심어 주신 새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요3:16; 행15:11; 벰전1:23; 엡2:8-9).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우리의 구속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다(레 17:11; 엡1:7; 벰전1:18-19). 죄가 없고 완전한 인성과 참된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홀로 이루셨다(엡2:8-9; 딤후3:5; 약1:18).

9.3 구원의 수용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요1:12; 3:16, 18, 36; 5:24; 6:29; 행13:39; 16:31; 롬1:16-17; 3:22, 24-26; 4:5; 10:4; 갈3:22). 사람이 구원의 믿음에 이르려면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깨닫고 죄와 사망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180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한다(행11:18).

9.4 다시 태어남

9.4.1 다시 태어남의 정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믿는다(요3:3, 5; 엡2:1, 5; 요일5:1). 다시 태어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이다(고후5:17; 골2:13; 요3:8). 이 일은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할 때 즉시 일어난다(행16:30-31).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남은 즉각적인 것이지 어떤 과정이 아니다(요 5:24). 새로 태어남으로써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롬3:23; 6:23).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을 때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를 이루신다.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발적으로 믿으려는 우리의 믿음이 연결될 때 생겨나며 이러한 믿음의 증거는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난다.

9.4.2 다시 태어남의 결과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로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짐을 믿는다(요5:24; 고후5:17). 다시 태어난 자는 구원받자마자 모든 영적인 복을 소유하고 신분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행 13:39; 롬5:1; 고전3:21-23; 엡1:3; 골2:10; 벰후1:4; 요일5:11-12).

9.5 칭의

우리는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의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조치라고 믿는다(롬3:24; 4:5; 5:1, 9; 갈2:16; 빌3:9; 딤후3:5). 칭의의 기초는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께서 흘려 주신 '죄지 아니할 피'를 믿는 믿음이다(행20:28; 벰전1:18-19).

9.6 성화

우리는 성화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는다. 우선 성화 즉 거룩하게 됨 혹은 성결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완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같기 때문이다(히3:1; 10:10-14; 고전1:30).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신 것처럼 구별된 자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신분적으로 완전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도 존재한다. 이 일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유로운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이루어진다(요 17:17; 요일1:7, 9; 고후3:18; 7:1; 엡4:24; 살전4:3-4; 5:23; 히12:9-11).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그의 상태까지 완전히 성화될 것이다. 즉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실제 삶 자체가 완전하게 된다.

9.7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안전 보장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는다.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요5:24; 10:27-30; 13:1; 14:16-17; 17:11; 롬8:29, 35-39; 빌1:6; 요일5:13; 유1, 24). 이러한 안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안전은 죄인들의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근거하여 아무 가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롬5:9; 엡1:7).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변호하고 중보하시기 때문에(히7:25; 요일 2:1-2)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거주하시기 때문에(고전6:19-20)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안전하다.

9.8 그리스도인의 확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주님을 영접한 그 날부터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믿는다(고후5:1, 6-8; 요일5:13). 이 확신은 각자가 만들어 낸 환상 즉 스스로 가치가 있다거나 영원한 구원에 적극적인 자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사랑과 감사와 순종의 발로가 된다(히10:22).

9.9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 본성 즉 옛 본성(육체)과 새 본성(내주하시는 성령)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롬7:15-25; 고전6:19-20; 갈5:16-17).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롬8:1-2, 4).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야 하며 그럴 때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음을 믿는다(롬6:11-13; 8:12-13; 갈5:16-23; 엡4:22-24). 육체 즉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현 세상에서 결코 뿌리 뽑을 수 없으며(갈 5:16-17; 요3:6) 우리가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요3:6; 요일1:8, 10).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령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주 예수님께 누가 되는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벧전1:14-16; 요일3:5-9).

9.10 그리스도인의 섬김

우리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능력과 선물(은사)을 공급하신다고 믿는다(롬12:6-8; 고전12:4-11). 물론 선물은 다양하지만 공급하시는 분은 동일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도들은 각자 섬김의 선물을 받는다. 교회의 초기 사도 시대에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도들 모두가 각각 나름대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엡4:11-15).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도나 대언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복음 전도자나 목사 겸 교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섬김의 영역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돕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영광이 된다. 단 복음 전도자나 목사 겸 교사의 직무는 여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전14:34-35; 딤후2:11-14).

9.11 의인과 악인

우리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믿는다(잠14:32; 말3:18; 창18:23-25; 롬1:17-18).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롬6:23). 완악함과 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며 저주 아래 있는 악인이다(요일5:19). 이러한 구별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된다.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요 14:1-3; 고후5:6-8; 빌1:23), 잃어버린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 호수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마25:41; 계20:14-15).

10. 교회

10.1 교회의 정의

우리는 지역 교회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믿는다.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나 특권을 발휘한다(행2:41-42; 20:17-28; 고전11:2). 지역 교회의 직무 수행자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으며 이들의 자격이나 요건 그리고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딤후3:1-13; 딤후1:5-11).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적인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지역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다. 교회의 유일무이한 감독자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한 지역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법정에서 서로를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전6:1).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믿음의 수호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한다. 이런 협력의 분량이나 방법은 각 지역 교회의 권한에 맡겨진다. 그리고 회원 문제, 정책 문제, 행정, 양육, 자선 등도 각 지역 교회가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10.2 교회의 시작

우리는 교회가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예수님 당시에 수태되어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첫 번째 오순절 날에 눈에 드러나게 출생했다고 믿는다(행2:1).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로서 하나이다(고전12:12-13; 엡1:22-23; 3:1-6; 4:11-12; 5:23; 골1:18; 행15:13-18).

10.3 교회의 지상 명령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의해 보내어진 것같이 예수님에 의해 보내어져서 세상에 파송된 자들임을 믿는다(요20:21).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요, 순례자요, 대사요, 증인이 된다(고후5:18-20; 벧전1:17; 2:11). 그리고 그들의 삶의 첫째 목적은 영혼 구령과 선교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다(마28:18-19; 막16:15; 요17:18; 행1:8).

10.4 교회의 규례

10.4.1 침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침례란 그리스도인을 물속에 넣어 뒤로 잠그는 것이며 이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신 것과 그분을 통해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보여 주는 신성하고도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이라고 믿는다(마3:16; 28:18-20; 요3:23; 행8:36-39; 롬6:3-5; 골2:12). 또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

10.4.2 주의 만찬

우리는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여 주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행2:41-42; 고전11:23-30).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각 사람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반드시 주의 만찬을 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각 지역 교회가 필요에 따라 횟수를 정해서 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주의 만찬에 쓰는 빵과 포도즙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여야 한다고 믿는다.

11. 성경적 분리

우리는 성경적 분리가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교리임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후6:14-7:1; 살전1:9-10; 요이9-11).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이 지키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은 그러한 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다(고후6:17). 따라서 우리는 세속성과 현대주의 교회의 배도, 신복음주의, 은사주의, 부도덕, 성경이 말하는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나 무질서한 형제들과 가까이 사귀지 않도록 해야 한다(롬16:17; 살후3:6, 11, 14-15; 딤편6:3-5).

12. 시민 정부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관이라고 믿는다(출18:21-22). 시민 정부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부터 시작되었다(창9:6). 사형 제도(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형벌)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부가 집행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창9:6; 롬13:3-4).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삼하23:3; 롬13:1-7)을 존경해야 한다(단3:17-18; 마22:21; 행4:19-20; 5:29; 23:5; 딤편2:1-2).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같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이 마귀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믿고 그런 것들을 배격한다.

13.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한 언약 속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믿는다(창13:14-17). 지금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유대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흠어진 상태이다(롬11:1-32).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자신들의 거룩한 땅으로 모일 것이며(겔37장) 교회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을 뜻하며 이스라엘 사람 각각의 구원은 다른 시대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 민족적으로 부활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 년 동안에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복을 받는 으뜸 민족이 될 것이다.

14. 그리스도의 재림

14.1 휴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있을 중대한 예언의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는 일 즉 휴거라고 믿는다(요14:1-3; 살전4:16-18; 고전15:42-44, 51-54). 이 사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7년 환난기(계3:10) 전에 언제라도 발생할 것이다(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전 천년', '환난 전' 휴거임).

14.2 환난기

우리는 교회의 휴거가 발생한 다음 다니엘의 칠십 이레 중 마지막 한 이레의 성취인 7년 환난기가 일어남을 믿는다(단9:25-27; 계6:1-19:21). 7년 환난기에 교회는 하늘에 있게 된다. 다니엘의 70번째 마지막 이레 전체는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환난기가 끝나면 이방인의 때도 막을 내리게 된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환난 전 휴거를 믿으며 환난 통과 주장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합하여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믿는다.

14.3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우리는 땅에 다칠 7년 환난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친히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권능과 큰 영광으로 친히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단

9:25-27; 마24:15-25:46; 행1:9-11; 15:16-17).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이고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을 묶어 무저갱 즉 바닥없는 구렁이에 가두실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에 닦혔던 저주를 거두실 것이다(시72:8; 사9:6-7; 11:1-9; 32:1; 눅1:30-33; 행2:29-30; 고전15:25; 계20:1-4, 6, 14).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옛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약속이 실현됨을 보게 하실 것이다(신 30:1-10; 겔37:21-28; 롬8:19-23; 11:25-27). 이때에야 비로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사11:9).

15. 영원 상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시대 성도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과 혼이 곧바로 주님이 계신 하늘에 가며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지내게 됨을 믿는다(눅23:42; 고후5:8; 빌1:23).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들의 몸은 부활하여 영 및 혼과 결합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과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전15:51-57). 반면에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과 혼은 천년 왕국이 끝난 뒤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기까지 지옥에서 정죄와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된다(눅16:19-26; 계20:11-15). 또한 크고 흰 왕좌에서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몸 역시 부활하며 영 및 혼과 결합하여 불 호수라고 묘사된 영원한 정죄의 장소에 던져지게 된다(계20:11-15).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다만 주님의 임재와 권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된다(살후1:7-9; 유6-7).





성경 암송 구절

● 하나님의 말씀

1.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2.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베드로후서 1장 20, 21절).

3.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편 12편 6, 7절).

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태복음 4장 4절).

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마태복음 5장 18절).

6.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태복음 24장 35절).

7.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명기 4장 2절).

8.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언 30장 5, 6절).

9.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요한복음 5장 39절).

10.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요한복음 17장 17절).

11.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시편 119편 9절).

12.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편 119편 11절).

13.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시편 119편 89, 90절).

14.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브리서 4장 12절)

15.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로마서 15장 4절).

16.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아모스 8장 11절).

17.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호세아 4장 6절).

18.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요한계시록 1장 3절).

19.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 하나님

20.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신명기 6장 4, 5절).

21.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민수기 23장 19절)

22.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예레미야서 32장 27절)

23.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요한복음 4장 24절).

24.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한일서 5장 7절).

25.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이사야서 6장 3절)

26.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요한일서 4장 7, 8절).

27.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이사야서 12장 2절).

2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장 8절).

2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베드로후서 3장 9절).

30.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로마서 8장 32절)

● 그리스도

3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장 14절).

32.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장 30, 31절).

33.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0장 10절).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한복음 14장 6절).

35.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브리서 4장 15절).

36.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장 21절).

37.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히브리서 12장 1, 2절).

38.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3장 18절).

39.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공황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마태복음 9장 13절).

40.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마가복음 10장 45절).

● 성령님

41.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요한복음 14장 16, 17절).

42.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스가랴 4장 6절).

43.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에베소서 5장 18절).

44.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로마서 8장 26절).

45.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 구원

46. 그분을 받아들이신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한복음 1장 12, 13절).

4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장 3절).

48.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공훈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디도서 3장 5절)

49.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장 9, 10절).

50.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로마서 10장 12, 13절).

51.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사도행전 16장 30, 31절)

5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들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사도행전 4장 12절).

53. 너희가 이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54.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2장 8, 9절).

55.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장 16절).

5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한복음 5장 24절).

57.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도서 2장 14절).

58.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장 22절).

59.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레위기 17장 11절).

60.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한일서 5장 12절).

61.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한일서 5장 13절).

● 그리스도인

62.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6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라디아서 2장 20절).

6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마태복음 7장 13, 14절).

65.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장 21절).

66.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로마서 8장 9절).

67.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로마서 8장 14, 15절).

68.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로마서 8장 16, 17절).

69.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장 13절).

● 죄와 죄인, 심판, 회개

70.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예레미야서 13장 23절).

71.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민수기 32장 23절).

72.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시편 14편 1절).

73.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이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이사야서 64장 6절).

74.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로마서 3장 10-12절).

75.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로마서 5장 12절).

76.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서 1장 18절).

77.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장 14, 15절).

78.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한일서 1장 9절).

79.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엔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디모데 전서 1장 15절).

8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로마서 3장 23, 24절)

81.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예레미야서 17장 9절)

82.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린도후서 4장 3, 4절).

83.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로마서 6장 23절).

84.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장 27절)

85.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전도서 12장 13절).

86.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오?(전도서 1장 2, 3절)

87.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야고보서 4장 14절).

88.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사도행전 2장 38절).

8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누가복음 15장 10절).

● 기도

90.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야고보서 1장 5절).

91.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서 33장 3절).

92.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장 6, 7절).

9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요한복음 15장 7절).

94.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장 7, 8절).

95.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요한일서 5장 14절).

96.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태복음 6장 33, 34절).

• 위로

97.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맡쳐 주리라(이사야서 41장 10절).

98.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장 27절).

99. 주께서 생각을 주게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이사야서 26장 3절).

100.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장 28절).

101.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디모데후서 1장 12절).

102.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디모데후서 4장 7, 8절).

103.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마태복음 11장 28-30절).

104. 소년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서 40장 30, 31절).

105.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서 즐거워하시며 친히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스바냐 3장 17절).

● 믿음, 복음, 은혜, 교회, 교제

106.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히브리서 11장 6절).

10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로마서 10장 17절).

108.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 시고(고린도전서 15장 3, 4절)

109.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로마서 1장 16절).

110.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로마서 4장 4, 5절).

11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로마서 5장 1절).

112.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불수록 더욱더 그리하자(히브리서 10장 24, 25절).

113.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느니라(마태 복음 18장 20절).

114.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태 복음 16장 18절).

● 선교와 전도

115.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사도행전 1장 8절).

116.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디모데후서 4장 1, 2절).

117.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시편 126편 6절).

118.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119.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므로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사야서 6장 8절).

120.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고 갈라진 틈에 서서 내가 그 땅을 멀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에스겔서 22장 30절).

12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마태복음 28장 19, 20절).

122.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마가복음 16장 15, 16절).

● 영적 전투

123.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베드로전서 5장 8, 9절).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야고보서 4장 7, 8절).

125.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로마서 12장 2절).

126.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에베소서 6장 12절).

127.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요한일서 2장 15, 16절).

● 경배

128.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훈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로마서 12장 1절).

129.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시편 29편 2절).

130.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기 24장 15절).

131.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히브리서 13장 15절).

132.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잠언 3장 9, 10절).

133.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장 7절).

● 부활, 재림의 소망

134.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요한복음 11장 25, 26절)

135.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내 살갓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기 19장 25, 26절).

136.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고린도후서 5장 1절).

137.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장 2, 3절).

138.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139.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140.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고린도전서 15장 51절).

141.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데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요한계시록 22장 20절).

● 성화

142.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143.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언 9장 10절).

144.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장 5, 6절).

14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디모데후서 2장 15절).

146.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5장 15절).

147.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골로새서 3장 1-3절).

1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빌립보서 4장 8절).

149.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욥기 23장 10절).

150.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누가복음 9장 23절).

151.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152. 주의 좋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디모데후서 2장 24, 25절).

153.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디모데후서 3장 12, 13절).

15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테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155.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56. 죄가 죄를 예리하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잠언 27장 17절).

157.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사무엘기상 15장 22, 23절).

158.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잠언 16장 32절).

159.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로마서 8장 1절).

160.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 떼가 풀어지고 외양간에 소 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하박국 3장 17, 18절).

161.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골로새서 3장 5절).

162.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 일이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6장 1-3절).

163.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장 6절).



성경 해석법

A.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은 결코 고대 역사, 신화, 전설, 종교적인 명상들과 계시 문학을 잡다하게 혼합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계시와 교리의 진보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사사들)은 족장들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며 재판관들보다는 대언자들(선지자들)이, 대언자들보다는 사도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따로따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가 없이는 구약의 레위기를 이해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신약의 계시록이 없이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긴 하지만 이 책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거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이 초자연적이라는 사실은 이 책이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1. 문자적 해석이 핵심이다

성경은 문학 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1. 비유적 언어
2. 상징적 언어
3. 문자적 언어

비유적 언어는 앞뒤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상징적 언어는 그 부분의 내용에서 또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참조하여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다른 책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의미를 우회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 말씀의 대상이 중요하다

성경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의 일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일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셋으로 분류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고전 10:32)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교회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으나 그 안의 모든 내용이 교회에 관한 것 혹은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문맥 밖에서 취해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에게만 주어진 배타적인 약속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을 취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제4/라(사1:1)*.

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되었으므로 유대교의 색채가 짙습니다.¹⁾ 야고보서는 '교회'가 아니라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즉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약1:1).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가면'(히6:4-6)이라는 말과 '고의로 죄를 지으면'(히10:26)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은 결코 다시 태어난 적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실제로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의 형제들만큼이나 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딤후3:16)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와 교훈이 됩니다(고전10:11).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을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혼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3.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서 우리는 또한 대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께

- 1)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은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은 명백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히12:22-24). 신약 성경의 기독교회는 처음 형성될 때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고 오순절 사건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넬료 사건(행 10장)을 통해 이방인들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기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갈 2:7-10).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등이 기록한 교회 시대 초기의 글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에 유대교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회심을 크게 갈망하였다(롬9:1-5).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설 것을 바라며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로마서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이 의미하듯이 이 글은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이 모두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서 이 세 사역의 직분을 동시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의미를 갖는 날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Times)와 '시기'(Seasons)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지나간 때'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히1:1-2)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때'에는 '무지하던 때'(행17:30), '이방인들의 때'(눅21:24), '새롭게 하는 때'(행3:19),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행3:21) 그리고 '때가 충만히 찬 경륜'(엡1:10) 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권세를 차지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권세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때'가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가 결코 지배하는 권세 즉 왕국의 권세를 차지할 수 없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처럼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하며, 침례와 다시 태어남(중생), 율법과 은혜, 교회와 왕국처럼 그분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붙여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만으로 성경을 나누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우리는 시간과 영원에 관해서 그리고 시간 속에 등장하는 여러 시대와 경륜 즉 하나님의 시대 경영 통치 체계에 관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해석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알게 되어 영과 육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B.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세대주의 개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외 없이 '세대주의'란 말을 언급하기만 하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대주의란 말은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의 사역과 저술 등이 자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복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려는 흥미를 처음으로 일깨워 준 성경 회의나 예언 집회 혹은 특별한 모임 등을 회상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란 말을 마치 재앙과 같이 여기고 이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고도 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세대주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단 가르침이라는 말도 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의 가르침 역시 조직화 과정과 발전 과정을 겪어 왔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는 기본 특징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대주의는 여러 차례 외부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 왔으며 서투른 모방과 판에 박힌 비난 등은 세대주의의 관점을 제대로 보여 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세대주의의 관점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장로교가 주축인 국내에서는 처음에 세대주의가 도입되어 종말론에서 표준이 되었으나

날이 가면서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면서 장로교는 고전적인 언약주의로 회귀하게 되었고 지금 웬만한 신학교에서는 세대주의를 '이단 교리' 혹은 '준 이단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교회가 신학적/목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시한부 종말론 때문일 것입니다. 국내에는 우리 주위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의 해석학적 뿌리가 고전적인 세대주의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정도 이 견해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에는 크게 '신비주의적 종말론'과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있으며 이 둘이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필시 콜레, 이장림 등이 주장하는 것은 신비주의적 종말론이며 헬 렌제이, 콜린 데일, 찰스 라일리 등의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전자의 문제는 세대주의의 어떤 틀을 유지하는 듯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직통 계시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적 시한부 종말론은 진정한 의미의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다릅니다. 미국의 정상적인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한국의 신비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직통 계시를 믿고 생업을 버린 채 공동생활을 하며 흰 옷을 입고 자정에 휴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침례교가 주축인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출간된 「스코필드 주석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의 영향으로 건전한 세대주의가 거의 모든 신자들의 신학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화당 체제는 민주당 체제는 계속해서 중동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근본 이유는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세대주의 신학이 알게 모르게 확고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가 있고 학구적이라는 신학교들 - 예를 들어 델러스, 탈봇, 무디, 그레이스, 펜사콜라¹⁾ 및 대부분의 침례교 신학교들 - 은 모두 건전한 세대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세대주의는 결코 이단이 아니며 서구에서 언약주의(칼빈주의)와 함께 신학의 골격을 이룬 건전한 신학 체계입니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나 신학자라면 누구나 이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 해석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느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같은 성경 말씀이 달리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한 성경 해석 체계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다만 끝 날에 이루어질 부분 즉 종말론에서 성경 해석 방법의 차이로 인해 양 진영이 대립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천년왕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언약주의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은 없으며 그것을 영구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이

1)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에는 릭크맨이 운영하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Pensacola Bible Institute, PBI, www.kjv1611.org)과 호르튼이 총장으로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Pensacola Christian College, PCC, www.pcci.edu)가 있다. 국내에는 릭크맨의 영향을 받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PBI를 가장 좋은 학교인 것으로 소개하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PBI는 릭크맨의 교회에서 밤에 모이는 야간 신학교에 불과하다. 물론 야간 신학교라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PBI가 가르치는 극단적 세대주의는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누구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과 그들의 교리의 창시자 릭크맨을 잘 알 수 있다. 반면에 PCC는 미국 내 보수주의를 이끌고 있는, 5,000여 명의 학생이 있는 크리스천 종합대학이다. PCC에서 발행되는 홈스쿨링 교재인 '아베카복'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크리스천 교과서이다.

문자 그대로 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달리 보므로 에스겔서 40-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언약주의적 해석입니다.²⁾

에스겔 47장: 여기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이 되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나타난다(5절). 그리고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무가 심히 많고 강이 도달하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며 바닷물(사해)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한다(9절).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까지 적시며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까? 이 예언의 배후에는 명백하게 에덴동산 이미지가 깔려 있음을 주목하라. 에덴동산에 흐르는 물과 모든 나무와 산의 모티프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요7:38)고 말씀하심으로 에덴동산을 성령 강림으로 재해석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며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개의 실과를 맺는다고 한다. 즉 에스겔의 상징적인 강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은 에덴동산의 회복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지 문자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다.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가 예표적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를 본 딴 복사판이다(출25:40; 왕상8:29-30).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로서(히8:5)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다. 이 모형은 그림자로서 솔로몬의 돌 성전은 보다 완전한 것이 나올 때 폐기될 수 있었다(히10:9). 이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실체가 나타나고(요1:14)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계22). 이 성경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겔서의 강물과 나무 이미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처럼 언약주의자들은 종말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해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돌아와서 땅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사해를 살리며 모든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제 동일한 장로교 저자가 스가랴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언: 메릴 언거(Unger, 1978)는 스가랴서 전체가 메시아의 강림과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는 관점 속에서 주석을 하고 있다. 예로서 2장 1-13절의 측량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은 '그 도시가 미래에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즉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될 수 없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받는 환상(3:1-10)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그리고 있다(55쪽). 11장은 미래에 거짓 목자 즉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하며 12장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다고 말한다(206쪽). 미래의 예루살렘이 다시 이방인들에게 포위될 것이며(12:1-9) 메시아 왕이 두 번째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12:1-13:9).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승리를 거둘 것이나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산이 변형되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14장). 따라서 14장은 전적으로 예언적이다(wholly prophetic).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과거 역사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238쪽). "스가랴 14장은 현시대의 관점에서도 전적으로 예언적이다.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석법은 문자적인 해석이다"(239쪽). 그리고 언거는 파인버거를 인용하고 있다: "이 장이 문자적으로

2) 이 글은 <http://blog.daum.net/11christ/10411012>에서 취했다.

해석될 때 스가랴가 지금까지 계시한 것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완성에 대한 예언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감람산이 나누어지고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이미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엘이 말세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대를 예언하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았을까?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도래에 대해 상징과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상징과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선지자의 의미를 바로 캐어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목시 문학이라는 장르를 결정하는 것이 종말과 연관된 본문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준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서 꿈과 환상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에 개입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신원하시오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다. 목시 문학은 구체적인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종말론적인 최후의 승리를 제시하며 고난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한다. 신자들이 고난받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징(symbolism)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언약주의의 요점은 구약이나 신약의 예언 부분과 이스라엘 관련 부분을 모두 상징을 통해 비유적 표현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성경 해석 체계와 믿음을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진지한 크리스천임을 인정하면서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관한 한 그들의 진지함을 따르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습니다. 즉 그들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 사해를 회복시키며 재림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셔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 것은 곧 사도행전 1장 11-12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즉 올리브산에서 승천한 그대로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봅니다. 언약주의자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의로 무시하고 영해하여 모두 교회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

사람이 조직적으로 만든 교리나 이론에는 언제나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역시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은 세대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언약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이 책을 전개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로서 역사성이 없다

하나의 신학 체계로서의 세대주의의 기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대주의자들도 대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대주의라는 신학으로 체계화된 초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저술을 살펴보면 세대주의적 개념이 바로 그들의 관점의 일부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많습니다.

마티(Justine Martyr, 주후 110-165)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의를 가르치셨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분명히 세대주의적인 개념들을 보여 주었습니

다.

이레니우스(Irenaeus, 주후 130-200)는 신약 성경 안에 네 복음서밖에 없는 이유들을 기록하면서 세대주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주후 150-220)는 모세 세대뿐만 아니라 세 개의 족장 세대(아담, 노아, 아브라함)를 구분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성경은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주장한 어거스틴도 자신의 저작에서 세대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희생 법규의 제정은 이전 세대에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각 시대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보다 무한히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더하시든 빼시든, 폐하시든 세우시든, 줄이시든 늘이시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변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불변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의 여정을 통해 이름다음에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사건을 명령하신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일부본인 세대들은 각각의 연속되는 시대에 잘 맞게 되어 있으며 형언할 수 없이 슬기로운 음악가가 지은 노래의 웅장한 멜로디처럼 끝이 나게 될 것이다…비록 세상 역사의 이전 시대의 한 기간에 그분께서 한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시고 그다음 기간에는 다른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 사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면서 연속되는 시대들의 변화들과 조화를 이루는 참된 종교 즉 찬송받기에 합당한 참된 종교의 교리에 속한 상징적 행동들을 명령하신 것이다.

한 역사가는 피오레의 요아킴(Joachim, 주후 1135-1202)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세 시대 역사 이론 즉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영과 의의 미래 시대로 나누는 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미국 및 영국의 예언 저술가들이 퍼뜨린 세대주의의 원시적 형태인데 이 세대주의 역시 인류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계들 즉 세대들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사도 요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하여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원시의 혹은 초기의 세대주의적 개념들을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 개혁 이후에 이르기까지는 뒤에 세대주의로 체계화된 개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교리적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야 비로소 신학자들은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포와르(Pierre Poiret, 주후 1646-1729)는 프랑스의 신비주의 철학자로서 168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자신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경륜」(L'Economie Divine)을 처음 출간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예정론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뒤에는 하나의 완성된 조직 신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특별한 경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J. Edwards, 주후 1639-1716)³⁾는 영국 국교회의 칼빈주의 목사로서 1699년에 「모든 세대들의 전체 역사 혹은 개관」(A Complete History or Survey of All the Dispensations)이란 제목의 790페이지에 달하는 긴 책을 두 권으로 출간했습니다. 그의 저술 목적은 '창조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종교의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의 이행을 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

3) 이 사람은 미국의 청교도 목사로 대각성 운동의 촉매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와는 다른 사람이다.

다. 그의 저서 역시 세대주의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작시자로 잘 알려진 와츠(I. Watts, 주후 1674-1748)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정해 주신 모든 종교와 그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세대의 조화」라는 제목의 40페이지 논고에서 세대들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자신의 세대주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세대주의적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 세대 혹은 처음의 아담의 신앙
2. 은혜 언약의 아담 세대 혹은 타락 뒤의 아담의 신앙
3. 노아 세대 혹은 노아의 신앙
4. 아브라함 세대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
5. 모세 세대 혹은 유대교 신앙
6. 기독교 세대

천년왕국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그의 체계는 현대 세대주의자들의 체계와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가 세대주의를 체계화하고 촉진하였지만 다비나 그가 속한 형제교회가 세대주의 체계에 내포된 개념들을 스스로 창안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의 체계를 세웠을 뿐입니다. 다비는 성경 번역을 포함해서 권당 600여 페이지 분량의 책 40여 권을 지었는데 그의 작품들은 성경 언어 및 철학과 교회사 등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을 잘 보여 줍니다.

1900년대 이후로 스코필드(C. I. Scofield) 등이 전통적 의미의 세대주의를 확립하였는데 그의 체계는 다비의 체계와 달랐습니다. 스코필드의 체계는 와츠의 체계와 비슷하며 다비의 체계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가 다비에서 시작되어 스코필드에 의해 전수되고 대중화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세대주의의 개념이 주후 100년경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세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정착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으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들이 종말론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교회들이 종말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종말론과 관련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도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순으로 볼 때 교리적 논의는 변증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종말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직적인 종말론이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체계적인 세대주의가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결코 종말론이나 원시적 형태의 세대주의가 종교 개혁 이전 시대에는 검토되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영역에서 교리의 체계적 발전이 그때까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의 발전 도상의 현대 시기에서 종말론에 대한 연구 노력으로 인해 세대주의의 특징들이라는 좋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세대주의 개념들은 다비보다 훨씬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이미 가르쳐졌다.
- (2)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대주의가 최근에 와서야 세밀히 검토되고 체계화된 것은 단지 종말론이란 신학 영역 자체가 최근어야 비로소 제대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 즉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역사성이 없다는 주장으로부터 얻게 되는 결론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최종 권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모든 교리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계시라는 빛을 통해 시험해야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를 반대하는 이들은 세대주의가 예수회의 회원인 임마누엘 라쿤자가 만들었으므로 이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라쿤자가 7년 환난설의 주창자라고 말하며 천주교회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혹은 기독교에 잘못된 교리 -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천주교 누룩 - 를 넣기 위해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천주교를 싫어하는 아일랜드의 개신교도들이 만들어 낸 이론입니다. 이들은 “천주교가 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라는 허수아비 이론을 가져다가 천주교에 반감을 가진 이들에게 주입하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가 삼위일체를 믿고 주장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환난기 역시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난기를 믿으면 천주교의 예수회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임을 믿으며 또한 이런 문제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음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가는 성경이 평범하게 밝혀 줄 것입니다.

B. 세대주의는 인위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나누어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유대인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마지막 세대로 일곱째 세대인 ‘천년왕국 시대’를 부각한다

뒤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세대주의에서 ‘세대’(Dispensation)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 혹은 경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보다는 경륜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 체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거기에서 파생되어 한 경영 체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우리말로 ‘세대’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영 체계(세대)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법을 바꾸신다.
2.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응하는 계시가 필요하다.
3. 사람 편에서도 상응하는 반응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특징들 외에도 세대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 개의 경영 체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경영 체계는 이러한 부차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시험 -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
2. 책임/반응하기 위한 믿음
3. 사람의 실패

4. 심판 -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여 주는 것

이런 면에서 세대주의를 들여다보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영 체계들과 이것들로 인한 시대들을 바르게 구분하고 성경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데 있지, 결코 세대가 몇 개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세대를 나누는 방법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므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며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또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안식하며 더 이상 인간 제사장 체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1. 아담의 타락 이전
2.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짐승의 희생)
3. 율법 -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4. 은혜 - 그리스도부터 현시대
5. 천년왕국

위의 다섯 개 경영 체계 혹은 세대는 누구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러한 경영 체계의 앞뒤로 확연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결코 시대에 따라 구원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편 이 외에도 위의 둘째 기간인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다른 경영 체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째 경영 체계는 좀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2.1 타락에서 노아까지 -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 경영 체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 2.2 노아부터 바벨탑까지 -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민족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 일이 시작되었으므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3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 나오면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아마도 스코필드 이후의 근대적 세대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곱 개의 경영 체계/세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일곱 개 중 앞의 여섯 개는 주후 1700년경에 와츠가 제안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일곱 개 외에도 어떤 분들은 7년 환난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다른 경영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경영 체계는 모두 아홉 개가 됩니다.

이렇듯 세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대의 수에 대해서는 두 개에서부터 아홉 개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인류 역사에서 일곱 개의 경영 체계만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성경에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들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채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뒤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이것은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⁴⁾ 이들은 대개 구약 시대와 환난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천년왕국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 없고 단지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나누다가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곧 영생은 창조물이 창조주로부터 거저 얻는 것이지 자기 행위를 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거저 주십니다. 사람의 삶에서 햇빛, 물, 공기같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다 거저 주어집니다.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만 사람이 돈을 주고 사거나 힘을 들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공기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영생을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이단 교리이며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이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거저 얻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들은 다 이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갈1:8-9).

세대주의의 이점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이점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18장 21-24절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내 모든 법규들을 지키며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범법들,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기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많은 이들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 설교하며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구원받은 뒤에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모든 구절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4) 이것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랭크맨과 그의 추종자들을 들 수 있다.

합니다. 이 구절들의 문맥은 모세의 율법이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사람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갈3:24).

또한 창세기 4장 9-12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9장 6절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과 다른 경영 체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변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나 성결교같이 알미니우스주의를 선호하는 교회들은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용해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양에 속한 자들에게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마 25:35-36)

문맥에 상관없이 이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문맥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되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리이까? 하니(마24:3)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할 대환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에'(then)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즉 열 처녀 비유는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려는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역시 이스라엘과 관계된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며 여기서 양에 속한 것으로 판명난 자들은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6-43절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결코 행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양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마태복음 7장 15-23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 즉 믿음이 있으면 -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 즉 믿음이 없으면 -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모두 불 속에 들어갑니다(마7:18). 물론 이것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도 일맥상 통합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 13장 10절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바로 그 위에 1-8절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무 때나 칼을 사용하라는 것과 상관 없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칼을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눅22:36).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10절이 경고하는 비는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벌이는 전쟁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0장 5-6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지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가면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왕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입니다(고전15:1-4).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의 시작부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대하던 '하늘의 왕국' 즉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마3:2; 4:17). 물론 마태복음 10장도 같은 문맥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니 회개하고 왕국을 받으라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국은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7-3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말기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유기체인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교회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2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우리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죽고 묻히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인 베드로는 22절에서 즉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러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간/세상 경영 체계를 바꾸려 하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일에 참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구원의 방법이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즉 구약의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한 '하늘에서 임하는 왕국'은 연기가 되고 교회라는 새로운 유기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온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국인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엡2:11-12)

그러나 교회의 출생 이후에는 인류가 셋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고전 10:32)

경륜주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것을 바르게 보고 문맥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며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와 또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은 대부분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경륜의 제사장(사제, 신부), 성전(성당), 촛불, 물 뿌리는 것, 향 피우는 것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개신교 형제들은 1500-1600년경에 로마 천주교를 떠나면서 그들의 오류들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교회를 택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들도 천주교회와 비슷하게 구약처럼 예식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할례가 성도들의 유아 세례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촛불과 향, 예전을 중시합니다.

한편 여호와와 증인들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등도 구약의 이스라엘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하여 여호와와 증인이 되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음식 규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류들의 문제는 한결같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자기들을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배척하고 죽인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맞아들일 때가 있음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슌12:10).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신명기 28장 15-68절에 있는 불순종의 저주를 받고 있지만 그분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유대인들]이 너희[교회]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유대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롬11:28-29).

사무엘기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1. 다윗의 가족을 통한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삼하7:10)
2. 다윗의 왕좌가 그의 씨를 통해 영원히 확립되는 것(삼하7:13)
3. 죄로 인한 형벌은 있으나 약속의 취소는 없다는 것(삼하7:14-15)
4. 다윗의 집과 왕국을 영원히 확립하는 것(삼하7:16)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왕좌를 상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마1:1) 이에 그분은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왕좌를 세우실 것입니다(사9:6-7).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29절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옳으로 치워 놓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그들을 그들의 고토에 회복시키고 자신의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이를 것을 보여 줍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어거스틴 사상과 그것을 이어 받은 칼빈주의에 빠져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에 다음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1.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된다(수10:6-12).
2.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 3분의 2가 죽고 오직 3분의 1만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수 13:8-9). 우리 주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대환난이라고 말한다(마24:21).
3.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다(수12:10-13:1).
4. 메시아가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신다(수 14:1-21).

세대주의의 위험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가 성경을 바로 보게 해 주는 좋은 틀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이 체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이 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기본이 되는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세대에서는 믿음 외에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이 체계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며 미국의 대부분의 세대주의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몇몇 과격한 이론들로 인해 어떤 신학 체계 전체를 나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다음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한 위험성과 그것에 대한 반론 및 해결책을 보여 줍니다.

A.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성경 신자들이 한 형태의 고정화된 특정 방식의 세대주의 교리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개의 경륜이 있지만 성경 신자들이 한결같이 모두 어떤 사람의 특정 방식만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러크맨(Peter S. Ruckman)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세대주의를 믿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든 이단 교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경륜주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경에 몇 개의 경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모든 조직 신학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비교해서 시험해야 합니다(행17:11; 고전14:29; 살전5:21).

스코필드(C. I. Scofield), 라킨(Clarence Larkin), 쉐이퍼(Lewis Sperry Chafer) 같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스코필드와 라킨은 그 시대의 신학을 반영하며 창세기의 재창조⁵⁾를 믿었습니다. 러크맨 같은 사람들은 이들의 신학에 ‘믿음 더하기 행위’라는

5)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오랜 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에 땅이 이미 한 번 멸절되었고 3절부터 나오는 창조 기사는 첫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다가 멸망한 옛 땅을 다시 창조하는 것(재창조)을 기술한 것이라는 믿음이다. 20세기 초에 진화론의 공세에 물린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은 스코필드 등의 재창조 해석에 의지하여 창조와 진화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고 시도하였고 이 믿음은 오랫동안 많은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의심 없이 수용되고 공유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창조론을 지지하는 성경 과학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구와 우주의 형성 연대가 성경 기사 그대로 6,000여 년 정도임을 보이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근본주의 학교에서 재창조가 아닌 창조를 믿고 가르치며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러크맨 추종자들은 대개 재창조를 믿음의 기초로 생각하고 있다.

구원 방식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렉크맨이 운영하는 미국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출신들은 한결같이 구원 방식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킵니다.⁶⁾

한편 최근에는 미국 델러스 신학교의 라이리(Charles Ryrie), 월브우드(John F. Walvoord), 펜테코스트(Dwight Pentecost) 등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모든 경륜을 통해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경륜주의 체계를 채택한다 해도 이스라엘과 교회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현시대에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숨겨 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B.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경륜을 나누고 성경의 모든 구절을 조각조각내고 만다

이런 체계는 흔히 '급진적 과격한 세대주의'(Hyper-dispensationalism)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등을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구분하고 조각냅니다. 여기에는 벌링거(E.W. Bullinger), 스태(Cornelius Stam)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펠니다.

(1) 사복음서는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선포한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히2:3-4). 비록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복음서와 서신서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차이가 없음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에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2)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들과 다르며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수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서신 등은 신약 시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복수)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엡2:20).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며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지 않습니다(벧후3:1-2, 15-16).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근에 스토퍼(Douglas Stauffer)는 렉크맨의 교리를 토대로 지은 자신의 책 「One Book Rightly Divided: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Bible」(2000, McCowen Mills Publisher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바울만 교회의 대변인이다(17쪽).
2. 히브리서부터 계시록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환난기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20, 27쪽).
3. 환난기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23쪽).
4.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지 않는다(23, 29쪽).

6) 한국에서는 이승오씨가 대표로 있는 말씀보존학회가 렉크맨주의를 그대로 답습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5.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26쪽).
6.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29쪽).
7. 요한일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56쪽).
8.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였다(175쪽).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믿음 더하기 행위’ 공식을 주장하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같은 일반 서신들을 교회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보여도 그런 것은 다 불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륜과 경륜 사이에 변천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는 한 경륜에서 다른 경륜으로 바뀌는 변천기 역사를 기록하므로 사복음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마2:2; 눅2:25-39)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시며(마16:18) 마지막 28장에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마태복음의 대상을 이스라엘로만 한정하면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것이 현시대 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현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며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펼쳐지는 그 내용은 거의 유대인들의 예언 성취를 다룹니다. 또한 타 언어(방언)의 은사 역시 이스라엘을 위한 증거입니다(고전14:21-22).

한편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서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의 아볼로와 19장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았고 아직 신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신약의 교리 즉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는 시기에 살았습니다.

D.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현시대와 상관이 없다고 믿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 혹은 사도행전이나 계시록 등을 이런 부류의 책으로 여기고 읽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서 현시대 크리스천들을 향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롬15:4; 고전10:6, 11).

E.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글자로 대하므로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

이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세세히 글자로만 대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교훈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바리새인들이 범한 것과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즉 경륜을 바로 나누어서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하지만 영을 무시하기 때문에 권능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글자로 성경기록을 주시고 경륜에 따라 바르게 성경을 보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성경기록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이런 사람들은 글자만 논하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놓칩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은 말 그대로 피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적 교만으로 인해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분리하여 홀로서기를 하려 하므로 국내외에서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로 인해 성경 신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 성경적 세대주의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리 같은 것은 성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교리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며 이성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 된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올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때가 이를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이미 경고해 주었습니다(딤후4:3-4). 지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리를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교리를 바로 알려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써도 해석 체계가 바르지 못하면 바른 교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 체계는 크게 문자적 해석 체계와 영적/비유적 해석 체계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 체계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의 모든 단어를 문맥에 따라 읽고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체계를 따르면 성경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거의 동일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비유적 해석 체계를 견지하면 해석자에 따라 성경의 단어들이 달리 해석되므로 궁극적인 결론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됩니다.

신학적 용어로 전자의 해석 방법은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하고 후자는 언약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해석 방법이고 후자는 천주교와 또 장로교 같은 개신교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 둘은 처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언 부분에 가면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한쪽이 다른 쪽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석 방법에 따라 성도들의 교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적인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러므로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차이점 인식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본래 그분의 모습과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걸쳐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방식이 바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공활을 베푸사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영원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도 달랐습니다. 노아와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른 방식도 달랐습니다. 노아의 의무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 수백 년 뒷사람인 솔로몬의 의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되는 진리의 정도 차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시에 다 주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다윗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마13:17).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가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요16:12).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갈 1:11-12; 엡3:3-5 참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죽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계1:1-3, 9-12 등)

물론 이 같은 진리의 계시 방식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당신에게 필요한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한 번에 모든 진리를 다 알려 주십니까? 아니면 차츰차츰 알려 주십니까?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젓'이 필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단단한 음식과 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벧전2:2; 고전3:1-2). 초신자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모두 받는다 해도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은 아직 기하학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하학은 나중에 배우고 먼저 더하기와 빼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이른바 성경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성경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약 1600년이라는 기간에 - 주전 1500년경에서 주후 100년까지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가 점진적으로 진보되는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교회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도 성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 심지어 복음서 한 권도 -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이고도 진보적으로 계시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성경을 한 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아담: 체계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성경 같은 건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창17:1; 18:1 등).

모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윗: 제 성경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기, 사사기 그리고 제가 기록한 시편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체계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 제가 소유했던 성경은 전체 구약 성경이며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바울: 저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저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에는 다윗 시대의 성경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명백한 차이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공훈과 은혜를 베푸셨으며 사람과 놀랍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정류(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엡2:8). 율법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창15:6)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롬4:3).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도 그렇게 구원받았고(롬4:6) 신약 시대의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롬4:5)! 노아, 이사야, 베드로, 바울 등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값없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호의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은혜에 행위를 더해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속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 혹은 각 시대를 경영하시는 -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에 갈 때 어린양을 가지고 갑니까? 어린양을 가지고 가서 당신의 죄로 인한 희생물로 그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까?(레3:7; 4:32; 삼상7:9 참조)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들처럼 짐승을 희생물로 드립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은 짐승을 희생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런 경우도 고려해 봅시다. 오늘날 토요일(일곱째 날)에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율법에는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까?(출35:2 참조) 실제로 토요일에 나무 가지를 쭈다가 죽은 예가 민수기 15장 32-3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불린 특별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벧전2:9; 계1:6).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부모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유대인 아이의 부모에게 할례는 필수였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창 17:10-14 참조)

아담이 살았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될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창2:16-17).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먹어서는 안 될 열매 곧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루신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까? 다윗이 사람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까? 솔로몬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16:15)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차이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시대마다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7절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늘의 왕국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보면 부활 이후에 복음 선포 대상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도 때가 바뀌자 -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바뀌자 - 내용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경륜 전후의 차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각 시대마다 핵심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놀라운 변화와 차이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건들이 있고 이것들의 앞뒤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사람의 타락(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 노아 시대의 대홍수
- 바벨탑 심판
- 아브라함을 부르심(창12)
- 율법 수여(출19-20)
-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 성령 강림(행2)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계19)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를 살펴봅시다. 먼저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짐승들을 생각해 봅시다(사11:6-9). 그때가 되면 짐승들의 습성이 바뀝니다. 사자 같은 육식성 짐승이 채식을 합니다. 현 세상에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마24:6-7).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미4:3). 거기서는 다시 전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막16:15 등). 그런데 과연 왕국 시대에도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이사야 11장 9절 등은 이런 일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 줍니다. 스가랴 13장 3절을 보면 이때에 대언을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즉 대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대주의자란 성경을 믿고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을 인식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륜/세대의 뜻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dispensation’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라틴어 별게이트 성경으로 옮기면서 사용한 ‘디스펜사티오’(dispensatio)라는 라틴어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말입니다. 이 라틴어 동사는 ‘무게를 달아서 나누다’ 혹은 ‘배분하다’란 뜻의 복합어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이 들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1. 나누어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행정을 보거나 지휘를 하거나 혹은 관리를 하는 행위 혹은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체계
3. 어떤 요구 조건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분배해 주는 행위

이 단어의 용도를 신학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위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dispensation’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세대: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 특정한 민족이나 기간의 필요에 특별히 부응하는 단계...또한 어떤 체제가 널리 보급된 시대나 기간

스코필드(C. I. Scofield)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경륜에 대해 내린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경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경륜’과 ‘시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는 ‘관리하다’, ‘규제하다’, ‘집행하다’, ‘계획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의 일을 나누다, 할당하다, 집행하다, 혹은 관리하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oikonomia)와 영어의 ‘economy’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이코노미아’는 다음과 같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oikos = 집(house)
2. nomos = 법(법)

따라서 이 단어는 ‘한 집안의 법’ 혹은 ‘집안 법’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족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집안의 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에는 구성원이 따라야 할 ‘집안 규칙’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에게 부여한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까? 규칙을 어겼을 때 꾸지람을 듣지는 않습니까?

‘dispensation’과 같은 어원을 가진 그리스어는 또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청지기직’(stewardship)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보면, 경영 체계를 집행

하는 관리자(오이코노모스)는 재산의 청지기나 관리자 혹은 회계를 맡은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란 의미의 'dispensation'의 중심 개념은 가정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먼저 '청지기직'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A. 청지기직

청지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 - 물건이나 재산 - 를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지기를 둘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유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말 10필과 보트 8대, 20만 평의 땅과 500두의 소, 3개의 풀장, 25대의 자동차, 8대의 트럭 그리고 하나의 유전(油田)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잘 꾸리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돌보는 책임을 맡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청지기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에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청지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창세기 3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6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는 이 사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창39:4, 6).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관리했으며 그의 주인인 보디발은 자기 집과 자기 재산이 '신실한 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자 그 집의 소유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의 관리인은 요셉이고 집의 소유주는 보디발이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보디발의 소유이지 요셉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B. 특권과 책임

보디발의 소유를 관리하는 요셉에게는 특권과 책임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는 데 대한 책임과 특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어 주셨습니다(창12:1-3; 17:1-8). 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거룩한 율법과 명령들을 주셨습니다(출19-21장).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엡3장). 믿는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릴 권한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청지기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지기직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멋진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직장에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만 이 점포에서 일하면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것을 배우겠고 값진 경험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얻는 유익이 많을 것이며 시간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꾸준히 신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 날 승진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자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고용주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게으르고 출근 시간에 지각하고 고객에게 불친절하다면 어느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집포의 주인은 당신이 신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맡은 것을 바르게 처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잘 처리했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직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맡기셨고 그것을 바르게 꾸려 가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륜/세대 요약

이제 다시 '경륜'이라는 단어를 요약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경륜'이라는 말은 '청지기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경영 체계는 한 청지기직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집주인

청지기직이 있다면 집의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안의 법'을 세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무와 책임, 특권을 규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집의 주인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히3:4 참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창14:19, 22). 하나님이 소유주 이시며 머리가 되십니다.

2. 집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 규정을 집행하고 권위를 행사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세상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거기 거하는 자들도 그러합니다."(시24:1; 창18:25; 출9:29 참조) 세상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은 자신의 뜻과 지혜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관할하십니다.

3. 청지기

집주인과 집 말고 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집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물건이나 직무를 맡습니다(사도행전 17장 30절과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준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청지기가 '집안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곤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곧 인류입니다(딤후1:7; 고전4:1-2; 벧전4:10).

이제 성경의 경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집주인: 살아 계신 하나님
2. 집: 세상
3. 집의 청지기: 인류

경륜은 여러 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집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안 규칙이 늘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일한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 각자에게 적용된 집안 규칙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집안 규칙은 베드로 시대의 규칙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 규칙이 다르다면 경영 방식 혹은 경륜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A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B라는 사람의 집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면 B 집의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집의 규칙 중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가정부는 B 집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경륜이 단순히 '집안 규칙'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각 경륜에 단지 규칙만을 주시지 않고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다루어야 할 어느 정도의 진리도 주셨습니다. 규칙과 법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특권과 기회와 책임이 따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집안 규칙'을 말한다고 해서 각 경륜에 주어지는 규칙과 책임과 특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는 규칙이나 특권이 있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살펴봅시다. 김철수 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에게는 세 가지 '집안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세대 차가 나는 세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맡겼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권뿐만 아니라 장남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부과됩니다. 여기 김철수 씨 집안의 '세 가지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1. 열 살짜리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8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 것
- 매주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차를 모는 특권은 주어지지 않음 등등

2. 열다섯 살 먹은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10시에 취침할 것
- 매주 막내보다 많은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 아직 차를 몰 수 있는 특권은 없음 등등

3. 스무 살 된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취침시간에 대한 규정 완화
- 용돈은 없음 - 스스로 벌어서 쓸 것
- 졸업했기에 숙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운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짐 등등

세 아들에게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원리가 경륜에도 적용됩니다. 앞에 나온 동일한 아버지(김철수 씨)에게 다른 시기에 태어난 세 아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과 다른 때 태어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더해진 규정이나 책임이 있고 그대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기에 태어나 서로 다른 경륜에 살았던 세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4. 노아 - 홍수 이후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창6:9)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히11:7과 비교)
-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창9:6)
- 짐승의 희생을 드림(창8:20)
- 안식일을 지키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5. 다윗 - 모세의 율법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신8:1)
-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출21:12)
- 짐승의 희생을 드림(레1-5장)
- 안식일을 지키고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음(레12:3; 신5:12-14)
-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6. 바울 - 교회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나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요일2:3-5)
-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롬13:1-4)
- 짐승 희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음(히10장)
- 안식일을 지키라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필요 없음
-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음(마28:19-20)

이처럼 세 가지 경륜 속에서 꾸준히 남아 있으면서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뀌거나 변화된 사항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경륜이나 청지기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규정이나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령 어느 경륜에서나 거짓말, 살인, 도둑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었습니다(히 11장 참조). 즉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뀐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200년 전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에 TV나 자동차, 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생활환경이 오늘날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차하는 대신에 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옷을 빨기 위해선 세탁기 대신에 빨래판과 물,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 편리한 자동온도 조절 장치만 맞추어 놓으면 되는 대신에 밖에 나가 장작을 구해다가 불을 때야 합니다(물론 오늘날에도 장작으로 난방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 살았다면 해야 할 일 즉 책임이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같은 것도 있겠지요. 가령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는 모두 동일한 집안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경륜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 규정과 권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바울, 요한도 같은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마서에서 계시록 1-3장까지)에 그 규정과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에게 속한 동일한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경륜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의자란 어떤 사람인가?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청지기직을 이해하며 - 실로 하나님은 그에게 몇몇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셨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모두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아볼까요? 세대주의자는 적어도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의자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세대주의자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 방법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가령 다윗은 노아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고 있었고 바울은 다윗이 들어본 적도 없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자는 48쪽에 기술된 경륜 전후의 차이점을 인지하고는 다음 페이지의 표에 있듯이 대개 인류 역사에 일곱 가지 경륜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죄 경륜 전에는 영원 전 과거가 있으며 천년왕국 경륜 이후에는 영원 후 미래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각 경륜의 이름 옆에는 그 경륜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왕국 경륜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없음).

각 경륜은 하나님이 독특한 경영방식과 특권을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물론 그 기간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각 경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규정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경륜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경륜에서보다 더 많은 진리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계시됨을 의미합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의 일곱 경륜/세대〉

경 륜	요 약
(1) 무죄(아담)	무죄 경륜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막을 내린다.
(2) 양심(에녹)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다.
(3) 인간 정부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 정부 아래 살고 있다.
(4) 약속(아브라함)	이 경륜 이후에도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갈3장).
(5) 율법 (다윗, 침례자 요한)	율법은 씨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십자가로 막을 내린다.
(6) 은혜(바울)	다른 경륜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증언된다(엡2-3장).
(7)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경륜에도 있었지만 왕국 경륜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 민족들을 치리하심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으로 이어진다.

2.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문자적(literal)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혹은 상상하지 않고’라는 뜻을 지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가 읽은 단어들을 기본적으로도 평범한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특별하게 문맥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어의 숨겨진 뜻을 파헤치려 하거나 없는 뜻을 만들어 내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고쳐서 이해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6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출20:11; 창1장).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 6일은 그냥 6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온 우주가 24시간의 하루가 여섯 번 지나면서 형성되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이 ‘6일 즉 여섯 개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창조의 날들은 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니라 ‘경륜’ - 긴 기간의 시간을 가리키며 이 경우 ‘날=경륜’은 그 기간이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에 달합니다 - 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가 6개의 매우 긴 시대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즉 “날은 날이 아니라 매우 긴 시대를 의미한다.” 등).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다른 아닌 문자 그대로의 ‘6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계시록 20장입니다. 전반부의 2-7절을 읽어 보면 ‘천 년’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 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천 년은 그냥 천 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 년 동안 다스리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천 년에다 다른 의미를 붙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문을 읽는 데 첫 면에 ‘부시 대통령 4일 예정으로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방문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거야. 중국도 실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일거야.” 이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제쳐 둔 채 엉뚱한 의미를 취하면 당연히 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중국’은 ‘중국’으로, ‘4일’은 말 그대로 ‘4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문자적인 방법이며 바로 이런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서 편지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에게서 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덕분에 이들 동안 병원신세를 졌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겠습니까? 설마 ‘말’은 ‘코끼리를’, ‘다리는’ ‘머리’를, ‘이들’은 ‘두 달’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친구가 ‘코끼리’를 말하고자 했다면 왜 굳이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A. 간단한 규칙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접하는 단어들을 - 그것들의 정상적인 의미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 항상 문자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평범한 의미로 말이 잘 통한다면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능히 우주를 6일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의 ‘천 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년’은 그냥 ‘천 년’일 뿐입니다.

물론 가끔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의 고유한 의미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들이 통과하는 실제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요10:1, 2, 7). 그렇게 이해하려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문을 통해 어떤 장소를 드나듭니다.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문을 열고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다른 예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문자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며 제자들은 실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원자와 그를 믿는 이들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믿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즉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빵을 취하사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6). 그리고 잔을 취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7-28). 그 빵이 정말 주님의 몸이었을까요? 그 잔이 실제 주님의 피였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실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예수님도 이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며 말합니다. “이봐, 이게 내 아내야.” 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과연 한 장의 사진이 실제 자기 아내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은유 혹은 환유라 불리는 수사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실제 “이 사진에 내 아내의 모습이 있어. 내 아내 사진이지. 이 사진을 보면 내 아내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나의 몸을 나타내고 이 잔은 내 피를 보여 준다. 너희가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또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고전11:24-25).

B.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놔두고 거기 있는 단어에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넷가에서 둘 다섯 개를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섯 개의 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돌은 용기를 상징하고, 둘째 돌은 믿음을 상징하며, 셋째는 힘을, 넷째는 승리를, 다섯째는 성공을 뜻합니다.”

과연 성경이 이 돌들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까? 돌은 그저 돌에 불과합니다. 이 돌 중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용기와 믿음을 겸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승리와 성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장(삼상 17장)을 읽고서 알게 된 내용이지 다윗이 집어든 돌들에서 추론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의 위치와 용례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에다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3.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조심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유대인들)이 교회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수태가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 속으로 태어났습니다(행2장). 그 이전에는 누구도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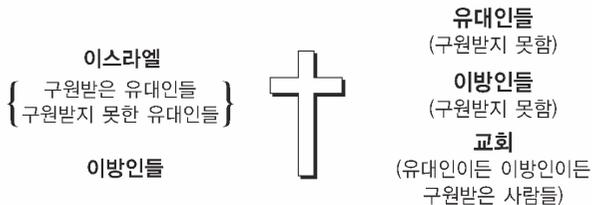
이스라엘 사람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합니다(롬9:4-5).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유대인’이라 불립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들을 통칭합니다. 즉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입니다(엡2:11-12).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유기체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는 모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구원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고전12:13).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교회 시대 사람들 구분

(고전10:32)



십자가 이전

십자가 이후

많은 이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문에 철수가 부산행 무료 항공권을, 영희가 제주행 무료 항공권에 당첨되었다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희가 부산에 가게 됐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성경을 잘못 읽을 때에도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각각을 향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임의로 취하여 그것들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 가르치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의 부산행 티켓을 영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롬11장과 비교).

결 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문맥에 따라, 수신자에 따라 바르게 구분해서 읽으면 누구라도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주의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를 먼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신학 체계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들이 없이는 성경을 그들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국어를 배우듯이,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그 안의 내용과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사실 세대주의라는 말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가 아니라 누구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보편적인 성경 읽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게 주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모든 계획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눈으로 관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정상적인 해석 체계를 통해 바른 교리와 실행이 이 땅에 정착돼서 천주교의 이스라엘 대체 이단 교리와 가정을 망치는 ‘소종파들’(cults)의 각종 이단 교리가 근절되면 좋겠습니다.

D. 마태복음 24장의 올바른 해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바를 기록한 복음서이지만 각 복음서가 목표로 하는 수신자와 기록된 목적과 성격은 각각 다릅니다.

그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항상 그 말씀의 일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의 표적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신약 교회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신약 교회와 연관 짓다 보니 부분 휴거설이나 환난 중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등의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의 휴거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 미래형(I will build)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며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I will build my church)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아직 신약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었습니다(고전12:13).

이번 글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그것이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님께서 나가 상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상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 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1절에 '성전'(temple)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고전3:16).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분당 성전, 강남 성전, 과천 성전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일 뿐입니다. 2절에 나오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 교회가 환난기에 들어가면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서 어느 지역 교회의 건물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1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 제자들이며 그들은 신약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장엄한 모습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상전에 대해 말하되 그것이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눅21:5)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2).

2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타이투스(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불길에 금이 녹아내려 돌들 사이에 스며들자 타이투스는 모든 기둥과 돌들을 다 파헤쳐서 금과 보석들을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들이 깨어지고 가루가 났으니 돌 위에 다른 돌이 겹쳐지지 않을 정도로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시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올리브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올 때에 그분이 올리브산에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자체가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슌14:4).

‘유대인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에 걱정이 돼서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정확히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서 ‘주께서 오시는 것’이란 유대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를 말합니다(행1:6). 제자들이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의 몸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관 복음에는 ‘교회의 휴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요14:3).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3).

개신교회의 많은 분들은 마24:2를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지 미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펴니다(과거적 해석 방법).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마24:2는 1차적으로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지만 24장의 나머지 내용은 주후 70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에 있는 유대인 제자들의 질문 즉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아직 세상 끝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마태복음 24장은 미래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다룹니다.

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⁵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5절에서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⁶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⁷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⁸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6-8절은 마지막 날에 있을 전 세계적인 재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신약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먼저 휴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신약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남아 있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휴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칠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닥치는 큰 환난기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30, 31장을 보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물기를, 남자가 아이를 배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또 알아보라. 모든 남자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봄은 무슨 까닭이나?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아굽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 버리고 네 걸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를 **중으로 삼아**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렘30:6-8)

개역성경은 마24:6절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고 번역하였고 이를 근거로 많은 분들이 여기의 '전쟁과 전쟁'이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복수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아서 '전쟁과 전쟁'이 된 것이지 원래는 '전쟁들과 전쟁들'입니다.

⁹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에서 '너희'란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을 말하고, '민족들'(nations)이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a nation'으로 등장하며 이방 민족들은 복수형인 'nations'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7년 환난기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물이 피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등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방 민족들이라고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계6-9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고난보다는 유대인들이 겪게 될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¹⁰ 그때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¹¹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¹²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며 미워하고 속고 속이며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땅에는 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저지하고 계십니다(살후2:6-8).

그[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살후2:6-8).

그런데 저지하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면 불법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저 사악한 자(that Wicked 대문자임)가 드러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길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신약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면 신약 교회는 휴거되고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결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고 보호하는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14만 4천 명의 봉인된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계7장).

¹³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불법의 신비가 활약하고 저 사악한 자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그 모든 핍박을 피해서 숨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

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몸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여기의 ‘끝’을 ‘목숨을 다하는 끝’으로 해석하고는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의 ‘끝’은 6절의 ‘끝’과 14절의 ‘끝’처럼 7년 환난기의 끝을 말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때가 결코 아닙니다.

14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행20:24).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행20:24).

마24:14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봉인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계7:4). 많은 선교 단체들은 “우리가 아직 땅끝까지 복음을 못 전했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데 아프리카 산간 오지 마을, 공산주의 국가,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에까지 복음을 다 전하면 그제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약 시대의 은혜의 복음과 마지막 날들에 온 세상에 선포될 왕국의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선교 단체에 속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줄로 알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를 양성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신약 교회에 적용하고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개역성경은 또한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오역하여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개역성경 마24:14).

15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15절에 나오는 대언자 다니엘은 신약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대언했습니다(단2:44). 다니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닥칠 전 세계적인 환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네 백성)이 겪을 환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대언하였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즉 세상 끝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그때에 [즉 대환난기에] 네 백성의 자손들[유대인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유대인]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단12:1).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미리 해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올 통치자(적그리스도)의 백성이 그 도시[예루살렘]와 그 성소[예루살렘 성전]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라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단9:26-27).

이런 일이 생기면 유대인들을 도망을 가야 합니다.

¹⁶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이다.

16절에 구체적으로 '유대'라는 지명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고 유대 지방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성경은 여기의 '산들'을 단수 '산'으로 번역했고 그 결과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영해하면서 여기의 '산'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에 충성/봉사해야 환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믿는 단순한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¹⁷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¹⁸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이다.

17절의 지붕은 한국의 초가지붕, 기와지붕, 아파트 옥상이나 유목민들의 천막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들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분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 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므로(막2:4)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서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여섯 시쯤 지붕에 올라가니라(행10:9).

19절에는 영해에 빠진 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¹⁹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하다!

무지해서 영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여기의 '아이 밴 자들'은 '아직 전도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젖 먹이는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의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실제로 아이 밴 유대인 여인들과 젖먹이를 둔 유대인 여인들을 말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여인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²⁰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20절에 '겨울'이라는 특정 계절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겨울이면 지구의 남반부는 여름이기 때문에 남반부 사람들은 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도망가는 데 불편을 느낄 민족은 유대인들 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이여 여기의 '너희'도 유대인들입

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영해하여 '겨울'은 '믿음이 식은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의 '겨울'은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유대의 겨울을 뜻합니다.

21 그 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22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23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21절에 '큰 환난'(great tribul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Great Tribulation'이나 'Tribulation'이라는 표현이 없고, 'tribulation'이나 'great tribulation'만 나옵니다. 그 환난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엄청난하게 큰 환난이기 때문에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지 고유 명사로서 'Tribulation'이 따로 있고,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Great Tribulation'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적인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환난(tribulation)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Tribulation'이라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해서 구별하는 것뿐입니다. 7년 환난과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을 나누어서 전반기 3년 반은 가볍게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소한 환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 보면 전반기 3년 반의 환난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여러 이민족들(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에는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큰 환난'(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전반기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도 겪겠지만 특별히 후반기 3년 반 동안은 그것에 덧붙여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에는 '선택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문맥을 볼 때 이들 역시 신약 교회 성도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목적, 사역, 복을 위해서 사람이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이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신7:7; 사44:1; 45:4). 거짓 메시아와 거짓 대언자들이 속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왕국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출19:6). 다른 민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적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신7:7).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사44:1).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네 이름으로 너[고레스]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사45:4).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는 부분 즉 다니엘서 7장과 같은 데서도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단 7:25).

²⁵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²⁶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²⁷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²⁸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²⁹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³⁰ 그때에 사람의 이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공중 강림과는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29-30절 말씀을 인용하며 환난기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니 성도들은 다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위에서 공부한 것을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신약 시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미 환난기 전에 휴거를 받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난기를 다루는 6-19장에 교회는 전혀 등장하거나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7년 환난기에 들어가 전체 7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 7년 환난기를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¹³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¹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7년 환난기를 통과한 뒤 29-30절이 이야기하듯이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31절도 그런 유대인들을 세상 모든 곳에서 부르는 것을 보여 줍니다.

³¹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되 통째로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집회 군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민10:2).

마태복음 24장의 나팔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나팔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전4:16-17이나 고전 15:51-52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즉 마지막 나팔과도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 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에는 부활과 몸의 변화 사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나팔이지 신약 교회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³²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니니

32절의 무화과나무는 글자 그대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자연 현상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예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을 볼 때 그것을 통해 마지막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궂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16:3)

굳이 여기서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했지, '무화과나무를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42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40-41절에 나오는 붙잡혀 가는 자, 남겨진 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붙잡혀 가고'를 '데려감을 당하고'라고 번역했고, '남겨지는 것'을 '버려지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는 것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개역성경 마24:40)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붙잡혀 가는 곳은 독수리 떼들이 모이는 곳 즉 시체들이 있는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붙잡혀서 죽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붙잡혀 가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어 육식생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계19:17-18). 이것은 결코 신약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눅17:3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계19:17-18).

지구의 동쪽 절반이 낮이면 그 반대편은 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일어날 일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낮에 일하다가 붙잡혀 가는 사람과 밤에 자다가 붙잡혀 가는 사람 이야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 지방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낮에 들에서 일하거나 맷돌을 가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밤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함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눅17:34-36).

이제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45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46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4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처리자로 삼으리라. 48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49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50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를 잘라 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신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것을 비유나 상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영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모든 상거래를 통제할 것입니다.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계 13:16-18).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그와 손을 잡겠지만 3년 반이 지난 뒤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불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단9:27).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2:3-4).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고 숨어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생활용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참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양의 식량을 서로 나누어 먹고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오히려 동족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대단한 선행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마 10:42; 25:40).

사람들은 환난기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선행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때에 믿음에서 난 신실한 삶을 사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한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의 재산을 맡을 치리자가 되겠지만(47절), 믿음이 없어서 악하게 행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심판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51절).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신약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신약 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신약 성도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후5:10).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신약 성도 중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자리이지 죄에 대해 형벌을 받는 심판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신실한 종,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을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열심히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게으름 피우고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면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환난기에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을 강해하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남아 있을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유대인 제자들, 예루살렘 성전, 올리브산, 유대 지방, 안식일, 선택받은 자들, 거짓 메시아, 민족들의 꺾박, 왕국의 복음, 큰 환난, 소집 나팔, 동족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 등...

여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의 휴거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만약 마태복음 24장이 신약 교회의 휴거를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 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는 사건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 신약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환난기에 이 땅에 남아 있을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부분 휴거설이나 환난기 중간 휴거설이나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글은 마태복음 24장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각 구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이 일차적으로 어느 시대, 누구를 향해, 어떤 목적으로 하신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적용될 말씀을 신약 시대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E. 동방의 독수리와 144,000명

19세기 중반 전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미국에서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의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자기들만이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0년간의 여호와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기들만이 구원에 참여하여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윌리엄 밀러에 의해 시작된 안식교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거하여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을 2,300년으로 잘못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1차 재림이 1844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다가 주님의 재림이 없자 크게 실망한 뒤 지금은 그분이 조사 심판 중이며 2차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펠니다.

몰몬교는 종말론과 미국인 선민의식에 빠진 조셉 스미스가 도를 닦다가 UFO의 인도를 받고 특별 계시를 받아 추종자를 거느리게 된 미국인들의 토속 샤머니즘 종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계룡산에서 도를 터득하여 후세무민하는 이단의 한 종류로 보면 됩니다. 그 안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미국인들에 대한 강한 선민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계 이단들의 특징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부의 신도들에게 신비적 종말론을 주입하여 교회와 교주에게 충성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만 들어가면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신도들을 부추겨 재산을 탈취하고 맑은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느 이단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이런 데 빠지면 이성이 마비되어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들만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강한 확신에 잠겨 바른 것을 말해주는 모든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 꺾박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박태선의 전도관을 필두로 해서 역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을 미끼로 내걸며 동시에 한국 민족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자생한 사이비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미국의 이단들처럼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강하게 주입하고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도록 강요하며 특히 한국이 동방의 독수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고양시킵니다.

2013년 3월 4일 자 <한겨레 21>은 한국 내 사이비 교회들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는 민중들을 선도하고 계몽하기 위하여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음은 그중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⁷⁾

신과의 합일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신앙 행태는 지금까지도 한국 개신교계 소종파의 주요 특징이다. 2000년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국제종교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종교 단체 실태 조사 연구'는 개신교 계통 소종파를 크게 △신비주의 △종말론 △외국계 신흥종파 3가지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것은 신비주의 계열이다. 신비주의 계열은 다시 △베뢰아 아카데미(귀신론) 분파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직통 계시파 △전도관 분파 △장막 성전 분파 △통일교 분파로 나뉘는데, 최근 개신교계가 대대적 배척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신천지)은 장막 성전 분파에 속한다.

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4012.html

장막 성전은 1960년대 경기도 과천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서울 대공원이 들어선 막계동 일대가 이들의 '성지'다. 신천지 교회의 본부가 과천에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장막 성전은 1966년 한국 소종파 운동 사상 가장 나이가 어린 유재열(당시 17살)이 세워 화제를 뿌렸다. 장막 성전이란 이름은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내가 이일 후에 보니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유재열은 1960년대 초부터 부모와 함께 서울 상도동의 호생 기도원을 다니며 신비주의 신앙에 몰입했다. 그는 1965년에 예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이듬해 '종말 심판의 피난처'라는 장막 성전을 설립했다. 전성기에는 청계산 저수지가 있는 막계동 일대에 신도 2천 명이 모여들어 집단 생활을 했을 정도다. 하지만 조직 운영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의 투서 때문에 그가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나온 뒤 교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1980년 기성 교단에 교회를 헌납하고 홀연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해 사업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떠난 뒤 장막 성전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무지개 증거 장막 등 여러 갈래로 분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재열은 자신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며 14만 4천 명에게 구원의 징표를 주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의 성서 해석과 교리의 기본 골격은 핵심 추종자이던 이만희(현 신천지 총회장)를 통해 지금의 신천지에 고스란히 전승된 것으로 알려진다.

신천지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소종파들은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존재와 함께 신비주의와 종말론적 흐름이 섞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종교 문화 연구소 이진구 연구실장은 '예언서·계시록의 종말론과 민족주의적 선민 사상이 결합해 재림 예수가 한국에 온(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한국 소종파에서 보이는 보편적 흐름'이라고 했다.

이런 흐름이 형성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국교회사 연구자인 이덕주 감리교 신학대 교수는 '교권화된 기성 교회에 대한 불만과 영적 체험에 대한 열망에서 짙은 해방 전 신비주의 그룹이 전쟁의 참화와 극심한 빈곤의 경험 속에서 종말론적 계기와 만나고, 때맞춰 등장한 카리스마적 개인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등장한 소종파들은 처음엔 기독교의 카테고리 안에 머무르며 활동하지만, 교세가 늘고 주류 교회의 배척이 시작되면 점차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 그들의 교주들은 선지자나 성령, 재림 예수를 자처하다 말년엔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박태선(천부교)·안상홍(하나님의 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탁지원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내 소종파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경우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밖에 하나님의 부인이나 보혜사 성령, 혹은 성서 속 인물인 엘리야나 다윗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소종파 집단 안에서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를 절대화하다 보니, 공교회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횡령이나 폭력, 추행 같은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고 결국 사법 권력의 개입을 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기사에서 보듯이 한국의 소종파 사이비들의 특징은 일단 한국 민족을 특별히 선택받은 동방의 독수리로 보며 그중에서도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만 계시록의 14만 4천 명으로 규정하여 성도들의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미 재림주가 재림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계시록 7장 2절에 따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 ‘해 돋는 데’ 즉 동방의 나라인 한국이라고 해석합니다(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해 돋는 데’라고 하지 않고 ‘동쪽’이라고 말함). 따라서 통일교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주인 문선명이 바로 그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전도관에서는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말세가 된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교주인 박태선이 곧 감람나무이며 그가 왔으므로 지금이 말세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악조건에서는 14만 4천 명만이 천년 성에 들어가고 호조건에서는 14만 4천 명 외에도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전도관의 신앙촌 입주자의 수에 따른 변화를 예상하고 내놓은 주장입니다.

요즘 교회들에 큰 문제를 안기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성경이 온통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바로 풀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친절한 기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보고는 목사냐고 묻고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친절한 분으로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성경 해석 방법이 기묘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34-35절을 인용하였는데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비유이며 심지어 창세기 이후의 모든 것이 다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유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에게 성경을 배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신천지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는 개역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분의 말씀은 모두 비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룡산 도사들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흠정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without a parable)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요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쉬운 비유를 들어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without a parable’인데 이것이 개역성경처럼 ‘비유가 아니면’으로 잘못 번역되면 수십만의 사람들을 무지와 저주 속에 빠뜨립니다. 이런 오역으로 인해 신천지에 빠져 왜가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신천지는 성경 전체를 이와 같은 비유 해석 즉 영해(靈解)로 풀고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자로 신천지에 입교하면 신천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천의 청계산 부근에 임하게 되며 그들은 육체로 영생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면서 신천지가 들고 나오는 것이 한국 민족의 우수성과 최근에 이루어지는 한류 열풍입니다. 14만 4천 명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며 이런 일을 위해 싸이 등의 한류 열풍이 -비록 저급하지만 - 온 세상에 파급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교주가 있는 한국은 성지 중의 성지이며 14만 4천 명에 속할 한국 사람들은 선민 중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천지 역시 과거에 토속 종파들이 사용하던 방법대로 비유 해석(영해)의 계시록 설교와 '동방의 독수리' 타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는 좋은 나쁜든 한류 붐을 일으킨 것은 싸이를 비롯한 출중한 한민족 가수들 - 신천지의 한민족 선민사상에 따르면 - 인데 신천지는 이들이 일으킨 한류 열풍은 선민사상을 증명하기 위해 대대 선전하면서도 이런 연예인들의 한류는 저급 한류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영적 한류가 새로운 차원의 한류라고 주장합니다.⁸⁾

다음은 '새로운 한류 신천지 한류'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톱스타가 된 싸이는 이제 세계 각국을 누비며 노래한다. '강남 스타일'의 B급 정서는 전 세계인에게 통했고, 덕분에 싸이는 좋게든 나쁘게든 국가 홍보에 공을 세웠다. 최근 후속곡 '젠틀맨'의 관심과 인기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번 '젠틀맨'의 가사는 물론 뮤비의 선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위 선양이니 창조 문화니 하며 싸이를 온통 찬양하고 있지만, 과연 그 내용과 질이 어떠한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한류란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서가 세계에 전파되어 널리 관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한류란 비단 대중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섭(막힘이 없이 여러 분야에 통합)의 흐름이어야 한다. 이에 최근 세계의 종교인들을 눈뜨게 한 새로운 한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4월 중순, 인천 공항에 다수의 외국인 목자들이 내한했다. 미국,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각국의 비행기가 착륙했다. 이 나라들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의 4차에 걸친 계시록 순회 강연을 접한 국가들이다. 총회장은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와 방송 출현을 통해 뚜렷한 계시 복음을 전했고, 각국 정상과의 대담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평화의 재료로서 '하늘 문화'를 제시했다. 현지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전에 들어 보지 못했던 미래에 관한 새로운 해법은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했다. 이미 20년이 넘는 목회 연륜과 수만의 성도수를 가르치고 있는 목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종교 유학을 오게 된 것이다. 이들은 신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직접 확인하며, 비유 풀이부터 계시록의 실상까지 보로부터 길게는 석 달까지의 일정으로 성경 전반을 공부하고 있다.

5월 잠실 올림픽 홀에서 '신천지 말씀 대성회'가 열렸다. 이들은 행사에 참석하여 자진해서 단상에 올라 뜨거운 간증을 토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주셨고, 성경 육천년의 역사를 깨닫게 해 준 약속의 목자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한 지금껏 무지의 시대를 살던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것임을 본국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많게는 천만(?)이 넘는 성도를 거느린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탄성과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과연,

8)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4>

이 역사가 확실한 증거와 비전을 가졌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흐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신천지 한류, 오늘도 신천지는 하늘의 문화와 평화의 정신을 통하여 혼돈한 지구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류가 대세인 오늘날, 구습을 뛰어 넘어 신한류를 개척한 신천지...이제는 말세론이 아닌 창조론을 논할 때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신천지는 신편려다임의 주자로 우뚝 섰다.

사이비들이 선민의식 고취와 함께 흑세무민하는 양상은 전 세계 대부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가 폄하한 싸이가 바로 장막 성전의 창시자인 유재열의 사위라는 점입니다(‘해 아래 새 것 없다’ 신천지의 계보, 교회와 신앙).⁹⁾

싸이를 비롯한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K 팝 가수들이 온 세상에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루스의 눈, 루시퍼, 단일세계정부, 천주교 마리아 찬양 등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한류 열풍과 하나님의 선민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의 공작을 통해 한국인들이 마귀의 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게 올바른 분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찬양하는 한류 열풍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제 계시록 영해로 역시 우매한 사람들을 사로잡는 안상홍 증인회의 동방의 독수리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방의 독수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안상홍님)’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¹⁰⁾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 동방의 구원자로 등장하신 안상홍님을 믿고 있습니다.

동방의 구원자이신 안상홍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 66권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영적 고레스이신 안상홍님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동방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개역성경 사46:11)

동방의 독수리는 구원자께서 동방 나라에 사람으로 등장하시어 하나님의 모략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훼방자들은 사체를 먹는 독수리를 하나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성경의 예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성정을 알려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 https://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5629

10) <http://cafe.naver.com/festival1004/1183>

성경의 비유는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징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된 동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으려는 의도는 억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기도 하고(계5:5)

때로는 어린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요1:29).

또한 포도나무와 (요15장) 성전으로도 표현합니다(계21:22).

하나님을 사자, 어린양, 포도나무, 성전으로 표현하신 데는 각각 뜻이 있습니다.

사체를 먹는 동물에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포도나무나 성전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체를 먹는 독수리에 하나님을 비유하면 안 된다는 훼방자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독수리로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개역성경 출19:4)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개역성경 신32:11)

동방의 독수리로 임하신 하나님은 재림그리스도 안상홍님이십니다.

안상홍님께서서는 두 번째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략인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안상홍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곳은 절기 지키는 시온,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님의 신성을 깨달아 안상홍님께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대한민국에 등장하신
하나님이다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알려주신 동방 독수리의 비유

이런 글을 통해 우리는 안상홍 증인회 역시 한민족의 우수성을 고취하면서 동방의 독수리가 곧 한국에 입한 구세주 안상홍이라고 주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심지어 계시록의 빛모 섬과 예루살렘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평으로 같은 위도에 있다고 세계 지도에 수평으로 금을 그어 놓고는 한국이 곧 계시록이 말하는 '해 돋는 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도를 펴서 수평으로 금을 거 보면 이것이 거짓말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에 '오'이 세 개 있듯이 '안상홍'에도 '오'이 세 개 있어서 안상홍이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추론은 모두 비유 해석 즉 영해(靈解)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기존 교회들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부산제일교회 박무수 목사의 동방의 독수리 설교인 '동방의 독수리의 비밀'(사46:11)을 살펴보겠습니다.¹¹⁾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음 속 제일 깊은 곳에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깊이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 눈이 밝아져서 내 앞에 예비 된 복이 보입니다.

1. 동방의 독수리는 모락을 이룰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노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분별하여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요일4:1, 잠13:20). 교회에 가면 흔히 구약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4단계 회개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고후3:14).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니 '동방의 독수리'를 바르게 깨달아 설교하는 분이 없습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락을 이룰 사람'입니다(사46:11).

2. 동방의 독수리는 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모락입니다. 모락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한 자에게 모락을 주시며 명철한 자가 모락을 얻게 됩니다(잠1:5). 명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목사입니다(렘3:15). 모락을 얻은 참 목사가 여러분을 지혜와 명철로 양육하여 넉넉히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참 목사를 지칭하는 '동방의 독수리'를 '악한 날짐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락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악한 날짐승'으로 바꾸어 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시 107:10-11).

3. 모락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독수리의 특성을 알면 왜 참 목자를 독수리에 비유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명철한 참 목사가 말씀을 힘 있고 강하게 전하며 모락을 얻은 자로서 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밝은 눈이 있습니다(잠24:5, 잠20:5). 참 목자는 모락으로 성도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려 주는 것입니다(눅23:34). 우리도 명철한 자에게서 나오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책망과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잠21:16).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특징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명철한 자가 동방의 독수리이

11) http://www.church.or.kr/board/board_view_01.asp?brdid=20&idx=1069

며, 이 뜻을 동방에서 이루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참 목사의 설교를 사모하며 명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박무수 목사는 동방의 독수리가 참 목사 - 물론 자기 자신 - 를 가리킨다고 영해하고 있습니다. 박무수 목사는 영해의 대가입니다. 그의 4단계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입었던 옷을 로마 병사들이 4조각으로 나눈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4조각으로 나뉘었으니 무조건 4단계 회개가 필요하다고 영해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체계를 영해 체계라 합니다. 이런 해석 체계에서는 교주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곧 그 말씀의 확고부동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국내 자생 사이버 교주들은 성도들의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동방'이 나오는 구절을 찾고는 문맥에 상관이 없이 그것을 한국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만든 집단이 바로 동방의 독수리가 임하는 곳이고, 거기에 속한 신자들이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워낙 유명해져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김대호라는 작가가 <동방의 독수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것은 안철수를 연상케 하는 18대 대통령 한철주를 주제로 한 미래소설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한민족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의 후예로서 미래에 동방의 독수리로 세상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는 성지 중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신앙의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고 지중해 서편에서 동방으로 이동해 온 위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문자 그대로 풀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 동쪽을 뜻하는 east라는 단어는 세 군데(사41:2; 43:5; 46:11)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43:5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씨를 동쪽에서 데려오신다는 말이므로 이 주제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나머지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 존재가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내주고 쫓겨 가는 지푸라기같이 그의 활에 내주었으므로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되 심지어 자기 발로 간 적이 없는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나니(사41:2-3)

내가 동쪽에서부터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사46:11).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후에 그들을 해방시킬 사람을 동쪽의 메대/페르시아에서 세우려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사41:2~3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 44:28-45:3에서 고레스가 바로 그 사람 즉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일으키실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46:11에서 다시 한 번 고레스를 가리키며 동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메대/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에 있고 또 살짝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41:25에서 동일하게 고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를

것이요, 또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밟되 회반죽을 밟는 것같이 밟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같이 밟으리라(사41:25).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이사야서 말씀은 한국의 이단 교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위치한 메대/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해석은 사적인 해석이요, 비유 해석이며 영해의 더러운 산물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동방의 독수리는 바르게 된 성경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굶주린 새'로 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새는 까마귀도 될 수 있고 육식을 하는 새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새가 꼭 독수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명백히 개역성경은 이것을 오역하였습니다.

영어 KJB와 ASV는 이 단어를 'a ravenous bird'(굶주린 새)로 번역하였고, NKJV, NASB, NIV와 RSV는 'a bird of prey'(희생물을 먹는 새)로 번역하였습니다. 어떤 역본도 개역성경이 독수리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를 독수리 즉 eagle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하면서 언급한 출19:4와 신32:11은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국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무지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비유로, 은유로 풀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독수리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독수리처럼 일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한 대한성서공회는 개역개정판을 내면서 독수리를 '사나운 날짐승'으로 바꾸었고 그 결과 '동방의 독수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던 이단들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개역성경만 고집하고 성경을 바꾼 성서공회를 향해 불평을 제기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독수리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같이 바르게 번역된 역본으로는 자기들의 영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시록 7장 4-8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이더라. 5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6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 7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8 스블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더라.

4절이 말하듯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환난기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을 가리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까요? 개신교 내에 천주교에서 전수받은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이들은 곧바로 영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등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의 14만 4천 명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면서도 육체를 입고 영생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미국, 영국, 한국 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 영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에는 앵글로 색슨족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2지파'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런 사상이 넘어간 뒤에는 이방인(미국인) 이면서도 유대인 행세를 하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리다가 이런 부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는 한민족이 혹은 한민족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동방의 독수리로 둔갑하고 그런 단체에 속한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중 극단적인 이들은 심지어 구원받으려면 구약의 율월절을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 비유 해석 즉 영해(靈解)의 추잡한 쓰레기이며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런 데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해의 근원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를 확립해 준 어거스틴과 그의 교리를 그대로 차용한 칼빈이므로 우리는 어거스틴 주의와 칼빈주의를 경계합니다. 둘 다 교회의 세상 정치를 위해 성경을 왜곡한 사람들의 틀린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단 종파들이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종파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경계하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마25:13).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은 거의 다 기독교회의 성직자 혹은 광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성경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경전으로 삼아 기성 교인과 불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들만의 집단을 형성하고 반사회적이며 비윤리적인 생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음으로써 이들의 미혹에 대항하며 현혹되지 말고 미혹된 자들을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사이비 이단 종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무천년주의를 타파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가 도둑질하기 위해 영해/비유 해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잔혹한 마귀의 한민족 선민사상과 결합되어 한국에서만 가능한 종말론 사이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존해 주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해석으로 바르게 진리 위에 서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맡은 바 책무를 다 감당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F. 위험한 QT

QT는 Quiet Time, 즉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므로 이런 시간은 어쩌면 크리스천에게 필수적인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은 유익이 많을까요, 잃는 것이 많을까요? 제 생각엔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말씀 그대로를 읽는 것이 아닌, 거기서 자꾸 다른 뜻을 유추해내고

어떻게든 감동과 적용점을 찾으려 하는 그런 QT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기업에 다닐 때는 아침마다 조를 짜서 QT를 했습니다. 그날 주어진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저마다 적용이 다르고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나누며 공감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미국 등지에서 많이 하던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십여 년 전부터 유행처럼 퍼져 나갔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열방대학 등에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세계에서 모인 이들과 QT를 나누면서 그들의 '영성'에 작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화분 하나를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성경 한 구절에서도 자기만의 진지한 적용과 철학을 발견하는 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목상을 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점점 자기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개발해 사람들에게 들려주려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위한 생각, 남을 감동시키기 위한 생각을 개발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QT의 파트너가 바뀌면 나눌 내용이나 수위나 코드 자체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통해 나눔을 잘하는 사람만 부각되거나, 신앙보다는 느낌과 감동에 치중하는 모임이 되곤 합니다.

종교인들은 감동을 원하고 신앙인들은 깨달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종교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달콤한 이야기를, 성경 강해나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질책보다 선호합니다.

언젠가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로 유명하다는 한 교수이자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온 적 있는데 명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메시지는 심각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이나 성경적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큰 박수를 받았습다. 그의 이야기는 인도의 구루 오쇼 라즈니쉬 정도에게 들을 수 있는, 재미있으면서도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입술 위 인중의 패인 골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젠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하시면서 입을 다물도록 꼭 눌렀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국이 생겼고, 아기는 그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서는 말을 못하는 것이며, 자라면서 그 약속을 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듣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에는 심각한 교리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범죄와 피의 부패 이후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자기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중의 유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실제로 믿는다면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로 태어나 그 사실을 서서히 잊어버리기는 해도 어차피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이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의 희망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같은 절대자를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배교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하니 이런 듣기 좋은 이야기와 무척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천동설이 정설이었다가 지동설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지동설이 정설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미술에서 주된 피사체를

배치할 때 정 중앙에 놓기보다는 화면의 약간 옆에 배치할 때 더 구성미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이 아닌 약간 옆에 놓으셨나 보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지구가 중심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QT는 아니고 작은 깨달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귀납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글을 쓰는 사람이나 설교자 등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독창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논리를 창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만 생각의 반경을 넓히다 보니 열린 자세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까다로운 진리나 타협과 양보가 없는 풍부한 예를 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할 여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비논리와 두루뭇술함 속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참된 진리가 없고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과워풀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좁은 길로 가면 모든 것이 닫히고 답답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감과 많은 행인들 사이에서의 혼동 그리고 건질 것 없는 비진리의 홍수 속에서 참된 자유를 잃게 합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논란이 많고 대다수 크리스천들도 지동설을 과학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상대적 운동을 하는 우주를 비교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동설의 증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며 전혀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는 일은 보조 수단이 되어야 하며 신중해야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으면 틀린 것을 옹호하기 위해 엉뚱한 목상을 하게 됩니다.

QT의 폐해를 만들어내는 이런 실수는 논리적인 사람들보다 감상적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명확한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은혜와 감동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함은 간과하고 감상적인 목상만을 좇는 습관은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 제1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부수적인 것만 찾아 느끼려 하고,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무작정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거나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지식이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 하다 보니 그분은 어떤 날은 한없이 자비롭다가도 어떤 날은 무섭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어떤 날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분이 되고 맙니다. 내 입장에서 느끼는 것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것을 이해하면서 먼저 알게 되고 그 후에 서로 알게 되며 관계를 맺는 분입니다.

또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찾으려 하면 세상 논리와 학문이 동원되면서 궤변을 말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전제를 통해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학자는 참신한 자기만의 해석을 시도하고

목사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구하며

크리스천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감동을 찾는다.

이 모두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과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스스로가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런 일을 지속하다 보면 진리에서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QT입니다.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초신자 때부터 혼자 묵상하며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다 보니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자 하나님의 속성은 사라지고, 각자 느끼는 기준과 개인적인 모습의 하나님만 남아 기독교는 그때그때 다른 '상대주의적' 종교가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방식의 접근이 계속되면 교리는 교훈이 되고, 좁은 길은 넓은 길이 되며,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요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묵상은 먼저 말씀을 읽고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하나님의 최소한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QT는 초보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나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사55:8).

바르게 QT를 하려면

진정한 묵상, 바른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Q: 매일 QT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QT가 크리스천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뭔가 충격이예요. 맞는 것 같아요. QT의 문제점이라고 하신 부분이 지금 제 신앙적인 고민이랑 맞아떨어져서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글을 보여 주신 것 같아요...제가 학교에서 QT 모임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이 글을 보여 주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우선 정확한 교리 공부が必要です

크리스천이라면 잘 아는 것들일 수 있지만 <성경 신자들의 교리 문답 소책자>에 나오는 것들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큰 틀에서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¹²⁾

A2: 과도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읽고 그 뜻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의 언약인 무지개에 대해서, 심판의 물과 새로운 희망의 빛이 만난 혼합물이라고 해석하더군요. 그럴듯하지만 물은 심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수적인 것이고 침례에도 쓰이는 것인데 굳이 무지개를 그렇게 풀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 것이나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A3: QT 안내서를 버리십시오

개신교단 등에서 만든 QT 안내서나 가정예배서 등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교리나 천주교 신학, 매너리즘에 빠진 해묵은 해석도 그 안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혼자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이것들을 너무 의지하면 안 좋습니다. 이런

12) <https://keepbible.com/Pds1-8/View/3ob?page=1>

것들에는 각 내용 뒤에 혼자 답을 쓰는 곳이 있어서 검증할 수 없는 틀린 답을 작성하기 쉽고 내용 이해를 돕는 미답이나 감동 스토리 등은 독자를 단단한 식물의 단계로 안내하기보다는 꺾먹이 신앙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A4: 질문에 신중하십시오

주변의 이는 목사님, 멘토, 오랜 경력의 신앙인 등에게 의지하여 답을 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대한 탐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설픈 크리스천 카페나 교회 홈페이지 등에 질문을 올리지 말고 제대로 된 지식과 바른 상식 안에서 말씀을 다루는 곳을 찾고 분별해 신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질문의 답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성경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겠지요.

A5: 답변에 신중하십시오

신앙 경력이 좀 되다 보면 주변에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때 모르는 것이나 애매한 것은 정직하게 모른다고 해야지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욕에서 적당히 답하면 타인에게 바른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어떻게든 풀어서 답변을 하려다 보면 새로운 논리 개발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지식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A6: 설교나 나눔에 진지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믿을 만한 리더가 없다면 아무나 말씀을 나누거나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등의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때는 검증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인터넷 등을 통해 함께 듣거나 검증된 신앙도서의 내용 일부를 한 사람이 전달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A7: 적당한 리더가 없다면 바른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바르게 번역된 성경은 읽고 그 자체의 뜻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예컨대 영화 <요한복음> 같은 경우, 모든 대사가 성경 구절로만 되어 있는데도 그 은혜가 넘치도록 놀랍습니다.¹³⁾ 이처럼 말씀의 힘을 그대로 느끼며 깨닫게 되면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후의 나눔은 강해가 필요한 지식적인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경이로움, 말씀의 신비 등에 관한 것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지식을 유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주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보다는 그분의 넓은 품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이웃에게 바르게 전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려는 간절하고 진정한 마음일 테니까요. 하루하루 바른 성경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가 더해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 <https://youtu.be/iDk419qulfo>



전도 가이드

불신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28:19-20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에는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전도자(Soul winner)¹⁾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며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침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구원받아 신약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을 또 가르쳐서 그 새 신자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가르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고기를 낚는 데에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낚는 데에는 얼마나 묘한 기술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 전도 대상은 성경이 이방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무엇보다 먼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진화론에 몰들거나 우상에 빠져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 그들은 전도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그분을 자기들의 신으로 혹은 신 정도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도 바울이 행17:22-31에서 선포한 말씀을 숙지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밝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²²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²³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 주리라. ²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殿)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²⁵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²⁶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1) 원래 성경적으로는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혼을 얻는 것’(soul winning)이라고 한다. 이는 성경이 사람을 혼(soul)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도라는 말이 이미 그런 용례로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전도 혹은 전도자라는 말을 사용하려 한다. 전도는 대상자를 설득하여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출하는 것이다. 그 뒤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도록 좋은 교회를 소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 교회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 경계를 정하셨으니²⁷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²⁸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²⁹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神格)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³⁰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³¹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행17:22-31).

 가능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전도하러 가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먼저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숙련된 전도자를 따라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낚는 데도 연습이 필요하며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러 가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책자들은 구령/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책자이니 자주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존 C. 레녹스, 생명의 말씀사)
2. 「현대 전도에 대한 10가지 오해」(라이언 덴튼, 생명의 말씀사)
3. 「개인 전도의 기술」(윌 맥레이니 주니어, 기독교문서선교회)
4.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R.A. 토레이, 베다니 출판사)
5. 「복음 전도」(J. D. 페인, 요단 출판사)

 다음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 차례 읽고 숙지하여 거기 있는 순서대로 성경을 보여 주면서 복음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조금 익숙해지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기계가 아니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절대로 녹음기나 로봇처럼 내 말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독자께서 곧 알아차리시겠지만 각각의 제목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중 첫 번째는 대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진하게 절을 표시했음). 원하시면 직접 로마서로 가서서 그 구절들을 찾아 색연필 등으로 밑줄을 긋고 성경 자체를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함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제시한 성경 구절 끝에다 다음에 인용할 구절을 적어 두면 그 부분 설명을 다 한 뒤 곧바로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 창조와 창조자’에서는 롬1:19-20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과 그 밑에 있는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창조와 창조자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롬3:10-12; 롬3:23’이라고 조그맣게 적어 놓으시면 곧바로 그 다음 주제인 ‘2. 죄와 죄인’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그 다음 연결 구절도 그런 식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가지고 전도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부분을 성경에 달린 줄로 마크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원할 때에 쉽게 돌아와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보여 주면서 상대방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구절을 외울 필요가 없으며 단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다음 구절들이 연결됩니다.

☞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5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까지 설명한 다음 상대방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6번 즉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회개란 죄를 미워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틀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죄를 뉘우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상대방이 회개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 들이겠느냐고 묻기 바랍니다. 그 뒤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하고 물으면서 영접 기도(죄인의 기도)를 하게 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바랍니다.²⁾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주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7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알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으며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말이나 논리적인 설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 그 뒤 8번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아니면 구원이 여전히 유지될까요?”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면서 비록 사람은 변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르면 관계(relationship)와 교제(fellowship)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 아들이 되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토록 유지되지만 아들이 죄를 지으면 상호 간의 교제가 깨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깨진 교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일1:9).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므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으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영원토록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결코 구원을 잃을 수 없으며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장하기 위해 영의 양식과 보살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장할 수 있으므로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며 곧장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몇 명이 영접했다는 것을 교회에 알리기 위해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고 강요하는 것은 심히 비성경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것은 심각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늘 기억해야 한다. 특히 전도 대상자가 전도자의 지인인 경우 전도자가 영접 기도하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영접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다. 또한 상대방이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미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경우에도 영접 기도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인도하는 영접 기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상대방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 진지하게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같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1. 창조와 창조자

- (a)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神格)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19-20).
- (b)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도다(시 19:1-4).
- (c)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요1:3).
- (d)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게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히 3:4).
- (e)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요 1:10)
- (f)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시14:1).

2. 죄와 죄인

- (a)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3:10-12)
- (b)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 (c)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7:20).
- (d)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64:6).
- (e)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약4:17).
- (f)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막7:20-23).
- (g)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 51:5).
- (h)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잠14:9).

- (i)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3. 하나님의 심판

- (a) 죄의 값은 사망이나(롬6:23)
 (b)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c)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갈 6:7).
 (d)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시9:17)
 (e)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시느니라(사57:21).
 (f)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마13:49-50).

4. 하나님의 사랑

- (a)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5:8).
 (b)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눅19:10).
 (c)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하심이라(요3:16-17).
 (d)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요15:13)
 (e)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
 (f)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고전15:3-4).

5.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는 구원

- (a)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b)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c)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행16:30-31)
 (d)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 (e)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 14:6).
- (f)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갈2:16).

6.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회개해야 한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죄들을 미워하고 포기한다.

- (a)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 (b)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눅13:3).
- (c)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
- (d)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행3:19)

2.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a)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1:12-13).
- (b)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나(요 3:15).
- (c)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 (d)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3.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죄들을 미워하여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나 저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구원의 확신

- (a)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 (b)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 (c)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3).
- (d)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 (e)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8:16)
- (f)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딤후1:12).
- (g)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1-3).

8. 구원의 영원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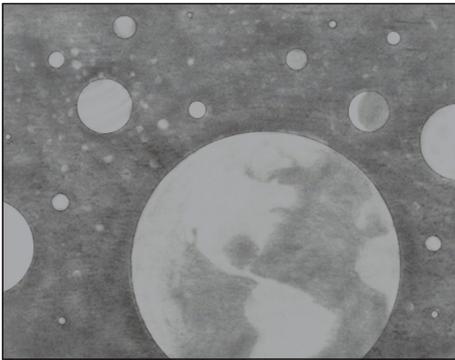
- (a)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8:1).
- (b)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8).
- (c)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롬8:29-31)
- (d)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1:5).
- (e)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유24)
- (f)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마28:19-2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Soul winning)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확신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본 부록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복음을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숙지한 뒤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매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지혜이심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 사명에 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에게 복음 선포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복음을 제시하기에 앞서 당신은 먼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로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창1:1; 행4:24; 골1:16; 계10:6).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손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시계나 핸드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계나 핸드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우주 만물 및 사람은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으며 고도의 설계자가 정교한 청사진을 만들어 창조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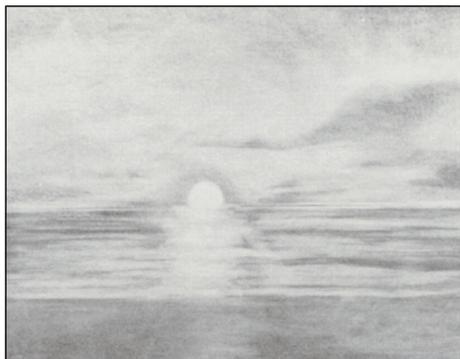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해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 동물과 식물 등 온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을 옛세 동안에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魂)이 되니라"(창2:7).

하나님께서 친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곧 당신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바로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지탱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히1:3). 하나님은 당신과 온 세상과 상관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당신과 온 세상은 매 순간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으므로 당신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께서 당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창조의 진리는 다른 많은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그분은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존재입니다(신 33:27; 시90:2; 93:2). 다시 말해 그분께는 시작이



없으며 또한 생명이 다하는 때도 없습니다. 육은 그분의 연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요 36:26). 이것은 곧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 아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사44:6, 8). 그분은 항상 존재해 오신 분이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무궁히 계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4:24).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임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의 본질은 영(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물질적 요소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께서 본질적으로 우리같이 눈에 보이는 몸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민23:19; 사31:3; 눅24:39; 요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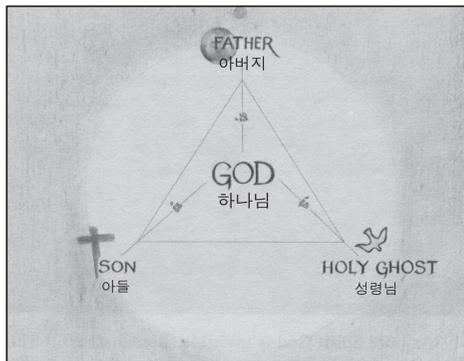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롬1:20; 딤후1:17) 따라서 그분의 형체를 그려 볼 수도 없고(신4:15-23; 사40:25) 물리적 수단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요4:24; 행17:25).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에 받지 않으시며 한 곳에만 묶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왕상8:27; 행7:48-49; 17:24).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므로 그분의 앞을 떠나 숨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시139:7-12; 렘23:23-24). 당신이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시139:1-6; 잠15:3; 사46:10; 요일3:20).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들 중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유한한 지각으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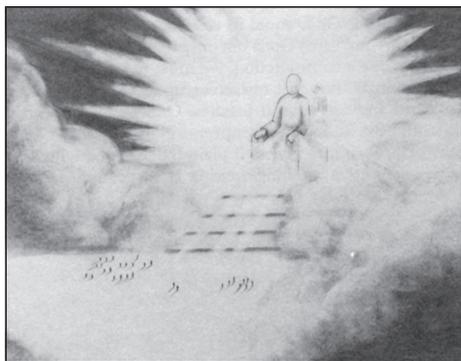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확실한 말씀인 성경은 한 하나님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신6:4; 사43:10; 44:6, 8; 45:5-6, 21-22; 46:9; 막12:28-32; 고전8:4; 딤후2:5; 약2:19). 그런데 한 하나님은 세 분, 즉 아버지, 아들(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으로 존재하십니다(마28:19; 요1:1-2, 14; 5:18; 20:28; 행5:3-4; 요일5:7; 요이9).



이 세 분은 본질, 권능, 영광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도 시간이며 현재도 시간이고 미래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코 세 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단 하나입니다. 동시에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며 이 세 분 중 한 분이라도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이 언뜻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의존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진리를 가리켜 ‘크리스틴 신앙의 최종적이고도 지고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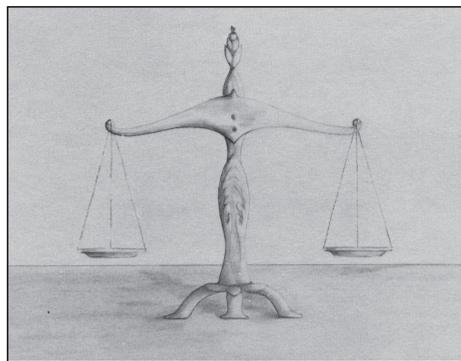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므로 자신의 창조 세계, 자연 만물, 사람과 그들의 행동을 다 다스리시며 심지어 사탄 역시 그분의 권능과 제재하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 일어남을 보여 줍니다(롬1:7-12; 시107:25-29;



잠21:1, 31; 단2:21-22; 나1:3-6; 마4:10-11; 엡1:11).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단4:35; 참조 시115:3; 렘32:17; 마19:26; 눅1:37).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되어 있음을 뜻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곧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과 다르고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순수하고 선하며 의로우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요일1:5).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므로 더럽거나 악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합1:13).

정결하게 씻을 것을 규정한 모세의 율법 체계; 성막

의 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의 희생물을 바칠 것;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출3:5; 수5:15); 고라, 다단, 아비람의 죽음(민16:1-33);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레10:1-3)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거룩함을 새겨 주기 위한 교훈들이다(R. A. 토레이).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 위에서 있는 스랍들은 계속해서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사6:3; 계4:8).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창18:25).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공의로우시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롭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불법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룩하지 못한 죄와 불법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써 판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사45:21-25; 요5:30; 행17:31; 계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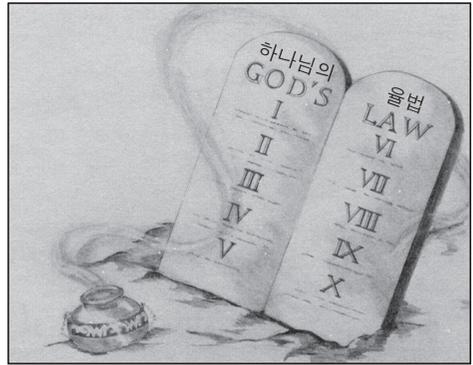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며 사랑을 보이십니다.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엡2:4-5; 참조 마5:45; 요3:16).

사람과 첫 번째 죄

하나님께서서는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완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창2:17).

그런데 이브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첫 번째 죄요, 반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는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나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며 결국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롬5:12, 18; 엡2:1).

죄란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 불리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3.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4.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너는 살인하지 말라.
7. 너는 간음하지 말라.
8.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9.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0. 너는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죄는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이런 율법 조항 중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니다(롬3:20; 갈3:10-12; 요일3:4; 약2:10-11).

예수님께서서는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셨으며 율법의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눅10:27; 참조 마5:21-32; 막12:30-31).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열 가지를 다 어기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어겼음을 곧 인정하실 것입니다. 죄 문제의 심각성은 당신이 고의로 이런 율법들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며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또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시51:5; 사64:6; 롬3:9-19, 23; 엡2:2-3). 당신의 죄들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같은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사64:7; 렘10:23; 13:23; 요1:12-13; 롬7:18).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인들에게 분노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죄를 범하는 혼은 반드시 죽습니다(시

7:11; 겔18:4, 20; 롬6:23).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롬1:18). 따라서 당신이 죽기 전에 그분의 진노를 되돌리지 않으면 당신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맞볼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마25:31-46; 요3:36; 롬1:18; 계20:11-15; 21:8).

지옥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고 만다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옥을 마련해서 죽은 이후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중 어떤 의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을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이 영원토록 형벌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 **지옥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낸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상세하게 말하며 그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성경은 지옥의 정죄와 또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 **지옥은 두려운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요, 용광로요,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타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통을 받는 장소로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밤낮으로 영원히 안식이 없습니다. 참으로 지옥은 무서운 곳이며 지옥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모든 좋은 것에서부터 격리되어 안식과 평안이 없

이 거할 것입니다.

● **지옥은 최종 장소입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들은 다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말해 출구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공포나 외로움 혹은 고통은 사람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옥은 정당한 곳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믿지 않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주 의로운 일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했으며 그분께서는 지옥에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원하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것을 영원토록 확정해 주십니다.

지옥에 대한 이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서 이제 당신은 신약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마23:33)



종교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사람은 종교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종교 및 윤리 백과사전」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백 가지 방법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 달, 별, 지구, 물, 불을 숭배해 왔고 또 돌, 나무, 은, 금 등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 경배해 왔으며 또 물고기, 새, 짐승 등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신이나 영을 상상해 내어 그것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물, 예식, 성사, 봉사 등을 통해 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아무리 진지하다 해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죄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 **첫째로 종교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거기에는 흠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받으실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람의 이 같은 노력은 허사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사64:6).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며 사람의 종교는 결코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 **둘째로 종교는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선행은 결코 악행을 없애지 못합니다. 당신의 미덕은 결코 당신의 악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 해도 행위를 통해서서는 불가능합니다. 유야 세례, 견진 성사, 침례, 세례, 주의 만찬, 교회 참석, 기도, 헌금, 성경 읽기 등과 같은 종교 행위나 경험은 결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 **셋째로 종교는 결코 사람의 죄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죄로 인한 현상이지 죄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속마음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사람의 속마음은 부패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리오?”(렘17:9) 교회에 가서 종교 행위에 참여하면 기쁨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가 당신을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 이까? 아무도 없나이다”(욥14:4).

위에서 언급한 종교 행위 중 어떤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행위들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당신의 죄와 저주만 늘어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처한 상태가 이처럼 비참하기 때문에 공홀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남자 없이 마리아의 태에서 기적적으로 수태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처녀 탄생).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었으며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마1:18-25; 요1:1-14; 딤편전3:16).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나사렛이란 이름 없는 촌에서 사셨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사셨고 사람들처럼 사셨지만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그분 속에 죄가 없으셨



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었고 짓지도 아니하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성취하셨습니다(히4:15; 7:26; 뱀전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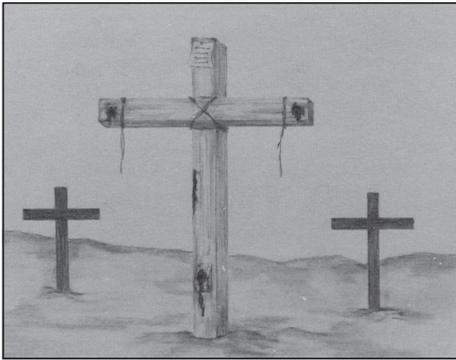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서른 살이 되셨을 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헛된 종교를 버리고 자신을 향해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와 또 죄로 인한 형벌에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마1:21; 요8:23; 행2:22).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곧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신은 죄를 범했고 당신의 죄로 인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다루시기 위해 두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사람들이 자기 죄들로 인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지옥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옥이 통째로 던져지게 될 불 호수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엡2:16; 골2:13-14; 뱀전2:24).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된 소식을 뜻하는 복음은 매우 복된 것이요, 값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지는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물이 되어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속죄, 즉 대속(代贖)을



이루었지만 그런 희생물은 완전하지 못하므로 매해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로 인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일시에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 진노를 돌이키셨으며 이러한 화해 헌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사53:5, 10-12; 롬3:25; 고전15:3; 갈1:4; 딤후2:14; 히1:3; 9:26-28; 10:12; 요일4:10).

이러한 완전 속죄로 인해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이 이 정죄와 저주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벧전3:18; 참조 롬5:10; 고후5:18; 히2:17).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속죄물로 지정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세상 죄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선물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해도 사랑으로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라”(롬4:4-5).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음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났음을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시자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영(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24:39; 참조 마28:6; 행1:3; 롬4:25; 벧전1:21).

부활하신 뒤 사십 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눈앞에서 올리브산을 떠나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행1:11; 딤후2:5; 3:16; 요14:6).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일들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성취하고 계신 직무 중 하나는 대언자의 직무입니다.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아야만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대언자가 되시며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 계셔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므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대언자가 없습니다(신18:15; 마21:33-46; 요7:40; 행3:22-26; 히1:1-2).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계신 또 다른 직무는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을 죄로 인한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하셨으며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



시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유대교나 천주교에 존재하는 제사장이나 제사장 체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요 17:20; 히3:1; 7:21-25; 8:1-6; 뱀전1:5).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이제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떻게 내게 적용되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죄들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 주실까요?” “구원받기 전에 무슨 의식이나 예식 같은 것을 행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다 좋은 질문들이며 성경적인 대답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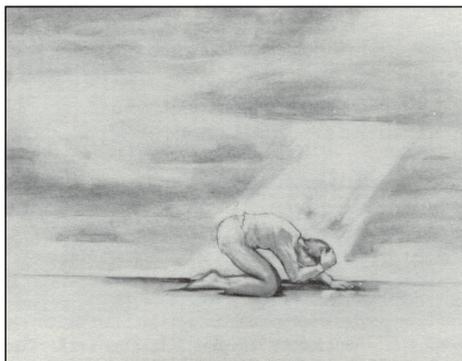
구원의 문은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돈 주고 구원을 사거나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기 전에 무슨 황홀경에 이르는 감정 같은 것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무슨 예식이나 의식을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은2:9; 롬6:23; 엡2:8-9; 빌2:13; 딤후3:5).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이 죄인이며 죄의 형벌이 있음을 인정하고 죄들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회개란 죄에 대해 완전히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이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당신의 더럽고 추한 죄에 대해 수치를 느끼고 슬피 해야 합니다. 그 뒤에 당신은 죄를 기꺼이 버릴 태세가 되어야 하고 당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버리고자 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전심을 다해 걷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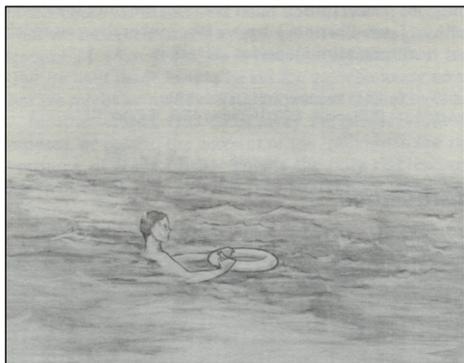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Faith)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아는 것(Knowing)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둘째 요소는 말 그대로 믿는 것(Believing)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야 하며 또한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셋째 요소는 신뢰하는 것(Trusting)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구원자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면서 당신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 즉 당신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을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치르셨다는 대신 속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속(代贖)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만심이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여 구원자로,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 당신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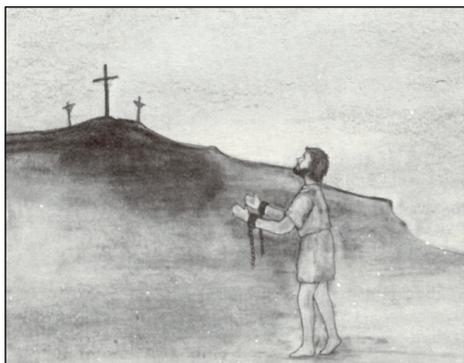
배구 시합에서 한쪽이 공을 서브(Serve)하면 다른 쪽이 공을 리시브(Receive)하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공을 서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 공을 리시브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물을 마련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려 해도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며 동시에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판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죄인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며 그 시간부터 의인으로 부르겠다고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칭의(稱義)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인들을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한자 '의(義)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의(義)입니까? '양(羊) 밑에 나(我)라는 존재가 있을 때 의롭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1:29).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가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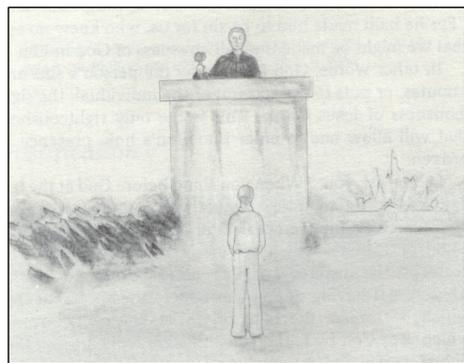
마지막 날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의를 갖고 싶습니까? 불완전하여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당신의 의입니까(사64:6), 아니면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빌3:8-9).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稱義)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의를 소유하게 되며 이러한 완전한 의가 당신 자신의 의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100% 확실한 사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죽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은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참조 행17:31).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며 그분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불과 유향으로 타는 불 호수에 들어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면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릴 것입니다(계20:10-22:5). 이제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만큼 읽은 시점에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읽은 것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되돌아가서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다시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리를 보여 주실 것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필요를 보여 주셔서 구원받아야겠다는 갈망을 주셨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하며 가장 좋은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받다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죄에 싫증이 났습니까?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지금 이 시간 죄 용서를 받아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친구로 맞아들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말에 관심을 두시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먼저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들로 인해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음

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소유물로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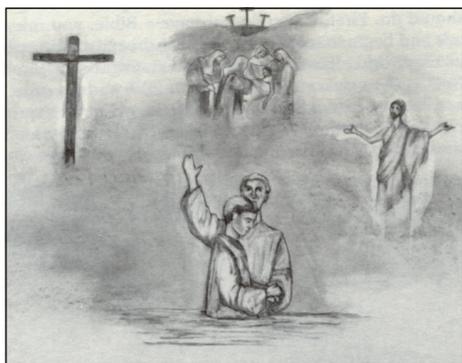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상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18:9-14).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뒤에는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책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의 넷째 책인 요한복음과 끝부분에 있는 요한일서를 몇 차례 읽기 바라며 또한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읽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전체 성경을 꾸준히 정독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경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약 교회는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



회입니다. 만일 그런 교회를 발견하기 어려우면 이 책 앞에 있는 주소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당신은 물속에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침례는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으며 죄를 씻어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침례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고 묻혔으며 새 사람으로 살아났음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 알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는 종종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때마다 다음의 글을 읽고 성경 말씀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갑판 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와 몹시 대화를 나누고 싶었네. 자네는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던데..."
"예, 저는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좀 교만한 말이 아닌가? 사실 나도 한때는 성실하게 교회에 다녔네.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사실 위선자가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는 일을 그만두었

지.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가끔 기독교에 어떤 진실이 있었을까 생각하곤 하지."

"저는 그 말씀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말과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반장님, 이 배수구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배수구의 둘레는 48센티미터가 아닌가! 그런데 왜 그것을 묻지?"

"반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 책에 의거하여 확신할 수 있지. 이 책은 본사에서 보내온 것으로 이 배에 대한 설명서가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방법과 같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늘의 본부에서 보내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제가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과 (롬3:23) 지옥의 불 호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계21:8). 하지만 저는 또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롬5:8)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벧전2:24).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이 말씀대로 저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장차 있을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제가 구원받았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교만이었습니까?"



성경 사전

본 사전은 1800년대에 나온 몇몇 성경 사전과 영어 사전, 우리말 사전 등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영어 성경 독자들을 위해 인명이나 지명의 발음을 우리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미국식으로 표기하고 뜻을 함께 적었다. 예를 들어 '가나'(Cana, 케이나, 등지)는 뜻이 등지이며 맨 앞의 '게'에 악센트를 주고 읽어야 한다. 본 사전에서 인용되는 지도나 선도는 본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컬러 지도와 선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는 지도와 선도의 39쪽을 참조할 것을 뜻한다.

(ㄱ)

● 가나(Cana, 케이나, 등지) 나다나엘의 출생지. 이곳은 갈릴리의 가나라 불리며 나사렛에서 11킬로미터 북쪽에 있다.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은 처음으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여기서 29킬로미터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귀족의 아들을 기적으로 고치셨다(요2:1-11; 4:46-54; 21:2).

● 가나(Kanah, 케이나) I.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는 시내. 이것은 율바의 북쪽에서 지중해로 나아갔다(수16:8; 17:9).

II. 아셀 지파에게 속한 마을(수19:24, 28)로 갈릴리의 가나와 다른 곳이다. 아셀 지파 지도 참조(26).

● 가나안(Canaan, 케이안) I. 함의 아들, 노아의 손자(창9:18). 그의 후손들은 시돈을 점령하고 시리아와 가나안에 퍼졌다(창10:15-19; 대상1:13-16). 유대인들은 그가 노아의 수치스러운 사건에 자기 아버지 함과 함께 연루된 것으로 믿으며(창9:20-27) 이 일로 인해 그와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았다(수9:23, 27; 대하8:7-8).

II.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 이곳은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지역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 등에 의해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 '가나안 땅'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서 유래하였는데 그는 이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여러 부족의 조상이 되어 결국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창10:15-20; 11:31). 처음에는 요르단 동부의 땅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약속의 땅'(히11:9)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에 근거한 이름이다(창12:7; 13:15). (3) '이스라엘 땅'은 여기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의 후손에서 나온 말로서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온다. 이것은 요르단 동부와 서부의 모든 지역, 즉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땅을 말하지만 왕국의 분열 이후에는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의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기도 했다(겔27:17). (4) '유다의 땅'은 원래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만을 의미했으며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되며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간 뒤에는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땅, 즉 유대라 불리는 땅만을 의미했다. 유대 땅은 둘째 성전이 서고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던 때까지 그렇게 불렸다. (5) '거룩한 땅'(성지)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이 새롭게 부른 이름이다(스2:12). (6) '팔레스타인'(팔레스티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름인데(출15:14) 그들은 가솔루힘에게서 나와서(창10:14)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의 거주민들을 축출하고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그 지역의 일부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결국 그 지역의 이름이 되고 말았다.

가나안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이고 북쪽은 레바논 산과 시리아, 남쪽은 에돔과 전 및 바란 광야, 동쪽은 아라비아 데제르타(사막)이다. 이 땅의 남북 최장 길이는 300킬로미터, 동서의 평균 너비는 100킬로미터이다. 다윗 시대에는 주변의 여러 지역이 조공을 바치면서 가나안 땅에 부속되었는데 여기에는 동쪽으로 아라비아 데제르타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에 있는 답사와 시리아 전 지역, 남쪽으로 에돔과 예시온게벨의 홍해까지 포함되었다.

가나안 땅은 여러 번 분배되었다.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에게 이곳을 고루 분배하였는데 르호보암 때에는 이곳이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로 나뉘었고 그 뒤에 이곳은 바빌론, 그리스, 시리아,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주 예수님 시대에 이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다섯 지방으로 나뉘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페레아, 이두매아. 이

중에서 페레아는 또다시 일곱 개의 소지역으로 나뉘었다: 아빌레네, 드라고닛(드라고니티스), 이두래, 가울라니티스, 바타네아, 페레아, 데가볼리.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가나안 땅에는 산과 평야와 강과 골짜기가 많다. 주요 산으로는 레바논, 갈멜, 다불, 길르앗, 헤르몬, 올리브 산 등을 들 수 있다. 팔레스타인의 산들 지도 참조(53). 지중해(대해)와 여러고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강으로는 요르단, 아르논, 시홀, 압복, 기손 강을 들 수 있고 호수로는 디베라 혹은 갈릴리, 메롬 호수 등을 들 수 있다.

이곳의 북쪽에는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지가 있으며 거기의 봉우리 중에는 높이가 3,000미터가 넘는 곳도 있다. 헤르몬 산 밑에는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여러 지류가 있으며 요르단 강은 메롬 호수와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사해로 들어간다. 요르단의 계곡은 매우 깊고 발원지로부터 사해까지 가면서 600미터나 아래로 떨어진다. 요르단과 지중해 사이의 지역은 고원을 형성하며 여기에는 언덕과 골짜기가 많고 이 사이로 강이 흐른다. 갈릴리의 고원은 지중해로부터 약 300미터 정도 위에 있다. 갈릴리의 아래에는 갈멜 산에서 다불과 길보아 그리고 요르단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평야가 있으며 이 평야의 끝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다시 땅이 높아져서 그리스 산은 해발 700미터, 예루살렘은 720미터, 헤르몬은 780미터나 된다. 지중해 해안의 갈멜 산 밑에는 비옥한 평야가 있으며 이것은 아래로 가면서 넓어져서 바란 광야로 이어진다. 요르단 너머의 지역은 산지이며 비옥하고 좋은 초장이 있고 이곳을 더 넘어서면 아라비아 데제르타(사막)의 황폐한 고원이 있다. 팔레스타인 땅의 동서남북 단면도 선도 참조(49).

가나안의 토양은 아주 좋은 편으로 햇볕은 그리 뜨겁지 않고 기후는 온화한 편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연간 평균 강수량과 온도 선도 참조(50).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가 일 년의 사계절에 경험하는 햇볕과 비와 구름 등을 비가 오는 겨울에만 볼 수 있다. 10월 말에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곧바로 밀과 보리를 심으며 그 뒤 12월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뒤에는 가끔씩 내리면서 4월 말까지 이어진다. 겨울은 그리 춥지 않으며 땅도 얼지 않는다. 눈도 가끔 30센티미터 이상 내리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특히 우박이 많이 내린다. 보리는 보통 밀보다 2주 정도 먼저 수확하고 곡물 수확은 4월부터 6월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뜨거우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가 내리는 계절을 바라게 된다. 유대인들의 달력 선도 참조(67).

과거에 가나안의 토양은 아주 기름져서 생산성이 높았다. 또한 지역마다 땅의 고도가 많이 변하고 기후의 변화도 다양해서 사람들은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을 재배하고 언덕에서는 소와 양을 기르며 골짜기 평야에서는 곡식을 재배했다. 이곳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모세가 기록한 말씀(신8:7-9)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한 기록은 현재의 황폐함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지역에서의 오랜 전쟁과 파괴 등이 땅을 망가뜨려 놓았고 그래서 고급 곡물과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으로 덮여 있던 아름다운 언덕들은 현재 황폐한 바윗덩이로 변하고 말았다. 한때 저수지에 보관되어 여러 곳에 물을 대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대부분 바다로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있다. 또한 나무가 없는 산들은 강렬한 태양 아래 그대로 놓여 있다. 그러나 땅을 잘 가꾼 곳에서는 지금도 3미터가 넘는 옥수수가 자라고 에스콜 골짜기의 포도같이 큰 포도(네헤레스콜 품종)가 자라고 있다.

● 가나안 정복(Conquest of Canaan)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의 거주민들을 멸절시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이유를 제시한다: (1) 이 땅이 홍수 뒤에 셈과 그의 아들들에게 배정되었으나 함의 아들들이 그것을 빼앗았다. (2) 그곳의 거주민들이 유대인들을 먼저 공격했다. (3) 아브라함이 그들보다 먼저 그곳을 소유했다. (4) 가나안 족속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거의 같은 부류로서 히브리 사람들을 압제했다. 이런 이유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당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유는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유는 주님의 특별 명령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 민족들의 사악함이 곧 그들의 형벌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쳤다(창15:16; 레18:24-30; 20:22-24). 사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들의 사악함을 참으셨으며 이것은 그들을 향한 경고이며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악한 죄를 짓는 인류에 대한 경고였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죄들을 미워하고 끝내야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자들로 일했으며 결코 자기 이득을 위해서나 자기만족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았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다음에 나와 있다(민1:4; 수1:24; 삿1:1-36). 가나안 정복 지도 참조(17).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멸망되지 않았고 살아남은 자들 중 일부는 다른 땅으로 도망갔으며 일부는 유대 땅에 남아 이스라엘의 치리를 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발의 울무와 열구리의 가시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의 풍속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분명히 통고해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으므로 그 결과는 그들이 감당할 몫이 되고 말았다.

● 가나안 여인(Canaanitish woman) 가나안 사람의 부인이나 가나안 족속 여인(대상2:3; 마15:22). 시므온과 가나안 여인 사이에 사울이 태어나고(창46:10; 출6:15) 유대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사이에 엘, 오난, 셀라가 태어났으며(대상2:3)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창녀 라합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피가 섞였음을 알 수 있다. 신약 시대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었으며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 주셨다(마15:22). 수로보논게, 페니키아 참조.

● 가나안 족속(Canaanites, 케이니나이즈) 가나안의 후손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급속하게 불어났으며 무역과 전쟁을 통해 많은 재물을 불리고 지중해 연안 지역과 여러 섬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위로 그 땅을 영적으로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셨고 여호수아는 궁극적으로 그곳을 정복했다. 주요 가나안 족속은 다음과 같다. 가나안 족속들 지도 참조(16).

I.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의 북쪽 헤르몬 산의 기슭에 살았으며(수11:3)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을 당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완전히 그들의 소유지에서 쫓아내지 못했다(삿3:3; 삼하24:7; 왕상9:20). 또한 팔레스타인 중부에도 히위 족속이 있었다(창34:2; 수9:1, 7; 11:19).

II. 제한적 의미의 가나안 족속은 지중해 연안의 평야에 거주했다(민13:29; 수11:3).

III. 기르가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 사이에 거했으며 이것은 그들이 언급될 때의 순서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수24:11).

IV.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과 그 근처의 언덕 지역을 소유했으며 사실 예루살렘의 이전 이름은 여부스였다(수15:8, 63; 18:28). 이곳을 배정받은 베냐민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삿1:21) 오랜 시간 뒤에 다윗이 처음으로 여부스의 성채를 빼앗았다(삼하5:6).

V.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사해의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거주했고(창14:7) 그 뒤에는 가나안 땅의 동남부를 형성한 산지의 여러 지역에 퍼져 살았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산' 그리고 후에는 그냥 '산지'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민13:29; 신1:19-20; 수11:3). 그들은 또한 모세 이전에 요르단 동쪽으로 북쪽의 바산 왕국과 처음에 압복 강을 경계로 둔 다른 왕국을 남쪽에 건설했다. 그 뒤 그들은 시혼의 통치하에서 압복 강을 건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으로부터 압복과 아르논 사이의 지역을 빼앗았고 그 결과 아르논 강이 아모리 족속의 남쪽 경계가 되었다(민21:13-26; 32:33, 39; 신4:46-47; 31:4).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후에 시혼과 싸워 이겨서 이곳을 그에게서 빼앗았다. 아모리 족속 참조.

VI. 헷 족속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헷의 후손들로서(민13:29) 남부의 산간 지역(후대에는 유다의 산으로 불림)에서 아모리 족속들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들은 헤브론을 차지했고 그는 그들로부터 막벨라의 굴을 사서 돌무덤을 만들었다(창23:1-20; 25:9-10).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후에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벤엘 근처의 지역은 '헷 족속의 땅'으로 불렸다(삿1:26). 헷 족속 참조.

VII.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이름은 평야의 거주민들을 뜻한다. 창13:7에 따르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벤엘과 아이 사이에 살았고 창34:30에 따르면 그들은 세겜 근처에서도 살았다. 브리스 족속 참조.

이 족속들 외에도 가나안 북부에는 기원이 같은 다른 족속들, 즉 알가 족속, 아르앗 족속, 하맛 족속, 스말 족속 등이 살았다(창10:15-20). 또 가나안 땅에는 기원이 다른 여러 족속이 있었으나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의해 파멸되었으며 여기에는 아낙 족속, 아말렉 족속, 르바 족속 등이 포함된다.

● 가난한 자들(the poor) 하나님은 친히 선구약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지시하셨으며(시12:5; 41:1-3; 출23:6; 잠14:31) 특히 복음 시대에는 이것이 더 강조되었다(마25:42-45; 약2:5).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조금 드린 헌물을 부자가 많이 드린 것과 동일하게 받으셨다(레5:7-13; 막12:41-44). 또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밭의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 등을 일부 남겨 두어야만 했다(레19:9; 신24:19; 룻2:2).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것은 모두가 거저 가질 수 있었으며(레25:7) 희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던 가난한 자들의 상속물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왔다(레25:1-55).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을 크게 책망하였다(사10:2; 렘5:28; 암2:6).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미덕이었다(마6:2-4; 눅10:33-35; 19:8; 행9:36-39; 10:2; 11:29-30).

● 가다라(Gadara, 게더라) 데가볼리의 주요 도시.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으며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거하였다.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은 요르단 강과 갈릴리 바다(호수)까지였으며 마8:28; 9:1; 막5:1-20; 눅8:26-39에 기록된 기적은 호수 주변의 경계에서 일어났다. 군대 마귀들은 마귀 들린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숨 막혀 죽게 했다. 게르게스 사람들 참조.

● 가데스(Kadesh, 케이대쉬)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단에 위치한 지역. 이곳은 가데스바네아 혹은 엔미스밧이라 불리기도 했으며(창14:7) 셈과 도시와 그곳의 주변 사막 지역을 가리킨다(시29:8). 이곳은 에돔의 경계 끝에서(민20:16), 사해의 남쪽에 있던 엘아라바 계곡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이곳을 두 번 방문하였다. 처음 방문은 시대 산을 떠난 직후에 있었고 마지막 방문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있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정탐꾼들이 사명을 받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으나 이들의 낙담하는 말에 의해 백성이 반역하고 스스로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다가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민13:1-33; 14:1-45). 두 번째 방문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백성이 물로 인해 불평을 하였으며 아론과 모세가 바위를 침으로써 죄를 범하고 백성이 에돔을 통과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민20:1-22). 가나안 정복과 함께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의 경계는 가데스바네아에까지 이르렀다(수12:22; 15:3).

● 가데스바네아(Kadesh-Barnea, 케이대쉬바니아) 가데스 참조.

● 가드(Gath, 갓, 포도즙 들)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도시 중 하나(삼상5:8; 6:17). 이곳은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유명한 도시였는데 투사 골리앗은 여기 출신이다(수11:22; 삼상17:4; 삼하21:19-22 비교).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기서 피난처를 구했으며(삼상21:10; 27:2-7)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곳은 그의 지배를 받았고(대상18:1) 그 이후에 유다가 몰락할 때까지 그런 상태로 지냈다. 르호보암이 이곳을 재건하고 강화했으나(대하11:8) 이곳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갔고 다시 웃시야가 이곳을 빼앗았다(대하26:6). 그곳 사람들은 '가드 사람들'(Gittites)이라 불렸으며(수13:3) 다윗은 거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섬기게 하였는데 그들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에게 근계 붙었다(삼하15:18-22).

● 가드림몬(Gathrimmon, 개쓰림먼, 석류나무 근처의 포도즙 들) 읍마 근처에 있던 단 지파의 도시(수19:45). 이곳은 후에 고향 자손의 가족인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수21:24; 대상6:69).

● 가드헤벨(Gath-Hepher, 갓히퍼) 스블론의 도시. 대언자 요나는 이곳에서 출생했다(왕하14:25).

● 가리지(Tares) 풀의 일종.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에서 밀과 함께 자라는 식물이다. 이것은 자라면서 밀과 거의 비슷해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었다가 수확해서 타작할 때 밀과 분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밀과 함께 이것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 현기증이나 구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마13:25-30).

● 가레아(Careah, 커리어, 대머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요나단과 요한안의 아버지(왕하25:23; 렘40:8).

● 가렘(Gareb, 가렘, 비열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해 예언하면서 언급한 산(렘31:39).

● 가르나임(Karnaim, 카르나이움, 뿔들) 아스드롯 가르나임 참조(창14:5).

● 가마우지(Cormorant) 황새목 가마우지와 조류의 총칭. 이 새는 무리 생활을 하며 몸길이는 80센티미터 정도이고 검은색을 띠고 있다(레11:17; 사34:11).

● 가말리엘(Gamaliel, 거메일리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답하신다) 그리스도 이후에 모습을 드러낸

바리새파 사람. 그는 율법 박사이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위해 중재를 해서 그들이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을 막았는데 이것으로 보아 그는 지혜와 관용을 겸비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가 복음에 순종했다는 기록은 없다(행5:33-40).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의 제자 중 하나였음을 큰 명예로 생각했는데(행22:3) 바울은 가말리엘로부터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열심과 공정함, 관용, 정직함 등을 배웠음에 틀림이 없다.

● 가뭄(Drought)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5월부터 9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자연적으로 가뭄이 든다. 여름의 이 몇 달 동안에는 땅이 말라서 갈라지고 강이나 시내에는 다 말라붙으며 식물은 밤의 이슬이나 인공 관개에 의해 겨우 생명을 유지했다. 그래서 비가 와야 할 계절에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따라서 가뭄은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중 하나로 여겨졌다(욥24:19; 렘50:38; 욥1:10-20; 학1:11). 성경에는 가뭄과 관련된 두려움이 여기저기 잘 나타나 있다(신28:23; 시32:4; 102:4). 유대인들의 달력 선도 참조(67).

● 가방, 지루(Bag) 고대 동방 사람들은 가방에 일정한 액의 돈을 넣고 봉인하곤 했다(신25:13; 왕하12:10; 눅12:33). 주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하나의 돈 가방을 사용했다(요12:6).

● 가버나움(Capernaum, 커퍼나이움, 나훔의 마을) 그리스도 당시 갈릴리 지역의 으뜸 도시.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이곳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놓였으며 요르단에서 8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다마스쿠스에서 지중해로 가는 길에 위치했으며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공생애 기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냈으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여기 머물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마17:24; 막1:21-35; 요6:17, 59) 그래서 이곳은 '그분의 도시'라는 이름을 받기도 했다(마4:12-16; 9:1; 막2:1). 이 도시의 이런 명예에도 불구하고 거기 거주민들의 대부분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불신과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마11:20-24).

● 가보(Carpus, 카르푸스, 열매) 드로아에 살던 바울의 친구(딤후4:13).

● 가불(Cabul, 케이불, 불쾌한 것) I. 갈릴리 북부 지역의 이름. 성전을 짓는 일에 두로 왕 히람이 큰 도움을 주었으므로 솔로몬은 20개의 도시가 있는 이 지역을 그에게 주었으나 그는 그곳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왕상9:13).

II. 아셀의 도시(수19:27).

● 가브리엘(Gabriel, 게이브리엘, 하나님의 강한 자)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천사. 구약 시대에 그는 대언자 다니엘에게 가서 그의 환상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단8:16; 9:21). 신약 시대에 그는 사가라에게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 알려 주었고(눅1:11-20) 6개월 뒤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 알려 주었다(눅1:26-38).

- 가슬루힘(Casluhim, 캐슬류임) 미스라임의 후손. 감도림 참조.

- 가슴(Breast, bosom) 가슴은 양팔 사이에 있는 몸의 앞부분으로 심장과 폐를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에서 이 말은 품(시35:13), 젖가슴 등으로 쓰인다(겔23:3, 8). 가슴은 사람의 감정이 있는 부위로 생각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슬플 때 가슴을 쳤다(나2:7; 눅2:35). 흰물로 드린 짐승의 가슴은 제사장에게 주어졌다(출29:26-28; 레7:31). 품 참조.

- 가시비아(Casiphia, 커찌피아, 은 세공업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거주지 중 하나. 이곳은 흑해 근처의 지역으로 추정된다(스8:17).

- 가시와 찔레(Thorns and thistles) 가시나 찔레 등으로 번역된 원어는 매우 많으며 이것은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도처에서 이런 식물이 거의 세계적일 통해 늘 자람을 보여 준다. 가시나무는 특히 농사짓는 데 큰 장애물이며(창3:18; 마13:7, 22; 히6:8) 농부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부는 쟁기질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들을 태워야 한다. 이것들은 종종 연료로 쓰였으며(시58:9; 전7:6; 사33:12) 울타리로도 쓰였다(호2:6). 한편 가시는 악을 행하는 자(삼하23:6; 미7:4),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민33:55; 겔28:24), 저주(창3:18), 황폐함(잠24:31; 사9:18; 10:17) 등의 상징으로 쓰였다. 그리스도를 처형할 때 사람들은 가시로 된 관을 그분께 씌워서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께 고통을 주었으며(마27:29)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가 가져온 육체적 질병이었고 이로 인해 그는 사역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다(갈4:13-14; 고후10:10).

- 가시 채(Goads, pricks) 소를 모는 데 쓰는 뾰족한 막대기(삿3:31). 이것은 뾰족한 끝부분에 쇠붙이를 댄 것으로 길이가 2미터 정도 되었다. 소가 발로 이것을 차면 찰수록 자기만 아프지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합법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권능을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곤 하였다(행9:5; 26:14; 참조 욥15:25-26). 이것에 상응하는 그리스어는 '따끔하게 찌르다'를 뜻하며 그래서 그 말은 종종 가시, 바늘, 쏘는 것 등을 가리키곤 한다(고전15:55-56).

- 가아스(Gaash, 게이에쉬,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떨어지다) 에브라임의 작은 산. 이곳은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던 곳이며 이곳의 북쪽에 담낫세라가 있었다(수24:30). 가아스의 시내 혹은 계곡은 이 산의 기슭에 있었을 것이다(삼하23:30; 대상11:32).

- 가알(Gaal, 게이얼, 무시하다) 에벳의 아들(삿

9:26-41). 그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으로 추정된다(창34:2-6). 그는 아비멜렉을 대적하면서 세겜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부추기고 싸우게 했으나 패배를 당하였다.

- 가아바(Caiaphas, कै아파스, 바위) 주후 27-36년 사이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대제사장. 그는 사두개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원수였다.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은 그의 집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짰다. 이런 와중에 그는 민족의 정치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제안했다(요11:47-54). 물론 그는 무의식중에 이 말을 했지만 이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런 음모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그들의 손에 넘어갔고(마26:1-5; 막14:1; 눅22:2) 그분은 그 전의 대제사장 안나스 앞으로 끌려갔으며 그는 자기의 사위로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아바에게 그분을 보냈다. 안나스 참조. 가아바는 먼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분을 심문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정죄한 뒤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빌라도에게 그분을 데려갔다(마26:57-68; 막14:53-72; 눅22:54-71; 요18:13-27). 가아바와 그의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추종자들을 박해했으나(행4:1-6; 5:17, 33) 그분의 승천 이후 몇 년이 지나서 빌라도는 권력을 잃게 되었고 가아바도 로마 총독 비텔리우스에 의해 대제사장직을 잃게 되었다. 구약 성경의 발람과 마찬가지로 그는 빛을 거부하고 권력과 특권을 남용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이교도의 삶을 살다가 무서운 죽음을 맞게 되었다.

- 가이사라(Caesarea, 켈서리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읍마와 두로 사이에 위치한 해변 도시.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이곳은 보통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로 불렸지만 한때는 '스트라토의 탑'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마을이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이곳을 재건하고 장식하고 여러 개의 웅장한 건물을 지은 뒤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는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고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이곳에서 경기 대회가 열렸다. 이곳은 헤롯 대왕과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통치 때에 유대의 수도였으며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았으므로 로마 권력의 핵심부였다. 여기에서는 그리스, 로마, 유대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자주 일어나서 한번은 20,000명이 죽은 적도 있었다.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이 여기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행8:40; 21:8) 백부자 고넬료도 여기에 있었다(행10:1-48; 11:1-18). 여기에서 헤롯 아그립바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행12:20-23). 사도 바울도 이곳을 몇 차례 방문했으며(행9:30; 18:22; 21:8, 16) 여기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섰고(행23:23; 24:1-27) 2년 동안 옥에 갇혔으며 그 뒤에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기에서 출발하여 로마

로 갔다(행25:26; 27:1).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지도 참조(44).

● 가이사라 빌립보(Caesarea-Philippi, 세서리아 필리아) 이스라엘의 북부 도시 단에서 5.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이곳은 헤르몬 산의 남서 부분이 홀레 호수 위의 평야와 만나는 고원 지대에 있었다. 사분 영주 빌립은 높고 두껍게 이 도시의 성벽을 쌓았고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 빌립보라는 명칭을 더 붙였는데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도달하기 전에 이곳을 지나가셨다(마16:13-28; 막8:27-38; 눅9:18-27). 사분 영주, 변화 참조.

● 가이오(Gaius, 게이오스, 나는 기쁘다) I.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따라간 마케도니아 사람. 그는 에베소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행19:29).

II. 바울이 고린도에서 회심시킨 사람.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그를 후하게 대접했다(롬16:23; 고전1:14).

III. 데베 사람. 그는 고린도에서 와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그를 돌보아 주었다(행20:4).

IV. 요한삼서의 수신인. 요한 서신의 수신인은 '사랑하는 가이오'로 되어 있는데 그는 손님을 잘 접대한 것으로 보아 위에 있는 둘째 가이오일 수도 있다. 이 이름은 로마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다.

● 가인(Cain, 케인, 얻었다) 아담과 이브의 맏아들(창4:1),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벨 참조.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멸했다(창4:6-9). 그에게 내려진 형벌에는 육신적인 고난과 궁핍, 양심의 불안감, 사회에서의 격리,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창4:16).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긍휼도 베푸셨고 그래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심판자임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는 에덴의 동쪽에 있던 놋 땅에 가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지었다. 신약 성경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며(요일3:12) 가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유11).

● 가자(Gaza, 게이자, 강한) 가나안 남서부 귀퉁이의 고대 도시(창10:19). 이곳은 앓사라 불리기도 했으며 아위 족속에게 속하였고(신2:23) 후에 블레셋에게 속하였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는 이곳을 유다 지파에게 배정하였으나 철저히 정복하지는 않았다(수10:41; 11:21-22; 13:3; 15:47). 유다는 잠시 이곳을 소유했지만 재판관들(사사들)의 시대에 이곳은 독립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5대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삿1:18; 3:3; 13:1; 16:1-31). 삼손은 이곳의 성문을 가져갔으며 후에 그곳의 큰 신전과 함께 죽었

다. 재판관 엘리 시절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삼상6:1-21). 가자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하다가 요담과 아하스 때에 자유를 얻었으나 히스기야는 다시 이곳을 정복했고(왕하18:8) 그 뒤에 이곳은 갈대아, 페르시아, 이집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다(렘47:1). 가자는 대언자들이 종종 언급한 도시이다(렘25:20; 47:5; 암1:6-7; 습2:4; 속9:5).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한 것으로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은 마을이 없으므로 사막, 즉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다(행8:26).

● 가정(Home)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정하신 기관으로 사람의 모든 사회에서 근간이 되는 집단이다(창1:27-28; 2:18-24; 3:16). 이스라엘 역사는 가족과 부족, 즉 지파라는 혈족 관계의 집단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고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가족의 족장이 종교의 중심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경우 어머니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유년기 예절을 가르쳤고 소년기에는 아버지가 교육을 맡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민족 역사를 가르치며 신앙심과 애국심을 키워 주었다(출13:8; 신4:9). 심계명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였고(출20:12) 잠언은 그것이 행복의 기초라고 가르친다(잠13:1; 19:13). 아버지, 어머니 참조. 가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성경은 가족의 계보 특히 메시아의 계보를 자세히 기록한다(창5; 대상1-8; 마1:1-17; 눅3:23-38). 계보 참조.

기독교의 윤리는 가정이라는 제도와 기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확증한다(마19:5; 막10:6-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법규는 매우 명백하며 기독교는 부부 간의 결혼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집안의 모든 체제를 존중히 여긴다. 결혼 참조.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딤후5:8) 힘닿는 대로 최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출12:26-27; 신6:6-7; 엡6:4).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눅2:51; 엡6:1; 골3:20) 부모를 공경하고(출20:12; 엡6:1-2) 감사의 보답을 해야 한다(딤후5:4; 요19:26). 그러므로 가족 혹은 가정은 사회의 첫째 형태로서 모든 사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좋은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라야 바른 지역 교회가 될 수 있다.

● 가죽(Skin, leather) 짐승이나 사람의 몸의 껍질(창3:21; 출25:5; 레7:8). 성경에서 이 말은 피부, 살갓 등으로도 표현되었으며 대부분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무두질과 가죽을 물들이는 일은 고대부터 알려져 있었다(출25:5; 행9:43). 무두장이 참조. "내가 굵은 베를 내 살갓에 꿰매 버렸다."(욥16:15)는 욥의 말은 그의 몸이 종기에 의해 변형되어 더 이상 일반 천을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욥2:4)는 말은 "사람이 가죽을 얻기 위해 다른 가죽을 준다."는 말이며

이는 곧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줄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말을 통해 사탄은 하나님께서 육의 생명을 취하려 하시면 그가 심지어 하나님도 배반할 것이라고 고소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번하게 할 수 있느냐?”(렘13:23)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악한 습성을 제거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짐승의 가죽은 천막, 부대, 방패, 옷 등을 만드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출26:14; 겔16:10; 마3:4). 부대, 의복 참조.

● 가증한 것(Abomination) 크게 미움을 받는 대상. 성정은 우상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이런 의식이 더럽고 잔인했기 때문이다(신7:25-26; 12:31). 이 말은 또한 이집트에 거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한 것으로 여긴 짐승들을 잡아 희생물로 드리고 먹었기 때문이거나(창43:32; 출8:26) 혹은 그들이 이집트 종교 체제에서 하는 방식대로 음식을 먹는 일에 저들과 달리 행했기 때문이다(창46:34). 또한 히브리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목자들이었는데 한때 이런 목자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목자들을 미워했을지도 모른다.

‘가증한 것들로 뒤덮는 것’(단9:27)은 일차적으로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주피터 형상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마24:15; 막13:14)은 두 개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건은 로마의 티투스(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성전이 무너진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때 로마의 군인들은 여러 이방신들과 황제들의 형상을 담은 것발을 들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신들에게 경배를 드렸다(눅21:20). 둘째 사건은 말세의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형상을 세우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일과 연관이 있다(살후2:3-5). 결국 에피파네스가 세운 형상은 7년 환란기에 세워질 형상의 예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없었던 극심한 환난을 당할 것이다(마24:21; 단12:1).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환란기, 적그리스도 참조.

● 가지(Branch) 상징적인 차원에서 나무는 위대한 통치자나 인물을 나타내며 가지는 그들의 후손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가지’,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막대기’, ‘그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등으로 표현되었는데(사11:1; 53:2; 3:8; 6:12) 이것은 그분이 다윗 왕의 집에서 나온 왕가의 후손임을 보여 준다(렘23:5; 33:15). 또 가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을 보여 주기도 한다(요15:5-6). 겔8:17에서 이것은 음란한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

향내 나는 가지들을 가져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가죽(Cattle) 양, 염소, 소, 말, 나귀 등과 같이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창1:24; 13:2). 고대에 가죽은 귀중한 재산이었다(창26:14; 욕1:3).

● 간(Liver)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성정이 간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였고(레3:4) 우상 숭배자들은 희생 예물의 간을 들여다보고 짐을 쳤다(겔21:21).

● 간계(Wiles) 간사한 꾀.

● 간 위의 겨풀(Caul) 간을 감싸는 덮개. 이것은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릴 때 주로 콩팥과 함께 언급되었고 내장의 맛있는 부분으로 간주되었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제단에서 태워 하나님께 바쳤다(출29:13; 레3:4; 4:9; 7:4; 8:16).

● 간디캐(Candace, 겐더시) 사도행전 기록 당시 에티오피아의 여왕. 그녀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복음 전도자 빌립의 선포를 통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행8:27).

● 간부(Adulterer, Adulteress)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통한 남자 혹은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간통한 여자. 구약 성경은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면 둘 다 죽일 것을 명한다(레20:10). 호세아 대언자는 자기 아내가 간부를 두고 자기를 배신하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인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배웠다(호3:1).

● 간수(Keeper of the prison) 감옥지기.

● 간음(Adultery)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결혼(정혼) 상대에게만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음행(fornication)보다 더 심각한 죄였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죄로서 심계명의 일곱째 명령이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음행은 당사자들의 추후 결혼 등으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간음은 그렇게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질투하는 남편으로 비교하셨으며(렘31:32)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극도의 간음과 음행으로 비교되곤 했다(렘3:9; 겔23:36-49).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간음의 당사자들은 둘 다 죽임을 당했다(레20:10; 21:9; 요8:5). 한편 이런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 받는 여인은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 질투의 물을 마셔야 했다(민5:11-31).

● 갇힌 자(Prisoner) 감옥에 갇힌 죄수.

● 갈고리(Hook) I. 휘장을 다는 기둥들에 달린 물건(출26:32, 37; 27:10). II. 욕기에는 리워야단의 코에 낚시 바늘 갈고리를 꿰는 대목이 나오고(욥41:2) 왕하19:28에서 이 말은 주님을 멸시한 아시리아의 산해릴 왕이 나중에도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을 표현한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용례가 암4:2에 기록되어 있다.

● 갈그미스(Carchemish, 카르케미쉬)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강한 도시. 사10:9에서 이곳은 아시리아의 강한 왕에 의해 점령당한 것으로 나온다. 유다

왕 요시아의 통치 말년에 이집트의 파라오느고는 이곳을 공격했지만(대하35:20) 그 뒤 5년이 지나 느부갓네살에게 패배를 당했다(렘46:1-12).

● 갈네(Calneh, 갈네) 니므롯의 도시 중 하나(창10:10). 이곳은 갈노(사10:9), 간네(겔27:23) 등으로도 언급되었으며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단 32킬로미터에 위치했다.

● 갈대(Reed) 보통 갈대는 늪에서 자라는 식물을 가리키지만(욥40:21; 사19:6) 어떤 때에는 그냥 우슬초 같은 식물의 줄기를 가리키기도 한다(마27:48; 요19:29). 갈대는 가늘프고 연약하므로 보통 연약함의 상징으로 쓰였다(마11:7). 한편 상한 갈대는(사42:3; 마12:20) 죄로 인해 멸망으로 들어갈 처지에 있는 부서진 혼을 가리킨다. 바로 이런 혼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롭게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신다. 고대에는 갈대를 글 쓰는 도구와 측량 도구로 사용하였다(겔40:5; 42:16).

● 갈대아(Chaldea, 칼디아) 바빌론을 수도로 둔 아시아의 국가. 처음에 이 나라는 규모가 작았지만 그 뒤에 확장이 되어서 좀 더 큰 의미로 바빌로니아를 의미했다. 바빌로니아 참조.

● 갈대아 사람들(Chaldeans, 칼디안스) I. 갈대아 나라의 사람들 혹은 그 계곡의 신하들.

II. 철학자들 혹은 점쟁이들. 그들은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하고 별자리를 이용해 사람의 운명을 예측했다고 전해진다.

갈대아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로서 처음에 아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거주했으나 아시리아 제국이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 거친 사람들은 정복자들의 영향하에서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어 문화 시민들로 바뀌게 되었다. 하박국 대언자는 갈대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범하던 때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의 성격 등을 자세히 묘사한다(합1:6-11). 성경에서는 니므롯과 아브라멜이 바빌론의 처음 왕으로 나타나고(창10:8-10; 14:1-2) 주전 713년경 히스기야의 통치 때에 처음으로 후기 바빌론 제국의 왕이 언급되었으며 히스기야 이후 100년이 지나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빌론 왕국을 차지했는데 이때의 왕은 나보폴라살이었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와 하박국의 예언대로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으며(스5:12; 렘39:5) 그 뒤에 그의 아들 에벨므르닥이 통치하였다(왕하25:27; 렘52:31). 그 뒤 벨사살의 통치 때에 메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켰으므로 갈대아-바빌론 왕조의 통치는 채 100년을 넘지 못했다.

● 갈라(Calah, 케일라) 앗수르 혹은 니므롯이 세운 아시리아의 도시(창10:11-12). 이곳은 니느웨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있었고 여기와 니느웨 사이에 레센이 있었다.

● 갈라디아(Galatia, 갈레이사) 소아시아의 한 지방. 이곳은 비두니아의 남쪽, 본도의 서쪽, 갑바도기아의 북서쪽, 루가오니아와 브루기아의 북동쪽에 위치하였다.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이 이름은 '갈리아 사람들'(Gauls)에서 유래되었다. 갈라디아는 땅이 비옥하고 무역이 성행한 지역이었으며 여러 민족에서 나온 식민지 사람들이 많이 거한 곳으로 유대인들도 여기에 많이 거하였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회심자를 얻었음이 분명하다(고전16:1). 그는 주후 51-52년에 처음 그곳을 방문했고(행16:6) 그 뒤에 두 번째 방문했으며(행18:23) 몇 년 뒤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는 몸이 아팠지만 그들은 이를 '하나님의 천사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복음을 수용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고 율법의 행위를 높이며 유대교의 의식과 기독교를 혼합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다. 그는 그들이 갑자기 진리를 버리고 떠난 것을 책망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권위와 사도직을 받았음을 보여 주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인 골격이 로마서와 같다.

● 갈렘(Caleb, 케일렘, 가) I.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그는 열두 지파에서 나온 열두 명의 정탐꾼 중 하나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민13:1-33; 14:1-45). 그 열두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렘만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했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낙담시키는 말을 하여 심판을 받고 죽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중에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민14:6-24, 38; 26:65). 갈렘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수행한 통치자 중 하나였으며(민34:19) 그의 충성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헤브론이 그에게 주어졌다(신1:36; 수14:1-15).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한 이후에 그는 85세였지만 여전히 강건하여 자기 영토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었고 드빌 땅을 정복한 옷니엘에게 시집가는 자기 딸 악사에게 땅과 샘을 선물로 주었다(수15:13-19; 21:12). 그가 차지한 지역은 오랫동안 그의 이름으로 불렸다(삼상30:14).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와 여호수아는 유다와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로서 민족을 다스렸고 시대 역시 그들의 후손인 유다와 에브라임이 주축이 된 남 왕국과 북 왕국의 대립을 보여 준다.

II. 훌의 아들. 이 사람의 후손은 베들레헬 지역에 살았다(대상2:50-55).

● 갈렙 에브라다(Caleb-Ephrathah, 케일렘에프라타) 헤스론이 죽은 곳(대상2:24).

● 갈르엣(Galeed, 증거의 무더기) 요르단 동쪽의 비옥한 장소(창31:45-48). 아람과 라반은 자신들을 위한 증거물로 여기서 돌무더기를 세웠다.

● 갈리오(Gallio, 갈리오) 사도 바울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아가야의 총독(행18:12-17). 그는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었고 고린도에 거주하였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소송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갔을 때 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다. 그때 거기 있던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처사가 합당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회당의 치리자 소스테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렸다. 평상시 같으면 갈리오가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터이나 그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 갈릴리(Galilee, 갠릴리, 원) 그리스도 당시에는 갈릴리가 요르단 서부와 사마리아 북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했지만 바빌론 포로기 이전에 이 이름은 북부 경계 근처의 작은 지역을 의미했다(왕상9:11).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위와 아래로 나뉘어서 위 갈릴리는 스불론 지파 영도의 북쪽과 산간 지역을 포함했고 아래 갈릴리는 비옥하고 좀 더 평평한 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가리켰으므로 전체 갈릴리는 잇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을 포함했다. 아래 갈릴리에는 400여 개의 마을이 있었으며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사렛과 가버나움도 이 마을들 가운데 속하였다(막1:9; 눅2:39; 요7:52).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이방인들의 갈릴리는 위 갈릴리였는데 그 이유는 그곳의 경계가 두로와 시돈이었고 또 거기에 페니키아, 시리아, 아람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다(눅13:1; 23:6; 요1:46; 7:52).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투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막14:70).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고(행1:11; 2:7)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갈릴리 사람이셨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모욕하는 이름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서부터 서른 살이 되기까지 여기서 살았고 공생애 중에도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셨다. 그래서 나사렛, 나인, 가나,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바다 참조.

● 갈멜(Carmel, 카멜, 열매가 많은 벌판) I. 유다의 도시. 이곳은 헤브론에서 동남쪽으로 13킬로미



갈렙 산과 하이파

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수15:55). 이 산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전리품을 취하며 승리를 기념하는 처소를 세웠고(삼상15:12) 아비가일의 남편 갈렙 사람 나발 역시 여기 거했다(삼상25:2).

II. 가나안 땅의 북서쪽 산지. 이곳의 정상은 450미터 정도이다. 이곳의 북동쪽에는 기손 시내가 있고 12세기에는 천주교의 갈렙과 수도원이 이 지역에 세워졌다. 갈렙 산 밑으로는 넓은 광야가 있고 거기에는 발과 올리브나무가 많았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곳을 자주 방문했으며(왕하2:25; 4:25) 이곳은 특별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의 대언자들을 멸한 것으로 유명하다(왕상18:1-46).

● 갈보리(Calvary, 켈버리) 해골의 장소. 이곳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으로 예루살렘 근처의 성벽 밖에 있었다(마27:33; 막15:22; 요19:17, 20; 히13:12). 바로 이곳에 개인의 정원과 무덤이 있었고 주님의 몸은 여기에 안치되었다(요19:41-42).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KJV)만이 눅23:33에 갈보리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 갈비뼈(Rib)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옆구리를 뜻하며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하나를 취하여 이브를 만드셨다(창2:21-22). 성경은 사람을 창이나 칼로 죽일 때 다섯째 갈비뼈 밑을 찔렀다고 기록한다(삼하2:23; 3:27; 4:6; 20:10).

● 감금하다(Ward) Ward는 ‘호위를 받게 하다는 뜻으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창40:3; 레24:12). 또 Ward는 또한 호위하며 직무를 지키는 것이나(느12:25; 사21:8) 혹은 호위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였다(행12:10; 참조 대상25:8; 26:16).

● 감독(Bishop) 어떤 것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사람. 신약 성경에는 행20:28; 빌1:1 등에 감독 혹은 감독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시다(벧전2:25). 신약 성경에서 감독은 곧 장로요 목사이다. 감독의 자격은 딤후3:1-7; 딤후1:7 등에 자세히 나와 있다. 목사 참조. 처음부터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치리자로 감독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세창과 타협하여 로마 카톨릭교회가 생겼고 그 시스템에서는 감독

이 지금의 목사가 아니라 주교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천주교의 주교를 뜻하는 감독 대신 목사라는 명칭을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 항상 한 지역 교회의 감독이며 결코 한 지역이나 나라의 모든 목사들을 다스리는 주교로서의 감독이 아니다.

- 감독 교사(Schoolmaster) 훈육 선생 참조.

- 감사(Thanksgiv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를 표시하는 찬양의 행위.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자주 언급된다(시136). 따라서 감사는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였고(시95:2) 성도들은 노레나 희생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였다(시54:6).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를 이루신 것이 성도들의 감사의 원천이다.

이상적으로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은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살전5:18). 신자는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엡5:20; 골3:17) 특히 구원과 성화로 인해 그리해야 한다(롬7:25; 골1:3-5; 살전1:2-7; 2:13).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뜻에 따라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한다(빌4:6; 롬8:28-29).

- 갑(Cab) 히브리 사람들의 부피 단위. 이것은 약 1.2리터이며(왕하6:25) 육분의 일 스이이고 십팔분의 일 에바이다.

- 갑도림(Caphtorim, 캅타림) 갑돌 사람들, 미스라임의 후손, 기슬루힘의 친족(창10:13-14). 그들은 기슬루힘 부족의 거주지 근처에서 아프리카의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였고 기슬루힘과 갑돌 이 둘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들로 언급되었다(창10:14; 신2:23; 암9:7). 이 두 부족으로 구성된 식민지 사람들은 지중해 동남부 연안의 지역에서 아위 족속을 몰아내고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 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블레셋 사람들 참조.

- 갑바다(Gabbatha, 가버배, 올라간 곳) 빌라도가 거하는 집 앞에 있던 장소로 '높이 올라간 곳'을 뜻한다. 여기서 그는 주님을 향해 죽음의 선고를 내렸다(요19:13). 이것은 그리스어로 '돌로 포장한 곳'이라는 뜻이며 그 당시 부유한 로마 사람들에게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조금 높이 만든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다.

- 갑바도기아(Cappadocia, 캅파도시아) 소아시아의 가장 큰 지방. 이곳의 북쪽에는 흑해 근처의 본도, 남쪽에는 길리기아와 시리아, 서쪽에는 갈라디아, 동쪽에는 유프라테스와 아르메니아가 있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3). 이곳은 목초지가 좋고 따라서 말과 나귀와 양이 좋은 것으로 유명했으며 거기에는 또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렀고(행2:9)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가 빨리 소개되었

다(벧전1:1).

- 갑옷(Armor) 무기 참조.

- 갓(Gad, 갓, 군대) I. 야곱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창30:11). 레아는 그에게 '군대가 온다는' 뜻을 가진 갓이라는 이름을 주었다(창49:19). 이집트에서 나온 갓 지파는 45,650명이었으며(창46:16; 민1:25) 옥과 시혼을 멸한 뒤에 갓과 르우벤 지파는 자기들의 가족이 많으므로 요르단 동쪽에서 땅을 얻기 원했고 모세는 그들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요르단 서쪽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는 일을 도우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민32:1-42). 갓의 상속지는 북쪽으로 므낫세, 남쪽으로 르우벤 사이에 있었고 서쪽으로는 요르단,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의 땅이 경계였다. 한편 갓의 북서쪽은 갈릴리 바다로 뻗어나갔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갓 지파 지도 참조(19, 26). 이곳은 좋은 목초지였으나 동쪽의 아라비아 사람들로 인해 갓 지파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신33:20; 대상5:18-26; 12:8). 갓의 주요 도시들은 길르앗의 도시들이라 불렸다(수13:25).

II. 다윗의 친구, 선견자, 대언자.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당할 때 그를 따라다녔고 종종 그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삼상22:5; 삼하24:11-19; 대상21:9-19; 대하29:25). 그는 다윗의 일생을 담은 기록을 남긴 것 같다(대상29:29).

- 갓은 족속(Kadmonites, 캐드머니즈) 요르단의 동쪽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의 일부(창15:19). 그들은 헤르몬 산 부근에 산 것으로 추정된다.

- 갓미엘(Kadmiel, 캐드미엘, 하나님은 오래된 분이다) I. 스룹바벨과 더불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레위 사람(스2:40).

II. 포로 생활 이후에 주님의 성전 일을 도운 사람(스3:9).

- 강(River) 여러 개의 히브리어가 강으로 번역되었다. I. 예오르(Yeor). 이것은 이집트 말로 강을 뜻하며(출28:10과 단12:5-7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나일 강과 그 주변의 여러 수로를 뜻한다.

II. 나하르(Nahar).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처럼 항상 흐르는 강을 뜻한다. 영어에서는 종종 큰물을 뜻하는 홍수(flood)로 번역되기도 하였다(수24:2-3 등).

III. 나할(Nahal). 이것은 우기에만 물이 흘러가는 골짜기(민34:5 등)이며 그래서 종종 시내라 번역되었다(민13:23; 출6:15 등). 이런 시내는 동방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함과 지속성이 없음을 뜻하였다. 우기에는 흐르지만 해가 내려쬐는 여름에는 말라버리는 시내는 간절한 기대를 갖고 거기를 찾은 여행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곤 하였다(출6:15-20; 렘15:18).

한편 성경에서 강이라는 단어는 탱크나 저수지 등에서 소량의 물을 흘러보내는 수로를 뜻하기도 하였다(겔31:4). 이런 수로들은 대개 사람들이 흙을 밟아서 만들었으며 그래서 신11:10 말씀, 즉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밭로

물을 대었다.”는 말씀은 이와 상관이 있는 듯하다(잠 21:1 참조).

- 강권(Constrain) 강력히 권면하다.

- 강도(Robber) 위협이나 폭력을 써서 물건을 강탈하는 사람(욥5:5; 겔18:10; 요10:1; 18:40).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길에는 행인을 습격하는 강도가 많았다(눅10:30).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는 강도였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협을 당했다(고후11:26).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착취와 강탈을 일삼는 장사치들이 그분의 집을 강도의 소굴, 즉 강도들이 때로 거하는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다(마21:13; 막11:17; 눅19:46). 말라기 대언자는 하나님께 마땅히 바칠 것을 바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자들이라고 책망했다(말3:8).

- 강력(Might) 꺾이지 아니하는 굳센 힘. 이것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의 한 등급을 뜻하기도 한다(엡1:21).

- 강신술사(Necromancer) 죽은 자를 불러내어 미래의 사건이나 미지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신18:10-11). 강신술은 사람들이 당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큰 범죄였다(레20:27). 지금 이 시대에도 모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악령들을 불러내어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심령술 참조.

- 강박하다(Harden) 성격이 까다롭고 완고하다. 원래 이 말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여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출7:13-14; 11:10; 막6:52; 히3:13).

- 강탈(Robbery) 강제로 빼앗는 것.

- 개(Dogs)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와 개를 숭배했지만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경멸했으며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개와 비기는 것이 가장 큰 모욕이었다(삼상17:43; 24:14; 삼하9:8). 개들은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거리에서 때를 지어 다니며 자선의 손길을 기다렸고 또한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었다. 그것들은 대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었으므로 시체도 찾아서 먹고 밤에는 심지어 사람들도 공격했다(시59:6, 14-15; 왕상14:11). 성경에는 탐욕에 빠진 사람들과 짐승같이 사악한 자들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시22:16; 신23:18; 마7:6; 빌3:2; 베후2:22; 계22:15).

- 개신(개가)를 부르다(Triumph)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

- 개구리(Frog) 개구리는 이집트에서의 열 가지 재앙과 관련하여 유명하다(출8:1-14).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사용해서 개구리들을 땅에 올라오게 하였지만 그것들을 없애지는 못하였는데 이로 보아 그들은 그것들을 만들어 내지 못했음이 확실하다. 개구리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들어와 그들을 괴롭혔다.

- 개미(Ant) 부지런하고 경제적이며 사회 습관과 집을 짓는 기술 등이 뛰어난 곤충. 어떤 종류들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큰 집을 짓기도 한다. 솔로몬은 일할 수 있는 계절에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으는 개미를 칭찬하면서(잠6:6) 개미처럼 근면하게 수고할 것을 충고한다(잠30:24-25). 개미같이 사람보다 열등한 짐승들도 때로는 여러 면에서 죄 많은 사람보다 지혜롭다(욥12:7-8).

- 개종자(Proselyte, 프라셀라이트) 유대인들이 볼 때 이교도 신앙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히브리 사람들의 율법은 ‘네 성문들 안에 거하는 타국인’이라는 말을 자주 하며(레17:8-16; 24:16; 민15:14-16) 그런 사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개종자를 만들어 법규와 의식을 지키게 하지 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을 크게 책망하셨다(마23:15; 롬2:28-29). 그리스도 당시에는 개종자가 많았으며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다(행2:10; 8:27). 한편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다시 구원받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요12:20; 행6:5; 13:43; 17:4).

- 개혁의 때(The time of reformation) 히9:10에 나오는 구절로 9절에 있는 현재 곧 이때와 대비되는 때를 뜻한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reformation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중세 암흑시대라는 무지의 시대에서 벗어나게 해 준 종교 개혁(Reformation)을 나타내는 말이다.

- 거듭남(Being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참조.

- 거러사(Gerasa, 게라사) 가다라 참조.

- 거룩하신 분(Holy One)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한 호칭(왕하19:22; 시71:22; 사1:4; 5:19; 60:9). 특히 대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무려 25번이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 부르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사6:3). 따라서 이 말은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이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2회 썼다(렘50:29; 51:5).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는 ‘거룩한 자’로 표현되어 있다.

- 거룩함(Holy, Holiness) 거룩함은 종종 밖으로 나타난 깨끗함을 표현하고 어떤 때는 내적인 순수함과 성결함을 나타낸다. 참된 거룩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 특징을 부여한다. 거룩함은 내적인 원리이므로 단순히 정직함이나 긍휼 등과 같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뜻하지 않고 모든 선한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무한대로 완전한 방법으로 거룩한 존재이시다(사1:4; 6:3). 메시아 역시 거룩한 분이었고(시16:10; 눅4:34; 행3:14) 물론 성령님 역시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무죄함과 성결함의 근원이다. 사람은 첫 사람 아담

의 타락 때에 이 모든 거룩함을 상실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자들이 자신의 거룩함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성결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일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선도 참조(60).

성경은 거룩하다는 말을 2차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천국과 그분의 성전과 그 안의 기구들과 그 안에서 행하는 일과 그분의 날과 그분의 사역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거룩하다. 성경은 또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된 사람들이며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이 내적인 순수함과 긍휼과 깨끗함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현대 교회는 거룩함을 잃고 있고 그것을 사랑과 혼동하고 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 600여 회 나오며 사랑은 480회 정도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사랑보다 거룩함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영광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거룩하게 경배하여야 한다(출15:11; 대하20:21; 사6:2-3; 계4:8).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시29:2).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실로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였으며 그 결과 그분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의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참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을 조절하는 근본 속성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속죄는 사랑에서 왔으나 그 사랑을 요구한 것은 그분의 손상된 거룩함이었다.

모든 사랑은 기준이 있어야 바른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거룩함이다. 사랑이라는 엔진이 아무데나 굴러가면 무절제의 도구가 되는데 그분의 거룩함이 사랑의 엔진을 조절하여 바른 곳으로 인도하므로 그것은 사랑보다 높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만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사람도 도덕적 측면에서 그분과 같이 거룩해야 하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요구한다(레20:26; 골전1:15-16).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을 믿으며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 불린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거룩함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 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함을 찾기 어렵고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려 한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궤도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각종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하나님은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경배를 가증히 여기신다(잠28:9).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이상과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야곱과 같이 베엘로 올라가야 거기에 부흥이 있다(창35:1-5).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는 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사랑 참조.

● 거룩히 구별하다(Sanctify) 이 말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모두 '분리하다'를 뜻하며 그래서 대개 '거룩히 구별하다'로 번역되었고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것을 뜻한다(창2:3; 출19:23). 구약 성경에서 성별은 주로 의례를 통해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을 뜻하며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의식과 속죄를 통해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언약 백성이었다(출31:13). 또한 유대인들의 성막과 제단과 제사장 등은 다 주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었다(레8:10-12). 유대인들은 주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였고(출19:10-11; 민11:18) 금식과 기도를 위해 한 날을 거룩히 구별하기도 하였으며(을1:14) 안식일도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날로 구별하였다(신5:12). 모세의 정결례도 이것과 연관이 있지만(민6:11; 레22:16, 32; 히9:13) 영적인 본성의 성화와는 상관이 없었으며 단지 유대인들에게 영적 성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슬초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과 더불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사 자기 속에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시51:7-10).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언하면서 사람이 그분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함을 보여 준다.

신약 성경의 교리 면에서 성별은 전에 더러워졌던 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의 과정이다. 거룩함, 성화, 분리 참조.

● 거룻배(Boat) 돛 없는 작은 배(행27:16, 30, 32). 배 참조.

● 거리(Streets) 고대 팔레스타인의 마을이나 도시의 거리들은 평평하지 않았고 또 바퀴 달린 도구나 운송 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좁았으며 대개

성문 근처의 큰 공공 부지에서 끌이 났다(느8:1). 이 같은 거리들은 대개 지금처럼 이름이 붙여져 있었고(행9:11) 같은 종류의 상점이 같은 곳에 모여 있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되기도 하였다(느3:31-32; 렘37:21). 사람들은 거리의 모퉁이나 튀어나온 곳에 카펫을 깔고 앉기를 좋아하였으며(삼상4:13; 욥29:7) 기도 시간에 거기서 기도하곤 하였다(마6:5).

● 거미(Spider) 읍은 사악한 자들의 소망을 연약한 거미줄에 비교하고(욥8:14) 이야이는 죄인들의 일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미줄이라고 말한다(사59:5-6). 한편 잠30:28에는 왕궁에 거하는 거미가 지혜로운 것으로 나온다.

● 거역하다(Rebel) 히브리어에서 반역 혹은 거역은 죄, 불복과 함께 세 가지 주요 사악함 가운데 하나였다(사1:2-4). 특별히 대언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거역 행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며 질투하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렘2:3; 20:8).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 사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악한 존재인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 거울(Looking glass) 물건을 비치기 위한 금속.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놋, 금, 은 등을 연마해서 거울로 썼으며 이집트 탈출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런 거울을 가지고 나왔다. 유리 거울은 그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개발되었다. 석막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던 물두멍은 놋 거울로 만들었다(출38:8). 이처럼 잘 연마된 금속 표면은 아주 좋은 거울이었으나 표면이 완전하지 않았으므로 조금은 찌그러진 상을 만들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본다.”고 말했는지 모른다(고전13:12). 욥37:18은 거울을 하늘에 비하고 있지만 금속 거울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이 뚜렷하지 않았다(약1:23).

● 거인(Giants)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불법적인 결합에 의하여 하이브리드 거인들이 생겼으며(창6:1-4) 홍수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었는데(창14:5; 수17:15) 그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았다(신2:10, 11, 20). 바산 왕 옥 역시 거인 종족이었다(신3:11, 13). 사해의 서쪽 헤브론 근처에는 아나 족속이라는 거인들이 살았으며(민13:33; 수11:21-22) 후대에는 골리앗과 그의 종족들이 여기에서 나왔다(삼상17:4; 대상20:4-8). 아나 족속, 골리앗,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 참조.

● 거제 헌물(Heave offerings) 들어 올리는 헌물. 희생물 참조.

● 거짓(Falsehood) 구약 성경은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 주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근본적인 거짓으로 표현한다(사28:15). 이 경우 거짓은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포함한다. 이처럼 거짓에 매여 사는 사람은 거짓으로 말미

암아 잘못을 범하고(암2:4)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며(렘10:14) 거짓 꿈을 꾸다(슌10:2). 이들은 또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거짓으로 말하며 두 마음을 품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므로 성경은 그들을 거짓 대언자라 부른다(시12:2; 렘29:9).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연인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긴다(롬1:25). 헛된 것 참조.

● 거짓말(Lie)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말. 대다수 거짓말의 동기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창3:1-13) 두려움 혹은 교만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마26:69-75; 행5:1-11). 성경은 거짓 말하는 것을 강조해서 정죄한다(출20:16; 렘4:25). 거짓말은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므로 용지 않으며(딤후1:2; 히6:18)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것이다(롬1:25; 요일1:6).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한다(엡4:25).

예수님은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라고 규정하셨다(요8:44).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 말하는 자이며(요일2:22) 또 하나님과 사귄다 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걸으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한다(요일1:6; 2:4). 구약의 아간과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록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했으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경고의 본보기이다(수7:22-26; 행5:1-11).

● 거짓 그리스도(False Christs) 우리의 구원자는 나중에 거짓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으며(마24:24)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지금도 대부분 이단 종파의 주동자들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참조.

● 거짓 대언자(False prophet) 성경에는 예로부터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았으며 그들은 다 거짓 대언자라 불린다(행13:6; 행20:1; 요일4:1). 특별히 신약 성경은 말세에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할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아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이며(마7:15) 큰 표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마24:11, 24).

한편 성경은 7년 환난기에 사탄 마귀와 그의 아들 적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의 삼위일체’를 구성하여 수많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이끌 거짓 대언자에 대해 말한다. 사탄의 삼위일체 선도 참조(71).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고 그것을 묘사한 뒤 다시 땅속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았다(계13:11-17). 그것은 양처럼 생긴 짐승이었으며 용처럼 말을 한다. 이 둘께 짐승의 호칭이 바로 거짓 대

언자이다(계16:13; 19:20; 20:10),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인격체인 것처럼 거짓 대언자도 인격체이다. 그가 거짓 대언자라고 불린 것으로 보아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마24:24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를 구분하셨기 때문이다.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 낸 '사탄의 삼위일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은 아버지 곧 사탄이고 짐승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대언자는 '용-아버지'와 '용-아들'에게서 나와 용처럼 말하는 '대적하는 영'이다. 용은 대적하는 신이고 짐승은 대적하는 그리스도이며 거짓 대언자는 대적하는 영으로서 이 셋이 모두 불 호수에 산채로 던져진다는 사실(계20:10)은 그들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거짓 대언자는 왕이 아니며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높인다. 그와 첫째 짐승과의 관계는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관계와 유사하다. 그는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할 것이며 또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성령님을 흉내 낼 것이다. 거짓 대언자는 또한 이적을 행할 것이며 그의 이적 가운데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 오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거짓 대언자에게 이 같은 능력을 부여하는 사탄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욥1:16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또한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 뒤 그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 짐승이 말을 하게 만들며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도록 할 것이다. 거짓 대언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할 것이다(계13:16-17).

그러나 7년 환난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 있고 이때에 사탄인 용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속으로 떨어지며(계20:1-3)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 호수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마감할 것이다(계19:20).

● 거짓 사도(False apostles)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없이 스스로를 사도로 위장하는 사람(고후 11:13). 특히 초대 교회에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이득을 보려고 몰래 교회에 기어들어 오는 자가 많았다. 현재에는 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통이나 영적 선물(은사) 등을 통해 사도 계승권을 주장하는 자들(신사도 운동 하는 자들) 역시 현대판 거짓 사도라 할 수 있다(계2:2-4).

● 거짓 증인(False witness)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은 거짓 증언을 엄격히 금하며(출20:16; 신5:20; 마19:18) 주님은 이것을 크게 미워하신다(잠6:19). 거짓 증인은 위증으로 자기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 한 대로 형벌을 받아야 했다

(신19:16-21).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고용하여 그를 모함하고 살해하였다(왕상21:9-13).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실 때에도 제사장과 공회는 그분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많은 거짓 증인을 구했다(마26:59; 막14:56).

● 거짓 형제(False brethren) 그리스도인 형제로 가장하고 교회에 들어와 이단 사상 등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고후 11:26; 갈2:4).

● 건강(Health) 주님은 신자의 얼굴의 건강이시며(시42:11; 43:5)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들 역시 우리 몸의 건강이다(잠3:8; 4:22).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마9:12; 막2:17). 사도 요한은 신자의 혼이 잘 됨같이 신자가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랐다(요삼 2).

● 건축자(Builder) '건물을 짓는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며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일에서 건축자라 불린다. (1) 민족을 세우는 일(시 69:35; 102:16; 렘12:16) (2) 다윗의 왕좌를 세우는 일(시89:4) (3)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시147:2) (4) 유다 혹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사58:12; 61:4; 65:21; 렘31:4, 28; 42:10; 겔36:36; 암9:11) (5) 건축자들이 거부한 통도잇들을 세우는 일(시118:22-23; 마 21:42; 막12:10; 눅20:17; 행4:11; 행전2:7).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건축자로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심을 보여 주며(고전 3:9, 16; 마16:18; 행전2:5)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진다(엡2:22; 골2:7).

● 걷다(Walk) 걷는다는 말은 종종 상징적으로 사람의 생활양식 혹은 영적 성품, 관계 등을 뜻한다(겔 11:20).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혹은 영적인 사람으로 걸으며(롬8:1) 하나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창5:22) 무지한 가운데 혹은 알면서 죄 가운데서 걷기도 하고(사43:2)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 가운데서 걷기도 한다(시89:15; 계3:4).

● 걸러 넘어지다(Offend) 실족 참조.

● 걸림돌(Stumbling block) 걸러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혹은 사람을 죄로 인도하는 것.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도 쓰이고(레19:14) 상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렘6:21; 습1:3).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고 지금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다(고전1:23).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약한 사람들을 희생해서 자기의 자유를 찾으려 하면 걸림돌이 된다(고전8:9). 범죄 혹은 실족 참조.

● 검(Sword)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검 혹은 칼이 나온다. 단검은 50센티미터 정도였고 사람들은 칼집에 그것을 넣어 띠로 묶어 가지고 다녔다(삼상 17:39; 삼하20:8). 칼은 상징적으로 전쟁과 살육(레 26:25; 사34:5), 하나님의 심판(신32:41; 시17:13; 렘 12:12; 계1:16), 권능과 권위(롬13:4) 등을 나타냈으

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렘6:17; 히4:12) 그리스도(사49:2; 계1:16), 하나님의 공의(신32:41; 슥13:7), 하나님의 보호(신33:29), 심한 재난(겔5:2, 17; 14:17; 21:9), 심한 정신적 고통(눅2:35), 사악한 자들과(시17:13) 그들의 혀(시57:4; 64:3), 그들의 학대하는 영(시37:14), 그들의 종말(잠5:4)의 상징으로 쓰였다. 칼을 뽑는 것은 전쟁과 파멸의 시작을 뜻하였고(레26:33; 겔21:3-5) 칼집에 넣는 것은 평화와 우정을 뜻하였다(렘47:6). 검으로 사는 것은 약탈하는 것을 뜻하며(창27:40) 검이 떠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계앙을 뜻한다(삼하12:10). 무기 참조.

● 게난(Cainan, 케이난) I. 에노스의 아들, 마할랄레엘의 아버지(창5:9; 대상1:2).

II. 아브라함의 아들, 켈라의 아버지(눅3:36). 이 가이난(게난)은 구약의 다른 족보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창10:24; 11:12; 대상1:24 참조).

● 게네사렛(Gennesaret, 기네사렛) 긴네렛의 변화 형태. 긴네렛 참조. '게네사렛 땅'(마14:34; 막6:53)은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있던 5-6킬로미터 길이의 땅이었다. 이곳은 비옥하고 아름다웠으며 아마도 여기에 주님께서 자주 방문하신 가버나움과 벧새다가 있었을 것이다.

● 게달(Kedar, 키더르, 강력한) 이스마엘의 아들(창25:13).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던 게달 족속의 조상인데 그들은 수가 많고 힘이 강했지만 좋은 명성을 갖지는 못했다(시120:5). 그들의 이름은 아라비아 사막과 그 안에 거하는 거주민들을 나타내었다(사21:16-17; 42:11). 그들의 검은색 낙타털 장막은 멋있는 광경을 만들었다(아1:5).

● 게데스(Kedesh, 키데쉬, 거룩한 곳) I. 납달리 땅에 있던 도피 도시. 이곳은 메롬 호수에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수19:37; 20:7).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납달리 지파 지도 참조(19, 24). 이스라엘의 재판관 바락이 여기서 태어났다(삿4:6).

II. 유다의 남부 도시(수15:23).

III. 잇사갈의 도시(대상6:72).

● 게델(Geder, 기더르, 돌벽) 고대 가나안 족속들의 장소. 이곳은 유다의 평야에 있었으며 이 이름은 성벽 혹은 성채 등을 의미했다(수12:13). 이곳은 그 데라와 같은 곳으로 추정된다(수15:36).

● 게라(Gerah) 유대인들이 사용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혹은 무게. 이것은 이십분의 일 세켈이었으며(출30:13) 지금의 무게로는 0.57그램이다.

● 게렌합복(Keren-Happuch, 케런하파크) 욕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얻은 세 딸 중 막내(욥42:14-15). 여미마 참조.

● 게르게스 사람들(Gergesenes, 거르거신즈) 마8:28에 나오는 사람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다. 가다라 참조.

● 게르손(Gershon, 거산, 추방당한) 레위의 맏아들. 그는 레위 지파의 세 분파 중 하나의 우두머리였

다(창46:11; 출6:16).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동안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쳤고 성막의 휘장과 다른 비품들을 나르는 일을 맡았다(민3:17, 25-26; 4:24-28, 38-41; 10:17). 그들에게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열세 도시가 배정되었다(수21:6; 대상6:62, 71).

● 게르솜(Gershom, 거삼, 머물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자기 아내 십보라에게서 얻은 두 아들 중 하나. 이 이름은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다(출2:22; 18:3).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지 않고 단지 레위 사람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대상23:15). 레위의 맏아들(대상6:16), 비느하스의 아들(스8:2), 므낫세의 아들(삿18:30)의 이름도 게르솜이다. 특별히 레위의 맏아들 게르솜은 종종 게르손이라 불렸다. 게르손 참조.

● 게바(Cephas, 씨파스, 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시리아 혹은 히브리 이름(요1:42). 베드로 참조.

● 게바(Geba, 기바, 언덕) 베나민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의 도시(수21:17; 대상8:6). 이곳은 라마 근처에 있었고(느7:30; 사10:29) 유다의 북쪽 경계에서 멀지 않았으며(왕하23:8; 슥14:10) 예루살렘에서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게바 근처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고(삼하5:25) 아사는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재목으로 이곳을 다시 세웠다(왕상15:22).

● 게셀(Gezur, 기저, 분리된 곳) 가나안 족속들의 주요 도시(수10:33; 12:12). 이곳은 벤호론과 지중해 사이에 있었으며(수16:3) 후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 경계에 놓였고 레위 사람들에게 배정되었다(수21:21).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이곳에 발판을 두었으나(수16:10; 삿1:29) 이곳은 이집트 왕에 의해 정복되었고 솔로몬의 아내가 된 그의 딸에게 주어졌다(왕상9:16).

● 게셀(Geshem, 게셀, 비) 느헤미야 당시 조롱과 음모로 주님의 일을 방해한 아라비아 사람(느2:19; 6:1-9).

● 게하시(Gehazi, 기헤이자이, 환상 골짜기) 엘리사의 종. 그는 수넵 여인의 이야기와(왕하4:8-37)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에 나온다. 그는 나아만으로부터 엘리사가 반기를 거부한 선물 중 일부를 몰래 받고 영원토록 나병 환자가 되는 저주를 받았다(왕하5:20-27). 그는 후에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의 이적들을 이야기했으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수넵 여인이 들어와 왕에게 자기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왕하8:1-6).

● 게헨나(Gehenna, 기헨나)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몰레에게 바치던 골짜기. 구약 성경에서 이곳은 대개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불렸다(왕하23:10; 렘7:31; 19:2-6). 후에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불이 끊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서는 게헨나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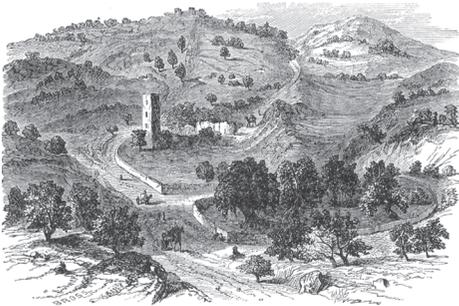
고 하셨다(사66:24; 마5:22, 29-30; 10:28; 18:9; 23:15, 33; 막9:43, 45, 47; 눅12:5). 게넨나는 불 호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계19:20; 20:10, 14-15). 지옥, 불 호수, 흰눈 잡초. 지하 세계 선도 잡초(81).

● 겐 족속(Kenites, 케나이츠) 사해의 서쪽에 거하던 백성. 그들은 아라비아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겐 족속이었고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동하여 다른 겐 족속들과 함께 가나안의 여러 지역에 살았다(삿1:16; 4:11; 삼상30:29; 대상2:55). 헤벨과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겐 족속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겼으며 히브리 사람들과 친밀히 지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치기 위해 군사들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살던 겐 족속들을 살려 주었다(민24:20-21; 삼상15:6).

● 겐 족속(Kenizzites, 케니자이즈, 사냥꾼) 고대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창15:19).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피를 섞으면서 정체성을 잃고 여호수아 때에는 부족의 이름을 잃은 것 같다. 그들과 그나스 족속(Kenezites), 즉 그나스의 후손은 구분하여야 한다. 그나스 참조.

● 겐그레아(Cenchrea, 쉐크리아) 고린도의 항구.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상업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또한 초대 교회가 위치한 곳이었으며(롬16:1)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1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로 향해했다(행18:18).

● 겿세마네(Gethsemane, 게제마니,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예루살렘을 마주 보는 올리브 산 기슭 계곡의 동산이나 작은 숲. 주님께서서는 종종 이곳에 들어가셨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자신의 고통과 피땀을 이겨내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다(마26:36-57).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잡으려고 도시의 성문에서 횃불을 들고 유다의 안내를 받으며 나오는 일단의 무리를 쉽게 보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 참조(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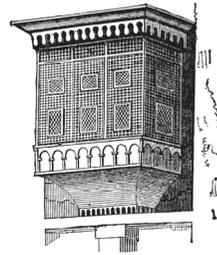


- 겨리(A yoke of oxen) 소 두 마리.
- 겨자(Mustard)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식물 중 하나. 이것은 키가 2-3미터, 가지 굵기가 2.5센티

미터 정도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와서 깃들일 수 있다(마13:31-32; 막4:31-32). 팔레스타인의 채소 중에서는 겨자가 가장 작은 씨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마17:20; 눅17:6)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 격동(Stir)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몹시 감동하거나 충동하는 것.

● 격자(Lattice) 창 앞에 붙인 그물 모양의 구조물(삿5:28; 왕하1:2; 잠초 잠7:6).



● 견과(Nut) 호두, 밤 등과 같이 껍질이 딱딱한 열매.

● 결말(End) 일의 끝. 야고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말, 즉 복에 대해 언급하며 안내할 것을 권고한다(약5:11). 옳은 참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욥42:12). 한편 주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 관한 일들은 끝(결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눅22:37) 이것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자신에 관한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결박(Bond) 속박하는 모든 것. 성경은 이삭(창22:9), 시므온(창42:24), 삼손(삿15:10), 므낫세(대하33:11), 시드기야(렘39:7), 에레미야(렘40:1),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단3:20), 침례자 요한(마14:3), 예수 그리스도(마27:2), 바울(행21:33), 네 천사(계9:14), 사탄(계20:2) 등이 결박당했음을 보여 준다. 이 말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의무 역시 결박으로 표현된다(민30:2, 4, 12). 또 이 말은 학대와 포로 되는 것과 고통 등을 뜻하기도 한다(시116:16). 성경은 화평의 매는 띠(결박하는 것)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다(엡4:3). 사랑은 그리스천 인격의 완성이므로 완전하게 매는 띠(결박하는 것)이다(골3:14). 한편 죄수들을 묶는 사슬도 결박이나 매는 것으로 불린다(행20:23).

● 결혼(Marriage)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결합으로 인류의 존속과 행복을 위해 창조자께서 예비하신 규례(창1:27-28; 2:18-24).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기초가 되며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을 조장함으로써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미덕과 부지런함과 명예와 바른 습관

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모든 것을 갖도록 만
든다. 하나님은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서
서 일부일처 제도를 확립하셨다(말2:15).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인 라벡은 처음으로 일부다처제를 실행
한 인물이었다(창4:19-24).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
로 여자를 취해 아내를 삼았다(창6:2). 한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한 아내만을 두었다. 욥도 한 아내만
을 두었으며 나훔, 룻,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처
음에는 한 아내만을 두었다. 첩 참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다처 제도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 되었고 성경은 이런 악습의 결과로 인한
폐해를 잘 보여 준다(창16:7-16; 사8:30; 삼하3:3-5;
왕상11:1-8; 대하11:18-21; 13:21).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일부다처제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은 결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가
지고 있었다(레18, 20; 신27:20-23).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되
었으며(출34:16) 후에는 그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
특히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혼이 엄격하게 금
지되었다(느13:23-29). 또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는
경우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
여 그녀가 처음 낳은 아들이 전 남편의 아들이 되게
하는 법규(형사취수 제도)가 있었다(창38:1-30; 신
25:5-10; 마22:23-26). 주님 역시 결혼이 가장 성스럽
고 영원한 제도임을 확실히 보여 주셨고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을 금하시고(마5:32; 19:3-9) 결혼 서약을
파괴하는 일 - 심지어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마5:28) - 을 책망하셨다(히13:4; 계21:8).
이혼 참조.

유대인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자기 자식들
의 결혼을 준비하고 종종 딸의 동의 없이도 일을 진
행하였다(창21:21; 24:1-67; 34:4-6; 사14:2-3). 결혼
상대자들은 실제적인 육체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전
에 정혼을 약속하였다. 정혼 참조. 또한 구혼자는 신
부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지침을 주었다(창29:20;
출22:16; 신22:29; 삼상18:25). 결혼식은 아주 성대
하게 이루어졌고 오랫동안 연회가 열렸다. 또한 신
랑은 주님께서 '신랑의 친구'(요3:29)라고 부른 들리
리를 세웠고 그와 함께 여러 젊은이들이 결혼식 축
제의 날들에 함께하며 신랑의 영예가 되었다. 마찬
가지로 신부도 이때에 들리리 친구들을 두었다. 신
랑의 동무들에 관하여는 삼손의 이야기가 잘 보여
주며(삿14:11, 20; 아5:1; 8:13; 마9:15) 신부의 들리
리는 사45:9, 14; 아1:5; 2:7; 3:5; 8:4에 잘 묘사되어
있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을 주관했으며 신부의
친구들은 결혼식 노래를 불렀다. 결혼식은 엄격한
예법을 지키면서 수행되었고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
은 각각 다른 방에서 음식을 먹었다. 유대인 신부와
신랑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기 전까지 결혼식에서
머리에 관을 썼다(비고 야3:11; 사61:10). 한편 결혼

식 자체는 아주 간단해서 결혼 계약을 읽는 것(잠
2:17; 말2:14) 친구들이 축복을 비는 것이 전부였다
(창24:60; 룻4:11-12).

보통 결혼식은 처녀의 경우 7일 동안, 과부의 경우
3일 동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레아
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고 이야기하였고(창29:27) 재
판관 삼손의 결혼 축제도 이레 동안 진행되었다(삿
14:17-18).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과정은 결혼한 사람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축제의 행렬이었다. 대
개 그들은 밤에 이 일을 하였으며 그래서 신부의 친
구들이 열 처녀는 밤에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기 위
해 준비하고 있었다(마25:1-13). 이렇게 밤에 두세
시간을 기다린 뒤에 거의 자정쯤에 "보라, 신랑이 오
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마25:6)는 음
성이 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 등불을 밝혔으
며 이때 기름이 떨어지면 이미 늦어서 신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마25:1-13). 예비된 사람
들은 집 앞에 밝게 빛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에는 많은 사람이 최상의 예복을 입고 그들을 기다
리고 있었다. 신랑은 친구의 안내로 무리의 중앙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되며 잠시 거기에 앉았
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데 이때에 문이 닫혔다.

기독교는 결혼을 매우 성스럽게 여기며 참된 사랑
이 그 기초이고 서로의 행복이 그 잣대가 된다고 믿
으며 심지어 남녀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말로 할 수 없는 신성한 결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다(엡5:22-33). 그러므로 크리스천 가정에서 여인들
은 가장 행복하고 존경을 받으며 귀한 존재이다. 신
자들은 행복을 위해 반드시 주님 안에서 믿는 성도
와 결혼해야 한다(고전7:39; 고후6:14-18). 고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계약 조건들은 모든 시대
사람들을 향한 교훈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금하
신 결혼을 한 경우의 악한 결과들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잘 보여 준다.
남편과 아내의 상호 의무에 관하여는 엡5:22-33; 딤후
전2:11-12; 벰전3:1-7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천주교회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것,
즉 결혼에 불명예를 가져왔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
게도 독신을 장려하고 신부와 수사와 수녀에게 종신
독신을 부과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
르치고 있다. 실로 이렇게 결혼을 금하는 것은 적그
리스도가 기뻐하는 말세의 일 중 하나이다(딤후전4:3).

● 겸손(Humility) 겸손은 '몸을 숙이다', '마음을
낮추다'라는 뜻이며 영적으로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는 내적
태도라 할 수 있다(엡4:1-2; 골3:12-13; 롬12:3). 사
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는데(마
11:29; 참조 약1:21)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
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

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잠15:33). 겸손은 결코 비굴함이 아니며 헛된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므로 부드러운과 은유함을 동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저항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도 겸손히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행20:18-21 참조). 겸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골3:12; 약4:6, 10; 참조 시25:9)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필수 요건이다(마18:3-4). 성경은 겸손을 높이며(잠15:33; 16:19)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겸손 면에서 뛰어나셨다(요13:4-17; 빌2:5-8).

● 경(Watch) 밤 시간 구분 단위, 시간 참조.

● 경건치 아니함(Ungodly) 기존 성경의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것을 뜻한다(시1 참조). 경건함 참조.

● 경건함(Godly) 기존 성경의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을 뜻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성품과 같이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시12:1; 말2:15; 딤후4:7-8; 딤후2:12). 이 같이 하나님을 닮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계시 종교의 본질이며(딤후3:16; 4:8; 벰후1:6)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딤후4:7).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경건치 아니함을 심판하신다(요15:16).

● 경계(Border) 경계가 되는 선, 고대에는 소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대개 경계석이 사용되었다(신19:14; 잠22:28). 지계표 참조. 성경은 나라들 혹은 지파들(민21:13; 신3:14; 수18:20; 삿11:18; 삼상 6:12) 혹은 개인이나 집단(신19:14; 수13:23)의 경계에 대해 말하며 또 특별하게 땅(시74:17), 물(욥26:10; 시104:9) 등의 경계에 대해서도 말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게 하려고 그분께서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주셨다고 말한다(행17:26-27).

● 경고(Warning)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 성경에서 경고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 이집트, 유다와 이스라엘 등 여러 민족과 나라에게 경고를 주셨다. 경고로 번역된 말은 '소리를 높이다는 뜻을 지니며 이것은 크게 외치는 대언자의 말씀을 가리킨다(사13:1; 나1:1). 이런 경고의 말씀은 그 대상에게 큰 짐이 되므로 영어로는 burden(우리말로로는 엄중한 부담의 말씀)이 되었다(렘23:33-38). 짐 참조. 히11:7의 경고는 '지시를 받다' 혹은 '미리 말씀을 받다'를 뜻한다(마2:12, 22).

● 경륜(Dispensation) 경륜(경영 체제), 청지기직 등으로 번역된 이 말은 원래 '무계를 달아서 나누다'란 뜻을 가지며 옥스퍼드 사전은 '나누어 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행정을 보거나 관리를 하며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체제,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 특정한 민족이나 기간의 필요에 특

별히 부응하는 단계 혹은 어떤 체제가 널리 보급된 시대나 기간'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여기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는 '관리하다, 집행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왔으며 '사람이 사는 집의 일을 경영하다'를 뜻한다. 이와 같이 '경륜/세대/경영 체제/청지기직'이란 단어의 중심 개념은 집안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여러 형태로 20회에 걸쳐 나타난다. 동사 '오이코노메오'는 눅16:2에서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1회 사용되었고 명사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란 뜻으로 10회에 걸쳐 사용되었으며(눅12:42; 16:1, 3, 8; 롬16:23; 고전4:1-2; 갈4:2; 딤후1:7; 벰전 4:10) 명사 '오이코노미아'는 청지기, 직분, 경륜, 위임, 일의 뜻으로 9회 사용되었다(눅16:2-4; 고전9:17; 열 1:10; 3:2, 9; 골1:25; 딤후전1:4).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 단어는 두 비유에 나와 있다(눅12:42; 16:1, 3, 8). 이 두 비유는 모두 청지기가 집안을 관리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비유는 청지기직 혹은 세대/경영 체제의 구성 및 배열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 준다. (1) 의무를 부과하는 자와 명령을 수행할 책임을 지닌 자가 있다. (2) 청지기에게는 독특한 책임이 있고 또 회계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현재의 경영 체제하에서 신실하지 못한 요소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세 가지 경륜(세대)을 언급하고 있다. 열1:10에서 그는 '때가 충만히 찬 경륜'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열3:2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청지기직'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선포한 내용을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골1:25-26에서 그는 신약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된 현재 경륜(세대)보다 앞선 또 다른 경륜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점진적 계시를 담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진적 계시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번에 주어지지 않고 일련의 연속적 행위와 다양한 배경을 지닌 많은 사람의 마음과 손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이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히1:1-2).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시대에 핵심이 되는 사건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경영 체제에 큰 변화가 생겼다. (1) 사람의 타락 (2) 노아 시대의 대홍수 (3) 바벨탑 심판 (4) 아브라함을 부르심 (5) 율법 수여 (6)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7) 성령 강림 (8)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이러한 사건들 사이의 경영 체제를 보통 '경륜'(Dispensation)이라고 부르며 경륜에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은 보통 '세대'라 불린다. 그 결과 이 말은 영어권에서

유대인 세대(경륜), 크리스천 세대(경륜), 복음 세대(경륜) 등과 같이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이다.

각 세대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경영 방식과 특권을 허락하신 기간이며 그 길이는 다 다르다. 경륜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규정과 권리가 있으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른 책임이 주어진다. 새로운 경륜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세대에서보다 더 많은 진리와 빛을 허락하신다. 시대와 경륜 선도 참조(11).

성경에는 여러 경륜이 나오며 각각의 경륜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1) 각 경륜이 시작되는 때에 사람의 상태 (2) 사람의 책임 (3) 사람의 실패 경륜마다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하며 이 사실은 사람이 위대하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큰 죄인이라는 점을 거듭거듭 상기시켜 준다. (4) 하나님의 심판: 각 경륜은 사람의 실패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훈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람과 놀랍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모든 경륜(세대)에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사와 바울과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히11; 롬1:16-17; 4:6). 경륜주의 혹은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은혜에 행위를 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다(롬11:6).

다만 세대/경영 체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분별할 수 없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자적'이라는 말보다 '정상적' 혹은 '평범한'이란 말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해석 참조. 어쨌든 문자적 해석은 주어진 문장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롬11 참조).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세대 구분을 주장하지 않으며 그 결과 신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을 모두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지금 중동에서 있는 이스라엘과 그로 인한 팔레스타인 분쟁, 문자적인 천년 왕국 등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없다.

(2)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을 중심 주제로 삼는 인간 중심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 주제로 삼는 하나님 중심의 책이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이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한 방편이라고 가르친다(엡1:6, 12, 14).

결론적으로 경륜주의(세대주의)는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말로 뜻하셨다고 믿으며 그분께서는 오직 자신이 의도한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믿는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충고하였다(딤후2:15). 그러므로 누구라도 정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읽으면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 경배(Worship)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보이게,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가족끼리, 공동으로 경배하는 일은 너무나 명백한 의무이고 성경은 이것을 명령으로 주고 있다. 기도 참조.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성전에서 경배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주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 경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한다. 또한 복음 선포와 기독교를 알리는 일은 모두 모이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도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히10:24-25) 모든 교회에서 자신의 서신들을 읽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노래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과 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 주라는 그의 권면은 기독교의 기본 법칙이요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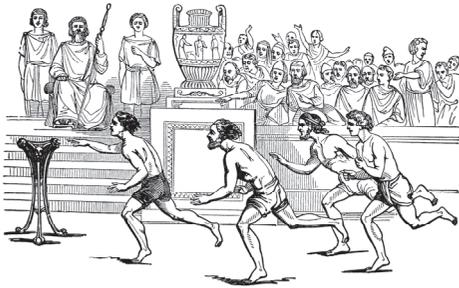


성경에서 Worship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쓰였으나 가끔 신하들이 왕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에도 쓰였다(단2:46; 눅14:10). 동방에서는 경배할 때 몸을 앞으로 굽히고 이마를 땅에 대곤 한다(창33:3; 마18:26). 한편 골2:23의 '의지대로 경배하는

것(will worship)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벗어 나서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는 것을 뜻하며 천주교의 미사나 고백 성사 등이 이런 예이다.

● 경주(Race)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기념하고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를 만들었다. 이런 경기들은 지정된 곳에서 정한 시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열렸으며 왕과 유명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보는데서 월계관이 수여되었다.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고 선수들은 모든 것을 절제하여야 했다. 이 중에서도 고린도에서의 경주는 아주 유명하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런 것을 말한다(고전9:24-27). 달리기 외에도 여러 경기가 있었지만 달리기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달리기는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희생과 계속해서 몸을 복종시키는 것과 모든 무거운 짐을 치우는 것 그리고 경주를 관람하는 수많은 관중을 잘 보여 준다. 이런 관중들 가운데는 이전의 승리자들이 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빌3:13; 딤후4:7-8; 히12:1).

● 계보(Genealogy) 한 사람의 조상들 명단을 기



록한 책. 이런 계보는 혈통에 따른 자손이나 법적으로 상속인이 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히브리 사람들만큼 계보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파들의 구별과 땅의 소유자, 대제사장 같은 직무의 권리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대상5:1, 17; 9:1; 대하12:15; 스2:62). 그래서 그들의 공적 계보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다.

성경에는 3,500년 이상의 계보 기록이 나오며(대상1:1-54; 3:1-24; 6:1-81) 이것은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또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의 상속자로 오실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눅1:32; 딤후2:8; 히7:14). 복음서에는 4,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담겨 있다. 마1:1-25와 눅3:1-38은 조금 다른데 전자는 그리스도의 양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그리고 후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보여 준다. 이 두 계통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다단에게서 시작되었고 살라디엘(스알디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 요셉은 그리스도

의 법적 아버지이고 마리아와 같은 조상인 다윗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법적으로 그리고 육체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은 유대인들의 계보가 모두 없어져서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벨기세택이 혈통도 없었다는 것은 유대 민족이 그에게서 나지 않음을 가리킨다(히7:3). 그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과 완전히 달랐다. 세대 참조.

● 계시(Revelation)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크게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는 계시로 사람 속의 양심과 하늘의 해, 달, 별 등도 다 포함하고 신학적으로 자연성을 띄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사람 자체가 곧 일반 계시이기 때문이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시19:1), 하나님의 권능(시19:1), 하나님의 뛰어나심(롬1:20), 하나님의 본성(시19:1), 하나님의 선하심(마5:45), 하나님의 지성(행17:29), 하나님의 존재(행17:28) 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곧 사람의 죄성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보여 주고 일반 계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준다.

한편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친밀히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계시이다. 다른 종류의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없이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이다.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요1:14), 여러 사건(출애굽 사건, 발람의 사건, 현22, 미6:4-5), 우림과 둠뎀(출28:30), 하나님의 현현, 꿈과 환상들(창20:3, 사1:1), 제비 뽑는 것(잠16:33), 대언자들(습1:1), 천사들(눅2:10-11)이 있다. 성경의 보존 선도 참조(91).

계시의 특징으로는 객관성과 명제성을 들 수 있다. 먼저 객관성이란 창조의 일반 계시든지 기록된 말씀의 특별 계시든지 항상 계시가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명제성이란 단어와 말을 사용한 진리 진술문이 문서로 기록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또 정확하게 연구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 줄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적으로 인식되어 이해될 수 있으며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세상의 철학자들은 객관적으로 기록된 계시를 통하지 않고 생각이나 느낌 혹은 경험에 의해 하나님 혹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 영감, 보존 참조.

● 계시록(Revelation)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에 의해 밧모 섬으로 유배되어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책.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 책은 영어로 Apocalypse라고도 하는 예언서이며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 특히 후대의 대언자들인 에스겔, 스가랴,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책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상징들로 인해 해석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책 자체가 앞뒤 문맥을 통해 구절들을 해석해 주므로 어느 면에서 이해하기 쉬운 면도 있다.

계시록은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즉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확장해서 잘 보여 주고 있다(장3:15). 계시록의 상징들과 형상들은 아주 인상적이며 예언의 웅장함을 보여 준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 이전의 일(1장)과 당시의 일(2-3장)과 앞으로 있을 일(4-22장)을 요약하여 보여 준다(계1:19). 특별히 4장 이후에는 교회의 휴거가 있는 뒤에 이 땅에 닥칠 7년 환난기와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환난기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19-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 글을 읽고 듣고 그 안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계1:3). 계시록에는 특히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며 구속자, 치리자로서의 그분의 영광이 표출되고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양이 존경과 명예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진 채 “아멘 주 예수님이며, 과연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다.

● 계피(Cassia) 계수나무의 얇은 껍질. 이것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기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성분 중 하나로 쓰였다(출30:24; 시45:8; 겔27:19).

● 계획자(Counsellor) 사9:6에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으로 불린다(조언자, 상담자). 조언 참조.

● 고기 시장(Shambles) 고린도 지방의 평민들이 이용하던 고기 시장(고전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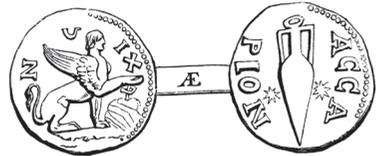
● 고난(Affliction) 고통과 아픔을 만드는 상황 혹은 문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고난은 늘 있기 마련이며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욥기는 의로운 사람의 고난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글이다.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는 고난과(사53:4; 마24:29; 롬2:9)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한다(롬5:3-5; 살후1:4-7). 전자는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적극 수용하고 깊어져야 할 것이다(벧전4:15-16).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일을 통

해 부활 때에 더 큰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이다(롬8:17; 고후1:5; 빌3:10-11).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가벼운 고난이 후에 있을 무거운 영광과 비교될 수 없음을 선포해야 한다(롬8:18).

● 고넬료(Cornelius, 코넬리어스)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옆 가이사라에 머물던 로마의 백부장. 그는 로마에서 유명한 가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신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는 행10:1에 처음 나오며 그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비록 그가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행11:14)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지체 없이 구원의 일을 수행하셨다. 그는 기적적으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베드로 역시 그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베드로는 읍마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56킬로미터를 여행해서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 위에 성령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부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 베드로는 환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유대인의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수용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였다.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구원받아 신약 교회의 일원이 된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10년쯤 지나서 이루어졌다.

● 고니야(Coniah, 코나야) 여호아긴 참조.

● 고드란트(Farthing) Farthing은 영국에서 사용된 최소액의 청동화로서 사분의 일 페니에 해당하며 고드란트는 그리스 화폐에서 가장 작은 돈인 2페니에 해당한다(막12:42).



● 고라(Korah, 코라, 대머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레위 사람. 그는 모세의 사촌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 이스할과 아르람이 형제들이기 때문이다(출6:16-21). 그는 자기가 단순히 레위 사람인데 비해 자기의 사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위와 제사장 직분을 누리므로 그들에 대해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그런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백성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켰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교만과 야망의 영이 들어 있었다.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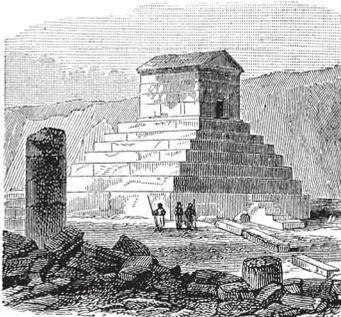
250명의 레위 사람들을 부추겨서 소동을 피웠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열리면서 그 안에 삼켜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에 의해 타버렸다(민26:10). 한편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의 시대에 유명한 가족으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었고(대상9:19; 26:1) 몇 편의 시편은 그들을 위해, 즉 그들이 노래하도록 기록되었다(시42, 44, 49, 84, 85, 87, 88).

● 고라신(Chorazin, 코레이즌) 갈릴리의 마을. 이곳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했고 가버나움과 벳새다와 가까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곳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크게 책망했다(마11:21; 눅10:13).

● 고랑(Furrow) 쟁기로 밭에 만든 좁은 도랑. 대언자 호세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난다고 경고한다(호10:4).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내었다.”(시129:3)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이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등을 터지도록 친 것을 묘사한다.

● 고래(Whale) 바다에 사는 가장 큰 포유동물(창1:21; 욥7:12).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고래였다(욥1:17; 마12:40). 주후 1600년경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을 다 fish로 표현하였으며 따라서 고래를 큰 물고기로 표현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요나는 고래 배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다.

● 고레스(Cyrus, 싸이리스)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의 아들. 그는 자기 삼촌인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 소아시아를 정복했고 후에는 바빌론을 점령하고 아시리아 왕국을 초토화시켰다. 그는 자기의 사촌 누이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페르시아와 메대의 왕으로 통치하였다. 이시아는 메대 사람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구출하고 회복시킬 것을 대언했는데(사44:28; 45:1-7) 고레스는 실제로 이것을 성취했고(대하36:22-23; 스1:1-4) 다니엘은 그의 신하 중 하나였다(단6:28).



파사르가대에 있는 고레스의 무덤

● 고르(Measure) 호멜과 동일한 부피 단위이며

약 220리터이다(10에바 혹은 10바스). 에바 참조.

● 고르반(Corban) 하나님이나 성전을 위해 아주 바친 거룩한 예물(마23:18).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들에게 드려서 그들이 유용하게 써야 할 것을 고르반으로 지정한 잔인한 죄악을 지적하셨다. 아들은 물품을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막7:11)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주 바쳤다고 말했다. 유대인 박사들의 이 같은 가르침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처럼 사악한 서약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 부모를 위해 어떤 유익한 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분명히 이것은 본성과 이성에 맞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마15:3-9). 바리새인들과 탈무드를 가르치는 자들은 심지어 채무자가 그 빚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해 버렸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산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채권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고린도(Corinth, 코린쓰)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에게 해 지도 참조(41). 고린도는 육지 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고 서쪽과 동쪽에 레카움과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다. 고린도는 좋은 위치에 있었으므로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동서의 무역상들은 고린도를 통해 무역을 했다. 또한 이곳은 펠로폰네소스의 관문이고 남 그리스와 북 그리스 사이의 연결 도시였으며 그 결과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람이 많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재물로 인해 자만심과 부도덕 그리고 동성애 등의 사악한 죄악이 이곳에 만연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곳 주민들은 율란한 것들을 허용하고 그리스의 비너스 여신 숭배를 통해 율란 행위를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 결과 비너스를 위한 창녀들이 공공연히 생겨났다.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되었고 카이사르 율리우스는 그곳에 식민지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도시의 영화는 부활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전의 악한 일들도 다시 살아났다. 사도 바울은 주후 52년경에 고린도에 도착해서(행18:1)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거했다. 이렇게 스스로 일하면서 그는 일 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이 기간에 그는 데살로니가전후서를 기록했고 그 뒤에 다시 여기를 방문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다. 어떤 이들은 -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 그가 중간에 잠시 이곳을 방문했다고도 주장한다(고후13:1과 고후1:15; 2:1; 12:14, 21; 13:2 비교).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아굴라와 소스테네가 초기의 사역자로 일했다(행18:1; 고전1:1; 16:19).

● 고멜(Gomer, 고머, 완성된) I. 야벳의 아들(창

10:2-3; 대상1:5; 겔38:6). 그는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의 아버지였으며 흑해 근처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전 700년경에 그의 후손들의 일부가 소아시아로 이주하였다.

II. 대언자 호세아의 아내.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창녀 고멜과 결혼하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므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호1:1-11).

● 고모라(Gomorrhah, 거머라, 적개십) 고대 사해의 남부 지역에 가까운 쇠뿔의 비옥한 평야 끝자리에 있던 도시들 가운데 하나. 이곳은 사악함으로 인해 소돔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희와 불로 소멸되었다(창19:23-25). 소돔 참조.

● 고문관(Counsellor) 고대에 왕이나 치리자에게 조언을 주던 사람(스4:5; 단3:2-3). 조언 참조.

● 고물(Stern) 배의 뒤쪽. 예수님은 폭풍우 속에서도 고물에서 주무셨다(막4:38). 이 말은 바울이 탔던 배의 조난과 관련해서도 나온다(행27:29, 41).

● 고백(Confession)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주로 사람의 죄를 시인하는 데 쓰였다(레5:5; 욥40:14; 시32:5).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왕상8:33-35; 대하6:24-26)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형벌도 주님으로부터만 나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한편 신약에서 이 말은 '같은 것을 말하다'를 뜻하며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회심한 것을 인정하고 밝히는 의미로도 쓰였다(요12:42; 롬10:9-10; 딤후6:13). 어떤 이들은 요일1:8에 따라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의 용서를 구하면 안 되고 단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요일1:8). 심지어 구원받은 바울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이다."라는 현재형 고백을 했다(딤후1:1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교계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회개 참조.

● 고벨화(Camphire) 향내 나는 꽃. 이것은 '헤너'라고도 하며(야1:14; 4:13) 동방의 여인들은 이 꽃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손톱과 발 그리고 손에 빨간색 물을 들이곤 하였다.

● 고산(Gozan, 고센) 아시리아의 디글랏벨레셀과 살만예셀이 포로로 사로잡은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를 땅에 정착하게 한 지역(왕하17:6; 대상5:26; 사37:12).

● 고센(Goshen, 고션, 경작원) I. 야곱부터 모세가 지의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던 이집트의 한

지역. 이집트 제국 지도 참조(14). 이곳은 나일 강까지 뻗어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출1:22; 2:3)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풀고기를 많이 먹었고 또 인공 관개를 했기 때문이다(민11:5; 신11:10). 이곳은 헬리오폴리스와 라암셋(혹은 라메셋) 근처에 있었고 또 이집트의 수도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창45:10; 47:11; 출8:1-12:51). 목축을 업으로 삼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이 그 땅의 좋은 부분이었고(창46:34) 그들은 여기서 크게 번성하여 형통하였으며(창47:27) 동시에 후에는 크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잊힌 채 지내게 되었다(출8:22; 9:26). 물론 그들 가운데와 그들 주변에는 이집트 사람들도 거주하였다.

II. 유다의 산지 안에 있던 도시와 그 주변(수10:41; 11:16; 15:51).

● 고수풀(Coriander) 향기가 있어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거나 약재로 사용되는 한해살이 식물. 광야에 내린 만나는 이 식물의 씨와 비슷하였다(출16:31; 민11:7). 만나 참조.

● 고스(Coos, 코아스) 소아시아의 남서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곳을 통과했다(행21:1).

● 고스비(Cozbi, 카즈비, 거짓) 미디안의 지도자인 수르의 딸. 비느하스는 이 여인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시므리가 음행하는 것을 보고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다(민25:6-8, 15, 18).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 주는 두려운 실례이다.

● 고자(Eunuch)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대개 내시로 번역되었으며 마19:12에서는 의미상 '결혼하지 못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자라는 단어는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란 뜻으로 마19:12의 의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나 다른 대안이 없어 사용했다. 특히 하늘의 왕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빼어 내어 고자로 만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 말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내시 참조.

● 고패나무(Gopher)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사용한 나무(창6:14).

● 고탕(Kohath, 코해스) 레위의 아들(창46:11). 그는 고탕 족속의 조상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에 성막의 기구들과 궤를 메고 다녔다(출6:16-24; 민4:4-15).

● 곡(Gog, 가그) 성경에서 곡과 마곡은 보통 함께 나온다. 창10:2에서 마곡은 한 지역과 그곳의 백성을 가리키며 그들은 야벳의 후손들로 간주되었다. 겔38:1-23; 39:1-29에서 마곡은 어떤 지역과 그곳의 백성을 가리키며 곡은 그 백성의 왕을 가리킨다. 주석가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유럽과 아시아의 북방 민족들 혹은 코카서스 북부 지역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 이름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때

에 다시 등장한다(계20:7-9).

● 곡식(Corn) 성경에서 corn은 옥수수가 아닌 일반 곡물을 가리킨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거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곡물이 많았으며 특별히 '곡물과 포도즙과 올리브기름'이 가장 중요한 작물이었다. 사람들은 밀을 밭에서 먹을 수 있었고 잘 익은 이삭은 손에 비벼서 알곡을 먹곤 하였다(신23:25; 마12:1). 볏은 밀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축에게 흔한 음식 중 하나였다(룻2:14; 삼하17:28-29; 신25:4).



곡식을 타작할 때에는 알곡과 겨 그리고 먼지를 분리하기 위해 바람에 대고 기질을 했으며(암9:9; 마3:12; 눅22:31) 따라서 타작마당은 대개 야외에 높은 곳에 있었다(삿6:11; 삼하24:18). 이렇게 얻은 알곡은 종종 모래처럼 으개기도 했고(민11:8; 계18:22) 나중에 손방아로 곱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손방아는 직경이 60센티미터, 두께가 15센티미터 정도인 윗돌과 아랫돌,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삿9:53; 삼하11:21; 욥41:24). 알곡을 받아들이는 구멍은 윗돌의 중앙에 있었고 사람들은 아랫돌을 고정한 채 알곡을 넣으면서 윗돌을 돌려 가루를 만들었다. 모든 가족이 이 같은 맷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정생활의 필수품이므로 율법은 이것을 전당물로 잡는 일을 금했다(신24:6).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사람에게 인정을 많이 베푸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대개 여인들이 맷돌로 곡식을 갈았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두 여자가 맷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불찰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마24:41). 그런데 삼손은 여인들이 하는 일을 맡을 정도로 비참한 신체가 되고 말았다(삿16:21). 여인들은 맷돌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으며 그래서 열 명 이상이 모여 맷돌을 갈면 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대개 아침에 해 뜰 때에 맷돌을 갈면 온 동네에 그 소리가 들렸고 게으른 주인들의 아침잠을 깨웠으며 성경은 이 같은 소리가 없을 때에 도시에 황폐함이 있다고 말한다(렘25:10; 계18:22).

- 곤궁(Need) 곤란하고 궁핍.
- 골고다(Golgotha, 갈가터, 해골) 갈보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갈보리 참조.
- 골란(Golan, 골랜, 원) 요르단 너머 바산에 있던 마을. 이곳은 므낫세의 소유로서 도피 도시였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신4:43; 수20:8; 21:27; 대상6:71).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19)와 도피 도시 참조.
- 콜로새(Colosse, 콜라씨) 브루기아의 도시. 이곳은 언덕에 위치했으며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골2:1; 4:13, 15).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바울이 살아 있던 주후 65년경, 즉 네로의 통치 제10년에 다른 도시들과 함께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바울의 서신을 받은 콜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골1:7-9; 4:12-13).
- 골리앗(Goliath, 걸라이어쓰) 가드의 거인. 그는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했다가 다윗을 만나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삼상17:1-58에 나온다. 그는 키가 3미터가 넘는 거인이었다. 거인 참조.
- 골방(Closet) 이 말은 원래 신부를 위해 마련된 장막(출2:16)이나 저장 창고(눅12:24)를 뜻하며 후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집의 내부에 두었다. 그런 이유로 이 말은 후에 '안에 있는 방', 즉 골방을 뜻하게 되었다(마6:6; 눅12:3).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가능하면 떠들썩한 데서 분리된 조용한 곳에서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이다.
- 골수(Marrow) 짐승이나 사람의 빈 뼈 속에 차 있는 연한 지방 성질의 조직(욥21:24; 히4:12).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사25:6)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복을 누리려는 것을 상징한다. 한편 골수는 사람의 마음속의 가장 은밀한 생각을 상징하기도 한다(히4:12). 사도 바울은 골수라는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도 판단함을 보여 준다(히4:12-13).
- 골육(Bone and flesh) 혈통이 같은 부자, 형제 등의 육친. 성경에서 이 말은 친근감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창29:14; 삿9:2; 대상11:1). 대언자 이사야는 참된 금식이란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즉 친족의 의무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사58:7).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골육인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하며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다(롬11:14).
- 골짜기(Valley) 팔레스타인에는 골짜기가 많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종종 산과 산 사이의 넓은 골짜기, 즉 평야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문맥으로 이를 구분해야 한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는 다윗이 양을 치던 때에 직접 경험한 가파른 골짜기를 뜻하고 영적으로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태를 뜻한다(시23:4).

● 골풀(Rush) 골풀과의 키가 1미터쯤 되는 여러 해살이풀. 이것의 땅속줄기는 옆으로 뻗고 여러 개의 밋밋한 줄기는 긴 송곳처럼 나며 비늘 모양의 잎은 줄기 아랫도리에 붙어 있다(욥8:11; 사9:14).

● 곰(Bear) 구약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곰이 흔했다(삼상17:34-37; 삼하17:8; 왕하2:24). 시리아 지역의 곰은 갈색 곰이었으며 지금도 레바논 지역에서 볼 수 있다. 곰은 성격이 포악하고 힘이 세며 나무를 탈 수 있다. 곰 특히 새끼와 함께 있는 암곰은 아주 사나우므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삼하17:8; 잠17:12; 호13:8).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는 곰같이 사나운 짐승들이 양이나 소같이 온순한 짐승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따라서 그들의 거룩한 산에서는 상함이나 해함이 없게 된다(사11:6-9).

● 공경(Honour)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께 존경심과 두려움을 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대상16:27; 계4:9-11).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 즉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요5:23).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함을 가르쳤다(딤후5:17; 히13:7). 십계명의 다섯째 명령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한다(출20:12; 신5:16).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마15:4-6).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특히 행복과 장수의 약속이 따른다(엡6:3).

● 공관 복음서(Synoptic gospel)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보통 공관 복음서라고 불린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중 처음의 세 복음서는 거의 같은 관점에서 그분의 생애를 기록하였기에 공관 복음서라 한다. 현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각각의 복음서를 그 복음의 합당한 수신자들에게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음을 믿지 않고 진화론 기법을 동원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Q 문서 등에 기초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뒤에 그것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왔다는 항상 이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증언을 확증하시기 위해 성경의 방법대로 두세 증인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민35:30; 신17:6; 요8:17). 따라서 공관 복음서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한 곳에 없는 내용을 다른 곳에서 보충해 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자상 사역을 완벽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보여 준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에 없는 특별한 내용이 많고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어 여러 면에서 다르므로 그것들과 구별하여 제4 복음서라 부르기도 한다. 사도 요한은 공관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들이 완료된 시점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성령님의 지도하에 이 복음서를 완벽하게 기록하였다(계1:12-20).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20:31). 복음 참조.

● 공세(Tribute)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해 반 세겔의 공세를 내야 했다(출30:12-15). 이것은 마17:25-26의 예수님 말씀과 상황이 있으며 곧 이 공세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면 그분의 아들인 자신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공세는 로마 사람들의 조세를 뜻하였다. 로마의 황제에게 공세를 내야하는가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셨다(마22:16-22).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바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롬13:7; 고전10:31; 벧전2:9, 13).

● 공언(Profess)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말할.

● 공의(Justice) 의와 공평의 원리.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게 하는 원리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일과 상관이 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인하는 성격 혹은 성품의 으뜸 원리이므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행하여 모든 의를 수행한다. 또한 행정관이나 치리자 그리고 재판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을 보시기 때문이다(신1:16-17; 삼하23:3; 대하19:6-10). 재판(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며 따라서 땅에서의 모든 재판정은 하늘의 크고 흰 재판석의 권위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의 목소리이며 부당한 재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성품과 일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기본 속성이다.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를 통해 공평의 모델이요 수호자이시다(신32:4; 시89:14).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세상에 법이 존재하며 그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법을 옹호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기므로 모든 혼은 정죄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였다. 성경 초반부에는 각 가족의 족장이 재판관이 되었고(창38:24) 그 이후에 또 여전히 공식 재판관이 없었으므로 가족이나 지파 혹은 도시의 장로들이 재판하였다. 광야 시절에 모세는 재판관 체계를 확립하여 10, 50, 100,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였으며 하나님께 직접 이 일들을 여주

었다(출18:21-26; 레24:12). 이 재판관들은 회중의 통치자요 가족들의 우두머리였다(민7:2).

가나안 땅에서 각 마을과 도시에는 행정관이 임명되었고 그들은 제사장들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신정 통치 체제하에서 이스라엘의 대법관이신 하나님의 재판 체계라 할 수 있다(신16:18; 17:8-10; 19:17; 21:1-6). 그들은 성문에서 비공식적인 재판을 수행하였고(신21:9; 22:15; 25:7) 바로 여기에서 백성의 계약이 비준되었다(룻4:1, 9; 렘32:7-15). 여대언자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삿4:5) 사무엘은 순회 재판소를 세웠으며(삼상7:16; 8:1)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은 공의를 신실하게 집행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였다(대하19:1-11). 한편 왕들은 스스로 무제한의 권위를 가진 재판관이었지만(삼상22:16; 삼하4:9-10; 왕상22:26) 모든 곳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고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직접 왕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경에는 재판관들의 부당한 처사나 뇌물, 위증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삼상8:3; 왕상21:8-14; 사1:23; 10:1; 미3:11; 7:3).

유대인들에게는 지금의 변호사 같은 존재가 없었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관 앞에서 나란히 일어서서 자기들의 사정을 말하였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는 한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았다(민35:30). 재판관의 결정은 곧바로 수행되었고 사악한 죄의 경우 증인들은 그들에게 곧장 돌을 던졌다(신17:5-7; 25:2; 수7:25; 삼상22:18; 왕상2:24; 잠16:14). 증거를 얻기 위해 고문한 것은 한 차례 기록되었으며 그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졌다(행22:24). 한편 사탄도 성도를 대적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다(시109:6; 속3:1-3). 신혜드린, 회당 참조.

● 공주(Princess) 왕의 딸, 미혼의 공주는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는 관습이 있었다(삼하13:18). 예레미야 대언자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공주라 부른다(애1:1).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믿음과 관련된 대목에 파라오의 공주가 나온다(히11:24).

- 공포(Proclaim) 일반에게 널리 알림.
- 공회(Council) 공적인 일로 모이는 집회.
- 과도(Excess) 도를 벗어나 지나침.
- 과부(Widow) 족장 시대와(창38:1-30) 모세의 율법 시대에(신25:5-10) 아이가 없는 이스라엘의 과부는 가족의 이름과 상속물을 보존하기 위해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고 그의 형제가 없거나 거부하면 남편의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룻3:12-13; 4:1-11; 마22:23-30). 한편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할 수 없었다(레21:14).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슬픔과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야 함을 보여 준다(출22:22-24; 신16:11; 24:17, 19; 시68:5; 사1:17; 10:2; 렘22:3; 마23:14). 초기 사도 교회 역시 과부들

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행6:1-3; 딤편5:16) 야고보도 이런 일이 참된 신앙심의 의무요 증거임을 보여 주었다(약1:27). 크리스천 과부의 의무는 딤편5:3-16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없는 자 참조.

● 관(Crown) 성경에서 관(crown)은 보통 명예와 통치의 상징이었으며(겔23:42; 계12:3; 13:1) 왕이 쓰는 관(삼하1:10; 12:30; 왕하11:12)은 diadem으로, 대제사장이 쓰는 관(출29:6; 39:30)은 mitre로 불렀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도 관을 썼으며(야3:11; 사61:10)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승리와 보상의 상징으로 관을 쓰거나 수여했다. 이런 관들은 중국이나 한국의 고대 왕들이 쓴 면류관, 즉 보석이 옆으로 늘어선 관이 아니었다.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다섯 가지 왕관에 대해 말한다. (1) 생명의 왕관: 이것은 순교자의 관이며 성경에 두 번 언급되어 있다(약1:12; 계2:10). (2) 영광의 왕관: 이것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들, 즉 목사들에게 주실 관이다. 그러나 더러운 돈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의 상속자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에게는 이 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벧전5:2-4). (3) 환희의 왕관: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을 관이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그분께서 오실 때 바로 그 성도들의 기쁨의 관이 될 것이다(살전2:19-20; 빌4:1). (4) 의의 왕관: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관으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그분께서 친히 주실 것이다(딤후4:8). (5) 찌지 않을 왕관: 이것은 승리자의 관이며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것이다(고전9:25-27). 보상의 심판 선도 참조(84).

● 관(Miter)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쓴 성스러운 관. 이것은 아주 긴 고운 아마로 만들었고 머리에 감아서 과란색 끈과 순금으로 만든 금패로 고정하였는데 그 패에는 '주께 기록한 것'이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출28:4, 36-38; 39:28-31).



대제사장의 관

● 관능(Sensual) 감각 기관의 기능. 육체적 쾌감을 일으키는 작용.

● 관례(Manner) 늘 해 오는 전례.

● 관리(Officer) 관직에 있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내시나 호위대장(창37:36) 혹은 감독자(창41:34), 지사나 장관(왕상4:19), 서기관 등을 지칭한다. 왕의 관리들은 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예9:3).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주로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종(직무 수행자)을 뜻한다. 마5:25에서 직무 수행자는 치리자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눅12:58). 직무 참조.

● 관저(Palace) 고관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은 집.

● 광야(Wilderness)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광야의 땅은 너무 메마르거나 거칠고 바위가 많아서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지만 목축을 할 수는 있었다(창14:6; 출3:18). 종종 광야는 사막이나 혹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을 뜻했다. 침례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였고(마3:1; 눅3:2-4)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막1:12; 눅4:2).

● 광채(Light) 빛을 내는 물체(창1:14).

● 교만(Pride) 마음에 우월감을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눅14:11).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최고의 덕이고 교만이 최대의 죄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친다(잠8:13; 11:2).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권리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사25:11; 단4:37). 이러한 믿음은 마리아의 찬양 등을 통해 신약 성경에도 이어진다(눅1:51).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마23:12)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한다(벰전5:5). 구약의 대언자들은 개인의 교만뿐만 아니라 민족의 교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의 교만을 보았고(고전1:19-31) 동시에 유대인들 특유의 교만을 보았다(롬2:17-20).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반대하고 우습게 여기며 자기 의를 세우려 힘쓰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멸망에 이른다(롬10:3).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며(빌3:3)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다(갈6:14).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며 스스로 자기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하다가 낭패를 당한다(약4:13-16). 그러므로 패망이 있기 전에 교만이 있기 마련이다(잠16:18).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고전1:31).

● 교제(Fellowship) 교제는 두 당사자가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교제하고(요일1:3; 고후13:14)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교제한다(요일1:7). 신자들의 교제에는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약5:16), 모이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히10:24-25),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고전11:24-25),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롬12:13; 15:25; 행11:29; 고전16:1-2; 고후8:4; 히13:16), 약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참아 주는 것(롬15:1-2) 등이 있다.

● 교통(Communion) 서로 소식 등을 주고받는 친밀한 교제를 뜻하고(빌4:15) 고후13:14에서는 성령님의 친교(기존 성경 교통)로 번역되었다.

● 교황(Pope) 로마 카톨릭교회의 수장. 교황은 우두머리 제사장으로서 ‘파테르 파트룸’, 즉 ‘아버지 중의 아버지’를 뜻하며 그래서 보통 ‘파파’(아버지)라 불린다. 로마 카톨릭교회에 따르면 교황이 지상 교회의 머리이며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임명하셨으며 그 이후에 그가 로마로 가서 25년 동안 이 직분을 가지고 그분께 봉사하였고 베드로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주장하며 교황이 있는 교회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엡5:2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첨하는 말로 ‘아버지’나 - 교황은 아버지를 의미함 - 랍비 또는 선생과 같은 종교 칭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으로써 교회 내에서의 평등의 개념을 가르치셨다(마23:8-10).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 위에 전체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그가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가르치며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마16:18을 인용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베드로는 자신의 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벰전2:4-8; 참조 행4:11-12).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며 다른 기초는 없다고 말한다(고전3:11). 사실 마16:18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하는 구절로 사용되고 로마의 주교들이 그의 계승자였음을 주장한 것은 주후 218-223년에 로마의 주교로 있던 칼릭스투스 때 이루어졌다.

바빌론 왕이며 설립자인 니므롯은 정치 및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 겸 왕이었으므로 제사장 겸 왕인

사람들의 계보가 그로부터 내려왔고 그들은 각각 바빌론의 마술 신비 종교의 수장으로 군림해 왔다.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였을 때 바빌론에서 나와 여러 국가에서 발전된 이교주의는 이교도 로마의 종교 제도에 흡수되었고 여기에는 최고 승원장(Pontifex Maximus) 사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카이사르들은 이 직책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로마 동전에도 신비 종교의 머리를 뜻하는 '폰트 막스'(Pont Max), 즉 최고 승원장이라는 칭호가 기록되어 있다.

콘스탄틴을 포함한 로마의 황제들은 주후 376년까지 최고 승원장 직책을 유지해 왔는데 이때에 로마의 주교는 이미 정치권력과 명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후 378년 로마의 주교 데마수스는 최고 승원장, 즉 신비 종교의 최고 높은 제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당시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주교를 '주교들 중의 으뜸 주교'로 또 교회의 머리로 보았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의 주교가 최고 승원장의 칭호를 요구했다. 이때에는 이미 이교주의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으며 그 결과 최고 승원장인 교황이 주도하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태어났지만 이런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 교회(Church)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17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종교적 모임 혹은 일반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행19:32, 39 등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대개 종교적 예배자들의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심지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모임도 광야의 교회라 불렸지만(행7:38) 물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 교회가 아니다(마16:18; 고전6:4). 교회와 왕국 천도 참조(85).

대부분의 신약 성경 용례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뜻한다. 또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하였고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교회 등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가 다 지역 교회였다.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발견된다(마16:18; 히12:23).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라는 말씀에서 드러난 교회 역시 후자의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전 우주적인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지역 교회의 모임과 제도를 모두 무시하는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가 선

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므로 아담 때부터 존재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 등 여러 구약 주석들도 이스라엘을 모두 교회로 해석하곤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 때부터 교회라고 주장하고 사도행전 13장 혹은 사도행전 28장 이후부터 교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유기체로서 예수님 당시에 수태되어 오순절 날 성령님의 침례 사역과 더불어 권능 있게 밖으로 드러났으며 휴거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신약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오순절 전에 다락방에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이 최초의 신약 교회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먼저 오순절 날 베드로의 말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기록하고(행2:41)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고 기록한다(행2:47). 따라서 누가의 기록으로는 120명의 성도들이 이미 신약 교회였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신약 교회의 핵이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들이 변천기에 산 사람들임을 감안하고 또 마 18:17의 교회 치리를 고려하면 비록 그들이 아직 모 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목자장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최초의 원시 신약 교회라고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메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전 12:13, 27-28; 참조 엡1:22-23; 5:30-32; 골1:18). 그러므로 교회의 출생에는 반드시 성령 침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침례자 요한에 의해 처음 예언되었다(마3:11; 막1:8; 눅3:16; 요1:33). 그는 자신은 물 침례를 주지만 주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성령 침례가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였다. 그 뒤 주님께서는 마16:18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고 부활한 뒤 승천하기 바로 전인 행1:5에서도 여전히 성령 침례가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때까지는 변천기에 있던 120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분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전 12:13). 이때에 주님께서는 며칠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실제로 10일 후 오순절에 그 일이 발생하였지만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침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가 성령 침례를 받았으며 그와 동일한 일이 오순절에 발생했음을 보여 준다(행 11:15-16).

한편 엡1:19-23은 교회의 출생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만 가능함을 보여 준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 생길 수 없다(요7:39).

지역 교회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은사)이나 특권을 발휘한다(고전11:2; 행2:41-42; 20:17-28).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순히 가난한 자, 약자를 도와주는 형태의 단체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롬15:26). 지역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다. 교회의 유일무이한 감독자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동일 지역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세속 법정에서 서로를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전6:1).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믿음의 수호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이런 협력의 분량이나 방법은 각 지역 교회의 권한에 맡겨진다. 그리고 회원문제, 정책문제, 행정, 양육, 자선 등도 각 지역 교회가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구원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의 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요 대사요 증인이 된다(고후5:18-20; 행전1:1, 17, 2:11). 그리고 그들의 삶의 첫째 목적은 선교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고 죄인들을 죄들에서 구원하는 것이다(마28:18-19; 막16:15; 요17:18; 행1:8).

지역 교회의 직분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으며 그들의 자격이나 요건 그리고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딤후3:1-13; 딤후1:5-11). 목사, 집사 참조. 또한 교회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두 가지 규례만 있을 뿐이다. 침례, 주의 만찬 참조.

● 구덩이(Pit) 이것은 보통 저수지를 뜻하지만 어떤 때는 지하 감옥을 가리키며(창37:20; 렘38:6) 또 입구를 살짝 덮어서 짐승을 잡는 함정을 뜻하기도 하고 여기서 파생되어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쓰는 도구 혹은 기구를 뜻하기도 한다(시119:85; 잠22:14; 26:27; 렘19:4). 또한 이 말은 무덤 혹은 바닥없는 구덩이 혹은 지옥을 뜻한다(시28:1; 30:3, 9; 제20:1).

● 구드 사람들(Cuthites)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거하던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거하던 북 왕국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정착했다. 이들은 동쪽의 구다에서 이동하여 아시리아의 살만에셀과 그의 후계자들이 정복한 땅에 정착해서 살았다(왕하17:24-41).

● 구렁텅이(Gulf) 움푹 패어 깊이 들어간 곳.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죽어서 지하세계로 갔는데 여기에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없었다(눅16:26). 낙원 참조. 지하 세계 선도 참조(81).

● 구레네(Cyrene, 싸이리니) 이집트의 서부 리비

아의 도시와 지방. 이곳은 한때 펜타폴리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구레네와 톨레마이 등을 포함한 다섯 개의 주요 도시가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와 투포의 아버지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며 그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마27:32; 눅23:26). 구레네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반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었다(행6:9; 11:20; 13:1).

● 구레노(Cyrenius, 싸이리니아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시리아의 총독(눅2:2). 그의 시대에 조세 등록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도시로 갔다.

● 구름(Clouds) 시내 산에서(출19:9; 24:12-18) 성막이나 성전에서(출40:34; 왕상8:10)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구름은 종종 주님의 임재를 뜻한다. 또한 구름은 주 하나님의 위엄과(시18:11-12; 97:2) 그리스도의 위엄을(마24:30; 계14:14-16) 나타내기도 하고 군대나 무리를 상징하기도 특별히 그들이 웅장하게 움직이는 것을 상징했다(사60:8; 렘4:13; 히12:1). 팔레스타인의 여름에는 구름을 보기 어려우며(삼상12:17-18) 지중해에서 뜨는 구름은 비가 올 것을 의미했다(왕상18:44; 눅12:54).

● 구름 기둥(Pillar of cloud)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임을 보여 주는 기적의 표시(출14:24; 16:10; 민12:5). 이것은 사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했으며 낮에는 보호막과 그들이 되고 밤에는 빛을 주었다(출13:21-22; 14:19-20).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그들의 움직이는 것을 지시하셨고(민9:15-23; 14:14; 신1:33) 사4:5는 천년 왕국에도 이런 것이 있음을 보여 준다.

● 구매증서(Evidence of the purchase) 대언자 에레미야가 자기 숙부의 아들의 발을 산 것을 증명하는 증서(렘32:11-16). 대언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예루살렘 회복의 확실함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증서로 번역된 evidence는 다른 곳에서 책 혹은 기록 등으로 번역되었다.

● 구사(Chuzza, 쿠저) 헤롯의 청지기(눅8:3). 그의 아내 요안나는 신실하게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섬겼다(눅8:1-3). 요안나 참조.

● 구산리사다임(Chushan-Rishathaim, 쿠산리사체임) 메소포타미아의 왕.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으나 갈렙의 조카 웃니엘에 의해 멸망당하였다(삿3:8-10).

● 구속(Redemption) 속죄와 구속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해된다. 속죄 참조. 이 두 용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구속이란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말에서는 '무르다' 혹은 '속량하다'로도 표현되었다. 그런데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영계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 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1:14)는 말씀에 나오는 소유물, 즉 구속받아야 할 소유물은 바로 바울이 롬8:22-23에서 말하는 양자 삼으심의 대상인 우리 몸이다.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몸의 영원성과 땅의 상속권을 상실했으며 그 뒤 아담의 씨가 받아야 할 모든 상속물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다(눅4:6). 아담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성경은 소유물의 가까운 친족이 소유주가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레 25:23-24)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족으로 예비하셨다. 친족이 되기 위해 먼저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처녀 탄생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 처녀 탄생: 예수님의 계보 선도 참조(63).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벧전 1:18-20).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영광은 구속되지만 그의 몸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완전히 구속된다(빌3:20-21). 또한 주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친년 왕국 때에 구속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대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다. 만물의 회복 선도 참조(94).

● 구속자(Redeemer) 은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호칭.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값을 다 치르셔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마20:28; 갈3:13; 엡1:7; 딤후2:6; 딤후2:14; 벧전1:18-19; 계5:9). 모세의 율법에서(레25:25, 48) 이 호칭은 어떤 사람의 상속 유업을 속할 수 있는 사람, 즉 다시 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며 대개 이 사람은 상속 유업을 잃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으로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무를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 이 같은 예로 보아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 엘리멜렉의 유산 상속자인 룻과 결혼하여 그녀의 소유 안으로 들어갔다. 또한 에레미야는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넬의 밭,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리려고 하던 밭을 친족 구속자 자격으로 구매했다(렘32:7-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다(골19:25-26).

한편 이런 일을 하는 가까운 친족은 피를 무르는 사람이며 그래서 이것을 복수하는 자 혹은 피를 복수하는 자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바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자기 친척의 피를 복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민35:12, 19, 21; 신19:6, 12).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피를 복수하는 자 혹은 피를 무르려 하는

자로부터 무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 도시들을 마련하셨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19)와 도피 도시 참조.

● 구스(Cush, 쿠쉬) I. 함의 맏아들. 그는 니므롯, 시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그리고 삽드가를 낳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다(창 10:6-8).

II. 구스의 후손들이 거하던 지역. 영어 성경에서 이곳은 주로 이집트 남쪽의 에티오피아라고 불리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A. 이집트 남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를 뜻한다(사 18:1; 20:3-5; 렫13:23; 겔29:10; 단11:43).

B. 동방의 구스는 티그리스와 에브라타 강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여러 지역을 포함했으며 기혼 강 등이 여기에 속했다(창2:13; 습3:10). 에덴 참조.

C. 히브리 사람들은 구스 혹은 구산(합3:7)이 아라비아의 남쪽 지역 호해 해안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여기에서 니므롯이 나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세력을 떨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창10:8).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결혼한 에티오피아 여인도 이 지역의 구스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한다(출2:16-21; 민12:1; 대하21:16).

● 구아도(Quartus, 콰터스, 넷째) 고린도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하였다(롬16:23).

● 구원(Salvation)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구출하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종종 잠정적인 구출을 뜻하는 데도 쓰였다(창14:13-16; 삼상14:45).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 주님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영적으로 구출되는 것이야말로(마1:21) 이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이며 그래서 구원은 대개 이와 같은 영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구원은 구출뿐만 아니라 구출의 결과, 즉 주님의 왕국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뜻하기도 한다(고후7:10; 엡1:13).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합당하게 묘사되어 있다(히2:3). 구원의 원리 선도 참조(88).

히브리 사람들은 구체적인 용어보다 추상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리, 구원의 소식,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방패, 구원의 뿔은 구출을 선포하는 목소리, 큰 위협에서 빠져나올 때의 기쁨, 피신하여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바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영광과 기쁨의 뿔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다가오는 큰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였다.”는 뜻이다. 구원의 웃은 명절 등에 입는 화려한 옷을 말하며(사61:10) 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입는 것, 즉 큰 위협에서 구출받는 것을 뜻한다. 끝으로 기존 성경에서 딤후2:15의 “여자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은 여자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서 모든 산 자들의 어머니인 이브로 말미암은 해산의 저주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을 낮추면 이브가 당했던 속임수에서 구출되는 것을 말하거나 수태의 전 기간에 죄와 유희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뜻한다.

● 구원자(Savior) 이 용어는 대부분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마1:21).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고 이는 곧 구원자를 뜻한다(요4:42; 행5:31). 구원 참조.

● 구유(Manger) 마소나 돼지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눅2:7).

● 구제물(Alms) 어려운 형편이나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기 위한 돈 혹은 물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열어 관대히 은혜를 베풀 것을 명령받았다(신15:11). 그래서 포도원, 과수원, 밭에서 수확한 후에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으며(레19:9-10; 룻2:2-8)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었다(잠14:21; 19:17).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구제물을 주면 죄가 용서된다는 잘못된 견해가 생겨났다. 예수님 때에는 의(義)라는 말이 구제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물을 주는 것(마6:2-4), 기도(마6:5-15), 금식(마6:16-18) 등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마6:1)라고 말씀하셨다. 이로써 주님께서 구제물을 주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외적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다비다(행9:36)와 고넬료(행10:2) 같은 성도들이 구제물을 준 것들을 잘 보여 준다. 크리스천 교회는 반드시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하나님은 이런 자선 행위를 기뻐하신다(사58:6-8; 요일3:17).

● 군단(Legion) 로마의 군단 내 군인의 수는 시대에 따라 변해 3,000-6,000명 정도였다. 그리스도 시대에 군단은 기병 외에 6,000명으로 구성되었고 각 군단에는 10개의 보병대가 있었으며 각 보병대는 세 개의 중대로 그리고 각 중대는 두 개의 100인 조 부대로 편성되었다. 성경에서는 군단이 무한히 많은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주님께서 군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는 곧 그에게 무수히 많은 마귀가 있었음을 뜻한다(막5:9). 또한 마26:53의 열두 군단은 하늘의 군대가 많다는 것과 그들이 다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임을 보여 준다.

● 군대(Army)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늦은 시기에 정규 군대를 구성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 정치적 연합체를 이루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보호자로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으므로 군대를 조직하는 일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윗 시대 이전에는 위기를 알리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모여 군대를 이루었다(창14장).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 때에는 온 민족이 하나의 군대를 이루었고 모든 지파의 남자들이 싸움에 나섰다. 민수기 2장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진을 친 것을 보여 준다.

재판관들의 시대는 정치, 종교, 군사적으로 연합을 이루지 못한 때였다. 이때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재판관을 세워 싸움을 주도하게 하셨다. 그 뒤 사울 시대에 정규 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삼상13:2; 24:2; 26:2) 그 이후에 다윗은 군대를 늘리고 용병을 고용하며(삼하15:19-22) 사령관직을 요압에게 주었고 이때에 암몬을 포함한 여러 주변 지역을 흡수했다(삼하11:1; 대상20:1-3). 다윗은 24,000명으로 구성된 열두 그룹이 매달 돌아가면서 군대에 종사하게 했다(대상27). 솔로몬 역시 군대를 늘리고 병거와 기병을 늘렸다(왕상10:26).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장 신실한 군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였다. 사람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초개와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여리고 앞에서 행진 하였다(수5:13).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다(삼하5:24). 대언자 엘리사는 개하시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그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였다(왕하6:8-23).

● 군대들의 주(LORD of the host) 기존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 군대, 만군 참조.

● 군림(Reign)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림.

● 군사(Men of war, Soldier) 이스라엘 군대는 스무 살 이상의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보병이 대부분이었지만(민11:21; 삼상4:10; 15:4) 창병, 투석병도 있었으며 후에 정규 군대가 생기면서 기병도 많이 보강되었다. 군대 참조. 신약 시대가 되면서 로마 군대의 군인이 등장하고 백부장, 총대장(행21:32) 등의 명칭이 나온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군대에서 대장과 부하의 관계와 같음을 보여 주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한다(딤후2:3-4).

● 군사가 넷씩인 소대(Quaternion of soldiers) 네 명으로 이루어진 소대(행12:4). 로마 사람들은 밤에 보초를 서도록 소대를 파견하면서 밤을 사경으로 나누었고 따라서 각각의 군인은 자기 순서가 될 때 3시간씩 보초를 섰다. 그러므로 로마의 체제에 익숙한 헤롯이 베드로를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겼다는 것은 한 번에 네 사람이, 즉 둘은 그와 함께 옥에서, 둘은 문 앞에서 보초를 섰고 각 소대는 3시간씩 순서대로 보초를 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굴(Cave) 지형 구조상 유대에는 동굴이 많으며 이런 굴은 거주지, 피신처, 무덤 등으로 사용되었다.

소돔의 멸망 이후에 롯은 굴에서 살았다(창19:30). 이두메아(에돔)의 페트라라는 굴이 많은 도시였다(민 24:21; 아2:14; 렘49:16; 욥3). 고대 사람들은 인공 동굴을 만들고 자연 동굴을 확장해서 피난처와 방어 목적으로 사용했으며(삿6:2; 삼상13:6; 사2:19) 막벨라, 아들람, 엔게다, 갈멜의 동굴은 지금도 존재한다. 돌무덤 참조.

● 궁창(Firmament) 땅 위의 광활한 하늘들(창 1:17). 궁창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튿날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기 위해 창조하셨다. 궁창은 대기의 하늘과 별들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원래 이 말은 '단단하다', '딱딱하다'(firm)를 의미하며 어원적으로는 무엇을 지지해 주는 굳은 기초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활같이 흰 하늘을 가리킨다. 이것을 지지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하늘의 기초들이 흔들리며(삼하22:8), 기둥들이 떨고(욥26:11), 창문이 거기에 있으며(시 78:23; 말3:10), 문이 있다(창7:11). 또 하늘은 부어 만든 거울처럼 강하고 딱딱하다(욥37:18).

● 궁핍(Want)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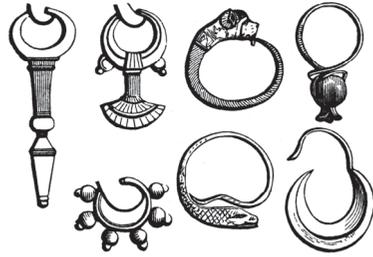
● 권고(Advice)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잠언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하며 그 차이가 권고를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잠12:15). 특히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야 한다(잠19:20). 이 뜻 외에도 이 말은 요구(삼하19:43), 총명함(삼상25:33), 그리고 스스로 생각함(대하25:17) 등을 뜻한다. 계획, 조언 참조.

● 권능(Power) 권세와 능력 혹은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천상의 영적 존재들의 한 등급을 나타내는 때도 있다(엡1:21).

● 권력(Principality) 이 말은 기존 성경에서 정치에 관계되는 일 또는 행정에 관한 사무를 뜻하는 정사로 번역되었지만 이 말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권력이다. 권력의 성경적 의미는 주권 혹은 주권을 잡은 자를 뜻하며 엡1:21 등에서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의 한 등급을 말한다.

● 권면(Exhortation)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이것은 사도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혹은 대언적인 기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롬12:8) 가르침의 부산물인 것 같다(고전14:3). 성경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며 권면하여 마땅히 할 일과 바른 일을 하게 할 것을 말한다(사58:1; 롬12:8). 구약의 대언자들은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고(사1:17; 렘4:14; 겔37:1) 사도들과(행11:23) 예수님도 그러했다. 계획, 권고, 조언 참조.

● 귀(Ear) 듣는 기관. 영어에서 '듣다'를 뜻하는 hear와 hearken 등의 단어에는 귀를 뜻하는 ear가 들어 있다. 제사장이 거룩히 구별될 때 또는 나병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오른쪽 귀에 피를 발랐다(출29:20; 레8:23; 14:14). 동방 사람들은 귀걸이



를 차곤 했으며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종의 귀를 뚫어 영원히 종살이를 하게 하기도 했다(출21:6; 신 15:17). 귀를 둔하게 하거나 막는 것(사6:10; 렘6:10)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은 "그분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다."(시34:15)는 것으로 표현된다. 사람의 세 요소 선도 참조(61).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한다. 이교도들의 종교에서는 신을 보는 것이 최고의 경험으로 간주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근본적인 믿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삼상3:9-10; 롬 10:14). 따라서 모세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신 6:4)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기쁘게 듣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유일한 분이다(마17:5). 복음 선포 역시 듣는 것이 중심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생기기) 때문이다(롬10:14, 17; 살전2:13).

● 귀감랍석(Chrysolite) 이것은 안산암이나 현무암 등의 화산암에서 산출되는 보석으로 올리브색이나 황갈색을 띤다. 투명/반투명한 것이 있다(계21:20).

● 귀리(Millet) 귀리는 이탈리아, 시리아, 이집트, 인도 등에서 재배되는 여러 종의 곡식이다. 이것은 고대에 가축의 풀이나 빵의 재료로 사용되었다(겔 4:9). 에스겔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귀리를 섞어 빵을 만들어 먹었다.

● 귀신(Demon) 기존 우리말 성경은 초기 번역자들의 사머니즘으로 인해 영적 존재인 마귀들(devils)을 귀신들(demons)로 번역하였다. 우리말 사전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넋 혹은 혼령'이라 정의 내리므로 성경의 마귀들은 결코 귀신들이 될 수 없다. 그리스, 이집트, 중국, 인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이나 유령에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여기서 귀신(demon)이라는 말이 나왔다. 웹스터 영어 사전은 귀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고대 이교도들의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 고대 사람들은 악한 귀신과 착한 귀신이 있어서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귀신들을 숭배했으며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준 영적 존재, 즉 귀신(demon)을 자기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귀신이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적인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성령이 '악한 영들'(evil spirits)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존경과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반신반인' 혹은 '귀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신(gods)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God)이 있으며, 많은 아들(sons)이 있고 유일한 아들(the Son)이 있으며, 많은 마귀(devils)가 있고 유일한 마귀(the devil)가 있다는 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다. 마귀 참조.

● **깃불(Tip of the ear)** 컷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뜻했다(출29:20; 레8:23-24).

● **규례(Ordinance)** 규칙으로 정한 법. 신약 교회의 규례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다. 침례, 주의 만찬 참조.

● **그나스(Kenaz, 사냥꾼)** I. 엘리바스의 아들, 예서의 손자(창36:11, 15; 대상1:36). 그는 동부 아라비아에 거하던 그나스 족속의 우두머리였다.

II. 에돔의 족장(창36:42; 대상1:53).

III. 갈렙의 아버지, 웃니엘의 아버지(수15:17).

IV. 갈렙의 손자(대상4:15).

● **그늘(Shadow)** 이것은 종종 감캄한 것(시23:4), 차가운 곳(사32:2), 혹은 완전히 보호된 곳(시17:8; 사49:2; 단4:12)을 뜻하였다. 욥7:2; 렘6:4 등에서 이 말은 기우는 해에 의해 만들어지는 긴 그림자를 뜻하였다. 쉬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즉 그들은 인생의 상징이다(대상29:15; 시102:11).

● **그달리아(Gedaliah, 게달라야, 여호와께서 큰일들을 행하셨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멸한 뒤 느부갓네살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 그는 아히감의 아들로써 자기 아버지처럼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친구로 삼았다(렘40:5). 그는 지혜롭게 미스바에서 다스리기 시작했으나 두 달이 지나 이스마엘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되었다(왕하25:22-26; 렘39-41).

● **그데못(Kedemoth, 케더마쓰, 오래된 곳)**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있던 도시. 여기서 모세는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 근처에는 사막이 있었으며(신2:26)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르우벤 지파에게 속하였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수13:18; 21:37).

● **그돌(Gedor, 기도르, 벽)** 유다의 산간 도시. 이곳은 좋은 초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말렉 족속들이 거주하기도 했다(대상4:39; 12:7; 수15:58). 그들은 또한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다(대상8:31; 9:37).

● **그들라오멜(Chedorlaomer, 케들레이오머, 라가 말의 아들)** 아브라함 당시 엘람(페르시아) 지역의 왕. 그는 사해 부근의 지역들을 다스리며 조공을 받았지만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네 명의 왕과 함께 와서 요르단의 남쪽과 동쪽 지역을 초토화하고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여기에 끼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곧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들을 추격하여 물리치고 롯을 구출했다(창14:1-24; 비교 시110:1-7).

● **그두라(Keturah, 케투라, 향)**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얻은 아내(창25:1-6). 그녀는 첩으로 불렸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녀의 아들들과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구분하기 위함일 것이다(창25:6; 대상1:32; 갈4:22, 30). 그녀의 아들들은 여러 아랍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 아라비아 참조.

● **그랄(Gerar, 기라, 끌고 가다)**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창10:19; 20:1; 26:1, 6, 17). 이곳은 유다의 남부에 있는 가자에서 멀지 않았다(대하14:13-14). 가자 참조.

● **그레스겐(Crescens, 크레스센즈, 자라나다)** 사도 바울의 조력자. 그는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딤후4:10).

● **그렛 족속(Cherethites, 케리타이즈)** I. 블레셋 족속의 일파. 이 사람들은 크레타 섬에 정착한 블레셋 족속이라는 견해도 있다(삼상30:14; 겔25:16; 습2:5).

II. 다윗의 호위대의 일부. 이 사람들은 항상 블렛 족속과 함께 언급된다(삼하8:18; 15:18; 20:7; 대상18:17).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를 위해 일하도록 외국인들(블레셋 족속 포함) 가운데서 취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삼하15:18에는 그들이 가드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언급된다. 블렛 족속 참조.

● **그루터기(Stump)** 나무를 베어내고 남은 뿌리 쪽 부분. 단4:15, 23, 26에서 그루터기는 다시 싹을 내는 부분으로 묘사된다.

● **그림(Cherub, 체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상의 존재. 그림은 천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이며 복수는 'Cherubim'(체리빔)이다. 그림은 살아 있는 창조물로 표현되었으며(겔1:1-28) 사람들은 그림의 형상을 성막과 성전의 직물이나 커튼 등에 수놓았다(출36:35; 겔41:25). 그림은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겔1:6; 10:14).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림은 언약궤 위에 묘사되어 있고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묘사되어 있는데(겔1:1-28; 10:1-22) 후자를 보면 그림은 날개를 가졌고 온몸에 눈이 있으며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사방으로 가는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번개같이 빨리 움직인다. 따라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림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권능이 넘치는 존재로서 창조물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그림들은 하나님의 왕좌 근처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인다(시18:10; 겔1:26; 10:20).

성전에서 그림들은 정금으로 만들어지고 궁홍의 자리 위에 올려져서(출25:19) 근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내려다보았다(시99:1).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분으로(민

7:89), 피의 속죄를 받아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었다(레16:15-16). 사탄은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겔28:14). 사탄 참조.

● 그리스(Greece, 그리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아완(Javan)이며 이것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종종 소아시아의 서부와 섬들을 나타냈다(창10:2). 그렇지만 그리스라는 말 자체는 지금의 그리스를 나타냈고 구약 성경에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단8:21; 10:20; 11:2; 율3:6; 스9:13). 아완 참조. 그리스 제국 지도 참조(37).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는 헬라(Hellas)라 불리는데 이것은 처음에 한 도시의 이름이었으나 후에는 마케도니아의 남쪽 지역 전체를 가리켰다. 주전 146년에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하고 북부 마케도니아와 남부 아가야로 나누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이집트와 시리아와 동방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 두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졌으므로 서로 접촉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로 취급하였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막7:26; 행20:21; 롬1:16).

'그리스 말 하는 사람'으로 번역된 Grecian은 태생적 혹은 종교적으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과 대비되는 외국 거주 유대인이나 개종자를 뜻했다(행6:1; 9:29). 그리스어 참조.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비해 쾌활하고 민감하고 교양이 있었지만 좀 천박했다. 그들은 전쟁과 평화의 모든 면에 뛰어났으며 의무보다는 미를 추구했다. 또 그들은 지적으로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였으므로 그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초기에 이런 그리스 사람들의 도시들에서 뿌리를 내리고 흥왕하였으며 그리스 교인들은 큰 관심을 갖고 사도들의 교훈과 관습을 잘 지켰다. 그러나 결국 여러 의견과 함께 이단 과당이 생기고 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리스 교회들은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공회들이 열리고 신조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 뒤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면서 그리스 교회의 위상이 커졌지만 8세기에 그리스 교회와 라틴 교회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리스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교회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지금은 러시아, 그리스, 터키에 오천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

● 그리스도(Christ,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이것은 보통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메시아, 예수 참조. 고대의 유대인들은 대언자들의 가르

침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점차 그 개념이 희박해져서 정작 유대 땅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진 채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들을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이 세상의 정복자 혹은 군주를 고대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구원자의 겸손한 모습과 별것 아닌 듯한 외적 모습에 분개했으며 현시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당시 그들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옛 조상들이 구약 시대에 알고 있던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다.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고 존귀를 받기도 하며 비천해지기도 하고 주인이며 종이고 제사장이며 희생물이고 통치자이며 종이고 죽음을 빠지지만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이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며 왕이며 동시에 슬픔을 아는 자로 알고 있었다. 실로 이와 같은 모순들은 모두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지만 대언자나 사도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내적/영적 기름 부음이다. 비록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다 상징이요 비유에 지나지 않았고 실체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속자의 공식 호칭이며 단순히 주님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 아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성경의 많은 구절이 힘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그리스도 대신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확실히 살아난다. 마2:4에서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다그쳐 물었는데 실로 그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해 묻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다 때에도 그는 그분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라고 말한 것이다(마16:16). 이 점에서 마귀들도 마찬가지로이다(눅4:41). 신약 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라는 이름은 덜 쓰이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분을 깊이 살펴보고 제사장, 왕, 대언자로서의 그분의 직무와 겸손과 영광의 상태에 계신 그분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시는지 볼 수 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과 규례 등과 관련된 그분의 관계와 성도들의 특권과 의무와 섬김 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히 그분을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골3:11).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선도 참조(65).

● 그리스도 안에(In Christ)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오는 관용구. 이 표현은 150회 이상 나오며 그리스도에게 속속되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자녀로 보시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신다(고후5:17).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롬6:1-5).

● 그리스도의 부활(Resurrection of Christ)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교회의 기초이며 성도들의 소망의 근원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다(고전15:17).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셨다. 예수님은 다섯 번에 걸쳐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과 장사될 것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마12:39-40; 20:17-19; 26:30-32; 눅18:31-33; 요2:19-22).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주장하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분께서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고 말한다(롬1:4).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다 차자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어떤 권세도 그분을 거기에서 단 한 순간도 붙잡아 두지 못했다(시16:10; 행2:24; 29-32).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사망을 극복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였으며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이라고 선언하셨다(계1:18).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면서 사망을 폐하고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딤후1:10). 그분께서는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셨으며 우리가 몸의 부활에 의해 죽음의 율가미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준비하셨다(히2:14-15).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계21:4). 이러한 까닭에 무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고 그분의 성도들 역시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이다(롬8:11).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다(고전15:49; 살전3:13).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므로(요11:25) 그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입을 것이다(살전4:13-17; 5:10). 그들의 생명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졌는데(골3:3) 그 이유는 그분께서 살아계시므로 그들 역시 살 것이기 때문이다(요14:19).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책망하셨다(마22:29).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다섯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20:11-18) 그다음에는 여인들에게(마28:9-10), 베드로에게(눅24:34), 늦은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

자들에게(눅24:13-35), 저녁에 다락방에 있는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요20:19; 눅24:36-48)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다시 일주일 뒤 같은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20:24-29) 나중에 갈릴리 해변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요21:1-25) 그 뒤에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서 열한 명의 제자들과(마28:16-20)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전15:6). 그 뒤 그분은 야고보에게 보이셨고(고전15:7)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뒤 올리브 산으로부터 제자들 앞에서 들려져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눅24:50-53). 그 뒤 그분은 자신의 가장 큰 원수들 중 한 명인 바리새인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했다. 또한 부활 뒤 6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밧모 섬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에 대한 제자들의 전체적인 태도를 180도 바꾸어 버렸고 그들의 삶에 완전한 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들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은 ‘이집트 탈출’(출애굽)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절정이었다.

기독교회가 안식과 경배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주의 첫날에 모인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증표이다. 안식, 안식일, 부활 참조.

● 그리스도의 심판석(Judgment seat of Christ)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7년 전쯤에 공중으로 들려져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은 뒤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 심판 참조.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받는 심판이며 그 결과는 보상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른 행위가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불로써 받는 것 같다(고전3:11-15). 보상의 심판 선도 참조(84).

고대 올림픽 게임에서 선수들은 게임이 끝난 뒤 배마라 불리는 심판석 앞에 모였다. 그 심판석은 심판이 앉아 있는 높은 좌석이었으며 승리자들은 월계관과 상을 받았으나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상이나 월계관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거기서 상을 받지 못했다. 바로 이런 게임의 심판석(배마)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뜻으로 성도들의 심판을 묘사하였다.

● 그리스도인(Christian, 크리스천) 주후 42년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 준 호칭(행11:26). 아마도 이것은 경멸의 표시라기보다는 편리성 때문에 붙여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새로 일어난 종파를 묘사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호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은 서로를 '형제', '신실한 자', '성도', '신자' 등으로 불렀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나사렛파' 혹은 '갈릴리파' 등으로 불렀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요 죄에서 구속하는 자요 선생이요 삶의 근원이요 기쁨이요 안내자로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들만이 나중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본성, 즉 옛 본성(육체)과 새 본성(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고전6:19-20; 롬7:15-25; 갈5:16-17).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자로서(롬8:1-4)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그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않는다(롬6:11-13; 8:12-13; 갈5:16-23; 었4:22-24).

육체, 즉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현 세상에서 결코 뿌리 뽑을 수 없으며(갈5:16-17; 요3:6)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요3:6; 요일1:8, 10).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누가 되는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벧전1:14-16; 요일3:5-9). 성화 참조.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의 능력과 선물(은사)을 공급하신다(롬12:6-8; 고전12:4-11). 물론 은사는 다양하지만 공급하시는 분은 동일한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섬김의 은사를 받는다. 사도 시대에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었4:11-15).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도나 대언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복음 전도자나 목사 및 교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선포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섬김의 영역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복음 전도자나 목사(장로, 감독)와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전14:34-35; 딤후2:11-14; 3:2, 11-12). 선물 참조.

● 그리스보(Crispus, 크리스푸스, 구불구불한) 고린도에 있던 회당의 치리자. 그는 바울의 복음 선포로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고전1:14).

● 그리스어(Greek) 그리스어는 산스크리트어와 대다수 근대 유럽어와 더불어 동일 어족에 속하는 언어이며 지난 3,400년 동안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자료를 지니고 있는 고전 언어이다. 그리스어에는 여러 방언이 있으며 신약 성경은 코이네(Koine Greek), 즉 일상어로서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주전 4세기경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통일성을 갖게 된

구어체 그리스어를 가리킨다. 이 구어체는 일찍이 여러 개로 나뉜 여러 방언을 통일하고 몇 가지 외래 개념을 받아들여 복잡한 그리스어 문법을 단순하게 만든 장점을 갖고 있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리스어를 하는 유대인들의 기록 형식과 관용구 등을 사용하였고 또 시리아어와 히브리어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므로 신약 성경은 그 당시 다른 저자들이 그리스어로 기록한 문서와 매우 많이 달랐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종교 관습이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그리스어는 동방의 언어로 자리 잡았고 특히 교역에 많이 사용되었다. 성경 기록자들은 그 당시 여러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의심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용하던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고대 그리스어는 단수, 양수, 복수 등 세 가지 수를 갖고 있었지만 이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단수와 복수뿐이다. 그러나 명사를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누는 고대 그리스어 문법은 지금도 쓰이고 있으며 형용사는 명사의 성, 수, 격에 일치시킨다. 그리스어의 특징은 풍부한 어휘와 유연한 문장 구조이며 이런 특징으로 인해 신약 성경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그리스어는 17개의 자음과 7개의 모음으로 구성되고 로마 문자처럼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다: 1. 알파(A, α) 2. 베타(B, β) 3. 감마(Γ, γ) 4. 델타(Δ, δ) 5. 엡실론(E, ε) 6. 제타(Z, ζ) 7. 에타(H, η) 8. 켄타(θ, θ) 9. 이오타(I, ι) 10. 카파(K, κ) 11. 람다(Λ, λ) 12. 뮤(M, μ) 13. 뉴(N, ν) 14. 크사이(Ξ, ξ) 15. 오미크론(O, ο) 16. 파이(Ι, π) 17. 로우(P, ρ) 18. 시그마(Σ, σ) 19. 타우(T, τ) 20. 울실론(Υ, υ) 21. 파이(Φ, φ) 22. 카이(X, χ) 23. 프사이(Ψ, ψ) 24. 오메가(Ω, ω).

신약 시대에 팔레스타인 밖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코이네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썼으며 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외국인과의 사귄 때에는 그리스어를 썼다. 그리스 참조.

● 그리심(Gerizim, 게러짐, 잘려 나간 자들) 에브라임의 산. 이 산과 에발 산 사이에 세겜이 있었다(삿9:7). 팔레스타인의 산들 지도 참조(53).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뒤 여섯 지파는 이 산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였고 다른 여섯 지파는 에발 산에 모여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으며 이때에 백성들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다(신11:29; 27:12-26; 28:1-68).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리심 산에서 참 하나님께 경배하였다(요4:1-54). 헤롯 대왕은 사마리아를 재건하고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그곳을 세바스테라 부

르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신전에서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성경기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그리심 산 정상에 있는 거룩한 곳을 향해 기도하고 1년에 네 차례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마리아 사람 참조.

● 그릿(Cherith, 키리쓰, 도랑) 요르단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내. 엘리야는 여기 머물면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준 빵과 고기를 먹었다(왕상17:3-5).

● 그마라(Gemariah, 게마리아아, 여호와께서 완성하셨다) I. 여호야김 시대에 성전의 서기관이던 사반의 아들. 바룩은 그의 집에서 예레미야의 대언을 낭독했고 그마라와 다른 사람들은 바룩에게 다시 그것을 낭독할 것을 요청했으며 바룩의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에게 가져가서 결국 왕이 불에 태우게 했다(렘36:1-32).

II. 힐기야의 아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 히스기야가 바친 조공을 가지고 바빌론으로 갔으며 또 유대인들이 조기 귀환한다고 약속한 거짓 대언자들에게 대언자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렘29:3-4).

● 그마림(Chemarim, 케머림) 이것은 태우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우상 숭배 제사장(왕하23:5; 호10:5), 즉 불이나 태양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뜻한다(슌1:4).

● 그모스(Chemosh, 키마쉬, 정복하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신에게 경배했다(민21:29; 삿11:24; 왕상11:7; 왕하23:13; 렘48:7).

● 그물(Nets) 그물은 성경에 종종 나오며(잠1:17; 전7:26; 사19:8-9; 합1:15-16) 특히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그물과 관련이 있었다(마4:18; 13:47-50; 눅5:1-10). 현대 무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냥을 하거나 새를 잡거나 심지어 도둑을 잡을 때에도 그물을 많이 사용하였다(욥19:6; 시140:5; 미7:2).

● 그발(Chebar, 키바르)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강. 이 강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그리고 남서쪽으로 흘러 유프라테스 강으로 들어갔다. 느부갓네살은 이곳의 비옥한 강기슭에 유대인들의 일부를 이주시켰고 대언자 에스겔은 여기서 환상을 보았다(겔1:3; 3:15; 10:15; 43:3).

● 그발(Gebal, 기발, 산) I. 로마 사람들의 그발은 '산들'을 의미하는 '이두메아의 한 지역'이었다. 이곳은 사해로부터 홍해의 엘라니틱 만에 이르는 엘라라바 계곡의 동쪽 산지의 북부 지역이었다(시83:7).

II. 베이루트 북쪽에 있던 페니키아의 항구 지역. 이곳 사람들은 그발 족속(Giblites)이라 불렸으며 왕상5:18에서는 '돌을 다듬는 자들'로 표현되었다. 이들의 땅과 레바논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배정되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다(수13:5). 이곳은 중요한 곳이었으며(겔27:9) 특히 담무

스리는 이방신 숭배의 본산지였다.

● 그술(Geshur, 기서) 시리아에 있던 지역. 그곳 사람은 Geshuri(기슈라이) 혹은 Geshurites(게슈라이츠)로 불렸다. 그술은 바산과 마아가 그리고 헤르몬 산 사이의 요르단 강 동쪽에 놓였으며 히브리 영토의 경계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 거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다(수12:5; 13:13). 그들은 조공을 바친 것으로 보이며(대상2:23) 자기들의 왕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의 아내 중 하나인 마아가, 즉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 왕 달매의 딸이었고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인 뒤 여기로 피신해서 외조부와 함께 3년을 거했다(삼하3:3; 13:37; 15:8).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 근처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수13:2; 삼상27:8).

● 그술롯(Chesulloth, 키셀로쓰) 스블론과 잇사갈의 경계에 있던 마을. 이곳은 기슬롯다불이라 불리기도 한다(수19:12, 18, 22).

● 그일라(Keilah, 키아일라) 유다의 평야에 있던 도시. 다윗은 이 도시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했으나 이곳 사람들은 그를 사울에게 내주려 하였다(삼상23:1-13; 느3:17).

● 근(Pound) 이에 상응하는 원어는 리트라로 약 340그램 정도의 무게를 가리킨다.

● 근채(Cummin) 미나리와 식물. 이 식물의 씨는 향내가 나는 기름을 낸다(사28:25-27).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화와 회향과 근채와 같은 작은 것의 십일조는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크게 책망하셨다(마23:23).

● 클라우다(Clauda, 클러다) 크레타 섬의 남서부 연안에 있는 작은 섬.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이곳에 접근했다(행27:16).

● 클라우디아(Claudia, 클러디아) 크리스천 여인. 이 여인은 바울이 로마에서 회심시킨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딤후4:21).

● 클로바(Cleophas, 클리오파스, 유명한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리아의 남편(요19:25). 그는 알패오라고도 불렸다. 알패오 참조. 눅24:18의 클로바는 다른 사람이었다.

● 클로에(Chloe, 클로이, 푸른 잎이 무성한)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 사도 바울은 클로에의 집안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음을 들었다(고전1:11).

● 글자(Letters) 히브리 사람들은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작되는 이합체(離合體) 시(acrostic poems) 혹은 '머리글자 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시편 119편이다. 여기에는 히브리어의 각 문자로 시작되는 22개의 소절이 있으며 각 소절은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첫 8절은 히브리어의 첫째 문자인 '알레프'로 시작되고 다음 8절은 둘째 문자인 '베트'로 시작된다. 한편 시25:1-22; 34:1-22는 각각 22절을 가지고 있는데 각 절은 히브

리 문자로 시작된다. 또한 시111:1-10; 112:1-10의 경우 처음 반 절은 한 문자로 그리고 다음 반 절은 그다음 문자로 시작된다. 예레미야 예가의 1:1-22; 2:1-22; 3:1-66; 4:1-22; 5:1-22 역시 이합체 구절이다. 히브리어 참조. 요7:15에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배우지 않아서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들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글자 -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서는 율법 자구로 번역됨 - 를 말하였다(롬 2:27, 29; 7:6; 고후3:6).

● 금(Gold) 고대부터 세상 곳곳에 잘 알려진 귀 금속.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벨(욥28:16), 바르와임(대하3:6), 세바와 라마(겔27:22) 등에서 금을 구했으며 용은 여러 형태의 금을 이야기했다(욥22:24; 28:15-19). 아브라함은 금이 많았고 여자들의 장식 품은 금으로 만들어졌다(창13:2; 24:22, 35). 언약궤는 순금으로 입혀졌으며 공홀의 자리와 성막과 성전에 속한 많은 기구들과 솔로몬의 음료 그릇들도 금으로 만들어졌다.

● 금강석(Adamant) 고대에 다이아몬드를 일컫던 이름. 이것은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하며 유리나 혹은 단단한 물질 위에 글을 기록할 때 쓰였고(렘 17:1)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단단한 것을 나타낼 때 도 사용되었다(겔3:9; 숙7:12).

● 금송아지(Golden calf)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간청을 받아들여 만든 우상(출32). 후에 여로보암 1세는 왕국이 분열된 뒤 북쪽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벨벳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왕상 12:28). 송아지는 이집트, 그리스 등 고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대상이었고 현재 인도 등 힌두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송아지, 벨벳 참조.

● 금식(Fasting)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금식했으며 이것은 본성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사실 이러한 때에는 몸이 영양분 섭취를 거부하면서 굶주림으로 인한 식욕을 유보시킨다. 성경을 보면 모세 이전에는 금식이라 할 수 있는 예가 없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처럼 40일 동안 금식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신9:9; 왕상19:8; 마4:2).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 할 때 도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려 할 때 금식했다(삿 20:26; 삼상7:6; 삼하12:16; 왕상19:8; 느9:1; 렘36:9). 또 공적인 재단이 타칠 때 그들은 특별 금식을 선포하고 첫 먹는 아이까지도 금식했다(욥2:16; 단10:2-3). 그들은 해가 질 때에 금식을 시작해서 다음 날 그 시간까지 금식했으며 또 매년 속죄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모두 금식했다. 속죄 참조.

주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금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암시하셨다(눅5:34-35). 실로 그분의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금식하는 삶이었다(고후6:5; 11:27). 주님께서는 금식의 관습을 인정하셨고 사도들은 필요한 때에 그것을 실천했다(마6:16-18; 행13:3; 고전7:5).

● 구시아(Kezia, 키짜이아) 용이 하나님을 만난 뒤 건강을 회복하고 얻은 세 딸 중 둘째 딸(욥42:14-15). 여미마 참조.

● 긍휼(Mercy)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 이것은 비참하고 죄 많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서 그분의 진리와 공의와 조화를 이룬다(시85:10).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한하신 분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참되게 체험한 사람은 그것처럼 긍휼을 베풀고(눅6:36) 비참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시41:1-2) 모든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마5:7; 18:33).

● 긍휼의 자리(Mercy-seat) 언약궤를 덮는 뚜껑(대상28:11). 언약궤 참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뚜껑을 뜻하며 이것은 죄들을 덮어 주는 것, 즉 용서하는 것을 포함한다(시32:1). 기존 우리말 성경은 이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 하였다. 이것은 구약 시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위에 둔 '금으로 만든 자리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곳을 뜻한다(출 25:17-22).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속죄를 뜻하였다(히9:4-5).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긍휼의 자리로 갔는데(레16) 이는 속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롬3:25).

● 기(Banner, Standard) Standard는 지파나 군대를 모을 때 장대 위에 높이 단 깃발 같은 상징이며(민2:10; 사59:19)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군기로 번역되었다. 이교도들은 짐승의 형상 등을 조각해서 군기를 만들어 언덕 위에 세우곤 했다. 한편 Banner는 Standard 위에 붙여서 단 깃발이며 주로 군사적 혹은 종교적 모임이나 행진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 Ensign은 '표시가 있는 깃발'을 뜻하며 대개 기로 번역되었다(민2:2).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깃발이 달린 4개의 큰 군기를 가지고 다녔다(민1:52; 2:2-3). 이런 깃발은 주로 군사를 모아 싸울 때 사용하였다(사5:26; 18:3; 렘4:6). 한편 성도들 위에 나무개는 그리스도의 깃발은 사랑이다(아2:4).

● 기구(Vessel) 세간, 그릇, 연장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 기근(Famine)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 혹은 흉년. 성경은 팔레스타인(가나안) 지방과 그 이웃 지방들에 여러 차례 기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다(창 12:10; 26:1; 룻1:1; 왕하6:25; 행11:27-30). 이집트에서 7년 동안 일어난 기근은 아주 특기할 만한 것으로 그 당시 요셉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를 해결했다(창41:1-57). 이 기근은 기간과 범위와 정도 면

에서 다른 기근과 달랐으며 특히 이집트의 땅이 비옥하여 거의 기근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기근은 종종 정상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나일 강이 이집트에서 넘쳐흐르지 않기도 하고 유대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며 또 어떤 때에는 메뚜기와 다른 해충들이 열매를 다 먹어 치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자연적인 기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다. 그분께서는 종종 이런 기근들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공평에 처하게 하신다(왕하8:1-2; 켈6:11; 마24:7). 한편 가장 나쁜 기근은 영적 기근이다(암8:11).

● 기념(Memorial)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 유월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난 자들을 은혜로 다 살려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다(출12:14). 또 요르단 강의 돌무더기는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한다(수4:7). 한편 기념은 또한 기록을 뜻하며(출17:14; 말3:16)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부은 마리아의 행위도 기록되어 기념되고 있다(마26:13; 막14:9).

● 기도(Prayer)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에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혼의 생명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롬21:15; 시10:4).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율법의 시작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경배를 멈추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헌물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제사장들은 개개인을 위해 희생물과 향과 헌물과 첫 열매를 드렸고 처음 난 자를 구속하여 오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의식을 수행하였다. 각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염속한 날뿐만 아니라 일반 날에도 몰려와서 자기들의 서원을 실행하였는데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었다(대상23:30; 느11:17; 눅1:10). 왕상8:22와 성전 예배를 위한 다윗의 시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구약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고(시55:17; 단6:10)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공적/사적으로 가족별로 기도하였으며 일반 업무를 하면서도 짧게 기도하였다(느2:4).

기도의 자세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왕상8:22) 머리를 숙이거나(창24:26) 무릎을 꿇거나(눅22:41)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다(마26:39).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열렬히,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한 기도에는 죄의 고백과 감사와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가 포함된다. 우리는 바른 이성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무신론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므로(겔36:37; 마7:7-11; 빌4:6; 딤후2:1-3; 약1:5)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분의 뛰어난 섭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포함하며 또한 우리가 받을 응답도 포함한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므로 소용이 없고 친히 주시려고 하신 것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그분께서 후하게 응답하신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다. “네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사30:19). 다윗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이 가없는 자가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시34:6).

거짓 종교 추종자들이나 이교도들은 헛된 반복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였다. 또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반복해서 헛된 말로 길게 기도하였다. 이에 주님께서는 마6:5-15에서 이런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기도 뒤에나 혹은 모임을 마칠 때에 마치 주문처럼 이것을 외우고 있다. 이것은 실로 주님이 기도하신 ‘주기도문’(주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 주신 기도의 예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모르고 헛되이 그 기도문 자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이교도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반복 참조.

엡6:18; 살전5:17; 딤후2:8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손을 하늘로 들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고 말하였다(고전10:31).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눅18:1; 21:36). 끝으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중히 여기신다(잠28:9).

● 기둥(Pillar) 기둥은 종종 기념비를 뜻하기도 하고(창35:20; 삼하18:18) 구름을 가리키기도 한다(출13:21; 삿20:40). 기둥은 또한 성전의 앞부분을 장식하기도 하고(살16:25-30; 욥6:6; 26:11) 대인자들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며(렘1:18) 사도(갈2:9)와 성도(계3:12)와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딤후3:15).

● 기드론(Kidron, 키드런, 흐린) 예루살렘 동쪽의 급류와 그 급류가 흐르는 계곡. 이 계곡은 도시의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휘어지면서 거기에서는 폭이 넓지만 도시와 올리브 산 사이를 흐르면서는 좁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된다. 그 뒤에 이것은 실로암과 힌놈의 골짜기와 느헤미야의 성벽을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가고 남동쪽으로 굽어진다. 여기에는 독길이 있었으며 주남께서는 여기를 통해 베다니와 올리브 산과 겐세마네를 가셨다(요18:1-2). 아사와 요시아와 히스기야 왕은 이 골짜기와 힌놈의 골짜기에 이스라엘을 더럽힌 우상들을 버렸다(왕상15:13; 왕하23:4, 6, 12; 대하29:16). 힌놈, 예루살렘 참조. 고대의 기드론 시내에 있던 물의 일부는 성전에서 나왔고 이는 대언자 에스겔의 대언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대언자는 성전의 제단 앞에서 물이 흘러나와 점점 커지고 사해 바다와 그 안의 생물들을 소생시키는 것을 보았다(겔47:1-12).

● 기드온(Gideon, 기디언, 조각내는 자) 이스라엘의 용맹한 재판관(사사). 그는 므낫세에 속한 재판관으로 특히 동쪽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스렸다. 그는 요르단의 서쪽 오브라에 살았는데 수확 때면 유랑하던 부족들이 이 지역의 동쪽으로 침범해 들어왔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부터의 표적으로 격려를 받은 뒤 미디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에 자기를 돕지 않은 수곳과 브누엘에게 형벌을 가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를 진정시켰으며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성공적인 재판관의 자질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는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인해 죄와 울무에 빠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적들을 기념하기 위한 이 옷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삿8:35; 삼상12:11; 히11:32). 여룹바알 참조.

● 기라다임(Kirjathaim, 키리아세임, 두 도시) I. 기랏이라 불리기도 한 도시. 이곳은 처음에 요르단 동쪽의 엠 족속이 차지하였고 후에는 모압, 아모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례로 차지하였으며(창14:5; 신2:9-11; 겔25:9) 그 뒤에 이곳은 르우벤 지파의 소유지로 배정되었다(민32:37; 수13:19).

II. 납달리에 속한 레위 사람들의 도시(대상6:76).

● 기랏세벨(Kirhathsepher, 키리엣세퍼) 드빌 참조.

● 기랏아르바(Kirjath-Arba, 키리엣아바) 헤브론 참조.

● 기랏여아림(Kirjath-Jearim, 키리엣여림) 기랏바알(Kirjath-Baal, 키리엣베아일)이라고도 불린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수15:9, 60). 베냐민의 경계에 있던 이곳은 후에 유다에게 배정되었으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수18:14-15). 하나님의 궤는 여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으며 후에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삼상7:2; 삼하6:2; 대상

13:1-14).

● 기록관(Recorder) 유다의 법정에서 사건들을 기록한 사람(삼하8:16; 왕상4:3; 왕하18:18).

● 기론(Chilion, 킬리안, 병자) 기론과 말론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다(룻1:2, 5). 나오미 참조.

● 기르(Kir, 커, 벽) I. 모압의 강한 도시. 이곳은 길하레셋 혹은 길헤레스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사15:1; 16:7, 11; 렘48:31) 이스라엘의 요람 왕에 의해 거의 폐허가 되기도 하였다(왕하3:25).

II. 아시리아의 디글랏발레셀이 다마스쿠스의 포로들을 이주시킨 지역(왕하16:9). 이곳은 아르메니아의 북동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 기름(Fat) 희생물로 바친 짐승의 기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주님께 거룩한 것이므로 모두 태워야 했다. 피 또한 짐승의 생명을 담고 있으므로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름과 피를 먹지 않았다(레3:16-17; 7:23-27).

● 기름(Oil) 동방에서는 아주 초창기부터 사람을 성별하고 또 머리와 수염과 몸에 바르기 위해 기름을 사용하였다(창28:18). 기름 부음 참조. 또 기름은 음식물로 사용되었으며(겔16:13) 유대인들은 버터나 짐승의 기름보다 올리브기름을 더 선호하였다. 기름은 또한 성전에서의 음식 헌물에도 봉헌물과 혼합되어 사용되었다(레5:11; 6:21). 올리브기름은 등잔에 사용하기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성막을 비추는 데도 사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고 그 기름을 사그라드는 것은 동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대상27:28; 겔27:17; 호12:1). 기름은 곡물이나 포도즙처럼 저장해서 보관하는 주요 물품이었다(대하32:28; 스3:7). 올리브 참조.

● 기름(Ointments) 히브리 사람들은 의학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사치품으로 연고식의 기름을 사용하였다(룻3:3; 시104:15; 아1:3; 마6:17; 눅7:46). 이런 기름의 향기는 올리브기름 속에서 예비되었다. 성막에서 거룩한 용도로 쓰이는 기름은 출30:22-33에 기록되어 있다. 부자지의 기름은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것의 향기는 아주 높게 평가되었다(사39:2; 암6:6; 마26:7-9; 요12:5). 기름 부음 참조.

● 기름 부음 혹은 바름(Anointing) 유대인들과 고대 동방 족속들의 일반적인 관습. 그들은 머리와 머리털과 수염에 기름을 발랐으며(시104:15; 133:2) 명절과 기쁜 날에는 온몸이나 머리 혹은 발에 기름을 발랐다(시23:5; 마6:17; 요12:3).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것이 종종 애곡의 표시였다(사61:3). 이것은 또한 손님을 존중히 여기는 표시였다(눅7:38, 46). 또 그들은 기름을 피부에 바르는 것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행나 지급이나 기름을 바르는 일은 의학적인 용도로 행해지고 있다(막6:13; 약5:14). 그러나 사도들이 기름을 발라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결코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지지

하지 않는다. 또한 죽은 몸이 어느 정도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기름을 발랐다(막14:8; 16:1; 눅23:56). 유대인들은 또한 왕이나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 기름을 부었고(출29:7, 29; 레4:3; 삿9:8; 삼상9:16; 왕상19:15) 성막과 성전의 기물에도 기름을 발랐다(출30:26). 이렇게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과 기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분되었음을 표시하였고 이런 용도의 기름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기름을 제조해서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하였다(출30:23-33; 겔23:41).



● 기브롯핫다아와(Kibroth-Hattaavah, 기브랏하테이아바) 이집트 탈출 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만나가 지겨우므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셔야 한다고 불평을 터뜨린 곳(민11:34-35; 33:16). 그래서 많은 수의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보내졌으나 그들의 입에 고기가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치셨으며 그래서 탐욕을 낸 사람들이 죽어 그곳이 무덤이 되었다(시78:30-31). 이것은 불만족의 죄를 보여 주는 기념비이다(고전10:6). 출애굽 참조.

● 기브아(Gibeah, 기비아, 작은 산) I. 베냐민의 도시(삼상13:15). 이곳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출생지요 거주지였고 그래서 종종 '사울의 기브아'라 불렸다(삼상11:4; 15:34; 23:19; 26:1; 삼하21:6; 사10:29). 기브아는 또한 사악한 죄로 인해 유명했으며 특히 거기에 머물러 간 젊은 레위 사람의 아내를 베냐민 사람들이 강간하고 죽이는 일로 악명을 떨쳤다. 그 일로 인해 전쟁이 생기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위기에 빠졌다(삿19:1-30). 성경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한다(삿21:25).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II. 유다의 마을(수15:7).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 기브온(Gibeon, 기비온, 작은 산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10킬로미터 북쪽에 있었던 히위 족속의 큰 도시. 분단 왕국 지도 참조(31). 이곳은 기브아

근처에 있었고 후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며 레위 사람들에게 배정되었다(수18:25; 21:17). 이곳의 가나안 족속들은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약을 맺었지만 결국 성소를 위해 나무패는 자들이 되었다. 그 뒤 다섯 왕이 연합하여 이곳을 쳤으나 유대인들에 의해 패배를 당했으며 바로 이 전쟁에서 '해가 기브온 위에서 있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다(수10:12-14).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오랫동안 있었고(대상16:39; 21:29; 대하1:3-4)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왕상3:4-15).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의 제단이 컸으므로 한 번에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렸다(그는 결코 이곳에서 번제를 친 번(일천 번제) 드리지 않았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삶에서 중요한 장면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삼하2:12-32; 20:8-12; 렘41:12).

● 기쁨(Joy, rejoice) 자연적인 기쁨은 지금 소유한 것 혹은 앞으로 소유할 것이 확실하므로 기뻐하는 것이다. 기쁨의 정도가 조금 약할 때는 Gladness라는 말을 쓴다. 기쁨이 오래 지속되어 기질로 변하면 명랑하다고 한다(Cheerfulness). 도덕적 기쁨은 무엇인가 선한 것을 해서 얻은 즐거움으로 화평이나 평온함이라 부른다. 영적 기쁨은 성령님의 선물이다(갈5:22). 성도가 누리지는 이런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시43:4; 사61:10), 약속(빌3:3; 뱀전1:8), 복음(시89:15) 등이며 이런 기쁨은 상황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영원하며 말로 할 수 없다(요16:22; 빌4:4; 뱀전1:8).

● 기슭(Kishon) 다불 산 기슭의 평야에 있는 시내. 이 시내는 큰 평야를 지나면서 여러 작은 시내에서 물을 받고 갈멜 산 기슭을 따라 흐른다. 시스라의 군대는 이곳에서 일사하였다(삿4:13; 5:21).

● 기오(Chios, 카이아스) 이곳은 길이가 50킬로미터, 너비가 15킬로미터인 소아시아 해안의 섬이다. 사도 바울은 미둘레네에서 사모로 가면서 이곳을 지났다(행20:15).

● 기운(Chiu, 카이언, 변하지 않는 자) 사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배한 우상의 이름(암5:26; 행7:43). 아마도 이것은 세턴, 즉 토성이었을 것이다. 고대 동방의 이교도들은 희생물을 드려 이 악한 영을 위로했다. 렘편 참조.

● 기이(Wonder) 기묘하고 이상함.

● 기적(Miracle)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것을 믿으며 사실 창조물이 살아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은 정상적 이교도 자연스러운 양식 혹은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치리하신다. 이러한 양식은 너무도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종종 자연의 법칙이라 불린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데 하나님의 이러한 변칙적 운행 방식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 많은 기적들이 발생한 시기가 인류 역사에 세 번 있었음을

보여 준다.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으며 이 시기는 율법 수여로부터 시작되어 약 100년간 지속되었다. 둘째는 엘리야와 초기 대언자들 시대에 일어났으며 약 150년간 지속되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와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에 일어났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주어진 시기이며 약 70년간 지속되었다.

인류 역사는 약 6,000년이므로 기적이 발생한 시기는 그중 5% 정도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자신의 지상 생애 동안 약 3년 반, 즉 자신의 삶의 10% 동안에만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기적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물론 기적이 다른 일시적인 목적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목적이었다. 기적을 말할 때 쓰인 세 단어가 이 사실을 입증한다. 먼저 기적은 '능력 있는 일'로 불리는데 이것은 행위 뒤에 숨겨진 권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때때로 기적은 '이적', 즉 '놀라운 일'로 불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을 강조한다. 또 기적은 '표적으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보여 주고자 함이다.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과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적이다. 표적 참조.

특별히 신약 성경은 여러 경우에 기적을 표적으로 본다. 요10:37-38; 20:30-31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음을 잘 보여 준다(마9:6; 11:4-5, 23-24; 요10:24-27; 20:29, 31).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기적들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엄격한 판단을 받았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서 삶과 성품 면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다. 바울은 자기가 행한 기적의 권능을 빌어 사도로서의 권위를 실제로 입증하려 했다(고후 12:11-12).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적들로 자신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히2:3-4).

이집트(애굽) 마술사들의 속임수와 고대와 현대 거짓 대언자들의 속임수는 결코 그리스도의 기적들 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았다(신13:1; 마24:24; 살후2:9; 계13:13-14).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 자신이 가르치고 보여 주고자 하는 진리를 드러내려 하셨다(왕상18:38-39).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승인 도장이며 비록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이 거짓 기적과 이적들을 사용하여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 하지만 참으로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기적의 취지였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될 때 기적의 선물(은사)도 그쳤으며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적의 선물은 초기 교회 시대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신약 성경은 기적의 선물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것들을 원한다고 말한다(마12:39).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행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지속되는 현상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특정한 개인, 즉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다. 지금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혜의 왕좌에 직접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요일5:14)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어 주신다.

다음 명단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보여 주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 주신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언 참조.

I. 구약 성경의 기적들

- 만물의 창조(창1:1-31).
- 홍수와 또 홍수에 동반된 기적들(창6:1-22).
- 소돔의 멸망(창19:1-38).
- 아비멜렉의 병을 고침(창20:17-18).
- 불타는 떨기나무(출3:2-4).
- 모세의 지팡이(출4:3-4; 7:10).
- 모세의 손(출4:6-7).
- 물이 피로 변한 사건(출4:9, 30).
- 나일 강이 피로 변한 사건(출7:20).
- 개구리 사건(출8:6, 13).
- 이(출8:17).
- 파리(출8:21-31).
- 집승의 전염병(출9:3-6).
- 물집과 종기(출9:10-11).
- 우박(출9:23, 33).
- 메뚜기(출10:13, 19).
- 어둠(출10:22).
- 처음 난 것의 죽음(출12:29).
- 홍해가 갈라짐(출14:21-22).
- 이집트 사람들이 폐망할(출14:26-28).
- 마라의 물이 달게 됨(출15:25).
- 메추라기와 만나(출16:1-36).
- 호렘의 바위에서 물이 나옴(출17:6).
- 아말렉을 물리침(출17:11-13).
- 불과 구름 기둥(민9:15-23).
- 미리암의 나병(민12:10).
- 고라의 멸망(민16:28-35, 46-50).
- 아론의 지팡이가 싹을 냄(민17:8).
- 가데스의 바위에서 물이 나옴(민20:11).
- 숫뿔의 치료(민21:8-9).
-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함(민22:28).
- 광야의 재앙(민25:1, 9).
- 요르단 강이 갈라짐(수3:10-17).

요르단 강이 제자리로 되돌아가 흐름(수4:18),
 여러고 정복(수6:6-20),
 아간을 찾아냄(수7:14-21),
 해와 달이 멈춤(수10:12-14),
 기드온의 양털 사건(삿6:36-40),
 미디안 족속들의 패망(삿7:16-22),
 삼손 사건(삿14:1-20; 15:1-20; 16:1-31),
 다곤의 집이 무너짐(삿16:30),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넘어짐(삼상5:1-12),
 언약궤가 돌아옴(삼상6:12),
 수확 때에 천둥과 비가 내림(삼상12:18),
 여로보암의 손이 마름(왕상13:4, 6),
 계단이 갈라짐(왕상13:5),
 가뭄이 생김(왕상17:1),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임(왕상17:6),
 음식과 기름의 공급(왕상17:14-16),
 어린아이의 생명이 돌아옴(왕상17:22-23),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사름(왕상18:36, 38),
 비가 올(왕상18:41-45),
 불에 의해 사람들이 죽음(왕하1:10-12),
 요르단 물이 갈라짐(왕하2:14),
 기름의 공급(왕하4:1-7),
 아이의 생명을 구함(왕하4:32-35),
 나아만의 나병을 고침(왕하5:10, 14),
 계하시의 나병(왕하5:27),
 쇠가 물에 뜸(왕하6:6),
 시리아 군사들의 눈이 멀(왕하6:18),
 아시리아 군사들 185,000명이 죽음(왕하19:35),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음(왕하20:7),
 그림자가 뒤로 돌아감(왕하20:11),
 이스라엘 내의 역병(대상21:14),
 요나가 고래 배 속에서 살아남(욘1:17; 2:10),
 II. 신약 성경의 기적들
 동방의 별(마2:2),
 비둘기 같은 성령님(마3:16),
 그리스도의 금식과 유혹(마4:1-11),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마4:23-24; 8:16; 14:14, 36; 15:30; 막1:34; 눅6:17-19),
 나병 환자를 고침(마8:3-4; 눅17:14),
 백부장의 종을 고침(마8:5-13),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침(마8:14),
 폭풍을 잠잠하게 함(마8:23-26; 14:32),
 마귀들을 내쫓음(마8:28-32; 9:32-33; 15:22-28; 17:14-18),
 마비 병 환자를 고침(마9:2-6; 막2:3-12),
 혈루증 여인을 고침(마9:20-22),
 아이로의 딸을 다시 살림(마9:18, 25),
 눈먼 자가 시력을 받음(마9:27-30; 20:34; 막8:22-25; 요9:1-7),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마9:32-33; 12:22; 막

7:33-35),
 제자들의 기적(마10:1-8),
 많은 무리를 먹임(마14:15-21; 15:35-38),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걸음(마14:25-27),
 베드로가 바다를 걸음(마14:29),
 그리스도가 변화됨(마17:1-8),
 고기의 입에 있는 공새 돈(마17:27),
 무화과나무가 마름(마21:19),
 십자가에서의 기적들(마27:51-53),
 부활의 기적들(마28:1-7; 눅24:6),
 많은 고기를 잡음(눅5:4-6; 요21:6),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눅7:14-15),
 요한의 사자들 앞에서 이루어진 기적들(눅7:21-22),
 70명이 행한 기적들(눅10:9, 17),
 병약한 여인을 고침(눅13:11-13),
 수종을 고침(눅14:2-4),
 말고의 귀를 고침(눅22:50-51),
 물이 포도즙으로 변함(요2:6-10),
 귀족의 아들이 고침을 받음(요4:46-53),
 불구자가 고침을 받음(요5:5-9),
 바다를 건넌(요6:21),
 나사로를 살림(요11:43-44),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일(요20:19, 26),
 오순절 날의 기적들(행2:1-11),
 사도들의 기적들(행2:43; 5:12),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음(행3:7),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행5:5, 10),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음(행5:15-16),
 사도들이 감옥에서 구출을 받음(행5:19),
 스테반의 기적(행6:8),
 빌립의 기적(행8:6-7, 13, 39),
 애니아가 온전하게 됨(행9:34),
 도르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행9:40),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됨(행12:6-10),
 엘루마가 눈이 멀(행13:11),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행14:3),
 다리 저는 사람이 치유됨(행14:10),
 부정한 영이 쫓겨 나감(행16:18),
 바울과 실라가 구출됨(행16:25-26),
 바울의 특별한 기적들(행19:11-12),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행20:10-12),
 독사가 바울을 물었으나 해를 받지 않음(행28:5),
 보블리오의 병이 나옴(행28:8-9),
 ● 기진(Faint) 기력이 풀려서 힘이 다함.
 ● 기초(Foundaion) 건물이나 구조물을 받쳐 주는 토대. 욥4:19에서 기초는 기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사람은 흙집에 거하며 그 기초 혹은 기원은 티끌이다(창2:7; 3:19). 이 말은 또한 창세(세상의 창건)라는 말에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마13:35; 25:34). 창세 참조. 기초는 그리스도(사28:16; 고전3:11), 사도들의 교리(엡2:20), 복음의 첫째 원

리(히6:1-2), 기독교(딤후2:19) 등에도 사용된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눅6:48).

● 기혼(Gihon, 기혼, 솟구치는 샘) I. 에덴동산에 있었던 네 개의 강 중 하나(창2:13). 에덴, 유프라테스 참조.

II. 예루살렘 근처 서쪽의 샘. 솔로몬은 여기 옆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왕상1:33, 38). 히스기야는 이 샘을 덮고 그곳의 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왔다(대하32:3, 30; 33:14).

● 긴네렛(Chinnereth, 키니레쓰) 갈릴리 바다 서쪽의 마을(민34:11; 신3:17; 수11:2; 19:35; 왕상15:20). 이곳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성벽을 두른 마을이었으며 이로 인해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 길(Fathom) 길이 단위로 약 1.8미터(행27:28).

● 길(Way) 통행 도로. 길에는 행로(path), 대로(highway) 등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 길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의미한다(사1:6).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사람이 따를 윤리적 행로를 뜻하기도 한다(마7:13-14; 뱀후2:15).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다(요14:6). 사도행전에서 길은 교회의 대적자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며 부른 말이다(행9:2; 24:14, 22).

● 길갈(Gilgal, 길갈, 골리다) I. 요르단 강과 여러 갈 사이의 유명한 장소. 이스라엘 자손은 요르단 강을 건넌 뒤 처음으로 이곳에 진을 친 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다(수4:19; 5:9-10).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몇 년간 이스라엘 자손의 본부가 되었다(수9:6; 10:6, 15, 43). 후에 거기에 큰 도시가 세워졌으며(수15:7) 그곳은 몇 가지 사건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먼저 성막이 실로로 옮겨지기까지 성막은 이곳에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일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울은 여기서 왕이 되었다(삼상7:16; 10:8; 11:15; 삼상13:7-9; 15:33). 또한 대언자들의 학교가 이곳에 세워졌으나(왕하4:38) 후에 이곳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호4:15; 9:15; 12:11; 암4:4; 5:5).

II. 도르의 지경에 있던 도시(수12:23; 느12:29).

● 길로(Giloh, 가일로, 벗겨진) 유다의 도시(수15:51). 다윗의 조연자 아히도넬이 여기에 살았는데 후에 그는 다윗을 배반하고 암살됨이 자기의 계획을 거절하자 이곳으로 와서 목숨을 끊었다(삼하15:12; 17:23).

● 길르앗(Gilead, 길리앗, 생 것) I. 요르단 동쪽의 비옥한 산악 지대. 이곳은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좋은 초장이 있었고 좋은 경관을 자랑했다. 이곳의 서쪽 경계는 요르단 강이고 동쪽 경계는 사막이며 남쪽 경계는 모압이었다. 성경은 이 지역의 상수리 나무와 소가 좋았다고 기록한다(창37:25; 민32:1).

한편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종종 요르단 동부 지역을 가리켰으며 그래서 신34:1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 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 주셨다고 기록한다(민32:26, 29; 신3:12 비교). 그러나 길르앗은 원래 바산의 남쪽 지역이었고 종종 바산과 길르앗은 함께 언급되었다(수12:5; 13:11; 17:1, 5; 왕하10:33). 유향, 바산 참조. 길르앗 산은 압복 강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곳은 야곱과 그의 장인인 라반이 무더기를 쌓은 갈르앗으로 추정된다(창31:45-48; 삿7:3). 대언자 호세아는 길르앗을 정죄하였는데(호6:8) 아마도 그 대상은 길르앗의 주요 도시인 야베스길르앗이나 라못길르앗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II. 마길의 아들, 므드낫의 손자(수17:1).

III. 이스라엘의 재판관 입다의 아버지(삿11:1).

● 길리기아(Cilicia, 설리시아) 소아시아의 동남부 지방. 이곳의 북쪽에는 갑파도기아와 루가오니아, 남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시리아, 서쪽에는 밤빌리아가 있었다. 이곳의 주요 도시는 사도 바울의 출생지 다소였다(행6:9). 많은 유대인들이 길리기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접촉하며 기독교가 퍼지는 것을 방해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스테반과 공적 논쟁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행6:9; 7:58) 회심한 뒤 자기 고향을 방문하고(행9:30; 갈1:21) 교회들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편지에도 언급되어 있다(행15:23). 사도는 그 뒤에 이 교회들을 향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것들이 순조롭게 자라는 것을 보고자 했다(행15:36, 41). 사도 바울의 1-3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43).

● 길보아(Gilboa, 길보아, 작은 산이 있는 곳) 에스트라엘론 평야의 남동쪽 산허리 지역. 원래 이스라엘은 길보아의 북동쪽에 있는 평야(계곡)였는데 이 평야는 길보아와 사마리아의 작은 산들을 나누었다. 길보아 산허리의 동부에 길보아 마을이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이 근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죽고 말았다(삼상28:4; 31:1-13). 엔돌은 길보아의 북쪽에 있다.

● 길쌈(Spin) spin은 원래 실을 잣는 것을 뜻하며 길쌈은 옷감을 짜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말한다.

● 김함(Chimham, 김함, 창백한 얼굴) 바르실래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삼하19:37; 왕상2:7). 그는 다윗으로부터 베들레헬 근처의 김함이라는 마을을 받은 것 같다(렘41:17).

● 김브돈(Gibbethon, 기바썬, 활처럼 휘) 단 지파의 경계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이곳은 블레위 사람들에게 배정되었으나(수19:44; 21:23)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서 나가서 앉았고 이스라엘 왕 나담의 때에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했다. 그러나 바아사는 이곳을 포위하고 나담을 죽였다(왕상15:27; 16:15).

● 깃딤(Chittim, 키티) 야벳의 아들 야완의 후손

들과 그들이 차지한 땅. 깃뒸는 키프로스 섬 자체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지중해 연안의 섬들과 나라들 - 예를 들어 마케도니아와 로마 - 을 가리키기도 했다(민24:24; 단11:30).

● 깃뒸(Kittim, 키텸) 야완의 아들, 노아의 손자(창10:4). 그리스, 야완 참조.

● 깃뒸(Gittith)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한때 몸을 숨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가드에서 유래된 악기나 음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삼상27:1-7). 가드는 히브리어에서 포도즙 틀을 뜻하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 이 악기나 음악을 사용했다고 믿는 견해도 있다(시8:1-9; 81:1-6; 84:1-12).

● 깊은 혹은 깊은 곳(Deep and Depths) 많은 경우 성경은 지옥, 형벌의 장소, 혹은 바닥없는 구덩이 등을 표현할 때 깊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눅8:31; 비교 계9:1; 11:7). 또한 이 말은 무덤(롬10:7) 또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시69:15; 107:26) 혹은 세상이 창조되면서 아직 모든 것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의 처음 혼돈 상태(창1:2) 등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후자의 혼돈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셋째 만에 완전한 질서를 갖게 되었다. 눅8:31에서 이 말은 그리스어로 '아부소스'인데 이는 계9:1-4에 나오는 바닥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과 같은 뜻이다. 구덩이, 지옥 참조.

● 까미귀(Raven) 창8:7; 레11:15 등에 나오는 이 새는 주로 사체를 먹되 희생물의 눈을 가장 먼저 먹으며(잠30:17) 또 새끼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몰아낸다(욥38:41; 시147:9). 엘리야는 까미귀들이 가져오는 음식으로 연명했다(왕상17:6).

● 껍질(Chaff) 마3:12에 나오는 이 말은 알곡을 털어 내고 남은 껍질, 즉 겨를 의미한다.

● 꼬리(rump) 체물로 드러야 하는 양의 꼬리(출29:22; 레3:9). 이것은 양고기 중 최상의 부위로 알려져 있다. 양 참조.

● 풀(Fodder) 수확물을 거둔 뒤 들에 남아 있는 곡식과 식물의 혼합 먹이(욥6:5). 특히 풀은 말이나 소에게 먹이려고 벤 풀이며 탈곡할 때 생긴 부스러기도 풀이라 할 수 있다.

● 꽃(Flower) 꽃은 쉽게 시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의 수명이 짧은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욥14:2; 시103:15; 뱀전1:24). 꽃은 또한 이스라엘 왕국의 급속한 몰락(사28:1), 재물이 신속히 떠나는 것(약1:10-11)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쉽게 시드는 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뱀전1:24-25). 예수님은 들의 백합을 예로 드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마6:28; 눅12:27).

● 꾸며 낸 이야기(Fable) 이솝 우화처럼 짐승이나 식물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하는 것을 담은 이야기. 구약 성경에는 요담(삿9:8-15), 여호아스(왕하14:9), 에스겔(겔17)이 이런 형태의 말을 하였다. 신약 성

경에서 이 말은 신화를 뜻하며(딤후1:4) 부정적인 말이다.

● 꿀(Honey) 과거에 팔레스타인에는 꿀이 많았으며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린다(레20:24). 야생 벌꿀은 나무의 오목한 곳이나 바위틈에서 발견되며(신32:13; 시81:16) 침례자 요한은 이런 꿀을 먹었다(마3:4). 성경에서 꿀은 큰 칭송을 받았다(시19:10; 잠5:3; 27:7). 보통 꿀벌이 만드는 꿀은 나무에서 흘러내리며 이를 통해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삼상14:25, 27). 한편 동방에는 채소에서 생기는 꿀도 있다.

● 꿈(Dream) 고대 유대인들은 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다. 파라오의 잔드는 자와 빵 굽는 자의 꿈 이야기는 이런 관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 준다(창40:1-23). 파라오와 느부갓네살도 꿈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꿈 해석을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꿈을 가져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고 그래서 꿈을 해석하여 예언을 하고 또 그 예언이 맞는다 해도 그것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신13:1-3).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경우에 꿈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꿈을 꾸 경우 그것을 주님의 대언자이거나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의 해석을 의뢰한 경우도 있다(창20:3-7; 28:12-15; 삼상28:6; 단2:1-49; 마1:20; 행27:23). 초자연적인 꿈은 환상(vision)과는 달랐는데 그 이유는 꿈은 자면서 꾸지만 환상, 즉 보는 것은 낮에 깨어 있을 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밤에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으나 아브라함에게는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이 두 경우 모두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께서 계시한 것이 확실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완성 이후에는 우리를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안내자인 성령이 주어졌으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

(L)

● 나감향(Onycha) 달팽이 같은 연체 복족류의 튀어나온 숨문 껍질 등을 태워 만든 향 재료. 이것은 주님을 위해 바치는 거룩한 기름의 제조에 쓰였다(출30:34).

● 나곤(Nachon, 네이칸, 확고한)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때 그의 죽음이 발생한 타작마당의 이름 혹은 그 소유주의 이름(삼하6:6). 대상13:9에는 이것이 기근으로 되어 있다.

● 나귀(Ass) 짐에서 기르는 익숙한 짐승. 성경에는 이 짐승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 드보라는 흰 나귀를 탄 자들을 그 땅의 귀족이라고 말했다(삿5:10; 비교 삿10:4; 12:14). 특별히 동방의 암나귀는

타고 다니는 데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나귀는 발람의 사건에서 짐승 중 유일하게 사람의 말을 한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다(민22:21-31).

● 나귀 새끼(Colt, foal) 스가라 대언자는 메시아 예수님이 동방의 지도자들이 타던 나귀나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대언했으며(슌9:9) 이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마21:1-11; 막11:1-11; 눅19:28-40).

● 나그네(Stranger) 집을 떠나 여행하는 사람. 원래 이 말은 낯선 사람이란 뜻으로 주로 타국인을 지칭한다. 타국인 참조.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을 생활권으로 둔 성도들을 가리킨다(빌3:20; 히11:13; 벰전1:1). 히브리서 11장은 성도가 하나님의 도사를 향해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잘 보여 준다.

● 나깃수(Narcissus, 나찌서스, 수선화)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 바울은 그의 집안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였다(롬16:11).

● 나다니엘(Nathanael, 나짜네이엘,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는 바돌로매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그는 갈릴리의 가나 사람이었고(요21:2) 메시아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람 중 하나였다. 예수님은 처음 그를 만나서 그의 마음과 생활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으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셨다(요1:45-51). 빌립은 그를 예수님에게 소개하였으며 예수님은 그를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아주 아름답게 칭찬하였다(요1:47).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디베라 바다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다니엘도 거기 있었다(요21:2). 후에 그는 그분의 승천을 목격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행1:4, 12-13).

● 나단(Nathan, 네이천, 선물) I. 히브리 대언자(슌12:12). 그는 다윗의 친구요 조언자였고 다윗이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에 동의하였으나 주님의 지시로 솔로몬이 짓게 되었다(삼하7:1-17). 또한 그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통하여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실을 지적하여 다윗이 회개하게 하였고(삼하12:1-31; 시51:1-19) 다윗은 그의 충성 어린 조언들을 감사하게 여기며 영원토록 그를 기억하였다. 한편 솔로몬은 그의 지도로 교육을 받았고(삼하12:25) 평화적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왕상1:1-53).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념책을 기록하였지만 그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대상29:29; 대하9:29). 그가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두 아들은 왕의 관원이 되었다(왕상4:5).

II. 다윗 왕이 솔로몬 출생 이후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대상3:5; 14:4).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눅3:31). 계보 참조.

● 나답(Nadab, 네이뎀, 의지가 있는) I. 아론의 맏아들. 그는 이상한 불을 번제 헌물 제단에 드리다

가 주님께서 치심으로 자기 동생 아비후와 함께 즉석에서 죽었다(레10:1-20). 아비후 참조.

II.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세의 아들. 그는 자기 아버지를 계승하여 왕이 된 뒤 2년 동안 통치하다가 길브돈을 에워싸고 공격하던 중에 잇사갈 지파에 속한 바아사에 의해 암살되었다. 그는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죽었고 이로써 여로보암의 씨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왕상15:25-30).

● 나드(Spikenard) 인도의 식물에서 얻은 아주 좋은 향기를 내는 향유(아1:12; 4:13-14).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귀중히 여겼으며 목욕할 때나 연회 때에 사용하곤 하였다. 이것은 성경에서 옥합이라 번역된 실화 석고 통에 봉인되어 보관되기도 하였으며 따라서 이런 옥합을 열려면 봉인을 깨야 했고 이는 곧 옥합을 깨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막14:3). 이런 나드 향유는 매우 비싸서 한 근에 300데나리온, 즉 보통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다. 옥합 참조.

● 나무(Trees) 성경에서 나무는 왕이나 재물 혹은 권세가 많은 사람을 상징하였다(시37:35; 사2:13; 단4:10-26; 슌11:1-2).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단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것을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창2:9, 17). 반면에 생명나무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확증이며 영원한 거룩함과 축복의 봉인이 되었을 것이다(계22:2 참조).

● 나발(Nabal, 네이발, 어리석은 자) 갈렙의 후손으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 그는 유다의 남쪽에 있던 마온과 갈멜에서 큰 땅과 많은 가축을 소유하였는데 다윗이 강도들로부터 그의 재산을 지켜 주었으므로 다윗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에게 큰 감사를 표시해야 할 때에 그는 다윗이 자기 군대를 위해 소규모의 양식을 요구한 것을 즉시로 거절하고 화를 자초하였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고 그를 치기 위해 자기 사람들을 보내었으나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이를 알고 슬기롭게 행동하여 재난이 그의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므로 그는 죽고 말았다(삼상25:1-43). 아비가일 참조.

● 나병 환자(Leper)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경 시대의 나병은 여러 형태로 피부에 생기는 질병이다. 나병은 처음에 피부가 조금 빨갛게 되었다가 회색의 딱지가 생기고 2-5센티미터의 원이 되기도 하며 그것보다 더 크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전염성도 그리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간주되었고 전염성은 없지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대를 이어 전해지는 병이었다. 물론 대를 지나면서 점차로 증세가 약화되었다. 이 병에 대한 증상과 치료 방법은 레위기 13-14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고대 사람들은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였다(신24:8-9). 특히 유대인들은 나병을 전염병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미리암과 게하시와 옷시야 등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다(민12:10; 왕하5:27; 대하26:16-23). 나병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었으며 환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을 보아야 했고 사회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다(왕하7:3-10; 눅17:12). 나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옷이나 집에도 발생하였다(레14:1-57). 옷과 집에 발생하는 나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병이었다. 이런 병은 사회가 도덕적으로 매우 많이 부패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표였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죄의 상징이었다.

끝으로 혼의 나병 또한 부정하며 사람의 깊은 곳 에까지 파고들기에 고칠 수 없고 사람을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런 나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을 궁극적인 파멸로 이끌지만 구원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혼의 나병뿐만 아니라 몸의 나병까지 완전하게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주셨다(눅17:12-19).

● 나뭇(Naboth)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 그는 자기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기를 거부하였고(레25:23-24) 그 결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잔 계략에 의해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 무죄하지만 죽임을 당했다. 아합은 나뭇의 신성모독이 큰 반역죄라고 규정하여 그의 재산, 즉 자기가 탐내던 포도원을 곧바로 소유하였다. 어쩌면 그의 포도원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 그의 친척들이 그에게 닦친 두려운 일로 인하여 감히 그것을 인수 하겠다고 나서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악한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다(왕상21:1-29; 왕하9:24-26, 36; 전5:8).

● 나사렛(Nazareth, 내저레스, 가자) 갈릴리 하부의 도시. 이곳은 스불론의 영토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112킬로미터 북쪽에 있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언덕의 한쪽에 위치해 있었으며(눅4:29) 다불 산에서 북서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요르단과 지중해의 중간 지역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처음 30년 동안 이곳에서 사셨으므로 이곳은 예수님의 도시라 불린다(마2:23; 눅1:26; 2:51; 4:16). 그분께서는 공생애 동안 이곳을 드르셨으나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많은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마13:54-58). 구약 성경이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곳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곳은 아주 작은 곳으로 좋은 명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요1:46).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 나사렛 사람(Nazarene, 내저린) 그리스도의 호칭 중 하나(마21:11; 행2:22; 4:10). 시22:7-8과 사53:2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으며 나사렛 사람이라는 수치스러운 호칭은 이 같은 예언이 사실임을 보여 준다(마2:23; 행2:45). 사실 나사렛은 팔레스타인의 멸시받는 장소에 있던 조그만 마을이었다. 갈릴리와 나사렛 참조.

● 나사로(Lazarus, 라자리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 I.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제자.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으며 예루살렘 근방의 베다니에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나사로가 아플 때에 그가 아프다는 소식이 주님께 왔다. 주님께서는 그가 무덤에 누운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베다니에 가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침으로 그를 살리셨다. 이 기적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모여들었고 그분의 원수들은 그와 더불어 그분도 죽이려 하였다(요11:1-5; 12:1-11).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위해 우시며 죽음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그분은 생명의 통치자요 사망과 무덤을 이긴 분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을 친구로 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행복하다(요11:25).

II.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참상을 보여 주려고 사용하신 실제 이야기에서 부자의 대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눅16:19-31). 그는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향락에 빠진 그 부자는 인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죄인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 준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의 인물이 나오는 실화이며 부자의 이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옥 참조.

● 나사르 사람(Nazarite, 내저라이트) 고대 히브리 율법학에서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나 모든 종류의 포도 생산물을 섭취하지 않기로 서원한 남자와 여자. 그들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고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았으며 혹시 자기를 앞에서 우연히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룩히 구별한 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시작하였다. 이같이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는 언약은 여드레나 한 달이나 혹은 평생토록 지속되었다. 나사르 사람의 서원이 끝나는 때에 당사자는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머리털을 자르고 태웠으며 그 뒤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민6:1-27; 암2:11-12). 영원히 나사르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대개 사무엘의 경우처럼 부모가 출생 때부터 나사르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약정을 하였다(삼상1:11). 그들은 이런 상태로 평생을 지내며 포도즙도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자르지도 않았다. 삼손과 침례자 요한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삿13:4-5; 눅1:15; 7:33).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서 풀려날 때 마치는 예물은 대단히 많았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사

르 사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 경비를 대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적대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잠재우기 위해 이 관례를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나사르 사람의 서약이 끝나는 크리스천 유대인 네 명을 취해 그들의 예물 경비를 대었고 그들과 함께 관습의 절차에 따라 성전에서 정결례 등을 행하였다(행21:20-26). 한편 행18:18에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듯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나손(Nahshon, 나산, 뱀) 주 예수님의 조상 중 한 사람(마1:4; 눅3:32). 그는 광야에서 유랑할 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였는데(민1:7; 2:3; 7:12) 아론은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다(출6:23; 룩4:20; 대상2:10).

● 나이만(Naaman, 네이어만, 기쁨) 이스라엘 왕 요람 시대에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왕이던 벤하닷에게 속했던 존경받는 장군. 그는 나병으로 고생하였으나 엘리사의 말에 따라 요르단에서 일곱 번 씻음으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레14:7; 왕하5:1-27; 눅4:27). 그는 부귀와 재물과 명예가 소용이 없으며 의원들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알았고 이에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아주 간단한 처방을 받아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다. 그는 병을 고친 뒤에 대언자뿐만 아니라 대언자의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렸다. 또한 그는 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진실한 하나님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을 내놓았고 집에 갈 때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만드는 데 쓰려고 흙을 조금 가져갔다(출20:24). 그는 자기 주군 벤하닷이 림몬의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엘리사에게 물었으나 엘리사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삶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나오미(Naomi, 네오미, 내 기쁨) 엘리멜렉의 아내. 그녀는 룻의 시어머니였다. 룻 참조.

● 나옷(Naioth, 네이아스, 거주지) 사무엘의 거주지. 여기에는 대언자들을 기르는 학교가 있었다(삼상19:18-24; 20:1). 이곳은 라마의 외곽으로 생각되며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피신하던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았다.

● 나인(Nain, 네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눅7:11-17).

● 나일(Nile, 나일) 이집트의 유명한 강. 길이가 5,700킬로미터나 되는 이 큰 강은 남쪽의 중앙아프리카에서 시작을 거쳐 북쪽에 있는 지중해 부근의 삼각주로 흐른다. 이집트 제국 지도 참조(14). 나일 강은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 청 나일과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오는 백 나일에서 물을 받는데 우기에는 백 나일이 청 나일보다 배나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한다. 이때에 넘치는 물로 인해 북부 지방의 삼각주에는 농사짓기에 좋은 표토가 공급된다. 그러므로 물

의 양이 적은 해에는 반드시 기근이 생겼다. 현재는 아스완 댐이 있어서 나일 강의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나일 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을 하피 신이라 불렀다. 물론 이 강은 이집트의 중요한 운송 수단이였다. 나일 강은 파라오의 꿈에 나오는 바로 그 강이다(창41:1-36). 후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 자아이들을 나일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다(출1:22).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 의해 나일 강에서 구출 받았고(출2:1-5) 80년 뒤에 주님에 의해 다시 이집트로 와서 나일 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다(출4:9; 7:17-21; 시78:44). 나일 강으로 인한 변형은 대언자들의 글에서도 나타난다(사23:10; 렬46:7-8). 이집트의 심판은 종종 나일 강이 마르는 것으로 묘사된다(겔29:10; 30:12; 속10:11). 히브리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강을 바다라 부르기도 하였다(사19:5; 나3:8). 나일 강은 물고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였다(민11:5; 비교 사19:8). 이집트와 시를 참조.

● 나팔(Trumpet) 주님은 모세에게 은으로 두 개의 나팔을 만들어 백성을 소집하고 경고를 주는 데 사용하라고 하셨다(민10:2). 또한 그들은 민간력의 1월과 안식년의 1월과 희년의 시작에 나팔을 불었다(레23:24; 25:9-10; 민29:1).

사람들은 종교력의 7월 1일(민간력의 1월 1일)에 나팔절을 지켰으며 이날에 나팔을 불으로써 새해를 알렸다(레23:24; 민29:1). 이날은 엄숙한 날로 노동이 금지되었고 이날에는 매일 그리고 매달 드리는 헌물 외에 민족을 위해 소와 숫양과 염소와 일곱 마리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주님께 드렸다(민28:11-15).

● 나하스(Nahash, 네이해쉬, 뱀) I. 암몬 족속의 왕. 그는 라못길르앗을 에워싸다가 사울에 의해 패배를 당하였다(삼상11:1-15). 그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졌지만 그의 아들 하논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였다(삼하10:2).

II. 다윗의 이복 누이인 스루아와 아비가일의 아버지(삼하17:25; 대상2:13-16). 어떤 이들은 나하스가 이새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 나홀(Nahor, 네이호, 코를 팔다) I. 스룩의 아들, 데라의 아버지(창11:22-25; 눅3:34).

II.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형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조카인 밀가와 결혼하였고(창11:26, 29) 그 뒤 하란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창24:10; 27:43). 그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는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이었다(창22:20-24).

● 나훔(Nahum, 네이훔, 위로) 열두 명의 소대인자 중 하나. 나훔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가 단지 갈릴리의 엘고스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대언하였다.

● 낙원(Paradise)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는 나무가 많은 동산이나 공원을 뜻하며 히브리어 '간'도 비

숫한 뜻을 갖는다(느2:8; 전2:5; 아4:13). 에덴 참조. 예수님 부활 이후의 신약 성도들은 죽어서 곧장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가지만(빌1:23; 고후5:8)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았으며 '스올'이라 불린 지하 세계에서 큰 구렁덩이(혹은 무저갱)를 사이에 두고 불꽃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 거하면서 거기서 위로 받을 것이다(눅16:19-31).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신약 성도들이 없이는 그들이 먼저 완전하게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히11:40).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어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로 갔다(창25:8).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고 말씀하신 뒤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부활하셨다(시16:10; 행2:26-27).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낙원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엡4:8-10). 성경의 하늘들 선도 참조(80). 주 예수님께서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낙원에 있던 구약 시대 성도들을 모두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마27:51-53). 따라서 히11:8의 아브라함은 이제 히12:22-24의 셋째 하늘에 있으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후12:2-4).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아마도 14년 전쯤에 루스 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에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끌려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계21:2를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데 계22:2를 보면 한때 땅에 존재한 에덴동산 안에 있던 생명나무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강도를 만난 곳, 즉 땅 아래 부분에 있었던 낙원이 이제는 그곳의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보여 준다.

● 낙타(Camel) 동방에서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된 짐승. 성경에 나오는 아라비아 낙타는 혹이 하나이고 중앙아시아의 낙타는 혹이 두 개이다. 낙타가 잘 먹으면 혹이 기름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고 먹지 못할 때에는 거기서 영양분이 빠져 나가 줄어들다. 낙타는 대개 무릎을 꿇고 짐을 싣는데 크기에 따라 200-500킬로그램의 짐을 싣었고 시간당 4킬로미터의 속도로 여행했다. 성경 시대에는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싣고 험한 길을 걸으며 좋지 못한 식물을 먹은 짐승이 없었다. 사막을 오가는 카라반들은 낙타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창37:25) 그래서 낙타의 수는 한 사람의 부의 척도가 되었다. 욥은 낙타 3,000마리를, 미디안 족속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낙타를 가지고 있었다(삿7:12; 대상5:21; 욥1:3).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이삭에게 갔고(창24:64)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것들을 가져왔으며 하사엘도 낙타에 선물을 가득 실어서 엘리사에게 갔고(왕상10:2; 왕하8:9) 낙타들은 심지어 전쟁에서도 사용되었다(삼상30:17). 히브리 사람들은 낙타를 부정



한 것으로 생각했으나(레11:4) 아랍 사람들은 낙타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주요 음식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아랍 사람들에게는 낙타보다 중요한 짐승은 없었다. 사람들은 낙타의 가죽으로 큰 물 부대를 만들고 자루, 신발, 끈 등을 만들었으며 낙타의 똥은 말려서 땀감으로 사용하였고 낙타털은 엮어서 고급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목자들이 입는 거친 옷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다. 침례자 요한도 이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부드러운 옷이 아니었다(마11:8).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마19:24)는 말씀은 불가능을 보여 준다. 또한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킨다."(마23:24)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위선, 즉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쓰지만 큰 것은 대충 넘기는 그들의 위선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 낙헌제(Freewill offering) 자원 헌물 참조.

● 난간(Battlement) 고대 집의 지붕을 두른 난간. 이것은 평평했으며 상쾌한 바람 때문에 낮에는 쉬는 곳으로 밤에는 잠자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모세의 율법은 모든 집에 난간을 둘 것을 명한다(신22:8). 집 참조.

● 날(Day) 날은 대개 몇 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보통의 날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다. 또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날은 각 민족의 관습에 따라 날이 시작되고 끝나는 때에 의해 정해진다.

히브리 사람들의 날은 저녁때에 시작되었고(레23:32) 바빌론 사람들의 날은 해 뜰 때에 시작되었으며 현대인들의 날은 대개 자정에 시작된다. 인위적인 날(낮)은 해가 수평선에 뜬 시간이며 이것은 같은 지역의 경우에도 계절에 따라 다르다. 성경은 대개 날(낮)을 열두 시간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여섯째 시간은 일 년 내내 정오, 즉 열두 시에 끝난다. 그러나 여름에는 낮의 모든 시간이 겨울보다 길었고 밤의 시간이 낮의 시간보다 짧았다. 시각 참조.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날' 혹은 '하루'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날 - 대개는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로 불림 - 은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다

(사2:12; 겔13:5; 요11:24; 살전5:2), 예언의 날들 선 도 참조(75). 대언자들의 예언에서 '날'은 대개 '1년'을 가리키며 예언에서의 '1년' 혹은 '한 때'는 360일을 가리킨다(겔4:6). 구약 다니엘서의 3년 반(단7:25)과 신약 계시록의 1,260일(계11:2-3)을 비교하면 이를 알 수 있다. 주의 날, 칠십 이레 참조.

● 날실(Warp) 천이나 옷감을 짤 때 세로로 놓는 실(레13:48-59). 씨실 참조.

● 남색 하는 자(Sodomite)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래된 말로 동성애를 하는 남자를 가리킨다(레18:22; 20:13). 소돔 참조.

● 남용(Abuse) 정해진 것 이상으로 넘치게 씀.

● 남은 자(Remnant) 무서운 재앙 이후에 살아남아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무리(사10:20-23). 남은 자 개념은 신명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신4:27-31; 28:62-68; 30:1-10) 대언자들은 아시리아와 바빌론 포로 생활과 관련해서 이 개념을 밝히 보였고 또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의로운 남은 자들이 모일 것도 대언했다. 대언자 아모스와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했다(사1:9; 암5:14-15).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였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롬11:5).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진실한 성도들을 남겨 두신다(롬11:2-5).

● 납(Lead) 성경에는 납과 관련된 구절이 몇 개 있다. 모세를 따르던 이집트 사람들은 납처럼 흉해 속에 가리앉았다(출15:10; 민31:22; 겔27:12). 읊은 납을 녹여 바위에 새긴 글자에 부음으로써 사건들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욥19:24). 사실 고대 사람들은 납관을 사용하여 기록을 하였다. 또 이것은 은을 정련할 때 은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사용되었으며 금속에서 찌꺼기를 없애는 정련 과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하시는 것을 잘 보여 준다(렘6:29-30; 겔22:17-22).

● 납달리(Naphtali, 냐뿔라이, 찌뿔하는 자) 야곱의 여섯째 아들. 그는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아들이며(창30:8) 성경에는 그에 관한 기사가 많지 않다. 그는 네 명의 아들을 두었으며(창46:24) 족장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라고 말하였다(창49:21). 납달리 지파는 북부 팔레스타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였으며 그 동서남북에는 요르단 상부와 디베라 바다, 아셀 지파, 납달리의 산들, 레바논 산지 등이 있었다(수19:32-39; 20:7).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납달리 지파 지도 참조(19, 24). 납달리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취임할 때 군대와 함께 참여하였고(대상12:34) 재판관들의 전쟁 때에도 명예롭게 언급되고 있다(삿1:33; 5:18; 6:35; 7:23). 그들은 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기세가 꺾였고(왕상

15:20) 아시리아 왕국으로 잡혀간 첫 번째 포로가 되었다(왕하15:29; 사9:1).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의 남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마4:13-15).

● 낫(Sickle) 고대 사람들은 나무나 뼈에 부싯돌을 끼쳐 낫을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채찍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은 낫으로 곡물을 수확하는 것과 비교된다(욥3:13; 계14:14-19).

● 내시(Eunuch) 동방의 왕국에서는 여자들과 궁중 내부의 일을 내시들에게 맡겼고 그래서 이 단어는 많은 경우 단순히 왕정의 일을 맡은 시종을 뜻했으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종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왕의 여인들을 담당하는 내시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강제로 거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종장, 고자 참조.

● 넓적다리(Thigh) 창24:2-9; 47:29-31에는 넓적다리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맹세하는 자가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뜻한다. 야곱은 천사에 의해 넓적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힘으로 천사를 이기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이겼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창32:25-31). 넓적다리를 치는 것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슬퍼하는 표시였다(렘31:19; 겔21:12). 무사들은 왼쪽 넓적다리에 검을 찌었다(삿3:15-21; 시45:3; 아3:8).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이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계19:16)라는 표현이 나온다.

● 네르갈(Nergal, 너겔, 큰 도시의 주) 북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한 구드 사람들이 섬긴 신(왕하17:30). 아마도 이 우상은 화성을 나타내었고 화성은 피 흘리는 것을 상징하였다. 네르갈이라는 이름은 네르갈사레셀 같은 이름에도 혼합되어 사용되었다(렘39:3, 13).

● 네아폴리스(Neapolis, 니에폴리스, 새 도시) 마케도니아의 해양 도시(행16:11). 바울은 사모드라게섬에서 여기로 왔다가 다시 빌립보로 갔다.

● 노(No, 노) 이집트의 도시. 이 도시의 이름은 정확히 노-아몬이며 이는 히브리어로 암몬 신의 자리를 뜻한다(나3:8). 그리스어도 이와 비슷하여 이곳은 디오폴리스, 즉 주피터-암몬의 도시를 뜻했다. 겔30:14-16; 나3:8; 렘46:25에서 이곳은 간단하게 노라고 불린다. 후자에 나오는 '노의 무리'라는 표현에 나오는 노는 분명히 상부(남쪽) 이집트의 유명한 도시 테베스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주피터-암몬 신 숭배가 이루어졌고 아직도 많은 형상이 남아 있어 여행자들이 놀라게 하고 있다.

● 노끈(Cord, Rope) 노끈은 아마나 대추야자 섬유, 낙타 가죽 등으로 만들어졌고 거룻배를 내리거나(행27:32) 수레를 끌거나(사5:18) 죄수를 묶거나(삿16:11) 그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라합이 정

담꾼들을 창문으로 내릴 때(수2:15), 여호야김의 종들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몰이 있는 지하 감옥에 내릴 때(렘38:6, 11) 혹은 현수막을 뿔(출35:18)에도 이런 줄이 필요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의 장사치들을 몰아내셨다(요2:15).

● 노래(Song) 노래는 보통 감사를 드리거나 승리를 축하할 때 사용되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구출받은 뒤 노래했고(출15:1) 이스라엘은 물을 얻고 브엘에서 노래했으며(민21:17) 모세(신32), 드보라(삿5:12), 다윗(대상13:8), 한나(삼상2), 마리아(눅1:46) 등도 노래했다. 노래는 대상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에 기록된 노래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흠모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며 교리적으로 가사가 바르지 못한 곡이나 록, 랩 음악 등 세상의 저속한 문화에서 나온 악기나 방법으로 하나님께 노래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에게 화답하고 주께 아름다운 가락으로 노래해야 한다(엡5:19). 여기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것이다(골3:16). 끝으로 노래는 기쁨을 뜻했다(사30:29). 음악, 춤, 시편 참조.

● 노략(Spoil) 큰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재물을 빼앗아 감. 전리품 참조.

● 노새(Mule) 말과 나귀 사이에 태어난 잡종 짐승. 노새는 강인하고 수명이 말보다 두 배나 길며 누구나 쉽게 키우고 먹이를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노새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물건을 나르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은 노새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종류의 짐승을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는 일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레19:19). 그러나 그들은 외국이나 타지에서 그것들을 데려다가 사용하였다(왕상10:25; 겔27:14). 그래서 다윗 시대 이후에 암 노새와 수 노새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아주 흔하였고 예전에는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삼하13:29; 18:9; 왕상1:33; 10:25; 18:5; 예8:10, 14). 창36:24에는 아나가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노아(Noah, 노아, 안식)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면한 족장. 이로써 그는 아담 이후에 두 번째로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삶과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5-9장에 기록되어 있다. 노아의 방주, 대홍수 참조. 그는 라멕의 아들이요 므두셀라의 손자였는데 그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생겼다. 홍수 이후에 그는 35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씨가 될 것을 바라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로 지은 것 같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족장들의 계보에 속하였고 의인이요(렘14:14, 20) 또 의의 선포자였다(벧전3:19-20; 벧후2:5). 그는 12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마24:37). 노아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였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하였다(히11:7). 그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우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 이후에는 그가 포도주에 취해 잠을 자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기사 외에 다른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의 세 아들은 자식들을 낳아 온 땅을 채웠는데 홍수 이후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그 뒤에 장자 아벳은 주로 유럽을, 둘째 셈은 아시아를, 그리고 막내 함은 아프리카를 차지하였다.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지도 참조(13).

● 노아의 방주(Ark of Noah)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은 대홍수 때에 노아의 여덟 사람이 들어가 생명을 보존한 배. 방주라는 말은 단순히 배를 뜻하는데(출2:3)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항해를 하는 배라기보다 단지 물 위에 떠 있는 집임을 보여준다. 이 배는 3층으로 구성되었고 측면에 문이 있었으며 위에, 즉 지붕에 창문들이 있었다(창6:16; 8:13).



1큐빗을 45센티미터로 환산할 때 방주의 크기는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35, 22.5, 13.5미터였다. 방주는 고펠나무로 지어졌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가 되었으며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새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암수 일곱 마리씩, 부정할 짐승 중에서 암수 두 마리씩을 태울 만큼 족다. 성경은 노아의 순종과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한다.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고 천사와 사람의 결혼으로 인해 인류를 완전하게 보존하기 어렵게 되자(창6)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사악한 자들과 그들의 부패된 자손을 모두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 순수하게 인류의 피를 보존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 사탄의 계계를 무찌르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셨다. 노아는 기적을 통해 이 모든 일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지시를 받았다. 바로 이런 기적의 능력을 통해 그는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완전한 방주의 설계를 얻고 그것을 제 시간에 완벽하게

지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홍수가 생기기 120년 전에 노아가 이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창5:32; 7:6; 6:3; 뱀전3:20 비교). 대홍수 참조.

- 노획(Spoil) 전쟁 중에 적의 물품을 빼앗음. 전리품 참조.

- 녹옥수(Chrysoprasus) 산화니켈을 함유하고 녹색을 나타내는 반투명의 옥수로서 하늘의 에루살렘의 기초를 이루는 열째 보석(계21:20).

- 녹주석(Beryl) 주로 인도에서 발견되는 녹색 보석(단10:6; 계21:20).

- 놉(Nob, 납) 제사장들의 도시. 이곳은 에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냐민의 도시였으며 사울은 그곳의 거주민들이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일거에 죽였다(삼상21:2; 22:9-23; 느11:32; 사10:32). 도액 참조.

- 놉(Noph, 나프) 이집트의 멤피스(사19:13; 렘2:16; 44:1; 겔30:13, 16 참조). 이곳은 히브리어로 '뭍'이라고도 불린다(호9:6). 고대 이집트 왕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자리를 잡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멤피스에 거하였으며 바로 여기에서 요셉이 총독이 되고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자랐다. 이곳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 놏(Brass) 구리를 삼분의 이, 아연을 삼분의 일 섞어서 만든 합금. 성경에는 놏이 종종 나오며(창4:22; 신8:9) 고대 사람들은 이 같은 구리 합금을 사용하여 무기와 거울과 장식품을 만들었다. 놏은 성전 기구(레6:28; 민16:39; 대하4:16), 족쇄(삿16:21; 왕하25:7), 무기(삼상17:5-6, 38), 악기(대상15:19), 돈(마10:9)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다. 또 놏은 가름, 무감각, 비열함, 죄 속에 빠져 완고하게 된 것을 묘사하였고(레26:19; 신28:23; 사48:4; 렘6:28; 겔22:18) 힘의 상징이기도 했다(시107:16; 단2:39; 숙6:1).

- 놏(Nod, 나드, 유랑하다) 에덴의 동쪽 지역, 이 지역에서 가인이 유랑하였으므로 놏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창4:16).

- 놏뱀(Brazen serpent) 모세가 놏으로 만든 뱀. 이것은 사막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파멸을 가져다준 불뱀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진영의 한가운데 세워졌으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민21:6-9). 주님께서는 이 놏뱀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아오면 거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요3:14-15). 이 놏뱀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으나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 대상으로 삼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느후스탄이라 부르고 산산조각 내어 버렸다(왕하18:4).

- 농부(Farmer, husbandman) 이 말은 원래 땅의 사람을 뜻한다. 농사 혹은 농부의 일(창9:20; 사

28:24; 렘14:4; 31:24; 암5:16; 욥1:11)은 가장 오래되고 존귀한 일이며 특히 팔레스타인의 경제 기반이 농업이므로 농부의 위치는 중요했다(대하26:10). 그래서 성경에는 농사와 관련해서 썩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쟁기질 등의 예가 많이 나온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하시며 자신과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요15:1).

- 뇌물(Bribe, gift) 사형이나(삼상12:3) 형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려고 년지시 건내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왕하16:8; 잠6:35; 겔2:12). 성경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자에게 금품을 주는 일을 금한다(출23:8; 대하19:7). 구약 시대에 치리자들이 뇌물 받는 일에 많이 빠졌으므로 대언자들은 이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미3:11). 뇌물을 받는 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욥15:34).

- 누가(Luke, 루크)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하는 의사라고 불렀다(골4:14). 누가는 루카스 혹은 루키누스와 같은 이름이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으며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행의 대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다. 그래서 행16:11에서 그는 처음으로 '우리'라고 기록하여 자기가 드로아에서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마케도니아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빌립보에 닿은 뒤에 잠시 헤어졌다가 바울이 거기에서 에루살렘에 갈 때에 다시 모였고 그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여행하고 고난당하였는데 그러다가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옥에 갇히게 된다(행17:1; 20:5-6, 13-16; 21-28장; 딤후4:11; 몬24).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기 전과 후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과 판단과 충성과 의료 기술로 초대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다.

- 누룩(Leaven) 반죽을 부풀리기 위한 이스트 혹은 효모.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의 이레 동안 모든 곳에서 누룩을 제거했다. 이집트 탈출 때에 그들의 조상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반죽을 발효시키지 못한 채 급하게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고(출12:15, 19, 34) 그래서 이 기간에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였다(고전5:6).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누룩이나 꿀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레2:11). 성경의 용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누룩은 대개 무엇인가를 부패하게 하는 악의 상징이었다(마13:33; 16:6-12; 고전5:6-8). 유월절, 주의 만찬 참조.

- 누이(Sister) 성경에서 자매는 보통 누이라 표현되었으며 이 말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난 여자 형제나 같은 아버지나 혹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여자 형제를 뜻하였고(창12:13) 또 같은 가족에게 속한 여인이나(창24:60; 욥42:11) 같은 나라 출신의 여인을 뜻하였다(민25:18).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자 동역자(롬16:1) 혹은 여자 그리스도인을 뜻하였다(요이13).

● 눈(Eye)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샘을 의미하기도 했다. 눈은 몸의 기관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종종 상징적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대개는 앞뒤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으므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죄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지금도 동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6:10; 44:18 등은 이를 반영하는 듯하다. “중들의 눈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같이”(시123:2)라는 표현은 동방의 중들이 항상 경계를 기울이며 주인과 자기 외에는 알 수 없는 손짓이나 눈짓에 의해 주인으로부터 무슨 일을 지시받도록 훈련받은 것을 이해하면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세 요소 선도 참조(61).



여러 성경 구절은 눈이 사람의 혼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관대한 눈’, ‘악한 눈’(잠22:9; 23:6), ‘교만한 눈’, ‘음탕한 눈’(잠6:17; 사3:16) 등은 이런 식의 표현이다. ‘안목의 정욕’, 즉 눈의 정욕(요일2:16)은 이 세상에서 화사하게 보이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리킨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는 눈’(잠30:17)은 육식성 조류들이 살아 있는 새의 눈을 쪼아 먹는 습관에서 나온 표현이다. ‘단일한 눈’(마6:22)은 모든 것을 바로 보며 일원단심 마음이 변하지 않는 눈을 가리킨다. 성경에는 이세벨처럼 눈썹에 화장을 해서 크게, 사치스럽게 보이게 한 것도 기록되어 있다(왕하9:30).

● 눈(Snow) 성경에는 흰 것을 지칭하기 위해 눈이 사용되었고(출4:6; 민12:10; 왕하5:27; 시51:7; 사1:8) 또 눈의 정화 작용에 대한 구절도 있다(욥9:30). 잠25:13의 ‘수확 때에 내린 차가운 눈’이라는 말은 수확하는 자들에게 찬 음료를 주기 위해 눈을 사용한 것을 뜻한다. 한편 잠26:1의 ‘여름의 눈’은 때에 맞지 않게 오는 눈을 뜻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적절치 못하게 명예를 얻는 것과 비교되고 있

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고산 지대를 제외하고는 눈이 매우 조금 내리며 쌓이지 않고 곧바로 녹는다(삼하23:20). 자연의 다른 기적과 마찬가지로 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시147:16-17).

● 눈꺼풀(Eyelids) 히브리어에서 눈과 눈꺼풀은 거의 같은 말로 쓰였다(잠4:25; 6:4; 30:13). 방탕한 여인의 사람을 유혹하는 능력은 눈과 눈꺼풀에 있다(잠6:25; 사3:16). 여인들은 눈꺼풀에 화장을 하기도 하였다(왕하9:30; 렘4:30; 겔23:40).

● 눈동자(Apple of the eye)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은 상하기 쉬워 잘 보호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비유되곤 한다(신32:10; 시17:8; 잠7:2; 숙2:8).

● 눈먼 것(Blindness) 눈이 머는 것은 고대 동방에서 흔한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의 여러 환경 조건들이 결합하여 눈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태양이 뜨겁고 공기 중에 미세 먼지가 많으므로 이런 것이 눈에 들어가 눈을 멀게 만들었다. 한편 고대에는 미워하는 혹은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을 빼는 관습이 있었고(삿16:21; 삼상11:2; 왕하25:7) 또 형벌로 눈머는 것이 일어나기도 했으며(창19:11; 행13:6-12)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눈머는 것이 언급되었다(신28:28-29). 유대인들은 모세의 인도주의적 율법에 따라 눈먼 자를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했다(레19:14; 신27:18). 한편 눈먼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레21:18).

주님께서서는 병으로 눈먼 자, 나면서부터 눈먼 자 등을 여러 차례 고치셨는데 이 경우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다. 먼저는 눈 자체가 회복되었고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이 생겼으며 후자의 경우 눈이 회복되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막8:22-25). 눈먼 자의 눈을 만지거나 진흙을 바른 것이 어떤 치료 효과를 지닌 것은 아니다(마9:29; 요9:6). 일은 분명히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셨다.

한편 눈먼 것은 무지와 실수를 가리키기도 하며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을 가리킬 때도 있다(마15:14; 고후4:4). 하나님의 긍휼을 나눔하면 이렇게 눈머는 것이 증가하므로(요12:40)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 눈물(Tears) 로마와 팔레스타인 등에서는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사람의 눈물을 단지에 담아 죽은 사람의 무덤에 두는 관습이 있었다. 이것은 시56:8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모든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한편 계7:17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정도로 큰 사랑을 베푸신다. 애곡 참조.

● 눈앞(Presence) 이것은 마주 대하여 보고 있는 앞을 뜻하며 면전(面前)과 같은 말이다. 또한 영어

sight는 'in the sight of'라는 관용구로 쓰이면서 '누군가가 보는 데서'를 뜻하며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를 대개 '눈앞에서' 등으로 통일했다.

- **눔바(Nymphas, 님파스)** 라오디게아의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와 그에게 문안하였다(골4:15).

- **느기낫(Neginoth)**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현악기를 일컫는 말(합3:19). 특히 몇몇 시편(시4:1-8; 6:1-10; 54:1-7; 55:1-23; 76:1-12)은 이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장에게 주어졌다.

- **느길뿔(Negiloth)** 이것은 시편 5편의 타이틀에만 나오는 말이며 피리 등의 악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편은 이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장에게 주어졌다.

- **느도바(Netophah, 니토파)** 베들레헴 근처의 마을(삼하23:28-29; 왕하25:23; 스2:22; 느7:26)

- **느디님(Nethinim, 네세님, 거룩히 구별된)** 이 용어는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으나(민8:19)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 헌신한 종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가장 힘든 일, 즉 나무와 물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을 하였고(수9:27) 후에는 스스로 항복한 가나안 사람들과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하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 다윗과 다른 통치자들에게 배정되었으나 그들은 이들을 성전에서의 봉사 일에 배정하였다(왕상9:20-21; 스2:58, 70; 8:20; 느11:3). 이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이다(느10:28). 이 느디님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카스피 해 부근에서 살다가 에스라의 인도로 220명이 유다로 돌아왔다(스8:20).

- **느바웃(Nebaioth, 니베이어쓰, 열매가 많다)** 이스마엘의 아들(창25:13). 그의 후손은 아라비아의 초장을 차지하였으며(사60:7) 후에 에돔을 차지하였다. 그들은 세속 역사에서 나바티안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이두매아 참조.

- **느뱃(Nebat, 니뱃,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셨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버지(왕상11:26; 12:2; 왕하3:3). 그는 자기의 사악한 아들 때문에 '느뱃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호칭을 통해 수치의 대상이 되었다.

- **느보(Nebo, 니보, 높은 곳)**

- I. 벨엘과 아이 근처의 마을(스2:29; 느7:33).

- II. 르우벤의 도시(민32:38). 이곳은 모압 족속이 점령하여 에레미야의 시대에 지배하였다(사15:2; 렘48:1).

- III. 모압의 산. 여기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고 여기서 죽었다. 이곳은 아바람 산지의 정상으로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다(신32:49; 34:1-12). 팔레스타인의 산들 지도 참조(53).

IV.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우상(사46:1). 바빌론 사람들의 별 신화에서 느보는 수성(水星)을 나타내며 고대 아라비아 사람들도 이 신을 숭배하였다. 갈대아 및 아시리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신에게 경배했다는 것은 이 이름이 복합어로 여러 인물의 이름에 사용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느부사스반(렘39:9, 13) 등을 보기 바란다.



-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네뵤갓네제저, 나무가 보호한다)** 나보폴라사르의 아들로서 주전 600년경에 그의 뒤를 이어 갈대아의 왕이 된 사람.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느부갓레살로도 나온다. 그는 이집트 왕 느고로부터 갈그미스를 빼앗았으며 그 뒤 페니키아 총독과 느고에게 조공을 바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치고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가 후에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하에 다시 유다에 남겨 두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들은 대개 왕족이나 귀족이었으며 바빌론 왕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말과 학식을 가르치고 후에 그들이 궁중에서 자신을 섬길 수 있게 하였다(왕하24:1; 대하36:6; 단1:1).

나보폴라사르가 죽자 이집트 혹은 유대에 있던 느부갓네살은 급히 바빌론으로 돌아갔고 자기 장군들을 시켜 시리아와 유대와 페니키아와 이집트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갈대아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는 이 포로들을 여러 식민지에 분산시켰으며 벨루스의 신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두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다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 뒤 3·4년이 지나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궁중의 새의 밥이 되고 말았다(렘22:1-30).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 혹은 여고니야 역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주요 관리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이때에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예루살렘의 주요 기술자들도 함께 끌려갔고 모르드개와 대언자 에스겔도 끌려갔다(에2:6).

느부갓네살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위해 만든 금 그릇들을 가져가고 여고니야의 삼촌인 맛다니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시드기야는 9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그 근처의 통치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반역을 일으켰다. 이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이집트의 파라오호브라가 시드기야를 도우려고 나오자 그를 대면하여 그

를 그의 나라로 쫓아 버렸다. 이 일을 끝낸 뒤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며 마침내 시드기야의 제11년에 그곳을 함락시켰다. 시드기야 왕은 그때에 시리아의 리블라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정죄를 받았고 그 왕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사슬로 묶어서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왕하24:1-20; 25:1-30; 대하36:1-23).

느부갓네살의 통치 때에 바빌론 도시와 바빌로니아 왕국은 영예의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는 힘을 다해 바빌론을 치장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그의 자랑의 하나가 되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단4:3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그는 한때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짐승 같은 신체가 되고 말았다(단4). 다섯 가지 세상 왕국 선도 참조(76).

● 느부사라단(Nebuzaradan, 네부자예이덴)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 그는 예루살렘을 멸하고 노략하였다(왕하25:8-21; 렘39:9; 40:1; 52:12-30).

● 느헤미야(Nehemiah, 니허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가라의 아들, 예루살렘의 총독. 느헤미야는 포로 시절에 바빌론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이들은 그가 제사장 가문이나 유다의 왕족이라고도 한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잔을 드는 자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에게 재난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다가 왕에게 간구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도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는 그곳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주로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유다의 귀환 지도 참조(33).

그러나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개심은 날로 증가하였고 그곳의 총독인 산발랏의 인도하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온갖 방해 공작을 꾸며다. 그들은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도 공격하였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일하게 하였다. 이 큰일에 그는 열정을 보였고 하나님의 도시와 백성을 향해 큰 사랑을 나타내었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는 신실한 친구들 특히 에스라의 도움을 크게 받았고(느8:1, 9, 13; 12:36)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 제도를 향상시켰다. 그 뒤 느헤미야는 바빌론으로 되돌아왔다(느2:6; 5:14; 13:6) 얼마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예배, 안식일 준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 등 중요한 일을 잘 해결하였다. 그는 특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 여인들을 버리든지 혹은 나라를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제사장 무리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스 신에 신전을 짓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추정된다. 산발랏 참조. 느헤미야기는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의 일생 등

안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에스라서의 연장이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2 에스라서'라고 불렀다.

● 느후스타(Nehushta, 니허쉬타, 뱀) 여호야김의 아내. 이 여인은 어린 여고니야의 어머니로서 정부의 일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책망 속에 이 여인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왕하24:8; 렘13:18; 29:2).

● 느후스탄(Nehushtan, 니허쉬텐, 뜻으로 된) 모세가 광야에서 뜻으로 만든 뱀에게 히스기야가 붙여 준 이름(민21:8).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왕국의 말기까지 이 뱀뱀을 보존하였으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화했으므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불사르고 그 이름을 느후스탄, 즉 값어치 없는 한 조각의 뜻이라고 하였다(왕하18:4).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품 등은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기 쉬우며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리는 경우가 많다(요3:14-16).

● 능욕(Abuse) 업신여겨 욕보임.
● 니가노르(Nicanor, 나이케이노, 정복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을 뒤에 성도들이 선택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맡게 한 일곱 명의 직무 수행자 중 하나(행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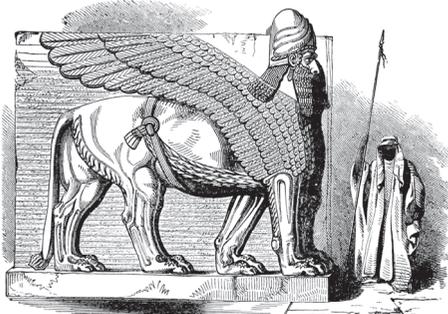
● 니고데모(Nicodemus, 니커디머스, 백성의 정복자) 유대인들의 공회인 산헤드린의 회원. 그는 처음에 바리새인이었으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초기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지만 금방 그분을 따르지는 않았다. 요3:1-20에서 그는 소극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생의 진리를 배우며 요7:45-52에서는 산헤드린 앞에서 주님을 변호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때에 그는 신자임을 고백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수행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향품과 함께 들무덤에 안치하였다(요19:39).

● 니콜라(Nicolas, 니콜라스, 백성을 정복하는 자) 안디옥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후에 그는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고 열렬한 그리스도의 중언이 되었으며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선택된 일곱 명의 직무 수행자 중 하나가 되었다(행6:5).

● 니콜라당(Nicolaitans, 니코레이어테인) 계2:6, 15에 나오는 이단들.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니콜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었다. 신약 교회가 생겨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회는 아직도 구약 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를 제사장(priest)이라 부르고 있고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는 제 사장이 아니라 목사(pastor)가 감독이나 장로로 교회를 치리함을 보인다.

● 니느웨(Nineveh, 니니바, 니누스의 거처)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 아시리아 제국 지도 참조(34). 이곳은 티그리스 강의 동쪽 독에 위치하였으며 노아의 홍수 후에 곧바로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니느웨의 유적

그 뒤 1,500년 동안 이 도시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다가 요나서와 나훔서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도시는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도시를 도는 데 사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거기에는 어린이아만 12만 명이 있었으므로 전체 인구는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부유하고 전쟁을 좋아하였으며 문명을 발전시켰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동방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800년 전에 요나는 이 도시로 보내어져서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을 대언하였다(사14:24-25). 비록 그들이 곧바로 회개함으로 삼관은 유보되었지만 주전 735년경에 배대 사람들에 의해 결국 이 도시는 함락되었고 또한 150년이 지나서는 대언자 나훔의 예언에 따라 다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에 의해 함락되었다(나1:1-15; 2:1-13; 3:1-19, 습 2:13). 그 뒤 니느웨는 다시 예전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 니므롯 (Nimrod, 니므랏, 반역 혹은 불경건) 구스의 아들, 함의 손자. 그는 강력한 사냥꾼으로서(창 10:8-10; 대상1:10) 하나님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



며 모험가들을 모아서 시날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래를 세웠다(원쪽 하단 니므롯 그림 참조). 어떤 이들은 그가 니느웨와 아시리아 왕국을 세웠다고도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앗수르가 그 일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바빌론 신비 종교를 창설한 장본인으로 이해된다. 바벨 참조.

● 니므림(Nimrim, 니므림, 표범) 뽀니므라 참조.

● 니산(Nisan, 나이산) 지금의 4월에 해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력의 1월. 이달은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종교력의 1월이 되었다(출12:2). 모세는 이것을 아빌 월이라고도 불렀다(출13:4). 달 참조.

● 니스록(Nisroch, 니스록) 아시리아 사람들의 신. 산헤립은 바로 이 신의 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왕하19:37). 이 신은 큰 독수리 형상으로 표현되었고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의 조각품들은 사람의 모습을 한 독수리 형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왼쪽 상단 니느웨의 유적 그림 참조).

● 니코폴리스(Nicopolis, 니카폴리스, 승리의 도시)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한 뒤에 아마도 여기에서 자신의 마지막 겨울을 보낸 듯하다(딤후3:12). 이곳은 마케도니아의 경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넙하스(Nebhaz) 아와 사람들의 신(왕하17:31).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짓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이 우상이 개의 형상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역사적으로도 시리아 사람들이 개 우상을 섬긴 것이 확인되었다.

(C)

● 다곤(Dagon, 테이간, 작은 물고기) 블레셋 사람들이 경배하던 물고기 신. 가자와 아스돗 등에는 이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대상10:10) 가자의 신전은 삼손에 의해 파괴되었다(삿16:21-30). 아스돗의 신전에서는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적적으로 두 번이나 넘어졌으며 두 번째 넘어질 때는 머리와 손이 잘려 나가 몸통이 부분만 남았다(삼상5:1-9; 참조 수15:41; 19:27).



● 다니엘(Daniel, 대니얼,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1.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대언자. 갈대아 사람들은 그를 벨트사살이라 불렀는데 그는 다윗의 왕가에 속한 사람으로 주전 606년경 여호야김의 통치 제4년에 어린 나이에 바빌론으로 갔다. 그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선택을 받아 느부갓네살의 뜰에 거하며 교육을 받고 갈대아 사람들의 과학을

이해하게 되었으나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먹음으로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그런 음식들이 유대인들에게 의식 면에서 부정했고 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3년간 교육을 받은 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어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때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의 꿈을 해석하여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빌론의 총독이 되며 학자들과 제사장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는 자기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 시련을 겪을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다시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의 환상도 해석했다. 그 결과 그는 그때까지의 모든 직무보다 더 뛰어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단5:29; 8:27).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빌론을 점령한 뒤에도 그는 죽을 때까지 높은 자리를 유지하며 이 왕들의 호의를 입었다. 물론 이 기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사자 굴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구출되었다. 이때에 그는 기도와 금식을 하며 유대인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했고 약속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다(단9:1-27). 그는 유대인들의 귀환 허용 칙령이 발표되는 것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가는 것을 살피서 보았으나 그 스스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다. 고레스의 제3년에 그는 약속된 메시아 구속자가 올 때까지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 몇 차례 환상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평안한 삶을 마치고 부활해서 이스라엘의 땅에서 있을 것을 약속받았다(단12:13). **철심** 이레 참조.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거의 흠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자기의 젊은 때와 늙은 때를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으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동방 사람들 속에서 순수하게 고결한 삶을 살았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통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없었더라면 순교자가 되었을 것이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하며 가치가 있다.

II. 다윗의 둘째 아들. 그는 길르얌이라고도 불렀다(대상3:1; 삼하3:3).

III. 이다말의 후손. 그는 에스라와 함께 바빌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우두머리 중 하나였으며 이후의 개혁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스8:2).

- 다단(Dathan, 데이선, 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반역한 사람(민16:1-50).

- 다대오(Thaddeus, 쉐디우스) 사도 유다의 이름(마10:3).

- 다드몰(Tadmor, 태드모, 종려나무)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을 향한 시리아 사막에 세운 도시(왕상9:18; 대하8:4).

- 다듬은 돌(Hewn stone) 율법 시대 초기에 하나님의 제단은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었다(출20:25).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다듬은 돌이 쓰였다(왕상5:17; 6:36; 7:12).

- 다르닥(Tartak, 타르택) 아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도입한 우상(왕하17:31).

- 다르단(Tartan, 타르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랍사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낸 장군(왕하18:17). 그는 아마도 사르곤의 통치 때에 아스돗을 점령한 장군이었을 것이다(사20:1).

- 다리오(Darius, 터라이어스) I. 메대 사람 다리오(단5:31; 9:1; 11:1). 이 사람은 아스티가게스의 아들로서 메대 사람들의 왕이였으며 어머니 쪽으로 에빌르모닥과 고레스의 삼촌이었다.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벨사살 왕을 폐위하고 2년 뒤 죽을 때까지 왕좌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에 왕좌는 고레스에게 넘어갔다. 그의 통치 때에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다(단6:1-28).

II.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에스라와 함께 그리고 스가라 대언자에 의해 언급된 이 왕은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 성전을 지우라고 했으나 그 뒤에 유보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유대인들이 공사를 하도록 허가한 인물이다(스4:1-24; 5:1-17; 6:1-22; 7:1-28). 그는 주전 521년경에 마기족의 왕위 찬탈자 스메르디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36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정부를 수사(수산)로 옮겼고 바빌론이 자기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자 반역을 제압하고 바빌론의 성벽을 무너뜨려 램5:58의 예언을 성취했다.

III. 다리오 코도마누스. 느12:22에 언급된 이 왕은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인자한 왕이었다. 알렉산더 대제는 여러 차례 그를 패배시켰고 마침내 260년의 역사를 가진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렸다. 다리오는 6년간 통치한 뒤에 자기의 장군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며 이로써 단8:1-27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니엘은 숫양이라는 상징으로 페르시아 왕국이 거대해지는 것을 예언했고 이 양이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밀고 들어가지만 아무도 그를 저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 숫양은 서쪽에서 나와 땅에 닿지 않고 온 세상을 휘저으며 다닌 염소, 즉 눈과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염소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파멸되었다.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상 일어난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

- 다릭(Dram, 드램) 페르시아 왕국의 금 동전(스2:69). 이 말은 그리스어 드라크마와 같은 기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가치는 대개 십분의 삼 세겔 이하이다.

● 다림줄(Plumb line) 수직인지 살펴보려고 추를 달아 늘어 놓은 줄(암7:7-8).

● 다마리스(Damaris, 대머리스, 암소) 아테네의 여인. 이 여인은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몇 사람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였다(행17:34).

● 다마스쿠스(Damascus, 더매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이곳은 창14:15; 15:2에 처음 언급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은 바라다 강변의 둘레가 80킬로미터 정도 되는 비옥한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의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다른 쪽에는 산들이 있다. 다마스쿠스 주변과 북쪽 지역은 성경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불린다(삼하8:5). 이곳에는 자체의 왕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다윗이 그곳을 점령했고(왕하8:5-6) 예로보암 2세도 점령했다(왕하14:28). 그 당시 이곳의 역사는 나아만, 벤하닷, 하사엘, 르신 등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곳은 나중에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정복되었고(왕하16:9)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후의 셀레우코스 왕조, 로마 사람들에 의해 통치를 받았으며 사도 바울 시대에는 당분간이나마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 즉 헤롯 안디바의 장인의 지배를 받았다. 그 당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거했으며 네로의 명령에 의해 단번에 10,000명이 죽기도 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한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소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행9:1-27; 22:1-16).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 다말(Tamar, 테이머, 야자나무) I.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인 가나안 여인(창38:1-30).

II. 다윗의 딸. 달매, 압살롬 참조.

III. 압살롬의 딸(삼하14:27).

● 다바네스(Tahapanes, 타파와니즈) 이집트의 도시(렘2:16, 43:7, 9). 이곳은 겔30:18에서 드합느헤스라 불리며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뒤에 요하난과 여러 유대인들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이끌고 이 도시로 피난을 갔다(렘43:7-9; 44:1). 겔30:18의 경고를 보면 이 도시가 매우 크고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 다베라(Taberah, 태버라, 불태우다) 진을 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이 떨어진 것을 기념하는 이름(민11:1-3; 신 9:22). 이집트 탈출 참조.

● 다볼(Tabor, 테이보어, 높은 곳) 갈릴리에 있는 외딴 산. 이곳의 높이는 산기슭에서부터 400미터이고 그 옆에는 나사렛, 기손 시내, 나인, 엔델 등이 있다. 이곳은 잇사갈과 스블론의 경계에 놓여 있고(수19:12, 22)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와 싸우기에 앞서 여기에 진을 쳤다(삿4:6, 12, 14).

● 다브랏(Daberath, 대버래쓰) 스블론과 잇사갈 경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도시(수19:12; 21:28; 대상6:72). 이곳은 다바레라고도 불린다.

● 다비다(Tabitha, 타비타, 가젤사슴) 도르가 참

조.

● 다산(Fruitful) 자식이나 세끼를 많이 낳음.

● 다소(Tarsus, 탈서스) 소아시아 남동부에 있던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다소는 지중해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그리스 철학과 문학이 발달해서 한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비길 만하기도 하였고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자유 도시가 되어 번영을 누렸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기 전에 여기서 초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여기 거하던 그의 선조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바울은 출생에 의해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행9:30; 11:25; 22:3).

● 다시스(Tarshish, 타르쉬시) I. 아완의 둘째 아들(창10:4).

II. 스페인 남부의 고대 도시. 이곳은 페니키아의 식민지로 히브리 사람들과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곳과 무역을 많이 하였다. 다시스가 서쪽에 있었다는 사실은 서쪽으로 이주한 엘리사와 갓딤과 도다딤과 함께 다시스가 언급되기 때문에 확실하다(창10:4). 겔38:13에 따르면 이곳은 중요한 교역 장소였고 은과 쇠와 납 등을 수출하였다(렘10:9; 겔27:12, 25).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나 고래 배 속에 들어갔으며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다(은1:3).

● 다시 나게 하는 때(Regeneration)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때, 즉 천년 왕국 시대를 가리킨다(마19:28). 천년 왕국 참조.

● 다시 태어남(Regeneration) 새롭게 출생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의에 이르는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 혹은 '위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요3:3-7). 이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고후5:17) 죽었다가 살아나서 거룩함의 새 삶에 이르는 것이며(엡2:1) 마음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고(갈4:19)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벧후1:4). 이것을 이루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 뿐이며(요1:12-13; 3:4; 엡2:8-10) 그분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전4:15; 약1:18; 벧전1:23).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며 랍비이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며 율법과 성경에 해박한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에게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요3:3-5)라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출생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그런 특권으로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고 이에

주님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보여 주셨다(요3:6). 사람은 육체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다(요일3:10; 요8:37-44).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하늘로부터 다시 한 번 태어나야 한다(요1:12).

새로운 탄생은 발달 또는 개혁이라고 불리는 변형에 의해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감화 혹은 개혁이 옛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개선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종교적인 육체일 뿐이다(마7:16).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화해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사람의 상태 선도 참조(87).

새로운 탄생,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본성(本性)을 이식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앞서 존재한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죽은 들은 스스로 무기적 상태에서 유기적 상태로 전환될 수 없다. 이 두 세계 사이에는 문이 하나 있으며 이 문은 유기적 세계 쪽으로 열려 있다. 들은 그 문을 열 수 없는 반면에 식물은 열 수 있다. 식물은 그 뿌리들을 흙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들을 부술 수 없으며 들의 화학적인 구성 요소들을 취하여 그 요소들에 자신의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육적인 쪽에서는 열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한다.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사람의 마음이 태(어머니)가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다(벧전1:23).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떨어질 때 성령님에 의해 생명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새로운 탄생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회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요5:40). 그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화합되어 생명력을 가질 때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히4:2). 이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뒤 죄의 해독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한다. 죄인 참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일을 하며 그분의 인격을 표출한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성향과 기질을 소유하여 말과 행실이 달라지며 하늘의 일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으며 새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교제를 버

리며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추구한다.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형상이 그 혼에게 되돌아가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원리가 심긴다. 믿음을 생산하는 다시 태어남은 칭의에 의해 완성되며 곧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가 그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하늘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다. 칭의, 성화 참조.

● 다시 태어남의 씻음(Washing of regeneration) 이것은 새로운 출생 때에 성령님께서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가리킨다(딤후3:5). 다시 태어남 참조.

● 다아낙(Taanach, 테이아넥) 므낫세 지파에게 배당된 도시 중 하나(수17:11; 대상7:29).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도시를 빼앗았으나 므낫세 지파는 그곳의 거주민을 몰아내지 않았으나(수12:21; 사1:27).

● 다윗(David, 데이비, 사랑받는 자)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의 막내아들. 그는 주전 1085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세속 역사나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생애는 삼상16:1-왕상2:46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왕좌에 오르기 전에 이미 유명한 대언자 사무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삼상16:1-13)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역경과 위기를 잘 이겨 나갔다.

젊은 때에 그는 목동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대담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음악하는 자로서 행동이 곧바로 단정한 삶을 살다가 사울 왕의 궁정에 들어가 왕을 위해 봉사했다. 그는 때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울 왕을 위로하고 그에게 맑은 정신을 갖게 해 주었으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을 무렵에 왕의 궁에서 나와 아버지의 양 떼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방문하여 용맹스럽게 블레셋의 투사 골리앗을 죽였고 그 뒤 왕에게 돌아와서 명예를 받고 군대를 다스리며 지혜롭게 행동하여 백성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인해 그는 유다의 광야로 피신하고 거기서 600여 명의 무리를 얻은 뒤 그들을 지도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적하였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무서운 추격을 받았으며 그 와중에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을 들어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 후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여 거기로 가서 아기스의 영접을 받았고 그 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자기 땅으로 돌아와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즉시 헤브론에서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7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은 뒤에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조를 설립했으며 그의 가문은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자기가 부름받은 모든 일을 책임 있게 수행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명예롭게 거룩한 도시로 가져왔으며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규례들을 규정했고 또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리며 민족의 번영을 추구했다. 그의 지혜와 에너지로 인해 유다 왕국은 굳건하게 섰다. 또 그는 용사였으므로 외세의 침입을 막고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 너머에까지 왕국의 영토를 확장해서 영토가 홍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이르게 했다(창15:18; 수1:3-4). 사울, 다윗, 솔로몬의 영토 지도도 참조(30). 또한 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백성을 부유하게 하였으며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많은 물건을 예비하였다.

그러나 다윗 역시 번영과 무제한의 권력으로 인한 비도덕적 영향들을 다 피하지는 못했으며 여러 가지 강한 유혹에 말려들어 갔다. 비록 그의 삶 전체가 그를 둘러싼 다른 왕들에 비해 흠이 적고 훌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죄들에 빠졌다. 그 당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여러 아내를 두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 우리 야와 밤세바 사건에서 드러난 그의 죄는 정말로 사악한 것이었지만 그는 어리석은 꿈에서 빠져나와 먼지와 채 속에서 회개하고 책망과 형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다. 그 이후로 그는 여러 번 고통을 당하며 겸손해지고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에서는 물고 뜯는 일과 근친상간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다. 다말과 암논과 아합살롬의 사건은 그들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또 아합살롬과 세바와 아도니아의 반역과 그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기근과 재앙 그리고 요압의 범죄 등으로 인해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다"(시55: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경은 좋은 열매를 가져왔으며 그는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자신의 성실함과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요압과 시므이에 관해 그가 솔로몬에게 책무를 준 것은 공의를 담은 목소리였으며 결코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왕상 2:5-9).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하였으며 백성을 불러 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였고 40년간 통치하다가 71세에 죽었다.

그는 정신적으로도 능력이 탁월했고 또 살면서 많은 것을 습득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에 친절하게 관대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며 행동했고 경건하게 주 자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했다. 그는 정치가요 용사요 또 시인이었다. 그의 시편 속에는 그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 있다. 시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하고 그분을 찬양하

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 비록 그가 베들레헴 골짜기와 시온의 언덕에서 히브리어로 시편을 지었지만 그것들은 후에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전 세계 그리스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인내를 주었다. 또한 그는 성전에서의 경배 의식에 시편들을 도입함으로써 이전의 의식을 더욱 보강하였다. 시편 참조.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 그가 정복하여 세운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가 되며 사실 그의 핏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 다윗의 자손(Son of David) 다윗의 후손. I. 다윗의 자손 요셉(마1:20).

II. 예수 그리스도(마1:1; 22:42-45; 눅18:38-39).

● 다윗의 장막(Tabernacle of David) 다윗의 집(행15:16; 참조 암9:11).

● 다이애나(Diana, 다이애나)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의 주요 여신. 이 여신은 열두 명의 주요 신들 중 하나로서 하늘에서는 루나(달)였고 땅에서는 다이애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헤카테로 불렸으며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는 루시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 여신은 대개 머리에 초승달을, 손에는 활을 지니고 있으며 사냥하는 토끼의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여신이 숲을 감독하고 사냥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다이애나는 주피터가 라토나에게서 얻은 딸로 알려져 있다. 다이애나는 또한 헤카테이므로 무지막지하게 피를 흘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 또 사냥의 신이요 숲의 신이므로 치녀이고 교만하며 달의 여신이므로 번덕스럽고 자유분방한 것으로 묘사된다.



에베소의 다이애나는 시리아의 아스다랏 여신과 비슷하며 경배자들은 불순한 예식과 마법의 신비를 가지고 이 여신을 공경했다(행19:19). 그녀의 형상은 하늘에서 주피터에게서 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는데(행19:35) 사실 이것은 나무 조각 형상으로 가슴에는 많은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머리에는 탑 같은 것이 있으며 손에는 지팡이가 있다. 이 형상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크게 숭배를 받았으며 이 여신

의 전은 에베소의 자랑이요 영광이었다. 이 신전은 가로세로가 120미터와 65미터였고 높이가 18미터인 127개의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값진 보석이 매우 많았다. 이것은 짓는 데만 220년이 걸렸으며 그 당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다이아나의 은 성물함은 이 전을 복사해서 만든 작은 전으로 집에서 숭배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행자들에게 파는 기념품이었을 것이다(행19:28, 34-35).

사도 바울의 책망이 있는 뒤에도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에 대한 열정은 그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결국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뒤에 에베소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마리아도 등중한 다이아나에게 하나니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신성모독 선언을 채택하고자 말했다.

● 다이아몬드(Diamond) 탄소의 결정체로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 다이아몬드는 인도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로마 시대에는 이미 유럽에 수입되어 왕실 귀족만이 지닐 수 있는 귀중한 보석이 되었다. 결정색은 무색투명한 것부터 황색, 갈색, 녹색 등 여러 가지가 있다(출28:18; 39:11; 렘17:1; 겔28:13).

● 단(Dan, 댄, 심판자) I. 야곱과 빌하의 아들(창30:3; 35:25).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단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수가 많았다(민1:39; 26:43). 단 지파에게는 흠바 근치의 해안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뻗어나간 지역이 배정되었으며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와 닿았으므로 단 지파는 그들과 여러 차례 싸움을 해야 했다(삿13:1-25; 14:1-20; 15:1-20; 16:1-31).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는 작았지만 비옥했고 그곳 거주민들은 강력했으며 그래서 단 지파의 일부는 북쪽으로 올라가 다른 지역을 차지했다(수19:40-48; 삿18:1-31). 그 결과 단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북쪽과 남쪽의 두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단 지파 지도 참조(19, 25).

II. 원래 라이스라라 불리던 단 지파의 도시(삿18:29).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끝에 있었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약속의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단은 헤르몬 산 기슭의 요르단 강 근원에서 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한때 라이스는 시돈에 속한 곳이었으나 단 지파의 점령 이후 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삿18:1-31). 이곳은 그 당시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고 후에는 여로보암의 두 마리 금송아지 중 하나가 여기에 놓였다(왕상12:28-29; 암8:14).

● 단순하다(Simple and Simplicity) 성경에서 이 말은 간절함, 솔직함, 순진함 등의 좋은 의미로 쓰였지만(롬16:19; 고후1:12; 11:3) 많은 경우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주의 깊지 않아 어리석은 것을 뜻하기도 했으며(잠1:22; 9:4; 14:15; 22:3)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무지하거나 경험이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하였다(삼하15:11; 잠1:4; 21:11).

● 단언(Protest) 딱 잘라 말하는 것.

● 단일(Single) 단 하나를 뜻하되 주로 눈과 마음의 상태와 관련하여 일편단심의 뜻을 나타낸다(마6:22; 눅11:34).

● 단장(Adorn) 얼굴, 머리, 몸, 옷차림 따위를 잘 매만져 곱게 꾸미.

● 단 한 번(Once) 혹은 한 번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되어 쓰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가 한 번으로 완전히 영원토록 끝난 것을 뜻한다(히7:27; 9:12, 26-28; 10:10).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 속죄라 불린다. 속죄 참조.

● 달(Moon) 히브리 사람들의 달은 음력으로 계산되어 월삭에서 다음 월삭까지 한 달이었다. 이 음력의 달은 각각 29일 반이었으며 그래서 한 달은 30일, 그다음 달은 29일로 교대로 바뀌었다. 그 결과 30일이 되는 달은 완전한 달이고 29일이 되는 달은 불완전한 달로 불렸다. 월삭은 항상 달의 시작, 즉 초하루였다.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달의 이름 없이 그냥 1월, 2월, 3월로 불렀으며 지금처럼 각각의 달에 이름을 붙인 것은 페르시아에서 나온 것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4월경에 이집트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 7월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달을 유대인들의 종교력에서 1월로 지정하셨고 모든 명절은 이것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그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유대인들의 달력 선도 참조(67).

유대인들은 음력의 달들을 쓰고 우리는 태양력의 달들을 쓰므로 그것들은 서로 잘 일치하지 않지만 그들의 첫째 달인 니산 월은 지금의 4월에 해당하며 다음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달과 현재의 달을 비교해서 보여 준다. 유대인들의 1월: 니산 혹은 아빕(현재의 3-4월, 출12:2; 13:4; 예3:7), 2월: 시브 혹은 이야르(4-5월, 왕상6:1), 3월: 시반(5-6월, 예8:9), 4월: 담무스(6-7월, 겔8:14), 5월: 아브(7-8월), 6월: 엘룰(8-9월, 느6:15), 7월: 티쉬리 혹은 에다님(9-10월, 왕상8:2), 8월: 불(10-11월, 왕상6:38), 9월: 기슬르(11-12월, 스7:1), 10월: 데벳(12-1월, 예2:16), 11월: 스밧(1-2월, 스1:7), 12월: 아달(2-3월, 예3:7).

한편 음력의 열두 달은 354일 6시간이므로 유대인들의 한 해는 태양력의 한 해보다 12일 정도 적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춘분과 추분을 회복하기 위해 3년마다 배야달, 즉 '두 번째 아달'이라는 열셋째 달을 첨가한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음력과 현재의 태양력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

● 달(Moon) 밤에 뜨는 아름다운 달은 사람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증언하는 창조물이다(창1:16; 시8:3).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 그것을 다시 반사하는데 이는 교회와 매우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동방에서는 청명한 밤에 달이 아주 밝게 떴으며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대개 달을

숭배하면서 아스다투, 아르테미스, 다이애나, 헤카테, 메니 등의 이름을 가진 월신(月神)을 숭배하였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였지만(신4:19; 17:3)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경우도 있었다(왕하21:3; 사65:11; 렘7:18; 8:2; 19:13; 44:17-25). 월삭, 미친 증세가 있는 자 참조.

● 달란트(Talent, 텔런트) 금, 은, 철 등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이것은 약 45킬로그램이고 돈으로 따질 때 금 1달란트는 약 30,000달러였다. 마18:24; 25:14-30의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달란트로서 큰돈을 뜻한다.

● 달리다굼(Talitha cumi, 탈라타쿠미)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하신 말씀(막5:41).

● 달마누다(Dalmanutha, 달마누다) 막달라 부근의 마을(막8:10; 비교 마15:39). 이곳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 디베라의 북쪽에 있었다.

● 달마디아(Dalmatia, 달메이시아) 아드리아 바다 동쪽에 있는 유럽의 한 지방. 바울은 여기로 디도를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였다(딤후4:10).

● 달매(Talmai, 탈마이, 쟁기질 하는 자)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경계에 있던 그술의 왕. 다윗은 그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 자기 형 압논을 죽이고 3년 동안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하였다(삼하3:3; 13-14장).

● 담대하다(Bold)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함.

● 담무스(Tammuz, 태머즈) 시리아의 우상. 겔8:14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우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담무스가 페니키아의 아도니스나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동방 사람들은 아도니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해가 졌다가 뜨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하지(夏至)에 해를 보며 애곡하고 그 뒤에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었다.

● 담보물(Pledge) 유대인들의 법은 돈을 빌리거나 계약할 때 담보물을 주어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였다. 그래서 밤에 추위를 막기 위해 덮어야 하는 겜옷을 채권자가 담보로 취하였으면 반드시 그날 그것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만 했다(출22:26-27). 또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담보물로 취할 수 없었다(신24:6, 10-11; 참조 욥22:6; 24:3, 7).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종종 이런 것을 위반하였다(암2:6-8). 한편 신뢰할 수 없는 사악한 자들에게서는 담보물을 받아야 했다(잠20:16).

● 담부아(Tappuah, 테푸어, 사과) I. 헤브론의 북서쪽에 있던 마을(수12:17; 15:3).

II. 헤브론의 남서쪽에 있던 유다의 도시(수15:34).

III.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에 있던 마을(수

16:8; 17:8).

IV. 갈렙의 후손(대상2:43).

● 닛대(Tatnai, 텃나이) 유대인들에게 공의와 온정을 베푼 사마리아 총독(스5:1-17; 6:1-22). 그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대인들이 짓는 하나님의 집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 당아욱(Mallows) 아욱과에 딸린 두해살이 풀(욥30:4).

● 닛(Anchor) 배를 세워 두기 위해 물속에 던져 흠바닥에 박히게 만드는 쇠갈고리(행27:29-30; 히6:19).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혼의 닛이라고 말한다(히6:19).

● 대갚음(Recompense) 남에게 입은 은혜나 남에게 당한 원한을 잊지 않고 그대로 갚음(기존 성경의 보응).

● 대기(Air)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체.

● 대륙의 이동(Division of the earth)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대륙의 이동이 생겨 지금의 지구처럼 되었다(창10:25). 관계어 이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 대머리(Baldness) 동방에서는 친척이 죽은 것을 애도하기 위해 머리를 완전히 밀거나 머리털을 깎는 관습이 있었다(욥1:20; 렘16:6). 그러나 이것은 이교도들의 풍습이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다(신14:1). 한편 자연적인 대머리는 나병으로 의심을 받아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벤엘의 아이들은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조롱했는데(왕하2:23) 아마도 그들은 이런 모멸적인 말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것을 조롱하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승천 기적을 조롱했을 것이다.

● 대사(Ambassador) 나라를 대표하여 딴 나라에 가서 외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이다(고후5:18-21).

● 대속(Redemption) 죄인을 대신해서 그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죄를 속하는 것. 속죄, 구속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대신 속죄라는 점이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린양 같은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갔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 그의 죄가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되도록 하였으며 그에게 칼을 건네주어 그가 직접 짐승을 죽이게 하였다. 또 이렇게 죽인 짐승을 조각조각 내어 반제 헌물 제단의 뜨거운 불에 던졌다. 이로써 죄인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며 그 이후에도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희생은 결코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으며(히9:9) 단지 영원한 희생에 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불렀다. 구약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으며 신약 시대에는 완전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히11) - 을 의로 인정하신다. 대신 속죄 선도 참조(89).

● 대야(Basin) 둥글고 넓적한 물그릇. 이것은 씻거나(요13:5) 포도즙 같은 액체를 담거나(출24:6) 희생물의 피를 받는 데 사용되었다(수9:15). 보통 이것은 못이나 은으로 만들었다(민7:13).

● 대언(Prophecy) 대언과 대언자(prophet)는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사전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예언하다'이므로 기존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들을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 '선지자'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이 옳음을 보여 준다(출7:1; 렘37:4; 계19:10). 예수님은 아벨을 가리켜 최초의 대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자라고 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하셨는데(눅11:50-51) 실로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아 죽게 되었다. 그는 결코 앞날을 예측한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도 대언자라 불린다(창20:7).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는 선언과 함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다(신18:22). 이와 같이 대언자의 책무는 엄청났으며 구약 시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거짓 대언자 참조. 한편 성경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벧후1:20-21).

이처럼 중요한 단어를 기존 우리말 성경은 고린도 전서 12-14장 등에서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심각한 영적 선물(은사) 문제가 일어나고 기복 신앙이 널리 퍼져 많은 교인들이 입시, 입사, 이사 때마다 예언 기도 받으러 기도원의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신약 시대 초기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결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구약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대언에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언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선견자(seer)라는 호칭이 있었으나 후에는 대언자로 바뀌었다(삼상9:9). 이런 선견자야말로 '앞날을 내다 보는 사람'으로 '선지자'와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에서 대언자를 선지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예언, 선견자 참조.

● 대언자(Prophets)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낸 대사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벨은 가인을 위한 대언자였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출7:1) 하나님의 메시지나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신 전하였다. 한편 구약 시대의 거룩한 음악가들도 대언하였다(대상25:1). 성경은 거짓으로 꾸며 낸 말을 하는 자들도 그냥 대언자 혹은 거짓 대언자라고 부른다. 참 대언자가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같이 거짓 대언자들은 악한 영으로 충만하였다(삼상18:10). 신약 시대의 대언자들도 사도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때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전11:4; 14:1, 30 등 참조). 그런 차원에서 유다와 실라는 대언자였고 안디옥 교회에는 대언자와 교사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주셨다(고전12:28; 참조 행21:9; 엠2:20; 계18:20). 따라서 완전한 성경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에 대언자가 필요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주님의 특별 히대로 필요에 따라 세워져서 백성에게 의무를 알려 주고 죄를 깨우쳐 주며 회개하고 개혁할 것을 외치고 왕에게 경고하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다(왕하17:13; 렘25:4). 그들은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하였다. 이 일은 특히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이다(왕하4:23). 또한 대언자들은 왕들을 도와서 백성에게 경건과 덕을 추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겸손하고 신실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며(왕하1:8; 수13:4; 마3:4) 세상의 기쁨과 사치를 멀리하고(왕하5:15) 종종 학대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지만(마23:34-37; 히11:32-38; 약5: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쟁기질하는 농부였고 소를 모는 목자였다(왕상19:20; 암7:14; 수13:5). 사무엘 당시에는 기브아, 나옏, 벧엘, 길갈, 여리고 등지에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경배하는 일을 안내하는 것을 준비하였다(삼상10:5; 19:20; 왕하2:3, 5; 4:38). 여기서 교육을 받은 대언자들의 아들들은 종교 지도자로 되고 영감으로 인도를 받은 대언자가 되었다. 단 아모스의 경우에는 예외이다(암7:14-15). 성경에는 미리암, 드보라, 훌다, 빌립의 네 딸 등과 같은 몇 명의 여대언자도 나온다.

대언자들은 환상과 꿈 등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민24:2-16; 욥2:28; 행10:11-12; 계1:10-20 비교). 이런 계시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 주는 권능 있는 일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그런 계시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에 불어넣어졌다. 그들은 이런 메시지를 글이나 말로 왕과 통치자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선포하였고 이때에 기적이나 다른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사20:1-6; 렘7:2; 19:1-15; 겔3:10).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대언자들이 기록한 16개의 대언서가 있다. 이 중 4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큰 대언자들의 글이고 나머지 12개는 작은 대언자들의 글이다. 큰 대언자, 작은 대언자라 함은 그들의 능력이 많고 적응을 뜻하지 않고 대언의 분량이 많고 적응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큰 대언자이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요나는 작은 대언자이지만 그의 말에 온 니느웨가 회개하였다. 대언서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없으며 다음에 나오는 순서는 대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대언자들의 연대 선도 참조(7).

1. 요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혹은 여로보암 이전의 왕 요아스의 통치 때
2. 요엘, 유다의 웃시아 왕 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등장하기 전
3. 아모스, 유다 왕 웃시아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후반부
4. 호세아, 유다 왕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와 그 이후의 아들 시대
5. 이사야, 유다의 웃시아 왕이 죽을 때부터 요담의 통치 시작부터 므낫세의 통치 때까지
6. 미가,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었다.
7. 나훔, 히스기야의 통치 후반부와 산헤립의 멸망 이후
8. 스바냐, 요시아의 통치 시작부터 니느웨의 멸망까지
9. 예레미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제13년부터 살룸, 여호야김, 여고니아, 시드기야의 통치 끝까지, 즉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때까지. 그는 그 뒤 2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10. 하박국, 여호야김의 통치 시작부터 느부갓네살이 올 때까지
11. 오바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 시작 부분에서부터 이두매아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12. 에스겔, 유다의 여고니아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주전 590년경에 대언을 시작하여 느부갓네살 밑에서 지내며 예루살렘이 점령된 뒤까지 대언하였다.
13. 다니엘,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제4년에 어린 나이에 갈대아로 끌려가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바빌론에서 대언하였다.

14. 학개, 포로들과 함께 주전 536년경에 귀환해서 다리오의 제2년에 대언하였다.

15. 스가랴, 학개와 같은 시대에 유대에서 대언하였다.

16. 말라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일하던 시절의 후반부에 주전 416년경에 대언하였다.

구약 시대의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눅24:27, 44; 행10:43; 행1:10-11) 모든 시대를 통틀어 대언자 중의 대언자로서(신18:15-19; 행3:22-24) 자신의 영과 종들을 통해 하나님과 혼의 불멸과 사후 세계 등 사람과 관련된 모든 진리를 완전하게 계시하셨다.

● 대장(Captain) 무리의 지휘자(隊長). 보통 이 말은 군대의 통치자나 지휘자(왕상9:22; 대하32:21; 렘51:27)를 가리키며 사령관의 의미로 대장(大將)을 쓸 때에는 General이 쓰인다(대상27:34).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며(히2:10)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라고 말씀하셨다(수5:14).

● 대적(Against, Adversary) 적을 마주 대항 혹은 맞서 겨루고 있는 원수.

● 대접(Bowl, basin) 위가 넓적하고 운두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 이것은 성전의 그릇으로 쓰였고(스1:10) 어떤 때는 대야 혹은 대접으로 번역되었다(대상28:17; 스8:27).

● 대홍수(Deluge) 노아 시대에 온 땅을 덮은 대홍수. 이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여덟 명뿐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 이 사건을 기록했다(창6:1-22; 7:1-24; 8:1-22). 노아의 방주 참조. 사람들의 죄들이 이 홍수의 근본 원인이었으며 연대기를 볼 때 주전 2348년경에 홍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연대 2 선도 참조(2). 여덟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뒤 시작된 홍수는 40일간 비를 뿌렸고 하늘과 지하수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있었더라”(창7:11-12). 이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과 땅에 거하던, 숨을 쉬는 육체는 다 멸망했다. 그 뒤 다섯 달 동안 물이 계속해서 불어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보다 7미터 정도 위까지 늘어났다. 그 뒤 물이 줄어들어 높은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방주는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였다. 그 뒤 3개월이 지나면서 작은 산들이 보였고 다시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 뒤 그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와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으며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표적으로 주셨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후손들이므로 여러 민족들의 전설에는 홍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집트, 갈대아, 페니키아, 그리스, 중국 사람들의

고대 이야기도 이것을 지지한다. 신약 성경은 노아의 대홍수가 처음의 천지창조와 이 세상 최후의 심판 때의 불 심판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 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노아의 대홍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사용되었고(벧후3:5-7)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 주는 데도 사용되었다(마24:38). 노아, 노아의 방주 참조.

● 더들로(Tertullus, 티탈러스) 로마의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의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고용한 로마의 변호사(행24:1-2).

● 더디오(Tertius, 터시우스, 셋째)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대신 기록한 그리스도인(롬16:22).

● 더베(Derbe, 더르비) 소아시아의 루가오니아에 있던 작은 마을. 주후 41년경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여기로 도피했으며(행14:20) 여기서 많은 제자를 얻었다. 여기에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수고한 가이오도 포함되어 있었다(행20:4).

● 덕(Virtue)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선함과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뜻한다(빌4:8). 덕은 믿음의 훈련에서 꼭 필요한 항목이다(벧후1:3, 5). 어떤 경우에 이 말은 권능이나 효능을 뜻하기도 한다(눅6:19).

● 덮는 것(Covering) 여자가 긴 머리를 하면 집회에서 굳이 너울이나 모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전11:15). 긴 머리가 덮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 데카폴리(Decapolis, 디카폴리스, 열 개의 도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이곳은 요르단 양쪽에(주로 동쪽에) 10개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비록 이곳이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있기는 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여기 거주했으므로 이방인들의 도시 이름을 갖게 되었고 또 이런 이유로 여기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떼를 키웠다(마8:28-34).

● 데나리온(Penny) 이것은 그리스도 당시 남자의 하루치 품삯이었다(마20:2; 참조 막6:37; 눅10:35; 계6:6 등).



● 데라(Terah, 티라, 야생염소) 나홀의 아들. 그는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고(창11:24) 갈대아 우르에서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 함께 갔고(창11:31-32) 그는 거기서 205세에 죽었다. 성경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거나 혹은 참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음을 보여 준다(수24:2, 14).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렇게 행하였으나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 숭배가 헛된 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믿는다.

● 데마(Demas, 디마스) 바울과 함께 일하던 동역자. 후에 그는 일이 어려워져서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골4:14; 딤후4:10; 몬24).

● 데마(Tema, 티마) I. 이스마엘의 아홉째 아들. II.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있던 이스마엘 족속과 그들의 거주지(창25:15). 이곳은 예단과 관련이 있고(사21:14; 렘25:23) 행상들로 유명하였다(욥6:19).

● 데만(Teman, 티멘, 오희족, 남쪽) 에서의 손자인 데만이 정착한 이두매아 동부의 도시와 지역(창36:11, 15, 42; 암1:12; 함3:3). 데만 사람들은 다른 에돔 사람들처럼 지혜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였다(창36:34; 렘49:7, 20; 욥21). 욥기에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기 바란다.

● 데메트리오(Demetrius, 디미트리어스) I. 에베소의 은 세공업자(행19:24). 그는 에베소에서 다이애나 여신의 은 성물함을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팔아 많은 이득을 얻었으나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곳의 주변 지역에 복음이 퍼지는 것을 보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소집한 뒤 기독교에 의해 자기들의 생업이 위협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의 다이애나 숭배가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득하여 도시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켰지만 마을 서기가 이것을 진정시켰다.

II.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던 크리스천 제자 혹은 사역자(요삼12).

● 데베스(Thebez, 씨브스) 세계에 가까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을. 아비멜렉은 이 도시를 포위하다가 땀뿌에 맞아서 죽었다(삿9:50-55; 삼하11:21).

● 데벧(Tebeth, 티베쓰) 히브리 종교력의 10월. 이것은 지금의 1월에 해당한다. 달 참조.

● 데살로니가(Thessalonica, 쉘살로니카)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 겸 항구.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로마 총독의 거주지였으며 특히 여기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아서 바울은 주후 52년경 여기의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연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꾀박하자 형제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75킬로미터 서쪽의 베레아로 보냈다(행17:1-34). 바울은 아테네와 고린도로 가기 위해 마케도니아를 떠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남겨 두어 자신의 사역을 통해 회심한 그들을 돕게 하였고 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였다.

● 데오빌로(Theophilus, 씨아필러스, 하나님의 친구) 복음 전도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눅1:3; 행1:1). 아마도 그는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유명 인사였으며 이교주의를 버리

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 **대해 사람들(Dehavites, 디헤바이츠)** 유프라테스 너머의 사람들(왕하17:24; 스4:9). 그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 **델리움(Bdellium)** 페르시아 만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난 수지가 굳어져서 형성된 보석. 이것은 금과 다른 보석 등과 함께 언급된다(창2:12; 민11:7).

- **도가니(Furnace)** 강한 열로 금속을 녹이는 용기.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고난의 도가니로 연단하시고(잠17:3; 27:21) 자신의 말씀을 흠도가니에서 일곱 번 재련하여 순수해진 은처럼 순전하게 영원토록 보존하신다(시12:6).

- **도갈마(Togarmah, 토가르마)** 야벳의 후손 중 하나(창10:3). 그는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간간 것으로 추정된다(겔38:15-16). 이곳은 말과 노새로 유명하고 이곳 사람들은 부지런하며 평화스러운 사람들이었다(겔27:14).

- **도끼(Ax)** 이스라엘에서는 일찍부터 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가 사용되었다(신19:5; 삿9:48; 시74:5). 도끼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침례자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였다(마3:10). 또한 도끼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며 사10:15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아시리아의 교만한 왕을 가리킨다.

- **도다님(Dodanim, 도다님)** 야완을 통해 퍼진 야벳의 후손들(창10:4; 대상1:7). 그들은 로데스 섬이나 지중해의 북부 해안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 **도단(Dothan, 도뎨)** 요셉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린 곳(창37:17). 이곳은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행상들의 길에 있었으며 사마리아에서 18킬로미터 북쪽에 있었다. 이곳에서 시리아 군대는 엘리사의 말대로 눈이 멀게 되었다(왕하6:18).

- **도둑질(Stealing, Theft)** 남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십계명의 여덟째 명령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한다(출20:15). 대언자들은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의 물건을 훔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었다(사10:2; 렘7:9-11).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도둑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후11:26).

- **도랑(Trench)** 포위된 도시의 성벽에 다가가기 위한 통로.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들이 네게 오리니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리라"(눅19:43). 후에 로마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아무도 도망가거나 구조받지 못하게 하였다.

- **도르(Dor, 도어, 거주지)** 가나안 족속들의 주요 도시. 이곳은 가이사라와 갈멜 산 사이의 지중해에 놓여 있었으며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므낫세 지파에

게 배정되었다(수11:2; 12:23; 17:11; 왕상4:11; 대상7:29).

- **도르가(Dorcas, 도르카스, 가젤 사슴)** 옴바에 거주하던 경건한 여인. 그녀의 시리아식 이름은 다비다이며 베드로는 죽은 그녀를 살렸다(행9:36-42).

- **도마(Thomas, 타마스, 쌍둥이)** 그리스어로 디두모라 하는 사도(마10:3; 요20:24). 아마도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사람이었을 테지만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눅6:13-15). 그는 충동적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주님께 헌신하였으며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지만 일단 본인이 확신한 일은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나 나중에 그분을 보고 나의 주여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요11:16; 14:5-6; 20:19-29).

- **도벳(Tophet, 토벳)** 힌놈 참조.

- **도비아(Tobiah, 토바이아, 여호와와 선하시다)** 암몬 족속의 통치자. 그는 산발랴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연합하여 성전을 재건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적하였지만(느2:10; 4:3) 그의 위협과 술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그는 유다의 주요 인사들의 힘을 빌려 새로 지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돌아오자 곧바로 그를 추방하였다(느6:17-19; 13:1-9).

- **도시(City)** 팔레스타인의 마을과 도시는 침입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통 높은 곳에 지어졌다. 성벽을 두른 이런 언덕들은 하나의 큰 도시를 형성했는데 어떤 때에는 성채만 언덕 위에 있고 기슭에 마을이 들어섰으며 유사시에는 모든 주민이 성채로 피신했다. 큰 마을과 도시는 성벽과 성문과 망대 등을 갖추었고 성채가 있어서 최후의 도피처가 되곤 했다(삿9:46, 51). 유다의 '방벽을 두른 요새 도시들'(신3:5)은 크기와 강함에 있어서 변화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돌로 방벽을 쌓았고 진흙이나 벽돌 등으로 쌓은 곳도 있었으며(사9:10; 암1:7-14) 물론 파수병도 있었다. 고대 마을에는 포장하지 않은 좁은 길이 있었으며 어떤 도시에는 잘 갖추어진 동산이나 공원이 있었는데 바빌론이 그것의 좋은 예이다. 예루살렘은 한때 인구가 15만 명이었으며 주후 70년경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 포위당할 때에는 그것의 주변 사방으로 7킬로미터 내에 100만 명이 갇혔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한다. 요세푸스 참조.

'다윗의 도시'는 보통 예루살렘 남서부의 시온 산을 뜻한다. 다윗은 이곳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아 그곳에 궁을 짓고 자기 이름을 따라 도시의 이름을 붙였다. 물론 눅2:11에서는 그가 태어난 베들레헴이 언급되었다. 골로소 하나님의 도시와(신12:5; 시46:4) 거룩한 도시는(느11:1)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마4:5; 27:53; 계11:2).

계21:9-14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주겠다고 하고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

는데 거기에는 성벽, 문, 기초석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어린양의 신부인 교회, 즉 사람들이 건물이 될 수 없으므로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그리스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태서 나온 잘못이다. 성경은 종종 도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마23:37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대언자들을 죽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 안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한 마8:34; 행13:44의 온 도시 역시 도시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도 아내로 의인화되어 표현될 수 있다.

● 도역(Doeg, 도엑) 에돔 사람으로 사울의 양 떼를 지키던 사람. 그는 늑에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사울을 피해 도주하던 다윗에게 친절하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돕는 것을 보고 자기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사울은 기회를 잡아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 했으나 그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거부했다. 이에 왕은 도역을 불러 아히멜렉과 제사장 84명을 죽이게 하고 그들이 살던 마을을 칼날로 치게 했는데(삼상22:18-19) 다윗은 이미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예견하고 시편을 지었다(시 52:1-9; 120:1-7; 140:1-13).

● 도이(Toi, 토아이) 시리아의 도시 하맛의 왕. 그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물리치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축하하였다(삼하8:9-11; 대상18:9).

● 도피 도시(Cities of refuge) 혹은 도피 성 전혀 살인할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섯 개의 도피 도시를 마련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거기로 피신해 자기를 보호하며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이로써 죽은 사람의 친족이 그를 쫓아와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출21:13; 민35:11-34). 이런 도시들은 요르단 강의 이쪽과 저쪽에 각각 세 개씩 있었는데 서쪽에는 남달리의 가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동쪽에는 골란과 라못길르앗과 베셀 등이 이런 도시였다(수20:7-8).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이 도시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던 타국인들을 위한 곳이었다(신 19:1-10).

피를 복수하는 관습은 동방의 유목민들에게는 초기부터 도입된 제도였다. 이 같은 관례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나 혹은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 머물기 전에 이미 확립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도피 도시들을 지정하여 그 취지를 유지하였다. 도피 도시로 피신한 무고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다가 그 뒤 안전하게 자기 집에 가서 거할 수 있었다.

한편 고대 민족들 사이에는 신전 혹은 그 안의 제단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관습이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주님의 제단으로 도망하여 그것의 뿔들을 잡고 죽음을 면하려 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출21:14; 왕상 2:28-34). 한편 죄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 도시와 속죄하는 피로 뿌려진 유일한 제단이 있다. 그러므로 피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닥치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제단으로 피신하여 둘째 사망을 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 독(Poison) 생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물질. 성경은 뱀(신32:24, 33)과 독사(시140:3; 룎 3:13)의 독을 말한다. 바울이 벨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독사가 그를 물었으나 그는 죽지 않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다(행28:1-6). 한편 독초(호10:4), 쑥(신 29:18) 등도 독을 가지고 있다. 기근이 있던 때에 대언자 엘리사는 길갈에서 야생 박으로 인해 독이 생긴 음식을 정화시켰다(왕하4:38-41).

● 독사(Adder 혹은 Viper) 여러 종류의 독을 가진 뱀. 창49:17의 독사는 모래 빛을 하고 모랫길에 숨어 있는 독사를 뜻한다. 한편 Asp라 표현된 독사는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독이 퍼지는 맹독성의 독사를 가리킨다(신32:33; 욥20:14, 16; 시58:4; 91:13; 사11:8; 렘8:17; 룎3:13). 뱀 참조.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사는 악과 파괴의 상징이다(욥20:16; 사30:6).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의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라고 불렀다(마3:7; 12:34; 23:33; 눅 3:7). 한편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으나 해를 입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벨리데 섬의 주민들은 그가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이라고 믿었다(행28:3).

● 독생자(The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낳은 아들. 성도들도 요1:12와 룎8:14-15 말씀에 따라 양자 삼위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독생자이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므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아버지께서 물리적으로 그 아들을 낳으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되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창조물이 된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므로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낳다(begot)'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말에서는 'beget'을 '낳다'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beget'은 'get'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I got the book." 혹은 "I got the cold." 라는 말은 "내가 책을 손에 넣었다", "감기 들렸다"를 뜻한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손에 넣게 되면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get'의 원래 의미는 '소유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

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마1:2) 등에서 '낳고'를 모두 'beget'으로 표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낳지 않았다. 단지 이삭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없으므로 'beget'을 어쩔 수 없이 '낳다'로 번역한 것이다. 다시 말해 'beget'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get'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낳다'(beget)는 결코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며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낳으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beget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사마리아가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다시 태어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의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아버지와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시2:7 말씀, 즉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I have begotten thee)." 역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낳았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행13:32-37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즉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롬1:3-4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으로는 아들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으며, 인성으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 수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 독수리(Eagle) 새들의 왕(욥39:27-30). 독수리도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가 있다. 새들 중에서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날며(잠23:5; 렘49:16; 욥4) 또한 가장 빠르게 난다. 성경에는 이에 관한 말씀이 여럿 있다(삼하1:23; 욥9:26; 애4:19).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다칠 제앙에 대하여 대언자는 주님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서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한다(신28:49).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느부갓네살 군대의 행진은 그와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며 그의 병거들이 회오리바람 같으니라 그의 말들은 독수리들보다 빠르도다"(렘4:13; 48:40; 49:22; 호8:1).

독수리는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새와 마찬가지로 초봄에 털을 바꾸어 다시 새롭게 젊

은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그분께서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103:5; 잠조 사40:31). 또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날도록 힘을 들여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교되어 있다(출19:4; 신32:11-12). 독수리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냄새를 잘 맡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육식성 조류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새였으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살을 먹지 않았다.

● 독실(Devout) 신앙심이 깊고 열성이 있음.
● 독주(Strong drink)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음료. 제사장은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독주를 삼가야 했고(레10:9) 나사르 사람도 서원 기간에 그리해야 했다(민6:3). 통치자도 독주를 피해야 하며(잠31:4) 삼손의 어머니(삿13:4, 7), 한나(삼상1:15), 침례자 요한(눅1:15) 등도 전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대언자 이사야는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는 자를 정죄했다(사5:11).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은 이런 독주를 통해 실수를 범했으며(사28:7) 백성은 포도주와 독주를 권하는 거짓 대언자들을 환영했다(미2:11).

● 독초(Hemlock) 호10:4; 암6:12에 나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로쉬'이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쓴 것' 혹은 '쓸개'로 번역되었다(신32:32). 이것은 썩과 함께 언급되며(신29:18; 렘9:15; 23:15; 애3:19) 보통 치명적인 독을 가진 야생 식물을 뜻한다.

● 돈(Money) 고대에는 돈을 세지 않고 달았으며 또 처음에는 동전이 없었다. 고대에는 한 종류의 물품을 다른 종류의 물품과 바꾸는 형식으로 물건이 교환되었다. 즉 한 사람이 자기에게 넘치는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고 대신 그에게서 넘치는 것을 받았다. 그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를 알고 있는 귀금속이 무역에서 사용되었으며 서로 동等的한 가격만큼을 무게로 달아 주고받았다(창23:16; 43:21; 출30:24).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 금속과 다른 금속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고 그것의 가격을 매겨서 사고파는 사람들이 무게를 달고 검사하는 일 같은 불편한 일을 제거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150여 년 전 시몬 마카비 때에 처음으로 동전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동전은 세겔과 반 세겔, 삼분의 일 세겔, 그리고 사분의 일 세겔짜리였다. 그들의 동전에는 아몬드나무 가지와 만나 향이-리 형상이 있었고 다른 형상은 금지되었다(마22:16-22 참조). 신약 시대에 유대에서는 그리스도와 로마의 동전이 통용되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남의 돈을 맡아서 이득을 남기고 후에 돈 주인에게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하셨다(마25:27). 또한 성전의 바깥뜰에는 외국인들에게 유대 돈을 바꾸어 주는 장사치들

이 있어서 매해 내야 하는 반 세겔을 바꾸려는 사람들과 헌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출30:15).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기도하는 집에서 세상 사업을 하며 또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으므로 성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막11:15-17).

딤펢6:10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면서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을 정죄하였다. 바로 이런 성정으로 인하여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죄를 짓는다.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한결 같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 돌(Stone) 고대에는 쇠가 아니라 부식물로 칼을 만들었고(출4:25; 수5:2) 또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곤 하였다(창31:46; 수4:5-7; 7:26; 8:29; 삼하18:17). 모퉁이돌 참조.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 어떤 사람이 죽을죄를 지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처형 장소로 데리고 나가서 그가 죄를 시인하게 한 뒤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혹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한 뒤 그 위에 돌을 쌓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첫째 방법을 취하였고(신17:5-7) 이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옷을 벗어야만 했다(행7:58). 마21:44; 눅4:29는 후자의 방법을 가리키는 듯하다.

● 톨라(Tola, 톨라) I. 잇사갈의 맏아들 겸 그 가족의 우두머리(창46:13; 민26:23).

II. 잇사갈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재판관. 그는 에브라임 산의 사밧에 거하면서 아비멜렉 이후에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삿10:1-2).

● 돌무덤(Sepulchre) 매장지. 히브리 사람들은 시체를 조심스레 다루었고 바위에 돌무덤을 파서 묻었으며(사22:16)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돌무덤에 들어갔다. 주님의 몸도 역시 돌무덤에 안치되었다. 보통 이런 무덤들은 절벽의 한쪽에 있었으며 유대 지방의 고대 유적들은 이를 잘 보여 준다(왕하23:16; 사22:16). 절벽에 판 돌무덤은 마치 사람의 열린 목구멍처럼 생겼다(롬3:13). 무덤이나 공동묘지는 다 도시 밖에 있었다(왕하23:6; 렘26:23; 눅7:12; 요11:30). 아겔다마 참조. 유다의 왕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 산에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왕상2:10; 왕하14:20; 대하16:14; 28:27; 행2:29). 구약 시대에는 가족 무덤이 흔하였고 잘 보존되었으며(창50:5-13; 삿8:32; 삼하2:32; 왕상13:22) 묘비도 사용되었다(창35:20; 왕하23:16-17). 압살롬은 돌무더기 아래 매장되었다(삼하18:17).

대언자들의 무덤을 보존하고 치장하는 것은 경건한 일이었지만 후에는 위선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밖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회칠한 돌무덤이라고 말씀하셨다(마23:27-29). 유대인들은 겨울비가 지난 뒤에 돌무덤을 회계 칠해 새 것처럼 단장하였다. 무덤과 그 안의 뼈를 숭배하는 유클 숭배는 그때나 지금이



나 혼한 우상 숭배였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만큼이나 죄가 많다고 말씀하셨다(눅11:47-48). 그들의 조상들은 대언자들을 죽였고 그들은 돌무덤을 만들어 위선의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언자들 혹은 그들의 뼈를 숭배하던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언자 모세가 오래전에 오실 것을 대언한 '위대한 대언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써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 한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무덤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신처요 거주지였다(사65:4; 눅8:27).

● 돌보심(Providence) 행24:2에 한 번 나오는 이 말은 미리 내다보고 감독하며 돌보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말은 대개 섭리로 번역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창조물을 규제하고 지탱하며 전 우주적이고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멈추지 않는다. 또한 섭리에는 그분의 모든 성품이 들어 있다. 그분은 까마귀에게도 음식을 주시며 모든 창조물의 소원을 만족시키신다. 성경은 온 자연계가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함을 보여 주며(욥38:41; 시104:1-35; 145:15-16; 147:8-9)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완전하게 규제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는 우연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뿔지만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판결은 주께서 하시느니라"(잠16:33).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사14:26-27; 마10:29-30; 행17:24-29).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보존하시고 규제하신다. 한 사람의 생애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보 등은 매 순간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의 손길을 드러낸다.

● 돌쩌귀(Hinge)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대개 압착은 문설주에, 수작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쏘인다.

● 돕(Tob, 탐, 선한) 요르단 강 너머의 땅. 재판관이 되기 전에 입다는 길르앗에서 쫓겨나 여기로 가서 살았다(삿11:3, 5).

● 동산(Gardens) 히브리어에서는 들과 달리 사람이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여 식물이나 나무를 가꾸는 곳을 다 동산 혹은 정원이라고 했다. 이 같은 동산에는 과일나무나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와 향내 나는 꽃 등이 있었다(창2:8-10, 15; 왕상21:2; 전 2:5-6). 이런 동산들은 가능한 한 강이나 샘 곁에 위치했으며(창13:10; 민24:6) 흐르는 물이 없는 데서는 저수지 근처에 있었다(잠21:1; 아4:12-16; 사58:11). 동산에는 담이 있거나 혹은 장미나 석류나무, 가시나무 등의 울타리가 있었고(삼하23:6-7; 욥1:10; 잠15:19; 호2:6) 전혀 담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사1:8; 렘4:16-17). 동산이나 작은 숲에는 장막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연회를 열거나(사51:3) 쉬거나(요18:1) 묵상할 수 있었다(마26:30; 요1:48; 18:1-2). 또 사람들은 동산에 가축의 우상들을 세우기도 했고(왕상14:23; 사1:29; 65:3; 66:17; 렘2:20; 3:6) 가축의 무덤을 두기도 했다(요19:41).

● 동정심(Compassion) 남의 곤란이나 불행에 가엾게 여기고 그를 이해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동정심을 가지시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시103:13). 주 예수님은 지극히 동정심이 많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며(약5:11) 그래서 목자 잃은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여러 차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심을 베푸셨고(마9:36; 14:14; 15:32)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것을 명하신다(히10:34).

● 동쪽(East)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의 사망을 이아 기할 때 항상 얼굴이 동쪽을 향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앞에' 혹은 '앞으로'는 동쪽을 뜻했고 뒤는 서쪽을 뜻했으며 그러므로 오른쪽은 남쪽을, 왼쪽은 북쪽을 뜻했다. 또한 이 같은 일반적인 의미 말고도(수4:19; 시103:12)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북동부와 남동부의 큰 지역, 즉 시리아와 아라비아, 바빌론, 아시리아, 아르메니아를 포함하는 큰 지역을 동쪽으로 표현했다(창29:1; 민23:7; 사6:3; 7:12; 8:10). 어린 예수님을 찾아온 동쪽의 지혜자들은 바로 그런 지역에서 동쪽의 별을 보고 그분께 왔다(마2:1-2).

● 돼지(Swine) 유대인들은 돼지를 몹시 싫어해서 돼지라고 발음하는 것조차 미워했으며(레11:7; 신14:8)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경스러운 일이었다(사65:4; 66:3, 17). 게네사렛 호수에 빠져 죽은 돼지 떼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팔기 위해 기른 것으로 추정된다(마8:32).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돼지 떼를 친 것은 그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 주며 이 상태에 다다르자 그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다(눅15:14-16). 지저분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돼지의 습성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는 개혁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잘 보여 준다(벧후2:22).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은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돼지 앞의 진주처럼

취급당함을 보여 준다(마7:6).

● 두기고(Tychicus, 티키쿠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내기 위해 선택한 제자. 그는 아시아 지방 출신이었으며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과 함께하였고(행20:4)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등을 전달하였다. 사도는 그를 가리켜 자신의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반자라 불렀고(엡6:21-22; 골4:7-8; 담후4:12) 디도가 없는 동안 그를 크레타에 보내려 하였다(딤후3:12).

● 두더지(Mole) 땅속에 사는 작은 짐승(레11:30; 사2:20).

● 두라(Dura, 두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세운 바빌론의 평야(단3:1).

● 두란노(Tyrannus, 타이래너스) 에베소 사람. 바울은 날마다 그의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복음의 교리를 변호하고 선포하였다(행19:9).

● 두려움(Fear) 두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경외, 공포, 염려, 놀람 등을 뜻한다. 두려움은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할 때 발생하는 마음의 감정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무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신, 형벌로 인한 걱정으로 죄짓는 것을 금하는 노예 상태, 사랑 안에서 발생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경외심. 두려움은 실제적인 경건을 나타내는 말이며 경건한 인격의 모든 덕을 망라한다(시111:10; 잠14:2).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악하고 패망하는 자의 특징이다(롬3:18). 참된 두려움은 성령님에 의해 혼 안에 생성되며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은 큰 복을 받는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며(시34:7) 그들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문다(시91:1). 이런 경외감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그분의 호의를 구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존중하며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달갑게 지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빌2:12). 신자 안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반드시 긴장하게 공존해야 하며 그럴 때 바르게 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시작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욥28:28; 시111:10; 잠1:7).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일을 행하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다(잠29:25).

● 두로(Tyre, 타이어, 바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상업, 재물, 권력의 중심지. 이곳은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준 지역의 경계 안에 있었으나(수19:29) 이스라엘은 이곳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다. 두로는 시돈의 누이뻐 되는 도시였으나 곧 시돈을 누르고 페니키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되었다. 모세는 이 도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윗 이후로

이곳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다. 다윗과 두로 왕 히람 그리고 후에 솔로몬 사이에는 동맹 관계가 있었다. 두로의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삼하5:11; 왕상5:1-18; 대상14:1-17; 대하2:3; 9:10).

한편 아합은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북 왕국 이스라엘에 엄청난 저주와 재난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두로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룻을 섬기며 이교주의의 모든 악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역사는 두로가 해양 제국을 만들고 식민지를 개척하여 지중해와 대서양의 많은 지역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로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치하며 이로 인한 죄에 빠져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느부갓네살에 의해 두로가 파괴되는 것은 이미 사23:13; 겔26:7; 27:1-36; 28:1-19; 29:18 등에 예언되어 있다.

주님께서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서 복음을 선포 하셨으며(마15:21) 여기에는 주후 58년경에 기독교회가 세워졌다(행21:3-7; 비교 마11:21-22).

- 두마(Dumah, 두마, 침묵) 아라비아에 있던 이스마엘 사람들의 지파와 지역(창25:14; 대상1:30; 사21:11).

- 두발(Tubal) 야벳의 아들(창10:2). 그는 소아시아의 북동부 지역을 차지한 족속들의 선조로 추정된다.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였으며 두로의 시장에 노예들과 놋그릇 등의 상품을 가져왔다(사66:19; 겔27:13; 32:26; 38:2; 39:1).

- 두발가인(Tubal-Cainm 튜벨게인) 라멕과 실라의 아들. 그는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창4:22).

- 두아디라(Thyatira, 짜이어타이라)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데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공업 도시로 주전 300년경 알렉산다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일곱 도시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이다. 에게 해 지도 참조(41). 하지만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버가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비대가 주둔했으며 염색 공장으로도 유명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녀 역시 자주색 옷감 장수였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직공과 상인 그리고 군인 등 여러 부류로 구성되었고 이런 이유로 두아디라 교회의 회원은 거의 다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계1:11; 2:18, 24). 이 교회의 기원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머나나 버가모의 경우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체재하면서 전도하여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빌립보에 살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자기의 고향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둘째 사망(Second death) 천년 왕국 이후에 불신자가 부활해서 큰 흰 왕좌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불 호수에 들어가는 것.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흰 왕좌 심판

바로 전에 둘째 사망인 불 호수에 들어가고 사망과 지옥은 불신자들과 함께 불 호수에 던져진다(유12; 계2:11; 20:6, 14; 21:8). 성경에서 죽음 혹은 사망은 분리를 뜻한다. 불 호수, 죽음 참조.

- 둠뎨(Thummim, 썸뎨) 우림 참조.

- 드고아(Tekoa, 티코아, 장막을 치는 곳) 예루살렘에서 19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유다의 도시(렘6:1). 요압은 이곳 출신의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 암살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다(삼하14:2). 아모스 대언자 역시 이곳 출신이다(암1:1).

- 드다(Theudas, 튜다스, 하나님의 선물) 가말리엘이 언급한 폭동 주도자(행5:36-37).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유대 지방에서는 많은 폭동이 일어났으며 드다는 이런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중 하나였다.

- 드단(Dedan, 디단) I. 구스의 손자(창10:7).

II. 그두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욱산의 아들(창25:3). 그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부족들의 창시자가 되었다. 구스 지역의 드단의 후손들은 페르시아 만 근처의 남부 아라비아에 정착했으며 이두매 아(에돔) 근처에 살았다(렘49:8). 사21:13에 언급된 '여행하는 드단의 무리'는 겔38:13에서 다시스의 상인들과 함께 언급되었다.

- 드라고닛(Trachonitis, 트라커나이트스) 그리스도 당시에 드라고닛은 팔레스타인의 북동쪽, 다마스쿠스의 남쪽에 위치하였다(눅3:1).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헤롯 대왕은 이곳에 많이 있던 강도들을 정복하였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빌립이, 그 뒤에는 헤롯 아그립바가 이곳을 다스렸다.

- 드리뎨(Teraphim, 테러뎨) 조그만 우상이나 미신 형상.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하면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대의 드리뎨는 한 가족의 신이었으며 어떤 이들은 이것도 경배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경배하였다(삿17:1-13). 이런 우상들은 사람의 모습처럼 생기기도 하였다(삼상19:13, 16). 야콥의 아내 라헬이 훔친 형상은 드리뎨이었다(창31:19, 30; 참조 삿17:5; 18:14, 20; 호3:4).



- 드라크마(Silver piece) 예수님 당시 은화의 명칭(눅15:8-10).

- 드로길리움(Trogyllium, 트로질리움) 소아시아의 이오니아의 마을과 곳. 이곳은 사모의 반대편에 있으며 드로길리움 곳은 미칼레 산의 돌출부이다. 바울은 이곳을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행20:15).

- 드로비모(Trophimus, 트로피머스, 영양분이 있는) 바울의 제자. 그는 에베소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으며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왔다가 예루살렘에까지 함께 갔다(행20:4).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유

대인들은 그를 붙잡고 “이자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바울은 드로비모가 아파서 밀레도에 두고 떠났다고 기록하는데(딤후4:20) 이것은 비록 바울이 사역의 초중반부에 사도의 표적들을 많이 행하였지만(고후12:12) 사역의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주어지면서 병 고치는 선물(은사)이 그에게서 떠났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주후 95년경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되자 대언, 방언, 병 고치는 선물 등과 더불어 사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선물, 타 언어 참조.

- 드로아(Troas, 트로에즈)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있던 무시아의 해양 도시.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와 로마의 식민지로 번창하였다. 사도 바울은 주후 52년경 잠시 이곳에 있다가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갔고(행16:8-11) 주후 57년경에 두 번째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다(고후2:12-13). 그는 여기에 세 번째 와서 일주일을 보냈으며 유두고를 기적적으로 살리기도 하였다(행20:5-14; 참조 딤후4:13).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 드루배나(Tryphena, 트라이피나) 로마에 살던 여제자. 이 여인과 드루보사는 복음 사역에 힘쓴 자매인 것 같다(롬16:12).

- 드루보사(Tryphosa, 트라이포사) 드루배나 참조.

- 드루실라(Drusilla, 드루셀라)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작은 딸. 그녀는 젊은 아그립바와 버니게의 누이로서 미모와 음욕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먼저 코마게나의 왕 안티오쿠스의 아들이 유대교를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그와 약혼했으나 그가 할례를 거부하자 그녀의 오빠는 그녀를 에페소의 왕 아지주스에게 주었다. 그런데 벨릭스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자 그녀의 오빠는 그녀를 설득해서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종교를 버리고 벨릭스의 아내가 되게 했다. 한편 바울은 그들 앞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증언했다(행24:24).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나중에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 때에 죽었다.

- 드보라(Deborah, 데버리) I. 라비돋의 아내였던 여대언자. 그녀는 라마와 벨엘 사이의 종려나무 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했으며(삿4:4-5) 바락을 불러 시스라를 치게 하고 그에게 승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바락은 그녀가 함께 가지 않으면 혼자 가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에 그녀가 갔으나 이번 여정의 승리가 여인의 승리로 기록되고 그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드보라는 삿5:1-31에 기록된 승리의 노래를 지었다.

II. 리브가의 유모. 그녀는 리브가를 따라 아람에

서 가나안까지 왔으며(창24:1-67) 벨엘 근처에서 그녀가 죽을 때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념물을 만들었다(창35:8).

- 드빌(Debir, 디버르, 말뚝) 기랴세벨로 불리던 도시(삿1:11). 이곳은 문서의 도시 혹은 책의 도시를 뜻하며 그 이름으로 보아 가나안 사람들의 문서들을 보관하는 도시로 추정된다. 이곳은 유다의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으로부터 빼앗은 곳이지만 가나안 족속이 다시 이곳을 점령하자 웃니엘이 이곳을 빼앗았고 후에 이곳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수10:38-39; 15:15-17; 21:15). 한편 드빌은 갓 지파에게도 있었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도 있었다(수13:26; 15:7).

- 드합느헤스(Tehaphnehes, 티합너이즈) 다버네스 참조.

- 들릴라(Delilah, 델라일라, 긴 머리를 밀기로 하다) 삼손이 사랑한 블레셋 여인. 이 여자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를 팔아 넘겼다(삿16: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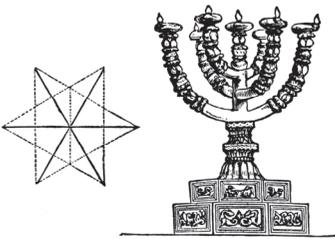
- 들보(Beam) 집의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큰 나무(마7:3-5; 눅6:41-42).

- 등불(Lamp) 고대 사람들의 등잔은 성경에서 종종 캔들(candles)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여러 형태의 우아한 모습의 등잔과 기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등잔대에 세워 놓을 수도 있었다. 등불은 대개 식물성 기름이나 밀랍 등을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밤새도록 빛을 내었다. 그러므로 어두운 집은 예전 주인이 죽었음을 나타내며(욘18:5-6; 잠13:9; 20:20; 렘25:10-11) 등불이 계속 해서 타는 것은 국가나 개인의 번영과 행통의 상징이었다(삼하21:17; 왕상11:36; 시132:17). 거리에서 가지고 다니는 등불은 심지가 대기에 노출되었고 다 른 손에 들고 다니는 기름통에서 기름을 부어 주어야 했다(마25:3-4). 한편 횃불도 고대의 도시에서는 필수품이었다(요18:3). 참고로 17세기 영어에서 ‘캔들(cadle)’은 초가 아니라 등불이다.



- 등잔대(Candlestick)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왼쪽에, 진열하는 빵의 반대쪽에 금 등잔대가 있

었다. 등잔대는 다리와 대와 여섯 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와 가지들에 총 일곱 개의 등잔이 있었으며 가지들은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되었다. 등잔들에는 순수한 기름이 있었고 저녁마다 불을 밝혔다(출25:31-40; 30:7-8; 37:17-24; 레24:1-3; 삼상3:3; 대하13:11). 솔로몬의 첫째 성전에는 지성소의 오른쪽과 왼쪽에 둘 순금 등잔대 열 개가 있었으나(왕상7:49-50; 대하4:7; 렘52:19) 바빌론 포로 이후 스투바벨의 둘째 성전에는 성막과 비슷하게 한 개의 등잔대만 있었으며 이것은 에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로마로 옮겨졌다. 스가라와 요한이 본 등잔대의 환상을 참조하기 바란다(숙4:2-12; 계1:12, 20). 기존 성경의 촛대는 candle을 초로 생각한 오역이다.



● 디글라(Diklah, 디글라, 대추야자) 욱단의 후손 지파(창10:27).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거주했다.

● 디글랏빌레셀(Tiglath-Pileser, 티글랏필리이저) 유다 왕 아하스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치기 위해 도움을 받으려고 초청한 아시리아의 왕(왕하16:7-10). 그는 요청에 따라 와서는 오히려 아하스로부터 많은 조공을 요구하여 그를 괴롭게 하였고(대하28:20-21) 또한 이스라엘 왕국에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왕국의 여러 곳에 이주시켰으며(대상5:26; 왕하15:29) 이로써 이사가 대인자의 대인을 성취하였다(사7:17; 8:4). 그는 니느웨에서 19년 동안 통치하였으며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뒤를 이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달갓빌네살이라고도 불린다(대하28:20).

● 디나(Dinah, 다이너, 공의)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딸(창30:21). 성경에서는 그녀만이 야곱의 유일한 딸로 기록되어 있다. 자기의 가족이 살렘 근처에서 머무는 동안 그녀는 부주의하게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 사귀다가 그 땅의 젊은 통치자 세겜의 유혹에 빠져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그녀를 구출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큰 슬픔이 되었다(창34:1-31; 49:5-7). 디나는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요셉이 있던 이집트로 내려간 듯하다(창46:15).

● 디달(Tidal, 타이달) 그는 여러 부족들과 함께 그들라오멜과 연합하여 싯딤 골짜기에서 싸웠고 후에 아브람에게 패배를 당하였다(창14:1-6).

● 디도(Titus, 타이투스) 그리스 출신의 크리스천 사역자(갈2:3). 그는 바울의 선포로 회심하여 그의 동역자가 되었고(딤후1:4; 고후8:23) 안디옥에서 에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였으며(행15:2; 갈2:1) 후에 고린도에 가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완수하였다(고후8:6; 12:18). 그는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합류하였으며(고후2:12-13; 7:6) 후에 유대의 가난한 크리스천들을 구제하는 일과 관련해서 고린도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였다(고후8:6, 16-17). 그로부터 8-9년 뒤에 그는 크레타에서 그곳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하였으며(딤후1:5) 에베소에 있던 바울로부터 디도서를 받고 니코폴리스로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딤후3:12). 그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옥에 갇히기 전에 니코폴리스 부근의 달디아로 갔다(딤후4:10). 그는 디모데처럼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디도서는 디모데전후서처럼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다.

● 디라스(Tiras, 타이러쓰) 야벳의 아들. 그는 고대 트라키아 사람들의 선조로 알려져 있다(창10:2).

● 디르사(Tirzah, 티르자, 그녀는 행복하다) 가나안 족속들의 도시(사6:4; 수12:24). 후에 이곳은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가 되었고 여로보암부터 오므리에 이르기까지 북쪽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그러나 오므리 이후에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었다(왕상15:21, 33; 16:6, 23; 왕하15:14, 16).

● 디르사다(Tirshatha, 티사다, 엄격한) 스투바벨과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서 받은 명예로운 호칭(스2:63; 느7:65).

● 디르하가(Tirhakah, 터헤이카) 에티오피아의 왕. 그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를 도와주려 하였으나(왕하19:9) 아시리아의 군대는 그가 올라오기 전에 물러갔다(사37:9). 피라오 참조.

● 디모데(Timothy, 티모티, 하나님을 공경하다) 바울의 제자. 그는 루가오니아의 더베나 루스드라 출신으로(행16:1; 14:6)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딤후1:5; 3:15). 그는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교육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 회심하였고 주의 군사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버지처럼 섬겼다(딤후1:2; 딤후3:10-11). 사도 바울이 몇 년 뒤 루스드

라에 왔을 때 그곳의 형제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에 사도는 그를 데리고 가기로 하고 유대인들로 인해 그에게 할례를 주었다(행16:3).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그를 섬기며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바울은 그를 아들로 형제로 불렀고 또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연합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롬16:21; 고전4:17; 골1:1; 딤후전1:2, 18). 그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서는 함께 옥살이도 하였다(히13:23). 후에 바울은 그를 에베소에 남겨 두어 자기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게 하였다(딤후전1:3; 3:14). 그는 바울을 확신하고 사랑하였으며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다(행16:1; 17:14-15; 18:5; 19:22; 20:4; 딤후3:10; 4:5).

● 디베라(Tiberias, 타이비리아스) 디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헤롯 안디바가 세운 갈릴리의 도시. 예전에 같은 자리에는 긴네롯이 있었다. 이곳은 게네사렛 호수의 서쪽 연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호수는 종종 디베라 호수 혹은 바다라 불린다(요6:1, 23; 21:1).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디베라는 유대인들의 학교들로 유명하였다.

● 디본(Dibon, 다이번) 갓 자손의 마을(민32:34). 이곳은 디본(사15:9), 디본갓(민33:45-46) 등으로 불렸으며 나중에는 르우벤 지파에게 소속되었다(수13:17). 이곳은 아르논 강 북쪽의 평야에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 강을 넘어 여기서 첫 번째로 진을 쳤으며 후에 이곳은 모압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다(사15:2; 렘48:22).

● 디브니(Tibni, 티나이, 지혜로운) 이스라엘 왕 엘라가 죽은 뒤 이스라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3년 동안 오므리와 다투던 사람(왕상16:18-23). 그는 싸움에서 저서 죽었고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왕권을 차지하였다.

● 디셀 사람(Tishbite, 티쉬바이트) 납달리의 디셀 출신 사람. 엘리야는 여기서 태어났다(왕상17:1).

● 디오니시우스(Dionysius, 다이오니시어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의 일원. 그는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회심하였다(행17:34). 아레오바고 참조.

● 디오드레베(Diotrephes, 다이아트르피스) 초대 교회의 영향력 있는 회원이나 사역자. 그는 시기심에서 나온 야망과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렬히 거부한 것으로 인해 사도 요한에게 혹평을 받았다(요삼9-10).

● 딤나(Timna, 팀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둘째 아내. 이 이름은 이두매아(에돔) 족속들의 기록에서 반복되어 나온다(창36:12, 22, 40; 대상1:36, 51).

● 딤나(Timnah, 팀나, 배정된 뿔) 가나안 족속들의 고대 도시(창38:12-14). 이곳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와 단의 경계에 있었고(수15:10; 19:43)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다. 삼손의 아내는 딤낫 사람이었으며(삿14:1-5; 대하28:18) 이곳은 딤

낫이라고도 불린다.

● 딤낫(Timnath, 팀낫) 딤나 참조.

● 딤낫세라(Timnath-Serah, 팀나세라) 이곳은 에브라임의 마을로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져서 그의 소유와 매장지가 되었다(수19:50; 24:30) 딤낫헤레스라고도 불렸다(삿2:9).

● 딤사(Tiphseh, 팀싸, 통로)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지역에 있던 중요한 도시. 솔로몬의 통치 때에 이곳은 그의 왕국의 북동쪽 경계였다(왕상4:24). 이곳의 나무는 유프라테스의 남쪽에서 맨 마지막 것이므로 솔로몬이 동방과 교역을 하기 위해 이것을 소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다.

● 딸(Daughter) 성경에서 딸은 여러 용례로 쓰였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은 친딸 혹은 양녀의 의미 외에 이복 누이, 조카, 혹은 여자 후손을 가리키기도 한다(창20:12; 24:48; 신23:17). 좀 더 보편적으로 이 딸은 '모압의 딸들' 혹은 '아론의 딸들'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가족의 여성 후손 혹은 어떤 사회의 여성 부분을 가리킨다(민25:1; 삼하1:20; 눅1:5). 작은 도시는 큰 도시의 딸로 불리며 그래서 두로는 시돈의 딸이라 불린다(사23:12).

성경에서 도시들은 종종 여인들로 표현되며 그래서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사37:22).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다(눅23:28). 유대 땅에서 젊은 여인들은 양을 지키고 물을 나르고 가사를 돕고 빵을 굽기도 하였다.

● 땅(Earth)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지구 전체를 가리키거나 지구의 육지 부분을 가리키므로 앞뒤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뜻으로 이 말이 사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27:45는 "온 지구에 혹은 온 땅(그 지역의 땅)에 어둠이 있었다."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문맥상 후자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온 땅'(all the earth)이라는 표현은 지구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땅의 큰 부분을 가리킬 때도 있다. 한편 윤리적인 면에서 땅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과 반대가 된다(요3:31; 고전15:47; 골3:2; 약3:15). '땅의 낮은 부분'은 대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옥 혹은 지하 세계를 가리킨다(시63:9; 사44:23; 엡4:9). 지하 세계: 지옥 선도 참조(81), 지옥 참조.

● 때(Time)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시간이라는 뜻 외에도 해를 가리키기도 한다(단4:16). 특히 예언의 한 해는 360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7:25; 12:7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을 가리킨다. 물론 이것은 계11:2-3; 12:6, 14; 13:5 등에서 1,260일이요 마흔두 달임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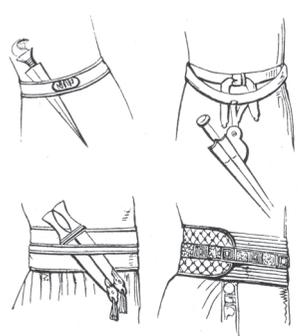
● 떨기나무(Bush) 모세는 호렙 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다(출3:2; 신33:16; 막

12:26; 행7:30, 35). 상징적으로 떨기나무는 다른 고상한 나무들과 비교하여 종종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차원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이집트의 쇠 용광로, 즉 고난의 불을 참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신4:20). 이스라엘은 불 같은 책망을 받았으나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 똥, 거름(Dung) 문자적으로 이 말은 사람과 짐승의 똥을 뜻하며(출29:14; 레4:11; 욥20:7) 상징적으로는 가치 없는 것, 수컷거리 등을 뜻한다(렘16:4; 빌3:8).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똥을 거름으로 썼고 가끔씩 똥을 말려서 연료로도 썼다. 나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낙타와 나귀의 똥을 거두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것을 잘게 썬 밀짚과 섞어서 말렸으며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집의 벽마다 이것을 말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뒤 그들은 그것을 화덕의 연료로 사용했다(겔4:12-16). 대언자 에스겔은 사람의 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겔4:12, 15). 한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던 모든 것을 똥(배설물)이라 하였다(빌3:8).

● 띠(Fillets) 이 말은 원래 ‘연결하다’를 뜻하며 띠는 현수막을 기둥에 매기 위해 고리를 부착하는데 쓰인 좁고 긴 장식 조각을 가리킨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다섯 기둥에는 금으로(출36:38), 성막 뜰의 기둥들에는 은으로 이것을 만들었다(출27:10-11; 38:10-12, 17, 19).

● 띠(Girdle) 동방 사람들은 발까지 내려오는 느슨한 옷을 입었으므로 달리거나 싸움을 할 때에 띠로 옷을 몸에 매야 했다. 그러므로 ‘띠로 허리를 묶는다’(to have the loins girded)는 표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왕하4:29; 눅12:35; 행12:8). 또한 졸라맨 띠는 참을 성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런 식의 격려의 말씀이 주어졌다(욥38:3; 렘1:17; 엡6:14; 벨전1:13). 그러므로 띠를 푸는 것은 행동을 위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사5:27). 많은 사람들과 대언자들이 가족 띠를 차거나(왕하1:8; 마3:4) 아마 띠를 찼다(렘13:1).



(ㄹ)

● 라가(Raca, 라카) 헛된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 이것은 삿11:3에서 허영심 많은 자로 번역되었으며 이 말은 심한 경멸을 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5:22에서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公會)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한편 그다음 구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비열한 자, 비참한 자를 뜻한다.

● 라구엘(Raguel, 라구엘) 민10:29; 출2:16, 18, 21에 나오는 이 인물은 십보라의 아버지로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가 실제로 이드로의 아버지였으며 한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로 불렸다고 주장한다(비교 창31:43; 왕하14:3; 16:2).

● 라기스(Lachish, 레이키쉬, 완고한) 유다의 남서부 지역의 도시(수10:3, 5, 31). 르호보암은 이곳을 강화하였으며(대하11:9) 이곳의 성은 아주 강해서 오랫동안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군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었다(왕하18:17; 19:8; 대하32:1, 9, 21; 미1:13). 아마사 왕은 바로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였다(왕하14:19). 성경의 진리가 확증되는 것을 보려면 산헤립을 참조하기 바란다.

● 라마(Ramah, 레이마, 높은 곳) 이 말과 라뭇은 거의 같은 말이며 팔레스타인의 높은 곳에 위치한 여러 도시가 라마, 라뭇, 라마다임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장소가 이런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었다(왕하8:28-29 참조). 어떤 경우에는 라마나 라뭇이 다른 이름에 붙어서 그런 도시의 높은 장소 등을 결정하기도 하며 또는 산당을 뜻하기도 한다.

I. 원래의 라마는 베냐민의 도시로서 기브아 근처에 있었으며 에브라임 산 쪽을 향하고 예루살렘 북쪽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수18:25; 삿19:13; 느11:33). 이곳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은 이곳을 강화하여 유다 땅으로부터의 통로가 자기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왕상15:17, 21-22, 사10:29; 렘31:15; 40:1; 호5:8 참조).

II. 에브라임 산에 있던 도시. 이곳은 라마소바다임 혹은 ‘습(습) 사람들의 라마라 불렀는데 사무엘은 여기서 태어나 거하고 묻혔다(삼상1:1, 19; 7:17; 8:4; 25:1; 28:3). 라마다임과 아리마대라는 이름이 비슷하다는 사실과 초기 역사가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 두 도시는 같은 도시로 추정된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룻다의 언덕들 가운데 하나에 있으며 이곳은 성경에 나오는 라마, 즉 사무엘이 거하던 도시와 잘 들어맞는다.

III. 아셀 지파의 도시(수19:29).

IV. 납달리의 도시(수19:36).

V. 길르앗의 도시(왕하8:28-29). 라못 참조.

VI. 시므온의 도시. 이곳은 남쪽의 라마로 불리기도 했다(수19:8; 삼상30:27).

● 라마다임(Ramahaim, 레이마제임) 라마 참조.

● 라멕(Lamech, 레이멕, 권능 있는) I. 가인의 후손(창4:18-24). 그는 농사와 음악과 기계 관련 고안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다처제를 시행한 인물이었다.

II. 므두셀라의 아들이며 노아의 아버지. 그는 777세를 살았고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었다(창5:25-31).

● 라못(Ramoth, 레이마쓰) 길르앗의 산에 있던 유명한 도시. 이곳은 종종 라못길르앗 혹은 라맛미스바라고 불리기도 하였다(수13:26). 이곳은 갓 지파에게 속하였고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였으며 또한 요르단 너머의 도피 도시 중 하나였다(신4:43; 수20:8; 21:38). 이곳은 이스라엘 후대 왕들의 통치 때에 유명하였으며 이곳에서 이 왕들과 시리아 왕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여기서 아합이 죽었고 요람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왕상22:1-53; 왕하8:28-29; 9:1-14; 대하22:5-6).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 라반(Laban, 레이번, 희다) 메소포타미아의 부유한 목자. 그는 브두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자이다(창24:28-31). 그의 성격은 그가 자기 동생 리브가를 부자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기쁘게 내준 데서 잘 나타나며(창24:30, 50) 또 자기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속이고 부당하게 대우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후에 야곱은 이에 대해 그에게 항변하고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 주었다. 자기 가족의 변명과 이로 인한 라반 가족의 질투로 인해 야곱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몰래 가나안으로 도망하려 하였다. 이를 알고 라반이 그를 쫓아왔으나 라반은 밤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평화의 협약을 맺은 뒤 그를 축복하고 돌아갔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한 것 같다(창24:50; 30:27; 31:53). 그러나 라헬이 그에게서 드라빔을 훔친 것으로 보아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창31:30, 34).

● 라세아(Lasea, 러씨아) 크레타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부근의 도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곳을 통과하였다(행27:8).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지도 참조(44).

● 라아마(Raamah, 레이아마) 구스의 아들(창10:7; 대상1:9). 이것은 또한 같은 이름을 가진 함의 손자의 후손들인 구스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페르시아 만 근처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겔27:22).

● 라암셋(Raamses, 래머씨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은 도시(출1:11). 이곳은 고센 땅에 있었으며 그 지역의 수도인 것으로 보인다(창47:11).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탈출을 시작하였다(출12:37; 민33:3-5). 이곳은 라메셋과 같은 곳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창47:11; 출12:37 등).

● 라오디게아(Laodicea, 레이아디씨아) 소아시아의 대규모 도시.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브루기아 파카티아나의 수도였으며 콜로새와 히에라폴리스 근방에 있었다. 이곳은 주후 65년경에 지진으로 인해 콜로새와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폐허가 되었으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다시 재건했다. 여기에도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으며 필라델피아와 마찬가지로 헬레니즘 문화가 성행하여 신전, 극장 등이 많았다. 이곳은 에게 해와 유프라테스 강을 잇는 큰 통상로를 끼고 있으므로 유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상업 도시로 발전하여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서 서쪽으로 1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안약을 정제하여 파는 곳이 있었다(계3:18).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기에 이미 이곳에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은 콜로새사에서 이곳의 교회에 대하여 언급한다(골2:1; 4:13-16). 바울은 주후 63년경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 이곳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요한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특별 메시지를 받은 일곱 교회 중 하나이다(계1:11; 3:14-22).

● 라이스(Laish, 레이쉬, 강한) 단 참조.

● 라합(Rahab, 레이합, 거만한) 라합은 두 개의 히브리어를 나타낸다.

I. 여리고에 살던 가나안 여인. 그녀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 도시가 함락될 때 자기와 자기 친척들의 목숨을 구하였다(수2:1-21; 6:17-25). 이 일을 하는 동안 그녀가 보여 준 믿음에 대해서는 히11:31; 약2:25에 잘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들 특히 유대인들은 라합이 단지 여관의 여주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녀였다. 그녀는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고 자기의 악한 행실에서 떠났으며 그 뒤 주님을 구원자로 삼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며 유다 지파(支派)의 통치자인 살몬의 아내가 되었다(룻4:21; 마1:4). 주님께서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반갑게 맞이하셨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180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에 따라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 반면에 도덕을 지킨다고 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서 멸망한다.

II. 이집트를 나타내는 말. 이것은 곧 교만과 무례함을 뜻하며(시87:4; 89:10; 사51:9) 마지막 구절에서 이집트는 사악한 짐승 곧 용으로 표현되었다.

● 라헬(Rachel, 레이첼, 어린 양암) 라반의 딸(룻4:11), 레아의 동생, 야곱의 아내. 그녀는 레아보다 더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더 많은 자식을 낳아 위로를 받았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으며 베

나민을 낳은 직후에 죽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창세기 29:35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베들레헬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그녀의 돌무덤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렘31:15의 대언은 그녀가 자신의 후손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을 위해 울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2:18에서 베들레헬에서 일어난 어린아이 대학살과 관련된 것으로 마태에 의해 인용된다. 물론 이 대학살에서 그녀의 후손들 중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해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라마라 불리는 여러 장소 중 하나가 베들레헬 근처에 있었음이 확실하다.

● 랍(Rab, 랍) 히브리어에서 랍은 우두머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호위대 우두머리인 느부사라단의 히브리어로 '랍타바깁'이었고(왕하25:8) 느부갓네살의 내시들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와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인 다니엘도 랍이었다(단1:3; 5:11). 랍막 참조. 후대에 이 말은 유대인들의 학교에서 스승이나 박사에게 붙여 준 명예의 호칭이 되었다. 랍에는 여러 등급이 있어서 랍만 붙이면 단순히 명예로운 사람을 뜻하였고 내 주인을 뜻하는 랍비의 랍은 그보다 더 큰 명예를 나타냈다. 또 다른 형태는 랍반 혹은 랍본이었으며 여기서 랍보니(랍보나이)가 나왔는데(요20:16) 이것은 당시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었다. 그래서 이 호칭은 힐렐의 율법 학교에 속했던 뛰어난 일곱 명예게만 붙여졌다. 가말리엘 참조. 그 뒤에는 랍비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이 호칭이 유지되고 있다(마23:7-8).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백성은 종종 그분을 랍비라 불렀다(막9:5; 11:21; 요1:38, 49; 4:31).

● 랍막(Rab-mag, 랍맥)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의 군대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렘39:3). 그의 이름은 마기, 즉 지혜자 중에서 으뜸가는 자를 뜻한다.

● 랍바스(Rabbath, 레버쓰) 암몬 족속의 수도. 이곳은 모세 당시에 유명한 도시로서 랍바스암몬이라 불리기도 하고 후에는 필라델피아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암복 강의 남부 근원 근처, 즉 요르단에서 3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신3:11; 수13:25). 다윗이 암몬 족속을 치려고 전쟁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의 군대 장군 요압은 여기를 포위하였는데 우리야는 다윗의 흉계로 여기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도시를 점령하게 되자 요압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와서 직접 그곳을 함락하게 하였다(삼하12:26-31). 그 뒤부터 이곳은 유다 왕들의 지배를 받았고 이스라엘 왕들은 요르단 강 너머의 지파들과 함께 역시 그곳의 주인 노릇을 하였다. 이스라엘 왕국이 끝날 때에 디글랏발레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자들을 데리고 갔으며 이때에 암몬 족속들은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대언자는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의 수도 랍바스를 향해 엄중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예

루살렘의 멸망 뒤 5년 내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렘49:1-3; 겔21:20). 그 뒤 안티오쿠스 대제가 이 도시를 취하였고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이곳을 필라델피아로 불렀다. 이곳은 현재 요르단의 앞만이다.

● 랍바스모압(Rabbath-Moab, 레버쓰모엣) 아르참조.

● 랍보니(Rabboni, 레보나이) 랍 참조.

● 랍비(Rabbi, 레바이) 랍 참조.

● 랍사게(Rab-Shakeh, 랍셔케, 대장) 잔 나르네 자들의 우두머리. 그는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라기스에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항복을 권하게 한 사신이었다. 그는 심히 불경스러운 방법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왕하18:17; 대하32:9; 사36:22).

● 랍사리스(Rab-Saris, 랍서리쓰) 랍사게와 다르단과 함께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진 아시리아의 사신(왕하18:17). 이 이름은 내시들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 레갸(Rechab, 리갸, 말 타는 자) 림몬의 아들. 바아나 참조.

● 레갸 자손(Rechabites, 레커바이츠) 성경은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에 레갸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평생 동안 포도주(즙)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으며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게 하였음을 보여 준다(렘35:6-11). 그들은 근 300년 동안 이것을 지켰다. 그러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마지막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왔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장막에 거하며 도시에서 피신하고 있었고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들을 성전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포도주(즙)를 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들이 자기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엄격한 책망이었다. 그들의 가족이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루어졌다(렘35:19).

● 레겜멜렉(Regemmelech, 리게멜렉)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사람(슌7:2). 그는 세레셀과 다른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보았다(슌8:19).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해마다 네 차례 금식을 했는데(슌8:19) 이제 자기들 땅으로 귀환해서도 여전히 금식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여쭙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자랑하는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금식보다 귀한 것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슌8:19).

● 레기움(Rhegium, 리지움) 이탈리아의 서남단 끝부분의 도시. 이곳은 고대에 상당히 유명한 곳이었으며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던 배는 여기에 닿았다(행28:13-14). 사도 바울의 로마 미송 지도 참조(44).

● 레바논(Lebanon, 레바넌, 흰 산)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는 산지. 이 이름은 이 산지의 흰 석회암과 겨울의 흰 눈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북동쪽과 남서쪽에 두 개의 주요 능선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서쪽 능선을 '리바누스'라 불렀고 동쪽 능선을 '안티리바누스'라 불렀다. 이 둘 사이에 레바논 골짜기가 있었고(수11:17) 여기에서 오론텐스 강이 흘러나와 두로의 북쪽에서 바다로 들어갔다. 서쪽의 능선은 대부분 동쪽의 능선보다 높았고 높이가 3,000미터가 넘는 봉우리들이 있다. 그러나 동쪽의 능선에는 헤르몬 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봉우리보다 높다. 헤르몬 참조. 팔레스타인의 산들 지도 참조(53).

히브리 기록자들은 자신들의 글에서 종종 이 큰 산지를 언급하거나 염두에 두었다(사10:34; 35:2; 37:24). 그들은 강풍에 휘날리는 레바논 숲의 이파리와(시72:16) 그곳의 백향목과(사60:13; 렘22:23) 그 안의 많은 가축과(사40:16) 차가운 물과(렘18:14) 향수(호14:6)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기 원하였고(신3:24-25)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얼굴이 레바논 같다고 표현하였다(아5:15).

레바논에는 거친 산악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산 자체가 하나의 세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레바논의 서쪽 경사지는 해빙의 평지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나무가 가득하며 많은 마을이 있다. 백향목 참조.

● 레센(Resen, 고뻬)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있던 고대 아시리아의 도시(창10:12).

● 레셀(Rezepth, 리제프, 타오르는 솟불) 아시리아 사람들이 정복한 도시(왕하19:12; 사37:12).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레아(Leah, 리아, 들에서 키우는 소) 라반의 큰 딸. 그녀는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되었지만 라헬보다 덜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일곱 자녀를 두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장자 르우벤과 유대인의 조상이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인 넷째 아들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창29:16-35; 30:1-21). 그녀는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창49:31).

● 레위(Levi, 리바이, 연합) 1.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으며 후에 세 아들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낳았다(창29:34; 출6:16-20). 그는 자기 누이 디나의 일로 인해 세계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그 결과 야곱은 임종 때 그의 후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창34:1-31; 49:5-7). 그러나 후에는 그들이 주님의 편이 되어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였다(출32:26-29; 신33:8-11). 레위 지파는 야곱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졌고 다른 지파와 달리 상속물이 없었다. 다만 십일조와 첫 열매와 헌물과 희생물의 일

부 등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레위 사람들 참조.

II. 사도 마태 역시 레위로 불렸다. 마태 참조.

● 레위 사람들(Levites, 리바이즈) 레위의 후손은 다 레위 사람이라 불릴 수 있으나(출6:16, 25; 수3:3) 대개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장들, 즉 레위 사람 중 아론의 후손들의 손 밑에서 낮은 일을 하던 사람들을 가리킨다(민3:6-10; 18:2-7).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즉 맏아들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성전과 성막의 책무를 맡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그런 일을 맡아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 때에 그들을 다 살려 주셨기 때문이다(출13:1-22; 민3:12-13, 39-51). 광야에서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그 안의 것을 여기저기로 옮겼으며 세 가족이 이 일을 나누어서 했다(민1:51; 4:1-49; 대상15:2, 27). 성전을 지은 뒤에는 성막의 짐을 나를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문과 거룩한 그릇과 보여 주는 빵과 다른 헌물을 맡았고 또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였다(대상9:1-44; 23:1-32; 대하29:1-36). 그들은 또한 제사장들을 위해 나무와 물을 나르고 그들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과 백성이 바치는 것을 모으며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고(대하30:16-17; 35:1-6; 느13:13) 성전의 문을 지키기도 하였다(느13:22).

그러나 성전에서의 봉사 말고도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대하30:22; 느8:7) 백성 사이에 퍼져서 지파들을 하나로 묶고 덕과 경건을 추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재판장의 역할도 하였지만 제사장들의 손 밑에서 그런 일을 하였다(대하17:8-9; 19:8-1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곡물과 열매와 가축의 십일조를 주셨으며 그들은 그것들의 십일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상속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서 받은 십일조는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 헌물로 간주되었다(민18:21-32).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십일조는 법규로 지정되지는 않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을 잊지 말라는 분부의 말씀을 받았다(신12:12,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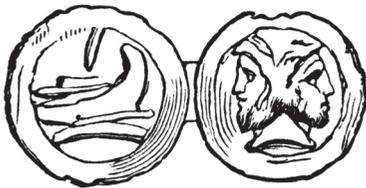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의 거처로 48개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주셨다(민35:1-34). 이 중 13개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들은 다 예루살렘 주변 지파들에 속한 도시들이다. 또한 이 중 6개는 도피 도시가 되었다(수20:1-9; 21:1-45). 레위 사람들은 실제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에 비축된 것과 매일 드리는 헌물을 먹고 살았다. 한편 다른 지역에 살던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경우 이들에게도 같은 특권이 주어졌다(신12:18-19; 18:6-8). 제사장들과 달리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할 때에는 특별한 의식이 없었다(민8:5-22; 대하29:34). 레위 사람들은 아그립마 왕의 통치 이전에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되는 옷을 입지 않았다.

레위 사람들은 게르숨(혹은 게르손), 고탓, 트라리 족속으로 나뉘었으며(민3:17-20)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계열로 구분되었다(대상23-26). 처음에 그들은 30세에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민4:3; 8:25) 50세에 그만두었으나 나중에 다윗은 그들이 20세부터 섬기게 하였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등은 한 번에 일주일씩 순서대로 의무를 수행하였다(대상23-26; 대하23:4, 8; 31:17; 스3:8-12).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반역을 일으킨 뒤에는 많은 레위 사람들이 북 왕국 이스라엘의 도시를 버리고 남 왕국 유다로 내려와 살았고(대하11:13-16; 13:9-11)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여러 레위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너머에서 유다로 다시 돌아왔다(느11:15-19; 12:24-31).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눅10:32; 요1:19; 행4:36) 서기관과 박사들은 주로 레위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레히(Lehi, 리하이, 퍽빠) 삼손이 나귀의 퍽빠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유다의 장소. 바로 이곳에서 그가 간구하자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샘이 솟아올랐다(삿15:9-19). 삼손은 이 샘을 연학고레라고 불렀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른땅을 샘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창21:19; 민20:11).

● 렘판(Remphan, 립넨) 우상. 기운과 동일함(암5:26; 비교 행7:43). 기운 참조.

● 렘돈(Mite) 동이나 구리로 만든 작은 동전(눅12:59; 21:2).



● 렘배오(Lebbeus, 리비아스) 유다 참조.

● 로그(Log) 액체 부피 단위. 이것은 약 0.3리터이다(레14:10, 12, 24).

● 로다(Rhoda, 로더, 장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던 소녀. 그녀는 베드로가 기적으로 옥에서 풀려나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왔다고 사람들에게 고하였다(행12:13).

● 로데스(Rhodes, 로즈) 길리와 니비가 각각 64킬로미터, 24킬로미터인 지중해의 섬. 로데스 시는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도시로서 이 섬의 동북부 끝에 있었다. 이 도시의 항구 입구에는 동으로 만든 높이 32미터의 거대한 아폴로 형상이 있었으나 그것은 후에 지진에 의해 무너졌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주후 58년경에 여기를 방문하였다(행21:1).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3).

● 로뎀나무(Juniper) 왕상19:4-5; 욕30:4; 시120:4에 나오는 나무. 대언자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죽인 뒤 이세벨로부터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였으나 천사의 도움으로 원기를 회복하였다. 엘리야 참조.

● 로루하마(Loruhamah, 로루하마, 사랑이 없는) 대언자 호세아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고 그녀가 낳은 딸에게 상징적으로 지어준 이름.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호1:6, 8). 루하마 참조.

● 로마(Rome) 로마 제국의 수도. 이것은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일 것이다. 이 도시는 오랫동안 이교도 세상의 여주인으로 행세해 왔으며 또 지난 1,600년 이상 로마 카톨릭교회의 중심이 되어 왔다. 로마는 원래 이탈리아 반도 중부 테베레강 연안의 라틴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 국가였다. 그러나 후에 로마는 세력을 확장하면서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세계 전체에 로마 시민권을 보급할 만큼 고대 세계 최대의 대제국으로 발전했다. 로마 제국 지도 참조(38). 다섯 가지 세상 왕국 선도 참조(76).

전성기에 로마의 성벽은 둘레가 34킬로미터나 되었고 그 안에는 일곱 개의 언덕이 있었다(계17:9). 로마는 건축물의 웅장함과 그림, 조각 면에서 우수성을 자랑하였으며 한때 이백만 명이 그 안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로마는 예술과 사치 그리고 정복 면에서 뛰어났으며 그 당시 알려진 세상에서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민족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의 정복을 통해 여러 민족의 우상들이 로마 안으로 들어와 경배를 받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극도로 미신을 숭배하였으며 그 결과 윤리와 도덕이 극도로 부패하였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내용은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롬1:21-32).

로마는 최초로 왕정으로 출발했으나 주전 509년경 공화정이 되었고 주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이른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어 원수정 시대를 열었으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에는 전제 군주정이 자리를 잡았다. 주후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뒤 로마 제국은 동서로 나뉘어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으나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계속되었다.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던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으나 이로 인해 각종 이교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결국 로마 카톨릭교회라는 '성경 밖의 교회'를 만들어 내었다. 그는 주후 328년에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로 옮겨서 로마 시에 타격을 주었고 그 이후에 로마는 서방 교회의 중심 도시로만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로마는 줄기차게 권력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결국 '콘스탄틴의 기준서' 같은 위조문서를 통해 교황들의 지지를 받고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게 되어 중세 암흑시대를 열었으며 이 같은 막강 권력은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국가들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517년에 로마 카톨릭교회는 루터를 통한 프로테스탄트 운동과 계몽주의의 타격을 받아 쓰러질 뻔하였으나 트랜트(트리엔트) 공회와 예수회 등에 힘입어 다시 살아났고 지금은 온 세상 종교의 맹주가 되어 종교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금의 로마 시는 과거의 신전, 그림, 기둥, 공중 목욕탕, 극장, 콜로세움 등의 유적으로 유명하여 좋은 관광지가 되고 있다. 이 안에는 400여 개의 교회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천주교의 성 베드로 성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안에는 바티칸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개의 도서관과 박물관, 화방, 궁궐, 학교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교회의 제사장 폭정과 영구한 미신 숭배 그리고 부도덕과 재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제국을 제외하고는 로마나 로마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단2:33, 40; 7:7, 19). 주전 400년경 구약 성경의 정경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에도 로마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을 정도도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외경인 마카비(마카베오)서와 신약 성경에는 로마가 자주 언급된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 간의 첫 번째 동맹 관계는 주전 162년에 유다 마카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주전 144년에는 그의 형제인 요나단에 의해 갱신되었다. 이후에는 로마 사람들이 헤롯 왕 가문의 통치를 통해 또 유대를 로마의 한 지방으로 부속시킴으로써 유대와 깊은 관련을 맺었다. 그러다가 주후 70년에 그들은 완전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추방하였다.

고대 로마에는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였으며 도시의 한 부분이 그들에게 따로 배정되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체제를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었다. 아마도 오순절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왔다가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곳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행2:10).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로마에서 추방당하였는데 여기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포함되었다(행18:2; 롬16:3).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로마에 있던 기독교회의 믿음이 모든 곳에 알려졌다(롬1:8; 16:26). 주후 64년경에 네로는 또다시 크리스천들에게 핍박을 가하였고 이런 박해는 콘스탄틴 대제에 이르기까지 열 번 정도 반복되었다. 바로 이 기간에 교리와 실행과 성경기록의 부패가 발생하여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였고 또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교도들의 신앙과 혼합한 로마 카톨릭교회가 로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 로암미(Loammi, 로에마이, 내 백성이 아니다) 대언자 호세아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한 뒤 그녀가 낳은 아들에게 상징적으로 지어 준 이름.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 아님을 의미한다(호1:9; 2:23).

● 로이스(Lois, 로이스, 더 좋은) 경건한 유대 여인으로 디모데의 할머니. 그녀의 거짓 없는 믿음은 자기 딸 유니게에게 전달되고 결국 디모데에게 이르렀다(딤후1:5).

● 롯(Lot, 랏, 숨겨진) 하란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조카. 그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창11:31; 12:4-6; 13:1). 아브라함은 그를 크게 사랑하였으며 자기와 롯의 재물이 불어나 서로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자 자기와 그와 함께 가나안에 거할 수 없게 됨을 보고(창13:5-7) 롯에게 어디든지 선택해서 가라고 선택권을 주었다. 이에 롯은 그 당시 아주 비옥한 땅이던 소돔의 평야를 택하고 후에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이 멸망할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 그는 소돔에서 외인이었으나(벧후2:7) 그에게 닥친 재난들, 즉 동방의 왕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일, 주변의 경건하지 못하고 사악한 이웃들이 그를 괴롭힌 일, 소돔이 불타 때 모든 재물을 잃은 일, 자기의 사위들과 아내를 잃은 일 등은 비옥한 땅이 결코 가장 좋은 땅은 아님을 보여 준다. 그는 사실 의무보다는 편안함과 이득을 먼저 생각하였다. 소돔 주민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 도시는 결국 완전히 파멸되었고 롯의 아내는 불순종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창19:1-38).

● 루가오니아(Lycaonia, 리케이오니아) 북쪽으로 갈라디아, 동쪽으로 갑바도기아, 남쪽으로 길리기아와 맞닿고 있던 소아시아의 작은 지방. 이 지방은 평지였으나 비옥하지는 않았으며 여기에는 이고니움, 디베, 루스드라 같은 도시가 있었다(행14:6).

● 루기아(Lycia, 리시아) 동쪽으로 밤빌리아, 북쪽으로 브루기아와 비시디아, 남쪽으로 지중해와 맞닿고 있던 소아시아의 한 지방. 이 지방은 산들이 많았으며 성경에는 여기 속한 무라 같은 도시가 언급되었다(행27:5).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3).

● 루기오(Lucius, 류서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초기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와 교사 중 하나였으며(행13:1) 바울의 친척인 것으로 보인다(롬16:21).

● 루디아(Lydia, 리디아)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 그녀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자주색 옷감을 사고파는 일을 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은 아니었으나 후에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 기쁨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자기 가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고 바울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거하게 하였다(행16:14, 40). 빌립보 참조.

● 루딤(Ludim, 류딤) 미스라임의 후손(창10:13).

그들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산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로써(사66:19) 에티오피아, 리비아, 두로 사람들과 함께 언급된다(렘46:9; 겔27:10).

● 루비(Ruby) 붉은색의 강한 보석. 투명하고 빛이 아름다운 것은 일급 보석으로 치는데 특히 비둘기의 피 색깔을 내는 것을 최고로 친다. 질이 좋은 것은 작아서 3캐럿 이상의 것이 산출되는 일은 드물다. 루비의 붉은색은 주로 소량 함유된 크롬에 의해 생성된다(욥28:18; 잠3:15; 8:11 참조).

● 루사니아(Lysnias, 라이세니아스) 아빌레네 참조.

● 루스(Luz, 러즈, 아몬드) 벤엘의 고대 이름(창28:19; 수16:2; 18:13; 삿1:26) 벤엘 참조.

● 루스드라(Lystra, 리스트라) 다베와 이고니움 근방에 있던 루가오니아의 도시. 디모데는 여기 출신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걸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며 거의 경배를 받을 뻔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여기서 돌에 맞았다(행14:6, 21; 16:1; 딤후3:11).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지도 참조(42).

● 루시아(Lysias, 리시아스) 바울이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했을 때 거기 있던 로마 호위대 대장. 그는 자기 의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바울을 유대인들의 악한 행동에서 구해 주었다(행21:27-40; 22:1-30; 23:1-35).

● 루시퍼(Lucifer, 류시퍼, 빛을 나르는 자)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이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 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적그리스도 참조.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는 루시퍼의 자만에 찬 외침 속에는 그의 불만이 무겁게 깔려 있다(사14:12-17). 12절에서 루시퍼는 하늘에 있고 15절에서는 지옥에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지옥으로 가는 동안 그는 무려 다섯 번이나 "내가 무엇을 하리라."("I will...")고 외치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루시퍼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 변경을 원하였고 모든 창조물이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갈망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바랐다(마4:9).

이사야서의 말씀은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확실히 보여 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말씀은 그의 오만(13-14절),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17절), 그의 파멸(15-16절)을 한 점 의혹 없이 예언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마귀의 일대기는 에스겔서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언급되어 있다(겔28:14). 그를 참조.

루시퍼의 야망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이 구절은 그의 정체를 훤히 드러내 줌으로써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하고 대신 예수님의 호칭인 새벽별(벘후1:19; 계22:16)을 넣었으며 이로써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삭제되어 없어지게 되었다. 스펠스의 풀핏 주석은 말세의 이런 현상에 대해 잘 예견하고 있다. "새별(새벽별)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칭호이지만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를 찬탈할 것이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의 실체이며 신약 성경의 신비 바빌론의 선두 주자이다. 후에 사탄은 이 칭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현재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를 부추기고 있고 결국에는 세속적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챔피언인 거짓 대언자를 선동할 영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에게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었듯이(계13:4) 불행히도 마귀의 야망은 7년 환난기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환난기 참조. 계12:9는 큰 용이 곧 옛 뱀이며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정체를 밝히 보여 주고 있다. 사탄 참조.

● 루포(Rufus, 루퍼스, 빨간 머리)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강제로 그분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막15:21). 만일 이 사람이 바울이 롬16:13에서 인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십자가를 진 사람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살펴볼 수 있다.

● 루하마(Ruhamah, 루헤이마, 불쌍히 여겨지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을 상징하는 이름(호2:1). 베드로와 바울(벘전2:10; 롬9:25-26)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대언의 말씀을 적용하였다. 비록 이스라엘이 배교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택해서 구원하실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선물과 부르심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롬11:29). 로루하마 참조.

● 룿(Lud, 러드) 셈의 아들(창10:22). 그는 소아시아 지방의 루디아 사람들의 선조로 생각된다.

● 룿(Ruth, 루쓰, 상큼하다) 재판관 기드온 시대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버리고 유대로 돌아온 모압 여인. 그녀는 후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잇는 복을 받게 되었다(마1:5).

● 룿다(Lydda, 리다) 옘바에서 동쪽으로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쪽에 있던 마을. 이곳은 히브리어로 룿 혹은 룿이라 불렸으며(대상8:12; 스2:33)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병자 에니아를 고쳤다(행9:32-34).

● 르말라(Remaliah, 레말리아야, 여호와께서 꾸며 준 사람) 이스라엘 왕 베가의 아버지(왕하15:25;

사7:4; 8:6). 성경이 베가를 '르말라의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가 비천한 사람임을 보여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 르무엘(Lemuel, 러뮤엘, 하나님께 드러진 자) 잠31:1-31의 저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솔로몬 왕의 비밀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 르바 족속(Rephaim, 레페이ئم, 그늘) 르바 족속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인 족속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며 여기에는 몇몇 유명한 가족이 있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요르단 너머 아스다롯 가르나임에 르바 족속이 있었고 모세 시대에 살던 바산 왕 옥도 르바 족속의 일부였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그들의 후손이 거하였고(수12:4; 17:15)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가드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대상20:4-6). 골리앗과 다른 거인들은 르바 족속 혹은 아나 족속의 후예이다. 성경에는 그들의 키와 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그들은 특히 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하이브리드 거인들을 출산하였다(창6:1-4). 거인, 하나님의 아들들 참조. 거인들에 대하여는 수15:8; 17:15; 18:16과 삼하5:18, 22; 대상14:9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여기서 르바임 골짜기는 거인들의 골짜기를 뜻한다).

● 르보나(Lebonah, 리보나) 실로 근처에 있던 에브라임의 도시(삿21:19). 이곳은 벤엘과 세겔 사이에 있었다.

● 르비딤(Rephidim, 레피딤) 신 광야와 시내 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 여기서 백성이 불평을 터뜨리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주셨다. 또 아말렉이 여기서 그들을 공격하다가 패배를 당하였다(출17:1-16).

● 르손(Rezon, 리잔, 통치자) 다윗 시대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한 왕조를 이룬 왕. 그는 소바의 왕이던 하담에셀의 관원이었으며 한때 솔로몬을 크게 괴롭혔다(왕상11:23-25).

● 르신(Rezin, 리진, 기병)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왕. 그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였다(왕하15:1-38, 37; 16:5-10; 사7:1). 그는 예루살렘 앞에서 돌이키면서 남쪽의 엘랏까지 정복하였으나 곧 유다 왕 아하스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온 아시리아의 디글랏발레셀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백성은 티그리스 강 너머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사8:6; 9:11).

● 르우벤(Reuben, 루벤, 보라, 아들이로다!) 야곱과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다."라고 말하였다(창29:32).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함께 누워 그녀를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권과 함께 가족의 수위권을 빼앗겼다. 그래서 왕권은 유다에게 주어졌고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다(창

35:22; 48:5; 49:3-10; 대상5:1-2).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를 아버지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도단에서 그의 목숨을 구해 내었다(창37:18-30). 또한 그는 창42:37에서도 좋은 제안을 내었다. 그의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강성하지도 않았고 수가 많지도 않았다. 고라와 함께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에 속하였다(민26:9).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의 지파는 숫자 면에서 아홉 번째로 컸다(민1:21; 26:7). 그들은 요르단 너머 아르논과 길르앗 사이에 아름다운 초장이 있는 곳을 상속 유업으로 받았다(민32:1-42; 수22:1-34).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르우벤 지파 지도 참조(19, 20). 후에 그들은 데만함으로 인해 재판관 드보라에게 책망을 받았다(삿5:15-16). 그들은 이스라엘 경계에 있었으므로 동쪽에서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았고(왕하10:33) 주전 720년경 아시리아에 의해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대상5:26).

● 르하비아(Rehabiah, 레하바이아, 여호와께서 지혜롭게 만드셨다) 모세의 손자, 엘리에셀의 유일한 아들. 그의 후손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낸다(대상23:17).

● 르호보암(Rehoboam, 리호보암, 그가 자신의 백성을 크게 만든다) 암몬 여인 나아마가 솔로몬에게 낳은 아들(왕상12:1-33; 14:21-31; 대하10-12). 그는 41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통치 때에 북쪽의 열 지파가 반역하여 예루보암 밑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였는데 이런 분열의 원인은 르호보암이 경험 많은 원로들의 권고를 버리고 독재 권력을 행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무력을 사용하여 반역한 지파들을 치려 하였으나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개심은 그 이후로 두 왕국 사이에 지속되었다. 분단 왕국 지도 참조(31). 한편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르호보암의 통치 제5년에 이집트 군대에 의해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은 그들에게 무거운 조공을 부과하였다. 시삭 참조. 성경은 르호보암의 죄와 재난이 부분적으로 이방 여인인 그의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보여 준다(대하12:13). 그의 통치 후반부는 평온하게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 르호봇(Rehoboth, 리호바쓰, 넓은 곳) I. 고대 아시리아의 도시(창10:11).

II. 그랄과 브엘세바의 남쪽에 있던 광야. 이곳은 이삭이 거기에서 우물을 판 것으로 인해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창26:22).

III. 갈기미스의 남쪽에 있던 유프라테스의 도시(창36:37; 대상1:48).

● 르홀(Rehob, 리합, 넓은 곳) I. 아셀 지파 안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도시(수19:28; 21:31). 이곳은 가나안의 북쪽 경계에 있었으며 벨르홀이라고도 불

렸다(민13:21; 사18:28). 여기에는 오랫동안 자체의 왕이 있었으나(사1:31) 이곳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삼하10:6-19). 어떤 이들은 아셀의 땅에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가 두 개 있었다고 생각한다.

II. 시리아의 소바의 왕이던 하닷에셀의 아버지(삼하8:3).

● 르훬(Rehum, 리훬, 궁홀이 많은) 페르시아 왕의 관원. 그는 성전 재건 때에 사마리아에 있었으며 왕에게 편지를 보내 잠시 동안 그 일이 중지되게 하였다. 그러나 약 2년 뒤에 그 일은 다시 시작되었다(사4:8, 9, 17, 23).

● 리(里) 기 존 성경에서 마5:41의 오 리와 십 리는 원래 1마일과 2마일이다. 마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밀리온인데 기 존 성경들은 이것을 리(里)로 번역했다. 마일은 약 1.6킬로미터이다.

● 리노(Linus, 라이너스, 아마) 로마의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의 문안 인사를 디모테에게 전달하였다(딤후4:21).

● 리밧(Riphat, 라이파스) 야벳의 손자로부터 나온 북방 민족(창10:3; 대상1:6). 러시아의 리페안이라는 산지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 리베르티 사람들(Libertines, 리버틴즈) 이 말은 자유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행6:9). 그러므로 이 말은 한때 종이였으나 자유를 얻은 사람을 뜻하거나 자유인 부모에게서 난 사람을 뜻한다. '리베르티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알렉산드리아와 구레네 같은 아프리카의 도시들과 함께 언급되므로 어떤 이들은 리베르티 사람들 역시 아프리카 출신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포로가 되어 이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석방된 뒤 때를 지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심지어 회당을 세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스테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했고 결국 그를 순교자로 만들었다. 회당 참조.

● 리브가(Rebekah, 레베카, 암소) 브두엘의 딸. 그녀는 메소포타미아의 라반의 누이로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그 뒤 20년이 지나 야곱과 예서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된 방법은 그 당시 동방의 관습을 잘 보여 준다. 그녀는 야곱을 편애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야곱에게 상속 유업을 물려주려 하였다(창27:6-17). 이런 속임수로 인해 결국 집안에 재난이 닥치고 야곱은 피신하게 되었으며 20년 뒤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서 막벨라의 굴에 묻혔다(창24:28; 49:31).

● 리블라(Riblah, 리블라) 하맛 지역에 있던 시리아의 도시. 이곳은 가나안의 동북부 끝에 있었다(민34:11). 여기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느고는 여호야하스 왕을 붙잡아 폐위시켰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와 싸우면서 여기에 군대 사령부를 두었다(왕하23:33; 25:6, 20-21; 렘39:5; 52:10).

● 리비아(Libya,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와 카르타고 사이에 있던 지중해 연안의 국가. 여기에는 구레네를 비롯한 다섯 개의 큰 도시가 있었고 그리스도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여기에 살았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리비아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곤 하였다(행2:10). 리비아는 창10:13의 르하뱌에서 나왔으며 매우 호전적인 이곳 사람들은 이집트 왕 시삭과 에티오피아의 세라가 유다를 칠 때에 그들을 도왔다(대하12:3; 14:9; 16:8; 참조 11:43).

● 리스바(Rizpah, 리즈프, 타오르는 숯불) 사울의 첩. 그가 죽은 뒤에 아브넬이 그녀를 취하였다. 후에 그녀의 두 아들은 사울의 다른 아들 다섯 명과 함께 목매달려 죽었는데 이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리스바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밤낮으로 거의 4-5개월 동안 그들의 시체를 보살피 주었고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사울 가족의 모든 뼈를 모아 명예롭게 묻어 주었다(삼하3:7-11; 21:1-14).

● 리위야단(Leviathan, 리비아야판) 욥41:1-34에 나오는 묘하고 무서운 짐승. 이 짐승은 입에서 불을 내뿜는다.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슬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욥41:19-21). 따라서 이것은 현대 학자들이 주장하듯 하마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욥기 40장에 나오는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크로노소우르스나 리오플레우로돈 같은 공룡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용이요 옛 뱀인 마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눈여겨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다."(욥41:34)라는 말씀은 참으로 그가 교만한 거짓의 아비 마귀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가 마귀임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그 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위야단을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위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사27:1). 시74:14; 104:26의 리위야단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용 참조.

● 림몬(Rimmon, 리먼, 석류) I. 에돔의 경계 근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마을(수15:21, 32; 숙14:10). 이곳은 시므온 지파에게 배정된 지역에 있었다(수19:7; 대상4:32; 느11:29).

II. 베엘에서 동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언덕 마을(사20:45-47). 림몬 반석 참조.

III. 스블론의 도시로 레위 사람들에게 배정된 곳(수19:13; 대상6:77). 이곳은 다블 산의 북서쪽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이스라엘 자손이 사막에서 진을 친 곳(민

33:19).

V. 시리아 사람들의 우상(왕하5:18). 나아만 참조.

● 림몬 반석(Rock of Rimmon) 이스라엘에게 패한 베냐민 사람 600명이 넉 달 동안 숨어 있던 동굴이 있던 곳(삿20:45-47; 21:13).

● 림나(Libnah, 림나, 흰 것) 라기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유다의 서부 도시.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에게서 빼앗아 제사장들에게 주었다(수10:29-30; 15:42; 21:13; 대상6:57). 이곳의 거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람에게 반역하였다(대하21:10). 이곳은 강력한 요새였으며 아시리아 군대는 이곳의 성벽 밑에서 죽었다(왕하19:8-9, 35).

(口)

● 마가(Mark, 마크, 큰 망치) 마가복음의 기록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행12:12, 25; 13:5, 13에 나오는 요한 마가, 즉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생각한다(골4:10).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버가, 밤빌리아에 이르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들과 함께하였으나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행13:13; 15:37-39). 그럼에도 그는 키프로스에서 바나바와 함께 신실하게 사역을 하였고 바울은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그를 맞이하라고 말했다(골4:10-11; 딤후4:11; 몬24). 그는 뒤에 베드로와 함께 바빌론에 갔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사도들이 그 집에 자주 들렀으므로 그는 베드로에 의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 같다(벰전5:13; 비고 딤후1:2; 딤후1:2).

● 마곡(Magog, 메이가그, 곡의 처소) 야벳의 둘째 아들(창10:2; 대상1:5). 곡 참조.

● 마귀(Devil) I.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사탄. 사탄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이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선을 방해하고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마귀들과 함께 사람의 혼을 유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 혹은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은 그에게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을 주고 있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12:31),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엡2:2), '이 세상의 신'(고후4:4), '용, 저 옛 뱀, 마귀'(계20:2), '저 사악한 자'(요일5:18), '올부짚는 사자'(벰전5:8),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8:44), '비알세불'(마12:24), '벨리알'(고후6:15),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계12:10) 등으로 불린다. 성경 전체를 통해 그는 적개심과 잔인함과 속임수로 가득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혼들을 멸하고 있으며

사람의 형편과 상태에 따라 여러 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자기의 일을 진척하기 위해 악한 자와 심지어 선한 자도 유혹한다. 지금 온 세상은 그의 지배하에 있으나 그는 결국 멸망당할 원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부수고 그를 결박하여 그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된 불과 유향 호수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마25:41). 루시퍼, 사탄 참조.

II. 마귀들(devils)은 마귀와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들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한 사탄 마귀에게 정관사 the 를 붙이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단수인 경우 부정관사 a를 붙이고 복수인 경우 devils라 표기한다. 신약 성경에는 마귀 들린 자들의 예가 많이 나오며 보통 '마귀 들린 자'란 표현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정신병을 앓았으며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마귀들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고 그러면 마귀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에서 나왔으며 또 나올 때에 그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해 이것이 단순히 정신병 같은 증세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보여 주는 증거가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의 사도들에게도 그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눅9:1). 따라서 마귀들에게 사로잡히는 현상을 정신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모든 병을 마귀들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마귀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고 육신의 과로와 불량 식품 섭취 등으로 인한 질병이 있다.

마귀들은 어둠의 권능들에 속해 있으며 수가 많은 뿐만 아니라 큰 군대로서 사탄을 위하는 일에 능숙한 자들이다. 그들은 특별히 말세에 자신들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바닥없는 구덩이에 있는 중앙 정부에서 나와 활동한다(계9:1-11). 심령술 참조. 마귀들이 사람이나 돼지 같은 짐승 속에 들어가 그 몸을 소유하고 조절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영임을 보여 준다. 마귀들이 인격과 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눅8:26-36). 물론 마귀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자기들이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장소에 갇힐 것을 잘 알고 있다(마8:29; 눅8:31). 귀신 참조. 끝으로 정관사가 붙은 유일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the devil'은 전하책 **마귀**로 표시되었다.

● 마귀를 내쫓는 자(Exorcists)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도는 마귀의 힘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 혹은 어떤 의식을 사용해서 마귀들이 소유한 장소나 사람에게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뜻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고(마10:1; 막16:17; 눅10:17) 또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이런 권능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마12:27; 막9:38; 눅9:49-50; 행19:13-17). 이교도들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자들은 마귀들의 본능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약초나 약 혹은 돌의 권능을 사용하며 여러 형태의 불법의 기술을 이용한 주술을 통해 이런 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속임수요 사기였으며 성경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금한다. 마귀, 점치는 것 참조.

● 마길(Machir, 메이키어, 팔렸다) I. 므낫세의 아들(창50:23). 그의 후손들은 길르앗을 정복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며(민32:39; 수17:1) 야빈과 시스라와 싸울 때도 능동적이었다(삿5:14).

II.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의 친구(삼하9:4-5).

● 마나엔(Manaen, 메나엔, 위로자) 헤롯 안디바의 형제. 그는 양자로 자랐으며 헤롯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소유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마나엔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으나 헤롯은 그리스도와 그분 앞에 달려간 침례자 요한의 피를 흘렸다(행13:1).

● 마네(Maneh, 메이네) 히브리어로 60세겔을 뜻한다(왕상10:17; 스2:69; 느7:71, 겔45:12).

● 마노(Agate) 주로 회백색 또는 담적색을 띠는 보석. 이것은 화산암의 공동 내에서 석영, 단백석, 옥수 등이 차례로 층을 이루어 침전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통 공동의 불규칙한 형태에 평행하게 줄무늬가 발달하며 일반적으로 반투명하고 불규칙한 구상 또는 타원 구상을 이룬다. 이것은 구약 시대 대체시장의 황폐의 셋째 줄에 있던 둘째 보석이다(출28:19; 39:12).

● 마노아(Manoah, 머노아, 안식) 소라 출신의 단지와 사람. 그는 삼손의 아버지였으며(삿13; 16:31) 주님의 천사는 그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였다.

● 마늘(Garlic)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잘 먹던 일을 회상하며 언급한 식물 중 하나(민11:5).

● 마대(Madai, 메이다이, 가운데 땅) 야벳의 셋째 아들. 그는 메대 사람들의 조상이었다(창10:2).

● 마라(Marah, 마라, 쓰다) 홍해 근처의 우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사흘 동안 여행한 뒤 이곳에 다다랐으나 이곳의 물이 써서 백성이 괴로워할 때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지자 기적적으로 물이 달게 되었다(출15:23-25; 룿1:20).

● 마라나타(Maranatha) 이 말은 “주께서 오신다.” 혹은 “주께서 오셨다.”는 뜻이며 고전16:22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나테마 마라나타’ 저주를 선포하였다. 아나테마 참조.

● 마레사(Mareshah, 머리샤, 정상) 유다의 마을(수15:44). 이곳은 대언자 미가의 출생지였으며 르호보암은 이곳을 강화하였다(대하11:8). 이 근처의

골짜기에서 유다 왕 아시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큰 무리와 함께한 세라를 격퇴시켰다(대하14:9-13).

● 마르다(Martha, 마르타, 숙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마리아의 누이. 비록 마리아와 다른 성품을 지녔지만 그녀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요11:5). 주님께서 그녀를 조금 책망하셨지만 이것은 결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눅10:38-42) 우리는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접대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요11:20-28; 12:1-2).

● 마르스의 언덕(Mar's hill) 아래오바고 참조.

● 마리아(Mary, 메어리)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이었다. I. 예수님의 어머니(행1:14). 마리아의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성격과 예수님의 출생 관련 이야기는 마1:18-25; 2:1-23; 눅1:1-80; 2:1-52에 기록되어 있다. 그녀를 통한 구원자 예수님의 계보, 즉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한 계보는 눅3:23-38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곧 그분께서 육체로는 고대의 대언에 따라 출생하셨음을 보여 준다.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다섯 차례 언급되었다. 이 중 세 번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관련되어 있고(마12:46-50; 눅2:49-50; 요2:4) 한 번은 그분께서 성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것과 상관이 있으며(요19:26)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문 일과 관련이 있다(행1:14). 그 이후로는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등장하지도, 언급되지도 않는다.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는 성경이 엄격히 금하는 일이다. 특히 천주교회는 마리아의 무덤 시대, 즉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가증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는 성경과 전적으로 배치된다(롬3:10, 23; 갈3:22; 요일1:8). 그녀는 자신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 즉 죄인임을 고백하였다(눅1:47). 또한 천주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평생도록 처녀로, 즉 동정녀로 지냈다는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허구이다. 마1:25; 눅2:7 등은 그녀가 낳은 예수님을 ‘만아들’이라고 하며 이로써 그녀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음을 보여 준다. 마13:55-56 등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을 보여 주며 요6:42는 마리아가 근 30년 동안 요셉의 아내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나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극도의 신성모독이다. 또한 그녀를 중재자로 여기고 그녀에게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 역시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는 우상 숭배이다(딤후2:5; 히4:16). 마리아는 구약 시대의 야엘처럼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호의를 입어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삿5:24; 눅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녀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다(눅11:27-28). 다이애나, 아스다롯, 하늘의 여왕 참조.

II. 마가복음 저자의 어머니.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집에 모이곤 하였다.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구출된 뒤 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행 12:12). 초대 교회에는 이렇게 손님들을 잘 접대하던 크리스천 가정들이 많았으며 바로 이런 곳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곤 하였다.

III. 글로바의 아내. 그녀는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였다(마 27:56, 61; 눅 24:10; 요 19:25). 마지막 구절의 마리아가 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여기의 네 사람,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의 누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일찍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의 여행 중에 함께하였으며 그분께 시중을 들고 그분을 따라 갈보리까지 와서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어머니와 함께하였다. 그녀는 또한 그분이 장사될 때에도 있었고 그분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그분의 부활의 날에 일찍 그분이 계신 돌무덤에 왔다. 글로바 참조.

IV. 주님께서 다시 살려 주신 나사로의 누이. 그녀는 좀 더 능동적이고 감정적인 그녀의 언니 마르다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나온다. 그녀는 자신의 주님의 발 옆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였다(눅 10:39-42). 나사로가 부활한 뒤 베다니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그녀와 그녀의 누이 마르다는 현저히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나타난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기꺼이 드리려 하였고 마리아는 자기 주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요 11:1-57; 12:1-8). 이 사건은 눅 7:37-50의 기사와 구분해야 한다.

V.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섬긴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명예를 차지한 인물이었다(마 28:1-10; 막 15:47; 16:1-10; 눅 24:1-12; 요 20:1-2, 11-18). 예수님께서 그녀의 몸속에 들어 있는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으므로 그녀는 특별히 신실하게 예수님께 헌신하였다(눅 8:2-3). 그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일찍 그분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었드린 첫째 사람이 되었다. 이 여인이 방탕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는 없다.

VI. 바울의 서신서에서 언급된 로마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롬 16:6).

● 마므레(Mamre), 매프리, 목초지) I. 에스콜과 아넬의 형제, 아모리 사람들의 통치자.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과 연합하여 뜻을 구출하였다(창 14:1-24).

II. 위의 마므레는 또한 자기가 거하던 마을, 즉 후에 헤브론이 된 마을을 마므레라 불렀는데 이곳 주변에는 마므레의 평야가 있었다. 여기서 아브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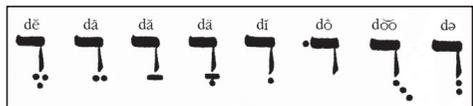
과 그의 후손들은 장막을 쳤으며(창 13:18; 18:1) 동쪽으로 마므레 근처에 막벨라 굴이 있었다(창 23:17-19; 49:30). 한편 아브라함은 그곳 근처의 높은 곳에서 소돔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창 19:27-28).

● 마법사(Sorcerer) 이 말은 마술사, 점치는 자, 박수 등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은 점을 치고 어떤 예식을 통해 죽은 사람을 불러와 산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예언하기도 하며 특정한 채소나 축사 등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다(행 13:6, 8).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 8:9, 11에 나오는 시몬처럼 자기들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 마비(Palsy) 마비 병은 몸의 한쪽에 오기도 하고 전체에 오기도 한다. 이 병에 걸리면 움직이거나 느끼지 못하며 이것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단지 말씀으로 이 병을 고치셨다(마 4:24; 12:10; 막 2:3-12). 막 3:1에 나오는 오그라는 손은 마비로 인한 증세일 것이다.

● 마소라(Masora) 이것은 주전 400년경부터 사용된 말로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다'라는 뜻의 '마사르'(Masar)에서 파생된 말이며 현재는 '전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 이 말은 명사로 쓰일 때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 즉 '전통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을 보존해 온 사자들의 가리키기도 한다. 마소라들의 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ATER를 보면 그 안에 a와 e라는 모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단어였다면 모음이 없는 WTR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마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전혀 다른 뜻을 갖는 WAITER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 주고 단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소라들은 모음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 자음 밑에 있는 t는 '아'(ah)라는 발음을 갖고, 점이 세 개 있으면 '에'(eh), 점이 두 개 있으면 '아이'(ay),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에에'(ee) 등으로 발음된다. 이 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마트레스렉션'이라 불리며 이런 기호들을 통해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단어를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WATER와 WAITER 등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마소라들은 구약 성경 각 부분에 대해 이런 작업을 마치고 전체 구절, 단어, 글자의 수를 계산해 적었으며 어떤 구절, 어떤 단어, 어떤 글자가 본문의

중심에 위치하는가를 표시해 놓아서 나중에 수정된 것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는 모음 부호를 달아 준 마소라들의 수고로 인해 특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마소라들은 주후 500-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으며 주후 600-700년경에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그들이 만든 본문은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 불리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자들은 이 히브리 전통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 마술(Magic) 성경은 마술사, 마법사, 마녀, 강신술사, 마귀를 내쫓는 자, 점성술사, 꿈을 꾸고 해석하는 자, 부리는 영을 지닌 자 등이 미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금한다. 또한 죽음의 고통 등에 대해 마술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레19:31; 20:6). 심령술 참조.

● 마술사(Witch and Wizard) 사무엘기상 28장에 나오는 엔들의 마녀는 부리는 영(familiar spirit), 즉 자기를 돕는 영을 이용해서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내어 그들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마법사나 마녀의 주된 일은 죽은 영들과 접촉하는 것이며 이는 현대의 심령술 혹은 강신술의 영매가 하는 일과 거의 같다 할 수 있다. 성경은 이 같은 마술과 마법 혹은 심령술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며 동일하게 정죄한다. 고대의 마녀나 마술사들은 점을 치고 운세를 보았으며 사람의 운명을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영계와의 접촉을 숨기기 위해 약이나 향 혹은 화학 약품, 주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공포를 주었다. 그들의 불법은 신 18:10-11에 기록된 금지 조항들과 관련이 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때를 관찰하여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목록을 보면 고대 동방에 이런 종류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명상, 최면, 요가, 만트라(같은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 등의 뉴에이지 기법들을 모두 불법으로 여기며 마귀에게서 나온 것으로 정죄한다. 실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귀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므로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수 없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앓을수록 이와 같은 마귀 숭배는 늘어나며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더 마술사와 마녀를 많이 찾고 있다. 엔들, 심령술 참조.

● 마스길(Maschil, 마스킬) 이것은 13개 시편의

타이틀에 나오는 단어이며 악기를 가리키거나 혹은 교훈을 주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아가(Maacah, 메아카, 우둔한) I. 시리아의 도시와 지역(대상19:6). 이곳은 헤르몬 산의 기슭과 그술에 가까웠다. 요르단 강 너머의 므낫체의 상숙 지역은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나(신3:13-14) 다윗과 솔로몬과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를 빼고는 이곳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수12:4-6; 13:13). 마아가의 왕은 다른 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연합하여 다윗과 싸웠고 패하여서 조공을 바쳤다(삼하10:6-8, 19).

II. 다윗의 아내. 그녀는 암살됨의 어머니였으며 시리아에 있던 그술의 왕 달매의 딸이었다(삼하3:3).

III. 크호보암의 아내. 그녀는 아비아와 아사의 어머니였으며 아비살롬 혹은 암살됨의 딸이라고 불렸다(왕상15:2; 대하11:20-22). 한편 대하13:2에서 그녀는 미가야라고 불리며 우리엘의 딸이라고 되어 있다. 그녀는 왕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으므로 그녀의 손자(혹은 아들)인 아사 왕에 의해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대하15:16). 이외에도 여섯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성경에 나온다(창22:4; 왕상2:39; 대상2:48; 7:16; 11:43; 27:16).

● 마온(Maon, 메이안, 거주지) 유다의 언덕이 많은 지역 끝에 있던 마을(수15:55). 이곳은 나발이 살던 곳에서 가까웠으며 다윗은 이 근처에서 사울을 피해 몸을 숨겼다(삼상23:24-25; 25:2).

● 마음(Heart) 마음은 자연 상태에서 사람의 내부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문자적 의미에서 heart는 사람의 중심부에 있는 심장을 뜻한다. 성경에서 마음은 첫째로 모든 삶의 능력이 나오는 저장고이며(사40:8, 10, 12) 가장 낮은 수준에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다(삿19:5-9; 왕상21:7; 행14:17). 둘째로 마음은 사람의 이성적/영적 본성의 중심이다. 따라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서 작정한다."고 말하며 강하게 결정하면 "마음이 확고하다."고 말한다(고전7:37). 또한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다(롬6:17). 마음은 사랑(딤후1:5)과 미움(레19:17)이 있는 곳이며 또 사상과 개념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알고(신29:4; 잠14:10) 이해하며(사44:18; 행16:14) 깊이 생각한다(눅2:19). 마음은 또한 감정이 있는 곳으로 기쁨(사65:14), 고통(잠25:20; 요16:6), 나쁜 의도(잠23:17; 약3:14), 갈망/근심으로 인한 불만족(잠12:25), 각종 두려움(신28:28; 렘5:24) 등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은 또한 도덕적 삶의 중심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사73:26), 교만(겔28:2, 5-6), 완악하게 되는 것(사6:10; 63:17; 렘16:12; 고후3:15) 등은 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 들어 있다. 마음은 말과 생각과 행동의 선과 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마

12:34; 막7:21). 마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자연 법규와 계시가 새겨져 있다(롬2:15). 양심 또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며(히10:22; 요일3:19-21)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거하신다(엡3:17). 다시 태어나기 전의 자연인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저되고 심히 사악하다(렘17:9). 생명의 산물들 혹은 인생의 문제가 다 마음에서 나오므로 성도는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켜야 한다(잠4:23).

- 마일(Mile) 약 1.6킬로미터. 리 참조.

- 마자롯(Mazzaroth, 매저라쓰) 12궁도의 별자리, 하늘에서 큰 순환 회로를 갖는 별자리(욥38:32).

- 마카비(Maccabeus or Maccabee) 유다 마카비는 북쪽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유대인 유격대 지도자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종교를 강요하자 이에 반항하여 산으로 올라갔던 제사장 마타티아스의 아들인 유다는 아버지가 죽은 뒤 반란군을 이끌면서 전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순식간에 셀레우코스의 4개 군단을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으며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보존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빛의 축제인 하누카(12월경)가 되면 그때의 일을 기린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 봉헌 참조.

그는 주전 164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뒤에도 유다 민족이 종교와 정치에서 자유롭기를 원했기에 계속 전쟁을 했다. 2년 뒤 그가 살해되자 그의 동생 요나단이 셀레우코스 군대와와의 타협을 거부하면서 그들 내부의 불화를 이용해 유대를 외부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려고 노력했지만 주전 143-142년 경 적의 함정에 빠져 죽임을 당했다. 그 뒤 마카비 형제 중 막내인 시몬이 그를 이어 반란을 이끌었고 주전 142년 마침내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독립을 성취하였다. 이후 유대의 왕과 대제사장은 마카비가(家) 세습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참조.

- 마케도니아(Macedonia, 매페도니아) 그리스 북쪽의 큰 나라로 올림포스라는 유명한 산이 여기 있었는데 이곳은 이교도들의 신화에서 신들이 거하는 처소로 유명한 곳이다. 이 지역은 기딤의 후손들이 차지한 것으로 보이지만(창10:4) 이곳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필립 왕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영화의 절정에 이르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연합하고 아시아의 서부와 남부를 정복하였는데 그의 세력은 이미 단8:3-8에 한 개의 뿔을 가진 숫염소로 표현되었다. 흉미롭게도 고대의 마케도니아 동전은 염소가 그 나라의 상징이었음을 보여 준다.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마케도니아는 세력을 잃고 마침내 주전 168년에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다. 그 뒤에 로마는 주전 142년에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두 개의 큰 지방,

즉 북부 마케도니아와 남부 아가야로 분리하였다(롬 15:26; 고후9:2). 그리스 참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케도니아는 후자의 마케도니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여기 속한 도시로는 암비볼리, 아폴로니아,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이 있다. 이 지역은 아주 빨리 주후 55년경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은 꿈에 환상을 통해 여기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다(행 16:9; 20:1).

- 마태(Matthew, 매튜, 여호와의 선물) 사도요 복음 전도자. 그는 갈릴리에서 알패오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마9:9; 막2:14; 눅6:15). 다른 사람들은 그를 레위, 즉 그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렀으나(막2:14; 눅5:27) 그는 항상 자신을 마태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아마도 세금을 거두는 직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로써 그는 세리를 주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듯하다. 그는 평상시에 가버나움에 거하였으며 그의 사무실은 디베라 바다 근처 큰길에 있었고 그는 여기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마 9:9; 막2:14). 아마도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적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마하나임(Mahanaim, 메이허네임, 두 개의 군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갈 때 친사들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여기서 만났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창32:1-2). 이곳은 압복의 북쪽에, 브누엘 근처에 있었으며 후에는 갓 지파에게 속하여 레위 사람들의 도시가 되었다(수21:38). 이곳은 견고한 지역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의 짧은 통치 기간에 이곳에 거하였으며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곳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이다(삼하2:8; 17:24, 27).

- 마할랏(Mahalath, 메이헬랏, 춤) 시53:1; 88:1에 나오는 이 말은 이 시편들을 부를 때 사용한 악기나 음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마헬살랄하쉬바스(Maher-Shalal-Hash-Baz, 메이허살랄하쉬바, 급하다) 이사야 대언자가 자기 아들 중 하나에게 붙여 준 이름. 이것은 아시리아 군대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신속하게 이길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이름이었다(사8:1-3).

- 막게다(Makkedah, 매키다, 목자들의 장소) 가나안 족속들의 으뜸 도시 중 하나. 이곳 근처에서 다섯 왕이 연합하여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다가 패하고 자기들이 숨으려 들어간 굴에 갇혔다가 후에 처형되었다. 이곳은 립나와 아세가와 라기스 근처에, 예루살렘 남서부에 있었으며 유다 지파에게 속하였다(수10:10-28; 12:16; 15:41).

- 막달라(Magdala, 맥달라, 땅대) 이곳은 고대에 납달리에게 속하였고 막다렐이라 불렸다(수19:38). 이곳은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었으며 가버나움이 있던 평야의 남단에 있었다(마15:39; 막8:10). 달마누다 참조.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에서 출생하거나 거

하였으며 에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이곳은 유대인 학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 막대(Staves) 이집트 탈출 뒤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레위 사람들은 향 제단,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 희생물을 드리는 제단, 언약궤(출35:12-16)를 메고 다녔다. 제단의 경우 네 개의 고리가 달려서 그들은 거기에 시뮴나무로 만든 운반 막대를 끼워 메고 다녔다(출27:6). 제단 참조.

- 막대기(Rod) Rod라는 말은 나무의 가지(창30:37; 사11:1; 겔37:15-22), 걷는 사람의 지팡이(겔29:6), 점치는 사람의 막대기(호4:12), 축랑하는 사람의 막대기(시74:2), 목자의 막대기(레27:32; 슥11:10-14), 사람을 바르게 잡아 주는 도구(잠23:13; 29:15), 혹은 왕의 홀(에8:4; 사14:5) 등을 뜻하고 또 권력의 상징과(시2:9) 지지와 안내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시23:4).

- 막론(莫論) 이것저것 가리고 따져 말하지 않음.
- 막벨라(Macpelah, 맥펠라, 두 개의 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위해 구입한 밭과 굴. 사라가 처음 여기에 묻혔으며(창23:1-20)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 등이 묻혔다(창49:30; 50:13). 헤브론 참조.

- 만군(Sabaoth, 궤베요스) 군대들. '여호와 사바오쓰'(Jehovah Sabaoth)는 '군대들의 주(The LORD of hosts)'이며 기존 성경에서는 이를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였다. 이 말의 '군대들'에는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과 일월성신 군대, 즉 천체들과 땅의 군대들과 심지어 매뚜기, 까마귀, 매추라기, 자벌레 같은 창조물 군대도 모두 포함한다(창2:1).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군대를 치리하며 조절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신약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삼하6:2; 시24:10; 롬9:29; 약5:4). 군대 참조.

- 만기(Expire) 정해 놓은 기한이 다 참.
- 만나(Manna, 매나) 이집트 탈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양식. 이것은 둥글고 작은 고수풀 씨 같았고 서리 같은 형태의 알곡이었으며(출16:1-36; 민11:1-9)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내렸다. 만나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빵 대신 만나를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다(출16:35; 신29:6; 수5:12). 처음에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에게 "그것이 무엇이나?"라고 물었고 이것이 곧 만나라는 이름이 되었다. 만나는 나무나 초목 위에서가 아니라 광야의 지표면에서 발견되었다. 만나는 갈아서 빵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말랐고 이른달이 되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었다. 또한 수백만 명이 먹을 정도의 양이 매일 있어야 했으므로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았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으므로 그 전날 두 배의 만나가 내렸으며 안식일에도 상하

지 않았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나 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증하시고 그날을 거룩히 여기게 하셨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일부를 금항아리에 넣어 언약궤 안에 두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게 하셨다(히9:4).

시78:24-25에서 만나는 천사들의 빵, 하늘의 양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매우 특별하고 뛰어난 음식임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양만큼만 거두었으며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고 저장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후8:13-15에서 지적하듯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땅에 주신 선물을 자기만을 위해 저축해서는 안 되며 필요가 있는 형제와 나누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이 선물은 또한 반역하고 죽음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요6:31-58; 계2:17). 만나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의 백성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 맏아들(Firstborn son) 마1:25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성경과 달리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았다고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뒤에 평생 동정녀(the Virgin)로 지내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a virgin)로 자기의 맏아들 예수님을 낳은 뒤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러 명의 아들 딸을 두었다(마13:55-56 등 참조). 처음 난 것 참조.

- 말(Horses) 성경의 땅에서 말은 소나 나귀보다 노동력 제공 측면에서 덜 사용되었다. 말은 주로 통치자와 무사들이 병거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사용했다(출14:9, 23; 에6:8; 전10:7). 전투마에 대한 묘사는 고대의 책 읍기에서 발견된다(욥39:19-25). 말은 이집트 땅에서 흔한 짐승이었으나(창47:17; 50:9; 아1:9)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가져오려고 거기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신17:16) 또 많은 수의 말을 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수11:6; 삼하8:4). 이러한 명령의 목적은 그들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야심에 차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사31:1-3). 그러나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많은 말을 들여왔다(대하1:14-17; 9:25). 말은 종종 우상 숭배에도 이용되었고(왕하23:11) 또 하나님의 지휘하에서 천사들의 권능이나 혹은 지상 권력 등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곤 했다(왕하2:11; 6:15-17; 슥1:8-11; 6:2-8; 계6:2; 19:11, 14). 말은 강한 힘 때문에 전쟁과(승9:10; 10:3) 정복(아1:9)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전쟁터로 나가는 말은 쫓겨가 운데 빠진 사악한 자들의 성급함을 나타낸다(렐8:6). 스기라 대언자는 붉은색, 검은색, 흰색, 적갈색 말을 보여 주는데 이것들은 전쟁과 역병과 기근 등을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정복자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흰말과 화평을 제거하는 붉은 말,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 그리고 사망을 태

운 창백한 말의 환상을 보았다(계6:1-8).

● 말(Language)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뛰어난 선물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사회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복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 처음부터 말은 사람이 언어 능력을 개발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도 대화하였다. 그로부터 거의 2,000년 동안 땅에는 단 하나의 말만 있었다(창 11:1). 그러나 홍수 이후 약 1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를 흠오시기 위해 말을 혼잡하게 하셨다. 그 결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고 지금 이 땅에는 수백 개의 언어와 사투리 등이 있다. 이렇게 말은 많지만 그 근원을 살펴보면 대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결국 원래 말과 사람이 하나였음을 보여 준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바벨탑 사건의 반대가 된다(행2:1-18). 이것은 사람의 죄로 인해 불일치가 생겼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화평과 일치가 생김을 보여 준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한 원어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다.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썸의 후손들에게 속한 같은 어원을 가진 여러 말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잘 알게 되면 그것과 비슷한 다른 나라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셈족의 언어는 크게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나눌 수 있다. (1) 아람어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등에서 쓰였으며 시리아어와 갈대아어로 나뉘기도 한다. (2) 히브리어 혹은 가나안 방언(사19:18)은 팔레스타인에서 쓰였으며 페니키아와 그곳의 식민지에서도 조금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3) 아람어는 에티오피아어와 비슷하며 현대에는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다.

이런 언어들은 유럽의 말들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에티오피아어를 제외하면 이 말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며 책도 현대 책의 끝부분이 그들의 책의 시작이 된다. 또한 에티오피아어를 제외하면 모두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워나 아래에 모음 부호가 있다. 또한 이 말들에는 유럽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쉼 소리 자음이 들어 있다. 이런 말들이 하나의 공동어에서 나왔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어떤 것이 더 많이 변했는가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은 아담과 홍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말을 사용하였다. 셈과 헤벨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으며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은 말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셈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 때에 그 일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들은 원래의 셈의 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말은 순수한 형태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까지 팔레스타인

에서 사용되었다. 그 이후에 이 말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아람어(보통 '아라메어'이라고 함)가 사용되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참조.

● 말거머리(Horseleech) 물속에 사는 벌레. 이것은 피를 빨아 먹으며 그래서 탐욕과 강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잠30:15).

● 말고(Malchus, 말커스, 왕) 겓세마네에서 베드로에 의해 오른쪽 귀를 베였으나 예수님에 의해 기적으로 다시 고침을 받은 중(마26:51). 주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자신의 신성을 보여 주신 뒤에도(눅 22:51; 요18:6) 사람들이 그분을 체포한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눈이 멀었음을 확실히 보여 준다.

● 말라기(Malachi, 말라카이, 내 사자) 열두 명의 소 대언자와 구약 성경 기록자 중 맨 마지막 인물.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으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주의 사자(使者)를 뜻하는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학 1:13; 말3:1 비교). 그는 학개와 스기라의 사역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 후반에 대언하였는데 이때에는 백성과 제사장들 사이에 질서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책망하였다. 그는 먼저 제사장들을 엄하게 꾸짖고 백성들이 이방 아내를 취하며 형제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고 아내와 이혼하여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을 꾸짖었다. 그는 느헤미야가 백성의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맺은 언약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는 대언서의 후반부에서 엘리야의 영광 권능으로 오게 될 침례자 요한에 대해 대언하였고(말3:1; 4:5-6; 비교 마11:10, 14; 17:10-13; 눅 1:17) 예수님의 초림과 제림에 대해서도 대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도 대언하였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대언과 함께 끝나고 신약 성경은 그 대언이 성취되면서 시작된다.

● 말론(Mahlon, 맬런, 아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 그는 모압 여인 룓의 첫 번째 남편이었다(룓1:1-22).

● 말벌(Hornet) 날카로운 침을 가진 곤충. 주님께서는 말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많은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셨다(출23:28; 신7:20; 수24:12).

● 말소(Blot out) 지워 없앴.

● 말씀(Word) I.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의 호칭 중 하나. 이것은 그분의 행동과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과 상관이 있으며 또 말에 의해 생각이 드러나는 것과도 상관이 있다(요일1:1; 5:7; 계19:13). 구약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주의 말씀'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였다. 창조 기사에서 주 하나님의 행동은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며(창1:3 등) 그래서 창조 사역은 그분의 말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고(시33:6, 9)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의 말씀으로 대체하여 읽곤 하였다. 따라서 유대인 작가들에게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와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킴을 보여 주고자 하였는데 이는 그의 시대에 동방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이 기독교 내로 깊이 침투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요한은 말씀이 인격체로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분명히 다른 인격체임을 보여 주었다. 그분은 아들로서 모든 창조물의 창조자이고 만물의 근원이시며 사람들의 빛으로서 충만한 때가 될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셨다(요1:1-3, 14).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매우 명확하게 증명한다(요20:31).

II.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신격의 계시로 묘사하며 사용한 용어(요1:1, 14). 이 같은 호칭은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신성을 보여 주며(요1:1-2) 동시에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성육신을 밝히 드러낸다(요1:14). 예수님을 '말씀'이라 부른 데는 심오한 생각이 담겨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말'(words)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채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님 안에서 자신 및 자신의 뜻과 의도를 사람들에게 완전히 계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즉 '말씀'에 의해 완전하게 드러났으며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는데(히1:1-2) 이 아들은 곧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바로 그분만이 문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다(요1:18). 사도 요한의 이 같은 로고스관은 결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지 않았고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끝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와 계시록에서 '말씀'이신 주 예수님과 그분의 일을 심오하게 설명한다(요일1:1, 5, 7; 계19:13).

III. word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단어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4:4)고 할 때의 '모든 말씀'은 그분께서 숨을 쉬며 입을 통해 밖으로 계시해 주신 모든 단어를 뜻한다. 영감 참조.

● 맘몬(Mammon, 매먼) 재물을 뜻하는 갈대아 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마6:24). 재물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주피터나 다이애나 같은 우상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면서 보

통 죄를 지으면서 얻고 또 사용하는 세상의 재물, 즉 불의한 맘몬을 제대로 사용하여 우리의 친구이신 심판자 하나님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참된 재물을 얻으라고 분부하셨다(눅16:9-11).

● 맛디아(Matthias, 머짜이야스) 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행1:21-26). 주님의 승천 이후에 그는 다른 열한 제자와 함께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 맛만나(Madmannah, 맏매나, 거름 더미) 가자 근처의 도시로 처음에 유다 지파에게 배정되었으나 후에 시므온 지파에게 넘겨졌다(수15:31; 대상2:49).

● 맛사(Massah, 매싸, 시험하다) 트리바 참조.

● 망대(Towers) 망대는 비갈 성벽뿐만 아니라 도시 안의 높은 곳과(삿9:47-49; 시48:12; 눅13:4) 또 적군이 넘어올 수 있는 경계 지역에도 세워졌다(삿8:17; 사21:6-9; 겔33:2-6). 망대는 적군의 침입에서 거주민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었고 종종 도시의 대부분이 함락된 경우에도 망대는 함락되지 않고 백성을 보호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시18:2; 61:3; 잠18:10). 한편 양 떼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낮은 높이의 망대가 세워지기도 하였다(대하26:10; 사5:2; 미4:8; 마21:33).

● 매장(Burial) 시체를 땅에 묻는 일. 팔레스타인 지방은 더워서 시체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대개 24시간 이내에 묻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 상황이 아니면(삼상31:12) 그리스 사람들의 관습처럼 화장하지 않았으며 화장한 경우에도 뼈는 꼭 묻었다(삼상31:13). 사람들은 죽은 몸을 썩 뒤 열린 관에 올려놓고 매장지로 갔다.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시체는 땅을 낮게 파고 돌로 덮거나 돌무덤에 안장했고 매장하지 않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졌다(왕상14:11; 왕하9:36-37). 성경적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규례이다(롬6:3-5; 골2:12). 장사하는 일, 침례 참조.

● 맥추절(Feast of harvest) 수확절 참조.

● 맷돌(Mill stone) 곡식을 갈거나 가루로 만드는데 쓰는 도구. 곡식 참조. 연자방아 맷돌(마18:6; 막9:42)은 한 마리아 두 마리의 나귀가 끌게 한 대형 맷돌이다.

● 맹세(Oath) 지존자를 두고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와 보통 대화에서 쓸데없이 맹세하는 것을 다 금하셨지만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셨으며(출22:11; 레5:1) 그래서 다른 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다(렘5:7; 12:16).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판관들이 맹세를 주관하였으며 주님께에서도 잡혀가셔서 가야바에 의해 이런 식으로 맹세할 것을 요청받으셨다(마26:63). 그런데 예수님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자 가야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가 너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26:63).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맹세로 말씀하셨다.

맹세란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임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말이 거짓이면 그분께서 복수하실 것이다(히6:16).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그분께서 무죄로 인정하지 않으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신10:20) 따라서 그 방법과 맹세한 사람의 의무 등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출22:11; 신6:18; 시15:4; 24:4).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이후에 보상과 형벌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맹세할 수 없다.

한편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맹세로 확증하시며 이로써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신다(히6:13, 16-17). 마5:34-35; 약5:12 등에 나오는 맹세는 유대인들이 헛되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맹세를 가리킨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의 맹세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롬1:9; 갈1:20; 고후1:23). 사실 맹세는 대개 그것의 의미를 무시한 채 불필요하게 남발되므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성급하게 혹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맹세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나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기가 된다. 이렇게 예외인 경우에는 맹세의 효력이 없다. 고르반과 서원 참조.

맹세를 할 때 쓰는 형식 중 하나는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1:17; 삼상3:17)이며 이것은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회생 예물을 죽이듯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그 이상의 일을 하셔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삿8:19)라는 말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롬9:1) 혹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노니”(딤후2:7) 혹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빌1:8)라는 표현도 같은 식의 맹세 표현이다. 한편 맹세와 관련하여 맹세하는 자는 상대방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거나(창24:2; 47:29)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곤 하였다(창14:22-23; 신32:40; 계10:5).

● 머리(Head) 성경에서 머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고전11:3), 그리스도(엡1:22; 골2:19), 치리자(삼상15:17; 단2:38), 주요 인사(사9:14-15), 왕국의 주요 도시(사7:8) 등을 뜻한다. 사람의 머리가 덮인 것은 보호나(시140:7) 복종을 뜻한다(고전11:5, 10). 한편 대머리가 되는 것은 엄중한 심판을 뜻하고(사3:24; 15:2; 마1:16) 머리를 드는 것은 기쁨과 확신을 뜻한다(시3:3; 눅21:28). 머리를 흐르는 것은 조종이나 재난의 표시이다(사37:22; 시22:7; 렘18:16; 마27:39). 유대인들은 애곡하거나 회개할 때 혹은 고통을 당할 때 수염이나 머리를 깎았고(슌1:20; 렘48:37)

또한 정결하게 할 때에도 그렇게 하였다(레14:9; 민8:7). 다른 경우에 유대인들은 대개 머리털과 수염을 길게 길렀다. 수염 참조. 머리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머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대개 안수는 머리에 한다.

● 머리털(Hair) 나사르 사람들(민6:5, 9)이나 압살롬(삼하14:26)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적당하게 머리털을 유지했고 향유 등을 머리털에 발랐다(출30:30-33; 시23:5; 전9:8). 애곡할 때에 그들은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주 짧게 깎거나 손으로 잡아 뜯었다(렘7:29). 여인들은 머리를 촘촘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식했다(사3:18, 24). 사도들은 여인들의 머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딤후2:9; 벧전3:3). 나병 환자들은 정결하게 될 때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거룩히 구분될 때에 온몸의 털을 밀었다(레13:1-59; 14:8-9). 머리털은 종종 사람에게서 가장 값어치 없는 것(삼상14:45; 삼하14:11; 왕상1:52; 마10:30; 눅12:7), 수가 많은 것(시69:4), 정교함(삿20:16) 등을 뜻했다.



● 머큐리(Mercurius, 머큐리어스) 고대 이교도들의 신. 그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이고 특히 학식과 웅변과 교통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를 헤르메스라 하였는데 이는 신들의 뜻을 해석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듣고 또 그가 다리 저의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예물을 가져와 그를 머큐리 신으로, 바나바를 주피터 신으로 여기며 경배하려 하였다(행14:11-12).

● 먹는 것(Eating)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의식 면에서 부정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세리, 이방인같이 명성이 좋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먹지 않았다(마9:11; 요4:9; 행10:28; 갈2:12). 함께 먹는 것은 서로의 신뢰와 우정을 확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가족들 간의 친밀한 정, 즉 한 가정의 아이들이 마땅히 유지해야 할 가족 관

계를 확증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중대한 죄였다(시41:9). 한편 책을 먹는 것은 그 안의 교훈과 약속과 영적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렘15:16; 겔3:1; 계10:9). 또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분을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이고 살아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을 모두 흡수하는 것이다(요6:32-58).



고대에 히브리 사람들은 음식 앞에 앉아서 먹었으나(창43:33; 삼상9:22; 20:25; 시128:3) 후대에는 상이나 침상에 기대어 먹었다(암6:4, 예1:6; 7:1, 8). 손님들은 머리를 상에 기대고 왼손으로 몸을 가누며 주로 오른손으로 음식을 취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상에 기대어 뻗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일 같은 것을 쉽게 할 수 있으며(눅7:36-50; 요12:3; 13:5-12)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는 말씀도 이런 식의 식사 방법을 연상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요13:23, 25).

유대인들의 식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눅14:12; 요21:12). 첫째 음식은 가벼운 것으로 우유, 치즈, 빵, 과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른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아무 때나 필요한 때에 먹는다. 초기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지금의 저녁 식사 같은 큰 식사를 대개 점심에 먹었음을 알

수 있다(창43:25; 왕상20:16).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연화나 절기를 지킬 때에 이런 식사를 오후에 태양의 열기가 사라진 뒤에 했다. 유대인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고 이것은 그들의 먹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것이었으나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경건함의 잣대로 사용했다(막7:2-3; 눅11:38).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 때뿐만 아니라 매일 가족들의 식사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음식에 그분의 복이 있기를 구했다(삼상9:13; 마14:19; 15:36; 26:26; 눅9:16; 요6:11; 딤후4:3). 어떤 가족들은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그들의 음식물로는 고기, 생선, 조류 고기, 버터, 꿀, 빵, 그리고 과일 등이 있었다. 음식을 참조.

짐승의 고기로 된 음식은 대개 잘게 썰거나 스프를 만들어 버터와 채소를 넣고 큰 접시에 담아 내놓았다. 그들은 포크나 나이프, 숟갈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른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입에 넣었다(잠19:24). 모든 사람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큰 접시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떼어 먹었고 얇은 빵을 이용하기도 했으므로 여러 사람의 손이 같은 접시에 들어가곤 했다(요13:26). 한 가족의 가정은 손님에게 자기들이 먹는 음식의 두 배를 가져다주었고 또 다양한 음식을 마련했다(삼상9:22-24). 또한 가정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해 귀한 손님에게 직접 자기 손으로 주기도 했다(룻2:14; 비고 요13:26). 식사를 한 뒤에는 손에 물을 부어 손을 씻었다(왕하3:11).

● 먼지(Dust) 머리에 먼지나 재를 뿌리는 것은 애곡의 표시였고(수7:6) 먼지나 흙은 흉에 앉는 것은 고통의 표시였다(애3:29; 사47:1). 또한 먼지나 흙은 무덤을 상징하고(창3:19; 욥7:21) 많은 것을 나타냈으며(창13:16) 낮고 천한 상태를 표시했다(삼상2:8). 성경에는 먼지(흙)를 뿌린 것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방에서 흔한 습관이었다.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은 범죄자를 향해 먼지를 뿌렸는데 이것은 곧 그를 무덤에 보내야만 함을 의미했다. 다윗이 에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시므이는 그에게 흙을 뿌렸다(삼하16:13). 유대인들 또한 에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슷한 일을 했다(행22:22-24). 다른 사람을 향해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는 것은 그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이었다(마10:14; 막6:11; 행13:51). 신 28:24에 드러난 하나님의 경고, 즉 주님께서 비 대신 먼지와 티끌을 땅에 비처럼 내리신다는 말씀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 대신 마른땅에서 올라와 거친 바람을 타고 옮겨진 먼지가 하늘을 가득 채우는 것을 뜻한다. 이런 먼지 비가 내리면 그 땅에 반드시 가뭄과 기근이 생기게 된다. 바람 참조.

● 명예(Yoke)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 명예는 복종과 노예 생활의 상징이었다(왕상12:4). 쇠 명예는 심한 압제를 뜻하였다(신28:48). 모세의 율법 중 의식 법규는 유대인들조차 지기 어려운 명예였다(행15:10; 갈5:1). 명

에를 치우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영원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며(사58:6; 렘2:20) 종종 합당한 권리를 놓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렘5:5). 우리의 죄들로 인한 죄 명에는 오직 하나님만 제거하실 수 있다(애1:14).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명에는 쉽고 가볍다(마11:29-30).

● 메네(Mene, 그의 수를 세다)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은 갈대아 말로서 바빌론 왕 벨사살이 경건치 않은 연회를 배울 때에 손이 나타나 벽에 기록한 글이며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워서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하므로 그것을 나누신다."는 뜻이다(단5:1-31). 점성술사들은 이것을 읽고 해석하지 못했으며 결국 다니엘이 소환되어 이 글의 무서운 의미를 왕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벨사살과 그의 무리들처럼 교만하여 경건하지 않게 행하지만 그들의 과거 역사를 기록한 손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의 운명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다.

● 메닷(Medad, 미닷, 사랑받는) 엘닷 참조.

● 메대(Media, 미디어, 가운데 땅) 아벳의 아들인 마대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으로 추정되는 나라(창10:2).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나라를 마대라 불렀으며 이곳은 카스피 해의 서쪽과 남쪽 지역에 있었고 페르시아 지역을 포함하였으며 아시아의 왕국들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 메대는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독립 왕국 중 하나이다. 여러 세기 동안 메대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다가 주전 700년경 산헤립 시대에 반역을 일으켰고 그 뒤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서 문명을 꽃피우고 부유하게 되었다(사13:17-18; 21:2-3). 이렇게 지나다가 이곳은 고레스 밑에서 페르시아와 하나가 되어 메대페르시아 왕국을 형성하였고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이라는 말과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대기'라는 말이 성경 기록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에1:19; 10:2; 단6:8, 12). 그 뒤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관습과 종교와 문화는 하나로 합쳐졌다. 페르시아 제국 지도 참조(36). 또한 고대의 기록은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조상들이 갈고 불의 신을 섬겼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마기(Magi)라 불린 그들의 종교 제사장들은 과학을 개발하고 종교 의식을 수행하였다.

메대는 성경에서 처음에 언급될 때 아시리아의 일부로 나오며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바로 이곳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처음에는 요르단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끌려갔으며(대상5:26) 후에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이 살만에셀에 의해 끌려갔다(왕하17:6). 그 뒤 메대의 역사는 페르시아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나라는 주전 330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을 당했다. 페르시아 참조.

● 메드바(Medeba, 메더바, 조용한 물) 르우벤 지파에게 속한 요르단 동쪽의 마을(수13:9, 16). 이 근

처에서 다윗의 군대는 크게 승리하였으나(대상19:7) 시간이 지난 뒤에 그곳은 다시 그곳의 전 주인인 모압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민21:30; 사15:2).

● 메뚜기(Locust) 고대와 현대 동방 국가들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곤충. 성경에는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 열 가지나 되며 이것들은 같은 종류에 속한 여러 단계의 메뚜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은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것으로 표현하며 종종 그것이 죄지는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됨을 보여 준다(신28:38-42; 왕상8:37; 대하6:28). 이집트에서도 열 가지 재앙 중 하나로 메뚜기 떼가 날아와 온 땅을 덮어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어 치웠다(출10:4-19). 그러나 메뚜기 떼의 공포는 출2:3-10에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출1:4에 나오는 티발레, 메뚜기, 자벌레, 썩기벌레 등은 히브리어에서 메뚜기가 알에서 깨어나 성충이 되기까지의 여러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유대인들에게 메뚜기는 정결한 곤충이었으며(레11:22) 그래서 먹어도 되었다. 마3:4에는 침례자 요한의 음식 중 하나가 메뚜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계9:7-10에는 환난기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 즉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와 전갈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메뚜기 같다고 표현되어 있다.

● 메람(Merab, 미람, 들어나다) 사울 왕의 큰 딸. 그녀는 처음에 골리앗을 이긴 대가로 다윗의 아내가 될 뻔했지만 므홀라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시집가게 되었다(삼상14:49; 18:17, 19). 그녀는 그에게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주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삼하21:8-9). 아드리엘 참조.

● 메로스(Meroz, 미라즈) 갈릴리의 한 지역. 드 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울 때에 그곳 사람들이 자기들과 연합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저주하였다(삿5:23).

● 메롬(Merom, 미람, 높은 곳) '메롬의 물'은 요르단 강이 물을 제공하는 세 개의 호수 중 가장 북단에 있는 호수를 가리킨다(수11:5). 이 호수는 가로세로가 각각 7-8킬로미터 정도이다. 단 족속은 이 근처의 땅을 보고 "그 땅이 매우 좋으며 그곳은 땅에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하였다(삿18:9-10). 이 호수 근방에서 여호수아는 북방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격퇴하였다(수11:1-8).

● 메사(Mesha, 미샤, 안전) I. 욥단에게 속한 영토의 동방 경계에 있던 장소(창10:30).

II. 모압의 왕.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다가 그가 죽자 곧 반역을 일으켰다(왕하1:1; 3:4-27). 아합의 아들 요람은 유다와 에돔의 도움을 받아 그와 전쟁을 하고 그의 수도에서 그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그는 포위하는 군대를 뚫고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성벽에서 자신의 아들

을 희생물로 바치면서 자기 신들의 도움을 구하였고 이 잔인한 행위에 놀란 군대들은 자기들에게 저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수하였다.

● 메삭(Meshach, 미삭, 통치자의 그림자) 아벳스고 참조.

● 메섹(Meshech, 미섹, 뿌리다) 야벳의 여섯째 아들(창10:2; 시120:5). 그는 소아시아의 북동부 귀퉁이에 있던 두발 근처에서 살았으며 그곳 사람들은 큰 도시 두로와 함께 물건을 교환하였다(겔27:13; 32:26; 38:2).

●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메췌포테이미아, 강들 사이의 지역)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역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이람과 밧단아람 참조. 이집트 제국, 바빌론 제국 지도 참조(14, 35). 메소포타미아는 크게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타우르스 산에 이르는 전 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바빌로니아 위의 비옥한 지역을 가리킨다. 메소포타미아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의 영토를 포함하였다. 이 지역은 홍수 이전과 이후의 인류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전동산 역시 이곳에서 멀지 않았다. 아라랏은 이곳의 북쪽에 있었으며 시날 땅은 남쪽에 있었다. 여기는 족장 아브라함의 조상인 데라, 헤벨, 벨렉의 거주지였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어났으며 이삭과 야곱의 아내와 대부분의 야곱의 며느리들이 나왔다. 한편 메소포타미아는 성경에서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괴롭힌 학대자가 거한 곳으로 나타나며(삿 3:8-10) 또 다윗의 전쟁 역사에도 나오고(삼하10:16) 여기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오순절 체행을 하였다(행2:9).

● 메시아(Messiah or Messias)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구출자를 높이기 위한 말이다. 유대인들은 왕에게 기름을 붓곤 하였으며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기름을 부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무 수행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페르시아 왕국을 설립한 고레스는 사45:1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리며 겔 28:14에서는 사탄 마귀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온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메시아는 위에서 밝힌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들의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약속한 구원자, 즉 구출자를 뜻하는 호칭이다. 메시아 별 선도 참조(62).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과 다가올 메시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기능을 다 수행하는 인물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그분은 그분을 마음에 모셔 들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요 구출자가 되신다. 그리스도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된 메시아요, 야곱의 실로요(창

49:10), 욥의 구속자요(욥19:25), 언약의 사자(말3:1)라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다. 이분의 출현 시기는 이미 창49:10; 단9:20, 25; 학2:7; 말3:1에 예언되었으며 메시아의 탄생 장소(미5:2; 눅2:4), 메시아의 처녀 탄생(사7:14; 마1:18), 메시아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사61:1; 요1:32-34) 등도 예언되었고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갑자기 오실 성령이 예루살렘에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출생, 성품, 고난,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왕국 등에 관한 여러 대언의 말씀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재림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요 1:41; 4:25).

●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Two branches of in the stream of Messianic prophecy)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의 흐름에는 두 개의 계통이 있다.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것으로 그분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묘사한다. 메시아 별 선도 참조(62).

1. 메시아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고난을 겪음(사53:3; 마26:36-39)
2. 메시아가 온 30개에 팔림(슌11:12; 마26:15)
3.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함(시41:9; 마26:49-50)
4. 메시아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함(시35:11; 마26:59-60)
5.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시22:16; 눅23:33)
6. 메시아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어 죽음(사53:12; 막 15:27-28)
7.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사 53:9; 마27:57-60)

메시아 예언의 둘째 계통은 그분의 재림과 관련된 것으로 그분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묘사한다.

1.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됨(렘23:5-8)
2. 메시아는 왕국을 소유함(단2:44; 7:13-14)
3.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림(삼상7:16; 사9:6-7)
4. 메시아는 최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림(시2:6-9)
5.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함(시72:1-20; 사 2:1-4; 32:1-4, 15-20; 슌14:16-21)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고난과 재림의 영광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벧전1:10-11). 다시 말해 구약 시대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십자가와 재림의 왕관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 - 지금의 교회 시대 - 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많은 예언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예언의 말씀들을 그분의 재림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만이 성경의 핵심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성경의 모든 교리를 포함하는 원의 중심이 아니라 타원의 두 개의 초점 중 하나이다. 물론 그 타원의 또 다른 초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선도 참조(6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며 재림은 반드시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필요로 한다. 이 두 사건은 구원이라는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들이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재림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몸의 부활이 없기 때문이다. 초림과 재림 참조.

구약 시대 대인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멀리 떨어져서 날려 펼쳐진 큰 산맥의 여러 개의 산봉우리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예언의 산봉우리 선도 참조(74). 즉 대인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 처형, 성령님의 강림, 적 그리스도,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천년 왕국 등을 모두 한 봉우리로 보았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봉우리 사이에 있는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 전과 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천년 왕국의 설립 등을 모두 바르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 메추라기(Quails) 동방의 메추라기는 비둘기 정도의 크기를 가진 새로서 사해와 요르단과 아라비아 사막 주변에 매우 많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영 위에 메추라기 떼가 떨어졌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주님께서서는 바람을 사용해서 엄청난 수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다(출16:13; 민11:31; 시78:27).

● 메후님 사람들(Mehunim, 미후님) 아라비아 종족(대하26:7). 페트라에 동쪽에 거하던 그들은 아말렉 족속과 또 이스라엘의 다른 원수들과 함께 언급되었고 후에 웃시야 왕은 그들을 패주시켰다.

● 멜기세덱(Melchizedek, 멜키서덱) 의의 왕, 살렘, 즉 평화의 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는 제사장 직무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에게서 십일조를 받았다(창14:18-20). 성경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그의 계보, 출생, 죽음 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며 그는 선조나 후손 없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홀로 서서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로써 그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토록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들의 경우 그들의 기원과 삶과 죽음 등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시110:4; 히7:1-28). 멜기세덱이 누구일가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성령님, 예능, 샘 등의 의견을 내었지만 가장 안전한 의견은 그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의로운 왕이요 화평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분께 경배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친구였으며 그보다 지위가

높은 존재였다. 이런 의견이야말로 거룩한 성경기록을 그대로 반영하며(창14:1-24; 히7:1-28) 무식한 논쟁자들의 발언을 잠재울 수 있다. 살렘 참조.

● 멜리데(Melita, 멜리타) 과거에 멜리데라는 이름은 두 개의 섬에 적용되었다. 하나는 일루리온 연안의 아드리아 바다에 있던 섬이고 다른 하나는 시실리와 아프리카 사이의 지중해에 있던 섬으로 현재는 몰타라 불린다.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지도 참조(44).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로마를 향해 가다가 파선되었고 그의 일행은 멜리데, 즉 지금의 몰타 섬에 상륙하였다. 유훈루둔 참조. 그는 거기서 겨울을 나고 이탈리아로 떠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 시러큐스에 내린 뒤 레기움에 이르고 프테올리에 다다랐다. 몰타는 바위섬으로 시실리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 길이와 너비가 각각 17, 14킬로미터이다. 초기에 이 섬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았고 후에는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사람들이 차례로 그곳을 정복하였다.

● 멜살(Melzar, 멜자)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서 일하던 청지기의 이름 혹은 호칭(단1:11-16).

● 멤피스(Memphis, 멤피스, 선한 자가 거하는 곳) 고대 이집트의 주요 도시(호9:6). 눅 참조.

● 면제(Release) 빛을 면제해 주는 것(신15:1-2, 9; 31:10). 이것은 신명기에만 나오는 규정으로 7년이 되는 해에 채무자의 빚이 소멸되어 특권층이 재물을 독점할 수 없게 한 규정이다.

● 멸망(Destruction) 대개 이 말은 구원의 반대를 뜻하며 아바돈같이 멸망받는 장소를 가리킨다.

● 멸망의 아들(Son of Perdition) 멸망에 들어가기로 정해진 자. 가룟 유다와 적그리스도가 이 호칭을 받았다(요17:12; 살후2:3).

● 멸절(Destroy) 멸망하여 아주 없어지거나 멸망시키어 아주 없음.

● 명령(Commandment)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시키는 것. 기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종교나 도덕 차원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조건을 뜻하는 계명으로 번역했으나 계명은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된 명령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 명절(Feasts)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친히 일으키신 사건들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그들이 안식하면서 경배하도록 몇 가지 명절 혹은 절기를 지정하셨다. 먼저 안식일은 세상의 창조를 기념했고 유월절은 이집트 탈출을, 오순절은 시내 산에서의 율법 수여를 기념했다. 해마다 지키는 세 개의 큰 명절,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성막이나 성전을 방문해야 했다(출23:14-17; 신16:16-17). 이때에 그들의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 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출34:23-24). 이외에도 나팔절, 부림절, 성전 봉헌절, 안식년, 희년 등이 있었으며 이것들은 다 각

항목별로 설명되었으므로 각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거룩한 명절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자기 민족의 초기 역사를 늘 기억하고 유대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메시아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시기와 절투를 버리고 가족과 지파들 간에 새로운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기독교에는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들이 특별히 정한 명절이 없다.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선도 참조(58).

● 명철(Understanding) 이해력이 커져 잘 깨닫고 사리에 아주 밝은 것. 특히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구절로 많이 나온다.

● 명표(Title) 이름패(요19:19-20).

● 모르데개(Mordecai, 모더카이) 에스더의 사촌.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정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 명예롭게 되었다. 에스더 참조.

● 모리아(Moriah, 모라이야, 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놓인 작은 산(대하3:1). 예루살렘 참조.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서 이삭을 희생 예물로 드리려 했으며(창22:1-2) 다윗은 이곳에 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였다(삼하24:16-25). 모리아 산 지도 참조(54).

● 모세(Moses, 모지스, 물에서 건지다)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 그는 부지런한 대언자요, 법을 세운 사람이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공주가 지어 준 것이므로 이집트 뱀새가 풍기며 요세푸스는 이 이름이 물에서 구출되었다는 뜻을 가진다고 말한다.

모세는 주전 1571년경에 레위 지파에 속한 아르람과 요게벳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론과 미리암이 그의 형과 누이이다. 모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그의 생애는 40년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십 년은 그가 태어나서 나일 강에 버려졌다가 파라오의 딸에 의해 구조되어 그녀의 아들이 되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 그는 이집트 왕국에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 되었다(행7:22). 이것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 특히 그들의 제사장들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였다. 그다음 40년은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했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었다(행7:30). 이 기간에 그는 미디안에서 유랑하는 목자로 살면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풍야 생활에 능숙하게 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이집트의 온갖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유목민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여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 40년을 사용하셔서 그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셋째 40년은

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끌고 나와 느보 산에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이때에 가장 높으신 분의 대리자로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였다.

모세의 삶과 그가 제정한 것들은 크리스천 역사와 작가에게 아주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그가 제정한 것들은 자유와 순수함과 지혜와 공의와 인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로 향한 고귀한 사랑과 순종을 잘 보여 준다. 그가 제정한 것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성품의 틀이 되었고 그들을 변화시켜 유랑하는 목자들에서 한 군데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 이 유대인들과 성경을 통하여 그가 제정한 것들은 온 세상에 퍼졌으며 문자가 없는 곳에서는 그 정신이 채택되었다. 미국의 청교도들 역시 이런 정신하에서 미국을 건설하고 히브리 사람 모세의 정신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으며 한마디로 그들의 율법 체계와 유대교 자체의 근간은 모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높은 위치에 두었는지 잘 보여 준다(시103:7; 105:26; 106:16; 사63:12; 렘15:1; 단9:11; 마8:4; 요5:45; 9:28; 행7:20, 37; 롬10:5, 19; 히3:1-19; 11:23).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그가 이루고 행한 모든 일에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또한 그의 온유하고 온화한 성품을 배워야 한다. 자연인으로서 그는 보통 사람처럼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민12:3). 실로 그는 경건함과 겸손함과 참는 것과 행정의 지혜와 열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열심 면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으며 특히 애국심 면에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그의 성품과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는 동안 그들의 구출자, 치리자, 안내자, 중재자, 구원자, 교사, 양육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 점에서 주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가 된다 할 수 있다. 실로 모세가 제정한 모든 종교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모세는 죽은 지 1,500년이 지나서 변화산에 나타나 자기가 이미 오리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대언자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였다(신18:15-19). 그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가장 영화로운 주재, 즉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야 할 그분의 죽을 곧 별세에 대하여 말하였다(눅9:31).

모세는 모세 오경의 기록자였으며 아마도 백성의 공적 기록을 보관한 그의 형 아론이 그가 기록하는 것을 도왔을 것이다(출17:14; 24:4, 7; 34:27; 민

33:1-2; 신31:24). 또한 후에 영감을 받은 기록자가 신34:1-12 같은 부분을 더하였을 것이다. 한편 그는 시90:1-17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죽을 때에 이것을 기록하였다면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모압(Moab, 모엣)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롯의 딸아들(창19:37).

● 모압 족속(Moabites, 모아바이츠) 롯의 아들인 모압의 후손들(창19:30-38). 모압 땅은 사해의 동쪽과 남동쪽에, 주로 아르논 강의 남부에 위치하였다. 모압 지도 참조(27). 그러나 한때 그곳의 경계는 북쪽의 압복까지 확장되기도 하였고 오랫동안 요르단 강 너머 여리고 앞부분은 모압 땅이라고 불렸다(민22:1; 신1:5; 29:1; 수13:32). 넓은 의미에서 이곳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전체 땅을 포함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다(민22:1; 26:63; 수13:32). 그 당시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소유였다(민21:22).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느보 산에 이르러 모압 땅에서 죽었다(신34:5-6).

처음에 모압 사람들은 엠 족속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을 몰아내었으나(신2:11) 아모리 족속은 아르논 북쪽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었다(민21:13, 26; 사11:13-18). 그 뒤 이 북부 지역은 모세에 의해 정복되어 르우벤 지파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올라올 때 모압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다(민22:1-41; 23:1-30; 24:1-25; 신2:8-9). 모압 왕 발락은 대언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다 실패했지만(민22-24) 결국 그들을 음행의 자리로 이끌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민25:1-5).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들과 그들의 씨는 1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려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다(신23:3-6). 그들은 과도하게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란하고 역겨운 방법으로 그모스와 바알브올에게 경배하였다(민25:1-18; 왕하3:27). 몰래 참조. 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은 모압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모압 사람들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섬겼으며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였다(왕상11:1, 7).

제관관들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 하는 베들레헴 사람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다.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로 돌아와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친족 구조자인 모압스를 만나 결국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롯의 시대와 같이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던 때도 있었으나 에글론과 사울과 다윗과 요람과 여로보암의 시대처럼 서로 적개심을 품은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삿3:12-30; 삼상14:47; 삼하8:2, 12; 왕

하3; 13:20; 14:25). 그들은 느부갓네살을 도와 유대인들을 대적하였고(왕하24:2; 렘25:6-11) 그 뒤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아르논 강의 북쪽 지역을 되찾은 듯하다(사15:1-9; 16:1-14). 대언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유전적으로 적개심을 품은 그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민24:17; 시60:12; 83:6; 렘 25:9-21; 48:1-47; 암2:1-3).

● 모퉁잇돌(Corner stone) 건물의 모퉁이에 위치한 굉장히 큰 돌(렘51:26). 이것은 기초와는 다르며 건물의 두 벽이 만나서 힘을 받으며 붙게 하는 역할을 했다.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모퉁잇돌로 비유된다. 먼저는 이 돌이 기초에 있으면서 건물을 지치고 힘을 받게 하듯이 그리스도나 그분의 가르침도 모퉁잇돌이라 불리는데(엡2:20) 그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의 체계요 사람의 혼을 구원하며 살아 있는 권능을 가진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퉁잇돌이 건물에서 중요하고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는 위치, 즉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특별한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퉁잇돌로 비교된다(벧전2:6).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온 모퉁잇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므로 그분은 이런 의미에서 모퉁잇돌로 비교된다(마21:42).

● 목(Neck) “목을 굳게 하다.”(잠29:1) 혹은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은 고집 센 죄인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바른 것을 외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대의 통치자들은 다른 왕을 정복할 때 그를 붙잡은 뒤 그의 목을 발로 밟거나 눌러서 자기가 그를 점령했음을 표시하였다(수10:24; 시18:40).

● 목사(Pastor) 목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양 떼를 먹이고 보호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감독과 장로와 같은 사람이다(엡4:11; 벧전5:2). 목사, 감독, 장로 참조. 신약 성경에서 목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포이텐’이며 이것은 18군대에서 모두 목자로 번역되었다(마9:36; 막6:34; 눅2:8; 요10:11; 히13:20; 벧전2:25 등).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목사, 즉 지역 교회의 목자라는 선물을 주셨다(엡4:11).

목사는 감독으로 교회를 감독하며(빌1:1) 장로로 위엄 있게 치리하고(딤후1:5) 목자로 풀을 먹이는 의무를 수행한다(엡4:11).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요10:11), 큰 목자(히13:20),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벧전2:25), 목자장(벧전5:4)이시며 따라서 목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대신해서 땅의 성도들을 먹이는 작은 목자 혹은 보호자를 뜻한다. 목사의 자격은 딤후전3:1-7과 딤후1:6-9에 나와 있다.

어떤 이들은 엡4:11을 잘못 해석해서 목사 겸 교사가 직무(혹은 직분, office)가 아니라 선물(은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문맥을 벗어난 자의

적 해석이다. 성경은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주님께
서 교회에 목자 겸 교사 등의 선물을 주셨음을 말하
며 결코 개인의 선물(은사)을 말하지 않는다. 목자는
집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에 주신 직
무이다(딤펴전3:1-7).

목자는 권위를 가지고 모범을 보이면서 감독하며
지역 교회의 양들을 이끌고(히13:7, 17; 딤펴전5:17;
살전5:12) 먹이며(엡4:11-16) 양들이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목사를 존경
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후하게 대우하며 기도해 주
고 격려하며 감사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 주어
야 한다. 목자는 자기를 높은 계급의 직무 수행자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며 성도들의 영혼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벧전5:3). 한편 구약 성경에서
도 pastor는 목자이며 또 다른 목자를 나타내는
shepherd와 구분하기 위해 목양자로 번역되었다(렘
2:8; 3:15; 10:21; 23:1-2). 목자 참조.

● 목자(Shepherd) 아벨은 다른 족장들처럼 양을
지키는 자였다(창4:2).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갖기 시작했고 라벡의 아들 야발은 가
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창4:20). 초기의 족
장들은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온
가족이 그것들을 돌보아야 했다. 야곱의 신부 라헬
도 목자였다고(창29:6) 야곱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지
파의 우두머리는 다 목자였으며 다윗 왕도 그러하였
다(시78:70-72). 한편 목자들은 준귀한 일을 목격하
기도 하였다(눅2:8-20). 왕정 시대에 소 떼를 관리하
는 일은 중요한 직책이었고(삼상21:7; 왕하3:4; 대상
27:29-31) 구약 성경은 고대 목자들의 생활에 대해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한다(창14:14-24; 21:22-32;
26:13-16; 30:43; 욥1:3).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호칭으로 불
리며(시80:1; 렘31:10) 왕들도 백성의 목자라는 칭호
를 갖는다. 대언자들은 자기들만 먹고 양은 굶게 만
들며 또 길을 잃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즉
왕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책망하였다(렘34:10). 한편 예수 그리스도도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는 선한 목자로 불린다(눅
13:7; 요10:11, 14-15).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목자들
의 목자라고 부르며(히13:20) 베드로는 그분을 목자
들의 통치자, 즉 목자장이라고 부른다(벧전5:4). 그
분의 사역자들은 이와 비슷하게 양 떼의 목양자, 즉
신약 시대의 목사라고 불리며 그리스어에서 목사와
목사는 동일하다(렘3:15; 23:2; 엡4:11). 목사 참조.

요10:1-16에서 주님께서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며 그들을 알고 또 그들을 그
를 알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그들 앞에 가며
그들을 이듬으로 부르고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지역의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다. 지
금도 양들은 이런 식으로 목자에게 보살핌을 받는

다. 그러나 도둑은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가며
삐걱 혹은 고용된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
(요10:1-13). 양 참조.

성경은 신실한 목자의 뛰어난 점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 떼를 돌보시는 것을
나타냄을 증명한다.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 떼
의 모든 양을 책임진다(창31:39; 출22:12; 요10:28).
그는 용기와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창31:40; 삼상
17:34-35) 약한 자를 부드럽게 돌보며 어린양을 손
에 안고 가야 한다(창33:13; 사40:11; 막10:14, 16).
또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근과 사망의 그늘
진 곳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야 한다(시23:1-6; 눅15:4-7).

● 몰렉(Molech, 몰렉, 왕) 왕상11:5, 7; 행7:43에
나오는 이교도들의 신. 그들의 왕을 뜻하는 말갈 혹
은 밀곰, 즉 암몬 족속들이 숭배한 이교도들의 신도
이것과 같은 신으로 볼 수 있다(렘49:1; 암1:15; 습
1:5).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
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뒤
에 이 우상 숭배를 도입하였다(왕하23:10; 렘20:26,
31). 몰렉에게 바치는 주요 제물은 사람들 중 특히
아이들로서 그들은 그의 형상을 벌겍게 달군 뒤에
아이들을 산 채로 그의 팔에 던졌다. 힌놈 참조(레
18:21; 20:2; 신12:31; 시106:37-38; 렘7:31; 19:2-6;
32:35 비교). 어떤 구절을 보면 몰렉은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인 듯하다.



● 몰약(Myrrh)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에서 흔하게
자라는 나무의 진액. 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품
질도 각각 달랐으며 가장 좋은 것은 거룩한 기름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었다(출30:23). 이것은 향수
제조에도 사용되었고(에2:12; 시45:8; 아4:6; 5:5,
13) 사람이 죽었을 때 부패를 방지하는 데도 사용되
었다(요19:39). 동방에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
린 지혜자들은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2:11). 막
15:23에는 몰약을 섞은 포도즙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에 그분의 고통을 감소시키
려고 준 것으로 추정된다. 히브리 사람들은 신체적
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는 사람에게 이 같은

고통 완화제를 주었다(잠31:6).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물약을 섞은 포도주'가 마27:34에 나오는 '쓸개를 섞은 식초'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물약을 섞은 포도주'는 그분을 동정하는 차원에서 그분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며 '쓸개를 섞은 식초'는 그분을 잔인하게 다루기 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쓸개 참조.

● 몸(Body) 혼과 영이 거하는 부분(살전5:23). 사람의 세 요소(본질) 신도 참조(61). 구원받은 자의 몸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며(고전6:19; 뱀후1:13-14) 이런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고전6:20) 성도들은 몸의 모든 지체를 마땅히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6:13, 19).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른다(엡1:23). 이 몸은 성령님의 침례 사역으로 형성되며(고전12:13) 이를 통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신자끼리 연합한다(롬6:3-4; 갈3:27). 한편 몸(실체)은 그림자와 다르다(골2:17). 그러므로 율법의 의식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들의 예표이다. 사도 바울은 본성에 속한 몸과 영에 속한 몸을 말하는데(고전15:44) 후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더 이상 죄나 죽음이나 자연의 법칙에 저촉받지 않는 몸이다.

● 못(Nail) 이 말은 건물의 벽에 박은 쇠못이나 편을 뜻하기도 하고(사2:9;8; 겔15:3) 종종 확고함을 뜻하기도 하며(사22:23) 확실한 지지대(슌10:4)나 성전에 쓰인 장식용 금 못을 뜻하기도 한다(대하3:9; 전12:11; 사41:7; 렘10:4). 한편 야엘이 시스라를 쳐서 죽일 때 사용한 것도 영어로는 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막을 세울 때 쓰는 말뚝을 뜻한다(출27:19; 삿 4:21-22).

● 몽학 선생(School master) 몽학은 어린이의 교육을 뜻한다(갈3:24-25). 훈육 선생 참조.

● 무교절(Feast of unleavened bread) 이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명절인데 이때에는 누룩을 모두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출12:17-20). 유월절, 누룩 참조.

● 무기(Arms) 히브리 사람들은 전쟁에서 그 당시 동방의 다른 민족들이 사용한 것과 비슷한 공격 무기를 사용했다: 칼, 작은 창, 큰 창, 활, 화살, 손 화살, 던지는 창, 무릿매 등. 방어용 갑옷에는 투구와 흉갑, 방패, 정강이 보호 기구 등이 있었다. 전쟁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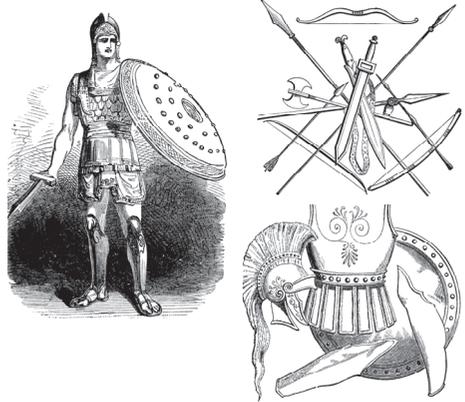
I. 흉갑은 몸을 막아 주는 갑옷으로 가슴판과 사슬 갑옷 등을 포함했다. 이것은 가죽이나 그 외의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졌고 종종 금속성 물질로 덮기도 했으며 몸의 형상처럼 만들어져서 몸에 달라붙게 했다.

II. 투구는 주로 금속으로 되었고 위가 뾰족했다.

III. 방패는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이나 금속을 덧입혔다.

IV. 정강이가리개는 두꺼운 가죽이나 혹은 놋으로 만들었다(엡6:11-17 참조).

모든 유대인 지파는 자신들만의 기(旗)를 가지고



있었으며 후대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를 뜻하는 기를 가증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그런 기가 이교도 제사장들에 의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출20:4 참조).

● 무두장이(Tanner)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행9:43).

● 무리(Myra, 마이라) 루기아의 마을. 바울은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 로마로 향하였다(행27:5).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지도 참조(44).

● 무릎(Knee) 무릎을 꿇는 것은 몸을 굽히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을 뜻하며(대하6:13; 사95:6; 단6:10; 마17:14) 그래서 이것은 종종 복 받는 것을 말한다(창27:4-10; 레9:22-23; 민24:1; 신33:1). 낙타가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낙타가 쉬게 하는 것이다(창24:11). 또한 무릎 꿇는 것은 경배의 행위이다(왕상19:18).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성도들이 행하던 관습이다(대하6:13; 시95:6; 단6:10; 눅22:41; 행7:60; 21:5; 엡3:15). 무릎은 상징적으로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욥4:4; 히12:12). 공포에 사로잡히면 무릎이 떨린다(나2:10).

● 무릿매(Sling) 돌을 내던지기 위해 보통 가죽과 끈으로 만든 간단한 기구. 이것은 목자들이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기구이며 중앙은 조금씩 폭이 넓어지면서 우묵하게 만들어졌다(삼상25:29).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끈의 양끝을 손에 쥐고서 머리 위에서 휘두르다가 한 손끝을 놓아 돌을 날려 보냈다. 이것은 간단히 만들 수 있었으나 표적에 명중시키려면 많이 연습해야 했다. 구약 시대에는 활 쏘는 자들

다음으로 무릿매를 쓰는 자들이 멀리 공격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은 군대에서 중요했다. 다윗은 이것으로 골리앗



을 죽였다. 한때 베나민 지파에는 700명의 왼손잡이 무릿매 무사들이 있었다(삿20:16). 기존 성경의 물매 혹은 물매들은 오역이다.

- 무명(Unknown) 이름이 나지 않음.
- 무시아(Mysia, 미씨아) 소아시아의 북서부 지방. 이곳의 동서남북에는 비두니아, 에게 해, 프로폰티스, 루디아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였다(행16:7-8).

● 무의식 상태(Trance) 이것은 헛된 꿈을 꾸는 것과는 다르며 병으로 인해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몸의 감각들이 소진되어 영과 거의 분리되는 상태를 뜻하고 성경에는 이에 대한 사례가 여럿 있다. 구약 시대의 발람(민24:4, 16), 신약 시대의 베드로와 바울(행10:10; 22:17; 고후12:1-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창2:21-24; 15:12-21; 욥4:13-21 비교).

- 무익(Unprofitable) 이름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음.
- 무저갱(Bottomless pit) 바닥없는 구덩이 참조.
- 무지개(Rainbow)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하늘에 둔 표적(창9:13-15; 뱀후3:6-7).
- 무참함(Miserable) 몹시 끔찍함.

● 무천년설(A-millennialism)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믿는 것. 로마 카톨릭교회는 로마 교회의 교황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현시대가 곧 천년 왕국이며 따라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무천년설을 가르친다. 이것은 어거스틴과 그의 추종자들이 추구하는 신학의 근간이 되는 믿음이지만 성경은 결코 이 같은 불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전천년 믿음, 천년 왕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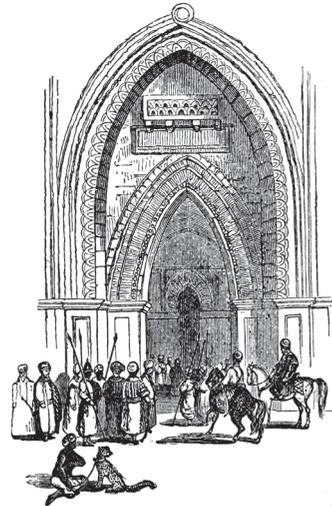
● 무할례자(Uncircumcision)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쓴 말(엡2:11).

● 무화과(Fig)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에 아주 흔했으며 다른 것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다. 이 나무는 키가 크고 잎이 많으므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했고 또 과일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무화과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다(왕상4:25; 미4:4; 슥3:10; 요1:49-51). 무화과는 동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이었고 여름에 가장 많이 배출되었지만(왕하20:7; 사38:21) 이른 무화과의 품질이 좋았다(사28:4; 렘24:2; 나3:12). 잎이 나타나거나 꽃이 피기도 전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무화과의 특징이었으나 아주 작고 숨겨진 꽃이 있기는 하였다. 무화과나무의 잎은 봄의 끝에 생키며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음을 보여 준다.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마24:32; 야2:13). 무화과는 마치 미국에서 나는 배처럼 생겼고 어떤 때에는 줄에 묶어 이것을 말리기도 했으며 이로써 무화과 덩이라는 표현이 생겼다(삼상



25:18; 왕하20:7; 대상12:40). 이렇게 말린 무화과의 무피를 줄이려고 바구니나 그릇에 넣고 누르면 마치 떡처럼 눌러지게 된다. 뽕나무 참조.

● 문, 성문(Gate) 성벽이 있는 마을의 문은 대개 나무로 만들고(창16:3) 두꺼운 쇠나 놋으로 입히며(시107:16; 사45:2; 행12:10) 빗장으로 강화하고(신3:5; 왕상4:13) 옆에는 탑이나 망대를 세웠다(삼하18:24, 33). 누군가가 성문을 취하면 도시를 점령한 것으로 보았으므로(신28:52; 삿5:8) 성문 혹은 문은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그들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고 약속하셨다(창22:17). 그런 차원에서 '지옥의 문들'은 실제적인 문들로 볼 수도 있고 '지옥의 관세' 혹은 '지옥' 그 자체로 볼 수도 있다(마16:18).



성문 혹은 성문 근처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장이 서거나 재판이 열리곤 했으며(창23:10-18; 신16:18; 토1:19; 25:6-7; 룻4:1-12; 잠22:22; 암5:10-15) 또 거기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창19:1). 그러므로 '성문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한가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술 먹는 사람들을 나타낸다(시69:12). 도시가 재앙을 당하면 사람들이 성문에서 애곡하였으며(사14:31; 렘14:2) 또 여기에

서 공격 메시지가 선포되고 대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다(잠1:21; 8:3; 사29:21; 렘17:19; 26:10). 한편 성문에 가까운 바깥 장소에서 사람을 처형하기도 했다(왕상21:13; 행7:58; 히13:12).

교만을 통해 자기 집의 문을 높이는 자는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되어 파멸에 이른다(잠17:19). 문을 넓게 여는 것은 기쁨과 환영을 뜻하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시24:7, 9). 끝으로 새 예루살렘의 문들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땅의 도시들의 성문이 밤에 닫혀 있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곳이 빛의 세상이요 안전을 보장하는 세상임을 보여 준다(계21:25).

● 문안(Salutation)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샬롬 레카!”, 즉 “당신에게 화평이 있기를!”이라는 말로 문안 인사를 하였다. 이런 인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화평이 있기를!”이라고 응답하였다(창29:6; 삿18:15). 성경에는 이외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를 바라노라.” 혹은 “주의 복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등의 문안 인사가 있다. 지금도 동방 사람들은 정중하게 이런 식의 인사를 하며 어떤 때에는 문안 인사와 함께 입을 맞추거나 손이나 수염에 입을 맞추고 손을 가슴에 대고 몸을 숙였다가 위로 펴서 인사를 한다. 야곱이 에서에게 인사한 것과(창33:1-34) 또 창19:1; 23:7; 42:6; 삼하1:2; 요20:26 등을 비교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지팡이를 올려놓게 하였을 때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고 그에게 당부하였다(왕하4:29). 그와 동일한 이유로 주님께서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눅10:4).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하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방 사람들의 문안 인사는 걸치레로 이루어졌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 문지기(Porters) 개인 집이나 도시의 문지기(삼하18:26; 왕하7:10; 막13:34; 요10:3). 성전의 문지기는 모두 레위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한때 4,000명이나 되었고 여러 조로 나뉘어서 문을 지켰다(대상16:42; 23:5). 그들은 모든 문을 지키고 자기들의 조별로 성전 안에서 의무를 행하였으며(대상26:1-19; 대하8:14; 35:15) 밤에 찬양의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시134:1-3). 또한 대하23:14는 그들이 요아스를 보호하고 아달라를 죽이는 일을 했음을 알려 준다.

● 물(Water) 물은 종종 눈물을 뜻하며(렘9:1) 그래서 고난(시66:12), 재난(예3:54; 시69:1; 124:4-5), 핍박(시88:17), 적군(사8:7; 17:13) 등을 상징한다. 또 물은 자식이나 후손(민24:7), 구름(시104:3),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능력(사12:3; 55:1; 요7:37-38)을 뜻하고 물을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호5:10) 두려움으로 인해 실신하는 것(시22:14)을 뜻한다. 깊은 물은 마음속의 권고나 조언(잠20:5), 지혜로운 자의 말(잠18:4)을 뜻한다. 땅에 쏟은 물은 죽음의 상징이고(삼하14:14) 물의 불안정성은 흔들리는 성격을 뜻한다(창49:4). 사람이 물로 난다는 것은 모태에서 물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물과 함께 나오는 자연적인 출생을 뜻한다(요3:5-6). 우물과 샘 참조.



물을 퍼 올리는 작업

● 물 저장고(Cisterns) 팔레스타인에는 도시나 시골에 물 저장고가 많았다. 여기에서는 1년 중 반은 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마르지 않는 강이나 샘이 거의 없었으므로 우기의 비를 물 저장고에 담아 두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이런 물 저장고들은 물탱크 혹은 연못 등으로 불렸으며 관개용수가 필요한 밭에 만들어지거나 여행자를 위해 큰길의 여러 곳에 만들어졌다(시84:6). 그래서 큰 도시들은 돌로 큰 저수지를 만들어 겨울의 비를 모아 두었다. 베데스다, 실로암 참조.

● 물고기(Fish) 히브리 사람들은 물고기의 이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물고기 이름이 많지 않

다. 모세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의 물고기 중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되고 다른 것은 가증하다고 말했다(레11:9-12; 신14:9-10). 나일 강에는 좋은 물고기가 많았으며(출7:18-21; 민11:5) 디베라 바다에도 물고기가 많았다(눅5:5; 요21:6-11).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흔하게 먹었고(마7:10) 지중해와 요르단 강에서 물고기를 얻기도 하였다(느13:16). 그들은 낚시나 창 그리고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욥41:7; 사19:8-10; 암4:2).

원래 영어의 fish는 '물에 사는 생물'을 뜻했으며 따라서 요나를 삼킨 고래 역시 이런 차원에서 큰 물고기였다(은1:17). 성경에는 어부들도 자주 나오는 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상당수가 어부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마4:18-22).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할 때 믿을 고백의 표시로 메달이나 무덤 등에 물고기를 새겼다. 왜냐하면 물고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의 다섯 글자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다섯 단어의 첫 글자들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고기 상징은 이제 어느 정도 미신적인 요소를 띠게 되었다.

● 물두멍(Laver) 이집트 탈출 뒤에 히브리 여인들이 내놓은 솥 거울을 주조하여 만든 원형의 큰 그릇. 이것은 성막의 문과 태우는 현물을 드리는 제단 사이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담아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수 있게 하였다(출30:18-21; 38:8; 40:7).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사용한 큰 물두멍 외에도 희생물을 씻기 위해 열 개의 물두멍이 마련되었다(대하4:6). 각각의 물두멍은 40 바스(약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지지대 위에 놓였다(왕상7:27-39). 이것들은 성전 앞에 있는 제사장들의 뜰 안에 양쪽에 각각 다섯 개씩 놓였다(왕상7:39). 성전 참조.

● 므깃도(Megiddo, 미기도, 군대가 있는 곳) 므낫세 지파에게 속하고 잇사갈 지파의 경계에까지 이르는 마을. 이곳은 예전에 가나안 족속들의 귀중한 도시였으며 그들은 오랫동안 여기를 점령하였다(수12:21; 17:11; 삿1:27). 이곳은 기손 근처 평야의 남서부 경계에 있었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는 승리의 장소로 므깃도의 물가가 나온다(삿5:19, 21). 솔로몬의 통치 때에 이곳은 강화되었으며(왕상9:15) 바로 여기에서 아하시야가 죽었고 요시아 왕도 전쟁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백성으로부터 큰 애도를 받았다(왕하9:27; 23:29; 습12:11). 이곳은 므깃돈으로도 불린다(습12:11). 아말겟돈 전쟁(계16:16)은 므깃돈 평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므나(Manahem, 네이켄) 기르로스 사람. 그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오래된 제자'로 불렸다(행21:16).

● 므나헴(Menahem, 메나헴, 위로자) 이스라엘의 열여섯 번째 왕. 그는 전에 사가랴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디르사에 있을 때 살롬이 왕을 죽이고 사마리아로 몸을 숨겼다는 소식을 접한 뒤 그를 대적하기 위해 즉시 돌아와 그를 붙잡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폭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때에 아시리아의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그는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부유한 사람에게서 각각 오십 세겔을 취하여 1,000달란트를 바쳤다. 그는 정상적으로 죽었으며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브가하야는 2년 동안 통치하였다(왕하15:13-22).

● 므낫세(Manasseh, 마낫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I. 요셉의 맏아들. 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후손들은 하나의 완전한 지파를 형성하고 후에 가나안 땅에서 둘로 나뉘었다. 그래서 일부는 바산 지방, 즉 요르단 동쪽(북쪽)에 거하였고 다른 일부는 에브라임과 잇사갈 사이에서 요르단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에 거하였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 지도 참조(19, 23). 므낫세는 야곱의 예언에 따라 재물과 권세 면에서 에브라임보다 훨씬 못하였다(창41:50-51; 48:1-22; 수16-17). 지파 참조.

II.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그는 12세에 왕이 되어 55년 동안 치리하였다. 그의 우상 숭배와 폭정과 잔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 제22년에 그가 바빌론에 죄수로 끌려가게 하셨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낮추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돌려보내 그가 다시 왕권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행한 악을 되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가 숭배하던 우상들과 자기가 조언을 받던 점쟁이들을 제거하고 자기 왕국의 영적/물질적 번영을 위해 많은 것을 개혁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방어벽을 보수하고 유다의 견고한 도시들을 강화하였다. 그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평안히 죽어 예루살렘에 묻혔다(왕하21; 대하33).

III.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요나단의 할아버지(삿18:30). 요나단 참조.

● 므단(Medan, 미덴, 심판)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아들(창25:2). 그는 자기 형제 미디안과 함께 아라비아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 므두셀라(Methuselah, 멧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 에녹의 아들. 그는 라멕의 아버지였으며 969세를 살아 성령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오래 살았고 홍수가 생기기 바로 전에 죽었다(창5:21-22, 27).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 층이 있어서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였으므로 그 결과 사람의 수명이 길었고 또 짐승이나 사람의 크기도 컸다. 또한 온 세상이 온화해서 심지어 극지방도 열대성 기후를 나타냈으며 심지어 매머드 같은 짐승도 극지방에 살았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노아는 950세, 살라는 433세, 벨렉은 239세,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를 살았고 그 이후로 평균 수명은 70-80세가 되었다(시 90:10).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때에는 다시 수명이 증가하여 100세에 죽은 사람을 아이라고 부르는 일이 발생한다(사65:20). 천년 왕국 참조.

● 므라리(Merari, 미레라이, 쓰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레위의 세 아들 중 막내. 그는 레위 사람들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었다(창46:11; 출6:16; 민3:17; 대상6:1). 광야에서 생활할 때 므라리 가족은 성막의 구조물을 맡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지고 가서 세우는 일을 했으며(민4:29-33; 7:8)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에게는 요르단 너머에 열두 도시가 배정되었다(수21:7, 34-40).

● 므로닥(Merodach, 미로닥) 고대 바빌론 사람들의 우상. 이것은 화성의 신으로 추정된다(렘50:2). 바빌론 왕들의 이름에도 이 말이 첨가되어 에빌므로닥, 므로닥발라단 등의 이름이 생겼는데(왕하25:27; 사39:1) 후자는 브로닥발라단이라고도 불린다(왕하20:12).

● 므리바(Meribah, 메리바, 다듬). I. 홍해와 시내 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 여기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 불평하였는데 이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샘이 나오게 하셨다(출 17:1-7). 이곳은 시험이라는 뜻을 가진 맞사라고도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이다(신33:8; 히3:8).

II. 가데스 근처의 썩 광야에 있던 또 다른 기적의 샘(민20:13-14). 이곳은 모세와 아론이 죄를 범한 곳이며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곳은 므리바의 물이라 불리기도 하며(신33:8; 시81:7; 106:32) 므리바가데스라 불리기도 한다(민27:14; 신32:51; 겔47:19).

● 므비보셋(Mephibosheth, 메피보셋, 수치를 없애는 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는 트립말이라고도 불렸다(대상8:34). 므비보셋은 그의 아버지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에 아주 어렸으며(삼하4:4)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그의 유모는 아이를 데리고 급히 떠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그는 평생 동안 다리를 절었다. 다윗은 평화롭게 왕국을 다스릴 때에 자기와 요나단 사이의 우정을 생각하고 사울의 집에서 남은 자들을 찾아 친철을 베풀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므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주었으나 후에 그는 그의 종 시바의 속임수로 인해 그중 일부를 잃게 되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을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지냈으나 시바의 모함과 다윗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재산의 일부를 잃게 되었다(삼하9:1-13; 16:1-4; 19:24-30). 그 뒤 다윗은 기쁜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 주기 위해 사울 집에 속한 사람들을 내어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 살려 주었고(삼하21:1-14) 이로 인해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므비보셋

이 죽게 되었다(삼하21:8).

● 미가(Micah, 마이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I. 유다의 서쪽에 있던 모래셋 출신의 대언자(렘 26:18). 그는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여섯 번째 인물이며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50년 동안 대언하였다. 그는 대언자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이사야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그의 글에서도 발견된다(사2:2와 미4:1, 사41:15와 미4:13 등 비교). 그가 담대하게 주님을 섬긴 것은 그로부터 1세기 후에 나타난 대언자 예레미야의 방패가 되었다(렘26:18-19; 미3:12). 그는 고상하면서도 격렬하게 글을 기록하였으며 그의 글에는 여러 번의 장면 전환도 나온다. 그의 대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과 심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 그들의 원수들이 심판받는 것 등과 관련이 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그의 나이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오심이야말로 그가 묘사하는 영광스러운 장래의 모든 소망의 기초임을 보여 주었다.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서 유다의 베들레헬에서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을 정확히 대언하였고(미5:2-3) 유대인들은 그것이 메시아 출생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다(마2:6; 요7:41-42).

II. 재판관 시대에 살던 에브라임 사람. 그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 재판관들의 시대에 자기 어머니에게서 1,100세절을 흠뻑다가 그것을 되돌려 주었으며 자기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그 돈으로 개인의 성스러운 장소를 만들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형상을 세우며 또 복을 받기 위해 레위 사람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고용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우상 숭배를 멸시하시고 단 족속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의 제사장 요나단과 그의 우상 숭배 기물을 강탈하게 하셨다(삿17:13).

● 미가야(Michaiah, 마이케이야) 여호야김의 궁전에 있었던 젊은 통치자. 그는 왕의 조언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였다(렘36:11-13).

● 미가야(Micaiah, 마이케이야) I.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시리아 사람들을 치려 할 때에 여호사밧의 요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문을 구한 대언자. 그는 충성스럽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아합에게 대언하였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후에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 아합은 그의 예언대로 싸움터에서 죽었다(왕상22:8-38). 이 일에서 아합이 드러낸 어리석음은 말씀의 빛을 거부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 준다.

II. 유다의 통치자. 그는 유다의 백성을 개혁하고 그들을 깨우치려는 여호와사랑의 노력을 인정하고 동의하였다(대하17:7-9).

● 미가엘(Michael, 마이클, 누가 하나님 같은가?) 천사장 참조. 여호와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창조물인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이단 교리를 믿는다.

● 미갈(Michal, 마이컬, 누가 엘과 같은가?) 사울의 작은딸. 그녀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나 사울은 마지 못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그녀를 그에게 내주었다(삼상14:49; 18:20-29).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보낸 암살자들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구하고 그가 탈출할 수 있는 계략을 베풀었다(삼상19:14-15). 그 뒤에 그녀의 아버지 사울은 그녀를 발디에게 주었으나(삼상25:44) 다윗은 몇 년 뒤에 그녀를 되찾았다(삼하3:12-21).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그녀는 그가 매우 기쁘게 뛰노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그 결과 다윗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삼하6:16-23). 신앙심 측면에서 자기 눈에 못지 못하게 열심을 보인 것을 미워한 그녀의 감정은 자기 남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했고 그 결과 그녀는 화를 자초하여 자식 없이 죽었다.

● 미그론(Migron, 미그란, 절벽) 아이와 기브아 근처의 도시. 이곳은 므마스 북쪽에 있었다(삼상14:2; 사10:28).

● 미니스(Minnith, 미니쓰) 재판관 입다의 시대에 있었던 암몬 자손의 마을(삿11:33). 이곳은 헤스본에서 북동쪽으로 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두로의 시장에 좋은 밀을 제공하였다(겔27:17).

● 미틀레네(Mitylene, 미틸리니, 순수하다) 레스보스의 섬의 수도 및 항구. 이곳은 소아시아를 향하고 있었으며 바울은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에 들렀다(행20:14).

● 미디안(Midian, 미디언, 갈등) 아브라함과 그 두라의 넷째 아들(창25:2).

● 미디안 족속(Midianites, 미디어나이즈) 미디안의 후손들. 그들은 아라비아에 거하던 유목민으로 수가 많고 양과 소와 낙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사60:6). 미디안 족속이 원래 거하던 곳은 홍해 남단이었으나(행7:29) 후에 그들은 세일 산의 동쪽 사막을 따라 북쪽으로와 퍼져 나가 모압 족속의 경계에까지 이르렀고 다른 쪽으로는 시내 산에 이르는 지역까지 뻗어나갔다(출3:1; 18:1; 민22, 25, 31; 삿6-8). 창25:2-4와 창25:12-18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이스마엘 자손과 구분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두 민족이 같이 나오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창37:25, 36 비교). 그들의 수도는 미디안이었으며 그곳은 아르 시의 남단에 있던 아르논에 있었다. 미디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므로 종종 이스라엘을 부추겨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들을 심히 학대하기도 하였다(민22:1-41; 25:1-18; 31:1-54).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려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 즉 동쪽의 사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큰 떼를 이루고 와서 열매를 강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곤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도 지도력도 기력도 없어서 산굴로 피

신하곤 하였으며 바로 이때에 재판관(사사) 기드온이 나타나 그들을 구출하였다(삿6:7).

● 미리 아심(Foreknowledge)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므로 세상의 창건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예언 자체가 사람의 행위나 사건을 미리 결정짓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아시지만 그 사실은 결코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 사실은 결코 그들이 했던 일을 그들이 반드시 하게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일들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하셨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자유 의지가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복음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며 이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그를 지옥에 가게 정하실 뿐이다. 지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선택, 자유 의지 참조.

● 미리암(Miriam, 미리엄, 하나님의 선물) 모세와 아론의 누이. 그녀는 모세를 궤에 넣어 강에 보낼 때에 앞뒤를 살펴보고(출2:4-5; 민26:59; 미6:4) 또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역사시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게 하였다(출15:20-21). 그녀는 모세와 에티오피아 출신의 그의 아내를 질투하고 불평을 하다가 잠시 나병에 걸렸으나(민12:1-16; 신24:9) 용서받고 몸이 회복되어 40년 광야 유랑 생활이 끝날 즈음에 가데스에서 죽었다(민20:1).

● 미사(Mass)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사체가 빵과 포도주에 기적을 일으켜서 실제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꾸고 이를 천주에게 희생 예물로 드리는 예식.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거룩한 미사 의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화체 설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성체 성사에서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빵의 전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의 전 실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빵과 포도주의 외형만 남게 된다."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사 의식을 통해 빵과 포도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것들은 동일한 맛과 색과 냄새와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있다. 빵은 여전히 빵처럼 보이며 빵 같은 맛을 가지고 있고 빵 같은 촉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이라고 생각한다. 포도주 역시 포도주처럼 보이며 포도주 같은 맛을 내고 포도주처럼 냄새가 나며 만일 누가 그것을 많이 마시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것이 하나님 의 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빵 조각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바치는 것이 사제가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반(反)종교 개혁을 주도한 트레نت 공회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 같은 가르침을 거부하고 달리 믿는 자에게 극도의 아나테마 저주를 선포했다.

또 로마 카톨릭주의는 미사 희생이 십자가 희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의식이 수억 번 이상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미사를 드릴 때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미사 때마다 자기들이 갈보리에서의 희생과 동일한 희생을 드린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즉 '그분의 살과 피, 몸과 혼, 인성과 신성'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매년 '다시 새롭게 하여 바치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상치된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반복해서 희생을 드린 것은 그중 어떤 것도 완전한 희생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리 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犧牲物)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히10:10-14).

이처럼 명백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매일 같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는 천주교 교리는 이단 교리로서(히9:25-28)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다(히6:6). 또한 죄의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유래한 관례이고 빵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완전히 가린다.

● 미사엘(Mishael, 미세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 구냐?)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 아벳스고 참조.

● 미스라임(Mizraim, 미즈레이임) 함의 아들. 그는 여러 아프리카 민족들의 조상이며(창10:6) 특히 이집트 사람들의 조상이다. 실제로 성경은 이집트를 히브리어로 미스라임이라 부른다.

● 미스바(Mizpah, 미스파, 파수대) I. 길르앗의 마을(호5:1). 이곳은 예전에 야곱과 라반이 세운 돌 무더기로 인해 이런 이름을 얻었다(창31:49). 이곳이 압다의 이야기에 나오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삿10:17; 11:11, 29, 34).

II. 베냐민의 도시. 이곳은 라마 근처에 있었으며

재판관들의 시대에 지파들이 모이던 중심지였다(수 18:26; 삿20:1, 3; 21:1). 여기서 사무엘은 희생물을 드리고 재판하였으며 사울은 여기서 왕으로 지정을 받았다(삼상7:5-16; 10:17). 아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곳을 강화하였다(왕상15:22). 이곳은 또한 느부갓네살 밑에 있던 총독의 거주지였으며(렘40:6)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다(느3:19).

III. 유다의 평야에 있던 마을(수15:38).

IV. 헤르몬 산 근처에 있던 골짜기(수11:3, 8).

● 미신(Superstition)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 사람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드릴 정도로 미신에 빠져 있었다(행17:22). 한편 초기 기독교 반대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미신을 믿는다고 생각하였다(행25:19).

● 미워하다(Hate) 성경에서 이 말은 종종 '덜 사랑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창29:30-31; 신21:15; 잠13:24; 말1:2-3; 눅14:26; 롬9:13).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철저히 미워하신다(시5:5). 미움 혹은 증오는 대개 악의가 있는 감정이며(갈5:20) 사랑 면에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할 때 죄를 짓는다.

● 미친 증세가 있는 자(Lunatic) 이것은 달을 뜻하는 루나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으며 영어와 그리스어도 달과 관계가 있다. 보통 이 단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특히 달이 환하게 뜰 때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편 이 병에 걸리면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성경은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을 구분하므로 이 병이 꼭 마귀 들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마4:24; 17:15).

● 미혹(Delusion) 정신을 흐려 흐려지게 함.

● 미담(Michtam, 믹탐) 시편 16, 56-60편에 나오는 이 말은 황금빛 혹은 은밀한 일을 뜻하며 스1:1; 사38:9 등에서처럼 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 미돌(Migdol, 믹달, 탑)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북부 이집트의 변방 마을(렘44:1; 46:14; 겔 29:10; 30:6).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나 여기와 홍해 사이에 진을 쳤다(출14:2; 민33:7).

● 믹마스(Michmash, 믹매쉬, 숨겨진 장소) 베냐민의 마을.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1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느7:31; 11:31). 이곳은 큰 계곡의 북쪽에 위치한 성이였으며 그래서 산 헤립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기서 자신의 무거운 장비들을 버려두었다(사10:28-29). 이 깊은 계곡에는 두 개의 높은 바위 언덕이 있는데 이것들은 요나단의 기사에서 나오는 믹마스의 통로로 판단된다(삼상 13:23; 14:4).

● 민니(Minni, 민아이) 아라랏과 아스그나스와 함께 바빌론과 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왕국(렘 51:27).

● 민란(Uproar) 포박한 정치 따위에 반대하여 백

성들이 떠들고 일어난 소요.

● 민망(Ashamed) 딱하고 안타까움. 혹은 딱하고 부끄러움.

● 믿음(Faith) 어떤 진리를 이해하며 동의하는 것.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믿음이 단지 역사적 믿음일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마귀들의 믿음같이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약2:19). 그러나 산 믿음 혹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로 믿고 온 마음과 열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삶과 행위 면에서 열매로 표출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으로서 받아들이며 그분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걸을 수 있으므로(막16:16; 요3:15-16; 행16:31; 요일5:10) 이런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의의 관을 얻으며(딤후4:7-8) 바로 이런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이적들을 이루었고(히11:1-40; 행14:9; 고전13:2)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 거할 수 있었다(마17:20; 막9:23; 11:23-24).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진다(롬1:8).

믿음은 우격다짐으로 믿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나 자기 확신 혹은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믿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랑처럼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서 그 대상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 태도이며 그분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그 뒤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 즉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며 그 결과 능력과 열매를 상실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해

야 한다(갈2:20).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의 사람이다.

● 밀(Wheat) 밀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재배되는 가장 중요한 곡식 중 하나이다(창30:14; 신8:8; 삿6:11; 마13:25; 고전15:37). 영어 성경이 기록되던 16-17세기경에는 corn이라는 단어가 옥수수를 뜻하지 않고 대개 곡식(특히 밀)을 뜻하였다. 이집트의 밀에는 대개 6-7개의 이삭이 있었으며 그래서 파라오의 꿈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나타났다(창41:5-7).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음식 헌물은 다 밀가루로 만들어졌다(레2:1-16).

● 밀가(Milcah, 밀카, 여왕) 하란의 딸이며 롯의 누이.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가 되어(창11:29) 그녀의 여덟 아들을 낳았다(창22:20-23).

● 밀곰(Milcom, 밀감, 왕) 몰렉 참조.

● 밀레도(Miletus, 마일리투스) 고대 이오니아의 대도시.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있었고 많은 식민지를 소유하였으며 아폴로의 신전과 신막으로 유명하였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에루살렘으로 가면서 여기서 하루 이틀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그의 부름을 받고 곧바로 그를 보려고 약 50킬로미터 북쪽에서 내려왔다(행20:15-38). 그는 또한 로마에서 처음 감옥에 갇힌 뒤에 이곳을 다시 방문하였다(딤후4:20).

● 밀로(Millo, 밀로, 채우다) I. 예루살렘에 있던 시온 성채의 방어 거점. 이곳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언급된다(삼하5:9; 왕하12:20; 대상11:8; 대하32:5).

II. 세계에 있던 가족이나 혹은 성채의 이름. 후자의 경우 밀로의 집은 그 성채의 주둔지를 뜻한다(사9:6).

(B)

● 바나바(Barnabas, 바나바스, 위로의 아들) 요세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는 사도 바울의 동반자로서 원래 레위 사람이고 키프로스(구브로) 출신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행4:36-37).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정도 지나 주후 38년경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바나바는 그를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였다(행9:26-27). 그로부터 5년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었는데 그는 거기서 큰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들을 보게 되었다(행11:20-24). 그 뒤에 그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함께 2년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다. 그들은 주후 45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물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요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행11:28-30; 12:25). 그들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분리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새로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키프로스과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3년 뒤에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행13:2-14).

주후 50년경에 그들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요청에 의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한 율법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저들로부터 좋은 판결을 듣고 그 소식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한편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베드로로 말미암아 위선에 빠져서 바울로부터 면전에서 책망을 들었다(갈2:11-14).

그들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하면서 바나바의 생길 마가 문제로 격렬하게 다툰 뒤에 서로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아시아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로 떠났다(행15:36-41). 그 이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바나바 서신이라 불리는 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조문서로 평가되고 있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 사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쳤으며 이것은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는 참으로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가져다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 바늘귀(Eye of a needle)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눅18:25).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큰 짐승과 사람이 늘 대하는 작은 구멍을 대비한 말씀으로 오직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에게만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바다(Sea)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 불렀다(욥14:11). 그래서 디베라 호수나 나일 강 혹은 유프라테스 강도 바다라 불렀다(사11:15; 18:2; 21:1; 렘51:36, 42). 성경에 나오는 주요 바다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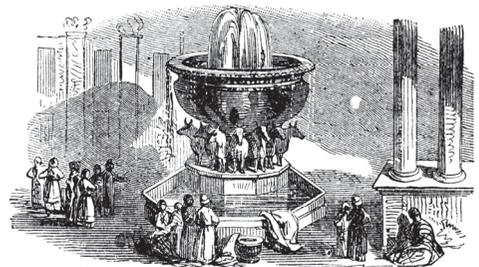
I. 대해. 이것은 서쪽의 지중해를 뜻하며 그래서 지중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종종 서쪽을 뜻한다. 지중해는 매우 커서 조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종종 폭풍에 의해 요동하였다. 봄에는 대개 바람이 남동쪽과 남서쪽에서 불며 다른 때에는 북동쪽과 북서쪽에서 분다.

II. 홍해(출10:19; 13:18; 시106:7, 9, 22). 이 말은 홍해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놓인 예돔에서 유래되었다. 홍해의 동쪽과 북동쪽에는 아라비아가 있고 남쪽과 남서쪽에는 아비시니아와 이집트가 있다. 시나반도 지도도 참조(48). 홍해의 길이와 평균 너비는 각각 2,250킬로미터와 240킬로미터이고 깊이는 540미터이다. 홍해는 북쪽 끝에서 수에즈 만과 아카바만으로 나뉘며 이 두 만 사이에 사내(시나이) 반도가 놓여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기적적으로 수에즈의 남쪽에 있는 서쪽 만을 건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그 뒤 여러 해 동안 이 반도의 사막에서 유랑하다가 동쪽 만의 끝부분인 예시온계벨에 이르렀다. 속10:11에는 홍해와 나일 강이 모두 언급된 것 같다.

III. 사해 혹은 염해(창14:3). 이곳은 평야의 바다(신3:17) 혹은 동쪽 바다, 앞 바다(겔47:18; 욥2:20; 속14:8)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남동쪽에 있으며 북쪽에서는 요르단에서 물을 받고 동쪽에서는 아르논과 다른 조그만 강에서 물을 받는다. 사해 지도도 참조(52). 사해 바다는 길이와 평균 너비가 각각 64킬로미터와 14킬로미터이며 높이가 350-450미터나 되는 석회암 절벽 사이에 들어 있다. 한마디로 이곳은 황폐한 곳이며 물은 맑지만 아주 짜고 쓰고 물의 밀도는 온 세상 물의 밀도보다 20-25% 정도 크므로 누구나 등등 떠서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지만 겔47:8-10을 보면 천년 왕국 때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인하여 이곳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주변 지역은 비옥한 땅이 된다. 사해와 그 주변 지역과 관련된 기사는 창13:10; 신29:23; 마10:15; 11:22-24; 뱀후2:4-9; 유7에서 볼 수 있다.

IV. 갈릴리 혹은 디베라 바다. 이것은 게네사렛 호수(긴네렛 호수)를 뜻한다(민34:11). 갈릴리 바다 지도도 참조(52). 요르단 강은 북쪽에서 나와 이것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호수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1킬로미터와 10킬로미터이고 깊이는 50미터이다. 이 호수에는 가끔씩 폭풍이나 회오리바람이 불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바다는 주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잘 기억한다. 주님께서서는 종종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안식하셨고 여기를 건너 이동하곤 하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이곳을 잔잔하게 하시고 기적과 가르침으로 이곳의 해안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다. 물론 여기에서 그분의 제자들 중의 몇 사람이 부름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마4:18; 14:22; 눅8:22; 욥21:1).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만든 놋 바다는 직경이 4.5미터가 넘는 원형 기구로서 성전 뜰의 한가운데에 놓여 2,000-3,000바스(44,000-66,000리터)의 물을 담았

다(왕상7:26-대하4:5). 이 바다는 낯으로 만든 열두 마리 소 위에 놓였으며 그 당시 세상에 존재하던 낯 그릇 중에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제사장들은 이 안의 물을 여러 용도로 썼는데 사용하였으며(대하4:6)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성결해야 함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이 바다는 셋째 하늘의 바다를 본떠서 주어진 것이다(히8:5; 계4:6; 15:2)

● 바다라(Patara, 페터라) 소아시아의 해양 도시. 이곳은 원래 아폴로의 신탁으로 유명하였으며 바울은 빌립보에서 에루살렘으로 가면서 여기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찾아 탔다(행21:1).

● 바닥없는 구덩이(Bottomless pit) 기존 우리말 성경의 무저갱(눅8:31; 롬10:7; 계9:11; 11:7; 17:8; 20:1, 3), 구덩이, 지옥 참조. 지하 세계 선도 참조(8:1).

● 바다(Parthia, 파르시아) 파르티아 참조.

● 바돌로매(Bartholomew, 바셀로뮈, 둘매의 아들) 열두 사도 중 하나(마10:3; 막3:18; 눅6:14; 행1:13). 바돌로매는 주로 빌립과 함께 언급되며 요한이 나다니엘이라고 부른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요1:45-51). 요21:2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도 나다니엘이 그의 실제 이름이었을 것이고 '둘매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돌로매는 성이었을 것이다. 사도, 나다니엘 참조.

● 바드로스(Pathros, 꺄스라스) 고대 이집트의 세 부분 중 하나(사11:11; 렘44:1, 15; 겔29:14; 30:14). 이곳은 이집트 남부를 뜻하며 에스겔은 이곳을 이집트와 구분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거하던 곳이었으며 이곳 거주민들은 미스라임의 후손인 바스루심이다(창10:14).

● 바디매오(Bartimeus, 바티미어스) 디매오의 아들. 그는 눈먼 사람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여기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시력을 주셨다(마20:29-34; 막10:46-52; 눅18:35-43). 마태는 두 명의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단지 바디매오만 언급한다. 한편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 같다. 그의 강건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담은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 바라가(Barachias, 바라카야스) 에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사가라의 아버지(마23:35).

● 바라바(Barabbas, 바레바스,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당시의 유명한 강도. 그는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으나 유대인들은 대신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마27:16-26).

● 바락(Barak, 베이랙, 번개) 아비노암의 아들.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게데스 출신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대언자 드보라를 이용하여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출하셨다. 그는 여대언자와 함께 가서 10,000명을 모아 다블산에 주둔시켰는데 이것은 적군이 900대의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삿4:3).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전쟁에서 싸우셨고 드보라와 바락은 이것을 찬양했으며(삿5:1-31) 후에 바락은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 들어갔다(히11:32).

● 바란(Paran, 페이린)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큰 사막 지대(창14:6). 이곳은 엘라라바 계곡, 즉 사해에서 아카바 만으로 내려가는 계곡의 서쪽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 동안 유랑하던 광야 지역 근처에 있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사흘 정도 가면 사내 산이 있으며(민10:12, 33; 12:16) 이곳의 북쪽에는 가데스와 썬 광야가 있다(민13:3, 21, 27). 여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하였고(창21:14, 21) 다윗과 하닷이 잠시 머물렀다(삼상25:1; 왕상11:18).

● 바람(Winds)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주로 남서풍이 불었다(눅12:54). 고대에는 북풍이 자주 일기도 하였는데(욥37:9) 이것은 좋은 날씨를 예고하며 따라서 북풍이 비를 몰아낸다는 잠25:23을 지지한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바람은 열매를 말리는 데 쓰인 바람과(창41:6; 겔17:10; 19:12) 큰 위력을 가진 바람(사48:7; 겔27:26; 은4:8) 등인데 후자는 주로 뜨겁고 메마른 여름에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돌풍을 의미한다. 이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므로 열기가 대단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마르게 하였다. 유로클룬도 참조.

● 바룩(Baruch, 베이루크, 복을 받은 자) I. 네리야의 아들. 그는 유다의 명문 집안 아들이었으며 예레미야 대언자의 신실한 친구였다. 주전 605년경에 그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낭독해 주었다. 그런데 통치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갔으나 여호야김은 그 책을 불살라 버렸고 이에 바룩은 한 번 더 예레미야의 입에서 말씀들을 받아 적었다(렘36:1-32). 그는 자기 형제 스라야와 함께 바빌론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빌론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했다 때문일 것이다(렘51:59-64). 후에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꺄박을 공유하며 옥에 갇히고 반역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강제로 이집트로 가게 되었다(렘43:1-13).

II. 느헤미야의 친구 중 하나(느3:20; 10:6; 11:5).

● 바르발(Pharpar, 파르파르)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 참조.

● 바르실래(Barzillai, 바르질라이, 쇠로 만들어졌다) I. 시므온 지파에 속한 므홀랏 사람. 그는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한 아드리엘의 아버지였다(삼상18:19; 삼하21:8).

II. 길르앗 출신의 노인.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으로 인해 요르단 강을 건너 피난할 때 많은 양식과 짐승과 필수품을 가져와 왕과 왕의 신하들을 도왔다(삼하17:27; 19:32). 다윗이 돌아갈 때에 그는 요르단까지 함께 갔으나 늙은 나이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영광을 누리려는 것은 사양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 바르실래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왕실의 가족들로 만들라고 말했다(왕상2:7).

III. 위에서 언급된 바르실래의 딸과 결혼한 제사장(스2:61; 느7:63).

● 바르와임(Parvaim, 파르베이임) 좋은 금이 많이 나는 곳(대하3:6).

● 바리새인(Pharisees, 페리시즈) 유대인들의 분파 중 하나. 바리새인들은 교리나 실행의 주요 문제에서는 서로 동의하였지만 작은 문제에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예를 들어 유대교의 유명한 학파인 힐렐파와 사마이파가 그러하였다.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그들이 지혜와 성별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뜻하였다. 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의 특정한 분파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유대교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금식, 기도, 구제, 이방인과 세리들과 접촉하는 것 등의 외적 의식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전통과 규례를 첨가하였고(마6:5; 9:11; 23:5; 막7:4; 눅18:12) 그래서 미신과 자기 의를 세우려는 형식의 틀에서 천주교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조문을 중시하였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으로 그 안의 영적 진리를 무시하였다(마5:31, 43; 12:2; 19:3; 23:23). 그들은 겉으로 경건하게 드러났고 거룩하게 보였으므로 보통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그들은 스토아학과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 규제되지만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믿었고 혼의 불멸과 몸의 부활을 믿었다(행23:8).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책망하셨으며(마6:2, 5; 23:1-39; 눅16:14; 18:9; 요7:48-49; 8:9) 이로 인해 그들은 처음부터 그분을 미워하고(마12:14)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했으며 그 결과 그분의 피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돌아갔다. 한편 그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시므온처럼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마27:57; 눅2:25; 요3:1). 다소의 사울 역시 회심 전에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행26:5; 갈1:14). 사두개인, 분파 참조.

● 바마(Bamah, 베이마) 산당(겔20:29). 이것의 복수형은 바못(Bamoth)이며 바못바알은 모압의 경계 근처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머물던 곳으로(민21:20; 22:41) 후에 르우벤 지파에게 배정되었다(수13:17). 물론 이곳에서 바알 숭배가 이루어졌고 사15:2에 나오는 산당들은 이런 곳을 의미했을 것이다. 산당 참조.

● 바메나(Parmenas, 파미나스,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선택된 일곱 명의 직무 수행자(대개 집사의 원형으로 여겨짐) 중 하나(행6:5).

● 바바리인(Barbarian) 그리스의 관용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예의가 있어도 다 바바리인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라는 표현에 나오는 바바리인은 모든 이방인을 가리킨다(롬1:14).

● 바벨(Babel, 베이블, 혼돈)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 이후 120년이 지나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지은 높은 탑.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말을 이곳에서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이곳은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창10:10; 11:9). 그들이 도시와 탑을 쌓은 것은 거기에 자리를 잡고 흠이되지 않으려 함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홍수 이후에 땅을 가득 채우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이 서로 다른 말을 쓰게 하시고 결국 온 세상으로 흠이지게 하셨다(행2:1-11). 탑은 완공되지 못했지만 기초는 놓였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 바빌론 도시를 세웠으며 결국 그 탑을 완공해서 벨루스의 탑이라 불렀다. 헤로도토스는 그곳을 방문해서 그것이 피라미드 형태이며 그것의 기초의 둘레가 0.8킬로미터 정도였다고 기록했다. 이 탑에서 벨 숭배와 점성술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유물이 거기에 보관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은 유물들도 여기에 보관되었다(대하36:7; 렘51:44). 느부갓네살 참조.

● 바보(Paphos, 페이파스) 키프로스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해양 도시. 여기에는 좋은 항구가 있었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 바울과 만나려는 여기사 복음을 선포하였다(행13:6-13). 엘루마 참조.

● 바빌로니아(Babylonia, 베빌로니아) 바빌론을 수도로 둔 지방. 이 유명한 지방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놓였으며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 남쪽에는 페르시아 만, 서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다. 고대와 현대에 티그리스 강의 동쪽 지역과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지역 그리고 이 두 강이 만나는 곳의 양쪽 지역은 바빌로니아 혹은 '이라크 엘라람'으로 인정되었다. 바빌론 제국 지도 참조(35).

고대에 이 지역의 이름은 사날이었고(창10:10; 단1:2) 나중에 바벨, 바빌론, 바빌로니아 등이 이 지역의 이름이 되었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이 지역의 대부분을 소유한 이후에 이곳은 갈대아로 불리기도 했다.

바빌로니아는 언덕이나 산이 거의 없는 평지로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범람으로 인해 기름진 퇴적물이 쌓여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다. 유프라테스 강은 4월 말부터 6월까지 평상시 수위보다 3.6미터 정도 높은 상태로 흘렀고 그 결과 그 주변의 초기 경작자들은 충분한 물을 이용해서 관개 시설을 개발하여 농업에 이용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바빌로니아에는 크고 작은 운하가 많았으며 아마도 이런 운하들은 시137:1에 나오는 강들일지도 모른다. 이런 운하들 외에도 이곳에는 여러 개의 큰 호수

가 있었고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는 바빌론이 많은 물을 위에 거한다고 말하였다(렘51:13).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 중 셈족에 속하고 그들의 말은 히브리어와 비슷하며 특히 갈대아말과 거의 비슷하였다.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은 주전 2000년경에 니므롯에 의해 설립되었고 바벨, 에렉, 약삭, 갈네 같은 도시들을 포함하였다(창10:10). 니므롯 참조. 주전 1237년경에 니누스가 니느웨를 지은 후에 이 도시는 아시리아 제국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바빌론이 명성에서 최고조에 이른 주전 606년경까지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 살았으며 복음의 초기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벧전5:13).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에 여러 개의 발전하는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탈무드 중 하나가 여기서 작성되었다. 갈대아 사람들 참조.



바빌론의 벽돌

● 바빌론(Babylon, 배빌런) I.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 원래 이곳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고대의 전설은 이것을 지지한다. 한편 어떤 이들은 나중에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나 혹은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세웠다고 말하는데 세미라미스가 고대의 도시를 재건하고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확장하고 잘 단장했다고 하던 이런 주장들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바빌론은 유프라테스가 비옥하게 만든 광활한 평야 위에 세워졌고 그곳의 성벽 둘레는 100킬로미터, 높이와 너비는 각각 90미터, 22미터였다고 한다(렘51:44-58). 또한 성벽 주변에는 깊은 도랑이 돌아가며 있었고 도시의 네 면에는 25개의 못 문이 있었으며 이렇게 정방형으로 생긴 도시 안에는 정원과 집이 매우 많았다. 느부갓네살의 궁궐은 둘레가 9킬로미터였으며 여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 정원이 있었다(단4:29-30).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서 바빌론은 최고의 영예

를 누렸으며 특히 천문학으로 유명했다. 위치적으로 바빌론은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를 오가며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일을 하기에 적합했고 그래서 상인들의 도시라 불렸다(사43:14; 겠17:4). 따라서 온 세상의 좋은 것이 거기로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대언자들은 그것을 '큰 곳',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 '왕국들의 귀부인'(사13:19; 47:5; 렘51:41; 단4:20)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부유함으로 인해 여기에서는 부패와 음란한 것들이 극도로 성행하게 되었고 벨, 느보, 네르갈, 메로닥, 속곳브눗 같은 우상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러운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언되었고 성경은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준엄함을 잘 보여 준다(사13:1-22; 14:22; 21:9; 47:1-15; 렘25:1-38; 50:1-46; 51:1-64).

바빌론은 영원히 세계의 수도로 남지 못했고 느부갓네살의 손자, 즉 벨사살이 통치하던 때에 고레스가 이곳을 점령하였으며 그리스 역사가들의 진술 역시 성경과 일치한다. 그 뒤부터 고레스가 수사를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만들면서 바빌론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바빌론은 한때 다리오 왕에게 반역하였으나 다리오는 다시 바빌론을 정복한 뒤 거기의 성문을 모두 부수고 성벽의 높이를 50큐빗 미만으로 줄였다. 페르시아 사람들과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통치하에서 바빌론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되었고 결국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거의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았다. 주후 4세기까지는 바빌론이 있던 곳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거기 거하였지만(벧전5:13) 그 이후부터 바빌론은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유적이 발견된 것도 약 3세기 전의 일이다. 비벨 참조. 바빌론의 붕괴와 멸망에 대해서는 이ша야 대언자의 예언을 참조하기 바란다(사13-14).

신약 성경에서 바빌론은 우상 숭배, 미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집단의 상징이 되기도 했으며(계14:8; 16:1-21; 17:1-18; 18:1-24)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 바빌론(로마)이 교황 체제를 가리킨다고 확신하였다.

II. 이집트에도 온(헬리오폴리스) 근방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었다.

● 바사바(Barsabas, 바사바스, 안식의 아들) I. 유스도라 하는 요셉. 그는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아마도 주님께서 파송하신 70명 중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는 가롯 유다를 대체하기 위한 두 명의 후보 중 하나였다(행1:16-26).

II.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 그는 대언자였고 실라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해서 안디옥으로 내려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다(행15:22-34).

● 바산(Bashan, 베이산) 요르단 동쪽의 비옥한 땅(민21:33). 이곳은 북쪽의 헤르몬 산과 남쪽의 길

르앗과 암몬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언덕이 많은 좋은 지역이었다. 가나안 족속들 지도 참조(16). 이곳의 토양은 부드럽고 좋아서 그 이름이 바산이 되었고 성경은 이곳의 초장에 대해 극찬한다: '바산의 숫양'(신32:14),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 곧 숫양과 어린양과 염소와 수소'(렘39:18). 바산의 상수리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함께 언급된다(사2:13). 여호수아 시대에 이곳의 주요 지역 중 하나인 아르곱에는 60개의 성벽을 지닌 고을이 있었다(왕상4:13; 참조 신4:43; 수20:8; 21:27). 바산은 모세가 육과 그의 백성을 섬멸한 뒤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곳을 넘겨주었고(수12:4) 솔로몬은 이곳에서 물품들을 가져왔다(왕상4:13). 이곳은 후에 시리아의 하사엘에게 정복되었으나 요아스가 회복했다(왕하10:33; 13:25).



는 유명한 바벨탑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탑의 꼭대기 방은 별을 관측하고 그 기록들을 담아 둔 곳이었다.

동방의 점성술에서 바알 숭배는 천체 숭배를 뜻하였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알이 태양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의 신 주피터라 불렀다. 그래서 주피터는 비너스와 함께 사람의 행운을 주관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그 관계가 바알과 아스다롯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바알의 형상들과 신전들은 대개 높은 곳에 있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의 두 뜰에 하늘의 군대 특히 아스다롯을 위한 제단들을 세웠다(왕하21:5-7). 예레미야는 지붕에서 바알에게 정배를 드린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주었으며(렘32:29) 요시아는 아하스가 자기의 궁전의 난간에 세운 이런 제단들을 파괴하였다(왕하23:12). 또 고대 사람들은 종종 인신 제물을 바알에게 드리기도 했다. 예레미야는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 헌물로 드린 유대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책망하였다(렘19:5). 몰렉 참조.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을 섬기는 일에 잘 빠졌다(민25:3; 사2:13-14; 3:7).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우상들을 제거했으며(삼상7:4) 이 일은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아합의 통치 때에 시돈 왕 옛바알의 딸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가 다시 크게 성행하였다(왕상16:31). 다른 단어들과 결합될 때 바알은 몇 개의 서로 다른 거짓 신을 나타낸다. '언약의 주'를 뜻하는 바알베릿(Baal-Berith)은 세계 사람들의 신이었고(삿8:33; 9:4), '브울의 주'를 뜻하는 바알브울(Baal-Peor)은 모압 족속의 우상이었으며(민25:3-5; 호9:10), '파리들의 주'를 뜻하는 바알세불(Baal-Zebub)은 에그론에 거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었다. 바알세불 참조.

II. 바알이라는 말은 우상과 관계없이 여러 장소의 복합어로 사용되었다.

● 바알갓(Baal-Gad, 베이갓갓, 갓의 주) 헤르몬 산 기슭의 레바논 골짜기의 도시. 이곳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인 최북단 도시이다(수11:17; 12:7; 13:5).

● 바알라(Baalah, 베이얼라, 바알의 집) 시므온의 고을(수15:29; 19:3). 이곳은 빌화로 불리기도 했다

● 바스(Bath) 히브리 사람들의 부피 단위. 이것은 6헌이며 약 22리터이다.

● 바스홀(Pashur, 패쉬허르, 호루스의 아들) I. 임벨의 아들. 그는 성전의 제사장이며 우두머리 감독이었고 대언자 예레미야를 심히 대적한 뒤 그를 때리며 차꼬를 채워 옥에 넣었다가 후에 주님의 저주를 받았다(렘20:1-6).

II. 말기야의 아들. 그는 대언자 예레미야의 원수였으며 그를 옥에 넣는 일에 적극 가담하였다(렘21:1; 38:1-6). 이 바스홀의 후손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렘59:12; 스2:38).

● 바아나(Baanah, 베이아나) 랍몬의 아들. 바아나와 레갑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섬기던 자들로서 다윗에게 보상을 얻을 줄 알고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갔다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삼하4:1-12).

● 바아샤(Baasha, 베이어샤) 아히야의 아들. 그는 이스라엘 왕 나담의 군대 대장이었지만 주전 953년경에 길브돈에서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죽인 뒤 왕국을 차지했다. 그는 왕상14:7-14에 예언된 대로 여로보암의 친족을 모두 죽였지만 우상 숭배와 극도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왕상15:1-34; 16:1-12).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언자 예후를 보내어 경고를 주셨고 이것은 그가 죽은 뒤 그의 가족이 몰살당함으로써 성취되었다(왕상16:12).

● 바알(Baal, 베이얼, 주) I.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페니키아 사람들(특히 두로 사람들)의 우상을 가리킨다. 바알 숭배는 아스다롯 숭배와 함께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합의 도시 사마리아에서 엄숙한 의식과 함께 도입되었다(삿6:25-32; 왕하10:18, 28). 아스다롯 참조. 바알의 복수인 바알들(Baalim)은 바알의 형상들을 의미했다(삿2:11; 10:10). 옛바알, 여름바알, 한니발 같은 이름들을 통해 바알 숭배가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지역에 널리 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한편 바빌론 사람들은 이것을 벨이라 불렀다(사46:1; 렘50:2; 51:44). 바빌론의 바알 숭배

(대상4:29).

● 바알랏(Baalath, 베이알래쓰, 여성 바알) 갖에게 속한 고을(수19:44). 이곳은 벳호론에서 멀지 않았다. 이곳이 솔로몬이 다시 지은 바알랏인지는 확실하지 않다(왕상9:18; 대하8:6).

● 바알리스(Baalis, 베이알리스)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갈 당시 암몬 족속의 왕. 그는 그 당시 유다 총독인 그달리아를 암살하려 하였다(렘40:14; 41:1-10).

● 바알므론(Baal-Meon, 베이알미언) 요르단 너머 르우벤의 지역 안에 있던 도시(민32:38). 이곳은 또한 벳므른 혹은 벳바알므른이라 불리기도 하였다(렘48:23; 수13:17).

● 바알브라심(Baal-Perazim, 베이알페라짐, 돌파구의 주) 터져 나온 곳. 이 이름은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싸움을 묘사하기 위해 다윗이 사용한 이름이다(삼하5:20; 대상14:11; 사28:21). 이곳은 예루살렘 남서부에서 멀지 않은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고 짧게 브라심이라 불리기도 한다.

● 바알세불(Beelzebub, 비엘제뱌, 마귀들의 통치자) 마12:24에 나오는 이 이름은 에그론 사람들이 섬긴 우상 신 바알세불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파리들의 주' 혹은 '파리 신'이라는 뜻이다. 그는 그 지역에 많았던 모기와 파리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 주는 자였다(왕하1:2-3, 16). 그것은 어떤 때에 바알세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똥 신을 뜻한다. 유대인들은 사탄이 우상 숭배 오염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를 부른 것 같다.

● 바알스본(Baal-Zephon, 베이얼지판) 고대 이집트의 마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곳을 마주 보고 또 이곳 앞에서 진을 쳤다(출14:2; 민33:7).

● 바알하술(Baal-Hazor, 베이얼헤이저르, 하술의 주) 압살롬이 자기의 양 떼를 치던 곳(삼하13:23). 이곳은 에브라임에 가까웠으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3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 바예수(Bar-jesus, 바르지이저스) 엘무라 참조.

● 바울(Paul, 포울, 작은) 이방인들의 유명한 사도. 그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사울이었으며 그는 행 13:13에서 처음으로 로마 이름인 바울로 나온다.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그 당시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으며 어쩌면 그의 친구이자 처음에 회심한 서기오 바울 총독을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했는지도 모른다(행13:7). 그는 갈리리아의 다소에서 출생하여 자기 아버지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물려받았다. 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므로 그를 히브리 사람 중의 히브리 사람으로 양육하였다(빌3:5). 그 당시 다소는 학문과 문화로 유명하였으며 바울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 뒤 그는 합당한 나이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지도

하에 교육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그는 다소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장막 만드는 일을 한 것 같다(행18:3; 20:34; 살후3:8).

그 뒤 그는 30세쯤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가말리엘에게 교훈을 받고 율법을 알게 되어 바리새파의 엄격한 제자가 되고 열렬한 유대교 수호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다(행8:3; 26:9-11). 그는 기적적으로 회심하였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부가 되었다(행9:22, 26).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행26:15; 고전15:8) 그는 그분에게 자기의 온 마음과 혼과 힘을 바쳤다.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였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며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하였다. 그는 기독교 정신이 순수하고 고상하며 그 안에서의 경배와 그로 인한 영향력이 실제로 강하고 분명함을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과 경배를 반대하고 이로 인해 자기 동포로부터 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다. 그들의 고소로 인해 그는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 뒤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다. 그 이후의 재판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가 2년 뒤 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옥에 갇혔고 결국 네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한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학문을 다 배웠고 그리스 문학에도 익숙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그리스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그리스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한 것 등에서 잘 드러난다(행17:28; 고전15:33; 딤펠1:12). 그러나 그리스 교육이 그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적 본질과 전 세계적인 우주관 등이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러한 신앙은 신실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다 순화하고 고상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랑을 직접 느꼈다(갈1:12).

대부분의 사도들과 교사들은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과 교리 등을 굳게 붙들었고 그런 교리 안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를 자기들이 간직한 토양 위에 접붙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에게는 유대교가 기독교라는 '새로 접붙여진 가지'를 지탱하는 그 루터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좁은 견해에서 벗어나 기독교가 전 우주적인 믿음 체계임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보인 듯하다. 다른 이들은 기독교를 새로 접한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 준수 등을 부여하려 하였지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보여 주었다(엡2:11-22). 그의 모든 수

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는 위선적 태도를 보이는 베드로를 서슴지 않고 책망하였다. 그가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와 로마에서 근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것도 결국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바울 사도는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였으며 그 대부분을 걸어서 다녔고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28장과 고후11:23-29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43). 그가 여행한 지역과 그가 회심시킨 사람들과 그가 세운 교회와 그가 참고 이겨 낸 고난과 노력과 수고와 그가 행한 기적과 기도를 변호하고 알리기 위해 그가 기록한 편지들과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기록한 선한 일과 순교자의 죽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바울의 성격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에 잘 드러나 있다. 이 편지들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한 사람을 변화시켜 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게 만든 힘,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희생하였다. 그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14편의 서신서를 기록하였고 이 안에서 기독교의 원리와 본질을 설명하였다.

● 바잇(Bajith, 베이지쓰) 모압의 선전이 있던 장소. 여기서 모압 왕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헛되이 간구하였다(사15:2).

● 바카(Baca, 베이카 눈물 혹은 애곡) 시84:6에 나오는 골짜기. 이런 이름을 가진 골짜기가 실제로 있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 있던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는 길들을 사랑했다. 비록 그들이 험하고 험든 길을 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거기에 가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요 기쁨이었으므로 그들은에게는 그런 곳이 이른 비를 맞아 축축하게 젖은 복의 땅과 다름없었다.

● 바후림(Bahurim, 바후림, 청년들) 베냐민의 마을. 이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요르단으로 가는 길에 있었으며 다윗의 역사에서 몇 차례 언급되었다(삼하3:16; 16:5; 17:18).

● 박하(Mint) 습기가 있는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쌍떡잎식물. 이것의 높이는 60-100센티미터이고 줄기는 단면이 사각형이며 표면에 털이 있다. 이것의 잎 표면에는 기름샘이 있어 여기서 기름을 분비한다. 박하는 대체로 온난한 기후에 알맞은 작물로서 멘톨의 함유량이 많은데 멘톨은 약용하거나 향료로 쓴다. 율법을 지키려 애쓰던 바리새인들은 박하의 십일조를 드렸다(마23:23). 십일조 참조.

● 반복(Repetitions)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교도들

이 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엄격히 꾸짖으셨다(마 6:7).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아직도 주기도문을 헛되이 반복하며 수도 없이 아베마리아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기도를 자주 반복하면 그 안의 효과가 크다고 느끼는데 이런 헛된 반복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잠28:9).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혼이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반복해서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창18:1-33; 마26:44; 눅18:13) 특히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중히 여기신다. 따라서 이득을 얻으려고 반복해서 헛되이 똑같은 구절을 외우는 것은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의 죄를 늘릴 뿐이다. 기도 참조.

● 반석(Rock) 굳은 바위.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반석이다(신32:31; 삼하22:2).

● 반셈족주의(Anti-Semitism) 이것은 보통 반유대주의라 불리며 주로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서 유대인을 배척하고 멸하려는 사상이다. 마귀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온다는 사실로 인해 고대로부터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을 핍박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은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유대인이 정착한 모든 지역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 로마 시대에는 주로 종교적 차이가 반유대주의의 근거였다. 이교도들은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우상 숭배 거부를 이해하지 못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로마에 뿌리를 둔 천주교회가 유대인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Christ Killers)이라고 가르치며 1,000년 이상 반유대주의의 씨를 뿌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천주교도들과 이교도들 그리고 심지어 루터 같은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큰 핍박을 받았다.

19세기부터는 민족주의로 인해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반유대주의가 발전해서 유대인들은 주거의 자유를 제한 받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히틀러 당시 반유대주의는 독일에서 맹위를 떨쳤고 범세계적인 반유대주의운동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희생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에는 아랍 사람들의 반유대주의가 발동하여 수차례 전쟁이 발생하고 많은 유대인이 죽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롬 11:29). 유대인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대인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창 12:3). 최근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제거 혹은 적대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론, 즉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가설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류주의 신학(세대주의 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다. 경륜 참조. 그러나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배척을 당하는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이다. 말세에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고 그들이 지기에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슌12:2-3). 이

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 교회, 나라,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시122:6).

● 반죽 그릇(Kneading troughs) 이스라엘 자손이 급히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묘사한 출12:34에는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백성이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댔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의 그릇은 조그만 나무 그릇이나 돌돌 말 수 있는 원형 가죽 그릇을 뜻한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두 종류를 사용한다.

● 반지, 고리(Rings) 귀와 코와 손과 다리와 손가락 등에 쓰인 장식품. 성경은 고대로부터 고리가 쓰였음을 보여 준다. 유다는 다말에게 반지를 남겼고(창38:18) 파라오는 요셉에게 총리직을 수여하면서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주었다(창41:42).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이긴 뒤에 적군에게서 빼앗은 반지와 팔찌와 목걸이 등을 주님께 바쳤다(민31:50). 이스라엘 여인들은 손가락뿐만 아니라 콧구멍과 귀와 발목 등에도 고리를 찼다. 팔찌 참조. 야고보는 손에 금반지를 낀 사람을 부자요 위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약2:2).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눅15:22). 반지는 서류나 문서 등을 봉인하는 인장 반지로도 사용되었고 그래서 통치자나 큰 사람은 이런 반지를 끼었다(왕상21:8; 예3:10; 렘22:24; 단6:17). 봉인 참조.



● 발(Foot) "그들의 발이 정해진 때에 미끄러지리라"(신32:35),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시121:3)와 시66:9, 렘13:16의 발과 관련된 표현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바위로 된 위험한 길의 상태를 잘 보여 준다. 사실 그런 길에서 넘어지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었다(사8:14; 눅2:34 등 참조). 발을 드러내는 것은 애곡의 표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울부짖는 것을 자제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애곡하지도 말며 네 발에 신을 신

으라."(겔24:17)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신을 벗는 것은 존경하는 것을 뜻했고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을 벗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신을 벗는 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한다.

동방의 정복자들은 정복당한 통치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수10:22-24; 시8:6; 사49:23; 고전15:25; 히2:8). 동방 사람들은 여행에서 돌아오는 타국인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다리를 내놓은 채 신만 신고 다니기 때문이다(창24:32; 43:24).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천사의 발을 씻겨 주었다(창18:4). 보통 이 일은 종들이 수행하였다. 아버가일은 자기와 결혼해 달라는 다윗의 청혼에 응하면서 왕의 종들의 발을 씻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들의 발을 씻길 종이라고 말하였다(삼상25:41). 사도 바울은 교회가 도와야 할 과부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는 덕목을 언급했다(딤후전 5:10).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겸손의 놀라운 교훈을 주셨다(요 13:5-8). 물론 8절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세속적으로 행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교회의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 발락(Balak, 베일락, 황폐하게 하는 자) 모압의 왕.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그들이 자기를 공격하여 시혼과 옥처럼 죽일 것을 염려하고 점쟁이 발람을 고용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으나 그 일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발람 참조.

● 발람(Balaam, 베일람) 유프라테스에 있던 브들의 점쟁이(민22:5).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무리를 보고 그들이 자기 나라를 칠까 봐 두려워서 초능력을 가진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에게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일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발람은 하나님께 여쭙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발락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자 그는 하나님의 승인 없이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경고를 받았는데 바로 이때에 발람의 나귀는 말을 했다(민22:22-35). 그는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하여 발락을 실망시키고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또한 발람은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하였으며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충고를 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또 바알의물을 숭배하게 하여 결국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다(민25:1-9; 31:16; 뱀후2:15; 유11; 계2:14).

발람은 썸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주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민22:18).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있었던 많은 거짓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곤경에 몰아넣은 악한 인물이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는 자기 뜻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의로운 자들의 행위를 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민31:8; 수13:22).

- 발 받침(Footstool) 사람의 발을 놓는 가구. 성경에서 이 말은 종종 메시아와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주 나온다(시110:1). 신약에는 이 구절이 무려 여섯 번이나 나온다(마22:44; 막12:36; 눅20:43; 행2:35; 히1:13; 10:13). 이것은 고대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장대방 왕을 잡아가다 발밑에 두고 발 받침으로 삼아 조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 밤(Night)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때에 하루가 시작되어 다음 날 저녁때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밤이 낮보다 앞선다. 이런 용례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온다(창1:5, 8, 13). 히브리 사람들은 낮에 열두 시간을 배정하였으나 이 시간들은 춘분과 추분이 되는 날 외에는 다 달랐다. 그래서 밤이 길 때에는 낮의 시간이 짧았다. 시각 참조. 시리아에서는 겨울의 밤이 대단히 추운 경우도 있으며 야곱의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창31:40).

- 밤빌리아(Pamphylia, 팜필리아) 소아시아의 한 지방. 이곳의 동서남북에는 길리기아, 루시아, 지중해, 그리고 비시디아가 있으며 이곳은 키프로스 반대편에 있었다. 밤빌리아의 주요 도시는 버가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였다(행13:13; 14:24).

- 밧단아람(Padan-Aram, 페이던에이람, 시리아의 길) 아람 혹은 시리아의 평야 지역(창25:20; 28:2; 31:18). 이곳은 간략하게 밧단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창48:7) 아람의 산들과는 대조가 되는 평야였다(민23:7).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참조.

- 밧뎀(Patmos, 패트머스)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유배되어 간 곳(계1:9).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바위로 된 섬으로 둘레가 45킬로미터이며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 죄수들을 유배 보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밀레도의 곳에서 64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현재는 소수의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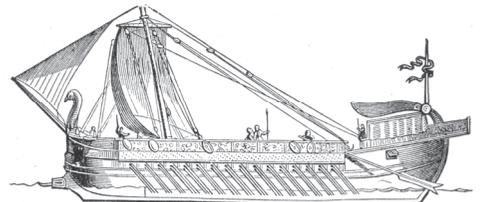
- 밧세바(Bath-sheba, 밧쉬바, 시바의 딸) 우리야의 아내. 그녀는 아마도 아히도벨의 손녀였을 것이다. 다윗은 먼저 그녀와 간음한 뒤 요압을 시켜 그녀의 남편을 죽이게 하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나 이런 죄악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는 대언자 나단을 보내서 어린 양양 비유로 그의 죄를 보여 주셨고(삼하12:1-14) 이에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벌을 받았다(삼하12:11-14). 밧세바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낳았고 그 이후에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성경에 언급

되었으며(왕상2:13) 시편 51편의 타이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이 나온다(마1:6).

- 방도(Way) 일을 하여 갈 방법과 도리.
- 방언(Tongues) 타 언어 참조.
- 방주(Ark) 노아의 방주 참조.
- 방증(Wantonness)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함.

- 방패(Shield)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백성의 방패로 불리며(창15:1; 시5:12; 84:11) 통치자나 위대한 사람들도 그렇게 불린다(삼하1:21; 시47:9).

- 배(Ship) 고대의 배는 지금의 배와 달리 부족한 것이 많았다. 항해사들은 별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해나 별을 보고 길을 가야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는 목적으로 가면서 적당한 곳에 들러 겨울을 나야 했다(행27:12; 28:11). 고대에는 대부분의 배가 작았으며 앞과 뒤에 장식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구별하게 하였고 또 노를 젓거나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였다. 대언자 에스겔이 묘사한 것처럼 페니키아 사람들은 배와 무역 등으로 유명하였다(겔27:1-36). 비록 율파와 그리스도 당시의 가이사랴가 항구이기는 했지만(대하2:16; 은1:3) 유대인들은 해양 민족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외국 항해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왕상9:26; 10:22; 22:49-50). 누가의 항해 일지는 고대 항해의 여러 면을 그림처럼 잘 묘사하고 있다(행27:1-44). 다시스 참조.



- 배상(Restitution) 잘못된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욥20:10, 18). 성경은 범법자가 잘못 취한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강조하는데 실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증거이다(출22:1-15; 느5:1-13; 눅19:8). 이렇게 회복하는 일은 완전하고 공정해야 하며 잘못 취한 것과 더불어 이자의 배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레6:1-6; 24:21). Restitution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행3:21)라는 구절에도 나오는데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자신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때로서 마19:28의 '다시 나게 하는 때'와 같다.

- 백단목(Almug) 솔로몬 성전과 그의 왕국의 기둥들을 짓기 위해 히람이 오빌에서 가져온 나무(왕상10:11; 대하2:8). 이 나무는 또한 약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다. 이것은 견고해서 캐비닛 작업을 하는 데 적합했고 아름다운 붉은색 염료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다.

● 백보좌 심판(White throne judgment) 흰 왕좌 심판 참조.

● 백부장(Centurion) 백 명의 군인을 다스리던 로마의 장교.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오며(막15:39; 눅7:1-10) 특히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첫 열매가 된 사람이었다(행10:1-48).

● 백합(Lilly)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종류의 백합이 있으며 이것들은 여행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향기를 주었다. 백합은 봄에 거의 모든 지방에서 피며 성전을 장식하는 데도 사용되었다(왕상7:19-26; 대하4:5). 백합은 아가서에서 특히 사랑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흔하게 신부와 신부의 아름다움을 뜻하였다(아2:1-2). 골짜기에서 자라는 백합으로 표현된 신부가 말하면(아2:1) 신랑이 답하고(아2:2) 신부가 다시 답했다(아2:3). 신랑의 입술은 백합으로 표현되었으며(아5:13) 그는 특히 백합 사이에서 먹이를 주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아2:16; 6:3)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뜻한다.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큰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도 그 꽃들 중 하나와 같지 못했다고 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창조물을 막이심을 분명히 보여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마6:28).

● 백향목(Cedar) 성경에서 크게 칭송을 받는 귀한 상록수(시92:12; 겔31:3-6). 이 나무는 크고 두꺼워져 높이가 30미터, 둘레가 10미터가 넘는 것도 있다. 이 나무는 레바논 산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자라지만 레바논 산의 나무가 가장 품질이 좋았다. 백향목은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멋있게 자라고 윗부분은 원추 모양을 이루며 이 나무의 모든 것은 발삼 향을 내므로 이 나무들이 있는 곳은 향기로 가득했고 그래서 거기서 걷는 일은 대단히 유쾌했다(아4:11; 호14:6). 백향목은 썩거나 벌레가 먹지 않으므로 목재로 적합했고 그래서 뱃목을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 널빤지로 많이 사용되었다.



에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 등은 모두 백향목으로 건축되었으므로 '레바논 숲에서 나무를 취해 만든 집'이라는 표현은 이 집을 지을 때 백향목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왕상7:2; 10:17). 한때 레

바논 산을 덮었던 백향목은 지금은 그리 많지 않다(사2:13; 10:19). 레바논 참조.

● 뱀(Serpents) 히브리 사람들은 뱀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레11:10, 41). 성경에는 Adder, Asp, Cockatrice, Viper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 종류의 독사가 나온다. 민21:1-35; 사14:29; 30:6에 나오는 불뱀은 독으로 인해 불같이 뜨거운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아라비아 경계에 날개가 달려 날아다니는 뱀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모세가 뿔로 만들어 장대에 단 뿔뱀은 그 자체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병을 고쳐 주었고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는 친히 그 뿔뱀이 자신의 예포라고 말씀해 주셨다(요3:14-15).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죄의 치명적인 독에서 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유대인들은 이 뿔뱀을 우상으로 숭배하였다. 느후스탄 참조. 히스기야는 이 유물을 완전히 멸하였지만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거짓 유물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다. 성경은 뱀이 교활하고 간사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창3:1; 마10:16; 23:33). 물론 우리는 뱀이 사탄 마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창3:13; 고후11:3; 계12:9). 사탄 참조.

● 뱀을 부리는 마법사(Charmers) 이들은 독사도 잘 길들이 재주를 부리게 하며 인도와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다(시58:4-5; 전10:11; 렘8:17).



● 버가(Perga, 페르가) 밤빌리아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행13:13; 14:25). 이곳은 해양 도시가 아니라 세스트루스라는 강에 위치한 도시였으며 이 근처의 산에는 다이애나의 신전이 있었다.

● 버가모(Pergamos, 페르거머스) 소아시아의 도시.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에베소 북방 160km, 서머나 북방 10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주전 5세기에 이미 잘 알려진 도시였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붕괴하면서 생긴 시리아 지역의 셀레우코스 왕조 때 이곳은 그 왕국의 수도였다. 그 뒤 주전 133년경에 시리아가 로마에 합병되면서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큰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이 도시는 문화의 도시로도 잘 알려졌

데 이곳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20만 권 이상의 양피지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었다. 후에는 이 책들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건네져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되었고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은 두루마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페르가메네'에서 나왔다.

한편 이곳은 종교의 중심지로서 주요 신인 제우스를 비롯하여 승리자 아테네, 지도자 디오니소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 더구나 이곳은 황제 숭배까지 성행한 곳으로 각지에서 오는 순례객들로 언제나 번잡하였다. 그러므로 이곳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도 이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신실한 자도 있었지만 니콜라당의 교리에 동조하는 자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상 숭배는 마귀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2:13에서 버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도시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임을 지적하셨다.

● 버니게(Bernice, 버니스) 헤롯 아그립바 1세의 큰딸, 작은 아그립바의 누이(행25:13, 23; 26:30). 그녀는 처음에 자기 삼촌인 칼시스 왕 헤롯과 결혼했으나 그가 죽은 뒤에 자기 오라비 아그립바와의 근친상간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길리기아의 풀레몬 왕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끝난 뒤에 그녀는 자기 오라비에게 왔다가 베스파시안과 티투스의 정부(情婦)가 되었다.

● 버드나무(Willow) 습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욥40:22; 사44:4). 하나님께서는 장막절에 좋은 나무의 가지들 특히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기뻐하라고 하셨다(레23:40).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사람들과 관련된 버드나무는(시137:2) 바빌론에서의 고통과 슬픔을 보여 주며 모압의 남쪽 경계에 있던 버드나무 시내(사15:7)는 사해의 남동부 끝부분으로 흘러 들어간다.

● 버림받은 자(Reprobate) 가치를 시험하는 일을 견디지 못하여 버림받은 사람 혹은 물건(렘6:30). 어떤 이들은 육신의 죄와 불신으로 인해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롬1:28; 딤후3:8; 딤후1:16).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영원한 형벌을 유기라고 부른다.

● 버시(Persis, 퍼르시스, 페르시아 여인) 바울이 문안한 로마의 여인(롬16:12).

● 버터(Butter) 버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대개 신 우유나 양진 우유를 뜻했으며(창18:8; 삿5:25; 욥20:17) 후자는 지금도 동방에서 좋은 음료로 이용된다. 이런 식의 버터는 대개 짐승의 가죽 부대에 우유를 넣고 장막의 막대기에 이것을 걸여 놓은 뒤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부대를 가꾸씩 툭툭 쳐서 우유가 왔다 갔다 하게 함으로써 만들어졌다.

● 번개(Lightning) 번개와 천둥은 종종 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낸다(삼하22:15; 욥38:35; 시18:14; 렘10:13).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시

내 산에는 천둥과 번개와 연기가 있었다(출19:16; 20:18).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림이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24:27). 하늘의 번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신다(욥38:35; 시144:6).

● 번성(Multiply) 많이 생겨 퍼짐.

● 번제 헌물(Burnt offerings) 태우는 헌물, 희생물 참조.

● 번홍화(Saffron) 분꽃과에 속한 빨간색 다년초(아4:14).

● 벌거벗다(Naked) 성경에서 이 말은 '완전히 옷을 입지 않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래서 요21:7에서 베드로는 어부의 덧옷을 벗고 속옷만을 입고 있었으므로 (벌거벗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사20:2; 미1:8; 행19:16 비교). 또 이 말은 가난함과 옷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뜻하기도 하였다(약2:15; 사58:7; 고후11:27). 국가가 재물이나 방위 능력을 빼앗길 때에도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되었다(창42:9; 출32:25; 대하28:19).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불법적인 성 접촉이나 근친상간의 성 접촉을 뜻하였다(레20:19).

● 벌레(Worm) 벌레는 포도나 식물을 황폐하게 하고 하룻밤 사이에 만나에도 생기며(출16:20) 헤롯 왕의 경우처럼 사악한 사람을 먹어 치우기도 한다(행12:23). 사람은 죄로 인해 약하고 더러워져서 벌레에 비유되기도 한다(욥25:6).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자기를 벌레라고 불렀다(시22:6). 지옥에는 뜨거운 불과 함께 불신자들의 벌레가 가득하다(사66:24; 막9:44-48).

● 범람(Overflow) 큰물이 넘쳐흐름.

● 범법(Trespass) 법을 어겨 범하는 것이나 죄의 경중 면에서 조금 가벼운 죄. 율법은 범법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상하고 제단에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요구하였다(레5:1-19; 6:1-7; 시51:4).

●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 기존 우리말 성경의 속전제. 희생물 참조.

● 범죄 혹은 실족(Offence) 원어에서 이 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법을 어기는 것, 즉 범법이고(롬5:15, 17) 다른 하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즉 실족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마5:29; 18:6-9). 후자의 경우 죄지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마15:12; 요6:61; 롬9:33; 갈5:11).

● 법규(Statute) 치리자나 정부가 만드는 법이나 명령. 성경에서 이 말은 특히 초자연적인 치리자이신 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포함하는 용어이다(신4:1; 5:1; 6:1; 7:11).

● 법도(Judgment)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른 판단의 규범. 우리말 성경에서 이것은 율법과 법규 그리고 명령 등과 함께 쓰일 때 규범으로 번역되었으나(신4:1; 5:1; 6:1) 많은 경우 원래의 뜻을 반영하여 판단이나 심판(재판)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말

이나(신5:1) 행동(출6:6; 계16:7) 혹은 널리 알릴 결정(시36:6) 등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 베가(Bekah, 비카) 반 세계(출38:26). 20세 이상이 되어 계수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반 세계의 세금을 냈다.

● 베가(Pekah, 피카, 열린 눈) 르말라의 아들. 그는 이스라엘 왕 브가하야의 군대 장군이었으나 그를 대적하여 반역하고 사마리아의 궁전에서 그를 죽인 뒤 20년 동안 통치하였다. 통치 후반부에 그는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과 연합하여 유다의 아사스 왕을 공격하였고 이에 아사스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 다마스쿠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점령되었고 요르단 동쪽과 갈릴리 바다 북쪽의 이스라엘 땅도 점령되었으며 그 안의 거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 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대적하며 음모를 꾸미며 그를 죽이고 통치하였다(왕하15:25-38; 16:1-9; 사7:1-25; 8:1-9; 17:1-14).

● 베개(Pillows) 동방 사람들은 응접실의 긴 의자에 베개들을 두었다. 겐13:18-19에 나오는 사치품 베개들은 안락과 관능미를 부추기는 물건들로서 사람의 양심을 잠들게 하는 물건의 상징이었다.

● 베나민(Benjamin, 벤저민, 오른손의 아들) 야곱과 라헬의 막내아들(창35:16-18). 라헬은 그를 낳은 뒤 곧바로 죽었고 마지막으로 그를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지닌 베나민으로 부르고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와 베나민의 형 요셉으로 인해 그를 매우 사랑했으며 그래서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낼 때에도 베나민을 보내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창42:38). 처음에 베나민 지파는 작았고 재판관들의 시대에는 사악한 행위로 인해 거의 멸절될 뻔했지만(산20) 그 뒤에 크게 되었다(대하14:8; 17:17). 베나민은 용맹스러웠으며(창49:27) 주님 곁에 거하면서 사랑을 받았는데(신33:12) 그 이유는 베나민의 영토가 유다와 닿아서 거룩한 도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베나민 지파 지도 참조(19, 24). 나중에 북쪽의 열 지파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베나민은 유다 지파에게 붙었고 그 이후로 두 지파는 항상 연합하여 유다는 베나민을 포함했다(왕상11:13; 12:21; 스4:1; 10:9). 사울 왕과 다소의 사울은 베나민 지파 출신이다(빌3:5).

● 베니게(Phenice, 피나이스) 크레타의 남단 부근의 도시. 이곳에는 항구가 있었으며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항해하면서 여기 근처까지 갔다(행27:12).

● 베다(Betah, 베타, 안전) 시리아 소바의 도시. 다윗은 이곳을 점령했으며 이곳은 디브핫이라 불리기도 했다(삼하8:8; 대상18:8).

● 베다니(Bethany, 벳타니, 가난한 자들의 집) 율리브 산 동쪽 능선에 있던 마을.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종종 이곳을 방문하셨다(마21:17; 막11:1, 12; 눅19:29).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자기들의 오라비 나사로와 함께 여기에 살았다(요11:1-57). 여기서 마리아는 주님을 장사하는 일을 대비하여 그분께 기름을 부었으며(요12:1-50)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신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곳 근처에서 승천하셨다(눅24:50).

● 베다바라(Beth-Abara, 벳아버라, 여울목이 있는 장소) 요르단의 동쪽 독에 있던 마을. 침례자 요한은 여기서 침례를 베풀었는데(요1:28) 아마도 이곳은 사7:24의 벳바라와 같은 곳일 것이다.

● 베테스다(Bethesda, 벳세즈다, 궁홀의 집)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언덕. 이곳에는 근처에 건축물이 있거나 혹은 그곳을 덮은 건축물이 있었으며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물의 효능을 얻으려고 나와서 거기 거했다(요5:2).

● 베드로(Peter, 피터) 이 이름은 그리스어로 작은 돌을 뜻하며 시리아어인 '게바' 역시 돌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열두 사도의 하나이며 시몬이라고도 불렀다(마16:17; 행15:14). 그는 갈릴리 벳새다 출신이며 요나의 아들로 어부였고 결혼한 뒤에 가버나움에 거하였다(마8:14; 눅4:38). 그는 종종 자기 아내와 함께 여행하며 사역하였으며(골9:5) 결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초대 교황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형제 안드레에 의해 예수님께 처음 소개되었으며 그분에게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1:42) 아마도 이것은 그의 담대하고 확고한 성격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자기 집 근처에서 두 번째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마4:18-20; 눅5:1-11). 그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사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온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 위를 걸었으며(마14:29)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였고(마16:16) 그분의 수난에 대해 잘못을 범하였으며(마16:22-23) 자신의 교사인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고(요6:67-69) 성급하게 말고의 귀를 베었으며(요18:10)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공언하고는 곧 그분을 부인하였고(마26:74; 막14:29; 요13:37-38) 곧바로 회개하였으며(마26:75)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곧바로 그를 용서하셨다(요21:15-18).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과 동반된 사건들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이후로 그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위한 진실한 사역자가 되었다. 오순절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으뜸 증인이 되었고 요한과 함께 성전 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으며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였다(행4:8-21). 그는 또한 성령님께서 거짓 말을 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으며(행

5:1-11)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였고(행8:5-24) 룻다에서 에니아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렸으며(행9:32-43) 읍바에서 환상 중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됨을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으며(행10:1-48) 헤롯 아그립바에 의해 옥에 갇혔다가 천사에 의해 구출되었다(행12:3-19). 그는 또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건전한 발언을 하였다(행15:7-11). 성경은 그 회의 이후의 그의 사역에 대해 잠잠하다.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지만(갈2:9) 같은 장에서 베드로가 행15:9와 어긋나게 위선을 범하자 그를 면전에서 심하게 책망하였다. 그는 고린도와 바빌론에서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고전1:12; 3:22; 뵤전5:13).

천주교인들은 그가 로마의 주교였고 초대 교황이라고 하되 모든 증거는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 준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곳의 주요 인사들에게 일일이 문안을 하였다. 또한 그는 여러 서신을 로마에서 기록하였다. 하지만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은 한결같이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있음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는 결코 로마의 주교가 아니었으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지상 교회의 수장 노릇을 하지 않았다.

● 베들레헬(Bethlehem, 베셀레헬, 빵의 집) I. 다윗과 그리스도의 출생지. 이곳은 유다 지파의 도시로서 예루살렘 남서쪽 10킬로미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역이 비옥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고대 이름은 에브랏인데 이는 열매가 많음을 뜻했다(창48:7; 미5:2). 이곳은 해발 800미터의 직사각형 산등성이에 놓여 있어서 모든 방향으로 좋은 경치를 제공했고 그 주위의 언덕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몬드나무 등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 주위의 골짜기에서는 여러 곡물이 재배되었다. 르호보암이 이곳을 강화하기는 했지만(대하11:6) 이곳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다(미5:2). 그래서 여호수아나 느헤미야는 유다의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이곳을 넣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었고 이곳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출생지가 되었다(삼상17:12, 15; 20:6; 삼하23:14-17).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다윗이 자기 양 떼를 돌보던 곳에서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왕의 왕께서 태어나셨다. 한편 여기서 북쪽으로 800미터 떨어진 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창35:16-20).

II. 스블론에 속한 지역(수19:15; 샯12:10). 이곳과 구분하기 위해 보통 다윗의 도시는 베들레헬유다라 불렸다.

- 베라(Bera, 비라) 아브라함 당시 소돔의 왕(창14:1-24).
- 베레스웃사(Perez-Uzzah, 피리스어자) 웃사 참조(삼하6:8).
- 베레아(Berea, 버리아) 마케도니아의 도시. 에게

해 지도 참조(41).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75킬로미터 서쪽에 위치한 이곳으로 몸을 피한 뒤 성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그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비교하여 바울의 말을 확인함으로써 고귀한 자들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행17:10, 14; 20:4).

● 베로대(Berothai, 버로짜이, 우물들) 다윗이 정복한 시리아의 도시(삼하8:8; 대상18:8; 켈47:16).

● 베섹(Bezek, 비제크, 번개) 가나안의 도시. 한때 아도니베섹이 이곳의 왕이었으며 유다가 이곳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샯1:1-8에 나온다. 사울은 야베스길르앗을 포위하러 가기 전에 여기서 자신의 군대를 점령했다(삼상11:8).

● 베셀(Bezer, 비저르, 접근할 수 없는) 도피 도시. 이곳은 요르단 너머 르우벤에게 속한 평야 지방의 도시로서 도피 도시 중 하나였다(신4:43; 수20:8; 21:36).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 베스도(Festus, 페스터스) 벨릭스의 뒤를 이은 유대의 총독. 그는 주후 60년경에 유대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바울을 정죄하라는 탄원을 받았으나 로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가이사라에서 그들의 고소를 듣겠다고 말했다. 닷새 뒤에 바울의 말을 듣고 그를 고소하는 내용이 알게 된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받을 것을 제안했으나 바울은 카이사르에게 갈 것을 구하여 유대인들의 박해와 베스도의 나쁜 의도를 피했다. 베스도는 그 뒤에 자기의 총독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아그립바 왕에게 이 일을 설명하고 그 앞에서 다시 한 번 청문회를 열어 그를 로마로 보내는 이유를 적으려 했다.

- 베옷(Sackcloth) 상복 참조.
- 베일(Veil) 고대 동방의 여인들의 얼굴 가리개. 그들은 자기 남편과 가까운 친족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를 위해 베일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베일을 걷어 올리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었다(창24:65; 아5:7; 고전11:5, 10).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는 모든 여인이 베일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창12:14-15; 24:16, 창38:14-15; 잠7:13 비교). 아비멜렉 참조.

● 베에못(Behemoth) 욥40:15-24에 묘사된 대형 짐승. 이것은 소처럼 풀을 먹으며 꼬리가 백향목 같고 뼈가 쇠막대기같이 강한 짐승으로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며 - 즉 땅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짐승이며 - 강을 들이마실 정도로 큰 짐승으로 브론토사우루스 같은 공룡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성경은 이 짐승을 하마로 오역하였다. 용 참조.

● 벤하닷(Ben-Hadad, 벤헤이렛, 하닷의 아들) I.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왕. 그는 유다 왕 아사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왕 바사사와 전쟁을 하였고 납달리의 큰 지역을 초도화시켰다(왕상15:18-22).

II. 위의 벤하닷의 아들. 그는 2년 동안 계속해서 큰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아합과 싸웠지만 골짜기와 평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참패를 당했다(왕상20:1-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그를 용서하고 화친하였으나 그의 화친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3년 뒤에 생긴 전쟁에서 그는 죽임을 당했다(왕상22:1-53). 그 뒤 9년 뒤에 벤하닷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엘리사는 그의 계락을 물리쳤으나(왕하6:8-23) 그는 또 전쟁을 일으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그의 군대에게 두려움을 보내시자 그들은 도망갔다(왕하6:17; 7:6; 잠28:1). 죽기 전에 그는 아픈 상태에서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어 무엇이 문제인지 묻게 했으며 이에 대언자는 그 병이 죽을병은 아니지만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결국 하사엘이 침상에서 자기 주인을 질식사시켜 죽임으로써 그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왕하8:7-15).

III. 위에 나온 하사엘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극도로 확대하고 압제했으나 그는 요아스에게 세 번 패함으로 자기 아버지가 모은 것을 다 잃게 되었다(왕하13:1-25).

● 벵(Beth, 벵, 집) 여러 지역의 이름에서 접두어로 사용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장소나 거처를 의미했다.

● 벵갈(Beth-Car, 벵카르, 양의 집) 미스바 근처에 있던 단 지파의 마을. 이곳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멸하고 에베에셀 돌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삼상7:11).

● 벵니므라(Beth-Nimrah, 벵니므라, 표범의 집) 갓에게 속한 마을(민32:3, 36; 수13:27). 이곳은 요르단 동쪽에 있었으며 다른 곳에서는 니므림이라 불렀다(사15:6; 렬48:34).

● 벵브울(Beth-Peor, 벵피어르, 브울의 집) 모압의 마을.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아서 르우벤에게 배정한 곳으로(수13:20) 비알브울 승배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이 근처의 골짜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알려 주었고 주님께서는 손수 그를 묻으셨다(신4:44-46; 34:6).

● 벵세메스(Beth-Shemesh, 벵세메쉬, 태양의 집) I.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에게 준 유다의 도시(수21:16; 삼상6:15; 대상6:59).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단과 블레셋 족속의 경계 근처에 있었다(수15:10; 삼상6:12). 아마도 수19:41의 이르세메스는 이곳과 같은 곳일 것이다. 이곳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워서 아마사가 패한 것으로 유명하며(왕하14:12-14)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장소로, 그 궤를 더럽게 한 사람들이 큰 벌을 받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삼상6:1-21). 분단 왕국 지도 참조(31).

II. 이집트의 유명한 도시(렬43:13).

● 벵술(Bethzur, 벵저르, 바위의 집) 헤브론 근처에 있던 유다의 산간 도시(수15:58). 르호보암은 이곳을 강화하였고(대하11:7) 느헤미야 시대에 이곳의 치리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도왔다(느3:16).

● 벵스안(Beth-Shean, 벵쉬언) 므낫세에게 주어 진 도시. 요르단의 서부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이곳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끝부분에 위치했으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다(수17:11, 16; 사1:27). 사울 왕의 죽은 몸은 이곳의 성벽에 묶여 있었다(삼상31:10, 12; 삼하21:12; 왕상4:12).

● 벵아벨(Beth-Abel, 벵아르벨) 한 곳은 갈릴리 바다의 남동쪽 40킬로미터에 있었고 다른 곳은 갈릴리의 막달라 근방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새의 굴들이 있었다(호10:14).

● 벵아벤(Beth-Aven, 벵에이븐, 속이는 집) 벵엘 동쪽에 위치한 사막이나 장소(수7:2; 18:12; 삼상13:5; 14:23). 벵아벤에 금송아지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곳은 벵엘을 대신해서 수치스러운 용도로 거명되었는데(호4:15; 10:5) 벵엘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벵아벤은 '죄 혹은 우상의 집'을 뜻한다.

● 벵엘(Bethel, 베셀, 하나님의 집) 아이 서쪽의 도시. 이곳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으며(창12:8; 28:10-22)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여기서 꿈을 꾸고 루스라는 이름 대신 이곳을 벵엘이라 불렀고(삿1:23)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다시 그곳에 장막을 쳤다(창35:1-15). 여호수아가 이곳을 점령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으나(수12:9; 18:22)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다(삿1:22-26). 언약궤와 (성막이)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며(삿20:27; 삼상10:3) 사무엘은 여기서 순회 제단을 열었다(삼상7:16).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곳은 심각한 우상 숭배 분거지가 되었다. 여로보암은 이곳이 예전에 거룩한 곳이었으므로 이곳에 금송아지 두 마리 중 하나를 놓았고(왕상12:29) 그래서 대언자들은 벵엘을 대적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왕상13:1-2; 렬

48:13; 암3:14; 7:10) 요시아 때에 이런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왕하23:4, 15). 또 그 뒤에 벨엘의 황폐로 인해 다른 말씀들도 성취되었으며 그 결과 거기에는 폐허만 남게 되었다.

● 벧여시못(Beth-Jeshimoth, 벧제쉬마쓰, 사막의 집) 모압 족속에게서 빼앗은 르우벤의 도시(민33:49; 수12:3; 13:20). 포로 생활 이후에 아모리 족속이 그곳을 다시 빼앗았다(겔25:9).

● 벧학게렘(Beth-Haccerem, 벧해커렘, 포도원의 집) 드고아와 벧들레헨 사이의 마을(느3:14; 렘6:1).

● 벧호글라(Beth-Hoglah, 벧하글라, 자고새의 집) 유다의 경계에 있던 베나민의 마을(수15:6; 18:19, 21).

● 벧호론(Beth-Horon, 벧호란, 굴들이 있는 집) 베나민의 북서부 귀퉁이에 있던 두 인접 도시. 이것들은 보통 '위 벧호론'과 '아래 벧호론'으로 구분하며 이 둘 사이에는 조그만 골짜기가 있었다. 위 벧호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0킬로미터 떨어진, 돌 많은 산등성이에 있었다. 이 도시는 해안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었으며 여호수아는 이 길을 따라 내려가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고 바울은 밤에 안디바드리로 가기 위해 이 길을 지났다(수10:1-11; 행23:31-32).

● 벨(Bel, 벨) 바빌론 사람들의 주요 우상.

● 벨트사살(Belteshazzar, 벨세자르, 벨의 통치자) 갈대아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름(단1:7; 4:8).

● 벨렉(Peleg, 피일렉) 에벨의 아들. 그는 썸의 사 대손이며 그 당시에 땅(지구)이 나뉘었으므로 벨렉이라는 이름을 받았다(창10:25; 11:16).

● 벨리알(Belial, 비일리얼, 가치가 없음) 이것은 대개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악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 즉 반역하는 자,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삿19:22; 삼상2:12). 나중에 이 말은 사악한 주(主), 즉 사탄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다(고후6:15).

● 벨릭스(Felix, 필릭스, 행복한) 유대를 다스린 로마의 총독. 그는 원래 노예였으나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가 그를 석방하고 승진시켰으므로 클라우디우스라는 이름을 지녔다. 그는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젊은 아그립바의 누이 드루실라를 유혹하여 그녀와 결혼하였다. 총대장 루시아가 바울을 가이사사로 보내었으므로 벨릭스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무죄임을 확신하였지만 그림에도 바울의 친지들이 뇌물을 주고 그를 데려가기를 바라면서 풀어주지 않았다. 바울은 그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숙함과 최후의 심판 등에 대해 담대하게 말했지만 벨릭스는 염려해서 그를 다시 가두고 자기 속사람의 확신을 억눌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주후 60년에 그는 로마로 돌아가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을 풀어 주지 않았다. 그 뒤 그는 자신의 실정(失政)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자신의 형제 팔라의 도움으로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행23:26; 24: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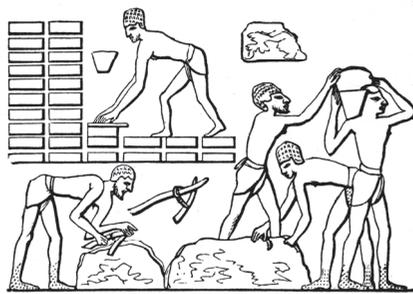
● 벨사살(Belshazzar, 벨세저, 벨이 왕을 보호한다)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며 바빌론 왕국의 마지막 왕(단5:1-2; 7:1; 8:1).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 관능적인 쾌락을 추구했음을 보여 준다. 그는 자신의 처첩들과 귀족들과 더불어 술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고 이때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기록하였다(단5:25). 성령은 이때에 벨사살의 안색이 변하고 허리뼈 마디들이 풀어지며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기록한다(단5:6). 바로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의 군대가 바빌론을 취하고 그를 죽였다.

● 벧바게(Bethphage, 벧퍼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베다니 근처의 마을. 이곳은 올리브 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였다(마21:1; 막11:1; 눅19:29).

● 벧새다(Bethsaida, 벧씨어다, 고기 잡는 곳) I. 갈릴리의 도시.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이곳은 가버나움에서 조금 북쪽으로 게네사렛 호수의 서부 기슭에 있었으며 사도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며 주님도 여기를 자주 방문하셨다(마11:21; 막6:45; 8:22).

II. 요르단 동부의 도시. 이 근처에서 주 예수님께서 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다(눅9:10; 비고 마14:13-22; 막6:31-45). 이 지역은 사분 영주 빌립이 확장해서 아우구스투스의 딸 줄리아를 기념하기 위해 줄리아스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곳과 위의 벧새다가 같은 곳이라고 믿는 견해도 많다.

● 벽돌(Bricks) 벽돌은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 해 아래에서 말려 단단하게 했으며(창11:3) 어떤 경우에는 벽돌 가마를 사용하기도 했다(삼하12:31; 나3:14). 바벨탑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벽돌은 대개 가로세로 30센티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졌으며 바빌론과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벽돌에는 왕이나 제사장의 스템프가 찍혀 있다. 벽돌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은 이집트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벽돌 만드는 일로 이집트 왕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집트의 유적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당한 모든 일, 즉 벽돌을 나르고 굽고 진흙을 이기고 말린

일이 그림으로 새겨져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일은 대부분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진흙에 짙을 섞으면 단단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벽옥(Jasper) 불순물인 산화철을 함유한 석영의 일종. 이것은 산화철의 종류에 따라 녹색, 적색, 갈색 또는 황색을 띠며 거의 모두 불투명하다. 또한 흔히 여러 색이 섞여서 얼룩점을 나타내고 줄무늬 모양을 가진 것도 있다(출28:20; 계4:3; 21:11).

● 변호사(Advocate)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변호하는 사람. 실제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까지는 이런 직책이 없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재자 예수님에게 적용되며(요일2:1; 비고 롬8:34; 히7:25) 우리의 교사로 위로자이신 성령님에게도 적용된다(요일4:16; 15:26).

● 변형 혹은 변화(Transfiguration)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일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헤르몬 산이나 다른 산에서 일어났다(마17:1-9; 베히후1:16-18). 이때에 주님의 옷과 형체는 완전히 영광 중에 있었고 울법과 대언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복음을 대표하는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속죄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조화를 증명하였고 이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그분께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신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 준다.

● 별(Star) 히브리 사람들은 해와 달을 제외한 모든 천체를 별이라 부른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전지하심에 대해 말하면서 “그분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한다(시147:4). 이는 곧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의 모든 별의 수를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동이 뜨기 전에 맑게 빛나는 새벽별 혹은 새벽별이라고 불리신다(계22:16). 성경은 크게 변창하는 것의 상징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예로 든다(창15:5; 22:17; 26:4; 출32:13). 불명예와 재난의 시대에는 하늘의 별이 빛을 발하는 것을 멈추고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사라진다. 유대와 동방의 청명한 밤에 뜨는 별들은 참으로 큰 영광과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주며 그것들의 순환 회로는 경이 그 자체이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별을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였으나 성경은 이것을 엄격히 금한다(렘10:2). 우상 숭배 참조.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유대인들과 다른 이교도들도 메시야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을 바라고 있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메시아 사상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쪽의 지배자들(박사들)은 유대에서

신성한 인물이 태어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적적으로 하늘의 별에 의해 그분이 계신 곳까지 인도를 받았다(마2:9).

● 별세(Decease)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가리키며 눅9:31에 1회 사용되었다.

● 병(Vial) 계5:8; 15:7; 16:1-17에 나오는 병(瓶)은 그리스어 ‘피알레’에서 나온 말로 위가 열리고 목이 길며 좁아서 액체를 한 곳에 집중해서 부을 수 있는 그릇을 뜻한다. 그러나 정확한 형태가 묘사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호리병이나 플라스크 형태 혹은 대접으로 추정한다.

● 병거(Chariots) 성경은 두 종류의 병거에 대해 말한다. 하나는 왕이나 장군 혹은 귀인들이 타던 수레이고(창41:43)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적군의 한가운데로 파고들면서 바퀴의 뾰족한 부분이나 병거에 달린 갈고리 등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데 사용된 무장 수레이다. 그래서 ‘철 병거’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호수아가 메롬 물가에서 무찌른 가나안 족속들은 기병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고(수11:4; 삿1:19) 또 야빈 왕의 장군 시스라는 900대의 철 병거를 소유했다(삿4:3).



● 병 고침(Healing) 병 고침, 즉 치유의 선물(은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는 일은 다르다. 치유의 선물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체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것을 뜻한다.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능력을 지녔으며 그들은 온갖 종류의 병자들에게 나아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그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치유의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따라서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자가 진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기적적인 능력의 일부이다(히2:3-4). 그러나 치유의 선물도 다른 기적들처럼 성경 역사의 어느 특정한 때에 일어난 표적이었으며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병이 났을 경우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유의 선

물(은사)을 소유한 자는 거의 없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치유의 선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역이 마무리될 무렵 성령이 완성되면서 자기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사인 에바브로디도를 고칠 수 없었고(빌2:25-27) 또 선교 여행 때 자기와 동행한 드로비모를 고치지 못하고 아픈 채 밀레도에 남겨 두었다(딤후4:20).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 디모테를 고칠 수 없었고 대신 일반적인 처방을 디모테에게 권했다(딤후5:23). 심지어 바울은 자신도 고칠 수 없었다(고후12:7-10).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적절한 약을 사용했다.

바울이나 다른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본이 된다. 즉 아프면 기도하고 의학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약5:14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역시 병든 그리스도인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처방으로 기쁨을 바를 것을 가르친다. 이때 기쁨을 바르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의학적인 처방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쁨을 바른 것은 치료를 위해 몸을 묻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또한 성도들이 치유의 선물(은사)을 바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확실하게 고쳐지는 것은 내세의 약속이다(롬8:23).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것이며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죄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말세에 여러 가지 기적들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살후2:9-10) 사탄 마귀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할 수 있기에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고후11:14-15).

치유의 선물은 표적 선물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자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일이 끝나자 치유의 선물은 곧 사라지게 되었다. 바울의 예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더라도 치유의 선물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더라도 치유의 선물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시대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 기도와 의학적인 처방을 의지해야 하며 이것만이 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이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사 자신의 뜻 안에서 기적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으며 지금도 고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선물(은사)을 받아 병자에게 손만 대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적, 선물, 타 언어 참조.

● 병약(Infirmity) 병들어 약한 것.

● 보고(Treasury) 귀중한 물건을 간수하여 두는 곳. 특히 성전의 보고는 유대인들의 봉헌물이나 십일조 등을 받는 곳으로 단순한 현금함이 아니다(막12:41; 눅21:1).

● 보chim(Bochim, 보킴, 애곡하다) 길갈 근처의 장소. 주님의 천사가 여기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자 그들은 소리 내어 울었다(삿2:1-5).

● 보디발(Potiphar, 포티퍼, 태양에게 속한) 이집트 파라오의 관리. 그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사서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였고 후에는 거짓 고소로 인해 그를 옥에 넣었다. 어떤 이들은 보디발이 감옥에서 요셉을 승진시킨 호위대 대장이라고 말한다(창37:36; 39:23).

● 보디베라(Potiphara, 포티페라, 태양에게 속한 자) 이집트의 태양의 도시 온의 제사장. 요셉은 그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였다(창41:45).

● 보루(Bulwarks)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진지(신20:20; 대하26:15).

● 보리(Barley)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을에 심어 봄에, 즉 4월의 유월절경에 거둔 작물. 히브리 사람들은 종종 보리빵을 사용했고(삼하17:28; 왕하4:42; 요6:9) 보리는 또한 짐승의 양식으로도 사용되었다(왕상4:28).

● 보복(Revenge) 앙갚음. 구약 시대 사람들은 보복하며 살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지어 원수들도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셨다(눅6:27). 피의 복수자 참조.

● 보블리오(Publius, 퍼블리어스, 백성에게 속한 자) 멜테 섬의 주장. 사도 바울은 파손을 당해 이 섬에 도착하였는데(행28:7-9) 그는 사도와 그의 무리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큰 인정을 베풀었고 이때에 그의 아버지와 질병을 앓던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 섬에서 석 달을 지냈으며 떠날 때에 섬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다.

● 보상(Reward)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것을 갚음.

● 보스라(Bozrah, 바즈라, 접근할 수 없는) 에돔의 도시(창36:33; 사34:6; 63:1)와 그곳의 주변 지역(렘49:13, 22). 이곳은 데만과 홍해와 관련이 있으며(렘49:20-22; 암1:12) 모압의 보스라도 이곳과 같은 곳일 것이다(렘48:24).

● 보습(Plowshare) 땅을 갈아 흫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농기구. 이것은 삼 모양의 쇠조각으로 쟁기나 극쟁이의 술바닥에 맞추어 끼우는 도구이다(사2:4; 율3:10; 미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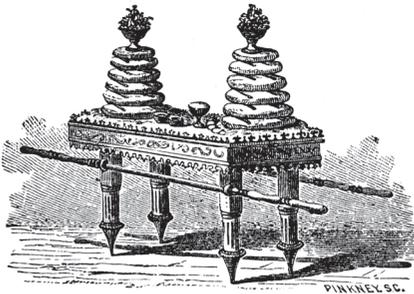
● 보아너게(Boanerges, 보아너지스, 천둥의 아들들) 주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친히 주신 이름(막3:17). 아마도 그들의 복음 선포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지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 것을 주님께 요청한 것에서 이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눅9:53-54).

● 보아스(Boaz, 보아즈, 살아 있는) I. 유다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사람(룻2:1). 그는 유대인들의 왕

들의 직계 조상이며(마1:5) 롯에게 베푼 친절을 볼 때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롯이 요청한 대로 자신을 그녀의 남편의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만들고 레위 율법에 따라 이 가련한 이삭 줍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는 오벳의 아버지가 되었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다. 롯의 이야기는 인위적이며 물질적인 호의가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 위에 서지 못하던 때에 아주 단순한 사랑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II. 보아스는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주랑에 세운 두 개의 돛 기둥 중 하나의 이름이다. 다른 하나의 이름은 야진이며 이것들은 높이가 10미터 정도 되었다(왕상7:15-16, 21).

● 보여 주는 빵(Showbread) 하나님을 위해 매 안식일에 지성소 앞에 있는 금으로 만든 상에 바친 빵(출25:30). 제사장은 이때에 소금 및 향과 함께 말효되지 않은 빵 12개를 드렸다(레2:13; 24:5-9).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주는 빵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빵(마6:11)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는 빵이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으나 다윗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이것을 얻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었으며(삼상 21:1-6) 주님께서는 이 예를 사용해서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비벼 먹은 제사자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보여 주셨다(마12:1-4). 빵 참조.



● 보음(Reward or Recompense)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선악이 대갚음되는 것.

● 보존(Preservation)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영감을 주신 성경기록을 자신의 섭리로 완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사40:8). “주의 말씀

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성경의 보존 선도 참조(91).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말씀을 보존시켰다고 약속하셨다(마5:18; 24:35). 그러므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완전한 성경기록을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완전한 보존’이 없는 ‘완전한 영감’은 의미가 없다. 이 점에서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성경, 계시, 영감 참조.

● 보증(Earnest)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약정물이나 빚을 다 갚겠다는 확증서 혹은 어떤 것을 사겠다고 약속하며 처음에 주는 보증금 혹은 종을 고용할 때 처음에 주는 임금.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복을 확신시키시기 위해, 그 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주시는 선물이다(고후1:22; 5:5; 엡 1:13-14).

● 보한(Bohan, 보한, 엄지손가락)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 보한의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 표시가 되었다(수18:17).

● 복(Blessing) 복을 빌거나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자신의 복을 효과 있게 만드는 효력을 부여하신다. 그분의 복에는 잠정적인 것,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등이 있으며 이 복에는 항상 그분의 선하심이 함께한다(민6:23-27).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경우에는 신:1:1-29; 33:1과 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대언의 말씀이 아닌 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사람의 축복은 만물의 창조자께서 그렇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뿐이다. 한편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서 대개 ‘찬송하다’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분의 공훈로 인해 그분께 감사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시103:1). 의식주를 주시는 그분의 공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시 103-104) 또 주님의 만찬에 드러난 그분의 특별한 공훈로 인해서도 감사를 드린다(고전10:16). 문안 참조.

● 복수하는 자(Revenger) 혹은 피의 복수자는 유대인들의 정치 체제하에서 자기 친족을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살인한 사람이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으면 도피 도시로 피신하여 살 수 있었다. 도피 도시 참조.

● 복음(Gospel) 복된 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신 계시요 경륜이다. 성

경은 '왕국의 복음'(마24:14),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행20:24),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롬1:16; 10:15) 등을 제시한다. 한편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기도 한데(딤후1:11) 이는 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삶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과 교리 등을 자세히 보여 주는 책들을 우리는 보통 복음서라고 하며 여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있다.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예수님의 교리와 행적을 담고 있는 몇몇 책들로 받아들였다. 정경 참조.

성경에는 또 가지 복음이 나와 있다. I. 왕국(王國)의 복음. 마24:14에 나오는 이 복음은 눅1:32-33에 예언된 것으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실 지상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다. 성경에서 이 복음은 두 번 선포되었다. 처음에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함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끝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서 휴거받은 이후에 이 왕국의 복음은 다시 선포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마24:14에 있는 예언, 즉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즉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말씀의 성취이다.

이 말씀은 현재 각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것으로 왕국을 건설할 때가 임박했음을 통보하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7년 환난기에 선두 주자 엘리야와(말4:5-6)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들 -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십사만 사천 명 - 이 선포할 것이며 그것의 목적 중 하나는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 참조.

II.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행20:24에 나오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롬1:1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요3:16). 이 복음의 성격은 은혜이고(행20:24) 주체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롬1:16; 고후10:14)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이 복음은 화평

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혼에 화평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엡6:15). 한편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도 하는데(고후4:4; 딤후1:11) 그 이유는 이 복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특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었으며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주시는 주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복음이기 때문이다(히2:10). 이 복음은 그분의 제림과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종교와 복음선도 참조(86).

III. 영존하는 복음. 계14:6에 나오는 이 복음은 계시록에서 일곱 금병의 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한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이다. 이것은 천사에게 맡겨진 유일한 복음으로 하늘의 왕국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도 아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다(계14:7). 이 복음은 7년 환난기의 심판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터인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이 곧 끝날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한다. 족장들과 대인자들이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 왔다. 이 복음은 영생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모두 구원한다는 의미에서의 영원한 복음이 아니다. 또한 이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혹은 "이것을 하라." 또는 "저것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단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이 왔으니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는 것이다.

IV. 다른 복음. 갈1:6-12; 고후11:4는 위의 복음들 이외의 다른 형태의 복음이 있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된 복음을 왜곡한 것으로 여러 가지 유희하는 형태를 취하며 주로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에는 무언가가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다(골2:18-23; 히6:2). 그러나 이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갈1:8-9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설교자들과 교사들을 강하게 저주하였다.

● 복음 전도자(Evangelist) 글이나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초기에는 지금의 선교사들과 비슷하게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선포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으며 빌립이 이런 부류에 해당된다(행21:8; 엡4:11).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권하는데(딤후4:5) 그 이유는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본도(Pontus, 판투스, 바다) 소아시아의 북동부 지방. 이곳은 왕과 차치 정부가 있었으나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 정복되어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여

기에는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였고 그들은 종종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행2:9).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었고(행18:2) 초기부터 복음은 이곳에 선포되었다(벧전1:1).

- 본보기(Ensample, example) 이 말은 양식 혹은 모방을 뜻하며 우리말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본보기나 본으로 번역되었다(요13:15; 고전10:6, 11; 히8:5; 딤후4:12). Ensample과 example은 같은 뜻이지만 전자는 대개 좋은 본보기를 지칭한다.

- 본향(Country) 사람의 본고향.

- 봉인(Seal, Sealing) 성경에는 봉인과 관련된 구절이 많다. 봉인은 쉽게 말해 도장을 뜻하며 도장을 포함하는 인장 반지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쓰였으며 여러 종류가 있었다. 어떤 것은 서명하는 사람이나 소유주의 이름을 적는 것을 대신하여 쓰였으며 문서의 경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것들이 사용되었다. 개인의 봉인은 주로 손가락의 반지나 손목의 팔찌 등이었다(렘32:10; 눅15:22; 약2:2). 반지 참조. 총독은 아주 안전하게 봉인을 가지고 다녔고 왕은 사적인 용도로나 공적인 용도로 봉인을 사용하였는데 전자는 왕이 가지고 다녔고 후자는 국가의 관리가 보관하였다(삼하1:10). 왕의 봉인이 찍힌 문서는 정부의 인가를 뜻하였다(왕상21:8). 또한 잠정적으로 봉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권위의 부여를 뜻하였다(에3:10, 12; 8:2). 열기로 인해 밀랍 대신 진흙에 도장을 각인하기도 하였다(욥38:14).



한편 봉인은 소유와 보존의 상징이었다(신32:34; 욥9:7; 14:17). 문을 열거나 그릇을 비밀리에 여는 것을 막기 위해 봉인을 하기도 하였고(야4:12; 단6:17; 마27:66) 또 책이나 상자나 두루마리 끈에도 진흙에 봉인을 찍어 붙여서 그것이 남용되는 것을 막았다(사8:16; 계5:1). 성령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봉인하시는데 이는 곧 그들이 자기 것임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각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엡1:13-14;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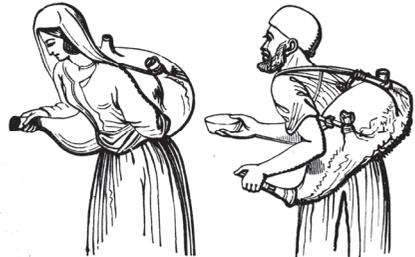
- 봉헌(Dedication) 사람이나 물건 혹은 지역을 거룩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 아주 바치는 것. 그래서

성막과 첫째 및 둘째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되었다(출40:1-38; 왕상8:1-66; 스6:1-22). 유대인들은 또한 성벽이나 벽 혹은 집을 봉헌하기도 했다(신20:5; 느12:27). 성전 봉헌절은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왕이 파괴한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겨울철 연례 절기이다(요10:22). 성전, 마카비 참조.

- 뱀베(Phebe, 피비)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겐그레아에 거하던 크리스찬 여인. 그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전달하였으며 거기서 바울은 그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그녀는 교회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과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가 자기와 여러 사람의 후원자가 되었다고 기록한다(롬16:1-2). 어떤 이들은 그녀가 여자 집사였다고 주장하지만 여자는 결코 교회의 집사나 목사(혹은 장로)가 될 수 없다(딤후3:2, 12).

- 부겔로(Phygellus, 피젤러스) 허모게네 참조.

- 부대(Bottle) 이것은 주로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의미했다. 고대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잘 다듬은 뒤 다리가 있던 부분을 깨어서 부대로 사용했으며 여기서 목 부분은 부대에 액체를 넣거나 빼는 데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런 부대를 메고 다녔다(창21:14; 수9:4, 13; 시119:83; 렘13:12 비유). 가죽 참조.



과일즙을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크게 불어났으며 특히 포도즙의 경우에는 익으면서 발효가 되므로 크게 부풀어 올랐으므로 가끔씩 자루를 열고 공기를 빼지 않으면 자루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자루에 흠이 있으면 그런 곳이 터지면서 포도즙이 새어 나갔다. 그러므로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은 것은 포도즙을 보관하는 일에 매우 필요했다. 왜냐하면 새 부대라야 강해서 이갈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로써 포도즙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낡은 부대는 이미 발효가 된 오래된 포도주를 넣는 데 적합했다(마9:17; 눅5:38; 욥32:19). 지금도 이런 가죽 부대는 동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포도즙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소나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다. 한편 고대 사람들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여러 형태의 작은 그릇이나 통을 만들었고 또 돌이나 유리, 진흙, 실화 석고 등을 이용해서 통이나 그릇들도 만들었다(렘

19:1, 10-11). 포도즙, 눈물 참조.

● 부르심(Calling) 혹은 부르는 것 I.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을 통하여 각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롬 8:28-30; 살전2:12). 구원의 부르심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도 포함된다(고전 7:20).

II. 기도를 통해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창4:26).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 주시는 공활 많으신 분이시다.

III.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창17:5; 눅1:13).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이름을 부를 권리가 있다.

IV.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부르는 것. 아브라함(창12:1-13), 모세(출3:4), 이사야(사6:1-13), 에레미야(렘1:1-12), 열두 제자(마4:18-22; 10:1-4), 바울(행9:1-19) 등이 이 같은 소명을 받았다.

● 부림(Purim, 푸림, 제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때에 하만의 사악한 계략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하기 위해 에스터와 모르드개가 만든 명절. 이 이름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날을 결정하기 위해 하만의 앞에서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되었다. 그러므로 하만이 제비를 신뢰한 것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시간을 주어 그의 계략을 들어 하만 자신을 대적하게 만들었다(잠16:33; 예3:7; 9:20-32). 이 명절에는 먼저 하루 동안 금식하고 회당에서 에스터기를 읽으며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고 구제나 기도를 하였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3월경에 이 명절을 지킨다.

● 부셀(Bushel)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 모디우스를 번역한 것으로 8-9리터 정도의 부피를 뜻하며 마5:15; 막4:21 등에서는 그 정도의 부피를 담은 통을 뜻한다.

● 부스(Buz, 버즈, 경멸하다) 나홀과 밀가의 아들로 부스 사람들의 시조.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사막에 살았다(창22:21; 욥32:2; 렘25:23).

● 부싯돌(Flint) 불을 일으키는데 쓰는 돌. 이것은 아주 단단한 수정이나 석영의 일종이며 최나 다른 부싯돌로 치면 불을 낸다. 고대에는 부싯돌로 칼, 낫, 무기 등을 만들었다. 부싯돌은 또한 강한 힘과 결심 등을 상징한다(사5:28; 50:7; 겔3:9).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시114:8).

● 부아(Puah) 심브라 참조.

● 부양(Nourish)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

● 부요(Rich) 재물이 많고 넉넉함.

● 부추(Leek)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부추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다(민11:5).

● 부피 단위(dry and liquid volume unit) 고르,

호멜, 오멜, 로그, 갑, 에바, 스아, 바스, 힌 참조.

● 부활(Resurrection) 성경은 적어도 세 종류의 부활을 말한다.

I. 몸의 부활: 사람이 죽는다 해도 사람의 영은 죽지 않고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몸뿐이며 따라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몸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부터의 몸의 부활에 대해 명쾌하고도 뚜렷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의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8-29).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셨으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을 가르쳤다(행24:15). 이런 말씀이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사람의 몸이지 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동시에 부활할 것으로 믿지만 요한계시록은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며 이 두 개의 부활 사이에 약 1,000년의 기간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계 20:4-5). 성경의 부활 선도 참조(82). 죽은 자들이 서로 다른 그룹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부활하는 것은 고전15:23-24에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그 뒤에 끝이 오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부활의 순서를 보여 주고 있다.

첫째 부활에도 세 그룹(혹은 단계)이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 시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수확’이며 7년 환난기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성도들의 부활은 ‘이삭줍기’이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 역시 7년 환난기의 한 부분에서 부활할 것이다(사26:19; 단12:13).

한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이미 한 차례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마27:51-53).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를 이루었고 지금 그분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영광 중에 있다.

현재 사람들이 입고 있는 몸은 하늘에서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 변화는 부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러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키지며 연합함 가운데서 뿌러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키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지나니”(고전15:42-44).

이 구절은 결코 부활한 몸이 어떠한 실체도 소유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형체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영의 몸의 기능을 소유한 몸이란 생각에 볼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이다. 그분의 몸이 찌음을 보지 않고 무덤에 누우셨던 것과 똑같은 몸으로 일어났음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부활한 몸은 특정 면에서 달랐다. 그 몸은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있었고 의지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었다. 그분의 몸은 살과 뼈는 가졌지만 피는 없었다(눅24:39-4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한 몸은 가시적인 형태와 모양을 지니고 살과 뼈로 된 골격을 갖출 것이다.

II. 민족적 부활: 이 부활은 이스라엘이 1948년까지 민족적으로 죽어서 여러 민족들의 무덤 속에 매장되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 주는 부활이다(겔37:1-14).

III. 영적 부활: 이 부활은 영적으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엡2:1-6; 5:14; 참조 롬6:11).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활로서 계속해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이것은 ‘영적 부활’이라 할 수 있다(요5:24).

● 북쪽(North) 동쪽 참조. 성경에서 바빌론과 아시리아 사람들은 북쪽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막을 피하기 위해 북쪽의 길을 타고 내려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다(렐1:14; 46:6, 24; 습2:13). 읊은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온다고 하였는데(습37:22) 이 말은 지금도 시리아와 아라비아에서 잘 맞는다.

● 분개(Indignation, wroth) 몹시 분하게 여김.
● 분노, 화(Anger) 고통스러운 성격을 가진 극렬한 감정. 이것은 의로움의 표현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은 이것을 큰 죄로 규정한다(마5:22; 엡4:31; 골3:8). 정당한 경우에도 우리는 화를 내게 만든 장본인의 마음의 상태와 그 사건에 대한 사정, 화로 인한 나쁜 결과, 복음 선포의 장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의무, 하나님의 요구 등을 잘 고려해서 화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마6:15).

● 분리(Separation) 성별과 성화에 근거한 성경적 분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 원래 성별은 세속적이고 죄 많은 것에서 분리하여 거룩한 것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성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으로 아주 고상한 개념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후6:14-18).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

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살전1:9-10; 요이9-11). 사람이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러운 악에서 떠나 분리하는 수밖에 없다(고후6:17).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세속성과 현대주의, 신복음주의, 은사주의, 부도덕, 종교 통합, 각종 타협, 그리고 교회 내의 무질서한 형체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살후3:6-15; 딤편6:3-5; 롬16:17). 거룩함, 성별, 성화 참조.

- 분봉 왕(기존 성경 마14:1 등) 사분 영주 참조.
- 분부(Charge)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
- 분쟁(Schism) 이것은 원래 ‘찢어지는 것’을 뜻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기독교회 안에서 논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열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고전1:10-12; 12:25-26). 이런 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배격하며 기독교의 본질을 부수는 것으로서 소수와 다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했다(요17:21; 롬12:4-21).
- 분파(Sect) 이것은 원래 파당을 뜻하며 이단 파당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거기 속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행5:17; 15:5). 유대인들 사이에는 실행과 의견 등으로 인해 네 부류의 분파가 있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 당원 등.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되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고소하던 더러운 바울이 나사렛 종파(혹은 파당)의 우두머리라고 벨릭스에게 고소하였다(행24:5). 또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그곳의 유대인들은 그에게 “이 분파에 관한 한 그것이 모든 곳에서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였다(행28:22). 이단 파당 참조.

- 분향(Burn incense) 향을 피움.
- 불(Fire) 성경에서 불은 불타는 떨기나무와 시나이산 등에서 보듯이 종종 주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출3:2; 13:21; 19:18). 주님의 재림은 불꽃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살후1:7). 신약 성경에서 불은 예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과 연관이 있다(마3:12).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보내 희생물을 태우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여셨음을 보여 주셨다: 아벨(창4:4), 아브라함(창15:17), 마노아(삿13:19-20), 엘리야(왕상18:38), 성막과 성전의 봉헌 때(레9:24; 대하7:1). 성전의 거룩한 불은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관리했다(사3:19). 고대 이교도들은 불을 숭배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 사이로 지나게 하여 몰락에게 바쳤다(왕하17:17; 렘7:31; 겔16:21; 23:37). 유대인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 외에는 거의 불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일반적 인 화로 외에도 솥물을 사용하여 집안을 따뜻하게 했다(렘36:22-23). 그들은 안식일에 불을 지필 수 없었고(출35:3) 필요한 경우에는 이방인 종들을 사용하여 그 일을 하게 했다.

이 땅은 궁극적으로 불에 의해 소멸될 것이다(벧후3:7).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은 땅이 불로 소멸될 것을 보여 주는 경고이다.

● 불(Pul, 펄) I. 아시리아의 왕. 그는 니므롯 이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시리아가 언급될 때 나오는 왕이다. 그는 르나헴의 통치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으나 은 1,000달란트를 받고 돌아갔다(왕하 15:19-20; 대상5:26).

II. 사66:19에 나오는 지역. 이곳은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룯과 함께 언급된다.

● 불뱀(Fiery serpent)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별도로 보내신 것(민21:6).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게 함으로 백성을 구했다. 뱀, 느후스탄 참조.

● 불법(Iniquity) 정당하지 못한 것. 이 말은 공평한 것(equity)의 반대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불법 행위를 가리킨다(롬13:23; 딤후 2:14).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다(마7:23). 이 말은 살후 2:7에서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 불신(Unbelief)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따라서 중대한 형벌을 초래하는 큰 죄이다. 불신은 부패하고 죄 많은 사람이 종종 빠져드는 죄인데 그 이유는 어느 누구라도 불신의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한 증거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시 14:1).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죄이며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을 확실히 정죄로 이끄는 도구이다(요5:18; 요일5:10).

● 불 침례(Baptism with fire) 침례 참조.

● 불 호수(Lake of fire) 불과 유황이 타는 최종 지옥(계19:20; 21:8). 지하 세계 선도 참조(81).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지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에 잠겨 불 침례를 받는다(계20:14-15; 참조 마3:11-12). 지옥 참조.

● 붉은 암송아지(Heifer) 민19:1-10에 명확하게 묘사된 것같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들로 인한 속죄 희생물로 바쳐졌으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참된 희생 예물이 되신 것을 보여 준다(히9:13-14).

● 붓(Phut, 펫) 함의 아들(창10:6). 그의 후손들은 구스와 룯과 함께 이집트의 군대에서 섬겼고 또 곡의 군대의 일부로서 섬긴 것으로 언급된다(렘46:9; 겔 27:10; 30:5; 38:5; 나3:9). 이런 구절에서 붓은 리비아로 번역되었다. 리비아 참조.

● 불라(Beulah, 불러, 결혼한) 이 말은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사랑하심을 보여 주기 위해 그들에게 적용되었다(사62:4).

● 브가히야(Pekahiah, 페카하이야,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셨다) 이스라엘 왕 르나헴의 아들. 그는 사악한 통치자였으며 2년을 통치하다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의 반역으로 인해 죽었다(왕하15:22-25).

● 브나야(Benaiah, 비나이야,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여호야다의 아들. 그는 다윗의 호위대장이었으며 성경은 그의 용맹에 대해 몇 번 언급한다(삼하 8:18; 23:20-23). 아도니아의 배반 모의 때에 그는 솔로몬의 편에 있었으며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요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군대 대장이 되었다(왕상 1:36; 2:29-35).

● 브누엘(Penuel, 피뉴엘, 하나님의 얼굴) 요르단강 동쪽의 마을. 브니엘 참조.

● 브니엘(Peniel, 피나이엘) 요르단 너머 압북 근처의 마을. 이곳에는 큰 망대가 있었으며 기드온은 자기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에 이곳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자 이곳의 망대를 무너뜨렸다(삿8:8-17). 이것은 후에 여로보암 1세에 의해 재건되었다(왕상 12:25). 이곳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야곱이 이곳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였기 때문이다(창32:30). 이곳은 브누엘이라 불리기도 한다.

● 브닌나(Peninnah, 피니나, 머리술이 많은 여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둘째 아내. 한나 참조.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는 일부다처제의 비극을 보여 준다(삼상1:1-28).

● 베틀(Pethor, 피토르, 점쟁이)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아람에 있던 도시(민23:7). 이곳은 발람의 고향이다(민22:5; 신23:4).

● 베틀루엘(Bethuel, 비튜엘, 하나님의 집) 리브가의 아버지(창22:22-23; 24:50). 그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이었다.

● 브드나도(Fortunatus, 포츄네이터스) 바울을 방문하려고 고린도에서 온 형제(고전16:17). 바울은 그와 스테바나와 아가이도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하며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다고 기록한다. 한편 그들은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로 돌아왔다.

● 브라가(Berachah, 베라카, 복) 드고아와 에담 사이의 아름다운 골짜기. 여기서 여호사밧과 유다는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승리한 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대하20:26).

● 브라심(Perazim, 피레이즘) 중앙 팔레스타인의 산(사28:21). 바알브라심 참조.

● 브로고로(Prochorus, 프라코러스, 합창대의 인도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선출된 일곱 명의 직무 수행자 중 하나(행6:5).

● 브루기아(Phrygia, 프리지아, 붉은)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 이곳의 동서남북에는 갑바도기아, 무시

아와 루디아, 루시리아와 비시디아,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등이 있었다. 이곳은 브루기아 파카티아나라고도 불렀다. 이곳은 곡물과 포도즙을 많이 내는 고원지대에 있었고 양과 소 등의 가축도 많이 있었으며 콜로새, 라오디게아, 비시디아의 안디옥 등이 이 지방에 속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며 여기를 두 번 여행하였다(행2:10; 16:6; 18:2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44).

● 브리스길라(Priscilla, 프리실라) 아굴라의 아내. 아굴라 참조.

● 브리스 족속(Perizzites, 페리자이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고대 족속(창15:20).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일원이거나 가나안 족속과의 혼혈족이었다. 그들은 주로 가나안의 중심부에 살았으나(창34:30; 수11:3; 17:15; 삿1:4-5) 요르단의 이편과 저편의 산과 평야에 거하는 자들도 있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은 아브라함과 롯의 패처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 지역의 주요 거주민으로 언급하고 있다(창13:7). 이 족속의 후손들은 솔로몬 때까지 남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왕상9:20). 가나안 족속 참조.

● 브살레엘(Bezaleel, 베살레엘,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주를 부여받은 기술자(출31:2; 35:30).

● 브솔(Besor, 비소서, 좋은 소식의 강) 가자의 남쪽 8킬로미터에 있는 시내. 이것은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시내인데 야말렉 족속들을 추격하던 다윗의 사람들은 여기서 머물렀다(삼상30:9-21).

● 브에롯(Beeroth, 비이라쓰, 우물들) 베냐민의 도시.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기브온 근처에 있었다(수9:17).

● 브에스드라(Beeshterah, 비에쉬테라) 요르단 너머 동쪽의 므낫세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의 도시(수21:27). 이곳은 아스다롯이라 불리기도 했는데(대상6:71) 아마도 이 이름은 벳아스다롯을 줄인 이름일 것이다.

● 브엘(Beer, 비어, 우물) I. 히브리 사람들이 모압에서 머물던 곳.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민21:16-18; 사15:8).

II. 예루살렘 서쪽 벤세메스 근방에 있던 유다의 마을. 기드온의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그곳으로 피신했다(삿9:21).

● 브엘라헤로이(Beer-Lahai-Roi, 비엘로하이라이) 살아서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 이곳은 가나안의 남서 경계에 있던 우물로서 하갈이 여기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그녀를 방문했다(창16:14).

● 브엘세바(Beer-Sheba, 비어쉬바, 맹세의 우물) 헤브론의 남서쪽 45킬로미터에 있던 도시(창21:31; 26:31-33). 이곳은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었고 단 지파에게 속한 단은 최북단이었다. 그러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그 땅 전체를 의미했다(삿20:1).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

꿈씩 여기에 거했고(창21:31; 22:19; 26:33; 28:10; 46:1) 나중에 여기 세워진 마을은 처음에 유다 지파에게 배정되었으나 후에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졌다(수15:28; 19:2). 여기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세웠고(삼상8:2) 엘리야는 호렘으로 가면서 여기서 쉬었다(왕상19:3). 웃시야 때에는 이곳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고(암5:5; 8:14)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거주했으며(느11:27, 30) 그리스도 이후에도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했다.

● 비올(Peor, 피오르, 열리다) 모압의 산. 여기에서 대언자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았다(민23:28). 이곳은 사해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이곳과 그 주변 지역은 모압 사람들의 우상과 관련이 있다(신4:8). 바알 참조.

● 블라스도(Blastus, 블래스투스, 썩) 헤롯 아그립마의 종. 그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왕에게 그들과 화평히 지낼 것을 구했다(행12:20).

● 블레셋 사람들(Philistines, 필리스틴즈) 가나안 땅의 남부 해안에 거주하던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명칭은 블레셋(Philistia, 시60:8; 108:9, 혹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래되었다. 원래 그들은 갑들에서 나왔는데 어떤 이들은 그곳이 크레타라고 생각한다(창10:14). 그래서 그들은 갑들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에 가서 아위 족속, 즉 하세림에서부터 웃사(가자)에 이르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 거하였다(신2:23).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유대의 높은 지역과 지중해 사이에 있었는데 그곳의 땅은 비옥해서 매년 좋은 수확물을 내었다. 블레셋 지도 참조(28).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미 왕과 도시를 소유한 강력한 사람들이었다(창20:2; 21:32; 출13:17). 그들은 가나안의 씨,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하여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족속들에 들지는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복은 그리 성공적으로 지속되지 않아서 재판관들의 시대와 사울과 다윗의 시대 초반부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왕과 귀족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국가는 다섯 개로 나뉘어서 각각을 다스리는 귀족, 즉 가자와 가드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이 있었다. 그들은 대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의 통치 때에 근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삼갈, 삼손, 사무엘, 사울은 그들을 치고 살육하였으나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삿3:14; 삼상4:1-22; 7:1-17; 14:1-52; 31:1-13).

그들은 다윗에 의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독립을 유지하였고(삼하5:17; 8:1-18) 그 뒤로는 유다 왕들의 지배를 받다가 여호람과 여호사밧 때에 반역을 일으켰다(대하21:16). 여호람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복종하게 하였다. 그들은 후에 웃시야 때에 또 반역하였지

만 웃시야는 이들을 잘 다스렸다(대하26:6-7). 아하스 때에 그들은 유다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으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들을 복종시켰다(대하28:18; 왕하 18:8). 그러나 그들은 후에 또 땅을 되찾았으며 대인자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등은 그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대언했다(렘47:1-7; 겔 25:15; 암1:6-8; 읍19; 스9:5; 참조 느13:23).

그들은 아시리아의 예살합돈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복되었고 후에 느부갓네살과 시리아 및 페니키아 등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었다. 그 뒤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알렉산더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가자를 멸하였다. 고대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로(삿15:5; 삼상13:20) 바알세불과 다곤이라는 이름으로 바알을 숭배하였으며 그 일을 위해 제사장과 점치는 자를 많이 두었다(삼상6:2; 왕하 1:2; 사2:6).

● 블렛 족속(Pelethites, 필레싸이츠) 그들은 언제나 그렛 족속과 함께 왕의 호위병으로 등장한다(삼하 8:18; 20:23; 대상18:17). 이 이름이 유대인이나 블레셋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면 이것은 달리기하는 자들을 뜻하며 이 경우 그들은 왕가의 사자들을 뜻한다. 또 그렛 족속은 히브리어로 '베다'를 뜻하므로 왕의 집행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렛 족속 참조.

● 비(Rain) 성경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언급이 있다(신11:14; 호 6:3). 이른 비는 10월 하순, 즉 팔레스타인에서 씨를 뿌리는 때에 내린다. 이때에 기후는 계속해서 변하며 겨울 내내 비가 오면서 늦은 비, 즉 4월의 비가 내릴 때까지 우기가 지속된다. 그 이후에 기후는 화창하고 작물이 익으면서 5월에 밀 수확이 시작된다. 그리고 8월 중순에는 열매 수확이 이루어지고 그 뒤부터 10월의 이른 비가 내리기까지는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지속된다. 그러므로 이런 건기가 끝나면서 이른 비가 쏟아질 때의 기쁨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다 할 수 있다(신32:2; 읍29:23; 사 44:3; 호10:12). 유대인들의 달력 선도 참조(67).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단 한 번도 영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초대 교회의 성령 강림이 이른 비이고 20-21세기의 오순절 은사 운동이 늦은 비의 성령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 비골(Phichol, 파이콜, 강력한)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 그랄의 왕의 군대 대장에게 주어진 호칭(창 21:22; 26:26).

● 비누(Soap) 이것은 깨끗하게 하는 물건을 뜻한다(말3:2; 렘2:22). 고대 사람들은 특정한 식물과 그것들의 재를 사용하여 아마 등을 세척했고 해초의 재와 기름을 혼합해서 비누를 만들기도 하였다.

● 비느하스(Phinehas, 피니하아스, 피부가 검은) I. 엘르아살의 아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로서 모압 평야에서 유다의 통치자가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벌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그들을 죽였다(민25:1-17). 이러한 열심으로 인하여 대제사장 직무는 그의 가족에게 주어졌고 엘리로부터 사독에 이르는 기간을 빼고는 그의 후손이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다. 비느하스는 후에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고(민31:6; 시106:30-31) 요르단 강 너머로 배정된 지파들이 요르단 경계에 제단을 세웠을 때에 그것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급파되기도 하였다(수22:5-34). 그의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는 레위 사람들을 감독하였으며(민3:32) 후에는 대제사장이 되어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삿20:28).

II.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흡니 참조.

● 비돔(Pithom, 파이썬)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파라오를 위해 지은 도시들 중 하나(출1:11).

● 비두니아(Bithynia, 비찌니아) 소아시아 북부 지역 흑해 연안의 지방(벧전1:1). 이 지방의 동쪽에는 파플라고니아, 남쪽에는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남서쪽에는 무시아가 있었다. 이곳은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곳으로 유명한데 아마도 베드로는 여기에 가서 가르쳤을지도 모른다. 바울의 경우 이곳에 가려 했으나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다(행16:7).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 비둘기(Doves)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한 것으로 분류된 날짐승. 이것은 희생 예물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 예물로 쓰였다(창15:9; 레5:7; 12:6-8; 눅2:24). 가난한 땅에는 여러 종류의 비둘기가 많았으며 이것들이 크게 떼를 지어 다니는 경우가 흔했다(사 60:8). 이것들은 단순함과 죄 없음과 충성 등의 상징이었으며(호7:11; 마10:16)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보여 준 전령이었었고(창8:1-22) 성령님의 상징이었다(마3:16). 산비둘기 참조.

● 비라돈(Pirathon, 파이레이탄, 왕자) 에브라임의 도시. 이곳은 재판관 압돈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삿12:15).

● 비방(Speak against)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 비베셋(Pi-Beseth, 파이비셋) 이집트의 도시. 여기에는 소아시아의 다이애나와 같은 종류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매해 수많은 사람이 여기를 드나들었다(겔30:17).

● 비손(Pison, 파이산) 에덴동산을 적신 네 개의 강 중 하나(창2:11-12). 이 강은 금으로 유명한 하빌라의 온 땅을 둘러싸며 흘렀다.

● 비스가(Pisgah, 피스가, 나쁜 것) 사해의 동쪽에 있던 아바람 산지의 북부 산지. 느보는 이곳의 정상이었다(신32:49; 34:1). 이곳은 시혼의 왕국 남부에 있었고(민21:20; 23:14) 후에 르우벤 지파에게 속하였다(수12:3; 13:20).

● 비시디아(Pisidia, 피찌디아) 소아시아의 지방.

이곳과 지중해 사이에는 밤빌리아가 있었다. 비시디아 사람들은 산악 지대에 살았으며 난폭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곳의 안디옥에서 그리고 비시디아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고(행13:14; 14:24) 강도의 위협과 산악 지대에 갑자기 내린 폭우와 홍수의 위험을 겪었다.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 비유(Parable) 이 말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한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담고 있으므로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라 부르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솔로몬의 비유'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대답할 때에도 그가 자기의 비유를 말하였다고 한다(욥27:1; 29:1). 신약 성경에서는 비유가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마15:15; 24:32; 눅4:23; 히9:9). 동방의 학자나 현자들은 상징적이고도 은밀한 말을 사용하였으며(시49:4; 78:2)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비유를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었다(잠26:7).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경교나 약속을 왕과 백성에게 좀 더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였다. 나단 대언자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양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였다(삼하12:1-31; 참조 샅9:7-15; 왕하14:9-10 등).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들어 백성에게 말씀하심으로 사6:9의 대언을 성취하셨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함을 질타하셨는데 그 이유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일들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주요 진리와 범위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일부만 상세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너무 세부적인 것을 이해하려 하면 전체 내용을 놓치기 마련이다. 복음서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비유들을 기록하였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마7:24-27).

혼인 방의 아이들(마9:15).

새 옷과 낡은 옷(마9:16).

새 포도즙과 오래된 가죽 부대(마9:17).

부정한 영(마12:43).

씨 뿌리는 사람(마13:3, 18; 눅8:5, 11).

가라지(마13:24-30, 36-43).

겨자씨(마13:31-32; 눅13:19).

누룩(마13:33).

밭에 숨겨진 보화(마13:44).

아주 비싼 진주(마13:45-46).

바다에 던진 그물(마13:47-50).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음(마15:10-15).

궁핍을 배풀지 않은 종(마18:23-35).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함(마20:1-16).

두 아들(마21:28-32).

사악한 농부들(마21:33-45).

결혼식 연회(마22:2-14).

무화과나무가 잎을 냄(마24:32-34).

집주인이 깨어 있음(마24:43).

신실한 종과 악한 종(마24:45-51).

열 처녀(마25:1-13).

달라트(마25:14-30).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막3:24).

스스로 분쟁하는 집(막3:25).

강한 자가 무장함(막3:27; 눅11:21).

씨가 몰래 자람(막4:26-29).

등잔에 불을 붙임(막4:21; 눅11:33-36).

멀리 여행하는 사람(막13:34-37).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함(눅6:39).

들보와 티(눅6:41-42).

나무와 열매(눅6:43-45).

돈을 빌려준 자와 빚진 자(눅7:41-47).

선한 사마리아 사람(눅10:30-37).

귀찮게 올라대는 친구(눅11:5-9).

어리석은 부자(눅12:16-21).

구름(눅12:54-57).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눅13:6-9).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눅14:7-11).

망대를 세우는 사람(눅14:28-30, 33).

전쟁에 나가는 왕(눅14:31-33).

소금의 맛(눅14:34-35).

잃어버린 양(눅15:3-7).

잃어버린 은(눅15:8-10).

탕자(눅15:11-32).

정당하지 않은 청지기(눅16:1-8).

귀찮게 올라대는 과부(눅18:1-8).

바리새인과 세리(눅18:9-14).

므나(눅19:12-27).

선한 목자(요10:1-6).

포도나무와 가지(요15:1-5).

● 비천(Base) 지체가 낮고 천함.

● 비탈(Ascent) 경사진 곳. 성경에는 아돔뱀 비탈(수15:7), 아그랍뱀 비탈(삿1:36), 구르 비탈(왕하9:27), 루히 비탈(사15:5) 등이 있다.

● 비파(Psaltery) 하프와 음악 참조.

● 비하히롯(Pihahiroth, 피아히하이라쓰) 수에즈만 근처의 장소.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다(출14:2, 9; 민33:7).

● 빅단(Bigthan, 빅텐) 아하수에로의 뜰에 있던 내시. 그는 데레스와 함께 음모를 일으켜 아하수에로를 죽이려 했으나 모르드개로 인해 그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에2:21).

● 빌닷(Bildad, 빌닷, 주께서 사랑하셨다) 욥의 친구.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수아와 그의 형제들은 아라비아 페트래에 살았다(창25:1-2). 아시리아 제국 지도 참조(34). 욥기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친구이자 이웃으로 그가 고난을 겪을 때에 그에게 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욥2:11; 8:1-22; 18:1-21; 25:1-6). 그는 주로 위선자와 학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갑자기 신속하게 닥친다는 것을 강조했다.

● 빌라도(Pilate, 파일릿) 아켈라오가 추방된 뒤에 유대를 다스린 로마의 총독. 그는 주후 26년에 부임하여 10년 동안 대부분 가이사라에서 거주하며 통치하였다. 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를 합치게 하였으므로 원수처럼 여겨졌으며(눅13:1) 그래서 결국 파면되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학정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는 칼리굴라에 의해 갈리아(플) 지방의 비엔나로 추방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빌라도의 성품은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에 의해 정죄를 받고 빌라도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그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도 그분을 처형할 수 없었다. 빌라도는 즉시 그분이 무죄이며 유대인들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구하려 하였다. 비록 그는 진리에는 무심하였지만 예수님의 뛰어난심을 알아보고 그분께 잘못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분을 살리려 하였으나 공의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봉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눅23:7, 14-20; 요18:31, 38; 19:4-15). 그래서 결국 그는 포기하고 그분 대신 바라바를 내어 주고 자기는 이 일에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손을 씻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와 또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기록한 일은 결코 그를 무죄한 자로 만들지 못하였다.

● 빌레토(Philetus, 필리투스, 사랑받는) 부활을 부인한 이단. 바울은 그를 교회에 들여놓지 말라고 명령하였다(딤후2:17-18). 후메내오 참조.

● 빌레몬(Philemon, 파일몬, 사랑스런) 브루기아의 골로새에 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의 종 오네시모를 그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여 빌레몬이 그를 잘 맞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빌레몬은 바울의 인도로 회심하였고 그 당시 바울은 죄수에 있었다. 빌레몬서는 우아함과 정중함과 남자다움 등으로 인해 많이 읽힌다. 오네시모 참조.

● 빌립(Philip, 필립, 말을 사랑하는 자) I. 사분영주. 그는 헤롯 대제의 아들이며 헤롯의 왕국이 분열될 때에 이두래와 드라고닛(드라고니티스)의 사분영주가 되었다(눅3:1). 헤롯 참조.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 사분 영주 참조.

II. 헤롯 빌립. 그는 헤롯 대제의 또 다른 아들이며 요세푸스는 그를 헤롯이라 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었으며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었다(마14:3). 헤로디아 참조.

III. 뱃새다 출신의 사도. 그는 처음에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나 후에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중 하나가 되었다(마10:3; 요1:43-48; 행1:13). 그는 여러 차례

복음서에 나오며 시리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죽었다.

IV. 복음 전도자(행6:5; 21:8; 엡4:11). 그는 한때 가이사라에 살았으며 대언의 선물(은사)을 가진 네 딸을 두었다(행2:17; 21:8-9). 스테반이 죽은 뒤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때에 그는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 기적을 행하였다. 그 뒤 그는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으며(행8:1, 14, 16) 이스돏에서부터 가이사라에 이르러 기까지 해안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후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었다(행21:8-16).

● 빌립보(Philippi, 필리피아) 마케도니아의 도시.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은 이곳을 보수하고 치장하였으며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가 되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뒤 바로 여기에서,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다(행16:9-12). 이곳에서의 첫 번째 개종자는 루디아였으며 여기에 생긴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된 이 여인의 성격을 많이 닮았다.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서 잠치는 소녀에게 들어간 마귀를 내쫓은 이 유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나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이에 놀란 간수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침례를 준 뒤 암포폴리스로 넘어갔다. 한편 성도 누기는 여기에 머문 듯하며 후에 바울이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 갈 때에 다시 그와 만난 듯하다(행16:8-40; 20:3-6).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이다.

● 빌하(Bilhah, 빌하, 걱정하지 않는다) 라헬의 여종. 라헬은 자기가 수태하지 못하자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얻어 어머니가 되려 했는데 그녀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창30:1-8).

● 빚(Loans)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차지한 땅의 유일한 경영자로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풍성하게 빚을 주라고 명령하시고 또 7년마다 남은 빚을 모두 선물로 주고 다시 받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빚을 주면서 담보물을 받을 때에도 공물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했고 또 거기에는 제약 조건이 있었다(출22:25-27; 신15:1-11; 23:19-20; 24:6, 10-13, 17).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들어 있는 위대한 진리와 교훈을 재산 관리에 근본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소유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그분의 뜻에 맡겨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빌려주라고 말씀하셨다(눅6:34-35).

● 빚진 자(Debtor)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마23:16; 롬1:14; 갈5:3). 어떤 히브리 사람의 집이나 가축이나 재물이 그의 빚보다 적을 경우 그는 회년이 올 때까지 자기 땅을 팔거나

수고해서 빛을 갠 때까지 혹은 희년이 올 때까지 스스로 종이 되어야 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경우에 히브리 사람들의 속박은 끝이 났다(레25:29-41; 왕하 4:1; 느5:3-5).

● 빛(Light)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중 하나이다. 그분께서는 창조의 여섯 날 중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그 어떤 것도 밋처럼 순수하고 영화롭고 영적이 고 기쁜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표현과(요일1:5)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약1:17)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이시며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요1:9; 8:12). 하나님은 빛으로 자신을 덮는 분이시며(시104:2) 다가가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딤후6:16). 예수님은 빛이시며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신다(요1:9).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며(시119:105)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빛이고(요3:19; 12:36) 형통이 빛이다(예8:16). 천국은 빛으로 가득하며 어둠이란 전혀 없다(사60:19-20; 골1:12; 계21:23-25). 빛은 종종 거룩함과 순결의 상징으로 쓰이고(잠6:23; 사5:20; 롬13:12) 영적인 조명 특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조명으로 사용되었다(고후4:6; 엡5:14; 벧전2:9). 끝으로 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마5:14; 엡5:8).

● 빵(Bread) 성경에서 이 말은 일반적인 용도로 양식을 뜻했고(창3:19; 18:5; 28:20; 출2:20)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으로 불렀다(출16:4). 문자적 의미의 빵은 밀가루로 구워 만든 음식을 뜻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나 말을 위해서는 보리가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조그만 돌방아에서 매일 밀을 빻았으며 밀가루로 나무 반죽 그릇에서 반죽을 만들고 이스트를 넣어 그것을 발효시킨 뒤(출12:34; 호7:4) 구워서 빵을 만들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빵을 구웠으며 빵은 그날 만들어서 그날 먹었고 대개 빵 껍질은 짐계 타서 빵을 구울 때 사용한 연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렐4:9, 15).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물을 담은 큰 통 같은 모습의 화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안에 불을 지피고 화덕이 뜨거워지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의 바깥쪽에 놓고 빵을 구웠다. 이렇게 만든 빵은 금방 익었고 얇게 부스러진 형태로 웨이퍼 과자처럼 생겼다(레2:1-16). 또한 그들은 땅의 구덩이 속이나 장막의 마루 위에서 빵을 만들기도 했고 빵 만드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빵을 만들기도 했다(렐37:21; 호7:4).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빵을 얇고 납작한 형태로 만들었으므로 칼로 자르지 않고 대개 찢었다(애4:4). 그래서 보통 '빵을 찢는다'(breaking bread)는 표현이 생기게 되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개 이것을 '빵을 떼다' 혹은 '빵을 나누다'로 번역했다.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아서 얇은 빵을 찢어서(떼어서) 먹었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우리 주님 역시 친히

빵을 찢어서(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로 인해 보통 신약 성경에서 주의 만찬은 '빵을 떼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찢긴 몸'으로 표현되었다(고전11:24). 영어를 직역하여 '빵을 부순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 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생긴 결과이다. 보여 주는 빵 참조.

● 빵 조각(Sop) 양념이나 포도즙 혹은 다른 액체에 적시는 조그만 빵 조각(요13:26; 룿2:14). 고대에는 지금과 같이 수저나 포크 등이 없었으며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었으므로 이때에 빵 조각을 적시는 일이 있었다.

● 뼈(Bone) 이 말은 아담이 이브를 가리켜 '자기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할 때 상징적으로 쓰였다(창2:23). 또한 신약 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다(엡5:30). 불법으로 사람이 오염될 때 그것은 그의 뼈 속에 들어가 그와 함께 무덤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한다(욥20:11).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죽어서 민족적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뼈들의 골짜기'로 표현되었다(렐37:1-14). 골육, 부활 참조.

● 뽕(Span) 손을 벌렸을 때 새끼손가락 끝에서 엄지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보통 이것은 반 큐빗, 즉 23센티미터 정도였다(출28:16; 삼상17:4; 사40:12).

● 뽕나무(Mulberry tree) 말삼 수지 같은 것을 내는 나무. 이 말은 원래 애국하는 것을 뜻한다(삼하5:23-24; 대상14:14-15). 뽕나무로 알려진 시카민나무(Sycamine tree)는 밀동이 크고 거기에서 강한 줄기가 대어섯 개 나오며 뿌리는 땅 밑에서 사방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므로 뽕나무만큼 단단하게 서 있는 나무는 드물다. 따라서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라고 할 때 그대로 되게 하는 권능은 하나님만의 권능이다(눅17:6). 이 나무는 성경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한 나무였다(왕상10:27; 대상27:28; 대하1:15). 한편 시카모어나나무(Sycamore tree)는 잎이 뽕나무 같고 열매는 무화과 같은 특이한 나무이다(눅17:6). 이런 점으로 인해 개역성경에서는 이를 뽕나무라고 했으나 돌무화과나무가 맞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여기고를 지나실 때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보았다(눅19:4).

● 뿌리(Root) 식물에서 뿌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성경에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용례가 나온다. 한 가족의 뿌리는 그 가족의 창시자이다(잠12:3). "뿌리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온다."(사14:29)는 말은 다윗의 왕국이 패한다 해도 다른 것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확대하는 자들을 응징할 것을 말한다. 메시아가 이세의 뿌리라는 것은 그분의 권능 안에 나무의 즙과 힘이 들어 있음을 뜻한다(사11:10). 뿌리는 또한 어떤 뜻의 원인을 가리킨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딤후6:10).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확고히 섰음을 뜻하며(엡3:17) 물 근처의 뿌리는 형통을 상징한다(욥29:19). 뿌리가 땅속에서

늙는 것은 기력을 잃는 것을 뜻한다(욘14:8; 사5:24).

● 뿔(Horn) 짐승의 뿔은 음료를 마시는 그릇이나 혹은 기름이나 향료 등을 담아 두는 통으로 사용되었다(삼상16:1; 왕상1:39). 한편 제단에도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다(출27:2; 30:2). 제단 참조. 많은 짐승의 경우 뿔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자 장식이었기 때문에 종종 힘과 영예와 지배권의 상징으로 쓰였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뿔을 높이 올리셨고 또한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신33:17; 삼상2:1, 10; 욘16:15; 시75:10; 단7:20-24; 눅1:69).



(나)

● 사가랴(Zachariah, 자카리아)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아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 6개월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백성 앞에서 죽인 뒤 그를 이어 통치하였다. 이로써 주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 즉 그의 씨가 4대까지 왕좌에 앉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왕하14:29; 15:8-11).

● 사가랴(Zacharias, 자카리아) I. 마23:35와 눅11:51에 나오는 인물. 그는 아마도 대제사장 여호야다 혹은 바라가의 아들인 것 같다. 그는 요아스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이 점점 더 부패하는 것을 보고 궁중 앞에서 왕을 책망하였는데 이때에 왕은 그를 돌로 쳐서 죽게 하였다(대하24:20-22).

II. 아버지 계열, 즉 여덟째 계열에 속한 제사장(대상24:1-31). 그는 엘리사벳의 남편이며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다. 그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산지에 거하였던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았는데 그는 늙은 나이의 사가랴에게 아들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면서 이 약속을 믿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아들을 낳았고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할례를 줄 때에 다시 말을 하게 되어 감사와 예언의 아름다운 노래를 하였다(눅1:5-25, 57-59).

● 사과나무(Apple tree) 향기를 많이 내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나무(야2:3; 8:5; 욘1:12 참조). 잠25:11은 지혜로운 자들의 적절한 말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 즉 잘 익어서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사과와 같다고 표현한다.

● 사냥(Hunting) 니므롯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사냥꾼이며 특히 영혼의 사냥꾼이었다(창10:9).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사냥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농부들이나 목자들은 먹을 것을 위해 사냥하곤 했다(창27:3-5; 30-31; 잠12:27). 사냥꾼들은 활(창27:3), 무릿매(삼상17:40), 그물, 울무, 구덩이 등을 사용했다.

● 사노아(Zanoah, 자노아) 유대 땅에 있던 두 마을의 이름(수15:34, 56). 이 두 마을 가운데 하나의 거주민들은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도왔다(느3:13; 11:30).

● 사다리(Ladder) 자기 형을 피해 도망하던 야곱은 하늘에서 나타난 사다리를 보았으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사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창28:12-17; 히1:14). 이것은 또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요1:51).

● 사데(Sardis, 썸르디스) 이곳은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4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헤르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 해발 약 450미터 고지에 위치한 요새형 도시였다. 예게 해 지도 참조(41). 이 도시는 주전 6세기경에 루디아라는 나라의 수도로서 세계적인 대도시였으나 그 뒤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에 의해 차례로 점령되고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사금이 흐르는 팍툴루스 시내가 이 도시의 부의 원천이기도 했으나 이는 사데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데는 또한 양탄자 생산으로 유명했고 부유했지만 지진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이곳 거주민들은 대개 목자들로서 평원에서 많은 양과 소를 길렀으며 그래서 재물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였다(계3:4). 사데 교회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교회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 알려진 교회였던 것으로 보인다(계3:1-6). 그러나 그 도시의 퇴폐풍조가 교회에도 숨어들어 사데 교회는 안일과 무도덕으로 타락한 교회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이보다 더 나쁜 명칭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골자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지역 교회 회원들의 생명 여부이다.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특징은 생명이 있는 것인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것이다.

● 사도(Apostle) 사자(使者) 혹은 특사. 이 말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특사이신 예수님께도 적용되었으나(히3:1) 대부분의 경우 그리

스도 예수님께서 보낸 특사들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분의 주요 제자들이었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권위와 성령님의 충만을 주셨고 자신의 교리를 맡기고 자신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을 부탁하셨다. 그들은 열두 자파에 상응하여 열두 명이었으며(마19:28) 평범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 그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책무를 맡은 뒤에(마10:5-42) 자신들의 주인을 섬기며 그분의 일들을 증언하고 그분의 영을 흡수하며 점차로 복음의 교리와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친히 그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다(요15:27; 고전9:1; 15:8; 고후12:12; 살전2:13).

그들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큰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혹은 레위, 가나안 사람 시몬, 다대오라 하는 레베오 혹은 유다, 알패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가룟 유다(마10:2-4; 막3:16-19; 눅6:14-16) 등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을 매어 죽었으며 후에 그를 대신해서 맛디아가 사도로 뽑혔다(행1:15-26). 사도행전에는 자신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행하며 고난을 당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였으며 특히 사도임을 입증하는 사도의 표적들 - 죽은 자를 살리고 안수하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 것 등을 보였다(막16:17-18; 고후12:12). 사도들은 초대 교회에만 존재하였으며 지금 이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시대에 자칭 신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사도들이다. 사도행전 참조.

●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성도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의 후편으로 기록한 신약 성경. 이것은 초대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주로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담고 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묘사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의 확산과 초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을 묘사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행동,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주어진 일, 사도들의 기적적인 복음 선포와 그들의 사역의 성공, 그들을 향한 박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까지 그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묘사한다. 그 뒤 그는 유대교가 기독교로 대체되고 베드로가 이방인 개종자들을 그리스전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뒤에는 주요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의 선교 열정, 수고, 고난, 그리고 감옥 생활 등을 다룬다. 사도행전 연대 선도 참조(7).

누가는 자기가 기록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몸소 경

험하였으며 그의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보여 주는 초대 교회 성도들(그들 중 많은 이들은 주님과 함께 지냈음)의 정신 상태와 영적 생활은 참으로 고귀한 분이 된다. 이 책을 잘 이해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중해 연안의 지리와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 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 체제와 그 안의 관직들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성향과 정치적 특색 등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 사독(Zadok, 제이닥) 아히둠의 아들, 아하마이스의 아버지. 그는 사울과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다. 아비아달 참조. 이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왕하15:33; 대상6:12; 스7:2; 느3:4; 13:13 등에 나온다.

● 사두개인(Sadducees, 쎄두시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한 분파. 그들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였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마16:1-12; 눅20:27). '사두개'라는 말이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살면서 이 파를 창설한 사독 혹은 사두키스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전통과 기록되지 않은 법규를 다 무시하였으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 유대교의 근원이고 규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마귀론을 거부하고 천사나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몸이 죽을 때 혼도 죽는다고 믿었고 따라서 부활이나 보상 등을 믿지 않았다(마22:23).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운명이나 섭리 같은 것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유대 땅의 백성들은 사두개인들 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나 고위층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다수가 사두개인이었고(행23:6-9)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도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행4:1; 5:17). 바리새인, 분파 참조.

● 사드락(Shadrach, 새드랙, 해의 순환 회로) 느부갓네살의 궁정에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갈대아 이름(단1:7). 아벳느고 참조.

● 사라(Sarah, 쎄라, 공주)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복 누이(창20:1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래라는 이름을 공주를 뜻하는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그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은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는 그들이 파라오와 아비멜렉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녀를 누이라고 속이려 하자 그녀가 그것에 동의한 것, 그녀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것, 인위적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 자기 여종 하갈을 그에게 아내로 준 것, 그 뒤 그녀를 미워한 것,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 등이 있다(창12-23). 그

녀는 매우 아름다운 사람으로 헌신된 아내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뱀전 3:6에 잘 나와 있으며 그녀의 믿음은 히11:11에 나와 있다(참조 사51:2; 갈4:22-31). 사라는 127세를 살았으며 헤브론 골짜기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해 애곡하려고 브엘세바에 왔고 헛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라는 이름의 동굴이 있는 밭을 사서 그녀를 거기에 묻었다(창23:9).

● 사람(Man)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으뜸기는 창조물(창1:26-31; 2:7-25).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존재하던 다른 창조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에게 생명의 숨을 주사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셨다. 이 같은 사람의 창조는 주전 4000년경에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허구를 신뢰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두 개의 세계, 즉 물질세계와 영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지어졌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였다(살전5:23). 이 구절과 히4:12 등은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존재임을 보여 준다. 사람의 세 요소 선도 참조(61).

구약 시대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밖에 있는 뜰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세 구성 요소를 보여 주는 예표로서 뜰은 몸을, 성소는 혼을, 그리고 지성소는 영을 나타낸다. 성막 선도 참조(56). 성소를 통하지 않고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듯이 사람의 경우에도 혼을 통해서만 영과 몸이 통할 수 있다. 성막이 완성된 뒤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지성소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시지 전까지 그분의 임재가 없었듯이 비록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완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적 상태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사람의 중심인 영의 방을 소유하기 전까지 새롭게 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새로 태어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남이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생긴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으로 다섯 가지 감각, 즉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을 통해 물질세계와 접촉한다.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이며 혼에 이르는 문에는 상상, 양심, 기억, 이성, 애정 등이 있다. 한편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으로 혼을 통해 외부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인상을 받는다. 영이 갖고 있는 기능은 믿음, 소망, 경외심, 기도, 경배 등이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의 영이 하늘로부터 조명을 받았으나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 때 죄가 영의 창문을 막아 버리고 커튼을 내림으로써 영의 방은 죽음의 방이 되고 말았다.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생명과 빛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영의 방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능력, 즉 생명과 빛을 주시는 능력으로 채우실 때에야 비로소 바뀌게 된다. 따라서 본성에 속한 자연인의 경우 그의 의지가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막으므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전2:13-14). 사람의 상태 선도 참조(87).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혼과 영은 몸으로부터 분리되고 몸은 무덤 속에 놓이지만 영은 결코 몸이 없는 상태로 있지 않고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의 어떤 중간 단계의 몸을 입고 있으며 이 같은 몸은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눅16:19-31 참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고 그래서 다른 창조물과 달리 그분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창1:26-27) 그분과 만나 직접 이야기하였다(창2:15-17). 이것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지금도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하도록 지어졌으므로 그분의 위임을 받아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책임이 있다(창1:26, 28). 사람은 타락 이전에 이 같은 사명을 받아 잘 감당했으나 타락한 뒤에는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말았다(창3:17-19).

하나님께서서는 타락한 사람을 이전의 에덴동산에 서처럼 무죄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상태로 회복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자 자신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요일2:2; 고후5:20).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신약 시대에 온 인류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세 부류로 나뉜다(고전10:32; 참조 갈6:16).

끝으로 계13:18의 '사람의 수(the number of a man)'는 하나님의 수와 대비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수이다.

●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 기존 우리말 성경의 인자(人子). 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대비되는 용어이며 이런 대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말로 번역된 김계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며 신약 성경에 총 87회 나오는데 이 중에 네 경우를 빼고는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셨다. 아들 참조.

● 사랑(Love) 사랑은 하나님의 주요 속성 중 하나이다. 그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엡3:18-19).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요일4:16).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인격체 간의 사랑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복된 사랑이다.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이며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그분의 일과 길에서 확연히 드러나며 그분의 율법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가장 확실히 나타난다.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좋은 교제와 혼의 사랑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사랑으로 표출된다. 바로 이런 사랑이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사랑이다(마22:37-40; 롬13:8-10). 거룩함 참조.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므로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율법의 다른 요구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다른 조건들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래서 결국 그것들을 지키게 하므로 근본 요소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마5:43-48; 22:37-39; 요14:15, 21; 15:12-14; 롬13:8; 고전13:1; 갈5:14).

따라서 사랑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며(마5:44; 요13:35; 요일3:14) 모든 도덕적 행위의 기초이고 동기이며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동기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로 이어질 수 없다. 모든 죄가 이기심에서 나오듯이 모든 덕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거룩한 생활의 샘으로서 신약 성경이 보여 주는 사랑은 감사하는 사랑이며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랑과는 구분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랑한다(요일4:19; 고후5:14). 실제로 감사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흠모하는 사랑도 포함하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한편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이다(갈5:22; 요일3:14). 거룩함 참조.

끝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일반적인 love와 아가페 사랑인 charity를 구별하므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도 charity를 뜻하는 사랑은 진하게 표시되었다.

- 사라셀(Sharezer, 쉐리저, 왕을 보호하라) 산헤립의 아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르메니아로 도망하였다(사37:38).

- 사렛(Zared, 제이렛) 세렛 참조.

- 사르곤(Sargon, 짜르곤, 왕은 함평적이다) 아시리아 왕국의 후대 왕들 중 하나(사20:1-4). 그는 군대 장관 다르단을 군대와 함께 보내 아스돗을 쳐서 취하게 하였다.

- 사르단(Zaretan, 제리탄) 요르단 서쪽에 벧스

안과 숙곳 사이에 있던 마을(왕상7:46). 이곳은 왕상4:12에서 사르다나라고도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을 건널 때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의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무더기같이 쌓였다(수3:16).

- 사르밧(Zarephath, 재리페쓰) 두로와 시돈 사이의 지중해에 있던 항구(읍20). 북 왕국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때에 대언자 엘리야는 여기에 거하였는데 이때 그를 도운 과부에게 기름과 밀가루가 공급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다(왕상17:9-24). 이곳은 후에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 사렙다로 불렸다(눅4:26).

- 사마리아(Samaria, 서메리아, 파수 보는 산)

- I.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며 거니시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의 세 부분 중 하나.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사마리아의 북쪽에는 갈릴리가, 남쪽에는 유대가 있었고 동쪽과 서쪽에는 요르단과 지중해가 있었다. 이곳은 처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에게 배정된 영토의 일부였다(눅17:11; 요4:4). 이곳은 유대에 비해 낮은 산들이 덜 황폐하고 더 많이 경작되었다. 가나안 참조. 복음의 초기에 많은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행8:1, 25; 9:31; 15:3).

- II.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에 있던 도시. 분단 왕국 지도 참조(31). 이곳은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주전 920년경에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세운 수도이다. 이곳은 이 도시가 세워진 산의 주인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불렸다(왕상16:23-24). 이곳은 후에 세겜과 디르사를 제치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공공건물이 많았고 아합은 이 도시에 바알의 신전과 자신의 상아 궁을 지었으나(왕상16:32-33; 22:39) 후에 예후는 그것들을 파괴하였고(왕하10:18-28) 대언자들은 종종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비난했다(사9:9; 겔16:46-63). 후에 이 도시는 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두 번 포위당하였으며(왕상20:1-43; 왕하6:24; 7:1-20) 마침내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혹은 사르곤) 왕이 이곳을 함락하고 거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왕하17:3-6; 호10:5-7; 미1:1-6). 오므리 참조. 그 뒤 이 도시는 티그리스 강 너머에서 온 구드 사람들에 의해 일부 재건되었으나 후에 요한 히르키누스에 의해 멸망되었고 다시 그 뒤에 로마의 가비니우스가 회복하였으며 아우구스투스는 이곳을 헤롯 대왕에게 주었다. 이에 그는 이곳을 확장하고 단장하여 황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아우구스투스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세바스테리아' 이름을 붙여 주었다. 복음의 초기에 빌립과 다른 이들이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다(행8:5-25).

- 사마리아 사람(Samaritans, 서메리탄즈) 원래 이 말은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을 뜻하였으나 신약 성

경에서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이방인들의 결합으로 생긴 혼혈 민족을 가리킨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혹은 사르곤)은 사마리아와 그 주변 지역의 거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간 뒤 그들 대신 바빌로니아, 구다, 아바, 하맛 등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 살게 하였는데 이들은 거기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섞어 궁극적으로 한 민족이 되고 말았다(왕하17:24-41).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혼혈 민족이 가증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탄생된 혼혈족은 아시리아에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어느 정도는 참된 종교의 일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 고유의 이교주의를 버리지 않았다(마10:5; 눅17:16-18).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므로 그 일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스4:1-24) 그것이 거부되자 페르시아 왕들에게 유대인들을 고소하였고(스4:4; 느4:1-23) 또 신27:11-13의 모세의 명령,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백성의 반은 그리스 산에서 서서 레위 사람들이 낭독하는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하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그 산에 성전을 짓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희생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원래의 제단은 거기가 아니라 에발 산에 있었다(신27:4; 수8:30-35). 또한 그들은 모세 오경을 제외한 유대인들의 다른 정경들을 버렸다. 산발랏 참조.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민족적 감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눅9:52-53).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호칭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으며(요8:48) 그들과의 모든 관계는 철저히 금지되었다(요4:9). 그리스 산의 신전은 주전 129년에 히르카누스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그리스도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귀하게 여기고 민족의 경배 장소로 생각하였다(요4:20-21).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고대하였으며(요4:25)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행8:1; 9:31; 15:3). 그리스 참조.

● 사막(Desert) 성경은 광야같이 개간되지 않은 곳 혹은 버려진 곳을 일반적으로 사막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막은 황폐하고 메말랐으며 어떤 곳은 아름답고 또 좋은 초장이 있었다. 다윗은 사막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시65:12-13). 성경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몇 개의 사막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출19:2; 민20:1 등) 다른 곳은 가나안 남쪽의 '크고 무서운 광야(신8:15) 혹은 가나안과 유프라테스 사이의 지역(출23:31; 신11:24) 등으로 부른다. 이런 사막은 겨울과 봄에는 채소와 식물로 덮여 있으나 여름에는 이것들이 다 말라붙으므로

아랍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초장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 광야 참조.

● 사망(Death) 죽음 참조.

● 사면(Remission) 죄를 용서해 줌.

● 사모(Samos, 쟈이마스, 높은 곳) 소아시아의 연안에 있던 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기에 들렀다(행20:15).

● 사모드라게(Samothracia, 짜마트레이사) 드로아와 빌립보 중간 지점에 위치한 북 에게 해의 섬. 바울은 처음 유럽에 들어가면서 이 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행16:11).

● 사무엘(Samuel, 쟈뮤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기도의 아들로서 히브리 대언자들과 재판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이다(삼상1:20; 행3:24; 13:20). 그는 나면서부터 레위 사람이었고(대상6:22-28)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의 라마에 살던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주 어릴 때 실로에 가서 대제사장 엘리의 보호를 받으며 성막 앞에서 자랐다. 나면서부터 주님을 위해 거룩히 구분되고 나사르 사람이 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삼상3:1-21) 엘리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재판관(사사)이 되어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 중 마지막 재판관이요 가장 좋은 재판관이 되었다. 그의 성격과 행한 일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매우 많다.

그가 책임을 맡았을 때에 열두 지파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에 있었으나 그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들을 빼내고 공정하게 공의를 집행하며 교육과 참된 신앙심을 조장하고 지파들을 연합하며 그들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렸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아들들이 사약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다(호13:11). 사무엘은 사울을 그들의 초대 왕으로 임명하고 후에는 다윗을 임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일을 하였고 특히 사울에게 그러하였다. 그는 대언자들의 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좋은 역할을 하였다. 그는 98세에 죽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애도를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뒤에 그를 불러내어 그로부터 대언의 말씀을 들으려 하였다. 시99:6에서 그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나온다(렘15:1; 히11:32 참조).

● 사막다니(Sabacthani, 사막다나히,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리아/갈대아 말.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말의 일부이다(마27:46). 이 부르짖음 전체는 시22:1에 있으며 이것은 예언적으로 사용되었다.

● 사반(Shaphan, 셰이펜, 토끼) I. 요시아 왕 시대의 서기관. 그는 새로 발견된 율법서를 요시아에게 낭독하였다(왕하22:8-11; 렘29:3; 36:10; 겔8:11).

II. 아히감의 아버지(왕하22:12; 25:22; 렘26:24).

● 사밧(Shaphat, 셰이페쓰, 그가 공의를 세웠다)

I. 대언자 엘리사의 아버지(왕상19:16).

II. 다윗의 후손(대상3:22).

III. 바산에 있던 다윗의 소 떼를 지키던 사람(대상27:29).

● 사본(Manuscripts) 이것은 성경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파피루스나 벨럼(가죽)에 기록된 문서이다.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은 없으며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중 일부분만을 담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단지 몇 구절만 담고 있다. 신약 성경 사본에는 현재 4종류의 계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독일어 루터 성경, 프랑스어 올리베탕 성경 등은 '시리아 계열' 사본에서 번역되었고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미국표준역(ASV), 개역표준역(RSV), 한글개역성경, 한글표준새번역, 한글공동번역 등은 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나 혹은 '이집트 계열' 사본에서 번역되었다. 또 다른 계열로는 '구 라틴어 사본들'을 포함하는 '서방 계열'과 '카이사르 계열'이 있다. 성경 본문, 역본 참조.

● 사분 영주(Tetrarch, 테트라크) 어떤 지역이나 나라의 사분의 일을 다스리는 통치자. 신약 성경은 로마 황제의 권위하에서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이런 호칭을 붙였음을 보여 주며 그래서 헤롯 대왕과 그의 형제들은 한때 안토니우스에 의해 유대의 사분 영주가 되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왕국의 반은 아켈라오에게 돌아갔고 다른 반은 둘로 나뉘어서 사분 영주의 호칭을 받은 안디바와 빌립에게 돌아갔으며 이런 방식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가 되었다(눅3:1). 마14:1; 눅3:19; 9:7; 행13:1에서 사분 영주라 불린 사람은 헤롯 안디바이다. 사분 영주의 권한은 왕과 거의 비슷하였으므로 왕이라는 칭호가 헤롯에게도 적용되었다(마14:9; 막6:14). 헤롯 참조.

● 사뱃(Zabud, 제이벳, 타고나다) 대언자 다단의 아들. 그는 솔로몬 왕의 친구이자 조언자였다(왕상4:5).

● 사브넛바네아(Zaphnath-paaneah, 자피넛파니아, 제상의 구원자) 요셉이 이룬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에게 준 이집트 이름(창41:45).

● 사사(Judges) 재판관 참조.

● 사슬 갑옷(Habergeon) 목에서부터 몸의 중심부까지 내려오는 갑옷(욥41:26). 이것은 가죽이나 놋 비늘로 되어 있어 적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출28:32; 39:23; 느4:16).

● 사아난(Zaanam, 제이아난) 미1:11에 나오는 이



사슬 갑옷

마을은 스난(수15:37)과 동일한 곳으로 생각되며 유다의 평지에 있었다.

● 사아난님(Zaanannim, 제이어내님) 납달리의 북쪽에 있던 마을(수19:33; 삿4:11).

● 사알랍빔(Shaalabbim, 셰이얼래빔, 여우가 사는 곳) 단에게 배정된 마을(수19:42). 이곳은 사알빔이라고도 불렸으며(삿1:35) 아모리 족속은 오랫동안 이곳을 소유하였다. 솔로몬 당시에 이곳은 그의 관원들 가운데 하나의 거점이었다(왕상4:9).

● 사역(Minister) 부리어 일을 시킴.

● 사역자(Minister)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마20:28). minister는 섬기는 자와 사역자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기는 사역자였다(왕상19:21; 왕하3:11). 사역자들은 자기들의 위치로 인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고 후에는 대개 자기들이 섬기던 자들의 뒤를 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 바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자였고(행13:5) 천사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사역자이다(시103:21; 히1:14). 이 단어는 어떤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켰으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들(롬15:16; 고전4:1)과 잘 못을 가르치는 자들(고후11:15)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와(롬15:8) 하늘의 거룩한 곳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셨다(히8:2).

● 사울(Saul, 쏘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 그는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초대 왕이 되었고 40년간 여러 사건을 겪으며 통치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그는 평생토록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무엘기상 10-31장에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많은 교훈을 주는 슬픈 이야기이다. 그의 통치 초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빛났으나(삼상9:20; 10:1-25) 그는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였고 왕기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죄들과 그것들로 인한 재앙이 늘면서 그의 권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가장 먼저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였으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으나 사무엘이 없었

때에 대신 희생 예물을 바침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다. 그는 성급하게 맹세하여 백성을 곤경에 몰아넣었고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을 이기기도 하였으나 아각과 짐승들을 살려 두는 죄를 범하였으며 영이 피폐해져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쫓다가 급기야는 늪에서 제사장 무리를 다 죽이는 죄를 저질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며 죽기 전에 엔돌에서 부리는 영을 지닌 무당에게 물어보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목숨을 끊고 말았다(삼상31:1-13; 삼하1:1-27; 대상10:13-14).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의 무서운 종말은 어느 면에서 그들이 주님 대신 다른 왕을 요구한 결과였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사람의 종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 준다. 한편 사도행전의 사울은 사도 바울의 히브리 이름이다.

● 사웨(Shaveh, 쉐이베, 골짜기) 예루살렘 북쪽의 골짜기. 이곳은 보통 왕의 골짜기라 불린다(창14:17; 삼하18:18).

● 사자(Lion)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짐승의 왕. 사자는 종종 길이가 2.4미터, 키가 1.2미터를 넘기도 하였으며 사자의 위엄에 숲의 모든 짐승들은 떨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자가 많았으며 히브리 사람들은 일곱 가지 이름으로 나이에 따른 사자를 표현하였고 이것들 가운데 다섯 개는 욥4:10-11에 나온다(나2:11-12 참조). 시편 기자는 웅크리고 먹이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먹이를 달치는 사자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성경에는 삼손과 다윗이 사자를 죽인 사건이 나오고(삿14:5-6; 삼상17:34-36) 불순종하는 대언자를 사자가 죽인 이야기도 나오며(왕상13:28) 사자 굴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니엘의 이야기도 나온다(단6:1-28). 한편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계5:5) 이복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무찌르신 분이며 이것은 창49:9에서 유다를 사자로 표현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성경은 마귀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혼들을 찾고 있다고 경고한다(벧전5:8).

● 사자(Messenger) 전갈을 전하는 사람(전쟁) 혹은 심부름꾼(말2:7; 3:1; 마11:10; 눅7:27).

● 사탄(Satan, 쎄이탄) 대적하는 자(왕상11:14; 시109:6).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이런 의미로 꾸짖으셨다(마16:23; 막8:33).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의 혼의 가장 큰 대적자, 즉 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를 가리킨다(욥1:7, 12; 스3:1-2; 계12:10). 그는 사람들을 사인하여 죄를 짓게 하고(대창21:1; 눅22:31) 따라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육신적 도덕적 죄의 창시자이며 각종 재난 특히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악한 영향을 만드는 장본인이다(눅13:16; 히2:14).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하고 또 기독교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 요소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

는 이런 방해 요소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삶을 개혁하려는 것을 크게 저지하고 있다(마4:10; 요13:27; 롬16:20; 엡2:2). 마귀 참조.

사탄은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이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사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주의 권세자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이며(엡2:2) '이 세상의 신'(고후4:4)이다.

사탄의 기원은 다소 신비 속에 가려져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창조물이고 한때 극도로 높여진 존재라는 점이다. 타락하기 전 사탄은 기쁨 부음을 받은 '뉘는 그룹'이었다. 그를 참조. 그는 하나님의 왕좌의 근위병이었으며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불뵤)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까지 모든 길에 완전했다. 비록 그에게 지혜의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창조자와 함께 되려는 교만을 일으켰고 교만은 결국 그의 타락으로 이어졌다(사14:12-20; 딤후3:6).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금으로 잔웃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거주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았다(겔28:11-19). 루시퍼 참조. 사탄: 이 세상의 신 전도 참조(70).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탄이 자신의 천사들과 더불어 지옥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으며 욥1:7; 2:2 등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주님께서 사탄에게 묻자 그는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하늘 영역에서와 땅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벧전5:8).

사탄은 왕으로서 왕국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도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확증하셨다(마12:26). 이와 더불어 엡6:12는 사탄의 왕국이 권력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악의 영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는 세상을 속이는 존재이다. 여기서 세상이란 사탄의 체제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사탄의 율가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요일5:19).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그들을 속이고 있다(고후4:3-4). 말세에 사탄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설교자들을 관장하는데(갈1:6-9) 이 복음은 마귀들의 교리이다(딤후4:1). 그는 엄청난 배도의 선동자이며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도처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벧후2:1-2). 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몸의 부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천년

재림'을 부인한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로써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이려 한다. 사탄은 폭력과 박해로는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술을 바꾸어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 그가 추구하는 것은 웅대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며 교회를 유혹하여 사회 개선을 통해 그리스도 없는 천년 왕국의 도래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처소를 하늘에 속한 곳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하늘에 속한 곳에서 쫓겨나 땅에 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계12:9-12).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은 자신의 때가 단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의 분노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공포가 있을 것이며 이때에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계13:2-8). 7년 환난기의 끝이 올 때 그의 짐승과 거저 대언자는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아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버릴 것이다(계20:1-3). 1,000년이 만기가 되어 다 찼을 때에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지만 곧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위해 오래전에 예비된 불 호수에 영원토록 던져질 것이다(계20:7-10; 마25:41). 이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거하는 시대가 온다. 사탄의 삼위일체 선도 참조(71).

계2:9, 13의 '사탄의 회당'은 아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즉 모세의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박해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특히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서머나 교회에 많았다.

● 사티로스(Satyrs) 숲 속에 사는 괴물. 이것은 뿔이 있고 염소의 발과 꼬리와 털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음탕하고 소란을 피우는 존재 또는 꿩을 보는 눈을 가진 채 조소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서 이것은 주로 바빌론의 황폐함과 연관되어 있다(사13:21; 34:14).

● 사파이어(Sapphire) 청옥이라 하는 보석. 이것의 굳기는 다이아몬드 다음이고 이것은 비금속 광물로서는 예외적으로 무겁다. 이것은 청색이 짙은 것을 최고로 치고 옛날부터 보석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루비보다 큰 것이 산출되고 산출량도 많아서 가치는 루비보다 훨씬 떨어진다(출24:10, 28:18; 39:11; 계21:19).

● 삭개(Zaccheus, 자키어스, 의로운 자) 히브리 사람 삭개(눅7:14)에서 유래된 이름.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지냈으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분을 보려고 들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주님께서는 거기를 지나시다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불러 내려오게 하신 뒤 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로마 사람들 밑에서 세리 노릇을 하였으므로 유대인들에 의해 죄인으로 불렸지만(눅19:1-10) 주님에 대한 인내와 믿음을 보였으며 그 결과 주님께서는 그를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갈3:7).

● 삭드(Razor)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칼. 나사르 사람 참조.

● 샷(Wages) 율법과 복음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는 사람에게 동의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줄 것을 요구한다(레19:13; 령22:13; 약5:4). 죄의 샷, 즉 죄의 정당한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며 일하지 않은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니(롬6:22-23).

● 산(Mountains) 산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며 지금까지 일어난 큰 사건들의 역사를 가장 오랫동안 보존해 온 증인이다. 그래서 성경의 산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며 산들의 정상들은 사람이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와 진리를 보여 준다. 그래서 아라랏 산은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 주는 홍수 사건을 분명히 드러내는 기념물이다. 시내 산은 하나님의 율법의 두려움을 보여 주며 갈멜 산은 과거의 엘리야 대언자가 두 의견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었으면 그분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여야 한다. 변화 산은 거기에서 드러난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영광에 대해 말하며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은 한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외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메아리로 전달해 주고 있다. 이처럼 호르, 느보, 레마논, 길보아 산 역시 놀라운 사건과 관련이 있고 시온, 모리아, 올리브 산은 많은 기억을 담고 있으며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과 언덕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영원토록 증언한다. 팔레스타인의 산들 지도 참조(53).

유대는 산이 많은 땅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시인들과 대언자들은 산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실례를 찾았다. 그래서 왕국은 산이라 불렸으며(시30:7) 특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러하였다(사2:2; 11:9; 단2:35). 또한 어려움도 큰 산이었고(속4:7) 혁명은 산들을 바다의 한가운데로 옮기는 것이었다(시46:3).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쉽게 신속하게 옮기시므로 주님 앞에서는 작은 산들이 밀랍처럼 녹는다(시97:5). 하나님의 본성은 확실하고 지속되므로 그분의 의는 큰 산들과 같다(시36:6).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 잘 이해된다.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이동할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이동하지 아니하리라"(사54:10). 다윗은 자기의 왕국의 안정을 표현하면서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강하게 세우셨나이다."(시30:7)라고 말하였

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안전과 보호는 이렇게 표현된다.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들같이 그렇게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는도다”(시125:2). 대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표현하면서 그 믿음이 이루어낸 확신을 말하고 그것이 이 땅의 축복이나 보호가 주는 모든 확신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이렇게 노래하였다.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다이다”(렘3:23).

유대의 작은 산들에는 꼭대기까지 나무나 채소를 재배하여 포도, 올리브, 무화과나무 등이 많았다. 그래서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가 언덕들을 뒤덮은 것을 가리킨다(시80:8-10).

● 산고(Travail) 아이를 낳는 괴로움을 뜻하고 같은 단어가 해산의 고통으로 번역된 곳들도 있다.

● 산당(High places) 고대 가나안 족속들과 다른 이교도들은 언덕과 산 혹은 인공적으로 높이 쌓은 장소에서 천체들에게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같은 우상 숭배 장소를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신12:2)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교도들을 모방하여 처음에 산당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고(삼상9:12; 왕상3:4) 후에는 거기서 우상들을 섬겼다(왕상11:7; 왕하17:10-11). 여기에서 그들은 예배 처소, 즉 ‘산당의 집’을 지었고(왕상13:32; 왕하17:29) 제사장을 두었다(왕상12:32; 왕하17:32).

그들은 여러 신을 위해 여러 개의 작은 숲을 심었고 그래서 산당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땅결과 희생물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릴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숲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셨다. 대언자들은 백성이 산당에서 경배하는 것을 경고하였다. 비록 산당을 부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였지만 율법에 열심이 있었던 여러 통치자들조차 실제로 그 일을 하지는 않았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하면 그것 자체가 율법에 위배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재판관들의 시대에는 여러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계가 없는 여러 곳에서 희생물을 드렸다. 심지어 다윗 시대에도 백성은 실로와 예루살렘과 기브온에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다. 특별히 산당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 많았으며 그들은 이 언덕배기 장소에서 우상을 흠모하고 수많은 가증한 것들을 만들었다. 작은 숲 참조.

● 산발랏(Sanballat, 쉴발랏, 죄가 치유됐다) 그는 모압 땅의 호르나임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며 유대인들의 큰 원수였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유프라테스 서쪽의 총독들 가운데 하나로 임명되어 사마

리아 사람들을 치리한 것으로 보인다. 느헤미야가 수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계شم은 그를 괴롭히고 그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는지 물으며 그 일이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지 따졌다(느2:10, 19).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성벽을 재건하였다(느2:10; 4:6). 그 뒤 느헤미야는 수산으로 되 돌아갔는데 이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자기 손자 므낫세, 즉 요아다의 아들을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게 하고 산발랏의 친척인 도비아에게 성전의 땅을 주었다. 그 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도비아를 성전에서 몰아내고 대제사장의 손자 므낫세가 더 이상 도시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산헤드린은 자기 장인인 산발랏에게 가서 그리심 안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였다. 그리심, 사마리아 사람 참조.

● 산비둘기(Turtle-dove)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짐승 대신 산비둘기를 취해 죄 헌물과(레 1:14; 5:7; 마21:12) 여러 종류의 정결례 헌물(레 12:6-8; 14:22; 민6:10; 눅2:24)로 드릴 것을 명령한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새들과 짐승들을 헌물로 드리면서 짐승들과는 달리 새들은 몸을 쪼개지 않고 전체를 드렸는데(창15:9-10)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 산헤드린(Sanhedrin, 쎄히드린, 재판하는 집) 유대인들의 70인 회원들의 모임. 이 모임에서는 민족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제사장이 대개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요세푸스는 주전 69년 요한 히르카누스의 통치 때에 있던 산헤드린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둘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대언자들의 대언이 없던 때에, 모세가 세운 70인 회의를 모방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민11:16-24). 랍비들에 따르면 그들이 모인 장소는 둥근 원형 집으로 이곳의 반은 성전 내부에, 반은 성전 외부에 있었으며 재판관들은 성전 외부 밖에 앉았다고 한다. 의장인 대제사장은 방의 끝에 앉았으며 그의 양옆에는 보좌관이 있었다. 공회회 회원들은 대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었다. 사두개인 참조.

산헤드린의 권위는 광범위하였다. 산헤드린은 하위 재판소에서 올라온 문제들을 처리하였고 왕이나 대제사장 혹은 대언자들도 이 공회의 결정에 순종하였다. 또 종교나 경배 등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이 여기에 상정되었고(막14:55; 15:1; 행4:7; 5:41; 6:12)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종교에 관한 한 산헤드린의 결정에 따랐다(행9:2).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얼마 전까지 산헤드린은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으나 로마 사람들은 이 권한을 박탈하였다(요18:31).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공회는 바로 산헤드린일 것이다(마5:22). 또한 모든 마술에는 7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있어서 조그만 문제들을 처리하였으며 마5:22의 심판은 이런 곳에서

의 재판을 뜻할 것이다.

● 산헤립(Sennacherib, 세내커립, 죄가 내 형제를 대체하였다) 아시리아 왕. 그는 살만에셀의 아들로써 주전 710년경에 통치하기 시작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야하스 시대에 디글랏빌레셀이 가져다준 아시리아 사람들의 명예를 치웠고 이에 산헤립은 그를 대적하며 유다의 강한 도시들을 다 취하였다. 이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외에 남은 것이 없음을 보고 라기스를 에워싸고 전쟁을 하던 산헤립에게 사신을 보내어 굴복하기로 하였다. 산헤립은 그의 조공을 받아들였으나 떠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치욕적인 말을 전하게 하였다. 이에 히스기야가 주님께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치기 위해 죽음을 천사가 하룻밤에 185,000명을 죽이셨고 이에 산헤립은 사력을 다해 니느웨로 돌아가서 아시리아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돌아간 지 23년 뒤에 그는 자기 신 니스룩의 전에서 경배하다가 자기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아르메니아로 도망갔고 그의 아들 에살합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왕하 18:1-37; 19:1-37). 니느웨, 니스룩, 살만에셀 참조.

● 산호(Coral) 고대의 귀중한 보석을 가운데 하나(욥28:18; 겔27:16). 산호는 여러 색깔을 띠며 특별히 홍해에는 산호가 많았다.

● 살, 육신, 육체(Flesh) 사람이나 짐승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 성경은 이 단어를 실제적인 의미의 살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욥33:25) 인류를 나타내거나(창6:12; 시145:21; 사40:5-6) 땅의 모든 창조물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한다(창6:17, 19). 이 말은 종종 영과 대조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욥14:22) 살아 있고 감각이 있는 몸을 가리키기도 하며(마26:41) 몸의 욕정이 거하는 곳을 뜻하기도 한다(잠5:11; 고후 7:1). 신약 성경에서 육이나 육신 혹은 육체는 사람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성령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열정이나 욕심 등을 가리킨다. 그래서 육신이나 육에 속한 원리는 영의 원리를 대적한다(롬8:1-39; 갈5:17).

● 살가(Salchah, 썰카) 바산의 도시. 이곳은 유대인들에 의해 정복되어 므낫세에게 배정되었다(신 3:10; 수12:5; 13:11). 이곳은 갓의 경계에 있었으며(대상5:11) 이 두 지파의 경계선은 사막의 깊은 곳까지 이르렀다.

● 살라디엘(Salathiel, 설레이씨엘) 스룹바벨의 아버지(스3:2; 느12:1; 학1:1). 이 이름은 스알디엘과 같으며 복음서의 계보에서 그리스도의 선조 중 하나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마1:12; 눅3:27).

● 살라미(Salamis) 키프로스의 주요 도시. 바울과 바나바는 주후 48년경에 이곳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특히 바나바의 출생지였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였다

(행4:36; 11:19-20; 21:16). 바울은 여기를 방문해서 엘루마에게 기적을 행하고 서기오 바울 총독을 회심시켰다(행13:5-12).

● 살렘(Salem, 쉘렘, 화평) I.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창14:18; 히7:1, 3). 후에 이것은 예언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켰다(시76:2).

II. 수가 시 동쪽에 있던 세겜 사람들의 도시(창 33:18)

● 살로메(Salome, 설로미) 세베대의 아내이며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녀는 주님께서 여행하실 때에 그분을 돕고 시종들던 거룩한 여인들 중 하나로서(마20:20-23) 자기의 두 아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앉게 해 달라고 그분께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멀러서 그 광경을 보았고 이때에 자기가 생각하던 왕국 개념을 바꾸었으며 더더욱 그분의 무덤에서 천사가 전해 준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생각하던 왕국이 틀렸음을 느끼고 생각을 바르게 바꾸었다(막15:40; 16:1). 어떤 이들은 마27:56과 요19:25를 비교하고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누이였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한편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도 살로메였다.

● 샬롬(Shallum, 샬렘, 대체하는 자) I. 야베스의 아들. 그는 이스라엘 왕 사가라를 배반하여 죽이고 왕이 되는 한 달을 통치하였으나 가디의 아들 므나헨이 사마리아에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성경은 샬롬이 예후의 집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한다(왕하15:10-15).

II. 여호야하스 II 참조.

III. 요시야 왕의 통치 때에 여대언자 홀다의 남편(왕하22:14). 또 이 이름의 소유자는 민26:49; 대상 2:40; 9:17, 19, 31; 스2:42; 7:2; 10:24, 42; 느3:12; 7:45에서도 발견된다.

● 샬리사(Shalisha, 쉘러샤, 셋째) 서쪽으로 에브라임 산과 붙어 있는 지역(삼상9:4).

● 살림(Salim) 요한이 침례를 주던 애논 부근의 마을(요3:23).

● 살만에셀(Shalmaneser, 샬마니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과 산헤립 사이의 왕. 그는 주전 728년경에 즉위하여 14년간 통치하였다. 그는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호세아 왕에게 조공을 내게 하였으나 3년째 되는 때에 호세아는 이집트의 소왕과 연합하여 그의 땅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격노한 살만에셀은 사마리아를 초토화하고 3년 동안 수도에서 호세아를 포위하여 결국 도시를 점령한 뒤 호세아를 결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프라테스 너머로 포로로 끌고 갔다(왕하17:1-40; 18:9-12). 이로써 그는 250여 년 동안 지속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켰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성공적으로 그에게 저항하였으나(왕하18:7) 그는 모압을 초토화한 것으로 보인다(사10:9-23). 실제로 이

스라엘을 정복한 것은 살만에셀의 형제로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된 사르곤이라는 견해도 있다.

- 살모네(Salmone, 켈모니) 크레타 섬 북동부의 뛰어난 곳(행27:7).

- 살몬(Salmon, 켈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그는 살마(대상2:11)라 불리기도 하였고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의 남편이며 보아스의 아버지였다(룻4:20; 마1:4-5; 눅3:32).

- 살몬(Zalmon, 잘몬) 사마리아의 세겔 근처에 있는 산(삿9:48). 아마도 이곳은 에발 산의 일부로 보이며 시68:14의 살몬 산과 동일한 산으로 보인다.

- 살문나(Zalmonna, 잘머나) 기드온에 의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왕(삿8:5).

- 살라 있는 혼(Living soul) 첫 사람 아담은 기존의 우리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 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혼이다(창2:7). 사람 참조.

- 살육(Slaughter) 무엇을 빙자하여 사람을 마구 잡기로 죽임. 구약 성경에서 고난 중의 시인은 도살당할 양같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호소하였고(시44:22) 대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도살당할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는 것을 기록하였다(사53:7).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시인 혹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한 시44:22를 자기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했다(롬8:36). 바울은 도살되는 양처럼 아무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이 살육하는 날에 죽기 위해 살을 불린 양과 같이 마음을 살찌게 했다고 말한다(약5:5).

- 살을 베어 내는 자들(Concision) 이 단어는 살을 베어 내는 것을 뜻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던 거짓 스승들, 즉 단순히 포피의 살을 베어 내는 일을 통해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자들을 가리켜 이 말을 사용했다(빌3:2). 그러나 참 할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서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다. 할례 참조.

- 살인(Murder) 고의로 작정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살인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심각한 범죄이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창4:14).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엄과 성스러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창9:5-6). 안식일과 결혼처럼 이 같은 사형 제도는 온 인류를 위한 것으로 모든 민족이 초창기부터 인정하였고(행28:4) 모세의 법은 이것을 재확인하면서(레24:17)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피난처를 제공하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살인자를 죽이고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도피 도망로 가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피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출21:12-14; 민35:9-34; 신19:1-13; 왕상2:5-6, 28-34).

살인자를 처벌할 경우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

인이 필요하였고 보통 증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살인자를 죽였다(민35:30). 한편 들에서 시체가 발견되고 살인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엄숙한 의식을 통해 이 범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여야 했다(신21:1-9).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형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보여 준다(신32:43; 삼하21:1; 시9:12; 55:23; 호1:4; 계22:15). 주님께서는 사람이 실제의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살인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마5:21-22; 요일3:15). 율법에는 자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성경에는 오직 사울과 아히도벨과 유다 등이 자살한 것으로 나온다(삼상31:4; 삼하17:23; 행1:18).

- 삼갈(Shamgar, 샴가르) 아낫의 아들. 그는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재판관이 되어 불안과 재난에 빠진 백성을 구출하였다(삿3:31; 5:6).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한다.

- 삼마(Shammah, 샤마) I. 다윗이 소유한 서른명의 용사 중 용맹한 세 사람 가운데 하나. 그는 삼하23:11-12; 대상11:12-14에 기록된 공적을 세웠다.

- II. 다윗의 형(삼상16:9; 17:13). 다른 곳에서 그는 시므야로 불린다(삼하13:3, 22; 대상2:13). 이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은 창36:13, 17; 삼하23:25, 33; 대상11:27; 27:8 등에 나온다.

- 삼손(Samson, 썸선, 태양에게 속한)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들. 그는 2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의 남부 지파들의 구출자와 재판관으로 일하였다(삿13-16). 그의 출생은 기적으로 예언되었으며 그는 나면서부터 나사르 사람이었고 힘이 매우 강하였으며 용맹과 도덕적 결함과 비극적 죽음 등으로 유명했다. 그가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께서 강하게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삿13:25; 14:6, 19; 15:14; 16:20, 28). 하나님의 섭리는 삼손의 조급한 성격과 그의 원수들의 계락을 선한 일에 이용하는 것 등에서 잘 나타난다. 삼손은 죄로 인해 불명예와 불행을 맞이하였으나 은혜와 믿음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히11:32). 그의 이야기는 죄와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강하게 보여 주며 모든 시대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보여 준다(삿13:22; 마23:37 비교).

- 삼숨 족속(Zamzummim, 잠저뎀) 그들라오멜에 의해 패배를 당한 요르단 동쪽의 거인 족속(창14:5). 이들은 암몬 족속에 의해 멸절되었으며 암몬 족속은 모세에 의해 정복당할 때까지 그들의 영토를 소유하였다(신2:20-21). 암몬 족속과 수스 족속 참조.

- 삼위일체(Trinity) 삼위일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이단이

생겨났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 한다(개역성경 딤편2:5). 만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여호와와 증인들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며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분으로 존재하시되 이 세 분이 하나이다(three persons in one God).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삼위일체 하나님 전도 참조(60).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 한국에서도 많은 이단이 생겨났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양태론이란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성도들에게는 목사이다."라는 주장이다. 또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라는 주장 역시 양태론에 근접한 진술이다. 이렇듯 양태론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이단 교리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 그들은 개역 성경의 요17:11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역본의 모체가 된 본문이 부패되어 발생한 것이며 바른 본문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음 구절들은 삼위일체를 잘 보여 준다: 마3:16; 28:19; 롬8:9; 고전12:3-6; 고후13:14; 엡4:4-6; 뎀전1:2; 유20-21; 출20:2; 요20:28; 행5:3-4는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 삼위일체를 보여 준다. 물론 이 세 분은 창1:1; 욥26:13; 33:4; 시148:5; 요1:3; 골1:16에 있는 것처럼 창조자이시며 그래서 성도들은 새로 태어난 창조물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마28:19) 그들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후13:14). 여기서 이름은 인격체를 뜻한다.

끝으로 성경적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께서 되지 않는다. 이에 근접한 예로 시간을 들 수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x), 너비(y), 높이(z)가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니다. 아무리 얇은 것도, 작은 것도 반드시 x, y, z 세 방향의 크기를 가지며 이로써 그 물질이(혹은 공간이) 구성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의 증거를 우주에 많이 만들어 두셨다.

- 삼다(Sabtah, 셉다) 구스의 아들(창10:7).

- 삼드가(Sabtecha, 셉디카) 구스의 다른 아들(창10:7)

- 삽비라(Sapphira) 아나니아 I 참조.

● 상(Table) 고대 동방 사람들은 방에서 둥그런 가죽 상에 모여 몇 가지 음식을 놓고 앉아서 식사를 했고 어떤 때에는 다리가 짧고 조그만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막7:4). Table이라는 단어는 종종 글 쓰는 판을 의미하기도 하며(잠3:3; 사30:8; 합2:2) 주님께서 손수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할 때 쓴 판을 뜻하기도 한다(출24:12; 31:18; 신9:9, 15-17).



- 상복(Sackcloth) 이것은 보통 머티일로 짠 굵고 거친 옷을 뜻한다(계6:12). 큰 재난을 당하거나 회개할 때 유대인들은 몸에 상복을 걸쳤고(창37:34; 삼하3:31; 왕상20:32) 대언자들은 종종 이런 식의 거친 옷을 입었다(마11:21). 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에게 몸에서 이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 가라고 명령하셨다(사20:2). 스가랴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들이 이런 옷을 입고 대언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는 것을 그쳐야 한다고 말한다(속13:4). 유대인들은 이렇게 굵은 옷을 입고 있다가도 기쁜 소식이 들리면 곧바로 이 옷을 벗어 버리고 일상복을 입었다(시30:11).



- 상속(Inheritance, heritage)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재산과 사업 등을 물려받는 것. 히브리 사람들의 상속 제도는 간단했다. 족장 시대에는 재산을 모든 아들에게 나누어주되 맏아들에게는 큰 몫을 주었다(창24:36; 25:5).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하나님께

서 제비뽑기로 주신 소유지가 영원히 그 가족의 소유가 되었고 땅은 남에게 빌려 줄 수 없었으나 영원토록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었다(민36:6-9). 희년 참조. 땅에 관한 영원한 권리는 핏줄에 의한 상속에 의한 것뿐이었다. 상속물은 아들에게만 주었으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이 자기 아버지가 속한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만 시집간다는 조건하에서 딸에게도 상속물을 주었다(민27:8). 슬로브트 참조. 죽은 사람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의 땅은 민27:8-11에 기록된 대로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졌다. 모세의 율법은 유언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고 실제로 유언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도입되었다(갈3:15). 상속물은 종종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자식들에게 분배되기도 하였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눅15:12).

사도 바울의 영적 상속 개념은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체제에 영향을 받았다. 그중 하나가 양자도 친아들과 함께 동일한 상속을 받는다는 점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속이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로 인해 아버지의 양자가 됨으로 얻는 것임을 보였다(갈3:26, 29). 바울은 또한 신자의 현재 영적 상속물과 미래에 있을 그 상속물의 영광에 대해 잘 묘사했다(롬8:16-17). 성령님은 신자가 상속자임을 확증하는 보증이다(엡1:13-14). 베드로는 터질 듯한 기쁨 속에서 신자가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가르쳤다(벧전1:3-4).

● 상속 언약(Testament) 신약이란 '새로운 언약'을 뜻하는데 이때의 언약은 영어로 Covenant가 아니고 Testament이다. Testament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마26:28에 처음 나오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막14:24; 눅22:20 등에도 나온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 New Testament이며 이 구절은 곧 주님께서 '옛 상속 언약, 즉 구약을 폐하고 신약을 여심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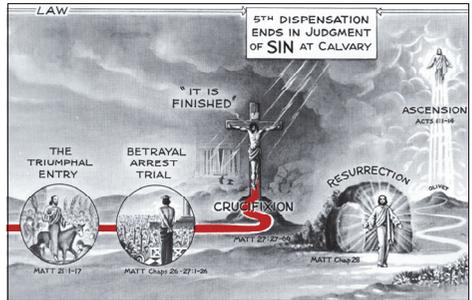
Testament는 그냥 언약이 아니다. Testament와 Covenant에 해당하는 원어는 동일한 '디아테케'인데 Covenant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특별 약속을 뜻하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총 295회 나온다. 반면에 Testament는 증언이나 '증언하다'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로 일차적 의미는 '증거로 주는 언약'이란 뜻이며 신약 성경에만 총 14차례 기록된 독특한 말이다. 성경은 이런 단어의 뜻을 알려 주기 위해 내장(內藏) 사건을 제공한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Testament)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Testator)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히9:15-17).

먼저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약 시대 성도들의 죄가 구속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출34:7). 완전한 희생 헌물 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도들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고 이때에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의 언약을 주셨으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여기서 Testament를 상속 언약으로 번역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16-17절이 이를 확증해 준다. 16-17절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상속 언약이 유효함을 보여 주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즉 새 상속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새 상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 Testament와 Testator는 바로 이런 점을 설명해 주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나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신약 시대를 여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4; 참조 갈4:4).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 후부터이다.



율법이 지배하는 구약 시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다!

기존 우리말 성경은 Testament를 유언으로 번역하였으나 이것은 결코 유언이 아니다. 유언은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또 언약하고 아무 상관 없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새 상속 언약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여셨으나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다.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며(계13:8) 그래서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가 이미 흘려졌다고 말씀하신다(눅22:20).

● 상수리나무(Oak)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섯 종류 이상의 상수리나무가 발견된다(사2:13; 슥11:2; 참조 창35:8; 사44:14; 압2:9). 이 나무는 좋은 그늘을 제공하였으므로 많은 공중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수24:26; 삿6:11, 19; 9:6).

● 상아(Ivory)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때 왕국을 장식하는 대목에서 언급되었다(사45:8). 솔로몬은 인도에까지 무역을 했으며 거기서 코끼리와 상아를 가져왔고(왕상10:22; 대하9:21) 상아로 장식한 왕좌에 앉아서 다스렸는데 이것은 그의 영광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왕상10:18).

● 상인(Merchant) 고대에 많은 나라의 상품은 대개 여러 종류의 상인들에 의해 교환되었다(창23:16; 사21:13). 그들은 무리를 지어 적당한 계절에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옮겨 다니며 교역을 하고 이로써 부를 축적하였다(창37:25, 28). 사도 야고보는 그들에게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약4:13). 이집트나 페니키아 사람들은 배를 통해 교역하였다(사23:2; 겔27:28).

● 상증(Deal with) 서로 친하게 지냄.

● 새 예루살렘(New Jerusalem)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만드신 도시 곧 기초들이 있는 도시로 서(히11:10)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이며(시46:4) 신구약 성도들이 가기를 바란 천국이다. 만물의 회복 선도 참조(94). 새 예루살렘은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만 이천 스타디온으로 같다(계21:16). 지금의 척도를 따르면 이 도시는 대략적으로 길이, 높이, 너비가 각각 약 2,240킬로미터 정도 된다.

여기에는 (1) 아버지 하나님(계4:2-3; 단7:9) (2) 아들 하나님(계5:6) (3) 성령님(계1:4; 4:5; 22:17) (4)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히12:22; 계5:11) (5) 스물네 명의 장로들(계4:4) (6) 교회(히12:22-23; 계19:1, 7-8; 21:1, 9-11) (7) 구원받은 이스라엘(히11:16) 등이 거한다. 이 도시의 성벽은 열두 개의 기초석 위에 놓여 있고 거기에는 신약 시대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계21:14).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 약 65미터이며 벽옥으로 되어 있다(계21:17-18). 물론 이 성벽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약 2,240킬로미터 높이의 도시에 약 65미터 높이의 성벽을 쌓는 것은 마치 63빌딩에 2센티미터 높이의 담을 친 것과 같다. 이 도시에는 각 면에 세 개씩 열두 문이 있으며 각각의 문에는 이스라엘 12 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이 있고 각각의 문은 한 개의 큰 진주로 되어 있다(계21:12-14). 한편 새 예루살렘에는 왕좌가 있고(계4:2, 3, 6) 생명수의 강이 있으며(계22:1; 시46:4) 생명나무가 있다(계22:2). 창세기에서 사람의 타락 이후에 사라진 그 생명나무는 역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부활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특성은 고전15:44에 기록되어 있다. 고전15:39-41에서 바울 사도는 영에 속한 새 몸은 본성에 속한 옛 몸보다 훨씬 더 우수함을 보여 준다. 이런 몸은 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고(빌3:21; 요일3:1-3) 살과 뼈로 되어 있으며(눅24:39-40) 중력과 시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눅24:31, 36; 요20:19). 그런데 이런 몸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몸이며(마8:11; 눅16:23; 고전13:12) 영원한 몸이고(고후5:1) 영이 지배하는 몸이다(고전15:44, 49).

천국은 찬양하는 장소로서(사44:23; 히2:12; 계14:3; 계15:3) 신자들은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세!” 등과 같은 찬송을 부를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일, 즉 창조와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계속 부를 것이다(계4:11; 5:9). 한편 천국은 교계의 장소이다. 실로 하늘에서는 실제적이며 영원한 교계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복된 교계를 나눌 것이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에서는 할 수 없었던 아주 친밀한 방법으로 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계2:17; 3:21; 7:17; 19:8). 또한 천국은 간증하는 장소이고(시107:2-3; 막5:19) 섬기는 장소이다(계22:3).

천국에는 바다와(계21:1) 눈물과 죽음과 아픔이 없고(계21:4) 해와 달이 없으며(계21:23) 불안이나 밤이 없고(계21:25) 죄가 없으며(계21:27) 병이나 저주가 없다(계7:16).

끝으로 천국에는 영광과(요17:24; 롬8:18) 거룩함과(계21:27) 아름다움과(시50:1-2) 하나님의 빛과(사60:1-20) 하나 됨과(엡1:10) 완전함과(고전13:10) 기쁨과(시16:11) 영원한 생명(요3:15)이 있다.

● 새(Birds) 모세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새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었으며 따라서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었으나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을 정한 규칙을 보면 대개 곡식이나 씨를 먹는 새는 정결했고 고기를 먹는 새는 부정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몇몇 새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희생 예물로 지정되었다(레5:7-10; 14:4-7; 눅2:24). 모세는 인정을 가르치기 위해 어미 새와 새끼들을 발견한 경우 어미 새는 놓아주고 새끼들만 취하라고 명령했다(신22:6-7). 구약 성경에는 노래를 부르는 새들이 있는 새장과(렘5:27) 새를 잡는 울무도 나오고(잠7:23; 전9:12) 육식성 새들은 파멸의 상징물로 등장한다(사46:11; 렘12:9; 겔32:4; 계19:17-19). 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사31:5).

● 색(Colors) 색으로 번역된 말은 대개 ‘눈’, ‘모습’, ‘모양’ 등을 뜻했으며(레13:55) 이것은 색을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표현했음을 보여 준다. 성경은 색에 대해 많은 설명이 없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새긴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일 것이다(출20:4).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알려지지 않았고 성경에도 색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색의 밝음과 어둠 등이 강조되었다.

I. 파란색 - 상처나 상처 자체를 묘사하는 색(잠20:30). 성막의 양장(출26:1)과 성전의 현수막에도 이 색이 쓰였고(대하2:7) 왕가의 치장을 위해서도(에1:6; 8:15) 부자의 옷에도 쓰였다(렘10:9; 겔23:6).

II. 갈색 - 진한 색깔을 묘사하는 색(창30:32-40).

III. 검은색 - 성경에서 가장 흔히 사용된 색. 검은색은 한밤중의 어둠을 나타내고(잠7:9) 죽은 피부(욥30:30), 건강한 머리털(야5:11; 마5:36), 죽은 사람의 얼굴(애4:8), 하늘(렘4:28), 해와 달이 어둡게 되는 것(출2:10), 말(숙6:2, 6; 계6:5) 등을 나타내며 종종 기근과 죽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IV. 회색 - 회색은 노인의 머리털을 표현하는 데만 쓰이며(창42:38)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색머리가 아니라 흰머리로 표현했다.

V. 녹색 - 녹색을 나타내는 말은 보통 어떤 종류의 식물을 가리킨다. 이 말은 푸른 초장(시23:2), 채소(왕하19:26), 대부분의 나무(신12:2; 눅23:31; 계8:7), 상징적 의미로 침대(아1:16), 갈대와 같은 위선자(욥8:16), 풀(막6:39) 등을 나타낸다. 나병으로 인한 자국도 녹색으로 표현되었다(레13:49; 14:37).

VI. 붉은색 - 예서(창25:25), 야곱의 죽(창25:30), 유다의 눈(창49:12), 희생물 암송아지(민19:2), 술취한 자의 눈(잠23:29), 포도주(잠23:31), 용(계12:3)은 붉은색으로 묘사되었다. 진홍색은 성전에 사용되었고(대하2:7, 14; 3:14) 또 죄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사1:18). 주홍색은 성막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출25:4) 창녀 라합은 이것을 창문에 걸어 두었다(수2:18). 이것은 또한 변역의 상징이다(삼하1:24; 잠31:21). 계시록의 짐승과 창녀도 이 색으로 표현되었으며(계17:3-4) 피 색깔인 붉은색은 종종 생명이나 전생을 나타낸다. 주홍색 참조.

VII. 흰색 - 짐승(창30:35), 만나(출16:31), 옷(전9:8; 단7:9), 의로운 자들의 옷(계19:8), 말(숙1:8; 계6:2; 19:11), 용서받은 죄(시51:7; 사1:18), 남은 자들(단11:35; 12:10), 계란의 흰자(욥6:6), 천사의 옷(계15:6), 변화산의 그리스도(마17:2), 머리털(마5:36), 심판의 왕좌(계20:11) 등이 흰색으로 묘사되었다. 흰색은 종종 순결, 의, 기쁨, 승리 등을 나타냈다.

VIII. 노란색 - 금(시68:13), 나병으로 인한 털(레13:30, 32) 등이 이 색으로 표현되었다.

IX. 자주색 - 고대에 가장 고귀한 색. 주님께서는 성막의 휘장, 현수막 등에 자주색을 쓰게 하셨고(출26:1; 27:16) 성전에도 이것은 필수품이었다(대하2:14). 자주색은 고위층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색이었다(삿8:26; 잠31:22; 눅16:19). 자주색 참조.

- 색욕(Lasciviousness) 합당치 못한 성욕.
- 샘(Fountains)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마르지

않은 좋은 샘이 아주 귀중한 자산이었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이름은 그 근처의 샘의 이름에서 파생되었다. 또한 샘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의 샘'이었다(렘2:13). 천년 왕국의 샘은 깨끗하게 하고 질병을 고치는 샘이고(욥3:18)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귀중한 샘이다(숙13:1). 복음의 위로와 천국의 행복 역시 샘으로 비교된다(시36:7-9; 계7:17). 우물과 샘 참조.

● 생각(Mind) 사람 안에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부분.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원어, 영어, 우리말에서 많은 경우 마음이 곧 생각을 뜻하며(신30:1; 렘19:5) 그래서 mind는 많은 경우 마음으로 번역되었다. 신학 성경에서 생각은 '이해하다', '생각하다', '따지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생각은 딱딱하게 굳거나(고후3:14) 어둡게 되거나(고후4:4) 부패되거나(딤후3:8) 저속하게 될 수 있다(롬1:28). 반면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은 새롭게 되거나(롬12:2) 순결하게 될 수 있다(벧후3:1). 사람들은 생각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마22:37; 막12:30; 눅10:27) 하나님의 법은 생각 속에 심길 수 있다(히8:10).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빌2:5) 생각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롬12:16; 벧전3:8). 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야 한다(롬12:2).

● 생명(Life) 성경에는 본성에 속한 생명이 있고(창2:7) 다시 태어난 혼이 소유하는 영적인 생명이 있으며(롬8:6)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즉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요3:36; 롬6:23). 그리스도는 본성에 속한 생명과(골1:16) 영적 생명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의 창시자이시다(요6:47; 14:6). 그분께서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 예물로 드리셨으며 자신의 백성에게 이것을 거저 주신다(요10:11, 28). 그분은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들이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요11:25; 14:19; 17:2-3).

영어로 생명은 life이며 이것은 동시에 삶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분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마귀의 생명을 가진 자도 그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나타낸다. 마귀는 성령님의 선물(은사)은 흉내 낼 수 있어도 그분의 열매, 즉 인격은 흉내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혼 참조.

● 생활 방식(Conversation) 영어 Conversation은 원래가 시민권이 아니라 행동 양식을 뜻하는 말이며 빌3:20에서는 신자들의 생활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 사론(Sharon, 사룬, 평평한 곳) I. 팔레스타인의 해변 지역인 갈멜과 욥바 사이의 100킬로미터 정도 길이의 평야. 여기에는 모래 지역도 있었지만 고대로부터 이곳은 비옥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였다(대상27:29; 아2:1; 사33:9; 35:2; 65:10). 여기에

는 사론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다(행9:35). 이 평야의 곡식을 재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만발하였다.

II. 요르단 너머 바사 지역에 있던 갓에게 속한 마을(대상5:16).

● 서기관(Scribe) 서기관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기록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며(삿5:14; 렘52:25)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삼하8:17; 20:25). 그러나 구약 시대의 후반부 특히 포로 생활 이후와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능한 사람 혹은 율법 교사나 해석자를 뜻하였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다(스7:6; 참조 대상27:32). 특별히 신약 시대의 서기관들은 성경기록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기 위해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일을 하였으며(마2:4) 특별히 주님께서 무효로 여기신 율법의 전통과 겉치레에 능숙한 사람들이었다(마15:1-6).



유대인 저자들은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훈육 선생(감독 교사)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을마다 다니며 토론회를 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였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산헤드린의 회원이었고 그들은 특히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함께하곤 하였다(마5:20; 7:29; 12:38; 20:18; 21:15).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매우 싫어하였으며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크게 핍박하였고 실로 모세와 다른 대인자들이 그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거의 알지 못하였다. 서기관이라 불린 사람들은 평행 구절에서 율법 박사 혹은 율법사라고 불린다(마22:35; 막12:28). 그러므로 서기관은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였다(고전1:20). 마소라, 성경 참조.

● 서기오 바울(Sergius Paulus, 썬저우스폴러스) 키프로스 섬의 총독. 그는 바울의 복음 선포로 구원을 받았다(행13:7).

● 서머나(Smyrna, 스머나) 에베소의 서쪽에서

64킬로미터 북방에 위치한 항구 도시.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도시로 세운 곳이며 부유함 때문에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등의 칭찬을 받았다. 서머나는 처음부터 로마에게 충성을 바치고 원정군들을 원조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충성의 결과로 한때 로마의 보호와 호의를 받아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자유 도시가 되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동전 등에 의거하면 이 도시가 매우 부유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머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던 곳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하고 핍박한 지역이기도 하다. 서머나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조금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부유한 도시 한가운데서 큰 핍박을 받은 교회였다(계1:11; 2:8-11). 이 도시의 이름은 영어로 Smyrna인데 이것은 myrrh, 즉 몰약 뜻한다. 몰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물품으로 사망과 고통을 상징한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정부와 부유한 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고통과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의 가산을 약탈하기도 하였다(히10:34).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의 경제적인 부유함과 상품 등의 필요로움은 궁핍과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여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고난과 궁핍을 당했다.

● 서신(Epistle) 편지.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사도들이 그리스천 교회를 책망하거나 지도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편지들'을 말한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진술한 참된 복음의 위대한 교리들을 주셨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에 적용할 수 있게 하셨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도들이 사는 동안 기록한 모든 것이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들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보존되며 바로 이런 책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삶의 인도 지침이 나오고 믿음과 실행의 근본 교리가 나와서 시대를 지나면서 비슷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정경 참조.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먼저 그 서신서의 수신자와 연대와 일반적인 범위와 목적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와 구절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저자의 문체 형식과 기술 방법, 표현,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보여 주려 했던 효과와 강조점, 논리의 전개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약 성경 목록 선포 참조(10).

신약 성경의 27권 책 중에서 21권이 서신서이고 그중에 14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야고보가 한 권, 베드로가 두 권, 요한이 세 권, 유다가 한 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 이런 서신서들은 신약 성경에 연대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각 서신서의 수신 교회의

설립, 특징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 대개 서신서들의 연대를 알 수 있고 서신서 기록자의 상황과 감정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특별히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방인들의 신앙 교회를 위한 지침을 주고 있고 또 그가 저술한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침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유다서는 특정한 수신인이 없이 일반 교회에 주어졌으므로 대개 '일반 서신'이라 불린다. 카톨릭 참조.

● 서원(Vow) 하나님의 은혜나 다가오는 위험 혹은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인하여 혹은 복을 간구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거나 혹은 오락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서원이나 서약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며 일단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시15:4; 말1:14). 야콥은 메소포타미아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 중 십분의 일을 뵤엘에서 드리기로 서원하였다(창28:20-22). 모세는 서원에 대하여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하였다(신23:21, 23; 전5:4-5). 한편 미성년자의 서원은 가족 중 어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였다(민30:1-16).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릴 수 있었다(민6:2). 입다는 자기 딸을 드렸으며(삿11:30-40)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주님을 위해 그를 드렸다(삼상1:11, 27-28). 주님을 위해 낳아가 드러졌으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무를 수 있었다(레27:1-34). 고르반과 나사르 사람 참조.

● 석류(Pomegranate) 페르시아와 시리아에서 잘 자라는 과일나무. 석류는 오렌지 크기이며 그 안에 많은 씨가 있고 그 주스는 순수하며 강산성이다.



이것은 아름답고 값나가는 과일이므로 정원에서 많이 가꾸었다(아4:13; 6:7, 11; 8:2; 율1:12). 석류는 팔레스타인에 아주 많았으며(민13:23; 신8:8) 인조

석류는 대제사장의 옷의 장식으로 쓰였고(출28:33) 건물의 장식으로도 쓰였다(왕상7:18).

● 석류석(Carbuncle) 결정으로 산출되는 적갈색 보석(출28:17; 겔28:13).

● 선견자(Seer)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하나님께 서만 드러낼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몇몇 히브리 대언자에게 적용되었다(삼상9:9; 대하29:30; 33:18-19; 사29:10; 30:10; 비교 민24:3-4). 그러나 이 명칭이 마치 점을 치는 듯한 인상을 주므로 이것은 나중에 대언자로 바뀌었다. 대언자 참조.

● 선고(Sentence) 널리 알림. 재판의 판결을 일반에게 발표함.

● 선동(Sedition)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소동, 폭동, 분쟁 등을 뜻한다(막15:7; 행15:2; 24:5; 갈5:20).

● 선물(Gifts) 기존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의한 영적 선물을 은사(恩賜)로 번역했지만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은사가 왕이나 부모가 신하나 자식에게 거저 주는 선물을 말하므로(약1:17) 선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구원(롬5:15), 영생(요4:10; 롬6:23), 성령(행2:38; 고전12:4) 등이 있으며 최대의 선물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요3:16; 롬8:32). 하나님께서는 이 지고의 선물과 함께 다른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롬8:32).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님의 선물(은사)들에 대하여 잘 보여 준다. 그것들은 초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로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들 행함, 대언, 영 분별, 타언어, 타 언어 통역 등을 가리킨다(롬12:6-8; 고전12:4-11; 28-30). 영적 선물들은 대개 하나님의 은혜가 비범한 형태로 특별히 나타난 것이었으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선물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물들의 실질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성령님께서는 영적 선물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따라서 모든 영적 선물에는 중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한편 극적인 선물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가 필요했고(고전14:4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영은 대언하는 사람 자신에게 제재를 받아야 했다(고전14:32).

초기 사도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영적 선물이 주어졌지만 후후 95년경에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 중에서 기적과 관련된 몇 가지 선물과 대언의 선물 등은 사라지게 되었다. 기적, 병 고침, 타 언어 참조.

● 선지자(Prophet) 대언자 참조.

● 선택(Election)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자유 의지를 보여 준다. 이 둘은 구원 교리를 이루는 데 필요한 두 개의 짝으로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고 자유 의지는 사람 편에서의 일이다.

선택의 교리가 왜곡되면 운명론 혹은 무능력 교리에 빠지게 되고 이로써 사람은 자유 의지를 부인하며 구원받는 일에 자기가 할 일이 전혀 없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을 두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가인 대신 아벨을, 함과 야벳 대신 셈을, 나홀 대신 아브라함을, 에서 대신 야곱을, 므라세 대신 에브라임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선택하신다(롬9:15-21; 참조 요15:16; 행13:48; 엡1:4-5; 살후2:13; 딤후1:9). 하나님은 심지어 세상의 창건 전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으며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행13:48)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한편 성경은 사람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참조 요1:12; 5:40). 또 성경 맨 끝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자들이 아니라 모두를 초청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계22:17).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자유 의지에는 모순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모순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예지, 즉 미리 아심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 주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감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벧전1:1-2).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9-30).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선견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리 아심’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임의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으며 사람의 자유 의지와도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고(행13:38)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며(행17:30) 사람들이 자신과 화목할 것을 간청하신다(고후5:18-2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과 그로 인한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진실하게 약속하셨다. 단 이러한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개인이 마음 문을 열고 의지적으로 복음을 수용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자기 의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를 구원하려고 택하셨으므로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따라서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롬1:16).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므로(롬10:17) 사람이 무엇을 믿을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가 사람의 구원에 필수적이며 영혼 구원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유 의지, 미리 아심, 예정 참조.

● 선포(Preaching) 공중 앞에서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사61:1; 행8:4; 고전1:18, 21; 2:4; 15:14; 고후10:14; 엡3:8; 딤후4:17; 딤후1:3). 이것은 널리 알릴 것을 뜻하고 주로 복음이나 말씀과 관련하여 쓰였다. 구약 시대 초기부터 공중 앞에서 진리의 교훈을 주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대언하였고(유14-15) 노아는 의의 선포자가 되었다(벧후2:5). 모세와 재판관과 대언자들의 이야기에는 공중 앞에서 종교적인 연설을 한 것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의식과도 관련이 있었다(느8). 성전에서 노래한 시편들도 백성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었다. 포로 생활 이후에 회당들이 세워졌으며 거기에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일이 있었다. 한편 복음 경륜(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규례가 되었고 바로 이 일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었다(막16:15; 고전1:21; 딤후2:2; 4:2).

● 선함, 선하심(Goodness) 선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데(출33:19; 롬2:4) 그분의 선하심은 의, 거룩함, 공의, 인자함,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포함한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마19:17)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선하다고 한 존재, 즉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 주셨다. 끝으로 선함은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이며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 나타난다(갈5:22; 마5:44-45).

● 섬(Isle, Island) 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물이나 바다 혹은 강 등과 대비되는 ‘사람이 거하는 마른땅’을 뜻한다(사42:15; 사50:2 비교). 그러므로 이것은 물 근처의 땅, 해변, 섬 등을 가리키며 따라서 아스돗(사20:6), 두로(사23:2, 6), 그리스(겔27:7) 혹은 ‘엘리사의 섬들’의 경우에는 해안을 뜻한다. 반면에 갯둑 혹은 크레타의 경우에는 대륙과 대비되어 섬을 뜻한다(렘47:4; 2:10; 잠3 시97:1; 예10:1). 한편 섬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될 때 이 말은 바다 건너의 먼 지역 특히 서쪽의 섬들과 해양 지방 등을 뜻했다(시72:10; 사24:15; 40:15; 42:4, 10, 12).

● 섬김(Service)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일하다’를 뜻하며 들이나(출1:14) 성막이나(출27:19) 성소에서(민7:9) 일하고 또 주님을 섬기거나(민8:11) 레위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민8:22).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섬부름하다’를 뜻하며 종으로 섬기는 것을 표현한다. 집사라는 용어가 여기서 파생되었다. 사역자, 사역 혹은 ‘섬기다’(고후11:8; 롬15:31; 계2:19) 등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또한 이 말은 종교적인 경의를 표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요16:2; 롬9:4; 12:1; 히9:1) 경배(敬拜)를 뜻하기도 한다(고후9:12; 빌2:17).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 service라고 한다.

● 성경(Bible) 이 말은 원래 책을 뜻하며 특히 다른 책과의 구분을 위해 책 중의 책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성경기록(Scriptures)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그 뜻은 단순히 ‘기록된 글’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출24:7; 마26:28).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유대인들의 성경이 되었으며 다만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의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신약은 전적으로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말은 유대 지방과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용되던 말이다. 신구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잣대이며 특별히 신약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교리와 교회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되 처음에 그것을 수용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말로 주셨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배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잘 보여 준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참조.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서, 대언서, 기록서, 즉 거룩한 기록서로 구분하였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뜻하며 이것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서 회당에서 1년에 한 차례

씩 읽을 수 있게 했다. 대언서는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로 구성된 역사서들, 즉 ‘초기 대언서’와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대언서들로 구성된 ‘후기 대언서’로 구성된다. 후기 대언서들은 이사야, 예레미야(예가는 포함되지 않음), 에스겔 같은 큰 대언서와 열두 개의 작은 대언서로 구성되는데 회당에서는 초기와 후기 대언서의 일부와 율법서를 읽었다. 끝으로 기록서는 그 외의 다른 책들, 즉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예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를 포함하였다. 한편 현대 성경에서는 모세 오경을 포함한 역사서가 앞부분에 그리고 시가서가 중간에 그리고 대언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 에스라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약의 정경을 수집하고 확정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책은 사도들의 손으로 기록되어 후대에 1권의 정경으로 정착되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 교회를 위한 서신서, 그리고 앞날을 보여 주는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장절 구분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었으며 장은 1240년경에, 구약의 절은 1450년경에, 그리고 신약의 절은 1551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구약 성경목록, 신약 성경목록 선도 참조(8-10).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신약 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70년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이다. 그 뒤 인쇄술이 발명되고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고 1535년에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전서를 발간하였다. 그 뒤 커버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메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 제네바에 거하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였고 그 이후 1611년에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이것은 지난 400여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이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른 때에 당대의 석학 50여 명이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단 한 번의 수정 없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영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성경의 보존 선도 참조(91).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축자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동어인 영어로 표현함으로써 잘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NIV, NASB 같은 현대 역본이 쏟아져 나오게 있지만 이것들은 한결같이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수천 군데에 오류를 담고 있고 특히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이므로 온전한 하나

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다. 계시, 영감, 보존, 정경, 마소라, 사본, 킹제임스 성경 참조.

● 성경기록(Scripture)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뜻하며 외경이나 위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경, 영감, 정경 참조.

● 성경 본문(Bible text) 성경 본문은 여러 사람이 다양한 자료(필사본)를 모아 재구성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본문'이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문서든지 그 문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지칭하며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리스어로 편집한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신구약 성경 본문은 계열에 따라 각각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한 본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두 종류의 본문이 생긴 것은 각각의 본문을 지지하는 그룹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두 그룹은 크리스천 교회(혹은 종교 개혁 그룹)와 로마 카톨릭교회이다. 사본 참조.

I.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마소라 사본에도 두 종류가 있다. KJV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인 반면에 NIV, NASB 같은 현대 역본들의 구약 본문은 루돌프 키텔의 작품으로 불리는 'BIBLIA HEBRAICA Kittel'(BHK) 혹은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 이다. 또한 현대 역본들은 이외에도 사해 사본, 사마리아 모세 오경, 본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된 고대 성경 기록관들의 전통, 본문 여백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본문, 70인역,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등을 사용하여 본문을 만들었다.

KJV의 히브리어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히브리어 본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516-1517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출간한 구약 성경은 '다니엘 뵘베르 그관' 혹은 '제1 랍비 성경'이라고 부른다. 그 뒤 1524-1525년에 제2판이 출간되었는데 벤 카임이 이를 편집하였다 해서 이 본문을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라 하며 또한 이 본문은 '제2 대(大) 랍비 성경'이라고도 불린다.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뒤 400여 년이 지나도록 표준 마소라 본문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KJV 역자들은 바로 이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했다.

1929년에 키텔이 죽은 뒤 칼레(Paul. E. Kahle)는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본문을 전격적으로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으로 바꾸고는 키텔의 이름을 붙여서 1937년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을 출간하였다. 사실 1906년과 1912년에 키텔이 출간한 제1판과 제2판에서는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 사용되었는데 1937년에 출간된 제3판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한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으로 갑자기 구약 성경의 출처가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약 성경 본문에서 20,000여 군데가 수정되었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주후 100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KJV의 기초가 된 '전통 마소라 본문'과는 매

우 다르다. 그 이후 1967년과 1977년에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키텔의 BHK를 개정한 BHS가 출간되었는데 이 마소라 성경 역시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한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것이다.

II. KJV 신약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다. '공인 본문'은 누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누구나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本文)이며 그래서 이것은 '수용 본문'(收容本文)이라고도 불린다. '공인 본문'은 KJV 신약 성경 번역의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1598년에 출간된 베자의 제5판이 사용되었다. '공인 본문'의 특징은 우선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 (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며,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 본문'이라고도 한다.

KJV 신약 성경 번역에 사용된 그리스어 본문은 상당수의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조합되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서는 에라스무스, 베자, 스테파누스와 엘제비어 형제, 아브라함과 보나벤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에라스무스는 다섯 판에 걸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1516년의 제1판에 이어, 1519년에는 마르틴 루터가 그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독일어 번역판에 사용했던 제2판이 나왔다. 그 뒤 그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판은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매우 훌륭했고 지금까지 수 세기 동안 모범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스테파누스는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1년에 모두 네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베자도 1565년, 1582년, 1588년, 그리고 1598년에 걸쳐 여러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KJV 역자들은 1598년의 베자 성경과 1550년과 1551년의 스테파누스 성경을 주요한 출전으로 사용했다. 1611년에 KJV가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엘제비어 형제가 1624년, 1633년, 그리고 1641년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는데 이들은 에라스무스의 표준을 따랐던 베자의 판을 충실히 따라가며 본문을 편집했다.

사도 시대부터 전 1,900년 동안 신약 교회는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왔으며 특히 1611년에 KJV가 출간된 이후에는, 비록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60년 동안 다른 영어 성경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또한 KJV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보편적 성경이 되었

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한 성경'이라는 인식하에 '권위역본'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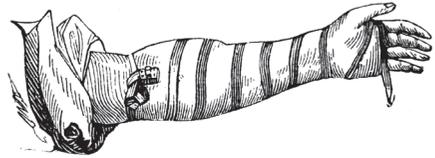
기독교회의 팽창에 대해 불안을 느낀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소위 본문 비평이라는 도구를 도입하여 성경을 한낱 역사책처럼 취급함으로써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으며 이를 위해 허영에 들뜬 신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1881년에 영국 성공회에 속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두 명의 학자들은 '공인 본문'에서 무려 5,604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본문'이라는 개악된 비평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빼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한 단어들은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를 차지하는 것이다. 웨스트코트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으며 호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다.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장신술 등에 심취한 영성주의자들이요, 지옥이나 마귀 등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창세기 기록을 신화로 생각한 인본주의자들이었다.

1967년도까지 존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의 수는 모두 5,255개이다. 이런 사본들에는 81개의 파피루스 사본과 267개의 대문자 사본, 2,764개의 소문자 사본, 2,143개의 기도문(혹은 교육문) 등이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초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공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필사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잘 보여 준다.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는 '공인 본문'과는 달리 1898년에 처음 만들어진 '네슬레판'은 2012년까지 무려 27번이나 판을 개정하여 평균 4.2년마다 새로운 판이 개정되어 나왔다. 이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뜯어고치려 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이 이 같은 철학을 수용한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주후 250-350년 사이에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려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본들을 모두 없애고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엉뚱한 이론을 폈는데 현대 성경본문 비평학자들은 바로 이같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상상 속에서 꾸며 낸 헛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날조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로마 카톨릭주의에 심취하여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신비주의 영성주의자들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금은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에 근거를 둔, 즉 전체 사본 중 1%에 해당하는 사본에 근거를 둔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역본, 킹제임스 성경 참조.

● 성구함(Phylacteries) 율법의 말씀들을 담은 작

은 양피지 두루마리. 유대인들은 성구함을 이마와 왼팔에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그것을 네 손 위의 표적과 네 눈 사이의 기뻐물로 삼으라."(출13:9, 16)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결과이다. 이마에 착용하는 것은 표(Frontlets)를 참고하기 바란다. 팔에 매는 것 역시 양피지 두루마리였으며 그들은 이것을 둘둘 말아 검은색 소가죽 통에 넣고 이런 가죽 성구함을 왼손의 팔이 접히는 부분에 묶어서 착용하였다. 성구함은 그리스어로 '보존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마귀들로부터 보존되는 것도 뜻해서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도 하였다. 이것은 구약 시대 말기에 도입되었으나 주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경건과 지혜의 표시로 시장에서 이런 성구함을 차고 다니는 것을 책망하셨다(마23:5).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119:11).



● 성도(Saint) 신구약 성경에 총 101회 나오는 이 말은 원래 성인, 즉 거룩한 사람을 뜻하며 하늘이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신33:2). 이 말은 구약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었으나(시16:3; 34:9; 단7:25, 27) 신약 성경에서는 대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도 바울에 의해 사용되었다(롬1:7; 8:27; 12:13; 15:25, 31; 16:2). 다시 말해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성도, 즉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결국 천주교는 스스로 성인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성인으로 만들어 신자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의 은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가증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 성령님(Holy Ghost)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본질과 능력과 존재 면에서 동등하시며 아버지나 아들에게서 발출된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경우에 한해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에게서 보내어졌다(요14:26; 15:26). 이분은 아버지의 영이며(마10:20; 고전2:11)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갈4:6; 빌1:19).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분은 스스로 행동을 하고 생각하며 감정을 드러내는 인격체이다. 이분이 인격체가 아니라면 기뻐하거나 피로워하거나 슬퍼할 수 없으며 또 말씀하거나 위로하거나 증보하거나 자신의 선물은

사들을 나누어 줄 수 없다. 물론 그리스어나 영어에서 이분은 남성을 가리키는 he로 표현되어 있다.

성령님께서 신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다른 두 분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의 창조 사역에서(창 1:2; 시33:6; 104:30) 성령님은 다른 두 분과 함께하셨다. 성령님은 또한 침례를 주는 방식에서도 다른 두 인격체와 함께 찬송을 받으시고(마28:19)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에서도 다른 두 분과 함께 나타나시며(고 후13:14) 특별한 이름을 받으시고(고후3:17) 하나님의 특성들을 행하고 보여 주신다(롬8:14; 고전2:10; 6:19; 히9:14).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므로 성도들은 그분께 기도할 수도 있으며(계1:4-5) 그분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행5:3-4; 엡4:30) 그분께 신성모독을 범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마 12:31). 성령 모독죄 참조.

성령님의 일은 신성을 띠고 있다. 그분은 옛날부터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적의 선물(은사)들을 나누어 주었다. 교회 시대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하며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요16:8-9)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보여 주며 조명을 주사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요3:5; 엡2:1). 성령님은 교회의 위도자이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며 성화시키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며 따라서 반드시 성령님의 증거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살아 있는 사과나무가 반드시 사과를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고후13:5).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요15:26; 16:14-15; 고전12:3). 그러므로 성령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 인물로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되시며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 성경을 탐구하려는 열망이 생긴다(요5:39-40). 그러므로 성령님의 일은 성경 읽기와 탐구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갈급함: 성령님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갈5:22-23). 성령님의 열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인다. 그러므로 역경과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성령 충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단히 자기 성찰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삶이 매우 필요하다. (3)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 고자 하는 갈급함: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놓으며 사람들을 섬기려 한다. 성령님의 선물(은사)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선물은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다(벧전4:10; 고전12:7).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선물(은사) 중심이 아니라 섬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의 선물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그분께서 외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강조할 때는 the Holy Ghost로, 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강조할 때는 the Spirit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므로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도 the Holy Ghost는 성령님으로, the Spirit은 성령으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참조.

● 성령 모독죄(Blasphemy against the Holy Ghost) 이것은 보통 '성령 훼방죄'로 알려져 있으며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선물(은사)을 이야기할 때 성경 신자들이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 그들은 대개 '성령 훼방죄'를 운운하며 진리를 보여 주는 성도들을 저주하려 하지만 실제로 성령 모독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마12:31-32; 막3:28; 눅12:10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께서 배부시는 기적들이 마귀들의 통치자 마알세불의 힘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성령 모독죄가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땅에 계시던 예수님과 관련된 죄이며 현시대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현대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으며 누구든지 무슨 죄라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 가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 신성모독 참조.

● 성령 충만(Filled with the Holy Ghost)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쓰며 육신을 죽이는 상태. 이것은 신약 성경에 15번 등장한다(눅1:15, 41, 67; 4:1; 행 2:4; 4:8, 31; 6:3, 5; 7:55; 9:17; 11:24; 13:9, 52; 엡5:18). 이 중에서 14구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모임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성령 충만이 명령으로 나와 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소령으로 충만할지니라"(엡5:18). 이 말씀은 충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준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의 통치하에 있다' 혹은 '무엇에 의해 지배당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진리는 술에 취하는 것(술에 지배당하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비교한 데서 알 수 있다.

또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는지 말해 주고 있다. 여기서 "충만할지니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를 다시

쓰자면 “계속 충만할지니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제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 한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지속되거나 혹은 살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유지되어야 하며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때는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누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지니라.”라는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 이 명령은 특정 소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모두에게 적용된다. 성령 충만의 명령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다.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 불순종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롬6:13; 12:1)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걸을 때(갈5:16) 얻을 수 있다.

끝으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 성령 침례는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난다. 모든 신자는 항상 성령 침례를 받은 상태에 있지만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순종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은 명령이다. 성령 침례는 믿는 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고 성령 충만은 믿는 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성령 침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사람의 행동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것이다. 성령님, 성령 침례, 침례 참조.

● 성령 침례(Baptism with the Holy Ghost) 성령님께서 신자 속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같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둘은 매우 다르다.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은 신약에서 11번 나온다(마3:11; 막1:8; 눅3:16; 요1:33; 행1:5; 11:16; 롬6:1-7; 고전12:13; 갈3:26-28; 엡4:5; 골2:12). 이 중 다섯 번은 성령 침례를 미래 시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성령 침례가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시제도 있는데(행11:16) 이것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날 이루신 성령 침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머지 다섯 번은 서신서에 있으며 모두 성령 침례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신약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I. 침례는 ‘담그다’는 뜻을 가지며 ‘하나의 사물을 다른 데로 옮겨 놓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성령 침례는 이런 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 침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난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성령님 안으로 꼭 잠기게 하신다. 여기서도 침례라는 단어가 쓰이며 이는 곧 그를 성령님의 세계로 옮김을 의미한다. 둘째,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꼭 잠기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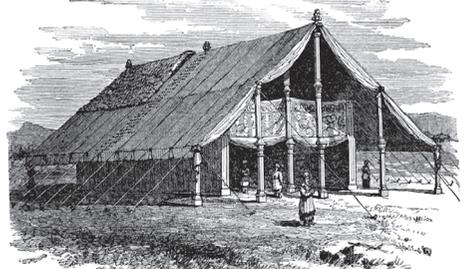
신다. 이것은 곧 그를 그분의 교회라는 세계로 옮긴다는 말이다(요1:33; 고전12:13).

II. 성경은 성령 침례가 성도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경험의 일부라고 가르친다. 성령 침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셔 들여 다시 태어날 때 일어난다. 따라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필수 불가결의 관계에 있는데(갈3) 그것은 곧 성도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III.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친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성경도 성도들이 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고전12:13). 즉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따라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신자는 있을 수 없다.

IV.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추구하라는 명령이 없고 심지어 그 같은 것에 대한 암시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 침례가 구원받은 순간 이루어지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된 소유이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굳이 이것을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 성령님, 성령 충만 참조.

● 성막(Tabernacle, 타버네크, 장막) 이것은 보통 장막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세운 특별 장막인 성막을 뜻한다. 이곳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지시 사항과 이것을 수행한 내용은 출25:1-40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보통 회중의 성막 혹은 증언의 성막이라 불렀다. 성막 선도 참조(56).



성막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각각 30, 10, 10큐빗이었고(출26:15-30; 36:20-30) 입구는 네 종류의 덮개로 덮인 채 동쪽에 있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동쪽의 삼분의 일은 성소 그리고 서쪽의 삼분의 일은 지성소로 쓰였는데 이 두 곳에는 창문

이 없었으므로 성소에서 섬기려면 등잔불이 있어야 했다. 성막의 뜰에는 번제 헌물 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제단은 뜰의 문과 성막의 문 사이에 있었으며(출40:6, 29) 물두멍은 번제 헌물 제단과 성막의 문 사이에 있었다(출38:8). 바로 이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헌물과 기도를 드렸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는(히9:6) 향 제단과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과 금 등잔대가 있었다. 향 제단은 성소의 중앙에 휘장 앞에 있었으며(출30:6-10; 40:26-27)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아침저녁으로 향을 태웠다. 제사장의 오른쪽, 즉 북쪽에는 보여 주는 빵이 있었고(출26:35; 40:22-23) 남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었다(출25:31-39). 매년 7월 10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그룹들과 궁홍의 자리로 덮인 언약궤가 있었다(히9:7).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세워졌고(출40:17)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움직여야 했으므로 분해해서 쉽게 조립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성막의 이동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옮겨 다녔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움직인 횟수만큼 성막도 레위 사람들에 의해 옮겨졌고(민4:1-49) 그들이 진을 친 곳에 다시 조립되어 세워졌다.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에 성막은 길갈에 있었으며(수4:19; 10:43) 정복이 끝난 뒤에는 여러 해 동안 실로에 있었다(수18:1; 삼상1:3). 삼하6:17과 대상15:1은 다윗이 기랴트아람에 오래 머물다가 오벧에돔의 집에 머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려고 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성막을 세웠다고 말한다(대상13:6, 14; 참조 삼하6:11-12). 한편 대상21:29은 모세의 성막이 그 당시에 기브온에 있었다고 말하므로 언약궤와 성막은 이미 오랫동안 따로 있었을 지도 모른다. 솔로몬 때에도 성막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으며(대하1:3, 13) 아마도 이것이 성막에 대한 마지막 언급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 안으로 궤와 함께 들어온 성막은(대하5:5) 오랫동안 시온에서 궤를 보관해 온 장막이었기 때문이다(대하1:4; 5:2).

● 성벽을 부수는 망치(Battering-Ram) 고대에 도시나 성채의 성벽을 부수기 위해 사용된 장치로서 공성되라 불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공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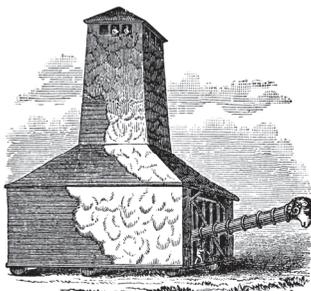
의 탑 밑에서 일하고 활 쏘는 자들이 탑의 위에서 성 안의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였다(렘4:2; 21:22).

● 성별(Sanctify) 거룩히 구별하다와 성화 참조.

● 성소(Sanctuary) 하나님께 구분된 거룩한 장소. 성소는 종종 성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시73:17; 히9:1) 향 제단과 금 등잔대와 보여 주는 빵을 둔 성소(Holy place)를 가리키기도 하며(대하26:18; 히9:2) 어떤 때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즉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지성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성소는 광야에서 세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였다(레4:6). 성막과 성전 참조. 땅의 성전 혹은 성소는 하늘의 것의 상징이며(시102:19; 히9:1, 24) 도피하는 사람이 성전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는 하나님이 성소라 불리기도 한다(사8:14; 렘11:16).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추격을 받는 죄인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다.

● 성전(Temple)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그분께만 경배하는 건물.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인데 우상이 있는 이교도들의 신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그들들 사이에 거하신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대언자를 통해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이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 많은 물자를 예비하였다. 성전을 세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다(창22:2, 14; 대하3:1). 성전의 양식은 성막과 거의 비슷하며 단지 외형만 커졌고 그 안의 기구들도 거의 비슷하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7년 6개월이 걸렸으며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대하5:1-14; 6:1-42; 7:1-22). 성전 자체는 주광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그리 크지 않았으며 주변의 뜰과 방이 있는 지역이 넓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가 있는 건물만을 뜻하지 않고 종종 뜰을 포함한 전체 성전 구역을 의미한다. 솔로몬의 성전 선도 참조(57).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6장과 역대기하 3-4장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 33년 동안만 아름다움을 유지하였고 이집트의 시삭 왕이 이곳을 약탈한 뒤부터(왕상14:25-26; 대하12:9) 하사엘, 디글랏빌레엘, 산헤립 등이 더럽혔고(왕하12:1-21; 16:1-20; 18:1-37) 마침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래서 첫 성전은 424년 3개월 8일 만에 땅에서 사라졌고 그 뒤 52년 동안 폐허(廢墟)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 둘째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스1:1-4; 2:1; 3:8-10) 그 뒤 이방인들의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 21년이 지난 뒤 완공되었다(스6:15-16). 이 성전의 크기는 이전 것과



같았으나 겔보습은 이전 것보다 떨어져서 처음 성전을 본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의 새 성전을 보고 슬퍼하였다(학2:3).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집의 영광이 처음 것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학2:9). 이 성전에는 언약궤, 금홍의 자리, 눈에 보이는 영광, 제단의 거룩한 불, 우림과 돌뿔, 대인의 영 등이 없었다. 주전 168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매일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를 금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을 더럽혔고 근 3년 동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5년에 다시 경배를 부활하고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였다.

헤롯은 자신의 통치 37년인 주전 37년에 두 명만 빼고 산헤드린의 모든 회원을 죽였으며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미화하기로 하였다. 그는 2년 동안 자재를 모은 뒤 스로바벨의 성전을 허물고 46년에 걸쳐 다시 지었다. 이렇게 완공된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으므로 학2:9; 말3:1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헤롯의 성전은 대리석으로 건축되어 빼어난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하였다(막13:1; 눅21:5). 그러나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여겨지던 성전은 주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막13:2). 헤롯의 성전 선도 참조(57).

왕들의 시대에는 레위 사람들이 항상 성전을 지켰다(대상26:1-32; 대하23:19). 로마의 통치 때에는 성전과 불은 안토니아의 성채 안에 로마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요18:12; 행4:1; 5:26; 21:31-40).

경건한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사랑하였다(시84:1-12). 그런데 어떤 이들은 헛된 열심에 빠져 위선과 우상 숭배로 성전을 자랑하였으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을 향해 신성모독 죄를 범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마26:61; 27:40; 요2:19-20; 행6:13; 21:27-30).

한편 신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신자의 몸이며(고전3:16-17; 6:19; 고후6:16) 신약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는 결코 성전이 아니다. 교회가 의식화되어 천주교처럼 변하면서 목사가 제사장(사제)처럼 행세하고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구약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주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일이다. 니콜리당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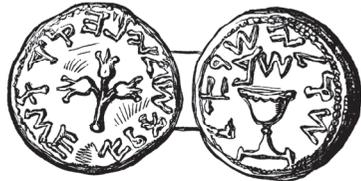
● 성정(Passion) 사람의 마음을 이루는 성정과 마음씨(약5:17).

● 성취되다(Fulfilled)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너무 명백하다.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히 주님의 예언과 약속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쓰였다(수23:14; 마2:17; 8:17; 12:17).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일이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고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경

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요19:24, 28, 36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줄 몰랐다. 또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은 이 말이 적용된 일이 원래의 예언 구절을 직접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호세아 대언자의 말씀, 즉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호11:1)는 말씀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을 뜻하지만 부가적으로 성도 마태는 마2:15에서 이집트에 내려간 예수님에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라는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여럿 있다(시109:8; 사6:9; 61:1-3; 마13:14; 눅4:18-21; 행1:16, 20).

● 성화(Sanctification) 구원받은 성도는 즉시 칭의를 얻으며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데 성화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완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같기 때문이다(히3:1; 10:10-14; 고전1:30).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자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신분적으로 완전하지만 메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도 존재하며 그 결과 신자는 점차로 자신의 더러운 본성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점도 없이 큰 기쁨과 함께 서게 된다. 이러한 점진적 성화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유로운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루어진다(요14:26; 17:17; 고후3:18; 7:1; 엡4:24; 살전4:3-4; 5:23; 살후2:13; 히12:10; 뱀전1:2; 요일1:7-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한 이후에 그의 상태마저 완전히 성화될 것이다. 이 말은 즉 성도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뿐만 아니라 실제 성도의 삶 자체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룩함, 성별, 분리 참조.

● 세겔(Shekel, 쉘겔) 세겔은 원래 무게였으며 금이나 은을 다는 데 사용하였다. “아브라함이 상인들



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사백 세겜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창23:16). 이런 경우에 히브리어에서 세겜은 생략되곤 하였으며(창20:16; 37:28) 영어에서는 piece라는 말을 첨가하고 이탈리아어로 표시하였다. 거룩한 세겜(출30:13)과 왕의 무게에 따른 세겜(삼하14:26)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겜이라는 명칭을 가진 동전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마카비 시대에 나왔으며 아마도 마26:15에 나오는 은전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 세겜(Shechem, 쉘킴, 어계) I. 가나안 족속으로 세겜 마을의 통치자. 그는 야곱의 딸 디나를 유인하여 욕을 보였으며 후에 디나의 오라비 레위와 시므온 등에 의해 자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창34:1-31).

II. 그리스 산과 에발 산 사이에 놓인 가나안의 중부 도시.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소유하게 되었다(창12:6; 33:18-19; 35:4). 야곱은 이 근처에 밭을 사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은 거기에 묻혔다(창48:22; 수24:32).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배정되어 레위 사람들의 도시로 도피 도시가 되었고 지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수20:7; 21:21; 24:1, 25; 삿9:1-57).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르호보암은 여기에서 열 지파가 반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왕상12:1-33). 이 근처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으며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다(요4:5; 참조 행8:25; 9:31; 15:3). 살만에셀(혹은 사르곤)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뒤에 세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수도가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 참조. 세겜의 끝자기는 에발 산과 그리스 산 사이에서 북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나아가며 너비는 500미터 정도 된다. 그러므로 이 두 산은 서로를 향해 메아리를 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신27:11-14; 삿9:7).

● 세공업자(Smith) 놋과 은 등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창4:22). 세공업자 혹은 대장장이는 문명 발전에 필수적이며 특별히 전쟁을 할 때에는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다(삿5:8; 삼상13:19-22; 왕하24:14). 환런 신약에는 은과 구리 세공업자가 나온다(행19:24; 딤후4:14).

● 세군도(Secundus, 쉘컨더스, 둘째) 데살로니가의 제자. 그는 바울의 여행에서 함께하였다(행20:4).

● 세나(Zenas, 지나스, 제우스의 선물) 바울의 친구로 경건한 율법사. 바울은 말년에 니코폴리스에서 디도에게 글을 쓰면서 그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라고 했다(딤후3:13).

● 세대(Generation) 이 말은 보통 자손, 혈통 등의 뜻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역

사 혹은 계보 등을 뜻하기도 한다. 창5:1의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은 아담의 창조와 그의 후손들의 역사에 대한 책이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창2:4-5의 ‘하늘들과 땅의 생성물들(세대들)’은 하늘들과 땅에서 생성된 것들을 말한다. 또한 마1:1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은 그리스도의 계보와 그에게서 난 후손들과 그분의 삶의 역사에 대한 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첫 사람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세대, 즉 그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대한 책이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라”(시22:30-31).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씨는 곧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며 성경은 주님께서 그 씨를 단 한 세대로 여기신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세대’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형제이고 손자, 중손자 등이 없으므로 당연히 다 한 세대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선정된 세대라고 말한다(벧전2:9). 시14:5; 24:6; 73:15; 78:6, 8; 102:18; 112:2; 사53:8; 렘7:29; 마23:36; 24:34; 막13:30; 눅21:32; 행8:33 등의 세대도 거의 같은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세대는 지금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마24:34)는 말씀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모든 일이 성취됨을 뜻한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행2:40)는 말씀은 패역한 사람들을 향한 진노로부터 피하라는 뜻이다. 세대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것을 정확히 구분 짓는 것은 매우 힘들다.

●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경를 참조.

● 세라(Serah, 쉘라, 진보) 아셀의 딸. 그녀는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에 세 번 등장한다(창46:17; 민26:46; 대상7:30).

● 세라(Zerah, 지라, 해돋이) I. 르우엘의 아들, 에서의 손자(창36:13, 17).

II. 유다와 다말의 아들(창38:30; 마1:3).

III. 시므온의 아들, 세라 족속의 창시자(민26:13). 그는 창46:10에서 소홀로 언급되었다.

IV. 아사 왕 시대에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에티오피아 왕(대하14:9-13).

● 세레셀(Sherazer, 쉬리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레겜멜렉과 다른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본 사람(슌7:2).

● 세레스(Zeresh) 하만의 아내. 그녀는 하만처럼 거만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종 모르드개를 달려고 준비한 교수대에 자기 남편과 열 아들이 달려 죽

는 것을 보아야 했다(에5:10-14; 6:13; 7:10; 9:13).

● 세렛(Zered, 지렛) 사해의 남동부로 들어가는 시내나 그 시내가 있던 골짜기(민21:12; 신2:13-14). 이곳은 모압의 남쪽 경계로 사렛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출애굽 참조.

● 세레(Baptism) 침례 참조.

● 세리(Publican) 세금 거두는 사람. 로마 정부에는 두 부류의 세금 거두는 사람이 있었다. 한 부류는 자기 밑에 부관들을 두고 제국의 세금을 거두어들이어 황제에게 보고하는 사람들로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력이 막강하였다.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부관들, 즉 유대인들이 경멸한 세리들은 말 그대로 강도와 소매치기 수준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극도로 미워하였고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과 해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였으며 세금 바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신17:15) 자기 민족 중에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교도로 취급하였다(마18:17). 그래서 세리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도 어려웠고 공공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거부되었다. 우리 주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는 세리가 많이 있었다. 작게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불리므로 아마도 부관들을 거느린 주요 세금 징수자였을 것이다(눅19:2). 그러나 마태는 부관 노릇을 하는 세리였다(눅5:27).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이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였지만(눅7:34)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신과 위선을 아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마21:31). 눅18:10-14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셰멜(Shemer, 쉬머, 보호) 오르리는 북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작은 산 위에 세웠는데 이 산은 전에 셰멜의 소유였다(왕상16:24).

● 세바(Sheba, 쉬바, 충만하다) I. 라아마의 아들(창10:7). 그의 후손은 페르시아 만의 머리 부분에 산 것으로 추정된다. 구스와 라아마 참조.

II. 욱단의 아들(창10:28).

III.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의 아들인 욱단의 아들(창25:3).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IV.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괴롭게 한 베냐민 사람. 그는 레바논 남단 부근의 아벨벤펀마가에서 포위를 당했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그의 목을 베었다(삼하20:1-26).

● 세바(Zebah, 지바, 살육) 기드온에 의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왕(삿8:5).

● 세베대(Zebedee, 제버디, 선물) 살로메의 남

편. 그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로서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서 어부로 지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의 두 아들을 부르실 때에 곧바로 그들을 가게 하였다(막1:19-20).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께 시중을 들며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다. 살로메 참조. 그의 아들 요한은 개인적으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다(요18:15-16; 19:26).

● 세삭(Sheshach, 쉬색) 바빌론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 이것은 통치자의 집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렘25:26; 51:41).

● 세상(World) 이 말은 우리가 거하는 땅(삼상2:8), 거주민(요3:16), 많은 사람(요12:19)을 뜻한다. 여러 구절에서 이 말은 땅이나 대륙을 뜻하고 로마 제국의 땅 혹은 유대와 그 근방의 땅을 뜻하기도 한다(눅2:1; 4:5; 행11:28). 한편 이 말은 시간과 감각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갈6:14; 요일2:15).

● 세스바살(Sheshbazzar, 쉬시베저르) 스룹바벨 참조.

● 세 여관(Three Taverns) 로마에서 남쪽으로 5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마을(행28:15).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지도 참조(44). 로마의 크리스천 형제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아피이 광장 참조.

● 세워 주다(Edifying) 보통 이 말은 성도를 세워 주는 것을 뜻하며 이 일은 개인이나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고전14:3-5; 고후12:19; 엡4:29). 특히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혼동이 있는 교회에는 세워 주는 일이 많이 필요했다(고전10:23; 살전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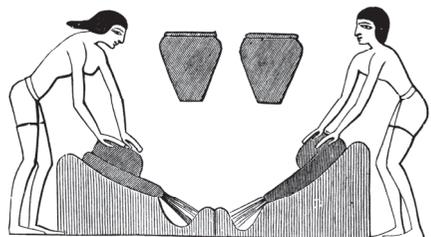
● 세일(Seir, 쉐어, 털이 많은) I. 기랴트여림 근처에 있던 유다의 산(수15:10).

II. 사해 남부에 살던 고대의 호르 족속(창36:20; 신2:12).

III. 사해의 최남단과 홍해의 동쪽 만 사이에 있던 산지. 호르 산은 세일의 일부였으며 그곳의 원래 이름을 유지한 유일한 지역이다. 이두매아 참조.

● 세입(Revenue) 조세 수입.

● 세탁공(Fuller) 옷을 빼는 사람. 그가 어떻게 옷을 빨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세상의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다(막9:3). 말3:2에는 세탁공의 비



누가 나온다. 변화 참조.

● 셀라(Sela, 쉐라, 바위) 히브리어 셀라는 그리스어로 페트라, 즉 바위를 뜻하였다. 유다 왕 아마사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싸워서 셀라를 점령한 뒤 그곳을 욱드엘이라고 불렀다(왕하 14:7). 페트라는 고대의 강한 요새며 상업의 중심지로서 그 지역의 수도나 다름이 없었지만 구약 시대 대언자들은 페트라의 몰락과 황폐화에 대하여 대언하였다(사34:5-15; 렘49:7-22; 겔35:1-15; 욥3:19; 암 1:11-12; 욥3-16).

● 셀라(Selah) 시편에 73회 나오는 음악 용어. 이것은 또한 합3:3, 9, 13에도 나온다. 보통 이 말은 시의 끝부분이나 구절의 끝부분에 나오며 시편을 노래할 때 생각하기 위해 쉬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부분에서 악기의 반주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셀라가 나오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것으로 인한 유대인들의 구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셀롯(Zelotes, 절로티즈)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 하나인 시몬의 이름(눅6:15; 행1:13). 그는 또한 가나안 사람으로 언급되었으나(마10:4; 막3:18) 그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가 많지 않다.

● 쉘(Shem, 션, 이름) 노아의 둘째 아들(창5:32; 6:10). 그는 항상 자기 형인 야벳보다 앞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는 죽음을 앞둔 그의 아버지에게서 복을 받았고(창9:26) 그의 계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였다. 그에겐 다섯 아들이 있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함과 야벳의 중간 지역을 차지하고 동방의 가장 좋은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지금도 쉘족이라 불리는데 여기에는 히브리, 갈대아, 시리아,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말이 포함된다. 함의 후손들 역시 이 계통에 속한 말을 사용하였다. 히브리어 참조.

● 쉔나(Shebna, 쉔브나) 히스기야 왕의 궁궐 청지기 혹은 서기관(사22:15; 왕하18:18, 37).

● 셋(Seth, 세스, 그분께서 정하셨다) 아벨이 죽은 뒤에 아담이 얻은 아들(창4:25-26; 5:3-8). 그는 경건한 족장들의 선조가 되었다.

● 소(Ox) 소는 성경에서 황소와 동의어이며 레위의 율법하에서 정결한 짐승이다. 소는 음식물로도 많이 사용되고(왕상19:21) 목축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이며(창24:35; 욥1:14; 42:12) 농사 짓는 일이나(왕상19:19) 곡식 밟는 일에 널리 사용되었다. 곡식을 밟을 때에는 사람들이 소에게 땅(입마개)을 씌우지 않고 잘 먹었다(사30:24; 고전9:9). 소의 멍에를 시험하는 일은 지금도 중요한 일이다(눅14:19). 황소 참조.

● 소(So, 쏘) 이집트의 왕. 그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와 연합하여 그를 돕기로 약속하였지만 아시리아의 살만에셀(혹은 사르곤) 왕이 사마리아를 멸하고 왕국을 전복하는 일을 막지 못했다(왕하17:4). 피라

오 참조.

● 소고(Sochoh, 쏘코) I. 아세가 근처에 있던 유다의 평야 마을. 이곳은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으로 유명하며(삼상17:1; 왕상4:10) 르호보암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려고 이곳을 강화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이곳을 점령하였다(대하11:7; 28:18).

II. 유다의 산지에 있던 마을(수15:48).

● 소금(Salt) 유대인들은 사해의 언덕이나 소금 바위에서 소금을 가져오거나 연안에서 물이 증발하여 생성된 소금을 가져다가 썼다. 아람 사람들은 5-7센티미터 두께의 소금을 얻어서 많은 양을 시리아에 팔곤 하였다. 성경에서 소금이 언급되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소금이 땅부재와 조미료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욥6:6 등). 소금은 또한 기적으로 샘을 고치는 일에도 사용되고(왕하2:21) 하나님의 제단에서 소멸되는 희생물에도 뿌려졌으며(레2:13; 겔43:24; 막9:49) 거룩한 향의 제조에도 사용되었다(출30:35).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땅의 소금이며(마5:13) 은혜나 참된 지혜는 땅의 소금이다(겔16:4; 막9:50; 골4:6).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땅이 극도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소금으로 뒤덮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떠오르게 한다(신29:23; 겔47:11; 습2:9). 한편 소금은 영속성과 부패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은 주 앞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하였다(민18:19; 대하13:5). 이것은 또한 우정의 상징이며 종들이 주인에게 바치는 충성의 상징이다. 팔레스타인의 암염, 즉 바위 소금은 풍화되기도 하고 습기를 빨아들여 용해되기도 함으로써 나중에는 비료에도 못 쓰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 길에 버려지곤 했다(마5:13; 막9:50).

● 소금 골짜기(Valley of salt) 다윗의 승리로 인한 기념 장소(삼하8:13; 대상18:12; 시60:1-12). 유다 왕 아마사는 여기서 에돔 사람들을 물리쳤다(왕하14:7). 의십의 여지없이 이곳은 사해의 남단에서 12킬로미터나 뻗어나간 넓고 깊은 골짜기를 뜻하는데 이곳은 그 지역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이 있던 곳으로 종종 사해의 쓴 물로 뒤덮이기도 하였으며 공기 또한 아주 나빴다. 이곳의 많은 부분이 소금으로 인해 하얗기 때문에 이곳은 소금 골짜기라 불린다(창14:10; 습2:9).

● 소나무(Pine) 레바논 산과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종류의 소나무가 있으며(느8:15; 사41:19; 60:13) 그것들은 주로 건축재와 땃목 등으로 사용되었다.

● 소돔(Sodom, 썬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 이곳은 아브라함 당시 그의 조카 롯이 거하던 도시였다(창13:10-13; 14:12).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이곳들을 멸하셨다(창19:1-20). 이 도시가 있던 썬돔 평야는 아름답고 비옥한 곳으로 땅의 낙원 같았으나 하나님의 심판

을 받은 뒤에는 불에 소멸되고 사해의 물에 잠겨 버렸다. 대언자들은 다른 지역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이곳들이 완전히 메달라 사람이 거하지 않을 것을 보여 주었다(렘49:18; 50:40). 또한 이곳들은 가시덤불이 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신29:23; 암4:11). 성경 전체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상징이며 죄와 범법 속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표적이다. 한편 롯과 함께 거하던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를 일삼은 사악한 사람들로 나타난다(창19:1-38; 왕상14:24; 롬1:26-27).

● 소라(Zorah, 조라, 벌) 유다의 경계 안에 있던 단 지파의 도시(대하11:10). 이곳은 수15:33; 19:41에서 소래아로 언급되었다. 삼손은 소라 사람이었다(삿13:2, 25; 대상2:54; 4:2). 삼손이 담뱃으로 내려가던 길은 들짐승이 살기 좋은 바위투성이의 골짜기 길이었고 바로 여기에서 그는 아무 무기도 없이 사자를 죽였다(삿14:5-7).

● 소렉(Sorek, 쏘렉, 붉은 포도)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멀지 않은 골짜기.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는 여기에 살았다(삿16:4).

● 소멸(Consume) 불에 의해 사라져 없어짐.

● 소바(Zobah, 조바) 시리아의 한 지역. 이곳의 왕은 사울 및 다윗과 전쟁을 하였다(삼상14:47; 삼하8:3; 10:6). 이곳은 다마스쿠스 근처에 있었으며 후에 솔로몬 왕이 정복한 하맛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대하8:3).

● 소바더(Sopater, 썬파터) 베레아의 그리스도인. 그는 바울이 그리스에서 소아시아로 가는 동안 그와 함께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행20:4) 그는 또한 롬16:21에서 소시바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바울의 친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소발(Zophar, 조파르, 재갈대는 새) 욥의 세 친구 중 하나. 그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야마 출신이었으며 욥과의 대화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한 번 적게, 즉 두 번 나타나는데 그 역시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욥에 대해 생각하며 특히 욥에 대해 엄한 비판을 가하였다(욥2:11; 11:1-20; 20:1-29).

● 소산님에돏(Shoshannim-Eduth, 쇼세님이다) 중언의 백합(시60; 80). 수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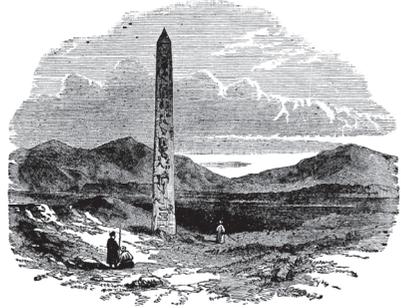
● 소생(Revive)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남.

● 소스테네(Sosthenes, 썬스터니즈, 누구의 아버지)를 구하다)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치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 갈리오 앞으로 데려갈 때 그는 이방인들에 의해 매를 맞았다(행18:17). 그는 바울을 없애려는 유대인들의 시도를 책임진 우두머리였으나 후에 회심하여 바울로부터 '우리 형제 소스테네'라는 호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전1:1).

● 소시바더(Sosipater, 소씨퍼터) 소바더 참조.

● 소안(Zoan, 조안) 이집트 위쪽의 고대 도시(민

13:22). 이곳은 왕가의 도시였다(사19:11-13; 30:4). 그 주변의 평지 지역도 소안이라 불렀는데 바로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행하였다(시78:12, 43). 여기에는 신전과 오벨리스크와 스�핑크스 등의 폐허가 크게 남아 있어 이 도시의 고대 영광을 보여 준다(겔30:14).



소안과 오벨리스크

● 소알(Zoar, 조어, 작은) 사해의 남동쪽 도시. 이곳은 다른 네 도시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소멸당할 위험에 있었으나 롯의 청원으로 보존되었다(창14:2; 19:20-23, 30). 이곳은 원래 벨라라 불렀으며 후에 롯이 천사에게 간청하여 이 도시로 도피하면서 작은 것을 뜻하는 소알로 이름이 바뀌었다.

● 소제 헌물(Meat offerings) 음식 헌물. 희생물 참조.

● 소출(Increase) 논밭, 포도원, 올리브 재배지 등에서 나는 곡식이나 열매 따위를 가리킴.

● 소할(Zohar, 조하르, 증인) 헷 족속(창23:8)으로 시므온의 아들(창46:10).

● 소합향(Stacte) 소합향나무의 송진으로 만든 향. 이것은 거룩한 기쁨의 제조에 쓰인 네 성분 중 하나이다(출30:34-35).

● 소헬렛(Zohelath, 조헬렛, 기는 것) 엔로겔 우물 근처의 큰 바위.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의 추종자들은 여기에 모여 반역을 시도하였다(왕상1:9).

● 속 중심(Bowels)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속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말을 사용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속마음이라 부른다. 사람의 속 중심에는 긍휼과 인자함과 부드러움과 동정심이 있다(왕상3:26; 골3:12; 요일3:17; 참조 사63:15; 렘31:20). 우리말로는 이것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때로는 '애를 태우다', '궁휼히 여기는 마음', '깊은 사랑' 등으로 번역하였다.

● 속 중심(Reins) 히브리 사람들은 속 중심이 사람의 애정이 있는 자리라고 느꼈으며 바로 여기를 통해 지식과 기쁨과 아픔과 즐거움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 중심을 살피신다고 말한다(렘17:10; 20:12).

● 속건제(Trespass offerings) 범법 헌물. 희생물

참조.

● 속량(Redeem) 종이나 매인 사람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함을 뜻하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대속되는 것을 말한다. 구속, 대속 참조.

● 속박(Bond) 자유가 없게 얽냄.

● 속죄(Atonement)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들로 인해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죽음으로 인해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대신 속죄는 복음의 위대한 특징이며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와 실례로 묘사되었다. 구속, 희생물 참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은 둘이 되어 서로 간격이 벌어진 채 분리되었으므로 속죄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둘을 합쳐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At-One-Ment).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법을 어긴 사람이나 혹은 대리자나 보증인에게 내려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 효력도 없게 된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법이 아니라 그것의 형벌이다. 속죄란 행정부에 존재하는 예비 규정으로 법을 위반에 따른 형벌로부터 범법자를 사면하기 위해 공의롭고 안전하며 받아들일 만한 근거 위에 마련한 법을 규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만드셨고 그것을 어길 경우의 형벌을 제정하셨다(창2:16-17).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먹어 그분의 법을 어기고 그로 인해 죽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지 않고서는 죽음의 형벌을 철회할 수 없게 되었다. 또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담과 이브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형벌은 창조물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려야만 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마련하여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하게 만든 존재, 즉 대속자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대신 속죄 선도 참조(89).

그러나 이러한 대속 사역은 즉시로 준비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실제로 받으신 것은 그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뒤였다. 한편 이 4,000년 동안 수소나 염소 또는 흠 없는 어린양이 히브리 사람들의 제단 위에서 타면서 연기를 냈는데 이는 피 흘림이 없는 죄들의 사면이 없음을 시창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매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를 뿌린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야 했던 분을 암시하였다(요1:29). 드디어 참된

희생물을 드릴 충분한 때가 오자(갈4: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었다(롬3:26).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특별한 희생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속죄를 얻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죄 헌물이요, 하나님의 어린양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영원하게 드려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했으므로 그분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예물이 필요 없다(요1:29; 고전5:7; 엡1:7; 히9:26). 한편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순히 대속만을 의미하지 않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려고 가차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죄의 대가를 거둘 정도로 공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율법을 향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롬7:4).

어떤 이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속죄가 적용된다는 '제한 속죄' 이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몇몇 사람만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시지 않고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 죽음의 형벌로 인해 그분께서는 죄의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두셨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그러므로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특정 소수에게로 제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선택, 예정 참조. 한편 화해라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공물로 온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롬5:1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골1:20).

비록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으므로 이것은 결코 보편적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조건 곧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 속죄일(Day of atonement) 속죄일은 유대인들이 매년 안식하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지키는 엄숙한 날로서 7월 10일, 즉 초막절이 시작되기 5일 전에 지킨 중요한 날이었다(레25:9). 속죄일에 행하는 모든 일은 레16:1-34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날 대제사장은 홀로 지성소에 들어갔으며(히9:7) 이날 행하는 여러 의식 때문에 몇 차례 거기에 들어가야 했다. 처음에 그는 금향로와 향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 뒤에 자기와 제사장들의 죄들로 인하여 바친 수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으며 손가락에 그것을 적서 여덟 번, 즉 한 번은 공황의 자리 위에, 일곱 번은 공황의 자리 앞에 성막의 휘장을 향해 뿌렸다. 그 뒤 그는 백성의 죄 헌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수소의 피로 한 것같이 뿌렸다.

한편 이날에는 속죄 염소(scape goat)와 관련된 의식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 하나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렸고 다른 하나는 속죄 염소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게 하였다. 이 모든 의식은 완전한 희생 예물이신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예표였다. 모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이런 희생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를 분별해서 알고 있었다(히9:1-28; 10:1-39; 11:1-40).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날이었으며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는 날이었다.

● 속죄 염소(Scapegoat)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사셀'이며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레16:8, 10, 26). 속죄 염소는 희생물로 잡아서 드리지 않고 살려서 번들로 내보냈는데 이것은 곧 그 염소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그분의 임계 밖으로 떠나 그분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뜻하였다(시103:12). 속죄 참조.



● 속죄제(Sin offering) 죄 헌물 참조.

● 손(Hand) 손은 종종 힘과 능력을 나타냈으며 그래서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의 권능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손을 잡거나 손을 치는 것은 계약이나 구매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하며 손을 든다는 것은 맹세하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At the right hand of God, 여기서도 실제로는 hand가 쓰였다) 명예와 권능과 행복이 있다(시16:11; 45:9; 110:1; 마26:64; 골3:1). 유대인들은 대개 동쪽을 보면서 말하려 하므로 오른쪽은 남쪽이 된다. 안수하는 것은 직분을 거룩히 구분하는 것, 축복하는 것, 하늘에 속한 선물을

주는 것 등을 나타냈다(창48:14; 민8:10; 27:18; 막10:16; 행6:6; 19:6; 딤펢전4:14). 속죄 염소 위에 안수하는 것은 백성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전가하는 것을 나타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나타냈다.

● 손님 접대(Hospitality) 동양 사람들은 손님 접대를 가장 큰 미덕의 하나로 간주하였으며 성경에는 이것이 잘 묘사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접대한 일(창18:1-33), 욥의 접대(욥31:17) 등이 이런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집에 가서 문안 인사를 한 뒤 그 집에 들어가 자기들 앞에 차려진 것을 먹고 마시라는 명령을 받았다(눅10:7). 이러한 손님 접대 관습이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야고보와 요한이 무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노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며(눅9:52-56)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로 인한 엄격한 심판도 이해할 수 있다(삿19:1-30; 20:1-48).

또한 이러한 손님 접대에는 손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깊게 깔려 있으며 이것은 시41:9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가 신뢰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 준다. 손님 대접의 아름다운 예는 창18:1-33; 19:1-38; 출2:20; 삿13:15; 19:1-9 등에서 발견된다. 어떤 이들은 가운데는 손님을 접대하다가 알지 못한 채 천사를 접대한 적도 있었다(히13:2).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였다(롬12:13; 딤펢전5:10).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속한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10:40-42; 25:34-45).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이런 의무를 이행하려 했으며 그 결과 심지어 이교도들조차도 그들을 흠모하였다. 그들은 나그네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특별히 믿음의 집안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서 성도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여행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증언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 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가 바로 칭찬과 추천의 글을 담은 그런 편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목사의 자격 중 하나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딤펢전32).

● 솔로몬(Solomon, 켈로먼, 평화로운)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들. 대언자 나단은 그를 여디디아,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불렀다(삼하12:25). 그는 약속의 자식이었으며(대상22:9-10) 18세에 자기 형 아도니야가 노리던 왕권을 받아 왕이 되었다. 성경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무엇보다 지혜를 구한 뒤 그것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을 받았음을 기록한다(마6:33). 그래서 그의 지혜와 명철은 동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복도 풍성하게 받

았다. 그는 통치권을 넓게 퍼서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렀고 홍해의 예시온계벨도 차지하였다. 사울, 다윗, 솔로몬의 영토 지도 참조(30). 또한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뜻에 따라 주님을 위해 극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외에도 여러 건물을 많이 지었으며 또 두로, 이집트, 아라비아, 인도, 바빌론 등과 무역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그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풍족하고 명예를 많이 소유한 인물이었지만 번영과 함께 들어온 유혹에 빠져 사치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래서 각종 오락에 탐닉하고 자기의 이방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며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켰으며 이것은 그가 기록한 말씀 속에 잘 드러난다. 그는 40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하다가 죽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역대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기록 중에서 특히 전 도서는 사람 본성의 연약함과 지혜와 학식의 무능력함, 번영을 통한 시험과 위기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 등을 잘 보여 준다. 솔로몬의 기록은 자연과학과 철학과 도덕을 총망라하였다(왕상4:32-33).

● 송아지(Calf) 희생물로 쓰인 정결한 짐승.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호14:2)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입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희생물로 드리겠다는 뜻이다(히13:15). 고대 사람들은 기름진 송아지를 최고로 좋은 음식으로 여겼다(창18:7; 암6:4; 눅15:23). “자기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갠 뒤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렘34:18)라는 표현은 고대의 언약의 풍습을 보여 준다. 이 같은 의식을 통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자기가 송아지처럼 조각난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했다(창15:9-21).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을 부추겨서 백성의 귀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했으나 이런 우상 숭배에는 저속하고 음란한 일이 동반되었고 그 결과 3,000명이 죽게 되었다(출32).

배도자 여로보암은 자기 영토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각각 금송아지 하나씩을 만들어 세우고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가서 그곳의 유다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으며(왕상12:25-30) 그 결과 북 왕국 백성은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 그 일로 인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자라는 불명예 호칭을 갖게 되었다(왕하17:21). 대언자 호세이는 종종 뱀엘의 금송아지와 그것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 일로 인해 아시리아 사람들이 백성과 우상을 산산조각 낼 것을 언급했다. 뱀엘, 뱀이웬 참조.

● 술(Pots) Pot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는 종류가 많다(삿6:19; 시58:9; 전7:6; 히9:4). 이 말은 손 닿는 그릇(시60:8), 술(왕하4:38-41; 전7:6)으로 번역되었다. 에레미야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환상으로 북쪽에서 화가 닥칠 것을 뜻하는 끓는 가마솥을 보았다(렘1:13-14). 사실 그의 대언의 중심 주제는 북쪽에서 닥치는 재앙, 즉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올 재앙이었다. 대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관찮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는 예루살렘 백성의 그릇된 주장을 가마솥과 고기의 상정을 통해 경고하였다(겔11:1-12).

● 쇠(iron) 쇠는 창조의 시작부터 알려져 왔고 널리 사용되었으며(창4:22) 모세는 종종 쇠를 언급하였다. 그는 이집트의 속박을 쇠 용광로라고 불렀으며 가나안 족속의 쇠 침상 등에 대해 언급했다(신3:11; 4:20; 8:9). 고대에도 여러 가지 연장과 기구를 쇠로 만들었고 또 성전을 지을 때에도 많은 양의 쇠가 사용되었다(대상29:2, 7). 쇠는 또 노에 생활, 힘, 완고함, 고통 등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다(신28:48; 욥40:18; 사48:4; 렘1:18; 겔22:18, 20; 단2:33).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한다.”는 말씀(잠27:17)은 친구가 있으면 더 큰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배반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하늘을 뚫고 땅을 쇠로 만들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곧 땅이 황폐하게 되고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을 뜻한다. 철 병거는 쇠로 된 대못과 나뿔 달린 병거를 뜻한다. 병거 참조.

● 쇠하다(Decay, diminish) 차차 줄어서 약해진다.

● 수가(Sychar, 싸이카르) 세겜 참조.
 ● 수간(獸姦) 짐승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것.
 ● 수김 사람(Sukkiim, 썬커임) 시삭이 유다를 침공할 때 그와 연합한 사람들(대하12:3).
 ● 수난(Passion, 고통) 이것은 보통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을 뜻한다(행1:3). 또 passion은 사람의 성정을 뜻하기도 한다(행14:15; 약5:17).

● 수넬(Shunem, 슈넬) 잇사갈의 도시(수19:18). 블레셋 사람들은 수넬의 큰 평야에 진을 쳤고(삼상28:4) 사울은 길보아에 진을 쳤다. 다윗의 말년에 그를 풀어 준 처녀 아비삭은 수넬 출신이었고(왕상1:3) 엘리사를 통해 자기의 죽은 아들을 돌려받은 여인도 수넬 출신이었다(왕하4:8-37).

● 수레(Carts) 짐수레. 이것은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곤 했지만 그곳의 길이 험악해서 바퀴 달린 마차 등이 지나다니기가 어려웠으므로 실제로 수레는 주로 농사짓는 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사5:18; 28:27-28). 한편 사람이 타는 수레는 야콥을 이집트로 데리고 갈 때 사용되었다(창45:27; 민7:3-9). 보통 암송아지가 수레를 끌었으며(삼상6:7) 거기에는 나무 바퀴가 달렸다.

● 수로보니게(Syrophoenicia, 싸이로피니아) 이곳은 원래 페니키아였는데 후에 시리아 왕국과 병합되면서 페니키아라는 이름이 추가되어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뜻의 수로보니게가 되었다. 막7:26의 가나안 여인은 페니키아 사람이므로 그 당시 페니키아가 시리아의 일부였으므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불렀다. 마태는 이 여인을 간략하게 가나안 여인이라 불렀는데(마15:22) 이는 그 지역에 고대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다. 시돈은 가나안의 딸아이였다(창10:15). 페니키아 참조.

● 수르(Shur, 슈어, 썩) 이집트 북동부 경계에 있던 도시(창16:7; 20:1; 25:18; 삼상15:7; 27:8). 이곳과 가나안 사이의 지중해 쪽으로 난 사막은 수르 사막이다(출15:22).

● 수르(Zur, 저르, 바위) 미디안의 주요 통치자. 그의 딸 고스비는 비느하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민25:15-18) 그도 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다(수13:21).

● 수만 성도(Ten thousands of saints) 신33:2와 유14에 나오는 표현. 이처럼 thousand가 복수로 되어 있을 때는 '수많은'을 의미한다.

● 수박(Melons) 동방에서 흔한 과일 중 하나. 이것은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심지어 건조한 시기에도 많이 자랐다. 특히 뜨거운 기후에서 수박은 맛있는 과일이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서 수박을 몹시 먹고 싶어 했다(민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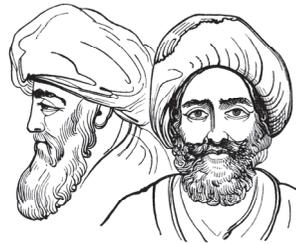
● 수산(Shushan, 슈센, 백합) I. 시60:1-12의 타이틀. 소산님은 복수로서 시45:1-14; 69:1-36의 타이틀에 나오고 약기의 이름인 듯하다. 이 말은 백합을 뜻하며 아마도 이 약기는 백합을 닮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시편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멜로디일 수도 있다(시45:1-14).

II. 울레 강변에 있던 엘람 혹은 페르시아의 수도(창14:1; 단8:2). 이곳은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이 되었다(에1:5). 에스더기는 바로 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다. 또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제3년에 여기에서 숯양과 숯염소의 환상을 보았다(단8:1-27). 느헤미야 또한 유대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러 할 때에 이곳에 거하면서 아닥사달다 왕의 허가를 받았다(느1:1).

● 수스 족속(Zuzim, 주짐) 아브라함 당시 요르단의 동쪽에 거하던 사람들. 그들은 그들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에 의해 정복당하였으며(창14:5) 이 족속은 신2:20의 삼십 족속이라는 거인 족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수염(Beard) 히브리 사람들은 빈약한 수염을 흉한 것으로 생각했고 길고 밑에까지 흘러내리는 수염을 아름다움과 위엄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수염은 사람의 명예와 연관되어 중요했으며 따라서 말로나 행동으로 그것을 욕되게 하는 것은 위엄을 깎아내리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오른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것은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허락된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고 그래서 누구나 수염을 소중히 간직했다(시133:2). 수염을 자르거나 깎는 것은 큰 슬픔을 의미했고(스9:3; 사15:2; 렘41:5; 48:37) 또 수염을 없애는 것은 불명예와 굴종을 뜻했으며 그래서 그것보다는 죽는 것을 택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음의 구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의 대수들이 받은 치욕(삼하10:4-14), 느헤미야의 분노(느13:25), 다윗이 미친 채 한 일(삼상21:12-15), 므비보셋의 슬픔(삼하19:24) 등. 대언자들의 글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사7:20; 50:6; 겔5:1-5).



● 수의(Graveclothes) 사람이 죽어 염습할 때 송장에게 입히는 옷.

● 수장절(Feast of ingathering) 곡식을 모아 저장하는 절기(출23:16; 34:22).

● 수전절(Feast of dedication) 유대인들의 성전 봉헌절(요10:22). 봉헌, 성전, 마카비 참조.

● 수정(Crystal) 결정형이 뚜렷한 석영. 수정은 보통 무색이나 흰색으로 투명하지만 미량의 불순물이나 결정구조 등에 의해 다른 색깔을 가질 수도 있다(욥28:17; 계4:6; 21:11).

● 수제사장(Chief priest) 대제사장(high priest)이나 수제사장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동일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해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 뿐이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위치를 나타내고 수제사장은 기능을 나타내며 대제사장은 수제사장이지만 수제사장은 다 대제사장이 아니다. 마26:3; 막14:53; 행5:24 등은 한 명의 대제사장과 여러 명의 수제사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왕하25:18; 대하19:11; 행25:2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부를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제사장 참조.

● 수종(Dropsy) 몸 안의 장액 또는 림프액 따위가 조직 사이에 고여서 붓는 병(눅14:2).

- 수증기(Vapor) 수증기는 구름을 형성하여 비를 뿌린다(욥36:27). 이 말은 안개를 뜻하기도 하며(창2:6) 모든 사람은 수증기 같아서 금방 사라진다(약4:14).

- 수천의 사람들(thousands of them) 출20:6에 있듯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식 표현이다. 참고로 출20:6의 이 구절을 수천 세대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며 신학적으로도 틀리고 원어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 수치(Shame) 잘못을 깨달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성경은 사람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수치스럽다(창2:25; 3:10). 수치는 또한 명예가 상하거나 당황함도 발생한다(시25:2-3; 잠19:26; 롬1:16). 요셉은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다(마1:19).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셨다(고전1:18-31).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으므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셨다(고후5:21; 히12:2).

- 수태(Conceive) 아이를 뱀. 욕심의 경우는 잉태로 표현되었다(약1:15).

- 수태하지 못함(Barrenness) 동방에서는 여인들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애곡하곤 했다(창16:1; 30:1-23; 삼상1:6, 18; 사49:21; 눅1:25). 특히 유대 여인들은 메시아 예언을 기억하면서(창3:15) 그분의 어머니가 되길 바랐으므로 수태하지 못하면 매우 괴로워했다. 또 이러한 고통은 매우 컸으므로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해결하려 하기도 하였다(창16:2; 19:31; 38:14; 신25:5-10). 한편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한 행위가 없으면 수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눅13:6-9; 뱀후1:8).

- 수확(Harvest)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과 평야의 곡식은 태양력으로 4월 중순경에 익으며 북부 지역의 곡식은 3-4주 뒤에 익는다. 먼저 4월 중순경에 유월절/무교절이 되면 보리 수확이 시작되었고(레23:9-14; 뚝2:23; 삼하21:9-10) 밀 수확은 오순절과 함께 끝에 있었다(창30:14; 출34:22; 레23:16). 유대인들의 달력 선도 참조(67).

이스라엘에서는 수확 때에 밭의 한 모퉁이를 남겨 두어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하는 법이 있었다(레19:9; 23:22). 상징적으로 곡물의 수확은 심판(렐51:33; 호6:11; 율3:13), 은혜의 기간(렐8:20),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는 때(마9:37-38; 요4:35)를 뜻한다. 수확이 농사 계절의 끝을 뜻하므로 주님께서는 수확하는 때가 계상의 끝이라고 하셨다(마13:39).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가을에 수확물을 거두어들이므로 이 말이 많은 경우 추수로 번역되었으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을에 수확하지 않으므로 성경적으로 추수라는 말은 옳지 않다.

- 수확절(Feast of harvest) 수확을 기념하는 절

기(출23:16). 이스라엘 백성은 태양력으로 5월 말에서 6월에 밀 수확이 끝난 것을 기념하여 헌물을 드리고 수확의 감사제를 지켰다(출23:16). 이것은 유월절부터 7주 뒤에 있었기 때문에 칠칠절(출34:22)이나 오순절이라 불렀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맥추절이라 한다. 오순절 참조.

- 속곳(Succoth, 썬갓, 초막) I. 요르단 계곡의 한 장소. 이곳은 압복에서 가까웠으며 아굽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올 때 여기서 장막을 쳤다(창33:17). 여호수아는 여기에 지어진 도시를 후에 갓 지파에게 배정하였고(수13:27) 재판관 기드온은 이곳의 주요 치리자들이 자기가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할 때에 자기를 돕지 않고 투명스럽게 말하였으므로 가시와 쥘레로 그들의 살을 찢었다(삿8:5).

- II.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출12:37).

- 속곳브논(Succoth bennoth, 썬갓비논, 딸들의 장막) 바빌론 사람들이 숭배한 우상(왕하17:30).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빌론 여인들이 창녀 짓을 하던 장막이라고 생각한다.

- 순교자(Martyr, 마르티, 증인)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 비록 이 말이 성경에 단지 세 번 나오지만(행22:20; 계2:13; 17:6) 스테반 이후에(행7:59; 22:20)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켰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 엄청난 시련과 죽음을 스스로 택하였으며 이렇게 죽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지만(고전13:3) 지금까지의 기독교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능과 귀중함을 증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원수들을 향해 증언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거짓 교회를 향해 증언하고 있다(계17:6).

- 순두계(Syntyché, 썬티키) 빌립보 교회의 덕스러운 여인(빌4:2-3).

- 순례자(Pilgrim) 이 말은 일차적으로 타국 땅에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을 가리킨다(히11:13; 뱀전2:11). 성도들은 이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궁극적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순례자들이다.

- 순응(Conform) 외부에 적응하여 변화함.

- 순진(Sincere) 순수하고 완전함.

- 순종(Obey) 성경에서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회생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나옴도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신다(삼상15:22-23).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의 행위이며 그 이후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순종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히브리서 11장).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에 부응하여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순종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으며 그들의 역사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지 잘 보여 주고(모사서 9-11장) 이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단12:1; 마24:2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본을 남겨 주셨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셨고 이로써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빌2:5-11). 교회 안에서 순종이 요구된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위치와 권위 면에서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젊은 성도는 장로에게 순종하여야 한다(엡5:22-33; 6:1-9; 벨전5:5-6). 신뢰, 믿음 참조.

● 순찰자(Watcher) 천상의 존재.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순찰자를 보았다(단4:13, 17, 23).

● 순회(Circuit) 여러 곳으로 돌아다님.

● 술 취함(Drunkenness) 성경은 이에 대해 단 한 번 일어난 사례와 습관적인 사례를 모두 언급한다. 술 취함의 어리석음은 곳곳에서 잘 묘사되었다(시107:27; 사19:14; 24:20; 28:7-8). 이로 인한 죄는 비난을 받으며(사5:22) 이로 인한 나쁜 결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삼상25:36; 왕상16:9; 20:16) 이로 인한 운명도 잘 드러나 있다(고전6:9-10). 술 취함은 포도주나(창9:21; 19:33; 렘23:9; 엡5:18) 강한 독주에 의해(삼상1:13-15; 사5:11) 일어난다. 그러므로 제단에서 삼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금지되었으며(레10:9) 성경은 모든 사람이 크게 주의를 기울여 술 취하는 것을 피하라고 가르친다(잠20:1; 23:20). 술은 망하려는 자들과 마음이 무거운 자들을 위한 것이다(잠31:6).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술 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죄이다(삼하11:13; 합2:15-16). 사회에 술 취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런 독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종류의 알코올에서 자신을 분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고전8:13). 특별히 신약 교회의 목사와 집사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딤후3:3, 8). 포도주 참조.

● 술(Fringe)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옷에 장식으로 단 여러 가닥의 실(민15:38; 신22:12).

● 술람미 사람(Shulamite, 술라마이트, 평화로운) 히브리어에서 남자 이름 솔로몬에 해당하는 여

자 이름. 이것은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호칭이다(아6:13). 물론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은 여기서 신앙을 나타낸다.

● 숨(Ghost) 사람의 생명의 원천. '숨을 거두다'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숨을 내어 주다'를 뜻하고 이것은 죽는 것, 즉 혼을 주신 하나님께 혼을 내어놓는 것을 뜻한다(창25:8; 눅23:46). 영 참조.

● 숨(Zuph, 접, 꿀 집) 에브라다 사람으로 사무엘의 조상. 그가 거하던 에브라임 산의 지역(삼상1:1; 9:5; 대상6:35). 라마 참조.

● 숯(Coal, Charcoal) 숯에는 광물질의 숯, 즉 석탄과 나무로 만든 숯인 Charcoal이 있다(시120:4). 이 말은 불이 붙지 않은 가리키기도 하고(잠26:21; 사44:12; 54:16) 불이 붙은 숯, 즉 숯불을 가리키기도 한다(삼하14:7; 욥41:21; 시18:8; 사44:19; 겔24:11).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내 숯을 끈다."(삼하14:7)는 말은 자기의 남은 모든 가족을 죽인다는 말이다.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잠25:22; 롬12:20)는 말은 사람들의 악이 선으로 응징받을 때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뜻한다. 숯 혹은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삼하22:9), 하나님의 심판(시140:10; 겔24:11)의 상징으로 쓰였다.

● 십볼렛(Shibboleth, 쉬볼레쓰, 시내)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의 길르앗 사람들이 싸울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패하여 요르단의 나무로 도망하였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먼저 나무를 절령하고 도망한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기를 원하면 십볼렛을 말하라고 하여 그가 십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죽였다. 이 싸움에서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었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방언이 있었음을 보여 주며 따라서 후대에 같은 이름이 지파들에 따라 조금씩 달리 불리는 이유를 보여 준다. 특별히 길르앗 지방의 방언이 독특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후대에까지 이어져서 베드로는 그의 말로 인해 즉시 갈릴리 사람인 것이 드러났다(막14:70).

● 스가라(Zechariah, 제커라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I. 베레기야의 아들, 제사장 잇도의 손자. 그는 잇도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고(스5:1; 6:14) 그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는데(느12:16) 이는 그 당시 베레기야가 죽었기 때문이다. 스가라는 열두 명의 소 대언자들 가운데 열한 번째 인물이다. 그는 젊었을 때에 스를바벨과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와 다리오 왕의 제2년 8월에, 학개 대언자의 사역이 시작된 지 두 달 뒤에 대언하였다(슌1:1; 2:4). 이 두 대언자는 열심을 다해 백성을 격려해서 여러 해 동안 단되어 온 성전 건축을 하게 하였었다(스5:1).

메시아에 관한 스가라의 대언들은 다른 대언자들의 대언들보다 더 상세하고 명확하며 다니엘의 대언처럼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스가라에게는 먼저 짧은 도입 부분이 있고 첫 여섯 장에는 이스라

엘의 회복 약속,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의 멸망, 이방인들의 회심, 가지이신 메시아의 강림, 성령님의 강림과 영향 등이 담겨 있다. 스7:1-14는 금식에 대해 기록하며 스9:1-17; 10:1-12; 11:1-17 등은 마카비 시대에 유다가 번성하는 것과 페르시아와 주변 왕국들의 운명을 다루며 나머지 장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유대인들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포위와 메시아의 승리와 모든 곳에 "주께 기록한 것!"이라는 문구가 기록되는 마지막 날들의 영광을 기록한다.

II. 유다의 옷시아 왕의 신실한 모사. 그의 죽음은 유다가 당한 재난의 시작이었다(대하26:5, 16). 아마도 이 사람은 유다 왕 아하스의 장인이었던 것 같다(대하28:27; 29:1).

III. 예벤테기야의 아들. 그는 이사야 대언자에 의해 제사장 우리야와 함께 신실한 증인으로 언급되었다(사8:1-2; 대하29:13).

IV. 여호야다의 아들.

● 스게와(Sceva, 쉰바) 에베소의 유대인. 그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로서 아마도 제사장들의 24계열 중 하나의 우두머리였을지도 모른다. 제사장 참조. 그의 일곱 아들은 마귀를 내쫓는 일을 하였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쫓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그들을 혼내 준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었다(행19:14-16).

● 스닐(Senir, 쉰너, 곧게 선) 아모리 사람들은 헤르몬 산을 스닐이라 불렀다(신3:9; 대상5:23; 겔27:5) 헤르몬 참조.

● 스닐(Shenir, 쉰너) 헤르몬 참조.

● 스타구(Stachys, 스테이키스, 알곡의 눈) 바울의 제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에게 문안하라고 하였다(롬16:9). 그는 로마에 거하던 그리스 사람으로 보인다.

● 스달보스내(Shetharboznai, 쉰달바즈나이) 닷드내 참조.

● 스테바나(Stephanas, 스테파너스, 왕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아가야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순종한 그의 가족에게 침례를 주었다(고전1:16). 그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왔다(고전16:15, 17).

● 스테반(Stephen, 스티븐, 왕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을 위해 처음에 선택된 일곱 명의 직무 수행자 중 하나. 그는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을 볼 때 그는 그리스어를 하는 유대인으로 그리스 사람들의 말과 의견과 관습에 능하였던 것 같다(행6:1-6). 그의 강력한 말과 논박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꾀악 못 하게 되었고 결국 그를 산헤드린으로 데리고 가서 신성모독과 이단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하였다.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행한 연설은 기독교 박해자들이 결국 참 신앙을 반대해 온 사람들을 모방하는 자들임을 잘 보여 준

다. 결국 그의 말을 들던 그들은 분노하여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요18:31 비교). 그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게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맞추면서 순교하였으며(행7:1-60) 그의 순교로 인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행8:1-4; 11:19-21). 거기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며 사람들의 옷을 지켜 주던 다소의 사울 역시 그의 말에서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었고 행22:19-20에는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 전까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 기독교로 회심하지는 않았다(행9:1-43).

● 스라야(Seraiah, 쉰라야, 여호와께서 친히 처리하시심을 증명하셨다) 다음 구절들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이름(삼하8:17; 왕하25:18; 스7:1; 렘36:26; 40:8; 51:59).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은 평온한 통치자 혹은 시종장으로 불리는데 그는 예레미야 대언자의 메시지를 바빌론에 거하던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 스람(Seraphim, 불타는 존재)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신4:24; 비교 히12:29). 그들은 그룹들과는 다른 존재였다(겔1:5-12). 대언자 이사야는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건하게 찬양 드리는 것을 보여 준다(사6:2-3). 그들은 열정에 불타서 날아다니며 그들의 뜻을 수행하였다. 스람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으며 두 개로는 얼굴을, 두 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로는 날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외쳤다.

● 스레다(Zereda, 제러다) 벳스안 근처에 있던 므낫세의 도시(왕상11:26; 대하4:17). 이곳은 샷7:22의 스레앗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스레다다(Zeredathah, 제러데이다) 스레다 참조.

● 스투야(Zeruiah, 제러야야) 다윗의 누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의 어머니(대상2:16).

● 스룩(Serug, 쉰럭, 가지) 셈의 후손. 그는 아브라함의 선조이다(창11:20-23; 눅3:35).

● 스룹바벨(Zerubbabel, 저라버블, 바벨의 후손) 다윗의 왕족에 속한 실라디엘의 아들. 그는 스1:8에서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이라 불렸다.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는 바빌론에서 태어났으며 주전 536년 경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처음 돌아온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유다의 귀한 지도 참조(33). 고레스 왕은 그에게 성전 기구들을 맡겼으며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스1:11). 그는 바빌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로 항상 처음에 언급된다(스2:2; 3:8; 5:2; 학1:1; 2:1-9, 21-23). 그는 성전의 기초를 놓고(스3:8-9; 스4:9) 주님에 대한 경배와 희생물 바치는 것을 회복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고 했을 때 그와 유다의 주요 지도자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이 일을 유대인들에게만 맡겼기 때문이다(스4:2-3).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그 일을 중지하라는 조서를 받았고 결국 그 일은 다리오 왕의 제2년까지 연기되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후손이라는 것을 빼고는 그에 대해 더 알려진 바가 없다(마1:13; 눅3:27).

● 스마아(SHEMAIAH, 쉬메이아) I. 이스라엘의 대언자. 그는 하나님의 지시로 르호보암이 북쪽의 열 지파를 쳐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시삭이 침입하였을 때에 왕과 신하들이 회개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 왕 르호보암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왕상12:22-24; 대하12:5-8, 15).

II. 24개의 제사장 계열 등록부를 만든 레위 사람(대상15:8, 11; 24:6)

III. 바빌론으로 추방된 유대인들 사이에 거하던 거짓 대언자. 그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렘29:24-32).

IV. 산발랏과 도비아 시대의 거짓 대언자. 그는 총독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전 안으로 피신하라고 종용하였는데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다(민3:38; 느6:10-14).

● 스미닛(Sheminih) 이것은 시6:1-10, 12:1-8, 대상15:21에 나오는 말이며 여덟째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악기는 아닌 것 같으며 음악의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스바냐(Zephaniah, 제퍼나이야,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I. 고향 자손. 그는 레위의 7대손이었다(대상6:36).

II. 시드기야 왕 시대의 제사장. 그는 종종 예레미야와 대화하였으며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이 죽인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왕하25:18-21; 렘21:1; 29:25, 29; 37:3; 52:24-27).

III. 열두 명의 소 대언자들 가운데 아홉 번째 인물. 그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요시아 왕의 초반부, 즉 그가 개혁을 하기 전에 대언하였다(대하34:3; 습1:4-5). 그의 대언은 유다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 주변의 우상 숭배 국가들과 사악한 치리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 스바다(Zephathah, 제퍼다, 파수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마레사 근처의 골짜기. 여기서 아사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와 그의 군대를 멸하였다(대하14:10).

● 스바다(Shephatiah, 쉬퍼타이아) 이 이름의 소유자는 다음의 구절들에 나온다(삼하3:4; 대상12:5; 27:16; 대하21:2; 스2:4, 57; 느11:4; 렘38:1).

● 스바랏(Sepharad, 쉘페라드) 소아시아의 한 지역. 유대인 포로들은 이곳으로 끌려갔다(옵20).

● 스발(Sephar, 쉘파르, 동쪽의 산) 욥단 사람들

의 경계(창10:30).

● 스발와임(Sepharvaim, 쉘파르베임) 아시리아의 살만에셀(혹은 사르곤) 왕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유프라테스 너머로 보내면서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냈는데 스발와임 사람들도 그들 중 하나이다(왕하17:24, 31). 스발와임이 작은 지역이며 자체 왕이 있었다는 사실은 왕하19:13; 사37: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으로 생각된다.

● 스밧(Shebat, 쉬벳) 유대인들의 민간력의 5월. 이것은 종교력에서 11월이며 현재의 태양력으로는 2-3월경이다(습1:7). 달 참조.

● 스밧(Zephath, 지페스, 파수대)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 후에 이곳은 호르마라 불렸으며 유다의 최남단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배정되었다(수12:14; 15:30; 19:4).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이곳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다가 그곳의 가나안 백성들에게 참패를 당하였다(민14:40-45; 21:3; 신1:44; 샅1:17).

● 스보임(Zeboim, 지보임) I.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멸망을 당한 싯딤 골짜기의 네 도시 중 하나(창10:19; 신29:23). 소돔 참조.

II. 므카스 동쪽에 있던 배나민 사람들의 골짜기와 마을(삼상13:18; 느11:34).

● 스불(Zebul, 지불) 세겜을 다스리던 자. 그는 기드온의 아들이자 자기 주인인 아비멜렉을 위해 세겜을 보존하려고 애썼다(삿9:1-57).

● 스불론(Zebulun, 제불런, 높은 곳의 거주지) I. 야곱과 레아의 여섯째 아들. 그는 그의 형들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으며(창30:20) 모세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의 지파는 수가 많았으며(민1:30; 26:26)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차지한 부분은 야곱의 예언에 따라(창49:13) 갈멜 근처의 지중해에서부터 게네사렛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남쪽에는 잇사갈이, 북쪽과 북서쪽에는 납달리와 아셀이 있었다(수19:10).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스불론 지파 지도 참조(19, 22). 그의 후손들은 그와 가장 가까운 형제인 잇사갈 지파와 함께 종종 언급된다(신33:18). 그들은 서쪽의 페니키아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삿1:30; 사9:1) 바락과 기드온과 함께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는 일을 하였다(삿4:10; 5:18; 6:35). 이스라엘의 재판관(사사) 가운데 하나인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었다(삿12:11-12).

그리스도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 즉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라 등에 거하던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

II. 아셀의 경계에 있던 도시. 이곳은 스불론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수19:27).

● 스아(Measure)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으나 약 삼분의 일 에바(7.3리터) 정도로 추산된다.

● 스알야슈(Shear-Jashub, 쉬야제이슈,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사야 대언자의 아들 중 하나(사7:3; 10:21). 이 이름은 마헬살랄하스바스와 마찬가지로 예언적인 성격의 이름이다(사8:1).

● 스엠펜(Zeeb, 지엠펜, 늑대)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족속의 통치자(삿7:25).

● 스키타이 사람(Scythians, 썬티안즈) 흑해와 카스피 해 북부와 북동부의 넓은 지역에서 유랑하던 사람들. 골3:11에서 스키타이(스구디아) 사람들은 가장 미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스타디온(Furlong) 영어의 Furlong은 팔분의 일 마일로서 약 200미터이다(눅24:13).

● 스토아학파 사람들(Stoics, 스토익스) 주장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고대 그리스의 철학 학파 사람들. 이 학파의 창시자 제논은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300년 전에 아테네의 주랑에서 학교를 운영하였다.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본성과 이성에게 맞게 사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가르쳤으며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 처럼 완고함과 인내와 무감각과 내핍의 특성을 보였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큰 인기가 있었다(행17:18). 에피쿠로스학파 사람들 참조.

● 스페인(Spain) 고대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합친 스페인 반도를 스페인으로 불렀으며 바울 당시에 이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롬15:24, 28에서 바울은 스페인을 방문하려는 의도를 밝혔는데 어떤 이들은 그가 로마에서 두 번 옥살이를 하면서 그 사이에 거기를 방문했다고 믿는다. 기존 성경은 이곳을 서바나라 한다.

● 슬로브핫(Zelophehad, 질로피헛, 공포로부터 보호를 받다) 요셉의 후손. 그는 광야에서 다섯 딸만 남기고 죽었으며 이로 인해 이런 경우에는 딸들이 아버지의 상속 유산을 차지한다는 율법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지파의 남자에 게만 시집을 가야 했다(민26:33; 27:1-11; 수17:3-4).

● 승천(Ascension)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 주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자신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부활에 대한 절대 확실한 증거를 주신 뒤 그들을 올리브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시다가 최후로 마지막 때에 올리브 산에 재림하실 것이다(행1:9, 11; 참조 속14:4). 주님의 승천은 성령님의 강림으로 증명을 받았다(요7:39; 16:7-14; 행2:1-47).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의 몸으로 승천하셨으며 그들을 떠나 천사들의 무리의 환영을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시24:9; 68:17). 그분의 승천으로 인해 승천에 관한 예표와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신다. 또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로 가는 길을 여셨고(히10:19-20)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하늘

에 가는 것을 확증하셨다(요14:1-2).

● 시각(Hours) 성경에서 시각 혹은 시간으로 번역된 단어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를 열두 등분한 각 부분을 가리키며 따라서 계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마20:3-6; 요11:9). 이처럼 시간을 나누는 것은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일이 되었고(단4:19) 세 시, 여섯 시, 아홉 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행2:15; 3:1; 10:9). 한편 고대에는 낮을 네 등분으로 나누었고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 사람들은 밤을 세 등분으로 나누었으며 그래서 1경(更)이 있고(에2:19) 중간 경점(更點) 혹은 2경이 있으며(삿7:19) 아침 혹은 3경이 있었다(출14:24).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뒤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에 따라 밤을 넷으로 나누었다(마14:25; 막6:48; 13:35; 눅12:38). 시편 기자는 잠자는 사람에게 밤의 한 경점(대략 세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일생이 영원에 비하면 그와 같다고 고백한다(시90:4).

● 시그리(Zichri, 지크라이) 용맹한 에브라임 사람이자 통치자. 그는 아하스 왕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 장관이었다(대하28:7). 그는 아마도 르신과 베가가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 했던 다브엘의 아들일 것이다(사7:6).

● 시글락(Ziklag, 지클랙) 유다와 시므온의 도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에 있었는데(수15:31; 19:5) 그들은 사울 시대까지 이곳을 장악하였으며 마참네 가드의 아기스 왕은 이곳을 다윗에게 주었다. 유다에서 나온 피난민들이 이곳에 모였고 다윗은 그들을 사용하여 아기스를 도왔고 자기가 없을 때에 시글락을 노략한 아말렉 족속을 응징하였다(삼상27:1-6; 30:1-31; 느11:28).

● 시기(Envy)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기보다 나은 것으로 인해 이기적인 마음에서 불만을 품는 것(시37:1; 73:3; 잠24:1; 빌1:15). 시기는 악한 일이며(약3:14) 모든 악한 일에는 이것이 있다(약3:16).

● 시기오놉(Shigionoth, 쉬기오놉) 시편 7편에 나오는 식가온의 복수형.

● 시나몬(Cinnamon) 육계 참조.

● 시날(Shinar, 샤이나르) 바빌론 근처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의 넓은 평야(창10:10; 11:2; 14:1; 수7:21; 사11:11; 단1:2; 속5:11).

● 시내, 개울(Brooks) 골짜기나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나 지하에서 솟아 오른 작은 물줄기. 팔레스타인에는 겨울의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바닥을 드러내는데와다가 많았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속임수로 나를 대하였다."(약6:15)는 말은 그들이 물 없는 시내처럼 자기를 도울 수 없고 안위해 줄 수 없음을 뜻한다.

● 시내(Sinai, 싸이나이, 빛나다) 홍해의 두 팔이 형성하는 반도의 산 혹은 산지. 시내 반도 지도 참조

(48).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장소로 유명하다(출19:1-민10:33). 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불타는 가시뿔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출3:1-2; 4:1-31) 또 6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세벨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도망하던 엘리야 대언자에게 나타나셨다(왕상19:1-21). 성경에는 주님께서 여기에서 율법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자주 언급되며(삿5:5; 시68:8, 17; 합3:3)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같은 날 주님께서 사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 비교되어 있다(갈4:24-25; 히12:18-29). 사내 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집트 탈출 지도(15)를 참조하기 바란다. 현시대에 이곳은 사내지로 불린다.

● 시몬(Sinim, 싸이님) 사49:12에 나오는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매우 먼 지역을 가리키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곳이 초기부터 서아시아 사람들에게 알려진 중국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 시돈(Sidon, 싸이던) 지중해 연안에 있던 페니키아의 유명한 도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이며(창49:13) 두로에서 북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가나안의 말아들인 시돈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창10:15; 49:13). 페니키아 지도 참조(29). 시돈 사람들은 무역과 장사에 능해서 부유했으며 또 항해와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배분한 뒤에 이곳은 아셀의 몫으로 떨어졌으나(수11:8; 19:28) 아셀은 이곳을 소유한 적이 없다(삿1:31; 3:3; 10:12). 시돈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과 정부 밑에서 지속되었고 후에는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로마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시돈의 거주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고(막3:8) 그분도 친히 이곳의 경계를 방문하셨다. 또 그들 가운데 여럿이 갈릴리로 그분께 나아왔다(눅6:17).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시돈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행11:19). 여기에는 기독교회가 있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방문하기도 하였다(행27:3).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이 두 도시를 언급하셨다(마11:22). 시돈 사람이란 페니키아 사람뿐만 아니라 시돈의 거주민들을 포함하였다. 페니키아 지도 참조(29).

● 시드기야(Zedekiah, 제더카야,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I. 유다의 20대 왕이자 마지막 왕. 그는 요시아와 허무달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선임 왕인 여고니아의 삼촌이었다(왕하24:17, 19; 렘52:1).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여고니아와 그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관원들과 수련공들을 바빌론으로 데리고 갔으며 그를 대신하여 그의 삼촌인 맛다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고는 그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다. 그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지만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야김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왕하24:18-20; 대하36:11-13, 렘29:16-19; 34:1-22; 38:5; 렘17:12, 14, 18 비교). 그는 자신의 통치 제9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집트의 파라오흐브라를 의지하였으나 파라오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 그는 예레미야 대언자의 충성어린 권고를 무시하였다(렘37:2-10).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자기 군대를 유대로 보내 요새들을 취하고 결국 그의 통치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을 함락하였다. 이때 왕과 백성은 밤에 도주하였으나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여기고 평야에서 사로잡았다. 시드기야도 붙잡혀서 그때 시리아의 티블라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보내졌으며 그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어 바빌론으로 보냈다(왕하25:1-30; 렘39:1-18; 52:1-34; 겹19:1-14). 이 모든 일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대언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시드기야가 눈멀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렘34:3; 겹12:13을 비교하기 바란다.

II. 거짓 대언자. 그는 아합 왕을 부추겨서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게 하였고 이때에 미가야 대언자에 의해 거짓 대언자로 드러나게 되었다(왕상22:11-37). 그의 운명은 왕상22:25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III. 예레미야가 책망한 또 다른 거짓 대언자(렘29:21-22).

● 시러큐스(Syracuse, 썬리큐즈) 시실리 섬의 동부 해안에 있던 큰 도시. 시러큐스는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출생지였으며 바울은 멜리테에서 로마로 가면서 여기에서 사흘을 보냈다(행28:12).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지도 참조(44).

● 시리아(Syria, 썬리아) 이곳은 히브리어로 아람이며 지중해와 타우르스 산과 티그리스 사이의 지역을 포함하므로 히브리어로 '두 강의 시리아'를 뜻하는 메소포타미아도 포함한다. 아람과 시리아(아람) 지도 참조(29). 레바논 산지를 제외하면 이곳은 평지이다. 시리아는 로마 제국에 넘어간 후에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고 유대 땅은 비록 다른 총독이 다스렸지만 시리아에 부속된 상태였다. 그래서 시리아의 총독은 유대 땅의 총독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시리온(Sirion, 썬리언)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 산을 시리온이라 불렀으며(신3:9) 이곳은 시29:6의 시론과 같은 산으로 추정된다.

● 시몬(Simon) I. 열두 제자 중 하나. 베드로 참조.
II. 열두 제자 중 하나. 가나안 사람 혹은 셀롯. 셀롯 참조.

III. 예수님의 형제들 중 하나(마13:55; 막6:3). 어떤 이들은 그가 셀롯 시몬이라고 말한다.

IV.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마27:32).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막15:21). 사도 바울의 친절한 문안 인사로 보아(롬

16:13) 그의 가족은 후에 로마에 산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V. 자기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눅7:36-50).

VI. 베다니의 나병 환자. 그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마26:6; 막14:3, 요12:1-11 비교).

VII. 읍바에 살던 무두장이. 베드로는 그의 집에 거하였다(행9:43; 10:6, 17, 32).

VIII. 사마리아의 마법사. 그는 보통 시몬 마구스(Simon Magus)라 불리는데 이는 마술사를 뜻한다. 이 사람은 철학과 의학과 물리와 천문학 등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홀려 그들에게 추앙을 받았으나 빌립의 기적과 복음 선포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자 복음에 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사도들의 영적 선물(은사)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돈을 주고 사려 하였지만 베드로는 그를 책망하며 그의 위선을 드러내었다(행8:9-24). 영어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선물들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을 그의 이름을 따서 '사이모니'(Simony)라고 부른다.

IX. 가롯 유다의 아버지(요6:71; 13:2, 26).

● 시므리(Zimri, 지므라이, 여호와게서 도우셨다) I. 시므온 지파의 통치자. 그는 모압 평야에서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다가 비느하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민25:14).

II. 이스라엘 왕 엘라의 병거 절반을 다스린 장군. 그는 자기 주인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죽인 뒤 그의 왕국을 차지하였으며 그의 친구나 친족 중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로써 엘라의 아버지 바아사에게 대언자 예후가 선포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시므리는 단지 이레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길브돈을 포위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대장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디르사에 있던 시므리를 포위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본 시므리는 왕의 집으로 들어가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왕상16:1-20).

III. 이들 외에도 이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대상2:6; 8:33-36 등에 언급되어 있다.

● 시므온(Simeon, 씨미언) I. 야곱과 레아의 아들(창29:33; 출6:15). 어떤 이들은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심하게 다루어서 인질로 남았다고 주장하지만(창37:20; 42:24; 43:23) 아마도 그가 나이가 든 사람들 중의 하나였으므로 인질로 남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거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의 일로 꾀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창34:1-31; 49:5). 레위는 약속의 땅에서 상속 몫이 없었고 시므온은 유다의 땅 가운데 일부와 유다 지파가 세일 산과 그들 사막 등지에서 얻은 땅의 일부를 차지하였다(대상4:24, 39, 42).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시므온 지파 지도 참조(19, 20).

시므온의 몫은 유다의 몫에서 서쪽과 남쪽에 있었고 그들의 북서쪽에는 블레셋이, 남쪽에는 사막이 있었다(수19:1-9). 이 지파는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59,300명에서 24,000명으로 수가 줄었는데(민1:23; 26:14) 아마도 이것은 그들의 통치자 시므리가 모압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기 때문이거나 다른 죄 때문일 것이다(민25:1-18).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없으며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보였고(대상12:25) 아사에게 충성을 보였으며(대하15:9) 대개는 유다에 의해 흡수되었다. 모세는 죽으면서 축복할 때에 이 지파를 뺐지만(신33:1-29) 이스라엘에서 이 지파의 위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의해 천년 왕국 때에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겔48:24; 계7:7).

II. 이스라엘의 구속과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구약 성도(눅2:25-35). 그는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받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드리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였다.

III. 니게르라는 이름의 제자(행13:1). 그는 안디옥에 있던 교사들과 대언자들 중 하나였다. 어떤 이들은 그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주장한다.

● 시므이(Shimei, 쉬미아이) I.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사람.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를 모욕하고 후에 그가 돌아올 때 겹손히 무릎을 꿇었다. 이 두 경우에 다윗은 그를 살려 주고 용서하였으나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려 그가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였다. 시므이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도망간 자기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였다(삼하16:5-14; 19:16-23; 왕상2:8-9, 36-46).

II. 다윗의 관원. 그는 솔로몬 때까지 있던 것으로 보인다(왕상1:8; 4:18).

III. 예루살렘의 좋은 가문(슌12:13).

● 시민 정부(Civil government)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 그리고 번영을 위해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관(출18:21-22). 시민 정부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부터 시작되었다(창9:6).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형벌인 사형 제도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부가 반드시 집행해야 할 제도 중 하나이다(창9:6; 롬13:3-4). 성도들은 행정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성도들의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삼하23:3; 단3:17-18; 마22:21; 롬13:1-7; 행4:19-20; 5:29; 23:5).

● 시바(Ziba, 자이바) 사울의 청지기. 다윗은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섬기게 하였다(삼하9:2-10). 후에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주었던 땅을 시바에게 주었으나 사실을 확인한 뒤에 자기가 성급히 결정 내린 것을 깨닫고 그 땅을 둘로 나누어 각각에

게 주었다(삼하16:1-4; 19:24-30).

● 시반(Sivan, 싸이벤) 히브리 종교력의 3월, 민간력의 9월(에8:9). 유대인들의 달력 선도 참조(67).

● 시삭(Shishak, 샤이삭) 르호보암의 통치 제5년에 그를 치려고 싸움을 한 이집트 왕. 그는 이집트와 룩과 숙과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강한 도시들을 치고 주님의 집과 왕의 집에서 귀중한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갔다. 여로보암은 시삭의 호의를 입었으므로 그는 그의 영토를 치지 않았다(왕상11:40; 14:25-26; 대하12:2-9). 피라오 참조.

● 시스 벼랑(The cliff of Ziz) 엔게디 근처의 도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곳을 통해 사해의 연안으로부터 올라와 여호사밧 왕을 대적하려 하였다(대하20:16).

● 시스라(Sisera, 썬서라, 묵상)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그는 바락과 드보라를 치러 왔다가 패하여 걸어서 도망하다가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삿4:1-24; 5:1-31). 야엘 참조.

● 시에네(Syene, 싸이이니) 이집트 남부 경계의 도시(기존 성경의 수에네, 고대 이집트의 남부 도시 아스완). 므딕들에서부터 시에네에 이르는 지역은 한 마디로 이집트 전역을 뜻한다(겔29:10; 30:6).

● 시온(Sion, 싸이언) 헤르몬 산등성이의 정상 중 하나(신4:48).

● 시온(Zion, 자이언, 마른 곳) 신약 성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남단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을 뜻한다. 시온 지도 참조(55). 이 산은 지중해로부터 750미터 높이에 있었고 이 산의 골짜기로부터는 60-90미터 정도 높았다. 이 산의 북쪽에는 아크라가 있었고 북동쪽에는 모리아 산이 있었으며 서쪽에는 기혼 골짜기가, 남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다. 모리아 산 지도 참조(54). 이곳은 다윗에 의해 정복되기까지 여부스 족속들의 강화 도시였고 정복된 이후에는 종종 다윗의 도시라 불렸다(삼하5:7; 왕상8:1). 다윗은 이곳의 아름다움과 튼튼함에 매료된 것 같으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온을 표현하고 있다.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 보라,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이에 놀라며 근심하고 서둘러 사라졌도다."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다녀 보고 그녀의 망대들을 세어 볼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보루들을 자세히 보고 그녀의 궁궐들을 깊이 살펴보아 뒤따르는 세대에 그것을 일러 줄지어다"(시48:2-5; 12-13). 이 산과 모리아 산 그리고 오벨은 첫째 성벽에 의해 둘러싸였으며 요새들로 강화되었다(대상11:5).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궁이 세워졌고 후에는 헤롯의 궁이 세워졌다. 시온과 시온의 딸들은 종종 모리아 산과 성전을 포함한 전체 도시를 가리키기도 한다(시2:6; 9:11; 74:2; 사1:8; 렘8:19; 욥2:23). 예루살렘 참조.

● 시장(Market)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큰 공터

의 한쪽에 시장이 있고 다른 쪽에 신전, 극장, 재판정, 목욕탕, 그리고 다른 공공건물이 있어서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갖추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모여 의견과 물건을 교환하고 일 자리를 구하였으며(마20:3-7) 아이들은 놀 것을 찾았다(눅7:32). 또한 여기서 백성들의 집회가 열리고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의 논쟁이 벌어졌으며 또 법규가 공포되고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 그래서 도시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모든 도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였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원하였다(막12:38). 바울은 아테네의 시장에서 철학자들을 만났고(행17:17) 바울과 실라가 몸에서 마귀를 내쫓아 준 소녀의 주인은 그들을 이끌고 시장에 있는 치리자들에게로 나아갔다(행16:19).

● 시종장(Chamberlain) 왕의 주거지와 옷 등을 관할하는 관원(왕하23:11). 동방에서는 대개 내시가 이 직무를 수행했다(예1:10-15; 2:3-15).

● 시체(Carcass) 짐승의 사체. 사람의 경우에도 죽은 사람을 경멸하기 위한 용도로 carcass라는 말이 사용됐다(사66:24).

● 시체(Corpses, Dead Bodies) 시체는 부정하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다(레21:1-3; 21:11; 민6:6-8). 민수기 19장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여 준다. 죽은 시체를 묻지 않는 것은 불명예였으며(신28:26; 삼하21:10; 시79:2; 사34:3; 렘7:33) 그래서 리스바와 아베스길랴트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큰 칭찬을 받았다(삼상31:11-13; 삼하21:10). 매장 참조.

● 시팀(Shittim)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 그들은 여기서 거짓 대언자 발람의 울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으며(민25:1; 31:16) 민33:49는 이곳을 아벨시팀이라 부른다. 시팀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여리고를 살펴보게 하였다(수2:1). 욥3:18에는 시팀 골짜기가 주님의 집에서 나오는 물로 채워지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도 이곳은 요르단 서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팀나무(Shittim) 모세가 성막에 속한 상과 제단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쓴 귀중한 나무. 어떤 이들은 이것이 검은색 아카시아 나무라고 주장한다.

● 시편(Psalms) 시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찬양을 뜻하며 대부분의 시편은 '미즈모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시나 노래를 뜻한다.

A. 분류 - 가장 적합한 분류 방법은 그 안의 내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찬송 6개의 부류가 나온다.

I.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이것들은 모든 자연계의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 바치는 시(시8:1-9; 104:1-35)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후원하시는 분에게 바치는 시(시20:1-9; 29:1-11; 33:1-22) 혹은 개인들을 악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에게 바치

는 시(시18:1-50; 30:1-12; 46:1-11; 47:1-9)이다. 이런 시들은 주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을 보여 주며(시 90:1-17; 139:1-24)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과 섭리 등에 대한 고상한 생각을 표현한다.

II. 성전 찬송: 이런 시들은 성전을 성별하거나 케를 들여올 때 혹은 성전 예배 등에서 사용되었다(시 24:1-10; 132:1-18). 또한 순례자들의 노래, 즉 멀리서 성전으로 올라와 경배하기 위해 부른 노래(시 120:1-7) 등도 여기 포함된다.

III. 종교적, 윤리적 노래: 이것들은 감정과 감성의 지적 표현을 포함하며 대개는 주관적이다. 그래서 시23:1-6; 62:1-12; 125:1-5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시16:1-11은 그분에 대한 헌신을, 시42:1-11; 43:1-5는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 혹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일곱 개의 회개하는 시가 포함되어 있고(6, 25, 32, 35, 38, 51, 130편) 또 교훈과 진리를 표현하는 시도 포함되어 있다(1, 15, 32, 34, 50, 128편 등).

IV. 애곡하거나 하소연하는 시. 이것들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하였다.

V. 메시아 시편(3, 22, 45, 69, 72, 110편 등)

VI. 고대의 역사를 기술한 시(78, 105, 106, 114편) 어떤 시들은 두세 부류에 들기 때문에 하나의 부류로 확정짓는 것이 쉽지 않다. 메시아 시편이라 불리는 것을 말고도 시편에는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그분의 성품과 일을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시편의 많은 부분이 신약 성경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윗은 메시아의 중요한 예표이며 그래서 그의 삶의 많은 사건들은 메시아의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윗이 시편을 겪고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예표이다.

B. 표제 - 25개의 시편을 제외하고는(제목이 없어서 이것들은 고아(孤兒) 시편이라 불림) 125개의 시편이 여러 종류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제목은 저자와 상황과 노래 종류와 멜로디 혹은 리듬과 함께하는 악기와 합창대 등을 보여 준다. 그런데 히브리 악기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악기와 멜로디 등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시편만큼이나 오래되었다.

C. 저자와 연대 - 다윗은 73편 이상의 시편을 기록하였고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하였다. 다른 시편의 기록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다. 원래 시편은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권은 찬양과 함께 끝을 맺었다. 시편 제1권: 1-41편, 제2권: 42-72편, 제3권: 73-89편, 제4권: 90-106편, 제5권: 107-150편.

또한 시14:1-7은 두 번 나오며(시53:1-6 참조) 또 어떤 것은 다른 것의 일부로 나온다(시70:1-5는 시40:1-17의 일부이다). 또한 어떤 시편은 성경의 다

른 부분을 반복한 것이다(시18:1-31; 삼하22:1-51). 시편의 대부분은 주전 450년경 에스라 시대에 모두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D. 가치 - 첫째로 시편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친 민족 신앙의 산 증거이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과 투쟁을 반영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의심에서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여정을 보여 준다. 그래서 시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망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로 시편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자라난 유대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시편의 언어들로 그분의 사역이 진솔하였다. 또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시편이 떠올랐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시편보다 더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의 책이 없다. 셋째로 시편은 예배의 필수 요소임이 입증되어 왔으며 전 세계 성도들은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할 때 시편의 도움을 받아왔다. 시편은 간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을 풍부하게 해 주며 근본적인 헌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끝으로 시편은 모든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찬송이다. 사실 시편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찬송은 없었다. 이 귀중한 노래들은 하나님, 즉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온 우주의 치리자에 대한 장엄한 생각을 담고 있으며 어떤 시들은 메시아와 그분의 인류 구속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시편은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요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시편은 헌신하려는 사람을 위해 성경을 요약한 것이며 기독교의 실제적 경험을 표현하는 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귀중하다 할 수 있다. 루터는 시편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찬양과 감사의 시편보다 더 고상한 기쁨의 말씀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선한 사람들의 마음과 아름답고 기쁜 동산, 즉 천국 그 자체를 보게 된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아름답고도 즐거운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애곡하며 심히 슬퍼하는 시편보다 더 괴로운 슬픔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알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격정스러운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어둡고 음침한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역사를 담은 그 어떤 책보다도 시편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두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친구들과 원수들을

항해 어떤 일을 했으며 고난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 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교훈과 교리가 이 안에 풍성히 담겨 있다. 그래서 시편은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는 시편과 말씀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 위로와 화평을 주실 것이다.”

끝으로 눅24:44에서 시편은 히브리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 부분 중 하나를 가리킨다.

● 시험하다(Tempt) 이것은 주로 죄를 유발하는 유혹이나 시험을 가리킨다(눅10:25). 사탄은 사람의 혼을 파괴하려고 사람을 가장 크게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자이다(대상21:1; 욥1:1-22; 2:1-13; 마4:1; 살전3:5). 사람은 자신의 성향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죄에 빠지며(약1:14-15) 따라서 자신이 거룩하므로 사람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시고(약1:13)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 그들을 단련하고 입증하신다(창22:1; 약1:2-3).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 늘 예비하고 계시지만(고전10:13; 히2:18; 4:15; 벧후2:9) 그렇다 해도 사람이 불필요한 시험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눅11:4).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짐짓 생각하거나 그분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다(출17:2, 7; 사7:12; 마4:7; 행5:9; 15:10). 이것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은 명백한 죄이므로 이로 인해 시험에 빠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마6:13; 눅8:13; 22:28; 약1:12; 벧전1:6-7).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분을 시험함으로써 뺨뺨함과 무지함을 드러내었는데(마4:1-25) 이때의 시험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시험하는 자 마귀는 당황해서 곧바로 그곳을 떠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을 시험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였다(눅4:13; 22:53; 요14:30).

● 시혼(Sihon, 싸이헌)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왕. 그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민21:21-34; 신2:26-36).

● 시홀(Sihor, 싸이호, 검은색) 사23:3; 렘2:18에서 이것은 나일 강을 뜻한다. 수13:3; 대상13:5의 이 강은 이집트와 유다 사이의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는 적해도 있다.

● 시기온(Shiggaion, 쉬게이언) 시편 7편의 타이틀. 합3:1의 시기오트 역시 찬양의 노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식초(Vinegar) 신 포도즙. 이것은 포도즙을 두 번 발효시킨 산물이며 때로는 노동자나 로마 군인들

이 많이 사용한 약한 산성의 신 포도즙을 가리키기도 한다(민6:3; 룻2:14; 대하2:10; 요19:29). 이 말은 아주 신 식초를 뜻하기도 하였다(잠10:26; 25:20).

● 신 족속(Sinites, 싸이나이즈) 레바논 산 부근의 가나안 족속(창10:17; 대상1:15).

● 신(Sin, 썬) I. 신 광야. 이곳은 홍해의 동쪽 해안에 놓인 평야의 땅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메추라기와 만사를 얻은 곳이다(출16:1; 17:1; 민33:11-12). 이곳과 가나안 남쪽의 켄(Zin) 광야는 서로 다르다. 이집트 탈출 지도 참조(15).

II. 고대 이집트의 강한 도시(겔30:15-16). 이 이름은 진흙을 뜻한다. 이 도시는 이집트의 북동쪽 경계를 방어했다.

● 신격(Godhead) 하나님의 품격 혹은 신성을 가리키는 말(행17:29; 롬1:20; 골2:9). 이것은 고대 영어에서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였으며 특별히 세 인격체로 구성된 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데 쓰였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죄가 없다는 것과 사람의 부패와 우상 숭배 성향을 대비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하였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죄성으로 인한 반역과 진리의 왜곡 등으로 하나님의 신격을 잘 이해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또 골로새서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과 사람의 전통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신성을 띤 그리스/로마의 영웅이나 일개 신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 신들(Gods) 신(god) 혹은 신들(gods)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힘(Elohim)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천사나 치리자 같은 창조된 존재의 능력과 직무와 뛰어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고(출22:20, 28; 시86:8; 97:7-9; 요10:34-35) 이교도들의 거짓 신들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다. 뱀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에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여 이미 그대에 이런 거짓 신들이 존재함을 알려 주었다(창3:5). 이런 거짓 신들은 수도 없이 많으며 헛된 것, 거짓 등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교도 세상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신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짐승과 죽은 사람, 성인 혹은 두려움이나 욕망이나 저주 등과 관련된 대상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천주교의 마리아나 성인들 역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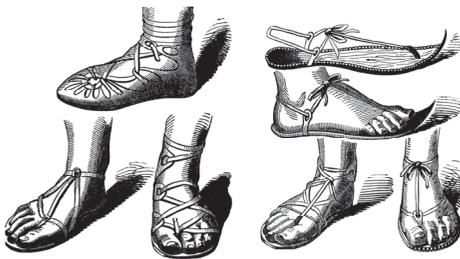
● 신랑(Bridegroom) 결혼, 솔로몬의 아가 참조.

● 신뢰(Trust)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마귀들도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지만(약2:19)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고 부른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분이 된다. 그는 작고 힘이 많지 않았으나 군대들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를

죽일 수 있었다(삼상17:45-47).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순종과 신뢰의 삶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뢰의 유일한 대상이시며(시65:5) 성도들은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잠14:26).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존하는 힘과(사26:4) 그분의 선하심과(나1:7) 인자하심과(시36:7) 풍성한 은혜와(딤후6:17) 보살피심과(벧전5:7) 역경에서 구출해 주심을(시9:10; 고후1:10) 신뢰하여야 한다(잠3:5; 시71:5). 그러면 그분께서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순종, 믿음 참조.

● 신발(Sandals) 대부분의 동방 사람들이 흔히 신던 신발은 가죽이나 나무로 된 바닥과 끈으로 구성되었다(막6:9). 신발 바닥에는 가죽이나 옷감 등을 입히기도 하였으며 신발 끈과 신 자체는 값이 많이 나가지 않았고(창14:23; 암2:6; 8:6) 여인들의 신발에는 장식이 달려 있었다(야7:1; 겔16:10). 동방에서는 집 안에서 신을 신지 않았으며 그래서 집이나 성전 혹은 거룩한 곳에서는 신을 벗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표현은 그곳이 거룩한 장소임을 보여 준다(출3:5; 신25:9; 수5:15).



신발 끈을 매는 것은 여행 준비를 뜻하며(출12:11; 행12:8) 대개 종들이 끈을 매고 또 엎드려서 풀고 필요할 때에 신발을 나르고 하였다. 새로 구입한 노예가 처음 하는 일은 주인의 신발 끈을 풀어 주고 원하는 곳에 신발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발 끈을 풀거나 신발을 나를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였다(마3:11; 막1:7).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다.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의 신발 끈을 풀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유대인들의 법에 명시된 규적이었다(신25:7-10; 룻4:7-11).

● 신부(Bride) 결혼, 솔로몬의 아가 참조.

● 신비(Mystery)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비밀, 즉 숨겨진 것을 뜻하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진리를 뜻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드러내셨으므로 그들이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마11:25; 16:17; 눅10:21-24). 사도 바울은 엡3:1-9에서 이 단어를 설명하며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이전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부활의 신비 등에 대해 말한다(롬11:25; 고전2:7-10; 4:1; 13:2; 15:51; 딤후3:9, 16). 이것들이 신비라 불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께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 즉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도들에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마7:6).

한편 신비는 복음을 집행하는 일에서, 즉 그것을 점진적으로 끝까지 드러내는 일에서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뜻하기도 한다(계10:7; 11:15). 또한 신비는 풍유를 뜻하는데 이는 어떤 것의 일부분을 드러내어 어느 정도 사실을 알려 주면서도 여전히 다른 부분은 가려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정보 교환 형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계1:20에 나오는 일곱 별의 신비는 일곱 개의 불타는 등잔 상경을 이용하여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를 나타내는 풍유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큰 음녀 바빌론의 신비는 영적 바빌론, 즉 우상 숭배와 음행 등으로 가득한 바빌론을 풍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그 여자의 신비를 네게 말하여 주리라.”(계17:5, 7)는 말은 이 인물의 풍유를 드러내어 보여 준다는 것을 뜻한다.

● 신성모독(Blasphemy) 사람이 하나님이나 그분의 성격 등에 대해 말하면서 그분께 해가 되게 하는 것. 또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 특성 등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도 신성모독이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레24:12-16). 사람의 경우에도 악한 말로 중상을 당할 때 모독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왕상21:10; 행6:11). 성령 모독죄 참조.

● 신실한(Faithful) 성경에서 이 말은 ‘믿음이 충만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갈3:9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믿음이 견고하였으므로 성도들이 그와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런 특성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격과 믿음직함 등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행16:15; 고전4:17; 엡6:21; 골4:9; 벧전5:12). ‘신실한 말’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 없는 확실한 말을 뜻한다(딤후1:15; 딤후2:11).

● 실라(Silas, 싸일러스, 구하였다) 예루살렘의 제자들 중에서 주요 인물(행15:22; 고후1:19). 어떤 이들은 그가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을 지키는 문제는 논쟁이 일어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선택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오는 길에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왔다.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뒤에 실라는 바울에게 굳게 붙었다(행

15:37-41). 그는 바울과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루가오니아, 브루기아, 갈라디아, 마케도니아의 마을들을 방문하였다. 실라는 그와 함께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그를 만나 고후11:9; 빌4:10, 15 등에서 언급되는 기부금을 가져왔다. 그는 또 바울과 함께 에루살렘에 있었다(행16:19, 25; 17:4, 10, 14; 18:5; 살전1:1; 살후1:1). 실라는 항상 신실한 형제로 나타났으며 주님의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후1:19; 행전5:12). 그는 다른 곳에서 실루아노로 나온다.

● 실라(Zillah, 질라, 그림자) 라멕의 두 아내 중 하나(창4:19). 라멕 참조.

● 실로(Shiloh, 샤일로, 평온하다) I. 창49:10에서 이 말은 예시야를 가리킨다. 야곱은 실로에 대하여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대언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유다의 정부가 끊이지 않을 것을 보여 준다.

II. 에브라임에게 속한 유명한 도시. 이곳은 에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8킬로미터, 제벳에서 남쪽으로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 가나안 땅을 두 번째 분배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기에 주님의 성막을 세웠고(수18:1; 19:51) 언약궤와 성막은 주전 1116년까지, 즉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을 때까지 약 330년 동안 여기 머물렀다.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으므로 백성은 해마다 실로에서 주님의 명절을 지켰으며 이런 명절에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이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다(삿21:19-23). 사무엘은 실로에서 대언하기 시작했고(삼상4:1) 아히야 대언자도 여기 거하였다(왕상14:2).

● 실로아(Siloah, 사일로아, 샘) 오벨 언덕 밑에 있던 연못(느3:15; 사8:6). 실로암 참조.

● 실로암(Siloam, 싸일로암, 보내다) 오벨 언덕 밑에 있던 연못(요9:7, 11). 이곳은 구약의 실로아와 같다(느3:15; 사8:6). 이곳의 물은 달고 깨끗하며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었고 고대의 성전 밑에 있던 저수지와 시온 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물은 부드럽게 흘렀으며(사8:6) 사람들은 이곳에서 옷을 빨고(요9:1-11) 짐승을 씻기도 하였다. 실로암의 땅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단지 고대의 성벽이 이 연못을 감싼 것으로 보인다. 주님께서는 실로암 땅대 사건을 들면서 이 땅에서의 재난이 반드시 어떤 죄 때문에 생기지는 않음을 보여 주셨다(눅13:4-5).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선한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 받을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에3:39).

● 실루기아(Seleucia, 셀류시아) 오론텐스 강의 끝부분에 있던 항구. 바울 일행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여기를 떠나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행13:4).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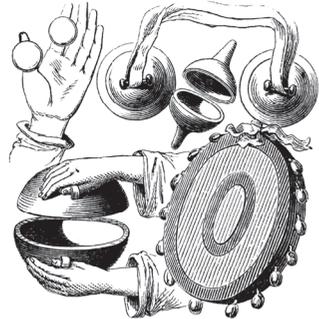
● 실루아노(Silvanus, 실베이너스) 실라 참조.

● 실바(Zilpah, 질파, 코가 작다) 레아의 여종. 그녀는 뒤에 야곱의 아내가 되어 갓과 아셀을 낳았다(창29:24; 30:9-13).

● 심령술(Spiritism) 악령을 추구하는 것. 신약 성경은 마지막 때에 심령술이 부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심령술은 한마디로 마귀 숭배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의 부활은 말세의 표적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 주신다. 마귀 참조.

딤펵4:1-3에 있듯이 심령술에 빠진 자들은 혼인하는 것을 금하며 이혼과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부추기고 또 음식을 먹지 말게 하며 가려 먹게 하되 특히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만 하라고 한다. 채식을 하면 육식을 할 때보다 영적인 힘 혹은 에너지에 더 민감하게 되며 그래서 힌두교도들이나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채식만을 강조한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경고를 준 뒤에 7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라고 명한다. 뉴에이지 시대에 마귀들의 집요한 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바른 교회 출석을 통한 영 분별이 있어야 한다.

● 심벌즈(Cymbal) 원반 두 개를 서로 맞부딪쳐서 리듬을 잡는 금속 타악기. 이것은 오케스트라나 취주악에서 주요 타악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이것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이집트나 고대 인도의 유적에서도 발굴되고 있으며 심벌즈에는 가장자리를 맞부딪치는 소형인 것, 깊은 것, 얇고 대형인 것 등 종류가 많다(대상13:8; 16:5; 시150:5). 음악 참조.



● 심장(Heart) 대부분의 경우 heart는 마음으로 번역되었지만 종종 이 단어는 마음과 심장 둘 다를 의미한다. 빵은 심장(혹은 마음)을 강하게 한다(시104:15). 지옥은 땅의 심장부, 즉 그것의 한가운데에 있다(마12:40). 마음, 지옥 참조.

● 심지(Wick) 기름을 빨아 올려 불을 켜게 하는 형질. 이것은 주로 아마로 만들어졌다. 아마 참조.

● 심판(Judgments) 성경은 천년 왕국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단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심판(고후5:6-10; 살전

4:16-17),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마25:31-46) 그리고 땅과 대기가 사라진 뒤 하늘에서 있을 심판(계 20:11-15) 등에 대해 말한다. 성도들에 대한 두 심판 선도 참조(83).

I. 첫째 심판: 이것은 주후 30년경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심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일이고 심판의 결과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닦쳤고 믿는 자에게는 칭의가 이루어졌다. 이 심판은 이미 지나갔으며 이 심판의 결과는 요5:24; 롬8:1-2; 10:4 등에 나와 있다.

II. 둘째 심판: 이것은 교회가 휴거를 받은 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며 심판의 근거는 믿은 이후의 성도들의 행위이고 그 결과는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참조. 이 심판은 미래의 일이다(고후5:10; 살전4:17).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성도의 죄가 아니라 행위를 따지는 심판이고 고전3:11-15에 그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보상을 받든지 보상을 잃든지 둘 중 하나이다. 이 심판의 결과 나무, 풀, 짚으로 대표되는 성도들의 나쁜 행위와 죽은 행위는 소멸되고 선한 행위만 남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단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많으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보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 성도로서 선한 행위를 한 자들은 생명의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의의 왕관, 찌지 않을 왕관을 받을 것이다. 관 참조. 보상의 심판 선도 참조(84).

III. 셋째 심판: 이것은 7년 환난기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으로 그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한 것이고 심판의 결과 그들은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 심판 역시 미래에 일어나며 유대인들은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무엘 시대에 성부 하나님을 거부했고(삼상8:7) 그리스도의 시대에 성자 하나님을 거부했으며(눅23:18) 스테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거부했다(행7:51-60). 이런 죄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졌으나 결국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한 땅에 되돌아오게 되며 막대기 아래로 지나면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없던 환난을 당하여 민족의 삼분의 이가 죽는다(겔20:34-38; 22:19-22, 슥13:8; 14:1-11).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사람은 적그리스도로서 그의 무서운 통치는 지상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병이 쏟아짐으로써 더욱 가증될 것이다. 이 끔찍한 심판의 결과 유대인들은 참담한 가운데 자신들의 주님을 부를 것이며(슥12:10)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 산으로 돌아오시고(슥14:4)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슥12:10) 통렬히 회개할 것이다. 환난기 참조.

IV. 넷째 심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

림 때에 이방인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분의 영광의 왕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며 심판의 근거는 그들이 환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곧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고 심판 결과 양 민족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염소 민족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다. 이 심판 역시 미래에 일어나며 마 25:31-46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계 20:11-15의 흰 왕좌 심판과 다르다. 이 심판은 땅에서 이루어지며 흰 왕좌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둘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 심판은 단지 민족들(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기에 유대인들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회 역시 이미 휴거되었으므로 이 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25:31-46의 심판을 개인에 대한 심판으로 영적 해석을 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며 심판의 장소 역시 예루살렘 근처의 여호사밧 골짜기이다(욥3:1-2). 요엘 대언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땅에 있는 그곳에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으며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형제들, 즉 유대인들에 대한 민족들의 대우가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 준다. 양 민족은 천년 왕국을 소유하게 되며 염소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간다. 여호사밧 골짜기 참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심판

V. 다섯째 심판: 이것은 보통 흰 왕좌(기존 성경의 백보좌) 심판이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악한 자들이 불에 의해 땅이 정화되는 동안 하늘의 크고 흰 왕좌 앞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다 불 호수에 던져진다. 이 심판도 역시 미래에 민족들의 심판 이후 1,00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다(계20:11-15). 여기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둘째 사망을 맛보고 불 호수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다음의 표는 넷째 심판과 다섯째 심판의 차이를 보여 준다.

넷째 심판과 다섯째 심판의 차이

넷째 심판	다섯째 심판
심판 대상자들의 부활이 없음	심판 대상자들의 부활이 있음
살아 있는 민족들이 심판을 받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음
땅에서 이루어짐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에 이루어짐
책들에 대한 언급이 없음	책들이 펼쳐져 있음
세 부류가 나옴: 1. 양 민족들 2. 염소 민족들 3. 이 내 형제들	단 한 부류만 나옴: 1. 죽은 자들
천년 왕국 이전	천년 왕국 이후

● 십(Ziph, 짐, 흐르는) 유다의 도시. 이곳은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6.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다윗은 이 근처에서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머물렀다(삼상23:14-15).

● 십계명(Decalogue) 열 가지 명령(출20:3-17). 이 말은 10을 뜻하는 그리스어 '데카'와 말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로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열 가지 말씀'이라고 부른다.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 은혜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십계명의 모든 조항은 첫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양심에 새겨진 도덕 법규'이다. 안식일의 경우 신약 성도들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토요일을 강제적인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지만 한 주에 하루를 거룩히 구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되새긴다는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 안식, 안식일, 주일, 율법 참조.

한편 프로테스탄트들이 사용하는 십계명은 요세푸스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분한 대로 열 개로 되어 있으나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마리아 숭배로 인해 둘째 명령을 없애고 대신 열째 명령을 둘로 나누어 십계명을 만들어 가르친다.

● 십마(Sibmah, 썸마) 르우벤의 도시(수13:19). 사16:8-9는 십마의 포도나무가 모압 자손들에 의해 잘려 나간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르우벤 지파가 디글랏벨레셀에 의해 포로가 되어 갔으므로 그 백성이 그 도시와 다른 도시들을 취하였기 때문이다(왕하15:29; 대상5:26; 렘48:32).

● 십보라(Zipporah, 지포라, 작은 새) 이드로의 딸. 그녀는 모세의 아내였으며 엘리에셀과 게르솜의 어머니였다.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이 양 떼에게 물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목자들을 보고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에 이드로는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 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다(출2:15-22;

4:25; 18:2-4). 모세와 결혼한 에티오피아 여인(민12:1)이 십보라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구스 참조.

● 십브라(Shiphrah, 쉬프라, 아름다움) 이집트에 있던 히브리 산파. 그녀와 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새로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보답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집안은 흥왕하였다(출1:15-21).

● 십사만 사천 명(Hundred and forty and four thousand) 7년 환란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마에 봉인이 찍힌 실제적인 유대인들(계7:4; 14:1, 3).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사람들로 온 세상에 다니며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이다(마24:14).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체로 보는 것은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십일조(Tithe, 십분의 일) 수입의 십분의 일을 거룩한 용도로 드리는 것(창14:20; 28:22).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모세의 율법은 두세 종류의 십일조를 이스라엘에게 부과하였다. I. 첫째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밭과 나무와 짐승 등의 소출의 십분의 일을 유대인들의 왕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레27:30-32). 이것은 신정국가의 백성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사람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고(민18:21-24) 또 왕의 통치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으며(삼상8:15, 17)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가의 오분의 일을 더해서 돈으로 이 세금을 낼 수 있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의 십분의 일을 제사장들에게 바쳤고(민18:26-28) 이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다.

II. 둘째 것은 신12:17-19, 22-29; 14:22-27에 나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출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즉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즐겁게 먹어야 했고 거리가 멀면 물건으로 바꾸어서 가져가도 되었다.

III. 셋째 것은 신14:28-29에 나오는데 이것은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십분의 일을 다시 내는 것이었다(매년 3.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정치하에서 매해 평균적으로 자기들 수입의 23.3%를 주님께 바쳤다고 할 수 있으며 물론 신정 정치의 특성상 거기 속한 백성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부과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다.

이런 십일조 제도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과 이후에 갱신되었다(대하31:5-6, 12; 느10:37; 12:44; 13:5).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포로 생활 이후에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내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느13:10)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않았다(말3:8-12). 바리새인들은 조그

만 것의 십일조를 드리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었으나 십일조의 원리, 즉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무시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마23:23).

신정 정치하에서 운영되던 율법의 십일조는 신약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분명히 사라졌지만 십일조의 정신과 원리, 즉 복음의 사역자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과 주의 일을 위해 성심성의껏 헌금을 할 때 주께서 땅의 복을 주신다는 원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신약 성경에 수입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수입의 십분의 일 이상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기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약 시대의 성도가 수입의 십분의 일을 떼서 십일조로 드리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교회에서 이런 헌금을 율법의 십일조로, 강제 규정으로 세금을 걷듯 걷는 것은 신약 시대의 헌금의 원리(고후9:6-7)에 배치되므로 경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돌씩 돌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마 10:9-14; 눅10:4-8, 16). 사도 바울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전9:13-14; 갈6:6). 그는 성도들을 위한 기부 헌금으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 대로 각 사람이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주의 첫날, 즉 주일에 헌금을 드리라고 하였다(고전16:2). 그러므로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비난하는 일은 비성경적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주님의 사역자들과 교회 사역이 유지되게 해야 한다(고후9:7).

● 십자가(Cross) 로마 시대에 나무로 만들어진 사형틀. 십자가 처형은 불명예의 상징으로 보통 가장 천박한 노예들에게 이루어졌으며(신21:23; 갈 3:13) 특히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반드시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십자가가 고통과 수난의 상징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상징이다.

보통 십자가 처형 때에 집행자들은 범죄자의 양손에 못을 각각 한 개씩 박고 두 발을 모아 한 개의 못을 박았다. 어떤 경우에는 범죄자의 몸 주위를 끈으로 감아서 아픔을 덜어 주고 대신 오랫동안 달려 있게도 했으며 못과 끈을 다 사용해서 범죄자를 묶은 뒤 십자가를 들어 올리기도 했다. 집행자들은 못을 박기 전에 범죄자를 체적으로 때리고 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몸을 십자가에 묶은 뒤 처형장까지 끌고 가기도 하였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고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그것을 지고 갔다(막15:21).

처형의 집행자들은 범죄자를 못 박은 뒤에 마취제를 마시게 해서 아픔을 줄여 주기도 하였으나 주님

께서는 이를 거절하셨다(마27:34; 막15:23). 주님께서서는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완전하게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요18:11). 그분께서는 실제로 잔의 찌꺼기까지 다 마셨다. 태양 아래에 십자가를 세우면 체척질과 못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열이 생기고 심한 갈증이 일어나며 또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몸의 여러 곳에 모이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이 발생한다. 또한 범죄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고통이 늘어나며 결국 죽어야만 이 모든 것이 해소된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며칠 동안 사는 경우도 있으므로 볼라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찍 죽으신 것을 보고 놀랐다(막15:44). 안식일이 다가오므로 집행자들은 두 강도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였지만(신21:23; 수8:29) 대개는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두고 세나 짐승이 몸을 먹게 하였다.

● 십자가 상의 칠언(Seven sayings of Jesus on the cross)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들. (1)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눅23:34) (2)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3)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네 어머니를 보라!”(요19:26-27)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7:46) (5) “내가 목마르다.”(요19:28) (6) “다 이루었다.”(요19:30) (7)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눅23:46). 보통 이것은 ‘가장 칠언’이라 불린다.

● 쓰는 것(Sting) 독사와 전갈은 사람을 쏜다(잠 23:32; 계9:10). 사망은 이런 짐승들처럼 치명적인 것, 즉 죄로 사람을 쏜다(고전15:55; 잠초 호13:14).

● 썩기벌레(Caterpillar) 이것은 ‘뱀’이 치우다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으며 메뚜기가 앞에서 깨어나 성충이 되기까지의 한 단계로 볼 수도 있다(왕상8:37; 시78:46; 105:34; 사33:4; 욥1:4; 2:25).

● 썩기풀(Nettle) 버려진 땅에서 자라는 식물(욥 30:7; 잠24:31; 사34:13; 호9:6; 습2:9). 이것은 포기 전체에 가시털이 나고 줄기에 세로 능선이 있으며 가시에는 포름산이 있어 찔리면 썩기한테 쏘인 것처럼 아프다.

● 썩(Wormwood) 쓰고 독이 있는 식물. 이것은 파괴하는 것, 메스꺼운 것 등을 나타낸다(예3:15; 신 29:18; 렘9:15). 사악한 일에 빠지면 그 결과는 썩같이 쓰며(잠5:4) 불공정과 학대는 썩과 쓸개와 같다(암5:7; 6:12). 갈대아 사람들은 죽음을 썩같이 쓴 것으로 표현하였다. 계8:10-11에 나오는 썩이라는 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강력한 통치자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떨어지면서 여러 사악한 자에게 심판을 가져왔다(단10:20-21; 잠초 사14:12).

● 쓸개(Gall) 매우 쓴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 욥16:13; 20:14, 25에서 이것은 쓸개즙을 뜻한다. 마27:34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쓸개를 섞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다고 기록된 반면 막15:23에는 그것이 몰약을 섞은 포도즙이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로마 군인들이 몰약과 다른 쓴 물질을 섞어서 마신 신 포도즙일 것이다(시69:21). 쓸개라는 말은 종종 상징적으로 큰 재난, 사악한 것, 타락한 것 등을 가리킨다(렘8:14; 암6:12; 행8:23).

● 씨(Seed) 창1:11에서 처음 언급되는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씨를 의미하였지만 종종 상징적으로도 쓰였다(단9:1; 벧전1:23; 요일3:9). 성경의 용례 면에서 볼 때 씨는 생리학적인 의미에서 종종 후손이나 자손(레18:21 등) 혹은 유일한 아이(창4:25; 삼상1:11) 등을 의미하였다. 또 어떤 때에 이것은 집합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왕하3:1; 왕하11:1), 아브라함의 씨(대하20:7), 거룩한 씨(스9:2; 사6:13; 비고 렘2:21).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씨를 보이는 것은(스2:59; 느7:61) 그 사람의 계보를 보이는 것이며 어떤 사람의 씨는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민족을 뜻하기도 하였다(에10:3).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씨는 종종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였다(말2:15; 참조 사1:4; 57:4).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남자만이 씨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여자의 씨(창3:15)로 오신 예수님, 즉 처녀 탄생의 신비를 지닌 분의 신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처녀 탄생: 예수님의 계보 선도 참조(63). 한편 씨와 씨들의 차이는 갈3:16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다(레19:19). 귀한 씨를 뿌릴 때에는 두려움과 수고도 동반되지만 그것의 열매를 거둘 때에는 큰 기쁨이 있다(시126:5-6).

● 씨실(Woof) 천이나 옷감을 짤 때 가로로 놓는 실(레13:48-59). 날실 참조.

● 썸(Zin, 진) 가나안 땅 남쪽 경계의 사막. 이곳은 에돔의 북서쪽에 있었고(민34:1-4) 바란 광야라는 큰 광야의 일부였으며(민13:26) 여기의 북동쪽 구석에 가데스바네아, 즉 미리알이 죽은 곳, 가나안 땅에 정답꾼을 보낸 곳,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던 곳, 바위가 물을 낸 곳, 모세가 심히 분노한 곳이 있었다(민13:21; 20:1-13; 27:14). 이곳과 홍해 동쪽의 신(Sin) 광야는 다르다. 이집트 탈출 지도 참조(15).

● 씻는 일(Washing)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씻는 의식이 있었으며 제사장과(출30:19-21) 다른 사람들이(레12:1-8; 13:1-59; 14:1-57; 15:1-33; 히9:10)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거룩함의 씻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영적 씻음과도 관련이 있다(딤후3:5; 계1:5).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전통으로 다른 것을 추가하고(막7:2-4) 그리스도처럼 그런 것을 무시하면 경건치 못한 자라고 평가하였다(눅11:38). 먹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이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며(마15:2) 지금도 시리아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집에 종이 있는 경우

종이 주인의 손 밑에 큰 그릇을 대고 손에 물을 부었다(왕하3:11; 시60:8). 또한 손을 씻는 것은 무죄를 보여주는 표시였다(신21:6; 마27:24).

(○)

● 아가(雅歌)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이 말은 '노래 중의 노래' 곧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한다. 아가서는 한마디로 사랑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문자 그대로 남녀의 로맨틱한 사랑을 다룬다고 주장한다. 아가서는 8장으로 매우 짧지만 여러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므로 조금 복잡해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따라서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자가 누구인지 잘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가서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과는 달리 피상적인 관계 이상의 것을 함유하면서 한 사람의 존재의 중심까지 파고드는 참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부부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셨는데(창2:24) 아가서는 남녀가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을 향해 느끼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고귀한 것임을 잘 전달한다. 또한 이 책은 사랑의 사랑을 벗어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자기들의 사랑이 자기들 자신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결과임을 인식하여야 한다(요일4:10-11).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은 현대 여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 떼 같다."(아4:1)라고 말하며 "네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천 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 둔 망대 같다."(아4:4)라고 말한다. 이런 구절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솔로몬 당시에 염소들이 물결이 치듯 언덕을 따라 내려가는 풍경은 정말로 아름다웠으며 도시의 꼭대기에서 있는 망대는 고귀함과 안정성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에게는 그와 같은 칭찬이 마음에 속 와 닿는 적절한 것이었다.

● 아가보(Agabus, 아가버스, 메뚜기) 초대 교회의 대언자. 그는 수에토니우스와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기근, 즉 주후 44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있었던 기근에 대해 예언을 했고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조물을 보냈다(행11:27-30). 그 뒤 몇 년 지나서 아가보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당할 것을 다시 예언했다(행21:10-14).

● 아가야(Achaia, 아케이아, 고통) 신약 성경에서 마케도니아 남쪽의 그리스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이

름. 에게 해 지도 참조(41). 펠로폰네소스와 고린도만의 북부 영토의 일부도 여기에 포함되지만(행18:12; 19:21; 고후11:10) 본래의 아가야는 고린도를 수도로 둔 그리스 행정 지방이며 펠로폰네소스의 북서쪽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고린도 참조.

● 아가이코(Achaicus, 어케이아커스) 고린도 교회의 신자. 그는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함께 예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여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 아각(Agag, 에이개그, 성난 사람) 아말렉 족속 왕들의 일반적인 이름(민24:7; 삼상15:8). 이것은 마치 이집트의 왕들이 파라오라 불린 것과 비슷하다. 사무엘은 성경에서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아각을 주님 앞에서 여러 조각내어 죽였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카와 그의 양 및 소 떼를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들을 죽이지 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이 아각은 전에 잔인하게 여러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인다(삼상15:33).

● 아각 사람(Agagite, 에이개가이트) 하만이 속한 민족(에3:1, 10; 8:3, 5).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것이 아말렉 족속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아간(Achan, 에이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갈미의 아들. 그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에서 노획물 중 일부를 훔쳐서 화를 자초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에서 참패를 당하였다. 그는 체비 뽑는 일을 통해 발견되어 온 가족과 함께 여리고 북쪽의 아갈 골짜기에서 둘에 맞아 죽었다(수6:18; 7:1-26). 그는 아갈이라고도 불린다(대상2:7).

● 아겔다마(Aceldama, 어셀터마 혹은 어켈터마, 피밭)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30개의 은으로 수제사장들이 사들인 예루살렘 담단의 조그만 밭(마27:8; 행1:19). 이 돈이 핏값이므로 거룩한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종교 지도자들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매장지로 삼았다. 유다가 이 밭을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행1:18) 그 이유는 그의 돈으로 그것을 샀기 때문이다. 유대 전통은 이곳이 남쪽에 있는 힌놈의 골짜기 부근의 경사진 언덕에 있다고 한다. 힌놈의 골짜기 참조.

● 아굴(Achor, 에이코르, 고통) 여리고 북쪽의 골짜기.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불린 것으로 추정되며 아간은 여기서 죽임을 당하였다(수7:26). 대언자들은 천년 왕국 시대에 있을 소망과 기쁨을 이곳과 연관시켜 기록하였다(사65:10; 호2:15). 아간 참조.

● 아굴(Agur, 에이거르, 고통된 손) 잠언 30장을 지은 히브리 기록자.

● 아굴라(Aquila, 에퀼라 혹은 어콰일라)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크리스천. 그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의 크리스천 교회에 몸을 담았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그들은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으며 바울은 그들의 수고와 사랑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행18:2-3, 24-26; 롬16:3-4; 고전16:19; 딤후4:19).

● 아그랍빔(Akrabbim, 애크래빔, 전갈) 약속의 땅의 최첨방(삿1:36). 이곳은 뱀과 전갈이 많은 지역으로(신8:15) 사해 근처의 산이나 혹은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보이며 마말레아그랍빔, 즉 아그랍빔 비탈이라 불리기도 했다(민34:4; 수15:3; 삿1:36).

● 아그립바(Agrippa, 어그리퍼) 헤롯 3, 4 황목 참조.

● 아기스(Achish, 에이키쉬)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가드의 왕. 다윗은 사울을 피해 두 번이나 그에게 도망했는데 처음에는 왕의 관원들에게 발각되어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끼고 미친 채하여 위기를 벗어났다(삼상21:10). 몇 년 뒤에 그는 600명의 무리와 함께 다시 가드로 가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이유로 아기스의 환영을 받았다.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거주지로 주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그가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대했으나 자기의 관리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다윗을 시글락으로 되돌려 보냈다(삼상27:1-12; 28:1-25; 29:1-11).

● 아킵보(Archippus, 아르킵투스, 기병 중 으뜸가는 자) 콜로새 교회의 성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자기의 동료 군사라고 말했다(몬2).

● 아나(Anah, 에이나, 대담) 에서의 아내 중 하나인 아홀리바마의 아버지. 그는 사막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귀들을 먹이다가 노새를 발견했다(창36:24).

● 아나니아(Ananias, 애너니아야스,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대우하셨다) I. 예루살렘의 유대인, 삽비라의 남편. 그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려고 땅을 팔았으나 관 돈의 일부만 가져왔다가 성령님을 속인 죄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행5:1-10). 그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명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다(히12:5-12; 고전11:29-31)

II.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 그는 다소의 사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다(행9:10-17; 22:12).

III.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그는 네베태우스의 아들로서 시리아 총독 퀴드라투스에 의해 죄수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 갔으며 이때에 그를 대신해서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석방으로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왔으며 요나단이 벨릭스의 배신으로 인해 살해당하자 아그립바가 이스마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까지 그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벨릭스 통치하에서 산헤드린과 함께 사도 바울을 심문하였고 사람을 시켜 그의 입을 치게 하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예언적인 답변, 즉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라는 말씀은(행23:3)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 암살자들을 보내어

그의 집을 태우고 은신처에 숨은 그를 죽임으로써 성취되었다(행24:1).

● 아나돗(Anathoth, 애너돗) 베냐민 지파에서 제사장들에게 준 도시들 중의 하나. 이곳은 예루살렘 동부에서 6킬로미터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수21:18; 대상6:60). 이곳은 예레미야 대언자의 출생지였지만(렘1:1; 32:7) 이곳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 했다(렘11:21).

● 아나테마(Anathema) 지독한 저주를 뜻하는 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신자들의 모임이나 산 자들의 수나 혹은 사회의 권리 등으로부터 완전히 떼어 내어 분리하거나 혹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도시 등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을 뜻하였다(대27:1-34). 그러므로 여리고와 아간은 아나테마의 저주를 받았다(수6:17-21; 7:1-25). 한편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아나테마 저주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이다”(고전16:22). 여기서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이다.”라는 말은 원래 ‘아나테마 마라나타’이며 이 말 역시 주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영원한 저주 아래 놓임을 보여 준다. 한편 중세 암흑 시대에 천주교회는 자기들의 사적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신자와 침례교인들을 아나테마 저주로 저주하였다. 출회 참조.

● 아낙(Anak, 에이낙, 긴 목을 갖다) 혹은 아낙 족속(Anakim, 애너킴)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명한 거인(들). 그들은 헤브론을 세운 아르바의 후손들로서 유다의 남쪽 산간 지방과 블레셋의 여러 도시에 퍼져 살았다. 모세가 보낸 히브리 정탐꾼들은 그들을 보고 심히 놀랐으나(민13:33)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대부분 멸절되거나 추방당했다(수11:22; 15:14; 사1:20).

● 아남멜렉(Anammelech, 어내멜렉, 아누는 왕이다) 아르람멜렉 참조.

● 아넬(Aner, 에이너르) I.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벨을 추격하여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창14:13).

II. 므낫세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준 도시(대상6:70).

● 아다롯(Ataroth, 애터러스, 영광의 왕관) 성경에서 이 이름은 여러 장소에 대해 사용되었다: 유다 지파에게 속한 곳(대상2:54), 에브라임에게 속한 한두 곳(수16:2, 5, 7; 18:13), 갓에게 속한 한두 곳(민32:3, 34-35).

● 아닥사스다(Artaxerxes, 아르타렉시스, 의의 왕국) 위대한 왕. 이것은 페르시아의 여러 왕의 호칭 혹은 이름을 가리킨다.

I. 스4:7-24에 나오는 이 왕은 고대 페르시아의 마기스족에 속한 스메르디스를 가리킨다. 그는 주전 522년경 캄비세스가 죽은 뒤에 왕위를 빼앗았고 캄

비세스가 죽인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처럼 행세하려 했다. 그는 8개월간 통치한 뒤 살해당했고 그를 이어 다리오가 통치하였다.

II. 스7:1-28에 나오는 이 왕은 아닥사스다 룡기마누스일 것이다. 그는 크세룩세스의 아들로써 주전 425년경에 즉위하여 39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통치 제7년에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는 유대인 포로들을 데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그의 통치 제20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어졌다(느2:1; 5:14).

● 아달(Adar, 에이다르) 유대인들의 종교력에서 열두째 달. 이달은 지금의 3월에 해당되며 유대인들은 이달에 부림절을 지켰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했으므로 양력에 비해 1년에 11일이 짧았다. 그래서 매 3년이 지난 뒤에 열셋째 달을 첨가했는데 이것은 배아달, 즉 두 번째 아달을 뜻한다. 달 참조. 유대인들의 달력 선도 참조(67).

● 아달라(Athaliah, 애털리아,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귀한 본성을 선포하셨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대하22:2). 그녀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왕하11:1) 이상하게도 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로 인해 그녀의 남편과 아들 아하시야에게 우상 숭배와 죄악이 들어가게 되었다(대하21:6; 22:3). 그들이 일찍 죽자 그녀는 유다 왕실의 모든 씨를 죽이고 왕좌를 차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자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의 손에 의해 구출을 받고 6년 후에 피난처에서 나와 고향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인도로 왕이 되었고 이때에 여호야다는 피를 흘린 아달라를 죽였다(왕하11:1-21; 대하23:1-21).

● 아담(Adam, 애담, 사람) I. 인류의 조상, 대표 수장.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그를 짓고 그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그가 살아 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고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협력자로 이브를 만들어 그에게 아내로 주셨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정하신 첫 번째 제도로서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아담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 면에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어 에덴동산에 거하면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다. 여기서 그는 사탄의 유혹과 이브의 권유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으며 그 결과 자기와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구원자의 오심이 드러나면서 전면적인 저주가 잠시 유보되었지만 아담은 에덴동산과 생명나무에서 쫓겨나서 엄청난 수고와 노동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또한 후손들에게 자기의 타락으로 인한 열매들을 증언함으로써 쓴맛을 더욱 느끼며 살아야 했고 행복을 있었다. 그의 만아들 가인

과 둘째 아벨은 타락한 부모들의 모습을 따라 태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이들 말고도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셋만 그 이름이 나와 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으며 자기의 후손들로 땅이 급속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당시 땅에서는 사람들의 사악함이 매우 컸다. 그가 죽을 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56세였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회개하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최초 역사를 충분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사람에게 떨어진 저주는 황폐한 땅에서의 수고와 노동 그리고 육체적 소모뿐만 아니라 사람의 혼이 영존하는 죽음에 노출되는 것도 포함되었다. 타락하던 날 그는 자기의 창조자의 형상을 잃었고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후자는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최고 수준의 죽음을 가리키며 실로 모든 인류에게 이런 운명이 떨어졌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그렇게 보았다. 그는 서신서의 여러 부분에서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사망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얻게 된 생명을 대조해서 보여 준다(롬5:1-21).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며 아담으로 인한 최고 수준의 사망 역시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다. 죄의 대가가 잠정적이고 육체적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고 몸과 혼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두 아담 선도 참조(66).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 불리는데(고전15:45) 그 이유는 아담이 그의 모든 씨에게 죄와 사망과 슬픔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영적 씨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II. 디베랴 바다 쪽에 있는 요르단의 도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요르단의 물들이 무더기를 이루었으므로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은 젖지 않고 마른땅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다(수3:16).

● 아닷(Atad, 에이태드) 가나안 족속. 야곱의 가족들이 그를 장사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동안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큰 애곡이 있었다(창50:10-11). 아벨 미스라임 참조.

● 아르테마(Artemas, 아르티머스) 바울과 함께 일한 신실한 사역자(딤후3:12). 바울은 신실한 그가 디도를 대신해서 크레타에 있어도 될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면 디도가 니코폴리스로 와서 자기와 함께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 아도니람(Adoniram, 어도나이럼, 주께서 높여

지셨다) 다윗과 솔로몬 밑에서 공세를 거둔 사람. 그는 목재를 만들기 위해 레바논에 보낸 30,000명을 지휘하였으며(왕상5:14) 다른 곳에서는 짧게 아도람(삼하20:24; 왕상12:18) 혹은 하도람이라고도 불렸다(대하10:18). 그는 르호보암 왕의 명령으로 반역을 일으킨 열 지파에게 갔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 아도니벡세(Adonibezek, 애도나이비제, 벡세의 주인) 세계의 동쪽에 있던 벡세의 가나안 왕. 그는 주변에서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개에게 먹이를 주듯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나 유다와 시므온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연합군을 섬멸한 뒤 그를 붙잡아 그가 다른 왕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여 복수를 하였다(삿1:4-7).

● 아도니세덱(Adonizedek, 애도나이지덱, 주는 의로우시다) 다른 네 왕과 함께 여호수아를 대적한 에루살렘 왕. 당시 기브온에서 큰 싸움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엄청난 우박과 또 낮을 연장하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이 다섯 왕은 전쟁에서 패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으나 여호수아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수10:1-43).

● 아도니아(Adonijah, 애도나이자, 주는 여호와 이시다) 학적이 낡은 다윗의 넷째 아들(삼하3:4). 암논과 압살롬이 죽은 뒤에 그는 왕권이 자기 동생 솔로몬에게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좌에 오르려는 야심을 품었다. 요압과 아비야달 그리고 다른 추종자들을 얻은 뒤에 그는 다윗이 생존해 있을 때에 반역을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 소식은 곧 왕에게 들렸고 아도니아의 친구들은 해산되었으며 그는 제단의 뿔을 잡고 피신하였다. 솔로몬은 경고와 함께 그를 집으로 보냈으나 다윗이 죽은 뒤에 그는 다윗을 섬기던 처녀 아비삭을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하며 다시 한 번 왕좌를 찬탈할 기회를 노리다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다(왕상1:1-53; 2:1-46). 아비삭 참조.

● 아도라임(Adoram, 애드레임, 두 배의 능력) 르호보암이 강화한 유다의 남부 성읍(대하11:9).

● 아도람(Adoram, 어도람) 아도니람 참조.

● 아둘람(Adullam, 어덜람) 에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유다 평야의 고대 도시(창38:1; 수15:35). 여호수아는 이곳의 왕을 죽였다(수12:15). 이곳은 후에 르호보암이 재건하여 강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이며(대하11:7; 미1:15)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곳에 다시 정착했다(느11:30). 다윗은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서 떠나 아둘람 굴에 거하였지만(삼상22:1; 삼하23:13) 이 굴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다. 유대 전통은 이 굴이 베들레헴 남동쪽 10킬로미터에 위치한 것으로 가르친다.

● 아둠밈(Adummim, 어뎸뎸) 베냐민과 유다 사이의 경계 도시. 이곳은 여리고에서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 길은 아둠밈

비탈이라 하는 황폐하고 돌이 많은 지역을 통해 올라갔다(수15:7; 18:17). 그래서 여기에는 강도떼가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실 때에 이런 곳을 옆두에 두셨을 것이다(눅10:23-42).

● 아드라미티움(Adramyttium, 애드라미티움) 소아시아 지방의 해양 도시(행27:2).

● 아드람멜렉(Adrammelech, 어드라멜렉, 아드라는 왕이다) I.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아들(왕하19:37; 사37:38). 산헤립은 히스기야를 치다가 실패한 뒤에 니스웨로 돌아갔으며 거기서 자기 신 니스록에게 경배하다가 자기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은 아르메니아의 산지로 도망갔다.

II.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스발와임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가운데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유프라테스 너머로 끌려가자 스발와임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에 정착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자녀들을 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이들을 불에 태워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다(왕하17:31). 어떤 이들은 아드람멜렉이 태양신이고 아남멜렉이 월신(月神)이라고 주장한다.

● 아드리아(Adria, 에이드리어) 아드리야 바다(행27:27). 이곳은 현재 베니게 만을 가리키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의 전체 바다를 가리켰으며 남쪽으로 연장되어 크레타로부터 시실리카까지의 해역, 즉 멜리테 섬이 놓여 있는 해역도 포함했다.

● 아드리엘(Adriel, 에이드리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바르실래의 아들. 그는 사울이 다윗에게 주기로 한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했으며(삼상18:19) 그녀를 통해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결국 그들의 조상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우한 것으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주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삼하21:8에서 그들은 미갈이 아드리엘을 위해 키운 아들들로 나오는데 이 경우 미갈은 자기의 죽은 언니 메랍을 대신해서 그들을 양자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이 두 자매의 이름이 미갈일 수도 있다. 아비아달 참조.

● 아드마(Admah, 애드머, 붉은 흙)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소멸되고 사해가 덮여 버린 싯딤 평야의 네 도시들 가운데 하나(창14:2; 19:24-25; 호11:8).

● 아들(Son) 성경에서 아들은 1대의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혹은 먼 후손을 가리키기도 한다(창29:5; 삼하19:24). 또 양자도 아들이라 불리며(창48:5)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렘4:17) 스승이나 교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아들이라 하는 경우도 있으며(삼상3:6) 회심해서 아들이 되는 경우도 있다(딤후1:4). 또한 아들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닮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며(삿19:22; 시89:6; 사57:3; 행

13:10) 그런 차원에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눅3:38; 롬8:14).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이 말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낳으셨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영원토록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시2:7; 단3:25; 눅1:35; 요1:18, 34).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하게 특별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호칭을 지니신다(마4:3; 8:29; 27:54; 요3:16-18).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이해했고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다고 그분을 비난하였다(요5:18; 10:30-33).

한편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취하신 곁손의 호칭으로(요1:51) 신약 성경에서 80회 이상 그분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에 따른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시80:17; 단7:13-14) 동시에 그분께서 참 사람이심을 보여 준다. 사람의 아들 참조.

● 아라랏(Ararat, 에러랫) 아르메니아의 중심부 지역 이름(왕하19:37; 사37:38). 이것은 종종 그 나라 전체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렘51:27).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의 산들에 안착하였다(창8:4).

● 아라비아(Arabia, 아레이비아) 서부 아시아의 국가. 이곳은 유대의 동남쪽에 있었으며 남북으로 2,300킬로미터, 동서로 1,900킬로미터로 뻗어 있었다. 이곳의 북쪽 경계는 시리아, 동쪽 경계는 페르시아 만과 유프라테스 강, 남쪽 경계는 아라비아 해, 서쪽 경계는 홍해와 팔레스타인이었다. 아라비아는 보통 아라비아 데제르타, 페트라야, 펠릭스의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아시리아 제국 참조.

I. 아라비아 데제르타(Arabia Deserta) 광활한 모래 더미로 이루어진 지역. 이곳에는 식물이 거의 없었고 이곳의 서쪽으로는 길르앗,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으며 이 사막은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회심 이후 사도 바울은 "내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고 말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아라비아 데제르타의 북부, 즉 다마스쿠스와 닿은 지역에 갔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갈1:17). 아시리아 제국 지도 참조(34).

II. 아라비아 페트라야(Arabia Petraea)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이 말은 '돌 많은 아라비아'라는 뜻이며 이 지역의 수도는 페트라이다. 셀라 참조. 여기에는 남부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히위 족속 등이 살았으며 현재는 여러 아랍 부족이 살고 있다. 바로 이 지역에 가데스바네아, 미달, 브엘세바, 바란, 아랏, 드단, 시나이 산 반도와 그라디안 땅이 들어 있다. 이 지역은 다른 아라비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족장 율 역시 이 지역과 관련이 있고 모세는 호렘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았으며 엘리야는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바로 이 광대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였다.

III. 아라비아 펠릭스(Arabia Felix) 고대 아라비아 남서부와 남부의 비교적 비옥한 지역. 이곳은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하는 곳으로 불모지인 아라비아 중부와 북부를 지칭하는 아라비아 데제르타 지역 또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던 아라비아 북서부를 가리키는 아라비아 페트라이 지역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곳은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 의해 아라비아 펠릭스라고 명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기후가 쾌적하고 농산물과 향신료가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의 동쪽에는 페르시아 만, 서쪽에는 홍해 그리고 남쪽에는 아프리카와 인도 사이의 바다가 있었다. 메카와 메디나가 이곳에 있으므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여기를 찾고 있다.



이 지역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랍 사람들은 둘로 구분된다고 한다. 하나는 그 땅의 초기 거주자인 욱단 등의 후예이며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남부 아라비아에는 함의 자손인 구스와 그의 아들들이 거주하였으며 그들은 또한 거기와 접한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고 여기에는 함의 후손 특히 욱단의 후손도 살았다(창10:25-26).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여섯 아들(창25:2; 13-15) 그리고 에서와 롯의 세 동도 유대 근처의 아라비아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그 뒤 4,00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아랍 부족들이 정확히 누구의 후손인지 분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단지 남부 아라비아의 도시에 거하는 부족과 사막이나 들에 거하는 유목 부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에 아랍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별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으나 현대 아랍인들은 다 모슬렘이다. 그들은 대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고대 관습을 지켜 왔으며 그래서 그들에 관한 연구는 성경

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아랍어는 히브리어에 가까우므로 구약 성경 연구에 중요한 도움을 준다.

● 아라우나(Araunah, 여루나) 여부스 족속. 그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뒤에도 모리아 산에 거했으며(삼하5:6; 24:18) 오르난이라 불리기도 하였다(대상21:15-24). 그가 살던 땅이 성전을 지을 장소가 되었고(대하3:1) 그가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거저 준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개종자였을 것이다.

● 아람(Aram, 애람) I.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름. 셈의 아들(창10:22), 나홀의 손자(창22:21), 주 예수님의 선조(룻4:19; 대상2:10; 마1:3; 눅3:33).

II. 시리아와 거의 동의어. 이것은 팔레스타인 북동부, 즉 동쪽으로는 티그리스강, 북쪽으로는 다스,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이다. 시리아 지도 참조(29). 이런 점에서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즉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나하림이라 부른 지역과 두 강의 아람이라 부른 지역을 포함한다(창25:20; 48:7). 아람의 서부 지역에는 여러 도시가 있었다. 다마스쿠스 혹은 아람-다마스쿠스(삼하8:6); 바산 근처의 마아가(대상19:6); 그술(수12:5; 삼하15:8); 소바와 벳트흐(삼하10:6, 8) 등. 이 지역의 어떤 지방들은 세력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다. 다윗은 그들을 정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솔로몬 역시 이런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 아마도 예로보암 2세 때에 이 지역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뱃안아람 참조.

● 아람어(Aramaic)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한 아랍어는 일반 사람들의 구어(口語)로 자리 잡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모슬 근처의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사용한다. 창31:47; 왕하18:26; 렘10:11; 단2:4-7:28; 스4:8-6:18; 7:12-26 등은 아람어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히브리어 참조.

● 아랍 사람들(Arabs) 아라비아 참조.

● 아랏(Arad, 에이래드) 유대의 최남단에 위치한 가나안 족속의 도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을 때 이들이 그들을 저지했다(민21:1). 그 뒤에 이곳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 정복되었다(수10:41; 12:14; 삿1:16).

● 아레타(Aretas, 에러타스, 좀 더 뛰어난) 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의 여러 왕의 이름. 성경에 언급된 아레타는 헤롯 안디바에게 자기 딸을 준 사람이지만 그가 자기 딸과 이혼하자 그는 안디바와 전쟁을 하고 그를 격퇴하였다. 그 결과 티베리우스 황제는 시리아의 총독인 비텔리우스를 시켜 그와 전쟁을 하게 하였으나 그 와중에 주후 37년에 황제가 죽었고 이때에 아레타는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는 주후 39년에 총독을 임명하였는데 바로 그 총독이 바울을 붙잡으려 한 장본인이다(고후11:32; 비교 행9:24-25).

● 아레오바고(Areopagus, 에리아과거스) 마르스

의 언덕. 이곳은 아테네 사람들의 유명한 재판소가 있던 장소였는데(행17:19-34) 이 재판소는 전직 집정관들로 구성되어 공의로운 재판을 했으며 그래서 그리스 밖에도 잘 알려졌다. 그들의 숫자와 권위는 시대에 따라 변했다. 그들은 주로 밤에 심판을 했고 살인, 불경건, 부도덕, 게으름 등을 판단하여 벌을 주었으며 덕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었고 특히 신들을 모독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례는 당연히 그들 앞에 상정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기독교를 세우려 하였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탐구자들은 바울이 날마다 시장에서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그를 가까운 언덕으로 데려갔다. 아레오바고의 둘 의자들은 빈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거기에 스토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둘러서고 그들 주변에는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가 서 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대꾸하지 못하였고 몇 사람은 회심하였다.

● 아로엘(Aroer, 어루어, 노간주나무) I. 아르논의 북쪽에 있던 고대 도시. 이곳은 르우벤 지파의 남쪽 경계에 있었으며(신2:36; 4:48; 수13:9) 아마리 족속의 영토 안에 있었으나(수12:2) 후에 모압의 손에 의해 파멸된 것으로 보인다(렘48:19). 아르논 참조.

II. 갓 지파의 고을. 이곳은 랍바스 암몬의 동쪽에(수13:25), 압복 근처에 있었던 것 같다(삼하24:5; 삿11:33).

III. 다윗이 예물을 보낸 유다의 도시(삼상30:28; 대상11:44).

● 아론(Aaron, 에런, 교사 혹은 고상한 사람)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라팜 요게벳의 아들. 그는 주전 1574년경에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며 모세와 미리암의 형제이고(출6:20)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다. 그는 모세보다 세 살 많았으며(출7:7)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의 대변인으로, 조력자로 함께 일했다(출4:16). 그의 아내는 암미나답의 딸인 엘리세바이며 그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출6:23). 하나님께서 호렙 근처의 사막으로 그를 불러내어 모세를 만나게 했을 때 그는 83세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 과정에서 자기의 동생 모세를 도왔고(출4:16)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홀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왔으며(출17:1-16) 모세와 함께 시나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출24:1-2, 9-11).

아론의 특이성은 그의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었으며(출28:29; 레8) 그 뒤에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멸망당하고 그의 증제로 인해 제양이

그치며 그의 막대기에서 썩어 나는 일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확실히 인정받았다(민16-17). 그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신실했으며 회생을 감수했고 자기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침묵을 지켰다(레1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대한 죄를 짓기도 했다. 먼저 그는 모세가 없는 동안 시나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출32:1-22)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였고(민12:1-16) 가데스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민20:7-13).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는 해에 에돔 땅의 경계에 있는 호르 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죽었다(민20:22-29; 33:39). 신10:6은 그의 모세라에게 죽었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그곳은 호르 산의 서쪽 계곡에 있는 장소로서 그는 그곳에서 그 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아랍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에 그의 무덤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그곳을 매우 중대한 예배 장소로 여기고 있다. 아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기슭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달며 우림과 둠뎀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제사장 참조.

● 아론 족속(Aaronites, 에러나이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대상12:27; 27:17).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위해 열세 도시를 주었다(수21:13-19; 대상6:57-60).

● 아르(Ar, 아르) 이곳은 랍바 혹은 랍바스 모압이라 불렸다(민21:28; 신2:1-37; 사15:1). 이곳은 사해에서 동쪽으로 23킬로미터 떨어진 언덕에, 아르논 남쪽에 세워졌다.

● 아르굽(Argob, 아르갑, 땅의 작은 언덕) 옥의 왕국 바산의 도시. 이곳은 요르단 동부에 있던 므낫세의 도시와 그곳 부근의 지역을 가리킨다. 이곳은 아주 비옥했으며 한때는 성곽을 가진 60개 고을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이곳을 정복하여 자기 이름을 따라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다(신3:4, 13-14; 왕상4:13).

● 아르논(Arnon, 아르넨, 흘러넘치는 강) 사해의 동쪽 산지에 있는 강. 이 강은 아르논 계곡이라는 깊은 계곡 사이를 흘러 사해로 들어갔고 과거에는 모압 족속의 영토와 암몬 족속, 아마리 족속, 르우벤 족속의 영토를 나누었다(민21:13; 수13:16).

● 아르메니아(Armenia, 아르미니아) 아시아의 큰 나라. 이곳의 동쪽에는 메데, 서쪽에는 갑바도기아, 남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남서쪽에는 유프라테스와 시리아가 있었다. 이곳은 높은 곳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날씨가 추웠으며 아라랏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아락세스라는 유명한 강들이 발원했다. 성경에서 이곳은 아

시리아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한 사람들의 도피처로 언급되어 있다(왕하19:37). 현시대 아르메니아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와 비슷하며 엄청나게 부패되어 있다. 아라랏, 민니, 도갈마 등 참조.

● 아르바(Arba, 아르바, 넷) 아낙 자손의 시조. 그는 헤브론을 세우고 그곳을 '아르바의 도시'라고 불렀다(수15:13).

● 아르박삿(Arphaxad, 아르팍셋) 셈의 아들, 노아의 손자(창10:22; 11:10). 그로부터 일곱 세대가 지난 뒤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며 그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네 왕으로부터 롯을 구할 때까지 생존해 있었으며 주전 1908년경에 438세에 죽었다.

● 아르밧(Arpad, 아르팻) 하맛과 연관이 있는 시리아의 도시(왕하18:34; 19:1-37; 사10:9; 36:19). 이 곳은 다마스쿠스와도 연관이 있었다(렐49:23).

● 아르왓(Arvad, 아르벳) 조그만 섬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도시. 아르왓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들로 그곳의 해안 지역을 점유했으며(창10:18; 대상1:16) 배를 잘 다룬 것으로 유명했다(겔27:8, 11).

● 아름다운 항구(Fair-havens, 페어헤이븐즈) 라세아 시에 가까운 정박지 혹은 만. 에게 해 지도 참조(41). 로마로 가던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날 것을 바랐지만(행27:8) 항해하는 자들은 베니게가 닳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가다가 파선당했다.

● 아리마대(Arimathea, 에리머쳐야) 공회원 요셉의 도시.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8킬로미터 떨어진 루디아라는 도시와 인접해 있었다. 누기는 이곳을 '유대인들의 도시'라고 불렀으며(눅23:51) 그리스도의 몸은 아리마대의 요셉이 새로 만든 돌무덤에 안치되었다(마27:57; 요19:38). 어떤 이들은 이곳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거하던 라마라고 추정하는데 이 경우 이곳은 라마다임소뱌이라고도 한다(삼상1:1, 19). 이 이름에서 아리마대가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라마 참조.

● 아리스타고(Aristarchus, 에리스타쿠스, 최고의 치리자)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사람(행20:4; 27:2; 몬24). 그는 은세공업자들이 에베소에서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죽을 뻔하였으나(행19:29) 살아남았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며 로마에서 그와 함께 옥에 갇혔다(골4:10).

● 아리엘(Ariel, 에리엘, 하나님의 사자(獅子)) 서기관 에스라의 우두머리 중 하나(스8:16). 원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삼하23:20과 대상11:22에서 모압에게 속한 '사자 같은 두 사람'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한편 에스겔은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키기 위해 이 말을 썼으며(겔43:15) 이사야는 번제 헌물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태우는 화덕의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이 말을 사용하였다(사29:1-2, 7; 참조 창49:9).

● 아리옥(Arioch, 에리옥, 월신(月神)의 종) I. 아브라함 당시 엘르살의 왕으로 그돌라오멜과 동맹

을 맺은 사람(창14:1).

II. 느부갓네살의 호위대 대장(단2:14).

● 아마(Flax) 인류가 고대로부터 여러 용도로 실용적으로 사용한 식물(수2:6; 잠7:16). 모세는 이집트의 아마에 대해 언급하는데 사실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아마의 재배와 생산 등으로 유명했고(출9:31) 그래서 성경에도 '이집트의 고운 아마'가 우수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잠7:16; 겔27:7). 대언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부드러움을 표현하면서 속담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였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사42:3; 마12:20). 곧 나오는 심지 역시 영어로는 flax이며 이것은 끈 아마 심지를 뜻한다. 이 구절은 그분께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표현한다.

● 아마(Linen) 고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옷감. 성경에는 네 개의 히브리어가 아마로 번역되었다. (1) '피쉬타'는 아마, 고운 아마, 비단 등으로 번역되었다(삿15:14; 겔44:17-18). (2) '밧'은 제사장들과(출28:42; 39:28) 다윗 왕이 입은 옷(삼하6:14)을 나타냈다. (3) '세쉬'는 이집트의 총독 요셉과 덕스러운 여인이 입은 옷(창41:42; 잠31:24)을 나타냈다. (4) '부쓰'는 성전의 휘장과 다윗의 겹옷을 나타냈다(대상15:27; 대하2:14; 3:14; 5:12). 이 말들은 아마 옷감의 등급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운 아마는 아주 흰색을 띠기도 하였으며 그래서 천사와 구속받은 사람들은 고운 아마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계15:6; 19:8).

● 아마겟돈(Armageddon, 아마게돈, 므깃도의 산) 계16:16에 나오는 지명. 므깃도는 갈릴 산 기슭의 큰 평야에 있던 도시로 큰 살육이 있던 곳이다. 바로 이런 살육과 연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7년 환난기 끝부분에 자신의 원수들을 이곳에 모아 큰 살육으로 죽이실 것이다. 환난기 참조.

● 아마나(Amana, 에메이나, 신뢰받다) 동쪽 레바논의 남쪽 정상 혹은 지역. 이곳은 헤르몬 산 근처에 있었으며 여기에서 아마나(혹은 아바나) 강이 흘러내려 다마스쿠스로 향했다(아4:8). 아바나 참조.

● 아마리야(Amariah, 에머리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I. 프라웃의 아들. 그는 엘르아살 계통을 따른 아론의 후손으로 아히들의 아버지요 사독의 조부였다. 아히들 참조. 사독으로 인해 대제사장 직분이 그 계통으로 회복되었다(대상6:7).

II. 그 이후의 대제사장. 그는 아사라의 아들이며 다른 아히들의 아버지였다(대상6:11). 대상6:4-16의 명단에는 아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명이나 있다.

● 아마사(Amasa, 에메이서, 짐을 지다) I. 다윗의 조카. 그는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과 이스마엘 족속 에델의 아들이었다(대상2:17). 그는 유대인들과 다

른 피가 섞였으므로 다윗의 다른 조카들보다 덜 호의를 입었고 아마도 이로 인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자기의 사촌 요압에 의해 참패를 당하였다(삼하 17-18). 나중에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점점 커지는 요압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요압 대신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으나(삼하 19:13)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기의 라이벌 요압에 의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다(삼하 20:4-10).

II. 에브라임의 우두머리. 그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싸움에서 사로잡은 유다 자손들을 노예로 두는 것에 반대했다(대하 28:12).

● 아마새(Amasai, 어머니사이, 짐 지는 자) I. 다윗의 용사들 중 하나. 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막에서 도피할 때에 함께했다(대상 6:25; 12:16-18).

II.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 일을 도왔던 레위 사람(대상 15:24).

● 아마사(Amaziah, 어머니자이아, 여호와는 강하시다) I. 유다의 여덟 번째 왕. 그는 요아스의 아들로서 주전 835년경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죽인 뒤에 유다 사람 300,000명과 이스라엘 사람 100,000명을 고용하여 에돔과 전쟁을 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이스라엘 용병들을 버려두고 전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돔의 우상들을 집으로 가져다가 세우고 자기의 신들로 삼았으며 이런 이유로 주님의 대언자로부터 멸망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벌이다가 패해서 자신을 낮추게 되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에 음모자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그는 그들을 피해 라기스로 도피했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왕하 14:1-20; 대하 25:1-28).

II. 벨엘의 금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 그는 아모스 대언자를 비난하고 그의 충성심 때문에 그를 유다로 추방하려 하였다(암 7:10-17).

● 아말렉(Amalek, 에멜렉) 엘리바스의 아들, 예서의 손자(창 36:12). 성격은 그의 후손이나 그 이전에 존재한 아말렉 족속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다(창 14:7; 민 24:20).

● 아말렉 족속(Amalekites, 에멜렉카이즈) 사해와 홍해 사이의 아라비아 페트라에 살면서 강한 군대 조직을 가졌던 용맹스러운 사람들. 아시리아 제국 지도 참조(34). 그들이 세일 산과 이집트 경계 사이의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살았다는 것 외에도 그들의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는 없고 또한 그들이 여러 도시를 소유했는지도 알 수 없으며 그들과 관련해서는 단지 한 도시만이 언급되어 있다(삼상 15:5). 그들은 굴이나 장막 등에 살면서 유랑 생활을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비딤 사막에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간신히 홍해를 지났는데 이때에 피곤하고 약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같이 공격한 죄로 인해 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출 17:8-16). 그 뒤에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민 14:45).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뒤에 사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진멸했으나(삼상 15:1-35)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으며 그 뒤에 다윗은 여러 차례 그들을 공격했다(삼상 27:8; 30:1; 삼하 8:12). 마침내 그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시므온 족속에 의해 멸절되었고(대상 4:43) 이로써 발람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민 24:20). 이 부족에 속한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하만 역시 이구땡에서 이스라엘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하만 참조.

● 아멘(Amen) 말한 바를 확증하는 말. 이것은 엄격히 말해 형용사이며 은유적 용례로 신실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 3:14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뒷부분은 앞의 아멘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멘은 부사적인 용례로 '확실하다', '그러하다' 등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진술하기 시작할 때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특히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 이것은 주로 '진실로 진실로' 등으로 번역되었다. 특별히 요한의 복음서에서는 이런 뜻으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한편 찬송이나 기도의 끝에 한 번 혹은 반복되어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아멘, 아멘' 등이 이에 속하는데(시 41:13; 72:19; 89:52) 이 경우 이 말은 앞에서 진술한 말이 사실이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맹세하는 경우 제사장이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면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그 맹세 서약의 속박 아래 놓이게 되었다(민 5:22; 신 27:15; 대상 16:36; 느 5:13; 8:6; 비교 시 106:48).

● 아모리 족속(Amorites, 에머라이즈) 가나안의 넷째 아들 에멜의 후손(창 10:16). 처음에 그들은 사해의 서쪽 산지, 즉 헤브론 근처의 산지에 거주했으나 후에 영토를 넓혀 모압과 암몬의 좋은 땅 곧 압복강과 아르논 사이의 지역을 차지하였다(민 13:29; 21:21-31; 수 5:1). 모세는 그들의 왕 시혼으로부터 이 지역을 빼앗았으며 그 결과 요르단의 서쪽 지역에서 빼앗은 영토는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고 요르단 너머의 지역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돌아갔다. 아모리 족속은 성경에서 종종 가나안 족속을 일컫는다(창 15:16; 암 2:9).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들 지도 참조(16).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네 어머니는 헷 족속이다.'(겔 16:3)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본질적으로 이교도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 주셨다.

● 아모스(Amos, 에이모스, 짐) I.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하나. 그는 예루살렘 남방 20킬로미터에 위치한 유다의 조그만 고을 드코아에 살던 목자였다. 그는 주전 787년경 유다 왕 웃시아, 이스라엘 왕 예로보암 2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대언하였으며 호세아, 요엘, 이사야 등과 동시대에 살았다. 아모쓰서의 첫 두 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그의 대언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예로보암의 통치하에서 잠정적으로 번영을 누렸고 그로 인해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는 이런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끝부분에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었다. 한편 그가 죄악을 꾸짖자 제사장들은 그를 미워하고 추방하려고 애를 썼다(암7:10-17). 그의 대언서는 상징이 많고 간결하며 단순하고 확실한 특징을 담고 있다.

II.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 하나(눅3:25).

● 아모쓰(Amoz, 에이마즈, 강하다) 이사야 대언자의 아버지(왕하19:2; 사1:1).

● 아몬(Amon, 애먼, 신실하다) 므낫세의 아들로써 유다의 열네 번째 왕. 그는 주전 639년경에 22세에 통치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주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아버지의 죄악과 같은 죄악을 범했고 이로 인해 그의 신하들이 음모를 일으켜 그의 집에서 그를 죽였으나 유다 백성은 그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왕하21:18-26; 대하33:21-25).

● 아몬드나무(Almond-tree) 아몬드는 복숭아와 비슷한 편도과에 속한 나무의 열매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이 나며 쓴맛과 단맛의 두 종류가 있다(전12:5; 렘1:11).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나무가 1월에 꽃을 피우고 3월에 열매를 맺는다. 이것의 히브리어 이름은 '경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이 렘1:11에 나타나 있다. 전12:5에서 흰머리는 아몬드나무와 비교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나무가

흰색을 띄고 겨울에 흰색 꽃을 내기 때문이다.

● 아르라벨(Amrappel, 애르러펠,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당시 시날의 왕. 그는 다른 세 왕과 함께 사해 근처의 부족들과 평야의 부족들에게 전쟁을 걸었다(창14:1).

● 아르람(Amram, 애므람, 높여진 백성)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의 아버지. 그는 레위 사람으로 요게벳의 남편이었으며 137세에 이집트에서 죽었다(출6:18, 20).

● 아미니답(Aminadab) 암미니답 참조.

● 아바(Abba, 애바) 아버지를 가리키는 시리아(아람)말.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했을 때에 이 말은 그리스어 파테르보다 발음하기 쉬워서 고대어에서 그대로 유지된 듯하며 특히 아이들이 이 말을 많이 쓴 것 같다. 이것은 특별히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사랑과 신뢰 등을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막14:36; 롬8:15; 갈4:6). 양자 삼음 참조.

● 아바나(Abana, 아버너) 아바나와 바르발은 다마스쿠스의 강들의 이름이다(왕하5:12). 아바나(혹은 아마나)는 현재 바라다로 불리며 그리스 사람들은 이를 크리소로아스라 불렀다. 이것은 맑고 차가운 강으로서 헤르몬 산의 북동쪽에서 발원하여 남동쪽 평야로 흐르다가 다마스쿠스 근처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이 도시의 북쪽 성곽을 스치며 지나가서 32킬로미터를 지난 뒤 세 개의 큰 호수 중 하나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은 사철 내내 흐르는 강으로서 물의 양이 많아 가는 도중에 여러 갈래로 나뉘고 운하 등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며 관개용수와 도시와 주변 지역의 식용수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폭이 넓게 유지된 큰 강이다. 다마스쿠스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독립된 강으로는 유일하게 아와즈 강이 있는데 이 강 역시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 아마도 이 강이 성경이 언급한 바르발 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두 강은 물이 많아 결코 마르지 않았고 물을 공급받은 지역들을 마치 에덴동산같이 비옥하게 만들었으므로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은 이 강들과 이스라엘의 강들, 즉 여름에는 말라서 물이 끊어지는 강들을 비교했을 것이다. 아마나 참조.

● 아바돈(Abaddon, 어바돈) 히브리어로 '파멸시키는 자'(계9:11). 그는 죽음의 천사 혹은 파멸시키는 천사로 불렸다.

● 아바림(Abarim, 애버림) 사해와 요르단 강 하부의 동쪽에 위치한 산지. 이곳은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하고 모압과 르우벤 지파의 영토 내에 있다. 이 산지가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우며 느보, 비스가, 브을 산이 아바림 산지에 있었다(민23:28; 27:12; 33:47-48; 신32:49; 34:1). 이에아바림(민21:11)은 이 지역의 남부 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아바삭 사람(Apharsachites, 어파르사카이즈)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에 옮겨가서 살게 한 이교도들(스5:6).

- 아바삿 사람들(Apharsites, 아파르사이즈)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에 옮겨가서 살게 한 이교도들(스4:9).

- 아버지(Father) 영어의 Father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종종 조상, 창시자, 기원자 등을 의미한다(창4:20-21; 요8:56; 롬4:16). 고대 동방에서는 상담자(조언자)나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 불렀으며 그런 차원에서 요셉은 파라오의 아버지였다(창45:8). 하나님은 사람들의 창조자로서 아버지이시다(신32:6; 사63:16; 64:8; 눅3:38). 그러나 우리는 죄들로 인해 자녀의 권리를 버렸으며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요20:17; 롬8:15-17). 아바 참조.

죽장 시대에 아버지는 자기 집의 주인이요 재판관이었으며 가족 문제에 관한 한 무제한적인 권위를 행사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었으며 율법 아래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하면 죽어야 했다(출21:15, 17; 레20:9). 이 경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공적 재판소로 데리고 가야 했다(신21:18-21). 어머니, 가정 참조.

고대 이교도들은 자기들에게 계락을 베푸는 자를 아버지라 불렀으며 이런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로 넘어와 그들도 미가와 같이 제사장 계급의 사람을 가리켜 아버지라 불렀다(삿17:10).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마23:9)라고 하시며 이 같은 관행을 책망하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같은 일을 행하며 그래서 사제와 교황을 Father, 즉 아버지(신부)로 부른다. 교황, 제사장 참조.

- 아버지 없는 자(Fatherless)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은 파부와 나그네와 함께 보호받을 대상으로 나온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처럼 사회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긍휼 베풀 것을 강조하며(출22:22-24) 심지어 십일조의 일부로 그들을 도울 것을 명하셨다(신14:28-29; 26:12-14). 또 그들을 위해 수확할 때 열매와 곡식을 남기라고 명령하셨다(신24:19-22). 대언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이심을 선포했다(사1:17; 렘7:6; 호14:3; 숙7:10). 그러므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은 잔인함과 불공평의 전형적인 예였다(욥6:27; 22:9; 시94:6; 사1:23; 말3:5).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역시 구약 시대 대언자들의 심령으로 교회가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도우야 한다고 명령한다(약1:27). 과부 참조.

- 아벡(Aphék, 에이펙, 힘) I. 레바논의 도시. 이곳은 아셀 지파에게 배정되었으나(수13:4; 19:30) 정복되지는 않았다(삿1:31).

II.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던 잇사갈 지파의 도시.

이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유명했다(삼상4:1; 29:1). 분단 왕국 지도 참조(31).

III.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으로 8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이스라엘이 벤하닷을 패주시킬 때 이곳의 성벽이 무너져서 27,000명의 군사들이 그 밑에 깔렸다(왕상20:26-34).

- 아벨(Abel, 에이블, 수증기)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 그는 목자가 되어 자기 형 가인이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자기 양 떼에서 희생물을 취해 헌물을 드렸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물에 관심을 두셨으나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이에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다(창4:1-15).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곧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정립되어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음을 보여 준다. 피 흘리는 일을 통해 그가 바친 희생 헌물은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 흘림의 속죄를 신뢰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희생 예물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을 보여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물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 증언하시며 이로써 그는 의로운 자라는 증언을 얻었다(히11:4). 땅에서 들린 아벨의 피 소리는 복수를 요구하지만(창4:10) 그리스도의 피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용서와 구원을 요구한다(히12:24; 요일1:7). 가인, 속죄, 피 참조.

한편 아벨은 또한 여러 고을의 이름 앞에 붙는 접두어이며 이 경우에는 목초지 혹은 풀이 많은 곳을 의미한다.

- 아벨므홀라(Abelmeholah, 에이블머홀라, 춤추는 초장) 잇사갈 지파에 속한 마을. 이곳은 요르단 근방에 있으며 벤산에서 16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했다. 이 근처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고(삿7:22) 이곳에서 대언자 엘리사가 태어났다(왕상19:16).

- 아벨미스라임(Abelmizraim, 에이블미즈레임, 이집트 사람들의 초장)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그의 몸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올 때에 요셉과 그의 무리들이 7일 동안 애곡한 데서 연유된 이름(창50:10-11). 이곳은 여리고와 요르단 사이의 여리고 평야에 위치했다.

- 아벨벤타마가(Abelbethmaachah, 에이블베타메 이어커, 마아가의 집의 초장) 납달리 지파에게 속한 마을. 이곳은 메롬 호수 북쪽에 위치했고 세바의 반란 때에 포위를 당했으며(삼하20:14-22) 그로부터 80년 지난 뒤에는 벤하닷에 의해 점령되었고(왕상15:20) 그 뒤 200년이 지나서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점령되었다(왕하15:29). 이곳은 또한 아벨마임이라고도 불렀고(대하16:4) 단순히 아벨이라고도 불렀다(삼하20:18; 왕상15:20 비교).

- 아벨시팀(Abelshittim, 에이블쉬티팀) 브을 산

근방, 요르단 동쪽 모압 평야에 있던 곳. 이곳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 중 하나이며(민33:49) 그냥 시딤이라고도 불렀다(수2:1).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부정함과 바알브을 우상 숭배에 빠졌고 심판을 받아 24,000명이 죽었다(민25:1-18).

● 아벳느고(Abednego, 아벳니고, 느고의 종) 유다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빌론 왕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아사라에게 주어 진 갈대아 이름(단1:7). 그들은 지혜와 덕과 경건함 등으로 왕 앞에서 크게 신임을 얻었으며(단1:3-19; 2:17, 49)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이 되었다가 용광로 속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경건한 삶을 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웅들의 훌륭한 예가 되었다(단3:1-30; 히11:34). 다니엘, 용광로 참조.

● 아볼로(Apollos, 어팔로스, 파멸시키는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그는 학식이 많고 언변이 좋았으며 성경과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주후 54년경에 에베소를 방문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공중 앞에서 증명했으며 거기서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배웠다. 거기에서 떠나 아가야를 지나면서 그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큰 권능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행19:1; 고전3:6). 그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와 바울로 인한 파당으로 많은 사람이 떨어져 간간 것을 슬퍼했다(고전3:4-22; 16:12). 그들은 끝까지 서로 협조하며 주님을 섬겼다(딤후3:13).

● 아폴로니아(Apollonia, 아폴로니아, 아폴로에게 속한 곳) 마케도니아의 도시. 이곳은 암피폴리스와 데살로니가 사이에 있었으며 양 도시에서 걸어서 하루면 갈 수 있었다(행17:1).

● 아브넬(Abner, 애브너, 아버지는 등불이다)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로써 사울의 군대 장관(삼상14:50). 사울이 죽은 뒤 7년 동안 그는 이스보셋을 지원했으나 사울의 첩 리스바의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은 뒤에 사울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과 연합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요압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는데 아마도 요압은 질투심 때문에 혹은 그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으로 보인다. 다윗은 요압의 악한 일을 미워했으며 그래서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고(삼하2:8; 3:33) 솔로몬에게 요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잘 처리할 것을 부탁했다(왕상2:5-6).

● 아브라함(Abraham, 에이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조상(창17:4-5)이며 특별히 유대 민족의 창시자. 그는 셈의 후손인 데라의 아들로 주전 1996년경에 갈대아의 우르에서 태어났으며(창11:27-28) 거기서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들을 뒤로 한 채 아버지와 아내 사래와 형제 나홀과 조카 롯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들어갔으며(행7:2-4) 그 뒤에 유랑하는 목자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이동 지도 참조(14).

세월에 머무는 동안 그는 늘 하던 대로 주님께 제단을 쌓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 땅, 즉 팔레스타인을 그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물과 초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이동하면서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들어갔으며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창12:1-20). 양과 재물이 풍부한 상태로 가나안에 되돌아온 그는 자기 조카 롯을 요르단 하부의 비옥한 땅으로 보내고 자기는 마르레에 장막을 쳤다(창13:1-18). 그 뒤 몇 년이 지나 그는 포로로 잡혀간 롯과 그의 친구들을 구출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창14:1-24).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학대를 받고 그 뒤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창15:1-21).

그러나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래는 그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었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다(창16:1-16).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상속자가 그의 아내 사래를 통해 나올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고 또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다(창17:1-27). 또한 여기에서 세 천사의 방문이 있었고 소돔의 거주민들을 위해 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일이 생겼다(창18:1-33).

그 뒤에 그는 다시 남쪽의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 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에서 이삭이 출생하였으며 그 뒤 하갈과 이스마엘은 새로운 곳으로 추방을 당했다(창21:1-34).

그 뒤로 약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창22:1-24). 12년 뒤에 사라가 죽자 그는 막벨라 굴을 소유 매장지로 구입하고(창23:1-20) 자기의 청지기를 불러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라고 명령하였다(창24:1-67).

그 뒤 그는 그두라와 결혼하고 여섯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다 아라비아에서 특정 부족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175세에 연로한 상태로 명예롭게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졌고 그의 아들들이 그를 사라가 있는 같은 무덤에 묻었다(창25:1-34).

성경이 보여 주는 아브라함의 특징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그는 참으로 동방의 족장이요 통치자였으며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았으며 그가 묻힌 땅이 그가 소유한 유일한 땅이었다. 성실함과 관대함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한

것을 통해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동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의 이 믿음은 주저하거나 연기하는 일 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에게 닦힌 극심한 단련 속에서도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다. 믿음, 순종 참조. 그래서 그는 결국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유대인, 이슬람교도, 기독교인들이 다 그를 흠모하며 이런 점에서 그는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존경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또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실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충만하게 성취되었다. 그의 육적인 씨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들같이 되어 영원토록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차지할 것이다.

● 아브라함의 품(Abraham's bosom)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 즐거움을 누리던 낙원, 즉 축복의 장소. 예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고 친히 말씀하셨다(눅16:22). 고대 동방에서는 어떤 사람의 품에 기대는 것은 먹는 자리에서 그에게 몸을 기대는 것을 의미하였다(요13:23). 낙원, 지하 세계 선도 참조(81).

● 아브람(Abram, 에이브림,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

● 아비가일(Abigail, 애비게일, 내 아버지가 기뻐하였다) I.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다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 나발이 다윗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종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아갔다(삼상25:14). 겸손한 태도와 대화 등으로 인해 그녀는 다윗의 호의를 입게 되었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곧바로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다. 그들의 결혼으로 인해 길르앗과 다니엘이라는 두 아들이 생겼다는 주장이 있으나(삼하3:3; 대상3:1) 한 사람이 두 이름을 지녔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

II. 다윗의 누이, 아마사의 어머니(대상2:16-17).

● 아비나답(Abinadab, 어비너뎀, 내 아버지는 관대하시다) 아마나답과 동일 인물. 히브리어에서는 b와 m이 종종 섞여서 쓰였다. I. 이새의 아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따라 간 세 아들 중 하나(삼상16:8; 17:13).

II. 사울의 아들.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였다(삼상31:2).

III. 기랴트야림의 레위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되찾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집에서 70년 동안 머물렀다(삼상7:1; 대상13:7).

● 아비람(Abiram, 어바이람, 내 아버지가 높여졌다) 르우벤 지파의 통치자. 그는 고라와 단단 등과 함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전복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가 심판을 당했다(민16:1-50).

● 아비멜렉(Abimelech, 어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I. 팔레스타인의 그랄 지방의 왕.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하다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그녀를 다시 돌려주고 사라를 위한 눈가리개로 온 1,000개를 주었는데 이것은 곧 속죄하는 선물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사라가 무죄임을 보여 주는 증거였다. 이 일 뒤에 그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다(창20:1-18).

II. 그랄 지방의 또 다른 왕. 아마도 그는 전자의 아들일 것이다. 그는 이삭과 동시대 인물이며 이삭이 리브가에 관해 속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책망하고 후에 브엘세바에서 그와 함께 새로운 동맹을 맺었다(창26:1-35).

III.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그는 기드온이 죽은 뒤에 스스로 세겜의 왕이 되어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는데 막내인 요담만 이 참사를 모면했다. 이때 요담은 유명한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 세겜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꾸짖었다. 3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했으나 그는 그들을 멸하고 데베스를 공격하다가 한 여인이 땅대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자 모욕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병거를 드는 자를 불러 자기를 죽이게 했다(삿9:1-57).

● 아비삭(Abishag, 애비색, 내 아버지는 방랑자이다) 잇사갈 지파에게 속한 수넵 출신의 아름다운 처녀. 그녀는 다윗의 노년에 그를 품어 주기 위해 그와 결혼하였다. 다윗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아도니야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다가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왕상1:1-53; 2:1-46).

● 아비새(Abishai, 어비쉬아이 혹은 어바이사이, 내 아버지가 존재한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며 다윗의 용사들인 요압과 아사헬의 형제(대상2:16). 그는 자기 삼촌 다윗에게 늘 충성을 보였고 그와 함께 사울의 장막에 갔으며(삼상26:7-11)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전쟁에서 앞장을 섰고(삼하2:18, 24)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과(대상18:12-13) 시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선두에 나섰다(삼하10:10). 또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을 구출하고 이스비브놈이라는 거인을 죽였다(삼하21:15-17).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대적하고 죽였으며(삼하23:18) 시므이와 압살롬과 세바의 사건에서 항상 다윗의 편에 섰다(삼하16:9; 18:2; 20:6-7).

● 아비수아(Abishua, 어비슈아) 비느하스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대제사장(대상6:50). 그는 사사기에 나오는 에글론과 에훤과 동시대 인물이었을 것이다(삿3:1-31).

● 아비아달(Abiathar, 어바이아달, 풍족함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아들이며 유대인들의 열 번째 대제사장. 사울이 자신의 군사들을 놔에 보내어 모든 제사장을 멸하려 했을 때 청년 아비아달은 광야의 다윗에게 피신하였으며(삼상22:11-23) 그와 함께 제

사장의 일을 수행하였다(삼상23:9; 30:7). 그 뒤 다윗이 왕좌에 오르자 그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올려오는 일을 도왔으며(대상15:11-12)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의 편에 있었으나(삼하15:35) 그 뒤에 아도니야를 추종하면서 나이가 들어 자기의 친구 다윗을 배신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그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그를 아나돗으로 쫓아냈으며(왕상2:26-27) 이로써 150년 전에 엘리에게 주어진 예언을 성취하였다(삼상2:27-36). 사울은 사독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수여함으로써 엘리가 속한 이다말 계열로부터 엘르아살의 계열로 대제사장 직분을 옮긴 듯하며 이로써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 즉 다윗과 함께한 아비아달과 사울과 함께한 사독이 있었던 것 같다. 이 같은 대제사장 체제는 아히멜렉의 죽음 이후부터 솔로몬의 통치 때까지 이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사독과 그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 직분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아비아달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다고 기록된 반면(왕상2:27) 다른 곳에서는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된 것이다(삼하8:17; 대상18:16; 24:3, 6, 31). 아마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이름을 지닌 것으로 보일 것 같다. 사실 그 당시에 이런 관습은 유대인들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다. 아비가일 참조. 이렇게 하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보여 주는 빵을 주었다는 말씀과(막2:26) 아히멜렉이 주었다는 말씀(삼상21:1-6)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아비아(Abiah, 어바야,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사무엘의 둘째 아들. 사무엘은 그와 그의 형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임명했으나 그들의 부패와 부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게 되었다(삼상8:1-5).

● 아비아(Abijah, 어바이자,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신약의 Abia(어바야). I. 아론의 후손 중 한 가족의 창시자(눅1:5). 다윗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제사장들을 24계열로 나누었는데 그중 여덟 번째 계열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 아비아 계열이라 불렀다(대상24:10). 물론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이 계열에 속했다. 제사장 참조.

II. 북 왕국 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의 아들.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그가 젊어서 죽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애도를 그에게 보냈다(왕상14:1-18).

III. 남 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 그는 아비아이라 불리기도 했으며(왕상15:1-8) 주전 958년경에 왕좌에 올라 3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여로보암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대하13:1-22) 자기 아버지의 악한 본보기를 따르고 말았

다. 그의 어머니 마이가(혹은 미가야)는 압살롬의 손녀였을 것이다(왕상15:2; 대하11:20; 13:2). 그의 뒤를 이은 아사는 그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였다.

IV.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대하29:1).

● 아비에셀(Abiezer, 에이바이어저, 내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므낫세의 증손자(민26:29-30). 그는 재판관 기드온이 속한 가족의 창시자이다(수17:2; 삿6:34; 8:2). 삿8:2에서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이라는 말은 아비에셀 사람들이 주축이 된 300명이 미디안 사람들을 처음에 멸절시킨 것을 의미하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렘과 스엠크를 잡고 크게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

● 아비히일(Abihail, 애비헤일, 내 아버지는 무섭다) 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내(대하11:18). 여기서 '엘리암의 딸'이라는 말은 다윗의 형 엘리암의 후손을 의미한다.

● 아비후(Abihu, 어바이후, 내 아버지가 그분이다) 아론의 둘째 아들. 그는 자기의 다른 세 형제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해 구분되었으나(출28:1) 자기 형 나답과 함께 번제 헌물 제단에서 영속해서 타는 불로 향을 태우지 않고 보통 쓰는 불(이상한 불)로 향을 태우다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소멸되었다(레10:1-2; 16:12; 민16:46).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길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 그들은 술 취한 채 이런 죄를 짓고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히 구별한 제단에서 불을 붙인 향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경고이다(히10:10-14).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분께서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를 규정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상관해야 하며 그분께서 친히 규정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아빌레네(Abilene, 애벌리니) 동쪽 레바논의 동부 경사 지역에 위치한 지역. 이곳은 다마스쿠스에서 헬리오폴리스 쪽으로 20-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지역의 이름 자체는 '아빌라'라는 도시에서 파생되었고 다른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 '루사니아의 아빌레네'라 불렀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제15년에 이 지역은 루사니아라는 사분 영주가 치리했다(눅3:1). 사분 영주 참조.

● 아빤(Abib, 에이빤) 유대인들의 종교력에서 정월. 이달은 지금의 태양력에서 4월경에 해당되며 '아빤'이라는 말 자체는 곡식의 녹색 이삭 혹은 갓 나온 곡실을 의미한다. 4월경에 보리가 이삭을 내므로 그달의 이름이 이렇게 불린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들은 아빤 월 10일에 유월절 어린양을 구별하여 14일 저녁에 죽이고 바로 그 저녁에 그것을 먹었으며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출12:1-51; 13:1-22). 이것은 후에 니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달, 유월절 참조.

● 아사(Asa, 에이서, 의사 혹은 병 고침) 솔로몬 이후의 유다의 세 번째 왕. 그는 아비얌의 형제로서 그의 뒤를 이어 주전 951년경부터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다(왕상15:8). 그의 통치 전반부는 평화스러웠고 그는 여러 일에서 행동했다.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회복하였으며 거짓 신들을 섬기고 남색 하는 자들을 내쫓았으며 우상 숭배와 관련된 더러운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고 자기 어머니가 작은 숲에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자 그녀에게서 왕비의 직위를 박탈했다. 그의 통치 제11년에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왕 세라의 큰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가져다주셨다. 대신자 아사라는 계속해서 개혁을 하라고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이 일을 방해하자 그는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시리아에게서 도움을 구했다. 그의 생애의 끝부분에 그는 발에 병이 있었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을 의지했다고 기록하면서 그를 꾸짖었다(대하16: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전반적으로 행복한 통치였으며 유다 사람들은 이를 기뻐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하게 행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다(왕상22:43; 대하20:32; 21:12). 그의 장례식은 거창하게 치러졌다. 그는 평생도록 북 왕국의 바아사와 갈등하면서 살았다(왕상15:6, 16).

● 아사라(Azariah, 애저라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유다의 왕(왕하15:1-7). 그는 대하26:1-23 등에서 웃시아라고도 불린다. 그는 주전 806년경에 16세에 통치를 시작했으며 그의 통치 전반부는 좋았다. 그러나 후에 그는 스스로 성전에서 향을 드리려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다(대하26:16-23). 이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었으며 성경에도 이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이 나온다.

● 아사헬(Asahel, 애쎄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 그는 요압의 동생으로 다윗의 서른 용사 중 하나였으며 발이 날랜 사람이었으나 기브온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다(삼하2:18-23).

● 아삽(Asaph, 에이세프, 그가 모았다) I. 다윗 시대의 음악가. 그는 성전 음악을 인도한 사람이며(대상16:5; 25:1-2) 이런 책무는 그의 가족들에게 대대로 이어진 것 같다(느7:44; 11:22). 그는 또한 선견자라 불리기도 했으며(대하29:30) 그의 이름은 열두 편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50, 73-83편). 음악 참조.

II. 히스기야 왕의 기록관(왕하18:18; 사36:3).

III. 아닥사스다 밑에서 삼림 관리를 맡은 사람(느2:8).

● 아세카(Azekah, 어지카, 경작된 땅) 유다에게 속한 고을.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23킬로미터 남서쪽

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여호수아와 사울의 이아기에 나온다(수10:10; 삼상17:1).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점령했으나(렘34:7) 나중에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여기에 거하게 되었다(느11:30).

● 아세라(Ashera) 작은 숲 참조.

● 아셀(Asher, 애서, 행복) 야곱의 여덟째 아들. 그는 실바의 둘째 아들이었다(창30:13; 35:26).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셀 지파는 순서상 다섯 번째였으며 그들의 수는 53,500명이었다. 아셀의 몫은 해안을 따라 있었으며 북쪽에는 레비논과 시돈, 남쪽에는 갈멜과 잇사갈 지파, 동쪽에는 스블론과 담달리 지파를 경계로 두었고 그들의 땅은 곡식, 포도즙, 기름, 창물 등이 풍부하였다(창49:20; 신33:24-25). 이삭의 열두 지파와 아셀 지파 지도 참조(19, 26). 이들의 영토에 페니키아의 해안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수19:25, 28) 아셀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그들 가운데 살았다(삿1:31-32). 그들은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역사 기록 부분에 명예롭게 기록되어 있다(대상12:36; 대하30:11).

● 아소도(Azotus, 어조투스) 전도자 빌립이 사막에서 이집트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 성령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서 기적적으로 아소도로 데려가셨다(행8:39-40). 아스돗 참조.

● 아수빔(Asuppim, 어쎄핌) 집합체. '아수빔의 집'(대상26:15)은 성전과 관계된 저장고였을 것이다.

● 아스그나스(Ashkenaz, 애쉬키나즈) 고멜의 아들, 야벳의 손자(창10:3). 그의 후손이 살던 지역도 아르메니아의 민니와 아라랏과 함께 같은 이름으로 불렸는데(렘51:27) 아마도 이곳은 흑해 쪽을 향한 지역일 것이다. 민족들 지도 참조(13).

● 아스글론(Askelon, 에스컬런) 블레셋의 도시. 이곳은 아스돗과 가자 사이의 지중해 연안 도시였다. 가나안 족속들 지도 참조(16).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가 이곳을 점령했지만 그 뒤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다섯 개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삿1:18; 삼상6:17). 스가라 대언자의 말씀, 즉 "가자에서는 왕이 사라지고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리라."(슌9:5)는 예언에 따라 여기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 아스납발(Asnapper, 에스내퍼르) 아시리아 왕. 그는 북 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 그 열 지파의 땅에 유프라테스 너머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왕하17:24; 스4:10). 후자의 말씀에서 에스라는 그를 '위대하고 존귀한 자'라고 묘사했다.

● 아스나(Asenath, 애세나스, 니이소에 속하다) 이집트의 도시 온의 제사장 보디페라의 딸. 파라는 그녀를 요셉에게 주어 그의 직무에 영광과 존귀를 더해 주었으며 그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창41:45; 46:20).

● 아사다롯(Ashtoreth, 애쉬터리스) 페니키아 사

람들이 숭배하던 여신(왕하23:13), 그리스 사람들은 이 여신을 아스타르테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과 블레셋에도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도입되었는데(왕상11:5, 33; 삼상7:3; 31:10) 보통 이 여신은 바알과 함께 언급된다(삿2:13; 10:6; 삼상7:4; 12:10). 아스다롯 여신 숭배에는 음탕한 행위가 동반되었으며 남자들 중에서 몸을 파는 자들과 창녀 등이 이 여신을 위해 특별히 구분된 존재로 여겨졌다(왕하23:7; 잠조레19:29; 신23:18). 동방 신화에서 바알이나 벨이 남성으로 재물의 별이나 주피터를 의미하듯이 아스다롯은 여성으로서 재물의 별이나 비너스를 의미했다. 또한 바알은 태양신을, 아스다롯은 월신(月神)을 의미했다. 바알 참조(렘7:18; 11:13; 44:17-18; 겔16:1-63). 하늘의 여왕 참조.



● 아스돗(Ashdod, 애쉬돗) 블레셋의 다섯 개 주요 도시 중 하나. 가나안 족속들 지도 참조(16). 이곳은 유다에게 지정되었으나 유다는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다(수13:3; 15:47; 삼상5:1; 6:17; 4:7). 여기에 다곤의 전이 있었으며 에벤에셀에서의 싸움 이후에 여기로 하나님의 계가 들어왔다(삼상5:1).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을 아소도라 불렀으며 그리스도 시대에 이곳은 유대에 속했다. 여기서 전도자 빌립은 복음을 선포했다(행8:40). 아소도 참조.

● 아스드롯 가르나임(Ashteroth Karnaim, 애쉬터르카르네이ئم, 두 뿔을 가진 아스타르테) 창14:5에 나오는 한 지역의 이름. 이곳은 요르단 너머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 소유한 도시로서 단순히 아스다롯이라 불리기도 하였다(신1:4). 가나안 족속들 지도 참조(16). 이 이름은 초승달이나 뿔들을 지닌 모습으로 우상화된 아스타르테(아스다롯) 여신에서 유래하였다. 가나안 정복 이후 이곳은 레위 사람들의 도시로 므낫세 반 지파의 경계 안에 있었고(수13:31; 대상6:71) 또 브에스드라라 불리기도 하였다(수21:27).

● 아스부나스(Ashpenaz, 애쉬페내즈) 느부갓네살의 내시들 가운데 우두머리. 그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맡았으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단1:3-18).

● 아시리아(Assyria, 어찌리아) 고대 제국. 이 이름은 이 지역에 정착한 셈의 둘째 아들 앓수르에서 나왔다(창10:22). 성경에서 아시리아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시리아 제국 지도 참조(34).

I. 본래의 아시리아. 이것은 티그리스 강 동쪽에 아르메니아와 수시이나나 그리고 메대의 중간에 놓인 왕국으로 고대에 여섯 개의 지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수도는 매우 비옥하고 좋은 곳에 위치한 니느웨였으며 따라서 아시리아는 좁은 의미에서 니느웨가 속한 지방을 뜻했다.

II. 대개 아시리아는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고 유프라테스까지 뻗어나간 아시리아 왕국을 의미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 왕국을 사용하여 대언의 말씀을 전하였다(사7:20; 8:7).

III.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진 뒤에 이 이름은 그 전에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던 나라들에게 적용되었다. (a) 바빌론(왕하23:29; 렘2:18) (b) 페르시아(스6:22. 여기서 다니오는 아시리아의 왕이라 불린다).

고대 아시리아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성경을 통해 이 나라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 나라의 왕들 중 하나에 의해 정복을 당했고 왕들의 시대에 이 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시리아 왕 불은 므나헴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디글랏빌레셀은 아하스를 도와 북쪽의 열 지파와 연합한 시리아 군대를 치게 하였다. 한편 살만에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호세아를 정복하고 그를 봉신으로 삼아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하였지만 호세아는 이 멍에를 벗기 위해 이집트와 연합해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다. 호세아의 계락을 눈치챈 살만에셀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멸하고 왕에게 족쇄를 씌운 뒤 그 땅의 백성을 매대로 이주시키면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막을 내렸다.

한편 요르단 동쪽에 있던 세 지파는 디글랏빌레셀이 유다의 아하스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매대로 끌려갔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큰 군대와 함께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공격했지만 기적적으로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 예살핫돈은 므낫세 왕 시대에 유다를 초도화시켰고 주요 인사들을 묶어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이후에 아시리아는 급격하게 세력을 잃게 되어 마지막 황제인 사르단팰루스 때에 메대 왕국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민24:22). 아시리아의 수도는 유명한 니느웨였다. 니느웨 참조.

● 아시마(Ashima, 아샤이마, 쵸) 사마리아에 정착한 하맛 사람들이 공경하던 신(왕하17:30).

● 아시아(Asia, 에이지어) 유럽 동쪽에 놓인 동방 대륙의 여러 부분 중 하나.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로서 흑해와 지중해의 동쪽 지역 사이의 반도를 가리킨다. 예전에는 여기에 브루기아, 길리기아, 탐빌리아, 루시아, 루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파플라고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등이 포함되었다. 사도행전과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약 시대에는 많은 유대인이 이 지역에 퍼져 살았다. 신약 성경 기록자들이 아시

아를 언급할 때에는 소아시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행19:26-27; 20:4, 16, 18) 총독이 다스리는 아시아, 즉 예베소가 수도로 있던 이오니아 지역을 의미하기도 했다(행2:9; 6:9; 16:6; 19:10, 22). 요세푸스 참조.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 아얄론(Ajalon, 애절런) I. 단 지파의 도시. 이곳은 레위 사람들인 고태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으며(수21:24) 님낫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하스로부터 이곳을 빼앗았다(대하28:18). 이곳은 기브온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이곳의 골짜기는 북쪽으로 향했으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해와 달이 멈추어 서라고 명령했고 그것들은 그의 명령대로 멈추어 섰다(수10:12).

II. 베냐민 지파의 고을. 이곳은 벤엘에서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후에 르호보암은 이곳을 강화했다(대하11:10).

III. 스블론 땅의 고을. 이곳은 재판관 엘론의 매장지였다(삿12:12).

● 아우구스투스(Augustus, 어가스터스, 존엄한 자) 주전 19년에 통치를 시작한 로마의 황제. 그는 조세 등록을 명령하였고(눅2:1) 이로 인해 요세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출산했다. 그는 주후 14년에 죽었다.

● 아위 사람(Avites, 에이바이즈) I. 가나안의 후손. 그들은 가자에서 이집트 강에 이르는 연안의 한 지역을 차지하였으나 모세 이전에 그곳을 침범해 들어온 블레셋(혹은 갑툭 족속)에 의해 추방당하고 거의 멸절되었으며(신2:23) 단지 일부분 여호수아 시대에도 살아남았다(수13:3). 한편 어떤 이들은 그들이 히위 족속이라고 생각한다(창10:17; 34:2; 수9:7; 11:3 등). II. 아와 사람들(왕하17:24, 31)

● 아위 족속(Avims, 에이빔즈) 아위 사람 참조.

● 아이(Ai, 아이 혹은 에이아이, 페허) 가나안 족속들의 도시. 이곳은 아이(창12:8), 아야(느11:31), 아얏(사10:28)이라고도 불렸다. 이곳은 벤엘의 동쪽에 있으며 한때 아브라함은 그 근처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았다(창12:8; 13:3). 아간의 범죄로 인해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패하게 되었고 뒤에 이곳을 정복하였다(수7:2-5; 8:1-29). 이곳은 재건되었고 대언자 이사야는 후에 이곳을 언급하였다(사10:28).

● 아이얄론(Aijalon, 애절런, 사슴이 있는 곳) 아얄론 참조

● 아인(Ain, 에인, 샘) 유다의 도시 중 하나. 이곳은 후에 시므온에게 주어졌다(수15:32; 대상4:32). 한편 가나안 북부에도 이 이름의 지역이 있었다(민3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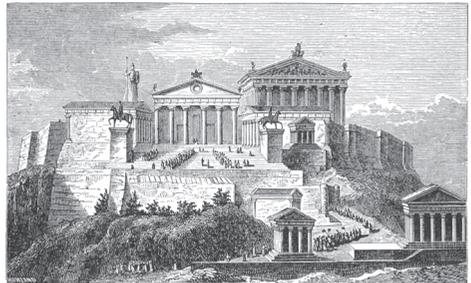
● 아켈라오(Archelaus, 아컬레이아스)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얻은 아들. 그는 자기 형제 안다바와 함께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기 아버지가 죽자 사분 영주라는 호칭을 가지고 유대, 이두매아, 사마리아(가자와 히포 제의)를 다스렸다. 마2:22를 보

면 그 역시 자기 아버지를 닮아 포악했음을 알 수 있고 계속 역사는 그가 10년 동안 통치한 뒤에 폭정으로 인해 황제 앞에서 고소를 당하고 갈리아(골) 지방으로 유배를 가서 죽었다고 기록한다. 사분 영주 참조.

● 아테네(Athens, 애즌즈, 미네르바의 도시) 서구 문명의 발생지이며 고전 문명의 지적, 예술적 사상이 유래된 도시. 에게 해 지도 참조(41).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아티카 지방의 중심지였다. 고대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티카 지방 전역을 포함한 도시국가(폴리스)를 아테네라 불렀으며 고대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 중에서도 아테네는 특히 세력이 강한 폴리스였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아테네는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를 설득하여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고 그 맹주가 되었다. 주전 478년 델로스 동맹의 체결 이후부터 주전 431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개시까지가 아테네의 황금시대였으며 이때에 이곳의 민주정치가 확고해지고 경제적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문화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곳은 그리스의 학문 및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여러 나라로부터 학자와 예술가가 여기로 모여들었다.

아테네는 무엇보다도 고대의 신전과 공공건물들로 유명하다. 그중 이 도시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를 위해 세운 직사각형의 원주식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도리아 양식 건축물 가운데 백미로 꼽힌다. 파르테논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에는 원래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신전이었던 에렉테움과 아크로폴리스의 벽을 통해 입구가 이어지는 프로필라이아 신전도 있다. 아크로폴리스의 기슭 남쪽에는 헤로데스 극장과 디오니시우스 극장이 있고 북서쪽에는 고대 장터였던 아고라가 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아테네는 고대 문명의 꽃이었으며 이곳의 철학 학파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였고 화가와 조각가, 건축가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동시에 우상 숭배 역시 이 도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앞섰다. 사도 바울은 주후 52년경에 이곳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와 부활을 성공적으로 선포하였다(행17:15-34). 아레오마고 참조.

● 아폴리온(Apollon, 어폴리언) 아마돈 참조.

● 아피이 광장(Appii-Forum, 애피아이포름) 아

피우스 클라디우스가 세운 아피우스 시의 시장. '세 역관'은 로마에 16킬로미터 정도 더 가까운 마을이다(행28:15).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지도 참조(44).

● 아하바(Ahava, 어헤이바) 갈대아의 도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 도시의 이름을 딴 아하바강의 둑에서 모여 에스라의 지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했다(스8:15, 21, 31).

● 아하수에로(Ahasuerus, 어해슈어러스) 성경에 나오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여러 왕의 공동적인 호칭. I. 메대 사람 다리오의 아버지(단9:1).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호칭이 고레스의 조부인 아스티아게스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고레스, 다리오 1세 참조.

II. 고레스의 아들로서 그의 뒤를 이은 왕(스4:6). 아마 이것은 주전 529년부터 7년 반 동안 통치한 캄비세스를 가리킬 것이다.

III. 에스더의 남편. 아마도 이 사람은 크세룩세스를 가리킬 것이다. 주석가들은 여러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 이름이 페르시아의 여러 왕을 가리킨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들은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단지 크세룩세스만 예외이다. 에스더 참조.

● 아하스(Ahaz, 에이헤즈, 그가 붙잡았다) 요담의 아들로 유다의 열두 번째 왕. 그는 20세에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통치하였다(왕하16:1-20). 그는 우상 숭배와 참 하나님을 경멸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대언의 말씀을 주셨지만(사7:1-25) 그는 자기 자녀들이 불 속을 지나 우상들에게 이르게 했고 예루살렘에 시리아의 신들을 가져왔으며 시리아식으로 성전을 바꾸고 그것을 폐쇄하기도 했다. 주님의 도움을 버린 그는 결국 베가와 르신과의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였으며 예돬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반역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경계를 위협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했으며 아시리아의 불 왕에게 원조를 구했고 이 일로 인하여 불에게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디그랏벨레셀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점점 더 우상 숭배를 강화하였고 36세에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한 채 죽어서 자기 조상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절당하는 수치를 겪었다(대하28:1-27).

● 아하시야(Ahaziah, 에이허자이아,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I.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왕상22:51; 왕하1:1-18).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고 또 홀로 2년 동안 통치했으며 자기 아버지의 불신앙을 따라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경배했는데 이런 것은 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여온 것이다. 그의 통치 때에 모압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는 여호사밧과 함께 홍해에서 사업을 하려 했으나 그의 경건치 못한 행위로 인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자기 집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진 뒤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신에게 자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물었으며 이때에 엘리야는 그의 사자들에게 그가 속히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뒤 그가 보낸 50명의 부대가 두 번이나 죽은 뒤에 아하시야에게 직접 그 사실을 통고하였다.

II. 여호람과 아달라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아사스 혹은 아사랴. 그는 주전 881년경에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왕하8:25; 대하21:17; 22:6). 왕위에 오를 때에 그는 22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로 인해 아합의 집을 따라서 악하게 행하였으며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있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 아합(Ahab, 에이햅, 아버지의 형제) I. 주전 918년경에 자기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 그는 2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아내는 두로의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었는데 그녀는 야망이 크고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으며 이로 인해 바알과 작은 숲 숭배가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집을 세우고 바알의 형상들과 작은 숲을 세웠으며 그 결과 우상 숭배와 사악함이 두려울 정도로 만연하게 되었다. 사실 아합은 그 전의 모든 왕보다 주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다. 이러한 배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기근과 가뭄으로 그 땅에 저주를 내리셨고 갈멜 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보냄으로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죽이셨다. 그 뒤 6년이 지나서 시리아의 벤하닷 왕이 큰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나 크게 참패를 당하였고 1년 뒤에 아합에게 포로가 되었으나 아합이 그를 살려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만들었다. 경고와 섭리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으며 무죄한 나뭇을 살해한 뒤에도 죄악을 저지르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계속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 그와 그의 씨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낮추자 이러한 심판은 잠시 연기되었다. 그 뒤 그는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라못길랴오로 가서 시리아 사람들로부터 그 도시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싸움에서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사마리아의 못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핏었다(왕상16-22).

II.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한 거짓 대언자. 그는 이 일로 인해 예레미야의 책망을 받았다(렘29:21-22).

● 아홀라(Aholah, 어홀라) 에스겔 대언자가 선택한 두개의 상징적인 이름(겔23:4). 이것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왕국을 나타냈으며 이집트에서 나온 두 자매를 뜻했고 아홀라는 사마리아를, 아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여 주었다.

● 아홀리바(Aholibah, 어홀리바) 배신한 예루살렘(유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겔23:4, 11). 배신한 사마리아(이스라엘)는 아홀라로 표현되었으며 이 둘은 행음으로 인해 심판받았다(겔23:36-49).

● 아히감(Ahikam, 어하이킴, 내 형제가 일어났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요시아 왕이 여대언자 홀다에게 보내어 율법책의 말씀들에 대하여 여쭙어 보게 한 사람(왕하22:12). 후에 그는 예레미야 대언자의 친구가 되었다(렘26:24; 39:14).

● 아히노암(Ahinoam, 어히노앰, 내 형제는 은혜롭다) I. 아히마아스의 딸로서 사울의 아내(삼상14:50).

II. 이스라엘 출신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 그녀는 압논의 어머니였고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후에 다윗에 의해 구출되어 그와 함께 헤브론에 들어갔다(삼상30:5; 삼하2:2; 3:2).

● 아히도벨(Ahithophel, 어히토펠, 어리석은 형제) 길로의 원주민. 그는 원래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으나 압살롬의 반역 때에 그에게 동조하여 다윗을 괴롭게 만든 원수가 되었다. 그는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듣자 반역의 끝이 어떨지 미리 내다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매어 죽었다(삼하15:12; 17:1-29; 시55:12-14). 그는 또한 밧새바의 조부인 것으로 보인다(삼하23:34; 비교 삼하11:3).

● 아히둠(Ahitub, 어하이툼, 내 형제는 선하다) I. 엘리의 손자. 그는 비느하스의 아들이었으며 엘리가 죽자 전쟁에서 죽은 자기 아버지 비느하스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삼상4:11).

II. 아마라의 아들, 사독의 아버지(삼하8:17; 대상6:8).

● 아히마아스(Ahimaaz, 어히메이아즈, 진노의 형제 혹은 내 형제는 조언자이다) 사독의 아들. 그는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 되었고 다윗의 통치 때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의 조언자들의 계략들을 드러내었으며(삼하17:15-21) 압살롬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했다(삼하18:1-33).

● 아히멜렉(Ahimelech, 어히멜렉, 내 형제는 왕이다) I. 아히둠의 아들이며 아히야의 형제. 그는 아히야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들이 동일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성막은 아히멜렉이 거하던 뜰에 있었으며 거기서 여러 제사장이 섬기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사울로부터 피신한 다윗에게 보여 주는 빵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는데 에돔 사람 도엑이 이 사실을 알리자 사울은 그것이 반역 행위라고 단정 짓고 도엑을 시켜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85명을 살해하게 하였다(삼상22:1-23). 이 범죄는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왕좌와 호의를 빼앗아 가기에 충분한 정도로 사악한 것이었다.

II. 아비멜렉이라고도 불린 인물(대상18:16). 아마도 그는 아비아달이었을 것이다(대상24:3, 6, 31). 아비아달 참조.

● 아히야(Ahiah, 어하이야, 여호와와는 나의 형제

이다) 아히둠의 아들. 그는 사울의 통치 때 대제사장이었으며(삼상14:3) 사울이 죽인 아히멜렉, 즉 그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의 형제였을 것이다(삼상22:9).

● 아히야(Ahijah, 어하이저) 솔로몬과 여로보암 시대의 대언자, 역사 기록자(왕상11:29; 대하9:29). 그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에게 말을 전하고(왕상6:11) 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말을 전한 것으로 생각된다(왕상11:11). 그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이 유다에서 떨어져나갈 것과 그의 집이 세워질 것 그리고 그가 몰락할 것에 대해 예언을 했다(왕상14:1-14).

● 아히오(Ahio, 어하이오, 내 형제는 여호와다) 아비나답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궤보다 앞에 감으로써 자기 형제 옷사가 당한 화를 면하였다(삼하6:3-7).

● 악갓(Accad, 애갓) 아시리아 왕국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니므롯이 시날 평야에 세운 네 개의 도시 중 하나(창10:10). 이곳의 유적들은 바그다드 서쪽 9-15킬로미터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니므롯의 언덕이라는 유적이 있는데 그 둘레는 120미터, 높이는 40미터 정도 된다.

● 악고(Accho, 아코) 아셀 지파에 속한 도시(삿1:31). 신약 성경에서 악고는 툴레마이(행21:7)라 불리는데 이 이름은 툴레마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확장한 데서 유래하였다. 이곳은 두로에서 50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이다. 악고와 그곳 북쪽의 해안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교도들의 땅으로 여긴 곳이다.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 악기(Musical instruments) 음악 참조.

● 악메다(Achmetha, 액미터) 기록 보관소 혹은 메대의 도시 액바타나일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스6:2). 액바타나는 동방에서 바빌론과 니느웨를 빼고는 가장 큰 도시였다. 일곱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고래 왕 이후의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거주지였다.

● 악사(Achsah, 액서) 갈렙의 딸. 그녀는 갈렙의 조카 웃니엘에게 시집가면서 많은 지참금을 받았는데 이는 웃니엘이 갈렙이 원했던 대로 드빌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다(수15:15-17; 삿1:12-13).

● 악삽(Achshaph, 액셔프, 마술하는 곳) 가나안 족속들의 주요 도시(수11:1). 여호수아는 이곳을 정복하고 아셀 지파에게 주었다(수12:20; 19:25).

● 악십(Achzib, 액십, 속이는) 아셀의 도시.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삿1:31).

● 악투르스(Arcurus, 악투르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다섯 개의 별 가운데 하나. 이것은 북반구의 별자리인 목자자리에서 가장 밝은 오렌지색 거성으로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다. 이것은 큰곰자리의 꼬리 부분을 연장한 선에 놓여 있어서 그리스

어 역시 '꿈을 지키는 자'를 뜻한다. 한편 악투르스의 아들들은 이 별 근처의 작은 별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욥9:9; 38:32).

● 안나(Anna, 애나, 은혜) 아셀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 그녀는 일찍 시집갔다가 7년 뒤에 과부가 되었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아침과 저녁에 희생물을 드리는 일에 참석했으며 아주 연로한 가운데 어린 모습의 구원자를 보는 복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했다(눅2:36-38).

● 안나스(Annas, 애너스, 자비로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눅3:2; 요18:13, 24; 행4:6). 그는 누가복음에서 그의 사위 가야바와 함께 대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는 주후 7-8년경에 시리아의 구레노 총독에 의해 처음으로 그 직책에 임명되었으나 나중에 그것을 빼앗겼다. 그 뒤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주후 25년경에 그 직책은 가야바 혹은 요셉이라 불리는 사람, 즉 안나스의 사위에게 넘어갔으며 그는 주후 35-36년까지 그 직책을 맡았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기사에서는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이었지만 안나스가 그의 장인이며 전에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고 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제사장이라고 언급된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붙잡혀서 먼저 그에게로 갔다. 그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한 산헤드린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행4:6).

● 안드레(Andrew, 앤드류) 열두 사도 중 하나. 그는 벳새다 출신으로 베드로의 형제였다(요1:40, 44). 처음에 그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며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고는 그분을 따른 첫째 제자가 되어 메시아를 알게 되었다(요1:35-40). 후에 그는 갈릴리 해변에서 사도라 불리게 되었고(마4:18)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랐다(막13:3; 요6:8; 12:22).

● 안드로니코(Andronicus, 앤드라니쿠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롬16:7).

● 안디바(Antipas, 앤티퍼스) I. 헤롯 항목의 헤롯 안디바 참조.

II. 버가모에 있던 신실한 순교자(계2:13).

● 안디바드리(Antipatris, 앤티파트리스, 아버지를 대신하여) 팔레스타인의 도시. 이곳은 해안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평야, 즉 가이사라와 예루살렘 사이의 비옥하고 관계가 잘된 평야에 위치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트리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곳이며 사도 바울은 이곳을 방문했다(행23:11).

● 안디옥(Antioch, 앤티옥)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도시의 이름. 하나는 시리아의 오펀데스 강 근처에 위치한 대도시를 가리킨다.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이곳은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로서 명성과 영화가 대단했으므로 한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은 위치적으로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 중간에 있었고 수목이 많아 아름다웠으며 그래서 동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니카토르는 그들이 오는 것을 환영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다(행11:19, 26; 13:1; 갈2:11). 이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바르게 필사하여 후대에 남겨주었고 그들의 사본은 안디옥 계열의 사본으로 불린다. 이곳은 그 어느 도시보다 지진의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특히 1822년도의 지진으로 인구의 사분의 일 이상이 죽기도 했다. 또 다른 안디옥 역시 니카토르가 세운 도시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이곳이 브루기아에 있었지만 비시디아 지방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행13:14; 14:19, 21; 딤후3:11).

● 안목(Sight) 보는 눈. 사물을 보아서 알고 분별하는 견식.

● 안수(Laying on of hands) 안수는 구약에서 희생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통해 많이 나온다(레16:21). 이런 예식은 안수를 통해 사람의 죄를 무죄한 짐승에게 옮기는 것을 상징했다. 안수는 또 축복하는 것(창48:18), 임직식(신34:9) 등과 관련해서도 사용되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이들과(마19:13, 15) 병자들(마9:18)에게 안수하셨다. 초대 교회에는 안수가 병 고치는 것, 성령님을 받는 것(행9:17), 교회에서의 특별한 일을 위해 사람을 구분하는 것(행6:6), 선교사 파송(행13:3) 등과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안수는 무슨 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안수했을 뿐이다. 안수는 보통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다. 현대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직무에 임명하다'를 뜻하는 Ordination을 말하며 사실 이때에 손을 얹느냐, 얹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확실한 부르심(소명)을 가지고 지역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임명받는 것이 핵심이다.

● 안식(Sabbath, 썬바쓰)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레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창2:2-3). 그분께서는 이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을 쉬시고 안식하셨으므로 이날에 복을 주고 그것을 거룩히 구분하며 자신을 경배하는 날로 삼으셨다. 창세기에는 안식하는 날을 제정하신 기록이 들어 있다.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보이며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러한 흔적이 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다. 노아는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내보내었다(창8:1-22). 광야에서 만사를 주신 기록은 이미 그 당시

에 안식일이 알려져서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출16:22-30).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에서는 이레(주)가 시간 구분의 단위였으며(창29:27) 계속 역사 기록 역시 이러한 관습이 시내 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 규정을 받기 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히브리서에는 몇 종류의 안식이 나온다. 히브리서는 수신 대상이 유대인 크리스천이므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입성에 관한 안식을 다루고 있다. 히3:18, 4:1, 4:10의 '하나님 자신의 안식'은 구원을 상징하는 이집트 탈출(출애굽) 이후의 가나안 입성과 관련된 안식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누릴 천년 왕국의 안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안식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안식으로 특별히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 크리스천의 경우 힘써서 들어가야 하는 안식이고(마24:13; 히4:11) 성도들의 경우 선한 행위와 수고를 통해 얻는 안식이다. 반면에 히4:2-6의 안식은 창조의 안식이며 동시에 구원받아 영혼의 자유를 얻는 안식이고 이것은 복음이 믿음과 결합될 때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얻는 안식이다(히4:2).

한편 행9:31의 안식은 사울의 회심 이후에 팔레스타인 교회들이 박해를 벗어나 잠시 누린 화평의 기간을 뜻한다. 그 전에 약 2년 동안 로마의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심하게 핍박하였다. 주일 참조.

● 안식년(Sabbatical year)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며 이때에 온 땅은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였다(출23:10-11; 레25:1-7).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또 자신이 모든 것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안식년을 제정하셨다. 또 그분께서는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자란 과일이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종들에게 그냥 주라고 명령하셨으로써 그들이 인정을 베풀게 하셨다. 히년 참조.

● 안식일(Sabbath day)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1차적으로 모세 율법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키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라"(출31:13; 겔20:12, 19-21 참조).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세상)과 교회(그리스도인)와는 상관이 없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꾸짖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규례인 안식일은 결코 일주일 중의 다른 날로 바뀐 적이 없으며 다른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날이 된 적도 없다. 안식일은 호2:11에서 예언된 것처럼 유대인들

이 민족적으로 그들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 갈 때 다시 회복될 것이다(사66:23; 겔44:24; 46:1-3).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전 주에 일하던 사람들은 나왔다. 그들은 새로 만든 빵을 진열하고 묵은 빵을 치웠으며(레24:8) 또 두 마리 어린양을 포도즙과 음식과 함께 번제 헌물로 드렸다. 다른 명절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저녁부터 지켰다(민28:9-10).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라고 명령하며(출20:8; 신5:12) 유대인들은 사랑의 행위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 등으로 그것을 거룩히 구분하고 사적/공적 예배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그날을 다른 날과 구분하였다. 또한 율법은 그날 일을 하지 말고 쉴 것을 명령하였으며 그래서 그날에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다른 날 하던 모든 것을 옆으로 치우고 오직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 그날은 다른 날과 구분된 날이므로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세상의 오락을 위해 그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비록 교리적으로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레에 하루를 쉴 것을 명령하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십계명의 정신이 영원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말했다. 물론 안식일 법규에 부가적으로 추가된 규정들은 모세의 사회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것들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다(출31:14; 민15:32-36).

● 안약(Salve)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투기아의 가루'라는 안약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계3:18) 이곳의 의로 학교는 이 안약의 제조로 유명했다.

● 안위(Consolation)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함.

● 안토니아(Antonia) 예루살렘 동쪽, 성전 북쪽에 위치한 정방형의 요새. 여기에는 구석마다 높은 탑이 있었고 높은 성벽과 도랑으로 외부와 격리되어 있었다. 이곳 역시 헤롯 대왕이 재건했으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라 안토니아라 불렀다. 바로 이 성채에서 군인들이 나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봉편을 당하고 있던 바울을 구출했으며 이곳의 계단에서 그는 무리들에게 연설을 했다(행21:31-40). 그리스도 당시의 예루살렘 선도 참조(47).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 주전 175-164년에 헬레니즘 시리아 왕국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끈 왕. 그리스 제국 지도 참조(37). 그는 그리스 문화와 제도를 장려한 군주로 매우 유명하며 유대교를 억압한 결과 마카비 전쟁을 야기했다. 그는 주전 169년에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

드리아를 제외한 이집트 전역을 점령했으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소요 때문에 시리아로 되돌아갔다. 그 뒤 주전 168년에 그는 이집트를 다시 침략하여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 외곽에 진을 쳤으며 주전 168-167년경에 유대인들에 대한 헬레니즘 정책을 강화하여 예루살렘 신전에 주피터(제우스) 형상을 모셔 놓고 우상예배를 강요했다. 그러나 마카비가(家)의 시조인 모던의 제사장 마타티아스는 백성을 규합하여 시리아군에 대한 유격전을 벌였고 이 같은 항전은 그의 아들 유다, 요나단, 시몬에게 계승되어 주전 142년 마침내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독립이 성취되었다. 마카비, 가증한 것 참조. 그는 단11:31에 언급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 인물로서 세상 끝의 7년 환난기에 유대인들의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울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다(마24:15; 살후2:4).

● 알가 족속(Arkites, 아르카이츠) 가나안의 후손. 그들은 시돈의 계열에 속하며 레바논 산의 서북부 기슭에 위치한 아르카라는 지역에 정착했다(창10:17; 대상1:15).

● 알라못(Alamoth, 알라머쓰) 음악 용어. 이것은 여자의 음성과 관련이 있는 음악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시46:1; 대상15:20).

● 알렉산더(Alexander, 알렉샌더) I.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의 아들. 그는 주전 336년에 자기 아버지 필립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12년 동안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으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32세에 죽었으며 그의 장군 4명이 그의 제국을 나누어 다스렸다. 그리스 제국 지도 참조(37). 그는 큰 힘을 가지고 빠르게 정복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다니엘에서 네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뿔이 하나 달린 숫염소로 묘사되었다(단7:6; 8:4-7). 그는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 페르시아 왕국을 멸하고 그리스 제국을 건설했으며 그의 왕국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형상에서 넷으로 된 배 부분으로 표현되었다(단2:39). 알렉산드리아 참조. 다섯 가지 세상 왕국 선도 참조(76).



II.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막15:21). 그는 초대 교회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을 가운데 하나였다.

III.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한 공회 회원 중 한 사람(행4:6).

IV. 에베소의 유대인. 그는 바울에 관하여 일어난

소동을 잠잠하게 하려 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행19:33).

V. 배도한 구리 세공업자(딤후1:20; 딤후4:14).

●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알렉샌드리아) 지중해와 마레오티스 호수 사이에 위치한 이집트의 유명한 도시. 이곳은 나일 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도시로서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그리스 제국 지도 참조(37). 이곳은 번영의 장소로 부각되었고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다.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뒤에 그의 몸은 이곳에 묻혔고 이곳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가 되어 영화를 누렸다. 그 결과 그 당시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이 여기서도 모여들었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주전 26년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뒤에 이곳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고 주후 646년에 이슬람 세력에 넘어갔다. 현재 이곳은 스칸데리아라 불리며 크기는 과거의 팔분의 일 수준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된 세속적인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해서 유대교와 헬레니즘 문화를 접목하려 했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친히 그들을 위해 특별 구획을 마련해 주고 그리스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주었다고 한다.

한편 성경과 관련해 소위 칠십인역이라 불리는 그리스어 히브리 구약 성경이 이곳에서 번역되었다는 전설(혹은 신화)이 있으나 과연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경전을 이방인들을 위해 번역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여러 학자들은 주후 3세기에 살았던 오리겐의 부패된 그리스어 성경이 칠십인역이라 믿고 있다. 칠십인역 참조.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비유 해석 혹은 영적 해석을 중시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태동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실체적인 사건을 다 영적인 것으로 보려고 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필로와 그 이후에 실제로 알렉산드리아 학교를 세운 판테누스, 오리겐, 유세비우스 등이 있으며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과 해석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패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 사본을 만들어 내었고 이것들이 오늘날의 NIV, NASB 등과 같은 현대 역본들의 번역 대본이 되었다.

● 알로에(Aloes) 동방 인디언 나무. 이것은 2.4-3.0미터 높기로 자라나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냈다(시45:8; 잠7:17; 아4:14).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에 알로에 나무를 사용했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알로에를 가져온 것을 잘 설명해 준다(요19:39).

● 알론바곳(Allon-bachuth, 엘런배커쓰, 애곡의

참나무) 리브가의 유모가 매장된 곳(창35:8).

● 알몬디블라다임(Almon-diblathaim, 엘먼디블러케이임, 두 무화과로 된 길 표시) 호르 산에서 모압 평야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 중 한 군데(민33:46).

● 알지 못하는 신(Unknown God) 아테네 사람들의 경배 대상 중 하나. 바울은 이 도시를 방문해서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매우 미신적이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신이 바로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다(행17:23).

● 알파(Alpha, 알파)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레프'이다. 히브리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알파벳을 숫자로도 사용하였으므로 따라서 알파와 알레프는 1 혹은 첫째를 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영원한 분이며 만물의 기원이요 끝이 되시는 분임을 보여 준다(계1:8; 11; 21:6; 22:13; 비교 사 44:6; 48:12; 골1:15-18). 그리스어, 히브리어 참조.

● 알페오(Alphaeus, 알피우스) I.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마10:3; 눅6:15).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자매인 다른 마리아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다(요19:25). 마리아 참조. 요19:25, 눅24:18, 마10:3을 비교하면 알페오가 클로바임을 알 수 있다. 즉 알페오는 그리스 이름이고 클로바는 히브리 혹은 시리아 이름이다.

II. 성도 마태(혹은 레위)의 아버지(막2:14).

● 암논(Amnon, 앰넨, 신실하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다윗에게 낳은 그의 맏아들. 그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일로만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일로 인해 2년 뒤에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삼하13:1-39).

● 암몬(Ammon, ऐمن)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롯의 둘째 아들(창19:38).

● 암몬 족속(Ammonites, ऐ머니즈) 롯의 아들 벤암미, 즉 암몬의 후손. 그들은 유다의 동부 지역에 거주하던 거인들인 삼삼 족속을 멸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신2:19-21).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 또 요르단에서부터 아라비아까지 이어졌으며 그들의 수도는 압복에 위치한 랍바 혹은 랍바스 암몬이었다. 암몬 지도 참조(27). 모세 시대에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 의해 동쪽으로 밀려났으며(민 21:21-35; 32:33) 가나안으로 가면서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신 2:19).

그들은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며 특히 몰렉 신을 섬겼는데 이것은 농경 신 세턴이다(왕상11:5-7; 왕하23:13). 재판관들의 시대에 암몬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도왔고(삿 3:13) 그 뒤에 길르앗을 정복하려 하였으나 길르앗

사람 재판관 입다가 이들을 크게 살육하여 격퇴하였다(삿11:4-36; 12:1-3). 그 이후에도 암몬 족속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대언자들은 그들에게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했다(렐49:1-6; 겔25:2-10).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은 암몬 여인 나아바를 첩으로 삼고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신 밀곰을 섬겼으며 그녀로 말미암아 후계자 르호보암을 얻었다(왕상11:1, 5; 14:21, 31).

● 암미(Ammi, 애마이,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을 상징하는 이름(호2:1). 로암미, 로루하미, 루하마 참조.

● 암미나답(Amminadab, 어머니답, 내 백성은 거저 준다) I. 유다 지파에 속한 아람의 아들. 그는 나손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었으며 그의 딸 엘리세바는 아론의 아내였다(출6:23; 룻 4:20). 신약 성경에서 이 이름은 아미나답으로 쓰였다(마1:4). 암미나답(마6:12)은 암미나답의 다른 형태이며 '암미나답의 수레(마6:12)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수레를 잘 몰던 사람을 연상시키면서 빠르게 경쾌하게 움직이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II. 고향의 아들(대상6:22).

● 암사슴(Hind) 암사슴은 뿔이 없으며 경쾌함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쓰였다. 창49:21에서 답달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암사슴에 비교되었으며 잠5:19는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암사슴에 비교하고 삼하 22:34; 합3:19는 날쌔게 움직이는 암사슴으로 비유한다.

● 암초(暗礁)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 어떤 일을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물.

● 암탉(Hen) 암탉이 매 같은 새들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독재와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유대인들을 보호 하시려는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마23:37).

● 암피폴리스(Amphipolis, ऐ피폴리스) 바울과 실라가 지나간 마케도니아의 도시(행17:1). 기존 성경의 암비블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 앱비아(Apphia, ऐ피아)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빌레몬의 아내라고 생각한다(몬2).

● 압살롬(Absalom, ऐ설렘, 화평의 아버지) 마아가 다윗에게 낳은 유일한 아들(삼하3:3). 그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머리털을 지닌 것으로 유명했다(삼하14:25). 그는 필요할 때에 머리털을 잘랐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약 5.5킬로그램)이었다고 하니 가히 놀랄 만하다. 그는 자기의 이복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하자 그를 죽인 뒤에 자기의 할아버지 다윗에 왕으로 있던 그슬로 도망했다. 3년 뒤에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 오게 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삼하14:1-33).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친절을 남용하고 왕을 대적할 계락을 세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고 아살롬은 그를 추격하였으나 전쟁에서 그의 군대는 참패를 당하고 그는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로 인해 크게 애곡하였다(삼하18:33). 이 사건은 허영심, 야망, 비열한 열정, 불순종 등의 죄를 짓기 쉬운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준다.

● 앓달리아(Attalia, 에털라이아) 밤빌리아의 항구.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곳을 방문했다(행14:25).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도 참조(42).

● 앓사리온(Penny) 로마 화폐의 일종. 이것은 참새의 가치로만 나온다(마10:29; 눅12:6).

● 앓소(Assos, 애썬스) 무시아의 항구. 여기서 바울은 미들레네로 가는 배를 탔다(행20:13).

● 양금(Lees) 포도주 찌꺼기. 보통 포도즙을 찌꺼기 위에 오랫동안 있게 하면 색과 냄새가 좋아지며 그래서 이런 포도즙은 복된 소식의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사25:6) 또한 변영과 사치 속에 살면서 결국 육적인 안전에 안주한 민족이나 사회를 나타내기도 한다(렘48:11; 습1:12).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찌꺼기를 마시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마시는 것을 뜻한다(사75:8; 사51:17).

● 양장(Curtain) 이것은 옆으로 둘러치는 휘장이 아니고 언약궤를 가리기 위해 그 위에 덮는 휘장이 다(출26:1-5).

● 앞치마(Apron)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뒤 무화과 잎으로 '앞만 가리는 치마'를 입었다(창3:7). 바로 이것은 자기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의 특징이다.

● 애가(Lamentations)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 특별히 예레미야의 애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절망적인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곳을 과부가 되어 불명예스럽게 된 공주로 묘사하고 있다.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로마 장군 디도의 정복을 기념하여 세워진 개선문에는 유다가 슬픔에 잠긴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부짖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애가에 나오는 예루살렘, 즉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예루살렘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죽음에 이른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애가를 부르려 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눅23:27-31).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일부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꼭 들어맞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민족적 시가의 사용은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성읍이 멸망한 것에 대한 종교적 해석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유대인들은 본서를 주요 기념일에 낭독되는 다섯 두루마리, 즉 '메길로스'에 포함하고 애가는 도시가 불타버린 것을 기념하는 날에 낭독되었다.

● 애걸(哀乞) 소원을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빌.

● 애곡(Mourning) 소리 내어 슬프게 읊. 히브리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행하였다. 그들은 울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자기 머리에 먼지를 뿌렸으며(수7:6) 땅바닥에 주저앉고 맨발로 걸으며 머리와 수염을 뜯고 몸을 베기도 하였고(스9:3; 사15:2) 또 가슴을 베거나 손톱으로 찢었다(레19:28; 21:5; 렘16:6; 48:37).



보통 애곡하는 일은 이레 동안 진행되었으며(삼상31:11-13) 사정에 따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였다(슌12:10).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위해 30일 동안 애곡하였고(민20:29; 신34:8) 아굽을 위해서는 70일을 애곡하였다(창50:3).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때에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들은 그의 집에 앉아서 금식을 하거나(삼하12:16) 땅에 앉아서 먹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애곡하는 사람들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호9:4).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으며 울법책을 읽거나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애곡하는 옷으로 갈아입거나 침상을 정리하거나 털을 깎거나 손톱과 발톱을 깎거나 목욕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 문안하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먼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욥2:11-13). 그들의 친구들은 보통 그들을 방문해서 위로하였으며(요11:19, 39)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삼하3:35; 렘16:7). 애곡하는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자기들의 사정을 하소연하기도 하였다(사15:3; 렘48:38). 히브리 사람들이 애곡할 때 입는 옷은 법이나 관습에 의해 고정되지 않았으며 성경은 그들이 애곡할 때에 옷을 찢었다고만 말한다(삼하13:19; 대하34:27; 스9:3; 욥2:12; 욥2:13). 한편 고대 사람들은 애곡할 때에 재를 뿌리고 굵은 배를 입었다(왕상21:27; 예4:1; 시35:13; 69:11). 상복 참조.

유대인들은 고위층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여인들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고용하였다(렘9:17). 마9:23은 열두 살 난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노래하는 자들이 고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장례

식 행렬을 만난 사람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을 따라가면서 관을 나르는 자들을 돕거나 애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애곡하였다(롬12:15).



유대인들의 애곡 형식 중 몇 가지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것들이며 어떤 것들은 사치스럽거나 비합리적이다. 유대교는 결코 후자의 것들을 권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규제한다(레10:6; 19:27; 21:1-11; 민6:7; 신14:1). 이러한 애곡 방식은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 어느 면에서 슬픔을 당할 때에는 평상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오히려 반대로 해야 안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슬픔을 적당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슬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보면서 하늘의 빛으로 슬픔의 어둠의 계곡에 빛을 비추는 것이 신자들에게 합당하다(고전 15:53-55; 살전4:14-18; 계7:13-17; 14:13).

● 애곡하는 집(House of mourning) 기존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이 초상집으로 되어 있으나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슬퍼하는 모든 집을 가리킨다(전7:2, 4).

● 애굽(Egypt) 이집트의 중국어 표현. 이집트 참조.

● 애논(Aenon, 이년)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 이곳은 요르단의 서쪽 살림 근처에 있었다(요 1:28; 3:22-26).

● 애니아(Aeneas, 이니아스) 마비 병에 걸려 8년이나 누워 있던 루타의 병자(행9:32-35).

● 애착(Affection) 어떤 사물과 떨어질 수 없게 그것을 사랑하고 가짐(골3:2).

● 애찬(Feasts of charity) 초대 교회 성도들이 교제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나누던 식사(유12). 애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는 사랑의 잔치였다. 특별히 초대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매일 모여 빵을 뺏는데 이것 역시 애찬으로 볼 수 있다(행2:42, 46).

- 애통(Lamentation) 슬프고 가슴 아파함.
- 야(Jah, 자) 히브리어 여호와를 축약한 것(시 68:4). 이 말은 아도니아, 할렐루야 등의 어미에도 들어 있다.

● 야고보(James, 제임스) I. 큰 야고보. 그는 다른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큰 야고보라 불렸으며 열두 제자 중 하나였다. 그는 요한과 형제였으며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다(마4:21; 27:56; 막15:40 비교). 그는 갈릴리 벧새다 출신이었으며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막1:20, 29).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여행하실 때 종종 그분께 시중을 들던 여인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두 아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각각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마20:20-23).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어부였다(막1:19). 그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으며(마17:1-2)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죽일 것을 바라기도 했다(눅9:54). 아마도 이런 급한 성격 때문에 그들은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막3:17).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영예를 누렸다(막1:29; 5:37; 9:2; 13:3; 14:33; 눅8:51). 주님의 승천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주후 44년에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다(행12:1-2).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라고 생각한다.

II. 작은 야고보. 그는 알패오의 아들로 또 다른 사도였다(마10:3; 막3:18; 눅6:15). 그의 어머니는 다른 마리아였으며 그의 형제는 요세였다(마27:56; 막15:40).

III. 주님의 형제 야고보(갈1:19).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으며(행15:13)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복음서는 분명하게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며 그들의 어머니와 누이들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그들의 이름을 밝힌다(마12:46; 13:56; 막3:31; 6:3; 눅8:19). 또한 성경의 기록자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사도 야고보와 유다를 구분하고 있다(요2:12; 7:3-10; 행1:13-14). 그러므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실제로 주님의 형제였음이 확실하다.

● 야곱(Jacob, 제이컵, 그가 발꿈치를 잡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그는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으며 태어날 때에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창25:26) 이것은 그의 삶에서 미래에 그가 할 일을 예표로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야곱은 온유하고 평화롭게 짐승 목자의 삶을 살았으나 에서는 거칠고 사나웠으며 사냥을 좋아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으며 야곱은 형이 없는 사이에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메소포

타미아로 도망하였다(창27:1-46; 28:1-22), 그의 여정에서 주님께서는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보호하실 것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 그리고 그의 땃줄을 타고 메시아가 올 것을 보여 주셨다(창28:10 등). 후에 그는 파라오 앞에서 자기의 날수가 얼마 안 되고 악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의 삶에 역경이 많았음을 뜻한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입었다. 사다리 참조.

그는 약 1,000킬로미터를 홀로 여행하여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렀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 20년 동안 수고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행동하게 해 주셨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라반과 에서의 악한 영을 돌이켜 그가 평안한 여정을 갖게 해 주셨다. 가나안의 경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와 씨름하여 이겼으며 그로부터 복을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역경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죽었고 그의 아내 들은 시기와 질투로 그의 삶을 힘들게 하였으며 디나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등 그의 자식들도 그를 슬픔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는 동안 사랑하는 라헬과 아버지가 죽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들집승에게 잡혀 죽었으며 베냐민을 잃는다는 생각에 그는 무덤에까지 슬픔을 지고 갈 형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황혼기는 조용하고 밝았다. 그는 17년 동안 이집트의 고센에서 평온한 삶을 누렸고 자기 아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었다. 그는 그들의 미래를 미리 보았고 특별히 유다를 통해 실로, 즉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자기 조상들에게로 합쳐졌으며 그의 몸은 향료로 채워진 뒤 헤브론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에 묻혔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여러 차례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쓴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또한 그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며 점차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본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의 권능을 보여 주기 위한 예로 신약 성경에도 등장한다(롬9:13; 히11:9, 21).

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대하면 이것이 곧 야곱의 자손 혹은 그의 후손을 가리킴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이스라엘 땅은 야곱의 땅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 야곱의 우물(Jacob's well)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녀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우물(요4:5-12). 이곳은 수가(세겔)에 있었다.

● 야진(Jachin, 제이킨, 하나님께서 확증하신다) 솔로몬 성전 입구의 오른쪽에 있던 놋 기둥(왕상7:21). 보아스 참조.

● 야발(Jabal, 제이벨, 시내) 라벨과 아다의 아들. 그는 가인의 후손이었으며 처음으로 광야에서 유랑

하는 목자가 되어 이동식 장막 등을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창4:20).

● 아베스(Jabesh, 제이베쉬, 마른) 요르단 동쪽 르낫세 반 지파의 도시(여러 지도에서는 갓 지파의 땅에 속한 것으로 표기됨). 이곳은 보통 아베스길르앗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보통 길르앗이라 불리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추격하는 일을 돕지 않았으므로 이 도시를 약탈했다(삿21:8-10). 후에 이곳은 암몬 사람들에 의해 포위를 당했으나 사울이 그들을 구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곳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여 그 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치욕을 면치 않게 하였다(삼상11:1-15; 31:11-13; 삼하2:5).

● 아베스(Jabez, 제이베즈) 유다의 후손. 그는 기도를 통해 복을 받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뛰어난 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대상4:9-10).

● 야벳(Japheth, 제이페스, 확장) 노아의 세 아들 중 장남(창10:21). 그는 홍수가 생기기 100년 전에 태어났다. 그의 일곱 아들(창10:2-5; 대상1:5)은 후손들과 더불어 유럽의 대부분과 아시아 북쪽에 거주하였다. 후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노아의 예언에 따라 남부와 서부 아시아의 큰 지역을 정복하였고(창9:27) 야벳의 영토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확장되었다.

● 야브네(Jabneh, 켈메)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이곳은 읍바에서 20킬로미터 남쪽에 있었으며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 정복되었다(대하26:6).

● 야빈(Jabin, 제이빈, 그가 이해한다) I.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북쪽에 있던 하솔의 강력한 왕. 그는 여호수아를 물리치려고 여러 왕과 동맹을 맺었으나 오히려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수11:1-23).

II. 위의 왕 이후 150년이 지났을 때에 일어난 하솔의 왕.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꾀박하였으며 마침내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일어나 그를 멸하였다(삿4:1-24; 시83:9).

● 야셀(Jasher, 제이셔) 야셀의 책은 곧바른 것 혹은 고상한 것에 대한 책이다. 이것은 수10:13과 삼하1:18 등에 나오며 다윗의 시대까지 존재하던 책으로 민족과 역사적 노래들을 모은 책인 것 같다.

● 야손(Jason, 제이선, 고치다) 바울의 친척이며 데살로니가에서 그를 접대한 사람. 그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던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피신시켜 주었다가 그 일로 유대인들에 의해 도시의 치리자에게 끌려갔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행17:5-10). 그 뒤 5년쯤 지나서 그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것 같다(롬16:21).

● 야엘(Jael, 제이얼, 산양) 겐 족속 헤벨의 아내. 그녀는 자기 장막으로 피신한 가나안 족속의 군대 대장 시스라를 죽였다(삿4:17-23). 드보라의 노래는

그녀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다(삿5:1, 24-27, 31).

- 야완(Javan, 제이벤, 그리스) 아벳의 넷째 아들(창10:2, 4). 야완은 그리스어로 '이온'이며 여기에서 이오니아라는 말이 나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완이 그리스 사람들의 선조라고 생각한다. 그리스, 민족들 지도 참조(13).

- 야이로(Jairus, 자이러스, 여호와께서 보여 주실 것이다)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의 치리자. 그는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유명하였다. 그의 딸은 열두 살에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살려 그에게 돌려주셨다(막5:35-43; 눅8:41).

- 야일(Jair, 제이어, 여호와께서 빛나신다) I. 이스라엘이 바산을 정복할 때의 지도자. 아르곱 근처의 스물세 도시가 후에 그의 이름을 따라 하봇야일이라 불렸다(민32:41; 신3:14).

II.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재판관. 그는 므낫세에게 속한 길르앗에 있었으며 아마도 위에서 언급된 야일의 후손으로 추정된다(삿10:3-5).

- 야하스(Jahaz, 제이하즈) 모압의 북쪽에 있던 도시. 이곳 근처에서 모세는 시혼을 멸하였는데(민21:23) 이곳은 르우벤 지파의 경계에 있었으며 후에 레위 사람들의 도시가 되었다(수21:36). 사15:4와 렘48:21을 보면 이곳은 후에 다시 모압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 약(Medicine)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이다(잠17:22). 구약의 대언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의 병이 너무 심해서 그들을 고칠 약이 없다고 선포하였다(렘30:13). 에스겔의 천년 왕국 환상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약으로 쓰인다(겔47:12; 계22:2 비교). 길르앗의 유향은 좋은 약이다(렘8:22). 이외에도 합환채(창30:14), 몰약, 박하, 기름(눅10:34), 포도즙(딤펴5:23), 무화과(왕하20:7) 등이 약으로 쓰였다.

- 약속(Promise)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 선물과 메시아, 성령님, 복음의 충만한 복 등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후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복이다(롬4:13-14; 갈3:14-29). 약속의 자녀들은 원래 육신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구분되는 이삭의 후손, 즉 유대인을 뜻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한다. 한편 눅24:49; 행1:4; 히11:39 등의 promise는 '약속한 것'을 뜻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생과 내생의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며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확실히 보장된 것이다(고후1:20; 딤펴4:8; 벧후1:4).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무한하신 공로로 인하여 무한한 사랑과 한없는 지혜와 능하신 권능이 성도들에게 확고히 보장되었으며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롬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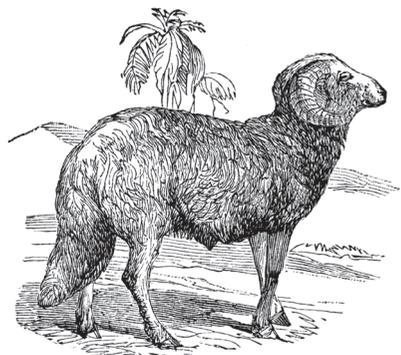
- 약탈(Spoil)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

- 안네(Jannes, 잔느) 안네와 얌브레는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행하자 그들을 대적하려고 마술로 기적을 행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다(딤펴후3:8; 참조 출7:11).

- 얌브레(Jambres, 쟈브리즈) 안네 참조.

- 압복(Jabbok, 자박, 흐른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중간에 위치한 강. 이 강은 고원 사막 지대를 가로질러 북쪽과 남쪽에서 나오는 지류와 만나는데 이 강의 남쪽 지류는 암논 족속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었다. 압복 강의 동부 지역은 여름에 메말랐으며 이 강은 서쪽으로 가면서 깊은 계곡 사이를 흘렀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브니엘은 압복 강의 나루였다(창32:22). 이 강은 옥과 시혼의 영토를 나누었으며(수12:2) 후에 갓 지파의 영토가 된 지역을 가로질렀다.

- 양(Sheep) 양 혹은 어린양은 모세의 율법에서 흔히 바쳐진 희생 제물이었다. 순진하고 온순하며 복종하고 인내하는 양은 희생 예물로 적합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요1:29; 비고 사53:7; 행8:32-35).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양의 꼬리는 굵고 커서 무게가 많이 나가며 기름과 골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대개 기름이 없는 고기와 함께 이 부분을 먹었다. 이렇게 꼬리 부분이 아주 맛있고 중요하므로 모세의 율법에서 양을 희생물로 드릴 때에는 반드시 꼬리나 엉덩이 부분을 불사르는 제단에 통째로 놓아야 했다(출29:22; 레3:9). 양은 길을 벗어나는 습성이 있고(시119:176; 사53:6) 무리를 지어 다니며 항상 주인의 보호와 인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양으로 불린다(시79:13; 80:1; 마25:32). 양과 염소는 지금도 함께 기르는 경우가 많다(창30:35; 마25:32-33). 양털을 깎는 계절은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었다(삼상25:5, 8, 36; 삼하13:23). 목자 참조.



- 양 시장(Sheep market) 요5:2에 나오는 이곳은 성전 근처에 양을 두던 장소로 생각되며 성전에서의 섬김을 위해 사람들이 많은 양을 이곳에 두고 팔았

으므로 이런 이름으로 불린 것 같다.

● 양각기(Compass) 컴퍼스 혹은 원을 그릴 때 쓰는 도구(사44:13).

● 양심(Conscience) 모든 자유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적 기능(롬2:13-15). 양심을 통해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옳은 것은 택하고 그른 것은 버린다. 양심은 자연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 자체와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규제한다. 양심이 있기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책임을 지니고 있고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양심이 순수하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의무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때에는 어떤 것도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다.

비록 양심이 바른 것을 해야 한다고 외치며 확신을 주지만 양심의 가치는 사람의 혼의 타락으로 인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혼은 모든 문제에서 사람의 판단을 굽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양심에 의거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행26:9). 그의 죄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자기의 양심에 빛이 비치도록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하지 않은 데 있다. 시대를 통해 교회를 박해한 사건들과 의도적인 오류들은 모든 사람이 완전한 빛과 사랑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잘 보여 준다.

선하고 순수한 양심(딤후1:5; 3:9)은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음의 동기로 그 뜻에 복종하게 만든다. 사람이 이렇게 양심에 순종할 때는 범법하지 않는다(행24:16). 선한 양심의 허락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약하고 결의가 없고 어두워진 양심(고전8:7)은 더러워진 양심으로서 부패한 마음의 노예 노릇을 할 뿐이다(딤후1:15; 히10:22). 이것은 또한 인두로 지친 양심으로(딤후4:2) 은혜에 의해 변하지 않는 한 율법과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며 궁극적으로 복수하는 양심이 되고 영원한 후회를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 몸의 상처는 결코 양심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양심이 활동을 멈추고 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을 영원토록 괴롭게 할 것이다.

● 양자 삼음(Adoption)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을 자기의 가족으로 맞아들여 그를 자기 아이로 인정하고 자기 재산의 상속자로 만드는 행위. 야곱이 자기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은 것(창48:5)은 대제 행위의 일종으로 그는 이것을 통해 이 두 손자가 마치 자기의 아들들처럼 이스라엘에서 각각 자기 몫을 가질 것을 원했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며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되리라."라고 말하였다. 그가 그들의 아버지 요

셉에게 아무 상속물도 주지 않았으므로 이 양자 삼음의 효과는 단순히 그의 상속물을 그의 두 아들에게 두 몫으로 주는 것을 의미했고 이로써 요셉은 장자의 특권을 누렸다. 장자권 참조.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종류의 양자 삼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아버지가 그녀의 자녀들을 양자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의 손자이자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자기 딸을 헤스론에게 주었으며(대상2:21; 민26:29) 그들의 후손들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아들들로 계승되었다. 또한 민32:41에는 스굽의 아들이요, 헤스론의 손자요, 유다의 증손자인 야일이 므낫세의 아들 야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쪽의 증조할아버지가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모르드개가 자기의 조카 에스터를 양자 삼은 것을 보게 된다. 그는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다(에2:7). 이렇게 파라오의 딸은 모세를 양자로 삼았고 그는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출2:10). 또한 성경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록하는데 실제로 그는 룻의 아들이었다(룻4:17).

신약 성경에서 양자 삼는 일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늘의 상속물을 차지하는 상속자가 된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다(갈4:4-5). 이런 양자 삼음의 결과로 우리는 두려운 영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며 그분 안에서 확신을 누리고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의 하늘 집의 소유권을 얻는다(롬8:14-17; 엡1:4-5). 지금도 동방에서는 양자 삼는 일이 흔하고 보통 이 일은 법적 절차를 거처 공적 사무관 앞에서 이루어진다.

● 양친(Parent) 길러 준 어머니(눅2:27).

● 양피(Onion)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기를 원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채소 중 하나(민11:5). 이집트의 양파는 아주 달고 맵지 않으며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양피지(Parchment) 양가죽을 처리하여 만든 글 쓰는 재료. 소아시아의 버가모는 양피지의 원산지였다. 유대인 회당에서 낭독된 토라, 즉 율법은 대개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의 성구함도 양피지로 되어 있었다(마23:5). 성구함 참조.

● 어깨(Shoulder) 일반적으로 어깨로는 물건을 메어 날랐다(출12:34; 렘12:6). 아브라함은 하갈의 어깨에 물 부대를 얹어 주었고(창21:14) 리브가는 물동이를 어깨에 메었다(창24:15, 45-46).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대며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느9:29; 스7:11).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어깨는 또한 상징

적으로 멸망(겔29:7), 종살이(사10:27),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시81:6), 안전(신33:12)을 뜻했다.

● 어둠(Darkness) 자연적인 빛이 없는 상태(창1:2). 어둠은 불행과 역경의 상징이었으며(욘18:6; 시107:10; 사8:22; 9:1) 또 해와 별들이 없고 주요 우두머리들이 넘어지며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사13:10; 행2:20). '어둠의 일들'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서 이루어진 불순한 신비주의 행적을 말하며(엡5:11) '바깥 어둠'은 하늘(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거하는 어두운 곳을 뜻한다(마8:12). 이 집트에서의 어둠은 기적이었으며(출10:21-2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 땅을 덮은 어둠은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둠이었다(눅23:44). 이런 것은 일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에 보름달이 뜨기 때문이다.

● 어리석은 자(Fool) 무한한 지혜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경교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혜롭지 않게 행하는 자. 성경은 사악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며(시14:1; 잠19:1) 종종 사악한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한다(삼하13:12-13; 시38:5). 어리석은 논쟁이나 이야기는 헛되고 무익한 대화를 뜻한다(딤후2:23).

● 어리석은 짓(Folly, Foolishness) 분별력과 이해력 등이 결여된 것. 이것은 지혜와 명철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지혜 있는 자의 반대가 어리석은 자이다(잠1:7; 13:16; 14:1; 17:24; 21:20; 24:7). 잠언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그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1:7). 지식을 미워한다(1:22).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12:16). 교만하다(14:3).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긴다(15:5). 어머니를 멸시한다(15:20). 문제를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한다(18:13). 참견한다(20:3). 스스로를 높인다(30:32).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이다(시14:1; 53:1). 한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은 암논이 자기를 겁탈하려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다(삼하13:12).

● 어린양(Lamb) 양의 새끼(출12:5).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요1:29)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속죄물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 예물이다. 구약 시대의 희생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표의 규례로서 그분의 거룩함과 온유함을 미리 보여 주는 규례이다(사53:4-9). 그분은 계5:6; 12:11에서 하늘에서 희생 예물 어린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양, 유월절 참조.

특별히 계시록에서 요한은 27회나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양이라고 했는데 다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영웅이 바로 그 어린양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다. (1) 죽임당한 어린양(계5:6), (2) 대속하는 어린양(계5:9), (3) 합당하신 어린양(계5:12), (4) 위안을 주는 어린양(계7:17), (5) 생명을 주는 어린양(계13:8), (6) 이기는 어린양(계17:14), (7) 영원하신 어린양(계

5:13), (8) 진노하는 어린양(계6:16), (9) 사랑하는 어린양(계19:7), (10) 빛이신 어린양(계21:23).

● 어머니(Mother) 히브리어로 '암'과 '암'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하며 이것은 어린이가 발음하기에 간편한 그런 말이었다. 아바 참조.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사8:4). 어머니라는 뜻 외에도 '암'은 할머니를 가리키거나(왕상15:10) 오래된 여자 조상을 가리키기도 한다(창3:20). 또 이 말은 주요 도시를 가리키거나(삼하20:19) 은혜를 베푸는 여인(삿5:7) 혹은 모국이라는 차원에서 민족이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한다(사3:12; 49:23). 성경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종종 언급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을 사용하셨다(사49:15). 인류 역사에서 어머니들은 자기 후손을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어머니의 관심과 돌봄에 의해 큰 사람이 되었다. 기독교회 역시 어머니들의 사랑과 인내와 열심과 헌신을 통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해 왔다. 가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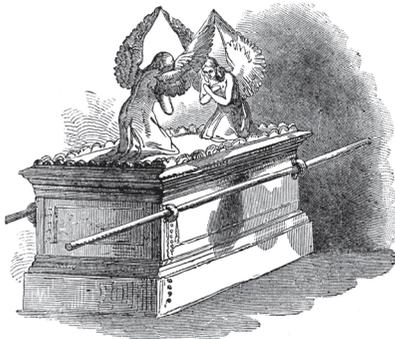
● 어제나 오늘이나(Yesterday and Today) 히13:8에 나오는 이 표현은 과거와 현재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람의 지식과 삶은 어제가 같이 짧다(욘8:9).

● 언약(Covenant) 쌍방이 합의하는 약속. 하나님과 사람의 경우처럼 한쪽이 다른 쪽보다 무한히 월등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하신 분의 본성을 나타낸다(사59:21; 렘31:33-34; 갈3:15-18). 히브리 사람들과의 첫째 언약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루어졌다. 둘째 언약은 사실 첫째 언약을 엄숙하게 갱신한 것으로 시내 산에서 이루어졌으며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다.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창시자가 되는 '새 언약'은 그분의 피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갈4:24; 히7:22; 8:6-13; 9:15-23; 12:24). 하나님의 언약들은 희생물을 드림으로 비준되었는데 이는 속죄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는 복과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창15:1-8; 출24:6-8; 히9:6).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뛰어난 이들은 하나님의 특정한 언약들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잠정적인 호의를 베푸셨는데 사실 이것은 대개 영존하는 언약을 개인에게 갱신하신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잠정적인 것들은 실체를 보여 주는 예표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과 언약을 맺었고(창9:8-9; 17:4-5; 시89:3-4) 이후에 나타날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롬3:25; 히9:15).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라틴어는 '테스타멘툼'(Testamentum)이며 여기서 영어 '테스타

먼트'가 나왔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영어로 'Old and New Testaments'라 불린다. 상속 언약 참조.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씨 사이의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신자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두 언약은 다른 모든 것들, 즉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가장 완벽하고 엄숙한 언약은 우리의 구속자 주님의 중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영원토록 유효할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피로 확증되었으며 그 목적은 영존하는 생명이요 그 안의 내용과 법규는 이전의 어느 언약보다 더 고결하다.

● 언약계(Ark of the covenant)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신 율법의 돌판들을 담은 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친히 맺으신 언약에 대해 증언하므로 증언궤라 불린다(출25:22; 34:29). 이것은 시뮴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안과 밖은 모두 금으로 입혀졌고 길이는 1.2미터, 너비와 높이는 각각 0.7미터 정도이고 금테가 둘러졌다. 또 네 개의 금고리가 양쪽에 두 개씩 달려서 사람들이 거기에 운반 막대기를 넣어 궤를 날랐는데 이 막대기들도 정금으로 입혀졌고 사람들은 그 고리에 그것들을 넣어 보관하였다(출25:10-22). 궤의 뚜껑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공홀의 자리라고 불린다. 이 위에 금으로 된 두 개의 그룹이 놓였고 그것들은 날개를 퍼서 공홀의 자리를 덮었다(출37:1-9).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거하시면서(왕하19:15; 대상13:6) 어떤 빛을 내셨다(레16:2; 시80:1). 그분께서는 여기에서 백성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자신의 살아 있는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다(민7:89).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이곳에서 매년 속죄의 희생을 드렸다(히9:7).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언약궤보다 더 거룩한 물건은 없었다.



광야에서 유랑할 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것을 날랐으며(민4:5-6) 이 앞에서 요르단 강이 나뉘었고(수3:1-17; 4:1-24) 여리고의 성벽도 이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수6:4-12). 그 뒤에 궤는 길갈에 머물다가 실로로 옮겨졌으며(수4:19; 10:43; 18:1)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서 이것을 자기 진영으로 옮겨갔

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삼상4:1-22).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다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되돌려주었고 이 궤는 기랴아림에 머물렀으며(삼상7:1) 그 뒤 사울 시대에는 놋에 머물렀다. 다윗은 그것을 기랴아림에서 오벧에돔의 집으로 옮겼고 뒤에 자신의 궁으로 옮겼으며(삼하6:1-23)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것을 옮겼다(대하5:2). 궤는 그곳에서 존귀하게 머물다가 후대에 우상 숭배를 하던 유다의 왕들이 지성소를 더럽힌 뒤 제사장들을 시켜 성전에서 그것을 내어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요시아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다시 성소로 옮기라고 명령하였고 다시는 그들이 그것을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대하35:3). 그 이후에 궤는 훼손되었거나 혹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은밀한 곳에 숨겨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둘째 성전에는 이 궤가 없었고 이 점에서 그 영광이 첫째 성전의 영광보다 못했다. 언약궤에는 두 개의 돌판 말고도 아론의 싹난 막대기와 (민17:10; 히9:4) 광야 시절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출16:33-34)가 들어 있었고 언약궤 옆에는 율법책이 놓여 있었다(신31:26).

● 얼굴(Face) 얼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임재를 뜻하기도 했으며 그래서 얼굴은 종종 어떤 사람 자체를 나타내기도 했다(창48:11; 출33:14; 민6:25-26; 사63:9).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 즉 그분의 완전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며(출33:20; 요1:18; 딤후6:16) 그분을 대면해서 보았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이고(창32:30; 민14:14; 신5:4) 또 그분의 본성과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했다는 것이다(고전13:12).

● 에그론(Ekron, 에크란) 블레셋 사람들의 최북단 도시. 이곳은 처음에 유다에게 배정되었으나(수15:45) 후에 단에게 주어졌고(수19:40-43) 유대인들은 이곳을 평화롭게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곳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한 것으로 유명하다(삼상5:10; 6:1-18). 이곳 사람들은 파리 신을 섬겼으며 (왕하1:2) 대언자들은 이곳의 멸망을 예언했다(암1:8; 습2:4; 숙9:5, 7).

● 에글론(Eglon, 에글란, 젊은 황소) 모압의 왕. 재판관들의 시대에 그는 암몬과 아말렉 족속의 도움을 받아 남부와 동부에 살던 유대인들을 정복한 뒤 여리고를 자신의 통치 도시로 삼고 18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재판관 에훤이 일어나 그를 죽이고 그의 백성을 몰아내었다(삿3:12-30).

● 에네글라임(Eneghlaim, 엔에글레이움, 두 송아지의 샘) 요르단 강 유역의 사해에 위치한 마을(겔47:10). 천년 왕국 시대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지역의 물들을 치유하여 많은 고기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 에노스(Enos, 이나스, 사람) 아담의 손자. 그는 905년을 살았으며 아담과 셋과 에녹은 그보다 전에 죽었다. 노아는 그와 동시대 사람으로 84년 동안 그

와 함께 살았다(창4:26; 5:6-11; 눅3:38). 그의 시대에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좀 더 체계적으로 그분께 경배를 드린 것 같다.

● 에녹(Enoch, 이너크, 현신된 사람) I. 가인의 아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도시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에녹이라 불렀다(창4:17).

II.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 그는 므두셀라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족장으로 유명하며 창차 올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였다(히11:5, 13). 그는 불경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산 사람으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해 90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는 365년을 살고 휴거되었으며(창5:18-24; 유14-15)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닥칠 것을 대언하였다.

● 에단(Ethan, 이싼, 오래 사는) I. 구약 시대에 지혜로 유명한 네 사람 중 하나(왕상4:31; 대상2:6).

II. 기시의 아들 레위 사람. 그는 성전 음악을 맡은 세 사람들 중 하나이다(대상6:44; 15:17-19).

III. 시편 89편의 저자.

● 에담(Etam, 이탸, 맹금류가 모이는 곳) 베들레헬과 드고아 근처에 있던 유다의 마을. 이곳은 솔로몬이 좋아하던 곳이며 르호보암은 이곳을 강화했다(대상4:3, 32; 대하11:6). 재판관 삼손이 몸을 피한 에담 바위는 이 마을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사15:8-19).

● 에담(Etham, 이쌌, 요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곧바로 진을 친 곳(출13:20; 민33:6). 이곳은 홍해의 서쪽 만의 머리 부분에 있으며 이곳의 동쪽에 있는 광야는 에담 광야로 불린다.

● 에덴(Eden, 이단, 평평한 땅) 최초의 낙원이 있었던 아시아의 한 지역.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창2:8). 에덴의 지형을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 강의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었다(창2:10-14). 과거에 여러 사람이 이 구절을 해석하고 에덴의 위치를 밝히려고 애썼으나 만족할 만한 해답은 없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에덴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에덴동산 지도 참조(12). 창세기를 보면 처음의 낙원은 사람이 볼 수 없게 거두어졌고 또 노아의 대홍수가 있어서 심각한 지각 변동이 있었으므로 땅에서 에덴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낙원 참조. 그러나 과거의 에덴이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지도 참조(12).

● 에돔(Edom, 이딴, 붉은색)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이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색 피부를 가졌으므로 이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뒤에 장자권을 팔면서 야곱에게 얻어먹은 죽의 색깔이 붉기 때문에 에돔으로 불렸다(창25:25, 30). 에서, 이두매

아, 에돔 지도 참조(28).

● 에드레이(Edreí, 에드리아이) 바산의 주요 도시 중 하나. 가나안 족속들 지도 참조(16). 이곳 근처에서 바산 왕 옥과 그의 군대들이 멸망을 당했고(민21:33-35; 신1:4; 3:1-3) 그 뒤에 이곳은 므낫세의 경계 안으로 소속되었다(수13:31).

● 에라스도(Erastus, 이래스터스, 사랑받는) 고린도 출신으로 바울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인 친구가 된 사람. 그는 그 도시의 재무관이었으며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 갔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여정에서 디모데와 함께하였다(행19:22). 그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다시 고린도에 있었으며(롬16:23)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갈 때에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딤후4:20).

● 에렉(Erech, 이렉) 니므롯이 시날 땅에 세운 도시 중 하나(창10:10).

● 에메랄드(Emerald) 소량의 크롬을 함유하여 아름다운 녹색을 띠는 보석. 에메랄드의 맑은 초록색은 눈병과 시력이 좋다고 하여 이것은 바라보기 위한 용도로 반지의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도 이것은 시력이 약한 눈을 강하게 하고 눈의 피로를 가시게 한다고 하여 목걸이 장식에 사용되기도 하였다(출28:18; 겔27:16; 28:13).

● 에바(Ephah) I. 마른 곡물이나 과일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이것은 액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바스와 양이 같으며 약 22리터이다(민5:15; 사6:19; 룻2:17). 에바는 심본의 일 호멜이다.

II. 미디안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창25:4). 그는 미디안 근처의 아라비아에 거주하였으므로 그곳은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사60:6).

● 에바다(Ephphatha, 에퍼타, 열려라) 주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 명령하신 말씀(막7:34).

● 에바브라(Epaphras, 에파프라스, 사랑스런)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로 알려진 성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자기의 사랑하는 동료 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라고 말했다(골1:7; 4:12). 그는 한때 바울이 로마에서 집에 갇혀 있을 때 그와 함께하였다.

● 에바브로디도(Epaphroditus, 이파프로다이터쓰) 빌립보 교회의 성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빌립보 교회가 그를 구제하려고 모은 물품을 전달해 주는 책임을 맡았다(빌2:25; 4:18). 그러나 이런 사랑의 수고로 인해 그는 로마에서 중병에 걸렸으며 이로써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빌2:25-30). 그는 되돌아가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갔다.

● 에발(Ebal, 이발, 대머리) 에브라임에 있는 산(신27:1-26; 28:1-68). 팔레스타인의 산들 지도 참조(53). 이 산은 그리스산을 마주 보고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너비가 500미터, 길이가 5킬로미터 정도 되는 골짜기가 있고 바로 여기에 세겜 마을이 있었다. 이 두 산은 길이와 높기와 형태가 서로 비슷하고 높이는 골짜기

에서 240미터 정도였다. 이 산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0킬로미터에 위치했으며 골짜기의 오른 쪽에는 에발 산이, 왼쪽에는 그리스 산이 있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을 통과한 뒤에 받은 그리스 산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고 받은 에발 산에 서서 백성을 저주하라고 명령했다(신27:11-13).

● 에베네도(Epaenetus, 이피니투스) 롬16:5에서 바울이 문명한 성도. 그는 아가야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 중 하나이므로 아가야의 첫 열매라 불린다.

● 에베소(Ephesus, 에페르스)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의 수도.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서머나에서 6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이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서 이곳은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이교도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이곳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다이애나 신전(행19:35)이 있었고 황제 숭배와 신비 종교, 마술 등이 성행하였다. 또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자유 도시로 자유로운 상거래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이었다. 그러나 에베소가 얻은 명성은 이교도들의 문란한 종교 의식과 어디서나 행해지는 부도덕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고 결국 그곳은 향락과 퇴폐의 도시로 몰락하였다. 다이애나 참조.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곳에서 직접 2년 이상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목회하기도 했다(행18-20 참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경고하며 세운 교회로서 영적으로 활기가 넘친 교회였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했으며 또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여 주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회당도 있었다(행18:19; 19:17).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러 얼마 동안 전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 두고 떠났고(행18:21) 3차 선교 여행 때에 다시 이곳에 들러 오래 체재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행19:10).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을 여기에서 보내며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바토 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뒤 다시 이곳에 왔다가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동시에 엄숙한 경고를 주시기도 했다(계2:1-5). 에베소 교회는 600년 정도 지속되었고 그 뒤

에 마리아 숭배 등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어 결국 그곳의 등잔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었다. 부유하던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항구는 역병이 들끓는 늪지가 되고 말았다.

● 에벤에셀(Ebenezer, 에버너저르) 도움의 돌.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큰 도움을 주셔서 그들을 격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돌을 세웠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전에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고 케를 빼앗겼다(삼상4:1; 5:1; 7:5-12).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 에벨(Epher, 이퍼르, 젊은 사슴) 미디안의 아들(창25:4). 그가 살던 지역은 요르단 너머였다(왕상4:10).

● 에벨(Heber, 히버, 동료) I. 히브리 사람들의 선조(창10:25; 눅3:35). 그는 헤벨이라 불리기도 하며 이 이름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히브리 사람들 참조.

II. 모세의 장인 호렘에게서 나온 겐 족속. 그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의 아내 아엘은 시스라를 직접 죽였다(삿4:11, 17; 5:24).

● 에벳멜렉(Ebed-melech, 이벳멜렉, 왕의 종) 시드기야 왕의 신하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그는 에레미야 대언자를 지하 감옥 구덩이에서 구출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바빌론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자기 생명을 보존했다(렘38:7-13; 39:15-18).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항상 기억하신다.

● 에봇(Ephod) 히브리 제사장이 입던 장식 옷. 이것은 소매가 없이 두 조각으로 되어 한 조각은 몸의 앞부분을, 다른 조각은 뒷부분을 가렸으며 제사장은 속옷과 겹옷 위에 이것을 입었다. 여기에는 띠가 달려 있어서 제사장은 이것으로 에봇을 몸에 묶었다(출28:6-12). 에봇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마로 평범하게 만든 것으로 일반 제사장들이 입었고(삼상22:18) 다른 하나는 수를 놓은 것으로 대제사장이 입었다. 어린 사무엘은 아이이고 레위 사람에 불과했지만 에봇을 입었고(삼상2:18) 다윗은 하나님의 케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에 아마 에봇을 입었다(삼하6:14). 유대인들은 이 옷에 대해 어떤 미신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상 숭배에도 이것을 사용했다. 기드온의 에봇은 이스라엘에게 울무가 되었고 미가 역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우상이 경배를 받게 하였다(삿8:27; 17:5; 18:17).

● 에브라다(Ephraim, 에프라임) 헤스론의 아들 갈렘의 둘째 아내. 에브라 참조.

● 에브라임(Ephraim, 이프라임, 두 열매의 땅)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둘째 아들(창41:52). 그는 둘째였지만 자기의 조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복

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항상 므낫세보다 뛰어난 위치를 차지했다(창48:8-20; 민2:18-21). 가나안에서 에브라임의 몫은 컸고 중앙에, 가장 비옥한 지역에 있었다. 그들은 지중해로부터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실로와 세겜을 포함하여 단과 베냐민 지파의 북쪽 지역을 차지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지도 참조(19, 22). 이 지역을 관통하는 산악 지대는 대개 '에브라임의 산들' 혹은 '에브라임 산' 등으로 표현되었고 이것은 남쪽으로 내려가 유다의 뒷에까지 이르렀으며 거기서는 '유다의 산들'이라 불렸다. 에브라임에 있던 사마리아는 북 왕국 이스라엘 수도였으며 종종 그것 자체가 북 왕국을 지칭하기도 하였다(사11:13; 렘31:6; 50:19). 압살롬이 목숨을 잃은 에브라임의 숲은 요르단의 동쪽 마하나임 근방에 있었다(삼하18:6-8).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몸을 피한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은(요11:54) 대하13:19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동일하며 이곳은 오브라라고도 불렸다(수18:23; 삼상13:17; 참조 삼하13:23).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출신의 여호수아와 유다 출신의 갈렙의 후손들이 세력을 강화하여 전자는 북 왕국을, 후자는 남 왕국을 형성하였다.

● 에브랏(Ephrath, 이프랏) 갈렙의 둘째 아내. 그녀는 홀의 어머니였고 에브라다라 불리기도 하였으며(대상2:19) 그녀로부터 에브랏, 즉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대상2:50-51; 4:4; 비교 창35:16, 19). 롯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이었다(롯1:2; 4:11; 삼상17:12).

● 에브론(Ephron, 이프론, 먼지투성이) 아브라함 당시 헤브론에 거주하던 헛 족속(창23:1-20). 그는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소유 매장지로 팔았는데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는 그 지역의 유지를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 에빌메로닥(Evil-merodach, 이블미로락)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그의 뒤를 이은 바빌론 왕. 그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고 다른 포로들보다 특별히 대우해 준 일로 기억된다(왕하25:27; 렘52:31-34). 그는 자기 누이의 남편인 네리글리사르의 음모에 의해 왕권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다.

● 에살하돈(Esar-haddon, 이사르해돈) 아시리아 왕. 아시리아 제국 지도 참조(34). 그는 산헤립의 뒤를 이어 주전 896년경에 왕이 되었고(왕하19:37; 사37:38) 사마리아가 멸망한 뒤에 그곳으로 식민지 사람들을 보냈다(스4:2). 산헤립 참조.

● 에서(Esau, 이서, 털이 많은 자) 이삭의 맏아들, 야곱의 형(창25:1-34). 그는 맏아들로서 가문의 상속자였으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창26:34는 그의 잘못된 결혼에 대하여, 창27:1-46은 그가 아버지의 으뜸가는 복을 놓고 야곱을 향해 분노를 품

는 것에 대하여, 창32:1-32; 33:1-20은 그들이 나중 에 화해하는 것에 대하여, 창36:1-43은 그의 후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또한 에돔이라고도 불리고 사해의 남쪽 산지에 정착하였으며 아카바 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과시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의 이름을 따라 에돔이라 불리다가 후에 이두메아가 되었다. 에돔, 이두메아 참조.

● 에스겔(Ezekiel, 이지키엘) 부시의 아들 대언자. 그는 주전 598년경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 그날 강가에 살았다. 니스웨 참조. 겔1:1에 따라 그는 30세에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구절의 제30년은 요시야의 통치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된 뒤 30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뒤 5년이 되는 해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으며 그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뒤 14년이 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 대언하였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들이며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처음 대언하던 8년 동안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대언하며 유다의 멸망을 묵도하였다. 특별히 대언자 에스겔은 말세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최후 귀환과 천년 왕국 성전에 대하여 자세하게 대언하였다(겔37-48장). 천년 왕국의 성전과 도시 선도 참조(93).

● 에스골(Eshcol, 에쉬갈, 포도 골짜기) I. 헤브론 근처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통치자. 그는 아브라함과 연합하여, 소돔을 멸하고 롯을 잡아간 동방의 군대를 추격하였다(창14:13-14).

II. 작고 물이 많은 골짜기. 여기에서 히브리 정탐꾼들은 큰 포도송이를 취한 뒤 그것을 안전하게 모세에게 가져오려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매고 왔다(민13:22-27; 32:9; 신1:24).

● 에스다울(Eshtaol, 에쉬테이얼, 문다) 유다의 서쪽 경계에 있던 마을. 이곳은 나중에 단에게 주어졌고(수15:33; 19:41) 단 지파 출신의 재판관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한다(삿13:25; 16:31).

● 에스더(Esther, 에스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비하일의 딸. 그녀는 하닷사라는 페르시아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린 뒤에도 돌아가지 않고 거기 머물렀으며 그녀는 그리스도의 출생이 있기 약 500년 전에 티그리스 강 너머에서 출생하였다. 그녀의 부모가 죽자 그녀의 사촌인 모르드개가 그녀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다. 아하수어로가 왕비와스대를 폐위한 뒤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을 때에 에스더도 그 안에 뽑혔고 왕의 호의를 입어 왕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올라 그들을 죽이려고 모함한 허만의 계획을 물리치고 자신의 백성을 극적으로 구출하였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지금도 페르시아에서 자기 선조들이 구출된 일

을 기념하기 위해 태양력으로 12월에 부림절을 지킨다. 에스더의 남편은 세속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Xerxes) 왕으로 알려져 있다. 부림 참조.

● 에스드모(Eshtemoa, 에쉬티모아) 유다에 있던 제사장들의 도시(수15:50), 에스드모이라 불리기도 함(수21:14; 삼상30:28).

● 에스라(Ezra, 에즈라, 여호와가 도우신다) 제사장 겸 서기관으로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는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요 학식이 많고 신실한 사람으로 페르시아 왕궁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편지와 돈과 각종 도움을 받아 주전 45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스7:1-28) 거기서 백성들의 행위와 공중 예배를 개혁하였다(스 8:1-36; 9:1-15; 10:1-44; 느8:1-18). 많은 사람들은 그가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을 모아 지금의 형태로 정경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로로 잡혀감, 정경 참조. 유다의 귀환 지도 참조(33).

● 에스비알(Eshbaal, 에쉬베이알) 사울의 넷째 아들(대상8:33). 그는 대개 다른 곳에서 이스보셋이라 불렸다(삼하2:8-15). 꼼꼼한 유대인들은 우상의 이름인 바알을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 '혼동'이라는 뜻의 보셋(Bosheth)을 넣었으며 그래서 트립바알 대신 트비보셋이라 불렸다(삼하4:4; 대상8:34). 이스보셋, 트비보셋 참조.

● 에시온게벨(Ezion-geber, 이지안기버) 홍해의 동쪽 만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 시울, 다윗, 솔로몬의 영토 지도 참조(30). 이곳은 에시온가벨이라고도 불리며 엘랏 부근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유랑의 기간의 마지막 해에 여기서 안식했다(민33:35; 신2:8). 이곳의 항구에서 솔로몬은 오빌에 가는 배들을 만들었지만(왕상 9:26)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왕상22:48; 대하20:36). 엘랏 참조.

● 에이커(Acre) 1에이커는 약 1,224평이다(삼상 14:14).

● 에티오피아(Ethiopia,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큰 왕국 중 하나. 에티오피아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자주 나온다. 구스 참조. 에티오피아는 나일 강을 따라 이집트 남부에 위치하였다(사18:1-7; 습 3:10). 시바라는 이름은 에티오피아의 북부 지역을 가리키며 구스의 말인들이 정착한 곳으로 판단된다(창10:7). 이 지역은 산과 모래가 많으나 대개는 물이 많고 비옥한 곳이었으며 흑단, 상아, 향료, 금, 각종 보석이 많이 났다. 이곳의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래서 이 두 국은 종종 함께 성경에 등장한다(사20:3-6; 43:3; 45:14; 렘30:1-26; 단11:43). 대하14:9-15에는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의 아사 왕을 공격하는 대목이 나온다. 신약 성경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기사가 나온다(행8:27-40).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수용했다. 그래서 4세기 초에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에서 고대 에티오피아어로 번역되었다.

● 에피쿠로스학과 사람들(Epicureans, 에피큐리안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그들은 유물론자요 무신론자이며 자연의 원자들이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것들이 우연히 결합되어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성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죽은 뒤의 심판과 심지어 혼 자체를 부인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라고 믿었으며 과욕이나 탐닉이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 않는 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학파의 창시자 에피쿠로스는 학식과 윤리가 있는 사람으로 이런 원리에 따라 모범적인 삶을 살다가 주전 271년에 73세로 죽었으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만든 한계를 저버리고 무제한으로 쾌락을 추구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은 극도로 부패하였고 자신들의 철학과 인생관에 의해 하나님, 부활, 영원한 심판 같은 진리를 대적하였다(행17:16-34). 아레오바고, 스토아학파 사람들 참조.

● 에훗(Ehud, 이허드, 연합) 이스라엘을 모압 족속에게서 건져 낸 베냐민 사람 재판관. 그는 먼저 그들의 왕 에글론을 죽이고 군대를 일으켜 그의 백성을 멸망시켰으며 그 뒤 여러 해 동안 명예롭게 이스라엘을 재판했다(삿3:12-31; 4:1).

● 엔(En, 셈) 엔들, 엔게디, 엔세메스 등 여러 지역의 이름 앞에 쓰인 접두어.

● 엔간님(Engannim, 엔개님, 정원의 셈) I. 벤엘 근처 유다의 마을(수15:34).

II. 잇사갈에게 속한 제사장들의 도시. 이곳은 다불 산에서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수19:21; 21:29).

● 엔게디(Engedi, 엔게디, 염소 새끼의 셈) 사해의 서쪽 해안 중간 지점의 지역.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여기에는 돌과 바위가 많고(삼상23:29; 렘47:10) 종려나무가 많아 하세손다말(Hazezon-Tamar) 혹은 하사손다말이라고도 불렸다(삼상24:1, 3; 창14:7; 대하20:1-2). 엔게디의 높이는 해발 450미터였으며 해발 120미터 되는 곳에서 샘이 나와 사해로 들어가면서 골짜기와 평야 부분을 적셨다. 산 쪽은 전에 계단식으로 개간되었으며 많은 열매를 내는 오아시스가 있기도 하였다(애1:14).

● 엔들(Endor, 엔도르) 므낫세의 도시(수17:11). 이곳은 다불 산에서 6.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나인 근처에 있었다(시83:9-10). 사울 왕은 말년에 다급해서 여기로 가서 마녀를 찾았는데(삼상28:1-25) 이 때에 그녀는 사울을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사무엘을

블러 올렸고 사무엘로 인해 스스로 놀라게 되었다.

● 엔로겔(Enrogel, 인로겔, 세탁하는 자들의 샘) 세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발로 빨래를 밟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남동부 귀퉁이에 기드론 계곡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닿는 곳에 있었다(수15:7; 18:16). 이곳은 압살롬의 음모와 연관되어 성경에 등장하며(삼하17:17) 후에는 아도니아의 반역과도 연관이 있다(왕상1:9).

● 엔학고레(En Hakkore, 엔헤펜커리) 삼손이 기적으로 얻은 샘. 레히 참조.

● 엘(EI, 엘, 힘)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 특별히 이것은 시(詩)에서 잘 나타나며(창33:18-20) 벤엘, 다니엘, 엘리야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나 지역의 이름에도 포함되어 나타나.

● 엘가나(Elkanah, 엘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I. 레위 사람 고탕의 자손 고라의 아들. 그는 아실과 아비아삽의 형제이다(출6:24).

II. 레위 사람 고탕의 자손 여로함의 아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살았으며 대언자 사무엘의 아버지이다(삼상1:1; 대상6:27, 34).

● 엘고스(Elkosh, 엘카쉬) 대언자 나훔의 출신지(나1:1).

● 엘닷(Eldad, 엘닷,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백성을 다스리며 모세를 돕기 위해 임명된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 그는 메닷이라는 장로와 함께 언급된다. 그들에게 대언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모세에게서 떨어진 진영에서 대언했으며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옹호하기 위해 그들을 비난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옹호했다(민11:24-29).

● 엘라(Elah, 일라) 이스라엘의 왕. 그는 주전 926년경에 바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술 취한 상태로 자기 신하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시므리는 바아사의 모든 가족을 죽임으로써 예후의 예언을 성취했다(왕상16:6-10).

● 엘라 골짜기(Valley of Elah)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인 곳(삼상17:2, 19; 21:9).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7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 엘라살(Elasar, 엘레이사르) 창14:1, 9에 나오는 이 지역은 왕하19:12; 사37:12에 나오는 들라살과 같은 지역일 것이다.

● 엘람(Elam, 일람, 고원) 후에 페르시아로 불린 지역(창14:1). 이곳은 셈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엘람이라 불렸고(창10:22) 수사(수산)는 이곳에 속했다(단8:2; 참조 행2:9). 수산 참조.

● 엘랏(Elath, 일라트, 솟양) 이두메아의 도시. 이곳은 홍해의 동쪽 만(지금의 아카바 만)의 최북단에 위치했으며 엘랏이라고도 불린다. 이 만에 예시온계 뱀이 위치했는데 엘랏은 그곳에 가깝다(신2:8; 왕상9:26). 이곳은 다윗에 의해 유다의 부속 지역이 되었으며 그는 거기에 광대한 상업 지구를 만들었고(삼

하8:14) 솔로몬은 배를 지었다(대하8:17-18). 요람의 통치 때에 에돔 사람들이 그곳을 회복하였으나 웃시야가 다시 빼앗았고(왕하8:20; 14:22) 그는 르신에게 이곳을 빼앗겼다(왕하16:6).

● 엘루마(Elymas, 엘리마스) 서기오 바울이 키프로스의 바보에서 로마의 총독으로 있을 당시 그곳에 있던 유대인 마술사. 그는 총독이 우상 숭배와 미신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에 관해 질문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심한 책망을 받고 즉시 얼마 동안 눈이 어둡게 되었다(행13:6-12).

● 엘룰(Elul, 일룰) 유대력의 6월(느6:15).

● 엘르아살(Elazar, 엘리에이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I. 아론의 셋째 아들. 그는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고(출6:23; 민20:25-28) 그 뒤 대제사장 직분은 일곱 세대 동안 그의 가족을 통해 계승되었다. 그러나 엘리의 때에 이 직분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에게로 옮겨졌지만 사울과 다윗의 통치 때에 다시 엘르아살의 가족에게로 옮겨졌고 포로 시대 이후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II. 아비나답의 아들. 하나님의 궤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영광을 차지했다(삼상7:1).

III. 다윗의 용맹한 전사들 가운데 하나(삼하23:9; 대상11:11-18).

● 엘르아일레(Elealeh, 일리에일레,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 아비도 족속들의 마을. 이곳은 그들의 수도인 헤스본 근처에 있었고 르우벤 지파에게 배정되었으나(민32:3, 37) 후에는 모압의 도시가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사15:4; 16:9; 렘48:34).

● 엘리(Elī, 일라이, 높은) 왕정 시대 이전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그는 이다말 계열에서 처음으로 나온 대제사장이었으며(삼상2:27) 또한 재판관으로 40년 동안 백성을 다스렸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자기 가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집에 임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두 아들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대패하였다(삼상3:11-18). 또 이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다(삼상4:1-22). 그의 가족에 대한 경고의 예언은 후에 아비아달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대제사장 직분이 다시 엘르아살의 후손에게로 넘어갔다.

● 엘리멜렉(Elimelech, 일리멜렉,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나오미의 남편(룻1:2).

● 엘리바스(Eliphaz, 엘이파즈, 내 하나님은 금이시다)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욥2:11; 비고 창36:10). 그는 빌닷과 소발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욥에게 가장 먼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욥4:1-21; 5:1-27; 15:1-35; 22:1-30).

● 엘리사(Elisha, 일라이사, 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대언자. 그는

주전 903-838년경에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시대에 활동하였다. 그는 아벨므홀라 출신이었고 엘리아가 부를 때에 재기질을 하고 있었다(왕상 19:16). 그 뒤에 그는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체험한 뒤 그의 옷으로 요르단 강을 나누고 대언자들의 학교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적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 과부의 기름병을 채운 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의 연합군에게 물을 제공한 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일, 게하시의 죄를 발견하여 벌을 준 일이 포함된다(왕하2-13). 그가 죽자 요아스 왕과 백성이 크게 애도했으며 그 뒤에 그와 함께 돌무덤에 안치된 시체가 생명을 얻기도 했다(왕하13:21).

● 엘리사(Elishah, 일라이사) 고대 사람 야완의 아들(창10:4). 두로에게 청색과 자주 색 옷감을 보낸 '엘리사의 섬들'(겔27:7)은 그리스와 그 주변의 섬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민족들 지도 참조(13).

● 엘리사벳(Elisabeth, 일리제베쓰, 내 하나님은 큰 재산이시다) 아론의 딸들에 속한 경건한 여인. 그녀는 사가랴의 아내이며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였고 마리아의 사촌이었다(눅1:5-25, 36, 39-80).

● 엘리세바(Elisheba, 일리쉬바, 내 하나님은 큰 재산이시다) 아론의 아내(출6:23). 이 이름은 그리스어로 엘리사벳이다(눅1:5).

● 엘리아킴(Eliakim, 일라이아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I. 유다의 왕(대하36:4). 여호아킴 참조.

II. 히스기야 왕의 관원. 왕의 본부에 따라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 랍사세에게 나아가 그가 시리아어로 말할 것을 요청하였다(왕하18:1-37; 19:1-37; 사36:22). 산헤립 참조.

● 엘리아십(Eliashib, 일라이어십,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느헤미야 당시의 대제사장.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도왔다(느3:1). 아마도 이 사람은 후에 성전의 방을 가운데 하나를 암문 쪽으로 이방인 도비아에게 내어 주고 이로써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비난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신23:3-4; 느12:10; 13:1-9).

● 엘리압(Eliab, 일라이압,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다윗의 가장 큰 형. 그는 자기의 막냇동생 다윗을 향해 시기와 질투를 보였는데 이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잘 보여 준다(삼상16:6-7; 17:28).

● 엘리야(Elijah, 일라이야,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길르앗의 디셀 출신의 대언자(왕상17:1).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대언자였고 특히 이스라엘의 죄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몇 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함으로써 아합과 이세벨의 노

여움을 샀다. 하나님의 지시로 그는 그릇 시내에 거하며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었다. 그 뒤 그는 페니키아에 있는 사렙다로 가서 기적을 베풀어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를 대접한 여인의 아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 뒤 아합에게 나아간 그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갈멜 산에 모으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거짓 대언자들을 죽였으며 곧바로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많은 비가 떨어지게 해서 가뭄 문제를 해소하였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보고도 민족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는 절망에 빠졌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보여 주는 환상으로 인헤 위로를 받았다.

그 뒤 그는 다마스쿠스로 먼 여행을 떠나 시리아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엘리사를 불러 대언자의 일을 하게 했다. 그는 또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게 행한 죄악을 책망하고 아하시야 왕의 죽음을 예언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자기를 붙잡으려 온 그의 군사들을 불태우게 했다. 그는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대언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기적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죽음을 맞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들어갔다(왕상17:1-24; 18:1-46; 19:1-21; 21:29; 왕하1:1-18; 2:1-18). 그의 휴거는 주전 809년경에 이루어졌다.

엘리야는 히브리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담대하고 신실하며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이 있었다. 그의 전 생애와 성격은 도덕적 측면에서의 그의 위엄에 의해 큰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 기적을 통해 사라졌다. 그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사자'로서 오직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고 돌아갔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었고 그 안에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수 세기가 지난 뒤에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얻었고 이로써 천국의 존재를 입증하며 그분의 위엄과 죽음을 보여 주었다(눅9:28-35). 성경은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의 대언자 엘리야와 비슷한 삶과 특성을 가지고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올 것을 예언하였다(말4:5-6; 마17:10-13). 주님의 초림 때에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로 왔듯이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계시록의 두 증인 중 하나가 엘리야의 영으로 올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계11). 변화 참조.

● 엘리에셀(Eliezer, 엘리이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I.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그는 다마스쿠스 출신으로 아브라함이 자식 없이 죽을 때 그의 뒤를 이을 상속자였다(창15:2).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뒤 65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로 보낸 종이 바로 이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지만(창24:1-67)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II. 성경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섯이나 나온다(출18:4; 대상15:24; 27:16; 대하20:37; 눅3:29).

- 엘리후(Elihu, 일라이후, 그는 하나님이지다) 욥기에 나오는 부스 사람(창22:21). 그는 제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 그는 젊고 열정적이며 경건한 사람으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말을 했다(욥32:1-22). 그는 욥이 위선자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비난했고 또 신약 성경의 당자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피력하기도 했다(욥33:23-24, 27-30).

- 엘림(Elim, 일림, 나무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시내 산에 가면서 도중에 쉬었던 곳(출15:27; 16:1; 민33:9). 여기에는 샘과 시내와 종려나무가 있었다.

- 엘엘로헤이스라엘(El-Elohe-Israel, 엘일로헤이즈리엘) 야곱이 세겔에 세운 제단의 명칭(창33:20).

- 엠마오(Emmaus, 에메이아스, 뜨거운 목욕탕)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곳.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눅24:13-33).

- 엠 족속(Emim, 이뫼, 두려운 존재들) 거인 족속. 그들은 아브라함 당시에 요르단 너머의 지역을 점유했으나 후에 모압 족속이 그들을 치고 그 지역을 차지하였다(창14:5; 신2:10-12).

- 여갈사하두다(Jegar-Sahadutha, 지가르세하두다) 증거의 무더기. 이것은 갈르렛의 갈대아식 이름이며 야곱과 라반 사이의 언약을 맺은 장소를 가리킨다(창31:47).

- 여고냐(Jeconiah, 제커나이야) 여호야긴 참조

- 여관(Inns) 동방에는 세 종류의 여관이 있었다. 어떤 것은 샘 곁의 안식할 수 있는 간단한 처소였고 다른 것은 약간의 기부금을 받거나 혹은 여행자에게서 약간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현대식 여관 같은 것도 있어서 여기서는 가족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여행자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

- 여대언자(Prophetess) 구약 성경에서는 미리암(출15:20), 드브라(삿4:4), 홀다(왕하22:14, 대하34:22), 노아드(느6:14)가 여대언자로 불린다. 사8:3은 이사야 대언자의 아내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안나와(눅2:36) 이세벨(계2:20)이 여대언자로 나온다. 사도 시대 이후로는 교회에서 더 이상 대언자나 여대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여두둔(Jeduthun, 제두단, 찬양) 레위 사람으

로 성전에서 음악 책임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대상16:38-42). 그의 후손들도 음악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대하35:15; 느11:17) 이 이름은 시39:1-13; 62:1-12; 77:1-20에 나온다. 아삼 참조.

- 여둘(Jetur, 지이터르) 이스마엘의 아들(창25:15; 대상1:31). 이두래 참조.

- 여디디아(Jedidiah, 제다다이야, 주님께 사랑받는 자) 솔로몬이 출생할 때 나단 대언자가 그에게 붙여 준 이름(삼하12:25).

- 예로보암(Jeroboam, 제로보암, 백성을 위해 공의를 구하는 자) I.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느밧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통치 때에 그의 관원이었으나 음모를 꾸미다가 이집트로 피신하였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열 지파의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그들을 대변하여 르호보암에게 몇 가지 청을 하였다. 그러나 요청 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그들은 그를 열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반역하였다. 그는 22년 동안 통치하였으며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사람'이라는 악명 하나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는 단과 벨엘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대신 돈을 받고 천막한 무리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이후의 이스라엘 왕들은 그의 전례를 따라 지속적으로 악한 일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연합함과 타락을 보여 주는 증표이다. 기적과 경고와 자기 아들의 죽음 등도 그에게는 효력이 없었다.

그는 평생토록 유다와 전쟁을 했고 그의 자손은 그의 아들 나답이 잠시 동안 통치한 뒤에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다(왕상12-14; 대하10:1-19; 13:1-22).

II. 예로보암 2세. 그는 요아스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열세 번째 왕이었으며 41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시리아를 이긴 것을 본받아 하맛과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요르단의 동쪽 지역과 사해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사치와 압제와 사악함 등으로 인해 백성에게 더 많은 죄를 가져왔다. 그 이후에 왕국은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그의 왕조는 1년 내에 사라지게 되었다(왕하14:23-29; 15:8-12). 그 당시에 아모스와 호세아 대언자가 활동하였다.

- 여룹바알(Jerubbaal, 제룹베이일, 바알이 자기를 위해 변론하라) 기드온의 다른 이름(삿6:31-32). 기드온 참조.

- 여룹베셋(Jerubbesheth, 지랍비셋) 기드온의 다른 이름(삼하11:21).

- 여리고(Jericho, 제리코, 달) 베냐민의 도시(수16:7; 8:12). 가나안 정복 지도 참조(17).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요르단 강에서는 11킬로미터 서쪽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빼앗은 도시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창너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채 여리고의 모든 사람을 섬멸하고 이 도시를 다시 짓는 자를 향해 저주의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히엘의 두 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수6:26; 왕상16:34). 한편 그동안에 새 여리고가 그 근방에 지어졌다(삿3:13; 삼하10:5). 여리고는 또한 종려나무 도시라 불리기도 하였으며(신34:3; 삿1:16) 후에는 번성해서 에루살렘 다음가는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여기에는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가 거기에 거하였다(왕하2:4, 18).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두 명의 눈먼 사람을 고치셨고(마20:29-34) 삭개오를 용서하셨다. 여리고에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곡과 절벽이 많아 아주 위험했고 강도들이 많았는데 이런 지형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다(눅10:30-37).

- 여미마(Jemima, 제마이마) 욥이 하나님을 만난 뒤 건강을 회복하고 얻은 세 딸 중 딸말. 그 딸들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리따웠다(욥42:14-15).

- 여부스(Jebus, 지버스, 발로 밟히다) I. 가나안의 아들(창10:16).

II. 여부스 족속의 통치하에 있던 고대 에루살렘의 명칭(수18:16, 28; 삿19:10).

- 여부스 족속(Jebusites, 제부사이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들 지도 참조(16).

- 여분네(Jephunneh, 지퍼니) 모세의 명령에 따라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갈렙의 아버지(민13:6).

- 여수룬(Jeshurun, 지수룬)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 이것은 ‘곧바르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구약 시대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을 보지 않는 분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 준다(신32:15; 33:5, 26; 사44:2).

- 여왕(Queen) 왕의 부인 혹은 스스로 권력을 행사한 여자 군주. 세바의 여왕(왕상10:1),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행8:27), 와스디와 에스더(에1-2) 등이 왕비로 언급된다. 열왕기에는 유다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늘 언급되어 있다(왕상15:1-2). 아달라는 한 때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하여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대하22:1-23:21). 이집트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였다(렘7:18).

- 여울(Ford)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계 흐르는 곳.

- 여우(Fox)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종류의 여우가 있었는데 여우는 보통 영리하고 탐욕스럽고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다(겔13:4; 눅13:32). 그곳의 여우는 포도를 좋아하며 그래서 포도원에 해를 많이 끼쳤다(마2:15). 삼손의 이야기에도 여우들이 등장한다(삿15:4-5).

- 여자 혹은 여인(Woman) 성경은 여인들을 남자의 종이 아니라 사랑 받는 조력자로 묘사한다(창2:23-24). 여자는 남자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

해 남자를 돕고 남자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창3:16; 고전11:3-9; 14:34-35; 딤후2:11-14).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서로 연합된 한 몸이 되기 위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른 이교도들의 책과는 달리 여인들을 존중히 여기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여성상을 담고 있다. 특별히 기독교는 여인들을 노리개로 생각하던 이교주의와는 달리 여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결혼을 귀중히 여김으로 여인들을 고귀하게 생각한다. 기독교는 남자가 한 여인 이상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며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하는 것도 금한다(마5:32; 19:3-9). 천국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같이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마22:30). 사람의 타락 때에 여자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지만 남자는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고 후에 여자는 구원자를 낳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또한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을 따라다니며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여인들이었다.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고대 동방에서 여인들은 거의 운둔 생활을 했다. 그들은 밖에서 얼굴에 베일을 두른 채 다녔고 일반 사회와 잘 어울리지 않았으며 자기 남편이나 형제를 찾아온 남자들에게도 얼굴을 가렸다. 특별히 이런 일은 남보다 도시에서 더 심하였으며 이교도들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 심하였다. 그래서 여인들은 주로 밀가루 만드는 일, 빵 굽는 일, 옷 만드는 일, 바느질 등의 집안일을 하였다(잠31:1-31). 가난한 여인들은 수확한 뒤에 남은 것을 거두었고 족장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 양 떼를 돌보았으며(창29:9; 출2:16) 집안의 여자들은 가족을 위해 물을 길어 어깨에 메고 먼 거리를 날라야 했다(창24:15-20; 요4:28).

- 여호람(Jehoram, 지호람) 요람 참조.

- 여호사밧(Jehoshaphat, 지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유다의 경건한 왕. 그는 유다의 선한 왕 아사의 아들로서 그의 뒤를 이어 35세에 왕이 되어 25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왕상15:24; 22:1-53; 대하17-20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참된 신앙을 가지려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유명하며 온 땅에서 우상 숭배를 멸하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회복하며 백성을 위해 종교적 교훈들을 제공하였다. 그의 정부는 국내와 국외에서 번영하였으나 그는 사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 큰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아합의 딸 아달라는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후에는 여왕이 되어 온 유다를 통치하였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유혹에 넘어가 시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이후에도 종교 개혁을 수행하였다. 아하시야와의 무역 협정에서 실패한 이후에 그는 다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지만(왕상22:48-49) 아하시야의 뒤를 이은 요람과 연합

하여 모압과 전쟁을 하였다(왕하3:1-27). 그 결과 그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리아 사람들의 큰 군대의 습격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는 60세에 죽었다.

● 여호사밧 글짜기(Valley of Jehoshaphat) 하나님의 심판의 글짜기. 이곳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곳이다(을3:2, 12). 이곳은 예루살렘과 올리브 산 사이에 있으며 주후 3-4세기부터는 기드론 시내에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고 근래에는 유대인들이 이곳을 매장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무찔렀으며(대하20:1-37)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예루살렘, 여호사밧 참조.

● 여호세바(Jehosheba, 지하사바, 여호와와는 재산이다) 유다 왕 요아스의 고모. 그녀는 아합의 딸 아달라의 계약으로부터 왕자 요아스의 생명을 구해 냈다(왕하11:1-3). 여호야다 참조.

● 여호수아(Joshua, 자슈아, 여호와와는 구원이다) I. 눈의 아들.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는 처음에 호세아로 불렸으며(민13:8, 16)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라 불렸다(행7:45; 하4:8). 여호수아와 예수는 둘 다 구원자 혹은 구출자를 뜻한다. 예수 참조.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뒤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칠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언급된다(출17:8-16; 민14:6 참조). 요르단을 건널 때 그는 84세였으며 그 뒤 26년 동안 담나세라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 그는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엄숙하게 당부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았고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비슷한 점이 많다. 가나안 정복 지도 참조(17).

II. 여호사밧의 아들. 예수아 참조.

● 여호아스(Jehoash 지호아쉬) 요아스 참조.

● 여호아하스(Jehoahaz, 제호아해즈,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I. 이스라엘 왕 예후의 아들 겸 왕위 계승자. 그는 17년 동안 통치하였으며 그와 그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시리아의 하사엘과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낫출 때에 그의 아들 요아스의 손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졌다(왕하13:19, 25).

II. 살롬이라고도 불린 왕(대상3:15). 그는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의 넷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이집트 왕에 의해 폐위되었다(왕하23:30-34; 대하36:1-4; 렘22:10-13 참조).

● 여호아킨(Jehoiachin, 지호아킨, 여호와께서 세

우신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아들. 그는 석 달 동안 통치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 36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에빌므로다 왕의 호의를 입어 풀려났다(왕하24:6-16; 25:27; 대하36:9-10). 그는 고니아 혹은 여고니아로 불리며(대상3:16; 렘27:20; 37:1) 렘22:30은 그의 아들 중 누구도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을 말한다(대상3:17-18; 마1:12).

● 여호아김(Jehoiakim, 지호야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그는 엘리아김이라고도 불렸으며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 자기 형제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11년 동안 왕으로서 사치와 방탕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나날을 보냈다. 그의 통치 제3년에 느부갓네살이 그의 통치자들을 재물 중에서 일부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는데 그 뒤 1년이 지나서 그와 연합한 이집트는 유프라테스에서 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레미야 대언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의 책을 불태웠으며 마침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싸움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하였다(왕하23:34; 24:6; 대하36:4-8; 렘22:1-30; 26:1-24; 36:1-32).

● 여호야다(Jehoiada, 지호야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대제사장. 그는 왕권을 찬탈한 아달라로부터 어린 왕자 요아스의 생명과 왕권을 보호했으며 그의 지혜와 경건함으로 인해 그가 죽을 때까지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는 130세에 죽어서 왕들이 받는 명예를 받고 왕들의 무덤에 묻혔다(왕하11:1-21; 대하23:1-21; 24:1-27).

● 여호와(Jehovah, 제호바) 히브리 사람들이 감히 발음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이 이름의 앞에는 결코 관사가 쓰이지 않았고 이것은 또한 복수의 형태로 쓰이지 않았다. 마소라들에 의하면 여호와를 뜻하는 4자음 문자, 즉 JHVH(YHWH)는 여호와로 발음된다. 마소라 참조.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며 따라서 이 이름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불멸하고 무한한 존재를 가리킨다(출3:14; 6:3). 하나님 참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다.”(출6:3)라는 말씀은 비록 그분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알리지셨으나(창4:26)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는 혹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20:7)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분의 이름 JHVH를 대할 때마다 눈으로 이름을 확인하고 정작

읽을 때는 주(主)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로 읽었다. 그러므로 이런 전통을 따라 전 세계 대부분 성경이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고 있다. 다만 기존 우리말 성경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그대로 음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려 6,400회 이상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취하게 해 놓았고 그 결과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종종 아무 의미 없이 헛되어 취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기 원하시는 것은 성경의 용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가리켜 주(主)라고 하셨음을 보여 주신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마22:44) 이 구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110:1을 마태가 인용한 것이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중요한 구절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고 이런 용례를 남기셨다. 왜냐하면 성도 마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를 분명히 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롬10:13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그가 언급한 주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구약의 대언자 요엘이 기록한 말씀과 같다(욘2:32). 이를 통해 바울 사도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구약의 주 하나님 이심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 여호와와니시(Jehovah-Nissi, 제호바니싸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 모세가 아말렉을 멸한 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붙인 이름(출17:15).

● 여호와삼마(Jehovah-Shammah, 제호바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에스겔이 미래에 도래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게 붙인 이름(겔48:35).

● 여호와샬롬(Jehovah-Shalom, 제호바샬롬, 화평의 여호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네게 화평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곳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붙인 이름(삿6:23-24).

● 여호와아레(Jehovah-Jireh, 지호바자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 헌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를 가리키는 말(창22:14). 그는 창22:8에 있는 이삭의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물을 예비하시어서 사람들이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의 이름을 그곳에 붙여 준 것 같다.

● 여후디(Jehudi, 지후다이, 유대에 속한) 여호야김 왕의 처리자들이 에레미야가 쓴 두루마리를 가져

오도록 바룩에게 보낸 사자. 후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것을 들은 왕은 펜 칼로 그것을 찢고 화로에 던져 태워 버렸다(렘36:14, 21, 23).

● 역대기(Chronicles, 크라니클즈)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개의 역사서. 이 책들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성경의 처음 나오는 책들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공 연대기 등을 사용하여 이것들을 기록하였다(대하9:29; 16:11; 20:32). 역대기상은 창조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하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의 역사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까지를 기록한다. 다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바로 이것이 열왕기상하와 다른 점이다.

한편 같은 왕에 대한 역사 기록들은 열왕기상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이 두 책은 주로 공격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이 예비한 것들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또한 다른 왕들의 종교적 행적을 상세히 기록한다(대상13:8-11; 대하11:13; 19:8-11; 26:16-19 등). 역대기는 사무엘기와 열왕기와 함께 읽는 것이 좋는데 이 책들은 한결같이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요 원인을 강조해서 보여 준다(잠14:34). 역대기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읽을 필요가 있다. 성경의 연대, 왕들의 연대 선도 참조(1-3, 5-6).

● 역병(Pestilence) 페스트 등과 같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악성 돌림병. 히브리어로 역병은 온갖 질병을 가리키며 이 말은 또한 plague로도 번역되었다. 대언자들은 칼과 역병과 기근을 세 가지 주요 제앙으로 말하였으며 그것들은 대개 동시에 발생하였다(출9:15; 11:1; 왕상8:37 참조).

● 역본(Version) 이것은 누군가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이나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으로부터 자신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의미한다.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다. 성경은 아주 오래 전에 고딕, 페르시아, 콥틱(에티오피아) 언어 등으로도 번역되었다. ‘역본’은 사실 ‘성경기록’(Scripture)을 ‘옮긴 것’(Translation)이며 현재 우리가 역본을 지칭하여 사용하는 ‘Version’이란 단어는 원래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역표준역(RSV)과 미국표준역(ASV) 등은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영어 역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ASV와 RSV는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다수 사본’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수 사본’, 즉 천주교 사본으로부터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성경 본문, 킹제임스 성경 참조.

● 역청(Pitch) 고대 사해 지역에 존재한 아스팔트 같은 물질(창6:14; 11:3; 14:10; 출2:3). 원래 Pitch

는 자연에서 나는 탄화수소 화합물, 즉 고체의 아스팔트, 액체의 석유, 기체의 천연가스 따위로 갈거나 물이 새지 않게 하거나 썩지 않게 하는 데에 쓰인다. 이것은 바빌론 근처에서도 많이 나며 연료로도 사용되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방주에는 이것이 방수 작용을 하였고 바벨탑의 경우에는 시멘트 역할을 하였다. 보통 이것은 단단한 고체 상태로 있지만 불을 가하면 녹아서 모르타르가 되고 굳으면 단단한 바위처럼 된다. 지금도 사해 근방에서는 이것이 발견되고 있다.

● 연단(Scaffold) 연설이나 강연을 하는 사람이 서는 단(대하6:13).

● 연로(Aged) 늙을 만큼 나이가 많음.

● 연방(Commonwealth) 이 단어는 영연방 등에 쓰이는 단어로 원래는 공공의 복지를 뜻하고 엡2:12에서는 북 왕국과 남 왕국으로 구성된 국가를 뜻한다.

● 열매(Fruit) 첫 사람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열매는 태의 열매(창30:2; 신7:13), 허리의 열매(행2:30), 네 몸의 열매(시132:11; 미6:7) 등의 표현에서처럼 종종 사람의 후손, 자식 등을 뜻한다(시21:10). “그들이 자기 길의 열매를 먹는다.”(잠1:31; 사3:10; 령6:19)는 말은 결과를 체험한다는 말이다. 자라는 거만한 마음의 열매이다(사10:12). 성령님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께서 생산하시는 은혜로운 결과물이다(갈5:22-23).

● 열병(Fever) 열을 동반하는 여러 종류의 병. 모세는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열병의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하였다(레26:16).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즉시 나게 하셨다(눅4:38-39).

● 열쇠(Key) 열쇠로 문을 여단으므로 이것은 종종 권능과 권세의 상징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사야는 엘리아김에게 주어진 다윗의 열쇠를 언급한다(사22:22). 이런 열쇠를 지닌 자는 왕실을 다스리며 왕을 위해 섬길 자를 선택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높은 차원에서 다윗의 집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역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계3:7). ‘지식의 열쇠는 율법사들이 독점한 영적 지식인데 그들은 이런 것으로 천국 문을 열고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눅11:52).

● 염소(Goat) 유대인들은 양과 함께 염소도 많이 길렀는데(창27:9; 삼상25:2; 대하17:11) 염소는 희생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었고(출12:5; 레3:12; 민15:27) 염소젖과 새끼는 좋은 음식물이었다(신14:4; 사6:19; 잠27:27; 눅15:29). 또한 염소는 가죽 부대를 만드는 데 흔히 사용되었다. 이교도들은 진 뿔이 달린 염소를 루시퍼의 상징으로 보고 경배 대상으로 삼았다. 염소는 때를 지어 살았고 그래서 영어의 flock은 많은 경우 양과 염소 때를 의미하였다(출12:5; 레3:6; 5:6). 속죄와 속죄 염소 참조. 모세는 염소 털을 성막의 커튼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출25:4; 26:7; 35:6).



● 영(Spirit)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여러 용례로 사용되었다. I. 성령님. 삼위일체의 한 인격체인 성령님은 대언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선한 사람을 움직이며 성도들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주고 생명을 주신다.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복을 받는다. ‘거룩하다’는 holy와 영(spirit)이 붙으면 대개 성령님으로 이해해야 하며 holy가 없더라도 Spirit처럼 대문자 S가 쓰이면 성령님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령님 참조.

II. 숨. 이것은 사람과 짐승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호흡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숨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실 때에 호흡을 가져가신다(전3:21).

III.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몸과 혼과 영의 한 부분. 사람의 세 요소 선도 참조(61).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기관이다. 모든 사람은 영을 갖고 태어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한다(엡2:1). 사람 참조.

벧전3:19의 ‘감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살면서 노아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들이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노아라는 선포자를 통해 그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셨다(벧후2:5).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에 가서 직접 선포하지 않고 바울을 통하여 하였으나 그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기록하는 엡2:17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IV. 천사(히1:14; 마10:1).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을 다 부인하였다(행23:8).

V. 기질, 성품. 질투의 영, 음행의 영, 기도의 영, 병약하게 하는 영, 지혜와 명철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호4:12; 숙12:10; 눅13:11; 사11:2).

VI. 다시 태어난 신자들의 새로운 본성. 이런 차원의 영은 육신이나 속 혹은 육체의 반대가 된다(요3:6). 성령님에 의해 혹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새롭게 된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롬8:15) 육신과 함께 그것의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갈5:24).

영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마귀에게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며 이로써 진리와 오류를 판단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초기에 영을 분별하는 선물(은사)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고전12:10) 또한 사도들이 보여 준 사도의 권능에 따라 참 사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하였다(고후12:12).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는 것’(성령을 억제하지 말라는 것, 살전5:19)은 불처럼 일하시려는 성령님에게 물을 끼얹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죄와 무지와 욕심 등으로 인해 성령님의 소욕(所欲)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의 감동과 그분의 영혼을 가로막음으로 혹은 미적지근한 삶을 통해 그분의 선물(은사)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함으로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는 덕을 행하고 그분의 감동에 따라 바르게 행하며 감사하고 봉사하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말한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전3:21) 이 구절의 영은 영이나 바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야흐’를 번역한 것으로 여기서는 사람 및 짐승과 관계가 있으므로 마땅히 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전3:19에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 다 숨을 가졌고 영을 가졌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사람과 짐승 등 코에 생명의 숨을 가진 육체만 죽임을 당했다(창2:7; 6:17; 7:15; 7:22).

한편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을 가졌으므로 특별히 허락을 받으면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민22에서 단 한 번 나귀가 말하는 기사를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영을 가진 나귀는 곧바로 천사를 알아보고 말을 하게 되었다. 한편 짐승의 영은 죽어서 소멸되므로 짐승은 영을 가졌으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없다.

● 영 분별(Discerning of spirits) 초대 교회의 몇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부여하신 기적의 선물(고전12:10).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참된 품성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했다(요일4:1; 요이7; 비교 행5:1-10; 13:6-12). 선물 참조.

● 영감(Inspiration)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 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백운).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이 구절에서 ‘모든’(All)은 라틴어로 ‘플레너리(plenary)’이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등을 의미한다(잠30:5; 롬15:4 비교). 따라서 성경의 경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뜻한다. 한편 ‘성경기록’은 ‘기록하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그라페’(graphe)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기록된 말씀(단어)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로 주신’ 영감 곧 축자 영감(verbal inspiration)을 확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감의 목적이 성경기록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영감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이지 결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4:4; 출24:3-4; 사30:8 등은 성경의 모든 단어(each word)가 축자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영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을 뜻하며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이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단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숨으로 내쉬신 것이요, 그분께서 주신대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성경 기록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시는 개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자기 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의 모든 단어를 선정해 주시는 대로 기록하였다.

한편 뱀후1:20-21은 성경의 대언이 결코 사람에게 의해서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움직이심으로써 생겼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 저자로서 성경의 원천이시다. 따라서 성령님은 성경기록을 위해 능동적 역할을 하셨고 대언자들은 수동적 역할을 했다.

끝으로 영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영감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2) 영감은 하나님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3)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감이란 자필 원본에만 적용된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숨을 쉬며 불어내심에 따라 대언자나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원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하였다. 성경, 계시, 보존 참조.

● 영광(Glory, Glorify)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천국 등과 관련되어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 이 말은 레비논의 영광(사35:2), 솔로몬의 영광(마6:29) 등에서처럼 사물이나 사람의 뛰어난 것, 빛나는 것 등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지만 주로 하나님의 나타남, 임재, 이와 연관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대를 덮는 구름,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머문 구름 등에 의해 친히 자신의 임재를 보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는데(출24:16; 40:35)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

해와 선하심과 긍휼을 계시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는 다만 자신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셨으며(출33:17-23) 이런 영광을 접할 때 사람은 그 영광의 광채에 감탄하고(시111:2-3) 스스로의 죄를 통회하며(수7:19)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시29:1-2; 66:2).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요1:14)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히1:3).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롬6:4) 그분의 승천도 그러하며(행1:9) 십자가 역시 죄에 대한 그분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요12:23).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구주의 사역 속에 빛나게 드러났다(요1:14; 고후4:6; 히1:3).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눅24:26; 히2:10)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현재의 고난도 기쁘게 받는다(롬8:17).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고전6:20; 벧전2: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그분의 전지하심 속에서 진리를 고백하라는 것이다(수7:19; 요9:24). '내 영광야(시16:9; 30:12; 57:8; 108:1)는 비교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내 혼'이라는 말이다.

● 영원(Eternity) 시작이나 끝이 없는 무한대의 시간.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다(시90:2; 사57:15; 계1:4).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사람이 느끼고 이는 시간 자체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창1:1).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의 영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 그리고 이후에 올 미래의 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의 1,000년은 하루와 같으므로(시90:4) 인류의 지난 역사 6,000년은 그분에게 단지 옛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인류 역사와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 영원한 생명(Eternal life)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존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다. 신자나 불신자나 존재 자체는 영원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가 받는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와 내세에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신약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은 대부분 내세 지향적이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마19:16-21; 눅18:18-22). 특별히 이 말은 요한 복음에 요한일서에 많이 나온다.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현재의 일이고 이 시간 현재 그리스도인의 소유임을 강조한다(요3:36; 5:24; 요일5:13).

● 영원한 안전(Eternal security)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다시 태어난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요5:24; 10:27-30; 13:1; 14:16-17; 17:11; 롬8:29, 35-39; 빌1:6; 요일5:13; 유1, 24).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 신자의 안전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근거하여 가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롬5:9; 엡1:7).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의 본질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 없이 변호하고 증보하시며(히7:25; 요일2:1-2) 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거주하시기 때문에(고전6:19-20)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관한 한 영원히 안전하다.

● 영접(Receive) 환영하며 맞이하여 대접함.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시고 입으로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요1:12).

● 영존(Everlasting) eternal이 질적인 영원을 표시한다면 everlasting은 시간적 개념의 영원, 즉 영존을 나타낸다. 영존멸질설 참조.

● 영주(Lord) 영지, 장원 따위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영지주의(Gnosticism) 주후 1-4세기경 그리스, 로마, 유대, 소아시아, 이집트 등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유행한 이단 사상. 이것은 신의 세계와 물질세계의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예수님/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그노시스'(Gnosis)라는 말은 지식에서 나왔으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의 세계와 물질세계 그리고 그 사이에 천사, 인간, 마귀가 있고 인간은 물질세계에서 포로가 됨을 피하여 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금욕해야 하며 또 물질세계에서의 해방을 방해하는 마귀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의 완전한 '신지'(혹은 영지), 즉 신에 대한 지식인 '그노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은 철저하게 영육의 이원론을 펴며 영의 청순성과 신비성을 강조하고 육체적인 면을 타락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그들은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상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그들은 이처럼 역사적 예수님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구약 성경까지 거부하게 되었다.

이들의 믿음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신약의 복음서를 믿는 정통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심연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이를 부인한다. 그들은 자신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의 신성(神性)은 동일하다고 믿는다. 이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을 방불케 하는 가르침이다. (2) 영지주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달리 죄와 회개기 아니라 불교의 제행무상, 즉 “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들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는 사상과 제법무아,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비슷한 교리를 말하고 또 깨달음에 대해서 말한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현대판 동양의 구루와 비슷한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3) 정통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 또한 인간과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가진 존재로 믿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또한 인간들과 같은 근원에서 왔다고 말한다. (4)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여호와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전쟁을 좋아하며 살육을 즐기는 구약의 신이아말로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계를 만든 악마로 본다. (5) 영지주의자들은 율회를 인정하며 또한 위대한 어머니(태모)에 대한 숭배를 이야기한다(현대 영지주의자들은 과거 영지주의 시대와 대승불교 시대가 같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예수님이 인도로 가서 힌두교 사상을 배웠다고 주장함).

한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신의 지식을 가졌으므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행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가 많았으며 그래서 거기 속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방종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태도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며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했다(롬6:1-11). 사도 요한 역시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요일3:4-10).

● 영혼멸절설(Soul annihilation) 지옥의 불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짜 불,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불 곧 상징적인 불이며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자신의 창조물을 진짜 불 속에 영원토록 던져 넣는 잔인한 분이 아니시기에 불신자의 혼은 죽어서 소멸된다는 가르침. 이런 주장을 피기 위해 안식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eternal이다. 이 말은 원래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나타낼 때 혹은 천상의 것의 우수함이나 고매함 등을 지상의 것과 비교할 때, 즉 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다(마 19:16). 반면에 영어에서 양을 강조하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영존하는’이란 뜻의 everlasting을 사용하며 마18:8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 지옥의 불이 영원토록 지속됨을 보여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혼멸절설’ 같은 이단 교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사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계속

해서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므로 영혼은 멸절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질적으로 우수한 ‘영원한 생명’인 동시에 양적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존하는 생명’이고 불신자에게 주시는 생명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다. 혼, 지옥 참조

● 영화(Glory)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

● 예레미야(Jeremiah, 제리마야) 구약 시대 주요 대언자들 가운데 하나. 그는 요시아,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와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대언하였다. 그는 아나돗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지정을 받아 대언자가 되었으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직무를 맡기로 예정되었다(렘 1:1, 5). 그는 요시아 왕의 제13년에 어릴 때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다. 선한 요시아 왕은 그를 도와 종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그의 후반부 삶은 고난과 박해로 가득찬 고통의 나날이었다. 여호야김 왕은 주님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그를 죽이려 했으며 시드기야 왕은 그에게 교훈을 듣고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받으며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대하여 들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신실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풀어 주고 그에게 바빌론에 가서 살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남아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얼마 뒤에 그들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신실하게 백성들을 권고하고 책망하였다. 그는 42년 동안 반역하는 백성을 향해 꾸준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였다. 그는 자신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그들의 변역을 기원한 눈물의 대언자였다.

● 예루살렘(Jerusalem, 제루살렘, 화평의 도시) 약속의 땅의 으뜸 도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기억의 보고이자 종교적인 경외심과 민족의식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승리의 현장이다. 이곳은 가나안 지역의 남쪽 높은 곳에 위치하며 지중해와 요르단에서 각각 56, 3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위 31° 41'에 위치하지만 겨울에는 몹시 춥고 봄가을에는 이따금 37℃의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예루살렘은 유대 고원, 즉 지중해로부터 720미터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여호사밧(혹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으로는 한눔의 골짜기가 있다. 한편 도시 안에도 두 개의 작은 계곡이 있어서 이 도시를 시온과 아크라와 모리아로 3등분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시온은 도시의 남서쪽에 있었으며 ‘다윗의 도시’ 혹은 ‘위에 있는 도시’라고 불렸다. 이곳은 아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가장 강한 요새였으며 성채와 궁궐이 여기에 있었다. 한편 시온보다 높지 않은 아크라가 있었

며 시온의 북동쪽에는 거룩한 산지 모리아가 있었다. 처음에 모리아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후에는 성전을 두기 위해 크게 확장되었다. 모리아 산, 다윗의 도시, 시온 지도 참조(54, 55).

한편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에 의해 도시와 구분되는 올리브 산이 있었으며 여기서는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또 모리아와 올리브 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 겻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남쪽, 시온의 남동쪽 구석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었으며 시온의 서쪽과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들에는 기혼의 연못이 두 개 있었다. 예루살렘 주변의 바위들과 기드론과 힌놈의 골짜기 벽에는 골과 돌무덤이 많이 있었다. 그리스도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 참조(47).

이곳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신 곳이다(창22:1-24; 대하3:1). 이곳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으나 유다가 이곳을 정복하였으므로 유다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수15:8; 18:16, 28; 삿1:1-8). 이곳의 고대 이름은 살렘이었고(창14:18; 시76:2) 후에 여부스 족속이 이곳을 차지하였으므로 여부스라 불렀다(삿19:10-11). 이곳은 강력한 도시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이곳을 정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 다윗은 이곳의 요새를 파괴하였으며(삼하5:6, 9) 그 일 이후에 이곳은 예루살렘 혹은 다윗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뒤 이곳은 왕국의 종교 및 정치의 중심이 되어 크게 영역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의 성전에 참 하나님께서 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데 있다.

왕국이 남북으로 나뉜 뒤에 이곳은 유다 왕국의 수도로 남았으나 여러 차례 외세의 공격을 받고 함락되기도 하다가 드디어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왕하14:13; 대하12:9; 21:17; 24:23; 25:23; 36:3, 10, 17-20).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뒤에 이곳은 주전 536년경에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 재건되어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다.

그 뒤 주전 332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곳을 차지하였고 그가 죽은 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안식일에 이곳을 습격하여 차지하였다. 그 뒤 주전 170년경에 예루살렘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주피터 형상을 세우며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전 163년에 마카비(혹은 마카베오)들의 인도하에 유대인들의 독립을 얻었지만 그 뒤 100년이 지나서 로마 사람들이 이곳을 정복하였으므로 해로 대제는 돈을 많이 들여 이곳을 아름답게 꾸몄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충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메시아께서 이 도시와 그곳의 성전에 오셔서 자신의 발이 닿은 곳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예루살렘은 그분

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의 죄의 잔을 가득 채웠으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땅을 떠나 유랑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 티투스(다도)에 의해 멸망되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건축물 중에서는 세 개의 망대와 서쪽 성벽의 일부만 남아 있다. 그 뒤에도 유대인들은 거기로 돌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려 했으나 아드리아 황제는 주후 135년에 이곳에 식민지를 세운 뒤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형시켰다. 그리고 그는 도시의 이름을 엘리아캐피톨리나라 부르고 가능한 한 이곳을 완전히 더럽혔으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흔적을 모두 없애기 위해 이방신들에게 이곳을 바쳤다.

그 뒤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를 그리스도교 국가로 만들고 이곳을 다시 예루살렘이라 부르며 몇 개의 교회를 건립하였지만 주후 614년 페르시아의 호스로 2세가 비잔틴 제국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 많은 교회를 불사르고 다수의 시민을 끌고 갔다. 또한 주후 638년 이슬람교로 단결한 아랍 사람들이 이곳을 함락하였으며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도 비잔틴제국에서 이탈하여 이슬람교 국가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 예루살렘의 바위 사원에 있는 큰 바위는 마호메트가 꿈에 대천사 가브리엘의 안내로 제7천에 있는 알라신 앞까지 갔다는 승천(미라지)의 장소로서 신성시되고 있다. 아랍 사람들은 압둘 말릭 왕 때에 다윗이 성전을 마련한 곳에 바위 사원을 건립하였다.



이때부터 이슬람교도와 그리스도교도는 서로 상대편의 성지를 존중하였으나 주후 1099년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제1차 십자군이 이 도시를 침략해서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의 대학살을 자행하고 이곳을 수도로 하는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1187년 살라딘이 이슬람 세력을 모아 이곳을 탈환하였고 그 뒤 여러 차례에 걸친 십자군 원정이 있

었으나 카톨릭교도들의 성지 탈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이곳은 맘루크 왕조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 다마스쿠스 총독의 지배를 받았으나 1516년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셀림 1세가 시리아에 있는 맘루크 왕조의 세력을 꺾고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었다.

한편 19세기 중엽부터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투르크에 압력을 가하여 이곳의 성지 보호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말기에 투르크 군이 패퇴하고 앨런비 장군이 거느리는 영국군이 이곳을 점령하였으며 1920년부터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자 예루살렘은 그 수도가 되었다. 그 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만들어진 벨푸어 선언에 따라 유대교도의 이민이 격증하면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었으나 팔레스타인의 유대교도들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동서로 양분하여 각각 한쪽을 영유하였는데 1967년 6월의 제3차 중동 전쟁 - 6일 전쟁 - 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랍 국가들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의 동부, 즉 구(舊) 예루살렘마저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탈환하여 언제라도 성전을 지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 현대 중동, 현대 이스라엘 역사, 현대 이스라엘 국가 지도 참조(45, 46).

고대의 거대한 도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 예루살렘 시가지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그리스도교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구역을 다 포함한다. 현재의 예루살렘 지도 참조(47). 이 구시가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해롯이 높이 쌓아 올린 해롯 성전 구역이며 이 구역 안에는 이슬람교의 성소인 바위 사원과 모스크가 있다.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서쪽 성벽은 유대교 성지로서 가장 성스러운 곳 가운데 하나이다. 성벽 안의 나머지 지역은 전통적인 동방의 도시로 이슬람교 사원들과 미로처럼 복잡한 상징가와 많은 교회와 고대 유대교 회당 및 학당이 있다.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은 바로 구 예루살렘 시에 성전을 짓느냐, 아니면 모슬렘 신전을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스라엘은 합당한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 - 지금 모슬렘들의 바위 사원이 있는 곳 - 에 성전을 지을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가증한 일이 있을 것이다(단 9:25-27; 마24:15; 살후2:4). 이때부터 7년 환난기의 후반부, 즉 세상의 창건 이후로 없었던 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에게 다치게 된다(단12:1; 슥 13:8-9; 마24:16-22; 계12:1-17).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행1:11-12; 슥 14:1-5)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화평의 왕으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슥14:12-21). 이때에 예루살렘

은 영광의 왕이 거하시는 곳, 모든 민족들의 경배의 장소가 있는 전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 예물(Gifts, present) 사례의 뜻으로 주는 물건. 예물은 고대로부터 애정과 존귀와 존경의 표시로 흔하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선물로 번역되었다. 왕에게 바치는 공물이 예물로 표현되었고(삼상10:27; 사36:16)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선물을 받았다(창43:11; 삿6:18; 삼상9:7; 왕상14:3). 왕은 명예를 주려는 사람에게 옷을 선물로 주었고(창 45:22-23; 삼상18:4)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에서 다른 처리자에게 보화를 주었다(왕하16:8; 18:14; 대하9:9, 12). 정복자들은 승리의 기쁨과 관용을 보여 주기 위해 개신 수레에서 선물을 버렸다(시68:18). 대언자들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다(왕하5:15; 8:9; 단2:48; 5:17). 또한 선물이라는 단어는 종종 뇌물을 뜻하며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였다(출23:8; 사5:23). 또한 이 단어는 율법이 요구하는 헌물을 가리키기도 하며(신16:17; 마 5:23-24) 복음의 복과 영원한 생명, 즉 가장 좋은 선물을 가리키기도 한다(행8:20).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은혜(엡4:8, 11)와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의 선물(고전12:1-31; 13:1-13; 14:1-40)을 가리키기도 한다. 선물 참조.

● 예비일(Preparation)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날은 예비일 혹은 유월절의 예비일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유월절 안식일 전을 뜻한다(마27:62; 요19:31).

● 예수(Jesus, 지이저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이분은 모든 대언의 중심 주제로서 구약 시대에는 모형이나 예표로 그 모습이 제시되었다. 족장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고대하고 바랐으며 이분이 야말로 이방인들의 소망이요 구원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요 행복이며 위로이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백성의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여 이런 호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통하여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주신 이름이며(마1:21) 이분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자이셨다.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분만을 자신들의 구원자요 구속자로 시인하고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분을 높일 것이다.

예수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보통 이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그분의 공식 호칭이다. 이 두 이름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서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나 예수는 그분의 생애를 서술한 복음서에서 보통 홀로 쓰였다.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기술하는 서신서에서 그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혹은 주 예수 그리스

도 등으로 불렸다. 그리스도 참조.

그리스도의 인간적 이름 예수에는 그분의 인성과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가 묘사되어 있다. 복음서에는 사람의 혼과 몸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영원히 찬송받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체에 관한 한 이스라엘 사람이셨다(롬9:5). 그분은 자신 위에 완전한 인성을 지니심으로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으며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 확고함과 온유함과 위엄과 겸손과 열정과 고요함과 지혜와 단순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동정심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분의 인성 안에는 어떤 것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았으며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인물을 상상해 보거나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분의 모습은 복음서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영원한 희생으로 인해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친구요 우리를 위해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빛과 같이 투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답변하실 때 그분께는 어떤 혼란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그분은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 오기 전에 관여했던 일과 사물들에 대해 말씀하셨고 자신이 떠난 뒤에 일어날 일들과 자신이 어느 것에 관여하실지 예언하셨다. 그분은 결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지 않으셨으며 마치 세상의 온갖 지혜가 그분 안에 집중된 것처럼 보였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다룬 모든 주제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끝내셨으며 실로 그분의 비유들은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는 완벽한 것들이었다. 그분은 결코 추측하거나 추론하지 않으셨고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도 하지 않으셨으며 단지 자신이 의도한 곳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질문하셨을 뿐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성을 간파하고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이 없었고 완전함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질책하거나 자신이 행하고 말씀하신 어떤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셨으며 담대하게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 결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며 안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셨다. 그분은 첫째

자리를 요구하셨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이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기꾼이요 신성모독자요 따라서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분은 결코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수술하기 위해 칼을 사용한 적이 없고 처방전을 준 적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케 하셨으며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셨다. 그분은 집필가가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분께서는 단 한 줄의 글만 쓰셨으며 심지어 그 글마저도 모래 위에 썼기 때문에 바람이 다 지워 버렸다. 그러나 그분이 선포한 복음은 제자들의 마음을 극도로 감동시켜 그들이 글을 쓰게 하였고 이 글은 시대를 타고 내려오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간주되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설가가 아니었다. 그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나 보통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모든 종류의 연설의 대가였으며 어느 누구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연설을 능가한 적이 없다. 비록 그분이 시인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시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성도들에게도 훌륭한 찬송을 주었다. 그분은 음악가가 아니었으나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이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분은 예술가가 아니었으나 만일 그분이 없었다면 위대한 미술 작품들이 화폭 위에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단지 겸손한 갈릴리 목수로 나무를 깎고 도끼자루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건물들이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그분에게 봉헌되었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분은 결코 없었다. 어떤 작가도 그러한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그분은 외부인이었고 이 세상이 낯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다른 영역으로부터 온 분이였다. 그분은 우리를 친족으로 삼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본성을 지닌 채 자신의 왕국으로 되돌아가셨다.

그분께서 초림 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오셨으므로 재림 때에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즉 ‘육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셨으므로(딤후 3:16)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사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기원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분은 기원전과 기원후의 주님으로서 첫 사람 아담의 창조 이후 약 4,000년 뒤에

이 땅에 마지막 아담(혹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구원자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사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분의 공생애는 그분께서 약 서른 살 정도 되었을 때 시작되었으며 3년 반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눅3:23). 비록 여러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그분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배열하려 하였으나 복음서들이 시간별로 기록되지 않았고 그 안의 내용 중 시기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으므로 연대기적으로 그것들을 완전하게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끝으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으므로 마술사 엘투마의 아버지도 이 이름을 가졌고(행 13:6) 바울의 동역자요 친구인 유스도도 이 이름을 가졌다(골4:11). 예스라 당시의 대제사장과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대장 여호수아 역시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삼상6:14; 왕하 23:8 참조). 한편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장으로 표현된 곳에서 그리스어로 두 번 예수라고 표현되어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행7:45; 히4:3).

● 예수아(Jeshua, 제슈아) 여호사다의 아들. 그는 여호수아라고도 불리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에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예루살렘과 성전과 하나님 경배의 재건을 위해 힘썼다(스4:3; 5:2). 그의 이름은 그 당시의 대인 속에서도 등장한다(학1:1; 2:2; 속3:1-10; 6:11-15).

● 예언(Prophecy) 원래 이 말은 대언을 뜻하며 대언 중에서 특히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 할 수 있다. 대언 참조.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거하여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해 막연히 좋을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헛된 신탁을 받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 행하는 개인의 길흉에 관한 예언은 성경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참된 예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오며 또한 대언자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참된 예언에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 (1)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합당한 시간에 공포된다. (2) 일어나는 사건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예측되어야 한다. (3) 사람의 명철이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달해야 한다.

성경의 예언들은 실제로 사건들이 발생하기 수 세기 전에 예언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람들의 역사와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들은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처형과 유대인들의 흠어짐과 보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성경의 예언은 대규모의 예언으로서 성경 첫 부분에 기록된 가장 초기의 예언이 세상 역사의 끝

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은 점진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가면서 발전하였고 같은 주제를 여러 사람이 예언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벧전1:10-11).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의 일이며 단지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대언자들의 기록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며 연구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특히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은 곧 그분께서 오실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 예언하는 자들(Prognosticators) 사47:13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인데 이들은 달의 형상 변화에 따라 미래 사건들을 예언한다고 주장하였다.

● 예정(Predestination) 성경에서 ‘예정되었다’는 말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서의 우리의 상속이 예정되었거나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경우에 적용된다(엡1:11; 롬8:29).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떤 사람은 예정해서 천국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잔인한 하나님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합당한 예정이며 여기에는 편파적 요소가 전혀 없다. 선택 참조.

“아قام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예서는 미워하였다.” (롬9:10-13)는 말씀은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으나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뿐이었다(롬4:9-13). 따라서 민족의 선택을 개인의 선택으로 오해하면 안 되며 이것을 무조건적인 개인 예정 교리에 적용하는 것은 더더욱 합당하지도 않고 매우 위험하다.

● 예표(Type) 이 말은 비슷한 것을 뜻하며 모형(롬5:14), 본보기(벧3:17), 틀(롬6:17)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모세는 산에서 자기가 본 양식(혹은 모형)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다(행7:44). 또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떤 예언적인 상징으로 앞으로 올 것, 즉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사용되었다(히10:1; 비고 골2:17).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많이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어린양과 다른 희생 예물들은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분의 위대한 속죄를 보여 주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예물의 피에 의해서 죄가 사면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실체가 다가옴을 예언적으로 보여 주었다.

구약의 예표에는 사람과 직무와 물건과 사건과 의식과 장소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담과 뿔기세텍,

만나와 늦깎, 물을 낸 반석과 요르단을 건넌 것, 유월절과 속죄일, 가나안과 도피 도시 등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표이다. 비록 구약 시대의 사건과 물건 등이 신약 시대의 어떤 것과 아주 비슷한 점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정하지 않으시면 적당한 예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이 신약 시대의 예표라고 주장하면서 문맥에 맞지 않게 예표론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종종 위험하기도 하다.

● 예후(Jehu, 지후) I. 하나님의 대언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에게 갔고 그 뒤에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갔다(왕상 16:1-7; 대하19:1-3; 20:34).

II. 여호사밧의 아들, 남시의 손자(왕상19:16; 왕하9:2 비교). 그는 요람의 장군이었으나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권을 찬탈하여 28년 동안 통치하였다(왕상19:16-17; 왕하9:1-37; 10:1-36). 그는 아합의 집안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합의 친지들을 죽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시리아 사람들이 그의 동방 영토를 소유하였으며 결국 그의 왕권은 4대가 지난 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 옛적부터 계신 분(Ancient of the days)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단7:9, 13, 22). 원래 이 말은 해를 거지며 원숙해져서 존경을 받는 노인을 뜻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교도들의 새로운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임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 오난(Onan, 오넨)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유다의 둘째 아들(창38:4-10).

● 오네시모(Onesimus, 오네시머스) 그는 전에 골로새 성도 빌레몬의 노예였으나 그에게서 도망 나와 로마로 갔다. 그 뒤 그는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바울은 그를 위해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서를 기록하였다(골4:9; 몬10).

● 오네시보로(Onesiphorus, 아니체프리스, 유익을 가져다주는 자) 에베소 사람으로 바울의 크리스천 친구. 바울이 믿음으로 인해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지만 오네시보로는 그를 찾아 로마로 왔다. 아마도 이 일은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것 같다. 오랫동안 그를 찾다가 옥에 갇힌 그를 발견하고 오네시보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도왔으며 그래서 사도는 그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였다(딤후1:16-18; 4:19).

● 오노(Ono, 오노, 슬픔) 룻다 근처에 있던 베냐민의 마을(대상8:12; 스2:33). 오노의 평야는 오노 근방의 사론 평야의 일부를 가리키는 듯하다(느6:2; 11:35).

● 오델(Oded, 오뎃, 시간을 재는 자) 사마리아에 있던 주님의 대언자. 그는 베가 왕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돌아오면서 200,000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데리고 올 때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 책망하고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후대하고 옷과 음식과 도움을 주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 우두머리들은 그들을 여리고로 인도하였다(대하28:9).

● 오래 참으심(Forbearance) 이 말은 원래 '억제하다', '연기하다'를 뜻하며 불신 창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속성 중 하나이다(롬2:4; 3:25).

● 오렘(Oreb, 오렘, 까마귀)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족속의 통치자(삿7:25)

● 오르난(Ornan, 오르넨, 통치자) 아라우나 참조.

● 오르바(Orpah, 오르파, 목) 모압 여인. 그녀는 나오미의 며느리였으며 룻이 나오미와 그녀의 주님을 따르기로 하였을 때에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신들을 따르려고 모압에 남았다(룻1:4-14).

● 오른손(Right-hand) 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지체(마5:30). 오른손은 의지가 명령하는 것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속사람의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오른손은 권능 특히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며(출15:6; 시21:8; 77:10) 또 명예와(시45:9; 마25:34; 행7:55) 특별한



축복과(창48:14) 아버지의 사랑과(갈2:9) 적개심(시109:6; 숙3:1) 등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나 맹세할 때에 오른손을 들었으며(창14:22) 이런 이유로 위증하는 사람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시144:8). 방향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의 오른쪽은 남쪽이며(삼상23:19) 따라서 왼쪽은 북쪽이다(창14:15). 동쪽 참조.

● 오리온(Orion) 욥9:9에 나오는 오리온은 밝은 두 개의 1등성과 그 중간에 같은 간격으로 늘어선 세 개의 별로 되어 있으며 매우 눈에 잘 띄이므로 겨울 밤하늘의 왕자라고 할 수 있다. 세 개의 별 중에서 왼쪽에 멀리 떨어진 1등성 베텔기우스는 적색 거성으로 지름이 태양의 700배나 된다(욥38:31).

● 오메가(Omega, 오메이가) 그리스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그리스어 참조.

● 오멜(Omer, 오머) 마른 곡물이나 과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이것은 약 2.2리터이며 십분의 일 에바이다.

● 오므리(Omri, 아므라이, 순례자) 그는 원래 이스라엘 왕 엘라의 군대 장군이었으나 김브돈을 에워싸던 중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국을 차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시므리를 치고 그가 들어간 궁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불타서 죽게 하였다. 시므리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으며 그 일은 4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뒤 디브니가 죽자 백성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였고 그는 총 12년 동안의 통치 기간 중 후반부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하였다(왕상16:8-28). 전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디르사에 거하였으나 오므리는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에서 새 도시를 짓고 왕좌를 두었으며(왕상16:24) 그 뒤로 사마리아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

● 오바다(Obadiah, 오버다야) I. 아합 집안의 주요 신하. 그는 이세벨의 박해 때에 주님의 대언자 100명을 살려 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왕상18:4).

II.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넷째 인물.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 두 대언자는 오바다처럼 애دم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도시가 함락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욕한 것으로 인해 애د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대언하였고 이 같은 대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 5년 내에 이루어졌다.

III. 성경에는 이외에도 8-10명의 다른 오바다가 나온다(대상3:21; 7:3; 8:38; 9:16, 44; 12:9; 27:19; 대하17:7; 34:12; 스8:9; 느10:5).

● 오벨(Ophel, 오펠, 부풀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거주지. 성전을 섬기던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 살았으며(느3:26-27; 11:21) 여기에는 성벽과 망대가 있었다(대하27:3; 33:14). 이곳은 모리아 산 근방의 낮은 언덕에 있었으며 가로세로가 각각 100미터, 400미터 정도 되었다. 시온 지도 참조(55).

● 오벳(Obed, 오벳, 섬기다) 보아조와 롯의 아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룻4:17). 그리스도의 계보를 참조하기 바란다(마1:5; 눅3:32).

● 오벳에돔(Obed-Edom, 오벳이돔, 에돔을 섬기다) 레위 사람. 그는 우사가 죽은 뒤에 언약궤를 지키면서 흥왕하게 되었고 이를 본 다윗은 힘을 얻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와 그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막의 문지기가 되었다(삼하6:10-12; 대상15:18-24; 16:38; 26:4-8, 15).

● 오브라(Ophrah, 아프리카, 새끼사슴) I. 베냐민 사람들의 마을(수18:23; 삼상13:17).

II. 므낫세의 마을. 기드온은 여기 거하였던 그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의 애봇을 숭배하였다(삿6:11-24; 8:27).

● 오빌(Ophir, 오퍼르, 먼지가 많은) I. 욥단의 아

들. 그는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하였다(창10:26-29). II. 솔로몬이 무역하면서 좋은 금을 들여온 나라(욥22:24; 28:16). 오빌의 금은 최상의 금이었다(시45:9; 사13:12). 오빌의 위치는 왕상9:26-28; 10:11, 22; 22:48과 대하8:18; 9:10, 21; 20:36-37에 있으며 이런 말씀들을 통해 다스시의 배들이 홍해의 항구인 예시온게벨을 떠나 오빌로 갔음을 알 수 있다. 이 일은 3년에 한 번 있었고 그때마다 금과 공작과 원숭이와 상아 등이 들어왔다. 여러 사람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빌의 위치를 알려 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 오소리(Badger) 오소리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덮개와 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출25:5; 26:14; 겔16:10). 기존 성경의 해달은 오역이다.

● 오순절(Pentecost, 오십) 니산 월 17일, 즉 무교절의 셋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명절(레23:15-16).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칠칠절 - 원래는 이레들의 명절(Feast of weeks) - 이라 불렀는데(출34:22) 이는 그들이 초실절에서 일곱 주가 지난 뒤에 이 명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때에 이미 다 자란 밀을 수확하여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바쳤는데(신16:9-10) 이것은 누룩을 넣은 두 개의 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레23:17). 이외에도 그들은 이 명절에 다른 예물도 하나님께 바쳤다(민28:26-31). 오순절은 주님의 성전 보수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정되었고 그들은 그분께 밀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침으로써 자기들의 나라와 수고가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 오순절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즉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50일이 되었을 때에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다. 한편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오순절에 사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께서 강림하셨다(행2:1-3). 이 사건 전에는 유대교와 실체의 어린양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와 완전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이날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다(행2:5). 이 같은 선물은 복음 경륜의 전 시대를 위한 것이며 그때에 이루어진 강력한 일은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응답하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었다.

● 오이(Cucumber) 이집트에 많던 채소. 하층부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많이 먹었다(민11:5).

● 오찬(Dinner) 잘 차리어 손님을 대접하는 점심.

● 옥(Og, 아그) 요르단 동쪽에 있던 바산의 왕. 그는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는 키가 매우 큰 거인이었으며 그 지역을 차지한 르바 거인 족속의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의 쇠 침대는 4.2미터나 되었으며 무물로 보존되었다. 그의 주요 도시로는 아스다롯 가르나임과 에드레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성벽을 두른 도시가

많았으며 그의 땅은 비옥하고 특히 가축을 기르기에 좋았다. 후에 모세는 이곳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정하였다(민21:33; 32:33; 신1:4; 3:1-13; 4:47; 31:4; 수 2:10; 12:4; 13:30). 가나안 족속들 지도 참조(16).

● 옥수(Chalcedony) 미세한 석영 결정이 서릿발 모양으로 조밀하게 집합하여 이룬 백색 반투명의 보석(제21:19).

● 옥중 서신(Prison epistles)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쓴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여기 속한다. 여기에는 갇힌 자(엡3:1; 골 4:10; 몬23), 결박당한 것(빌1:13; 골4:18; 몬13) 등과 같이 감옥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나온다.

● 옥합(Alabaster box) 고운 질감의 석회 탄화물로 만든 통. 이것은 사람의 손톱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대리석과 비슷하며 고약이나 연고 혹은 향수 등을 담은 통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금이나 은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통들도 옥합이라 불렀다. 마26:6-7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에 담긴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온다. 마가는 그녀가 옥합을 깬다고 기록하는데(막14:3) 이것은 아마도 옥합의 봉인이나 옥합의 목 부분, 즉 향유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한 번도 뜯어진 적이 없었고 그때에 그녀가 처음으로 그것을 열었음을 의미하지 옥합을 땅바닥에 던져 전부를 깨뜨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매튜 헨리, 엘버트 반즈 등은 말한다. 나드 향유 참조.



● 온(On, 안, 기둥의 도시) 이집트의 주요 도시(창41:45). 요셉의 아내는 이곳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다. 이곳은 태양신 라의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태양 신전을 뜻하는 벤세메트라 불리기도 하였고(렘43:13) 그리스어로는 태양의 도시를 뜻하는 헬리오폴리스라 불리기도 하였다.

● 은유(Meekness) 온화하고 부드러움. 원래 이 말은 고난을 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을 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은유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복들을 허락하셨다(시 22:26; 25:9; 37:11; 147:6; 149:4; 비고 사11:4; 29:19; 61:1). 모세는 급히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이기

도 하며 말의 실수가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 은유함을 배웠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땅의 모든 사람보다 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민12:3). 한편 신약 성경에서 은유함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며 성령님의 열매이다(갈5:23).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었으며(마11:29; 비고 고후10:1)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마5:5; 엡 4:2; 골3:12; 딤펴6:11; 딤후3:2). 또한 성도들은 은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약1:21).

● 온전하다(Whole) 깨어지거나 수가 빠지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함을 뜻하며 복음서에서는 주로 병이 완전히 나음을 뜻한다(마9:22; 14:36; 막 2:17; 10:52).

● 올리브(Olive)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나무 중 하나.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평화의 상징이었고(창8:11)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귀한 나무 중 하나로 평가를 받았으며 그래서 그 지역은 올리브기름과 꿀의 땅으로 불렸다(신 6:11; 8:8; 합3:17). 올리브는 크거나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며 키가 10미터를 넘지 않는다. 올리브 잎은 짙은 진한 녹색이고 안은 은색을 띠며 이 나무는 상자나무처럼 단단하고 2년마다 열매를 맺는다.



올리브 열매는 서양 자두와 비슷하며 처음에는 녹색을 띠다가 나중에 검은색으로 바뀐다. 보통은 가지를 흔들거나 나무로 때려서 올리브 열매를 줍는다(신24:20; 사17:6). 올리브는 무엇보다도 그 기름으로 인해 동방에서 아주 귀중하며 완전히 자란 나무는 약 500킬로그램의 기름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삿9:8-9; 대하2:10). 올리브는 돌이 많은 지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한다."(신32:13; 욥29:6)는 표현은 이것과 상관있다. 이것은 상록수로서 장수하며 경건함의 상징이다(시 52:8). 새 나무는 오래된 나무 본체의 뿌리에서 나와 그 주변에서 자라므로 어미 나무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장식하고 죽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한다. 따라서 이것은 의로운 자의 가족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시128:3). 야생 올리브나무는 사람이 재배하는 것보다 작고 모든 면에서 열덜하지만 좋은 나무에서 접가지를 받아 붙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접가지를 받아 좋은 나무에 붙이면 예전처럼 야생으로 남는다. 반면에 이 같은 자연의 본성과는 달리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죄인은 그분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롬11:13-26).

● 올리브 산(Mount of Olives)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남과 북을 잇는 능선(겔11:23, 삼하15:30). 그리스도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와 팔레스타인의 산들 지도 참조(47, 53). 이곳의 정상은 성벽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 이곳에는 석회암이 있고 여러 곳에 바위가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 올리브나무가 가득했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 능선에는 세 개의 정상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남쪽에 있으며 높이가 가장 낮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그곳을 더럽혔으므로 부패의 산이라 불린다(왕상11:5-7; 왕하23:13). 베다니로 가는 길, 즉 여리고와 요르단으로 가는 길이 이 능선 너머에 있었다. 올리브 산의 서쪽에는 바위에 만든 무덤이 많이 있었다. 가운데 있는 꼭대기는 예루살렘 도시에서 60미터 정도 위에 있으며 여기서는 도시의 모습과 북쪽의 에브라임 산, 동쪽의 요르단 평야, 남동쪽의 사해의 일부 등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이곳이아말로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광경을 보여 주며 또한 중요하고 압축한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여행하시며 예루살렘에 드나드시면서 이 산을 자주 통과하셨다. 겹세마네는 이 산의 서쪽 기슭에 있었고 베다니는 동쪽 언덕에 있었다(마24:3; 막13:3). 주님께서 이 산에서 승천하셨고(눅24:50; 행1:12) 이 산에 재림하실 것이다(슌14:4). 예수님은 죽기 사흘 전에 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다. 아마도 복음서에서 이 구절만큼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곳도 없을 것이다. 겹세마네와 돌무덤 참조.

● 울무 혹은 덫(Snare, trap) 짐승을 피어 잡는 기구. 이 말은 상징적으로 주의하지 않는 자를 유혹해서 엮어매고 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욥18:8-10). 구약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신들은 이스라엘에게 울무가 되었다(삿2:3). 신약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귀의 울무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딤후3:7).

● 옷 짜는 일(Weaving) 고대에는 대개 여인들이 옷을 짰다(왕하23:7; 잠31:13, 19).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옷을 바느질해서 만들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짜로 짰다(요19:23). 의복 참조.

● 옷니엘(Othniel, 아쓰니엘, 하나님은 힘이 있다) 그나스의 아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재판관이 되어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평화롭게 재판하였다. 그의 아내 약사는 그의 형인 갈렙의 딸이며 드빌을 정복한 대

가로 그에게 주어졌다(수15:17; 삿1:13; 3:9-10).

● 와스디(Vashti, 베쉬타이)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한 페르시아의 왕비. 그녀는 왕의 연회에 나아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였다(에1:1-22).

● 왕(King) 성경에 나오는 왕은 항상 큰 위엄을 지니거나 큰 영토를 지니지 않았다. 성경은 조그만 마을과 부락도 왕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며 또 우두머리나 지도자도 왕으로 기록한다. 이런 차원에서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다(신33:5). 물론 그는 다윗과 솔로몬같이 왕은 아니었고 지도자 혹은 우두머리였다. 이런 것을 알면 가나안 지방갈이 작은 곳에 31명의 왕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수12:9-24). 물론 이 숫자는 여호수아의 손을 피해 달아난 다른 왕들을 제외한 것이다. 아도니베섹은 자기가 70명의 왕을 붙잡아 그들의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말한다(삿15:7). 이런 왕들은 현재 아랍 부족들의 족장들과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때까지 왕이 없었다. 처음에 이집트에서는 장로들이 그들을 다스렸고 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같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이, 그 뒤에는 웃니엘, 삼손, 압다 같은 재판관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들이 다스렸다. 그들은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의 정부는 신성 통치 체제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의 치리자를 정해 주셨으며 백성은 주님 안에서 이들의 말과 법을 따라야 했다. 또한 의식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고 치리자인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요 법을 주는 분이요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의 행위였다(삼상8: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셨으나 백성은 여전히 그분을 자기들의 왕으로 간주하였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은 왕정하에서도 여전히 성경을 법규로 삼았으며 대언자나 대제사장이 왕에게 기쁨을 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의 손에 홀을 쥐어 주었다(신17:15-20; 삼상10:1; 12:12-15; 삼하1:14, 21; 왕상1:39; 왕하9:1-6; 11:2-12; 시21:3).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므로 그분께서는 백성이 필요로 하는 공적 일에 대한 지침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는 행동하였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버림을 받았다.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저버렸으며 그 결과 먼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조에서 나온 19명의 왕이 있었다.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도 더 존재하였으며 오직 다윗 계열에서 나온 19명

의 왕이 통치하였다. 왕들의 연대 선도 참조(5-6).

● 왕관(Crown) 왕관은 1) 왕이 머리에 쓰는 관, 2) 존엄하거나 고귀한 표상으로 머리에 쓰는 관, 3) 운동 경기나 미인 대회 따위에서 일인자로 뽑힌 사람에게 명예로 쓰게 하는 관을 의미한다. 관 참조.

● 왕국(Kingdom) 하늘의 왕국 참조.

● 왕성(Increase) 한창 성함.

● 왕의 골짜기(King's valley) 살렘 왕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축복한 곳(창14:17). 후에 암살됨은 여기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삼하18:18).

● 왕의 대로(King's highway) 다마스쿠스에서 아카바 만까지 요르단 강 동쪽, 즉 트랜스요르단을 남북으로 있는 고대의 유명한 통상로(민20:17; 21:22).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암 평야까지 이 길을 통해 가려 하였으나 에돔 왕과 아모리 왕 시혼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집트 탈출 지도 참조(15).

● 왕좌(Throne) 왕의 위엄과 권능을 보여 주는 자리. 솔로몬의 왕좌는 상아로 되었고 금으로 입혀졌으며 금 사자가 있었다(왕상10:18-20).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요 땅은 그분의 발 받침이다(사66:1). 하나님의 왕좌는 영존하며 공의와 공평 위에 지어졌다(시45:6; 97:2; 사6:2-4; 겔1:1-28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시110:1; 히1:8; 계3:21) 그분의 신실한 제자들은 그분의 왕국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눅22:30; 계4:4; 5:10).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왕좌인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마5:34; 23:22). 골1:16에서 이 말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의 한 등급을 말한다. 천사 참조.

● 왜곡(Pervert)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 외경(Apocrypha, 어포크리파) 이 말은 원래 숨겨졌다'는 뜻을 갖고 있었으나 주후 450년경부터는 구약 시대의 '정경이 아닌 책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외경 문체의 핵심은 로마 카톨릭 성경 안에 포함된 몇 가지 책이 과연 성경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외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던 약 400년간의 기간에 기록된 15개의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이다. 이것들 중 어떤 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비논리적이고 그 저자를 알 수 없으며 또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나 권위를 받았다는 주장도 없다. 또 어떤 것은 그 내용이 전설적이며 공상 만화 같기도 하다. 이것들 중 몇 개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의 위상 승해를 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현존하는 외경은 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토비트, 에스드라상(*),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유딧, 바룩, 에레미야의 편지, 에스드라하(*), 에스델, 아사라의 기도(혹은 세 아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원래는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참고로 위의

목록에서 (*)가 붙은 책은 천주교회에서도 외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책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결코 외경을 자기들이 읽는 구약 성경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프로테스탄트 중 어떤 이들은 외경이 삶의 예와 예의범절 등을 위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여긴다. 반면에 천주교회는 '에스드라상하서'와 '므낫세의 기도'를 빼 나머지 12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고 51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세푸스와 필로도 이것들을 정경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성경 신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책을 '영감 받은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 안에는 신뢰하지 못할 내용과 실수, 가르침 등이 들어 있어 그리스도를 포함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외경을 언급하거나 인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외경들은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책들'에 불과하며 결코 구약 성경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성경, 정경, 요세푸스 참조.

● 외모를 존중하다 혹은 외모로 판단하다(Respect of persons) 고대 히브리 재판관들은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체물이나 영향력 등에 구애받지 말고 진리와 공의에 의거하여 공의롭게 선고해야만 하였다(레19:15; 신16:18-19; 잠24:23).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의 생김새나 위치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과 속 중심에 따라 판단하신다(행10:34; 롬2:6-11).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경은 재판정에서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잠28:21; 약2:1-9; 유16).

● 요게벳(Jochebed, 자케베드, 여호와와 영광)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어머니. 그녀는 레위의 딸로 아브람의 아내였으며 자기 남편의 고모였다(출6:20). 물론 근친 간의 결혼은 후에 금지되었다(레18:12).

● 요나(Jonah, 조나, 비둘기)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하나. 그는 스블론의 가드헤벨 사람이며(왕하14:25) 여로보암 2세 때에 니느웨를 향해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니느웨와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탔다. 그러나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그를 바다로 내던지자 그는 고래의 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거기서 죽은 채 밤낮 사흘 동안 지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땅의 심장부에서 밤낮 사흘을 지낸 것을 나타낸다. 그 뒤에 그는 부활하여 해변에 토해졌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 순종하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니느웨 참조. 요나의 경고에 따라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파멸은 연기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마12:39-41; 16:4; 눅11:29-32).

● 요단(Jonathan, 자나탄, 여호와께서 주셨다) 1. 게르솜의 아들 레위 사람. 그는 므낫세의 손자였

으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경건치 못하게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고 후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의 후손은 포로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그의 뒤를 이었다(삿17:1-13; 18:1-31). 대부분의 현대 역본은 이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하지만 사사기의 연대는 그가 모세의 손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물론 그의 아버지 게르숨은 모세의 아들이 아닌 다른 게르숨이다. 재판관들의 연대 선도 참조(4).

II. 사울의 큰 아들. 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 중 하나이다. 므마스에서 드러난 그의 용감한 이야기는 그의 믿음과 용맹을 잘 보여 준다(삼상 13:1-23; 14:1-52). 백성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에 따라 그가 죽도록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다윗을 마치 자신의 혼처럼 사랑하였다(삼상18:1-4; 19:2; 20:1-42). 비록 자기 친구가 왕좌를 차지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야망을 버리고 자기 친구를 위해 수고하며 자기 아버지와의 화해를 시도했다. 그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의 시는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사랑과 애뜻한 마음을 담고 있다(삼하1:1-27). 후에 다윗은 그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삼하9:1-13).

III.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점령 후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 중 하나(렘40:8).

● 요나답(Jonadab, 조너답) I.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는 교활하고 원칙이 없는 사람으로 다윗의 아들 암논의 친구였다(삼하13:3-5). 그는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하여 암논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자기 친구가 암살되자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변명하였다(삼하13:32-35).

II. 겐 족속 레갑의 아들. 모세의 장인 호발의 후손. 그는 예후 시대에 레갑 족속의 우두머리로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주었다(왕하 10:15; 대상2:55; 렘35:6-10). 레갑 족속 참조.

● 요담(Jotham, 조담, 여호와께서 친히 완전하심을 보이셨다) I. 기드온의 막내아들. 그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들을 죽일 때에 도망하여 목숨을 건지고 후에 가시나무와 다른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비난하며 예언적으로 저주하였다. 그는 브엘로 도피하여 거기서 자기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삿9:1-57). 아비멜렉 참조.

II. 유다 왕 웃시야의 아들. 그는 나병에 걸린 웃시야가 죽기까지 얼마 동안 대리 왕으로 지냈으며 25세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16년을 통치하였다. 왕하15:5-38; 대하26:21; 27:8은 지혜롭고 번영을 누리며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한 이 왕의 이야기를 전해 준다.

● 요람(Joram, 조람, 여호와께서 높여지셨다) I.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그는 자기 형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1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바알 숭배를 멈추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의 통치 때에 모압 족속이 반역을 일으켰으나 요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으며 후에 큰 살육으로 모압 족속을 패주시켰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시리아의 벤하닷과 그의 뒤를 이은 하사엘과 싸움을 하였고 바로 이때에 사마리아는 기적적으로 포위와 기근에서 벗어났으며 엘리사는 나아만의 기적을 포함하는 여러 기적을 베풀었다. 요람은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고 라못길르앗의 외곽에서 자기의 군대 대장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시체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밭에 던져졌고 이로써 주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은 완전히 멸절되었다(왕상21:18-29; 왕하1:17; 3:1).

II.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8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라와 결혼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영토에 저주가 닥치게 되었다. 그는 자기 형제 다섯 명을 다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으며 유다에 페니키아 사람들의 우상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애돔,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다. 그의 영토와 도시와 집안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는 창자에 병이 나서 고통을 받았으며 결국 죽어서도 왕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왕하8:16-24; 대하21:1-20). 요람과 여호람은 같은 이름이다.

● 요르단(Jordan, 조르단, 흘러내리는) 팔레스타인의 주요 강. 요르단 강 지도 참조(51). 이것은 남북으로 흐르면서 그 땅을 둘로 나누는데 서쪽의 땅이 더 크고 중요하다. 디베라 바다와 사해 사이에는 요르단 골짜기 혹은 평야가 있다(왕하25:4; 대하4:17). 이 강의 평균 너비는 20-70미터이며 직선 길이는 96킬로미터이지만 구불구불 흐르므로 실제 길이는 320킬로미터나 된다. 디베라 바다와 사해는 지중해의 높이보다 각각 90미터와 390미터 낮으므로 요르단 강은 남쪽으로 흐르면서 높이가 약 100미터 정도 낮아진다. 요르단의 물은 갈릴리 바다와 마찬가지로 시원하고 그 안에는 고기가 많다. 여기에는 나무들괴(삼3:28; 12:5; 삼하17:22-24) 배가 있었다(삼하19:17-18, 39). 바다 참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르단이 범람할 때에 그것을 건넜는데(수3:15) 이때에 강물이 멈추어 서서 그와 그의 백성은 젖지 않고 건널 수 있었으며 그 뒤에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르단을 가르고 그곳을 지났다(왕하2:8, 14).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다(마3:13).

● 요새(Stronghold) 국방상 중요한 곳에 구축해 놓은 견고한 방어 시설.

● 요세(Joses, 조세이즈) I.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마13:55; 막6:3). 그분의 형제들은 처음에 그분을 믿지 않았으나 그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거하였다(요2:12; 7:5; 행1:14).

II. 글로바와 마리아의 아들(마27:56).

III. 바나바(행4:36).

●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유대의 제사장, 역사가(주후 37-100년). 그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16세 때 광야에 나가 3년간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유대교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했던 바리새파에 가입하였다. 주후 66-73년에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 그는 유대 군대의 갈릴리 지휘관으로 싸웠으나 주후 67년 로마 군대가 갈릴리의 유대 군대를 물리치자 베스파시아누스에게 투항하고 그 뒤에 그의 황제 즉위를 예언하여 풀려난 뒤 이름을 플라비우스로 바꾸고 로마군에 협력하였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그는 로마로 가서 시민권을 받고 책 쓰는 일에 몰두하여 75-79년에 '유대 전쟁사'를 기술하고 93년에는 유명한 '유대 고대사'를 기술하였는데 이 안에는 창조로부터 반란 전까지의 유대 역사와 유대교의 율법과 제도의 합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시점을 주전 4000년경으로 믿는다는 것과 또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믿는다는 것 등을 밝혔다. 그의 저서에는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 관한 많은 자료가 들어 있다.

● 요셉(Joseph, 조지프, 더다) I. 야곱과 라헬의 아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라헬에게서 태어났으며(창30:22-24)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섭리를 베풀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우므로 줄일 필요가 없고 반복해서 읽어도 질리지 않으며 모든 것을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여 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잘 드러낸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자신을 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창37, 39-50). 요셉은 110세에 죽었으며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나면서 그의 유언대로 그의 뼈를 가져다가 세겜에 묻었다(출13:19; 수24:32).

II.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그의 가계는 위로 다윗과 유다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른다(마1:1-15).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에 거하면서 목수의 일을 하였는데 예수님도 같은 직업을 가졌다(막6:3). 마리아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 그는 매우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열두 살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눅2:41-51) 그 이후에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요셉은 그

분의 십자가 처형 전에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잘 알려진 것 같다(막6:3; 요6:42).

III. 아리마대 사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의심의 여지없이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다. 그는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으며 그들이 주님을 정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눅23:51). 그는 주님의 처형이 끝난 뒤에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그분의 몸을 요구하고 니고데모와 함께 그분의 몸을 향품 등으로 싸서 새로 만든 자신의 들무덤에 안치하였다(막15:43-46; 요19:38-42).

IV. 유스도라고도 함(행1:23).
● 요시아(Josiah, 조사이아,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아몬의 아들, 히스기야의 증손자. 그는 경건한 왕으로 성전 예배를 개혁하고 유대 민족의 종교를 대부분 개혁하였다. 어떤 왕도 그만큼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죽은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캐낸 뼈를 벨엘에 있던 우상들의 제단들에서 태우으로써 그것들을 더럽게 하였는데 이것은 3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왕상13:2). 그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깨끗이 하고 수리하는 중에 제사장들은 율법서를 발견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것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심지어 요시아 왕도 성령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크게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전에는 그것을 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기 기록된 심판들을 되돌리기 위해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백성이 회개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백성이 주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도록 하고 처음에 유월절이 제정되던 때와 같이 엄숙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 백성의 회개는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려지지 않았지만 요시아는 미리 죽음으로써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오는 이집트의 파라오스고를 대적하다가 부상을 입고 죽었으며 그가 죽자 예레미야 대언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해 비통한 애가를 부르며 애곡하였다(슌12:11). 그는 여덟 살에 즉위하여 31년 동안 유대 왕국을 통치하였다(왕하22:1-20; 23:1-37; 대하34:1-33; 35:1-27).

● 요아(Joah, 조아, 여호와는 형제시다) 아삽의 아들로 히스기야 왕의 기록관. 그는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 왕을 치러 와서 항복을 권고할 때 왕을 대신하여 아시리아 군대에 갔던 사자 중 한 사람이다(왕하18:17-35).
● 요아스(Joash, 조애쉬, 여호와께서 주신다) I. 기드온의 아버지. 그는 므낫세의 아비에셀 가계에 속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바알을 섬겼으나 자기 아들 기드온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자 그를 따라 주님의 편에 섰다(삿6:11, 25-32).

II. 아합이 시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갈 때 대언자 미가야를 지킨 관원(왕상22:26; 대하18:25).

III. 유다의 여덟째 왕. 그는 아하시아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할머니 아달라의 손을 피해 숨어서 목숨을 유지하였다. 그는 자기 고모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일곱 살에 왕이 되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는 변창하였으며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였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는 잘못된 권고를 따랐고 그 결과 우상 숭배가 부활되고 대제사장 스가라가 백성의 죄를 꾸짖자 자기 은인의 아들인 스가라를 버려 돌에 맞아 죽게 하였다. 그 뒤부터 재난이 따르기 시작하여 그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하고 성전의 보화를 나누며 가증한 병에 걸려 자기 신하들의 음모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는 죽어서도 왕의 들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왕하11:1-21; 12:1-21; 대하23:1-21; 24:1-27). 요엘 대언자가 그의 시대에 대언하였다.

IV.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겸 왕위 계승자. 그는 칭찬할 점이 많이 있다. 우선 그는 엘리사를 존중하였고 엘리사가 죽을 때에 그를 찾아갔으며 거기서 시리아를 세 번 쳐서 이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그는 유다의 아마사 왕과 싸워 이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왕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때에도 금송아지 숭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왕하13:9-25; 14:1-8; 대하25:1-28).

● 요안나(Joanna, 조애나, 여호와의 선물) 그리스도 당시에 그분을 섬긴 신실한 여인 중 하나. 그녀는 그분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으며 그녀의 남편 구사는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였다(눅8:3; 24:1-10).

● 요압(Joab, 조엡,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다윗의 누이 스루아의 아들. 그는 아비새와 아사헬의 형이었으며 다윗의 통치 기간에 그의 군대의 대장이었다(삼하2:13, 28; 10:7; 왕상11:15). 그는 용맹스러운 무사였으며 능력 있는 장군이었고 압살롬을 대적한 일이거나 다윗이 지시한 인구 조사에서 선하게 행하였다(삼하18:1-33; 19:1-42; 24:1-25). 그러나 그는 동시에 오만하고 복수심에 불타며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아브넬과 자기 사촌 아마사를 비열하게 죽이고(삼하3:27; 20:9-10) 다윗에게 오만하게 행동하며(삼하3:39; 19:5) 우리야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에 가담하였다. 이런 악행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 솔로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왕상2:1-46).

● 요엘(Joel, 조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하나. 그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는 유다 왕국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의 경배가 여전히 지속되었다(욥1:14; 2:1, 15, 32). 그는 웃시야의 통치 기간에 대언한 것으로 보인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욥2:28-32와 행2:17-21을 인용하며 방언과 기적, 이적 등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요엘서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과 상관 없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부여되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여 주며 민족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바랐다(행3:19-26).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로부터 근 10여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났다.

● 요제 헌물(Wave offering) 흔들어서 드리는 헌물. 희생물 참조

● 요한(Johanan, 조헤이난, 여호와는 은혜로우셨다) 가래아의 아들. 그는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을 이끈 우두머리 대장이었다. 그는 총독 그달리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스마엘의 음모를 그에게 알렸으나 그것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는 그달리아의 원수를 갚았으나 후에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에레미야는 그들이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였으며 그것은 후에 성취되었다(왕하25:23-26; 렬40-44).

● 요한(John, 잔) I. 침례자 요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간 사람으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태어났다(눅1:26).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이 침례자 요한 안에서 성취되었다(사40:3; 마3:3; 말3:1; 4:5; 마11:14). 천사가 브리엘은 그의 아버지 사가라가 성전에서 섬길 때에 그에게 나타나 그의 출생과 이름과 직무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그 뒤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것을 알려 주었다(눅1:1-80). 그는 초기에 유대의 동부 지역에서 지냈고 30세쯤에 주님의 대언자로 나타났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었고 또 엄격하게 나사르 사람으로 살았으므로 그의 모습은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거의 비슷하였다. 무리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자기들의 죄를 정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회개의 침례를 기쁘게 받았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아와 침례를 받고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 이때에 그는 이미 정해진 표적, 즉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앉는 것을 보고 그분이 주님의 그리스도인 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였다(요1:29; 갈3:24).

요한은 당시에 큰 명성이 있었으며(눅3:15) 산헤드린 공회는 그에게 물어보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고(요1:19-28) 헤롯 왕 역시 그에게 듣기를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구원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요1:27; 3:30).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으며(마9:14; 눅5:33; 요4:1) 그의 영향력은 후에

도 지속되었다(행18:25; 19:3). 그는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 신실하게 수고하였으며 그 뒤에 이 일로 인하여 헤롯 안디마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옥에서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이까?"라고 물었다(마11:3).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서는 요한이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의 대언자들 중에서 오직 그만 모든 사람이 보기 원하던 그분의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왕국의 확립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의 지상 사역은, 헤롯이 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이 점점 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그녀의 딸 살로메는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 뒤 그의 목을 요구함으로써 요한은 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했다(마14:3-12).

II. 사도 요한. 그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써 갈릴리의 벳새다 출신이었다.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은 어부였으며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다(막1:20; 15:40; 요18:15; 19:27). 요한의 성격에는 온유함과 강력함이 혼합되어 있었다. 성격은 그가 매력적이며 평온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사랑 많고 조용히 묵상할 줄 아는 성격 속에는 강인함과 결정력이 들어 있었다(눅9:54). 온순해 보이지만 그는 확고하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그분과 함께하였다(요19:35).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 갔으며 그분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다(행4:13). 그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고 야망도 있었으므로 그분의 오른쪽에 앉게 해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였다(마20:20-24).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처음에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즉시 그분을 따르다가 잠시 갈릴리로 돌아와 어부 생활을 하였으며 다시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눅5:5-10). 주님께서서는 사랑스럽고 열정이 넘치는 이 제자와 깊은 우정을 나누셨다(요13:23; 19:26; 20:2; 21:7). 마지막 만찬에서 그는 주님 옆에 누웠으며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하셨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또 겔사마네에서의 고통을 보았다. 야고보 참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곳 교회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갈2:9). 주후 65년경에 그는 에베소로 가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며 사도 바울이 죽은

뒤에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후 95년경에 그는 밧도 섬으로 유배되어 갔고 거기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으며 그 뒤 에베소로 돌아와 아주 늙도록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는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언제나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세 서신서를 기록하였다. 요한일서는 일반 서신으로 요한복음의 동반서이며 그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오류들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서신에서 그는 특히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고 특히 거룩한 사랑을 강조하였다. 요한이서는 경건함에 뛰어난 크리스천 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으며 요한삼서는 신실함과 충성심이 강한 라틴 사람 가이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다. 요한계시록과 세 서신서는 주후 76-98년경에 기록되었으며 신약 성경의 책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들이다. 영지주의, 계시록 참조.

III. 마가리는 이름을 가진 요한. 마가 참조.

● 요한계시록(Revelation) 계시록 참조.

● 욥단(Joktan, 족뎐, 경계하는) 에벤의 아들. 그는 히브리 사람들과 다른 셈족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창10:25-30; 대상1:19-23).

● 욥드엘(Joktheel, 족디엘, 하나님께서 영양을 공급하신다) I. 유다의 도시(수15:38).

II. 아마사가 아라비아의 수도에 붙인 이름(왕하14:7). 셀라 참조.

● 욥산(Jokshan, 족산, 울무)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의 둘째 아들. 그는 세바와 드단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창25:1-3).

● 욥(Job) 신실함과 경건함과 부와 명예와 가정의 화목 등으로 유명한 족장.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의 믿음을 시험하였으며 이 과정 속에서 욥은 순식간에 재물과 지식과 건강을 잃고 고통을 받았다. 그는 우스 땅에 살았는데 이곳은 보스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부 에돔 지역으로 추정된다.

● 욥기(Book of Job) 극적인 시의 형태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책. 이 책은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 문제를 다루므로 지혜서의 하나로 분류된다. 지혜 문학 참조. 욥기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여야 함을 보여 준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이유를 알고 노력해도 허사인 경우가 많다. 실로 많은 경우에 의인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곤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세상이나 자신의 본성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하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다른 의지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든지 혹은 이해하지 못하든지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욥은 또한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였다.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한

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읍처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것이다.

● 읍바(Joppa, 자파,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 하나. 이곳은 지중해에 위치하였고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48킬로미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유대의 주요 항구가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물자가 레바논과 두로에서 여기에 도착하였다(대하2:16; 스3:7). 요나는 여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렸으며 또 해변에 있던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고 구원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향하는 줄 알게 되었다(행9-11). 현대 이스라엘의 경제 기술 센터인 텔아비브는 읍바(야파)의 외곽에 건설되었다.

● 용(Dragon) 성경의 용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상상하는 용과 다르다. 예를 들어 겔29:3의 용은 강 한가운데 누워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요한 계시록 12장의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다시 말해 성경의 용은 보통 우리가 '공룡'이라 하는 짐승과 비슷하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영어에서 용의 용례를 찾아봐야 한다. 원래 영어에서 용은 공룡과 같은 큰 괴물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공룡을 지칭하는 '다이너소어'(Dinosaur)라는 단어는 1841년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오며 그 전에는 영어에서 그런 괴물을 통칭하여 '용'으로 불렀다(옥스퍼드 영어 사전, 앵글로색슨 연대기 등 참조). 그래서 영국의 전래 동화에 나오는 용은 대개 모습이 '공룡'이나 '공룡의 새끼'처럼 생겼다. 성경은 옛 뱀인 사탄 마귀를 용이라고 부른다(계12:9). 사탄, 미귀 참조.

● 용 우물(Dragon-well) 이것은 예루살렘 서쪽의 기혼 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느2:13).

● 용광로(Furnaces) 용광로는 귀중한 금속을 녹이는 데 쓰였다(잠17:3).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간 용광로는 굉장히 컸고 그들이 들어간 뒤에 열린 채 있었다(단3:1-30). 렘29:22에 나오는 두려운 형벌은 지금도 동방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편 용광로라는 말은 학대나 고통받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신4:20; 사48:10).

● 용납(Suffer)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임.

● 용모(Countenance) 얼굴 모양.

● 용서(Forgiveness) 신학적으로 용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벌하지 않고 덮어 주시는 것을 뜻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하게 죄를 용서하신다(시51:1-9; 사38:17; 히10:17). 죄는 형벌을 요구하지만(창2:17; 롬1:18-32) 하나님의 용서는 이를 면제한다(시130:4; 롬5:6-8). 하나님의 용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죄인을 위한 대신 속죄 희생물이 있어야 한다(레17:11, 14; 히9:22). 그다음 죄인은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희생물로 나와야 한다(막1:4; 행10:43; 약5:15). 따라서 용서는 그리스도 없이, 그분의 희생과 부활 없이 불가능하다(행5:31; 골1:14; 롬4:24; 고후5:15). 죄인은 믿음에 의해 은혜로 죄들의 용서를 받아 의로운 자라고 불린다(롬3:28; 갈3:8-9).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마18:23-35; 눅6:37). 용서할 줄 아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아는 참 제자이다(마5:43-48; 막11:25).

● 우롱(Mock) 조롱하고 놀림.

● 우르(Ur, 어, 화덕) 족장 아브라함의 출생지(창11:28, 31; 15:7). 아브라함의 이동 지도 참조(14). 이곳은 대개 갈대아의 우르라 불리며(느9:7; 행7:4) 메소포타미아 북서부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르가 갈대아의 남부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우르바노(Urbane, 알베인) 로마의 제자.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다(롬16:9).

● 우리야(Uriah, 유리아야, 여호와와 더불어) 헷 족속. 그는 다윗의 군대의 대장으로 용맹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뒤 그녀를 간음죄에서 구하고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사악한 음모를 꾸며 그가 싸움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다(삼하11:1-27; 12:9; 23:39; 왕상15:5).

● 우리야(Urijah, 유리아지, 여호와와 더불어) I. 아하스 왕 당시의 대제사장. 이사야 대언자는 그를 신실한 중언이라고 불렀으나(사8:2) 그는 왕의 요청에 따라 율법에 명기된 것과 달리 제단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출27:1-8; 38:1-7; 왕하16:9-12).

II. 여호야김 왕 당시에 유다의 기랴앗아림에 거하던 신실한 대언자. 그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확증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왕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파라오느고가 그를 다시 돌려보냄으로 인해 그는 처참하게 죽었다(렘26:20-23; 비고 왕하24:4).

● 우림(Urim, 유림) 우림과 돌림은 빛과 진리를 뜻하며 이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데 쓰는 도구이며 그분께서 정해 주신 것으로 이름 자체가 그분의 계시의 진리를 보여 준다. 이것은 성경에 처음 언급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듯하며(출28:30) 대제사장의 흉패와 예봇과도 관련이 있다(레8:8; 민27:21; 삼상23:9, 11; 삼하2:1). 이것은 신33:8; 수7:6, 15; 삼상28:6 등에서 언급되며 마지막으로 스2:63; 느7:65에 나온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흉패에 들어 있는 귀중한 돌이라고 생각한다(출39:8-14; 레8:8 비고). 주님께 여쭙면서 우림과 돌림을 쓸 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의복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선 뒤 얼굴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궤와 금홍의 자리 쪽으로 돌리고 자기가 가져온 문제에 대하여 빛과 진리를 구하였다.

● 우물과 샘(Wells and Springs) 열대 지방 사람 들에게 갈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며 이런 때에 시원한 물을 먹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였기에 우물이나 샘은 필수품이었다. 물 참 조.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나 '목마른 혼을 위한 냉수' 혹은 '생명수의 샘' 등의 표현이 그곳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 들렸으며 샘을 발견하거나 우물을 파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고 이것 들을 소유하는 것은 큰일 중 하나였다. 사막을 오가 는 대상들과 싸움에 나가는 군대들은 반드시 우물을 찾았고 마을들도 대개 우물이나 샘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다(삼상29:1; 삼하2:13). 그래서 우물이나 샘을 뜻하는 '브엘'이라는 말이 여러 지역의 이름에서 발견 된다. 브엘세바, 브에롯 참조.



나사렛의 우물

우물이 중요하였으므로 우물은 통치자의 지참금이 되기도 하였고(삿1:13-15) 우물로 인해 갈등이 생기 기도 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으면서 그의 종들이 무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해 그를 책망하고 맹세와 언약을 통해 우물의 소유권을 봉인 하였으며(창21:25-31) 이런 일은 이삭의 삶에서도 일 어났다(창26:14-33). 물이 매우 귀중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에돔의 왕에게 "우리가 큰길로만 가며 물을 먹으면 값을 치르겠다."고 하였다(민20:17-19). 외세가 침입하는 경우 들로 우물을 막아 버리는 것이 그들의 행진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왕하3:25; 대하32:3).

팔레스타인의 우물에는 물을 푸는 그릇이 있거나 물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창24:15-16) 또 두레 박이 있어서 물을 퍼 올리기도 하였다. 우물의 입구 에는 큰 돌을 올려놓아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았 고 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저녁때에 이런 돌을 치우면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길러 왔고 양 과 소들이 우물 옆의 돌 물통에서 물을 마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물은 쉬어가는 곳이 되었고 삶의 회 로에락이 모두 공유되는 장소가 되었다(창24:11-28; 29:1-10; 출2:16-19; 삼상9:11). 어떤 때에는 강도들 이 우물에 모여 강도질을 하기도 하였다(삿5:11).

세계 골짜기의 동쪽 입구에 있던 야곱의 우물은

그리신 산 근처에 있었으며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 은 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 배하였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하였다. 이곳의 서쪽 에는 무크나라는 비옥한 평야가 있었으며 거기에는 이미 회계 되어 수확해야 할 밭들이 있었다(요4:35). 이처럼 물이 귀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내가 목마 른 자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수가의 여인에게 어떤 감명을 주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요4:14).

● 우바르신(Upharsin, 유파르신, 그것들이 나닌 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시하던 바빌론의 벨 사살 왕에게 나타난 손이 벽에 쓴 글의 일부(단5:25, 28).

● 우바스(Uphaz, 유파즈) 좋은 금을 내는 지역 (렘10:9; 단10:5).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이 좋은 금 의 산지인 오벨과 단 한 자만 다르므로 많은 사람들 이 이곳을 오벨로 생각한다.

● 우박(Hailstones)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 하나(출9:24). 우박은 아주 위협적이었는데 그 이 유는 그 나라에 우박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기 위해 이것 을 사용하셨으며(수10:11) 이것은 또한 무서운 심판 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사28:2; 계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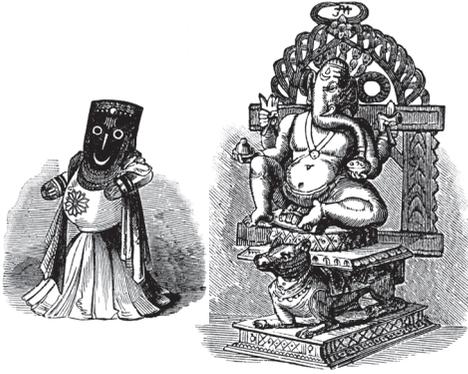
● 우살(Uzal, 유잘) 욱달의 아들(창10:27).

● 우상 숭배(Idolatry) 우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상징을 뜻하며 성경에서는 언제나 나쁜 뜻으로 이교도 들의 신들의 형상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형상이든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드 는 것을 미워하신다(출20:3-4; 34:13; 신4:16-19; 7:25-26). 또한 그분은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나타 내는 것을 금하신다(출32:4-5; 신4:15; 느9:18).

이교도들은 금, 은, 놋, 쇠, 나무 등으로 만든 그림 과 조각물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짐승, 사람, 해와 달과 별 등이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범신론). 아무도 우상 숭배가 언제 도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우상 숭 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믿으며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는 거짓 신과 우상 숭배가 자주 등장하 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심지어 아브라함도 우상 숭 배와 관련이 있었다(수24:2, 14).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우상을 숭배 하지 않았고 대개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을 모방해서 숭배하였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들은 이집트의 신들에게 경배하였고(겔20:8), 광 야에서는 가나안, 이집트, 암몬과 모압 족속의 신들 에게 경배하였으며 유대 땅에서는 페니키아와 시리 아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민 25:1-18; 삿10:6; 암5:26; 행7:42). 라헬은 우상들을

흥모하여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고(창 31:30) 아굽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기 백성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귀에서 장식품을 떼어 버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 가족이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였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들을 숭배하였다(삿2:11-12).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백성을 구출한 뒤에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백성의 우상 숭배 대상이 되었다(삿8:27). 또 미가의 드라빔 역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삿17:5; 18:30-31). 드라빔 참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순수하게 보존된 것으로 보이며 경배 방식에 부패한 점이 있었으나 우상 숭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유희에 넘어가 페니키아와 압몬과 모압의 신들을 위한 전을 세우게 하였다. 또 솔로몬의 뒤를 이어 북 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왕들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된 백성들은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겼고 심지어 이세벨은 대언자들을 핍박하여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완전히 멸절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아시리아 왕에게 넘겨주어 유프라테스 너머로 끌고 가게 하셨다. 남 왕국 유다도 거의 북 왕국과 비슷하게 타락하였으며 대언자들은 그들의 비정상적인 우상 숭배와 그들이 만든 가증한 것과 우란한 것과 신당에서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몰렉 참조. 그러나 바빌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책망받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 경배에 대한 열심을 보이고 우상 숭배를 자제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모세의 정부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이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인 것이고 동시에 나라의 법규를 어긴 것이므로 아주 중대한 죄로 여겨졌고 사형이라는 최고의 형벌이 주어졌다. 또한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를 그 안의 모든 것과 함께 멸절시켜야 했다(신13:12-18; 17:2, 5).

- 우스(Uz, 어즈, 계략) 욱의 거주지(욱1:1; 렘 25:20; 애4:21), 이곳은 팔레스타인과 이두매아 그리고 유프라테스 사이의 한 지역으로 추정되며 이두매아의 북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생각된다. 이곳의 거주민들이 아람의 아들인 우스에게서 나왔는지(창10:23) 혹은 나훔의 아들 후스에게서 나왔는지(창22:21) 혹은 호리 족속 우스에게서 나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창36:28). 이곳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덕과 신앙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우슬초(Hyssop) 담에서 자랄 정도로 수수하고 향내를 내는 식물. 이것은 키가 1미터 안팎으로 백향목과 대조가 되었으며(왕상4:33) 유대인들의 삶에서 주로 무언가를 뿌리는 일에 사용되었다(출12:22; 레14:4-6; 시51:7; 히9:19; 참조 요19:29).



- 우화(Fable) 이교도들의 신화나 유대인들의 헛된 전통같이 근거가 없고 값어치가 없는 이야기. 우화는 종종 거짓이고 근거가 없으므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답전4:7; 단1:14; 베힘1:16).

- 운향(Rue) 쓴맛과 독한 냄새를 가진 채소. 바리새인들은 운향을 비롯한 채소의 십일조를 드렸으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시하였다(눅11:42).

- 울래(Ulai, 울라이) 페르시아의 수산 시 옆을 흐르던 강. 이 강의 독에서 다니엘은 유명한 환상을 보았다(단8:2, 16).

- 웃사(Uzzah, 어자) 아비나답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럃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부주의로 죽었다(삼하6:1-23; 대상13:1-14). 하나님께서는 소를 쫓서 궤를 옮기는 일에서 드러난 그들의 부주의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마음을 보시고 웃사를 향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제사장들이 조심스레 궤를 덮고

레위 사람들이 운반 막대를 꺼서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안을 보거나 만지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다(출25:14; 민4:5, 15, 19-20). 아마 웃사는 레위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다(대상15:2, 13 참조). 막대 참조.

● 웃시아(Uzziah, 어자이야) 유다의 왕. 아사라 참조.

● 원소(Elements) 원자번호가 같은 원자만으로 이루어져 그 이상 더 분해할 수 없는 물질(벧후3:10, 12). 세상 끝에 이 땅의 원소들은 뜨거운 불로 녹을 것이다(벧후3:10, 12). 창조와 신비 선도 참조(69).

● 원숭이(Ape) 원숭이과의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슬로몬은 오벨에서 이것들을 데려왔다(왕상10:22; 대하9:21). 이집트에서는 이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지금도 인도 등지에서는 이것들을 숭배한다.

● 월계수(Bay tree) 쌍떡잎식물목 녹나무과의 상록교목(시37:35). 이것은 감람수라고도 하며 높이는 약 15미터이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며 껍질은 짙은 잿빛이다. 이것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며 고대 올림픽에서 승자에게 이 나무의 잎이 달린 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주어 명예의 표시로 삼았다.

● 월권(Excess) 권한 밖의 일을 함.

● 월삭(New moon) 새 달, 즉 히브리 달력의 달들이 시작되는 때. 달 참조.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각 달의 첫째 날을 중히 여겼고 그래서 모세는 그날 특별한 회생을 드렸다(민28:11-15). 그러나 그는 이날을 거룩한 날로 여기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날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운 날로 지킨 날이었다. 또한 사울 시대 이후에 그들은 이날을 가족들이 모이는 날로 정한 것 같다. 왜냐하면 다윗은 월삭에 자신이 왕의 식탁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사울은 그가 없는 것을 나쁜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삼상20:5, 18).

각 달의 첫날에는 나팔 소리를 내었으며(시81:3) 엄숙한 예물을 바쳤다. 그러나 월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민간력의 정월 초하루, 즉 티쉬리 월(종교력의 7월)의 초하루였다(레23:24). 이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명절이었다(암8:5).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월삭에 대언자들을 찾아보고 예물을 드리며 그들의 교훈을 듣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왕하4:23). 겔45:17은 월삭에 바치는 번제 헌물은 왕의 경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대상23:31; 대하8:13 참조). 기독교가 확립된 이후에 이 명절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지만(갈4:9-10; 골2:16)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날을 지킨다.

● 위골(Out of joint)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탈구(脫臼) 혹은 탈골(奪骨)로 쓰며 뼈가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을 뜻한다(창32:25; 시22:14).

● 위로자(Comforter) 성령님의 호칭.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변호자, 스승, 안위자 등을 뜻하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도 같은 그리스어가 사용되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성령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위로자이셨으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된 복'이었다(요14:16-17, 26; 15:1-27; 16:1-33; 눅24:49; 행1:4).

위로자는 변호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같은 위로자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위로자 성령님은 그들이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을 도왔고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로 그들을 인도했으며 그리스도의 말과 일을 모두 기억하게 했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 그분의 임재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증명되었고 그분은 예수님이 지상에 없어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셨다. 교회는 지금도 성령님의 경륜하에 있으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고 있다(요16:7-11). 성령님 참조.

● 위선자(Hypocrite) 위선은 겉으로만 선하거나 착한 체하는 것을 뜻하며 위선자는 연극배우처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이 말은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덕과 경건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으며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시며 크게 책망하셨다(눅12:1).

● 유니게(Eunice, 유니스, 승리하는) 디모테의 어머니, 로이스의 딸. 그녀의 남편은 그리스 사람이었으나 그녀는 유대인이었다(행16:1; 딤후1:5). 그녀는 자기가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리의 교훈들을 자기 아들 디모테에게 전달해 주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도착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 유니콘(Unicorn) 뿔이 하나 달린 말 비슷한 짐승. 이것은 힘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23:22; 욥39:9-12; 시22:21). 어떤 이들은 유니콘이 코뿔소라고 주장하며 욥39:10의 짐승이 어떤 큰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유니콘이 지녔다는 큰 힘을 고려해 볼 때 민23:22; 24:8의 짐승은 분명히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임이 분명하다. 또 코뿔소가 경동경동 될 수 없으므로 시편 29편에 나오는 짐승은 결코 코뿔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 그대로 유니콘은 뿔이 하나 달린, 코뿔소와는 다른 강한 짐승으로 믿는 것이 가장 좋다.

● 유다(Judah, 주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I. 레아에게서 난 야곱의 넷째 아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으며(창29:35) 요셉의 이야기에서 명예롭게 등장하지만(창37:26-27; 44:16-34) 자기의 머느리었던 다말과의 사건에서는 명예롭지 못하게 나타난다(창

38:1-30). 야곱은 죽으면서 유다 가족의 권능과 번영에 대하여 예언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때까지 히브리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창49:8-12). 유다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으뜸이 되었고 그의 지파는 수도 많고 아주 강력하였으며 가나안의 남동부를 차지하였다. 유대 참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유다 지파 지도 참조(19, 21). 그들의 영토 경계에 하나님의 성전이 놓인 예루살렘이 있었으며 유다에게서 다윗과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구원자 예수님도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 지파는 전체 히브리 민족을 뜻하면서 유다의 후손, 즉 유대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유다는 북 왕국과 대비될 때에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한 남쪽의 왕국을 가리킨다. 히브리 사람들 참조. 유다 지파의 특징은 그들이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의식을 통해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반면에 북 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였다.

II. 가롯 유다(Judas Iscariot).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후에 그분을 배반한 사람. 이 이름 자체는 가롯 사람, 즉 유다의 도시 그리옷 사람이라는 뜻이다(수15:25). 그는 다른 제자들의 신임을 얻어 돈을 관리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담당하였다. 열두 명이 나가서 선포하고 기적을 행할 때에 유다도 함께 동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에도 그는 그들의 공동 재산 중 일부를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요12:6) 마침내 돈을 받고 자신의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은 서른 개로 약정을 맺은 뒤 밤에 무리를 이끌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안내하였지만 그 결과를 보고 후회하고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 일을 되돌리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돈을 버린 채 결국 목매달아 죽고 말았다(마27:3-10, 행1:18). 아겔다마 참조. 이 사실은 주님께서 한 점의 죄도 없는 분이심을 보여 주었으며(마27:4) 그의 종말은 위선과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마27:5; 요17:12; 행1:25).

III. 사도 유다. 그는 다대오 혹은 램베오라 불렸으며(마10:3; 막3:18; 유1) 알패오와 마리아의 아들로서 작은 야고보의 형제였다. 야고보 참조. 그는 바울의 기록자이기도 하다(눅6:16; 행1:13).

IV. 바사바라고도 불린 그리스도인 교사.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보내어져서 안디옥으로 갔다(행15:22, 27, 32).

V. 갈릴리의 유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을 일으키고 후에 구레노에 의해 멸망당했다(행5:37).

VI. 다소의 사울이 함께 거한 다마스쿠스의 유대인(행9:11).

● 유대(Judea, 주디아) 유대인들의 땅.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 구역 중 하나로서 주로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었으며 예루살렘이 그곳의 중심이

었다. 이곳은 가나안의 남부를 가리키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써서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다. 가나안 땅을 나눌 때에 남동부 지역은 유다 지파의 몫이 되었고 그 뒤 유다 지파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은 좀 더 확장된 영역을 포함하게 되었으며(삼하5:5) 북 왕국의 열 지파가 떨어지자간 뒤에 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과 단의 일부를 포함하여 결국 팔레스타인 남부를 다 차지하였고 팔레스타인의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라 불리게 되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혹은 그들의 땅인 유대는 보통 팔레스타인 전체를 가리켰고(학1:1, 14; 2:2) 그 뒤에도 이것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간이 더 지나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 나라가 정복되었을 때에도 그 땅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로 나뉘었다(눅2:4; 요4:3-4).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가 동쪽으로는 요르단,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랍 사람들의 영토에 닿아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이두매아의 일부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유대는 헤롯 대왕의 왕국의 일부였으며 후에 그의 아들 아겔라오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아겔라오가 추방당한 후에 유대는 로마의 한 지방으로 전락해서 시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았고 그 뒤에는 헤롯 아그립바 2세의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

원래의 유대 땅은 언덕과 계곡으로 나뉜 고원 평야 지대였으며 남쪽과 서쪽에는 좋은 목초지가 있었다(슌7:7). 골짜기 평야는 많은 곡식을 내었고 언덕에는 포도가 자랐으며(창49:11-12) 올리브와 무화과와 다른 과일이 많았다. 가나안 참조. 유다의 산간 지역은 예루살렘의 남쪽과 남동쪽에 있으며(눅1:39, 65) 여기에는 베들레헬과 헤브론이 포함된다. 또한 유다의 평야는 요르단 부근의 저지대를 뜻하며(삼하2:29; 왕하25:4-5) 침례자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유대 평야는 유다의 동부 지역, 즉 사해 바다에서 여리고를 향한 지역으로 추정된다(삼하15:28).

● 유대인(Jews, 유스) 이것은 이방인들 사이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특히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의 첫 조상 유다에서 나왔다(왕하16:6; 예2:5). 히브리 사람들 참조.

● 유두고(Eutyclus, 유티쿠스, 큰 재산)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도록 말씀을 전할 때에 다락방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생명을 잃은 청년.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의 생명이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왔다(행20:6-12).

● 유로클루돈(Euroclydon, 유라클리던)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에 크레타의 남쪽 해안에서 그가

탄 배를 엄습한 폭풍(행27:1-44), 수정된 그리스어 본문은 Euroclydon을 Eurokulon(개역성경의 유라쿨로)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남동풍을 북동풍으로 바꾼 것이다.

● 유모(Nurse) 유모가 자기 딸아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해 성경은 몇 차례 언급한다(사49:22-23; 살전2:7-8), 리브가에게는 평생 동안 그녀를 신실하게 돌보아 준 드보라라는 유모가 있었으며 그녀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상수리나무가 있었다(창24:59; 35:8). 지금도 시리아와 인도 등에서는 부유한 가정에 이러한 유모가 있다.

● 유발(Jubal, 주발, 솿양) 라멕과 아다의 아들. 그는 가인의 후손으로 하프와 오르간을 발명하였다(창4:21).

● 유사(Quicksands) 흐르는 모래(행27:17). 이것은 멜리테 섬의 남쪽 아프리카 연안의 두 만(灣)에 있던 모래 소송돌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유스도(Justus, 저스투스) I. 가룟 유다 대신 사도가 되기 위해 추천된 사람 중 하나(행1:23). 바사바 참조.

II. 고린도의 성도(행18:7).

III. 바울의 동역자. 바울은 그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보냈다(골4:11).

● 유업(Inheritance) 선대부터 이어온 사업.

● 유오디아(Euodias, 유오디아스) 빌립보 교회의 덕스러운 여인(빌4:2-3).

● 유월절(Passover)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인 죽음의 천사가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며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살려 준 일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규례로 삼아 지키라고 하신 명절(출12:1-51). 그들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어린양의 피를 문의 기둥과 안방에 뿌렸다(막14:12, 14; 고전5:7). Passover는 명절을 뜻하기도 하고 유월절에 죽이는 어린양을 뜻하기도 한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달은 니산 혹은 아빕 월이었으며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들의 민간력에서 7월이던 이달을 종교력에서 1월로 바꾸게 하셨다. 니산 월 14일에 그들은 어린양을 죽이고 누룩이 든 빵을 금하였으며 바로 그다음 날, 즉 어린양을 죽인 날 저녁 6시부터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눅22:1). 그들은 그 이래 중 첫째 날과 일곱째 날만 엄숙하게 지켰고(레23:5-8; 민28:16-17; 마26:17) 이날들은 쉬는 날이므로 안식일이라 불렀다.

죽임당한 어린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했다. 그들은 가족별로 어린양을 죽여야 했으며 가족이 크지 않으면 다른 가족과 함께 한 마리를 죽여 같이 먹도록 되었다. 다른 명절들과는 달리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양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여 거기서 먹어야 했다. 그들은 어린양을 구워서 바로 그 저녁에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고 또 어린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으며 먹다가

남은 것은 모두 불로 태워야 했다(출12:1-51; 요19:36). 혹은 1월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2월에 지켜야 했으며 고의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다. 한편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민9:6-14; 대하30:1-27). 유대인들은 무교절에 가족별로 이 명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민족적으로 행사를 열어 지키기도 하였다(민28:19).

한편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성전에 드렸다(레23:10). 유월절 행사에 대해서는 마26:27, 30; 고전10:16; 시136:1-26 등을 보기 바란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처형이 있을 그 날이 시작되는 저녁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마26:17; 막14:12; 눅22:7). 그다음 날, 즉 그분의 죽음이 있는 지 3시간이 지난 저녁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고 또한 유월절로 지켜졌다(요13:29; 18:28; 19:14, 31; 비교 마27:62).

유월절은 그 내용과 목적 면에서 기념과 상징의 성격이 있었다. 그것이 기념하는 이집트 탈출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의 예표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간주하시면서 유월절을 대체하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고전5:7).

이집트에서 죽은 무죄한 어린양과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오직 그분만이 '넘어갈 수 있는', 즉 '유월할 수 있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의 밤이 다가와서 우리를 덮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흘리신 피 밑으로 숨어야 한다. 주의 만찬 참조.

● 유출(Issue) 흘러 나가거나 흘러나옴(레15; 마9:20; 막5:25).

● 유프라테스(Euphrates, 유프레이티즈) 아시아의 유명한 강. 이 강은 메소포타미아의 두 개의 강 중 하나로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예멘동산 지도 참조(12). 이 강은 아르메니아에서 발원하여 갑바도기아, 시리아, 아라비아, 갈대아,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페르시아 만으로 들어간다. 성경은 이 강을 그냥 '강'(the river)이라고 부르거나(출23:31; 사7:20; 8:7; 렘2:18) '큰 강'(the great river)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동쪽 경계를 유프라테스라고 부른다(신1:7; 수1:4).

이런 점에서 유프라테스는 성경 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지배권이 유프라테스에까지 이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집트의 파라오스고는 한때 유프라테스의 서쪽까지 정복한 적이 있다. 이 강의 길이는 1,300킬로미터이고 전체적으로는 티그리스 강과 함께 남동쪽을 향해 흐른다. 강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으며 대개 60-600미터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유프라테스 강 저편

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강 저편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고 기록한다(수24:2-3). 다윗은 자신의 영토의 경계를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하려고 노력했다(삼하8:3). 한편 유프라테스 강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다(계9:14; 16:12).

● 유향(Balm) 발삼나무에서 추출한 농축 주스 혹은 수지. 이 나무는 고대에 유대 특히 길르앗 지방에 많이 있었으며(렘8:22; 46:11) 외상을 치료하는 데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삼나무는 상록수로서 키가 4미터 정도 되며 소량의 수지를 내는데 이것은 냄새가 좋아서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 약이나 혹은 화장품 등의 원료로 비싸게 팔리고 있다(창37:25; 렘51:8; 겔27:17).

● 유향(Frankincense) 올리브과에 딸린 열대 식물인 유향 나무의 진. 이것은 노랗고 투명한 덩어리로서 숯불로 태우면 특유한 향기를 풍기며 향분, 결면 보호, 칠, 접착제 따위를 만드는 데 쓰인다(출30:34; 레2:1-2; 아3:6; 마2:11).

● 유황(Brimstone) 가연성이 많고 독한 냄새를 내면서 타는 광물. 소돔과 그 주변 평야의 여러 도시들은 불과 유황에 의해 소멸되었으며(창19:24) 이 엄청난 재난은 성경에서 종종 사악한 자들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욥18:15; 시11:6; 사30:33; 34:9; 계21:8).

● 육계(Cinnamon) 높이가 약 8미터인 계수나무의 줄기와 뿌리의 껍질(사나몬). 이것은 맵고 향기가 있으므로 약용이나 과자의 향료로 쓰이고 또 성막과 그 기구들에 바른 거룩한 기름의 성분 중 하나로 쓰였다(출30:23; 잠7:17; 아4:14; 계18:13).

● 육백육십육(Six hundred three score and six) 이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7년 환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수이다(계13:18).

● 율리오(Julius, 줄리어스) 유대의 총독 베스도로부터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라는 위임을 받은 백부장. 그는 바울을 존중히 여겼으므로 바울이 시돈에 내려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였고 후에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군인들의 폭력을 저지하기도 하였다(행27:1-44).

● 율법(Law) 원래 이 말은 법을 뜻한다. 성경에서 율법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거나(시19:7-11; 119:1-176; 사8:20) 구약 성경을 가리키며(요10:34; 15:25) 어떤 때는 히브리 성경의 세 부분 중 하나인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한다(눅24:44; 행13:15). 모세 오경은 율법이었으며 모든 왕은 이것을 복사해서 연구하고 묵상해야 했고 또 젊은이나 노인이나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배워야 했다(신6:7; 17:18-19; 31:9-19, 26). 다른 곳에서는 모세가 제정한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해서 복음과 구별하

기도 하였다(요1:17; 행25:8). 하나님의 일곱 가지 법선도 참조(90).

모세의 율법이 나올 때에는 앞뒤 문맥을 보고 그것이 사회 법규, 의식 법규 혹은 도덕 법규인가 바르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배의 양식, 희생 예물, 제사장, 정결례 등을 규정하는 의식 법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복음 시대(경륜)의 그림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는 폐지되었다(갈3:24; 엡2:15; 히9:1-28; 10:1-22). 사회 법규(행23:3; 24:6)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형성한 정부 체제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규약은 유대인들의 지혜와 함께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었고 후에는 모든 지혜로운 법규에 영향을 미쳤다. 이 안에 담긴 인정 넘치고 공정한 규율은 사람의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

도덕 율법(신5:22; 마5:17-18; 눅10:26-27)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며 특히 사람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창조자께서 사람의 양심에 기록하신 것이며 사람의 죄는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롬1:19; 2:12-15). 이것은 시내 산에서 쉽게 명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졌으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을 요약하여 주셨다(마22:37-40). 이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결과이며(롬7:10, 12)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갈3:10; 약2:10)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확증하고 강화하셨으며(마5:17-20) 이것이 마음속에 요구하는 거룩함을 보여 주시고 여러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시며 천국과 지옥을 보여 주심으로 또 성령님의 안내와 인도를 드러내심으로 순종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셨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롬6:14-15; 7:4, 6; 갈3:13, 25; 5:18)는 구절을 잘못 인용하며 이 같은 도덕 법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심각한 잘못이며 이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는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 주님께서 보여 주신 것과 조화를 이룸을 알 수 있다(마5:17).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운명을 조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감독 교사의 역할을 한다(시119:97; 마5:48; 11:30).

율법은 은혜와 비교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 피와 포도즙: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물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한 것이었으나(출7:19-21) 은혜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을 생명의 상징인 포도즙으로 변하게 한 것이었다(요2:7-11). (2) 어둠과 빛: 모세는 칠월 같은 어둠을 일으켜 온 이집트 땅을 덮게 했지만(출10:22-23)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빛을 주신다(요9:5). (3) 죽음과 생명: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광경이 죽음이었듯이 율법의 마지막은 죽음이지만(출12:29-30)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적 중 하

나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율법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죽었으나(출32:26-28) 은혜가 처음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행2:41). (4) 벗기는 것과 입히는 것: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율법은 죽은 사람을 지나쳐 버리지만 은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처럼 사람을 싸매고 생명을 준다(눅10:30-37). (5) 찾는 것과 구원하는 것: 율법은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에 그분을 찾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한다(눅19:10). (6) 행위와 생명: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하지만(레18:5) 은혜는 “다 이루었다.”고 말한다(요19:30). (7) 종과 아들: 율법은 “밭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지만(출3:3-5; 히3:5) 은혜는 “밭에 신을 신기라.”(눅15:22)고 말한다. 율법과 은혜 선도 참조(92).

율법 아래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요10:14-15).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하나 은혜는 거룩함을 준다. 율법은 저주를 말하나(갈3:10) 은혜는 죄들의 용서를 말한다(롬4:7-8). 율법은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고 말하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다.”(요일4:10)고 말한다. 율법은 “제사장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나(히10:1) 은혜는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한다(히10:12-14). 또한 율법은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마다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롬2:12)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롬8:1; 요5:24)고 선언한다.

어떤 때에 법(law)이라는 말은 사람의 내부에서 인도하고 조절하는 권능을 뜻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법 혹은 지체 안에 있는 법은 다시 태어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경향, 즉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본성의 마음에 자리 잡은 잘못된 경향을 뜻한다(롬7:21-23, 롬8:2; 9:31; 약1:25; 2:12 참조). 은혜 참조.

● 율법 박사(Doctor of the law) 그들은 서기관들과 비슷하였으나 그들이 자기 의견을 글로 써서 주기보다는 주로 말로 가르쳤다는 점에서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눅2:46).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율법에 정통했음을 의미한다. 율법 박사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으나 눅5:17에서는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구분된 존재로 나오는데 그 때에 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동시에 예수님의 고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 율법사(Lawyers) 유대인들의 율법을 연구하고 설명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그들은 특히 전통 법규나 구전 법규를 연구하였으며 주로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주님으로부터 백성에게서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라는 책망을 들었다. 그들은 한마디로 눈먼 자들을 이끄는 눈먼 자들이었다(눅10:25; 11:52). 서기관 참조.

● 은(Silver) 귀금속 중 하나이며 동전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하며(창13:2; 20:16; 23:16) 성막과 성전을 짓는 데도 사용되었다(출26:19, 32; 대상29:4).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은을 교역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저울에 달아서 주고받았다. 신약 시대에 이는 물론 동전이 있었다.

● 은매화나무(Myrtle) 키가 5미터 넘게 자라기도 하며 꽃은 흰색이고 열매는 흑자색인 나무. 향기가 나는 은매화는 지중해 지역과 아시아 서부가 원산지이며 영국 남부와 북아메리카의 따뜻한 지역에서도 자란다. 이 나무의 여러 부위에서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는 미르톨이 나온다(느8:15; 사41:19; 55:13; 습1:8, 10-11).

- 은밀함(Secret) 드러나지 아니함.
- 은사(Gifts) 선물 참조.
- 은인(Benefactor)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 은총(Favor) 높은 이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
- 은택(Benefit) 은혜와 덕택.
- 은혜(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공휩이며 이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 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요1:17; 3:16; 롬3:24-26).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그분의 공휩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자신 값진 복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구속 계획의 근본 원천이다(롬11:6; 딤후1:9).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로 연합된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들이 값은 치른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그것을 적용하신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은혜와 모든 거룩함은(벧전1:15-16) 그런 것들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이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의 모든 열매와 복은 은혜라 불릴 수 있다(고후8:7; 빌1:7). 이뿐만 아니라 중생, 용서, 조명, 성화와 각종 선물(은사)과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영존하는 구원도 다 은혜라 할 수 있다(벧전1:13). 갈5:4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공휩에 의한 그분의 구원 계획을 뜻한다. 율법과 은혜 선도 참조(92).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노아와 관련해서 언급된다(창6:8). 하나님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

요한 것, 즉 공기, 햇빛, 물 등을 모두 거저 주신다. 이런 것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더욱이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나 당사자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긴다.

엡2:7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잘 보여 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다.”

국립 박물관에는 여러 지역에서 채집한 동식물, 광물 등 온갖 종류의 표본이 보관되어 있으며 국가는 대개 비용에 상관없이 이런 표본을 수집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세상 각 지역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은혜의 표본들을 모으고 계시며 이로써 복음의 산물의 샘플로서 이런 은혜의 트로피를 전시하실 것이다. 비록 사람이 구원받기에는 너무 사악하고 천박하며 고약하고 괴상하며 유별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표본들만 저 위에 있게 하사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을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보이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율법 참조.

● 음료 헌물(Drink offering) 소량의 포도즙 헌물. 이것의 일부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에 부었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었으며(출29:40; 레23:18; 민15:5, 7) 이것은 땅의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창35:14). 기존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전제(奠祭)라 부른다.

● 음식(Meats) 음식 헌물(Meat offering) 등에 쓰인 Meat라는 단어는 고기를 포함한 일반 음식을 뜻하였다(창1:29-30; 마15:37; 눅24:41).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음식 헌물은 밀가루와 기름 등을 포함하였다(레2:1-16). 고대 유대인들은 음식을 절이거나 맛내는 것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으며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굵거나 지지거나 국을 만들어 먹었다. 한편 모세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고 명하였는데(출23:19; 34:26) 이것은 그들이 주변에 이교도들과 달리 작은 일일까지 인정을 베풀게 하려 함이었다. 또한 유대인들은 소와 그 새끼를 한 날 죽일 수 없었으며 양과 염소의 경우 어미와 새끼를 같은 시간에 죽일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은 살아 있는 짐승의 고기를 떼어서 먹을 수 없었으며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도 저절로 죽고 피를 빼지 않은 경

우 먹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유대인이 만들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자기 민족이 만든 부엌 용품으로만 조리를 하였다.

유대인들은 피를 먹거나 목매달아 죽은 짐승을 결코 먹지 않았다. 한편 신약 교회의 경우 목매달아 죽은 것과 피 등을 금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해진 이후에 오랫동안 지켜졌으며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장려 사항이 되었다(행15:1-41).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 예수님에 의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사이의 구별이 없어졌음을 확신하고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이 우상에게 바친 것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다 먹었다. 그들은 시장에서도 음식이 유대인들에게 정결한지 부정한지 혹은 우상에게 바친 것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음식을 샀다. 그런데 양심이 약한 형제들과 이에 대해 잘 모르는 형제들은 이 일로 인해 실족하게 되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일처럼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로 인한 논쟁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양심에 가책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었다. 그래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문제가 되는 음식을 가려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으며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 없이 문제가 되는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그 일이 비방거리가 되거나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면 사랑으로 자제할 것을 명령받았다(롬14:20-23; 고전8:1-13; 10:19-33; 딤후1:5). 이런 원리는 그와 비슷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음식 헌물(Meat offering) 기존 우리말 성경의 소제, 희생물 참조.

● 음식물(Food) 고대 사람들의 음식물은 대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났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짐승의 고기와 곡식 그리고 식물이 많았으며 동방에서는 고기보다는 식물을 더 많이 먹었다. 특히 빵이 그들의 주식이었고 각종 곡물, 콩, 양파, 포도, 올리브기름, 꿀, 소와 염소의 젖은 늘 먹는 식품이었다. 물고기를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물고기를 흔하게 먹었는데 특히 이집트에는 물고기가 많았고 그 외에도 오이, 수박, 양파, 마늘 등이 많았다(민11:5). 짐승의 고기는 연회에 꼭 필요했으며 손님을 잘 접대하는 사람들은 양 떼나 염소 떼 그리고 소 떼에서 즉시 짐승을 잡아 손님을 접대했다(창18:7; 눅15:23). 부자들은 육식을 더 많이 했으며 우리를 만들어 그것들을 키우고 살지게 하였다(삼상16:20; 사1:11; 11:6; 말4:2). 가난한 사람들은 메뚜기를 잡아서 말리거나 구워서 먹었다. 음료로는 주로 물이 사용되었고 포도주와 포도즙도 오래전에 있었으며(창9:21; 14:18;

40:1) 대추야자 즙과 다른 음료도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식초라 불린 신 포도즙을 잘 마셨다(룻2:14; 마27:48).

● 음악(Music)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그들은 종교 의식이나 공적/사적 연회, 결혼식, 명절 등에 음악을 사용하고 장례식의 애곡하는 일을 위해서도 음악을 사용하였다. 성경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애곡의 노래가 있고 다윗이 요나단과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한 노래도 있으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파괴로 인해 지은 애가도 있다. 한편 모세가 홍해를 건넌 뒤에 부른 노래와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과 시스라를 이기고 부른 승리의 노래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기쁨의 노래들을 불렀다(시84:122; 사30:29). 시편은 음악을 위해 영감으로 준비된 아름다운 노래들이며 여러 시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왔다.

음악은 예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을 연주하는 자들의 아버지였다(창4:21; 31:26-27). 라만은 자기의 사위 야곱과 자기의 딸들과 손자들을 위해 작은북과 하프로 기쁜 노래를 들려준 뒤 그들을 야곱의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을 터인데 야곱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몰래 도망하였다고 불평하였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뒤에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여인들의 우두머리로서 작은북을 치며 춤을 추면서 여인들과 함께 노래하였다(출15:20-21). 모세는 또한 은 나팔을 만들어 엄숙한 희생물을 드리는 때와 종교적인 명절에 불게 하였다.

다윗은 음악의 재주가 많았으며 하프를 쳐서 악한 영에게 시달린 사울을 위로하였다(삼상16:16, 23). 그는 왕위에 오른 뒤 성막이 환곳에 정착하므로 레위 사람들이 예전처럼 성막과 거기 딸린 기구들을 나르지 않음을 보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지정하여 성전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게 하였다(대상25:1-31).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왔으며(대상13:8; 15:16-28) 같은 방식으로 솔로몬도 왕위에 올랐다(왕상1:39-40). 구약의 대언자들은 종종 대언하면서 음악의 도움을 받았다(삼상10:5; 왕하3:15).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다윗의 인도하에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인도하에 성전에서 음악을 주관한 우두머리였다. 아삽에게는 네 아들, 여두둔에게는 여섯 아들, 헤만에게는 열네 아들이 있었으며 모두 스물네 명의 이 레위 사람들, 즉 성전 음악 악장들의 스물네 아들들은 교대로 성전에서 음악을 책임지며 스물네 개의 음악 담당 무리들의 우두머리로 일하였다. 그들은 항상 큰 무리를 이루었고 특히 엄숙한 명절에는 더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단 주변에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또 평생토록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였으므로 성악이든 기악이든 음악을 잘 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대하29:25).

왕들 또한 자기들을 위해 음악을 마련하였다. 아삽은 다윗의 궁중 음악장이었다. 성전에서의 음악 일과 종교적 의식에서는 여자 음악가들도 남자들과 함께하였는데 그들은 대개 레위 사람들의 딸들이었다. 에스라는 자기가 포로 생활에서 데려온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면서 200명의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의 수를 기록하였다(삼하19:35; 스2:65; 느7:67).

그들의 음악의 특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도 여러 사람이 같은 멜로디로 동음 제창을 했을 것이다. 물론 각 사람은 나름대로 음의 크기와 기쁨을 사용했을 것이고 지금의 음악처럼 대위법이나 싱크페이션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했을 것이다. 음악의 효과와 웅장함과 우아함 그리고 노래 속에 들어 있는 고상한 감정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음악이 매우 뛰어났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성전 음악가들은 두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일 반적인 합창과 더불어 교대로 서로에게 응답하며 - 시편의 일부분으로 - 노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밝고 엄숙한 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시24:10).

성경에는 여러 개의 악기가 나오지만 그것들을 지금의 악기와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대와 그리스와 로마와 이집트 사람들의 악기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 현대 악기와 의 관계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악기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

A. 현악기

1. 키노르(Kinnor), 하프(창4:21). 이것은 성경에 종종 나오며 수금이나 칠현금 같은 종류로 보인다.

2. 네벨(Nebel), 비파(삼상10:5). 이것은 하프와 비슷한 여러 종류의 악기를 의미하는 것 같다.



3. 아소르(Asor), 십현금. 시92:3에서 이것은 네벨과는 다른 특정한 악기를 뜻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열 개의 줄이 있는 네벨을 뜻하는 것 같다(시33:2;

144:9 참조).

4. 깃딧(Gittith), 이것은 시8:1; 81:1; 84:1의 제목에 나오며 이름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이 가드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현악기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라고도 생각한다.

5. 민님(Minnim), 줄들(시150:4). 이것 역시 줄이 달린 어떤 악기를 뜻하였다.

6. 페산테린(Pesanterin), 비파(단3:7). 이것은 네 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7. 마할랏(Machalath), 시53:1; 88:1의 제목에 나오며 기타 종류로 생각된다.

B. 관악기

8. 사베카(Sabeca), 트롬본 나팔(단3:5, 7, 10, 15).

9. 케렌(Keren), 뿔(수6:5), 코넷

10. 소파르(Shophar), 트럼펫 나팔(민10:10). 케렌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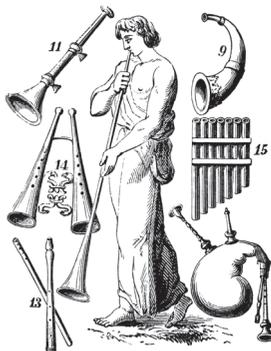
11. 캣소세라(Chatzozerah), 길쭉한 나팔(시98:6).

12. 요벨(Jobel) 혹은 케렌 요벨(Keren Jobel), 기쁨의 뿔 혹은 경고 나팔(수6:4). 아마도 이것은 9번이나 10번과 같은 것일 것이다.

13. 카일(Chail), 플루트 혹은 파이프. 이 말은 구멍을 내었다는 뜻이다(삼상10:5).

14. 미쉬로키다(Mishrokitha), 이것은 피리를 나타내는 갈대아말이다(단3:5).

15. 우갭(Ugab), 오르간(창4:21). 이것은 목자의 파이프(피리) 등을 뜻한다.



C. 타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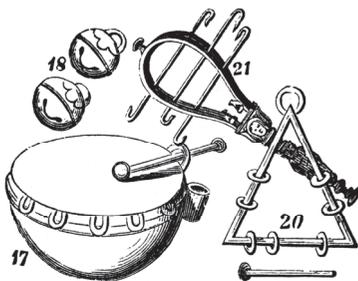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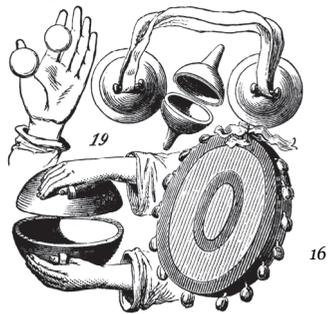
16. 토프(Toph), 탬버린과 드럼 종류의 악기(창31:27)(17은 큰 종류의 북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18. 파이어몬(Phaamon), 종(출28:33). 이것은 대제사장의 옷 가에 달았다.

19. 켈리젤림(Tzelizelim) 심벌즈(시150:5). 이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온다.

20. 샬리심(Shalishim, 삼상18:6), 성경에서 이것은 그냥 악기 혹은 세 줄 달린 악기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트라이앵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21. 므나아네임(Menaaneim), 이것은 심벌즈로 번역되었다(삼하6:5). 아마도 이것은 이집트에서 쓰던



시스트럼을 뜻하는 것 같으며 히브리어는 단순히 흔들다는 뜻이다. 대개 시스트럼은 길이가 25-30센티미터이며 은을 입히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고리들이 달려 있어서 이것을 곧바로 세우고 흔들 때에 소리가 났다.

● 음행(Fornication) 성경에서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부정한 성적 타락 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킨다. 겔16:1-63에서 유대인들은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로 상징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라서 여인이 되어 언약을 의해 주님과 결혼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언약을 깨고 우상들을 따라갈 때 그녀는 간음한 자요 창녀로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았다(렘2:20; 3:8-9; 호3:1). 많은 경우 간음과 음행은 뒤섞여 쓰였다. 신구약 성경은 모든 종류의 불순한 것과 음행, 육체적 영적 간음, 배도, 이단, 불충성 등을 정죄한다. 간음 참조.

● 응답하다(Answer) 이것은 보통 '대답하다'는 의미이지만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표현들을 따라서 그냥 말하는 경우에도 자주 사용되었다. 즉 어떤 사람이 말을 시작하거나 다시 대화를 하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습3:4; 6:4; 마11:25; 12:38; 눅7:40). 또한 이 말은 화답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합창으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삼상18:7) 심판에서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다(창30:33; 욥9:3).

● 의(Righteousness) 올바름, 공의, 거룩함, 하나

님의 성품(性品)의 극치(魯36:3; 사51:5-8; 요17:25; 창18:25; 롬3:21-22; 10:3). 근대 사회에서 의는 윤리적 성질로서 윤리적 표준에 일치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그 표준은 사회 집단의 규범에 의존하므로 상대적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표준은 시종 일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며 따라서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근본 속성으로 그분의 곧바름과 거룩함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역시 올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자신의 법에 의해 사람을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구원을 성취하시는 의의 행위이고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이다.

율법의 의로운 수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실로 은혜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의 점 없는 거룩함과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을 다 포함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의를 말하며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의는 사람들 사이의 곧바른 행위와 참된 신앙을 뜻한다(창18:23; 레19:15; 사60:17; 롬14:17; 엡5:9). 거룩함 참조.

● 의복(Garments) 히브리 사람들의 주요 의복으로는 속옷과 겹옷을 들 수 있으며 삿14:13, 19; 행9:39 등에 나오는 얇은 옷과 겹옷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속옷은 아마로 만들어 몸에 붙게 했으며 종종 예수님의 옷같이 이음새가 없이 만들었다(요19:23). 상의는 길이와 너비가 2-3미터 정도인 정사각형에 가까운 옷으로 몸에 두르거나 어깨에 고정시켰다.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 종종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되었다(사20:2-4; 요21:7). 이것은 잘 접으면 가슴 부위에 물건을 넣을 수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덮거나 깔고 자는 데 이것을 쓰기도 하였다(출22:26-27; 율22:6). 유대인들은 이 두 개의 옷 사이에 종종 소매가 없는 긴 옷을 입기도 하였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으나 햇빛과 비를 피하기 위해 겹옷을 접어 머리에 두기도 하

였다(삼하15:30; 왕상19:13; 예6:12). 제사장들은 머리에 관을 썼고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머리에 조그만 터번을 쓰기 시작했다. 여인들은 머리에 여러 가지 장식을 했다. 특히 얼굴을 가리는 베일은 중요한 물품이었으며(사3:19) 이것은 결혼한 여자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필수품으로 절제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창24:65; 고전11:3-10). 베일 참조.



히브리 사람들은 유행에 따라 옷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대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옷을 쌓아 두었다(사3:6). 이런 점에서 "보물(재물이 좀 먹거나 썩는다.)"는 표현이 적용될 수 있다(마6:19; 약5:1-2). 한편 시대의 변천에 따라 옷감도 변했다. 초기에는 짐승의 가죽이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창3:21; 히11:37) 나중에 실을 자아 옷을 만드는 일이 이루어졌으며(출35:25; 삿5:30) 낙타나 염소의 털, 아마 등으로 만든 옷들도 등장했다.

재물이 많고 위대한 사람들은 변영의 상징인 흰옷을 입었고(전9:8) 천사들이나 변화산의 예수님의 옷도 역시 밝게 빛나는 흰색이었다(마17:2). 물론 성도들도 흰옷을 입을 것이다(계7:9, 13-14).

히브리 사람들은 애곡할 때에 검은색이나 진한 고동색의 굵은 베옷을 입었다(사50:3; 계6:12). 대언자들은 애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이런 옷을 입고 과부들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 여러 색이 있는 옷을 입기도 하였다(창37:3, 23; 삼하13:18). 청색, 붉은색, 자주색은 거룩한 색이었으며 성막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수를 놓거나 곱게 바느질해서 만든 옷은 귀족품이었다(삿5:30; 시45:14).

남녀의 옷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모세는 율법에서 남녀의 옷을 서로 바꾸어 입지 못하게 규정했다(신22:5). 아마도 이런 풍습은 단정하지 못한 일과 우상 숭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세는 양털과 아마를 함께 섞어 만든 옷도 입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 역시 이교도들의 미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신22:11). 사3:16-23에는 그 당시 히브리 여인들이 사용하던 장식품이 나오는데 거



기에는 속옷과 수놓은 가슴 옷과 거들과 베일과 귀, 코, 목, 팔, 손가락, 발목에 쓰는 금속 장식품이 포함된다. 한편 행19:12에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나온다.

성경에는 옷을 선물로 주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 요셉은 베나민을 포함한 자기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했으며(창45:22) 나아만도 게하시에게 옷을 주었고 솔로몬 왕은 선물로 옷을 받았다(대하9:24). 결혼식의 복의 비유에서 왕은 자기의 손님들이 자기가 준 옷을 입고 있기를 기대했다(마22:11).

● 의사(Physicians) 이집트 사람들의 치료 기술은 아주 유명하였다. 의사는 각각 한 종류의 질병만을 담당하였으며 그래서 한 집안을 돌보려면 여러 명의 의사가 있어야 했다(창50:2).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전문적인 의원이 있었다(출21:19; 잠17:22; 마9:12; 눅4:23; 8:43). 초기에 그들은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적인 병보다는 외적인 병과 상처에 주력하였다(사1:6; 렘30:21). 물론 그들은 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도 처방을 했다(삼상16:16; 대하16:12). 그들은 기루 목욕, 강에서의 목욕, 향유를 바르는 것, 찜질 등과 같은 치료 방법을 사용하였으며(렘46:11) 사악한 자들은 마법이나 마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유다의 아사 왕은 올바르게 통치했으나 후반부에 가서 발에 병이 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했다(대하16:12).

● 이(Lice) 이집트에 탁친 세 번째 재앙(출8:16; 시105:31). 이는 특히 3일마다 몸을 씻고 밀어야만 하는 이집트 제사장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다.

● 이(Tooth)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쓰였으며 복수를 표현한다(출21:24; 레24:20; 신19:21). "내가 짐승의 이빨을 그들에게 보낸다."(신32:24)는 말은 들짐승에 의한 폐해를 말한다. "젊은 사자들의 이빨"(욥4:10)은 사악한 자들의 잔인함을 뜻하고 "내 살을 내 이로 무는 것"(욥13:14)은 고통으로 이를 가는 것 혹은 들

짐승이 이빨로 희생물을 물어서 끌고 가는 것을 뜻한다. 이를 가는 것은 절망이나 분노로 인해 이를 가는 것을 말한다(욥16:9; 시35:16; 37:12; 112:10; 애2:16; 마8:12). 예쁜 이빨은 씻은 데서 나와서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 떼로 표현되었다(아4:2; 6:6). 한편 조약들로 이를 부러뜨리는 것은 무서운 광경이다(애3:16).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근을 뜻한다(암4:6).

● 이가봇(Ichabod, 이커벳, 영광이 어디 있느냐?)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던 날 모두 죽었다(삼상4:19-22; 14:3).

● 이고니움(Iconium, 아이코니움) 소아시아의 번창한 도시. 바울은 주후 45년경에 이곳에 기독교를 소개했으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행13:51; 14:1-6). 비록 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쫓아가서 거의 그를 죽일 뻔하였으나 그는 그 뒤 주후 51년경에 다시 여기를 방문했다(행14:19-21; 딤후3:11).

● 이다말(Ithamar, 이터마르, 시편의 섬) 아론의 넷째 아들.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별되었고(출6:23; 민3:2-3) 그의 후손은 광야에서 성막의 책임을 맡았다(출38:21; 민4:28). 이다말 계열에서 엘리, 아히돌, 아히야, 아비아달 등의 대제사장이 나왔으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솔로몬은 후에 대제사장직을 엘리아살 계열에게 넘겨주었다(왕상2:27). 아비아달 참조.

● 이단 파당(Heresy, 선택) 삶이나 믿음의 선택된 길 혹은 이런 길을 따르는 학파와 당파.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으며 단순히 부류나 파당을 나타냈다(행5:17; 15:5; 26:4-5). 그러나 서신서에서 이 말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 믿음과 실행 면에서 잘못 행하는 무리를 나타냈고(고전11:19; 갈5:20; 벧후2:1) 현재도 잘못된 교리를 지닌 자들을 가리킨다.

● 이두래(Iturea, 이투리아) 팔레스타인의 북동부 끝 지역.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이곳은 이스마엘의 아들인 여들에서 유래되었으며 므낫세 반지파에게 속하였다(대상1:31; 5:19). 그리스도 당시에 이두래는 갈릴리 바다와 다마스쿠스의 중간쯤에 놓여 있었고 사분 영주 빌립의 통치를 받았다(눅3:1). 사분 영주 참조.

● 이두메아(Idumea, 이두미아) 그리스 사람들이 에돔의 땅 혹은 세일 산에게 붙여 준 이름. 이곳은 원래 사해에서부터 홍해의 엘라니틱 만까지 이르는 땅이었으며 길이는 160킬로미터, 너비는 23-30킬로미터였다. 후에 이곳은 유다의 남부까지 확장되어 헤브론에까지 다다랐다. 동부 이두메아의 수도는 보스라였으나 에돔의 원래 수도는 페트라 혹은 셀라였다. 에돔 지도 참조(28).

원래 이곳에는 호리 족속이 살았으나 후에 에돔 족속이 그들을 점령하였다(창14:6; 36:21; 신2:12). 진짜 이두메아 사람, 즉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

의 후손들이며(창36:6-9) 처음에는 에돔의 족장들이 그들을 다스렸고(창36:15) 후에는 왕들이 다스렸다(창36:31; 출15:15; 민20:14 비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이들의 서쪽 경계에 다다랐을 때 에돔 사람들은 그들이 평안히 거기를 통과하여 모압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형제 에서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당부하셨지만(민20:14-21; 신2:4-7; 23:7) 그럼에도 서로 간의 적대 관계는 불가피하였다.

사울은 그들과 전쟁을 하였지만(삼상14:47) 그들은 다윗의 때까지 독립 국가를 유지하였다. 다윗은 그들을 정복하여 이삭의 예언, 즉 야곱이 에서를 다스린다는 예언을 성취하였다(창27:29; 삼하8:14; 왕상11:15; 대상18:11-13). 에돔 사람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참고 지냈으며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자 이집트로 내려간 하담이 돌아와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왕상11:14-22) 그는 동부 에돔만을 치리한 것 같다(왕상22:47). 왜냐하면 유다 남부의 에돔은 여호람 왕 때까지 유다 왕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대하21:8). 이로써 이삭의 예언의 둘째 부분이 성취되었다(창27:40). 유다 왕 아마샤 역시 에돔 사람들을 패주시켰다(왕하14:7; 대하25:11-12).

그러나 이러한 정복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에돔 사람들은 그와 연합하여 예루살렘의 기초 자재를 없애려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잔인함은 결국 형벌로 이어졌고 대언자들은 에돔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였다(읍1:21; 렘49:7; 겔25; 35; 말1:3-4). 예루살렘을 정복한 지 5년 뒤에 느부갓네살은 유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특히 이두매아를 정복하였다. 그 뒤에도 마카비 시대에 에돔 사람들은 유다 왕들의 지배를 받았고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받았으며 이 일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후에 에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아들 나바웃의 후손들이 나바티안 사람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에돔 사람들이 흥왕할 때에는 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들은 육지와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며 작물과 가축도 많이 키웠지만(민20:17) 그들의 바위 요새들과(렘49:16) 신들(대하25:20)은 그들의 재물을 지켜 주지 못하였고 결국 그곳은 예언의 말씀대로 사막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해룻 대왕은 에돔의 핏줄을 지닌 사람이었다. 해룻 참조.

● 이드로(Jethro, 제드로, 우월한 자) 모세의 장인.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혹은 목자/통치자였다(출3:1; 4:18; 18:1-27). 그는 히브리 사람들이 시내 산에 있을 때 모세를 방문해서 지파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되돌아갔다. 이드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으며(출18:10-11) 미디안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추측된다(창25:2). 호밥, 라구엘 참조.

● 이레(Weeks) 이 말은 주(週) 혹은 이레로 표현

되었으며 고대로부터 대부분의 민족들은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구분하였다(창29:27). 안식일 참조.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특정한 이름을 붙였다. 물론 지금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규정은 색슨족의 신화에서 나온 것이다. 다니엘은 유대인들을 향한 철십 이레의 환상을 보았다. 철십 이레, 다니엘의 철십 이레 선도 참조(78).

요20:26에서 제자들은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부활 이후 한 주가 지나서 여드레째 되는 날에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오순절의 원래 이름은 이레(주)들의 명절(Feast of weeks)이었다. 오순절 참조.

● 이름(Names)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아주 중요하였다. 그래서 이름은 가족의 특성이나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사건이나 한 사람의 삶에서 후대에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사건 등을 기념하는 표적이었다. 이스마엘, 에서, 야곱, 모세, 이가봇 등을 비교하기 바란다(창16:16; 25:25-26; 출2:10; 삼상4:21). 또한 복합 이름도 매우 흔하였으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인 '야'와 '엘' 그리고 '여호'가 이름에 함께 쓰이기도 하였고 엘리야엘, 사무엘, 요시아, 아도니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 구절이 이름이 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엘료애내'는 '여호와와께서 내 눈이다.'(대상4:36)라는 뜻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개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름, 즉 한 가문의 성들이다(눅1:61). 동방 사람들은 조그만 이유로도 이름을 자주 바꾸었으므로 성경에는 이름이 여럿인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룻1:20; 삼하23:8; 요1:42). 왕들도 종종 관원들을 임명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으므로(단1:6-7) 새 이름에는 종종 명예와 특권 등이 암시되어 있다(계2:17). 같은 히브리어인데도 어미 등이 조금 달라지면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느6:1, 6의 '계셀'과 '가스무'를 보기 바란다. 히브리 이름은 종종 그리스 이름으로 바뀌면서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Elijah에서 Elias 혹은 Elie로 바뀌었다. 한편 히브리 이름이 같은 뜻을 지닌 그리스 이름으로 완전히 대체되기도 하였는데 그 예로 도마와 디두모 그리고 다비다와 도르가 등을 들 수 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룻4:1-22에 설명되어 있다. 한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것은 그의 가족을 멸절시키는 것을 뜻하였다(시9:5).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완전함을 대신해서 그분의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마28:19)는 말씀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인격과 권능과 존재를 두고 행하라는 뜻이며 이것은 마치 판사가 '내가 법의 이름으로 이러한 선고를 내린다.'고 말할 때의 '이름'의 용례와 비슷하다. 따라서 일부 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예수 유일주의'(Jesus Onlyism)를 주장하면서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참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요14:14)는 말씀에 나오는 이름 역시 그 용례가 비슷하며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주문처럼 예수님을 언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전 인격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뜻한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이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병자를 고친 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행4:10) 이런 것 역시 이름이 한 존재의 전 인격을 뜻함을 잘 보여 준다.

● 이리(Wolf) 갱에 속한 짐승. 이리는 개와 비슷하나 개와는 달리 짓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잔인하지만 겁도 많아서 아주 굶주린 경우가 아니면 사람을 피해 도망한다. 그러나 굶주리면 밤에 때를 지어 다니며 사람도 공격한다(렘5:6; 겔22:27; 함1:8). 이리는 빠르고 양을 몰아갈 정도로 힘이 세며 보통의 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때를 지은 이리는 목자와 양들에게 큰 위협이 되며(눅10:3; 요10:12) 이런 차원에서 박해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양 떼에게 사나운 이리들이다(마10:16; 행20:29).

● 이마(Forehead) 나병 같은 피부병은 이마에 생길 수 있었다(레13:41-44).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죽였다(삼상17:49).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마에 거룩한 패를 지녔다(출28:38). 이마는 매우 중요하므로 봉인하기에 좋은 곳이다. 환난기에 하나님의 십사만 사천 명은 이마에 봉인되고(계14:1) 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을 가질 것이며(계22:4) 큰 창녀와 짐승의 추종자들은 이마에 악한 표를 가질 것이다(계13:16).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마에 붙였다(신6:8). 마음이 강력한 것을 가리켜 이마가 강하다고도 한다(겔3:7-8).

● 이방인(Gentiles) 히브리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붙여 준 호칭. 이와 대조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개종자라 불렀다. 복음의 시작부터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었다.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혜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크리스천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고 교만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와 구속자로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더러 있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방인들은 대개 그리스도 사람들이라 불렸고(롬1:14, 16; 고전1:22, 24; 갈3:28)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행6:1; 11:20; 18:4).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라 불리는데(갈2:8; 딤편2:7) 그 이유는 그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였으므로 할례자

들의 사도라 불린다(갈2:8). 이방인 선도 참조(73).

● 이방인들의 때(Times of the Gentiles)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방 국가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였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찰 때까지 그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두셨고 그 뒤에 그들을 풀어놓으시고 주전 606년경에 세상의 권세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게 하였다. 바로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눅21:24에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곧 하나님께서 심중에 정하신 어떤 한정된 기간이다. 이것과 바울이 롬11:25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충만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과 상관이 있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 지속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선도 참조(77).

이방인들의 때에 관해서는 느부갓네살이 꾸 꿈과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이 포함된 다니엘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2년에 한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거대한 형상을 보았다(단2:31-45). 이 형상은 세상 왕국들을 상징하며 그 왕국들의 통일성과 역사적 계승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 형상이 사용된 금속의 질적 가치가 위에서부터 점점 하락하는 것은 세상 왕국의 쇠퇴를 보여 주며 이를 반영하듯 형상의 무게 또한 줄어든다.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금속은 연이어 일어난 네 개의 세상 왕국을 의미한다(단2:37-40). 느부갓네살 왕의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네 왕국, 즉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계의 정부로서 계승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왕국들의 개수와 그 이름이 순서대로 밝혀져 있다(단2:38-40; 8:20-21; 9:26). 다섯 가지 세상 왕국 선도 참조(76).

한편 이 형상은 산에서 깎인 돌에 발을 맞고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데 이 돌은 점진적으로 땅에 가득 차서 단번에 형상을 부수고 만다. 또한 이 형상이 멸절되는 때는 발가락이 형성된 이후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상의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던 주후 364년경에야 나타났고 열 개의 발가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돌이 형상 위에 떨어지는 때는 '이 왕들의 날들' 곧 장차 있을 열 개의 발가락이 대표하는 왕들의 때로서 다니엘의 해석 속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단2:44; 7:23-24).

여기에 나오는 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네 가지 금속으로 표현된 네 왕국은 문자 그대로 실질적인 왕국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있을 '돌 왕국' 역시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돌 왕국'이 그 세상 왕국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대신하여 온 땅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 왕국'

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며 형상이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끝나게 된다. 이방인, 천년 왕국 참조.

● 이방인들의 뜰(Court of the Gentiles)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의 뜰에 가슴 높이의 벽이 있었고 정해진 위치에 기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이방인들(타국인들)이 제단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한다.”는 표시가 있었다고 기록한다(렘2:14). 성전 참조.

● 이방인들의 섬(Isle of the Gentiles) 야벳의 후손들이 거한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창10:5). 섬 참조.

● 이브(Eve, 이브, 생명) 은 인류의 첫째 어머니. 이브의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담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브라는 이름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다(창3:20). 그녀는 남자를 돕기 위해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다(창2:18-22; 고전11:1-16). 여자는 남자의 협력자로서 순종해야 하는 약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므로(딤후2:9-15; 뱀전3:1-7) 남자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엡5:28-33). 여러 시대를 통한 여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선고하신 특별한 형벌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창3:16).

● 이사야(Isaiah, 아이제이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아모스의 아들. 그는 가장 뛰어난 히브리 대언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예루살렘에서 웃시아 왕의 통치가 끝날 무렵부터 그 뒤를 이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까지 약 60년 동안 대언하였다(사1:1).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거기서 대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사39:1-8의 기사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탈무드의 전통은 그가 므낫세 왕의 통치 때에 톱에 썰려 죽임을 당했다고 전한다(히11:37). 그는 구약 시대에 복음을 선포한 대언자로 불리며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도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 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분의 출생, 그분의 생애와 속죄 죽음, 그분의 영존하는 왕국 등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다(사7:14-16; 9:6-7; 11:1-10; 32:1-20; 42:1-25; 49:1-26; 52:13-15; 53:1-12; 60:1-21; 61:1-3). 이사야서는 단순함, 순수함, 달콤함, 오묘함, 메시아 예언 등으로 인해 히브리 대언자서 가운데 백미로 꼽힌다.

● 이삭(Isaac, 아이작,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창17:17; 18:12; 21:6). 그는 히브리 민족과 그리스도의 선조 중 하나이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21, 24-28, 3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의 부모가 아기를 낳지 못할 정도로 연로할 때에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에 따라 출생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이복형 이스마엘의 시기를 받았고 이로써 약속의 아이들의 상징이 되었다(갈4:29).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을 배웠고 그래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그는 또한 묵묵히 자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내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 그는 40세에 메소포타미아의 리브가와 결혼하였고 자기 삶의 대부분을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보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는 자기 형 이스마엘과 다시 만났다.

성경에는 그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 그는 에서를 좋아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가장은 시기와 분쟁과 죄와 형제들 간의 이별 등이 생겼지만 이 모든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는 137세에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를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으며 180세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혔다. 그는 겸손하고 조용하며 목상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 이삭줍기(Gleaning)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수확 때에 곡식이나 열매를 남겨두어 그들이 쓸 수 있게 했으며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을 이삭줍기 혹은 끝물 포도 줍기라 한다(삿8:2; 룻2:1; 사17:6). 구약 시대에 이것은 모세 율법의 일부로 시행되었다(레19:9-10; 23:22).

● 이세(Jesse, 제사, 남자다운) 다윗의 아버지. 그는 오벳의 아들이며 모압 여인 룻의 손자이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룻의 고향인 모압에서 피신처를 구했다(룻4:17; 삼상17:12; 22:3; 마1:5).

● 이세벨(Jezabel, 제제벨, 통치자가 어디 있느냐?) 아합 왕의 아내. 그녀는 두로와 시돈의 왕 옛바알의 딸이었으며(왕상16:31) 일생 동안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하나님 경배를 근절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럼에도 오바디는 목숨을 내걸고 100명의 대언자들을 살려 주었다.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엘리야의 말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그녀는 그를 죽여 복수하려 하였으며 또 후에는 속임수로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남편에게 주었다. 그녀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 개밥이 되었다(왕상19:1-21; 21:1-29; 왕하9:1-37). 그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속담이 되었으며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여대언자를 이세벨이라고 불렀다(계2:20).

● 이스라엘(Israel, 이즈레이엘, 하나님께서 지속하신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창32:1-2, 28-32; 호12:3). 야곱 참조. 이스라엘은 야곱의 씨, 즉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기도 하고(고전10:18) 남왕국 유다와 대비되는 북왕국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및 분단 왕국 지도 참조(19, 31).

● 이스라엘 사람(Israelites, 이즈레이얼라이츠)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혹은 사람은 열두 지파 전체를 뜻했으나 그 이후에는 대개 북 왕국의 열 지파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이 열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남쪽의 유다 지파와 경쟁을 하였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랫동안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실로에 머물렀다. 물론 북 왕국 이스라엘의 창시자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다. 왕국의 분열 이후에 열 지파가 에루살렘에 들어가 경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과 베엘에 두 개의 금송아지가 세워졌고 이로써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도입되며 불경건함이 유다보다 이스라엘에서 더 빨리 확산되었다. 이스라엘은 칼과 기근 등으로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뺏뺏하게 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이스라엘의 254년 역사 속에서 여러 계통의 19명의 왕이 있었고 세겜과 디르사 그리고 사마리아가 차례로 수도가 되었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혹은 사르곤)에 의해 다른 곳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지파들은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고국에 돌아오지는 못했다. 한편 되돌아온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속에 묻혀서 돌아왔으며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다. 가나안, 히브리 사람, 유다 참조.

● 이스르엘(Jezreel, 제즈리엘,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I. 잇사갈의 유명한 도시(수19:18).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이곳은 벳스안의 서쪽에 있었고(삼하4:4) 아합은 여기에 궁궐을 만들었다. 이 도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으로 유명한데(왕상21:1-29) 그 뒤 아합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왕하9:10, 14-37; 10:1-11).

II. 이스르엘과 아크레 사이의 큰 평야. 이곳은 보통 므깃도 골짜기라고 불리며(대하35:22) 이곳의 서쪽에 이스르엘 골짜기 혹은 평야가 놓여 있다. 이곳은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중해에서부터 고도가 점점 증가하여 120미터 정도 올라가며 북쪽으로 22킬로미터, 동쪽으로 27킬로미터, 그리고 남서쪽으로 32킬로미터 정도 된다. 한편 기손 강이 이곳을 가로지른다. 엘리야는 바로 이 평야를 가로지르면서 아합의 병거 앞에서 갈멜 산에서 이스르엘까지 달려갔다(왕상18:46). 여기는 여러 전쟁의 격전지였다. 여기서 시스라의 군대가 멸망하였고(삿4:1-24) 요시야 왕이 파라오노크와 싸우다가 패하였으며(왕하23:29) 아미겔돈 전쟁 역시 여기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미겔돈 참조.

● 이스마엘(Ishmael, 이쉬메이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I.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의 아들(창16:1-16; 21:1-34). 그는 처음에 약속의 아들로 여겨졌으나

이삭의 출생 이후 17세쯤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광야의 열기와 갈증을 기적을 통해 이겨 내고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고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아람 족속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는 이삭과 좋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와 함께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137세에 죽었다(창25:9, 17).

그의 후손인 이스마엘 족속은 모세 당시에 '하월라에서 이집트 앞의 수르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곳은 아라비아의 북서부 지역이다. 그 뒤에 그들과 셈의 사 대손인 욥단의 후손과(창10:26-29)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얻은 욥산(창25:3)과 또 욥산과 욥단의 형제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스마엘 족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수가 많고 창대하게 되었으며(창17:16) 창16:12의 예언 역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유대인들 곁에서 방랑하는 삶을 살았다. 미디안 족속, 아라비아 참조.

II. 유다의 통치자. 그는 갈대아 사람들이 에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암몬 족속에게로 도망했다가 얼마 후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달리아 총독과 다른 사람들을 암살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또 도망했다(렘40:1-16; 41:1-18).

● 이스보셋(Ishbosheth, 이쉬보셋, 수치의 사람) 사울의 아들.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친척이자 장군인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한편 이때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다. 이스보셋은 40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렸으며 그 뒤에 다윗을 치려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브넬의 버림을 받고 세력이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 암살당하고 말았다(삼하2:8-11; 3:1-39; 4:1-12).

● 이스비브논(Ishbibenob, 이쉬바이비남, 놉의 거주민) 전쟁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인. 아버지 가 그를 죽이고 다윗을 구출하였다(삼하21:16-17).

● 이스터(Easter) 이것은 그리스어 파스카를 번역한 것으로 파스카는 유월절과 부활절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으나 행12:3은 이미 그 당시가 무교절 기간이라 했으므로 유월절이 지났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김제임스 성경이 이 단어를 이방인 헤롯이 지키던 부활절로 번역한 것은 합당하다.

● 이슬(Dew) 팔레스타인과 동방 여러 나라의 이슬은 그 양이 많으며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계절에는 식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래서 다불산과 헤르몬 산 같은 데서는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려 마치 아침에 비가 온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삿6:38; 아5:2). 특별히 이슬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과 후에 산에 많이 내린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택으로 여겨졌고(창27:28; 신33:28; 왕상17:1; 욥29:19; 학1:10; 스후8:12) 또 성경 기록자들에게 아름다

은 생각들을 많이 가져다주었다(신32:2; 삼하17:12; 시110:3; 잠19:12; 호14:5; 미5:7).

● 이웃(Neighbor) 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민족이나 친구들만 이웃으로 생각하였고 율법도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믿었다(마5:43). 그러나 주님께서 온 세상이 그들의 이웃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원수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눅10:29).

● 이자(Usury)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나(신23:19-20) 자기 동포인 유대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출22:25; 시15:5)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신15:7-11; 눅6:33-35). 또한 그들은 동족에게서 강제로 이자를 받을 수도 없었다(느5:7, 10; 잠28:8; 겔22:12-14).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서 모세의 율법이 추구하는 공평과 사랑의 원리는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의무 사항이다.

● 이적(Wonder) 이상스러운 행적. 기적, 표적 참조.

● 이집트(Egypt, 이집트)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유명한 나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곳을 미스라임이라 불렀다(창10:6). 이집트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은 대개 큰 평야로서 나일 강이 여기를 통과하며 물을 제공하고 남쪽을 일자로 연결하고 있다. 나일 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므로 상부 이집트(Upper Egypt)는 북쪽 지역이 아니라 남쪽 지역이며 하부 이집트는 카이로와 고센 지방 등이 있는 북쪽 지역이다. 나일 참조. 이집트 제국 지도 참조(14).



성경에는 아주 오래된 이 나라가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노아의 손자인 미스라임이 이곳의 이름이 되었다(창10:6). 아브라함 당시에 이곳은 전 세계의 곡창 지대였으며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했을 때 이곳으로 내려갔고(창12:10) 그의 아내 사라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에게서 난 이스마엘 역시 이집트에서 아내를 구했다(창21:9,

21). 이삭의 때에 또 다른 기근이 있어 그도 이집트로 내려갈 뻔하였고(창26:2)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죽었다(창39-50).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얼마 동안은 서로 접촉하는 일이 없었으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다시 이집트가 나온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궁주와 결혼하였고(왕상3:1; 9:1-28; 11:1-43)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유다는 이집트의 왕 시삭의 발에 무릎을 꿇었다(대하12:1-16). 그 뒤 여러 세대 동안 유대인들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다가 결국 두 왕국 모두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했다(왕하17:1-41; 18:21; 23:29; 24:1-20; 렘25:1-38; 37:5; 44:1-30; 46:1-28).

이집트는 주전 525년경에 캄비세스에 의해 정복되어 페르시아의 한 지방이 되었고 그 뒤 주전 350년에 알렉산더가 이곳을 정복하였으며 그의 죽음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여기에 설립되었고 주전 30년의 악티움 해전 이후로 이집트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레온토폴리스 등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주님 역시 어린 시절에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셨다(마2:13).

이집트의 종교는 천체 숭배와 자연신 숭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사장들은 천문학과 점성술을 발전시켰고 이로 인해 마법사와 점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출7:11, 22). 여기에는 계급 제도가 있었는데 제사장 그룹이 가장 큰 권세를 권 계급에 속했고 모세 역시 이런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던 지혜를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행7:22). 이집트 종교의 한 가지 특징은 산 짐승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짐승을 거룩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신전에서 이것들을 키우고 희생물을 가져다가 이것들에게 경배를 드렸다.

‘이집트 강’(민34:5; 수15:4, 47; 왕상8:65; 왕하24:7; 사27:12; 겔48:28)은 리노콜루라에서 지중해의 남동부로 흘러 들어가는 엘아리쉬 강을 뜻한다. 끝으로 기존 우리말 성경은 중국어를 따라 이집트를 애굽이라 번역했다.



● 이집트 탈출(Exodus) ‘나가는 것’ 혹은 ‘탈출’을 뜻하는 Exodus가 모세의 둘째 책의 이름이 된 것은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기술하기 때문이다. 이집트 탈출(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그의 씨가 많게 되리라는 예언의 약속과(창15:5; 17:4-6; 46:27; 민1:1-3, 46) 그들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네 세대 만에 거기를 떠날 것이라는 약속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창15:13-16; 출12:40-41).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 광야를 거쳐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 준다(고전10:1-33; 히1-13).

이스라엘 자손의 이집트 탈출과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며 그 안의 사건들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는 무려 40년이 걸렸으며 이때에 한 세대가 소멸되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었다. 민족이나 개인의 일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이 이같이 큰 사례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신4:7-8).

출12:40에 언급된 430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때부터 계산된 것이다(창15:13).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그의 후손이 이집트를 떠나기까지는 약 230년이 흘렀으며 이 기간에 75명의 조상들이 아이들과 여자들을 빼고 600,000명으로 불어났다(출12:37; 민1:46). 그들은 많은 재물과 함께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에 의해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집트 탈출을 통해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집트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출12:22).

열째 재앙이 있는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급히 이집트를 떠났으며 이때에 고센 땅의 라암셋(혹은 라메셋), 즉 수에즈 운하에서 북서쪽으로 56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지금의 4월 중순)에 그곳을 떠났다. 그들의 여정은 남동쪽으로 예담까지 미쳤으나 그 뒤에는 곧장 시내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돌이켜서(출14:2) 홍해의 서쪽에 있었다.

이렇게 사흘간의 여정이 있는 뒤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지나게 하시며 그들을 따르던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수장시키셨다. 홍해를 가른 이 기적은 이전의 열 가지 재앙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크게 드러내었다.

이렇게 기적으로 구출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드리고 홍해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나아가서 골짜기와 사막을 지나 시내 산에 이르렀다. 이 여정은 쉽게 추적해 볼 수 있으며 마라, 엘림, 신 사막 등의 위치도 대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그들은 두 달간의 여행 끝에 3월 15일에 시내 산에 도착하였고 여기서 다음 해 2월 20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고 이때의 일들이 출21:1-민9:23에 기록되어 있다. 시내 산의 위치와 그들의 여정에 대해서는 이집

트 탈출 지도(15)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들은 다시 시내 산에서 떠나 바란 사막을 거쳐 북쪽으로 나아가 가나안의 남동쪽 경계인 가데스바네에 이르렀다. 이 여정에서 시내 산 근처의 르비딤, 다베라, 기브룻한다이와, 하세롯 등에서 여러 일이 발생하였다. 그해 가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결과를 악하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백성이 불평을 터뜨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되돌려 그 세대 사람들의 시체가 광야에 거꾸러지기까지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하셨다(민14:25-35). 이에 그들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바란 사막과 또 사해에서 아카바 만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모래 평야를 오가며 유랑 생활을 하였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단지 모세는 그들이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단지 움직였다고 기록하고(민9:22) 또 그들이 에시온게벨에 이르기까지 진을 친 17군대를 나열하며(민33:19-35) 거의 38년이 지나서 1월에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기록한다(민20:1; 33:36-37).

이렇게 가데스에서 두 번째 진을 친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거쳐 약속의 땅에 가게 할 것을 에돔 왕에게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이에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직접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것은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힘들 것으로 느끼고 에돔 밀로로 돌아서 가기로 하였다(민21:4).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돌아서자마자 호르 산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아론이 죽었다(민20:20-28). 여기서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홍해의 동쪽 만에 있는 에시온게벨에 이르러 동쪽으로 돌아서 산지들을 거쳐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지나 모압의 남쪽 경계인 세렛 시내에 다다랐다.

● 이혼(Divorce) 모세의 율법은 여러 이유로 이혼을 허락했으나(신24:1-4)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직 음행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마5:31-32; 19:9). 그런데 아버지복음의 이런 구절들은 유대인들의 정혼 풍습과 함께 잘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정혼한 상태에서 육체적 관계를 갖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음행으로 인해 여자를 버리는 것에만 해당된다.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려 했던 것도 바로 이 같은 음행의 이유 때문이었으며(마1:18-19)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음행에서 난 자라는 치욕적인 평을 받았다(요8:41).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도 이혼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말2:14-16). 한마디로 결혼한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키니,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19:6). 결혼 참조.

● 인방(Lintel) 벽을 치거나 문골을 내기 위해 기둥 사이에 가로 건너지른 나무(출12:22-23).

● 인장 반지(Signet) 봉인하기 위해 쓰는 반지.

반지, 봉인 참조.

● 일(Works) 시편은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시33:4; 92:5; 104:24)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자세히 보여 준다(요10:25-38). 사람의 일 혹은 행위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성경에는 이 두 종류가 종종 함께 언급된다(롬13:3, 12; 히6:1, 10).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바른 행위 혹은 일을 나타내야 한다(마5:16; 계3:8). 어둠의 일들(롬13:12; 엡5:11), 육신의 일들(갈5:19)은 나쁘다. 고전3:13에서 이 말은 '수고하다' 혹은 '일하다'를 뜻하며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한 행위나 업적 등을 말한다(고후5:10 참조).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요6:29). 사람의 선한 일 혹은 선한 행위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엡2:8-10).

● 일루리곤(Illyricum, 일리리쿰) 아드리아 바다 동쪽에 있는 유럽의 한 지역. 이곳은 마케도니아의 서쪽에 있었으며 바울은 여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지역을 통과하였다(롬15:19).

● 일용(日用) 날마다 씀.

● 임마누엘(Emmanuel, 이매뉴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복합 히브리어.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채 사람들과 함께 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적용되었다(사7:14; 8:8; 마1:23). 이 말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가리킨다.

● 임하다(Come) 이 말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 심판, 재앙 등이 올 때에도 '임하다'로 번역된 경우가 많다.

● 입(Mouth) 성경에서 입은 종종 말하는 사람을 뜻한다(출4:16; 렘15:19).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입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는데(민12:8) 이는 곧 자신을 드러내며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뜻한다. 한편 율법은 히브리 사람들의 입에 있어야 했고 그들은 늘 그것을 반복하고 이야기하여야 했다(출13:9). 한편 그의 입의 막대기(사11:4)와 그의 입의 예리한 검(계1:16) 등은 확증하고 규제하며 판단하는 그리스도의 말의 능력을 뜻한다(사49:2; 히4:12 비교). 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종종 명령으로 번역되었고(창45:21; 욥39:27; 전8:2) 용의 입에서 나온 영들(계16:14)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을 뜻한다.

● 입다(Jephthah, 젠타, 그가 열 것이다) 길르앗의 아들. 그는 야일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삿11:1-40; 12:1-15에 나온다. 그는 성급하게 자기 하나님께 맹세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딸은 결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입다는 딸을 먼저 헌물로 바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

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입다를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였다(히11:32).

● 입맞춤(Kiss) 동방에서 입을 맞추며 문안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다(창29:13; 룻1:14; 행20:37). 사람들은 어떤 때에는 수업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삼하20:9) 겸손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하며(눅7:38) 우상들을 숭배할 때에 형상들에게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왕상19:18; 욥31:27; 호13:2). "아들에게 입 맞추라."(시2:12)는 말은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서 연합의 입맞춤을 받는 것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삼상10:1). 이런 문안법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도 흔하였으며 초대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화평과 사랑을 표시하는 약속의 입맞춤이 있었다(롬16:16; 벧전5:14).

● 입산(Ibzan, 입잔) 이스라엘의 열 번째 재판관. 그는 베들레헬에서 났으며 7년 동안 재판하였고 가족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다(삿12:8).

● 입술(Lip) 입술을 연다는 것은 말을 시작하는 것이며(욥11:5; 32:20) 입술을 억제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다(사40:9; 잠10:19). 입술의 열매는 찬양, 감사를 뜻한다(호14:2; 히13:15). 타국인의 입술은 말이나 방언을 뜻하며(고전14:21) 거짓말하는 입술은 거짓, 거짓말, 사악함을 뜻한다(잠10:18; 17:7; 시120:2). 불타는 입술은 격렬히 말하는 것을 뜻하며(잠26:23) 입술을 내미는 것은 조롱을 뜻한다(시22:7). 둔한 입술, 부정확한 입술은 하나님의 것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함을 뜻한다(출4:10; 사6:5; 렘1:6).

● 이도(Iddod, 이도) 유다의 대언자. 그는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대하9:29; 12:15; 13:22). 여러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갔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대언자라고 생각한다(왕상13:1-32). 성경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다(대상27:21; 스6:14; 숙1:1).

● 잇사갈(Issachar, 이싸카르, 보용 혹은 일꾼) 야곱과 레아 사이의 아들(창30:18). 그는 야곱의 아홉째 아들이었으며 그의 성격과 후손에 대해서는 야곱과 모세가 잘 예언하였다(창49:14-15; 신33:18-19). 이집트 탈출 뒤 잇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54,400명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세 번째로 수가 많았다(민1:28; 26:25). 그들의 상속 지역은 동쪽으로 요르단, 서쪽으로 므낫세, 북쪽으로 스블론, 남쪽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경계로 두었으며 아주 비옥한 곳이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잇사갈 지파 지도 참조(19, 21). 그들은 농작에 능한 사람들이었으며 특히 용맹심과 애국심이 많은 것으로 칭찬을 받았다(삿5:15; 대상7:1-5; 12:32).

● 잉크(Ink) 고대의 잉크는 진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 마치 현대에 인쇄소에서 쓰는 잉크와 비슷했다(렘36:18). 보통은 분말 숯과 흑색 상아 그리고 나무 수지 등을 배합하여 잉크를 만들었고



또 검은색 물질을 내는 물고기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기록하는 사람들은 허리띠 안에 혹은 밑에 잉크통을 차고 다녔다(겔9:2).

(ㄱ)

● 자고새(Partridge) 꿩과에 속하는 작은 수렵조류. 이것은 매추라기 종류보다 크며 부리와 발이 강하고 암수가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으며 날기나 울타리에 지은 둥우리에 약 15개의 알을 낳는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은 마치 자고새 사냥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묘사되었다(삼상26:20). 렘17:11 은 알들을 품되 부화하지는 못하는 자고새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 자녀(Children) 구약에서 아이들을 많이 둔 것은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시127:3-5) 그래서 아이가 없는 부인들은 불임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유대인들은 새로 결혼한 부부에게 애를 많이 낳으라는 축복의 말을 하곤 했다(룻4:11).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은 굉장히 아프고 갑작스레 닥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고통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열매요 또 여자가 먼저 범법해서 죄를 가져오게 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여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 마귀의 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창3:16; 딤펢전2:11-15). 수태하지 못함 참조.

고대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씻어서 소금으로 문지르고 포대기에 싸다(겔16:4; 눅2:7-11). 남자아이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으며 젖을 떼는 날에는 연회가 열렸다(창21:8). 여자아이의 유모는 평생 동안 그녀의 시중을 듣기도 하였다(창24:59; 35:8).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부지런할 것과 모든 일에 공의를 기울일 것을 가르쳤고(신6:20-25)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을 가르쳤으며 특히 그들은 모든 일에 아버지의 제재를 받으며 성장했다(민30:5). 한편 부모가 빚을 진 경우 잠정적으로 아이를 팔기도 했다(레25:39-41; 왕하4:1; 마18:25).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때 딸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동등하게 받는 것의 두 배를 받았고 첩의 아들들 역시 에물을 받거나 다른 아들들과 함께 동일한 상속물을 얻기도 했다(창21:8-21; 25:1-6; 49:1-27; 샅11:1-7). 장자권 참조. 그러나 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아무 유산도 받지 못했다(민27:1-11).

히브리 식 표현에서 아이들(자녀들)은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왕국의 자녀로 표현되었고 악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등으로 표현되었다. 또 강한 사람은 강력의 아들, 추잡한 자는 벨리알의 아들, 화살은 활의 아들, 가지는 나무의 아들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들이나 딸은 다음 세대의 자녀만을 뜻하지 않고 손자, 손녀 혹은 몇 세대 이후의 후손을 가리키기도 했다.

● 자벌레(Canker-worm) 이것을 매뚜기가 앞에서 깨어나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기까지의 한 단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을1:4; 나3:15-16).

● 자손(Children) 이 단어는 대개 자녀 혹은 자손으로 번역하였으나 명백히 아들들만을 가리키는 몇 군데는 아들들로 번역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에도 children이 쓰이지만 이 경우 대개는 상속권이 있는 아들들을 의미한다. 자녀 참조.

● 자수정(Amethyst) 플루오르화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형석. 이것은 연한 자줏빛을 띠고 투명하며 색이 짙고 아름다운 보석이다(출28:19; 계21:20).

● 자원 헌물(Freewill offering) 기존 우리말 성경의 낙헌제(레22:21, 23; 민15:3).

● 자유 의지(Free will)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무언가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 결과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의 선택대로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 의지는 선택하는 능력이며 이것은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정신이 아니며 단지 사람이 취할 행로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마음이 사람을 다스리므로 마음이 악하면 의지도 악하고 마음이 선하면 의지도 선하다. 그런데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선이 하나도 없으며 마음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꾀하려 한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저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렘17:9)

그러므로 만일 사람의 의지가 마음의 자연적 성향을 거슬러 행동하려면 그 사람의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조절을 받아야 하며 성경은 이 힘이 성령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의 힘 아래에서 자기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본성은 스스로 거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요6:44)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무능함을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실이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원을 찾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요12:32)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구원받아야겠다고 느끼며 또 그것이 자기 밖에 있는 힘에 의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 힘을 찾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므로(요1:9) 아무도 변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롬1:19-23).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롬1:16).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롬10:17).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믿을지 알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새 본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요3:5).

결론적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아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간구를 거부하고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행7:51). 이처럼 성령님의 사역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자기 의지에 역행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선택, 미리 아심 참조.

● 자주(Purple) 고대의 왕들이 선호한 색깔. 모세 시절에 이미 자주색 염료가 있어서 옷감이나 실에 쓰였다(출26:1, 4, 31, 36; 28:31; 민4:6-12; 15:38).

고대에는 조개로부터 자주색을 얻었으므로 왕이나 통치자가 입는 고급 자주색 옷은 매우 비쌌으며 네로 같은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으면 사형에 처하라고 할 정도로 자주색을 귀하게 여겼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호칭에 맞게 조롱을 받기 위해 자주색 왕복을 입었다(요19:2, 5, 샬8:26; 예8:15; 잠31:22; 단5:7; 눅16:19 참조). 이집트 탈출 뒤에 모세는 성막을 짓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주홍색과 자주색을 많이 사용했다(출25:4; 26:1, 31, 36; 39:1; 대하3:14). 바빌론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우상에게 자주색과 하늘색 옷을 입혔다(렐10:9; 겔23:15; 27:7, 16). 한편 행16:14에는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녀는 바울의 인도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접대하였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 바빌론이 나오는데 이 음녀 역시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다(계17:4).

● 작은 숲(Groves) 옥스퍼드 사전은 작은 숲에 대해 ‘작은 나무;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특별 목적으로 심겨져서 그들을 제공하거나 가로수 길이나 산책로로 형성된 숲’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작은 숲은 처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으며

(창21:33)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전(殿)의 역할을 했고 그런 목적에 맞았다. 그런데 모방의 천재인 마귀를 섬기던 이교도들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우상들을 접대하려고 경배의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목 같은 작은 나무들을 아름답게 배치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작은 숲 정원과 같은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grove나 groves는 항상 ‘(나무를) 심다’라는 의미를 가진 plant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며(창21:33; 신16:21) 또 이 작은 숲들은 언제나 그 안의 우상들과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왕상14:23; 왕하17:10, 16; 18:4; 23:14; 대하14:3; 24:18; 31:1; 사17:8; 27:9).

시간이 흐르면서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작은 숲을 사용했고 그래서 작은 숲의 나무들이 있는 높은 장소들이 경배의 장소로 적합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리나무와 포플러나무와 느릅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이는 그것들의 그들이 좋기 때문이라”(호4:13). 높은 장소들을 뜻한 산당들은 처음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왕상3:3-4)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좀 비정상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이 모든 희생물을 성소의 계단에 가져올 것을 명하기 때문이다(레17:8-9; 신12:13, 16). 이런 연유로 작은 숲이 있는 산당들은 곧장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다(왕하23:15). 산당 참조.

아브라함도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창21:33) 이것은 성경과 배치되지 않는다. 신16:21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계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작은 숲을 심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위한 계단을 쌓지 않았고 단지 작은 숲을 심었을 뿐이다. 성경은 작은 숲을 심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으며 다만 작은 숲에게 경배를 드리거나 작은 숲 안에 계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 하는 것을 금한다.

현대 역본들의 역자들은 출34:13 등에 나오는 ‘작은 숲’이 오역이며 아세라나 형상 등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어에서 형상과 작은 숲을 의미하는 단어는 서로 다르다. 사27:9를 보면 형상과 작은 숲이 동시에 나오므로 작은 숲과 형상은 같을 수 없고 왕하18:4; 23:14도 동일한 사실을 보여 준다(신16:21 참조). 기존 우리말 성경 역시 다른 현대 역본들을 따라 groves를 작은 숲이라 번역하지 않고 아세라라 하였는데 이는 그 성경의 번역 대본을 만든 편집자들이 아세라가 이방 여신 아스다롯을 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고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의 이름이 알려졌 왔지만 아세라라는 이름의 여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 1800년대 이전에는 아세라가 여신의 이름이라고 알려진 적도 없고 공식 문서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작은 숲 안에 우상이나 형상이 세워지므로(왕상15:13; 대

하15:16) groves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상 숭배를 위해 심겨진 작은 숲을 뜻하며 결코 아세라 여신을 가리키지 않는다.

● 작은북(Timbrel) 초기부터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악기(창31:27; 욥21:12), 히브리 사람들은 기쁨 때에 작은북을 사용하였으며(출15:20; 사24:8) 주로 여인들이 사용하였다. 입다의 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기 아버지를 맞으면서 작은북을 사용하였다(삿11:34). 춤 참조.

● 잔(Cup) 잔은 대개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 문자적 의미의 잔은 보통 식사 때나 예식을 거행할 때 쓰였으며 귀중한 금속으로 만들기도 했다(창40:13; 44:2; 왕상7:26). 이것은 또한 유행질 같은 염속한 종교 의식을 행할 때도 쓰였는데 아버지가 잔을 축복하고 그 안의 것을 맞은 뒤에 자기 가족에게 잔을 돌리면 그들이 차례로 잔에 참여해서 음료를 마셨다(고전10:16). 비유적인 의미의 잔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어떤 이에게 주어진 것을 채우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시11:6; 16:5) 생명과 은혜와도 관련이 있고(시23:5) 또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출29:40; 시116:13). 이것은 또한 우상 숭배 연회의 음료와도 상관이 있고(고전10:21; 계17:4) 심한 고통과도 상관이 있으며(시75:8; 사51:17) 죽음의 쓴 맛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시75:8) 이는 독이나 독 당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마26:39; 눅22:42; 요18:11 등 참조).



● 잔 말은 자(Butler) 왕이나 귀족의 음료로 쓰는 과일 주스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 이 말은 지금은 주로 하인의 의미로 쓰인다(창40:1, 5; 41:9).

● 잔치(Fests) 히브리 사람들은 손님 접대를 잘했으며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갈 때에 잔치를 베풀었다(창19:3; 31:27; 삿6:19; 삼하3:20; 왕하6:23).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의 아버지는 연회를 베풀었다(눅15:23). 여러 가지 기쁜 날에도 연회를 베풀었다: 생일 등의 기쁜 날(창21:8; 40:20; 욥1:4; 마14:6), 결혼(창29:22; 삿14:10; 요2:1-10), 양털 깎는 일과 수확하는 일(삿9:27; 삼상25:2, 36; 삼하13:23). 장례식에도 연회가 있었고(삼하3:35; 렘16:7) 회색물과 흰물을 성전에 가져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하며 자기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신12:6-7; 삼상16:5; 삼하6:19). 이때에 그들은 궁핍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했으며(신16:11)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기도 했는데(신12:17-19; 14:29; 26:12-15) 주님께서는 이 같은 관습을 칭찬하였다(눅14:12-14).

잔치를 여는 방법은 초기에 매우 간단했지만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도입되어 조금 복잡해졌다. 연회 혹은 만찬은 오후 5시나 6시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다. 손님들은 미리 초대 받았으며 승낙한 손님들에게는 종들 편으로 언제 오라는 통보가 갔다(마22:4-8; 눅14:16-24). 초대 받지 않은 손님들은 문에서 저지를 당했으며 최종적으로 집의 주인이 문을 닫았다(마25:10; 눅13:25). 어떤 때에는 초대받은 손님이 매우 많았고(에1:3, 5; 눅14:16-24) 사회적 신분, 자격, 성품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연회를 주관하게 했으며(요2:8) 손님들은 각 사람의 명예에 걸맞게 배치되었다(창43:33; 삼상9:22; 잠25:6-7; 마23:6; 눅14:7). 어떤 때에는 주인이 무리들에게 가벼운 옷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이때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큰 실례가 되었다(전9:8; 마22:11; 계3:4-5). 손님들은 상 주면에 둘러앉았고 물과 향수 등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다(막7:2-3; 눅7:44-46). 그들은 먹은 뒤에 다시 손을 씻었으며 이때에 그들이 물을 부어 주었다. 잔치에서는 식사 시간이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가 있었고 수수께끼를 내거나(삿14:12) 동방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음악을 들곤 했으며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사5:12; 24:7-9; 암6:6).

● 잠언(Proverbs)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 구약 성경의 잠언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담은 지혜서 중 하나이다. 실제로 잠언은 고대 문화에서 쉽게 발견되는 문학 형태로서 여러 시대 동안의 지혜를 모으고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잠언은 다른 잠언과는 달리 신자가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잠언의 요점은 한마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시작이다."라는 것이며(잠1:7) 따라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에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잠언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안의 지혜의 모든 말을 무조건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잠언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만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기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일반적으로 장수한다(잠3:2).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바른 신자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일찍 죽어 주님께 가는 것이 장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였다(빌1:20-24). 지혜 문학 참조.

● 장로(Elders) I. 이스라엘의 장로. 히브리 사람들의 연방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들. 그들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가족과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장로들을 민족의 대표들로 간주했다(출3:16; 4:29; 12:21).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과 또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와서 증인이 되게 하셨다(출24:1, 9). 그 뒤에도 70명의 장로 혹은 각 지파에서 6명씩 나온 72명의 장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

II. 교회의 장로.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비슷하게 초대 교회에는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었다(행20:17, 28; 딤후1:5, 7; 벨전5:1; 요이1). 성경에서 장로는 감독과 목사와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장로는 좀 더 문자적인 의미로 연장자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교회 회중의 모범이 되며 그들을 권위 있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 감독 참조.

● 장막(Tent) 한때에 설치하여 별 또는 비를 가리고 사람들이 들어가 생활할 수 있게 한 물건. 고대 동방 민족들은 종종 장막에 거하였다(창4:20). 그들은 주로 목축에 종사하며 이동하였으므로 이런 식의 거주지가 필요했다(사38:12).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들은 다 장막에 거하였고(창18:1; 히11:9)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떠난 뒤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 이런 식의 거주지에서 살았다(삿7:8; 삼하20:1; 왕하8:21). 중동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장막을 치며 야외에 거하는 데 익숙하다. 장막이라는 말은 원래 '펼치다'를 뜻한다. 하나님의 집인 하늘은 장막처럼 펼쳐져 있으므로 종종 주의 성막 혹은 주의 장막 등으로 불린다(시15:1; 61:4; 84:1; 히8:2; 9:11). 한편 몸은 혼의 장막이며 죽을 때 해체된다(고후5:1; 벨후1:13).



● 장막절(Feast of tabernacles)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집의 지붕이나 뜰이나 거리에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든 데서 유래된 명절. 느헤미야는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

종려나무 등의 가지를 모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세 차례 큰 명절을 지키고 남자들은 다 거기 참석해야만 했는데 장막절은 그중 하나였다(신16:16). 장막절은 티쉬리 월 15일(대략적으로 10월 15일)부터 8일간 지켰으며 특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히 구분해서 지켰다(레23:34-43; 느8:14-18). 이 명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레23:42-43) 이때는 사실 수확물을 거두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때였다. 이때에 드린 헌물에 대해서는 민29:12-39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천년 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그리하지 않는 민족들은 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슌14:16-19).

● 장미(Rose)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종류의 들장미가 존재한다. 사론의 장미라는 표현은 하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아2:1; 사35:1).

● 장사하는 일(Burial)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고(창25:9; 35:29)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장사하지 않는 것은 불명예와 불행의 상징이 되었으므로(전6:3; 렘22:18-19) 누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들도 장사하였다. 선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매장하지 않은 시체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데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고 이로 인해 땅이 오염되는 것으로 생각했다(삼하21:14). 또한 죽은 자의 몸에 닿거나 시체에 닿은 물건에 닿은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정결례 의식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다(민19:11-22).

시체를 불로 태운 것은 성경에 단 두 번 나온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삼상31:12)과 재앙으로 죽은 자들(암6:10). 관례상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감기고 입을 맞추며 애곡하는 일을 시작했고(창46:4; 50:1) 장사하는 일이 끝난 뒤까지 이어지는 애곡 기간에 죽은 자의 친지들과 친척들이 모였다(요11:19). 바로 이런 사람들의 큰 애곡의 소리가 막5:38에 나와 있다. 또한 동방에서는 애곡하는 여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렘9:17; 암5:16) 그들은 죽은 자를 칭송하고(행9:39) 큰 소리를 내며 놀란 모습을 하면서 우울한 노래와 함께 큰 슬픔을 애곡에 담았다(마9:23; 참조 겔24:17-18).

사람이 죽으면 곧 몸을 씻어서 편안한 장소에 안치했는데(행9:39) 대개 몸은 여러 겹의 아마로 향료와 함께 싸웠으며 머리는 수건으로 감았다(마27:59; 요11:44). 몸을 향을 넣지 않은 한 장사하는 일은 금방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지역의 뜨거운 기후와 장사하는 일로 인한 부정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개는 죽은 뒤 24시간 이내에 장사하는 일이 끝났다(행5:6, 10). 수의를 입힌 시체는 간단한 들것 같은

운반대나 열린 관 위에 놓였으며 사람들이 이것을 떼어다가 무덤에 두었고(삼하3:31; 눅7:14) 어떤 경우에는 비싼 열린 관(혹은 운반대)이 사용되기도 했다(대하16:14). 왕이나 유명 인사의 시체는 나무로 만든 관에 넣기도 했다. 죽은 자의 친척들은 도시 밖에 있는 무덤에 가서 관을 돌아보았다. 장례식이 있는 뒤에는 연회가 열리기도 했고(렐16:7-8) 그 일이 끝나면 죽은 사람의 친구들이 꽃을 들고 가끔씩 무덤에 가서 애곡하곤 했다(요11:31). 돌무덤 참조.

- 장성(Of age) 자라서 어른이 됨.
- 장인(Craftsman)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 장자권(Birthright) 맏아들의 특권. 히브리 사회에서 맏아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다. 모세는 일부 다처제하에서 맏아들의 특권을 분명하게 기록했다(신21:15-17). 맏아들은 아버지의 특별 축복을 받고(창27:1-46) 여러 가지 작은 권리를 받았으며 특별히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었고(출13:11-16; 22:29) 제사장의 맏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인 르우벤은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셉에게 주셨다(창35:22; 49:3-4; 대상5:1-2). 맏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아들이 동일하게 갖는 몫의 두 배를 받았고(신21:17) 아버지의 위엄과 권리를 승계했다(대하21:3).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와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눅8:29; 골1:18; 히1:2-6). 즉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지배하시며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있다.

● 재(Ashes) 베를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거나 거기서 눕는 것은 죄로 인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 주는 표적이었다. 욥(욥2:8), 두려움을 당한 유대인들(에4:3), 니느웨의 왕(은3:6) 등이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되었다(민19:1-22). 삼복 참조.

● 재갈(Bit) 말을 부리기 위해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 이것은 보통 쇠로 만들었으며 굴레가 달려 있어 대개는 여기에 고삐를 맨다(욥30:11; 41:13; 시32:9; 약3:2-3). 하나님께서 사람들이나 민족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은 종종 굴레로 표현된다(왕하19:28; 사30:28; 37:29; 렘29:4).

● 재림(Second coming) 신약 성경은 300회 이상 실질적이고도 영광스러우며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한다.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참조. 그분은 눈에 보이기 올리브 산에 강림하실 것이다(슌14:4).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다(요14:3).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이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였다(행1:11). 또한 사도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였다(빌3:20-21; 약5:7-8; 벧후1:16; 계1:7). 한편 교회의 두 가지 규례 중 하나인 주의 만찬 역시 그분의 오심을 증언한다(고전11:26). 이처럼 신약 성경은 그분의 재림의 기대로 가득하며 따라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명령 받은 대로 이런 기대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막13:32). 그리스도의 초림이 하나님의 충만한 때에 이루어졌듯이 그분의 재림 역시 하나님의 충만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갈4:4). 비록 우리가 그분의 재림의 날이나 시간은 모른다 해도 재림의 시기가 천년 왕국 이전이라는 것만은 확실할 수 있다. 전천년 믿음을 참조.

다음은 재림의 소망을 보여 주는 몇 가지 근거이다: (1) 유대인들의 일부 회복 및 성전 건축 시도(마24:15-22) (2) 과학과 기술의 증가(단12:4) (3) 세상에 편재해 있는 진화론과 인본주의(벧후3:3-4) (4) 도처에 극도로 만연되어 있는 윤리와 도덕의 붕괴(딤후3:1-7) (5) 적자생존의 사회적 다윈주의(약5:1-8).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나타나는 단계와 드러나게 나타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약 7년의 기간을 포함한다. 초림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비밀리에 지구의 대기권 내로 들어오시는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려져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휴거 참조. 그 뒤 약 7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이끄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승천하셨던 올리브 산에 자신의 발을 디디실 것이다(슌14:4). 이 단계는 보통 현현, 지상 강림 혹은 좁은 의미의 재림이라 불린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선도 참조(64).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사고팔고 짐을 짓고 곡식을 심고 먹고 마시며 장가 가고 시집가는 일 등에 몰두해 있다가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계19:15-1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마24:30).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며 곧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마25:31-46)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천년 왕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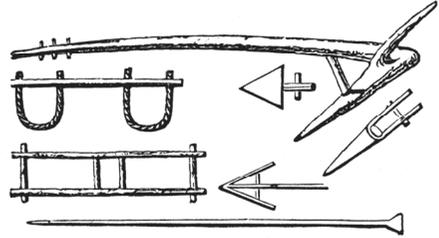
● 재앙(Plague, calamity)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시는 재난이나 심판(창12:17; 출11:1; 레26:21; 민11:33; 신28:59; 삼상4:8; 시106:29-30).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공개적이고 극심한 이쁨을 동반하는 재난을 뜻한다(계9:18-20; 11:6; 15:1; 16:9).

● 재판관(Judges)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 시대까

지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도자, 우두머리. 그들은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하던 사람들, 즉 지금의 판사들과는 매우 달랐다. 재판관의 영예는 평생 동안 지속되었지만 대대로 지위가 넘겨지지는 않았으며 어떤 때에는 재판관 없이 무정부 상태로 나라가 유지되기도 하고 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히브리 사람들이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던 기간도 있었다.



보통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셨지만 어떤 때에는 백성이 자기들을 압제에서 구해 줄 가장 합당한 인물을 고르기도 하였다. 또한 압제가 이스라엘 전체에 행해지지 않은 경우 한 지방에서 고른 재판관은 전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에훗, 압다, 엘론, 아일은 요르단 동쪽에서, 바락과 돌라는 북쪽에서, 압돈은 중앙에서 그리고 삼손과 임산은 남쪽에서 재판관이 되어 그들을 다스렸다. 재판관의 권위는 왕의 권위만큼 강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심히 권위 있게 모든 일을 다스렸다. 그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백성에게 짐을 지우지 못하였고 단지 율법을 지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우상 숭배를 타파하였다. 그들은 영예나 보수를 받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나라를 구했다. 재판관들의 연대 선도 참조(4).



재판관들의 시절에 가나안 족속을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이교도들은 우상 숭배와 악한 일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혔다. 레위 사람 미가의 사건과 베냐민 족속을 거의 진멸시킬 뻔했던 기브아 사건 등(삿17-21)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악한 일을 행하였음을 잘 보여 준다.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와 모압과 가나안, 암몬,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파들의 일부나 혹은 전체 지파에게 고통을 주게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분께서는 재판관을 일으켜서 그들을 재난에서 구조하셨다. 성경에는 총 15명의 재판관(아비멜렉 포함)이 나오는데 약 여호수아 이후 20년이 되었을 때에 웃니엘이 나오고 그 뒤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여러 재판관이 나타났다. 재판관들의 도시들 지도 참조(18).

기질을 하였다(신22:10; 삿14:18).

- 저녁(Evening)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두 개의 저녁이 있었고 이때에 유월절 어린양을 죽이고 날마다 저녁 때 드리는 헌물을 드렸다(출12:6; 출29:39-41; 민9:3; 28:4). 즉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 곧 그들의 시간으로 아홉 시를 하나의 저녁으로 생각하고 또 완전히 어둡게 되는 때를 다른 저녁으로 생각했으며 이 둘 사이에 위에 언급된 일을 했다(신16:6). 시각 참조.

- 저울(Balances) 이집트 탈출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저울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의 저울은 수직 기둥과 그 중간에 놓인 수평대 그리고 접시로 구성된 간단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저울은 상징적으로도 많이 쓰였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레19:36; 겔45:10)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고 정직, 의, 공평, 정당한 거래 등을 뜻하기도 한다(욥31:6; 시62:9; 잠16:11). 거짓 저울은 악을 뜻하며 결국 심판을 가져온다(잠11:1; 미6:11).

기존 우리말 성경에서는 재판관을 표현하기 위해 고대 중국에서 재판관과 비슷한 일을 하던 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저주(Curse)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브를 유희한 뱀과(창3:14)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창4:11)을 저주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족장 노아(창9:25), 야곱(창49:7), 모세(신27:15), 여호수아(수6:26) 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도 저주했다. 모세의 율법은 부모와(출21:17) 치리자(출22:28), 귀먹은 자(레19:14)를 저주하는 것을 금한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해졌다(레24:11, 14-15). 아나테마 참조.

- 쟁기(Plough) 고대로부터 농사에 사용되어 온 도구(창45:6; 신22:10; 욥1:14). 쟁기는 쟁기 자루와 보습과 손잡이로 되어 있으며 대개 이 셋은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 보습은 쇠로 만들 수도 있었다(사2:4; 욥3:10). 쟁기의 손잡이는 하나였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한 손으로 그것을 다룰 수 있었고(눅9:62) 쟁기질 하는 사람은 다른 손에 쇠막대기를 가지고 보습에서 진흙 같은 것을 제거했다(삿3:31; 삼상13:21; 행9:5). 보통은 소나 나귀를 사용해서 쟁

- 적그리스도(Antichrist)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미 자기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 즉 불신자, 이단자, 박해자가 있다고 말했다(요일2:18; 4:3).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했고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했다(요일2:22; 4:3). 그러나 사

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유일한 의미의 적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며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살후2:3). 아마 요한도 요일2:18에서 이 구절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에게 네 가지 다른 이름, 즉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그리고 저 사악한 자라는 이름을 부여했다(살후2:3-10). 그가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한 이름 중 하나인 멸망의 아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딤후3:16)시라면 적그리스도는 그 반대인 불법의 신비이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분신인 멸망의 아들이어야 한다. 사탄의 삼일체 선도 참조(71).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불법의 신비'의 특징은 이미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으며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작은 뿔이 사람의 눈과 같은 눈과 큰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진 넷째 짐승의 머리 위의 열 개의 뿔들 가운데서 솟아 나오는 것을 보았다(단7:7-8).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왕이고 큰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졌으며 놀라운 지혜와 대단한 웅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대담하고 오만하며 교활한 박해자로서 때와 법을 변경하려 할 것이고 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즉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 뒤에 그는 그 권세를 빼앗길 것이다(단7:23-26). 적그리스도 선도 참조(79).

그다음 장에서 다니엘은 이 작은 뿔에 관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숫염소의 네 개의 뿔들 중 하나 위에 다시 나타났다. 이 작은 뿔은 심히 커졌고 네 번째 세상 왕국, 즉 부활한 로마 제국의 마지막에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왕으로 일어나지만 자신의 권세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크게 번성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즉 유대인들을 멸하고 자신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교활한 술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고(살후 2:3-4) 위장된 평화로 많은 것을 파괴하며 또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설 것이나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단8: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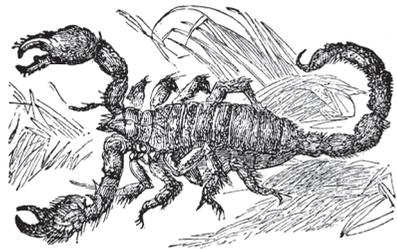
한마디로 불법의 신비, 즉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초능력 인간일 것이다.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매혹적인 힘과 여러 방면에 능한 업적들, 초자연적인 지혜, 놀라운 통치력과 행정 능력을 가질 것이다. 또한 그는 완벽한 아첨꾼, 뛰어난 외교가, 최상의 전략가로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는 위대한 인도주의자, 사람들의 친구, 유대인들의 특별한 친구로 가장하여 자신을 대언자들이 예언한 황금시대로 인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을 설득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강력한 기만술과 변치 않는 성공으로 사람들을 도취시킬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 내어 살해당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이다(계13:3). 그때에도 그는 이러한 권세들 중 어느 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7년 환난기 동안 통치할 것이지만 종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다시 오셔서 그의 연합 군대들을 처부수실 것이고 거짓 대언자와 함께 그를 산채로 불 호수에 내던질 것이다(계19:19-20). 환난기 참조.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선도 참조(77).

- 적대감(Enmity) 적으로 여겨 맞서는 마음(창 3:15).

- 전(Temple) 이 단어는 보통 신전으로 번역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번역되었다.

- 전갈(Scorpion) 바다 가재 비슷하게 생긴 맹독성 곤충. 이것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5-25센티미터로 다르다. 전갈은 보통 다른 곤충을 먹고 살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약한 것들을 먹어 치운다. 전갈에 대한 묘사는 계9:3-10에 생생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갈의 침이 죽음을 가져오지 않고 엄청난 아픔을 가져온다는 점이다(계9:6). 전갈은 보통 사막같이 메마른 지역에서 들밀이나 페히더미 등에 거한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전갈을 만났으며(신8:15) 사해 근처의 계곡에도 전갈이 많았다. 유대 지방의 전갈은 몸을 구부리면 마치 계란과 비슷하였으므로 눅11:11-12는 알과 전갈을 비교하고 있다. 한편 르호보암은 전갈로 백성을 위협하였는데 이것은 전갈의 꼬리에 붙은 날카로운 부분과 비슷한 것이 달린 채곡으로 백성을 때리겠다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이다(왕상12:11).



- 전나무(Fir) 미송이나 솔송나무 같은 상록침엽수의 일부. 전나무는 바늘잎이 가지에서 바로 나오고 완전히 자라면 키가 12-18미터 정도 된다. 이 나무는 배를 짓는 데 사용되었고(겔27:5) 악기와(삼하 6:5) 집의 들보(왕상5:8, 10; 9:11; 아1:17) 등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다.

- 전도서(Ecclesiastes)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 지혜 문학 참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전:2)는 말씀은 이

책의 요점이 되며 사람의 업적이 그 자체로 끝날 때에는 허무하고 사람을 실망시킴을 잘 보여 준다.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 쾌락, 수고, 인기, 재물, 명성 등이 사람에게 지속되는 즐거움을 주지 못함을 차례로 보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임을 보여 주면서 긍정적인 결론을 낸다(전12:13). 전도서는 특별히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은 현대인들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책은 사람의 큰 업적과 이 땅의 소유가 결코 지속되는 행복을 주지 못함을 가르친다. 참된 행복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서 나온다. 또한 전도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즐겨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전3:12-13).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자신이 매일 부여 주는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기쁘게 살면서 일을 이루어나가길 원하신다. 전도서는 또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전3:2)는 말씀과 함께 모든 사건에 합당한 때가 있음을 감동적인 시로 잘 보여 주며 우리의 삶에 균형을 제공한다. 끝으로 전도서는 늙은 과정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다(전12:1-7). 솔로몬은 고통이 따르는 노년기가 누구에게나 닥침을 인지하고 "네 젊은 시절에 곧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전12:1)는 권고의 말씀을 준다.

- 전도자(Preacher) 이는 원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구약 성경의 전도서에서만 전도자로 번역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 선포자로 번역했다(롬10:14; 딤후2:7; 딤후1:11 등).

- 전리품(Booty) 전쟁에서 빼앗은 물품. 전리품은 싸우러 나간 사람이나 진영을 지킨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분되었으나(민31:27-32) 전체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몫을 따로 떼어 왕이 자기의 것을 떼고 나머지를 병사들이 나누어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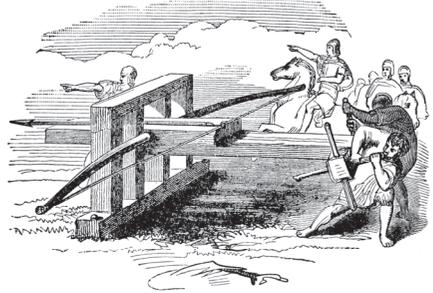
- 전리품(Spoil) 노략물 혹은 약탈물. 이것은 전쟁에서 이겨 적군에게서 취한 물품을 가리킨다. 다윗은 싸움에 나간 사람이나 가지 않은 사람이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게 하였다(삼상30:21-25). 또한 아브라함 시대부터 전리품의 일부는 주님께 드렸고(창14:20) 모세의 율법은 이를 위해 법칙을 제시하였다(민31:26-47; 대상26:27).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속죄 사역으로 사탄과 그의 군대들을 이기시고 자신의 백성을 누르는 권세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심으로 권력들과 권능들을 노략하셨다(골2:15). 바울은 사람의 철학과 전통이 그리스도인들을 노략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였다(골2:8).

- 전사(Man of war) 전투하는 군사.
- 전신갑주(Whole armor) 온몸을 두른 갑옷투구(엡6:13).

- 전열(In array) 전쟁에 참가하는 부대의 대열.
- 전염병(Murrain)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 하나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에게만 발생한 전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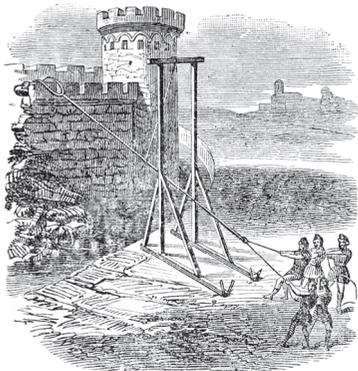
병(출9:3).

- 전쟁(War) 사람의 타락이 가져온 악한 열매 중 하나(창6:11-13; 사9:5; 약4:1-2). 대개 전쟁은 적군의 침입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형벌로 일어나기도 한다. 아말렉과 가나안 참조.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배도한 백성을 징계하시며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을 채찍질하시므로 많은 경우 전쟁은 하나님과 우상들 간의 전쟁이었다. 그 예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삼상17:43-47), 시리아(왕상20:23-30), 아시리아(왕하19:10-19, 35), 암몬(대하20:1-30) 사이의 전쟁을 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용사를 주시고 우람과 뚝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대언자와 기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신다.



왕들의 시대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정규 군인이 없었고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 싸움에 나갔다(삼상11:7).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군대들은 대개 창과 검과 방패를 가지고 도보로 행군하였으며 활 쏘는 자들과 기병도 있었고 군대에는 십인, 오십인, 백인, 천인 대장들이 있었다(삿20:10; 대상13:1; 대하25:5). 유대인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용맹스럽고 전쟁에 능하였으나 가나안 정복 이후에 외세의 침략이 있기 전에는 거의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대개 싸움은 봄에 시작돼서 겨울에 끝났으며(삼하11:1; 왕상20:22) 유대 군사들이 적군에게 다가가면 제사장들이 격려하는 연설을 하고(신20:2; 삼하7:9, 13) 노래를 부르며(대하20:21) 또 나팔을 불어 싸움을 알렸고(민10:9-10; 대하13:12-15) 활 쏘는 자들이 먼저 달려갔으며 그 뒤에 창병들이 고향을 지르면서 달려갔다(삿7:18-20; 삼상17:52; 욥39:25; 사17:12-13). 그 뒤에는 각개전투가 시작되고 군인 개개인의 싸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다(대상12:8; 시18:32-37). 사도 바울은 영적 원수들에 대해 크리스천 군인들이 철저히 무장하고 잘 싸울 것을 권고한다(고전16:13; 엡6:11-14; 살전3:8). 고대의 전투는 한마디로 피투성이 싸움이었고(대하28:6) 패배한 군사들은 대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렸고 승리한 유대인 군사들은 백성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돌아왔으며(삼상18:6-7) 전리품은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을 떼고 군사들끼리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민31:50; 삿5:30). 전리품 참조.

성벽이 있는 도시를 공략할 때에는 주변에 성벽 높이의 땅대들을 쌓았고 투석기를 만들어 돌을 퍼부었으며 그 뒤 땅대와 성벽 사이에 다리를 놓아 성으로 진입하였고 또 성벽을 부수는 망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겔4:2; 21:22). 물론 성 안에서도 침입을 막기 위해 화살을 쏘고 돌을 쏘곤 하였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릴 천년 왕국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시46:9; 사2:4; 사11:9; 미4:3). '주의 전쟁의 책'은 영감 받지 않은 문서로서 전쟁의 상세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이다(민21:14-15).

- 전제(Drink offering) 음료 헌물.
- 전천년 믿음(Pre-millennialism) 이것은 계20:1-6에 기록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교회와 왕국, 만물의 회복 선도 참조(85, 94). 성경은 이 1,000년의 기간을 보통 왕국 혹은 왕국 시대라 말하며 대언자들은 이 기간을 '온 우주가 의로 치리를 받고 온 땅이 복을 받는 때'라고 묘사했다.
- 신약 성경의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실 것을 요구한다. (1) 천년 왕국에서는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의 백성들을 통치하므로 그분께서는 그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의인들을 부활시켜야 한다(계20:5). (2) 천년 왕국은 어느 곳이나 의가 존재하는 기간이므로 그분께서는 그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셔야 한다(마13:40-43). (3)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으므로 그분께서는 그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셔야 한다(계20:1-3). (4) 적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멸망받으므로 그분께서는 그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그를 멸하셔야 한다(살후2:8; 계19:20). 무천년설, 후천년설, 천년 왕국 참조.

● 전치사 for의 용례(Usage of preposition 'for') 전치사 for는 대개 '~을 위하여', '~로 인하여', '~을 대신하여'의 의미를 갖는다. 마26:28의 'for the remission of sins'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 예수 그리

스도의 피가 흘려졌음을 보여 준다. 막1:4; 눅3:3의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여 침례가 죄들의 사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baptism of repentance which is for the remission of sins'로 보아야 한다. 즉 죄들의 사면을 주는 것은 회개이다.

한편 갈1:4의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다."로 번역하며 이 경우 '죄들을 위하여'로 번역하면 맞지 않는다. 계16:10의 "They gnawed their tongues for pain,"도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다."로 번역한다. 한편 욥2:4의 'skin for skin'은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다."는 뜻이며 요1:16의 'grace for grace' 역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즉 구약 시대 율법(律法)의 은혜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뜻한다. 끝으로 고전15:29의 "Why are they then baptized for the dead?"는 '순교하며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자들'을 뜻할 수도 있고 고대 이교도들이나 근대의 물몬교도들의 풍습처럼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을 뜻할 수도 있다.

● 전치사 in의 용례(Usage of preposition 'in') 전치사 in은 대부분 '안에', '가운데' 등으로 번역되지만 몇몇 특정 동사나 형용사 등과 함께 쓰일 때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눅3:22의 "In thee I am well pleased,"의 경우 "내가 네 안에서 매우 기뻐한다."는 오역이며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가 맞다. 영어에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를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에는 joy, delight(롬7:22), rejoice(빌4:4), joy(사9:17), pleased(마3:17; 12:18; 막1:11; 눅3:22; 벧후1:17), joyful(시35:9), glad(시118:24; 아1:4) 등이 있으며 이런 동사나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하면서 대개 in을 수반한다. 끝으로 believe, trust, glory 등도 목적어를 취할 때 in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렘9:23-24; 갈6:13).

● 전치사 of의 용례(Usage of preposition 'of') 전치사 of는 다음과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 I. 소유 - 성도들의 인내(patience of the saints, 계14:12), 믿음의 방패(shield of faith, 엡6:16), 성령님의 검(sword of the Spirit, 엡6:17)
- II. 기원 - 믿음의 의(righteousness of the faith, 롬4:11), 물들의 위험(perils of waters, 고후11:26), 성령의 열매(fruit of the Spirit, 갈5:22)
- III. 동격 - 할례의 표적(sign of circumcision, 롬4:11), 장막 집(house of tabernacle, 고후5:1), 주의 이름(name of the Lord, 롬10:13)
- IV. 재료 - 고렘나무로 만든 방주(ark of gopher wood, 창6:14), 쇠막대기(rod of iron, 시2:9), 금으로 된 머리(head of gold, 단2:38)
- V. 목적격 -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fear of the

LORD, 잠1:7), 영을 괴롭게 하는 것(vexation of spirit, 전1:14), 돈을 사랑하는 것(love of money, 딤펢6:10)

이처럼 of의 용례가 다양하므로 of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 변하게 되며 신학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갈2:16을 보면 'works of the law'와 'faith of Jesus Christ'가 서로 대비되며 나온다. 이 경우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한다. 우리말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혼동을 가져올 소지가 있지만 여기의 of는 기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 된다. 즉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와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믿음(히12:2)을 대비해서 이해하면 된다.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으로 보아도 된다.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 자체의 믿음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요소가 크다. 실제로 '믿음'(faith)은 우리 자신에게서 생기지 않으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온다(롬10:17). 반면에 우리말에서 역시 '믿다'로 번역되는 believe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믿는 것이다(요3:16; 롬10:10).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faith가 오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believe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합당한 번역이다.

목적격의 of 역시 많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창2:9의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하면 초등 번역이 된다. 이런 경우의 of는 목적격으로 쓰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해야 맞는다. 즉 fear, love, know, vex 등과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의 명사형이 of와 함께 쓰일 때는 많은 경우 목적격으로 해석해야 한다. 계3:14의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의 경우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of를 소유격으로 보아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 즉 '창조물 중에서 처음 지어진 존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의 begin 역시 타동사이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보면 예수님이 창조자가 된다. 사실 성경의 전체 구조를 보면 후자가 타당하다(요1:1-3). 골1:15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firstborn of every creature)라 하므로 여호와와의 증인들이 여기의 of 역시 소유격으로 해석하려 하지만 bear도 타동사이므로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수님은 창조자가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서 15절에 나오는 of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보여 준다. 즉 그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함으로써 후자의 용례가 맞음을 확증한다.

● 전통(Tradition) 구원으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골2:8; 딤펢1:14). 족장 시대에는 전통들이 중요하였으나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 성경기록으로 주어지면서 이것이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 되고 전통은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과 전통이 상충할 때에는 과감히 전통을 버려야 한다(사8:20).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것들을 주셨다고 믿었고 그 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재판관들과 대언자들에게 이것들을 전해 주었다고 믿었다. 주님께서서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런 전통들을 고수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들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든다고 지적하셨다(마15:1-20; 막7:1-13). 천주교는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전통들을 귀중히 여기며 심지어 성경의 권위와 전통의 권위 그리고 교황의 말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다. 한편 살후2:15; 3:6의 전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가르쳐 준 교훈을 뜻한다. 신자들은 헛된 전통은 조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전통은 반드시 교회에서 유지하고 대를 물려 세워 나가야 한다.

● 전투 대형(Put in array) 전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따위의 배치 형태.

● 절구(Mortar)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를 쪼은 기구(민11:8, 잠27:22 참조).

● 절박하게(Instantly) 다급하게.

● 절제(Temperance)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갈5:23). 이것은 육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술이나 담배 등을 절제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스도인은 절제를 통해 몸과 영을 훈련하여 영적 보상을 추구한다(고전9:24-27).

● 점(Jot) 그리스 문자 '요타'(iota)와 히브리 문자 '요드'(yod)에서 나온 단어로 문자 중에서 가장 작은 문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작은 것을 뜻하며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이다(마5:18). 획 참조.

● 점성가(Astrologers) 하늘을 보고 앞날을 예견한다고 하는 사람. 고대 이교도들은 해와 달과 별이 사람의 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으며 천체들의 움직임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했다(단2:2). 이런 미신은 갈대아, 아시리아, 이집트, 페니키아,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편만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겼다(신4:19; 17:3; 왕하23:5, 11; 렘19:13; 겔8:16; 습1:5).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으므로 그분의 눈에 큰 범법자들로 여겨졌다.

● 점치는 것(Divination) 동방 사람들은 점치는 것, 마술, 꿈을 해석하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것 등을 좋아했다. 이런 습관은 모세가 율법을 공포하던 때에 이미 이집트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점치는 자나 마술사나 행운을 봐 주는 사람이나 꿈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묻는 것을 금하기 위해 이런 자들을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한 참된 대언의 영이 그런 일들보다 무한대로 우수하다는 것을 약속해 줄 필요가 있었다(출

22:18; 레19:26, 31; 20:27).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부리는 영이나 점치는 영을 지닌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셨으며(신18:9-12) 이런 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자들과 백성을 속이는 거짓 대언자들을 저주하는 대언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사8:19; 47:11-14; 겔13:6-9). 그런데 왕정 시대 후반과 바빌론 포로 생활 시기에는 이러한 미신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왕하21:6; 대하33:6). 마법사 참조. 점치는 일은 물과 불과 흙과 공기에 의해서 그리고 새 싸움이나 새들의 노래를 통해서 제비를 뽑거나 꿈을 꾸거나 화살, 구름 혹은 영매를 통해 이루어졌다(겔21:21).

● 정결(Pure) 순수하고 깨끗함.

● 정결과 부정(Clean and unclean) 성경에서 이 말들은 유대인들의 의식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람이나 짐승은 정결하고 부정함 것으로 구분되었다(레11-15; 민19; 신14). 부정함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다(창7:2). 모세의 율법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규정되었고 짐승 희생물, 건강, 다른 이교도들과의 분리, 윤리적 순결 실행 등이 근거가 되었다(레11:43-45; 20:24-26; 신14:2-3, 21). 이 같은 의식 율법은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도 준수되었으나 복음 시대에는 없어지고 말았다(행10:9-16). 유대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여러 방법으로 의회 의식 면에서 부정함 것으로 여겨졌으며 대부분의 부정함은 저녁에 몸을 씻음으로 제거되었으나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40-50일이 지나야 제거되었고 이를 위해 희생예물을 드려야만 할 경우도 있었다.

● 정결레(Purification)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일(눅2:22). 모세의 율법은 육체적, 영적 정결을 위한 지침들을 제공하였는데 이런 규칙들은 위생 지침 이상의 것들이었다. 유대인들의 정결레는 또한 종교적/영적 씻음을 동반하였다. 모세의 율법은 세 가지 부정함에 대해 상세하게 정결레 의식을 가르쳐 주었다. 첫째는 나병이고(레13-14) 그다음은 성과 관련이 있는 유출물이며(레15) 마지막은 죽은 사람과 접촉한 경우이다(민19:11-19).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의 규정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해져서 이런 의식들은 백성이 지기에 힘든 짐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같은 사람의 전통을 책망하시며 부정함과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내면에서, 즉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시고(막7:14-23) 참된 정결은 자신을 따르며 자신의 사랑과 구속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요15:3).

● 정경(Canon)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곧바른 막대기', 즉 자를 뜻했으며 그래서 이것은 의견이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갈6:16; 빌3:16).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은 책들, 즉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표준 잣대로서 신구약의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로마 카톨릭교회의 외경은 결코 정경이 아니다. 외경 참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사용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전에 정하신 정경들을 발견하였을 뿐이다. (1)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가? (2) 하나님의 사람, 즉 대언자가 썼는가? (3) 하나님과 사람 등에 대해 진리를 말하는가? (4)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가? (5)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했는가?

구약 성경의 경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났고 신약 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정경이 확립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고 성경 사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퍼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동의하고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수행되게 하셨다. (1) 이런 책들은 사도나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기록한 것이므로 가치가 있고 따라서 보존되었으며 이 과정은 사도 시대에 바울의 서신들을 수집하고 널리 알린 것을 통해 잘 드러난다(골4:16). (2) 초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알아야만 했고(딤후4:13) 그래서 권위 있는 책들을 수집하여야 했다. (3) 그들은 이단 견해와 싸우기 위해 정경을 필요로 하였다. (4) 또 그들은 선교를 위해 어떤 책을 번역해야 할지 알아야 했다. (5) 끝으로 극심한 핍박을 당하자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존해야 할 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했다. 성경, 계시, 영감, 보존, 해석 참조. 성경의 보존 선도 참조(91).

● 정복자(Conqueror)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롬8:37)라는 말은 다른 곳을 정복하고 위풍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하는 로마의 장군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나은 자들임을 비유로 표현하는 말이다. 종종 정복자들의 귀환을 본 로마 성도들은 이 같은 표현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 정욕(Lust) 원래 이 말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뜻하였으나(신12:15; 14:26) 사람의 성정이 타락하였으므로 후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가리키게 되었고 그래서 대개는 육적인 욕망을 품은 욕망을 가리킨다. 갈5:17은 성령님에 의해 새로워진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육신적인 약한 욕망을 대적하고 정복함을 보여 준다(고전15:57 참조).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욕망은 제재를 받지 않고 그래서 외적인 죄로 나타나며 영원한 죽음으로 사람을 인도한다(약1:14-15).

● 정의(Justice) 의리에 맞는 옳고 떳떳한 일.

● 정제(Refine) 물질에 섞인 혼합물을 없애고 더 순수하게 하는 일.

● 정죄(Damnation)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되어 사악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영어 성경이 번역될 당시 이 단어와 condemnation은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정죄의 의미로 쓰였고 따라서 damn과 damnation은 롬13:2; 14:23; 고전11:29 등에서 정죄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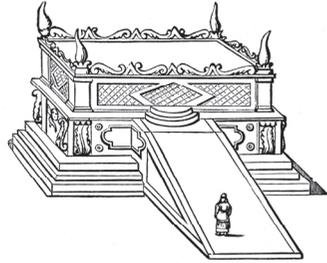
● 정혼(Betrothing, espousal) 남자와 여자가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 고대에 유대인 부모들은 딸의 동의 없이 아주 어릴 때에 딸을 정혼시켰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혼 문서가 작성되고 신랑은 자기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지침금을 지불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비록 신부가 열두 살이 될 때까지 또 남편이 같이 살 처소를 예비할 때까지 육체적 결합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혼은 죽음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해약될 수 있었다(마1:18-25; 눅1:27). 정혼 당사자들은 정혼 뒤에 비록 육체적 관계는 갖지 않아도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므로 유대인들의 정혼은 현시대의 약혼과는 매우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자기와 정혼시키셨으며 그들을 향한 자신의 언약들을 모두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다(렘2:2; 호2:19-20). 이혼 참조.

● 젖(Milk) 젖은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성경에서는 종종 순수하고 단순하며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진리를 가리키며(히5:12-13; 벰전2:2) 종종 풀과 함께 쓰여 풍성하고 비옥한 것을 나타내었다(창49:12; 민16:13; 수5:6). 유대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소, 낙타, 염소, 양의 젖을 다 사용했다(창32:15; 신32:14; 잠27:27).

● 제단(Altar) 희생물이나 향을 바치기 위해 만든 상 같은 구조물. 이것은 돌, 놋 등 여러 물질로 만들어졌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희생물을 드렸음이 분명하지만 성경에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 처음으로 제단이 언급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이 제단을 세웠는데 특히 모세는 흙으로 그것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출20:24). 돌로 제단을 만드는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을 써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돌에다 형상을 새겨서 둘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또한 제단에는 계단을 둘 수 없었다(출20:26). 유대인들의 성막과 성전에는 번제 헌물 제단, 향 제단, 보여 주는 빵을 놓는 상 등과 같은 제단이 있었다.

I. 번제 헌물 제단은 시탐나무로 만들고 겹은 놋으로 입혔으며 가로와 세로는 2.3미터, 높이는 1.35미터였다. 이것은 이등식으로 만들어졌고 네 귀퉁이에는 네 개의 뿔이 있었으며 운반 막대와 고리 등이 달려 있었다(출27:1-21). 이것은 성막 앞에 동쪽에 놓여 있었으며 이 제단의 기구는 놋으로 만들어졌고 재를 담는 판과 부삽과 갈고리 등이 있었다. 여기서 쓰는 불은 영속해서 타오르는 불이었으며 제사장들

은 이 제단 위에 아침과 저녁에 어린양을 희생물로 드렸고 다른 종류의 피의 희생물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등을 드렸다. 한편 피신자들은 제단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붙잡고 생명을 연장하기도 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제단은 이보다 커서 가로 세로가 12미터, 높이가 4.5미터였다(대하4:1).



II. 향 제단은 금으로 입힌 조그만 시탐나무 상으로 가로세로가 45센티미터, 높이가 90센티미터였다(출30:1-38; 37:25). 이 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었고 상단에는 금테가 있었다. 각 면에는 두 개의 고리가 있어서 레위 사람들이 운반 막대를 이 안에 넣어 이것을 운반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성소에 놓이지 않고 성소에 놓였으며 금 등잔대와 보여 주는 빵 사이에 있었으며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여기서 향을 살랐다(눅1:9, 11). 성전 참조.

III. 아테네 사람들의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행17:23).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 서적의 저자들도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들이 어떤 신을 그렇게 지칭하여 부르고 희생물을 드렸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문구를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한 채 희생물을 바친 존재가 곧 살아 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 제비(Lots)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제비를 뽑았다(시22:18; 잠16:33; 18:18).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뽑을 때도 제비를 사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열두 지파의 상속 지역을 나눌 때에도 제비를 뽑았으며 그래서 한 지파가 상속하는 지역은 '그 지파의 상속 제비' 혹은 '구획'이나 '몫(the lot of its inheritance)'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민26:55-56; 시125:3; 행8:21). 또한 속죄 염소와 희생물로 드려질 염소도 제비에 의해 뽑혔으며(레16:8; 대상24:5; 수7:14; 삼상14:41-42; 요나1:7) 또한 성전 신약 성경에서도 제비를 통해 기럇 유다를 대신해서 맛디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되었다(행1:26). 그들은 대개 조각들을 이용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로 뽑히는 돌에 먼저 표시를 하고 옷이나 단지 등에 넣어

흔든 뒤 제비를 뽑았다(잠16:33; 요19:24).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에는 모든 사건을 그분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 제비를 뽑는 일은 없었다. 부림 참조.

● 제사장(Priest)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공적으로 주관하며 특히 속죄를 위해 희생 예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정되어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고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다(히5:1).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의 수여 이전에는 제사장 직이 어느 한 가족에게만 귀속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모든 가족과 통치자와 왕의 장자가 제사장이 되어 그들의 도시와 가족 가운데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욥, 아비멜렉, 라반, 이삭과 야곱 등이 스스로 희생 예물을 드렸다. 그런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선택되어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였다(출24:5). 그러나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자신의 성막에서 섬기게 하시자 제사장 직은 아론의 집에게 고정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희생물은 오직 그의 후손에 의해서만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었다(민16:40).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께 향을 드리려던 유다의 웃시아 왕은 그 즉시 주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대하26:19). 이에 대해서는 사울의 경우도 참조하기 바란다(삼상13:7-14).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히브리 대언자들이 주님께 헌물을 드린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일이 고정되기 전에는 더 그러하였다. 삼상7:9에는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이 주님께 어린양을 바치는 장면이 나온다(삼상9:13; 16:5; 왕상18:31-33 등 참조).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탈출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존해 주셨고 그래서 장자는 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레위 사람들과 일 대 일로 바꾸시고 그들이 성막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민3:41).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두 거룩한 사역만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일은 여러 가지였다.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솜과 고탕과 므라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탕의 가족을 택하시고 거기서 아론의 가족을 택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다. 한편 고탕의 가족들 중에서 다른 가족들은 심지어 모세의 가족들도 단순히 레위 사람들이 되었다.

대제사장은 모든 종교 행사의 우두머리였고 그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으며 심지어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정의와 공의 문제도 다루었고 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로 일하였다(신17:8-12; 19:17; 21:5; 33:8, 10; 겔44:24). 그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서 백성의 죄들로 인해 속죄를 이루었다(레16:2 등). 그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처녀와 결혼한 사람의

아들이어야 했으며 신체적인 결점이 없어야 했다(레21:13). 흠이 있는 제사장은 희생물을 드리거나 보여 주는 빵을 바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단지 성막에서 드러지는 희생물로 생활해야만 했다(레21:17-22). 한편 대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로부터 십일조를 받았다(민18:28). 수제사장 참조.



한편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진리의 말씀(신탁)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위엄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우림과 둠뭇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은밀한 일을 밝아서 사람들에게 알려 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참조. 그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자기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애곡할 수 없었고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 죽은 사람이 있던 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레21:10-12).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섬겼으며 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 그 일을 수행하게 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헌물을 드리는 경우 짐비들기나 산비들기를 제외하고는 헌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을 직접 죽였다. 제사장들은 번제 헌물을 바치는 제단에 영원토록 불을 지켰고 성소의 금 등잔대에 불을 붙였다. 또한 그들은 보여 주는 빵을 반죽해서 굽고 성소의 금 제단에 드렸으며 안식일마다 그것들을 바꾸었다(출28:29; 레8:1-36 비교). 제사장들은 매 주가 시작될 때 제비를 뽑아서 날마다 낮과 밤에 성소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금 제단(향 제단)에서 향을 드렸다(눅1:9). 제사장들은 맨발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주님께서서는 약속의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상속 유산을 주지 않고 백성들이 십일조와 첫 열매와 다른 헌물로 그들을 지원할 것을 명하셨다. 헌물 중 제사장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레7:6-34; 신18:3-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 48개의 도시를 지정하시고 그중 6개는 도피 도시로, 13개는 제사장들의 도시로 그리고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의 도시로 지정하셨다(수21:10).

제사장들은 헌물과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주요 업무 외에도 백성을 가르치고 논쟁거리를 해결하며 나병을 진단하는 일과 이혼, 질투의 물, 서약, 부정함 등의 여러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전쟁 때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여쭙고 거룩한 나팔을 불며 군대를 응원하였다(민10:8-9; 신20:2). 후에 다윗은 고정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도록 제사장들을 24계열로 나누었다(대상24).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그림자와 예표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실체요 진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지만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들은 영원히 거할 수 없다(히7:1-28). 주님께서는 친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겠다고 하셨고(출19:6) 베드로는 이런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해서 말했다(벰전2:5, 9; 계1:6 참조). 중대한 영적 의미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살아 있는 영적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이시며 인간 제사장이 있을 수 없다(히9:11-26). 그러므로 지금도 미사라는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을 두고 있는 천주교는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 한편 천주교의 사제는 신부(神父)라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 말의 사용을 금하시고 계급 체계를 만드는 자들을 책망하셨다(마23:9). 아버지, 니골라당, 미사 참조.

● 제자(Disciple, 학자)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사람들과(마10:24)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적용되었고(마22:16) 특별히 주님의 열두 사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었다(마10:1; 11:1; 20:17).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의 교리를 믿고 그분의 희생 예물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 그분께서 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조공(Tribute) 속국이 주권국에게 물건을 바치는 것.

● 조서(Decree) 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는 글을 담은 문서.

● 조언(counsel) 알아듣도록 권면하는 말. 이 말은 조언, 권면, 계획 등으로 번역되었다. 사9:6은 하나님을 조언자(상담자)로 표현한다. 권고, 계획 참조

● 족보(Genealogies) 딤펢1:4와 딤펢3:9에 나오는 족보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은 족보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잘 보관했고 거기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이 많았으므로 '끝없는 족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계보 참조. 그러나 메시아가 왔으므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져서 족보가 중요하지 않게 되

었다. 그러므로 핏줄과 출생의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족보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한편 어떤 이들은 '끝없는 족보'가 이방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가르침, 즉 영과 시대가 무한대로 많이 존재했다는 가르침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 족장(Patriarch) 지파나 가족의 창시자. 아브라함(히7:4), 야곱의 아들들(행7:8-9), 다윗(행2:29) 등이 족장이라 불렸다. 보통 족장 시대는 모세 이전의 창세기 시대를 말한다.

● 족제비(Weasel)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종류의 족제비가 사는데 이것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함 짐승이었다(레11:29).

● 좀(Moth) 보통의 좀은 옷을 갹아 먹는 해충이며 이 과에 속하는 해충은 상당히 많다. 성경에는 옷을 망가뜨리는 좀과 관련된 구절이 상당히 많다(욥4:19; 13:28; 27:18; 사50:9; 호5:12; 마6:19-20).

● 종(Servant) 이 말은 종종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 준 사람을 가리킨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었으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였다. 파라고, 사울, 다윗의 종은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신하를 가리킨다. 다윗 시대에 블레셋, 시리아 민족 등은 다윗에게 복종하고 조공을 내었으므로 그의 종이였다.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력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종은 원래 제한된 시간에 여러 조건하에서 남에게 고용된 사람을 가리킨다. 요셉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남에게 팔려서 종이 된 사람이다(창37:27-28). 고대 족장들은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였다. 또 어떤 때에는 종들이 큰 신임을 받아 주인의 재산을 상속하기도 하고(창14:11-16; 15:2-4; 24:1-10) 그 집안의 종교적 특권을 누리기도 하였다(창17:9-13, 27).

히브리 사람들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원하지 않아도 종이 되는 사례가 흔하게 생겼다. 이 일은 심지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흔하였으며 모세는 종교와 인정에 의해 이런 것을 완화하였다. 이 중 가장 약한 형태의 노예는 여러 이유로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출21:7; 22:3; 레25:39-47; 왕하4:1). 이런 형태의 종살이는 6-7년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다만 안식년이 올 때에 그들이 원하면 주인이 증인들 앞에서 귀를 뚫어 영원히 혹은 회년이 올 때까지 종으로 삼았다(출21:2, 6; 레25:40). 또한 주인은 히브리 종을 무자비하게 다룰 수 없었다(레25:47-55; 신15:12-18).

히브리 사람들은 또한 주변 지역에서 전쟁을 통해 사로잡은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았다. 그들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고(신1:16-17; 27:19) 개종하여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출12:44; 신12:18; 29:10-13; 31:10-13).

그리스도 당시에 존재하던 로마 사람들의 노예 제

도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로마 사람들은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아 사고팔기도 하였다. 그들의 노예 신분은 영원하였고 그들의 주인은 그들에 대해 무한대의 권한을 가졌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악한 것으로 보지만 속박 아래 있는 종들은 거기에 만족하라고 권면한다(고전7:20-24).

기독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 윤리적인 가르침을 준다. 양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이 성경에 광범위하게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정의한 원칙은 누구에게나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 고용하는 주인은 정의를 베풀어야 하며(골 4:1) 종들은 순종과 충성과 정직의 의무를 지닌다(골 3:22-23; 엡6:5-9; 딤후2:9-10). 하나님은 까닭 없이 사람을 피박하고 압제하는 것을 미워하시며 이것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신 24:14; 시103:6; 사10:1-3; 약4:1; 말3:5; 약5:4).

● **종기(Blains)** 이집트에 닥친 열 가지 재앙 중 하나(출9:8-10). 이것은 피부가 부어오르고 물집을 만들어 터뜨리는 병이었는데 모세가 화로에서 재를 취해 뿌리자 곧 사라졌다. 만일 이 재를 히브리 사람들이 작업하던 벽돌 가마에서 가져왔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통을 통해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종려나무(Palm-tree)** 높이가 30미터나 되는 큰 나무.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 가운데 하나이며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나무가 곧게 가지를 내지 않고 자라는 것을 뜻한다. 종려나무 줄기는 든든해서 그것을 타고 꼭대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아7:7-8). 가나안 땅에는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아서 심지어 동전에도 등장한다. 신34:3에서 여리고는 종려나무 도시라 불린다. 고대 사람들은 위대한 정복자가 임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거나 손에 들고 흔들었으며 이것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드러난다(요12:12-13). 심지어 하늘에서도 그분의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한다(계7:9).

● **종류대로(After kinds)**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각각 그 종류대로 나는 것이 참된 과학이며 한 종류 내에서 특별한 환경 등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종류 그 자체가 변한다는 진화론은 거짓 가설이다. 사람들에게 이를 확증시켜 주려고 창세기 1장에서만 "그것들의 종류대로"라는 구절이 10번 나온다.

● **죄(Sin)**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거나 그것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생각, 말, 욕망, 행동. 성경에서 죄는 불법, 범죄, 허물, 빚, 불순종, 반역, 거역, 실족, 완고, 무지, 위선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는 죄가 '과녁을 벗어난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롬3:23)고 말함으로써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임을 보여 준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을 통해 죄를 덮거나 죄값을 낮추려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이것은 기차 출발 시간이 오후 5시이면 그로부터 1분 지나서 온 사람이나 1시간 지나서 온 사람이나 다 기차를 놓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세상의 종교는 기준 혹은 과녁에 얼마나 가깝게 갈 수 있는가를 보여 주지만 기독교는 기준 혹은 과녁 자체를 맞추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의 죄는 세상이 정한 죄와 다른데 그 이유는 후자가 사람들의 법규나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음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죄의 형벌과 권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길뿐이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온 인류를 오염시킨 것과 죄의 본성, 형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창6:5; 시51:5; 마15:19; 롬5:12; 약1:14-15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과 비교해서 죄는 '경건하지 못한 것'(ungodliness)으로 불릴 수 있다. 우리말에서 종종 경건으로 번역된 말은 원래 '하나님을 닮는 것'을 뜻하므로 죄는 하나님과 정반대를 닮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측면에서 죄는 범법이라 불리며 영원한 정직성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불법 혹은 불의라 불린다. 또 죄는 모든 범법의 사악한 원천으로서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부패이므로 원죄라 불리기도 한다. 성경은 죄를 가리켜 육 혹은 육신, 죄와 사망의 법 등이라 한다(롬8:1-2; 요일3:4; 5:17). 죄의 형벌은 사망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2:17). 그래서 죄를 짓는 혼은 반드시 죽는다. 단 하나의 죄라도 사람의 혼을 완전히 멸절시키는데 이것은 마치 전깃줄의 한 부분이라도 끊어지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과 같다. 죄의 사악함은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법의 거룩함과 공정함과 선함 등에 의해 또 죄로 인해 놓치는 영원과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 예물의 위대함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죄인 참조.

- 죄의 사람(Man of sin) 적그리스도 참조
- 죄인(Sinner) 세상에서는 법규를 어기면 죄인이라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

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낸다.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죄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즉 그가 죄를 짓는 것은 열매이지 근본 뿌리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조차도 -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롬5:12-14; 시51:5; 욥15:14; 25:4-6). 죄 참조. 그러므로 이런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창2:17; 롬6:23). 창조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죄를 그냥 두지 않고 벌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즉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면 폐기 처분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내시고 그 사람이 원래의 의도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폐기 처분하시며 성경은 이것을 들켜 사망이라고 말한다(계20:11-15).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사람은 창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므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분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음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으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죄인 대신 죄의 형벌을 지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맛보며 그를 의인으로 선고하는 것이다. 속죄, 칭의 참조.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들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행4:12). 그러므로 죄인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수용함으로써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된다. 병자가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면 의원에게 올 수 없듯이 죄인도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며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의지를 굽혀 하나님께 겸손히 나올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자유 의지 참조.

- 죄 헌물(Sin offering) 기존 우리말 성경의 속죄제. 속죄, 희생물, 헌물 참조.

- 주(Lord) 이것은 영어로 LORD 혹은 Lord이며 성경에서 8,000여 번이나 나올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다. 비록 권위자나 주인을 가리킬 때도 주(主)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지만(창45:8; 룿2:13; 요15:20; 갈4:1) 구약 성경은 거의 독점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물의 주라 부른다(창15:1-2; 신3:3-24; 수7:8; 삿6:22; 삼하7:18; 시2:4; 8:1; 69:6).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물은 주라 불릴 수 없다.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 주(LORD)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여호와 참조. 한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시므로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시기에

신약 성경에서 주라 불리며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렇게 자주 언급된다(고전12:3).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서 신자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는 곧 주권 승인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와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요 세상의 창조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고백한다(시2:4; 8:1; 114:7).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요20:28)라고 고백하였다.

기존 우리말 성경은 미국표준역의 영향으로 구약 성경의 LORD를 여호와로 표현하였으나 이렇게 하면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개념 특히 재림과 관련된 주의 날 개념이 변하게 된다. 즉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날’로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로 하면 이 둘이 같음을 알기 어렵다.

주와 관련하여 주의 이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큰 글자로 표기된 LORD, 즉 주는 결코 호칭이 아니라 이름이며 성경 자체가 이를 확증해 주고 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렘16:21).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욥2:32) 등에 나오는 ‘주의 이름’(the name of the LORD)이라는 표현(총 88번 나옴)은 주의 이름이 따로 있어 그것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의 of가 동격의 of이므로 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기에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둔 마라나타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전16:22; 계22:20). 마라나타 참조.

- 주랑(Porch) 기둥들을 나란히 세운 복도 혹은 그 기둥들 밑에 있는 방. 즉 낭실. 이것은 라틴어로 porticus로 번역되었는데 이 말은 곧 기둥이 있는 현관이나 입구 등을 뜻한다(왕상6-7; 왕상7:7; 대상28:11; 겔40:7, 48; 욥2:17).

- 주석(Tin) 공기 중에서 잘 변하지 않으므로 철, 강철, 구리 등의 표면을 도금하는 데 쓰이는 금속. 이것은 초기부터 알려진 금속이며(민31:22) 두로와 다시스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왔다(겔27:12). 사1:25에서 이 말은 은을 재련할 때 생기는 납 합금 등을 의미하였다.

- 주시(Observe) 자세히 살피려고 눈을 모아서 봄.

- 주의 날(Lord's day) 주일 참조.

-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이 개념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날은 하나님

의 왕국이 완전히 서는 날이며 이날부터는 그분의 왕국을 공격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사2:12; 13:6, 9; 34:8; 겔13:5; 30:3; 솔1:15; 2:11; 암5:18; 습1:14; 습14:1). 이날은 또한 정벌하는 날(사10:3)이고 주님의 진노의 날이며(겔7:19) 주님의 큰 날이다(습1:14). 이날은 구약 성경에서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날로 묘사되곤 하였다. 예언의 날들 전도 참조(75).

신약 성경에서 이날은 그리스도의 날,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오는 날을 뜻하며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날을 가리킨다. "사" 사람의 아들"이라고(아버지께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요5:27; 비교 마24:27, 30; 눅12:8). 한편 신약 성경은 밝은 그림과 함께 어두운 배경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이날이 여전히 진노의 날이요(롬2:5-6), 큰 날이며(유6; 계6:17), 하나님의 날이요(벧후3:12), 심판의 날(마10:15; 롬2:16; 벧후3:7)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이날은 단순히 '그날'(that day 혹은 the day)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은 마치 이날만이 역사에서 계수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날임을 암시하는 것이다(마7:22; 살전5:4; 딤후4:8; 고전3:13). 이날은 불신자에게는 공포의 날이지만 신자에게는 기쁨의 날이다. 이날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서부터 시작하여 7년 환난기와 천년 왕국을 포함하는 긴 역사의 시간이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뒤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일어난다(살전4:13-17; 계20:1-5). 이날에 그분께서 자신의 소유물에게 오시므로(마16:27) 이날은 우리 주 예수님의 날이며(고전1:8; 5:5)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빌1:6, 10).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특히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나타나시는 이날에 대한 개념이 가득 배어 있다. 그러므로 이날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 설립되는 날이며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더 이상 온 우주에 죄와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하늘들과 땅은 불로 정화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것들을 대체할 것이다(사65:17-19; 66:22; 살후2:2; 벧후3:13; 계21:1).

● 주의 만찬(Lord's supper) 주의 만찬은 공관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마26:26-30; 막14:22-26; 눅22:17-20). 이 규례는 주님께서 배반당하던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이며 고전11:23-26은 그것의 의미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주의 만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사사로서 해석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구약의 유월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 주었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는 것이다(고전5:6-8).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규례로 삼아 지키다(행20:7; 고전11:2, 26).

대부분의 교회는 주의 만찬이라는 성경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만찬이라는 천주교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천주교의 일곱 가지 성례 중 하나인 '성체 성사', 즉 미사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사 참조. 이 규례의 이름이 주의 만찬이므로 누구든지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빵과 포도즙을 주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 안에는 천주교의 미사에 서처럼 무슨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승천 이후 첫 오순절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군중들을 위해 가장 예배나 모임이 있었으므로 매일 주의 만찬을 행했으며 이것은 보통 '빵을 떼거나 빵을 나눈다'는 말로 표현되었다(행2:46). 초대 교회 초반기에는 빵을 떼는 일이 거의 매일 있었으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행2:44에 있는 대로 그들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기 때문이다. 즉 처음에 초대 교회 성도들은 100% 유대인이나 유대인 개종자였으며 - 이방인으로 처음 구원받은 고넬료는 오순절 사건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함 - 그들은 말라기 대언자의 말씀에 따라 언제나 자신들의 주님이 성전에 돌아오리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으므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성전에 모였다(말3:1).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 강권적으로 다른 곳으로 흩어버릴 때까지 성전에 머물렀으며 심지어 사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로부터 15-20년이 지나서는 매주 만찬을 행하는 것이 보인다(행20:7). 여기서도 그들은 단순히 주의 만찬만 행하지 않고 음식도 먹었다(11절 참조). 이 이후에는 횡수나 빈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단지 고전11:26에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 자체에 대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의미 있게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천주교회처럼 주의 만찬(혹은 미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곳도 있지만 성경은 결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지역 교회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만찬의 빈도를 정하여 바르게 행하면 된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자기의 진짜 살을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주의 만찬의 요소인 빵과 포도즙은 그분의 찢긴 몸과 그분의 흘린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기간에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모든 집에서 죄의 상징인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다(출12:15; 고전5:7-8). 누룩 참조. 그러므로 죄 없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사용해야 한다.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역시 누룩이

들지 않은 순수 포도주스여야 한다. 포도주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포도즙이 발효된 것이므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이런 이유로 모두 포도주스를 사용한다.

주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과 맺은 언약과 또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고후1:21-22; 엡4:13-16). 한편 주의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며 따라서 당사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전11:20-34).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행하는 잠정적인 규례이며 그 이후에는 어린양의 혼인 만찬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끝으로 주의 만찬에서의 빵과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화체설 교리는 성경과 상식에서 벗어난 이단 교리이다. 미사 참조.

● 주의 천사(Angel of the Lord) 이것은 여호와 의 천사를 뜻하며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존재가 구약 시대에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창16:7-13; 22:11-18; 31:11-13; 32:24-30; 출3:2-6; 23:20; 사2:1-23; 13:16-22; 행7:30-38 등 비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천사로, 즉 여호와로 구약과 신약 시대 초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큰 계획을 수행하셨다(사63:9).

● 주일(Lord's day)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지 않고 대개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은 결코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므로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한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경배를 드린다는 안식일의 원리를 살리기 위해 주일에 세상일을 접고 쉰다. 더욱이 이날은 주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므로 기독교 신앙의 소망인 부활을 기념하고 기대하면서 세상일을 제쳐 두고 이날을 예배하는 날로 구분하여 지키고 있다.

쉬는 날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즉각 실시되었으며 여기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바로 이날, 즉 주의 첫날에 그분께서는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한 주일이 지나서 같은 날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고전11:20; 14:23, 40 등은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주의 첫날에 모여서 경배하고 주의 만찬을 기념한 것을 보여 준다(고전16:1-2). 또한 행2:6-11은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첫날에 모여 만찬을 기념하고 말씀들을 들었음을 보여 준다. 요한은 아주 엄숙하게 이날을 지켰으며 그날을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불렀다(계1:10). 요한의 계시록 이후부터 이날은 주일이라고 불렀다.

복음 전과 초기에 유대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지켰지만 결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나 명절을 이방인이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골2:16).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주일을 경배하는 날로 따로 떼어 지켰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였으므로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내가 오늘 주일을 지켰느냐?”라고 물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이날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안식, 안식일 참조.

● 주피터(Jupiter, 주피터) 이교도 국가 그리스와 로마의 신. 그는 세턴과 오프스의 아들로 불리며 크레타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이교도들의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는 악하고 추잡하며 짐승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가리켜 주피터라 하였다(행14:12-13; 19:35).

● 주홍색(Scarlet) 고대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색깔(출25:4; 26:1, 31, 36). 이것은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주홍색 옷을 입힌 사울의 은혜를 표현한 색깔이었다(삼하1:24). 또한 부지런하고 덕이 많은 여인은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주홍색 옷을 입혔다(잠31:21). 이 색깔의 강함과 깊이는 사1:18에 잘 나타나 있다. 주홍색은 또한 부유함의 상징이었다(계17:3-4). 이 색깔은 상수리나무의 한 종류에서 자라는 작은 곤충에서 얻었으며 고대 사람들은 이것으로 진홍과 주홍색을 만들었다. 자주 참조.

● 죽(Pottage) 에돔 참조.

● 죽음(Death) 성경에서 죽음 혹은 사망은 일차적으로 분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먼저 육체의 죽음은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며(창35:18)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그분의 진노를 받는 것도 죽음으로 표현되어 있다(요일3:14). 특별히 영원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을 떠나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계20:14-15; 유12).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가된 형벌이며(창2:17; 3:19) 그의 모든 후손은 범죄자이고 따라서 그에게 부과된 저주를 공유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생명을 공유한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마지막으로 정복되어 발밑에 깔릴 원수는 사망이다(롬5:12-21; 고전15:1-58).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숨을 내어 주다’(우리말 성경은 ‘숨을 거두다’로 되어 있음)로 표현되거나(사104:29) ‘땅으로 돌아가는 것’(창3:19; 단12:7), ‘혼이 몸을 떠나는 것 혹은 입는 것’(고후5:3-4) 또는 ‘혼이 거하던 장막을 떠나는 것’(고후5:1; 뱀후1:13-14) 등으로 표현되었다. 신자적 죽음은 ‘떠나서 집으로 가는 것’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빌1:23; 마26:24; 요11:11; 살전4:13) 등으로 표현되었다.

사망 혹은 죽음이라는 말은 큰 재난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압박한 위협 등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다(고후1:10). '사망의 문들'(욥38:17)은 몸을 떠난 영들이 거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가리킨다. 또한 죽음 혹은 사망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죄 많은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골3:3). 둘째 사망 참조.

● 죽지 아니함(Immortality)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죽지 아니함이 있으며 창조물의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성경은 사람이 죽지 않는 일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딤후1:10).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은 몸의 부활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가능하다(요14:19). 한편 죄인들은 의인들이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토록 불과 유황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산다(마25:46). 지옥, 불 호수, 영혼멸절 참조.

● 준수(Observe) 명령, 규칙들을 좇아서 지킴.

● 줄마노(Onyx) 유백색의 반투명한 부분과 다른 빛깔이 서로 띠 모양을 이룬 마노 보석. 원래 이 이름은 손톱이나 줄무늬 사이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창2:12; 대상29:2). 이것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쓰인 열한째 보석이다(출28:20).

● 중보(Intercession)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 이 말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변호자로서 하늘에 있는 왕좌 앞에 나타나 자신이 갈보리에서 완수하신 일을 내보이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 줄 것을 아버지께 간구하는 일을 가리킨다(사53:12; 롬8:34; 히7:25; 9:24; 요일2:1). 그분은 유일한 중재자로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기 위해 순수하고 완전한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성자나 마리아나 천사들의 도움 혹은 중보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들의 입에 바른 말을 주시며 거룩한 것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롬8:26). 성령님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그분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 중생(Regeneration) 다시 태어남 참조.

● 중재자(Mediator) 화해나 대화를 이루기 위해 두 당사자 사이에 서는 존재.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알게 될 때에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는 사람의 혼과 그 혼을 심판하는 분 사이에 서서 혼을 위해 심판자의 호의를 구하는 어떤 존재가 있거나 혹은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 회개 예물이나 향을 드리는 제사 같은 것이 있었다(욥9:33-34). 이스라엘 자손은 사내 산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필요를 느꼈으며(신5:23-31)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신과 백성들 사

이의 중재자로 세우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 율법을 전달하시며 백성으로부터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 모세는 여러 차례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으며(출32:30-32; 민14:1-45; 시106:23) 이로써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모형의 역할을 하였다(갈3:19).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그분이 없으면 아무도 '소멸시키는 불'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요14:6; 행4:12). 그리스도는 언약의 천사로서 구약 시대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교통의 유일한 통로이셨고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신다. 그분은 지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변호자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다. 그분은 또한 자신의 공훈 많은 사랑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님 안에서 수용되고 바로 그 유일한 신 중재자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은혜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만 홀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이다(딤후2:5).

천주교회처럼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을 예수님처럼 중재자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그분께서 이 특별한 속죄 사역을 홀로 수행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성경은 이 같은 죄악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한다(히8:6; 9:15; 12:24).

● 쥐(Mouse) 성경에는 주로 들쥐가 언급되며 모세가 부정하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먹었으며(레11:29; 사66:17) 후자의 말 씀은 쥐를 먹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빼앗은 후에 그들의 들에는 쥐로 인한 큰 피해가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 쥐와 종기를 만들어 궤와 함께 돌려보냈다(삼상5:6, 9, 11; 6:4-5).

● 증언(Testimony) 사람이 무엇을 믿고 행하고 바라야 할지 사람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시19:7; 119:88, 99; 고전1:6; 계1:2). 율법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증언하는, 눈에 보이는 증언이었다. 그래서 언약궤는 종종 증언궤라고도 불리며(출25:22; 34:29) 이 궤를 둔 성막은 증언의 성막이라 불리기도 한다(출38:21; 민1:50-53). 증언 참조.

● 증인(Witness)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 모세의 율법하에서는 두세 증인이 맹세한 경우에만 사형을 시킬 수 있었으며(민35:30) 돌을 던져 죽이는 경우에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야 했다(신17:6-7; 행7:58). 사도들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들이었으며(행1:8, 22; 2:32; 벧후1:12, 16-18)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것들을 증언한 신실하신 증인이셨다(요

3:12; 계1:5), 구약 시대의 위인들은 믿음의 증인들이었다(히12:1). 순교자 참조.

- 지각(Understanding) 사물을 이해하는 감각 혹은 알아서 깨달음. 명철 참조.

- 지경(Border, coast) 나라나 지역 따위의 구간을 가르는 경계. 참고로 성경에서 coast는 해안가만을 뜻하지 않고 어떤 영역 혹은 영역의 경계를 뜻한다(마2:16; 8:34). 경계 참조.

- 지계표(Landmark)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 고대 유대에서는 담이나 울타리 등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므로(막2:23) 들판에 있는 개인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나무나 돌무더기를 쌓았다(신19:14; 욥24:2). 그러나 이 같은 지계표를 치우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접근하는 것이 쉬웠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형벌이 있었다(신19:14; 잠22:28; 호5:10). 경계 참조.

- 지방(Province) 바빌론과 페르시아 왕국의 행정 구역의 한 단위(단2:49; 3:3).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자신의 제국을 지사가 다스리는 통치 구역으로 나누고 다시 이것을 작은 행정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방이라 불렀다(에3:12; 8:9). 아하수어로 왕 시대에는 이런 지방이 127개나 있었다(에1:1; 8:9).

- 지식(Knowledge) 경험과 사고를 통해 얻는 삶의 진리나 사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다(시46:10; 요8:31-32).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의 이성으로 얻을 수 없으며(욥11:7; 롬11:33)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시19; 롬1:19-20) 섭리와(신6:20-25; 단2:21) 성경이 필요하다(시119; 계1:1-3). 사람의 정신적 지식은 충분하지 않으며 종종 교만만 만들어낸다(고전8:1; 13:2). 윤리적인 지식은 사람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잠1:7; 빌3:11-12; 요일4:6).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지식이며 특히 잠언은 이것을 강조한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장하기를 원했다(골1:10; 벡후3:18).

- 지옥(Hell) 지옥은 '스올'이라는 히브리어와 '하데스'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 총 54회 나온다(시16:10; 사14:9; 렘31:16; 눅16:23). 이 경우는 지옥이란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경우이고 이외에도 성경에는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 호수, 바닥없는 구덩이 등과 같이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런 구절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분명한 장소임을 보여 준다. 지하 세계 선도 참조(81).

- 영어의 지옥, 즉 hell은 '참죽다' 또는 '덮다'라는 뜻의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1차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자의 '지옥',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바벨탑에서 언어

가 혼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 아주 근사한 용어를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12:39-40).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대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가셨고(행2:31)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하늘로 옮기셨다(엡4:9-10), 낙원 참조.

“몸은 죽어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에 나오는 지옥은 그리스어 '게헨나'를 번역한 것으로 신약에서 열두 번 사용되었는데 이 중 열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게헨나는 '걸코 끝이 없는 불,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 타는 곳'을 의미하며 '하늘의 골짜기'를 뜻하는 '게헨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도시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대대로 계속해서 불타는 이 골짜기에서 쓰레기, 죽은 짐승, 범죄자의 시체 등을 내다 버렸다. 힌놈 참조. 게헨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용어였으며 단 한 번도 무덤을 뜻한 적이 없다.

지옥을 만드신 창조자는 지옥의 소름 끼치는 본질을 강조하시면서 그곳을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하셨다(마8:12; 22:13; 25:30). 사도 베드로 역시 지옥의 어둠에 대해 기록했고(벡후2:4) 사도 유다도 짧지만 권능 있는 자신의 글에서 지옥의 끔찍한 어둠에 대해 기록했다(유13).

지옥의 특성 중 또 하나는 그것이 깊고 넓다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지옥이 바닥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으로 일곱 번 언급된다(계11:7; 17:8; 20:1, 3 등).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거기에는 그들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지옥은 스스로를 키운다(사5:14). 또 지옥은 절망의 장소이다(계14:11). 지옥에는 희망이 없으며 지옥에 있는 자들은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산 채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다(계19:20).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산 불 호수, 즉 불로 가득한 호수의 위치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계19:20; 20:14). 불 호수 참조.

끝으로 참조 우리말 성경들은 54회의 지옥 중 반 이상을 '스올'로 음역해서 구약에서는 지옥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신약에서도 몇 차례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다. 음부는 저승과 같은 말로서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원, 유명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교도 사상이 기존 성경에 그대

로 반영되어 교리와 신학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개역성경 잠15:11; 27:20 참조).

● 지진(Earthquake) 보통 화산과 관련되어 지각이 심히 크게 움직이는 현상. 성경은 여러 번의 지진에 대해 언급하는데(민16:1-50; 왕상19:11-12) 유다 왕 웃시야의 통치 제27년에 지진이 일어났으며(암1:1; 습14:5)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지진이 있었다(마27:51). 팔레스타인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 지진은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되어 예언된 재앙들 중의 하나였으며(마24:7) 역사는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지진은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데 사용되었으며(시18:7; 46:2; 104:32) 국가나 사회의 큰 재앙의 상징이 되었다(마24:7, 29; 계16:18-19).

● 지참금(Dowry) 동방 여러 나라에서는 신랑이 신부가 속한 가족의 지위와 격에 맞게 돈이나 다른 귀중품으로 정혼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다. 족장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을 얻기 위해 자기 장인을 섬김으로써 지참금을 지불했다(창29:18-27; 34:12; 출22:16-17; 삼상18:25; 호3:2).

● 지체(Member) 손, 발, 귀 등과 같은 몸의 일부 분(고전6; 12).

● 지파(Tribe)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어서 각각 큰 가족을 이루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지파라고 부르며 이것은 현대 개념으로는 부족에 해당한다. 야곱은 죽으면서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어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에서 두 몫을 차지하게 하였다(창48:5).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열세 지파가 되었으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나눌 때에 레위 지파에게 상속 유업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을 열둘로 나누어 나머지 열두 지파에게 주었다. 한편 므낫세는 둘로 나뉘어 요르단 이쪽과 저쪽에서 상속을 받았으므로 각각을 므낫세 반 지파라고 부른다.

각각의 지파에는 지도자와 관원이 있었고 이 열두 지파는 처음에 연합 국가를 형성하였다. 여호수아의 배분에 의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르단 동쪽에, 그리고 나머지 지파와 다른 므낫세 반 지파는 요르단 서쪽에 상속 영토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죽음 이전까지는 한 국가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북쪽의 열 지파가 반역을 일으켜 북 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왕국을 유지하였다. 히브리 사람들 참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 지팡이(Staff) 건너나 여행하는 데 쓰는 막대기. 지팡이는 여행자(창32:10), 노인(히11:21), 다리 저는 자(삼하3:29) 등이 썼으며 목자들은 간단한 무기로 이것을 사용했다(삼상17:40). 지팡이는 또한 지도자의 권위와(사14:5) 하나님의 보호(시23:4)를 뜻한다. 막대기 참조.

● 지혜 문학(Wisdom literature) 고대 사회에 공

통적으로 존재한 문학 형태 중 하나. 이것은 주로 윤리와 철학 문제를 다루며 성경에서는 잠언, 욥기,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 19, 37, 49, 104, 107, 112, 119, 127, 128, 133, 147, 148편.

구약 성경의 지혜서에는 크게 실제적인 지혜와 사색을 위한 지혜가 들어 있는데 전자는 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말, 즉 지혜와 교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상식 수준의 통찰력과 관찰이 주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행복과 성공을 위해 지혜를 추구하게 하고 훈련과 원칙을 강조하며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잠언은 실제적인 지혜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잠언은 모든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자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책이라 할 수 있다. 잠언은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장수하고 행복하며 건강하고 존경과 안전을 얻음을 강조한다.

반면에 후자는 욥기나 전도서 등에서 발견되는 지혜로서 매일 행하는 일에 대한 교훈을 벗어나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 등에 관한 심오한 문제들을 다룬다. 예를 들어 욥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 주려고 노력한다. 이 책은 의로운 사람의 고통과 사악한 사람의 번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악한 사람의 행동이 매우 짧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반면에 의로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얻는다는 답을 준다(욥15:21-29; 24:24).

잠언과 마찬가지로 전도서 역시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지혜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사람이 삶을 영위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관찰과 교훈도 들어 있다. 전도서는 회의적이며 부정적인 인상을 주므로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사색의 지혜를 주는 문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지혜 시편은 풍기는 인상과 내용 면에서 욥기와 잠언과 비슷하다. 이런 시편 중 어떤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 또 어떤 것은 매일의 삶에서의 실제적인 지혜를 제공한다. 잠언, 전도서, 시편, 욥기 참조.

● 지혜자(Wise men)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개는 마술이나 점술, 천문학, 점성술 등에 능한 사람들을 가리킨다(창41:8; 출7:11; 예1:13; 단2:27; 5:15). 고대에는 점성술과 참된 지식의 한계가 모호했으며 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열매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 세상의 참된 지식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알고(행7:22) 다니엘이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는 것(단1:4)은 사실이며 그들은 이런 데서 분명히 세상의 지혜를 깨달았다. 다만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메대와 페르시아에서는 제사장과 철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도덕과 과학을 공부하고 특히 천문학과 의학 등에 뛰어났다. 그들만이 종교 의식을 행하였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일과 미래 사건과 신들의 뜻을 알려 주는 존재로 자신들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큰 명예를 얻어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왕궁에 들어가 자문을 주곤 하였다. 그들은 또한 전쟁 등에도 따라가서 조언을 주었으며 한마디로 그들의 허락이 없는 중요한 일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은 이집트와 바빌론에도 있었으며 다니엘서는 바빌론에서 그들의 위치를 잘 보여 준다. 다니엘은 거시기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지내었지만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어려움도 겪었는데 이런 기록을 통하여 그들이 실제로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47:13-14; 단2:9, 27).

한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의 지혜자들은 조금 경우가 달랐다(마2:1-12).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너머로 끌려가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지혜를 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내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베들레헴에까지 왔다. 바로 그들을 통해 이교도들의 과학과 철학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시72:10-11; 사60:1-3).

● 직무(Office) 직책이나 직업 면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일. 신약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라는 두 직무 수행자(officer)가 있다(답전3). 관리 참조.

● 진리(Truth)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윤리의 중요한 특성이다. 하나님은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분이시다(출34:6; 신32:4). 그분의 모든 길은 공훈과 진리이다(시25:10). 종종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훈과 진리가 같이 나온다(시57:3; 89:14; 115:1). 하나님의 일과 교훈과 심판은 의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시96:13; 111:8).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므로 그분의 말과 행동은 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삼상15:29; 히6:18; 약1:17-18).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분이시므로(요1:14)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다(요8:40).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를 가리켜 진리라 하셨다(요14:6). 성령님 역시 진리의 영으로(요14:17; 15:26; 16:13)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신다(요15:26).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 진멸(Utterly destroy) 죄다 멸망하거나 죽여 없앴.

● 진설병(Shewbread) 보여 주는 빵 참조.
 ● 진영 혹은 진(Camp, Encampments)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레위 체계의 율법에는 일이 '진영 밖에서' 혹은 '진영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있다. 이집트를 떠난 무리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며(출12:37; 민1:46) 그들은 사방에서 궤를 둘러싸기 위해 네 개의 부대로 나뉘어 각각 한 깃발 아래 모였다(민2:2). 성막 선도 참조(56).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모이고 움직이는 것은 정말로 장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압의 높은 지역에서 이 광경을 본 빌랄 대언자는 "오 야곱아,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오 이스라엘아, 네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민24:5)라고 탄성을 질렀다(민23:1-30; 24:1-25). 이스라엘 군대가 한 군대에서 진을 치고 다른 곳으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민9:1-23; 10:1-36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그들이 진을 친 마흔한 곳의 이름은 민33:1-56에 있다. 그들은 주전 1491년 경에 라암셋에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그 뒤 40년이 지나 요르단 강의 독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다. 이집트 탈출 참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침입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낙타와 짐을 주변에 놓고 중심에 장막을 쳤으며 군대나 대상들도 이런 식으로 진을 쳤다(삼상26:5).

● 진주(Pearls) 고대 사람들은 진주를 가장 귀한 보석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계17:4).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로 비교되었으며 그래서 진주 상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마13:45-46). 하늘의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다(계21:21).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마7:6) 이는 복음의 귀한 진리를 거부하며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줄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 진토(Dust) 티끌과 흙.
 ● 진화(Evolution)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데 이것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지금부터 100-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우주 폭발이 일어나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다. (2) 지금부터 50억 년 전에 지구가 형성되었다. (3) 지금부터 5,000만 년 전에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생겼다. (4)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 사람이 생겼다. (5) 모든 생명은 무생명에서 나왔다. (6)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종이 변화한다.

그러나 빅뱅 이론은 물질 보존의 법칙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1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빅뱅 때에 콩알만 한 크기의 물체 안에 온 우주가 들어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그 물질의 출처가 있어야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 사람은 유에서 유는 만들 수 있어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물질과 에너지가 처음에 창조되지 않으면 물질 보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진화론자들은 시간이 0일 때 물질과 에너지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질서가 증가하는 일은 계(시스템)의 질서가 항상 점점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만 진행됨을 보

여 주는 열역학 제2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물을 대기 중에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온도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또 사람이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 나왔고 평균적으로 매해 인구가 0.5% 정도씩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생명체의 우연한 발생을 주장하는 진화론은 열역학 제1, 2법칙에 의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연주의자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믿는 인본주의 종교 체계이다(롬 1:18-32). 창조 참조.

● 진흙(Clay) 발로 밟아 토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흙(사41:25). 고대 사람들은 보통 진흙을 바퀴 위에서 주물러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가마에 구워 토기를 만들었다(렘18:3; 43:9). 성경에서 토기장이 비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심과 계획하에 있음을 보여 준다(사64:8; 롬9:21). 토기장이 참조. 한편 고대에는 진흙을 사용해서 세는 것을 막기도 했다(욥38:14).

● 질그릇 조각(Potsherds) 깨진 질그릇의 조각(욥2:8; 사30:14).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보여 준다(시22:15; 잠26:23; 사45:9).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히 조각나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사30:14).

● 질병(Diseases) 질병은 죄에 의해 이 세상에 도입되었고 특히 부패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사치하는 관습에 의해 크게 증가해 왔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질병이 생기고 악한 영들이 질병을 일으키기도 했다(욥2:7; 막9:17; 눅13:16; 고후12:7).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질병이 생기는 것을 인정했다(시39:9-11; 90:3-12). 아비멜렉, 게하시, 여호람, 웃시아, 미리암의 경우처럼 특정한 죄로 인해 특별한 질병이 생기기도 했고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대하지 않음으로 질병이 생기기도 했다(고전 11:29-3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자신의 선하심과 권능을 드러내어 보여 주셨다. 이런 사례와 아사 왕의 사례(대하 16:12)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의원들의 기술이나 노력이 소용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행하던 병에는 악성 열병, 마비 병, 이질 설사, 눈병 등이 있다. 육체의 질병은 사람의 혼에도 병을 가져다준다. 선물, 병 고침 참조.

● 질투(Jealousy) 이 말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가리킨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이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인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자기에게만 관심을 둘 것을 원하시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른 신을 따르면 질투하신다(신32:16; 왕상14:22; 시78:58; 겔 8:3). 한편 사람의 경우 이 말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다. 좋은 용례로 쓰일 때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뜻한다(민25:11; 고후 11:2). 나쁜 의미는 행7:9; 롬13:13; 고전3:3; 고후 12:20 등에 있다. 질투의 법은 민5:11-31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 짐(Burden) 몸이나 혼에 놓인 무거운 짐. 이것은 종종 상징적인 표현으로 고통, 실패, 죄(사38:4; 55:22; 갈6:2), 율법하에서 섬기는 일(마23:4), 공적인 책임(출18:22; 신1:12) 등을 뜻했다. 한편 많은 대언자들이 자기들의 메시지를 '짐'으로 표현했으며 킹제임스 성경은 이를 '엄중한 부담'으로 번역했다(사19:1 등). 이 같은 메시지는 부담이 되는 메시지였으나 모든 것이 경교나 위협을 말하지는 않았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대언 등으로 번역되었다(잠31:1).

● 짐승(Beasts) 이 말은 사람과 함께 쓰일 때 모든 종류의 짐승을 의미했으며(사36:6) 어떤 때에는 기는 것을 제외한 네발 달린 짐승을 뜻했고(레11:2-7) 야생 동물과 대조되어 가축을 뜻하기도 했다. 이것들은 다 아담 앞을 지나가며 이름을 받았다.

성경에는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짐승들의 이름만 나온다. 짐승들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함께 고난을 받았으나(창3:14; 출9:6; 13:15; 겔38:20; 호4:3)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것들에게 고통을 베풀 것을 규정한 법규들이 있었다(출20:10; 23:11-12; 레 22:28; 25:7). 짐승들은 특별히 희생 제도와 관련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었다(창7:2; 레 11:1-47).

한편 짐승이라는 말은 여러 왕과 민족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고(겔29:3; 단7:1-28) 또 잔인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시22:12, 16; 고전15:32; 뱀후2:12). 짐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통 '살아 있는 창조물'을 뜻했으며 에스겔의 환상 속에는 사람이나 혹은 사람의 상징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겔1:1-28). 짐승은 다른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신음하며 세상 끝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때에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구속받을 것이다(사11:6-9; 롬8:19-22). 영 참조.

● 집(House) 집은 보통 거주하는 곳을 가리키며 그래서 성전과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라 불린다. 임시로 거하는 장막과 오래 거주하는 집의 차이는 이미 창4:17, 20에서부터 드러난다. 집을 짓는 건축 기술은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을 짓기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창6:14-16; 11:3-5). 아브라함과 그의 초기 후손들은 장막에 거하였으나(히11:9) 이집트 탈출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출 12:7)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족속들 역시 집을 소유하였다(신6:10-11). 동방에서 집을 짓는 방식은 고대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은 진흙 등을 말려서 만든 1층짜리 집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방이 하나만 있었

고 어떤 때는 짐승도 같이 자야 했다(삼상28:24). 창문은 작고 높은 데 있었으며 밖에 사다리를 두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붕은 평평했으며 나뭇가지 등으로 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곤 하였다. 집에 관한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이런 집에 살면 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암5:19) 도둑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읍24:16; 겔12:5-7; 마6:19-20). 이런 집들은 비가 올 때에 그대로 버려두면 없어져 버렸는데(읍15:28) 이것은 사람의 수명이나(읍4:19) 거룻 가르침 혹은 근거 없는 소망(겔13:10-16) 등을 나타낸다(마7:24-27 참조). 또한 집을 짓는 재료가 흙이었으므로 에스겔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벽에 구멍을 낼 수 있었으며(겔12:5) 이런 실례는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생생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겔13:10-16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 준다.

동방에서는 잘 사는 사람의 경우 대개 집의 한가운데에 뜰을 두고 네모나게 벽을 둘러서 집을 지었고 집의 창문들을 모두 이 뜰을 향해 만들었다. 큰 집에는 여러 뜰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둘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나무 등을 심은 경우도 있었고(시84:2; 128:3) 또 뜰에는 샘이 있기도 했다(삼하17:18). 대부분의 집에는 여름철에 뜰에 천막을 쳤고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뜰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접대했다. 각 집의 앞 중앙에는 뜰로 연결된 통로가 있었고 이 통로의 바깥문에는 큰 집의 경우 문지기가 있었다(행12:13). 또한 큰 집에서는 뜰에서 나무로 불을 지피기도 하였고(눅22:55)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휴대용 숯불 난로 등을 예비하기도 하였으며(렘36:22) 굴뚝이 없어서 연기는 벽의 구멍으로 나갔다(호13:3). 또한 큰 집에는 여름과 겨울을 위한 특별한 방이 있었다(렘36:22; 암3:15).



예루살렘에는 대부분의 집이 석회암을 깎아서 만든, 네 개 이상의 물 저장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좋은 집을 지을 때는 깊이 파서 바위가 나오는 곳에 기초를 두었고(왕상5:17; 눅6:48) 새로 지은 집은 집주인이 봉헌하였다(신20:5).

부자의 방들에는 벨벳이나 연분홍의 커튼이 걸려 있었으며(에1:6) 위에는 번개무늬 장식이 있고 천정은 정두리 널판으로 대거나 모자이크로 되어 있으며 진하게 색을 칠한 경우도 있었다(렘22:14). 바닥에는 대개 나무마루나 대리석 혹은 가펄을 깔았다. 방의 주변에는 의자 대신 낮은 소파가 있었고 침상은 방의 한 구석에 조금 높은 발코니 같은 곳에 있었으며(왕하1:4, 16) 계단들은 뜰의 구석에 있었다(마24:17). 침상 참조.

집의 꼭대기는 평평하게 되어 있고 두 개의 벽이 있었는데 바깥벽은 집의 외곽에 붙여 거리에 지었으며 높이가 높지 않으므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다른 벽은 난간 벽으로 뜰의 바로 위에 가슴 높이로 지었다(신22:8). 어떤 경우에는 이런 난간 벽 대신 격자 구조물을 두었으며 왕하1:2의 아하시야는 이런 것에 기대었다가 뜰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테라스에서는 옷이나 아마를 말리기도 하고(수2:6) 무화과와 건포도를 준비하기도 하며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대화하기도 하고(삼상9:25; 삼하11:2)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왕하23:12; 렘19:13; 행10:9).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지붕에서 우상을 숭배하고(왕하23:12; 렘19:13; 32:29; 습1:5) 재난에 대해 애곡하며(사15:3; 렘48:38) 공적인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마10:27) 위험한 때에 관찰을 하기도 하였다(삼하18:24; 사22:1). 또한 장막절에는 여기에다 초막을 지었으며(느8:16) 도시가 평지에 지어진 경우 지붕 꼭대기로 걸어서 전체 도시를 다닐 수도 있었다.

한편 여러 층의 높은 집의 경우 주랑 위에 조그만 방을 지을 수도 있었고 여기에 손님이 거하게 하거나 집안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였다(마6:6). 수넵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만든 방(왕하4:10), 에글론의 여름 거실(삿3:20), 다윗이 울기 위해 들어간 방(삼하18:33), 다비다를 둔 다락방(행9:37) 등이 이런 방이었을 것이다.

평평한 지붕은 안식과 묵상을 위한 좋은 장소였으며 사무엘은 여기서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잠을 자기도 한 것 같다(삼상9:25-26). 지붕에서는 쉽게 밖을 볼 수 있으므로 위험한 때에 사람들은 여기로 달려갔다(사15:3; 22:1). 또한 지붕은 대개 흙으로 덮였기 때문에 비가 오면 구멍이 나서 물이 떨어지곤 하였고(잠27:15) 그대로 두면 비가 온 후에 풀이 자라기도 하였다(시129:6-7; 사37:27). 장막 참조.

성경에서 집은 종종 가족을 뜻하기도 하며(창12:17; 출1:21), 재산(왕상13:8), 땅의 몸과 영의 몸(전12:3; 고후5:1), 무덤(읍30:23; 사14:18), 성막(출23:19), 교회(딤펴전3:15), 하늘(요14:2)을 뜻하기도 한다. 끝으로 하나님의 집(삿20:18; 26; 21:2)은 얼마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문 벨렘을 가리킨다. 벨렘 참조.

● 집사(Deacon) 집사를 가리키는 그리스어는 본래 종을 뜻하며 여러 곳에서 사역자, 종 등으로 번역

되었다(마20:26; 고후6:4; 엡3:7). 행6:1-15에는 비록 집사라고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개 집사로 생각되는 일곱 명의 직무 수행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은 구제물을 거두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과부와 고아와 박해받는 자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 이 일곱 명 중에서 특별히 스테반과 빌립은 전도자가 되었다. 집사들의 자계에 대해서는 딤후3:8-12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목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집사는 반드시 남자여야 한다(딤후3:12).

- 징계(Chastise) 허물을 나무라서 경계함.

- 징벌(Visitation) 성경에서 이 말은 사람 혹은 민족의 생각이나 행위 등을 검사하여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을 뜻한다. 궁정적으로 쓰일 때 이 말은 돌보심을 뜻한다(욥10:12).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징벌을 뜻한다(사10:3; 렘8:12; 호9:7; 미7:4).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는다.”(민16:29)는 것은 자연히 죽는 것을 말한다. 눅19:44에서 이 말은 궁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六)

- 차꼬(Stocks) 죄수를 가둘 때 쓰던 형구(욥13:27; 렘20:2-3; 행16:24).



- 착취(Extortion) 자본가나 지주가 노동자나 농민을 임금에 상당한 시간 이상으로 부려서 생기는 잉여가치를 자기의 소유로 함.

- 찬송가(Hymn) 종교적인 노래 혹은 시(엡5:19; 골3:16).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함을 가르쳤다. 성도 마태는 그리스도의 수난 바로 전에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하는데 아마도 이때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율월절 기간에 부르던 시편의 일부를 노래로 불렀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할렐'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할렐루야 시편들을 말하며 여기에는 시편 113-118편

이 있고 이 중 앞의 두 개는 율월절 어린양을 먹기 전에 부르고 나머지는 먹은 뒤에 불렀다.

- 참새(Sparrow) 참새는 아주 값싼 새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참새의 생명을 돌보신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을 향한 그분의 섭리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마10:29).

- 창녀(Harlot) 창녀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여인(잠29:3),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과 도시들을 상징하기도 한다(사1:21; 겔16:1-63; 나3:4). 유대인 사회에서 창녀들은 대개 이방인이었으며 그래서 많은 경우 '낯선 여인'이라 표현되기도 하였다. 창녀들은 종종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몰두하였고 가증한 것을 만들기도 했다(민25:1-5; 호4:14).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표현된 남창(男娼)의 몸값을 헌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도 제정되었다(신23:18).

- 창대(Great exceedingly) 성대함.

- 창세(Founda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조 혹은 창건(마13:35; 25:34; 눅11:50; 요17:24; 엡1:4; 히4:3; 9:26; 뱀전1:20; 계13:8; 17:8).

- 창안(Invention) 처음으로 생각하여 냄을 뜻하고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시99:8; 잠8:12; 전7:29).

- 창조(Creation) I.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 -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 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는 행위(시148:5; 계4:11). 창조의 신비 선도 참조(69).

- II.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을 다시 꾸미는 것.

- III. 이렇게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베후3:4; 계3:14; 5:13).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첫째 의미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므로 물질이 영원토록 존재해 왔고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베후3:4)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며 따라서 철저히 거부되어야 한다(잠8:22-31; 요1:1-3; 히11:3).

창조는 하나님의 독창적이며 배타적인 일이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은 창조의 창시자이다(사40:28; 골1:16; 창1:2). 창조는 유한한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롬1:20).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의 계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 즉 일 속에서 창조에 대해 계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성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창조의 기사를 보여 준다. 창세기에 나오는 날은 지금의 24시간의 하루와 동일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즉 토요일에 안식하셨다. 이 일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일어났으며 지구의 자기장, 석유가 나오는 다공층, 유성 먼지, 미시시피 강의 삼각주, 인구 증가 등

의 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이 같은 사실을 지지한다. 진화 참조, 성경의 연대 1,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선도 참조(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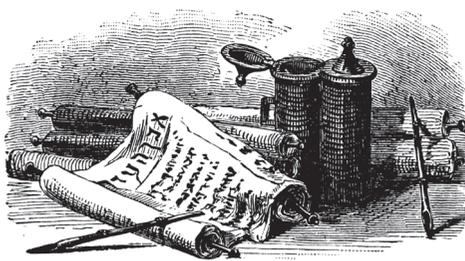
롬8:19-22에 나오는 창조 세계는 아담의 타락 이후의 온 세상 만물을 가리키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저주로부터 풀려나 다시 1,000년 동안 회복되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사 11:6; 35:1; 벧후3:7-13). 현재 헛된 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몸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완전히 구속을 받을 것이다(롬8:23). 구속 참조.

● 창포(Calamus) 의약품, 여러해살이풀. 이것은 연못가에서 자라며 높이는 30센티미터 내외이다. 이것의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자라며 지상에 있는 줄기와 더불어 독특한 향기를 내는데 보통 뿌리줄기를 창포라 한다(출30:23; 아4:14; 사43:24; 렘 6:20; 겔27:19).

● 채색(Many colors) 여러 가지의 고운 빛깔.

● 채찍질(Scourge) 채찍질 형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하였다. 주님께서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채찍질을 받으셨다(요19:1). 모세는 태형을 집행할 때 40대 이상을 넘기지 않게 하였으나(신 25:1-3) 유대인들은 후에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 39대로 정하였으며 세 개의 끈이 달린 채찍의 경우 13번을 휘둘러서 39대를 때렸다. 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가죽끈에 첫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다. 처형 때에는 어깨부터 허리까지 범죄자의 옷을 벗기고 손은 낮은 기둥에 묶었는데 이로써 채찍질하는 사람이 쉽게 그의 등을 칠 수 있었다. 혹은 얼굴을 땅에 대게 하고 눕힌 채 곤장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신25:2). 바울은 고후11:24에서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다섯 번이나 39대의 매를 맞았다고 기록하고 그다음 절에서 세 번 몽둥이로 곤장을 맞았다고 기록한다. 따라서 채찍질과 곤장은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책(Book) 고대에는 여러 물질을 사용하여 책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납이나 구리판, 나무껍질, 벽돌, 돌, 나무 등을 사용하여 그 위에 무엇을 쓰거나 새겨서 그 내용이 후대에 전달되게 했다(신27:2-3; 욥19:23-24). 한편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들 위에 기록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일이나 벽돌에 글을 쓰고 그것을 불에 굽기도 했다. 고대에는 나무, 상아 등으로 만든 판들이 흔했는데 나무판의 경우에는 그 위에 왁스를 입히고 철필 등을 사용하여 그 위에 기록하였으며(렘17:13) 거기에 쓴 것은 나중에 철필의 넓은 끝부분을 이용하여 지울 수도 있었다(눅1:63). 시간이 지나면서 종려나무 잎사귀들과 라임나무, 물푸레나무, 느릅나무, 단풍나무의 얇은 껍질 등이 나무로 된 서판을 대체했으며 이런 껍질들을 말아서 하나로 만들면 두루마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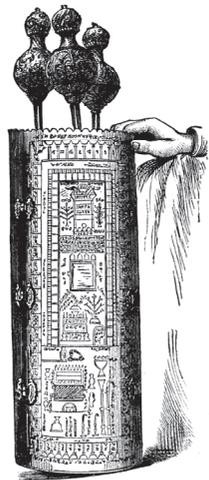
고대 사람들은 또한 아마에도 글을 썼지만 가장 오래되고 흔히 사용된 것은 이집트에서 쉽게 발견되는 갈대를 이용한 파피루스였다. 여기에서 종이를 뜻하는 '페이퍼'가 나왔다. 그 뒤에 짐승의 가죽을 이용한 양피지가 버가모 등에서 개발되었는데 이런 부드러운 재질 위에 쓰기 위한 도구로는 작은 붓이나 끝이 나뉜 갈대가 사용되었다(렘36:23). 그들은 잉크를 만들기 위해 상아의 검댕이 숯과 여러 종류의 수지를 이용했고 서기관들은 잉크통을 차고 다녔다(겔9:2). 현대식 종이를 만드는 방법은 주후 1300년경 유럽에서 개발되었고 그로부터 150년이 지나 인쇄술이 개발되어 처음으로 성경책이 인쇄되었다.

고대의 책들은 두꺼운 두루마리 형태였으며 글은 한 면에 평행하게 세로 칼럼 형태로 기록되었고 두루마리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풀러가 달려 있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말면서 책을 읽었다. 이런 두루마리는 종종 끈을 맨 뒤 봉하고 그 위에 왁스를 붓고 인장으로 봉인했다(사 29:11; 계5:1-3).

문서를 기록한 것은 창조의 시작부터 이루어졌다(창5:1; 출17:14; 욥19:23; 31:35). 인류의 조상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비해 지적 능력이 더 뛰어났으며 사람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면에서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고대의 기록자들은 스스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했다. 사도 바울은 갈6:11에서 자신이 직접 썼다고 말하며 다른 서신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쓰고 자기가 문인 인사를 썼음을 밝혔고(고전 16:21; 골4:18; 살후3:17)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기도 했다(롬16:22). 글자 참조.

1. '세대에 대한 책'(창5:1; 마1:1)은 두 아담의 세대를 담은 것으로 이 둘의 계보를 보여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세대 참조.



II. '주의 전쟁의 책'(민21:14)은 아마도 전쟁 역사를 담은 책일 것이다.

III.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왕상 14:19, 29)은 공개된 연대기였을 것이다.

IV. '야벳의 책'(삼하1:18)은 민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은 책일 것이다. 고대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전해졌다.

V. '산 자들의 책'(시69:28)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통치자들의 팔에서 행하던 관습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 자기 군대의 관료들, 자기 군대의 숫자, 군인들의 이름 등을 담은 명단을 보관했다. 동방의 시적 표현에서 하나님은 두루마리에 자기 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 이름이 들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빌4:3).

- 책무(Charge) 직책과 임무.

- 책잡다(Entangle) 남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탈을 잡아 말하다.

- 처음(Beginning) 창1:1의 '처음'은 절대적인 의미로 시간과 우주의 시작을 뜻하지만 요1:1의 '처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창1:1의 처음보다 훨씬 앞서며 그분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동등하게 스스로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요일1:1의 처음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가리킨다. 바울과 요한은 주님을 시작 혹은 처음이라고 기록하였는데(골1:18; 계1:8; 3:14) 이것은 모든 것을 있게 만든 장본인을 가리킨다. 즉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는 곧 '모든 창조물을 처음으로 낳게 하신 분'을 뜻한다.

- 처음 난 것(Firstborn) 이 말은 물론 문자 그대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을 뜻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렘31:9)에서 에브라임은 실제로 맏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처음 난 자'라는 표현을 써서 그가 가장 뛰어난 자, 사랑받는 자임을 보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의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므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다(골1:15). 그분은 또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요 창시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다(골1:18).

파멸시키는 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자신을 위해 기록히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자들이라면 이 법에 의해 규제를 받았다.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경우 그 각 아내의 맏아들을 바쳐야만 했고 맏아들은 성전에서 드러졌으며 5 세를 드림으로 대속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성전에서 드리고 대속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죽여야만 했다. 반면에 부정할 짐승의 첫 새끼는 대속하거나 바꿀 수 있었다(출13:13). 한

편 맏아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장자권, 맏아들 참조.

- 천국(Heaven)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성경에서 하늘로 번역되었다. 하늘, 새 예루살렘 참조. 기존 우리말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3:2; 4:17) 등에 나오는 천국은 원래 '하늘의 왕국'이며 이것은 결코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 즉 하늘나라가 아니다.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딤후4:18에 하늘 왕국(Heavenly kingdom)으로 되어 있다. 하늘의 왕국 참조. 성경의 하늘들 선도 참조(80).

- 천년 왕국(Millennium) 계20:1-6에 기록된 대로 땅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구약 시대 대인자들은 줄기차게 이 기간이 온 우주가 의로 치리를 받으며 온 땅이 복을 받는 때라고 묘사했다. 어떤 이들은 1,000년이 단순하게 완전한 수를 뜻하며 따라서 천년 왕국이란 새 하늘과 새 땅이 거하는 영원한 왕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서 주님께서 친히 칠장(쇠막대기)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딤후2:12; 계5:10; 사11:1-12; 25:6-9; 65:18-25; 미4:1-4; 습3:14-20; 숙8:3-8, 20-23; 14:16-21 참조). 교화와 왕국 선도와 만물의 회복 선도 참조(85, 94).

시편 2편에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시2:8-9; 계12:5). 이것은 결코 영적 통치를 뜻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말한다. 또 대인자 이사야는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의와 화평을 가져오는 분이라고 대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짐승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기(旗)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뼈주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사11:9-10).

이런 구절의 왕국은 결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주님의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 아담은 죄를 지어 땅에 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를 없애고 의와 화평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왕좌를 둔 채 온 땅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단7:14; 계19:15; 시72). 그 이후에 지금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어 다시는 반역과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렘30:3; 31:8-9; 겔39:25-29; 암9:11-15) 새로 부활된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사9:6-7; 33:17; 44:6; 렘23:5; 미4:2-3, 7) 특별한 복을 받아 민족들 중에 으뜸이 되며(민23:9; 사14:1-2; 49:22-23; 60:14-17) 또 영적으로 부흥할 것이다(렘23:3-6; 겔36:25-26; 슥13:9; 말3:2-3). 이때에는 또 경배의 장소로 천년 왕국 성전이 지어지고(렘40-48)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희생 예물을 바친다. 이것은 결코 속죄를 위한 예물이 아니고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다. 즉 천년 왕국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만이 죄를 제거함을 보여 주기 위한 시창과 교육으로 희생 예물이 드려질 것이다.

이때에는 땅도 기능을 회복하여 밋은 열매를 맺고(사35:1-2) 산과 골짜기가 모두 평지로 변하며 온 세상의 기후 역시 온화하게 되고(사40:3-4; 슥14:4) 예루살렘에도 큰 변화가 생기며 왕의 왕좌를 둔 곳으로 모든 곳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슥14:4; 10). 또 이방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슥14:16-21). 천년 왕국의 성전과 도시 선도 참조(93).

천년 왕국에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즉 7년 환난기를 거쳐 살아남은 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그리스도 이전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부활한 몸) (2) 신약 교회 시대 사람들(부활한 몸) (3) 환난기에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부활한 몸) (4) 환난기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부활하지 않은 몸) (5) 천년 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부활하지 않은 몸).

7년 환난기를 통과하고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로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 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아들딸을 낳는데 이들 역시 그 전의 다른 세대 사람들처럼 구원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쇠막대기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중 얼마는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체하지만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사탄이 풀려나는 때에 기회를 타서 자기들의 속 감정을 드러내며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사탄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계20:7-10). 이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다시 길어져서 창조시 시작 때처럼 거의 1,000세까지 살며 또 죽기도 한다(사65:20). 전천년 믿음, 환난기 참조.

● 천동(Thunder) 천동과 번개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보여 주는 상징이며(출19:16; 삼상2:10; 12:17; 시18:13) 특히 천동은 시적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나타내었다(시29, 욥37:1-5; 40:9; 렘10:13 참조).

● 천문학(Astronomy) 천체들을 다루는 학문. 이것은 특히 고대 아시아에서 발달했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났다. 히브리 사람들은 기후와 삶의 방식 등으로 인해 천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으나 특별히 이것을 파고들지는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려 주었고(창1:1-31) 그래서 그들은 천체들을 통해 참되고 살아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시19; 사40:26; 암5:8). 성경은 우리에게 천문학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모든 시대의 인류에게 익숙한 말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 말한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천체들이 언급되어 있다: 금성(새벽별, 계2:28), 오리온과 플레이아데스(욥9:9; 38:31; 암5:8), 악투르스(욥9:9; 38:32), '구부러진 뺨'(다르코, 욥26:13) 등. 주피터(목성)와 비너스(금성)는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름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머큐리(수성)는 느보(사46:1), 세틴(토성)은 기운(암5:26), 마르스(화성)는 네르갈(왕하17:30)이라는 이름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우상 숭배 참조.

● 천사(Angel)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것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모두 일차적으로 사자(使者)를 의미하며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곳도 있다(마11:10; 눅7:24). 이 말은 종종 보통의 사자에게 적용되었고(욥1:14; 삼상11:3; 눅9:52), 대언자에게(사42:19; 학1:13), 제사장에게(전5:6; 말2:7) 그리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게도 적용되었다(시78:49; 104:4; 고후12:7). 한편 일반적인 의미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었고(말3:1) 그분의 복음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감독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계2:1, 8, 12).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 면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을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하신다(마1:20; 22:30; 행7:30 등). 그들은 순수한 영이나 혹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13:2).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남성 단수 대명사 he를 사용하며 이로써 천사들이 남성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 혹은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편 천사들은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욥38:7).

성경은 천사의 수가 매우 많음과(단7:10; 마26:53; 눅2:13; 히12:22-23) 그들의 힘이 매우 강력함을 보여 주고(시103:20; 뱀후2:11; 계5:2; 18:21; 19:17) 그들의 일들도 보여 준다(삿13:20; 단9:21-23; 마13:49; 26:53; 행27:23; 계8:13). 천상에는 천사들과는 다른 종류인 그룹, 스랍 등이 있다(사6:2-6; 겔10:1). 천사

들 가운데는 천사장이 있고 왕좌, 통치, 권능, 권력 등은 천상에 존재하는 여러 등급의 존재들을 가리킨다(골1:16; 계12:7).

천사들은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언급되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한 섬기는 영들이다(시91:11; 103:20; 히1:14).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계19:10; 22:8-9). 성경은 개인에게 보호 천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크리스천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 준다(마18:10; 눅16:22; 히1:14). 특별히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눅2:10-12; 15:7, 10; 뱀전1:12)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히12:22).

사람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임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천사들, 즉 마귀들이 되었다(마25:41; 계12:9). 한편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여자들과 성적으로 결합하여 거인들을 출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땅에 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유6와 뱀후2:4는 그들을 가리켜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어둠 밑에 예비된 자들'이라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들 참조.

● 천사장(Archangel) 천사들의 주요 통치자. 이 이름은 성경에 단 두 번 나온다(살전4:16; 유9). 유다서에서 이것은 미가엘, 즉 유대인들 - 특별히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유대인들 - 을 향한 특별 책무를 가진 강력한 천사에게 적용되었다(단10:13, 21; 12:1; 계12:7-9).

● 천연 소다(Nitre, 나이타) 알칼리 비누 성분을 포함하는 천연 광물. 이것은 식초와 반응을 잘 하였고(잠25:20) 지금도 세탁할 때에 사용되며(렘2:22) 이것을 기름과 섞으면 단단한 비누가 된다.

● 천장(Ceiling)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집의 천장을 장식하기 위해 예를 많이 썼으며 그래서 천장은 청사각형이나 다른 모양으로 널빤지를 대서 만들었고 거기에 물당을 하고 색을 칠하고 곱게 바르기도 했다(왕상6:15; 대하3:5; 렘22:14).

● 철장(Rod of iron) 쇠막대기(시2:9; 계2:27; 12:5; 19:15).

● 철학(Philosophy) 지혜를 사랑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철학은 헛되이 또 사악하게 사람의 논리를 세우는 것을 뜻하며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 이 세상의 지혜,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전1:18-27; 딤펴6:20).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철학으로 인해 스스로를 과멸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다(골2:8). 철학은 또한 교묘하게 사람의 고귀한 기능인 논리를 비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음을 보여 주는 슬픈 증거 중 하나이다. 사실

사람의 가장 고귀한 지성마저도 종종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리며 사람의 이성의 범위와 활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과 반역과 어리석음의 척도가 되었다(마11:25; 고전2:14; 3:18-20).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설교에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세상의 헛된 지혜, 즉 이교도들의 철학이 우리 주 예수님의 지혜를 대적함을 보였으며 또한 이러한 참된 진리가 뛰어난 말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도들의 마음에서 확증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근거하므로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하였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을 부추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유죄이며 따라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보여 주므로 세상의 철학은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 스토아, 에피쿠로스, 아카데미 등의 학파가 있었듯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에세네, 바리새, 사두개파가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스토아학과, 사두개인들은 에피쿠로스학과와, 그리고 에세네파는 아카데미 학파와 비슷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헛되며 자랑하기를 좋아하였고 사두개인들은 혼의 불멸과 영의 존재를 부인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전혀 걱정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 에세네파는 좀 더 중도적인 입장에서 단순하게 또 경건하게 철학적 사고를 하였다.

초대 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준 경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성의 교만은 무신론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오고 계시를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거절한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믿고 받아들인다.

● 첩(Concubine) 현대에서 첩은 어떤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의 아내로 사는 여인을 뜻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첩은 대개 합법적인 부인인데 격이 좀 낮은 상태의 여인을 가리킨다. 첩은 합당한 아내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달랐다. (1) 남자와 엄숙한 서약이 없이 정혼만 한 상태로 결혼하는 경우 (2) 여자가 신부의 혼인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 가족에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한 경우 등. 첩은 이혼하여 선물을 주고 내보낼 수 있었으며(창21:14) 그녀의 자식들도 그런 식으로 내보내어 아버지의 상속 유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창25:6).

첩을 취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그 당시 첩 제도는 보편적이었지만 모세의 율법은 이 제도의 남용을 금하고 있으며(출21:7-9; 신21:10-14) 콜로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가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래의 결혼 법을 회복시켰으며(창2:24; 마19:5; 고전7:2) 그 결과 신약 시대에 첩 제도는 음행이나 간음과 같은 부류의 죄로 여겨진다.

● 첫 열매(Firstfruits)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수확의 열매 중 일부를 선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 전체를 대신해서 드린 이 일부는 앞으로 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였다. 유대인들은 작물을 거두기 전, 종교력 1월 16일에 성전에서 첫 열매를 저녁에 드리고 성전의 뜰에서 타작했으며 그 뒤 제사장은 이것으로 헌물을 만들어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쳤다. 그 뒤에 그들은 돌아가서 수확하였고 밀 수확이 끝나면 오순절에 민족의 이름으로 두 개의 빵을 만들어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렸다(레23:10, 17). 이런 첫 열매 말고 각 사람은 자신의 첫 열매를 성전에 가져다가 드렸는데 성경은 이것을 언제 때나 양 등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첫 열매가 있었다(민15:19-21; 느10:37). 그들은 빵을 반죽할 때에 일부를 떼어 그 지역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에게 주었고 첫 열매와 십일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제정의 대부분을 충당하였다.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롬8:23) 이것은 유대인들의 것보다 더 풍성하고 뛰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앞으로 있을 부활의 수확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15:20). 그러므로 부활의 창시자요 선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이시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 다가올 수확에 참여할 자들이다(요14:19). 영어로 firstfruits는 s가 붙어서 복수처럼 보이지만 그리스어와 성경의 용례는 이 단어가 분명하게 단수임을 보여 준다(롬16:5).

● 청옥(Jacinth) 자수정이나 지르콘과 관계있는 보석. 이것은 노란 색조의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열을 받으면 색을 잃고 다이아몬드처럼 된다(계9:17; 21:20).

● 청원(Petition) 어떤 기관에 희망, 소원 따위를 제출하여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일.

● 청지기(Steward) 양반의 집 수청방에 있으면서 여러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창15:2; 마20:8; 눅16:1-8). 경륜 참조.

● 초등 원리(Elements) 원래 이 말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를 뜻하며 상징적으로 종교의 기본 원리나 유대인들의 의식의 기본 조건 등을 뜻한다(갈4:3, 9; 골2:8, 20; 히5:12). 이런 것들은 약하고 천한 것으로 아이들에게나 적합하며 관능적이다. 따라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떠나 좀 더 성숙한 데로 나아가야 한다.

● 초림(First coming)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참조. 예수님은 주전 4년경에 이 땅에 오셔서 주후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그분의 초림은 나사렛에서 무명으로 사시던 처

음 30년과 요르단 강에서 침례를 받고 드러나게 사역을 하신 공생애 3년 반으로 구성된다. 예수님은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모세의 율법 밑에서 여자의 지로 태어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시며 완전한 유대인으로 사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신약 시대를 여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다. 철십 이레, 재림, 상속 언약 참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전도 참조(64).

● 초막(Booth) 오두막. 이것은 주로 기둥을 세우고 초록색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졌다(창33:17; 욥27:18).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의 이동 동안 초막에 거하는 데서 유래되었다(레23:40-42; 느8:14). 장막절 참조.

● 초목(Plant) 풀과 나무.

● 초신자(Novice)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딤후3:6). 바울은 초신자가 목사가 되는 것을 금하였다.

● 초실절(Feast of the first fruits) 첫 열매 명절. 첫 열매 참조.

● 축(Tenon) 서로 잇는 채목의 한쪽을 홈에 끼어 넣을 수 있도록 뾰족하게 만든 부분(출26:17, 19).

● 추구(Follow after) 뒤쫓아 구함.

● 축복(Bless) 행복을 빌.

● 출애굽(Exodus) 이집트 탈출 참조.

● 출회(Excommunication)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모임에서 내쫓고 영적인 권리 등을 박탈하는 일. 유대인들은 자기들 모임의 구성원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았다(요9:22; 12:42; 16:2). 출회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잠정적으로 모임과 사회에서 내쫓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고 그들의 특권을 빼앗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출회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인정되었다(마18:15-18; 고전5:1-13; 16:22; 갈5:12; 딤후1:20; 딤후3:10). 유죄로 판명된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고 신자들의 모임에서 끊어졌다. 아나테마 참조.

이러한 출회 조치는 결코 당사자가 하나님의 법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고 또한 사람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교회의 이런 결정은 결코 과거 천주교회에서 했듯이 적개심에 근거해서 저주나 박해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단지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셨고 사도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부터 물러나고 그와 교제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권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언급했다(살후 3:6, 15; 요이10-11; 고전5:1-5; 고후2:5-11).

● 춤(Dancing) 앓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

해 병 고침을 받은 뒤 기뻐하는 대목에(행3:8) 나오는 '기뻐서 뛰놀다'(눅6:23)라는 히브리 표현은 현대식 춤이라기보다 히브리 사람들의 춤추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춤추는 것이 대개 종교적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다(삼상18:6-7). 그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투사를 죽이자 여러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춤추는 일은 또한 가정에 경사가 있을 때에도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종교적으로 춤을 출 때에는 대개 작은북이 의식을 인도했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맞추어 다른 사람들이 스텝을 맞추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흥화의 기적 이후에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인들을 인도하여 노래하고 춤을 춘 것과 다윗이 사람들을 인도한 것을 보기 바란다(출15:20-21; 삼하6:14; 시150:4).

성경에 있는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춤추는 일은 대개 종교적 성격을 띠었으며 즐거운 날에 이루어졌고 남녀 중 한 그룹이 행했으며 야외에서 낮에 이루어졌다. 남녀가 한데 어울려 춤을 춘 일은 없었으며 오락으로 춤을 춘 일도 없었다. 오락과 관련해서는 미갈이 말한 '헛된 자들이 춤추는 것'(삼하6:20)과 욥이 언급하는 '불경건한 가족들이 춤추는 것'(욥21:11)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춘 것(막14:6)을 예외로 들 수 있다.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연회에서 춤추는 것이 여가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였고 그래서 그들은 남녀가 어울려 술을 먹으며 춤을 추었다. 또한 로마와 동방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전문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이 고용되기도 했는데 물론 그들은 대개 좋지 못한 성격을 가진 여자들이었으며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벌어진 춤판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춤 역시 외설스러웠다(사23:16).

● 치리자(Ruler) 왕(삼상25:30; 삼하6:21), 요셉 같은 백성의 통치자(창41:43), 다니엘(단2:48; 5:7), 마울의 지도자(삿9:30; 대하29:20; 느3:9), 고위 상담자(삼하8:18; 20:26), 큰 집의 청지기(마24:45, 47; 눅12:42), 일꾼의 감독(창47:6), 왕의 재산 관리자(대상27:31), 잔치를 주관하는 자(요2:8-9), 회당을 다스리는 자(막5:36) 등이 치리자라 불렸다.

● 치부(Wax rich)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 치욕(Reproach) 조롱, 책망, 수치를 당하는 것(딤후3:7).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후12:10; 행전4:14. 모세는 이집트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다(히11:26).

● 치유(Healing) 병 고침.

● 칙령(Decree) 왕이 내리는 명령.

● 친교(Communion) 친밀한 교제. 교제 참조.

● 친구(Friend)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

는 명예를 얻었다(사41:8; 약2:23).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에게 하듯 모세와 이야기하셨다(출33:11).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일 것이다(삼상18:1-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명예와 복을 주셨다(요15:15). 그분께서는 유다를 가리켜서도 친구라고 하셨지만(마26:50)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동반한 무리를 뜻하며 그것은 우정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와는 다르다(마20:13; 22:12 참조).

● 친족(Kinsman) 남자 친척. 구약에서 친족은 종종 '재산을 무를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스라엘은 궁핍할 때에 자기나 가족 혹은 땅을 팔 수 있었으므로(레25:39-43) 다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족으로서 그들이 무를 사람, 즉 친족 구속자가 필요했다(레25:25). 보아스와 롯의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룻4). 예수님은 인류의 친족 구속자로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히2:11-12, 17).

● 칠(Seven) 처음부터 이 수는 한 주의 날 수를 나타내었으므로 성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 즉 특별히 완전한 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 정결한 짐승은 일곱 마리씩 방주에 들어갔고(창7:1-24) 요셉 당시 이집트의 흉년과 흉년은 각각 7년씩이었다(창41:1-57). 유대인들에게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며 일곱째 해가 안식년이고 7년이 일곱 번 지나면 희년이 되었다. 무교절과 장막절, 즉 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명절의 기간은 각각 이레씩이었고 그들이 바치는 희생 예물의 수도 많은 경우 일곱 마리로 제한되었다. 금 등잔대의 가지도 일곱이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제사장이 여리고의 성벽을 이레 동안 돌았다. 계시록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 일곱 별,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병, 일곱 재앙, 일곱 천사가 나온다. 이같이 7은 십진법에서 10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수라 할 수 있다(마12:45; 삼상2:5; 욥5:19; 잠26:16, 25; 사4:1; 렘15:9). 또한 일곱 번이 일곱 개 있는 것은 완전한 것, 충만한 것 등을 뜻하였다(창4:15, 24; 레26:24; 시12:6; 79:12; 마18:21). 그러므로 일흔 번씩 일곱 번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뜻한다(마18:22).

● 칠십 이레(Seventy weeks) 성경의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대언자 다니엘에게 주어진 '70이레' 혹은 '70주(seventy weeks)'라 불리는 예언이다. "주께서 내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 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금히 기록하신 분에게 기쁨을 부르려 하심이라"(단9:24).

다니엘은 유대 왕국의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천사 가브리엘은 자기가 말한 것이 70년이 아니라 70년이 7개 있는 490년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에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세고 계산한다고 말했다. 칠십 이레 선도 참조(78).

이 490년의 처음 69이레, 즉 483년은(69x7=483) 주전 454년경에 아다스사다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느2:1-8)와 통치자 메시아가 와서 죽을 때, 즉 주후 30년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예는 민14:34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창29:27을 통해 이레가 7년을 뜻함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면서 늘 490년이라는 주기를 이용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여호수아부터 왕국까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포로까지의 기간이 모두 490년이다.

이 사실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태어나셨고 주전 1년 다음이 곧바로 주후 1년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해는 주후 30년이 된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서른세 살 반이었고 바로 그해에 그분께서는 유다의 약속된 통치자, 즉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의해 배척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된 것은 기록된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은 남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였다(단9:26).

이 주목할 만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됨으로써 다니엘이 예언한 490년의 기간 중 처음 483년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기록으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그 483년 후에 남은 마지막 7년은 즉시 연이어서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단9:26-27).

이 예언은 메시아가 끊어진 뒤 수 세기가 흘러간 뒤에 있을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다니엘의 칠십 이레 예언 중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해' -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 아님 - 예비된 마지막 한 이레, 즉 7년을 가리키며 이때는 보통 '7년 환난기'라 불린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회복을 보여 주기 위한 이정표인 다니엘의 칠십 이레 중 앞부분은 이미 성취되었고 나머지 한 이레, 즉 7년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환난기 참조.

● 칠십인역(Septuagint) 내용이 부실하고 히브리 전통 본문과 상이한 점이 많아 신뢰하기 어려운 상상 속의 그리스어 구약 성경. 이것은 보통 예수님 탄생

이전에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누군가가 상상 속에서 꾸며 낸 책이다. 이것의 존재를 믿는 이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공식적인 그리스어 역본을 만들고자 한 계획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 불리는 고문서에 드러나 있다고 주장한다. 그 편지에 따르면 이 그리스어 역본이 유대인들의 공식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대체할 만큼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 번역 작업에 참여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발되었으며 그들은 주전 2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일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편지가 '칠십인역'이라는 불가사의한 문서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그 이유는 주전 250년 혹은 그 전후로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한 그리스어 필사본이 현재 하나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역사의 어디를 보아도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고려했다거나 진행했다는 기록은 전무하다.

이런 전설적인 문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리는 요구를 받은 학자들은 주후 200년경 오리겐이 지은 헥사플라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칠십인역'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때보다 450년이나 지나서 기록되었으며 신약 성경이 완성된 뒤 100년 이상 지나서 기록되었다.

'칠십인역'의 허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오리겐이 육단성경인 헥사플라의 다섯째 난에다 스스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넣지 않고 '칠십인역'을 필사해 넣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만일 그 주장이 옳다면 빈틈없는 유다 학자 72명이 외경들을 - 심지어 그것들이 기록되기도 전에 - 자기들의 작품 속에 참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유대교는 단 한 번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외경, 정경 참조.

만일 유다 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리겐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이러한 위조된 글들을 제멋대로 첨가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헥사플라의 다섯째 난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오리겐의 사역임을 알 수 있다.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유세비우스와 필로가 그리스어 모세 오경을 예로 들면서 이처럼 전설 같은 책의 존재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들마저도 그것을 구약 성경 전체나 혹은 공식적으로 수용된 어떤 역본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오리겐의 헥사플라, 그리고 유세비우스와 필로의 주장 등은 변명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모순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자체에서 발견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편지가 아리스테아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썼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 편지의 저자가 필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말은 그 편지

의 저작 연대가 '기원전'이 아니라 사실은 '기원후'라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편지를 쓰게 된 속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리젠의 핵사플라의 다섯째 난을 '칠십인역'의 복사본으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신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 인용 구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칠십인역'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칠십인역'이란 바로 오리젠의 핵사플라의 다섯째 난을 가리킬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신약 성경의 인용 구절들은 절대로 가상의 '칠십인역' 혹은 오리젠의 핵사플라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모든 방식을 동원해 구약 성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인용하신 것이다.

끝으로 학자들이 '칠십인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저버리면서까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히브리어를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도 수년이 소요될 뿐더러 학문 연구 수단으로 충분히 정통하기까지는 더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한다. 이와 비교할 때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의 공식 역본이 존재했다면 성경 비평자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고충을 겪지 않아도 되고 단번에 성경 비평학 분야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몇 배로 증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마소라 사본과 충돌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오리젠 같은 성경 비평학자들을 높이 세우는 '칠십인역' 같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보존, 알렉산드리아, 마소라 참조.

- 칠칠절(Feast of weeks) 일곱 이레(週)가 지난 뒤 지키는 첫 열매 명절(출34:21). 오순절 참조.
- 침(Spittle) 구약에서 아픈 사람의 침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레15:8) 침을 흘리는 것은 미친 사람의 증세였다(삼상21:13).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경멸의 표시였다(민12:14; 욥30:10).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이 이처럼 경멸당할 것을 예언했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사50:6; 마27:30; 막15:19).
- 침례(Baptism) 침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밥티조', '밥티스마', '밥티스테스' 등이며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밭토'에서 나왔다. 신약 성경에서 115회 사용된 '밭토'는 '물로 뿌리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물속에 담그는 침례'를 의미한다. 침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나 세례를 주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 없다(요3:23). 또한 침례를 받으려면 물이 있는 곳에 가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와야 한다(행8:36). 또한 침례를 받으려면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침례를 받은 후에는 '물속에서'(out of the

water) 나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행8:38-39).

성경은 한결같이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불 침례와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한다. 마3:11-12를 그릇되게 해석하여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이므로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침례사 요한은 이 구절에서 결코 그런 것을 뜻하지 않았다. 문맥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 보면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곳간에,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 침례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침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이 물속에, 성령님 안에, 불 속에 잠기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이다. 그러나 세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일어나는 것, 즉 사망과 매장,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골2:12). 다시 말해 세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 부활이 상징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롬6:3-4). 세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이 옷 입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갈3:27).

어떤 이들은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침례 중생 교리를 믿고 가르치며 특히 유아 세례를 주는 천주교회에서는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 중생을 지지하지 않으며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자기가 다시 태어났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및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인다고 말한다. 즉 믿고 다시 태어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 침례를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행8:12).

천주교에서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 문답서 공부를 위한 학습 기간을 두는 전통을 세웠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례를 준다. 또한 천주교인들은 세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대성사' 중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가 아닐뿐더러 구원 또는 은혜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엡2:8-9). 성경은 이 같은 천주교의 관행과는 달리 누구든지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에

티오피아 내시는 믿음 고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6장의 자루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믿음 즉시 침례를 받았으며(13-14절) 같은 장에 나오는 빌립도 감옥의 간수 역시 믿음 즉시 침례를 받았다(33절).

위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요르단 강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침례를 받았다. 즉 몸을 담글 수 있는 곳이면 강이든 호수든 바다든 침례 탕이든 상관없다. 침례가 교회의 회원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침례를 행할 때에 침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편한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고 침례를 주는 사람은 먼저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을 요청한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침례를 준다. “○○형제님의 믿음 고백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침례받는 사람을 뒤로 눕혀 물속에 잠근 뒤 그를 물속에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이 형제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매장되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 침상(Bed) 잠을 자거나 쉬는 자리. 동방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방의 사방에 넓고도 낮은 ‘지금의 소파와 비슷한 형태의 침상’이 있어서 낮에는 거기서 쉬고 밤에는 잠을 잤다(출8:3; 삼하4:5-7). 어떤 경우에 이 침상은 몇 계단 위로 높은 데 두기도 하였다(왕하1:4; 시132:3). 침상은 그 주인의 위상에 따라 여러 형태의 덮개로 덮었고 장식을 사용했다.



가난한 사람은 간단한 매트와 양가죽 혹은 겉옷이 침상의 전부였는데 특히 후자는 낮에 사람을 감싸는 데 적합했다(출22:27; 신24:1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마9:6; 막2:11).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침대 틀 같은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신3:11; 삼상19:15; 암6:4) 유대인들은 밤에 신발과 겉옷을 벗고 잠을 잤다.

- 칭송(Praise) 공덕을 일컬어 기림.
- 칭의(Justification) 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혹은 하나님의 재관정 앞에서 죄로 인한 결과들에서 벗어나 무죄가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죄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에서 구조되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당사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거룩한 자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죄들의 용서와 형벌의 면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며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로 만드는 칭의 과정에서 사람의 행위는 전혀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만 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스스로 죄들을 짊어지셨으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롬8:1).
-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는 순간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구속자 주님이 무한대로 완전하신 것같이 완전하다. 칭의는 사람이 얼마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혹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칭의와 함께 성화, 즉 거룩함 가운데서 자라는 일이 시작되지만 칭의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화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는 동안 완전 성화를 이루어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화 참조. 주님께서 주시는 칭의의 선물은 거룩한 삶을 사는 축진제가 되며 이 일과 함께 양자 삼심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생긴다(롬3:20-31; 5:1-21; 8:1-4; 10:4-10; 갈 2:16-21; 엡2:4-10).

(ㄱ)

- 카멜레온(Chameleon) 뱀목 카멜레온과에 속하는 도마뱀류. 이것은 크기가 3-70센티미터이고 숲 또는 산지의 나무 위에 서식한다. 이 짐승은 빛의 강약과 온도, 감정 변화 등에 따라 몸 빛깔을 자유롭게 바꾸고 긴 혀로 먹이를 잡아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레11:30).
- 카스토르(Castor, 캐스토어) 주피터의 쌍둥이 아들. 이교도들의 신화에 따르면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뱃사람들의 수호신이었으며 그래서 배에는 그들의 형상이 걸려 있던 했다(행28:11).
- 카이사르(Caesar, 췌이저) 원래 로마의 율리우스 가문의 성. 그러나 후에 이 명칭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시저)에 의해 왕위에 오른 그의 가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 명칭의 마지막 대장자는 네로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것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호칭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황제들로 아우구스투스(눅2:1), 티베리우스(눅3:1; 20:22), 클라우디우스(행11:28), 네로(행25:8; 빌4:22)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티베리우스를 이은 칼리굴라는 언급되지 않았다.

●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Claudius Caesar, 클러디어스 씨이저) 주후 41년에 칼리굴라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 그가 통치한 지 13년 뒤에 네로가 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립바에게 유대를 다스릴 권한을 주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주후 45년경에 유대는 다시 로마의 한 지방이 되었다. 이때에 아가보 대언자가 예언한 기근이 생겼고(행11:28) 클라우디우스는 자신의 통치 제9년에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다(행18:2). 그는 자기의 아내이자 조카인 아그리피나에 의해 독살되었다.

● 카톨릭(Catholic) 그리스어로 이것은 '온 우주의, 일반적인'을 뜻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원래 '카톨릭'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세상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 말을 빼앗아 자기들의 교회만이 '진정한 카톨릭교회'라고 주장한다. 신약 성경에는 일곱 개의 일반 서신이 들어 있는데 이것들 역시 원래는 '카톨릭' 서신이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지역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서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가 있다. 서신 참조.

● 코(Nose) 고대 동방의 여인들은 코의 연골이나 왼쪽 콧구멍에 장식품으로 고리를 걸곤 하였으며(잠11:22; 겔16:12) 짐승의 코에도 고리를 넣어 부리기에 편하게 하였고 니느웨 사람들은 포로에게도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왕하19:28; 겔38:4). 콧구멍은 생명과 사망을 다 뜻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콧구멍을 통해 들어갔다(창2:7). 홍수 때에는 콧구멍에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창7:22). 성경은 종종 화를 내는 것을 코와 연관 지어 표현하며(욥39:20; 시18:8)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사악한 자를 향한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뜻한다(삼하22:9). "내가 내 갈고리를 네 코에 넣는다."(왕하19:28; 욥41:2; 사37:29)는 말은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데서 나온 말로 비천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그들이 네 코와 귀를 가져간다."(겔23:25)는 말은 코나 귀를 자르는 것 혹은 몸을 절단하는 것 등을 뜻한다.

● 콩팥(Kidney) 여러 회생 제사에서 회생 예물의 콩팥과 그 주위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태워졌다(레3:4; 4:9; 7:4). 콩팥은 종종 사람을 뜻하며 이때는 언제나 상징적으로 사람의 마음(시16:7; 렘12:2), 내적 존재(욥17:3; 잠23:16)를 뜻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콩팥과 심장'(reins and hearts)을 조사하신다는 말은 그분께서 사람의 속생각과 동기를 아신다는 뜻이다(시7:9; 26:2; 렘11:20; 계2:23). 이런 경우 콩

팥은 속 중심으로, 심장은 마음으로 번역되었다.

● 큐빗(Cubit)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척도. 본래 큐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까지의 길이로서 대략 사람의 키의 사분의 일 정도였다. 히브리 큐빗은 대개 45센티미터로 알려져 있으나 53센티미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크니두스(Cnidus, 나이더스) 소아시아의 남서부에 있는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마을. 바울은 이곳을 거쳐 로마로 갔다(행27:7).

● 크레타(Crete, 크리트) 지중해의 큰 섬. 에게해로도 참조(41). 처음에 갑도립의 후예들이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바다로 둘러싸였으므로 여기 거주민들은 배를 잘 탔고 모든 해안에 배를 댈 수 있었다.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 유명해서 속담에까지 오를 정도였다(딤후1:12-13).

성경에서 크레타는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과 관련하여 처음 언급되었다(행27:1-44). 배는 살모네 맞은편을 지나 크레타 아래쪽으로 항해하고 그 뒤에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 뒤 그들은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크레타의 서쪽에 있는 베니게로 떠났으나 유로클루돈이라는 강풍을 만나 결국 멜리테, 즉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처음으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 소아시아를 방문하면서 크레타도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딤후전1:3; 몬22) 여기서 교회를 설립하고 디도를 목사로 두고 간 것 같다(딤후1:5).

● 클레멘트(Clement, 클레먼트)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빌4:3).

● 키(Rudder) 배의 뒤에 달려서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기구(행27:40; 약3:4).

● 키(Winnow) 곡식 따위를 가ふる 고르는 기구.

● 키프로스(Cyprus, 싸이프러스) 지중해의 큰 섬. 이 섬은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 바다의 북동쪽에 위치했으며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0, 8-80킬로미터이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각종 사치와 방탕에 빠졌고 비너스를 섬겼으며 바보에는 이 여신을 위한 대규모 신전이 있었다. 이 섬은 아주 비옥했으며 포도즙, 기름, 꿀, 나무, 구리, 수정 등이 많이 났고 또 여기에는 삼나무가 많았다. 섬의 도시들 중에는 서해안의 바보와 동해안의 살라미가 신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 초기에 복음이 이곳에 선포되었고(행11:19) 바나바와 트나손과 다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키프로스 출신이었다(행11:20; 21:16). 주후 44년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을 지나며 선교 여행을 했다(행13:4-13; 참조 행15:39; 27:4).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 참조(42).

●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1611년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의 후원으로 출판된 영역 성경으로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라 '킹제임스 성경'이라고도 하고 큰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권위역 성경'이라고도 하며 국내에서는 중국말의 영향으로 '왕

이 친히 제정한 성경이라는 의미의 흠정역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본의 권위와 문체의 수려함 등의 측면에서 다른 모든 역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수성을 드러내었다. (a) 부흥과 영혼 구원 :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선교하고 전도함으로써 구원받게 된 영혼들과 선교 사역의 양은 그 외의 다른 어떤 성경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많다. (b) 물질적 번영 : 영국, 독일, 미국의 역사는 '종교 개혁 본문'을 귀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적 복의 역사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게 될 때 재단이 닦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한 새로운 역본들의 근거가 된 '소수 사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개 한 영혼도 구원으로부터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또 그들의 대부분은 참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그들은 이미 1611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 등을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로마 카톨릭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성경의 보존 선도 참조(91).

로마 카톨릭교회의 열매들은 이미 교회 역사가들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며 카톨릭교회는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올바른 본문으로 받아들이는 적이 없다. 그들은 부패된 계통의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와 이집트 계열의 사본들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성경 본문, 사본 참조.

(E)

- 타국인(Stranger) 이 말은 대개 다른 나라 사람, 즉 외국인을 가리킨다(창23:4). 모세의 율법은 외국인 거주자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레 19:33-34; 신10:18-19; 24:17; 27:19). 그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했으며(출20:10; 레16:29)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 특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민9:14; 15:14). 다윗이 성전을 돕는 일에 쓰려고 모든 타국인들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였을 것이다(대상22:2; 왕상9:20-21). 여행하는 사람이나 타국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좋은 시민의 의무였다(욥31:32; 히13:2).

- 타 언어(Tongues) 성경에 나오는 모든 타 언어(방언)는 그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실제 언어였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는 실제 타 언어로 말한 예가 나와 있다. 여기서 타 언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글로싸'이며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입 안에 있는 혀, 사람이 구사한 언어, 특별한 지역의 사투리, 즉 방언 등을 뜻한다. '글로싸'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그것이 모두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타 언어와 관련된 첫째 사건은 행2:4-11의 오순절 사건이며 4-8절은 성령님을 기다린 유대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 사건

은 사도행전의 나머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에게 미리 알려 준다. 둘째 사건은 행10:44-48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이다. 이때 일어난 기적도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한 타 언어였으며 특별히 이때에는 성령님의 그 선물이 이방인들 위에도 임하였다(45절).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오순절 사건과 그것을 비교했다(행11:15-17). 베드로는 여기서 가장 먼저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10여 년 전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것, 즉 타 언어를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고 결론지었다. 셋째 사건은 행19:1-7에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기적도 타 언어였으며 그들의 말 역시 사람의 언어였다.

한편 고린도전서 12-14장에도 타 언어가 나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여기의 타 언어는 사도행전의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의 타 언어도 사람의 언어임을 보여 준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바울과 누가는 가까운 동역자요 친구 사이였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때 그와 동행했으므로 두 사람은 틀림없이 서로의 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사도행전이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나오며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은 고린도전서보다 5-6년 늦게 기록되었다.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거기에 바울이 이미 사용한 '타 언어'란 말을 사용했을 때는 틀림없이 동일한 선물을 가리켰다고 볼 수 있다. 누가의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타 언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으므로 누가는 그 선물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바울은 굳이 타 언어의 본질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독자들이 이미 그 선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울과 누가가 동역자라는 점, 바울의 기록이 앞선다는 점, 누가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언어'를 구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묘사할 때 바울이 쓴 것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등은 고린도전서의 타 언어가 사람의 언어임을 확실히 보여 준다. 또한 고전14:7-11의 분명한 소리는 고전14:21-22를 볼 때 사람의 언어임을 확실하다.

타 언어의 선물(은사)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학습 과정 없이도 구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타 언어를 '알지 못하는 타 언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현재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방언은 사람의 언어가 가지는 논리적 구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것이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물이 아니다.

사도행전은 타 언어의 근본 목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 선물은 또한 고넬료와 그의 집안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타 언어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였다(고전14:22).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타 언어가 주어진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어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마도 신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만큼 유대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교회는 없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시작했고(행18:1-8) 유대인 회당의 처리가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었으며 그의 뒤를 이은 소스테네 역시 구원을 받았다(행18:17; 고전1:1).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 바로 옆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부담을 안고 태어났고 모임이 회당 옆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고린도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주목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조치로 타 언어의 선물,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작용할 선물을 이 교회에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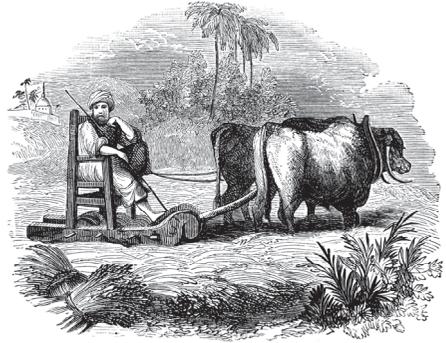
물론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타 언어로 말하지는 않았지만(고전12:29-30) 성령 침례는 공통적으로 받았다(고전12:13). 그러므로 타 언어(방언)를 말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참조.

타 언어의 선물은 병 고침의 선물, 기적의 선물, 사도, 대언자 등이 사라지면서 성경의 완성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으며(고전13:8) 그래서 고전13:9 이후에는 타 언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고전14:21-22는 타 언어의 종결 시기를 알려 준다.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고 이사야서의 인용 말씀은 외국어의 표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주후 70년에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부으셔서 로마 군대를 시켜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하였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타 언어(방언)는 주후 70년경에 목적을 다 이루고 그쳤으며 그 이후로는 정통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목사나 집사의 자격에도 타 언어의 구사가 들어 있지 않다(딤후3; 딤후1).

끝으로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전14:39)는 말씀은 그 당시 타 언어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효했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올바르게 사용되는 타 언어 선물이 다 금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타 언어는 완전히 그친 상태이다. 한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셨으나(마10:5-6)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세대)이 바뀌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마찬

가지로 타 언어도 경륜(세대)이 바뀌어서 이방인들의 교회와 무관하게 되었다. 선물, 병 고침, 기적 참조.

● 타작(Threshing) 동방에서는 도리개로 타작하거나(룻2:17; 사28:27) 임마개를 씌우지 않은 소가 밟아서 타작을 하게 하거나(신25:4) 소와 타작하는 기구를 써서 타작하였다. 그들은 타작 기구를 써서 알곡과 짚을 분리한 뒤 알곡더미를 바람에 날려 겨를 제거하였으며(왕하13:7) 그래서 야외에 타작마당이 필요하였고(삿6:37) 바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리아 산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높은 곳에 타작마당을 두었다(대상21:15; 렘4:11-12). 그들은 이렇게 알곡을 모은 뒤 짚과 겨, 즉 껍데기는 모아서 불 속에 넣었다. 껍데기와 관련이 있는 마3:12의 불 침례는 성령님으로 뜨겁게 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불 심판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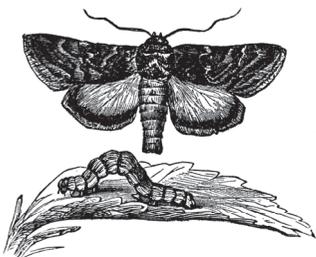


● 타조(Ostrich) 가장 큰 새 중 하나. 이것은 아프리카와 서부 아시아가 원산지이고 회색 타조는 키가 2.1미터, 목이 거의 1미터나 되며 무게가 40킬로그램 정도 되고 두 사람을 태울 정도로 강인하다. 검은색 타조는 키가 3미터나 되기도 한다. 타조의 몸의 구조는 날기보다 달리기에 더 적합하다. 타조는 욥39:13-18에 묘사되어 있다. 타조는 사막의 식물이나 아주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지저분한 것도 잘 먹는다. 욥은 특히 타조가 달리기를 잘하며 그래서 말과 말에 탄 자를 비웃는다고 말한다. 타조는 모래에 원형 집을 짓고 여러 개의 알을 낳는다. 그런데 어미 타조는 알을 품다가도 무언가 이상한 것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특성은 예4:3에서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 탐심(Covetousness)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고자 하는 심한 욕망.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것을 엄하게 금한다(출20:17; 신5:21). 탐심 혹은 탐욕은 자기중심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며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경고한다(수7:21; 롬7:7; 뱀후2:10). 엘리아의 중 개하시(왕하5:20-27), 가롯 유다(마26:14-15), 어리석은 부자(눅12:13-21), 부자 관원(눅18:18-25), 아나니아와 삽비라(행5:1-11) 등이

탐심과 그로 인한 결과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였다(골3:5).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갈6:7-9; 살후3:6-15). 주님께서는 탐심과 가치 없는 일에 빠지는 자들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경고해 주셨다(눅12:15).

- 탕진(Spend all) 재물 따위를 다 써서 없앴.
- 터(Foundation) 기초 참조.
- 털벌레(Palmer-Worm) 욥1:4; 2:25; 암4:9에 나오는 이 곤충은 메뚜기가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기까지의 한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날개를 갖기도 전에 많은 것을 먹어 치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 텔아비브(Telabib, 텔에이빔) 메소포타미아의 그랄 강가의 장소. 유대인 포로들이 여기에 모여 살았다(겔3:15).
- 토기장이(Potter)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창24:14-15; 삿7:16, 19; 시2:9). 이집트 사람들은 물레를 돌려서 질그릇의 몸통을 만들고 손잡이를 붙인 뒤 그늘에서 말리고 화로에 넣어서 완전히 구웠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빚는 것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렘18:1-6과 롬9:20-21 등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천국으로,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예정하시는 것을 가르

치지 않는다. 여기서 대언자와 사도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여 선민으로 만드신 것을 보여 준다. 중요한 것은 선민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예정 참조.

- 트레마이(Ptolemais, 탈로메이아스) 악고 참조.
- 퉁(Firkin)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바스와 같은 부피 단위로 생각된다(요2:6). 바스 참조.
- 통치(Dominion) 천상의 영적 존재들의 한 등급(엡1:21 등).
- 통치자(Princes) 지도자 혹은 치리자. 통치자는 지도력과 권위를 가진 존재이다. 아브라함(창23:6)과 솔로몬(왕상11:34)은 통치자였으며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종종 통치자로 불렸다. 대언자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을 평화의 통치자라 불렀다(사9:6).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이시며 반면에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다(요12:31; 14:30; 16:11). 한편 고대 왕국들에는 그것들을 담당할 영적인 통치자가 있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즉 영적 존재)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았으나 천사장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왔다(단10:13).
- 통회(Contrite) 몹시 뉘우침(시51:17). 회개 참조.

- 투사(Champion) 싸움터나 경기장에서 싸우거나 싸우려고 나선 사람을 뜻하고 성경에서는 블레셋의 골리앗에게만 쓰였다(삼상17:4).
- 트랜스요르단(Trans Jordan) 팔레스타인의 요르단 강 동쪽 지역.
- 틀(Press) 이것은 주로 포도즙을 짜는 틀을 의미하며 어떤 때는 포도즙과 포도와 과수원의 열매를 받아 두는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보통 이것은 땅을 파서 만들었으며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들의 포도원에서 땅을 파서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마21:33; 잠3:10; 욥3:13; 학2:16 참조). 포도즙 참조.



● 티베리우스(Tiberius, 타이비리우스) 로마의 2대 황제. 그는 주후 14년에 왕좌에 올랐으며 악과 범죄 등으로 유명하게 되었고 주후 37년에 죽었다. 그의 통치 제15년에 침례사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3-4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눅3:1). 눅20:22-25; 23:2; 요19:12 등에 나오는 카이사르는 이 사람을 말한다.

● 티쉬리(Tishri, 티쉬리) 유대인들의 민간력의 1월, 종교력의 7월. 왕상8:2에서 이것은 에다님 월로 나오며 지금의 10월경이다. 티쉬리 월 1일에 나팔절, 10일에 속죄일, 15일에 장막절이 있었다. 달 참조.

(㉞)

● 파라오(Pharaoh, 페로오, 큰 집) 이것은 이집트 말로 왕을 가리키며 이 말이 나오는 구절은 이 사실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파라오호브라는 호브라 왕이다. 성경에는 12-13명의 파라오가 나오며 그중 네 명을 제외하고는 다 파라오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 한편 두 명은 이 호칭 외에도 느고와 호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은 그들의 명단이다.

1. 파라오(창12:15), 아브라함 당시의 파라오.
2. 파라오, 요셉의 주인(창37:36; 39:1-23; 행7:10, 13).
3. 파라오,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통치 때에 모세가 출생하였다(출1:8; 행7:18; 히11:23).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할 때에 어떤 다른 파라오가 있었을 것이다(출2:11-23; 4:19; 행7:23).
4.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의 통치 때에 이집트를 떠났는데 그는 홍해에서 죽었다(출5-14; 왕하17:7; 느9:10; 시135:9; 136:15; 롬9:17; 히11:27).
5. 파라오, 다윗 당시의 왕(왕상11:18-22).
6. 파라오, 솔로몬의 장인(왕상3:1; 7:8; 9:16, 24).
7. 시삭,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와 르호보암의 통치 때의 왕(왕상11:40; 14:25; 대하12:2). 이후부터는 이집트 왕들의 이름이 언급된다. 시삭 참조.
8. 세라, 아사 왕 당시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왕. 세라 참조.
9. 소, 아하스 당시의 왕(왕하17:4). 소 참조.
10. 디르하가, 히스기야 시대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왕(왕하19:9; 사37:9). 디르하가 참조.
11. 파라오느고, 요시아 당시의 왕(왕하23:29-30; 대하35:20-24). 파라오느고 참조.
12. 파라오호브라, 느부갓네살과 동시대 인물. 그는 느고의 손자였으며 시드기야는 그와 연합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대적하였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몰아내고 두로와 시돈을 취하며 많은 노략물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듯하다(렘37:1-5; 47:1; 겔29-32). 그는 25년 동안 통치하였고 에레미야가 대언한 대로 고레스를 치기 위해 원정을 갔다가 실패하고 왕위에서 물러났다(렘44:30).
- 파라오느고(Pharaoh-Necho, 페로오니코) 이집트의 왕. 유다의 요시아 왕은 바빌론 왕에게 조공을

바쳤으므로 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치려고 원정을 올 때에 느고에게 대항하였다. 요시아는 므깃도에서 싸움을 하다가 상처를 입어 죽었으며 이때에 느고는 유대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 지나갔다. 그는 유프라테스에서 갈그미스를 빼앗고 그곳을 강화한 뒤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면서 시리아의 리블라에 잠시 머물렀으며 유다의 여호야하스 왕을 폐위하고 사슬로 묶어 이집트로 보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엘리아김, 즉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렘46:2는 바빌론의 나보폴라사르 왕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통치 제4년에 갈그미스를 다시 빼앗은 것을 보여 준다. 그 이후로 느고는 자기가 정복한 시리아를 4년 이상 차지하지 못하였다(왕하23:29-37; 24:1-7; 대하35:20-27; 36:1-6). 파라오 참조.

- 파라오의 딸(Pharaoh's daughter) I. 모세의 양 어머니(출2:5-10; 행7:20).
- II. 비디아, 메렛의 아내(대상4:18).
- III. 솔로몬의 아내(왕상3:1; 7:8; 대하8:11). 이 여인은 구별된 존재로 존귀를 받았으나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추정됨.



- 파르티아(Parthia, 파르씨아) 파르티아(바대)는 메데(페르시아)의 동부에 있던 한 지방으로 추정되며 이곳 사람들은 싸움과 말 타는 일에 능숙한 것으로 유명하다.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다(행2:9).
- 파리(Fly) 파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모세는 파리를 포함한 여러 곤충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다(레11:42). 특히 이집트에는 파리가 많아서 때를 지어 집요하게 사람들의 눈을 공격하곤 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은 파리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경배했으며 이 신이 파리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사7:18에서 대언자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군대를 묘사하면서 그 지역에 가장 많은 곤충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날에 주께서 쉯소리를 내사 이집트 강을 맨 끝 지역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 파발꾼(Posts) 동방에서 특별한 때에 소식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특사. 그들은 급히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말이나 낙타를 타고 다녔으며(에8:10-14)

그래서 읊은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간다.” 라고 말하였다(욥9:25). 파수꾼 중에는 직접 달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삼하18:22-27),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먼 거리라도 말처럼 빨리 갈 수 있었다.

● 파수꾼(Watchmen) 파수꾼은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다(삿7:19). 예루살렘을 비롯한 고대 도시들에는 밤낮으로 망을 보는 파수꾼이 있었다(아3:1-3; 5:7). 주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이 파수꾼처럼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원하신다(사 21:8, 11-12; 62:6). 그들은 밤이나 또는 위기가 닥칠 때에 조용히 하지 않고 몇 분마다 서로를 불렀으며 그러면 그들의 외침이 성벽을 따라 곧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성문과 그 근처 망대와 도시의 높은 지역에는 항상 파수꾼이 있어서(삼하18:24-27; 왕하9:17) 눈으로 일을 살펴보고 경로나 격려의 외침을 내었다(사52:7-8). 여러 대언자들은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잘 묘사하였다(렘6:17; 겔33:1-9; 히13:17).

● 판낙(Pannag) 겔27:17에 나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두로 사람들에게 판 상품으로 과자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판단의 규범(Judgments)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의 기준. 법도 참조.

● 판단하다(Judge) 마7:1-2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고전5:12; 6:2; 롬14:13은 모든 일을 판단하라고 해서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성경의 문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마태복음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곧바로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다. 여기서 주님은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신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영적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말한다. 즉 우리가 사람의 의견이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뒤 문맥은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판단하면 실수를 범할 수 없다. 판단할 필요가 없을 때에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며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지혜롭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받기 때문이다(고전3:10-16).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정죄하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면 우리는 항상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는 틀릴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불법과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결코 주님의 재가하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할 때에는 공의롭게 판단해야 한다.

● 팔(Arm) 이 말은 종종 하나님의 힘과 권능의 상징으로 쓰였다(시89:13; 사53:1). 특별히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실 때 그분의 팔이 늘 언급된다(시77:15; 사63:12). 사실 영어 arm은

무기로도 번역된다.

● 팔레스타인(Palestine, 팔리스타인) 구약에서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뜻하였고 이곳은 약속의 땅에서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시므온과 유다와 단의 경계와 겹쳤다(출15:14; 사14:29-31; 욥3:4). 물론 후대에는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 전체와 요르단 강 이편을 가리키기도 하였고 그래서 유대와 팔레스타인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였다.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 참조.

● 팔찌(Bracelet) 주로 여인들이 팔목이나 팔에 찬 장식물. 남자들도 고귀한 신분 등을 보여 주기 위해 팔찌를 차기도 하였는데(삼하1:10) 팔찌는 여러 물질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대개 크기가 커서 굵어치가 있었다(창24:22).

● 팔(Lentile)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창25:34; 삼하17:28; 23:11 참조).

● 페니키아(Phoenicia, 피니시아, 자주색) 넓은 의미에서 페니키아는 안디옥에서부터 이집트의 경계에 이르는 지중해 동쪽 해변의 긴 지역을 가리키지만 원래의 페니키아는 주로 두로와 시돈의 영토를 말한다. 페니키아 지도 참조(29).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전에 이 지역에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 살았으며 그들은 열한 가족으로 나뉘었는데 그중 가장 힘센 가족은 가나안 가족이었다. 바로 그들이 시돈을 세웠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나안 족속이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을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여호수아와 사울과 다윗과 그 이후의 왕들의 시대에 그들만이 독립을 유지하였으나 후에 그들은 아시리아와 갈대아에 의해 정복되고 그 뒤에 다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부유하고 문화가 발전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 그들은 상업 도시들의 연합체를 구성하였는데 이 도시들은 각각의 영토와 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무역을 발전시켰으며 그래서 여러 지방의 산물이 그들의 시장에서 교환되었다(겔27:1-36). 초기 로마의 경쟁국이던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으며 다시스도 마찬가지로 지었다(겔38:13). 그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과 거의 비슷하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배를 만드는 일에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두로 참조. 그들의 영토는 해안과 레바논 산의 정상 사이에 있었으며 비옥하여 여러 가지 농작물을 많이 내었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였다.

페니키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없으며 단지 가나안으로만 언급된다. 한편 신약 성경은 가나안 여인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 말하는데(마 15:22; 막7:26) 이는 곧 시리아의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가 시리아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수로보니게 참조.

● 페레아(Perea, 건너편 땅) 요르단 강 동쪽의

땅. 이곳은 현대어로 요르단 너머의 땅을 뜻하는 트랜스요르단이다. 페레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으며 다만 요르단 너머라는 표현으로만 언급된다(마4:25; 막3:8). 이곳은 압복 강과 아르논 강 사이의 지역이며 사도행전의 베레아(Berea)와는 다른 곳이다. 신약 시대의 땅 지도 참조(39).

● 페르시아(Persia, 퍼르지아) 북쪽으로는 고대의 메대, 남쪽으로는 페르시아 만까지를 포함하는 광대한 아시아 제국(겔27:10). 페르시아 제국 지도 참조(36). 고레스 이후에 유명하게 된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전에 엘람 사람이라 불렀고 로마 시대에는 바대 사람이라 불렸다. 바대 참조. 그들은 셈의 아들 중 하나인 엘람의 후손들이며(창10:22)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의해 정복되어 그곳의 한 지방이 될 때까지는 독립국을 유지하였다. 고레스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권을 계승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한 민족, 한 종교, 한 언어의 두 나라를 연합한 것이었다. 메대 참조. 고레스 밑에서 둘이 연합되기 전에 다니엘 대언자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이 동일하다고 말하였다. 고레스의 통치 때에 유대인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도시와 성전을 지었으며(스1:2) 그의 영토는 지중해에서 인도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 뒤에는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다스나스 등이 있었고(스4:7; 5:6; 느2:1) 마지막으 코도마누스 황제는 주전 330년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다섯 가지 세상 왕국 선도 참조(76).

● 펜(Pen) 고대 사람들은 경화시킨 쇠로 펜을 만들었고(렘17:1) 단단한 물체에 기록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로 뾰족하게 펜 끝을 다듬기도 하였다. 밀랍판에 기록하는 경우 펜의 한쪽은 넓고 부드럽게 되어 실수들을 쉽게 지울 수 있었다. 두루마리 등의 재질에는 갈대 펜이나 가는 털 펜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삿5:14; 욥19:24; 사8:1; 렘36:23; 요삼13).

● 펠리컨(Pelican) 황새목 사다새과의 조류. 이 새의 몸길이는 150센티미터 정도이고 어미 새의 몸빛깔은 흰색이며 첫째 날개깃은 검정색이고 어린 새는 온몸이 갈색이다. 이것의 부리는 크고 아랫부리에 신축성이 있는 큰 주머니가 달려 있다. 이것은 부정한 새 중 하나로 여겨졌다(레11:18).

● 편지(Letters)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편지를 잘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편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삼하11:14; 스4:8). 편지는 대개 친구나 여행하는 사람들 혹은 왕의 파발꾼이 가져다주었고(대하30:6; 예8:10; 렘29:1-3) 대부분의 편지는 두루마리 형태였으며 마지막 페이지를 폴로 붙여서 봉했고(왕상21:8) 그래서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경멸의 표시였다(느6:5). 신약

성경에는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들, 즉 서신서들이 있다. 서신 참조.

● 폐병(Consumption) 이 말은 한때 주로 폐결핵을 의미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소모성질환을 일컫는다(레26:16; 신28:22).

● 폐하다(Break) 오랫동안 있어 온 풍습, 제도, 법규, 기관 따위를 없애 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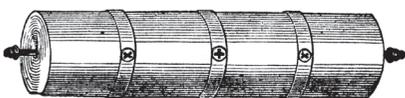
● 포대기(Swaddling band) 갓난아이를 감싸기 위한 사각형의 천(욥38:9; 겔16:4; 눅2:7, 12). 사람들은 아기를 보통 포대기에 대각선으로 놓고 머리와 다리 부분의 포대기를 접어서 미라 형태로 만든 뒤 끈으로 묶었다.

● 포도(Grapes) 팔레스타인의 포도는 맛이 좋고 컸다(민13:24). 포도는 있는 그대로 여러 용도로 쓰였고 햇볕에 말려서 저장되기도 했으며 부대에 담아 포도즙으로 저장하여 일 년 내내 즐거운 용도로 쓰기도 했다(민6:4). 모세의 율법은 포도를 심은 뒤 첫 3년 동안에는 포도를 따지 못하게 했고(레19:23) 또한 거두어들일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를 남겨 두게 했으며(레19:10, 23) 남의 포도원을 지날 때에 조금은 따서 먹을 수 있으나 가지고 가지는 못하게 하였다(신23:24).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참으로 인간적이었음을 볼 수 있다. 포도가 없는 포도원은 종종 황폐의 상징이었다(사17:6; 24:13; 욥5). 포도즙 참조.

● 포도나무(Vine)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포도나무가 많았으며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포도나무가 언급된다(창9:20; 14:18; 19:32; 욥1:18; 신8:8). 성경은 또한 십마와 에스골의 포도나무를 극찬한다. 이집트의 포도(창40:11)는 작았으므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큰 포도를 처음 본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매우 놀랐다(민13:23). 족장 야곱은 죽으면서 유다의 땅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창49:11).

모세의 율법은 포도나무를 심고 5년이 지나서 열매를 먹을 것과(레19:23-25) 안식년에 포도를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명한다(출23:11; 레25:4-5, 11; 19:10; 신24:21). 또 여행자는 언제든지 포도원에 들어가 먹되 가지고 가지는 말 것을 요구하고(신23:24) 4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포도나무 열매를 얻게 된 사람은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의무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였다(신20:6).

유대인들은 대개 작은 산의 비탈에 돌을 주워 내고 가시나무 등으로 울타리를 만든 뒤 포도원을 만들었다(렘31:5; 사5:1-6; 시80:1-19; 마21:33). 또 포도원을 세 주는 일도 있었는데(마21:33) 좋은 포도원은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서 1,000세겔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사7:23).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은 아주 흔하였으므로 여러 예화나 비유에 등장한다(삿9:12; 마20:1; 21:28). 나봇의 포도원(왕상21:1-29)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소유를 무자비하게 빼앗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이 되었다. 포도가 익을 때에 쓰다가 후에 버려진 포도원 땅에는 황폐함의 상징이었다(시80:12-13; 아2:15; 사1:8). 시편 80편의 포도원 풍유는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보여 준다.

팔레스타인에서 포도 수확은 밀 수확과 타작이 끝난 뒤에 이루어졌다(레26:5; 암9:13). 처음 익은 포도는 6월 이후에 거두어졌으며(민13:20) 그 뒤로 약 4개월 동안 포도 수확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도는 9월경에 거두어진 뒤(렘6:9) 포도즙 틀에서 눌러 즙이 되었다(계14:18-20). 땅에 판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는 일은 큰 노동이었지만 사람들은 기뻐서 노래를 부르며 이 일을 하였다(렘25:30; 48:33). 주님께서서는 제립하시면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홀로 밟으심으로 자신의 원수들을 처벌하실 것이다(사63:1-3; 계19:15). 포도 수확 시기는 회락의 때요(사16:9-10) 또 종종 우상을 숭배하는 때였다(삿9:27).

히브리 사람들은 포도를 말려 건포도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아버가일은 다윗을 위해 건포도 100송이를 예비하였고(삼상25:18) 시바도 다윗을 만나서 같은 양의 건포도를 주었다(삼상30:12; 삼하16:1; 대상12:40). 포도즙 참조.

주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실을 들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하나 됨을 보여 주셨다(요15:1-8).

- 포도원(Vineyard) 포도나무 참조.

- 포도주(Wine) 성경은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를 직간접적으로 정죄하며 술로 인한 재난과 피해를 자주 언급한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될 때에 죄와 수치의 상징으로 쓰였고 그 이후에도 포도주로 인한 나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였다(창9:20; 19:31-36; 삼상25:36-37; 삼하13:28; 왕상20:12-21; 예1:10-11; 단5:23; 계17:2). 포도주 혹은 술은 사람을 속이며 조롱하게 하는 것이며(잠20:1) 재난을 불러오고(잠23:29-35) 슬픔을 가져오며(사5:22) 실수하게 하고(사28:1-7)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한다(사5:11-12; 56:12; 호4:11).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레10:9; 민6:3) 그리하는 것은 사악한 자의 특성으로 나와 있고(욘3:3; 암6:6) 술 취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도 여러 차례 들어 있으며(삼상1:14; 잠23:31; 31:4-5; 딤펢전3:3)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로 되어 있다(합2:15). 한마디로 성경은 금주를 명하며 다니엘과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렘35:14; 단1:8).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원리를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그대로 피력하고 있다(롬14:21; 고전13:3). 포도즙 참조.

- 포도즙(Wine) 팔레스타인과 동방 땅에는 포도나무가 많았으므로 자연히 포도즙이 여러 용도의 음료로 쓰였다(에1:7; 5:6; 단5:1-4; 요2:3). 가나안 땅에서 포도가 주산물이었으므로 포도즙은 음료 원물

로도 쓰였고(출29:40; 민15:4-10) 첫 열매에도 포함되었으며(신18:4) 유월절과 주의 만찬에도 쓰였다(마26:27-29). 그래서 곡식과 기름과 함께 포도즙은 주식으로 이용되었다(사4:7; 호2:8; 출2:19).

영어 성경에서 wine으로 번역된 말은 10여 개의 히브리어와 2개의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히브리어 ‘야인’과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오이노스’는 모든 종류의 wine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다(느5:18).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에서 wine은 동형이의어(homograph)로 ‘포도즙 틀에서 갓 짜내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시간이 지나 발효된 포도주’의미를 다 포함하므로 용례별로 구분하여 번역하여야 하되 특별히 성경이 분명히 술을 금한다는 사실과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벨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런 인물이 성도에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술을 준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또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과 속성을 고려할 때 결코 맞지 않는다. 주의 만찬 등에 쓰이는 wine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히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wine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즉 ‘누룩이 들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스’여야 한다. 포도주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포도즙이 발효된 것이므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무리들은 이런 이유로 주의 만찬에서 오직 포도주스만을 사용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은 몇몇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통을 따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실로 성경은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음료가 ‘포도 열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마26:29; 막14:25; 눅22:18).

포도를 짜서 주스를 만드는 틀은 winepress인데 이 경우도 포도주 틀이라 하면 맞지 않고 포도즙 틀이라 해야 한다. 포도를 짜면 당연히 포도즙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계14:19).

옛날에는 포도즙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포도즙을 끓여 짤감이 만들었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를 물에 풀어서 사용하곤 했다.

- 포로(Captives) 전쟁에서 사로잡힌 사람. 고대 사람들은 마땅히 포로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마음대로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으며 그래서 그들의 목을 밟기도 했는대(수10:24) 이것은 철저한 복종을 의미했고 시110:1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기도 했으며 삼손과 아도니벡처럼 몸의 일부가 잘리거

나 상하기도 했다. 그들은 대개 옷이 벗겨진 채 무리를 지어 쫓겨 갔으며 승리자들은 포로들 중에 많은 이들을 자로 재어 죽였는데(삼하8:2; 대하25:12) 이런 일은 고대 사회에서 종종 잔인하게 이루어졌다(삼하12:31; 대상20:3). 로마 사람들은 살아 있는 포로를 죽은 시체에 묶어서 함께 썩도록 했는데 이런 예를 알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라?”(롬7:24)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포로로 잡혀감(Captivity) 하나님은 종종 유대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포로로 혹은 노예로 잡혀가게 하셨지만(신28:1-68)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집트 탈출 이후에 그들은 재판관들의 사대를 거치면서 여섯 번 포로 생활 혹은 압제를 당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힘든 포로 생활은 왕정이 시작된 후에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주전 740년경에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는데(왕하15:29) 요르단 동쪽의 지파들과 스블론과 납달리의 일부가 가장 먼저 포로가 되었고(사9:1) 그 뒤 20년이 지나서 아시리아의 살만에셀(혹은 사르곤)이 나머지를 또 끌고 갔다(왕하17:6-24).

비록 그들의 영적/육적 회복에 관한 예언이 여러 개 있고(사11:12-13; 렘31:7-9, 16-20; 49:2; 겔37:16; 호11:11; 암9:14; 읍18-19)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지만(행26:7)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한 몸으로 일시에 팔레스타인에 되돌아갔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며 이사야서 11장 등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생활 지도 참조(32).

유다에게는 세 번의 포로 생활이 있었다: (1)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 즉 주전 606년에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갔다(왕하24:1-2; 단1:1). (2) 여호야김의 마지막 해에 느부갓네살이 유대인 3,023명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제7년과 8년(주전 598년)에 일어났다(왕하24:12; 대하36:8, 10; 렘52:34). (3) 시드기야의 통치하에서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의 주요 인물과 귀중품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졌다(왕하25:1-30; 대하36:1-23).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70년 동안 머물렀는데(렘25:11; 29:10) 이 기간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주전 606년)부터 계산된 것이다. 바빌론에서 갈 유대인들에게는 재판관들과 장로들이 있어서 그들이 처리를 하였고 논쟁이 되는 문제는 율법에 따라 재판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고위직에도 진출했음을 보여 주고 에스더기는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크게 불어나 막강한 힘을 과시했음을 보여 준다. 물론 대언자들은 그들의 참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

지 않게 하였다.

70년이 다 차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신의 통치 제1년에(주전 536년) 바빌론에서 자신의 영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고(스1:1) 그래서 거의 50,000명이 돌아갔다(스2:2-65; 7:7-66). 그들은 주전 516년경 다리오의 통치 제6년에 둘째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로부터 58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는 7,000명을 이끌고 바빌론에서 유다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의 수고의 결과는 그리스도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유다의 귀환 지도도 참조(33).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상속의 땅에서 옮겨져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졌고 따라서 하나님만이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아실 것이다.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다와 에브라임의 시기(猜忌)는 떠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영화가 다시 부활될 것이다(사11:10-16; 겔37:26-28).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로 인해 또다시 포로가 되어 온 세상을 유랑하게 되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1,100,000명이 죽고 100,000명이 포로가 되어 여러 지방으로 가서 노예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마23:39)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포로 생활이 완전히 끝날 것이다(눅13-14; 롬11:25-26). 요세푸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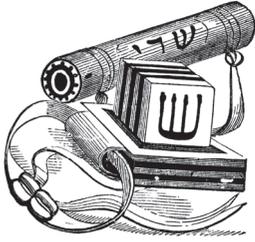
● 포장(Pavement) 길바닥에 돌,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것을 깔아 단단하게 다지어 꾸미는 것(왕하16:17; 겔40:17-18; 요19:13).

● 포플러나무(Poplar) 쌍떡잎식물로 사시나무속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 아름답고 큰 그늘을 제공하는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창30:37; 호4:13).

● 포피(Foreskin) 남자 생식기의 끝부분 가죽. 할례 때에는 이것의 일부를 베어 냈다(창17:11, 14, 23-25; 출4:25; 레12:3). 할례 참조.

● 폴룩스(Pollux, 팔룩스) 카스토르 참조.

● 표(Frontlets) 유대인들은 네 개의 양피지 조각을 취하고 각각의 조각에 특별 잉크로 다음의 구절을 적었다. (1) “처음 난 것을 내게 기록히 구별하여 돌리라”(출13:2-10). (2)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출13:11-16). (3) “오 이스라엘아 들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라”(신6:4-9). (4)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라”(신6:13-21). 그들은 이 네 구절을 적은 뒤 “그것을 네 손 위의 표적과 네 눈 사이의 기림물로 삼으라.”(출13:9)는 말씀에 따라 네 조각을 모아 그 위에 히브리



알파벳 '십'을 쓰고 두 개의 줄이 달린 딱딱한 소가죽을 그 위에 놓았다. 그 뒤에 그들은 이 네모난 가죽 성구함을 이마에 두고 끈으로 머리에 묶었는데 이것은 머리에 두는 '데펠라라' 불렀다.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의 기도 시간에 이것을 머리에 두었다. 성구함 참조.



● 표범(Leopard) 고양이과에 속한 날랜 짐승. 이것은 몸에 아름다운 반점이 있고 가축과 사람에게도 위협을 끼친다(렘5:6; 13:23; 단7:6; 호13:7; 합1:8).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표범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범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여러 장소의 이름에도 나온다. 민32:36의 뱀니므라는 표범이 다니는 곳을 뜻하며 니므라, 니므림, 그리고 큰 사냥꾼 니므롯도 이것과 상관이 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 대해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 곳'(사11:6)이라고 표현했다. 표범의 반점은 사람의 타고난 악한 본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렘13:23). 아가서의 여주인공은 표범의 산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아4:8) 이것은 곧 레바논이나 헤르몬 산갈이 들 짐승이 거하는 산을 뜻한다.

● 표적(Sign) 증거가 되는 표시(창9:12-13; 17:11; 출3:12; 사8:18), 초자연적인 강력함(눅21:11)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기적(출4:7-9; 막8:11). 하늘의 표적들의 움직임 등을 가리키며 이교도들은 이런 것을 통해 계시를 얻고자 하였다(사44:25; 렘10:2). 선물, 타 언어 참조.

● 푸테올리(Puteoli, 퓨티올라이, 우물) 이곳은 해변 마을이었으며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해하면서 이레 동안 여기 머물렀다(행28:13).

● 뭉(Mite) 코드란트의 이분의 일인 작은 돈(눅12:59; 21:2).

● 풀(Grass) 풀은 푸른 채소나(사15:6) 가축의 음식을 뜻하기도 했다(시104:14). 풀은 빨리 자라고 연하며 또 금방 말라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들은 이 같은 풀의 특성을 살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기록했다(시90:5-6; 92:7; 103:15-16; 사40:6-8; 51:12; 약1:10; 뱀전1:24). 지금도 나무가 귀한 지방에서는 모든 종류의 풀과 덩불을 연료로 사용하며(마6:28-30) 이런 풀은 우기가 끝난 뒤에 곧장 시든다(시129:6-7; 사37:27).

● 품(Bosom) 가슴. 동방 사람들은 넓고 길고 느슨한 옷을 입었으며 또 어떤 것을 손에 들고 가려 하지 않을 때에는 허리띠 위에 있는 긴 옷 주머니에 그것을 담았다(눅6:38). 주님께서는 자기 품에 자기의 어린양을 품고 가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사40:11) 이것은 그분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 준다. 가슴 참조.

● 풍유(allegory)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문법적으로 어떤 것과 관련된 용어 등을 사용하여 다른 것에 적용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은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죄를 지은 다윗에게 대언자 나단이 전한 말씀이나 아삽의 시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들려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삼하12:1-14; 시80:1-19; 눅8:5-15)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것들은 풍유이다."라는 말씀은(갈4:24) 바로 전에 언급된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비유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 풍자향(Galbanum) 코를 찌르며 발삼 향을 내는 송진(출30:34).

● 프레토리움(Praetorium, 프리토리움)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이 거하는 집을 가리킨다(막15:16). 여기서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앉았으며 예수님은 그의 앞으로 끌려왔다. 갑바다 참조. 이곳은 원래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안토니아 성채 옆에 지은 궁으로서 웅장했으며 큰 뜰이 있었다(마27:27; 막15:16; 요18:28, 33). 로마의 총독들은 주로 가이사랴에 거하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는 여기 거하였다(행23:23; 25:1). 한편 행23:35에도 헤롯의 궁인 프레토리움이 나오는데 이 말은 거기서 재판정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바울은 빌1:13에서 로마의 프레토리움, 즉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곳을 가리켜 궁궐이라 말한다.

● 플레이아데스(Pleiades, 플리아디즈) 이것은 황도 12궁 중의 하나인 황소자리(성단(星團))로 태양계에서 약 400광년 떨어져 있다. 이 성단은 밝은 성운 물질과 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별들 가운데 일곱 개는 육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여러 문화권의 신화와 문학에서 자주 등장한다. 고대로부터 북반구에서는 봄철 새벽에 태양이 떠오를 무렵 이 성단이 떠오르면 항해와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로 인

식했고 가을 아침에 서쪽으로 지면 계절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했다(욥9:9; 38:31; 암5:8).

● 피(Blood) 피는 혼과 관련된 신성한 물질로서(창9:4) 모든 육체의 생명이므로 피째 짐승을 먹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레19:26; 삼상14:32) 이것을 어긴 자는 죽음에 처해졌다(레17:14).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였다(행15:29). 피가 생명이므로 피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히9:22) 모세의 율법에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린 것은 피가 헌물을 드리는 자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을 뜻하였다(레17:11).

피가 신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교도들은 짐승의 피를 마시고 고기를 피째 먹곤 하였다(삼상14:32; 시16:4; 겔33:25). 피는 이 같은 일반적인 뜻 외에도 살인죄나(삼하3:28; 행21:25) 혈족 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살과 피'라는 말은 영적 본성 혹은 영화로운 몸과 대조를 이룬다(마16:17; 고전15:50, 엡6:12). 피와 피 사이의 분쟁은(신17:8) 판결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분쟁이었다. 피는 또한 상징적으로 생명이나(창9:6; 마27:25) 대량 학살(사34:3; 겔14:19)을 뜻하였다. 포도즙은 포도의 피로 표현되었다(창49:11).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에(레17:1-16) 구약 시대에는 피를 제단과 궁홀의 자리에 뿌렸고 이것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엡1:7; 요일1:7)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그분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다. 죽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반드시 피가 흘러져야 한다(출12:6-7; 레16:6, 14-15). 왜냐하면 피가 혼을 속죄하기 때문이다(레17:11).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려졌으며(마26:28)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행20:28).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신성하다(행20:28).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대속하고(엡1:7; 골1:14; 벰전1:18-19; 계5:9) 찌지 아니하며(벰전1:18-19) 사람과 하나님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며(롬5:9)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준다(엡2:13). 또 그 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골1:20) 우리를 용서하며(엡1:7; 골1:14; 히9:22)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히9:14) 하늘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며(히9:23)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한다(요일1:7; 계1:5; 7:14).

● 피난처(Refuge)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삼하22:3; 시14:6; 46:1; 59:16; 62:7-8; 사4:6). 이 말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도피 도시 참조.

● 피리(Pipe) 플루트나 클라리넷 같은 관악기(삼상10:5; 왕상1:40; 사5:12; 30:29; 렘48:36; 마11:17). 음악 참조.

● 피의 복수자(Blood-Avenger) 사람의 생명이 신

성하므로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그 근간이 있다(창9:6). 공의와 더불어 복수하려는 욕망은 종종 살인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는데 아람 사람들의 경우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힘이나 계교로 살인자를 찾아내어 죽일 수 있었다. 모세의 율법은 살해당한 사람의 생명의 경우 결코 대속물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민35:31). 그러나 살인죄의 피고는 정말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성소나 도피 도시에 머물 수 있었으며(수20:6, 9) 고의로 죽였을 경우 그는 즉시 그를 찾는 자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다(출21:14; 왕상2:29, 34).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는 도피 도시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만일 그 기간에 다른 곳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를 죽여도 무죄가 되었다(민35:25-28).

● 피폐(Waste) 낡고 쇠약하여짐.

● 필라델피아(Philadelphia,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소아시아의 루디아의 도시. 에게 해 지도 참조(41). 이곳은 버가모의 왕인 필라델푸스가 헬레니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운 곳이다. 여기서는 포도 산출과 관련 있는 포도의 신 디오니수스 숭배가 성대히 거행되었고 또 지진의 피해가 심했다. 이곳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심히 격렬하게 적의를 나타냈고 이 성읍의 신자 중 11명은 서마나에서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과 함께 순교했다. 여기에는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계3:7-13).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다칠 시험의 때, 즉 무서운 환난기를 면하게 해 주겠다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셨다(계3:10).

● 필사(Copy) 베껴 쓰는 일.

● 핍박(Persecution)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 때 당하는 미움과 고통. 이사야서는 특히 이것을 잘 보여 준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가르치며(딤후3:12) 예수님도 대언자들이 핍박받았음을 가르치셨다(마5:12).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주로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행4:1; 5:17). 처음에 보통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교회를 크게 핍박하지 않았다(행5:14, 34; 23:6). 스테반은 이스라엘 땅과 성전이 구원을 줄 수 없음을 보여 주었고 이로 인해 큰 박해가 일어났으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선포하자 박해는 한층 더 심화되었다. 로마의 박해는 점진적으로 일어났고 후에 네로는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며 이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였다.

(ㅎ)

● 하가라(Hacaliah, 하갈리아) 느헤미야 총독

의 아버지(느1:1; 10:1).

● 하갈(Hagar, 헤이가르, 낫선 자) 사라에게 속한 이집트 출신의 여종(창16:1). 사라는 자기가 수태하지 못하자 그 당시 동방의 풍습에 따라 또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이루기 위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녀를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다(창16; 17; 21).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풍유로 하갈이라 표현하고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라라 표현했다(갈4:24). 스스로를 하갈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아랍 사람들은 하갈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한다.

● 하갈 족속(Hagarites, 헤거라이츠)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대상5:10, 20). 시83:6에서 이 이름은 이스마엘 족속들 중에서 뛰어난 어떤 부족을 가리키는 듯하다. Hagarenes(헤거린즈) 역시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 하나냐(Hananiah, 하나니아야,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 I. 기브온의 거짓 대언자. 그는 무모한 거짓 예언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급작스럽게 죽었다(렘28:15-17).

II. 사드락에 해당하는 히브리 이름(단1:17).

III. 느헤미야 밑에 있던 경건하고 신실한 관원(느7:2).

● 하나넬 망대(Tower of Hananel)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에 양 문 근처에 있던 망대(렘31:38).

● 하나니(Hanani, 허나나이, 내 은혜) I. 아사 왕 시대의 선견자. 하나니는 대언자 예후의 아버지였으며 아사 왕에게 충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왕상16:1-7; 대하16:7-10; 19:2; 20:34).

II. 느헤미야의 형제. 그는 바빌론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보고를 가져왔고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맡았다(느1:1-3; 7:2-3).

● 하나님(God) 크리스천 믿음의 대상. 이 분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한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요, 자신의 권능과 섭리로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분으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다(신6:4-5). 하나님은 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인격적 존재로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유일무이하게 살아 계신 신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 현저하게 다르다(시18:46; 42:2).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의 주님이시며(사40:10) 자연의 신비나 공포심 등에서 발생한 자연 종교의 신이나 사람의 이성에 의해 형성되거나 이해되는 철학적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창1:1; 사44:24) 전능한 분이시고(창17:1; 대상29:11) 온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행7:48) 사람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거룩한 분이시다(출3:5; 시47:8). 삼위일체 하

나님 선도 참조(60).

영어 단어 God이 실제로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는데 이것은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물을 때에 그분께서 친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일러 주신 것으로(출3:14)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과 자존(自存)하심을 잘 보여 준다. 여호와 참조. 그러나 이 이름이 너무나 두려웠으므로 그들은 성경에서 이것이 나올 때마다 발음하지 않고 대신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Adonai)라 읽었다고 전해지며 Adonai Jehovah, 즉 Lord Jehovah가 나오면 '주 주라 할 수 없으므로 Adonai Elohim, 즉 '주 하나님'으로 읽었다. 한편 복수형의 엘로힘(Elohim)은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분이 여러 면에서 완전함을 뜻하기도 하고 삼위일체를 암시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참조.

성경은 아무런 변명도 없이 혹은 이유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시작부터 확증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1:1)는 말씀은 그분의 존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그분의 본성과 의지를 보여 주는 교훈이 된다. 하나님이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유일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하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처럼 창1:1은 창조 사역 속에 드러난 하나님 자체를 보여 주고 동시에 그분의 섭리 속에 드러난 그분의 길과 그분의 성품의 영화로움을 보여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나 뚜렷이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 같은 세 인격체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모든 속성 면에서 동등하며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다. 삼위일체 참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자신을 보여 주셨다(신7:6-11; 사66:18-21). 하나님은 먼저 족장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 특별한 사랑과 약속을 주셨으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다(창12:1-4).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려 주시고(출3:14)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출3:13-17). 이때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요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신뢰할 분으로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출하여 자신의 은혜를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신 분이시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

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절대복종하여 은혜에 부응하여야 했다(출 20:2).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시9:8)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출20:5)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달려가 불의를 행할 때에는 엄히 심판하신다(신28:15-68).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거쳐 고국에 돌아와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나 율법의 노예가 되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이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대망하게 되었다(말3:16-18; 눅2:25-39).

한편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한 공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성품과 계획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긍휼, 사랑, 심판, 통치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며(롬4:4-8; 요1:12-13)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롬8:14-16). 아버지 참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요 소유자요 치리자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사건과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또한 그분은 영원한 재판장이시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며 그분을 고귀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요17:3).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참조.

● 하나님의 말씀(Oracle) 초자연적인 대화. 성경에서 Oracle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행7:38; 롬3:2; 히5:12 등). Oracle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계 뚜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삼하16:23). 긍휼의 자리 참조. 한편 다른 곳에서 Oracle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성전에서 언약계가 놓여 있는 지성소를 뜻하였다(왕상6:5, 16, 19; 8:6). 이교도들은 신전에서 신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보통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신탁이 바로 Oracle이다. 사실 이교도들의 신탁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한 것이다.

●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천사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말하며 요세푸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정통 유대인들 역시 그들을 천사들로 본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들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은 때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창6:1-4).

창6:2, 4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킨다. 창1:1의 하나님은 창조자 엘로힘이며 그 뒤에도 엘로힘은 계속해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구속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여호와(주)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 총 다섯 번 나오며 그 다섯 번 모두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을 의미한다(창6:2, 4; 욥1:6; 2:1; 38:7).

창세기 6장에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말이 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창6:4).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말은 홍수 이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 홍수 이후에도 있었음을 보여 준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고 홍수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다. 그런데 만일 이 구절이 홍수 이전의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에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다 홍수에 묻혀 버렸을 터이므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람들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은 것은 성경이나 세속 역사에 없다.

한편 여기 나오는 거인들은 영적 거인, 즉 상상 속의 거인이 아니고 실제 거인들로 홍수 이후에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엠 족속(창14:5; 신2:10-11), 수스 족속(창14:5), 아낙 족속(신2:10-11; 수11:21-22), 르바 족속(창14:5; 15:20), 삼숨 족속(신2:20). 사무엘기상 17장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은 적어도 3.3미터나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으며 바산의 왕이던 거인 옥은 길이가 4.2미터, 너비가 2.1미터나 되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신3:11).

한편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음을 보여 준다. 유5-7에서 유다는 (1)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스라엘 백성과 (2) 하늘을 떠나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과 (3)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저지른 연고로 죽어서 영원한 불의 보복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에 대해 말한다. 첫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셋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둘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는 구절은 창세기 6장 말씀뿐이며 따라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한편 사도 베드로 역시 벤후 2:4-6에서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

어떤 이들은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마22:30)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구절은 “부활 때에는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실로 성경에는 성이 없어 중성처럼 행동하고 중성처럼 보이는 천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다 남성이며 남자처럼 생겼고 그래서 종종 남자들로 오인되곤 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짧은 남자이다. 천사 참조.

성경에 언급된 거인은 모두 고대에 유명한 남자들이며(창6:4) 여기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아이가 수태될 때 아이의 성(性)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의 성염색체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는 여성이 없으므로 타락한 천사들의 정자는 단지 남자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타락한 천사의 성염색체가 모두 YY이고 이것이 여자의 성염색체 XX와 결합하면 언제나 XY가 되어 남자만 나올 수 있다.

● 하나님의 왕국(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과 영원, 하늘과 땅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한다.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모두 나온다. 하늘의 왕국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왕국은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히12:22-23) 공간적이며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새 창조 개념이 강하다(벤후3:13; 계21:1-2; 22:1-2). 하늘과 하나님이 라는 말이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 두 용어는 구별 없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계시는 하늘로 대체해서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눅15:18; 21). 그래서 이 두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으로 동일하지만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의 지상 왕국을 좀 더 강조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것을 포함하는 온 우주적 왕국을 가리킨다(마3:2와 막1:15, 마5:1-12와 눅6:20-23, 마13:11과 눅8:10 등 비교).

이 왕국은 영적인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으며(눅17:20-21) 오직 새로운 탄생에 의해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요3:5).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롬14:17). 왕국, 하늘의 왕국 참조.

● 하니멜(Hanameel, 허내미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에레미야의 친족. 에레미야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에 이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서 법적인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자기들의 땅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언의 증표였다(렘32:6-12).

● 하네스(Hanes, 헤이니즈) 이집트의 도시(사30:4).

● 하눈(Hanun, 헤이년, 복 받은) 암몬 족속의 왕. 그의 아버지 나하스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그의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내었다. 그러나 하눈은 그들을 경멸하였고 그 결과 암몬 족속에게 수치스러운 파멸을 가져왔다(삼하10:1-19; 대상19:1-19).

● 하늘(Heaven)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있음을 보여 준다. 성경의 하늘들 선도 참조(80). I. 첫째 하늘 - 새들과 구름이 거하는 곳.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으며”(렘4:25; 단4:12; 마6:26; 8:20 비교). 첫째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아니다.

II. 둘째 하늘 -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창22:17; 시19:1 비교). 1960년대에 이르러야 사람들은 처음으로 첫째 하늘을 가로질러 둘째 하늘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다. 비록 둘째 하늘이 광대하고 아름답다 해도 첫째 하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는 아니다.

III. 셋째 하늘 -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후 12:2; 왕상8:27, 30 비교).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제의 셋째 하늘이다. 수천 년의 노력 끝에 사람들은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갈 수 있었지만 아무리 우주 공학이 발달해도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사람을 데려다 줄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여행은 ‘뇌’에 의해 가능하지 않고 오직 ‘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하늘에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하늘은 셋째 하늘, 하늘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등으로 불리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도 여기에 거한다(마6: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늘에 가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자신의 백성이 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엡4:10; 히8:1; 9:24-28).

한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죽는 순간 바로 이 셋째 하늘에 간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후5:8; 참조 빌1:23). 여기서 '몸을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며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게 된다. 중간 대기소나 연속 같은 장소로 간다는 것은 성경과는 동떨어진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셋째 하늘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도시가 있으며 신구약 성도들은 바로 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라"(히11:10; 참조 시46:4; 87:3; 요14:2-3). 그런데 이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셋째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끝나면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온다(계21:2). 바로 이 도시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 참조. 만물의 회복선도 참조(94).

● 하늘의 여왕(Queen of heaven)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여신의 호칭(렘7:18; 44:17-18). 어미 여신과 아기 이야기는 고대 바빌론에 널리 알려졌으며 체계가 잡힌 숭배 사상으로 발전되어 갔다. 바빌론의 많은 기념비는 어미 여신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팔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담무스 참조. 바빌론 사람들은 세상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거룩한 어미와 아기 숭배도 함께 가져갔다. 이러한 숭배가 퍼져나간 많은 국가들에서 어미와 아기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혼잡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은 어미 여신을 '성모(성모), 즉 '거룩한 어머니'라 부르는데 성모는 아기를 팔에 앉은 채 머리둘레에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고대 독일 사람들은 팔로 아기를 안고 있는 처녀 헤르타를 숭배했고 영국의 드루이드 교도들은 '비르고-파티투라'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그녀가 인드라니로, 그리스에서는 아포디테 또는 케레스로, 고대 로마에서는 비너스나 포투나로 알려졌으며 그녀의 아기는 주피터로 알려졌다. 그녀의 이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녀는 바알의 아내였으며 하늘의 여왕이요 처녀로서 수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했을 때 그들 역시 어미 여신 숭배로 말미암아 매우 더럽혀졌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삿2:13)는 말씀에 나오는 아스다롯 혹은 아스도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진 어미 여신의 이름이다. 바알과 아스다롯 참조. 그들은 반복해서 이처럼 가증한 행위를 계속했는데(삿10:6; 삼상7:3-4; 12:10; 왕상11:5; 왕하23:13)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여신의 칭호 중 하나가 바로 '하늘의 여왕'이었다.

"우리가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에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겠느냐?"(렘44:17-19)

한편 에베소에서 이 위대한 어미 여신은 다이애나로 알려졌으며 그 도시에 세워져서 그녀에게 봉헌된 신전은 고대 세계의 일곱 가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 다이애나 참조.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와 세계를 통해 이 여신은 큰 숭배를 받았고(행19:27) 바빌론에서 나와 여러 가지 다른 이름과 형태로 많은 나라들로 확산된 거짓 우상 숭배는 결국 로마 제국 전역에서 하나의 종교 체제로 확립되었다.

어미 여신 숭배가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신약 교회를 설립하셨다. 기독교 초기에 이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였지만 3, 4세기경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초대 교회의 믿음을 떠나 사도들이 경고했던 배교로 빠져들어 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교가 일어나면서 이교도들의 이교주의와 기독교가 혼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회심하지도 않은 이교도들이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며 많은 경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교유의 이교 의식과 행습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많은 이교도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어미 여신 숭배 사상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미 여신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에 그 당시 세상과 타협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교주의의 위대한 어미 여신을 마리아로 대체하였고 이로써 이교도들의 어미 여신 숭배는 조금씩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마리아 숭배는 결코 원래의 크리스천 믿음이 아니었다. 마리아가 구원자 예수님을 수태하는 일에 선택되었다는 점을 볼 때 그녀가 훌륭하고 헌신적이며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 중 어느 누구도 마리아 숭배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았다. 마리아 참조.

주후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마리아를 여신으로 보기 시작했고 마리아 숭배는 배교한 교회에서 너그럽게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후 431년에 열린 에베소 공회에서는 교회의 공식 교리로 채택되었다. 마리아 숭배가 에베소에서

교회의 공식 교리로 채택된 데는 그곳에서 유행하던 다이애나 숭배가 크게 작용하였다. 다이애나 참조.

바울 사도는 복음 선포 초기에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며 이교주의와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 이에 그곳 사람들은 진실로 회개하였고 그 어미 여신의 우상을 파괴하였다(행19:24-27). 그런데 그로부터 수 세기 후에 에베소 교회가 타협을 시도하여 어미 여신 숭배를 채택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단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딤후2:5).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교회는 마리아도 중재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 드리는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천주교의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코 하늘의 여왕이 아니다. '하늘의 여왕'은 마리아가 태어나기 수 세기 전 이교도들이 숭배한 어미 여신의 칭호였다. 대언자 에레미야 시대에도 유대 백성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고 그녀를 위해 구별된 의식들을 행했다(렘7:17-20).

●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며(엡1:6; 12: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마4:17). 또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27:37). 교회와 왕국 선포 참조(85).

예수님은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왕,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니 배척당하시고 결국 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 개념을 잘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였으며(막1:1, 14)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6:10)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런 구절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오게 하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셨다(마4:17).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 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시리이다"(단2:44). 예수님은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시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셨으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했고(마23:37-39)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홍이 전달되었다(롬11:30-31).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왕국의 복음이다(마24:14).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복음 참조.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음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온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 받는 자들이다(롬11:26).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 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진실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구축을 바랐고(눅2:30-34; 38)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속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실망에 잠겼지만(눅24:21)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행1:6) 이때에 그분께서는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고(행1:7) 이에 그들은 왕국의 회복을 바라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강하게 권면했다(행3:19-26). 복음의 초기에는 이렇게 왕국의 회복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이루어졌다. 스테반의 순교는 유대인들의 회개가 거의 불가능함을 보여 준 사건이며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에서 이방인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후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Titus)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훼파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하여 왕국의 회복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시대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초림 때 세우려 했던 하늘의 왕국은 그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위엄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 왕국 참조.

기존 우리말 성경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모든 성

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은 성경에 342회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가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되면 성도들이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개역성경 눅17:20). 문맥을 볼 때 "너희 안에 있다."의 "너희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신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은 결코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기존 우리말 성경의 '나라'는 원래 왕국이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왕국'을 '천국' 혹은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으며 그 결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왕국 참조.

끝으로 역사를 통한 세상 왕국의 변천은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방인들의 때 참조.

● 하닷(Hadad, 헤이닷, 강한 자) I. 모압 평야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격파한 에돔의 통치자(창36:35; 대상1:30).

II. 대상1:51에 나오는 에돔의 둘째 통치자.

III.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자 이집트로 도망한 에돔의 왕족(삼하8:14). 그는 거기에서 파라오의 영접을 받고 왕비의 여동생과 결혼하였으며 다윗과 요압이 죽은 뒤에 에돔에 돌아와 솔로몬의 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왕상11:14-22).

● 하닷림몬(Hadadrimmon, 헤이뎃리몬) 므깃도 골짜기의 한 장소. 여기에서 선한 요시야 왕은 파라오느고와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돌아와서 죽었으며(왕하23:29; 대하35:20-25) 이로 인한 애곡은 굉장히 컸다(슌12:11).

● 하닷사(Hadassah, 허대싸) 에스더의 유다식 이름(에:2:7).

● 하닷에셀(Hadadezer, 하댓이저, 하닷이 돕다) 소바와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유프라테스까지 힘을 쓴 시리아의 강력한 왕(왕상11:23). 그는 세 번이나 패하고 결국 다윗에 의해 권력을 잃었다(삼하8:3-4; 10:6-14, 16-19; 대상18:3; 19:6).

● 하라(Hara, 헤이러) 메대의 북부에 있던 산악 지대(대상5:26).

● 하란(Haran, 헤이렌, 산지에 사는 사람) I. 테

라의 맏아들. 그는 아브라함의 형제이며 롯과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창11:26-31).

II.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에 있던 고대 도시. 신약 성경은 이곳을 Charran이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의 이동 지도 참조(14).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르를 떠난 뒤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거하였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여기로 도망하였다(창11:31-32; 12:5; 24:1-67; 27:43; 28:10; 29:4). 히스기야 시대에 하란은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폐허가 되었다(왕하19:12; 사37:12).

● 하로셋(Harosheth, 허로세스, 삼림이 우거진 곳) 가나안 북부의 도시. 이곳은 이방인들의 하로셋이라 불리며 시스라는 여기 살았다(삿4:2; 13, 16).

● 하롯(Harod, 헤이래드, 지진) 이스라엘과 길보아 산 근처의 샘(삿7:1; 삼하23:25).

● 하룻길(Day's journey) 친구약 성경에서 하룻길은 약 32킬로미터 정도이다(출3:18; 신1:2; 왕하3:9; 은3:3).

● 하만(Haman, 헤이만, 웅장한)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 그는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복수하기 위해 왕국에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계획은 에스더에 의해 저지를 당하고 그는 왕의 진노를 받아 교수대에서 처형되었다. 그는 아각 사람이라 불리는데 아각이 아말렉 왕들의 혼한 이름이므로 유대인들은 그가 미디안 족속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가 유대인들을 미워한 이유는 명백해진다. 그의 이야기는 과멸에 앞서 교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인도하며 그분의 백성은 위협 중에서도 안전하고 그분의 원수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말렉, 아각 참조.

● 하맛(Hamath, 헤이마쓰, 요새) 시리아의 유명한 도시. 하맛은 예루살렘과 다마스쿠스처럼 고대로부터 중요한 도시였다. 이곳은 창10:18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거처로 나오며 그 이후에도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의 북방 경계로 자주 언급된다(민13:21; 수13:5; 삿3:3). 다윗의 시대에 하맛의 도이 왕은 그의 동맹자였다(삼하8:9-10).

● 하몬곡(Hamon-Gog, 헤이몬가그) 곡과 그의 사악한 군대가 멸망하는 골짜기(겔39:11, 15).

● 하몰(Hamor, 헤이모, 나귀) 세겜의 아버지.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이 자기 누이 디나를 겁탈하자 그와 그의 아버지를 죽였다(창34:2-26). 야곱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창33:19) 후에 요셉은 그 땅에 묻혔다(수24:32).

● 하박국(Habakkuk, 허박컱, 초목) 열두 명의 소대원자 중 하나.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으며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처음 공격하기 바로 전인 주전 610년경에 대언하였다(왕하24:1).

● 하볼(Habor, 헤이보) 메대의 도시.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과 살만에셀이 이스라엘 포로 중 일부를 이곳 근처로 옮겨 놓았다(왕하17:6; 18:11).

● 하롯야일(Havothjair, 해벳제이어) 길르앗의 한 지역.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재판관 야일이 낳은 서른 명의 아들들에게 속한 서른 개의 작은 도시들이 있었다(민32:41; 삿10:3-4).

● 하사손다말(Hazazontamar, 해자잔테이마르) 사해 근처의 도시(창14:7). 엔게디 참조.

● 하사엘(Hazael, 해제이엘, 하나님께서 보신다) 시리아 왕 벤하닷의 관원. 대인자 엘리사는 그가 벤하닷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를 것을 예언하였고 그는 그다음 날 그 왕을 질식사케 죽게 만들었다(왕하8:7-15). 대인자는 그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 이미 그가 이 범 죄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왕위를 찬탈한 뒤 40년 동안 치리하였으며 성공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써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하였다(왕하8:28; 10:32; 12:17; 13:3, 7; 대하22:5).

● 하세롯(Hazereth, 허지라스, 마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진을 친 곳. 이곳은 시내 산에서 다섯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고(민11:35) 그들은 여기서 한 주 혹은 그 이상을 머물렀고(민12:1-16) 여기를 떠나 가나안의 경계인 가데스바네아에 이동하였다(민12:16; 13:26; 신1:19-21). 출애굽 참조.

● 하세림(Hazerim, 허지림) 아위 족속들의 고대 거주지(신2:23).

● 하솔(Hazor, 헤이조, 둘러싸인 곳) I, 북부 가나안의 주요 도시. 이곳의 왕은 야빈이었으며 그는 동맹군의 우두머리였으나 여호수아에 의해 패배를 당하였다(수11:1-13). 그 뒤 하솔은 재건되어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으나 바락에 의해 정복되었고 후에 솔로몬은 이곳을 강화하였다. 이곳은 디글랏빌레셀이 침략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수19:36; 삿4:2; 왕상9:15; 왕하15:29).

II. 아라비아의 한 지역. 느부갓네살은 이곳을 폐허로 만들었다(렐49:28-33).

III. 유다와 베냐민에 있던 몇몇 도시들(수15:23; 느11:33).

● 하우란(Hauran, 하렌) 원래 이곳은 다마스쿠스의 남쪽, 디베라 바다의 동쪽에 있던 조그만 지역이었으나(겔47:16) 후에는 남쪽과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 하월라(Havilah, 해빌라, 모래가 있는 곳) 성경은 함의 후손인 하월라와(창10:7) 셈의 후손인 하월라(창10:29)를 말하므로 두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I. 하월라의 위치는 에덴동산의 하월라와 관련이 있다(창2:11).

II. 또 다른 하월라가 아라비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상15:7에는 “사울이, 네가 하월라를 떠나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로 갈 때에 만나는 아말렉 족속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아라비아 북서쪽의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 같다.

● 하프(Harp)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한 현악기. 이것은 히브리어로 ‘키노르’이며 작고 가벼워서 흔히 기쁨이 있는 곳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것은 유발이 처음 발명하였고(창4:21; 31:27; 대상16:5; 25:1-5; 시81:2) 다윗은 하프를 잘 탔다(삼상16:16, 23; 18:10). 음악 참조.

● 학개(Haggai, 해가이, 축제의) 열두 명의 소대 언자 중 하나. 그는 스름바벨과 함께 바빌론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오 히스타스프스의 제2년에 대언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대언의 목적은 오랫동안 연기되어 오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다니오가 이에 대하여 칙령을 내렸으므로 그는 이 일에 성공하였다(스6:1-22). 그가 예언한 대로 둘째 성전의 뛰어난 영광은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시고 자기 발이 닿는 곳을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점에 있다(학2:7-9).

● 한나(Hannah, 해나, 은혜) 라마다임소빔에 살던 레위 사람 엘가나의 경건한 부인. 그녀는 사무엘의 어머니였으며 그를 얻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구하였고 자기 서약에 따라 그를 하나님께 거저 드렸다. 그녀는 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추가로 얻는 복을 받았다(삼상1:1-28; 2:1-21).

● 한 번(Once) 단 한 번 참조.

● 한 하나님(One God) 약2:19는 영어로 ‘There is one God’인데 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아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떨지 않고 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떠난다(딤후2:5; 요일5:7 참조). 삼일위체 참조.

● 할렐루야(Hallelujah)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은 히브리 시편의 앞과 뒤에 종종 나온다. 유대인들은 기쁜 명절에 기쁨과 찬양을 드러내기 위해 할렐루야를 노래했고 이런 찬양을 지금도 기독교회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알렐루야(Alleluia)이며 우리말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를 살려 할렐루야로 번역되었다(계19:1-6).

● 할례(Circumcision) 사내아이의 포피를 베어 내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99세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창17:10-12).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도 명령하시고 유허절 회생에 참여하려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며 남자는 아이는 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출12:44; 레12:3; 요7:22). 유대인들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그대로 지켰고 이집트에서도 그대로 행했다(수5:1-9). 히브리 사람들 말고도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 족속과 아라비아 족속도 이 관례

를 지켰으며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도들은 어디서나 할례를 베푼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겼으며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무할례자'라 부르는 것을 가장 큰 불명예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 한 것은 무례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롬2:26) 단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대 교회에는 회심한 이방인들이 이 관례를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부상했다(행15:1-41).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갈5:2-3; 6:15).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혹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

● 함(Ham, 햄, 땀다 혹은 검다) I. 노아의 아들(창5:32; 7:13; 9:18; 10:1).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심히 불경건하게 행동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의 예언이 임하게 되었다(창9:20-27).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의 아버지였으며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남부 아라비아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의 선조가 되었다(창10:6-20).

II. 이집트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이름(시78:51; 106:22).

III. 수스 족속에게 속한 지역(창14:5).

● 함환채(Mandrakes) 창30:14-16; 아7:13에 나오는 식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대 사람들은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수태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식물 안에 있다고 믿었다. 이것의 원어는 두다임이고 이것은 마취 성분을 지녀 약물로 쓰이는 식물로서 뿌리는 대개 갈라져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 해(Year)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열두 달을 지켰다. 처음에 그들은 태양력을 사용하면서 1-11월은 30일로, 12월은 35일로 지킨 것으로 추정된다. 창세기 7, 8장에 있는 홍수의 날들을 계산해 보면 원래의 한 해는 365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120년이 지나면 30일의 윤달을 두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음력이 사용되어 30일의 정상적인 달과 29일의 부족한 달이 교대로 반복되어 한 해가 354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태양력의 1년(365일 5시간 48분 47.7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3년에 한 번씩 아달 월 다음에 배아달이라는 윤달을 넣었다. 달과 유대인들의 달력 참조(67).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연대를 계산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해, 즉 공식적인 기원(紀元)이 없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역사에서 기념이 되는 사건들로부터 날짜를 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출19:1; 민33:38; 왕상6:1)과 솔로몬 성전 건립(왕상8:1; 9:10)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겔33:21;

40:1) 등이 날짜를 세는 출발점이 된다. 한편 히브리 사람들은 서수(序數)와 기수(基數)를 분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창7:6, 11은 노아가 '600세(six hundred years old)라고 하고 곧이어 그의 생애에서 '600세 되는 해(his six hundredth year)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3일 후에 일어나셨고(마27:63) 셋째 날에 일어나셨다(마16:21). 아이에게 할례를 주는 것도 8일 되었을 때(eight days old)에 이루어지는 데(창17:11) 이날은 8일째 되는 날(on the eighth day)이었다(레12:3; 눅1:59; 2:21 비교). 이런 관례를 이해하지 않으면 연대기에서 조그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성경의 연대 선도 참조(1-3).

● 해면(Sponge) 갯슴동물의 흡수성 있는 섬유 조직(마27:48; 막15:36; 요19:29).

● 해산(Birth) 모태에서 아기를 내는 일. 해산하는 시간은 짧지만(출1:19) 여인의 진통 시간 전체는 극도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때이며(창3:16) 그래서 해산은 종종 고통과 고난의 상징으로 쓰였다(시48:6). 또한 사람이 세상에 나왔으므로 이때는 즐거워하는 때이기도 하다(요16:21). 사람은 새로운 출생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성령님에 의해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요3:1-21). 구원은 결코 평생의 과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 뒤에 지라는 일, 즉 성화가 있기 때문이다.

● 해산의 고통(Travail)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겪는 육적, 정신적 고통. 라헬은 해산의 고통 중에 죽어가며 베냐민을 낳았다(창35:16-19).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어 사람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며 영을 괴롭게 한다고 고백하였다(전1:13; 4:8). 이사야 대언자는 메시아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대언하였다(사53:11).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구원을 얻지만 주님은 엄청난 고통을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 해석(Interpretation) 이것은 성경의 진리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관한 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이 필요 없다"(백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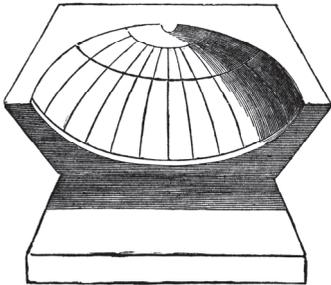
예로부터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취하였는데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와 옛새는 지금의 옛새와 동일하고 요한계시록 20장의 천 년은 문자 그대로의 1,000년을 뜻한다.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하고 끝으로 신학적 해석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 신학자들은 역사적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특히 진화론에 기반을 둔 현대 비평 이론들 - 모세 오경의 JEDP 이론, Q 문서 가설 등 - 을 이용하여 성경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또한 성경 내 책의 기록자를 무시하며 후대의 편집자들이 편집했다고 주장한다(모세 오경, 마태, 마가, 누가 등).

예로부터 성경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였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 해시계(Dial)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 해의 그림자가 나아간 것을 통해 낮의 시간을 알려 주던 기계. 아하스의 해시계(왕하20:11; 사38:1-9)는 구조와 크기 면에서 독특했으므로 아마도 바빌론이나 다마스쿠스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왕하16:10).



● 해오라기(Bittern) 키가 큰 갈대밭에 홀로 숨어 살며 주로 밤에 활동하는 새. 이것의 몸길이는 70센티미터 정도이며 먹이는 주로 물고기나 들쥐, 개구리, 갑각류 등이다. 니느웨와 바빌론은 폐허가 되어 해오라기와 다른 야생 조류들의 소유가 되었다(사 14:23; 34:11; 습2:14).

● 행로(Path)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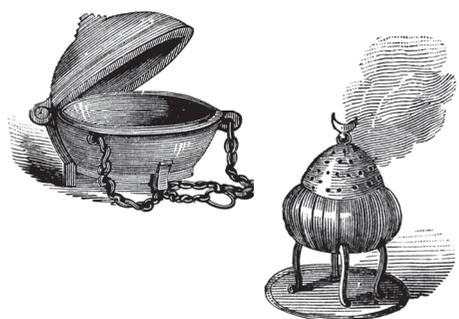
● 행위(Works) 믿음과 대조해서 쓰일 때 행위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율법의 행위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구원을 주지 못한다(롬4:2, 6; 갈2:16).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다는 말씀(롬4:2)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말씀(약2:21)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 주는 행위였다(약2:14-26).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물론 구원받기 위한 행위였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 더하기 행위 혹은 행위

로 인한 구원을 가르친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오직 은혜든지 행위든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다(롬11:6).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물이 자기 행위의 선함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구원 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선한 행위를 하는 데 힘을 써야 하며(엡2:10) 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 일 참조.

● 향(Incense) 아라비아와 인도 등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취한 수지. 이것은 유향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태울 때 냄새가 자유롭게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향에는 다른 향품을 섞었으며 경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런 향을 준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출30:34-38).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향을 바치는 일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으며 이 일을 위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성전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향로에서 향을 살랐으며 이때에 생긴 연기로 인해 언약궤와 공훈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다(레16:13). 레위 사람들은 향로에 손을 댈 수 없었으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것을 범함으로 큰 심판을 받았다.

향은 종종 기도의 상징이 되었다. 향을 드릴 때에 사람들은 밖의 뜰에서 기도하였고 그들의 기도는 향의 냄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 뒤에 제사장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백성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으니 평안히 가라."(시 141:2; 막2:9; 계5:8; 8:4)고 말씀하신다.

● 향로(Censer) 히브리식 경배의 일부분에 필요한 불과 향을 나르는 데 사용된 기구. 이것의 형상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매일 드리는 헌물에 쓰인 향로는 놋으로 만들었고(민16:39) 속죄일에 사용된 것은 금으로 만들었다(왕상7:50; 히9:4).



매일 헌물을 드릴 때에는 영속하는 불에서 취한 숯을 향로에 담아 그것을 향 제단에 놓고 그 위에 향을 뿌렸다(출30:1, 7-10). 속죄일에는 지성소에서 향로를 손으로 들어야 했다(레16:12-13). 계5:8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것 역시 금향로일 것이다.

● 향료를 넣는 일(Embalming)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몸에 향료를 넣곤 하였다. 사체에서 내장과 골을 빼고 향료를 넣은 뒤 백향목 기름과 몰약과 계피 등으로 시체를 여러 차례 씻는 데 약 40일이 걸렸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몸은 부패되지 않고 마치 산 사람처럼 보였다(창50:2-3). 아마도 요셉의 몸은 이런 식으로 보존되어 200년이 지난 뒤 가나안 땅에 안치된 것으로 보인다(창50:26). 물론 이집트의 미라들 역시 이런 식으로 보존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에 향료를 넣은 작업은 이보다 훨씬 더 간절하였으며 이를 위해 알로에, 향료, 몰약 등이 사용되었다. 장사하는 일 참조.



● 향수(Perfumes) 고대 동방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흔하게 향수를 사용하였다. 모세는 향수를 만드는 기법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주님의 향 제단에 드릴 향의 제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출30:34-38). 또한 출30:23-33에는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성막과 거룩한 기구들에 쓰이는 향유에 대한 제조법이 나와 있다.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향수를 썼으며 그 안에는 몰약과 알로에 그리고 부패를 막는 강한 약재가 들어 있었다.

● 허리(Loins) 이것은 엄밀하게 사람의 등과 옆구리의 허리 부분을 뜻하며 항상 복수로 기록된다. 고대 사람들은 허리 부분이 고통과 두려움 같은 감정의 근원지라고 생각하였고(신33:11; 욥40:16)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검은색의 상복 천으로 허리를 땀다(왕상20:31-32). 허리는 또한 생식 능력을 뜻한다(창35:11; 대하6:9). 동방 사람들의 옷은 느슨했으므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뜻했다(왕상18:46; 욥38:3; 40:7).

● 허미(Hermes, 헤르미즈) 바울이 문안 인사를 보낸 로마의 신자(롬16:14).

● 허메(Hermas, 허마스) 로마의 성도(롬16:14).

● 허모게네(Hermogenes, 허마지니스) 그와 부겔로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바울

이 로마에서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를 버리고 떠났다(딤후1:15).

● 허비(Waste) 쓸데없는 씀씀이.

● 허탄한(Vain) 허망한.

● 헌데(Sores) 병으로 인해 피부가 헐어서 상한 자리(눅16:20).

● 헌물(Offering) 히브리어에서 헌물, 즉 '민카'는 희생물을 뜻하는 '세바'와 구분되어 피가 없는 예를 가리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피를 포함하는 헌물, 즉 죄 헌물 등에도 사용되었다. 헌물의 경우 희생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음식 헌물처럼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유대인들은 십일조와 첫 열매 헌물처럼 헌물이나 희생물 중 어떤 것은 반드시 의무로 드렸고 다른 것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 헌물이 나오며 다음은 피를 포함하지 않은 헌물들의 목록이다.

1. 고운 밀가루
2. 화덕에서 구운 납작한 빵
3. 판에서 구운 납작한 빵
4. 기름에서 튀긴 빵
5. 새 곡식의 첫 열매. 이 경우는 자연 그대로 드리기도 하고 빵아서 드리기도 하였다.

납작한 빵은 올리브기름으로 반죽하거나 판에서 튀겼으며 제단에 드리는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제단에서 누룩을 드리지 않았고 희생물에도 누룩을 함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레2:11-12). 그러나 그들은 성전의 제사장들을 위해 선물로 누룩이 들은 빵을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꿀은 희생물과 함께 제단에 드릴 수 없었으나 단독으로 첫 열매로 드릴 수는 있었다(레2:11-12). 살아 있는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라 해도 음식이나 포도즙이나 소금 등을 드리는 일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빵이나 음식 헌물을 드린 사람들은 향과 소금과 포도즙 등을 함께 드렸으며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은 헌물을 가져온 사람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일부는 제단에 놓고 나머지는 주님의 사역자로 일하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 남겨 두었다. 단지 향의 경우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야 했다(레2:2; 민15:4-5).

피를 포함하지 않은 헌물은 대개 짐승을 희생시킴으로써 얻는 속죄가 목적이 아니라 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성별과 헌신 등이 목적이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값비싼 짐승의 희생을 드릴 수 없으므로 대신 피가 없는 헌물을 드려 속죄를 받기도 하였다(레5:11). 희생물 참조. 이스라엘의 헌물 제도 선도 참조(59).

● 헛된 것(Vanity) 이 말은 교만(벧후2:18), 허무함, 무익함(욥7:3; 시144:4; 전1:1-18), 사악함, 거짓(신32:21; 시4:2; 24:4; 119:37), 우상과 우상 숭배(왕하17:15; 렘2:5; 18:15; 은2:8) 등을 나타낸다.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출20:7)는 말 씀은 불필요하게 존경심을 갖지 않은 채 반복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 헤개(Hegai, 히가이) 아하수에로 왕의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2:3).

- 헤나(Hena, 하나)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왕하 18:34; 19:13; 사37:13).

- 헤로디아(Herodias, 허로디아스) 헤롯 대왕의 손녀. 그녀는 헤롯 아그립마 1세의 누이였으며 처음에 자기 삼촌 헤롯 빌립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그의 형제 안디바에게 시집갔다. 침례자 요한이 이 일을 비난하자 그녀는 앙심을 품고 헤롯을 선동하여 그의 목을 베게 하였다(마14:3-6; 막6:17; 눅3:19).

- 헤로디온(Herodion, 히러디온) 바울의 친척(롬 16:11).

- 헤롯(Herod, 헤릿, 영웅의) 로마의 통치 밑에서 유대 지방 전체나 일부를 다스린 네 명의 통치자의 이름. 그들은 혈통 면에서 에돔 사람들이었다.

I. 헤롯 대왕(마2:1-23; 눅1:5).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은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다. 그는 15세에 자기 아버지에 의해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의 형제 파사엘은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들은 후에, 즉 주전 41년경에 안토니우스로부터 사분 영주라는 호칭을 받아 이 지역을 다스릴 것을 허락받았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마카비 출신인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들 안티고누스의 반대를 받아 나라에서 쫓겨난 뒤 로마로 갔다가 주전 37년에 거기에서 안토니우스의 노력으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군대를 모집해서 안티고누스를 몰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뒤 마카비 왕족을 모두 없애버렸다. 마카비 참조. 그러나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패하자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어서 결국 유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장식하며 여러 도시를 짓고 확장했지만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 5년마다 경기를 열기로 했고 예루살렘에 극장과 경기장을 지으려 했으므로 유대인들로부터 극도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헤롯은 아주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기의 두 딸과 아내를 죽이고 또 죽을 때가 되자 많은 충성된 신하들을 여리고의 감옥에 보내기도 했다.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는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고 헤롯은 그로부터 4년 뒤 68세의 나이로 37년간의 왕 노릇을 마치고 주후 2년에 죽었다. 바로 이 왕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배틀레햄에 태어나셨다. 헤롯은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지역에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마 2:1-23). 그가 죽은 뒤에 유대, 이두매아,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그의 왕국의 절반은 그의 아들 아겔라오에게 돌아갔고(마2:22) 나머지는 둘로 쪼개져서 그의 다른 두 아들, 즉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에게 돌아갔다. 안디바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고 빌립은 바타네아와 드라고닛(드라고니티스)과 아우라니티

스를 다스렸다. 사분 영주 참조. 신약 시대의 땅 지도 (39) 참조.

II. 헤롯 빌립. 빌립 참조.

III. 헤롯 안디바(눅3:1).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아겔라오의 형제였으며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죽은 뒤에 사분 영주로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다(눅3:1). 이런 차원에서 그를 왕이라 부른 경우도 있었으며(막6:14) 갈릴리 사람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의 사법 통치 영역 안에 거하셨다(눅23:6-12). 그는 먼저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다의 딸과 결혼했다가 후에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부추겨서 빌립을 떠나게 한 뒤 그녀와 같이 살았다. 그 뒤에 그는 헤로디아의 선동을 받아 로마에 가서 왕의 호칭을 요구했으나 헤로디아의 오라비이자 자기 조카인 헤롯 아그립마의 요구로 주후 41년에 갈리아(골) 지방으로 쫓겨났고 그가 치리하던 지방은 헤롯 아그립마에게 주어졌다.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이다(마14:1-12; 막6:14-29). 그는 사두개인들의 추종자이거나 최소한 그들에게 호의를 보인 사람이다(막8:15; 비고 마 16:6). 헤롯 당원 참조.

IV. 헤롯 아그립마 1세(행12:1-25; 23:35).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아버지의 손에 의해 어머니와 함께 죽임을 당한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들이다. 칼리굴라가 로마의 왕위에 오르자 그는 감옥에서 나와 왕의 호칭을 받고 주후 38년에 자기 삼촌 사분 영주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주후 43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의 조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을 그의 왕국에 더해 주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후 44년에 가이사랴에서 갑작스레 죽게 되었다(행12:1-25).

V. 헤롯 아그립마 2세(행25:1-27; 26:1-32). 그는 헤롯 아그립마 1세의 아들로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보호를 받았다. 아버지가 죽자 그는 17세의 나이에 자기 아버지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삼촌의 왕국인 칼시스를 다스렸고 그 뒤 주후 53년에 칼시스를 떠나 자기 아버지가 처음 소유했던 지역, 즉 바타네아와 드라고닛(드라고니티스)과 아우라니티스와 아빌레네의 왕으로 이동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그립마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언하였다(행25:13; 26:1-32).

- 헤롯 당원(Herodians, 허로디안스) 헤롯 안디바의 추종 세력(마22:16; 막3:6). 헤롯은 로마 정권에 의존했으며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것을 당연히 여겼으나 바리새인들은 이를 부인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22:16의 뜻을 알 수 있다.

- 헤르몬(Hermon, 허몬, 봉헌된 산) 팔레스타인의 북동부 경계의 산(신3:8-9; 4:48; 겔27:5). 이 산은

안티레바논, 즉 동쪽 레바논 능선의 산맥의 일부이며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64킬로미터, 다마스쿠스에서 남쪽으로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산은 요르단 동쪽의 이스라엘 영토의 북방 한계이고(신3:8; 4:48; 수11:3, 17; 12:1; 13:11; 대상5:23) 이 산의 남쪽 기슭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다(마16:13).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산들 지도 참조(53).

● 헤만(Heman, 히먼, 신실한) I. 유다 지파의 유명한 현인(왕상4:31).

II. 고향의 후손 레위 사람. 그는 성전 음악의 악장이었으며 시편 88편은 그의 작품이다(대상6:33; 16:41-42).

● 헤브론(Hebron, 히브론, 연합) 가나안의 고대 도시 중 하나. 이곳은 이집트의 주요 도시 소안이 지어지기 7년 전에 세워졌다(민13:22). 이곳의 옛 이름은 기랴트아르바였고(아르바 참조) 마브레였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기 거주했고 여기에 묻혔다(창14:13-24; 23:2-19; 35:27).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참조(19).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통치를 받으며 가나안 족속과 아나 족속들의 손에서 이곳을 빼앗아 레위 사람들의 도시로 배정하였다(수14:13-15; 15:13; 21:11-13; 사1:10, 20). 다윗은 처음에 7년 동안 유다만을 다스릴 때 이곳에서 통치하였고(삼하2:3; 5:5) 압살롬은 여기서 반역의 깃발을 들었다(삼하15:9-10). 이곳은 후에 르호보암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언급되었으나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느11:25). 에스골, 마므레 참조.

● 헤스본(Heshbon, 헤쉬반, 계수하다) 암몬 족속의 도시. 이곳은 요르단의 입구에서 동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수13:10; 13:17) 처음에 르우벤에게 배정되었으나 후에 갓에게 주어지고 또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곳은 시혼이 모압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자기의 수도를 삼은 곳이며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을 차지했다(민21:25; 수21:39).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멸망을 당해 유프라테스 너머로 끌려간 뒤에 모압 사람들은 이곳을 회복했다(사15:4; 렘48:2, 34, 45).

● 헬갓핫수림(Helkathhazzurim, 헬캐스해주림, 영웅들의 터) 기브온 근처의 장소. 다윗과 이스보셋의 군사들은 여기서 요압과 아브넬의 인도를 받아 싸움을 벌이다가 많이 죽었다(삼하2:16).

● 헬본(Helbon, 헬반, 삼림) 포도와 포도즙으로 유명한 시리아 혹은 레바논의 도시(겔27:18). 이곳의 포도즙은 다마스쿠스 주변에서 만들어져서 두로에 보내졌으며 품질의 우수성과 향기 면에서 레바논의 포도즙과 비슷했다(호14:7). 포도즙 참조.

● 헵시바(Hephzibah, 헵시바, 내 기쁨) 므낫세 왕의 어머니(왕하21:1). 이것은 또한 영광을 얻을 유대 민족을 가리키기도 한다(사62:4).

● 헷 족속(Hittites, 히타이트) 가나안의 아들인

헷의 후손들(창10:15). 그들은 아브라함 당시 헤브론 근처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었으며(창15:20-21)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정복되었지만(출3:8; 수3:10)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았다.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헷 족속이었다(삼하11:3). 솔로몬은 그들에게 일을 시켰고(왕상10:29; 왕하7:6)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하나의 백성/민족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스9:1). 가나안 족속 참조.

● 혀(Tongue) 혀는 문자적 의미의 혀를 가리키며 말이나 방언을 가리키기도 하고(신28:49; 행1:19) 공통 언어를 가진 민족을 가리키기도 한다(사66:18; 계11:9). 상징적으로 혀는 칼처럼 혹은 뱀처럼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사64:3; 140:3). 활처럼 혀는 거짓을 쏠 수 있으며(렘9:3) 속임수로 가득하다(렘9:8). 혀는 공격용 무기로 쓰일 수 있으며(렘18:18) 날카로운 칼처럼 상처를 낼 수 있다(시57:4). 혀는 아침하는 데 쓰이고(시5:9; 잠28:23) 비방(시15:3; 잠25:23), 속임(시50:19), 거짓(시109:2; 잠26:28), 논쟁(시31:20), 저주(호7:16)에도 쓰인다. 성도들은 자기 혀를 제어해야 한다(약1:26). 혀는 사람의 영의 지표로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마12:33-37; 15:18; 눅6:43-45).

● 혈루증(血漏症) 피가 나오는 병(마9:20).

● 형벌(Punishments) 고대의 형벌은 민속과 시대에 따라 또 범죄에 따라 크게 달랐다.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영원토록 정착된 제도였으나 다만 개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사형이 면제되었다(창4:14-15). 한편 홍수 이후에 사형 제도는 다시 확고히 세워졌고(창9:5-6) 광야에서도 확인되었으며(민35:9-34) 인류 사회 구축구석에서 널리 인정되었다.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사형 방법은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었으나(신13:9-10; 17:5; 요8:7)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목을 매는 방법(왕하10:6-8; 마14:8-12), 절벽의 바위에서 떨어뜨리는 방법(대하25:12; 눅4:29), 목을 매는 방법(수8:29; 예7:10), 불로 태우는 방법(단3:1-30), 몸을 찢어서 죽이는 방법(단2:5; 3:29; 히11:37), 바위가 달린 구조물에서 때려서 죽이는 방법(히11:35), 들짐승에게 내어주는 방법(단6:1-28; 고전15:32), 익사시키는 방법(마18:6),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요19:18) 등도 도입되었다. 가벼운 형벌에는 채찍질(레19:20; 고후11:24), 배상(출21:23-25; 신19:19), 투옥(대하16:10; 마4:12), 차포(행16:24), 유배(계1:9), 개인적인 고문(대하18:26; 사50:6; 마18:30; 히11:37) 등이 있다.

● 형상(Image)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본뜬 것.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고후4:4; 골1:15; 히1:3) 이는 그분께서 본질이나 특성 면에서 하나님과 같음을 뜻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창1:27) 영적, 지적,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의와 거룩함 면에서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음을 뜻한다. 그러나 죄를 지은 뒤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상태의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창5:3). 모든 사람은 죄 많은 아담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져야만 한다(고전15:47-49; 고후3:18).

욥4:16에 나오는 형상은 꿈꾸는 자에게 마치 실제처럼 보였다. 형상이라는 말은 종종 진짜 물체를 뜻하기도 하며(시73:20; 히10:1) 종종 거짓 신을 나타내기도 한다(단3:1-30). 하나님은 모든 종교적 경배에서 어떤 종류의 형상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다(출20:4-5; 신16:22; 행17:16; 롬1:23). 처음으로 기독교에 형상들이 들어온 것은 4세기 후반이며 그때에도 반대가 많았다. 현재 천주교회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상을 많이 만들고 그것들에 경배하면서 십계명의 둘째 명령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출20:4-5; 32:4-5; 신4:15; 사40:18-31; 요4:23-24; 계22:8-9). '형상을 둔 방'(겔8:7-12)에는 이집트 신전의 벽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각종 우상 숭배 그림이 벽에 그려져 있었다.

● 형제(Brother) 성경에서는 여러 용례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먼저 이 단어는 같은 부모에게서 난 아들을 뜻했고(마1:2; 눅6:14; 요7:3; 행1:15) 사촌이나 가까운 친족(창13:8; 14:16), 같은 줄이나 지역에서 난 사람(마5:47; 행3:22; 히7:5), 동료나 같은 연배의 사람(마5:23; 7:3), 사랑하는 사람(삼하1:26),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행9:30; 11:29)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다. 마12:46-50; 13:55-56; 막3:31-35에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그의 어머니와 누이들과 함께 언급되는데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었다.

● 호렙(Horeb, 호렙, 사막, 메마른 곳) 출3:1; 17:6; 33:6; 신1:2, 6, 19; 왕상8:9; 19:8; 대하5:10; 시106:19; 말4:4 등에 나오는 산. 어떤 이들은 이곳이 시내 산의 낮은 부분 혹은 봉우리라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은 시내 산이 위치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 호르(Hor, 호어, 산) 아라바의 동쪽 세일 산 근처에 있는 원추형의 산.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잘려나간 원추형의 산으로 여기에는 아주 거친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민20:22-29). 대제사장 아론은 이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민33:38).

● 호르마(Hormah, 호마, 과일). 가나안의 최남단 도시(민21:1-3). 이곳은 스밋이라고도 불리며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해에 여기서 많이 죽었다(민14:45). 후에 이곳은 폐허가 되었으나(삿1:16-17) 시므온 족속이 여기에 살기 시작했고(수19:4)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서 전리품을 탈취하여 그중 일부를 여기로 보내었다(삼상30:30).

● 호리 족속(Horites, 호라이츠) 세일 산에 거주하던 초기 종족. 그들은 Horim(호림)이라고도 불리며

후에 에돔 족속은 그들을 여기에서 몰아내었다(창14:6; 신2:12, 22). 그들은 욥30:6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동굴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종족으로 나뉘었다(창36:20-30).

● 호멜(Homer)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건강 단위로써 고르와 동일하며 10바스 혹은 10에바이다(겔45:14). 고르, 에바 참조.

● 호바(Hobah, 호바, 죄)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 오기 위해 군사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 다마스쿠스 북부의 한 지역(창14:15).

● 호박(Amber) 식물의 수지가 석화된 보석. 이것은 황색, 적갈색을 띠며 투명 또는 반투명하고 퇴적암 속에서 발견되며 발트 해에서는 해안에서 그물을 쳐서 투명하고 아름다운 호박을 건져 내곤 했다(겔1:4; 8:2).

● 호박(Ligure)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던 보석 중 하나(출28:19; 39:12).

● 호밥(Hobab, 호뎀, 사랑받는 자) 라구엘 혹은 르우엘의 아들(민10:29). 어떤 이들은 그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은 그가 이드로의 형제였다고 생각한다. 히브리 사람들이 시내 산을 떠날 무렵에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유리하고 또 그가 광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세의 요청에 따라 그들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삿1:16; 4:11).

● 호산나(Hosanna)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말. 히브리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하였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것은 메시아 그분께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원한 것이었다(마21:9). 이것은 또한 즐거운 장막절에 유대인들이 반복해서 외친 기쁨의 소리였다(시118:25-26).

● 호세아(Hosea, 호제이아, 구원) 열두 명의 소대언자 중 첫째 인물. 그는 웃시아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근 60여 년 동안 대언하였고 그의 대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인용된다(마9:13; 롬9:25-26; 뱀전2:10).

● 호세아(Hoshea, 호쉬야) 북 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는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며(왕하15:30) 9년 동안 통치하다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혹은 사르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다(왕하17:1-6; 18:9-12).

● 호수(Lake) 이 말은 게네사렛 호수와(눅5:1-2; 8:22-23, 33) 최종 지옥인 불 호수(계19:20; 20:10, 14-15; 21:8)를 가리킬 때에만 쓰였다.

● 혼(Soul) 성경에서 혼은 사람을 구성하는 몸과 혼과 영의 세 요소 중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므로 문맥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 참조. 사람의

세 요소 선도 참조(61).

혼의 불멸은 계시 종교의 근본 교리이며 고대 족장들은 이 같은 진리를 확신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고대하며 그 안에서 약속들을 받았다(창50:24; 민23:10; 삼상28:13-15; 삼하12:23; 욥19:25-26; 전12:7; 히11:13-16 비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등이 죽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임을 보여 주시고(마22:32) 또 생명과 혼의 불멸 그리고 혼의 소중함 등을 몸소 보여 주셨다(마16:26; 고전15:45-57; 딤후1:10).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을 부여하는 부분인 혼이 숨 속에 있으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혼이 떠난다고 믿었다(창35:18),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혼'이라는 말은 짐승에게 적용되는 경우 종종 생명으로 번역되었다(창2:7; 7:15; 욥12:10; 34:14-15; 시104:29; 행17:25). 이처럼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는 생명의 의미를 지닌 혼이 공통으로 존재하지만 짐승의 경우 혼, 즉 생명은 몸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랑과 사고를 지배하는 불멸의 혼이 있다. 바로 이 혼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확연히 구별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다(창1:26). 혼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혼은 생각하고 영원히 불멸하기 때문이다. 사람, 영혼멸절설 참조.

성경에서 혼은 많은 경우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2:7; 고전15:45 비교).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출12:15).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전도하는 것은 '혼을 구원하다'의 뜻을 가진 soul winning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혼을 구원하셨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행2:41). 또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하신다. "외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잠11:30).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535회 나오는데 기준 우리말 성경은 히4:12같이 꼭 혼이 나와야 되는 구절에서만 이 단어를 혼으로 번역했고 대부분의 경우 '영혼' 혹은 '자'(者) 등으로 바꾸어서 혼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혼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혼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 선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혼잡(Confound) 여럿이 한데 뒤섞이어 어수선

함(창11:7).

● 흘(Scepter, 막대기) 왕이나 행정권자가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손에 든 막대기 혹은 장식 지팡이. 이것의 길이는 1.8미터나 되기도 하였다(창49:10; 민24:17; 예4:11; 5:2; 사14:5; 숙10:11). 막대기 참조.

● 홉니(Hophni, 헤프나이, 올챙이) 홉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엘리의 사악한 두 아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직위와 위치를 악용하여 주 하나님께 극도로 사악한 죄를 지어 자기들의 아버지 엘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결국 전쟁에서 죽었고 자기들의 가문에 불명예를 가져왔다. 그들이 혹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삼상2:1-36; 3:1-21; 4:1-22). 엘리 참조.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만 보호한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처럼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비느하스 2 참조.

● 홍마노(Sardonyx) 홍보석과 마노가 결합된 듯한 보석(계21:20).

● 흥보석(Sardine) 핏빛을 내는 빨간색 보석(출28:17; 계4:3).

● 흥해(Red Sea) 바다 참조.

● 화(Evil) 온갖 재앙과 액화.

● 화(Woe) "누구에게 화가 있을지이다"라는 표현은 대개 어떤 일을 한 당사자에게 어떤 재난이 내릴 것을 간구하는 경고의 표현이지만 "내게 화가 있다"(사6:5) 혹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도다!"(마24:19)라는 말은 "나의 고통과 고난이 슬프다!" 혹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보통 성경에서 woe라는 말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렘2:6, 9, 12, 15, 19; 습3:1).

● 화답(和答) 시나 노래에 서로 응하여 대답함.

● 화덕(Oven) I. 불로 뜨겁게 한 모래. 고대 사람들은 불을 뻘 뒤 반죽을 그 위에 놓고 앞뒤로 돌려가며 빵을 구웠으며 그것을 돌리지 않으면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다(호7:8).

II. 위가 트여 있는 1미터 높이의 돌 항아리. 이것은 위에서 밀로 갈수록 넓게 만들어졌고 각 가정은 이것을 최소한 하나 소유했다(출8:3). 사람들은 나뭇가지나 풀을 써서 화덕을 태우고 안과 밖에 반죽을 올려놓았다.

III. 돌 위에 얹어 놓은 철판(호7:4, 6).

● 화목제(Peace offerings) 화평 헌물. 희생물 참조.

● 화살(Arrow) 고대 사람들이 사냥을 하거나 싸

을 때 사용한 무기. 어떤 경우에 이것은 단순히 갈대를 뾰족하게 해서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화살에 깃털을 달기도 하고 독을 묻히기도 했다(욥6:4). 활은 여러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힌센 용사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시18:34). 화살은 또한 원수의 집에 불을 붙이거나 점을 치는 데도 사용되었다(겔21:21).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했고(시127:4-5) 번개(시18:14; 합3:11), 갑작스러운 재앙(욥6:4; 시38:2; 91:5; 겔5:16) 혹은 악한 혀에서 나온 쓴 말(시64:3; 120:4)을 가리키기도 했다.

● 화친(Make a league) 서로 의중계 지내는 정분.

● 화평(Peace)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사람의 완전한 것, 건전한 것, 복지 등의 의미를 가졌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시119:165). 이 말은 또한 안전(사26:3), 행동(시122:6-7), 전쟁이 없는 것(삼상7:14) 등을 뜻했고 '살롬'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 인사는 화평을 간구하는 것이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얻는 평온함을 뜻하며 메시아 예언과도 관련이 있다(사9:6-7). 그리스도의 출생 때에 천사들은 이런 화평을 선포하였고(눅2:14) 예수님도 산상설교와(마5:9) 주의 만찬에서 이런 화평에 대해 말씀하셨다(요14:27). 사도 바울은 이런 화평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한다(롬5:1).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상황에 맞추어 화평, 평화, 평안 등으로 번역되었다.

● 화평 헌물(Peace offering) 기존 우리말 성경의 화목제. 희생물 참조.

● 화해(Reconciliation) 성경에서 이 말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당사자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삼상29:4).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로 인해 양자가 분리되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롬5:8) 그렇다고 해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불가능하다(히10:27).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사람의 죄는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된다. 그래서 반목하던 둘이 다시 화목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과정을 화해라고 한다. 화해는 사람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일이며(롬5:8, 10; 골1:22; 고후5:18) 그래서 복음은 화해의 말씀이다(고후5:19). 그리스도는 자기 형제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을 고백하고 보상할 것을 보상하며 화해를 이루어 그와 함께 화평을 이루라고 명령하신다(마5:23-24).

● 화해 헌물(Propitiation) 범죄로 인하여 진노를 쏟아내는 당사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바치는 헌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롬3:25). 오직 그분의 완전한 희생만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율법의 진노를 막는다(요일2:2; 4:10). 구약 성경에서 이에 해당하는 말은 속죄(민5:8), 죄 헌물(겔44:27) 그리고 언약계의 뚜껑 등이 있다(레16:14; 히9:5) 긍휼의 자리 참조.

● 확신(Assurance)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날부터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신자의 특권이다(눅10:20; 고후5:1, 6-8; 딤후3:14; 요일5:13). 이 확신은 각 사람이 만들어 낸 환상 - 가령 스스로 가치가 있다거나 영원한 구원에 적절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 - 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사랑과 감사와 순종의 동기가 된다(눅22:32; 히10:22).

● 환난(Tribulation) 큰 근심과 재난.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만(행14:22) 이런 환난은 말세에 이 땅에 닥칠 큰 환난(마24:21)과는 완전히 다르다.

● 환난기(Tribulation) 다니엘의 70이레 중 마지막 한 이레의 7년. 칠십 이레 선도 참조(78).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회복을 보여 주기 위한 이정표로 다니엘에게 칠십 이레, 즉 490년을 말씀하셨으며 이 중 앞부분의 483년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나머지 한 이레, 즉 7년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이 기간은 보통 7년 환난기라 불린다. 칠십 이레 참조. 이 기간에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단9:27).

이 예언에 따라 유대 민족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나타날 그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에 의거하여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의 신성한 장소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며 자기들이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 조약은 처음으로 7년으로 정해질 것이나 그 기간의 중간에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었던 그 통치자는 느닷없이 이스라엘에게 희생물과 봉헌물 드리는 것을 그만두라고 강요함으로써 그 조약을 파기할 것이다. 그 통치자가 이런 희생 제사 의식을 그만두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이미 그런 희생 제사 의식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며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 의식의 회복이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의 핵심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은 또한 이 때에 유대인들이 유랑 생활에서 돌아와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정식 정부를 수립했음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였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협약을 깨뜨리는

이유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널리 퍼뜨리기 위함이다. '가증함'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널리 퍼뜨린다'는 말은 '끝까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경건치 못한 통치자는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창조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가장 극도의 우상 숭배로 대체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때쯤 그는 서방 국가들의 연합체를 확고히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며 그들이 자기에게 절대 복종하고 따를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는 복구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 자신의 거대한 신상 - 아마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신상 - 을 세울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에 대해 경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살후2:3-4). 이를 거부한 자들 특히 그 더럽힌 성전에서 예배하던 유대인들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가증하며 무서운 행동은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서글프게 할 것이다. 이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으며 그는 또한 앞으로 올 이 통치자의 정체가 누구인가도 보여 주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2:3-4).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엄중한 경고를 주시면서 다니엘의 예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 주셨다(마24:15-21; 참조 단12:1). 이런 구절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문맥에 맞지 않으며 이 말씀은 다니엘의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린다(렘30:7). 이런 대환난기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이레, 즉 7년의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마24:22)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의 이 짧은 기간에 세상의 통치권을 획득할 큰 짐승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이미 말을 전한 그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단7:25).

이 3년 반,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기간은 단12:7에도 언급되어 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에 걸쳐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이레, 즉 마지막 7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계시록에 1,260일이라고 기록된 기

간은 성경의 예언의 햇수로 정확히 3년 반이며 두 중인이 사역하는 기간이다(계11:3). 그래서 환난기는 전반부 3년 반과 후반부의 대환난기 3년 반을 합쳐서 정확히 7년이 되며 이 기간 전체를 보통 '7년 환난기'라 부른다.

이러한 엄청난 공포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 자든 장성한 자든 모두 공중으로 들려져서 하늘에서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한다(살전 4:13-17). 휴거 참조. 물론 환난기에 엄청난 수의 성도가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가 아니다(계7:9-17). 아마도 그들은 두 중인과 144,000명의 유대인 증인들의 전도와 그리고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읽음으로써 구원받게 될 것이다(계14:6-7).

현 세상의 마지막 7년 동안 발생할 구체적인 사건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계시록은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기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취합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전하고 있다. 환난기의 전반부 3년 반은 계시록 6-9장에 묘사되어 있고 후반부 3년 반은 16-19장에 묘사되어 있다. 계시록의 중심 장인 10장부터 15장은 마지막 7년 기간의 중간 부분에서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처음 창조 때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미래를 조감하며 보여 주는 삽입부이다.

비록 다니엘의 70이레의 마지막 반인 후반부 3년 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마24:21)과 예레미야 대언자가 언급한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가 될 것이지만 그 이레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땅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계시록의 두 증인은 땅 위에 전쟁, 기근, 역병, 지진, 해일, 불, 운석 폭발, 길은 암흑, 심지어 지옥의 구덩이에서 무서운 마귀 형상의 떼들을 불러내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 환상(Vision) 사람이 깨어 있는 상태나 혹은 잠자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초자연적으로 계시되는 현상(사6:1-13; 겠1:1-28; 단8:1-27; 행26:13). 꿈 참조. 신약 성경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이나 환상 등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

- 활(Bow) 전쟁이나 사냥에 많이 쓰이던 고대의 무기. 이것은 나무나 뿔이나 쇠로 만들었으며(창 27:3; 시18:34) 활을 사용해서 그것을 휘게 했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활집에 넣어서 운반했다(합3:9). 메나님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다(대상 12:2; 대하14:8; 17:17). 무기 참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속이는 활'(시78:57; 77:16)이라는 표현은 잘못 만들어져서 목표한 것을 맞추지 못하는 활을 의미한다. 활(시위)은 종종 범죄자들을 향한 심판을 뜻하고(시7:12) 거짓을 뜻하기도 한다(렘9:3).

- 활시위(Bow) 활대에 걸어서 쐬기는 줄. 화살을

여기에 걸어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화살이 날아간다.

● 황새(Stork)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모두 사랑, 공활 등을 뜻하는데 이는 황새가 자기 부모를 버리지 않고 돌보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렘8:7의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안다.”는 말씀은 황새의 이주 본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세는 황새를 부정한 새로 분류하였다(레 11:19; 신14:18).

● 황소(Bulls) 비옥한 바산 지방에서 목자가 없이 자란 황소들은 강하고 사나워서 자기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 주변을 빙빙 돌며 발로 그를 짓밟기도 했다. 그래서 이것들은 힘이 많고 사나운 원수들을 가리킬 때 비유적으로 ‘바산의 황소’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시22:12; 68:30; 사34:7). 소 참조.

● 황옥(Topaz) 페그마타이트 및 페그마타이트성 석영맥에서 산출되는 규산염광물 보석. 황옥은 화성암의 최종 결정화 시기에 남겨진 플루오르 함유 증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순수한 황옥은 거의 무색이지만 황색, 청색, 갈색의 여러 색조를 띠기도 한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흉배에 있는 열두 보석 중 하나였다(출28:17; 39:10; 욥28:19; 겔28:13).

● 황폐(Desolation) 주로 거칠고 피폐함을 뜻하나 성경에서는 피폐하게 되어 홀로 외로운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 회개(Repentance)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가뭇 유다처럼 단순히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하는 경우에도 영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다(마27:3). 여기서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들릴 곳을 찾지 못하였다는 히2:17 말씀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행한 것, 즉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창27:1-46). 한편 성경은 하나님도 ‘repent’하신다고 표현하는데(창6:6; 욥3:9-10 등) 이것은 결코 그분께서 사람처럼 무언가 잘못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다만 그분께서 어떤 일에 대해 심히 슬퍼하는 것이나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사람이 마음을 바꾸듯 마음을 바꾸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지은 것을 미워하며 그것을 철저히 중요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마4:17; 행3:19; 11:18; 20:21; 26:20). 따라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참된 회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뒤에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에서 발견된다(시51). 신약 성경에서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며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다(눅13:3, 5). 예수님은 또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눅15:10).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줄곧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행2:38; 3:19; 20:21; 26:20).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과(행8:22; 히6:1)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행20:21; 계16:9).

성경의 회개는 기도(왕상8:47), 믿음(막1:15), 침례(행2:38), 회심(행3:19), 겸손(마11:21) 등과 관계가 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눅15:7-10; 벰후3:9) 동시에 그분의 명령이다(막6:12; 행17:30). 따라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며 그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고백한다고 말하며(요일1:9) 성도의 삶에서 이 일은 평생 지속된다. 고백 참조.

● 회당(Synagogue) 이 말은 원래 집회를 뜻하지만 교회와 비슷하게 후에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야외나 혹은 대언자들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다. 시74:8의 회당은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뜻하며 신약 시대의 회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열 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큰 마을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으며 그래서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는 회당이 매우 많았다.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으므로 회당은 마치 지역 교회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였고(눅7:5) 천국의 열쇠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만 460-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회당은 대개 높은 곳에 지었으며 건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서쪽은 울림서가 담긴 계가 있으므로 신전이라 불렸고 동쪽은 사람이 모이므로 회당의 몸이라 불렸다. 사람들은 신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앉았고 장로들은 사람들을 마주 보고 반대편에 앉았다. 장로들이 앉는 곳은 좀 더 귀한 곳으로 생각되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마23:6). 여인들은 격자창 등으로 구분된 발코니에 앉았다. 모든 회당에는 직분을 가진 열 사람이 있었고 그중에서 회당의 치리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였으며 그다음

으로는 회당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중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 등을 담당하였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목사들은 이런 연유로 천사로 불린 듯하다(계2:3).

사람들이 앉으면 회당의 천사가 강단에 올라가 공중 기도를 하고 이때에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하였다(마6:5; 막11:25; 눅18:11, 13). 유대인들의 회당은 경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장소이기도 하였으며 그래서 종종 회당에서 매를 맞는 모습이 나온다(마10:17; 막13:9; 행22:19; 26:11; 고후11:24). 회당에서 내쫓기는 출회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다(요9:22; 12:42; 16:2). 출회 참조.

● 회상(Call to remembrance) 돌이켜 생각함(딤후1:5).

● 회오리바람(Whirlwinds)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이런 바람이 자주 발생한다(욥37:9; 38:1; 나1:3). 대부분 이런 바람은 그리 강력하지 않지만(사17:13) 가끔씩 일어나는 강풍은 나무와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해서 여행자들은 산 채로 모래 기둥에 깔리거나 빨려 들어간다(욥1:19; 사21:1). 그래서 갑작스레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오리바람에 비교되곤 한다(시58:9; 잠1:27; 사66:15). 바람 참조.

● 회중(Congregation) 예배나 종교적 교훈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것 혹은 이런 회합에 모인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정해진 모임을 뜻한다. 유대인들은 이런 모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 등을 깊이 생각했다. 히브리 사람은 가정, 가정의 집합인 가족, 가족의 집합인 지파, 지파의 집합인 회중에 속하였으므로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라는 말은 히브리 백성 전체를 뜻한다(출12:6). 후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 회중을 대표했다.

● 회향(Anise) 미나리과의 여러해살이풀. 이것은 곧게 1-2미터 자라고 가지가 갈라지며 녹색이고 털이 없는 식물로서 7-8월에 열매를 맺으며 이 열매는 회향이라 불린다. 회향유는 이것의 열매를 증류하여 얻은 기름인데 여기에는 아네토와 테레빈유가 있으며 이것들은 향기와 단맛이 있으므로 향료로 쓰인다. 유대인들은 회향의 십일조를 드렸다(마23:23).

● 회향나무(Box tree)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라는 상록수(사41:19; 60:13; 겔27:6). 이 나무는 특히 조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 획(Tittle) 어떤 히브리 문자의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마5:18). 히브리 성경을 기록(필사)하면서 유대인들은 정확성을 기했고 그래서 또 페이지와 각 줄은 정확한 양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여기저기 조금이라도, 즉 1획이라도 벗어나면 전체 두루마리를 버렸다. 그러므로 서기관에게는 1획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이런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필사된 히브리 성경은 원본과 다름이 없었으므로 주님께서 "율법의 일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다(눅16:17). 히브리어 참조.

히브리 글자에서 획의 중요성

	히브리어 자음	이름	음역
1	ר	레쉬	r
2	ד-דִּ	달레트	d
3	ה	헤	h
4	כ-כִּ	헤트	k

● 후매네오(Hymeneus, 하이머너스) 에베소 교회의 회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그는 이단에 빠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부활 교리를 부인하였다. 딤후1:20에 처음 나올 때 그는 교회에서 제명되었으나 딤후2:17-18에 두 번째 나올 때에도 여전히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 후새(Hushai, 휴사이, 빠르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시 밖에서 그를 만나 옷을 찢고 흠을 머리에 뿌리며 가슴 아파하였다. 다윗은 그가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소식을 주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그는 돌아가서 아히도넬의 계락을 물리쳤다. 그는 다윗에게 계락을 알려 주어 시간을 벌게 했으며 그 결과 압살롬의 조언자인 아히도넬은 목매어 자살하고 압살롬은 패하게 되었다(삼하15:32-37; 16:16-19; 17:1-29).

● 후위대(Rearward) 군대의 뒷부분을 지킨 강한 군대(수6:13; 사52:12; 58:8).

●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는 것.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유토피아가 건설되면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설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 없이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전천년 믿음, 천년 왕국 참조.

● 휘장(Vail, veil) 성막과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막.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때에 찢어졌고(마27:51) 이로써 누구나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훈육(訓育) 품성 등을 가르쳐어 기쁨.
 ● 훈육 선생 혹은 감독 교사(Schoolmaster) 고전 4:15; 갈3:24-25에 나오는 이 말은 어린 아이를 맡아서 세상의 초등 율리를 가르치며 적당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보내는 일을 맡은 감독 교사를 뜻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년기를 담당하는 감독 교사로 그 안의 예표와 예언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을 갖게 되면 율법의 역할은 끝난다. 유대인들의 학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신6:7-9; 11:18-20). 아마도 그들의 초등 교육은 종교 교사나 혹은 나이가 든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스도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글을 읽고 쓴 것으로 판단된다.

- 홀(Hur, 허, 흰 것)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유명 인사. 그는 르비딕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였고 또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갈 때에 아론과 함께 백성을 다스렸다(출17:10; 24:14).

- 홀다(Huldah, 헨다) 요시아 왕 시대의 여대언자. 요시아 왕은 그녀에게 사람들을 보내 새로 발견된 율법서에 기록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게 하였다(왕하22:14-20; 대하34:22-28).

- 휴거(Rapture)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비밀리에 지구의 대기권 내로 들어오시는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는데 이것을 보통 휴거라 한다. 재림 참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살전4:16-17).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휴거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잘 알려 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요11:25-26)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선도와 다니엘의 칠십 이레 선도 참조(64, 78).

사도 바울은 불멸의 부활 장에서 휴거의 급박함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고전15:51).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휴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다. 그분은 마치 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 도둑은 자신이 오는 시각을 미리 알리지 않으며 특별한 목적을 갖고 들이닥친다. 도둑은 집 안에 있는 것을 다 털어 가지 않으며 금과 같은 보석과 귀중품만 훔쳐 간다. 그는 결코 그 집에 머무르려고 오지 않으며 귀중한 물건만 챙기면 즉시 떠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중에 강림하실 때, 즉 휴거가 일어날 때에 자신의 보배인 성도들만 데려가신다. 믿음이 많은 자든 적은 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는 다 휴거된다.

휴거가 일어난 뒤에 온 땅에는 7년 동안 무서운 환난이 있으며 특히 후반부 3년 반은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게 된다. 환난기 참조. 이때는 마귀가 자신의 모든 악을 퍼붓는 때며 세상의 창건 이래로 가장 두려운 때이다. 주님께서서는 믿는 신자들이 이런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계3:10).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keep from’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환난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서 떼어내어 아예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keep과 전치사 from이 쓰일 때는 언제나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모두 7년 환난기 전에 휴거를 받으며 이것은 보통 ‘환난 전 휴거’라 불린다.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받은 성도들은 어린양의 신부로 하늘에서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 주님께서서는 결혼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환난 전에 공중 강림하시고 혼인 만찬이 끝나면 신부와 함께 땅으로 내려 오신다. 이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려 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눅12:36). 주님께서서는 하늘의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와 함께 다시 오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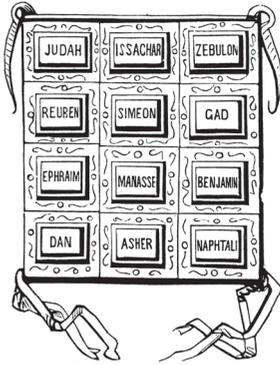
또한 7년 환난기는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기간이며 이방인들이 주축인 교회와 상관없다. 칠십 이레, 환난기 참조.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교회 성도들은 휴거되어 이 땅에 없기 때문이다. 이 환난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만(계7:9)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다.

교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시킬 휴거는 이 시대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며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이 사건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있다.

- 흉갑(Breastplate) 전투 갑옷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판막이.

- 휴계(Craft) 음충맞고 모진 피.

- 흉패(Breastplate) 가로세로 25센티미터 정도의 수놓아 만든 물품(출28:15-30). 대체사장은 이것을 자기의 가슴에 걸쳤는데 이것은 에봇을 만들 때 사용한 물품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으며 앞에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림과 둠뿔을 거기에 넣었다고 랍비들은 주장한다. 한편 흉패의 앞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열두 개의 보석이 네 줄로 달려 있었고 네 귀퉁이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 에봇의 고리들과 연결되었다. 또 청색 끈들을 사용해서 에봇과 흉패의 고리들을 묶어 흉패를 에봇의



정면에 부착시켰다.

- 흠(Blemishes) 구약 시대에는 흠이 있는 남자나 짐승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희생물이 될 수 없었다(레21:18-20; 22:20-24). 이 같은 규정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흠 없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 흠정(欽定) 왕이 품소 제정함. 제임스 왕이 제정한 킹제임스 성경은 보통 '흠정역 성경'으로 불린다. 킹제임스 성경 참조.

- 흥하다(Increase) 번성하여 잘 되어 가다.

- 희년(Jubilee, 주빌리) 50년마다 치르는 히브리 사람들의 명절. 이것은 7년이 일곱 번 지난 뒤에 왔다(레25:10). 희년의 '주빌리'라는 말은 '소리 나다' 혹은 '호르다'를 뜻하며 희년이 다가옴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가리켰다. 희년에는 아무도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았으며 땅이 저절로 내는 것들로 자기 필요를 채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속물을 되찾았고 히브리 사람으로 종이 된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유를 얻었으며(레25:1-55) 처음 9일 동안은 축제를 벌이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으며 머리에 관을 쓰지 않았다.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산헤드린은 바로 이날 나팔을 불게 하였으며 종들은 곧바로 자유를 얻고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법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많은 땅을 영원히 소유하거나 빛이 너무 늘어나거나 사람이 영원토록 종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었다. 이로 인해 히브리 사람들 간에는 어느 정도 평등이 유지되었고 땅은 원래의 지파에 따라 영원히 구분되어 나뉘었으며 모든 사람의 계보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를 통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배분해 주는 분이며 자기들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하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라"(레25:23). 안식년 참조.

- 희락하는 집(House of mirth) 기존 우리말 성경에서 이것은 혼인집으로 되어 있으나 이 말은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모든 집을 뜻한다(전7:4).

- 히1:8-9(Hebrews 1:8-9) 이 구절은 본래 이스라엘 왕을 위해 지은 시45:6-7을 인용한 것이므로 거기에서는 2인칭 대명사 'thou', 'thy' 등을 '왕'으로 번역했으나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대언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대명사 'thou', 'thy' 등을 '주로' 번역했는데 이는 우리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 영어나 원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 히12:18-24(Hebrews 12:18-24) 바울은 18-21절에서 항상 두려워하며 주를 섬기던 구약 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22-24절에서는 신약 시대, 즉 교회에 속한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신약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약 시대 성도들보다, 심지어 모세보다 더 나은 것을 지녔음을 증언한다(23절; 참조 엡3:1-6).

- 희생물(Sacrifice) 하나님의 제단에서 합법적인 사역자가 하나님께 바친 헌물. 원래의 희생물은 일반 봉헌물(oblotion)과는 달랐다. 왜냐하면 희생물은 말 그대로 생명을 희생시켜 드리는 헌물이고 봉헌물은 단순한 헌물 혹은 예물이기 때문이다. 희생제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임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의지 숭배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아벨 참조. 아담과 그의 아들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욥과 벨기세텍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고 모세의 율법은 단지 희생물을 드리는 때와 희생물의 수와 질 등을 규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장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희생물을 골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율법 수여 이전에는 가족의 대표(대개는 장자)가 이 일을 맡아서 했고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아론의 가족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한 군데서만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곳은 성막 - 후에는 성전 - 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이었고 여기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공적으로 경배를 드렸다(레17:4, 9; 신12:5-18).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왕과 대언자와 재판관들이 다른 곳에서 희생물을 드리기도 하였다(삿2:5; 6:26; 13:16; 삼상7:17; 왕상3:2-3; 18:33). 유대인들은 다른 이교도들과는 달리 인신 제물 드리는 것을 금하였고 그것을 반역하는 일로 여겼다(레20:2; 신12:31; 시106:37; 사66:3; 겔20:31).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희생물이 있었다.

I. 번제 헌물(The burnt offering or holocaust)은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나 제사장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 단 제사장은 가죽을 취하였다 - 희생물 전체를 태우는 것이다.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가죽을 벗기고 발과 내장을 깨끗이 씻었다(레1:1-17; 7:8). 모든 번제 헌물에는 일반적인 죄를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속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물을 전체로 태우는 것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뜻하였고 희생물 편에서는 속죄의 완성을 뜻하였다.

II. 죄 헌물(Sin offerings)에는 범법 헌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죄 헌물은 번제 헌물과는 달리 무지함으로 지은 특정한 죄나 율법을 범한 것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헌물을 바치는 사람은 희생물을 가질 수 없고 제사장은 일부를 가질 수 있었다(레4:1-35; 5:1-19; 6:1-30; 7:1-10).

III. 화평 헌물(Peace offering)은 서원을 성취하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드리기나(감사 헌물) 개인의 헌신을 충족시키기 위한(자원 헌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 중에서 마음대로 골라 화평 헌물을 드렸다(레3:1-17; 7:11-34). 이 경우 율법은 단지 희생물이 흠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화평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성막 문에 와서 희생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것을 죽였으며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해 번제 헌물 제단 주변에 붓고 아랫배의 기름, 즉 콩팥과 간과 내장을 담은 기름은 제단에서 태웠다. 그것들을 제단 불에 태우기에 앞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헌물 드리는 사람의 손에 들려 주고 그가 그것들을 높이 들어 올려서 세상의 사망을 향해 흔들게 하였다. 물론 이때에 제사장은 그의 손을 붙들어서 방향을 가리켰다. 이 희생물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는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이 일 후에 나머지는 그것을 드린 사람의 몫이 되었고 그는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그것을 먹었다(레8:31). 화평 헌물은 속죄를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하며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의 원활한 교제를 뜻하였다.

한편 가난해서 죄 헌물의 짐승을 희생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음식 헌물을 희생물로 대신 드릴 수 있게 했다(레5:11-13). 그들은 음식 혹은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묻혀서 희생 헌물로 드렸다.

그러면 제사장은 모든 유향과 밀가루 한 움큼을 제단의 불에 뿌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그것을 먹어야 했으며 단지 제사장만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 다른 헌물과 과일과 포도즙과 음식과 빵 등은 제사장이 일부를 제단에 던지고 나머지를 소유하였으며 이런 헌물에는 반드시 소금과 포도즙이 동반되었으나 누룩은 넣을 수 없었다(레2:1-16).

새나 염소를 놓아주는 헌물은 피를 흘리지 않고 희생물을 살려 두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희생물이 아니었다. 새를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는 세 가지였다. (1)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살 만한 여력이 없을 경우(레5:7-8). (2)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례를 위한 경우(레12:6-7). 여인이 어린양과 비둘기를 드릴 수 있을 때에는 두 가지를 다 드리되 어린양은 번제 헌물로, 비둘기는 죄 헌물로 드렸다. 그러나 어린양을 드리지 못할 경우 짐비둘기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드렸다. (3) 나병에서 나온 사람은 참새 두 마리를 취해 한 마리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 헌물로 살려서 놓아주었다(레14:4, 49-51).

유월절 어린양에 대해서는 유월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성전에서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 헌물로 일 년 되고 흔 없는 어린양 두 마리를 드리되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드렸다(출29:38-40; 민28:3). 이것들은 오랫동안 태워야 하므로 작은 불로 전체를 태웠다. 아침에 드리는 어린양은 금 향단에서 향을 드린 뒤에 해가 떠오를 때, 다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드렸고 저녁에 드리는 어린양은 밤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드렸다. 한편 각각의 어린양과 함께 포도즙과 순수한 기름과 고운 밀가루 등도 드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히브리 사람들의 희생물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를 덮었을 뿐이며 양심과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히10:1-4). 그것들은 죄인들에게 잘못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분되는 일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였지만 거룩함과 청의를 주지는 않았다. 이런 희생물들은 단지 하나님의 어린양, 즉 그 모든 희생물의 미덕과 은혜를 다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과 예표였다. 유월절 어린양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의 희생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 주었다(히9:9-15; 10:1). 따라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런 모든 예표를 성취하셨다(고전5:7; 히10:8-10). 이스라엘의 헌물 제도 선도 참조(59).

그분께서는 단 한 차례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 드리심으로(히10:10) 모든 희생물을 대체하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원토록 구원하셨다(엡5:2; 히9:11-26). 이같이 거룩하신 분의 속죄 희생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한편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제사장들이 미사라는 희생 제사를 매주 몇 차례씩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일회성과 영원성을 무시하고 있다. 미사 참조.

죄지는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물이 대신 죽는 것은 구약 시대에 흔한 일이었으며(레16:21; 신21:1-8; 사53:4; 단9:26) 짐승 희생은 한결같이 이것을 보여 준다(레4:20, 26; 5:10; 14:18; 16:21).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짐승 희생물의 생명이요 혼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주님 앞에 부어 그것이 죄인을 대신해서 완전히 부서짐을 보여 주었다(레17: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의지하여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피해야 함을 교육받았다. 다시 말해 회개와 믿음과 개혁이 없이 그것들만 드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고 그들은 배웠다(잠21:27; 렘6:20; 암5:22; 미6:6-8).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희생물이 아니라 공물을 원하신다고 말하며(호6:6; 마9:13) 최선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막12:33).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니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삼상15:22-23; 참조 시50:1-23; 잠21:3; 마5:23).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린 사람은 헛되이 헌물을 드린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대언자들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사40:6; 사1:11-14; 호6:6; 율2:12-18; 암5:21-22).

끝으로 희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심금에도 적용되는데 이때에는 성도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뜻한다(롬12:1; 빌4:18; 히13:15-16; 뱀전2:5).

● 흰 돌(White stone) 계2:17의 돌은 고대 올림픽 게임에서 승자에게 그의 이름이 기록된 돌을 준 것과 상관이 있고 또 고대의 법정에서 흰 돌과 검은 돌을 이용하여 판결을 내린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단지 속에 재판관들이 넣은 돌이 모두 희면 재판관들의 결정은 피고에게 호의적이었다.

● 흰 왕좌 심판(White throne judgment)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희고 큰 왕좌에 앉아서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불 호수에 던져 넣으신다(계20:11). 심판 참조.

● 흰머리(Gray hair) 노인의 센 머리. 흰머리는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며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며(레19:32; 잠16:31; 단7:9; 계1:14) 야곱의 경우에는 죽

는 것을 뜻했다(창42:38; 44:29, 31; 호7:9). 흰머리가 되기까지 오래 사는 것은 의로운 생활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잠16:31). 흰머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보여 주는 실례이다(사46:4).

● 히람(Hiram, 하이람, 고상한 자의 형제) I. 두로의 왕. 그는 다윗이 왕좌에 오르자 축하의 말을 전하고 그의 궁궐을 짓는 일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다(삼하5:11; 대상14:1). 그는 후람이라고도 불린다(대하2:3).

II. 두로의 왕. 이 사람은 전자의 아들로 추정되며(대하2:11-12) 역시 다윗의 친구였다. 그는 솔로몬이 통치하자 그것을 축하하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하였다. 그는 나무와 돌 그리고 많은 양의 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곡물과 포도즙과 기름과 갈릴리의 스무 도시를 받았다(왕상5:1-18; 대하2:1-18). 가불 참조.

III. 두로의 기술자.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으며 그는 솔로몬 성전의 내부 장식과 기구들을 만들었다(왕상7:13-14; 대하2:13-14).

● 히브리 사람들(Hebrews, 히브루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었으며(창14:13) 오래 산 족장들 중의 마지막 사람인 헤벨(혹은 에벨)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창10:25). 그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자신의 6대 후손들보다 더 오래 살았으며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얼마 동안 이삭과 야곱의 조상 중 유일한 조상으로 살아남아 있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말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대인들의 명칭이다. 유다에서 나온 유대인들이라는 명칭은 후에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다(왕하16:6). 유대인 선도 참조(72).

유다 민족의 창시자인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목자로서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구히 거할 처소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물과 초장을 따라 여기 저기 이동하였으며 유랑하는 목자로서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고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도 그의 발자취를 따랐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불렀다. 그들은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 뒤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첫 세대는 죽고 모세도 죽었다. 그 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에게 그것을 배분해 주었다. 이때부터 그들은 신정(神政) 통치하에서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부족의 치리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렀다.

그 뒤에 왕정이 시작되어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의 뒤를 이었으며 그의 가족은 바빌론 사람들의 침략이 있기까지 유다 왕국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시대에 통일 왕국은 분열되어 북쪽의 열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을,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서로 대적하며 지내게 되었다. 이 두 왕국은 결국 많은 거주민들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감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70년 동안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히브리 사람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고 민족을 재건하려 하였으나 먼저 마카비(마카베오) 시절에는 시리아에 근거를 둔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 그리고 후에는 로마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 사람들은 주후 70년 티투스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그 뒤에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수립되기까지 유대인들은 독립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땅의 모든 민족들 사이로 들어가 타국인으로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통치 체제는 신정 통치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발휘하시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체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 체제는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재판관들과 왕들과 대제사장들 시대에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외적 통치 체제는 변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주로 여겨졌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진영 한가운데서 왕으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언제나 조언을 주시고 새로운 법들을 제정하며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정 통치 체제였다. 여호수아와 재판관들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들의 통치가 이어졌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움직였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행하였으며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로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재판관이요 대언자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삼상8:6-7).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셨으나 여전히 주권을 행사하시고 모든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셨다.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족장들 시대에 그들은 직접적인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였으며 기도와 희생 예물을 통하여 그분께 경배하고 우상 숭배와 무신론을 배격하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봉인으로 할례를 베풀고 진심으로 하

나심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믿음의 빛을 허락하는 법규들을 따랐다. 그들은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분이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요셉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바른 진통을 지키려 한 사람들의 종교였다. 모세 시대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는 좀 더 구체적 형태를 띠게 되었고 예식과 날과 명절과 희생 예물 등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완전한 것들, 즉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과 불멸을 가져와 빛에 이르게 할 것들의 예표로 그림자였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상 숭배를 기습에 품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들과 우상을 피하라는 강력한 율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표적 등도 그들의 가슴 속에 간직된 우상 숭배 성향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였고 사울과 다윗도 그들의 강한 성향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궁중 앞에서 감히 하지 않는 미신적인 행위들을 몰래 사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들은 산당에서 희생물을 바쳤고 점치는 자들과 마술사에게 물었다. 심지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그는 페니키아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거짓 신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고 자기 아내들이 그런 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또 스스로 그것들을 동경하였다(왕상11:5-7).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연약함을 보였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숭배를 도입하였고 이것은 너무 깊게 뿌리를 내려 완전히 박멸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를 빼앗긴 채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우상 숭배 참조,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영광의 주님을 거절하고 죽이면서 자기들의 죄의 잔을 가득히 채웠으며 그 결과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1948년 5월에 국가로 부활하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저주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그들이 이렇게 나라 없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도 다른 민족과 달리 유대인이라는 정체를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유대인들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가장 먼 나라인 중국과 티베트에게까지 퍼졌고 페르시아와 북인도 등과 같이 여행자들이 다닌 모든 곳에 들어갔다. 또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간 지역에도 여전히 그들의 후손들이 있고

아라비아와 이집트와 아프리카 전역에도 많이 있다.

II. 그들이 거주한 모든 지역에서 그들은 험웃거리로서 경멸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제앙과 악한 일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III. 이 모든 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특징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속죄일을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든 율월절을 지켰다.

IV. 그들에게는 여러 분과가 많아서 어떤 이들은 랍비들의 전통과 탈무드에 명기된 것들을 굳게 지키고 다른 이들은 이런 것을 다 거부하며 성경의 규제만을 준수한다.

V. 그들의 대부분은 유대자 자기들의 땅이며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수도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디에, 얼마나 오랫동안 정착하든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예언에 따라 결국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 히브리어(Hebrew)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셈족어에 속한 언어로서 아라비아를 포함한 서부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등지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히브리어는 거룩한 말이라 불렸으나 바빌론 포로 때에 혹은 귀환 후에 아람어가 백성의 일상어로 자리잡으면서 대개 종교적인 용도로만 쓰이게 되었고 특히 신약 시대에는 아람어가 팔레스타인에서 일상어가 되었다.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분(단 2:4-7:28; 스4:8-6:18; 7:12-26; 렘10:11 등)을 빼고는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아람어 참조.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이 22개의 자음으로만 구성되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는다. 1. 알레프 2. 베포트 3. 기벨 4. 달레트 5. 헤 6. 와브 7. 자인 8. 헤트 9. 테트 10. 요드 11. 카프 12. 라메드 13. 멤 14. 눈 15. 짜메크 16. 아인 17. 페 18. 차테 19. 퀴프 20. 레쉬 21. 쉰 22. 타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 부호 없이 읽었는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으면서부터 빠르게 읽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마소라들이 모음 부호를 고안하고 이것을 자음의 상하에 붙여 전통적인 읽기 법을 표시하였다. 히브리어는 간결함, 곧비름, 웅장함 등

에 의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가장 적합하였다. 마소라 참조.

● 히스기야(Hezekiah, 헤지키야아, 여호와는 힘이시다) 유다의 경건한 왕. 그는 사악한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업적은 왕하 18-20; 대하29-32에 기록되어 있다(사36-38 비교). 그의 통치는 주님께 경배하는 일을 회복한 것과 아시리아 사람들을 격퇴한 것 그리고 질병에 들었다가 회복해서 15년 동안 평화롭게 지낸 것 등으로 유명하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사악한 아들 므낫세가 오랫동안 통치하였다.

● 히스나무(Heath) 사막이나 바위가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이것은 종종 강 옆에서 자라는 나무와 대조를 이룬다(렘17:5-8; 48:6).

● 히에라폴리스(Hierapolis, 하이어아폴리스) 브루기아의 도시. 이곳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온천으로 유명했다. 여기에 기독교회가 설립되어 신실한 성도 에바브라의 사역지가 되었다(골4:12-13).

● 히엘(Hiel, 하이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여호수아가 500년 전에 저주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건축한 벤엘 사람(수6:26). 그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의 저주가 성취되었고 이는 그의 이름의 뜻이 진리임을 보여 준다(왕상16:34).

● 히위 족속(Hivites, 하이바이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 중 하나. 가나안 족속 참조.

● 히기온(Higgaion, 히게이언) 시9:16에 나오는 이 말은 묵상이나 간구를 하기 위한 심포로 보인다.

● 힌(Hin) 히브리 사람들의 액량 단위(출29:40; 30:24; 레23:13; 겔45:24). 이것은 1 에바(혹은 바스)의 육분의 일이었으며 3.6리터 정도 된다.

● 힌놈(Hinnom, 힌암) 힌놈의 골짜기 혹은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의 좁은 골짜기로 기드론 계곡으로부터 서쪽으로 올라가서 기혼 계곡을 통과한다. 이곳은 예전에 물이 많았고 나무가 많았다. 유다와 베나민의 경계가 여기를 지나갔으며(수15:8; 18:16; 느11:30) 이곳의 남동부 깊은 곳의 실로암 근처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자녀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몰렉에게 바쳤다(왕상11:7; 왕하16:3; 렘32:35). 몰렉 참조. 이러한 가증한 희생물을 드린 장소는 도벳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사30:33; 렘7:31) 이는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도프'에서 나왔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죽이기 위해 복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요시아 왕은 이곳을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더럽혔으며(왕하23:10) 후대에 유대인들은 여기에 각종 쓰레기와 짐승의 사체 그리고 범죄자들의 사체를 던지고 역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을 피웠다. 이런 것에서 게헨나의 불이 유래되었으며 이것은 사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불타는 것을

보여 준다. 지옥 참조. 지하 세계 선도 참조(81).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의 두 구절을 사용하여 힌놈 혹은 게헨나의 골짜기의 불이 미래에 사악한 자들이 지옥 불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분께서 그곳(도벳)을 깊고 넓게 만드셨으며 불과 많은 나무로 그곳의 더미를 쌓으셨으니 주의 숨이 유향 시내같이 그곳에 불을 붙이느니라”(사30:33). “그 사자들(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사 66:24). 유대인들은 이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들로 해석하였으며 이런 연

유에서 그들은 힌놈의 골짜기, 즉 게헨나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사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받는 장소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 게헨나는 신약에서 항상 지옥으로 번역되었다(마5:22, 29-30; 10:28; 막9:43, 45, 47; 눅12:5; 약3:6). 지옥 참조.

- 힐기야(Hilkiah, 힐카이야, 여호와의 뭉) 요시야 당시의 신실한 대제사장(왕하22:4). 대언자 예레미야와 엘리야김의 아버지도 같은 이름을 가졌다(왕하18:18; 렘1:1).

- 히데겔(Hiddekel, 히디켈) 에덴동산의 강들 중 하나. 이것은 현재 티그리스 강으로 알려져 있다. 에덴 참조.



